

매일의 하나님 말씀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중에서)

묵상용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目 录

[내용 소개](#)

[제 1 장 크리스천의 삶](#)

[제 1 절 3 단계 사역](#)

[제 2 절 하나님의 현현과 사역](#)

[제 3 절 말세 심판](#)

[제 4 절 성육신](#)

[제 5 절 하나님의 사역 알아 가기](#)

[하나님의 사역 알아 가기\[1\]](#)

[하나님의 사역 알아 가기\[2\]](#)

[제 6 절 하나님의 성품, 소유와 어떠하심](#)

[제 7 절 성경의 비밀](#)

[제 8 절 종교 관념 폭로](#)

[제 9 절 인류의 패괴 폭로](#)

[인류의 패괴 폭로\[1\]](#)

[인류의 패괴 폭로\[2\]](#)

[제 10 절 생명 진입](#)

[생명 진입\[1\]](#)

[생명 진입\[2\]](#)

[생명 진입\[3\]](#)

[생명 진입\[4\]](#)

[생명 진입\[5\]](#)

[생명 진입\[6\]](#)

[제 11 절 종착지와 결말](#)

[제 2 장 하나님 알아 가기](#)

[하나님 알아 가기\[1\]](#)

[하나님 알아 가기\[2\]](#)

[하나님 알아 가기\[3\]](#)

[하나님 알아 가기\[4\]](#)

[하나님 알아 가기\[5\]](#)

내용 소개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대를 열고, 말씀으로 사역의 방식을 바꾸며, 말씀으로 전체 시대의 사역을 행한다. 이것이 말씀 시대에 하나님이 사역하는 원칙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각기 다른 위치에서 말씀함으로써 사람에게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기묘함을 보게 한다.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사람을 정복하고 온전케 하며 도태시키기 위한 목적을 더 잘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 시대에 말씀으로 사역하는 진정한 함의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알고, 사람의 본질을 알며, 사람이 진입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 시대에 행하려는 모든 사역을 이루는 한편, 사람을 드러내고 도태시키고 사람에게 시련을 준다. 사람은 말씀을 보고 들었기에 말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 나아가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게 된 것이다. ‘말씀’이라는 단어는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성육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천지를 진동시키고, 사람의 마음과 고정 관념, 그리고 옛 성품을 변화시켰으며, 온 세상의 낡은 면모를 변화시켰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말씀하며 사람을 구원한 분은 오직 오늘날의 하나님밖에 없다. 이로부터 사람은 말씀의 인도 아래에서 살고, 말씀의 양육과 공급으로 살게 되었다. 또한 말씀의 세계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의 저주와 축복 속에서 살게 되었으며, 더 많은 사람이 말씀의 심판과 형벌 속에서 살게 되었다. 이러한 말씀과 사역은 다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옛 창조 세계의 원래 모습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으며, 말씀으로 온 우주 사람을 인도하고 정복하고 구원하며,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옛 세상을 끝낸다. 이렇게 해야 전체 경륜의 모든 부분이 완성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나라시대는 말씀 시대이다> 중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너희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일을 이루고자 한다.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내고, 진리를 실행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삼고 실체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말씀을 실행하여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잡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사역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되겠느냐? 현재 많은 이들이 하루 이틀만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아도 매우 답답해하며, 매일 말씀을 봐야 하고, 시간이 없으면 듣기라도 해야 한다고 한다. 성령은 사람에게 이런 느낌을 주고,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키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사람을 제어하고,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네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어둠과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답답해할 것이다. 이는 네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며, 성령이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너는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하루 이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아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며 아무런 감동도 없다면, 이는 성령이 너를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내적 상태에 문제가 있고 말씀 시대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이니, 뒤쳐진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제어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좋다고 느껴지고, 먹고 마시지 않으면 행할 길을 잃게 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양식과 동력이 된 것이다. 예전에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고 한 바 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 사역을 이룰 것이다. 그는 너희에게서 이 사실을 이루고자 한다. 과거에는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도 밥도 잘 먹고 일도 잘 했었는데, 왜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고 온전케 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에게 생명과 광명, 그리고 실행할 길을 줄 수 있다. 특히 하나님나라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네가 하나님 말씀의 실재를 떠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나라시대는 말씀 시대이다> 중에서

나는 우주 전체에서 나의 사역을 하고 있다. 동방에서 끊임없이 우레 같은 음성을 발하여 각 나라와 교파를 뒤흔들었으며, 나의 음성으로 사람을 오늘까지 이끌어 왔다. 나는 사람을 나의 음성으로 정복하여 모두를 이 흐름 속으로 빠지게 하며, 내 앞에 복종시킨다. 이는 내가 이미 온 땅에서 영광을 거두어 동방에서 새롭게 비추었기 때문이다. 누군들 내 영광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누군들 내가 돌아오기를 갈망하지 않겠느냐? 누군들 내가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누군들 나의 사랑스러움을 그리워하지 않겠느냐? 누군들 빛을 따라오지 않겠느냐? 누군들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보지 않겠느냐? 또 누군들 ‘구속주’가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누군들 위대한 능력자를 흠모하지 않겠느냐? 나의 음성은 온 땅에 전해질 것이다. 나는 선민을 향해 더 많은 음성을 발할 것인데, 큰 우레처럼 산천을 뒤흔들 것이다. 나는 온 우주와 인류를 향해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진귀한 보물로 귀히 여긴다. 번개가 동방에서 서방까지 번쩍인 것이다. 사람들은 나의 말을 떠나기 아쉬워하고 측량하기 어려워하며, 또한 나의 말로 인해 기뻐한다. 모두 갓난아기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돌아온 것을 경축한다. 나는 음성을 발해 모든 사람을 내 앞으로 이끌어 올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본격적으로 인류 가운데 들어가 모든 사람이 내게 와서 예배하게 할 것이다. 나는 영광을 비춤으로써, 또 입으로 말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오게 하여, 번개가 동방에서 나타났고 또한 내가 동방의 ‘감람산’에 강림했고 땅에 왔음을, 나는 더 이상 ‘유대의 아들’이 아니라 동방의 번개임을 보여 줄 것이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부활하여 사람을 떠났다가 다시 영광을 지니고 인간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는 만세 전에 사람들이 경배했던 자이고, 만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렸던 ‘아기’이며, 더욱이 영광으로 충만한 이 시대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을 나의 보좌 앞으로 데려와 내 영광의 얼굴과 내 행사를 보여 주고, 내 음성을 들려줄 것이다. 이는 내 뜻의 전부이자 내 계획의 마지막이고 절정이며, 내 경영의 근본 취지이다. 바로 모든 나라가 예배하게 하고, 모든 입이 인정하게 하며, 만민이 신뢰하게 하고, 만민이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일곱 우레가 크게 울리다— 하나님나라의 복음이 전 우주로 퍼져 나갈 것을 예언하다>
중에서

지난날 하나님이 말씀했듯, 천년하나님나라(역주: 천년왕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인도하여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으로 지시하였으며, 하늘에서 양식과 물, 만나를 내려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친히 먹고 마실 것을 내려 사람에게 베풀고, 친히 저주를 내려 사람을 형벌한다. 그러므로 각 단계의 사역을 전부 하나님이 친히 행한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사람은 사실이 임하기를, 또 이적과 기사를 보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런 자는 버림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점점 더 실제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것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과 자양품을 내렸지만 그것을 아는 자 또한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다. 사람이 상상하는 천년하나님나라의 활기찬 광경 역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땅에서 왕권을 잡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땅에서 왕권을 잡는다는 말은 육신을 가리킨다. 육신이 아니라면 땅에 있을 리 없다. 그러므로 셋째 하늘에 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의 소망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언젠가 온 우주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온 우주의 사역은 하나님이 발한 음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화나 레이저로 하나님이 발한 음성을 받아들이고, 비행기나 배를 타고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앙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행사이다. 한 가지 명심해라! 앞으로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일은 절대로 없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은 온 우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현하러 오고, 땅의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의 사역을 모두 중단했으니, 사람은 참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 예전에 먹을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양식을 가지고 있던 요셉에게 가서 그를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도 굶주림의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참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 현재 종교계 전반에는 심각한 기근이 들었다. 오직 오늘날의 하나님만이 생수의 원천이고 사람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베풀어 주기에 모두가 그에게 의탁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행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니 온 우주 위아래의 사람들이 모두 와서 불품없는 이 ‘사람’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날 아니겠느냐? 언젠가는 환갑에 가까운 목사도 전보를 보내 생수의 원천을 찾고 구할 것이다. 연로한 육신을 끌고 와서 한때 자신들이 업신여기던 이 사람에게 경배할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것이다. 이것이 이적과 기사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날, 온 나라가 기쁨으로 들끓을 것이며,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얻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나라도, 그런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축복과 보살핌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추세가 나타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사람은 땅에서 나아갈 길이 있게 된다. 반면, 장사를 하든, 과학 연구를 하든, 교육이나 공업에 종사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 참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있으면 온 세상을 두루 다닐 수 있고, 진리가 없으면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이 바로 이러하다. 하나님은 ‘길’(‘길’이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킴)로써 온 우주 위아래를 통제하고, 인류를 다스리며 정복한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 방식에 더 큰 전환점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통제하므로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한다. 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니,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 또한, 이는 대세의 흐름이자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천년하나님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집집마다 전파될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역이 전 우주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역을 전 우주로 확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부터 확장해야 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권병과 위력을 드러내는 날이 되면,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오늘날까지 한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 이뤄지고 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땅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권세를 잡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한 말씀으로 인해 모든 악인이 형벌을 받고 모든 의인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이적이나 기사도 나타내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실이 나타나는 것이다.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이 칭송할 것이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고 또 땅에서 사람이 생생하게 보게 한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 된 것’이다. 하나님이 땅에 온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이 육신 되는’ 이 사실을 이루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은 육신에서 말씀하고(구약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발한 것과는 다름) 그것을 천년하나님나라시대(역주: 천년왕국시대)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사람이 볼 수 있는 사실로 나타냄으로써 말씀과 사실이 조금의 차이도 없다는 것을 직접 보게 한다. 이는 하나님이 성육신 된 크나큰 의의이다. 즉, 육신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영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 되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다’는 말의 진정한 함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의 뜻을 말할 수 있고, 오직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만이 영을 대신하여 음성을 발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육신한 하나님을 통해 나타난다. 그 외의 모든 사람은 그의 말씀의 인도 아래에서 살아가며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니다. 사람은 그의 음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를 통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을 얻으려는 생각은 깨끗이 단념하는 것이 좋다. 이는 성육신한 하나님이 나타낸 권병으로서 모든 사람이 믿고 복종하게 한다. 아무리 권위 있는 전문가나 교계의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할 수 없다. 모두가 말씀 앞으로 돌아와 복종할 것이며, 누구도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정복하려 한다. 성육신 하나님의 육신이 아니라 친히 발한 음성으로 온 우주 위아래의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 된 것이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대단한 사역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면 모두 탄복을 금치 못하고, 놀라서 입이 딱 벌어질 것이다. 사실이 없다며 요란하게 떠들어 대던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모두 입을 다물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말씀이 땅에 왔다는 이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일찍이 정해 놓은 계획이기 때문이다. 사실, 굳이 내가 짚어 줄 필요도 없다. 천년하나님나라가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왔다는 뜻이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와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마음, 생각과 함께한다는 의미이다. 이것 역시 하나님이 이루려는 일이자 천년하나님나라의 아름다운 광경이다. 이는 하나님이 정해 놓은 계획이다. 즉 말씀이 땅에서 천 년 동안 나타나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나타내고,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류는 일단락을 짓게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천년하나님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 중에서

제 1 장 크리스천의 삶

제 1 절 3 단계 사역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

나의 전체 경륜, 즉 6 천 년 경륜은 최초의 율법시대, 은혜시대(구속시대), 최후의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 총 세 시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나의 사역 내용은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각 단계의 사역은 모두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한 것이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사탄과 싸울 때 사탄이 꾸민 간계에 따라 행한 것이다. 이는 사탄을 물리쳐 나의 지혜와 전능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 사탄의 간계를 드러내 사탄의 권세하에서 살아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또 이는 나의 지혜와 전능을 나타내고, 추하기 그지없는 사탄의 몰골을 드러내는 동시에, 나아가 피조물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었다. 즉, 나는 피조물로 하여금 내가 만물의 주재자임을, 사탄은 인류의 원수이자 변절자이고 악한 자임을 분명히 알게 하는 한편, 선과 악, 진리와 그릇된 이치, 거룩함과 더러움, 위대함과 비열함을 뚜렷이 구분하게 하려 했다. 나는 이 무지한 인류가 나를 증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인류를 패괴시킨 건 ‘내’가 아니며, 오직 창조주인 나 자신만이 인류를 구원하고 사람에게 누릴 것들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또한 내가 바로 만물의 주재자이며, 사탄은 창조된 후 배반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내가 6 천 년 경륜을 세 단계로 나누어 사역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피조물이 나를 증거하고, 나의 뜻을 깨달으며, 내가 진리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6 천 년 경륜의 첫 사역을 율법 사역으로 시작했다. 이는 여호와가 백성들을 인도한 사역이었다. 두 번째 단계인 은혜시대에는 유대의 각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예수는 은혜시대의 모든 사역을 대표한다. 그는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또한 은혜시대를 열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 사역을 완성했고, 율법시대를 끝내고 은혜시대를 열었기에 ‘사령관’, ‘속죄 제물’, ‘구속주’라고 불린다. 그러므로 예수와 여호와가 행한 사역의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원칙은 동일한 것이다. 여호와는 율법시대를 열어 땅에서 사역할 근거지, 즉 발원지를 세웠으며 율법과 계명도 반포하였다. 이는 여호와가 행한 두 가지 사역으로, 율법시대를 대표한다. 한편 예수가 은혜시대에 행한 사역은 율법을 반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런 방식으로 은혜시대를 열면서 2 천 년간 지속된 율법시대를 끝냈다. 그는 은혜시대를 열러 온 개척자지만, 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니 뭐니 해도 구속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행한 사역 또한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새 시대를 연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 사역을 완성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떠났다. 그때부터 율법시대가 끝나고, 은혜시대가 시작되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구속시대 사역의 실상>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

6 천 년 경영 사역은 율법시대, 은혜시대, 그리고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의 3 단계로 나뉜다. 이 3 단계 사역은 모두 인류, 즉 사탄에 의해 심하게 파괴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사탄과 싸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구원 사역이 3 단계로 나뉘고 사탄과의 싸움도 3 단계로 나뉘며, 이 두 부분의 사역은 동시에 진행된다. 사실, 사탄과의 싸움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한 단계 사역으로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사탄과의 싸움도 단계와 시기를 나누어 진행되며, 인류의 필요와 사탄에 의해 파괴된 정도에 따라 사탄과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싸움’이라고 하면 사람은 두 군대가 맞붙어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 간에 벌어지는 전쟁을 상상한다. 이것은 그저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지극히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구상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서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은 바로 사탄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은 3 단계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사탄과의 싸움은 3 단계로 나뉘며, 이를 통해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게 된다. 하지만 사탄과 싸우는 모든 사역의 실상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되며, 사람의 죄를 사해 주고, 사람을 정복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등의 몇 단계 사역을 통해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탄과의 싸움은 사탄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의 생명을 만들고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다. 즉, 사람의 파괴 성품을 변화시켜 사탄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사탄을 물리치고 나면, 그러니까 사람을 철저히 구원하고 나면 수치당한 사탄을 단단히 결박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완전히 구원받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의 본질은 사탄과 싸우는 것이고, 사탄과의 싸움은 대부분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구현된다. 사람을 정복하는 최종 단계 사역은 사탄과 싸우는 마지막 사역, 즉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하는 사역이다. 사람을 정복한다는 것은 사탄에 의해 파괴된 사탄의 화신을 정복하여 창조주에게 돌아오게 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사탄을 저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면 철저히 구원받게 된다. 그러므로 정복 사역은 사탄과 싸우는 마지막 사역이자 사탄을 물리치는 마지막 단계의 경영이다. 이 단계의 사역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사람을 완전히 구원할 수도, 사탄을 완전히 물리칠 수도 없으며, 인류는 영원히 아름다운 종착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으면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도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 경영 사역의 핵심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과 파괴로 사람은 사탄에게 속박당해 악한 자의 손아귀에 떨어졌다. 이로 인해 사탄은 경영 사역에서 물리칠 대상이 되었다. 사탄이 사람을 점령했고, 사람은 또 전체 경영의 밀천이기에 사람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와야 한다. 즉, 사탄에게 사로잡혀 간 사람을 다시 빼앗아 와야 한다. 그러려면 사람의 옛 성품을 변화시켜 본래 이성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사탄을 물리쳐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로잡혀 간 사람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다. 사람이

사탄의 권세와 결박에서 벗어나면 사탄은 수치를 당한다. 결국 사람을 빼앗아 오고, 사탄은 패하게 된다. 사람은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므로써 모든 싸움의 전리품이 되겠지만, 사탄은 싸움이 끝난 후에 징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사역도 끝을 맺게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람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사람을 아름다운 종착지로 이끌어 간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사탄을 물리치는 것뿐, 피조물에 대해서는 어떤 악감정도 없다. 형벌이든 심판이든 그의 모든 사역은 사탄을 겨냥해 하는 것이고,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이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것으로, 목표는 단 하나, '사탄과 끝까지 싸운다! 꼭 사탄을 이기고야 말 것이다! 사탄을 이길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모든 사역은 사탄을 겨냥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탄에 의해 파괴된 사람은 모두 사탄의 권세 아래에 통제되어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사탄과 싸워 끝을 내지 않으면 사탄은 사람들을 풀어 주지 않으며, 사람들은 하나님께 얻어지지 못한다. 사람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사탄을 물리치지도, 사탄과 싸워 이기지도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6 천 년 경륜 중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율법의 사역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은혜시대의 사역, 즉 십자가의 사역을 했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인류를 정복하는 사역을 한 것이다. 이 사역들은 모두 사탄이 사람을 파괴시킨 정도에 따라 한 것이고,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어느 단계 사역이든 다 사탄을 물리치는 데 목적이 있다. 6 천 년 경영 사역의 본질은 큰 붉은 용과 싸우는 것이고,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은 사탄을 물리치는 사역이자 사탄과 싸우는 사역이다. 6 천 년 동안 싸우면서, 즉 6 천 년 동안 사역하면서 마지막에는 사람을 한 경지로 인도하는 것이다. 사탄이 패하면 사람은 완전한 해방을 얻는다. 지금의 사역이 바로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사람을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며, 그 어떤 규례에도 속박받지 않고 그 무엇에도 얽매이거나 통제받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의 사역 추세이다. 모든 사역은 너희의 분량과 필요에 맞춰 진행된다. 다시 말해, 너희가 닿을 수 있는 만큼 공급하지, 건목수생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모든 사역은 너희의 실제 필요에 맞춰 진행된다. 각 단계의 사역은 다 사람의 실제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하며,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사실 처음에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간격이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초래한 것이다. 사탄이 사람을 교란하고 파괴시켜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게 되었다. 사람은 피해자이자 기만당한 자이다. 사탄을 물리치면 피조물은 창조주를 볼 수 있고, 창조주도 피조물을 보며 친히 인도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있어야 할 삶이다. 그러므로 주 사역은 역시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라 하겠다. 사탄을 물리치면 무슨 일이든 다 해결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람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사람을 아름다운 종착지로 이끌어 간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

하나님은 전체 경륜의 사역을 모두 친히 행한다. 세상을 창조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친히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인류를 창조할 수 없는 것이다. 온 인류를 구속한 두 번째 단계도 하나님이 친히 한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끝을 맺는 사역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더더욱 그가 친히 해야 한다. 모든 인류를 속량하고, 정복하고, 얻고, 온전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신분을 대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도 없다.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 인류를 얻기 위해, 또 인류가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한다. 모든 경륜과 사역을 위해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행해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은 그저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 주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인식은 아무런 가치도, 의의도 없다. 그것은 너무나도 알팍한 인식이다!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친히 행해야만 이 사역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할 수 있다. 사람이 한다면 그를 대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고, 설사 한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 첫 번째 성육신은 속량을 위한 것, 즉 인류를 죄에서 속량해 정결케 하고 죄를 사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정복 사역 역시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친히 행한다. 이 단계에서 하는 것이 예언뿐이라면 예언가,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시켜도 그만이다. 예언만 한다면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 사역, 사람의 생명을 만드는 사역이라면 사람이 할 수 없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해야 하고, 성육신하여 친히 행해야 한다. 말씀의 시대에 예언만 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사역할 필요 없이 이사야나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 시키면 된다. 그러나 이 단계의 사역은 예언에 그치지 않으며, 말씀 사역으로 인류를 정복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사역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해야 한다. 율법시대에 여호와와 일부 사역만을 행한 후, 선지자를 통해 약간의 말씀과 사역을 했다. 사람이 그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언가는 하나님을 대신해 예언을 말하고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 당시의 사역은 직접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었고, 사람의 죄와 무관했으며, 사람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그래서 여호와와 성육신하여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직접 모세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하려는 말씀과 행하려는 일을 하게 하고, 직접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게 했다. 첫 단계 사역은 사람을 인도하는 것으로,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것은 아니었다. 사탄과 본격적으로 싸운 것은 첫 번째 성육신 때부터 지금까지이다. 첫 번째의 싸움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사탄을 물리치고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직접 사람의 생명을 만들게 되면서부터 사람을 되찾아 오는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역은 사람의 옛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기에 사탄과 싸우는

사역이다. 여호와가 처음에 행한 사역은 그저 인류가 땅에서 살도록 인도한 것으로, 사역의 시작이었다. 그것은 그 어떤 싸움이나 큰 사역과도 관계가 없었지만, 훗날 싸울 사역을 위한 기반 다지기였다. 두 번째 단계인 은혜시대의 사역은 사람의 옛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 즉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생명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해야 했고, 반드시 직접 성육신해야 했다. 그 단계의 사역은 성육신한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다. 그것은 직접 사탄과 대결하는 사역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그 사역을 대신하여 하게 하면 사탄과 마주했을 때 사탄이 굴복하지 않으므로 물리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탄을 물리쳐야 한다.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은 여전히 하나님이고, 또한 사람의 생명이자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신분과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사역하여 사탄을 철저히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 마지막 단계의 사역을 사람에게 맡겨 직접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도 사람은 하지 못한다. 예언만으로는 사람을 정복할 수 없으므로 성육신을 통해 사탄을 물리치고 철저히 굴복시켜야 한다.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고 사람을 완전히 정복한 후 언으면, 이 단계 사역은 끝이 난다. 즉, 대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의 경영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 특히 시대를 이끄는 사역과 새로운 사역을 여는 일은 더더욱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해야 한다. 사람에게 계시와 예언을 주는 것 등은 사람이 대신하여 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하려는 사역, 사탄과 직접 싸우는 사역은 사람에게 시키지 않는다. 사탄과 싸우지 않은 첫 단계 사역에서 여호와는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전했고, 또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사탄과 싸우는 두 번째 단계 사역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성육신하여 육신을 입고 사역했다. 사탄과의 싸움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성육신과도 관련된다. 다시 말해, 사탄과의 싸움은 사람에게 시킬 수 없으며, 사람은 싸워 봤자 사탄을 물리치지 못한다. 사람이 아직 사탄의 권세하에 있는데 어떻게 사탄과 싸울 힘이 있겠느냐? 사람은 본래 중립적인 존재로, 사탄 쪽으로 기울면 사탄에 속하고, 하나님을 만족게 하면 하나님께 속한다. 그러니 이런 싸움의 사역을 사람이 대신하여 하게 한다면 할 수 있겠느냐? 그랬다면 진작에 목숨을 잃지 않았겠느냐? 이미 오래전에 황천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여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이 없기에 사탄과 싸우면 사탄을 물리치지 못한다. 사람이 일부 사역을 할 수 있고 일부 사람들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대신하여 할 수는 없다. 사람이 어떻게 사탄과 싸울 수 있겠느냐? 싸우기도 전에 사탄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사탄과 싸울 수 있다. 사람은 그것을 기초로 따르고 순종해야만 하나님께 얻어져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람은 지혜와 능력, 그리고 도달할 수 있는 수준에 한계가 있기에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 사람은 사람을 인도하지 못하며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사람의 총명과 지혜가 사탄의 계략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탄과 싸울 수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람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사람을 아름다운 종착지로 이끌어 간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은 총 세 단계로 나뉜다. 이 세 단계의 사역에는 창세 사역이 포함되지 않으며, 율법시대의 사역과 은혜시대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의 사역만 포함된다. 창세 사역은 온 인류를 탄생시키는 사역이지 구원하는 사역이 아니며, 인류의 구원과 무관하다. 창세 때의 인류는 사탄에 의해 패괴되지 않았기에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행할 필요가 없었다.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은 인류가 사탄에 의해 패괴된 뒤에야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 또한 인류가 패괴된 뒤에야 시작된 것이다. 즉, '경영'은 구원 사역의 시작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지, 창세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은 아니다. 경영 사역은 인류가 패괴 성품을 갖게 된 후 비로소 생겨났다. 그러므로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에는 세 부분만 포함되며, 네 단계나 네 시대가 존재할 수는 없다. 이야말로 정확한 설명이다.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 경영 사역은 이미 모두 끝났다. 경영 사역이 끝났다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이 이미 완전히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인류는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이 없다면 경영 사역은 물론, 3 단계 사역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인류가 타락한 데다가 구원이 시급한 상태였기에 여호와와 창세 사역을 끝내고 율법시대의 사역을 시작했다. 이로써 비로소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 즉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이 시작된 것이다. '인류를 경영한다'는 말은 막 창조된(패괴되지 않은) 사람이 땅에서 살도록 인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 패괴된 인류를 구원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패괴된 인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류 경영'에 내포된 뜻이다. 창세 사역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은 창세 사역을 제외한 3 단계 사역만 포함한다.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에 대해 알려면 반드시 3 단계 사역의 역사(歷史)를 알아야 한다. 이는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피조물로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인류가 패괴된 기원을 알고, 나아가 인류가 구원받는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몇몇 규례만을 지키며 하나님의 환심을 살 생각만 할 뿐,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지, 인류가 패괴된 기원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피조물로서 부족한 부분이다. 실행할 수 있는 일부 진리를 알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경영 사역의 큰 범주 안에 있는 일들을 하나도 알지 못하면 너는 너무 교조적이다. 3 단계 사역은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의 실상이자 온 세상에 임한 복음이며, 온 인류의 가장 큰 비밀이자 복음 전파의 근거이다. 네가 외곬으로 너의 생명과 관련된 간단한 진리만 알고자 하고, 이 가장 큰 이상(異象)과 비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면, 너의 생명은 빛 좋은 개살구와 다름이 없지 않겠느냐?

사람이 실행만 중시할 뿐,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기와 한 장 아끼다가 대들보를 썩히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알아야 할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실행해야 할 것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리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언젠가 네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공의롭고 위대하시며 지고지상하신 분이다. 그 어떤 위인도 하나님과는 견줄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다.”라며 중요하지 않은, 입에 발린 소리나 하면서 중요하고 실질적인 말은 전혀 꺼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며, 또한 진리를 명확하게 교제하지도 못하고 다른 이들의 내면에 부족한 것도 공급해 줄 수 없다면, 이는 본분을 잘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너는 먼저 진리와 깨달아야 할 이상을 갖춰야 한다. 네가 하나님 사역에 관련된 각 부분의 이상과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인식을 갖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도, 공의로운 심판이나 연단이 임해도 가장 큰 이상을 기반으로 하여 알맞게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든 그 근본 취지와 사역의 중심, 사람을 향한 뜻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그의 말씀이 아무리 엄하고 환경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그가 사역하는 원칙과 사람을 구원하는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결말과 종착지를 드러내는 기간이 아니라면, 또 마지막 사역이나 전체 경륜을 끝내는 사역을 하는 기간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 가는 기간이라면, 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는 사역의 중심은 언제나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너희 믿음의 토대여야 한다. 3 단계 사역의 근본 취지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다시 말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인류를 완전히 구원하는 것이다. 3 단계 사역은 각 단계마다 목적과 의의가 서로 다르지만 다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의 일부이다. 그것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다르므로 각기 다른 구원 사역을 행한 것이다. 네가 3 단계 사역의 근본 취지를 알면 각 단계 사역의 의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또 어떻게 실행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있을지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가장 큰 이상은 곧 하나님에 대한 네 믿음의 토대가 된다. 너는 일부 간단한 실행이나 심오한 진리만 추구해서는 안 되며, 실행과 이상을 결합해야 한다. 실행 부분의 진리도 갖추고 이상 부분에 대한 인식도 갖춰야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전면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3 단계 사역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

3 단계 사역은 전체 경영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함이 모두 3 단계 사역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3 단계 사역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되는 방식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사역하는 지혜도 모르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다양한 방식과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모른다. 3 단계 사역은 인류 구원 사역을 오롯이 나타내므로 3 단계 사역을 모르면 성령이 역사하는 다양한 방식과 원칙도 알 수 없다. 한 단계 사역에서 남겨진 규례만을 고수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규례에 국한하는 자들이자 막연한 신앙 속에 있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3 단계 사역만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구원의 전 과정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사탄을 물리치고 인류를 얻은 증거이자 하나님께서 승리한 증거이며,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의 발현이다. 3 단계 사역 중 한 단계의 사역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성품의 일부만 알 뿐이다. 그나마 알고 있는 그 한 단계도 사람의 관념 속에서 규례로 변질되어 하나님을 규정하기 쉽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일부 성품으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대체하고, 거기에 자신의 상상까지 가득 뒤섞어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함, 지혜와 사역의 원칙을 유한한 범위에 단단히 국한시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번 그리한 것은 영원히 그러할 것이며, 영세까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오직 3 단계 사역을 알고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알 수 있으며, 최소한 하나님을 이스라엘인의 하나님이나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적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한 단계 사역으로만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얕은 그야말로 백사장의 모래 한 알과도 같다.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원로 종교가들이 왜 하나님을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하나님을 한 범주 안에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 아니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지식과 이치로 성령의 역사를 가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들은 체험이 알팍하면서도 천성이 교만하고 방종하여 성령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고 성령의 징계를 등한시한다. 또 자신의 미약하기 짝이 없는 낡은 이치로 성령의 역사를 ‘입증’하고, 스스로 학식이 높다고 믿으며 온 세상을 주름잡을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린다. 그런 자는 모두 성령께 혐오받아 버림받는 자이자 새 시대에 도태되는 자임을 어찌 알지 못한단 말이나?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모두 알팍한 지식으로 경망을 떠는 소인배들 아니냐? 얼마 되지 않는 성경 지식으로 세상의 ‘학술계’를 휘어잡으려 하고, 겨우 사람이나 가르칠 수 있는 보잘것없는 이치로 성령의 역사를 돌려세우려 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무르려는 야심을 품으며, 좁은 안목으로 하나님의 6 천 년 사역의 풍모를 한눈에 다 꿰뚫어 보려고 한다. 그런 자에게 무슨 이성이 있다고 하겠느냐!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역을 쉽사리 평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현재 사역에 대한 인식을 좀 말할 뿐 함부로 단정 짓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하고 분수를 모르며, 또한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 실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론만 멋대로 떠벌릴 뿐이다. 이런 사람은 가장 무가치한 자이다. 성령의 역사를 아이들 장난으로 치부하는 사람은 모두 경박한 자들이다! 이들은 성령의 새 역사를 마주하고도 신중하게 대하기는커녕 함부로 지껄이고 멋대로 평가하며, 자기 성미대로 성령 역사의 정확성을 부인하고, 모욕적인 말과 모독도 서슴지 않는다. 이렇게 오만불손한 자들은 모두 성령 역사를 알지 못하고, 천성이 거만하며 방자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 자는 언젠가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용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을 안중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한다. 그러니 그런 악당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사함 받지 못할, 영원히 지옥에 멸할 대상이다. 그 오만하고 방종한 자들은 또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는 간판을 내건 사람들이다.

그런 자들일수록 하나님의 행정을 더 쉽게 거스른다. 천성적으로 방종하고 복종할 줄 모르는 교만한 자들은 모두 그런 길을 가지 않더냐? 모두가 이렇게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지 않더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3 단계 사역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7)

3 단계 사역은 하나님이 행한 모든 사역과 인류 구원의 실제 기록이지, 지어낸 것이 아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행한 3 단계 사역을 알아야 하며, 한 단계도 빠트려서는 안 된다. 이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인식이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앎은 사람이 스스로 지어내거나 생각해 내는 것이 아니며, 성령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는 결과는 더더욱 아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면서 얻은 앎이자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을 체험한 후에야 생겨나는, 하나님에 대한 앎이다. 이런 앎은 아무렇게나 얻을 수 있는 것도, 누군가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완전히 개인의 체험과 관계되는 일이다. 이 3 단계 사역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지만 이 구원 사역에는 또 여러 가지 사역 방식과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발견하기 가장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것이다. 시대가 나뉘고, 사역이 달라지고, 사역의 장소와 대상이 바뀌는 등등은 모두 3 단계 사역에 포함된다. 특히 성령 역사의 방식 차이,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 이름, 신분 또는 다른 변화들은 모두 3 단계 사역 안에 있다. 한 단계의 사역은 그저 한 부분만 대변하고 한 범주에만 국한되기에 시대의 구분은 물론, 사역의 전환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다른 부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3 단계 사역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전체 사역이다. 사람은 구원 사역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알아야 한다. 이 사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아 간다는 것은 근거 없는 헛소리이자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그런 앎은 사람을 설득할 수도, 정복할 수도 없으며, 실정에 맞지도 않고 진리도 아니다. 설령 네가 아는 것이 많고 게다가 다른 이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앎이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의 앎을 칭찬하기는커녕 그를 모독한 죄를 물어 보응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앎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네 언변이 뛰어나 청산유수 같은 말로 죽은 것을 산 것으로 둔갑시킬 수 있고, 산 것을 죽은 것이 되게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앎을 얘기할 때면 너는 바로 문외한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네가 마음대로 평가하거나 칭찬할 수 있는 분도, 네가 마음대로 폄하할 수 있는 분도 아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라도 칭찬할 수 있지만, 적당한 단어로 하나님의 ‘크나큰 은덕’을 함부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모든 실패자의 깨달음이다. 수많은 언어 전문가들이 하나님을 한바탕 묘사할지라도 그 묘사의 정확성은 오히려 언어가 풍부하지는 않지만 체험이 풍부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설명하는

진리의 1%밖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삶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성과 실제에 있는 것이지, 언어의 교묘함이나 단어의 풍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사람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나님을 알아 가는 이 공과는 인류의 그 어떤 자연 과학을 배우는 것보다 높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지, 재능이 있다고 해서 모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추구하는 일을 개구쟁이 어린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어쩌면 너는 가정이나 사업 또는 결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을 수도 있지만, 진리와 하나님을 알아 가는 이 공과에서는 백지상태로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너희에게 있어 진리 실행은 큰 난제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너희의 애로 사항이자, 모든 인류의 애로 사항이다. ‘하나님을 아는’ 이 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사람 가운데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 도대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른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인류의 난제이자 가장 큰 수수께끼로서 그 누구도 답하지 못하고, 또 답하기를 원치 않는 문제이다. 인류 중 지금까지 이 일을 연구하여 성과를 거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3 단계 사역’의 수수께끼가 인류에게 공개되고 나면 하나님을 아는 인재들이 잇달아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게다가 지금 그 사역에 착수하고 있다. 나는 머지않은 장래에 이러한 인재가 더 많이 나와 3 단계 사역의 증인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길 바란다. 다시 말해, 그들이 3 단계 사역을 증거하는 창시인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그런 인재, 즉 성육신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온전케 된 사람이 없거나 한두 명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정말 가슴 아프고 애석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어쨌든 나는 진심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은 천고에 없었던 사역이고, 인류 발전의 역사에서도 없었던 위업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창시인이 된다면, 그것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영광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이 바로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피조물 아니겠느냐? 이 사역을 이루기는 쉽지 않겠지만, 마지막이 되면 성과를 거둘 것이다. 성별이나 국적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가장 높은 영광을 받는 사람이자 유일하게 하나님의 권병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사역이자 이후의 사역이고, 6 천 년 사역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루려는 최고의 사역이며, 또한 각 부류의 사람을 드러내는 사역의 방식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사역을 통해 각 부류 사람들의 등급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약속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 자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나 약속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기(知己)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지기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지기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든 다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기가 아니라면 그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없다. 환난이든 연단이든 심판이든

모두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마지막에 거두어야 할 유일한 성과이다. 3 단계 사역을 모두 공개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 하나님을 더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모든 사역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3 단계 사역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8)

하나님 자신이 행한 사역은 사람이 알아야 할 이상(異象)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모두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단계 사역은 하나님 경영의 전부이자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가장 큰 이상이다. 사람이 이 가장 큰 이상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아 가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어려우며, 또한 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사람에게 이상이 없다면 오늘날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상이 사람을 오늘날까지 지켜 주었고, 이상은 사람에게 최대의 보호막이 되었다. 너희는 앞으로도 더욱 깊이 알아 가야 한다. 3 단계 사역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뜻과 그의 지혜로운 사역의 본질을 알아야만 그것이 너희의 진실한 분량이 된다. 마지막 이 단계 사역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앞 두 단계 사역과 합쳐져 하나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3 단계 사역 중 한 단계 사역만으로는 구원 사역을 전부 완성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마지막 이 단계 사역으로 사람을 철저히 구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앞 두 단계의 사역 없이 마지막 단계 사역만으로 인류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3 단계 사역 중 어느 단계의 사역도 단 하나만 가져와서 온 인류가 유일하게 알아야 할 이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구원 사역은 총 3 단계로 이루어진 사역이지, 그중의 어느 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구원 사역이 하루라도 완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영은 절대로 끝날 수 없다. 하나님의 어떠함과 성품, 지혜는 모든 구원 사역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미리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의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구원 사역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 성품과 어떠함의 일부를 발현하는 것이지, 매 단계에 곧바로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을 완전하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3 단계 사역이 완성되어야 구원 사역이 모두 끝나는 이상, 사람이 하나님의 전부를 알아 가는 것 역시 3 단계 사역을 떠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한 단계 사역에서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부 사역에서 발현된 성품에 불과하므로 그 전이나 그 후에 발현된 성품과 어떠함은 대변하지 못한다.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은 한 시기나 한 장소에서 되도록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인류의 발전 상황에 따라 점차적으로 심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 사역은 한 단계씩 하는 것이지 한 단계에서 바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닌 모든 지혜의 결정체는 어느 한 단계가 아닌 3 단계 사역에 있다고 한다.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과 지혜는 3 단계 사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단계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있고, 하나님 사역의 지혜가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3 단계

사역에서 하나님이 나타낸 모든 성품을 알아야 한다. 이 어떠함은 온 인류에게 실로 중요하기 그지없다. 사람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그런 사람은 불상을 경배하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행한 사역은 모두 사람들에게 공개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3 단계의 구원 사역을 행한 이상, 사람은 이 3 단계의 사역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춘 것은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고 알아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개한 것이라면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자 갖춰야 하는 것이다. 이 3 단계 사역 중 각 단계의 사역은 모두 이전 단계 사역을 바탕으로 행한 것이지, 구원 사역 이외의 다른 사역을 따로 행한 것은 아니다. 시대나 사역의 내용이 크게 다를지라도 사역의 핵심은 변함없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구원 사역을 점차 심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3 단계 사역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9)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행한 사역은 모두 사람들에게 공개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3 단계의 구원 사역을 행한 이상, 사람은 이 3 단계의 사역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춘 것은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고 알아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개한 것이라면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자 갖춰야 하는 것이다. 이 3 단계 사역 중 각 단계의 사역은 모두 이전 단계 사역을 바탕으로 행한 것이지, 구원 사역 이외의 다른 사역을 따로 행한 것은 아니다. 시대나 사역의 내용이 크게 다를지라도 사역의 핵심은 변함없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구원 사역을 점차 심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각 단계 사역은 모두 이전 단계의 사역을 폐하지 않은 기초에서 계속 이어진다. 이로써 하나님은 늘 새로운 사역을 통해 사람에게 드러낸 적 없는 성품을 계속 나타내고, 언제나 그의 새로운 사역과 어떠함을 공개한다. 원로 종교가들이 극력 대적하고 공개적으로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그가 해야 할 더 새로운 사역을 한다. 하나님의 사역은 늘 바뀌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의 반대에 부딪힌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시대, 사역 대상도 언제나 바뀐다. 또한 하나님은 항상 이전에 행한 적이 없던 사역을 행하며, 심지어는 사람이 보기에 이전과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사역도 행한다. 사람은 모두 한 가지 사역과 한 가지 실행만 받아들일 뿐, 그것과 대립되거나 그것보다 더 높은 사역이나 실행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그러나 성령은 언제나 새로운 사역을 한다. 그로 인해 새로운 사역에 대적하는 종교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들이 '전문가'가 된 까닭은 바로 하나님이 '늘 새롭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역 원칙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식은 더더욱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역인지, 하나님 자신이 행한 사역인지, 사람에게서는 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많은 사람이 과거의 견해와 맞으면 받아들이고, 과거의 사역과 다른 점이 있으면 반대하거나 거절하는 태도를 고수한다. 지금까지 너희의 원칙은 다 이런 것 아니었느냐? 구원 사역의 3 단계 사역은 너희에게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앞 두 단계의 사역을 그야말로 알 필요가 없는 짐으로 여기며 그것이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알리지 말고 속히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많은 사람이 앞 두 단계 사역을 공개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긴다. 이것이 너희의 관점이다. 지금 너희는 모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지만, 언젠가는 내가 행한 사역의 중요한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의미 없는 사역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3 단계 사역을 모두 너희에게 공포한 이상, 그것은 분명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 3 단계 사역이 전체 경영의 핵심인 이상, 반드시 전 우주 아래의 모든 사람이 다 눈여겨보게 될 것이며, 언젠가 너희 모두 이 사역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적하거나 자신의 관념으로 오늘날의 사역을 판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 원칙을 모르기 때문이며, 또한 성령의 역사를 너무 건성으로 대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관념과 태생적인 교만, 그리고 너무도 패역한 천성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감히 공개적으로 성령 역사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이야기하며, 또 성령의 새 역사가 있는 사도들을 훈계하고 이래라저래라 불손하게 말하니, 참으로 저급한 인성이요, 이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자들은 언젠가 성령 역사에 의해 버려지고 지옥의 불에 불살라질 대상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평가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며 지휘할 생각까지 하는데, 이렇게 비이성적인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사람은 모두 찾고 구하며 체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제멋대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줄어든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쉽게 대적한다. 너의 관념과 옛 성품, 인성, 품성, 도덕 사상은 모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밑천'이다.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품성이 악랄하며 인성이 저급한 사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원수인 것이다. 관념에 심각하게 사로잡힌 자와 성품이 독선적인 자는 성육신 하나님의 원수로, 이런 부류의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네가 관념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관념은 영원히 하나님과 적대될 것이며,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어긋나게 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3 단계 사역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0)

3 단계 사역은 하나님 한 분이 행한 것으로, 최대의 이상이자 하나님을 알아 가는 유일한 길이다. 3 단계 사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오로지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3 단계 사역은 시대도, 장소도 다르고, 행한 사역도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 한 분이 행한 사역이다. 이는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이상 가운데 가장 큰 이상이다. 사람이 이것을 철저히 깨닫는다면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각 종교 각 교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며, 어떤 것이 성령 역사고 어떤 것이 성령 역사가 아닌지 분별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이번 단계의 사역이 앞 두 단계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한 것인지 더더욱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따르면서도 이 길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사람은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는 길인지, 말씀이 육신 된 것이 사실인지 걱정한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이런 사실들을 분별하기 위한 실마리가 별로 없다. 따르는 사람이 도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면 그 도는 그런 사람에게 일부 효과만 낼 뿐, 100%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의 생명 진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람이 3 단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세 단계의 사역을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했음을 깨닫는다면 사역의 내용은 서로 다를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하나님 한 분이 행한 사역인 이상, 분명 어떤 오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이 한 일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이 행한 사역임을 확신한다면, 사람의 관념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사소한 것이 된다. 이상에 대해 불분명하기 때문에, 즉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주라는 것만 알 뿐, 오늘날의 성육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에, 많은 사람이 여호와의 사역과 예수의 사역에 미련을 둔 채 오늘날의 사역에 대해 수많은 관념을 갖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늘 마음을 놓지 못하고 오늘날의 사역을 진지하게 대하지 못한다. 사람은 볼 수 없는 앞 두 단계 사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념도 없다. 그것은 사람이 앞 두 단계 사역의 실정을 전혀 모르고, 또 직접 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볼 수 없기에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이다. 사람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상상하든 입증할 수 있는 사실도, 바로잡아 줄 이도 없었다. 사람이 자신의 성향대로 대담하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지라도 입증할 사실이 없었기에 그 상상은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실’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머릿속으로 자신이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을 뿐, 실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신앙을 갖고 있다면 백 사람이면 백 가지 신앙을 갖고 있다. 사람에게 이런 신앙이 생겨난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역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단지 귀로만 들었을 뿐 눈으로 보지는 못했기 때문이며, 전설과 이야기로만 들었지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에 대한 인식은 거의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1 년 믿은 사람은 물론, 하나님을 한평생 믿은 사람 역시 관념 속에서 믿고 있는 것이다. 사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관념적 신앙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사람은 모두 자신은 이미 낡은 관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지에 들어갔다고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모두 관념이자 떠도는 소문이라는 것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사람은 모두 자신의 관념이 정확하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여겼지만, 오늘날 이 사역을 마주하면서 오랫동안 지녀 온 관념을 분출하게 되었다. 지난날의 상상과 생각이 이번 사역의 장애물이 되었건만 사람은 모두 이 관념들을 내려놓기 어려워하고, 이전의 생각들을 뒤엎기도 힘들어한다. 오늘날까지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은 한 걸음씩 진행되는 이 사역에 대해 관념이 점점 심해져 성육신 하나님과 풀기 어려운 원한을 맺게 되었다. 그 원한의 근원이 바로 사람의 관념과 상상이다. ‘사실’은 사람이 멋대로 펼치는 상상을 용납하지 않으며 사람이 제멋대로 뒤집으려는 것은 더더욱 용납하지 않는다. 반면 사람은 관념과 상상 때문에 존재하는 사실을 용납하지 않으며, 사실의 정확성과 진실성은 무시한 채 한결같이 자신의 관념만 분출하고 상상의 나래만 펼친다. 이렇게 사람의 관념과 상상은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오늘날의 모든 사역과 원수가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한 단계는 고사하고 조금도 뒤엎을 수 없다.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은 사람의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는다. 너는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고, 심지어 여호와와 예수 사역의 정수를 모아 편찬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와 예수가 행한 사역의 사실들을 뒤엎지는 못한다. 이것은 원칙이자 행정이다. 너희는 모두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은 이번 단계 사역은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지만 앞 두 단계의 사역은 잘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앞 두 단계의 사역은 절대 지금처럼 이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역 원칙은 모두 똑같고, 그의 사역은 어쨌든 다 실제적이며, 어느 시대의 사역에서든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무리가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느냐? 오늘날 이 단계 사역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는 분명 이전에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3 단계 사역을 하나님 한 분이 행한 사역으로 여기고, 또 자신의 관념을 버릴 수 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진실로 따르는 사람이다. 전체 경영이 끝날 때 하나님은 만물을 각기 부류대로 나눌 것이다. 사람은 창조주의 손에서 창조되었으므로 마지막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3 단계 사역의 종결이다. 이스라엘과 유대에서 행한 앞 두 단계의 사역과 말세의 사역은 곧 전 우주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이므로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이다. 사람은 많은 사역을 체험하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사실은 사실이니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전 우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 3 단계 사역을 받아들일 것이다. 네가 어느 한 단계 사역만 알 뿐, 나머지 두 단계 사역과 과거의 하나님 사역을 알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전체 경륜의 모든 실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알 뿐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자격이 없다. 지금 이러한 것에 대해 깊게 알든 얕게 알든, 결국 마지막에는 너희가 모두 깨닫고 철저히 인정할 것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전체 사역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면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고,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의 권세 아래로 돌아와 이 참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며, 모든 사교가 사라져 더는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3 단계 사역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1)

어째서 늘 3 단계 사역을 언급하겠느냐? 시대의 변천과 사회의 발전, 자연의 변모는 모두가 3 단계 사역의 변화에 따라 바뀐 것이다. 인류는 하나님이 행한 사역에 따라 바뀔 뿐, 스스로 발전하지 못한다. 3 단계 사역을 언급하는 이유는 모든 피조물과 각 종교 각 교파, 각계의 인사들이 다 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네가 어느 교파에 속하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와 순종해야 한다. 이 사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으며, 그 어떤 교주도 행하지 못한다. 세상이 몇 개의 큰 종교로 나뉜다고는 하나 종교마다 교주와 통솔자가 있고, 따르는 사람 또한 지구상의 서로 다른 국가와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한 국가에도 여러 종교가 존재한다. 대국이든 소국이든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나라가 그러하지만, 세계 각지의 종교 종류가 얼마나 되든 결국 전 우주의 모든 사람은 한 분의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종교의 교주나 통솔자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인류를 이끄는 이는 어느 교주나 통솔자가 아니라 천지 만물과 인류를 창조한 창조주이다. 이는 사실이다. 세상에는 몇몇 큰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가 얼마나 크든 모두 창조주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며, 그 어떤 종교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인류의 발전과 사회의 교체, 자연 과학의 발전은 다 창조주의 안배를 떠날 수 없다. 이 사역들은 어느 한 교주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주는 어느 종교의 통솔자일 뿐, 하나님을 대표하지도,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를 대표하지도 못한다. 교주는 그 교파의 모든 인사를 통솔할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통솔할 수는 없다.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교주는 통솔자일 뿐이므로 하나님(창조주)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 만물은 창조주의 수중에 있기에 마지막에는 모두 창조주의 수중으로 돌아올 것이고, 인류는 본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기에 어느 교파든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인 추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 가운데 지극히 높은 분이므로 피조물 중의 최고 통치자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사람의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한들 인류를 적합한 종착지로 인도할 수 없고, 누구도 만물을 각기 부류대로 나눌 수 없다.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하여 각기 부류대로 나눴으니 마지막에도 그가 자신의 사역을 행하여 만물을 각기 부류대로 나눌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대신하지 못한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한 3 단계 사역은 모두 하나님 자신이 한 것이고, 또한 한 분의 하나님이 행한 것이다. 3 단계 사역의 사실은 하나님이 전 인류를 인도한 사실이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3 단계 사역이 끝나면 만물을 각기 부류대로 나누고 모두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전 우주 위아래에 오직 이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며 다른 종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을 창조할 수 없는 자는 세상을 끝낼 수 없고, 세상을 창조한 이는 틀림없이 세상을 끝낼 수 있다. 그러므로 시대를 끝낼 수도 없으면서 다른 이에게 심신을 수양하고 교양을 쌓으라고만 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도, 인류의 주인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자는 이처럼 큰 사역을 하지 못한다. 이 사역을 행하는 이는 오직 한 분뿐이며, 이 사역을 행할 수 없는 자는 분명 하나님이 아닌 원수이다. 사교(邪敎)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다. 모든 사역은 다 이 참하나님 한 분이 행하고, 온 우주도 다 이 하나님 한 분이 주관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든 중국에서 사역하든, 영으로 사역하든 육신으로 사역하든, 모두 그 자신이 행한 것이며 그 누구도 대신하지 못한다. 그는 전 인류의 하나님이기에 그 어떤 조건의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이상이다.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사역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야 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사역하는 모든 의미까지 깨달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합당한 자격을 가진 피조물이 아니다! 피조물로서 자신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인류의 역사(歷史)와 하나님의 모든 사역도 모르며, 더욱이 인류가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 누가 전 인류를 다스리는지도 모른다면, 본분 이행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 하나님은 인류를 오늘날까지 인도해 왔고, 땅에서 사람을 창조한 이래로 사람을 떠난 적이 없다. 성령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사람을 인도하며 한시도 사람과 떨어진 적이 없으나,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일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친히 사람을 인도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깨닫지 못한다. 피조물인 네가 자신의 역사(歷史)를 모르고, 자신이 걸어온 여정을 누가 이끌어 주었는지도 모르며, 하나님이 행한 사역도 모른다면,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직도 모른다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증인이 될 자격이 없다! 오늘날 창조주가 또 친히 모든 사람을 이끌어 주면서 그의 지혜와 전능, 구원과 기묘함을 보여 주었는데도 결국 네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너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 아니겠느냐? 사탄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내가 하는 말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는, 도태될 대상이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알지 못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자는 모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거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은 3 단계 사역이 모두 끝날 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만들 것이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인성과 이성을

갖춘 사람들이고, 3 단계의 구원 사역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는 마지막에 이루려는 사역이다. 그들은 6 천 년 경영 사역의 결정체이자 최후에 사탄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병을 지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마지막에 살아남을 자들이다. 너희 모두가 이 사람들 중의 일원이 될 수도 있고, 절반 혹은 몇 명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는 너희의 의지와 추구에 달려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3 단계 사역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2)

6 천 년 경륜은 3 단계 사역으로 나뉘는데, 어느 단계든 한 부분만 대변할 뿐, 세 시대의 사역을 대변하지는 못한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대변할 수는 없다. 또 그가 율법시대의 사역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율법 아래의 하나님일 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호와라는 사람에게 율법을 제정해 주고 계명을 반포했으며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쌓게 했다. 그가 한 사역은 율법시대만 대변한다. 그가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게만 하는 하나님, 성전에만 거하는 하나님, 제단 앞에만 있는 하나님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율법 아래의 사역은 한 시대밖에 대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율법시대의 사역만 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거하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하나님을 규정할 것이다. 만약 은혜시대의 사역을 하지 않고 율법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사람은 하나님께 공홀과 자비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반대로 율법시대의 사역을 하지 않고 은혜시대의 사역만 했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속량하고 사람의 죄를 사해 주기만 하는 분이라고, 그는 거룩하고 무고한 분이며,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분이라고만 알았을 것이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 시대는 하나님의 성품 중 일부만을 대변한다. 율법시대를 대변하는 성품이 있고, 은혜시대를 대변하는 성품이 있으며, 이번 단계를 대변하는 또 다른 성품도 있다. 이 3 단계 사역을 종합해야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나타나며, 사람은 3 단계 사역을 알아야 비로소 전면적으로 알게 된다. 3 단계 사역 중에 어느 한 단계도 빠져서는 안 된다. 너는 3 단계 사역에 대해 알아야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율법시대의 사역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율법 아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구속 사역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인류를 속량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전부 사람이 규정한 것이다. 은혜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속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번 단계에서 하나님은 주로 말씀 사역을 한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공홀히 여긴 적이 없이 형벌과 심판만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말세의 사역은 여호와가 했던 사역, 예수가 했던 사역, 그리고 사람이 알지 못했던 모든 비밀을 사람에게

밝혀 주고, 나아가 인류의 종착지와 결말을 드러내며, 인류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구원 사역을 끝낸다. 말세 사역은 마무리하는 사역으로, 반드시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다 열어 분명히 깨닫고 완전히 알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각기 부류대로 나뉘 수 있다. 사람은 6 천 년 경륜이 끝난 뒤에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알게 된다. 그것은 그의 경영이 끝났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의 비밀 4>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3)

6 천 년 경륜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사역이 지금에야 끝나게 되었다. 모든 사역을 사람에게 일일이 나타내고 사람들 가운데서 행한 뒤에야 사람은 그의 모든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을 알게 된다. 이번 단계 사역을 완성했을 때면, 사람이 알지 못했던 비밀이 모두 밝혀졌을 것이며, 사람이 알지 못했던 진리를 모두 알게 했을 것이고, 사람이 앞으로 가야 할 길과 인류의 종착지도 모두 알려 주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번 단계에 하려는 모든 사역이다. 지금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도 십자가의 길이자 고난받는 길이지만, 실행하는 것과 오늘날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은 율법 아래 사람이나 은혜시대 사람들과 크게 다르다. 오늘날 사람에 대한 요구는 예전과 다르며, 율법시대 사람들에게 했던 요구와는 더더욱 다르다.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때, 율법 아래 사람들에게 어떻게 요구했느냐? 그저 안식일을 지키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충분했다. 안식일이 되면 아무도 일하지 않았고, 누구도 여호와의 율법을 어길 수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안식일이 되어도 평소처럼 일한다. 예배를 해야 하면 예배하고, 기도를 해야 하면 기도하며, 조금도 통제받지 않는다. 은혜시대 사람들은 세례받고 금식하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발을 씻어야 했다. 지금은 이런 규례들을 모두 폐했고 사람에게 더 높은 요구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이 끊임없이 깊어지고 사람의 진입도 끊임없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예수가 안수기도를 했지만 지금은 말씀을 다 했는데 안수를 해서 뭐 하겠느냐? 말씀으로 직접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때는 안수로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의 병도 고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성령이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사역의 성과를 거둔다. 너희에게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알려 주었으니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말씀이 바로 그의 뜻이고 그가 하려는 사역이다. 그가 한 말씀을 통해 그의 뜻을 알고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안수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실천하면 된다. 어떤 이는 “안수를 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받을 분깃이 있도록 안수로 축복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이는 다 과거의 낡은 실행 방법이다. 시대가 바뀌었으므로 지금은 모두 없어졌다. 성령은 무턱대고 역사하거나 규례에 맞추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역사한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새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새 사역이 동반된다. 모든 단계의 사역이 다 그렇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지금까지 중복된 적이 없다. 은혜시대에는 예수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수기도를 하고, 사람에게

축복하는 사역을 적지 않게 행하였다. 오늘날에도 또 그렇게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때는 성령이 그렇게 했다. 은혜시대였기 때문에 사람은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어떤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이 믿기만 하면 은혜를 얻을 수 있었다. 누구든 지극히 선대했던 것이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하나님의 사역도 발전하여 형벌과 심판으로 사람의 패역과 사람 내면의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없앤다. 과거에는 속량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했다. 사람이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베풀어 주어야만 사람을 죄에서 속량하고 은혜로 죄를 사해 줄 수 있었다. 이번 단계는 형벌과 심판, 말씀의 채찍질, 말씀의 징계와 폭로로 사람 내면의 불의한 것들을 드러낸 뒤 구원받게 하는, 속량보다 더 깊어진 사역이다. 은혜시대의 은혜는 이미 사람이 충분히 누렸고 체험했으므로 더 이상 누리게 하지는 않는다. 그런 사역은 시대에 뒤떨어졌기에 이제는 하지 않는다. 지금은 말씀의 심판으로 사람을 구원한다. 사람이 심판과 형벌, 연단을 받아 성품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모두 내가 한 이런 말 때문이 아니겠느냐? 모든 단계의 사역은 전 인류의 발전 상황과 시대에 따라 행한다. 이는 다 의미 있는 사역이며, 최종적인 구원을 위한 것이다. 또 훗날 인류가 아름다운 종착지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사람을 각기 부류대로 나누기 위한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의 비밀 4>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4)

각 단계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동시에 사람 또한 이를 증거해야 한다. 각 단계의 사역은 전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다.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지만, 사역의 대상과 온전케 하는 대상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성과를 거둘지는 사람이 그를 어떻게 증거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한 모든 요구이며, 사탄 앞에서 해야 하는 증거이다. 그 증거는 또한 하나님의 사역 성과를 실증한다. 전체 경영은 세 단계로 나뉜다. 하나님은 단계별로 사람에게 합당한 요구를 하는데, 시대가 달라지고 발전함에 따라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도 갈수록 높아진다. 그리하여 경영 사역도 점차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이 사실을 알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졌고, 사람에게 요구하는 증거 역시 더 높아졌다. 사람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협력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영광을 받는다. 사람의 협력은 바로 사람이 해야 하는 증거이고, 사람이 해야 할 증거는 바로 사람의 실행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이 상응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진실한 증거가 있을지는 사람의 협력, 증거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사역이 끝날 때, 즉 전체 경영이 모두 끝날 때, 사람은 더 높은 수준으로 증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이 종결될 때, 사람의 실행과 진입 또한 절정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과거에는 사람에게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고 인내하며 겸손해질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안배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 요구는 사람이 환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단계의 요구는 전체 경영에서 사람에게 단계적으로 제시되었다. 사역은 단계별로 더 깊어졌고, 사람에 대한 요구도 단계별로 더 높아졌다. 전체 경영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사람에게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전 인류는 사탄의 권세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며, 나아가 사역이 완전히 끝날 때는 전 인류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게 된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고, 사람이 성품 변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협력하는 일 또한 없어지면서 전 인류가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다시는 거역하지도, 대적하지도 않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과 하나님의 협력은 더 조화로워질 것이다. 그 협력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의 경영이 모두 끝난 후의 삶이며,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사탄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다. 하나님의 발자취를 바짝 따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없다. 그들은 모두 어둠 속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따르지 않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의 모든 사역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실행>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5)

전체 경영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을 구원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핵심 사역은 파괴된 사람을 철저히 정복하여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원래 갖고 있던 경외심을 되찾게 하고 정상인의 생활, 즉 정상적인 피조물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며 경영 사역의 핵심이다. 이 세 단계 구원 사역 중 1 단계인 율법시대의 사역은 경영 사역의 핵심과 큰 차이가 있다. 율법시대의 사역은 구원 사역의 겉모습만 조금 갖추었을 뿐이며,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사역은 시작하지 않았다. 1 단계 사역을 영이 직접 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 알았을 뿐 더 많은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율법시대의 사역은 사람의 성품 변화와 거의 관련이 없고, 사람을 어떻게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하는지에 대한 사역과는 더더욱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파괴 성품과 관련되지 않는, 극히 간단한 사역만 완성한 것이다. 그 단계의 사역은 경영의 핵심과 그리 큰 관계가 없었고, 본격적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과도 그리 큰 관련이 없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친히 사역할 필요가 없었다. 영이 하는 사역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측량할 수 없으며 사람들이 무서워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므로 직접 구원 사역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직접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역시 영의 사역을 사람과 가까운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즉,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평범한 정상인이 되어 사역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영의 사역을 대신해야 한다. 이 사역 방식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다.

이 세 단계 사역 중 두 단계 사역은 육신이 행한 것이며, 또 이 두 단계 사역은 경영 사역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두 번의 성육신은 서로 보충하며 완전케 한다. 첫 번째 성육신은 두 번째 성육신을 위해 기초를 다졌다. 두 차례 성육신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단계 사역을 성육신의 신분으로 행한 것은 전체 경영 사역에서 이 두 단계 사역이 실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의 성육신 사역이 없었다면 전체 경영 사역이 정체되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도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사역의 중요성은 인류의 필요성, 인류의 타락 상황, 사탄의 거역과 사역을 방해하는 정도에 근거한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자는 사역자의 사역 성질과 사역의 중요성에 따라 결정된다. 사역의 중요도를 놓고 볼 때, 사역 방식을 택함에 있어 하나님의 영이 직접 사역하는 것, 성육신하여 사역하는 것, 또는 사람을 통해 사역하는 것의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이 가운데서 제일 먼저 탈락된 것은 ‘사람을 통해 사역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는 사역의 성질, 영과 육신이 하는 사역의 성질에 근거해 최종적으로 육신이 사역하는 것이 영이 직접 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이로울 뿐만 아니라 장점이 훨씬 더 많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영이 사역할지, 육신이 사역할지를 결정할 때의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각 단계의 사역은 터무니없는 상상도 아니고,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행하는 것도 아니라, 모두 의의가 있고 근거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지혜가 깃들여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의 실상이다. 특히 성육신하여 친히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중대한 사역을 하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어려움은 그가 사역할 때의 일거수일투족, 마음과 생각 속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어려움이다. 사람은 이런 세밀한 마음과 생각을 상상하기 어렵고 믿기도 어려우며 더욱이 깨닫기도 어렵다. 사람이 사역할 때는 대체적인 원칙이 있다. 사람에게에는 이것도 이미 상당히 만족스럽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비하면 실로 격차가 크다. 하나님의 행사는 위대하고 그의 사역 규모 역시 매우 거대하지만, 이런 사역들의 이면에는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세세하고 정밀한 계획과 안배가 많이 들어 있다. 그가 하는 각 단계 사역에는 원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언어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사람에게에는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영의 사역이든, 성육신의 사역이든 모두 하나님의 사역 계획이 있다. 그는 근거 없이 사역하지 않고 무의미한 사역도 하지 않는다. 영이 직접 사역하는 데에는 그의 목적이 있고, 사람이 되어(그의 외형을 바꾸어) 사역하는 데에는 더더욱 그의 뜻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쉽게 신분을 바꿀 리 있겠느냐? 그가 어떻게 그리 쉽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이 될 리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패피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6)

지금 하는 사역은 은혜시대 사역이 앞으로 나아간 것이자, 전체적인 6 천 년 경륜에 포함된 사역이 앞으로 발전한 것이다. 은혜시대는 끝났으나, 하나님의 사역은 앞으로 나아가며 깊이를 더해 가고 있다. 이 단계의 사역을 은혜시대와 율법시대의 기초 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오늘날의 사역은 은혜시대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율법시대 사역의 발전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 세 단계의 사역은 고리에 고리가 맞물리듯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 단계 사역을 예수가 행한 사역의 기초 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느냐? 예수의 사역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면 이번 단계에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앞 단계의 구속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러므로 사역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발전한 것이며, 이에 따라 지금의 사역 또한 예전보다 더 발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단계의 사역은 율법시대의 기초 위에, 그리고 예수가 이룬 사역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렇게 한 단계씩 세워진 것이지, 이 단계 사역이 따로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 세 단계의 사역을 종합해야 비로소 6 천 년 경륜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이 단계의 사역은 은혜시대 사역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이 두 사역에 연관성이 없다면, 어째서 이 단계 사역에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겠느냐? 어째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곧바로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는 사역을 하고 또한 이번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온 것이 아니라면,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할 자격이 없다. 나는 예수와 하나이기에 친히 사람을 형벌하고 심판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사역은 전부 앞 단계 사역의 기초 위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한 걸음씩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와 나는 같은 영에서 왔다. 육신은 서로 관련이 없지만 영은 하나이며, 사역의 내용과 담당하는 사역이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서로 다른 모습의 육신을 취한 이유는 시대가 다르고, 사역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직분이 다르기에 가져온 사역도 다르고, 사람에게 보여 주는 성품 역시 다르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이 보고 깨닫는 것 역시 예전과 다르다. 이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차이이다. 두 육신은 성별도, 모습도 다르고, 같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며, 같은 시기에 태어난 것은 더더욱 아니지만, 그들의 영은 하나이다. 둘의 육신은 어떤 혈연관계도, 육적인 관계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서로 다른 시기에 입은 육신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둘 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둘은 같은 혈통도 아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는다(한 사람은 유대어를 쓰는 남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중국어만 쓰는 여자임). 이 때문에 둘은 서로 다른 시기, 서로 다른 나라에서 각자 해야 할 사역을 하는 것이다. 둘은 하나의 영, 그러니까 같은 본질을 지니고 있으나, 육신의 겉모습은 닮은 부분이 전혀 없다. 똑같은 인성을 지녔을 뿐, 육신의 생김새나 출생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각자의 사역이나 그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들은 결국 하나의 영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그들을 분리시킬 수 없다. 둘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고 해도, 그들의 영이 그들의 존재를 지배하여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사역을 담당하게 한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육신은 같은 혈통이 아니다. 여호와와 영이 예수 영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의 영 또한 여호와 영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결국 하나의 영이다. 오늘날 성육신한 하나님과 예수 역시 그 어떤 혈연관계도 없다. 그러나 둘의 근원은 하나이다. 이는 둘의 영이 원래부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는 공홀과 자비를 베푸는 사역을 할 수 있고, 공의로운 심판의 사역도, 사람을 형벌하거나 저주하는 사역도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세상을 멸하고 악인을 징벌하는 사역 또한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더냐?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더냐? 그는 사람에게 율법과 계명을 반포할 수 있을뿐더러, 당시 이스라엘인들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고, 그들을 이끌어 성전과 제단을 쌓게 했으며, 모든 이스라엘인들을 그의 권세 아래에 두었다. 그의 권병으로 인해 그와 이스라엘인들은 땅에서 2 천 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다. 이스라엘인들은 감히 거역하지 못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지켰다. 이는 모두 그의 권병과 전능으로 행한 사역이었다. 은혜시대에 이르러 예수가 와서 타락한 전 인류(이스라엘인에 국한되지 않음)를 속량했다. 그는 사람에게 공홀과 자비를 베풀었다. 사람의 눈에 비친 은혜시대의 예수는 자비로 가득했으며, 늘 사랑으로 사람을 대했다. 그는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를 죄에서 완전히 속량하기까지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 시기의 하나님은 공홀과 자비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즉, 그는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되고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영원히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다. 그는 공홀과 자비를 지니고 있었고, 인내할 줄 알았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었다. 예수를 따른 은혜시대의 사람들은 범사에 인내와 사랑을 강조하고, 계속 고난을 받았으며, 다른 이가 욕하고 때리고 돌로 쳐도 반항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마지막 단계는 다르다. 이는 예수와 여호와가 비록 영은 하나지만, 행한 사역이 완전히 똑같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여호와와 사역은 시대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이끄는 것이었다. 인류의 땅에서의 생활을 펼쳤다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한없이 파괴된 이방의 인류를 정복하고, 중국에 있는 하나님 선민만이 아닌, 전 우주와 전 인류를 이끄는 사역을 한다. 네가 보기에는 중국에서만 사역을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사역은 중국 밖에서도 확장되기 시작했다. 외국인들이 왜 계속 참도를 찾겠느냐? 그것은 영이 일을 시작했고, 지금 하는 말은 전 우주의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이미 반은 진행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큰일을 해 왔으며, 각기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사역을 하고, 각기 다른 나라에서 사역을 했다. 각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그의 각기 다른 성품을 볼 수 있는데, 물론 그것은 그가 하는 각기 다른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그는 자비와 공홀이 넘치는 하나님이고, 사람의 속죄 제물이자 목자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사람에게 심판이자 형벌이며, 저주이기도 하다. 그는 사람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2 천 년 동안 이끌었고, 파괴된 인류를 죄에서 속량했다. 오늘날에 이르러 그는 그를 알지 못하는 인류를 그의 권세 아래 정복하여 모든 사람이 완전히 순종하게 한다. 최종적으로 그는 전 우주의 사람들 속에 있는 불결하고 불의한 것들을 모조리 깨끗이 불사를 것이며, 그것을 통해 그가 공홀과 자비의 하나님이자,

지혜롭고 기묘하며 거룩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 줄 것이다. 그는 전 인류 가운데 악한 자들을 불사르고 심판하며 징벌할 것이다. 또 온전케 될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연단, 시련을 주면서도 위로해 주고 붙들어 주며 말씀으로 공급하고 책망하고 훈계할 것이다. 그리고 도태될 사람들에게는 징벌을 내리며 그에 따른 보응을 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두 번의 성육신으로 성육신의 의의가 완전해지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7)

지금까지 6 천 년에 걸쳐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행사도 많이 나타냈는데, 가장 주된 목적은 사탄을 물리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늘의 만물, 땅 위의 만물, 바닷속의 만물, 더 나아가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보여 준다. 또 사탄을 물리침으로써 그의 모든 행사를 사람에게 보여 주며, 사람들이 모두 그를 칭송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그의 지혜를 찬미하게 한다. 땅 위, 하늘, 바닷속의 만물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전능과 모든 행사를 찬미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외칠 것이다. 이것이 사탄을 물리치고 정복했으며 더욱이 인류를 구원했다는 증거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원수를 물리쳐 승리하고 돌아왔음을 찬미하며, 그를 가리켜 승리를 거둔 위대한 왕이라고 찬미할 것이다. 사탄을 물리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에 그의 사역이 6 천 년 동안 지속된 것이다. 하나님은 사탄을 물리침으로써 인류를 구원하고, 사탄을 물리침으로써 자신의 모든 행사와 모든 영광을 나타낸다. 그는 영광을 얻을 것이고, 모든 천사들이 그의 모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하늘의 사자, 땅의 인류, 땅의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가 하는 사역이다. 하늘과 땅의 피조물은 모두 그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는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해 돌아와 인류의 찬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일거양득의 사역이다. 결국에는 인류 전체가 그에게 정복될 것이며,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마지막에 모두 멸망될 것이다. 다시 말해, 사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멸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너는 온 인류가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 알아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8)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행한 사역은 하나님이 땅에서 할 사역의 발원지, 자신이 거할 성지를 인류 가운데 세우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역 범위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이스라엘 밖에서는 사역하지 않았는데, 사역 범위를 줄이기 위해 적합한 사람을 택했던 것이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곳이다. 여호와는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고, 그곳은 그가 땅에서 사역하는 근거지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아의 후손이자 아담의 후손이며, 여호와가 땅에서 사역하는 데 기반이 되는 사람들이기도 했다.

당시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의의와 목적, 그리고 절차는 온 땅에서 그의 사역을 펼치기 위함이었으며, 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방까지 사역을 확장하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점에서 면으로 확장하는 방식은 그가 온 우주에서 사역하는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확장하여 온 우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최초의 이스라엘 사람은 노아의 후손이었는데,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여호와가 준 생기뿐이었다. 물론 의식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사람에 대한 그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으며, 창조주를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욱 알지 못했다. 규레나 율레가 있는지,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담의 후손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남편은 땀 흘려 일하며 가족을 건사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여호와가 창조한 인류를 위해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밖에 몰랐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생기와 생명만 가진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창조주를 흠족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아는 것이 너무 없었다. 그러므로 교활하거나 간사한 마음도 없고, 시기하거나 분쟁한 적도 매우 드물었지만, 창조주인 여호와에 대해서는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인류의 선조는 여호와의 것을 먹고 누릴 줄만 알았지, 여호와를 경외할 줄도, 여호와가 그들이 경배해야 하는 분인 줄도 몰랐다. 이런 자들을 어찌 피조물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여호와는 창조주이다.”, “그가 인류를 창조한 이유는 자신을 나타내고 영화롭게 하며, 대표하게 하기 위함이다.” 등의 말씀이 빈말이 되지 않겠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가 어찌 여호와의 영광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겠느냐? 어찌 여호와의 영광을 빛내는 존재가 되겠느냐? 그렇다면 사탄, 그 악한 자가 “나는 나의 형상대로 인류를 만들었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트집을 잡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한 것을 모욕하는 표시가 되지 않겠느냐? 여호와는 그 단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인류를 창조한 후,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어떤 지시나 인도도 하지 않았다. 그는 홍수로 세상을 멸한 후부터 노아의 후손이자 아담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을 본격적으로 인도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사역과 말씀으로 이스라엘 전역 모든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주었다. 나아가 여호와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그의 생명을 갖추게 하고, 사람을 흠에서 소생시켜 창조된 인류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불태우고 저주할 수 있고 그의 채찍으로 인류를 다스릴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낮과 밤의 시간에 맞춰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하고 사역함으로써 인류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도 보여 주었다. 여호와가 행한 사역은 그저 피조물로 하여금 사람은 본래 여호와가 땅에서 취한 흠에서 비롯되었으며, 또한 여호와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그가 먼저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이유는 이스라엘 외의 나라들과 족속들(사실은 이스라엘 외의 나라들과 족속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갈라져 나온 나라들과 족속들이다. 그들의 조상 역시 아담과 하와이다.)이 이스라엘을 통해 여호와의 복음을 받게 함으로써 온 우주 아래의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만약 여호와가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지 않고, 인류를 창조한 후 그들이 땅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했다면, 육적 본성(여기에서 본성이란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영원히 알지 못한다는 것, 즉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한 이유는 더더욱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킴)을 지닌 사람으로서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했다는 것도, 여호와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도 영원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한 후, 그들을 한동안 인도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전 인류는 무(無)로 돌아갔을 것이다. 아니, 인류뿐만 아니라 창조된 천지 만물까지 모두 무로 돌아갔을 것이며, 이 땅은 사탄에게 짓밟혔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여호와가 바라던 ‘이 땅, 그의 창조물 가운데서 설 자리, 즉 성지를 갖는’ 소망은 깨지고 만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한 후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고, 그들에게 말씀한 이유는 모두 자신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그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이유는 단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세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먼저 사역한 것은 만물을 창조한 것과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것은 다 그의 경영과 그의 사역,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인류 창조의 의의를 더 깊게 하기 위함이었다. 여호와는 노아 이후, 땅의 인류의 삶을 2 천 년 동안 이끌어 주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만물의 주인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여호와를 증거하고 순종하고 경외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윗과 여호와의 제사장들처럼 악기를 연주하며 여호와를 찬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율법시대의 사역>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9)

여호와가 2 천 년의 사역을 행하기 전까지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며 계속 타락해 갔다. 그리하여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 사람은 모두 음란하고 패괴되어 마음에 여호와가 없었으며, 그의 도는 더더욱 담아 두지 않았다. 그들은 여호와가 행하려는 사역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식견은커녕 이성조차 없던 그들은 그저 숨만 쉬는 기계 같아, 사람, 하나님, 만물, 생명 등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땅에서 독사처럼 유혹하는 일을 많이 했고, 여호와를 거스르는 말도 수없이 많이 했다. 하지만 그들이 무지했기에 여호와는 어떤 형벌도,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다만 홍수로 세상을 멸한 후 노아가 601 세가 되던 해에 정식으로 노아에게 나타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인도해 주었을 뿐이다. 즉, 여호와는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날짐승과 길짐승, 그리고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율법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끌어 주었는데, 그 기간은 총 2 천 5 백 년에 달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본격적으로 사역한 기간이 2 천 년이었고, 이스라엘 및 이스라엘 밖에서 동시에 사역한 기간이 5 백 년이었다. 두 기간을 합쳐 2 천 5 백 년이 되는 것이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자신을 섬기려면 성전을 짓고, 제사장 의복을 입어야 하며, 새벽부터 맨발로 성전에 들어가야 한다고 알려 주었다. 이는 그들이 신발로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혀 성전 위에서 떨어지는 불에 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 여호와와 안배에 순종했고, 성전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제사도 받았다. 다시 말해, 그들은 여호와가 말씀한 후에 백성들을 이끌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또한 여호와는 그들에게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아야 하며, 여호와의 때, 즉 여호와의 유월절에 미리 준비해 둔 초태생의 송아지와 어린양을 제단에 바쳐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고 알려 주었다. 이를 통해 그들을 단속하고,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했으며,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가늠했다. 이 밖에도 여호와는 그들을 위해 안식일을 정했다. 자신이 만물을 창조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을 첫날로 정했는데, 그날은 그들이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치고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미하는 날이었다. 그날이 되면, 여호와는 제사장들을 모두 소집하여 제단 위의 제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먹게 함으로써 여호와 제단 위의 제물을 누리도록 했다. 또한 여호와는 그들을 복이 있는 자, 자신과 더불어 분깃이 있는 자, 자신의 선민이라 했다(이것 또한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과 맺은 언약이었음).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여호와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율법시대의 사역>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0)

율법시대에 여호와는 수많은 계명을 정했고 모세를 통해 그를 따라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포했다. 그 계명은 여호와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으로, 애굽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 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들에게 하는 여호와의 요구였다. 안식일을 지키는지, 부모를 공경하는지, 우상을 숭배하는지 등을 원칙으로 죄와 의로움을 판단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에게는 여호와의 불이 임했고, 어떤 이는 돌에 맞아 죽었으며, 어떤 이는 여호와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 것들은 모두 계명을 지켰는지에 따라 결정되었다. 일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었고, 제사장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돌에 맞아 죽어야 했다. 그것은 모두 여호와가 인정하는 바였다. 여호와가 계명과 율법을 정한 것은 사람의 삶을 인도하는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율법으로 갓 난 인류를 통제하는 것은 앞으로 행할 사역의 기초를 다지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행한 사역을 근거로 첫 시대를 율법시대라 부르는 것이다. 여호와는 수많은 말씀과 사역을 했지만, 사람을 긍정적으로 인도하기만 했다. 즉, 그 무지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고, 생활할 줄 알며, 여호와의 도를 깨닫도록 이끌어 준 것이다. 여호와가 행한 사역 대부분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도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준행하게 한 것이었다. 이는 패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므로 성품의 변화라든가 생명의 성장 등을 논할

수는 없다. 그는 다만 율법을 통해 사람을 단속하고 통제했을 뿐이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여호와와 단지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이자 하늘의 하나님이었으며, 구름 기둥이자 불기둥이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하라고 한 것은 오늘날의 사람이 알고 있는 율법과 계명뿐이었는데, 사실 그것은 규례라고도 할 수 있다. 여호와가 행한 사역은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이 갖춰야 할 것들을 많이 베풀어 주고 친히 알려 주기 위함이었다. 지음 받은 후, 사람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것들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호와와 사람이 땅에 살면서 갖춰야 할 것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으며, 그것을 통해 여호와와 인도 받은 인류를 그들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보다 낮게 하였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베풀어 준 것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준 것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행한 사역은 단지 사람을 인도해 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를 인정하게 한 것뿐이다. 정복하는 것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라 그저 인도해 준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가 율법시대에 행한 사역의 전부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행한 사역의 배경이자 실상이며 본질이다. 또한 이는 모든 사람을 여호와와 수중에서 다스리는 6 천 년 경륜의 시작 사역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6 천 년 경륜에 더 많은 사역이 생겨난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율법시대의 사역>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1)

처음에 구약 율법시대의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과 비슷했다. 최초의 인류는 여호와가 처음 만든 인류,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을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해, 여호와가 인류, 즉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지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땅에서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관(器官)은 만들어 주지 않은 것이다. 여호와가 직접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이를 직접 알 수 없다.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이런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아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뿐이었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그를 경외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그를 경외하는 것인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그를 경외하는 것인지, 여호와를 위해 무엇을 바쳐야 그를 경외하는 것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사람은 여호와가 창조한 만물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는 법은 알고 있었지만,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피조물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인류를 아무도 이끌지 않고, 직접 인도해 주지도 않는다면, 인류는 영원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저 사탄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여호와는 인류, 즉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더 많은 총명과 지혜를 베풀어 주지는 않았다. 그들은 땅에서 생활했지만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인류를 창조하는 여호와의 사역은 전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반만 완성되었다. 여호와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을 뿐, 사람에게 그를 경외하고자 하는

충분한 의지는 주지 않았다. 처음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만 알았지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상식과 보편적인 법칙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7 일간의 일을 완성했지만,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껍데기만 있었을 뿐, 사람으로서의 실체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했다는 사실만 알았지, 어떻게 그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야 하는지 몰랐다. 그러므로 인류가 생겨났음에도 여호와의 사역은 완성되지 않았다. 여호와는 또 인류를 그의 앞으로 철저히 인도하여 땅에서 무리 지어 살면서 그를 경외하게 하고, 그가 인도한 후에도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렇게 해야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역이 모두 끝나게 되는 것이었다. 즉, 여호와의 창세 사역이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인류를 창조한 이상, 그들을 인도하여 땅에서 수천 년을 살게 하고, 그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게 해야 했다. 또한, 인류가 땅에서 정상적으로 그들의 모든 활동을 하게 해야 했다. 그렇게 되어야 여호와의 사역이 모두 끝나는 것이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역 이상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2)

예수의 사역은 그 시대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 이뤄졌다. 그는 그의 사역에 따라 인류를 구속하고 사람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겸손, 인내, 사랑, 경건함, 포용, 긍휼 그리고 자비의 성품을 가져왔으며,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 그리고 온갖 누릴 것들을 베풀어 주었다. 사람이 누리는 모든 것은 평안과 희락이었고, 예수의 관용과 사랑이었으며, 그의 긍휼과 자비였다. 당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함, 영적인 위로, 예수에 대한 의존감 등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은 다 그들이 살던 시대와 관련이 있다. 은혜시대에 사람은 이미 사탄에 의해 패괴되어 있었다. 온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행하고 그 성과를 내려면, 반드시 풍성한 은혜와 한없는 포용, 인내, 나아가 사람의 죄를 충분히 사해 줄 수 있는 속죄 제물이 있어야 했다. 은혜시대의 사람은 죄를 사해 주는 속죄 제물, 즉 예수만 보았을 뿐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포용한다는 것만 알았으며, 그들이 본 것 또한 예수의 긍휼과 자비뿐이었다. 이는 다 그들이 은혜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구속되기 전에 반드시 예수가 베풀어 주는 수많은 은혜를 누려야 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들은 은혜를 누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가 베풀어 준 포용과 인내를 누림으로써 속죄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예수의 포용과 인내로 인해 사람은 죄 사함 받을 자격을 얻었고, 그가 베풀어 준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예수가 ‘의인을 구속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속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하러 온 것’이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성육신한 예수가 심판과 저주의 성품을 지니고 와서 사람이 범하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영원히 구속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며, 영원히 죄에 속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6 천 년 경륜은 율법시대에서 정지되고,

그 상태로 6 천 년 동안 지속되면서 사람의 죄는 갈수록 많아지고 깊어졌을 것이고 따라서 인류를 창조한 의의도 사라졌을 것이다. 사람은 율법하에서만 여호와를 섬기게 되지만 인류의 죄는 최초로 지음 받은 인류의 죄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예수가 인류를 사랑하고 사람의 죄를 사해 줄수록, 사람에게 충만한 공훈과 자비를 가져다줄수록, 사람은 예수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더 생기고, 예수가 비싼 값을 들여 사 온 길 잃은 양이라 일컬어지게 된다. 반면 사탄은 그 사역에 끼어들 수 없다. 예수는 자애로운 어머니가 품속의 갓난아기를 대하듯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했기에, 노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대했다. 예수는 그들 가운데서 진노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들의 우매함과 무지함을 보지 않고 그들의 죄를 포용해 주었고 나아가 ‘사람을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그의 마음으로 감화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의 포용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구속시대 사역의 실상>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3)

성육신한 예수에게는 감정이 없었지만, 늘 제자들을 위로해 주고 공급해 주며, 도와주고 붙들어 주었다. 그는 많은 사역을 행하면서 수없이 고통을 겪었지만 사람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사람의 죄를 한결같이 인내하며 포용해 주었다. 이에 은혜시대 사람들은 그를 ‘사랑스러운 구주 예수’라고 친근하게 불렀다. 당시의 모든 사람이 본 예수의 소유와 어떠함은 공훈과 자비였다. 그는 사람의 과오를 기억하지 않았고, 그 과오를 잣대로 사람을 대하지도 않았다.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그는 늘 풍성한 음식을 베풀어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주었다. 사람들에게 그를 믿고,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진실함과 간절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 그는 심지어 썩은 시체를 살리기까지 하였다. 이를 통해 죽은 자도 그의 손에서 부활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처럼 그는 언제나 사람들 가운데서 묵묵히 참으면서 구속 사역을 행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속죄 제물이 된 것이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열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십자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자신의 공훈과 자비, 거룩함을 모두 인류에게 베풀어 준 것이다. 그는 언제나 관용으로 사람을 대하고 보복하지 않았으며, 사람의 죄를 사해 주고 회개하도록 가르쳤다. 또한 사람에게 인내와 포용과 사랑을 갖고, 그가 걸은 길을 걸으며, 십자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형제자매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마리아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었다. 그가 행한 사역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냄을 원칙으로 삼았는데, 이러한 사역은 모두 그의 구속을 위한 것이었다. 예수는 어디를 가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 가난한 자를 풍족하게 하고 앓은뱅이를 걷게 했으며, 눈이 먼 자를 보게 하고 귀가 먼 자를 듣게 했다. 심지어는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자, 즉 죄인을 멀리하지 않고 불러 모아 그들과 동석하며 늘 참아 주었다. 나아가 “목자는 양 백 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나머지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다닐 것이다. 그러다가 찾으면 몹시 기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기까지 했다.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자를 사랑하기를 어미 양이 새끼를 사랑하듯 했다. 우매하고 무지한 그들은 예수의 눈에 모두 죄인이었으며, 사회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는 도리어 남들이 무시하는 그 죄인들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겼다. 예수는 그들을 사랑했기에 제단에 바쳐진 어린양처럼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그들의 종이 된 것처럼, 그들에게 마음대로 사용되고 죽음 당할지라도 무조건 순종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사랑스러운 구주 예수였다. 하지만 그는 높은 곳에 서서 사람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은 공훈과 사랑이 아닌, 혐오와 반감으로 대했다. 그가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행한 사역은 그리 많지 않았다. 때때로 훈계하고 질책했을 뿐, 그들 가운데서는 구속 사역을 행하지 않았고 이적과 기사도 행하지 않았다.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훈과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 그는 그 죄인들을 위해 끝까지 참고 십자가에 달려 온갖 모욕을 받은 후에야 온 인류를 완전히 구속했다. 이것이 그가 행한 모든 사역이다.

예수가 사람을 구속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계속 죄 속에서 살면서 죄의 자손과 귀신의 후손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온 땅은 사탄이 기거하고 살아가는 곳으로 변했을 것이다. 구속 사역을 행할 때는 반드시 사람에게 공훈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했다. 그래야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최종적으로 온전케 되어 완전히 얻어질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그 단계의 사역이 없었다면, 6 천 년 경륜도 전개될 수 없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사람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기만 했다면, 사람의 죄는 온전히 사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땅에 와서 3 년 반 동안 사역하며 구속 사역의 반만 완수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 있는 육신의 형상이 되었고, 그 악한 자에게 넘겨진 후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고 인류의 운명을 주관했다. 그는 사탄의 손에 넘어간 뒤에야 인류를 속량할 수 있었다. 예수는 세상에서 33 년 반 동안 비웃음, 비방과 버림을 당했으며, 심지어는 머리 둘 곳도 안식할 곳도 없이 고난을 겪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로 인해 온전한 자기 자신, 즉 거룩하고 무고한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온갖 고난을 다 겪었던 것이다. 집권자들은 그를 희롱하고 채찍질했으며, 병사들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말 한 마디 없이 끝까지 참으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속했다. 그리고 나서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가 행한 사역은 은혜시대만 대변할 뿐, 율법시대는 대변하지 못하며 말세 사역도 대신할 수 없다. 이것이 은혜시대에 예수가 행한 사역의 본질이며, 인류가 겪은 두 번째 시대인 구속시대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4)

예수는 여호와와의 사역 이후에 성육신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였다. 그의 사역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사역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하나님이 율법시대를 끝내고 행한 새 시대의 사역이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사역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은 다음 시대의 사역을 계속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 경영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낡은 시대가 지나가면 새로운 시대로 대체해야 하고, 옛 사역이 끝나면 새 사역으로 하나님의 경영을 이어 가야 한다. 이번 성육신은 예수의 사역을 이은 하나님의 두 번째 성육신이다. 물론, 이번 성육신 역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시대와 은혜시대의 뒤를 잇는 세 번째 단계의 사역이다. 하나님이 새 사역을 펼칠 때마다 늘 새로운 시작이 있고, 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방식, 하나님의 사역 장소, 하나님의 이름에도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생긴다. 이러니 사람이 하나님의 새 시대 사역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대적하든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사역을 하고 있고, 항상 전 인류를 인도하여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수는 인간 세상에 와서 율법시대를 끝내고 은혜시대를 열었다. 말세에 하나님은 다시 성육신하였으며, 이번 성육신은 은혜시대를 끝내고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를 열었다. 두 번째 성육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하나님나라시대로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직접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예수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수많은 사역을 했다. 그러나 그는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하고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되었을 뿐, 사람의 패괴 성품을 다 벗기지는 않았다.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하려면 예수가 속죄 제물이 되어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하여 사탄에 의해 패괴된 사람의 성품을 완전히 벗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은 후 다시 성육신하여 사람을 새 시대로 인도하고, 형벌과 심판의 사역을 시작했다. 이 사역은 인류를 더 높은 경지로 인도했다.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더 높은 진리를 누리고, 더 큰 축복을 얻고, 진정으로 빛 속에서 살며, 진리와 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서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5)

사람이 은혜시대에만 머무르면 패괴 성품을 영원히 벗어 버릴 수 없고, 더욱이 하나님의 고유 성품을 알 수도 없다. 늘 풍성한 은혜 속에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만족게 하는 생명의 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얻지 못한다. 이런 신앙은 너무도 가련하다. 네가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성육신 하나님이 하나님나라시대에 행한 사역들을 하나하나 체험하고 나면, 너는 오랜 소망이 드디어 실현되었다고 느낄 것이다. 또 이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발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사역의 지혜를 알게 되었다고 느낄 것이며,

하나님이 이토록 실제적이고, 이토록 전능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느낄 것이다. 또한 이전 사람이 보지 못하고 얻지 못한 많은 것을 얻었다고 느낄 것이며, 이때 너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물론 네가 이전의 관점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성육신한 사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수확 없이 빈손으로 끝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죄명을 얻을 수밖에 없다. 진리와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성육신한 하나님, 전능자의 이름 아래로 돌아올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더 많고 더 높은 진리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진정한 인생을 얻을 수 있고, 이전 사람이 못 봤던 이상(異象)을 볼 수 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것 같더라”(계 1:12~16) 이 이상이 바로 하나님이 지닌 모든 성품의 발현이며, 또한 이 모든 성품의 발현이 바로 이번에 성육신한 하나님의 사역의 발현이다. 계속되는 형벌과 심판 속에서 인자는 음성을 발하여 말씀하는 방식으로 고유 성품을 나타냄으로써 형벌과 심판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인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 모습이 바로 요한이 본 인자의 진실한 모습이다(물론 하나님나라시대의 하나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이를 전혀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은 사람이 언어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고유 성품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그의 본래 모습을 사람 앞에 나타낸다. 다시 말해, 인자의 고유 성품을 알게 된 사람은 인자의 본래 모습을 본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해서 사람이 언어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나라시대의 하나님 사역을 하나하나 체험한 후에는 요한이 말한 촛대 사이의 인자의 모습, 즉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것 같더라”라는 말의 진정한 함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이처럼 많은 말씀을 한 이 평범한 육신이 확실히 두 번째로 성육신한 하나님이라고 완전히 확신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신이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다고, 최고의 행운아라고 진정으로 느낄 것이다. 너는 이런 축복을 받고 싶지 않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서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6)

마지막 사역은 말씀 사역이다. 사람은 말씀을 통해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지금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은 변화는 은혜시대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 얻은

변화보다 훨씬 크다. 은혜시대에 안수기도를 하면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갔지만 사람 안의 패괴 성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기는 했지만, 사람 안에 존재하는 사탄의 패괴 성품을 없애는 사역은 없었기에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받았을 뿐, 죄짓는 본성은 그대로 남아 사람 안에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사람 안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성육신 하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은 것이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로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고 죄성을 완전히 벗어 버리며, 죄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죄 사함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탄의 패괴된 옛 성품 안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사람을 사탄의 패괴 성품에서 완전히 구원해야 하며, 죄성을 완전히 벗겨 버리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게 하여 성품이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생명이 자라나는 길과 생명의 도, 성품이 변화되는 과정을 알게 해야 하고, 그 길을 따라 실행하게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성품의 변화를 받고 빛 비춤 아래에서 살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고, 사탄의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게 하며,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죄에서 완전히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가 사역할 때, 예수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여전히 막연하고 모호했다. 사람은 줄곧 그를 다윗의 자손으로 여겼고, 대선지자이자 사람의 죄를 속량하는 인자한 주님이라고 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았고, 소경도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죽은 자도 부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힌 사탄의 패괴 성품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것을 어떻게 벗어 버려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았다. 육체의 평안과 즐거움, 한 사람이 주를 믿으면 온 가족이 복을 받는 것, 병이 낫는 것과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 외에도 선행을 하고 경건한 겉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신자라고 불릴 자격이 있었다. 그런 신자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생전에 생명의 도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그저 죄를 짓고 자복하기만을 반복할 뿐, 성품이 변화되는 길은 없었다. 은혜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상태였다. 사람이 완전히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그 단계 사역이 끝난 후에 또 한 단계의 심판과 형벌 사역이 있는 것이다. 이 단계에는 말씀을 통해 사람을 정결케 하고 사람이 실행할 길을 얻게 한다. 이 단계에서도 귀신을 쫓아낸다면 아무런 성과도, 의미도 없을 것이다. 사람이 죄성을 벗어 버리지 못하고 그저 죄 사함을 받은 기초에만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속죄 제물을 통해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 십자가 사역이 끝났고 하나님이 사탄을 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 안에는 패괴 성품이 아직 존재한다.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인류를 얻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번 사역은 말씀으로 사람의 패괴 성품을 들추어내어 사람이 적합한 길을 따라 실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 단계 사역은 이전 단계의 사역보다 더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성과도 더 크다. 지금은 말씀으로 직접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사람의 성품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더 철저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성육신은 하나님이 성육신한 의의를 완전케 하였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확실히 완성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의 비밀 4>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7)

말세 사역에서 말씀의 위력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위력을 넘어섰으며, 말씀의 권병은 이적과 기사와 권병을 능가하였다. 말씀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패괴 성품을 다 들추어냈다. 너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어도 말씀으로 들추어내면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진심으로 탄복하게 된다. 이것이 말씀의 권병 아니겠느냐? 이는 모두 오늘날의 말씀 사역으로 얻은 성과다. 그러므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사람을 죄에서 완전히 구원할 수 없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람을 완전히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병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데 그친다. 하지만 사람의 육은 여전히 사탄에게 속하며, 사람의 내면에는 여전히 사탄의 패괴 성품이 남아 있다. 즉, 정결케 되지 못한 사람은 계속 죄에 속하고 더러움에 속한다. 오직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야만 하나님께 얻어지고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고 사람을 속량해 온 것은 그저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하나님께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정결케 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패괴된 사람이다. 사람의 내면에는 여전히 더러움이 남아 있고 대적과 거역이 남아 있다. 다만 속량받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할 수 있다. 사람이 속량받기 전에 이미 사탄의 많은 독소가 사람 안에 심어져 있었다. 사람은 수천 년 동안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고, 내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것은 그저 속량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비싼 값을 치르고 사람을 사 온 것이다. 하지만 사람 내면에 있는 독성은 제거되지 않았다. 이렇게 더러운 사람은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을 섬길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심판하고 형벌하는 이번 단계의 사역으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더럽고 패괴된 본질을 완전히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자격이 주어진다. 오늘날 행하는 이 모든 사역은 사람을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말씀의 심판과 형벌, 연단으로 패괴를 벗겨 정결케 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정결케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편이 낫다. 사실 이번 단계 사역은 정복 사역이자 두 번째 구원 사역이다. 사람은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통해 하나님께 얻어지는데, 이는 말씀으로 연단하고 심판하고 들춰내며, 사람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 관념, 속셈 또는 개인적인 소망을 모두 드러내는 것이다. 사람은 속량되어 죄 사함을 받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과오를 문제 삼지 않고 사람을 과오에 따라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하지만 사람이 육으로 살며 죄를 떨쳐 버리지 못하면 계속

죄를 짓고 사탄의 패괴 성품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사함을 받는 사람의 삶이다. 많은 사람이 낮에는 죄를 짓고 밤에는 죄를 자복한다. 이러면 속죄 제물이 사람에게 영원히 유효할지라도 사람을 죄악에서 구원할 수는 없다. 이는 구원 사역을 반만 완성한 것에 불과하다. 사람에게 여전히 패괴 성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신이 모압의 후손임을 알게 되었을 때 원망했고, 생명을 추구하지도 않았으며, 완전히 소극적으로 변했다. 이는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권세에 완전히 순종하지는 못한다는 뜻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사탄의 패괴 성품 아니겠느냐? 너는 형벌받지 않았을 때 누구보다 높이 손을 들었다. 심지어 예수보다도 더 높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기(知己)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죽을지언정 사탄에게 굴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탄을 내치겠습니다! 큰 붉은 용을 저버리겠습니다! 큰 붉은 용을 철저히 무너뜨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케 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크게 외쳤지만 결국 형벌 시대가 오자, 사람의 패괴 성품은 또 드러났다. 사람은 외치지도 않았고 의지도 없어졌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패괴로, 죄보다 더 깊고, 사탄이 사람 안에 심어 놓은,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들이다. 사람의 죄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는 본성을 사람은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말씀의 심판을 통해 성과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이 그때부터 차츰 변화될 수 있다. 사람이 예전에 그렇게 외친 것은 모두 원래 가지고 있는 패괴 성품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 안에 있는 불순물이다. 오랜 심판과 형벌로 사람은 모두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다 말씀으로 이룬 것 아니더냐? 너는 봉사자가 되기 전까지 크게 외치지 않았더냐? “하나님나라에 들어가게 됐어! 이 이름을 받아들인 자는 모두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거야! 누구나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있다고!” 하지만 봉사자의 시련을 주자 더 이상 외치지 않았다. 처음에 사람은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어디에 두시든 저는 당신이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외쳤다. “누가 내 바울이냐?”라는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그는 “제가 바울이 되겠습니다!”라고 했고, 또 “욥의 믿음이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욥의 믿음을 갖추겠습니다. 저에게 시련을 주십시오!”라고 했다. 하지만 봉사자의 시련이 닥치자 그 즉시 쓰러져 일어서지도 못할 뻔했다. 그 후 사람 마음속의 불순물도 차츰 줄어들었다. 이것은 모두 말씀으로 이룬 것 아니더냐? 그러므로 오늘날 너희가 체험한 것은 모두 말씀으로 이룬 성과다. 그것은 심지어 예수가 지난날 이적과 기사를 나타냄으로써 얻은 성과보다도 크다. 너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권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말씀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권병을 보았다. 이는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은 기적을 보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며, 말씀의 심판은 더더욱 하나님의 권병을 대변하고 전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8)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대를 열고, 말씀으로 사역의 방식을 바꾸며, 말씀으로 전체 시대의 사역을 행한다. 이것이 말씀 시대에 하나님이 사역하는 원칙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각기 다른 위치에서 말씀함으로써 사람에게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기묘함을 보게 한다.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사람을 정복하고 온전케 하며 도태시키기 위한 목적을 더 잘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 시대에 말씀으로 사역하는 진정한 함의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알고, 사람의 본질을 알며, 사람이 진입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 시대에 행하려는 모든 사역을 이루는 한편, 사람을 드러내고 도태시키고 사람에게 시련을 준다. 사람은 말씀을 보고 들었기에 말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 나아가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게 된 것이다. ‘말씀’이라는 단어는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성육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천지를 진동시키고, 사람의 마음과 고정 관념, 그리고 옛 성품을 변화시켰으며, 온 세상의 낡은 면모를 변화시켰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말씀하며 사람을 구원한 분은 오직 오늘날의 하나님밖에 없다. 이로부터 사람은 말씀의 인도 아래에서 살고, 말씀의 양육과 공급으로 살게 되었다. 또한 말씀의 세계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의 저주와 축복 속에서 살게 되었으며, 더 많은 사람이 말씀의 심판과 형벌 속에서 살게 되었다. 이러한 말씀과 사역은 다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옛 창조 세계의 원래 모습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으며, 말씀으로 온 우주 사람을 인도하고 정복하고 구원하며,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옛 세상을 끝낸다. 이렇게 해야 전체 경륜의 모든 부분이 완성된다. 전체 하나님나라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역하고, 말씀으로 사역의 성과를 거둔다. 이적이나 기사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사역한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양분을 얻고 공급을 받으며, 인식을 얻고 진실한 체험을 하게 된다. 말씀 시대의 사람은 육체적 고통도 겪지 않고 풍성한 하나님 말씀을 누리기만 하면 되니 참으로 크나큰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들은 무작정 찾을 필요도, 무작정 뛰어다닐 필요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공급을 받고, 그가 친히 행하는 사역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은 역대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이고, 얻을 수 없었던 축복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나라시대는 말씀 시대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9)

인류는 사탄에 의해 너무 심하게 파괴되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광과 증거가 따랐지만 사람이 파괴되자 영광도 증거도 사라졌다.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복 사역을 하는 것은 모든 증거와 영광을 되찾아
오므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피조물 가운데 증거가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이 단계에 하려는 사역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인류를 정복하겠느냐? 이
단계의 말씀 사역을 통해 사람이 진심으로 탄복하게 하고, 폭로, 심판, 형벌과 무자비한
저주로 철저히 인정하게 한다. 또 사람의 패역을 폭로하고 사람의 대적을 심판하여 인류의
불의와 더러움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부각시킨다. 주로 이런 말씀을
통해 사람을 정복하고 사람이 진심으로 탄복하게 한다. 말씀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정복하는 경로이다. 정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말씀의 매와 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과정이 바로 정복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겠느냐? 너는 이런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어떻게
정복될지는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오직 이런 말씀을 먹고 마신 것을
기초로 자신의 패괴와 더러움, 패역과 불의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 실행해야 하며, 또한 이상(異象)도 갖춰야 한다. 네가 어떤
선택도 없이 이런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정복된 것이며, 그것도 말씀으로 인해
정복된 것이다. 인류는 왜 증거를 잃었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인류를 정복하는 것은 인류가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늘 세상을 좇는다. 소망이나 미래에 대한 바람, 사치스러운 요구가 너무 많고, 늘
육에 신경 쓰며 육적인 것을 고려할 뿐, 하나님을 믿는 길을 찾으려는 마음은 전혀 없다. 또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인데도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고 한사코 사탄만 위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증거를 잃게 되었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잃게 된 것이다. 인류를 정복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함이다.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추구하지 않는다.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손꼽을 정도로 적다. 사람은 무엇보다 앞날을 걱정할 뿐
생명은 전혀 중요시하지 않는다. 거역하고 대적하고 뒤에서 판단하며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일단 차치할 것이며, 이 부류의 패역한 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처벌도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중에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너는 빛 속에서 살면서도 빛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 살게 되면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후회할 것이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어둠이 찾아오고 빛이 영영
사라질 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지금 네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직 현재의
사역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 우주의 사역이 전개되면, 즉 지금 내가 한 이 말이 다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이 대성통곡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아니겠느냐? 진정으로 생명을 추구하여 온전케 된 사람은 모두 쓰임 받을 수 있다.
쓰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패역한 자식들은 모두 어둠 속에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성령
역사가 조금도 없으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징벌 속에 떨어져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이 단계 사역에서 네가 진리로 잘 무장하고 생명이 성장한다면 너는 쓰임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잘 무장하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 사역에서 너를 쓰고 싶어도 쓰기에 적합하지 않을 테니, 그때 가서 무장하려고 해도 기회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떠나면 네가 어디 가서 지금과 같은 이런 사역 기회를 찾겠느냐? 네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훈련을 직접 받겠느냐?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지도 않고 음성을 발하지도 않을 텐데, 지금 한 말씀만 보고서 어떻게 잘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후의 생활이 어찌 지금과 비교가 되겠느냐? 그때가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면 생고생하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너는 복을 주어도 누릴 줄 모르고 복 가운데서 살면서도 복인 줄 모르니, 고생할 팔자인 것이다! 지금 어떤 이들은 대적하고, 어떤 이들은 거역하며, 어떤 이들은 이런 짓, 저런 짓을 하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너희가 저지른 그 짓거리들을 내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본질을 모를 리 있겠느냐? 구태여 계속 나와 맞설 필요가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너 자신을 위해 생명을 추구하고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더냐? 너는 너 자신을 위해 믿는 것 아니더냐? 지금 나는 그저 말로써 정복 사역을 할 뿐이다. 정복 사역이 끝나면 너의 결말도 드러날 텐데, 굳이 내가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정복 사역의 실상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0)

지금의 정복 사역은 사람의 결말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다. 왜 지금의 형벌과 심판이 바로 마지막 날의 최고 큰 보좌 앞의 심판이라고 하겠느냐? 이것도 꿰뚫어 보지 못했느냐? 왜 마지막 단계 사역은 정복 사역이겠느냐? 바로 각 부류 사람의 결말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 형벌과 심판의 정복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본모습을 드러낸 후 각기 부류대로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 인류를 정복한다고 하기보다는 각 부류 사람들의 결말을 드러낸다고 하는 편이 낫다. 다시 말해, 사람의 죄를 심판함으로써 각 부류의 사람들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악한 자인지 의로운 자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정복 사역 다음은 상선벌악의 사역이다.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즉 철저히 정복된 사람은 전 우주로 확장하는 다음 단계 사역 가운데 놓일 것이고, 정복되지 않은 사람은 어둠 속에 놓여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듯 사람은 각기 부류대로 나뉘게 되는데, 악인은 악으로 돌아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며, 의인은 선으로 돌아가 빛을 얻고 영원한 빛 속에서 살게 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고 사람의 결말도 눈앞에 드러났다. 만물이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것인데 사람이 어찌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각 부류 사람의 결말은 만물의 결말이 가까이 왔을 때 드러나고, 또 전 우주의 정복 사역(지금부터 시작되는 모든 정복 사역 포함) 가운데서 드러난다. 모든 인류의 결말은 심판대 앞에서, 형벌 가운데서, 말세의 정복 사역 중에서 드러난다. 각기 부류대로 나누는 것은 사람이 원래 속했던 부류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은 한 부류, 즉, 남자와 여자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사람의 부류가 많지 않았다. 다만

사람이 수천 년간 패괴되면서 부류가 생겼을 뿐이다. 어떤 부류는 더러운 귀신의 권세 아래, 어떤 부류는 악귀의 권세 아래, 어떤 부류는 생명의 도를 추구하여 전능자의 권세 아래 속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점점 부류가 생겼고, ‘사람’이라는 대가족이 각각의 부류대로 나뉘어 저마다 서로 다른 ‘아버지’를 갖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다 전능자의 권세 아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패역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공의로운 심판이 각 부류 사람의 진면목을 숨김없이 들춰내 모든 사람은 빛 속에서 본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때 사람은 이미 태초의 모습이 아니다. 사람의 조상이 원래 가지고 있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사탄에게 사로잡혀 하늘해(원문: 天日)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의 내면은 사탄의 여러 가지 독소로 점철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적합한 종착지가 생겼고, 모두가 저마다 지닌 서로 다른 독소에 따라 각기 부류대로 나뉘게 되었다. 즉, 오늘날 정복된 후의 정도에 따라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것이다. 사람의 결말은 창세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한 부류밖에 없었는데, 그들을 통틀어 ‘인류’라고 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사람은 사탄에 의해 패괴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았으며, 어둠이 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탄에 의해 패괴된 후에는 각종 사람, 즉 남자, 여자의 통칭인 ‘인류’라는 이 대가족에서 갈라져 나온 각종 사람이 온 땅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조상에게 이끌려 그들의 가장 오래된 조상인 남자와 여자(최초의 아담과 하와, 그들의 가장 오래된 시조), 그 인류를 떠나게 되었다. 그때, 여호와와 인도를 받으며 땅에서 생활한 사람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뿐이었다. 이스라엘 온 땅(최초의 대가족)에서 갈라져 나온 각 부류의 사람들은 여호와와 인도를 잃게 되었다. 처음 난 인류는 인간 세상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조상을 따라 그들이 차지한 땅에서 지금까지 살았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 오늘날까지 온갖 더러운 귀신과 악령에 의해 패괴되기에 이르렀건만 어찌 된 영문인지도 모른다. 오늘날에 이르러 심하게 패괴되고 중독된 사람들, 즉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 그러니까 그들을 패괴시킨 더러운 귀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류의 적합한 종착지에 들어갈 것이다. 이는 구원받고 정복된 사람의 결말이다.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최선을 다해 구원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마비되어 구제 불능이 된 사람은 그들의 조상을 따라 사람을 형벌하는 무저갱에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 너의 결말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는데 오늘에야 드러난다고 생각하지 마라. 태초에 인류를 만들 때는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만 만들었고(남자와 여자만 만들었음), 사탄과 같은 부류의 인류는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잊었느냐? 만약 네가 처음부터 사탄의 후예였다면, 여호와가 사람을 만들 때 사탄과 같은 부류의 사람도 만들었다는 말이나? 그가 그렇게 할 리가 있겠느냐? 그가 사람을 만든 것은 그의 증거를 위해서이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그가 일부러 사탄의 자손과 같은 부류를 만들어 자신을 대적하게 할 리 있겠느냐? 여호와가 그렇게 할 리 있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그를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너희 중 일부를 가리켜 결국 사탄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네가 처음부터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심하게 타락했기 때문이다. 설령 너를 구원한다고 해도 너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너를 사탄 부류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너를 공의롭게 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저 네가 구제 불능이기 때문이다. 일부러 너를 사탄의 화신으로 정한 다음 사탄에게 주어 고통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복 사역의 실상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의 인식이 너무 단편적인 것이다! 마지막 때의 정복은 구원을 위한 것이고, 또한 사람의 결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심판으로 사람의 타락을 들춰내고, 이를 통해 사람이 회개하고 분발하고 생명을 추구하고 인생의 바른길을 추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무감각하고 우둔한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고, 심판으로 사람 내면의 패역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인생의 바른길을 추구하지 않으며 이런 패괴를 벗어 버리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사탄에게 삼켜질 구제 불능인 자다. 이것이 정복의 의의다. 정복은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또한 결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좋은 결말이든 나쁜 결말이든 다 정복 사역을 통해 드러난다. 사람이 구원받는지 저주받는지도 정복 사역에서 드러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정복 사역의 실상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1)

말세에는 정복을 통해 만물이 각기 부류대로 나뉘게 한다. 정복은 말세의 사역이다. 즉, 각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 말세의 사역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찌 각기 부류대로 나뉠 수 있겠느냐? 너희들 가운데서 하는, 각기 부류대로 나누는 사역은 전 우주에서 각기 부류대로 나누는 사역의 시작이다. 이후에는 각 지역, 각 민족도 다 이 정복 사역을 받아들일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창조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각기 부류대로 나뉘게 될 것이고, 모두 심판대 앞으로 돌아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사물도 이 형벌과 심판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한 각기 부류대로 나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부류에 따라 나뉜다. 만물의 결말이 가까이 왔고 온 천지가 끝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이 어찌 생존이 끝나는 날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의 패역한 행위가 얼마나 오래가겠느냐? 너희의 마지막 날이 다 눈앞에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날을 보지 못할 수 있겠느냐? 어찌 마지막에 선행에 대한 상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너는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들여 저주받는 사람이나? 너는 빛 속의 심판대 앞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어두운 음부에서 살고 있느냐? 네가 마지막에 상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는 너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의 행위와 너의 마음은 대체 어떠한가? 지금 내가 너를 정복함에 있어, 너의 행위가 악인지 선인지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는 나를 위해 얼마나 포기했느냐? 너는 나를 얼마나 깊이 경배하느냐?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너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의 결말이 과연 어떨지, 네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실대로 알려 주겠다. 나는 인류를 만들고 또 너를 만들었을 뿐, 너희를 사탄의 손아귀에 넘겨주지 않았고, 일부러 너희로 하여금 나를 거역하고 대적하게 해서 나의 징벌을 받게 하지도 않았다. 그런 재앙을 당하는 것은 모두 너희 자신의 마음이 너무 강박하고 너희의 행동이 너무 비열하기 때문 아니겠느냐? 그럼 너희의 결말 역시 너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너희의 결말은 너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 사람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네가 더 잘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지, 너에게 악을 행하라고 하는 것도, 일부러 너를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때가 되어 심하게 고통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면 그것은 전부 너의 죄 때문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 자신의 선이나 악은 너에게 가장 좋은 심판 아니겠느냐? 너의 결말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 아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정복 사역의 실상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2)

하나님은 말세에 와서 주로 말씀을 하는데, 영의 위치에서 말하고, 사람의 위치에서 말하고, 제 3 자의 위치에서도 말하는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씀한다. 일정한 기간마다 말씀하는 방식이 각기 다르며, 말씀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관념을 돌려세우고,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을 없앤다. 하나님은 주로 이 사역을 한다.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이 오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적을 행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베풀어 준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심판과 형벌의 사역을 하여 사람 관념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없애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실제적이고 정상적임을 알게 하고, 사람 마음속의 예수 형상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이 사람을 점유하게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내면에서 오래되면 우상에 속하게 된다. 예수가 와서 행한 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변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적과 기사를 어느 정도 행하고, 약간의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는 하나님의 일부를 대변했을 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을 대표하여 일부 사역만 행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묘하고 위대하여 측량할 수 없는 데다가 하나님은 한 시대에 일부 사역만 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주로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고, 사람의 본성, 본질과 패괴 성품을 폭로하며, 사람의 종교 관념, 봉건적인 사상과 낡은 사상을 없애는 것이다. 사람의 지식, 문화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말씀으로 드러내야 정결하게 된다. 하나님은 말세에 이적과 기사가 아닌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한다. 말씀으로 사람을 드러내고, 심판하며, 형벌하고, 온전케 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스러움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행사를 보게 한다. 율법시대에 여호와와 말씀으로 모세를 인도하여 출애굽 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간의 말씀을 했으며,

그때 하나님의 행사를 일부 나타냈다. 사람의 자질은 제한적이어서 어떻게 해도 전면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사역했던 것이다. 은혜시대에 사람들은 또 하나님 행사의 일부를 보았다. 예수는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육신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뿐이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여 주면 사람은 거기까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보여 주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그 정도 차원으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 사역하여 사람의 앎을 더욱 깊게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세에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패괴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실제로 너의 종교 관념을 대체한다. 하나님은 말세에 성육신하여 주로 “말씀이 육신 되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며,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을 이룬다. 이 부분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굳게 설 수 없다. 하나님은 말세에 주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이 사역을 이루는데, 이것은 하나님 경륜의 일부 사역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든 결국 하나님은 사람이 그를 규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말세에 이 사역을 행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앎이 어느 정도에서 그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든가, 소돔을 멸할 수 있다든가,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베드로에게 나타났다고든가 이런 것들만 알 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사람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만 이러한 앎을 얘기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어, 하나님을 자신의 관념으로 규정하지 않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 가는 유일하면서도 정확한 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현재 사역에 대한 인식>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3)

이 마지막 단계의 사역은 말씀으로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사람은 말씀을 통해 수많은 비밀을 알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사역을 알게 된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깨우침을 얻고, 지금까지 사람이 풀지 못한 비밀을 알게 되며, 역대 선지자와 사도가 한 사역과 사역의 원칙을 알게 된다. 또 사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고, 사람의 거역과 대적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본질도 알게 되었다. 사람은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사역과 모든 말씀을 통해 영의 사역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한 사역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성품도 알게 되었다. 네가 하나님의 6 천 년 경영 사역을 알게 된 것도 역시 말씀을 통해서이다. 과거에 네게 어떤 관념이 있었는지 깨닫고 그것을 버리게 된 것 역시 말씀으로 인한 것 아니더냐? 예수의 사역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지만 이번 단계 사역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된 것 역시 말씀으로 인한 것 아니더냐?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한 말씀은 역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한 사역을 능가한다. 선지자가 한 예언일지라도 이런 성과를 거둘 수는 없다. 선지자가 한 말은 예언에 불과하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 당시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사역이 아니고, 사람의 생활을 이끌어 주는 것도 아니며, 또 사람에게 진리를 베푸는 것도 비밀을 풀어 주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베풀어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번 단계에서 한 말씀에는 예언도 있고 진리도 있지만, 그 말씀은 주로 사람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의 말씀은 선지자의 예언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번 단계의 사역은 예언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 사람의 생명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첫 단계 사역은 여호와의 사역이었다. 그가 한 사역은 사람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주는 것이었고, 땅에 사역의 발원지를 마련하기 위한 시작 사역이었다. 당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고 가르쳤다. 당시 사람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고 땅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도 전혀 몰랐으므로 첫 단계 사역에서는 반드시 사람의 생활을 이끌어 주어야 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알려 준 것은 인류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고, 사람에게 없었던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일으켜 예언을 하게 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 예언을 했지만, 이는 그저 하나님 사역 중의 하나에 불과했다. 첫 단계 사역에서는 말씀이 육신 되지 않았으므로 선지자를 통해 각 나라와 족속을 효유했다. 예수가 사역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지는 않았다. 말세에 하는 이 단계의 말씀 사역은 역대에 행한 적이 없다. 비록 이사야, 다니엘, 요한이 많은 예언을 했지만, 그들이 한 예언은 지금 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르다. 그들의 말은 예언에 그쳤지만 지금 하는 말은 예언이 아니다. 내가 모든 말을 예언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한 말이 모두 내가 떠난 후에 일어날 일이라면,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말씀 사역은 예수 시대에 한 적이 없고, 율법시대에도 한 적이 없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실 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난날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는 한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말씀이지만 말씀에도 차이가 있다. 여호와가 한 말씀의 본질은 무엇이더냐? 그는 사람이 땅에서 생활하도록 이끌어 주었을 뿐, 그 말씀이 생명과 영적인 일에 관련되지는 않았다. 어째서 여호와가 말씀한 것을 각 지역에 효유했다고 하겠느냐? ‘효유’라는 두 글자는 분명히 알리고 직접 지시한다는 뜻이다. 여호와는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그를 경외해야 하는지 직접 가르쳤을 뿐, 비유 같은 것도 없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한 사역은 사람을 책망하거나 징계한 것이 아니었고 심판하거나 형벌한 것도 아니었다. 여호와는 그저 인도하기만 했다. 여호와는 모세를 시켜 그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라고 일러 주면서 날마다 해 뜨기 전에 주워 담으라고 했다. 그리고 이튿날까지 두면 썩어 버리니 그날 먹을 양만 넉넉히 거두라고 했다. 여호와는 사람을 꾸짖거나 사람의 본성을 들추어내지 않았고, 사람 내면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여호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을 이끌어 주었다. 그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아 단순히 기계적인 행동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호와와 율법을 반포해 백성들을 이끌어 주기만 한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의 비밀 4>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4)

하나님이 하는 말씀과 사역은 모두 시대에 따라 다르다. 시대가 달라지면 하나님이 하는 말씀도 달라진다. 하나님은 규례를 지키지 않고, 같은 사역을 반복하지 않으며, 지나간 일에는 미련을 두지 않는다. 또한, 그는 항상 새로운 하나님이기에 날마다 새 말씀을 한다. 너는 오늘 지켜야 할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은 사람의 책임이자 본분이다. 실행을 할 때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빛과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다양한 위치에서 말씀하면서 자신의 지혜와 전능을 나타낸다. 영의 위치에서 말씀하든, 사람의 위치에서 말씀하든, 또는 제삼자의 위치에서 말씀하든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이다. 그가 사람의 위치에서 말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관념이 생기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항상 같은 위치에서만 말씀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규정하도록 하나님이 놔두겠느냐? 그가 어떤 위치에서 말씀하든 거기에는 그의 목적이 있다. 만일 하나님이 늘 영의 위치에서만 말씀을 한다면 네가 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는 때때로 제삼자의 위치에서 말씀하고 공급함으로써 네가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한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적합하다. 어쨌든 모두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니 의심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이려면, 어떤 위치에서 말씀하든 여전히 하나님이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다. 어떻게 사역하든 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했어도 하나님은 그가 주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본질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사역할 때 규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사역 방식을 통해 성과를 내고, 사람이 그를 더 잘 알게 한다. 그의 사역 방식은 하나하나 다 사람이 그를 알아 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사역하든 그 목적은 다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데 있다. 어떨 때는 한 가지 사역 방식이 오랜 기간 계속될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사람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것이니 의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역 절차이므로 너희 모두 순종해야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말씀이 모든 것을 이룬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5)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주로 말씀을 한다. 네가 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보고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키고 체험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번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주로 말씀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한다. 그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으며, 특히 예수가 했던 사역은 하지 않는다. 둘 다 하나님이고 육신을 지녔지만 그들의 직분은 전혀 다르다. 예수 또한 땅에서 일부 사역을 행하고 말씀을 했다. 하지만 그가 완성한 사역은 주로 무엇이나? 십자가의 사역이었다. 죄 있는 육신의 형상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해 전 인류를 속량했다. 즉, 전 인류의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된 것이다. 그는 주로 이 사역을 이뤘으며, 궁극적으로 이후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명확히 알려 주었다. 예수가 온 것은 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전 인류를 속량하고,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 주었으며, 천국에 들어가는 길도 가져왔다. 그러므로 예수가 떠난 후에 사람들은 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 십자가를 위해 자신을 바쳐야 한다.”라고 했다. 물론 그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도록 다른 사역들도 하고 말씀도 했다. 하지만 그의 직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다. 3년 반 동안의 전도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예비한 것이었다. 예수가 몇 차례 기도한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것이었고, 정상인의 생활을 하며 3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생활한 것도 주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완전히 그에게 맡긴 것이다. 오늘날 성육신한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이룰까? 오늘날 하나님이 성육신한 이유는 주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사람들이 말씀의 책망과 연단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는 그의 말씀에서 공급을 받고 생명을 얻으며, 그의 사역과 행사를 보게 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너를 형벌하고 연단하므로 네가 받는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은 사실이 아닌, 말씀으로 사역한다. 말씀이 너에게 임한 뒤에야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여 고통을 받거나 달콤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를 실제로 이끌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를 온전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네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말세에 행하는 사역은 주로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이끈다는 것이다. 그는 말씀으로 모든 사역을 행한다. 사실로 너를 형벌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고통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으며, 그들은 육체적 형벌도 받지 않고, 고통도 별로 없다. 하지만 그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여 연단하면 너는 견딜 수 없게 된다. 그렇지 않더냐? ‘봉사자’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무저갱에 던졌다고 말씀했는데, 정말 무저갱에 떨어졌을까? 그저 말씀으로 사람을 연단시켰을 뿐인데, 사람은 무저갱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말세에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다. 너는 오직 그의 말씀에서 그의 어떠함을 볼 수 있고, 그의 말씀에서 그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볼 수 있다.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온 그는 다른 사역은 하지 않고 말씀만 한다. 그러므로 사실이 필요 없이 말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가 온 주요 목적은 이

사역을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말씀에서 그의 큰 능력과 지고지상함, 낮춤과 감춤을 보게 하며, 그의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어떠함과 소유는 다 그의 말씀 안에 있고, 그의 지혜와 기묘함도 다 그의 말씀 안에 있다. 여기서 너는 하나님 말씀의 다양한 방식을 보게 된다. 이렇게 오랜 시간 행해진 하나님의 사역은 대부분이 사람에게 공급하거나 들춰내거나 책망하는 것이었다. 그는 쉽게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며, 설사 저주할지라도 말씀의 저주에 그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육신한 이 시대에서는 그가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모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적을 보려고 하지도 말라. 그래 봤자 소용없다! 그런 이적들은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오늘날 성육신한 실제 하나님은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만 한다. 이것이 바로 진리다! 그는 말씀으로 너를 온전케 하고, 말씀으로 너를 양육하며, 말씀으로 사역하고, 말씀으로 사실을 대체하여 그의 실재를 알게 한다. 네가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꿰뚫어 보았다면 쉽게 소극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소극적인 것에는 신경 쓰지 말고 적극적인 것에만 신경 써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사실이 임하든 임하지 않든,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말씀에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장 큰 이적이자 확실한 사실이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증거이자,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이다. 이런 말씀만이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말씀이 모든 것을 이룬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6)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가 시작되자 하나님은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이 말씀들은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는 사람의 생명이 성장한 때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의 패괴 성품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실제적이고 더 필요하다. 오직 말씀으로 하기만 하는 것도 사람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지금은 말씀 시대라서 사람의 믿음과 의지, 협력이 필요하다. 말세에 성육신한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으로 사람을 섬기고 공급하는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끝나야 사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가 말씀하는 기간에는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가 육신에 거하는 단계에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이 아닌 육신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사람이 육안으로 직접 하나님의 실재를 보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의 사역이 끝나고, 땅에서 해야 할 말씀을 다 하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다. 그의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직 땅에서 말씀을 할 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라. 언젠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고 땅에서의 사역이 완성되면, 그때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가 땅에서 한 말씀은 한 면으로는 생명의 공급이고, 다른 한 면으로는 예언이다. 즉, 앞으로의 일과 해야 할 일과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을 예언한 것이다. 예수가 한 말씀에도 예언이 있다. 그는 생명을

공급하면서 예언도 했다.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는 사실 간에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은 말과 사실이 병행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저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된 뒤에 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사실은 말씀 뒤에 온다고 말할 뿐이다. 성육신 하나님이 말세에 이 땅에 온 것은 말씀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말씀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말씀만 하는 것이니, 다른 일은 그와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사역이 바뀌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은 먼저 이 말씀들로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그가 전 우주에서 영광을 받을 때는 그의 사역이 완성되었고, 해야 할 말씀도 다 했으며,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 되는 때이다. 하나님은 말세에 이 땅에 와서 말씀의 직분을 수행함으로써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의 말씀에서 그의 어떠함을 보게 하며, 그의 지혜와 모든 기묘한 행사를 보게 한다. 하나님나라시대에 하나님은 주로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정복한다. 장차 하나님 말씀이 각 종교, 각 분야, 각 나라, 각 교파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말씀이 권병과 위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게 한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이 마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한 말씀은 율법시대에 한 말씀과 전혀 다르고, 은혜시대에 한 말씀과도 다르다. 은혜시대에는 말씀 사역을 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전 인류를 속량하는 것만 언급했다. 성경에서도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떤 고통들을 겪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행한 것은 모두 십자가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나라시대에는 성육신 하나님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말씀으로 정복하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은 말세에 이 사역을 한다.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의 실제 의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는 말씀만 할 뿐, 사실이 임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의 본질이다. 성육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이자, ‘말씀’이 ‘육신’에 온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 되었도다’, 하나님은 말세에 이 사역(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사역)을 이룰 것인데, 이는 전체 경륜의 마지막 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와서 그의 말씀을 다 육신으로 나타낼 것이다. 오늘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온전케 하는 것은 무엇인지, 마지막 시대 사람의 종착지는 어디인지,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이 멸망하는지 등과 같이 마지막에 해야 할 사역들을 모두 분명히 말씀한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의 실제 의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전에 반포한 행정과 법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멸망하고 어떤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갈 것인지 하는 말씀들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은 말세에 주로 이 사역을 완성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어디로 가고 예정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가며, 백성들과 아들들은 어떻게 나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고 애굽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한다. 앞으로 이 말씀들은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사역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다. 하나님은 각 시대에 해야 할 일, 말세에 성육신 하나님이 해야 할 일, 수행해야 할 직분을 모두 말씀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공개한다. 이 말씀들은 모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의 실제 의의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말씀이 모든 것을 이룬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7)

하나님은 전 우주 아래에서 사역을 행한다. 그를 믿는 사람은 모두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고 마셔야 한다. 하나님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를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해 왔다. 그러니 항상 마음을 이적과 기사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구약 율법시대에 일부 말씀을 했고, 은혜시대에는 또 예수가 많은 말씀을 했다. 그 뒤에는 사도와 제자들이 예수가 선포한 계명에 따라 사람들이 실행하도록 이끌었으며, 예수가 한 말씀과 원칙들에 따라 체험하게 했다. 말세에 하나님은 주로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지, 이적과 기사로 사람을 억압하여 믿게 하거나 복종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 이적과 기사만 행한다면 하나님의 실재를 나타낼 수 없고 사람을 온전케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고 목양한 뒤 사람이 순순히 순종케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는 하나님이 사역하고 말씀하는 목적이다.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다양한 사역 방식으로 온전케 한다. 말씀으로 연단하든, 책망하고 훈계하든, 공급하든, 여러 위치에 서서 말씀하여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과 지혜, 기묘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한다. 말세에 하나님이 시대를 끝내려 할 때 사람이 온전케 되면 그때 사람은 이적과 기사를 볼 자격을 갖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순종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이적과 기사를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관념도 갖지 않을 것이다. 반면, 지금의 너는 패괴된 사람이므로 아직 순순히 순종하지 못한다. 그런 네가 이적과 기사를 볼 자격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는 사람을 벌할 때이고, 세상을 바꿀 때이며, 시대를 끝낼 때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는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 원칙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는 목적도 아니다. 사람들이 다 이적과 기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체까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다 ‘믿지’ 않겠느냐? 동방에서 얻는 한 무리의 이긴 자들은 대환난 속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이전에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얻어진 이 사람들은 심판과 형벌, 책망과 훈계, 온갖 연단을 겪고 나서야 진정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막연하지 않고 실제적이다. 그들은 어떤 기적이냐 기사도, 어떤 이적도 본 적이 없으며, 대단한 도리나 이치를 말할 수도 없고, 높은 깨달음을 말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실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참된 인식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더 분명히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세에 하는 사역은 실제적인 사역이다. 예수의 시대에 그는 사람을 온전케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인류를 속량하러 온 것이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했다. 그가 온 목적은 주로 십자가 사역을 이루는 것이었으므로 이적을 행하는 것은 그의 직분 범주 내에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런 이적과 기사들은 모두 사역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한 일이고 부가적인 것이었으므로 결코 시대 전체의 사역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구약 율법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실제적인 사역이므로 그는 절대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는다. 일단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 실제적인 사역을 교란하게 되므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하고는 도리어 또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면, 사람이 진실로 믿는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사람 안에는 종교적인 것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이 말세에 온 목적은 사람 내면의 모든 종교 관념과 초자연적인 것들을 없애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하며,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워 버리기 위함이다. 그렇기에 지금 네가 실체에 대해 알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보배로운 것이다! 진리는 모든 것을 압도한다. 지금 너는 진리를 얼마나 갖추었느냐?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만 하면 그가 하나님이란 말이나? 악령도 이적과 기사를 보일 수 있다. 그럼 그것들 역시 하나님이란 말이나?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구하고 생명을 추구해야지 이적과 기사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어야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말씀이 모든 것을 이룬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8)

예수가 당시에 행한 사역은 전 인류를 속량하는 것이었다.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를 믿기만 하면 속량받았고, 그를 믿기만 하면 죄에 속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것은 조금씩 벗어 버려야 한다. 구원을 얻었다 함은 사람이 예수에게 온전히 얻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속하지 않고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죄에 속하지 않게 된다. 당시 예수가 했던 수많은 사역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다. 또한 예수가 한 수많은 말씀을 사람은 깨닫지 못했다. 그 당시 예수가 해석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가 떠나고 몇 년 후, 마태가 그를 족보에 올렸으며, 다른 사람들도 인의적인 많은 사역을 했다. 그때는 사람을 온전케 하거나 얻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사역을 하기 위해 천국의 복음을 가져오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의 사역은 모두 끝났다. 반면, 이 단계의 정복 사역은 반드시 더 많이 말씀하고 더 많이 사역하며,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예수가 이전에 행한

사역이나 여호와가 행한 사역의 비밀을 모두 열어 모든 사람이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 이것은 말세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말세는 마무리하는 사역을 하고, 사역을 끝내는 시기이다. 이 단계의 사역은 네가 여호와와 율법과 예수의 속량에 대해 명확히 알게 할 것이다. 그것은 주로 6 천 년 경륜의 모든 사역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네가 6 천 년 경륜의 모든 의의와 본질을 이해하고 예수가 행한 수많은 사역을 알게 할 것이며, 그가 한 수많은 말씀의 의도, 나아가 성경에 대한 네 맹목적인 숭배까지 모두 명확히 깨닫게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예수가 당시에 행한 것과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는 것들도 알게 할 것이며, 모든 진리와 생명과 길을 다 깨닫고 보게 할 것이다. 예수는 왜 그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사역을 하지 않고 떠났겠느냐? 그 단계의 사역은 마무리하는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의 말씀도 끝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그의 사역 또한 모두 끝났다. 그 단계의 사역은 반드시 할 말을 다 하고 모든 사역을 마무리해야만 끝나는 이 단계의 사역과는 다르다. 예수는 그 단계의 사역에서 많은 말씀을 다 하지 않았고 밝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예수의 직분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후 떠났다. 그 단계 사역은 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것으로, 이 단계의 사역과는 달랐다. 이 단계 사역은 주로 마무리를 하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며 모든 사역을 끝내는 것이다. 말씀을 끝까지 다 하지 않으면 사역을 끝낼 수 없다. 이 단계는 말씀으로 모든 사역을 끝내고 이루기 때문이다. 지난날 예수가 행한 수많은 사역을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그는 조용히 떠났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잘못 이해했으면서도 옳다고 여기고, 틀린 것을 알지 못한다. 마지막 이 단계에서는 사역을 철저히 끝내고 마무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알게 한다. 사람 내면의 관념과 속셈, 잘못된 이해 방법, 여호와와 사역과 예수의 사역에 대한 관념, 이방인에 대한 견해 등 치우치고 그릇된 모든 것을 되돌리고, 사람에게 인생의 바른길과 하나님이 행한 모든 사역, 그리고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면 이 단계의 사역은 끝난다. 여호와가 행한 사역은 세상을 창조한 서막이었고, 이번 단계의 사역은 사역을 끝내는 종막이다. 시작은 이스라엘 선민들 가운데서 행하여 가장 성결한 곳에서 천지를 열었고, 마지막 단계는 가장 더러운 나라에서 행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시대를 끝낸다. 첫 단계는 가장 밝은 곳에서 사역했고 마지막 단계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사역하여 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광명을 가져오며, 이 사람들을 모두 정복한다. 가장 더럽고 어두운 곳에서 사람을 정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와 참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탄복하게 함으로써 이 사실로 전 우주를 정복하는 사역을 행할 것이다. 이 단계 사역은 대표적인 의의가 있다. 이 시대의 사역이 완성되면 6 천 년 경영 사역은 완전히 끝난다. 가장 어두운 곳의 사람들이 정복되었으니 그 외의 곳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하는 정복 사역만이 대표적 의의를 갖는다. 중국은 모든 흑암 세력을 대표하며, 중국인은 육체와 사탄, 그리고 혈기에 속한 모든 자를 대표한다. 중국인은 큰 붉은 용에 의해 가장 심하게 파괴된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을 가장 심하게 대적하는, 가장 천하고 더러운 인성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모든 패괴된 인류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괜찮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람의 관념은 모두 똑같다. 자질이 좋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 역시 대적할 것이다. 유대인이 왜 대적하고 거역했겠느냐? 바리새인은 또 왜 대적했겠느냐?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겠느냐? 당시 많은 제자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뒤에도 사람은 왜 그를 믿지 않았겠느냐? 사람의 패역은 다 같은 것 아니겠느냐? 단지 중국인을 모델로 삼았을 뿐이다. 또한 정복한 후에는 본보기와 표본으로 세워 참고 대상이 되게 할 뿐이다. 어째서 늘 너희를 가리켜 내 경륜의 부속물이라고 하겠느냐? 사람의 패괴와 더러움, 불의, 대적, 패역 같은 것들이 중국인에게서 가장 전반적이고 다양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자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삶과 사상이 뒤쳐졌으며, 생활 습관, 사회 환경, 출생 가정 전부 열악하고, 모든 것이 가장 뒤떨어졌다. 또 이들은 지위도 낮아서 이곳에서 사역하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시범 사역을 전면적으로 행하면 이후에 사역을 전개할 때 행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이 단계의 사역이 이루어지면 이후의 사역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이 단계의 사역을 완성하여 대업이 완벽히 이루어지면 온 우주를 정복하는 사역 또한 완전히 끝나게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역 이상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9)

은혜시대는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예수가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하자 성령이 그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에 여호와의 이름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고,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사역을 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또 그를 위해 사역했다. 구약 율법시대의 종결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주로 하는 사역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더 이상 여호와가 아닌 예수라 불렸으며,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위주로 하는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니 사람이 지금까지도 여호와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율법시대의 사역을 적용하는 것은 규례에 얽매이고 낡은 것을 지키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말세가 이미 도래했음은 너희도 알 것이다. 설마 예수가 다시 온다면 여전히 예수라고 불리겠느냐? 지난날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하지만 정작 그가 왔을 때는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라고 불렸다. 예수는 자신이 다시 올 것이며, 갔던 그대로 올 것이라고 했다. 예수는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너는 예수가 어떻게 갔는지 보았느냐?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갔다고 해서 설마 다시 흰 구름을 타고 사람들 가운데 오겠느냐? 그렇다면 계속 예수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가 재림할 때는 이미 시대가 바뀌어 있을 텐데, 그를 계속 예수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예수로만 불러야 한단 말이냐? 새 시대에는 더 이상 새 이름으로 불릴 수 없다는 것이냐? 한 ‘사람’의 형상과 특정한 이름 하나로 하나님의 전부란 말이냐?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 사역을 하고 새 이름으로 불린다. 시대가 다른데 어찌 같은

사역을 행하겠느냐? 그가 어찌 낡은 것을 지키겠느냐? ‘예수’란 구속 사역을 위해 취한 이름인데, 말세에 재림해서도 이 이름으로 불릴 수 있겠느냐? 또다시 구속 사역을 하겠느냐? 여호와와 예수는 하나인데도 왜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렸겠느냐? 사역한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더냐? 이름 하나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에 시대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 이름으로 시대를 바꾸고, 이름으로 시대를 대변한다. 어떤 이름도 하나님 자신을 완전하게 대변할 수는 없으며, 시대성을 띤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만 나타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적합한 이름 하나를 택해 한 시대 전체를 대변한다. 여호와와 시대든 예수의 시대든 모두 이름으로 시대를 대변했다. 은혜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시대가 도래했으며, 예수는 이미 돌아왔다. 그런데 그를 어찌 또 예수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가 어찌 또 예수의 형상으로 사람들 가운데 오겠느냐? 너는 예수가 단지 나사렛 사람의 모습일 뿐임을 잊었느냐? 너는 ‘예수’가 인류의 구속주일 뿐임을 잊었느냐? 그가 어떻게 정복하고 온전케 하는 말세의 사역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떠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가 어찌 흰 구름을 타고 사람들 가운데 와서 또다시 예수라고 불리겠느냐? 그가 정말 흰 구름을 타고 온다면,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리 있겠느냐? 세상의 그 누가 알아보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오직 ‘예수’ 자신만이 하나님 아니겠느냐? 그 말인즉,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고 영원히 바뀔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예수는 자신이 왔던 그대로 온다고 했다. 너는 그 말의 진의를 아느냐? 그가 너희에게 알려 주기라도 했단 말이나? 너는 단지 그가 흰 구름을 타고 왔던 그대로 온다는 것만 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알 수 있느냐? 네가 정말 그것을 안다면 “말세에 인자가 올 때는 인자 자신도 모르고 천사들도, 하늘의 사자들도 모으며 모든 사람 또한 모르고 오직 아버지, 즉 영만 아시느니라”라고 했던 예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인자 자신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알 수 있고 직접 볼 수 있다면, 그 말씀은 허사가 되지 않겠느냐? 예수는 당시에 어떻게 말했느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하였다. 그날이 와도 인자조차 알지 못한다. 인자라 함은 하나님이 입은 육신으로,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을 뜻한다. 인자도 알지 못하는 것을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예수는 떠난 그대로 올 것이지만 올 때는 자신도 모른다고 하였다. 그런데 너에게 미리 알려 주겠느냐? 그가 오는 것을 네가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은 황당한 소리 아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역 이상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0)

하나님은 땅에 올 때마다 이름은 물론, 성별과 형상, 그리고 사역도 바꾼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이므로 같은 사역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가 이전에 왔을 때 예수라고 불렀다 해서 이번에도 그대로 예수라고 불리겠느냐? 이전에 왔을 때는 남성이었다고 해서 이번에도 남성이겠느냐? 이전에 은혜시대의 십자가 사역을 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사람을 속량하여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겠느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겠느냐? 그렇다면 같은 사역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겠느냐? 너는 하나님이 언제나 새롭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은 영원불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또한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이 영원불변함을 뜻한다. 그의 이름과 사역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의 본질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며, 이 사실은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다. 너의 말처럼 하나님의 사역이 영원불변하다면, 그의 6 천 년 경륜이 끝날 수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이 영원불변하다는 것만 안다. 하지만 하나님이 또한 언제나 새롭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의 사역이 영원불변하다면, 그가 인류를 오늘날까지 인도할 수 있었겠느냐? 그가 영원불변하다면 왜 두 시대의 사역을 했겠느냐? 그의 사역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다시 말해, 그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점차적으로 나타내는데, 이는 다 그의 고유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적이 없었기에 사람은 그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사역을 통해 사람에게 자신의 성품을 조금씩 나타냈다. 그가 이렇게 사역한다고 해서 시대마다 성품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끊임없이 바뀐다고 해서 그의 성품도 끊임없이 바뀌지는 않는다. 사역하는 시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고유한 성품을 전부 단계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내 그를 알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특정한 성품이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그의 성품 역시 조금씩 바뀐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고유한 특정 성품, 즉 자신의 어떠함을 사람에게 나타낼 때,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내지, 한 시대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다’는 말은 그의 사역을 두고 한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불변하다’는 말은 그의 고유한 소유와 어떠함을 두고 한 것이다. 어찌 됐든 너는 6 천 년 사역을 어느 한곳에 고정해 두거나 케케묵은 말에 묶어 놓아서는 안 된다. 이는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하듯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의 사역은 한 시대에 머물 수 없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도 사역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일 뿐 사탄이 될 수 없으며, 사탄은 영원히 사탄일 뿐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와 기묘함, 공의, 그리고 위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본질과 소유와 어떠함은 영원불변하지만, 그의 사역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심화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고, 새로운

사역을 하며, 피조물에게 그의 새로운 뜻과 성품을 보여 준다. 사람이 새 시대에 새로운 성품의 발현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아 놓지 않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 아니겠느냐? 가령 성욕신한 하나님이 단지 남자라면, 사람은 그를 남자로 규정하고 남자의 하나님으로 대하지, 결코 여자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같은 성별이라고 여길 것이며, 하나님은 남자들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는 불공평한 일이다.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구원하는 대상은 모두 자신과 같은 남자뿐일 테고, 여자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할 때 아담도 만들고 하와도 만들었다. 하나님은 아담만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남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자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말세에 하나님은 새로운 단계의 사역을 하여 더 많은 성품을 나타내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 때의 공훈과 자비가 아니다. 새로운 사역을 하는 이상, 그 사역에는 새로운 성품을 나타낸다. 만약 영의 역사라면 성욕신하지 않고 영이 직접 천둥소리로 말할 테니, 사람은 그를 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그의 성품을 알 수 있겠느냐? 영의 역사만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성욕신을 통해,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 육신을 통해 그의 모든 성품을 발현해야만 사람이 직접 볼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이 형체를 지니고 진실로 사람들 가운데서 살면서, 사람이 그의 성품을 실제적으로 접하고 그의 소유와 어떠함을 접해야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남자의 하나님이자 여자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역을 완성하게 되고, 성욕신의 모든 사역도 이루게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역 이상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1)

전체 경영에서 하나님이 행한 모든 사역은 매우 분명하다. 은혜시대는 은혜시대이고, 말세는 말세이듯,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말세의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불사름과 심판, 형벌, 진노, 그리고 파멸로 시대를 끝내야 한다. 말세라고 하면 마지막 시대를 가리킨다. 마지막이라면 시대를 끝내는 것 아니겠느냐? 시대를 끝내려면 반드시 형벌과 심판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대를 끝낼 수 있다. 예수는 사람이 계속 생존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더 잘 생존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을 죄에서 구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계속 타락하여 음부나 지옥에서 살지 않게 하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음부, 지옥에서 구원해 주었다. 그러나 이제 말세가 도래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멸절하고 인류를 완전히 멸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인류의 패역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의 공훈과 자비의 성품으로는 시대를 끝낼 수 없고, 6 천 년 경륜을 완성할 수도 없다.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특별한 성품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사역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하는

사역에는 시대마다 그 자신이 나타내는 진정한 성품이 있고, 그의 이름과 사역 모두 시대에 따라 바뀐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하나님은 율법시대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인류를 인도하는 사역을 했고, 땅에서 첫 단계의 사역을 전개했다. 그 단계의 사역은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으며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은 땅에서 하나님이 사역할 근거지를 넓히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그 근거지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밖으로 사역을 확장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서 외부로 사역을 확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로 사람들은 점차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여호와가 천지 만물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스라엘 밖으로 사역을 확장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땅은 여호와가 땅에서 사역한 첫 성지이다. 하나님이 땅에서 처음으로 사역한 곳은 이스라엘 전역이었고, 그것은 율법시대에 한 사역이었다. 은혜시대에 예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었고, 그의 소유와 어떠함은 바로 은혜와 자비, 긍휼, 포용, 인내, 겸손, 사랑 그리고 관용이었다. 그가 와서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한 이유는 인류를 속량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성품은 긍휼과 자비였다. 그는 자신의 긍휼과 자비에 따라 반드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으며, 그것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정도로 인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은혜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자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했고, 그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구원이 모든 사람과 함께했다. 사람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해야만 평안과 희락을 누리고, 그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그의 지극히 크고 많은 은혜를 받고, 그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를 따르는 사람은 모두 죄 사함과 구원을 받았다. 은혜시대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 다시 말해, 은혜시대의 사역은 예수의 이름을 위주로 하는 사역이었다. 은혜시대에 하나님은 예수라고 불렸다. 예수는 구약 성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역을 행했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의 사역은 끝이 났다. 이것이 예수가 한 모든 사역이다. 그러므로 율법시대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은혜시대에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을 대표했으며, 말세에는 그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곧 전능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인도하고 정복하고 얻으며, 마지막에는 시대를 끝낸다. 각 시대와 각 단계의 사역에서 다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역 이상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2)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지닌 예수라는 이 이름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해 전부 설명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예수라고만 불러야 하고 더 이상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 말이야말로 모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의 ‘예수’라는

이름 하나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대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많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지만, 그중에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의 전부를 개괄할 수 없고,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대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많지만, 이 많은 이름조차도 그의 모든 성품을 전부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많아서 사람이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인류의 언어로 하나님을 개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류는 그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위대함, 존귀함, 기묘함, 측량할 수 없음, 지고지상함, 거룩함, 공의로움, 그리고 지혜로움 등 몇 안 되는 한정된 어휘로 개괄할 뿐이다. 참 많기도 하구나! 한정된 이 몇 개의 어휘로는 하나님의 성품 중 사람이 본 그 얼마 안 되는 부분조차 묘사해 낼 수 없다. 시간이 흘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스럽다!’와 같이 마음속의 격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지어냈다. 오늘날에 이르러 이와 같은 언어 표현은 절정에 이르렀지만, 사람은 아직도 분명히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아주 많은 이름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에게는 또 어떤 이름도 없다. 하나님의 어떠함은 너무나 많은데, 사람의 언어는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이다. 특정한 단어 하나와 특정한 이름 하나가 하나님의 전부를 대표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고정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것처럼 위대하고 거룩한데, 너는 그가 시대에 따라 이름을 바꾸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나?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친히 사역할 때, 시대에 부합하는 이름으로 자신의 사역을 개괄하고, 시대적 의의를 지닌 특정한 이름으로 그의 해당 시대의 성품을 대변한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인류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체험을 했거나 하나님을 직접 본 많은 사람은 특정한 이름 하나만으로는 하나님의 전부를 대표할 수 없다고 느꼈다. 이에 사람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충만한 듯하지만 모순도 심한 것 같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어떠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의 성품을 개괄할 수 없고, 그 어떤 이름으로도 그의 소유와 어떠함을 다 묘사할 수 없다. 누군가 나에게 “대체 이름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알려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이름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개괄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따지고 드느냐? 이름 하나 때문에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굳이 머리를 싸매 가며 궁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호와로도, 예수로도, 메시아로도 불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바로 ‘창조주’이다. 그때가 되면, 그가 땅에서 불렀던 이름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가 땅에서 하는 사역이 끝나면서 그의 이름도 함께 없어지기 때문이다. 만물이 모두 창조주의 권세 아래로 돌아왔는데, 그가 아주 적합하기는 해도 완전하지 않은 이름으로 불릴 필요가 있겠느냐? 너는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따지고 있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러야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오직 예수로 불러야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본래 이름이 없다. 단지 사역을 하고 인류를 경영해야 했으므로 한두 개, 혹은 더 많은 이름을 취했을 뿐이다. 그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모두 자신의 마음대로 택하는 것 아니겠느냐? 피조물인 네가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의 수용 능력과 인류의 언어에 따라 불리지만, 사람이 이 이름을 개괄할 수는 없다. 너는 단지 “하늘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무한한 하나님 자신으로서 참으로 지혜롭고 너무나 위대하시며, 더할 나위 없이 기묘하고 신비롭고 전능하십니다.”라고만 말할 수 있을 뿐, 더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다. 네가 알 수 있는 건 그 정도뿐이다. 그러한데 예수라는 이름 하나로 하나님 자신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말세가 와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역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으므로 그의 이름도 바뀌어야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역 이상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3)

지난날 예수는 성령이 그에게 지시하고 성령이 행하려는 대로 사역했지, 구약 율법시대나 여호와가 행한 사역에 따라 사역하지는 않았다. 예수가 와서 한 사역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른 것도, 여호와가 정한 계명을 따른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근원은 하나이다. 예수가 행한 사역은 예수라는 이름을 대변한 것이자 은혜시대를 대변한 것이었고, 여호와가 행한 사역은 여호화를 대변한 것이자 율법시대를 대변한 것이었다. 그들의 사역은 한 분의 영이 서로 다른 두 시대에 행한 사역이다. 예수가 행한 사역은 은혜시대만 대변하고, 여호와가 행한 사역은 구약 율법시대만 대변할 뿐이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인도했고, 이스라엘 외의 족속들도 인도했다. 신약의 은혜시대에 예수가 행한 사역은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며 시대를 이끈 것이었다. 만약 네가 예수는 여호와의 사역을 바탕으로 사역했을 뿐, 새로운 사역을 전개하지 않고 완전히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행하였으며, 또한 여호와가 행한 사역과 이사야가 말한 예언에 따라 사역했다고 말한다면, 예수는 성육신이 아니다. 그가 그런 사역을 했다면, 그는 율법시대의 사도나 일꾼에 불과하다. 네가 말한 대로라면, 예수는 시대를 열 수 없고 다른 사역을 할 수도 없다. 이는 성령은 반드시 여호화를 위주로 사역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여호와가 아니라면 성령이 더 새로운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사람이 예수의 사역을 이렇게 알고 있다면 모두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예수는 여호와의 말씀과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사역을 했다고 여긴다면, 예수는 성육신 하나님이나, 아니면 선지자이나? 이런 논리대로라면 은혜시대는 존재하지도 않고, 예수를 성육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가 행한 사역은 구약 율법시대만 대변할 뿐 은혜시대를 대변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가 와서 새로운 사역을 하고 새로운 시대를 전개해야만, 그리고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한 사역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에서 여호와가 한 사역에 따라 하지 않고, 여호와의 낡은 규례대로 하지 않으며, 어떤 규례에도

맞추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새로운 사역을 해야만,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와서 스스로 시대를 열고 시대를 끝내지만, 사람은 시대를 여는 사역도 시대를 끝내는 사역도 행할 수 없다. 예수가 와서 여호와와의 사역을 끝내지 않았다면 그는 사람일 뿐 하나님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 예수는 와서 여호와와의 사역을 끝냈고 여호와와의 사역을 이었으며, 그 자신의 더 새로운 사역을 전개했다. 이는 새로운 시대임을 증명하고 그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증명한다. 그들은 전혀 다른 두 단계 사역을 했다. 한 단계의 사역은 성전 안에서 했고 다른 한 단계의 사역은 성전 밖에서 했다. 또한 한 단계의 사역에서는 율법으로 사람의 생활을 인도했고 다른 단계의 사역에서는 속죄 제물로 바쳐졌다. 전혀 다른 두 단계의 사역이 곧 구시대와 신시대의 구분이며, 틀림없는 두 시대이다! 그들이 사역한 장소와 내용, 그리고 목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두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신약과 구약은 곧 신시대와 구시대를 가리킨다. 예수가 와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여호와와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성전 안에서의 여호와 사역이 이미 끝나 더 이상 그 사역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 하게 되면 되풀이되는 것이다. 오직 성전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사역을 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절정에 달하게 할 수 있다. 만약 성전에서 나오지 않고 사역했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히 성전의 바탕에 머물러 새로운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성전 안에서 사역하지도 않았고, 성전 밖에서 사역하면서 제자들을 인도하며 자유롭게 사역했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와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또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의미했다. 그는 성전 밖의 사역을 하고자 했으며, 성전 밖의 더 새로운 사역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하려고 했다. 그는 오자마자 구약시대에 여호와가 행했던 사역을 끝냈다. 비록 서로 다른 두 이름으로 불렸지만, 이는 한 분의 영이 두 단계의 사역을 행한 것이며, 그 사역은 계속 이어진 것이었다. 이름과 사역의 내용이 다르기에 시대 역시 다르다. 여호와가 오면 여호와의 시대이고, 예수가 오면 예수의 시대이다. 그러므로 한 번 오게 되면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고, 하나의 시대를 대표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그 단계의 새로운 길이 하나의 이름인 것이다. 이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고, 그의 사역은 끊임없이 발전함을 의미한다. 역사(歷史)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하나님의 사역도 끊임없이 발전한다. 6 천 년 경륜을 끝내려면 반드시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사역을 하고, 해마다 새로운 사역을 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길과 새로운 기원뿐만 아니라 더 새로운 사역과 더 큰 사역을 개척해야 한다. 그에 따라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사역이 나타나게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역 이상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4)

‘여호와’란 내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때 택한 이름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저주하며, 사람의 생활을 인도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하나님 선민)의 하나님이자, 크나큰 능력을

지닌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임을 의미한다. ‘예수’란 본래 임마누엘을 가리키며, 자비와 긍휼이 충만한, 사람을 속량하는 속죄 제물임을 의미한다. 예수는 은혜시대 사역을 행했고 은혜시대를 대변하지만, 경륜의 일부 사역만 대변할 뿐이다. 다시 말해, 여호와만이 이스라엘 선민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이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족속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호와를 경배하였고, 그를 위해 제단에 제물을 드렸으며, 성전 안에서 제사장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들이 소망한 것은 여호와의 재현이었다. 오직 예수만이 인류의 구속주이고, 인류를 죄에서 속량한 속죄 제물이다. 다시 말해, 예수란 이름은 은혜시대에서 비롯되었고, 은혜시대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다. 또한, 은혜시대의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 생겨난 이름이고, 온 인류를 속량하기 위해 생겨난 고유한 이름이다. 그러므로 ‘예수’란 이름은 구속 사역과 은혜시대를 대표하는 이름이고, ‘여호와’란 이름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생겨난 고유한 이름이다. 각 시대, 각 단계 사역마다 내 이름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 대표적 의의가 있다. 즉, 각 이름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다. ‘여호와’는 율법시대를 대표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자신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을 일컫는 존칭이다. ‘예수’는 은혜시대를 대표하며, 은혜시대에 속량받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 이름이다. 사람이 말세에도 구주 예수가 강림하기를 소망하고, 유대인의 모습 그대로 강림하기를 소망한다면, 전체 6 천 년 경륜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구속시대에 머물 것이다. 또한 말세가 영영 도래하지도 않고, 시대를 끝내지도 못할 것이다. ‘구주 예수’는 단지 인류를 속량하고 구원하는 분이고, 내가 택한 ‘예수’란 이름은 단지 은혜시대의 모든 죄인을 위해 생겨난 이름이지 온 인류를 끝내기 위해 생겨난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호와, 예수 그리고 메시아는 모두 나의 영을 대표하지만, 이 이름들은 내 경륜 중의 서로 다른 시대를 대표할 뿐, 나의 모든 것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땅의 사람들이 부르는 나의 이름이 나의 모든 성품과 어떠함을 다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단지 시대마다 나에 대한 호칭이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말세의 시대, 즉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면 나의 이름은 또 바뀌게 된다. 여호와라고도 예수라고도 칭하지 않고, 메시아라고는 더욱 칭하지 않는다. 대신 크나큰 능력을 지닌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칭하는데, 이 이름으로 전체 시대를 끝낸다. 나는 여호와라고 칭한 적이 있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불린 적도 있다. 사람들은 나를 우러러 구주 예수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예전에 알던 여호와나 예수가 아니라, 말세에 다시 돌아와 시대를 끝내는 하나님이자 나의 모든 성품과 권병, 존귀, 영광을 가득 지니고 땅끝에서 나타난(원문: 興起) 하나님 자신이다. 사람은 나와 접촉한 적도 없고, 나를 알아본 적도 나의 성품을 안 적도 없으며,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나를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이가 바로 말세에 사람들 앞에 나타났으나 또 사람들 가운데 은밀히 거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는 사람들 눈앞에서 생생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는 마치 뜨거운 해 같고 불꽃 같으며, 능력이 충만하고, 권병을 가득 지니고 있다. 세상의 온갖 것이 나의 말에 심판받고, 불사름 속에서 정결케 될 것이다.

최후에 만국은 반드시 나의 말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도 하고 산산이 부서지기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말세의 모든 사람은 내가 바로 돌아온 구세주이고, 온 인류를 정복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내가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된 적이 있지만, 말세에는 또 만물을 불사르는 뜨거운 해와 같은 불꽃이자 만물을 드러내는 공의로운 태양이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말세에 행하는 사역이다. 내가 이 이름을 택하고 이런 성품을 지닌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이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뜨거운 해이자 불꽃임을 알게 하고, 유일한 참하나님인 나를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구속주만도 아니라, 천지와 바닷속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인 내 본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구주'는 이미 '흰 구름'을 타고 돌아왔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5)

말세에 강림한 구세주가 여전히 예수라 불리고 그때처럼 유대에서 태어나 사역한다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만 만들었고 오직 그들만 속량하며 이방과는 무관함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말한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다.”라는 말과 모순되지 않겠느냐? 내가 유대를 떠나 이방에서 사역하는 까닭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말세에 이방에 나타난 것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방 모든 선민의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과 애굽 그리고 레바논은 물론, 이스라엘 외의 모든 이방 족속까지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다. 다만 나는 이스라엘을 내 사역의 발원지로 삼았고, 유대와 갈릴리를 구속 사역의 거점으로 삼았으며, 이방을 전체 시대를 끝내는 사역의 근거지로 삼았을 뿐이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두 단계의 사역(율법시대와 은혜시대의 사역)을 행했고, 이스라엘 외의 온 땅에서도 두 단계의 사역(은혜시대와 하나님나라시대의 사역)을 행했다. 또한 이방에서 정복 사역을 함으로써 시대를 끝낼 것이다. 사람이 늘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내가 말세에 새 시대를 개척했고 새 사역을 전개한 것을 알지 못한 채 구주 예수의 강림만 하염없이 기다린다면, 나는 그런 자들을 나를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며 거짓으로 나를 믿는 자라고 할 것이다. 그런 자들이 어찌 ‘구주 예수’가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느냐?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나의 강림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의 강림이다. 또한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내가 이 더러운 옛 세계를 철저히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다시 강림하여 그들을 속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가 온 인류를 다시 속량하여 더럽고 불의한 땅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소망한다. 그런 자들이 어찌 나의 말세 사역을 성취하는 인류가 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는 나의 바램을 이룰 수 없고, 나의 사역을 성취할 수도 없다. 사람은 내가 행했던 사역만 앙모하거나 그리워할 뿐, 내가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오직 내가 여호와이자 예수라는 것만 알 뿐, 인류를 끝내는 말세의 그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소망하고 아는 것은 그들의 관념 속에 있는 것으로, 단지 사람의 육안에만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행한 사역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대로 행한다면 나의 사역이 언제 끝나겠느냐? 인류는 언제 안식에 들어가겠느냐? 나는 또 어떻게 일곱째 날인 그 안식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나는 나의 계획대로, 나의 근본 취지대로 행하지 사람의 계획대로 행하지 않는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구주'는 이미 '흰 구름'을 타고 돌아왔다> 중에서

제 2 절 하나님의 현현과 사역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6)

찬미가 시온에 다다르고, 하나님의 거처가 나타났도다. 영광의 성호는 만백성이 찬양하며, 세상에 널리 퍼지고 있도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머리, 말세의 그리스도, 그는 빛나는 태양이요, 온 우주의 위엄 넘치는 광활한 시온산에 솟아올랐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을 향해 환호하고, 춤을 추며 노래하나이다. 당신은 진실로 우리의 구속주이며, 우주의 큰 왕이시나이다! 당신은 이기는 자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셨나이다. 만백성이 반드시 이 산으로 모이고,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리이다! 당신은 유일무이한 참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모든 영광, 찬양, 권병을 보좌로 돌리겠나이다! 보좌에서 생명 샘이 흘러나와 만백성에게 공급하고 양육해 주니, 생명은 날마다 변화하고, 새로운 빛과 계시가 우리를 따르며, 시시각각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나이다. 체험 중에 참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타나고 옳은 사람 안에 나타나나이다. 우리는 복이 차고 넘치나이다! 매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범사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주권을 잡도록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빛 비춤을 받을 것이리이다. 매일의 삶, 행동, 언사, 마음, 생각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니 언제든 분별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견인해 주니 안에 숨겨진 것들이 줄줄이 드러나나이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잠시도 지체할 수 없나이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 폭로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매 순간을 살며, 그 앞에서 심판을 체험하나이다. 우리 몸의 구석구석은 여전히 사탄에게 점령되어 있으니 오늘날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해야 할 것이나이다. 하나님께 완전히 점유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결사전을 벌여야 할 것이나이다.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부활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권을 잡을 수 있나이다.

지금 성령이 우리의 구석구석을 향해 돌격하며 쟁탈전을 벌이고 있도다! 우리가 기꺼이 스스로를 버리고, 하나님과 협력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수시로 빛을 비추어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하고, 사탄이 점령했던 것을 되찾아 와 하루속히 우리를 온전케 하리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며 성도들 모두와 함께 건축하면, 하나님나라로 인도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리라.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제 1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7)

빌라델비아 교회가 모습을 갖추었도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한 것이라.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굳게 믿으며 영적 길을 가옵니다. 유일하신

참하나님이 성육신하셨으며, 그는 만유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머리이시라. 이는 성령이 인치신 것이요, 증거가 확실한 영원불변의 사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오늘날 당신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주셨나이다. 소경을 눈 뜨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걷게 하시고, 문둥병을 고쳐 주셨나이다. 당신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는 영계의 비밀을 보게 되었나이다.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관통되어 사탄이 패괴시킨 인성에서 구원되었나이다. 이는 당신의 크나큰 역사와 공효이시나이다. 우리가 바로 당신의 증인이시나이다!

당신은 오랫동안 묵묵히 계시며 자신을 낮추고 감추셨나이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인생의 온갖 고초, 핍박과 환난을 당하셨나이다. 인간 세상의 고통을 맛보고 시대에 버린 바 되셨나이다.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거름 더미에서 구원하사 오른손으로 받쳐 주시고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만드셨나이다. 당신께서 수고를 마다 않으시고, 당신의 심혈과 대가를 성도들에게 다 쏟으셨나이다. 우리가 바로 당신의 심혈이요, 대가이시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당신의 자비와 공효, 당신의 공의와 위엄, 그리고 당신의 거룩하심과 겸손하심으로 인해, 만민이 세세토록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리이다.

오늘날 당신께서 교회들, 즉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루셨사오며, 당신의 6 천 년 경륜이 실현되었나이다. 성도들은 당신 앞에 겸허히 순종하며, 영 안이 서로 통하고 서로 사랑하며, 샬의 근원에 연결되나이다. 생명수가 끊임없이 흘러 교회의 모든 더러운 물을 씻어 없애사 당신의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하셨나이다. 실제의 참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며, 자신의 역할과 본분을 알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리이다. 언제나 당신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며, 성령의 역사에 마음을 기울이고, 당신의 뜻이 우리에게서 막힘없이 이뤄지게 하리이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장점을 배워 각자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나이다. 언제나 영적으로 행하면 성령의 빛 비춤과 깨우침이 함께하나이다. 진리를 깨달으면 즉시 실천하며, 새로운 빛을 따르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리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며, 하나님이 권세를 잡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자기 생각, 자기 관념과 견해, 세상의 짐은 모두 연기처럼 사라지리이다.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이 왕권을 잡으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초월하게 되며, 세상을 이기며, 영은 자유롭게 날며 해방받았나이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결과로다. 우리 어찌 춤추며 찬양하지 않겠나이까, 어찌 찬미와 새 노래를 바치지 않겠나이까.

찬미의 방식은 실로 많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교제하며, 묵상하고 되새기고 기도를 올리며, 찬미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도다. 이러한 찬미에는 누림이 있고 기쁨 부음이 있으며, 찬미하면 능력이 있게 되며, 사명감과 믿음이 생기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되나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며, 서로 조화롭게 섬기며 하나가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리이다. 하루빨리 거룩한 영체가 되어 사탄을 짓밟고 사탄의 운명을 끝내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들림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나타났도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 제 2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8)

승리의 왕이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 그는 구속을 이루었고,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영광 속에서 나타났다. 만유가 모두 그의 손에 있다. 그는 신성한 지혜와 능력으로 시온을 세우고 견고하게 했다. 그는 그의 위엄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만국과 만민, 땅과 바다, 그 안에 있는 생물,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을 심판한다. 하나님은 필히 심판할 것이고, 그들에게 진노하며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낼 것이다. 더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심판할 것이다. 진노의 불은 반드시 그들의 극악무도한 죄를 태워 버릴 것이고, 재앙이 필히 그들에게 수시로 닥칠 것이다. 그들은 도망치기 어렵고 숨을 곳도 없을 것이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멸망을 자초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승리한 아들은 반드시 시온에 남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만민이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행동을 유심히 살필 것이며, 찬미의 소리가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유일한 참하나님은 이미 나타났다! 영 안에서 확신을 갖고 바짝 따르며, 더는 주저하지 말고 전력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라. 세상의 결말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 올바른 교회 생활과 주변의 사람, 일, 사물이 우리의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루속히 접자! 몽롱한 눈빛을 하루속히 거두자! 우리의 발걸음이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입과 혀를 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자. 더 이상 자기의 이해득실을 위해 논쟁하지 말자.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하던 마음을 버려라! 남편, 자녀에 대한 미련도 버려라! 자기 주장과 편견을 버려라! 깨어나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영 안에서 양망하고 양망하며, 하나님이 권세를 잡게 해야 한다. 절대 룯의 아내가 되지 마라. 버려진다는 것은 얼마나 가련한 일이나! 얼마나 가련한 일이나! 깨어나라!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 제 3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9)

강산은 쉽게 바뀌고, 물의 흐름은 방향이 있으며, 사람의 생명은 하늘과 땅처럼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며 대대로 영원히 존재한다! 만사와 만물이 다 그의 손안에 있고, 사탄은 그의 발아래에 있다.

오늘날 하나님은 미리 예정한 선택으로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냈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구속주다. 영원한 부활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인연을 맺게 되고, 그와 대면하고 그를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심혈을 기울인 하나님의 사심 없는 헌신이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세월 속에서 모진 풍상을 겪었다. 수많은 인생의 고통, 핍박, 환난이 닥쳤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비방당하고 정부에 모함당했지만, 하나님의 믿음과 의지는 약해지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경영,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생명도 돌보지 않는다. 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정성껏 양육한다. 우리가 아무리 우매하고 상대하기 힘들지라도 그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부활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옛 성품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 장자들을 위해 그는 침식도 잊은 채 밤낮으로 일한다. 술한 밤낮을 보내고 술한 폭염과 혹한을 견디며 그는 시온에서 한결같이 지키며 바라보고 있다.

세상도 가정도 직장도 기꺼이 전부 버렸다. 세속의 즐거움은 그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 안으로 치고 들어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들을 들춰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심으로 탄복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서 수시로 이루어진다. 앞에서 행한 것이든 뒤에서 행한 것이든 그는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타산하고 계획한 것일지라도 그의 앞에서는 다 드러날 것이다.

그의 앞에 앉아 있으면 영적으로 즐겁고 편하고 편안하지만, 늘 내면이 텅 비고 하나님께 실로 죄스럽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것은 사람이 생각한 적도 없고 해내기 힘든 놀라운 일이다. 성령이 확증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유일한 참하나님이다! 이는 확실한 사실이다! 우리 이 무리의 사람들은 실로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침륜에 빠져 사탄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 실제 하나님이지여! 당신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계의 비밀을 보여 주셨나이다. 하나님나라의 미래는 무한하게 밝으며,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으니 깨어 있어 기다려라.

전쟁의 불길이 휘날리고 초연(硝煙)이 자욱하다. 날씨가 따듯해지고 기후가 변하니 한 차례 역병이 만연할 것이다. 사람은 살길을 찾기 어려우니 그 앞에 놓인 것은 죽음뿐이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 실제 하나님이지여! 당신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이시자 피난처시나이다. 우리는 모두 당신의 날개 아래로 피하오니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리이다. 이는 당신의 신성한 보호이자 보살핌이시나이다.

우리 모두 소리 높여 노래하고 찬미하는데, 찬미 소리가 온 시온에 메아리친다! 전능하신 하나님, 실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아름다운 종착지를 예비해 놓았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제 5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0)

하나님나라의 왕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증거된 뒤부터 하나님의 경영이 전 우주 범위에서 전면적으로 펼쳐졌다. 중국에서 하나님이 이미 나타났음이 증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또한 각 나라, 각 지역에서 증거되었다. 그들은 모두 이 신성한 이름을 부르짖고 있으며,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구하면서 교회에서 서로 협력하며 섬기고 있다. 성령은 바로 이렇게 기묘하게 역사한다.

언어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영은 오직 한 분뿐이다. 우주의 수많은 교회에서 소통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에는 그 어떤 차이도 없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성령이 그들을 부르고 있으며, 그 음성으로 그들을 깨우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음성이다. 그들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을 부르짖고 있다! 그들은 찬미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있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 오차가 없다. 모두가 온 힘을 다해 바른길로 나아가고,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다. 이는 기묘하기 그지없으며, 사람이 상상하기도 어렵고 추측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 생명의 왕이다! 이미 영광의 보좌에 앉아 세계를 심판하고 만유를 주재하며 만국을 다스리고 있다. 만백성이 다 그에게 무릎 꿇고 있고, 그에게 기도하고 있으며, 그와 가까이하고 왕래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은 시간이 길든 짧든, 지위가 얼마나 높든, 관록이 얼마나 있든, 마음속으로 맞서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통에 겨워 애원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업자득이다. 이 애원하는 소리는 유황불 못에서 고통받는 소리이자 하나님의 철장(鐵杖)에 맞아 내지르는 고통 소리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의 심판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제 8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1)

‘하나님의 현현’이 이미 많은 교회에서 나타났다. 이는 그 영이 발하는 음성이자 말씀이라. 그는 맹렬한 불이요, 위엄을 지니고 심판을 시행한다. 그는 인자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으며,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도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 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도다!

인자가 증거되었고, 하나님 자신이 공개적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니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눈부시게 빛나는데, 누가 대적하는 눈빛을 보이겠느냐? 대적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것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든, 말한 것이든, 행동으로 저지른 것이든 공화를 전혀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전부 나의 심판이다! 제대로 먹고 마시지 않고 함부로 방해하며 나의 건축을 허무는 것을 내가 용인하겠느냐? 그런 사람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을 것이다! 더 심각해지면 불길의 너를 태워 죽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체로 나타난다. 그에게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와 살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 그는 우주 세계를 초월하고 셋째 하늘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만유를 다스린다! 우주 만유가 모두 내 손 안에 있으니 내가 있으라 하면 생기고, 정해지라 하면 정해진다. 사탄은 나의 발아래, 무저갱 속에 있을 뿐이다! 내가 음성을 발하면 천지가 없어지고 무(無)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뀔 것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나는 세상을 이겼고, 모든 악한 자들을 이겼다. 여기에 앉아 너희에게 하는 말을 귀 있는 자는 모두 들어야 할 것이며, 살아 있는 자는 모두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날이 곧 끝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갈 것이며, 모든 것이 다 ‘권토중래’하리라. 명심하여라! 기억해야 한다! 대충 넘어가선 안 될 것이다!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너희에게 충고하겠다. 뛰어다니는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여라! 깨어나라! 뉘우치면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이미 너희 가운데 현현했고, 내 음성이 이미 나타났다. 너희 앞에 나타난 내 음성은 매일 너희를 마주하고, 매일 새로워진다. 너는 나를 보았고, 나 또한 너를 보았다. 나는 시시각각 너를 향해 말하며, 너와 얼굴을 마주한다. 그러나 너는 나를 거부하고 나를 알지 못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나 너희는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다! 망설이고 주저한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사탄에게 눈이 가려져 내 ‘영광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가련하냐! 이 얼마나 가련하냐!

내 보좌 앞의 일곱 영은 온 땅으로 보냄을 받았다. 나는 내 사자들을 통해 교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공의로운 자요, 신실한 자며,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하나님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이란 곧 나의 말이 내 아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니 귀 있는 자는 모두 들어야 한다! 살아 있는 자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의심하지 말고 먹고 마시기만 하여라. 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진심으로 내 얼굴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빛과 깨우침, 깨달음이 있을 것이며, 모든 것이 다 새로우리라. 내 말이 시시각각 너에게 나타나 영의 눈을 열어 주면, 너는 영계의 모든 비밀과, 하나님나라가 인간 세상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피난처에 들어가면 모든 은혜와 축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기근과 온역이 너를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고, 맹수와 독충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나와 동행하며 나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리라!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2)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몸이 공개적으로 나타났고, 거룩한 영체가 나타났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 자신이다! 세상과 육체가 모두 변모하고, 산에 올라 변형된 모습은 하나님의 본체라.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깨끗하고 빛난 옷을 입었으며,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세상과 만유는 그의 발등상이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 선 검이 나오고,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도다. 하나님나라의 길은 밝고 무한하며, 영광의 빛이 발하는도다. 산과 강이 기뻐하며, 일월성신이 질서 정연하게 줄을 맞춰 돌며 6 천 년 경륜을 마치고 개선한 유일무이한 참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다! 모두 환호하며 춤추고 있다! 환호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았도다! 노래하라! 전능자의 승리의 깃발이 위엄 있고 웅장한 시온산에 높이 솟아올랐도다! 열국이 환호하고 만민이 노래하며, 시온산이 기쁘게 웃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게 되었다. 또 날마다 얼굴을 마주해 말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모두 그가 마련하고 공급하며, 삶,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에 그의 영광이 빛난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가 인도해 주나, 마음에 패역을 품는 자에게는 즉시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지내고 생활하며, 그와 함께 살고 동행하고 누리며 함께 영광과 축복을 얻는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잡고 하나님나라에 거하니 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 얼마나 감미로운가! 날마다 얼굴을 마주하고, 날마다 이야기하며, 늘 대화하고, 매일 새로운 깨우침과 깨달음이 있다. 영의 눈을 뜨니 모든 것이 보이고, 영적 비밀이 우리에게 보여진다. 거룩한 삶은 실로 여유롭다. 멈추지 말고 빨리 뛰어가라.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라. 더 놀라운 삶이 눈앞에 있다. 달콤함을 맛보았다고 만족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안으로 쫓아 들어가라. 만유가 망라되어 진실로 모든 것이 갖추어졌고, 부족한 것은 전부 다 채워졌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협력하여라. 이 안에 들어서면 모든 것이 바뀐다. 삶을 초월하게 되고 어떤 사람과 일, 사물도 우리를 간섭할 수 없다.

초월하였다! 초월하였다! 참으로 초월하였다! 하나님의 초월적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이 홀가분하다! 세상과 세속을 초월하고, 배우자와 자식에 대한 정에 연연하지 않으며, 질병과 환경의 제약을 초월하니 사탄이 감히 방해하지 못한다. 모든 재난을 초월하는 것, 이는 하나님이 왕권을 잡게 하는 것이다! 사탄을 짓밟고 교회를 위해 굳게 서서 증거하고, 사탄의 추악한 몰골을 철저히 폭로한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되며 영광의 몸이 나타났다. 이는 들림 받은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제 15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3)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우리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도다! 감람산을 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들으라! 우리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셨음이라. 우리는 직접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을 보았도다!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고 참모습으로 나타나셨도다! 땅끝의 모든 사람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당신 보좌 앞의 일곱 영은 각 교회로 보내심을 받아 당신의 모든 비밀을 여셨나이다. 당신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당신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시며, 열국을 당신 앞에 항복하게 하셨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당신 앞에 열어서 닫히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는 당신의 빛이 이르렀고 당신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음이니이다.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나이다. 하나님이시여! 하지만 오직 당신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니 당신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셨나이다. 열방은 당신의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당신의 광명으로 나아오나이다. 당신이 눈을 들어 사면을 보시니 당신의 아들들이 다 모여 당신께 오나이다. 당신의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며 당신의 딸들은 안기어 오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큰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당신께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나라로 향하고 있으며, 당신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들을 가로지르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감사하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정직하고, 평온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당신을 앙망하고, 증거하고,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건축하게 하옵시며, 하루빨리 당신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고, 당신께 쓰임 받게 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땅에서 막힘없이 이루어지길 바라나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 제 25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4)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완전한 참하나님이시라! 그는 일곱 별과 일곱 영, 일곱 눈을 갖고 있으며, 일곱 인을 떼고 책을 펼친다. 나아가 그는 일곱 재앙과 일곱 대접을 주관하고, 일곱 우레를 떼며, 일찍이 일곱 나팔을 울렸도다! 그가 창조한 만물과 그가 온전케 한 모든 것은 마땅히 그를 향해 찬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의 보좌를 높이 받들어야 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바로 모든 것이나이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나이다. 당신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하고, 모든 것을 밝게 하며, 모든 것을 해방시키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며, 모든 것을 힘 있고 굳세게 하시나이다! 당신은 모든 비밀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 숨김없이 다 여셨나이다. 또한, 당신은 원수들을 심판하고 위엄과 맹렬한 불, 그리고 진노를 나타내셨나이다. 더구나 미증유의 영광,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속하는, 무한한 모든 영광을 나타내셨나이다! 만민은

모두 깨어나 힘껏 환호하고 노래하며, 이 전능하고 참되며, 살아 있으면서 모든 것을 갖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광의 참하나님을 찬송하라. 언제나 그의 보좌를 높이 받들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해야 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자 그가 우리에게 보여 주고 베푸신 무궁한 축복이도다! 우리 중에 받지 않을 자 누가 있으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상,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받들고, 그의 보좌를 향해 경배해야 할지라. 그의 앞에서 다른 속내나 생각을 품고 있는 자는 전부 그의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니라. 지금은 그의 원수들이 심판받을 때이자 멸망할 때이며, 나아가 나, 전능한 하나님이 드러날 때이고, 영광과 존귀를 받을 때이니라. 만민들아! 어서 일어나 찬송하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자비와 구원과 축복을 베푸시고, 자신의 아들을 만드시고, 나라를 성공적으로 세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맞이하라! 이는 하나님의 기묘하신 행사라! 또한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이자 예비함이니라. 바로 그가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온전케 하사 영광으로 인도하심이라.

일어나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눈먼 자들의 조상이요, 미련한 자들의 왕이라. 그들은 영원히 미련한 자로, 영원히 어리석은 자로, 영원히 눈먼 자로 남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영은 마땅히 깨어나야 할 것이다! 백성들아 모두 일어나라! 영광의 왕이자 자비로운 아버지시며, 구속의 아들이자 모든 것을 갖춘 일곱 영, 위엄과 맹렬한 불을 지니고, 공의로 심판하며, 풍성하고 풍족하며, 모자람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으며, 완전하고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환호와 찬양으로 쉬지 말고 찬송하라. 그의 보좌는 영원히 높임 받을 것이다!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자 기묘한 구원 방법이며, 그의 영광의 뜻이 이루어진 것임을 보아야 할지라! 이런데도 일어나 증거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 지금 이 기간의 우리 행실과 생각, 살아 낸 것에 따라 복을 받을지 화를 입을지가 결정된다. 바로 이 여정에 달린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영원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높이며, 말세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곧 영원하고 유일한 참하나님을 높여야 할 것이라!

이제부터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자, 곧 이 유일한 참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도리어 의심을 품는 자는 전부 병자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이미 증명되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한,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사탄의 일꾼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하고 미혹하며 하나님의 경영을 방해하러 왔으니, 반드시 날 선 점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만약 누군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그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하나님 영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영의 길을 가며, 하나님 영의 말씀으로 살고,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영원토록 높이 받들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곱 영의 하나님이다! 일곱 눈도, 일곱 별도 그니라. 일곱 인은 그가 떼셨으며 책은 전부 그가 펼치셨다! 그는 이미 일곱 나팔을 울렸으며, 일곱 대접과 일곱

재앙 역시 그가 다스리고 그의 뜻에 따라 쏟아질 것이다. 줄곧 봉인되어 있던 일곱 우레야! 그 봉인이 떼어질 때가 되었고! 일곱 우레를 때실 이가 이미 눈앞에 나타났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에게서는 모든 것이 해방과 자유를 얻고, 아무것도 어려울 것 없이 형통하나이다! 그 무엇도 감히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모든 것이 귀순할 것이나이다. 귀순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전부 죽음을 맞이할 것이나이다!

일곱 눈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는 환하고 밝아 아무것도 숨지 못하고 전부 드러나며 밝혀지도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수정같이 맑도다. 그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 또한 그러하니, 어떤 사람도, 사물도, 일도 그와 그의 아들 앞에서 숨지 못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곱 별은 밝게 빛난다! 교회는 이미 그에 의해 이루어졌고, 교회의 사자들은 그의 명을 받아 세워졌으며, 온 교회가 그의 공급을 받고 있다. 일곱 인은 그로 인해 떼어지고, 그의 경륜과 뜻은 전부 그 자신에 의해 이뤄진다. 그의 경영의 비밀과 영의 말씀을 담은 책 또한 이미 그로 인해 펼쳐지고 드러났다!

백성들은 그가 부는 일곱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공개된 것이므로 더는 숨김도 슬픔도 없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승리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곱 나팔은 공개와 영광과 승리의 나팔이다! 또한 원수를 심판하는 나팔이기도 하다! 그의 승리 속에서 그의 별 역시 높임 받고 있다! 온 우주를 주관할 것이다!

그는 이미 일곱 대접의 재앙을 준비하였다. 그 재앙은 그의 원수에게 끝까지 쏟아질 것이며, 맹렬한 불이 그의 원수들을 태워 멸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위엄을 떨치면, 그의 원수는 모두 멸망한다. 마지막의 일곱 우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는 봉인되지 않고 전부 떼어질 것이다! 전부 떼어지리라! 그는 일곱 우레로 그의 원수를 쳐서 이 땅을 평화롭게 하고 그를 위해 힘쓰게 하며, 더는 황폐하지 않게 할 것이다!

공의로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찬송하나이다! 당신은 무한한 찬양과 찬송과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당신의 일곱 우레는 심판을 위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광과 권병을 위해 존재하나이다.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이다!

만민이 보좌 앞에서 경축하며, 말세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도다! 그 소리가 마치 천둥이 치는 듯 전 우주를 흔들도다! 모든 것이 그로 인해 생기고 그로 인해 나오도다! 누가 감히 모든 영광과 존귀, 권능, 지혜, 거룩함, 승리, 나타남을 전부 그에게 돌리지 않으랴! 이는 그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의 경영 건축의 준공을 알리는 것이니라!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 제 34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5)

보좌에서 일곱 우레가 발하니 우주가 진동하고 천지가 뒤집히며 그 소리가 하늘 끝까지 울려 퍼지는도다! 뚝고 들어오는 그 엄청난 소리에 사람은 도망치기도, 숨기도 어렵다. 우레와 번개가 치니 삼시간에 천지가 크게 변하고, 사람들은 혈떡이며 사경에 이른다. 이어, 폭풍우가 미쳐 반응할 새도 없이 엄청난 속도로 전 우주를 휩쓸며 하늘에서 내리친다! 땅끝의 구석구석이 샅샅이 한 듯 모든 것이 씻겨져 오물은 조금도 없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었는데 어떤 것도 숨을 수 없고 어떤 이도 피할 수 없다. 우렛소리는 섬뜩한 빛이 번쩍거리는 번개처럼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좌우에 날 선 검은 패역한 자식을 치고, 원수는 재앙을 만나 숨을 곳이 전혀 없으며, 이 폭풍우에 얻어맞아 머리가 어질어질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순식간에 쓰러져 물살에 휘말려 간다. 오직 죽음뿐, 살길은 전혀 찾지 못한다. 나에게서 비롯된 일곱 우레는 내 뜻을 담고서 애굽의 장자를 치고 악한 자를 징벌하여 나의 교회를 정결케 한다. 이로써 모두가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나와 한마음이 되게 하여 하나가 된 우주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근본 취지이다.

그 우렛소리에 잇따라 통곡 소리가 들려온다. 어떤 자는 화들짝 놀라 꿈속에서 깨어나 깊이 반성하고, 재빨리 보좌 앞으로 돌아와 더 이상 공공연히 사기를 치거나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늦지 않은 셈이다. 나는 보좌에서 바라보며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고, 진심으로 강렬히 나를 원하는 자를 구원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내 뜻을 깨닫고 끝까지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반드시 영원히 구원하리라! 내 손은 반드시 그들을 안전하게 받쳐 줄 것이니, 그런 상황이 임하지 않고, 그런 피해도 받지 않게 할 것이다. 어떤 자는 그 번갯불이 내리친 후의 광경을 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씁쓸함과 끝없는 후회감이 들 것이다. 이렇게 계속된다면 너무 늦은 것이다. 일체의 모든 것들아!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나의 구원 방식이기도 하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고, 악인을 치며, 나라가 땅에서 견고하고 평온해지도록 할 것이다. 또한 만국 만민과 우주 땅끝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위엄이고 맹렬한 불이며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하나님임을 알게 할 것이다. 이로써 희고 큰 보좌의 심판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만민에게 선포하리라! 말과 생각이 다른 자, 의혹을 품고 감히 확신하지 못하는 자, 시간을 헛되이 보내며 나의 뜻을 깨닫고도 실행하기 싫어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속셈과 동기를 성찰해야 한다. 자신의 올바른 위치에 서서 내 말을 잘 실행하며, 생명 체험을 중요시해야 한다. 겉으로 열성적으로 행하지 말고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고 안정되고 원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내 뜻에 부합할 것이다.

그 사탄의 종들, 내 건축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악령들에게는 틈탈 기회를 주지 않고 엄하게 제한하고 저지하며 오직 날 선 검으로 상대할 것이다. 심각한 자는 즉시 제거하여 후환을 없앨 것이다. 이로써 교회를 아무 질병도 없이 건강하게,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할 것이다. 이 번개가 내리침에 따라 우렛소리가 울린다. 절대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포기하지 말고 전력을 다해 뒤쫓아라. 그러면 반드시 내 손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리며, 무엇을 온전케 하고, 무엇을 제거할 것인지, 또 무엇을 칠 것인지 보게 될 것이다. 이 일체의 모든 것이 너희 앞에 펼쳐져 너희는 나의 전능함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보좌 위에서 온 우주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 일곱 우레가 메아리치니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생명의 빛에 따라 사람은 살길을 찾고자 자기도 모르는 새에 나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전능한 참하나님을 외치고 애원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러나 나를 대적하는 자들, 마음이 강박한 자들은 우렛소리를 들으면 의심할 여지 없이 반드시 죽게 되리라. 이는 그들의 결말에 불과하다. 승리를 얻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은 반드시 시온에 남을 것이며, 만민은 모두 너희가 장차 얻을 것을 보게 되리라. 너희 앞에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는 그야말로 크나큰 복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일곱 우레가 발함은 나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나를 원하는 자에 대한 구원이다. 나에게 속하는 자, 내가 예정하고 택한 자들은 모두 나의 이름 아래로 돌아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땅끝의 사람들은 모두 내가 공의롭고 신실하며, 내가 자비와 긍휼이요 위엄이요 맹렬한 불이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자비한 심판임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확실히 완전한 하나님 자신임을 보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말로도, 마음으로도 탄복할 것이며, 어떤 자도 감히 더 이상 대적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다가는 즉시 저주가 내려지고 그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니, 슬피 울고 이를 갈며 멸망을 자초할 뿐이다.

전능한 하나님은 유일한 참하나님임을 만민이 알게 하고, 우주 땅끝의 가가호호, 모든 이가 다 알게 할 것이다. 모두가 연신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심지어 이제 막 입을 뗀 어린아이조차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리라! 직위가 있고 권력을 잡은 자들도 자신들 앞에 참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목도하고는 엎드려 경배하며 사해 달라 빌겠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죽을 때가 닥쳤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들을 심판하여 심연으로 떨어지도록 해 줄 수밖에 없다. 모든 시대를 끝내고, 나의 나라를 더욱 견고히 하며, 만국 만민이 반드시 내 앞에 영원토록 행복하게 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 제 35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6)

전능하신 참하나님, 보좌에 앉으사 왕이 되셨도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얼굴을 만국 만민에게로 향하시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도다. 온 우주 땅끝에 이르기까지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불지어다. 산과 강, 호수, 땅과 바다, 그리고 생존하는 모든 만물이

참하나님의 얼굴빛 속에서 서막을 열었도다. 그들은 소생하였으며 꿈에서 갓 깬 듯 흠을 뚫고 짝을 띄우고 있다!

아! 유일하신 참하나님,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도다.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으랴? 모두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진심으로 복종하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계속해서 애원한다. 만인이 그에게 무릎 꿇고 모든 입이 그에게 경배하도다! 온 땅과 바다, 강과 산의 모든 만물이 그에게 끝없는 찬미를 보내도다! 봄기운을 타고 온 따뜻한 봄바람에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시냇물은 맑은 사람들처럼 희비가 교차하는 가운데 죄스러움과 자책의 눈물을 흘렸다. 강과 호수, 파도와 물결이 참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노래하며 찬미하도다! 그 찬미의 소리가 얼마나 청명한가! 사탄이 패괴시킨 옛것은 전부 새로워지고 바뀌며 새로운 경지에 들어설 것이다....

이는 거룩한 나팔이라, 크게 울려 퍼졌도다! 귀를 기울이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가. 이는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으로, 열국 백성에게 때가 되었고 최후의 종국이 이르렀음을 선포하도다. 또한 나의 경륜이 끝났고, 나의 나라가 공개적으로 땅에 나타났으며, 세상의 나라가 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하는도다. 나의 일곱 나팔이 보좌에서 울렸으니,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얼마나 기묘하랴! 땅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람이 밀물처럼, 천둥처럼 엄청난 기세로 사망팔방에서 한꺼번에 밀려들 것이다. ...

기쁘게 나의 백성을 바라보니 내 음성을 들은 자들이 각 나라 방방곡곡에서 모여든다. 모든 이가 끊임없이 기뻐 뛰며 참하나님을 찬미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참하나님을 증거하니, 그 소리는 우레 같은 많은 물소리 같다. 많은 이가 나의 나라로 밀려들 것이다.

나의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자 깊은 잠에 빠졌던 사람들이 깨어났다! 서둘러 일어나면 늦지 않을 것이니 목숨을 소중히 여겨라! 눈을 뜨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보아라. 무엇을 바라는 것이냐?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냐? 무엇에 더 연연하는 것이냐? 내 생명을 얻는 것과 네가 사랑하고 미련을 가지는 것의 가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말이냐? 더는 마음 내키는 대로 노는 데 정신을 팔지 마라. 좋은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느니라! 어서 일어나라. 영을 운용하는 훈련을 하고 각종 도구를 활용하여 사탄의 온갖 음모와 간계를 간파하고 무력화하며 또한 사탄 앞에서 개가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생명 체험을 더 심화하고 나의 성품을 살아 내며, 생명이 성숙하고 세련되게 하는 한편, 끝까지 나의 발걸음을 따라야 한다. 낙담하거나 연약해지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끝까지 나아가라!

다시 울려 퍼지는 일곱 나팔 소리는 심판을 알리는 소리이니라. 패역한 자식들과 만국 만민을 심판하여 열국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반드시 만국 만민 앞에 나타날 것이니라. 모두가 진심으로 탄복할 것이며, 참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더욱 영광스럽다. 나의 아들들도 나와 함께 영광을 얻고, 나와 함께 왕이 되어 만국 만민을

심판할 것이다. 악인을 징벌하며, 나에게 속하는 자를 구원하고 궁핍히 여김으로써 나라가 굳건해지고 안정되게 할 것이다. 일곱 나팔이 울림으로써 많은 이가 구원을 받고, 내 앞으로 돌아와 무릎 꿇고 경배하며 끊임없이 나를 칭송할 것이다!

또다시 울려 퍼지는 일곱 나팔 소리는 시대의 끝을 알리는 소리이자, 마귀 사탄을 물리쳤음을 알리는 승리의 소리이며, 하나님나라의 삶이 공개적으로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예포 소리이니라! 이 소리는 드높이 울려 퍼진다. 이 소리가 보좌에서 메아리치고 하늘과 땅을 울리니, 이는 내 경륜의 승리를 상징하도다. 또한, 이는 사탄이 심판을 받고, 옛 세상이 완전히 사형에 처해 무저갱으로 돌아갔음을 알리는 소리이니라! 이 나팔 소리는 은혜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나라의 삶이 땅에서 시작될 것임을 의미하니, 이는 더없이 합당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그의 나라로 돌아가면, 땅의 사람은 기근과 역병에 시달릴 것이고, 하나님의 일곱 대접, 일곱 재앙이 잇따라 자기 역할을 할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 제 36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7)

말세의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생명이고, 영원하고 영원한 진리의 도이다. 이 진리가 바로 사람이 생명을 얻는 길이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유일한 길이다. 말세의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생명의 도를 찾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예수의 칭찬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천국의 대문에 들어설 자격도 없다. 이는 네가 역사(歷史)의 꼭두각시이자 역사의 죄수이기 때문이다. 규례와 글귀, 역사의 멍에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영구한 생명의 도를 얻지 못한다. 그들이 얻은 것은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고여 있던 더러운 물이기 때문이다.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시체이고 사탄의 노리개이며 지옥의 자식이다. 이런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네가 역사(歷史)를 답습하고, 제자리걸음을 하며 현상 유지에 그칠 뿐, 현 상태를 변화시켜 역사를 도태시키려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솟구치는 파도처럼, 요동치는 천둥소리처럼 거침없이 나아가거늘, 네가 죽을 때까지 앉아서 요행만을 바라며 기다린다면 어찌 너를 어린양의 발걸음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어찌 항상 새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바랜 지 오래인 네 책의 글귀가 어찌 너를 다른 시대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 사역의 발걸음을 어찌 찾아 줄 수 있겠으며, 또 어찌 너를 하늘나라로 데려다줄 수 있겠느냐?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 그저 잠시 위안을 주는 글귀에 불과하다. 네가 읽는 성경 구절은 인생을 알려 주는 현묘한 이치도 아니고 너를 온전케 하는 길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그저 네 혀를 충실하게 해 주는 구절일 뿐이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도 너는 반성하지 않는단 말이나? 그 속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나? 너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너 스스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느냐?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 꿈에서 깨어나라. 너는 현재 사역을 행하는 이가 누구인지, 사람을 구원하는 말세 사역을 하는 이가 누구인지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진리도 생명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로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가져다준 생명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허황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말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 영원히 혐오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말세에 하나님나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야 한다.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에 순종해야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공급을 거부한 채 복받을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말세에 그리스도가 온 이유는 그를 진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이 사역은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사역이며, 새 시대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네가 인정하지 않고 정죄하거나 모독하거나 핍박을 가한다면, 반드시 영원히 불태워질 것이며,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이 그리스도는 성령의 발현이자 하나님의 발현이며, 땅에서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이다. 그러므로 말세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 것이다. 명심해라. 네가 말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저버린다면 아무도 너 대신 그 대가를 치러 주지 못할 것이다. 그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기회가 더는 없을 것이고, 나아가 만회하고자 해도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대적하고 저버린 이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런 결과를 알고 있느냐? 너는 작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권하노니, 진리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말고, 사실을 외면한 채 함부로 말하지도 말라.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이기 때문이다. 진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너를 소생시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할 수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말세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영생의 도를 줄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8)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나의 비밀을 열어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온전히 나의 은총이자 공훈이다.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나의 말을 나타내 보여 주는 것도 나의 은총이고 공훈이다. 나는 진심으로 나를 위해 헌신하고 바치는 모든 이를 사랑하고, 나에게서 비롯되었으나 나를 알지 못하고 내게 대적하는 모든 이를 증오한다.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 자는 한 사람도 버리지 않겠고 곱절로 축복할 것이다. 반대로 배은망덕한

자들은 곱절로 징벌하고 절대 쉽사리 용서치 않을 것이다. 나의 나라에는 교활함과 간사함이 존재하지 않으며, 세상의 기운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즉, 죽은 자의 냄새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정직하고 공의롭고 순수하고 열려 있으며, 감춰지거나 숨겨진 것이 없다. 또한, 그곳의 모든 것은 다 새롭고 누릴 수 있으며 도움이 된다. 죽은 자의 냄새를 지닌 자가 있다면 나의 철장(鐵杖)으로 다스릴 것이니, 절대 내 나라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태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무궁무진한 비밀을 온전히 너희에게 - 말세에 내게 얻어진 사람들에게 - 열어 주었다. 너희는 복되다고 생각지 않느냐?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날은 더욱이 너희가 나와 함께 왕권을 잡는 날이다.

진정 왕이 될 자들은 모두 내가 예정하고 택한 자들이며, 여기에는 절대 인간의 뜻이 섞여 있지 않다. 이 일에 관여하려는 자는 내가 반드시 칠 것이며, 나의 맹렬한 불길로 살라 버릴 것이다. 이는 나의 공의와 위엄의 또 다른 모습이다. 내가 말했듯이, 나는 만유를 주관하고, 모든 권능을 지닌 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 누구도 쉽사리 용서하거나 사정을 봐주지 않으며, 사사로운 감정에 연연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사람(아무리 말을 잘해도 나는 놓아주지 않을 것임)을 나의 공의와 정직, 위엄으로 대한다. 나는 이 기간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내 기묘한 행사를 보게 하고, 내 행사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할 것이다. 또한 각종 악령들의 작태에 따라 하나하나 처벌하고 하나하나 무저갱에 처넣을 것이다. 이는 내가 태초 전부터 이미 해 놓은 일이니 사탄에게는 어떤 자리도, 역사할 곳도 허락되지 않는다. 내가 예정하고 택한 사람들은 단 한시도 사탄에게 점령되지 않고 언제나 성결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예정하지도, 택하지도 않은 자들은 전부 사탄에게 넘겨주어 더는 남아 있지 못하게 하겠다. 나의 모든 행정에는 나의 공의와 위엄이 서려 있다. 사탄이 역사하는 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육체까지 음부로 던져 버릴 것이다. 사탄에 대한 내 감정은 오직 증오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절대로 사탄을 쉽게 용서하지 않고, 철저히 파멸시켜 역사할 기회를 조금도 남겨 두지 않을 것이다. 사탄에 의해 심히 패괴된 자들(화를 입을 대상)은 나의 지혜로 준비해 놓은 존재들이다. 그러니 그들을 보고 사탄이 날뛰고 있다고 여기지 말라. 내가 우주 만물을 주재하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명심하라! 내게는 해결 못 할 일이 없다. 따라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지 못할 말이 없다. 인간은 나의 책사가 되려고 하지 말라. 내 손이 너를 쳐서 음부에 던져 버릴 것이니 조심하라. 기억하라! 오늘날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나와 협력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이니 그런 자는 손해를 보지도 심판의 고통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예정하니 지휘하려 들지 말고,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며 큰소리치지 말라. 결국은 다 내가 예정하지 않느냐? 나의 책사가 되려고 하다니 수치를 모르는구나! 자신의 분수를 모르다니 참으로 가엾을 정도이다! 이러한데도 너희는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자신을 모르고 있으며, 나의 말을 한번 또 한번 스쳐가는 바람처럼 대하였다. 너희는 나의 심혈을 저버리고도 내가 공홀로 너희를 선대했다고는 생각지 않고 거둬 자신의 잔피만을 뿜내었다. 스스로 똑똑한 척하는 자는 어떤 형벌에 처해진다고 했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너희는 나의 말을 차갑게 대하며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 또한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도리어 나를 방패막이로 삼아 이런저런 짓을 하고 다닌다. 악을 행하는 인간들아! 언제면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니 너희를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지나치지 않은 응분의 대우니라!

전에 감취졌던 것들이 오늘날 하나하나 너희 앞에 드러나고 있다. 큰 붉은 용은 무저갱에 떨어져 철저히 멸망될 것이다. 그것을 남겨 뒤 봤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힘쓸 수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붉은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점차 사라져 무(無)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말한 대로 행한다. 이는 내 사역이 완성됨을 의미한다. 사람의 관념을 버려라. 내가 말한 것은 모두 내가 이미 이룬 것이다. 잔피를 부리는 자는 자멸하고 창피를 당할 것이다. 네가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남겨 두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갈수록 알짜만 남을 것이니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와 협력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도태되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검증을 통과한 사람은 모두 내가 온전케 할 대상이니 단 한 명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나와 협력하지 않는 자는 더 많은 형벌을 받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내게 구원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너희의 생명은 차이가 클 것이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일어나 나와 협력하라! 나는 진심으로 나를 위해 헌신하는 자, 진심으로 나를 위해 바치는 자를 박대하지 않을 것이며, 내 모든 축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나를 위해 너의 온 몸과 마음을 바쳐라! 먹는 것과 입는 것은 물론, 너의 앞날까지 전부 내 손에 달려 있다. 내가 합당하게 준비하리니 너는 한없이 누릴 것이고 취하여도 마르거나 닳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나를 위해 헌신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크게 축복해 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진심으로 나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자에게는 모든 복이 임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제 70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9)

모든 백성들이 나를 향해 환호하며 찬양하고 있다. 모든 입이 나를 유일한 참하나님이라 부르고, 만인이 눈을 들어 나의 행사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나라가 인간 세상에 임했고, 나의 본체는 풍부하고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 어느 누가 기뻐하지 않으랴? 어느 누가 즐겁게 춤추지 않으랴? 시온아!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를 향해 경축하라!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널리 전파하라! 땅끝의 만물아! 어서 깨끗이 씻고 나를 위해 제사를 올려라! 하늘의 별들아! 어서 제자리로 돌아가 궁창에서 내 큰 능력을 나타내라! 내가 귀를 기울여 땅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 보니 노랫소리에 나에 대한 경애심이 넘쳐흐른다! 내가 만물이 소생하는 날에 친히 인간 세상에 임하자 온갖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새들이 일제히 지저귀며, 만물이 기쁨으로 들끓는다!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나라의

예포 소리에 무너지고, 하나님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축가에 부서져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리!

땅의 사람 중에 어느 누가 감히 일어나서 대적할 수 있으랴? 나는 땅에 내려올 때 불사름과 진노를 가지고 임했으며, 모든 재난을 가지고 임했다. 세상 나라는 나의 나라가 되었도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고, 하늘 아래에서는 호수와 강물이 세차게 출렁이며 감동적인 무곡을 연주하고 있다. 동굴에서 지내던 짐승이 모습을 드러내고, 꿈속에 잠들어 있던 만백성은 나로 인해 눈을 떴으며, 만민이 기다리던 날이 마침내 도래하였다!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나에게 바친다!

아름다운 이 순간, 가슴 벅찬 이 순간

천상천하에 찬미하지 않는 사람이 없네, 어느 누가 이에 감격하지 않으랴?

어느 누가 유쾌하지 않으랴? 이 광경에 어느 누가 눈물 흘리지 않으랴?

하늘은 더 이상 원래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나라의 하늘이 되었고

땅은 더 이상 예전의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이 되었네.

큰비가 지나간 뒤에 더러웠던 옛 세상이 바뀌고 있네.

산도 변하고... 물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만물도 변하고 있네....

침묵하던 산아! 일어나 나를 위해 신명 나게 춤을 추어라!

멈추었던 물아! 다시 흐르라!

꿈속의 사람들아! 떨쳐 일어나 속히 뒤쫓으라!

나는 이미 왔고... 왕이 되었도다....

모두가 직접 나의 얼굴을 보고 직접 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나라의 삶을 체험하고 있네....

이 얼마나 달콤하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잊을 수 없으리.... 잊을 수 없으리....

내 진노의 불길 속에서 큰 붉은 용이 몸부림치고

나의 위엄 있는 심판 속에서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네.

나의 엄한 말에 사람은 죄책감으로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사람은 나를 비웃었고

항상 자신을 자랑하며 늘 나를 거역했네.
지금의 광경을 보아라, 누가 눈물 흘리지 않으랴? 누가 자책하지 않으랴?
온 우주와 세상에 울음소리 가득하고...
환호 소리 가득하며... 웃음소리 가득하네....
더없이 즐겁고... 더없이 즐겁네....
가랑비가 보슬보슬... 함박눈이 펄펄...
모두가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네.... 기쁘게 웃는 사람이 있고...
흐느끼는 사람도 있으며... 환호하는 사람도 있네....
모두가 짙그리 잇은 듯하네.... 빗줄기가 그치지 않는 봄인지
꽃이 만발하는 여름인지, 창고 가득 풍작을 거둔 가을인지
꽂꽂 얼어붙은 겨울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네....
하늘에는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땅에는 바닷물이 넘실대고 있네.
아들과 백성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천사는 일하고... 목양하고 있으며...
땅의 사람들은 바쁘게 보내고, 땅에 있는 것들은 늘어가고 있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 하나님나라의 축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0)

모든 인류는 내 영의 감찰을 받아야 하고, 자신의 언행 하나하나를 면밀히 성찰해야 하며, 더욱이 나의 놀라운 행사를 지켜보아야 한다.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너희는 어떤 느낌이 들겠느냐? 아들과 백성들이 모두 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때, 나는 본격적으로 희고 큰 보좌 앞의 심판을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면, 내가 땅에서 친히 사역을 시작할 때, 심판 시대가 마지막 단계에 들어설 때, 나는 전 우주를 향해 말하고 전 우주를 향해 내 영의 음성을 발하기 시작했다. 나는 천지 만물 중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나의 말로 정화하여, 더는 더럽고 음란한 땅이 아닌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나는 만물을 새롭게 바꾸어 내가 쓸 수 있게 하고, 진흙 냄새가 배지 않고 땅에 속한 냄새가 묻어 있지 않게 할 것이다. 사람은 땅에서 내가 한 말의 목적과 근원을 모색한 적이 있고, 땅에서 나의 행사를 관찰한 적이 있다. 하지만 내가 한 말의 근원을 참으로 아는 자가 없었고, 내 행사의 기묘함을 참으로 본 자도 없었다. 오늘날, 내가 친히 인간 세상에 임하여 친히 음성을 발하니 그제서야 사람은 나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고, 생각 속에 있던 ‘나’의 지위를 제거하고 의식 속에 ‘실제 하나님’의 지위를 각인하게 되었다. 관념이 있고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으로서,

어느 누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어느 누가 하나님과 접촉하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느낌만 주는 하나님일 뿐이다. 내가 명확히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 어느 누가 진정으로 내가 확실히 존재한다고 여기겠느냐? 정말로 조금의 의심도 없겠느냐? 사람 마음속의 ‘나’와 실제의 ‘나’는 그야말로 차이가 너무 커서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내가 성육신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영원히 나를 알지 못할 것이다. 설령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고정 관념이 아니겠느냐? 나는 날마다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고, 날마다 모든 이의 내면에서 운행한다. 사람이 참으로 나를 보게 되면, 모두 나의 말 속에서 나를 알 수 있고, 내가 말하는 방식과 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나라가 본격적으로 인간 세상에 임할 때, 만물 중에 어느 것이 침묵하지 않겠느냐? 만인 중에 어느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내가 우주 세계의 곳곳을 다니면서 친히 모든 일을 안배하는데, 어느 누가 이때에 내 행사의 기묘함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 손은 만유를 떠받치고 있지만, 나는 또 만유 위에 있다. 오늘날 성육신하여 친히 인간 세상에 임한 것이 바로 내가 자신을 낮추고 감추는 진정한 함의가 아니겠느냐? 많은 사람은 겉으로는 내가 아주 좋다고 칭송하고 내가 매우 아름답다고 찬미하지만, 참으로 나를 아는 자가 있느냐? 오늘날 왜 너희 모두에게 나를 알라고 하겠느냐? 큰 붉은 용에게 치욕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더냐? 나는 사람이 위압에 의해 나를 ‘찬미’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나를 알게 됨으로 인해 나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나아가 나를 찬미하기를 원한다. 그런 찬미는 빈말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찬미이며, 그런 찬미야말로 직접 나의 보좌에 상달되고 하늘 높이 올려 퍼질 수 있다. 사람은 사탄에게 유혹되고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관념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성육신하여 친히 전 인류를 정복하고 사람의 모든 관념을 폭로하며 모든 생각을 쫓아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이 다시는 내 앞에서 자신의 풍채를 뽐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관념으로 나를 섬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로써 사람의 관념 속에 있는 ‘나’를 철저히 제거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나라가 강림할 때, 먼저 이 단계 사역을 시작하였고, 또한 백성들 가운데서 착수하였다. 큰 붉은 용의 국가에서 태어난 백성이 큰 붉은 용의 독소를 조금이나 일부분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단계 사역의 중점을 너희에게 두었다. 이는 내가 성육신으로 중국에 온 또 다른 의의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은 내가 한 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며, 설령 조금 파악했다고 할지라도 아는 듯 모르는 듯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방식의 전환점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다 내 말을 볼 수 있고 내 말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사람은 다 구원받아 음부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 아니겠느냐? 모든 사람이 나를 알고 나에게 순종할 때가 되면 그때가 바로 내가 안식하고, 사람이 내 말의 뜻을 알 수 있을 때이다. 지금은 너희 분량이 안쓰러울 정도로 너무 작고 심지어 잡아 쥐도 일어서지 못할 정도이니, 하물며 나를 알아 가는 것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1)

동방에서 번개가 번쩍일 때는 바로 내가 음성을 발하기 시작할 때이다. 번개가 번쩍이면 온 하늘이 환해지고 모든 별들이 변화한다. 전 인류가 말끔하게 정리된 듯하다. 동방에서 비치는 이 빛줄기에 모든 사람의 본모습이 드러난다. 그들은 눈이 부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신의 추악한 몰골을 어떻게 숨겨야 할지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내 빛으로부터 도망쳐서 산속 동굴 안으로 피난 가는 동물 같지만, 그 어떤 존재도 내 빛 속에서 말살된 적이 없었다. 모든 사람이 놀라고 있고, 기다리고 있으며, 바라보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내 빛의 도래로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 동시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모순된 심리다. 자책의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 강을 이루고 급류에 휩쓸려 순식간에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나의 날이 또 한 번 전 인류에게 다가왔고, 또 한 번 인류를 불러 깨워 새로운 시작을 열어 줬다. 내 심장이 요동치고 있다. 내 심장의 박동에 따라 산도 흥겹게 뛰고 물도 즐겁게 춤추며, 파도는 바위에 부딪쳐 물보라를 일으킨다. 내 마음을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나는 모든 불결한 것들을 내 눈앞에서 잿더미로 만들고, 모든 패역한 자식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영원히 존재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큰 붉은 용이 거하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전 우주 아래에서 새로운 사역을 펼쳤다. 머지않아 땅의 나라는 나의 나라가 될 것이고, 나의 나라로 인해 영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이미 이겼고, 승전고를 울리며 돌아왔기 때문이다. 큰 붉은 용이 갖가지 계략으로 나의 계획을 망치고 내가 땅에서 행하는 사역을 없애려 하지만, 내가 그것의 간계 때문에 낙담할 리 있겠느냐? 내가 그것의 위협에 놀라 자신감을 잃을 리 있겠느냐? 천지 만물 중 내 손으로 주관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하물며 부각물인 그 큰 붉은 용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그것 역시 내 손에 지배당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성육신으로 인간 세상에 오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인도에 따라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아무도 모르고, 이후의 길이 어디로 향할지 아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오직 전능자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이 길의 끝까지 갈 수 있고, 오직 동방번개의 인도를 받아야만 내 나라의 문에 들어설 수 있다. 지금껏 내 모습을 본 사람이 없고 동방의 번개를 본 사람도 없는데, 하물며 보좌에서 발한 음성을 들은 이가 있겠느냐? 사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본체를 직접 접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오늘날 내가 세상에 왔기에 사람은 나를 볼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사람은 아직도 나를 모르고 있다. 내 얼굴을 보고 내 음성만 들었을 뿐, 내 뜻은 깨닫지 못한 것처럼 말이다. 사람은 모두 그렇다. 백성 중의 한 사람으로서, 너희는 내 얼굴을 본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지 않느냐? 나를 알지 못한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느냐? 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고, 사람들 가운데서 산다. 내가 성육신으로 인간 세상에 온 목적이 단지 사람에게 내 육신을 보여 주려는 것만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나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나는 내가 입은 육신을 통해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입은 욕신을 통해 큰 붉은 용을 물리치며 그것의 소굴을 멸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제 12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2)

온 우주 아래의 사람은 나의 날을 축하하고, 천사는 백성들 사이를 거닐고 있다. 사탄이 방해할 때, 천사는 하늘에서 섬기는 까닭에 언제나 내 백성을 도와준다. 천사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귀에게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세력의 침입이 있기에 오히려 그 질은 안개 속에서 인생을 더 체험하게 된다. 모든 백성은 내 이름 아래 굴복하며, 이제까지 공개적으로 나를 대적한 자는 없었다. 천사의 사역으로 내 이름을 받아들였으니 모든 사람이 내 사역의 흐름 안에 있다. 세상이 기울어지고 있도다! 바벨론이 마비되고 있도다! 종교계야! 어찌 땅에 있는 내 권병으로 인해 멸망하지 않겠느냐? 누가 감히 나를 거역하고 대적하겠느냐? 서기관이냐? 모든 종교 관원이냐? 땅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냐? 천사냐? 나의 완벽함과 충만함을 축하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만민 가운데 나를 찬양하지 않고, 나로 인해 기뻐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나는 큰 붉은 용의 소굴이 있는 곳에 살지만 그로 인해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다. 큰 붉은 용의 모든 ‘민중’은 이미 큰 붉은 용을 증오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큰 붉은 용 앞에서 그것을 위해 ‘본분을 이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자신을 위해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땅의 나라가 어찌 멸망하지 않겠느냐? 땅의 나라가 어찌 무너지지 않겠느냐? 내 백성이 어찌 환호하지 않겠느냐? 어찌 즐겁게 노래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사람의 사역이더냐? 이것이 사람 손에 달린 일이더냐? 나는 일찍이 사람에게 생존의 기반을 주고 물질을 공급했지만, 사람은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대가 없이, 아낌없는 헌신 없이 어찌 쉽게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나는 사람에게 뭔가를 받아 내려는 것이 아니라 땅의 내 나라를 영광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다. 사람은 나로 인해 오늘날 이 시대에 진입했고, 이런 상태에 처해 있다. 또한, 사람은 모두 내 빛의 인도 속에 살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 땅에 있는 사람 중 누가 자신의 앞길을 알겠느냐? 누가 내 뜻을 알겠느냐? 내가 사람의 요구에 내 조건을 붙이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부합하는 일 아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제 22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3)

하나님나라에서는 만물이 소생하고 생기를 발산하기 시작한다. 땅의 모습이 변함에 따라 땅의 경계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땅이 갈라질 때, 땅이 합쳐질 때가 곧 내가 열국을 산산조각 낼 때임을 예언한 바 있다. 그때 나는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전 우주를 다시 나눌 것이다. 이로써 온 우주를 바로잡고, 옛 모습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이는 나의 계획이고, 나의 행사이다. 열국 백성이 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때, 나는 즉시 하늘의 모든 풍요로움을 세상에 베풀어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더없이 풍요로워지게 할 것이다. 옛 세상이 존재할 때, 나는 열국에 크게 진노하고 온 우주에 공개할 행정을 반포할 것이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형벌에 처해질 것이다.

내가 온 우주를 향해 말을 할 때 모든 이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즉, 온 우주 아래에서 행한 나의 모든 행사를 보는 것이다. 나의 뜻을 거스르는 자, 다시 말해 사람의 행위로 내게 맞서는 자는 나의 형벌 속에서 쓰러질 것이다. 나는 하늘의 못별을 모두 새롭게 바꿀 것이다. 나로 인해 해와 달도 새롭게 바뀌어 더 이상 예전의 하늘이 아닐 것이며, 땅의 만물도 새롭게 바뀔 것이다. 이는 나의 말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온 우주 아래의 열국을 다시 나누고, 나의 나라로 바꿔, 땅에 있는 나라를 영원히 소멸시키고 나를 경배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또한 땅에 있는 나라는 모두 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할 것이다. 온 우주 아래에 있는 사람 중 마귀에 속하는 자는 모두 멸함을 당할 것이며, 사탄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은 나의 불사름 속에서 쓰러질 것이다. 즉, 현재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종교계는 내가 만민을 형벌할 때 각각 다른 정도로 나의 나라로 돌아올 것이고, 나의 행사로 말미암아 정복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흰 구름을 탄 거룩한 자’가 이미 왔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각기 부류대로 나뉘지고, 각자의 행위에 따라 그에 맞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는 모두 멸망할 것이나 땅에서의 행위가 나와 관련이 없는 자는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땅에 존재하고, 아들과 백성들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만국 만민에게 나타나고, 땅에서 친히 음성을 발할 것이며, 나의 대업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여 모든 사람이 이를 직접 목도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이 깊어짐에 따라 나는 또한 온 우주의 모습을 관찰하였다. 만물이 나의 말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하늘도 변하고, 땅도 변하고, 사람도 원래의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은 서서히 각기 부류대로 나뉘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종족’에게로 돌아간다. 나는 이에 크게 기뻐한다. 나를 방해하는 것이 없으므로 어느새 나의 대업은 이루어지고 만물도 어느새 모두 변하였다. 나는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것을 각기 종류대로 나누어 형체가 있는 모든 것을 분류하였다. 나의 경륜이 끝나려 할 때, 나는 세상을 창조했을 때의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모든 것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 완전히 변화시켜 모든 것이 나의 계획 안에 포함되도록 할 것이다. 때가 되었도다! 내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곧 완성될 것이다. 더러운 옛 세상아! 너는 반드시 나의 말에 무너질 것이다! 반드시 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사라질 것이다! 만물들아! 나의 말에서 다시 생명을 얻고, ‘주재자’를 얻으리라! 흠 없이 거룩한 새 세상아! 반드시 나의 영광으로 다시 소생할 것이다! 시온산아!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 내가 이기고 돌아왔노라! 내가 만물 가운데서 온 땅을 살펴보니 땅의 사람은 다시 새 삶을 시작했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내 백성들아! 어찌 나의 빛 속에서 부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찌 나의 인도 아래에서 기뻐 뛰지 않을

수 있겠느냐? 땅은 기뻐 환호하고, 물은 즐거움에 크게 웃는도다! 부활한 이스라엘아! 어찌 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긍지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가 눈물을 보였었느냐? 누가 애곡했었느냐? 지난날의 이스라엘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세상 위에 우뚝 섰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섰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반드시 내 백성으로 인해 생존의 근본을 얻게 될 것이다! 가증스러운 애굽아! 아직도 나를 대적하는 것이냐? 어찌 나의 긍휼을 틈타 내가 주는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어찌 나의 형벌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나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영원토록 나에게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사람을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의 모든 소행을 쉬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온 땅을 감찰할 것이며, 공의, 위엄, 진노, 형벌로 세상의 동쪽에 나타나 만민에게 나타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 제 26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4)

천사가 악기를 연주하며 나를 찬양할 때,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일면서 내 마음은 순간 매우 슬퍼지고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내가 슬픔과 기쁨, 이별과 만남을 사람과 함께했지만, '옛정을 나눌 수' 없다. 사람과 나는 하늘 위아래로 갈라져 있어서 늘 함께 모일 수 없다. 누가 옛정에 대한 그리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누가 예전을 회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가 옛정이 여전히 존재하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누가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누가 나와 사람이 함께 모이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내 마음은 참으로 걱정되고, 사람의 영은 참으로 우울하다. 영과 영이 비록 같지만 늘 함께 모일 수 없으며 서로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온 인류의 인생은 비통하고 생기가 없다. 이는 사람이 늘 나를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속세에 떨어진 하늘의 물건처럼, 땅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고개 들어 나를 바라본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굶주린 이리의 아가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것의 위협과 유혹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큰 소리로 간청할 때, 나는 얼굴을 돌리고 차마 계속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애곡 소리가 어찌 내게 들리지 않겠느냐? 나는 세상의 불공평을 없애고, 온 땅에서 직접 해야 할 사역을 하여 사탄이 다시는 나의 백성을 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원수가 다시는 제멋대로 구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나는 땅에서 왕이 될 것이고, 나의 보좌를 땅으로 '옮겨 와서' 원수가 내 앞에 엎드려 죄를 인정하게 할 것이다. 나의 근심과 슬픔 속에는 분노가 담겨 있다. 나는 온 우주를 평정하고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하여 모든 원수가 놀라서 간담이 서늘하게 할 것이다. 나는 온 땅을 폐허로 만들고 원수를 폐허로 보내어 더 이상 인류를 파괴시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의 계획은 이미 정해졌으니 누구도 바꾸려고 하지 말라. 내가 당당하게 온 우주 위를 다닐 때, 모든 사람이 다시 새롭게 태어날 것이고 만물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사람은 더 이상 애곡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게 되니 내 마음은

아주 흡족할 것이다. 사람이 모두 돌아와 나로 인해 기뻐하며, 온 우주의 위아래는 온통 기쁨으로 들끓는다....

오늘날 나는 열국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나는 모든 사람 사이를 운행하면서 계획한 모든 사역을 하고 있다. 사람은 내 뜻대로 각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다. 땅의 사람은 모두 자신의 종착지를 주목하고 있다. 날이 확실히 다가왔고 천사도 나팔을 불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시일을 지체하지 않고 만물이 더불어 기쁘게 춤추기 시작할 것이다. 누가 나의 날을 제멋대로 연장할 수 있겠느냐? 설마 땅에 있는 사람이겠느냐? 하늘에 있는 별이겠느냐? 천사이겠느냐? 내가 음성을 발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할 때, 나의 날이 온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으니, 모든 이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 바로 내가 영광을 얻는 날이며 만물이 새롭게 변화되는 날이다. 공의의 심판이 머지않아 온 우주를 향하므로 모두가 두려워한다. 이는 인간 세상에 공의가 있다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공의로운 해가 나타날 때 동방이 밝게 비추진다. 그 후 온 우주를 밝게 비추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사람이 진실로 나의 공의를 행할 수 있다면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나의 백성은 모두 나의 날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며 나의 날이 임하기를 갈망한다. 내가 공의로운 해로 온 인류에게 보응하여 인류의 ‘종착지’를 마련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나의 나라는 온 우주 위에서 형성되고, 나의 보좌는 억만 백성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천사의 협력으로 나의 대업이 곧 완성될 것이다. 아들과 백성이 모두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내가 그들과 함께 모이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내 나라의 백성이 어찌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 뛰어다니며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대가 없이 모이는 것이란 말이나? 나는 모든 사람의 눈에 존귀하게 보이며, 모든 사람의 말을 통해 널리 알려진다. 나는 돌아올 때 더욱이 모든 적대 세력을 정복할 것이다. 때가 왔도다! 나는 나의 사역을 펼칠 것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나는 돌아올 것이다! 나는 떠날 것이다! 이는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날이 도래하는 것을 보게 하고 기쁘게 맞이하게 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제 27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5)

만물이 소생할 때 나는 인간 세상에 와서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나날을 보냈다. 이때서야 사람은 나의 친근함을 조금 느꼈다. 사람과 나의 왕래가 점차 빈번해지면서 사람은 나의 소유와 어떠함을 조금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나를 조금 알게 되었다. 내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고개를 들고 바라보자 사람은 모두 나를 보았다. 하지만 재앙이 인간 세상에 닥치자 사람은 갑자기 긴장감에 휩싸이고, 나의 형상은 그 마음속에서 사라진다. 또한 모든 사람은 ‘재앙’의 도래에 놀라 당황해하며 나의 당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인간 세상에 온 지 오래되었지만, 사람은 계속 알아차리지 못했고, 계속 나를 알지 못했다.

오늘날 내가 친히 사람에게 모든 사람은 내 앞으로 와 내게서 무언가를 얻으라고 알려줬지만, 사람은 여전히 나를 멀리 피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나를 전혀 모른다. 내가 우주 땅끝을 두루 밟을 때 사람은 반성하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은 내 앞에 와서 엎드려 나를 경배할 것이다. 그때가 바로 내가 영광받는 날이요, 내가 돌아오는 날이요, 또한 내가 떠나가는 날이다. 오늘날 나는 전 인류 가운데서 나의 사역을 펼쳤고, 온 우주에서 본격적으로 내 경륜의 마지막 부분을 전개했다. 만약 또다시 경솔하게 구는 자가 있다면 언제든 ‘무자비한 형벌’ 속에 떨어질 것이다. 이는 내가 몰인정해서가 아니라 내 경륜의 단계가 이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계획한 단계에 따라야 하며, 이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내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이 내 움직임에 따라 움직였고, 나아가 전 우주 아래의 사람들까지도 나를 따라 분주했다. 전 우주 위아래는 ‘환희에 물들었고’, 사람은 나에 의해 움직였다. 그래서 큰 붉은 용마저도 나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갈팡질팡하다 나의 사역을 위해 힘쓰고 있다. 마음은 원하지 않으나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어 마지못해 ‘나의 지배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내 모든 계획 속에서 큰 붉은 용은 나의 부각물이 되었고, 나의 ‘원수’가 되었지만, 또 나의 ‘일꾼’이기도 하다. 이에 나는 늘 큰 붉은 용에 대한 ‘요구’를 늦추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 성육신의 사역은 ‘그것의 집’에서 완성한다. 이렇게 하면 큰 붉은 용이 나를 위해 힘쓰게 하는 데 더 유리하며, 이로써 그것을 정복하여 나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다. 내가 사역함과 동시에 모든 천사도 나와 같이 ‘결전’을 벌이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나의 마음을 만족케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땅에 있는 사람이 천사처럼 내 앞으로 돌아와 순종하고, 내게 대적할 마음을 품지 않고, 나를 배반할 활동을 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전 우주 사역의 동태이다.

내가 인간 세상에 온 목적과 의의는 바로 전 인류를 구원하여 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늘과 땅이 더 이상 떨어져 있지 않게 하여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의 ‘신호’를 ‘전달’하게 하는 데 있다. 사람의 기능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이다. 내가 인류를 창조했을 때 사람에게 만물을 다 마련해 주었고, 그 후에 내 요구에 따라 내가 주는 ‘풍요로움’을 얻게 했다. 그러기에 나는 전 인류가 나의 인도에 따라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내 계획이었다. 전 인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사랑의 보호 속에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증오의 형벌 속에 사는지 모른다. 모든 사람이 내게 간구하지만, 여전히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사람은 실망한 후에 어쩔 수 없이 순리를 따르고, 더는 거역하지 않는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인류가 사는 모습을 보면, 사람은 아직도 진정한 인생을 찾지 못했고, 여전히 세상의 불공평함, 쓸쓸함, 처참함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만약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이 계속 대자연을 끌어안고 ‘인생’의 맛을 자세히 음미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인간 세상의 실정이 아니란 말이나? 이것이 내가 사람에게 발하는 구원의 음성이 아니란 말이나? 왜 인류 가운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자는 없었느냐? 왜 항상 형벌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시련 속에서 나를 사랑하면서, 나의 보호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없는 것이냐? 나는

일찍이 여러 차례 인류에게 형벌을 ‘베풀었다’. 하지만 사람은 보기만 할 뿐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때에도 ‘연구하거나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에게 임한 것이 무자비한 심판뿐인 것이다. 이것은 그저 내 사역 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을 변화시켜 나를 사랑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ی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 제 29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6)

나는 하나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우주 아래에서도 왕권을 잡고 있다. 나는 하나님나라의 왕이자 우주의 머리이다. 이제부터 나는 내 다음 단계 사역을 순조롭게 펼치기 위해 선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 ‘이방’에서의 내 사역을 시작하고, 전 우주에 나의 행정을 공개할 것이다. 나는 형벌의 방식으로 이방에서 내 사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즉, ‘무력’으로 모든 이방인을 대할 것이다. 물론 이 사역은 선민 가운데서 하는 나의 사역과 함께 진행된다. 나의 백성이 땅에서 왕권을 잡을 때가 바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복되는 때이자 내가 안식하는 때다. 그때 비로소 나는 정복된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있다. 나는 거룩한 나라에는 나타나고, 더러운 땅에는 모습을 감춘다. 내게 정복되어 내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직접 나의 얼굴을 보고, 직접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는 말세에 태어난 자의 복이자 내가 정한 복으로,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미래의 사역을 위해서다. 내 모든 사역은 전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어떤 사역도 갑자기 중단되거나 ‘독립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다. 그렇지 않느냐? 과거의 사역이 오늘의 토대가 아니겠느냐? 과거의 말씀이 오늘날의 시작이 아니겠느냐? 과거의 단계가 오늘의 기원이 아니겠느냐? 내가 본격적으로 책을 펼칠 때가 바로 온 우주의 사람이 형벌을 받을 때이고, 온 천하의 사람이 시련을 받을 때이며, 내 사역이 절정에 이를 때이다. 이때 모든 사람은 빛이 없는 땅에서 살고, 또 환경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즉, 창세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생활로, 역대 그 누구도 이런 생활을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역사상 유례없는 사역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 상황이고, 함축적인 뜻을 담고 있다. 나의 날이 이미 전 인류에게 다가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눈앞에 있으니 누가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가 이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더러운 바벨론 성은 결국 종말의 날을 맞이했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는 사람과 다시 만났으며 하늘과 땅이 모두 새롭게 변화했다.

내가 만국 만민 앞에 나타날 때 하늘의 흰 구름이 일렁이며 나를 엄호한다. 땅 위의 모든 새가 지저귀며 나를 위해 기쁘게 춤추고 땅의 분위기를 띄운다. 그리하여 땅의 만물은 활력이 넘쳐 더 이상 ‘가라앉지’ 않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살아간다. 내가 운무 속에 있을 때 사람은 나의 얼굴과 나의 두 눈을 어렴풋이 보았는데, 그때 약간 두려움을 느꼈다. 과거에 풍문으로 나에 대한 ‘역사 기록’을 들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 그저 반신반의했다. 내가 대체 어디에 있는지, 얼굴은 얼마나 큰지, 바다처럼 광활한지, 아니면

녹색 초원처럼 한없이 넓은지 아무도 몰랐다. 사람은 오늘날 운무 속에 있는 나의 얼굴을 보고 나서야 말로만 듣던 내가 ‘실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에 대해 약간의 호감을 느꼈다. 또, 내 ‘행적’ 때문에 나에 대해 약간 ‘감탄’했다. 하지만 사람은 구름 사이로 나의 일부를 봤을 뿐 여전히 나를 모른다. 이에 내가 팔을 내밀어 사람에게 보여 주자 사람은 또 놀라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내 손에 죽을까 매우 두려워했다. 그래서 사람은 ‘감탄’에 약간의 ‘경외’를 더했다. 사람은 주의하지 않을 때 나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몹시 두려워 두 눈을 크게 뜨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한다. 하지만 나는 사람의 ‘관찰’에 구속을 받지 않고 계속 내 손에 있는 사역을 하고 있다. 내 모든 행사를 보고 나서야 사람은 내게 약간 호감을 느끼고, 점점 내 앞에 와서 나와 왕래한다. 나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공개할 때 사람은 나의 얼굴을 보게 된다. 그때부터 나는 더는 사람으로부터 숨거나 가리지 않는다. 나는 온 우주 아래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육에 속한 자라면 나의 모든 행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의 집에서 평안하게 살면서 나와 함께 아름다운 복을 누릴 것이다. 내가 돌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형벌에서 벗어나 영적인 고통도, 육적인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만민 가운데 공개적으로 나타나 왕권을 잡음으로써 온 우주 위아래에 시체 냄새가 사라지게 하고, 나의 맑은 향기로 전 세계를 채울 것이다. 나의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두 깨어나고 있고, 땅의 모든 것이 준비를 마쳤으며, 더 이상 땅의 ‘생존’의 날은 없다. 내가 이미 왔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 제 29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7)

나는 내 행사를 하늘 가득히 나타내어 땅의 모든 것이 내 권세 아래 쓰러지게 하고, 나의 ‘세계 통일’ 계획을 실현할 것이다. 나는 이 염원을 이루어 사람이 땅에서 더는 이리저리 ‘유랑’하지 않고 하루빨리 적합한 종착지가 있게 할 것이다. 나는 모든 면에서 인류를 생각하고 있다. 전 인류가 하루빨리 평온하고 행복한 땅에서 생활하도록, 전 인류의 삶이 더 이상 처량하지 않도록, 또한 이 땅에서 내 계획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도록 말이다. 사람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땅에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땅은 내 영광이 나타나는 곳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늘 위에서는 나의 성을 정비하여 하늘 위아래를 새롭게 탈바꿈시킬 것이다. 나는 하늘 위아래의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 땅의 만물을 하늘의 모든 것과 연결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자 마지막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일이다. 나의 이 사역에 그 누구도 끼어들지 말라! 이방에서 하는 나의 사역을 확장하는 것은 내가 땅에서 하는 마지막 사역이다. 아무도 내가 하려는 일을 짐작하지 못하므로 사람은 미망에 빠졌다. 내가 땅에서 하는 사역이 바쁘다 보니 사람은 기회를 틈타 ‘장난치기’ 시작한다. 사람이 기회를 틈타 제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나는 먼저 사람을 내 형벌 속에 두어 불 못의 ‘훈련’을 받게 한다. 이것은 내 사역의 순서이다. 나는 불 못의 ‘세력’을 빌려 이 단계의 사역을 이룰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사역을 전개하기 힘들다. 나는 전 우주의 사람이 내 보좌 앞에

돌아와 복종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심판을 통해 유형을 나누고, 그 유형을 통해 각기 부류대로 나누고, 이로써 자기 족속에 귀속시켜 모든 사람이 다시는 나를 거역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말한 유형의 이름대로 가지런히 정렬할 것이니 아무도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한다! 나는 전 우주 위아래서 새로운 일을 했다. 전 우주 위아래의 사람은 나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눈이 휘둥그레졌고, 내가 공개적으로 나타남으로 인해 시야가 트였다. 오늘날이 바로 이렇지 않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 제 43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8)

나는 이방에서 사역을 확장하고, 전 우주 아래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 나의 뜻은 별처럼 점점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깃들여 있으며, 모두가 나의 지배에 따라 내가 나누어 준 일들을 하고 있다. 이때부터 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 모든 사람을 또 다른 세계로 인도했다.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뒤 내 원래 계획 중 다른 한 부분의 사역을 시작해 사람이 나를 더 깊이 알게 했다. 우주 전체의 모습을 바라보니 마침 내가 사역하기 좋은 때이기에 나는 분주히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나의 새로운 사역을 행했다. 새로운 시대가 왔으므로 나는 새로운 사역을 가져와 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시대로 인도했으며, 내가 도태시키고자 하는 더 많은 사람을 버렸다. 큰 붉은 용 국가에서 나는 예측하기 어려운 한 단계 사역을 하였다. 따라서 사람은 바람 속에서 흔들리다가 그 바람에 따라 소리 없이 날려 갔다. 이것이 내가 하는 ‘키질’이며, 내가 바라는 바이자 나의 계획이기도 하다. 내가 사역을 하는 동안 어느새 ‘악한 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서둘러 내쫓지 않고 적당한 때에 흩어지게 한다. 그때부터 나는 비로소 생명의 기원이 되었으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게서 무화과 열매와 백합의 향기를 얻는다. 사탄이 사는 땅, 먼지에 속하는 땅에는 순금이 남아 있지 않고 오직 모래뿐이기에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이와 같은 사역을 했다. 너희는 내가 얻으려는 것은 제련된 순금이지, 모래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악한 자가 어찌 내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 여우가 나의 낙원에 기생하는 것을 내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나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것들을 쫓아내지만, 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모른다. 내가 이 기회에 그 악한 자들을 쫓아내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나를 떠나가야 한다. 이것이 악한 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이 내게 봉사할 날이 올 것이다. 사람은 복을 얻으려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는 몸을 돌려 영광의 얼굴을 ‘이방인’에게 나타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세계에서 살면서 스스로 심판하게 하는 한편, 나는 내가 해야 할 말을 하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사람이 모두 깨달았을 때, 나는 이미 나의 사역을 확장한 뒤였다. 나는 사람에게 내 뜻을 나타내고 사람에게 나의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함으로써

사람이 나를 바짝 따르고 나의 사역에 협력하며, 온 힘을 다해 내가 해야 할 사역을 함께 하게 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일곱 우레가 크게 울리다—하나님나라의 복음이 전 우주로 퍼져 나갈 것을 예언하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9)

사람에게 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나 역시 강요하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있는 나의 영광을 다른 세계로 옮겨 간다. 그러다가 모든 사람이 또 후회하면 ‘믿음’에 속한 더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보여 준다. 이것이 나의 사역 원칙이다. 영광은 가나안을 떠날 때도 있고 선민을 떠날 때도 있으며, 더욱이 온 땅을 떠날 때도 있다. 따라서 온 땅이 어두워져 빛을 잃고, 암흑으로 뒤덮여 가나안 땅에조차 태양이 비추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믿음을 잃는다. 하지만 모두들 가나안 땅의 향기에 미련이 남아 떠나지 못한다. 내가 새로운 하늘땅에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또 한 부분의 영광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칠혹같이 어두운 온 땅에 한 줄기 빛이 나타나고 온 땅이 그 빛을 따르게 된다. 나는 온 땅의 사람으로 하여금 빛의 위력에 힘을 얻게 하고, 나의 영광이 더해지게 할 것이며, 내 영광이 다시 열방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미 인간 세상에 왔고, 이미 이스라엘에서의 내 영광을 동방으로 가져왔음을 알게 할 것이다. 나의 영광이 동방에서 나왔고, 은혜시대에서 오늘날로 옮겨져 왔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떠났고 또 이스라엘에서 동방으로 왔다. 동방의 빛이 점점 밝아 올 때 어두웠던 온 땅이 조금씩 밝아지면 사람은 그제야 내가 이스라엘이 아닌 동방에서 새롭게 떠올랐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강림’했다가 이스라엘을 떠난 내가 또다시 이스라엘에 ‘강생’할 수는 없다. 나의 사역은 전 우주를 이끌어 가는 것이고, 번개는 동방에서 나서 서방까지 번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동방에 강림하였고, 동방의 백성에게 가나안을 가져다주었다. 나는 온 땅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음성을 발하고 전 우주를 통제할 것이다. 이때 가나안을 제외한 온 땅은 광명이 없고, 사람은 모두 굶주림과 추위에 위협받을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영광을 주었다가 거두어 갔다. 또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사람을 동방으로 데려왔으며, 모두에게 ‘빛’을 주어 다시 빛을 만나고, 빛과 사귀고, 더 이상 빛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했다. 나는 찾고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빛을 보게 하고 이스라엘에서의 내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또 내가 일찍이 흰 구름을 타고 사람들 가운데 왔음을 보게 하고, 뭉게뭉게 떠 있는 흰 구름과 주렁주렁 달려 있는 열매를 보게 할 것이며, 나아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 유대인의 ‘선생’과 사람이 간절히 바라 왔던 메시아를 보게 하고, 역대 왕들에게 핍박받았던 나의 전모도 보게 할 것이다. 나는 전 우주의 사역을 행하고,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 나의 모든 영광과 모든 행사를 말세의 사람에게 보여 줄 것이다. 또 내 모든 영광의 얼굴을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 온 사람들, 내가 흰 구름 타고 오기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내가 다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과 나를 핍박하고 있는 전

인류에게 보여 줄 것이다. 그로써 내가 이미 영광을 동방으로 옮겨 왔으며, 유대에는 더 이상 영광이 남아 있지 않음을 알게 할 것이다. 말세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이다!

나는 우주 전체에서 나의 사역을 하고 있다. 동방에서 끊임없이 우레 같은 음성을 발하여 각 나라와 교파를 뒤흔들었으며, 나의 음성으로 사람을 오늘까지 이끌어 왔다. 나는 사람을 나의 음성으로 정복하여 모두를 이 흐름 속으로 빠지게 하며, 내 앞에 복종시킨다. 이는 내가 이미 온 땅에서 영광을 거두어 동방에서 새롭게 비추었기 때문이다. 누군들 내 영광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누군들 내가 돌아오기를 갈망하지 않겠느냐? 누군들 내가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누군들 나의 사랑스러움을 그리워하지 않겠느냐? 누군들 빛을 따라오지 않겠느냐? 누군들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보지 않겠느냐? 또 누군들 ‘구속주’가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누군들 위대한 능력자를 흠모하지 않겠느냐? 나의 음성은 온 땅에 전해질 것이다. 나는 선민을 향해 더 많은 음성을 발할 것인데, 큰 우레처럼 산천을 뒤흔들 것이다. 나는 온 우주와 인류를 향해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진귀한 보물로 귀히 여긴다. 번개가 동방에서 서방까지 번쩍인 것이다. 사람들은 나의 말을 떠나기 아쉬워하고 측량하기 어려워하며, 또한 나의 말로 인해 기뻐한다. 모두 갓난아기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돌아온 것을 경축한다. 나는 음성을 발해 모든 사람을 내 앞으로 이끌어 올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본격적으로 인류 가운데 들어가 모든 사람이 내게 와서 예배하게 할 것이다. 나는 영광을 비춤으로써, 또 입으로 말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오게 하여, 번개가 동방에서 나타났고 또한 내가 동방의 ‘감람산’에 강림했고 땅에 왔음을, 나는 더 이상 ‘유대의 아들’이 아니라 동방의 번개임을 보여 줄 것이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부활하여 사람을 떠났다가 다시 영광을 지니고 인간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는 만세 전에 사람들이 경배했던 자이고, 만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렸던 ‘아기’이며, 더욱이 영광으로 충만한 이 시대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을 나의 보좌 앞으로 데려와 내 영광의 얼굴과 내 행사를 보여 주고, 내 음성을 들려줄 것이다. 이는 내 뜻의 전부이자 내 계획의 마지막이고 절정이며, 내 경영의 근본 취지이다. 바로 모든 나라가 예배하게 하고, 모든 입이 인정하게 하며, 만민이 신뢰하게 하고, 만민이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일곱 우레가 크게 울리다— 하나님나라의 복음이 전 우주로 퍼져 나갈 것을 예언하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70)

수천 년 동안, 사람은 줄곧 구세주의 강림을 보기를 소망해 왔다. 구주 예수가 수천 년 동안 그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 왔던 사람들 가운데 흰 구름을 타고 친히 강림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해 온 것이다. 사람은 또한 구세주가 돌아와 사람들과 재회하기를 소망했다. 바로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을 떠난 구주 예수가 다시 돌아와 유대인 가운데서 했던 구속 사역을 또 행하면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사람의 죄를 사해 주고 대신 짊어지며,

심지어 사람의 모든 과오를 대신 짊어지고 죄에서 구원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구주 예수가 한결같이 사랑스럽고 친절하며 존경스러운 구세주가 되어 사람에게 노하지도 않고 사람을 책망하지도 않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대신 짊어지며 심지어 사람을 위해 예전처럼 십자가에서 죽기를 소망했다. 예수가 떠난 후,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물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까지 그를 그렇게 간절히 그리워하고 갈망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시대의 모든 사람은 구주 예수가 기쁨이 넘치는 말세의 어느 날에 흰 구름을 타고 사람들 가운데 강림하여 만민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했다. 물론, 이 또한 오늘날에 구주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소망하는 바이다. 온 우주에서 구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홀연히 강림하여 그가 세상에 있을 때 했던 “나는 떠난 그대로 다시 돌아오리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후 흰 구름을 타고 하늘 위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으로 돌아간 것처럼, 여전히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유대인의 옷을 입은 채 흰 구름(흰 구름은 예수가 하늘로 돌아갈 때 탄 흰 구름을 가리킴)을 타고 수천 년간 그를 애타게 기다려 온 인류 가운데 강림할 것이라고 여긴다. 또한, 그들에게 나타나 양식을 베풀어 주고 생수가 솟게 하며, 은혜와 자비로 충만한 예수가 사람들 눈앞에서 생생하게 생활할 것이라고 여긴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관념적 생각이다. 하지만 구주 예수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관념과 완전히 상반되게 하였다. 그는 자신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강림하지 않았고, 흰 구름을 타고 만민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가 이미 강림했지만, 사람은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강림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하염없이 그를 기다리고만 있다. 그가 이미 ‘흰 구름’(여기서 흰 구름은 그의 영광과 그의 말씀, 그리고 그의 모든 성품과 어떠함을 가리킴)을 타고 말세에 온전케 하려는 이기는 자들 가운데 강림한 것을 어찌 모르는 것이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비로 가득한 거룩한 구주 예수라 하더라도, 더럽기 그지없고 더러운 귀신들이 때를 지어 사는 그런 ‘성전’ 안에서는 사역할 수 없음을 사람들이 어찌 알겠느냐? 사람이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가 어찌 또 불의한 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불의한 자의 옷을 입고 또 그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를 알지 못하고 계속 그에게서 받아 내려는 자들 앞에 나타날 수 있겠느냐? 사람은 구주 예수가 자비와 공화로 충만하고 속량으로 가득한 속죄 제물이라는 것만 알 뿐, 그가 공의와 위엄, 진노, 심판을 가득 지닌, 권병이 있는 존엄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은 모른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속주가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간절히 바라며 심지어 사람의 기도가 ‘하늘’을 감동시켰을지라도, 구주 예수는 자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구주’는 이미 ‘흰 구름’을 타고 돌아왔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71)

하나님의 6 천년 경륜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하나님나라의 문은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찾는 모든 이를 향해 열려 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너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자취를 찾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타남은 얼마나 바라고 바라던 일인가! 하나님의 자취는 또 얼마나 찾기 어려운가!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날을 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는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다. 아마 너희들은 이 문제에 관해 수차례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겠는가? 하나님의 자취는 어디에 있는가? 너희는 그 답을 찾았는가? 아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자취는 바로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틀에 박힌 대답이야 누구든 할 수 있다. 하지만 너희들은 무엇을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고, 또 무엇을 하나님의 자취라고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와 사역하는 것을 뜻한다. 즉, 그만의 신분으로, 그만의 성품으로, 그리고 그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사람들 가운데에 강림하여 시대를 열고 시대를 끝내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떠한 의식도, 징조도 아니요, 한 폭의 그림이나 이적, 큰 이상(異象)도 아니며, 종교적 과정은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은 누구나 만질 수 있고 목격할 수 있는 실제 사실이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단기간의 사역을 위한 것도 아니며, 그의 경륜의 한 단계 사역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다 의의가 있고, 그의 경륜과 관계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타나는 것’이란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고 이끌고 깨우칠 때 ‘나타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은 매번 나타날 때마다 큰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은 그 어떤 시대에 했던 사역과도 다르다. 그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체험해 본 적도 없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기존의 시대를 끝내는 사역이며, 인류를 구원하는, 더 새롭고 높은 한 단계 사역이자 인류를 새 시대로 인도하는 사역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의 의의이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취는 어떻게 찾아야 하겠는가? 사실 이 문제를 설명하기란 어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자취가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설명은 듣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정작 해 보려면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날지 모르며,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려 하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야 하는지는 더더욱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충동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혹은 영적인 인물이 있는 곳이나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의 옳고 그름에 관한 논의는 잠시 접어 두자.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취를 찾으려는 것이지 영적 인물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며, 유명 인사를 따르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르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취를 찾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새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자취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행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곳에 진리, 길,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취를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을 간과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진리를 얻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취를 찾았다 생각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타난 것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 얼마나 심각한 실수인가! 하나님이 사람의 관념대로 나타날 리도 없고, 사람의 요구에 따라 나타날 리는 더더욱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과 계획, 그리고 자신의 목표와 방식에 따라 사역을 한다. 그는 어떤 사역을 하든 사람과 의논할 필요가 없고, 사람의 의견을 구할 필요도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알릴 필요는 더더욱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바이다.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르고자 한다면 먼저 스스로의 관념에서 빠져나와야 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지나치게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하나님을 너의 범주 안에 한정하거나 너의 관념 속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대신 하나님의 자취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사람은 모두 진리가 아니며 또 진리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찾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뿐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나타남으로 새 시대가 열렸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72)

네가 미국인이든, 영국인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자신의 국적에서 벗어나고 자아를 초월하여 피조물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취를 특정한 범주에 한정 짓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관념적으로 하나님은 특정 국가나 민족에게 나타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의 깊은 의의와 하나님의 나타남이 갖는 중요성을 사람의 관념과 사유로 어찌 가늠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에 너에게 국적과 민족의 관념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나타남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타남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어둠 속에 있을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 그는 어떤 국가나 민족의 사유 재산이 된 적이 없으며, 어떠한 형식이나 국가, 민족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가 계획한 사역을 한다. 어쩌면 그 형식은 네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또, 너는 이 형식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국가와 민족이 사람들에게

떨시받는, 지구상에서 가장 낙후된 국가와 민족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의 지혜가 있다. 그는 그의 큰 능력으로, 그리고 그의 진리와 성품으로 그와 한마음 한뜻인 사람들을 얻었으며,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고 핍박받으면서도 그를 끝까지 따르는, 그가 온전케 하려는 정복된 사람들을 얻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특정 형식이나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 것은 그가 계획해 놓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이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유대에서 성육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리 없고, 예수의 형상으로 성육신할 리 없다고 여겼다. 그들의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정죄하고 대적하는 근거가 되어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제멋대로 떠들어 대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정죄한다. 그들은 ‘그럴 리 없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나타남을 또 한 번 자신의 상상 속에 한정 지었다. 그리하여 나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는 미친 듯이 웃어 대는 것을 보았다. 그 ‘웃음’이 바로 유대인들의 정죄나 모독과 같은 것 아니겠는가? 너희는 진리 앞에서 경건하지 않으며,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는다. 그저 덮어놓고 연구하며 무심히 기다릴 뿐이다. 그러한 연구와 기다림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조차 분별하지 못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겠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에 진리가 선포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볼 자격이 있다. 너의 고정 관념을 내려놓아라! 마음을 평온히 하고 이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 보아라.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네가 그의 뜻을 깨닫고 그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깨우쳐 줄 것이다. ‘그럴 리 없다’는 논리를 내려놓아라!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더 가능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며,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사유와 고정 관념의 범위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불가능한 일일수록 찾아야 할 진리가 있는 법이고, 사람의 고정 관념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일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법이다.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든 하나님이며, 나타나는 지역이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본질이 바뀌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취가 어디에 있든 그의 성품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자취가 어디에 있든 그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 예수가 이스라엘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아·유럽·미주 사람들의 하나님이자, 우주 위아래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인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나타났음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르라! 하나님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그의 말씀과 나타남은 공존하며, 그의 성품과 자취는 언제나 인류에게 공개되어 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나는 너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음을 보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 새 시대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그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놓은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를 바란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73)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고 우리 앞에 나타난 적도 없지만, 그의 사역은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모든 땅을 감찰하고, 만유를 주관하며, 사람의 모든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는 계획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의 경영을 펼치고 계셨다. 아주 조용히 그리고 세상을 놀라게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류에게 다가와 손쓸 틈도 없이 빠르게 우주에 그의 심판대를 세웠고, 곧이어 그의 보좌 또한 우리들 가운데 임하였다. 이 얼마나 위엄 있는 장면인가! 또 얼마나 장엄한 광경인가! 그 영은 비둘기같이, 또 포효하는 사자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다. 그는 지혜요, 공의요, 위엄이며, 권병을 지니고 자비와 긍휼을 가득 안고 조용히 우리들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의 강림을 알아차린 사람도, 맞이한 사람도 없었으며, 그가 장차 할 모든 일을 아는 이는 더더욱 없었다. 사람의 삶은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사람은 평소와 똑같은 마음을 지니고 평소와 똑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하나님 또한 따르는 자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 평범한 신자로, 보통 사람처럼 우리들 가운데서 생활하셨다. 그에게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목표가 있었으며, 일반인에게는 없는 신성이 있었다. 아무도 그의 신성을 알아채지 못했고, 아무도 그의 본질이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지내면서 그 어떤 구속도, 두려움도 느끼지 못했다. 우리 눈에 그는 그저 보잘것없는 신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그의 눈에 보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한 그의 앞에 남김없이 드러났다. 아무도 그의 존재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아무도 그가 하는 기능에 대해 상상하지 않았으며, 또 아무도 그의 신분에 어떤 의구심조차 품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좇는 바를 계속할 뿐이었다. 마치 그와는 어떤 관계도 없는 듯이....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성령이 그를 ‘통해’ 한 편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갑작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했으며, 기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였다. 그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든,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거절하지 말고 모두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었다. 다음의 음성은 나를 통해서, 혹은 너를 통해서, 그것도 아니면 그를 통해서 선포될 수도 있지만 누가 되었든 모두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다. 하지만 그게 누구든 우리는 그 사람을 우러러보아서는 안 된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일 리가 없으며, 우리 또한 절대로 그렇게 평범한 사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택할 리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귀하신데, 어찌 보잘것없는 사람이 대신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이토록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임무를 담당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분명 흰 구름을 타고 만민에게

보여 주실 것이니,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런데 주님이 어찌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조용히 숨어 계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조용히 숨어 계시는 그 평범한 사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새 사역을 하고 계셨다. 그는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지도, 자신이 온 이유를 확실히 말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그의 계획과 단계에 따라 그가 하려는 사역을 하실 뿐이었다. 그의 말씨는 갈수록 잦아졌다. 위로, 권면, 일깨움, 경고에서 책망과 징계에 이르기까지, 부드럽고 온화한 말투에서 격하고 위엄 있는 말투에 이르기까지 모두 갑절로 공황을 느낄 수 있었고 또한 두려움에 가슴이 떨리기도 했다. 그의 말씨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전부 꿰뚫었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찢어 아파게 했으며,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게 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는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만 들림 받을 수 있는 걸까?’라고 마음속으로 따져 보았다. 훗날의 종착지와 미래의 운명 등을 위해서 말이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이 이미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사역하고 계신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가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였고,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평범한 사람을 장차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그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앞날과 운명을 맡기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았다. 우리는 그에게서 끊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예수의 은총에만 감사할 뿐, 신성을 지닌 이 평범한 사람이 느낄 심정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는 인류의 저버림을 느끼지 못하는 듯, 사람의 미숙함과 무지함을 언제까지나 용서할 수 있는 듯, 그에 대한 사람의 무례한 태도를 영원히 받아 줄 수 있는 듯, 여전히 자신을 낮추고 감추어 육신에 거하면서 사역을 하고 마음의 소리를 선포하셨다.

우리는 어느새 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이끌려 하나님 사역의 절차 속으로 한 단계씩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채찍질, 그리고 죽음의 시험을 겪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위엄 있는 성품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황을 누렸으며,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과 지혜를 깨달았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도 보았다. 우리는 이 평범한 사람의 말씨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며, 또한 사람의 본성과 본질도 알았고, 구원받고 온전케 되는 길을 보았다. 그의 말씨는 우리를 ‘죽게’ 하는 동시에 ‘부활’시켰고, 우리를 위로하는 동시에 가책과 죄책감을 배로 느끼게 했으며,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끝없는 고통을 안겨 주기도 했다. 우리는 때로 그의 손안에 있는 어린양마냥 그의 뜻대로 처분되었고, 때로는 그의 눈동자처럼 그의 사랑을 받았으며, 또 때로는 그의 원수처럼 그의 눈앞에서 그의 분노에 의해 찢터미로 변했다. 우리는 그가 구원하는 인류이고, 그의 눈에 구더기로 보이는 존재이자, 또 그가 주야장천으로 찾는 길 잃은 양이었다. 그는 우리를 공황히 여기고,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를 들어 세우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깨우치셨다. 또 그는 우리를 징계하거나 책망하고, 심지어 우리를 저주하기도 하셨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걱정하고 돌보고 지켜 주었으며,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모든 대가를 쏟아부으셨다. 우리는 이 작고 평범한 육신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종착지도 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영심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방해하여 우리는 이 사람을 선뜻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가 우리에게 수많은 만나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가져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 ‘주님의 지위’는 그런 것들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이 사람의 특별한 신분과 지위를 존중했다. 그가 직접 입을 열어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말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그가 바로 장차 오실 하나님, 그러나 또한 오래전부터 우리들 가운데서 사역하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다양한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깨우치고, 마음의 소리를 전하셨다. 생명력을 가진 그의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를 주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깨닫게 하였다. 우리는 그의 말씀에 끌리기 시작했고, 그 말씀의 어조와 말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자신도 모르게 그 보잘것없는 사람의 마음의 소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심혈을 쏟아부었고, 우리 때문에 침식을 잊었으며, 우리 때문에 울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셨다. 또한 우리를 위해 병으로 신음하고, 우리의 종착지와 구원을 위해 굴욕을 견뎌왔으며, 또 우리의 무감각과 패역 때문에 마음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셨다. 이러한 소유와 어떠함은 평범한 사람에게 없는 것이자, 패괴된 사람은 절대 갖출 수도, 이를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는 평범한 사람에게 없는 관용과 인내심을 지니고 있었고, 그의 사랑은 그 어떤 피조물도 갖지 못한 것이었다. 그 말고는 어떤 이도 우리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어떤 이도 우리의 본성과 본질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지 못하며, 어떤 이도 인류의 패역과 패괴를 심판하지 못하고, 어떤 이도 하늘의 하나님을 대표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거나 사역할 수 없었다. 또한, 그 말고는 어떤 이도 하나님의 권병과 지혜와 존엄을 갖추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은 그에게서 남김없이 발현되었다. 그 말고는 어떤 이도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거나 빛을 가져다줄 수 없었다. 그 말고는 어떤 이도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공개하지 않은 비밀을 밝힐 수 없었고, 그 말고는 어떤 이도 우리를 사탄의 속박과 패괴 성품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할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대표한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와 하나님의 당부,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기원을 열었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사역을 가져왔으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미망 속에서 보내던 우리의 삶을 끝내셨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히 보게 하였고, 우리를 정복했으며, 우리의 마음을 얻으셨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각이 생겼고, 우리의 영도 소생한 듯했다. ‘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들 가운데서 살면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예수가 아닌가? 이분!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분이 바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시다! 이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광명을 보게 했으며, 우리의 마음이 더는 방랑하지 않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았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그에게 완전히 정복되었고, 더 이상 그의 신분을 의심하지도, 그의 사역과 말씀에 맞서지도 않았다. 우리는 그의 앞에 오롯이 엎드려 이생에 하나님의 발자취만 따르리라 다짐하였고, 그에게 온전케 되고 그의 은총과 사랑에 보답하기만을 바라게 되었다. 또한 그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고 그의 사역에 협력하며, 온 힘을 다해 그가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만을 바라게 되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74)

‘하나님’과 ‘사람’은 동일 선상에서 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가장 측량하기 어렵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지도 말씀하지도 않는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사역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헛수고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간파’했다는 사람들은 다 무능한 자, 교만하고 무지한 자라고 말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규정해서는 안 되며, 더군다나 규정할 수도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실로 개미보다 작은 존재거늘 어찌 하나님의 사역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입만 열면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사역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러저러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허황된 말을 늘어놓는 자 아니겠느냐? 육에 속한 사람은 전부 사탄에 의해 패괴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과 대등해질 수 없고, 더욱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계책을 낼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할 일이다. 사람은 마땅히 순종해야지, 이런저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람은 그저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이상, 자신의 관념을 하나님이 사역하는 데 참고해 달라며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자신의 패괴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의도적으로 극력 대적하는 것은 더 안 될 일이다. 이런 사람은 적그리스도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논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이상,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 이상, 진리의 도를 찾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길을 찾아야지, 목을 뺏뺏이 하고 하나님과 대립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느냐?

오늘날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을 했다. 너는 이 말을 못 받아들일 수도, 신기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일단 너의 천연적인 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만이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진정으로 경건한 자만이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구하는 데에 있어 언쟁을 벌인다고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음을 차분히 하고 구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내가 “오늘날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역을 했다”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온 이 일을 가리킨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말을 아주 싫어할 수도 있고, 이 말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어쨌든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타남을 갈망하는 사람 모두가 이 사실을 마주하고, 또한 신중하게 알아보기를 바란다. 가장 좋은 것은 경솔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일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우리 각 사람이 먼저 알아야 할 진리는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한 이상 해야 할 사역을 가져오고,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낼 것이며, 성육신한 이상 사람에게 진리를 가져다주고, 생명을 베풀고, 길을 가리켜 줄 수 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갖추지 않은 육신이라면 분명히 성육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맞는지 알아보려면 그가 나타내는 성품과 말씀으로 확인해야 한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맞는지, 혹은 참도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그의 본질로 판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인지 아닌지의 핵심은 그 본질(사역, 말씀, 성품 등 훨씬 다양한 측면)에 있지, 겉모습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겉모습을 살피느라 그 본질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무지몽매한 것이다. 겉모습은 본질을 결정할 수 없다. 더구나 하나님이 한 사역이 사람의 관념에 부합할 리도 없다. 예수의 겉모습이 바로 사람의 관념에 어긋나는 모습 아니더냐? 예수의 용모와 차림새는 예수의 진짜 신분을 설명할 수 없지 않더냐? 당시 바리새인이 예수를 대적한 것도 예수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의 겉모습만 봤기 때문 아니더냐? 나는 하나님의 나타남을 찾는 모든 형제자매가 역사적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현대의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하나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어떻게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지 정신 차리고 고민해 보길 바란다. 이는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모든 사람의 책무다. 우리는 뜬구름 잡는 허황된 말에 빠지지 말고 영의 눈을 밝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실적인 사역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면을 봐야 한다. 늘 모든 것을 잊고 온종일 봉 뜬 채, 하늘의 흰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예수가 갑자기 너희 가운데로 내려와 이제껏 그를 안 적도 만나 본 적도 없고, 그의 뜻대로 행할 줄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가 주길 바라서는 안 된다. 좀 더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거라!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75)

너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대적한 근본 원인을 알고 싶으냐? 바리새인의 본질을 알고 싶으냐?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만 믿었을 뿐 생명 진리는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의 도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리석고 완고하고 무지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메시아를 볼 수 있겠느냐? 그들이 예수를 대적한 이유는 성령 역사의 방향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가 말한 진리의 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더욱이 메시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메시아를 본 적도, 메시아와 함께 지낸 적도 없기에 메시아란 이름만을 헛되이 지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메시아의 본질을 대적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그 바리새인들의 본질은 완고하고, 교만하며,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그들의 원칙은 ‘당신이 전하는 도가 아무리 대단하고, 당신의 권병이 아무리 크다 해도, 메시아로 불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너무나 황당하고 엉터리 같은 관점 아니냐? 다시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는 예수를 털끝만큼도 알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도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을 너무도 쉽게 저지르지 않겠느냐? 너는 진리의 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느냐? 정말 너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을 것이라 보증할 수 있느냐? 너는 성령의 역사를 따를 줄 아느냐? 네가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적할지 않을지 모른다면, 나는 네가 이미 죽음의 벼랑 끝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예수를 대적하고, 저버리고, 비방하는 짓을 저지를 수 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예수를 저버리고 모욕할 수 있으며, 심지어 예수의 재림을 사탄의 미혹으로 여길 수도 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은 육신으로 다시 돌아온 예수를 정죄할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두렵지 않느냐? 너희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한 말씀을 훼손하고, 예수가 선포한 말씀을 경멸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너희가 이처럼 미망에 빠져 있는데 예수에게서 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처럼 고집부리며 깨닫지 못하는데 어찌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육신으로 돌아오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가 ‘흰 뭉게구름’을 타고 강림하기만을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분명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며, 분명 멸망할 부류이다. 너희는 오로지 예수에게서 오는 은혜를 받고 천국의 복을 누릴 생각만 할 뿐, 예수가 하는 말씀을 한 번도 청종한 적이 없다. 또 예수가 육신으로 다시 돌아와 선포한 진리도 받아들이는 적이 없다. 너희는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온 이 사실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죄짓기를 반복하고 입술로 죄를 자복하는 너희의 성심이나? 너희는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온 예수께 무엇을 제물로 바치겠느냐? 너희가 자신을 높이면서 오랫동안 사역한 자산이나? 너희는 무엇으로 재림한 예수가 너희를 신임하도록 하겠느냐? 어떤 진리에도 순종하지 않는 너희의 그 교만한 본성이나?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76)

너희들의 충성은 입술에만 머물고, 너희들의 삶은 머릿속 관념에만 머물며, 너희들의 수고는 하늘나라의 복을 위한 것이다. 그럼 너희의 믿음은 또 어떠하냐? 지금까지도 너희는 이 진리들을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 또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어떻게 성령 역사에 진입하는지,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미혹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 중 한 마디라도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정죄하기만 한다. 너의 겸손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순종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충성은 또 어디에 있느냐? 진리를 찾는 너의 태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분명 멸망될 부류이며, 육신으로 돌아온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분명 지옥의 자손, 천사장의 후손, 영원히 멸망될 부류이다. 어찌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따르는, 이른바 성도라고 하는 모든 이에게 말해 주겠다. 흰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강림하는 예수를 너희 육안으로 직접 보게 될 때는 공의로운 해가 공개적으로 나타난 때이다. 그때 네 마음은 몹시 흥분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알고 있느냐? 예수가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을 보게 될 때는 네가 지옥으로 떨어져 징벌을 받아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끝났다고 선고될 때이며, 하나님이 상선벌악(賞善罰惡)할 때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이적을 보기 전 진리만 선포되었을 때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이적을 좇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여 정결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창조주의 품속에 안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흰 구름을 탄 예수가 아니라면 거짓 그리스도이다’라는 신념을 고집하는 자들은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적을 행하는 예수만을 믿고,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고 생명의 참도를 전하는 예수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가 공개적으로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올 때 그들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그들은 너무나 완고하고 너무나 교만하며 자신을 과신하는데, 그런 인간 말종들이 어찌 예수에게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의 재림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구원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정죄받는 기호가 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의 길을 택해야 한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진리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말고,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에게 충고하겠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나님을 믿는 길을 가고 함부로 단정짓지 마라. 또한 제멋대로 건성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리를 듣고 코웃음 치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고, 진리를 듣고도 멋대로 단정짓거나 정죄하는 자들은 다 교만한 자들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른 이를 저주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다. 너희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리의 도를 듣고 생명의 말씀을 본 후, 그 말씀 중에서 단 만분의 일이라도 너의 생각과 일치하고 성경과 일치한다고 여겨진다면, 너는 그 만분의 일에 해당하는 말씀에서 계속 찾고 구하여라. 나는 또 네게 자신을 과신하거나 높이 여기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을 권한다. 미약하게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의 마음에 더 큰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고 자꾸 생각해 보면, 너는 이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과연 진리가 맞는지, 생명이 맞는지 알게 될 것이다. 혹자는 몇 마디 보지도 않고 “이것은 성령의 깨우침에 불과해.”라고 하거나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는 거야.”라며 맹목적으로 정죄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 자는 그야말로 너무나 무지하다! 너는 하나님의 사역과 지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지극히 적다. 그러니 나는 너에게 다시 시작할 것을 권한다! 너희는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맹목적으로 정죄해서는 안 되고, 미혹될 것이 두려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느냐? 여러 번 살펴보고도 이런 말씀이 진리도 길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포가 아니라고 여긴다면, 너는 결국 징벌받을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진리를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였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잘 생각해 보아라! 경솔하게 굴지도, 덤병대지도 말라. 하나님 믿는 일을 아이들 장난으로 여기지도 말라. 자신의 종착지와 앞날, 자신의 생명을 생각해야지, 스스로를 우롱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 말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네가 예수의 영체를 볼 때는 하나님이 이미 하늘과 땅을 새롭게 바꾼 후이다> 중에서

제 3 절 말세 심판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77)

사람이 속량받기 전에 이미 사탄의 많은 독소가 사람 안에 심어져 있었다. 사람은 수천 년 동안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고, 내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것은 그저 속량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비싼 값을 치르고 사람을 사 온 것이다. 하지만 사람 내면에 있는 독성은 제거되지 않았다. 이렇게 더러운 사람은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을 섬길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심판하고 형벌하는 이번 단계의 사역으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더럽고 패괴된 본질을 완전히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자격이 주어진다. 오늘날 행하는 이 모든 사역은 사람을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말씀의 심판과 형벌, 연단으로 패괴를 벗겨 정결케 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정결케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편이 낫다. 사실 이번 단계 사역은 정복 사역이자 두 번째 구원 사역이다. 사람은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통해 하나님께 얻어지는데, 이는 말씀으로 연단하고 심판하고 들춰내며, 사람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 관념, 속셈 또는 개인적인 소망을 모두 드러내는 것이다. 사람은 속량되어 죄 사함을 받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과오를 문제 삼지 않고 사람을 과오에 따라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하지만 사람이 육으로 살며 죄를 떨쳐 버리지 못하면 계속 죄를 짓고 사탄의 패괴 성품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사함을 받는 사람의 삶이다. 많은 사람이 낮에는 죄를 짓고 밤에는 죄를 자복한다. 이러면 속죄 제물이 사람에게 영원히 유효할지라도 사람을 죄악에서 구원할 수는 없다. 이는 구원 사역을 반만 완성한 것에 불과하다. 사람에게 여전히 패괴 성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신이 모압의 후손임을 알게 되었을 때 원망했고, 생명을 추구하지도 않았으며, 완전히 소극적으로 변했다. 이는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권세에 완전히 순종하지는 못한다는 뜻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사탄의 패괴 성품 아니겠느냐? 너는 형벌받지 않았을 때 누구보다 높이 손을 들었다. 심지어 예수보다도 더 높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기(知己)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죽을지언정 사탄에게 굴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탄을 내치겠습니다! 큰 붉은 용을 저버리겠습니다! 큰 붉은 용을 철저히 무너뜨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케 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크게 외쳤지만 결국 형벌 시대가 오자, 사람의 패괴 성품은 또 드러났다. 사람은 외치지도 않았고 의지도 없어졌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패괴로, 죄보다 더 깊고, 사탄이 사람 안에 심어 놓은,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들이다. 사람의 죄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는 본성을 사람은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말씀의 심판을 통해 성과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이 그때부터 차츰 변화될 수 있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78)

‘심판’이라는 말을 언급하면, 너는 여호와가 만방에 알린 말씀이 떠오르고, 예수가 바리새인들을 꾸짖은 말씀이 떠오를 것이다. 그런 말씀들은 비록 엄하긴 해도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다만 그때의 서로 다른 상황, 즉 서로 다른 배경에서 하나님이 한 말씀일 뿐이다. 그런 말씀들은 말세의 그리스도가 사람을 심판하는 말씀과는 다르다. 말세의 그리스도는 다방면의 진리로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의 본질을 폭로하며 사람의 언행을 분석한다. 그런 말씀에는 다방면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본분,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정상 인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 등등이 있다. 이런 말씀은 다 사람의 본질과 패괴 성품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는지를 폭로하는 말씀들은 사람이 원래 사탄의 화신이고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라는 점을 더더욱 겨냥해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는 심판 사역은 두세 마디 말로 사람의 본성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폭로하고 책망하며 훈계하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방식의 폭로와 책망, 훈계는 일반적인 언어로 대체할 수 없으며, 사람에게 전혀 없는 진리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어야 심판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심판이어야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으며,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탄복하고 하나님에 대해 진정으로 알게 할 수 있다. 심판 사역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알게 되고 패역의 진상에 대해 알게 된다. 심판 사역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사람이 알 수 없었던 비밀을 많이 이해하게 된다. 또한 사람의 패괴된 본질과 근원을 알게 되고, 사람의 추악한 몰골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사역 성과는 심판 사역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사실, 심판 사역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길과 생명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어 놓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는 심판 사역이다. 만약 네가 이런 진리를 중시하지 않고 항상 회피하려고만 하며, 이런 진리 밖에서 새로운 출구를 찾으려고 한다면, 나는 너를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하겠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심판에서 도피하는 사람이자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도망가는 꼭두각시, 배신자라고 하겠다. 하나님은 그의 눈앞에서 도망가는 반역자들을 어느 누구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이런 사람은 더 무거운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와서 심판을 받고 정결케 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나중의 일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그리스도는 진리로 심판의 사역을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79)

심판 사역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라 당연히 하나님이 친히 해야 한다. 이 사역은 사람이 대체할 수 없다. 심판은 진리로 인류를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성육신의 형상으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 이 사역을 한다. 말하자면, 말세의 그리스도는 진리로 만방의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진리를 만방의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사역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 번째 성육신을 언짢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심판 사역을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이 흔히 사람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고 사람의 머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 둔다. 사람은 땅에 있는 구더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한 지고지상한 분이고, 사람의 머리는 썩은 물웅덩이 같아서 구더기만 만들어 낼 뿐이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휘하는 각 단계의 사역은 모두 하나님 지혜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이 어느 쪽일지는 내가 말해 주지 않아도 뻔한 사실이다. 각자 자신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말기를 권한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너는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너는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대단하냐? 다른 사람은 진리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 있는데, 너는 왜 그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대세의 흐름이다. 하나님은 너의 '공로' 때문에 심판 사역을 두 번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너는 크게 후회할 것이다. 만약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하늘의 크고 흰 보좌가 너를 '심판'하기를 기다려 보아라! 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저버리고 부인했지만 예수가 인류를 속량한 일이 우주 땅끝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룬 사실이 아니더냐? 네가 아직도 예수가 너를 맞이해 하늘나라로 데려가기를 기다린다면, 나는 너를 고집불통에다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말하겠다. 예수는 진리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복만 받으려고 하는 너 같은 거짓 신자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가차 없이 너를 불 못에 던져 만년 동안 불태울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그리스도는 진리로 심판의 사역을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80)

너는 무엇이 심판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이해했느냐? 만일 이해했다면 고분고분 심판받기를 권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기회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 이끌려 그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없을 것이다. 심판받기만 하고 끝까지 정결케 되지 못하는 자들, 즉 심판 사역에서 도망간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혐오받고 버림받을 것이다. 그들의 죄상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무겁고 더 많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하나님의 반역자이기 때문이다. 봉사할 자격조차 없는 그들은 더 무거운 징벌, 게다가 영원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입으로는 그에게 충성한다고 하면서 그를 배반하는 어떠한 변절자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다 징벌받는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성품의 발현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고 드러내는 목적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심판 기간 동안 많은 악행을 쌓은 사람을 악령이 득실거리는 곳에 두어 악령이 마음대로 그 육체를 훼손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육체에서는 시체 냄새가 진동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다. 하나님은 충성하지 않은 거짓 신자와 거짓 사도 그리고 거짓 일꾼들의 각종 죄상을 일일이 그들의 기록 책에 적어 두었다가 적합한 때에 그들을 더러운 귀신들 속에 던질 것이다. 더러운 귀신들이 마음대로 그들의 온몸을 더럽혀 영원히 환생하지 못하고 다시는 빛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한동안 봉사했지만 끝까지 충성하지 않고 외식한 자들을 악인들 가운데 두어, 악인들과 한 패거리인 오합지졸이 되게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그들을 멸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적이 없거나 작은 힘도 바친 적이 없는 자들을 한쪽에 내버려 두고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시대를 바꿀 때 모두 멸해 버릴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땅에서 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고 마지못해 건성으로 대한 자들은 백성들을 위해 힘을 쓴 사람들 속에 넣어 둘 것이다. 이들 중 적은 수만이 살아남을 것이며, 대부분은 봉사조차 제대로 못 한 자들과 함께 멸망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와 한마음 한뜻이 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들들 그리고 그가 제사장으로서 예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어갈 것이다. 이들은 다 하나님이 사역해서 얻은 결정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눈 부류에 속하지 못한 자들은 다 이방인의 행렬에 들게 된다. 그들의 결말이 어떨지는 너희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내가 할 말은 다 했으니, 어떤 길을 택할지는 너희들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도 기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공의 성품은 누구에게나 무정하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그리스도는 진리로 심판의 사역을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81)

하나님은 시대마다 같은 사역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지금이 말세인 만큼, 하나님은 말세의 사역을 하고, 말세에 자신의 모든 성품을 나타내려고 한다. 말세라 함은 또 다른 시대를 말한다. 예수는 “그때가 되면 너희는 반드시 재앙을 겪을 것이며, 지진과 기근, 그리고 온역을 마주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것은 낡은 은혜시대가 아니라 또 다른 시대임을 말한다. 사람들이 말하듯, 하나님이 영원불변한 존재이고, 그의 성품은 영원히 공홀과 자비이며,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여 누구든 다 구원하고 또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의 사역에 끝이 있겠느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인을 위해 희생하고 자신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 예수가 이미 은혜시대를 끝냈는데, 말세에 또다시 은혜시대의 사역을 행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계속 그렇게 한다면 이는 예수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번에 온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때처럼 공홀과 자비를 베푼다면, 시대를 끝낼 수 있겠느냐? 공홀과

자비의 하나님이 시대를 끝낼 수 있겠느냐? 시대를 끝내는 마지막 사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형벌과 심판으로 나타나며, 온갖 불의를 드러내어 만민을 공개적으로 심판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온전케 한다. 이런 성품이라야 시대를 끝낼 수 있다. 말세가 되었으니 만물은 각기 부류대로 나눌 것이며, 각각의 성질에 따라 서로 다른 부류로 나눌 것이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결말과 종착지를 드러내는 때이다. 사람이 형벌과 심판을 겪지 않는다면, 사람의 패역과 불의는 모두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만물의 결말은 오직 형벌과 심판을 통해서만 오롯이 드러나고, 사람은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만 본모습을 드러낸다. 사람은 악한 자는 악한 자끼리, 선한 자는 선한 자끼리 각기 부류대로 나눌 것이다. 형벌과 심판을 통해 만물의 결말을 드러내어 상선벌악하며, 그리하여 만인이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게 한다. 이런 사역은 모두 공의로운 형벌과 심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이 극도로 패괴되었고 사람의 패역은 너무나 심해서, 오직 형벌과 심판을 위주로 하는, 말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만이 사람을 철저히 변화시키고 온전케 할 수 있으며 악을 드러낼 수 있다. 이로써 모든 불의한 자들을 강하게 징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품은 모두 시대적 의미가 있다고 한다. 성품을 나타내고 공개하는 것은 모든 새 시대의 사역을 위한 것이지, 아무 의미 없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결말을 드러내는 말세에도 여전히 끝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사랑해 주고, 공의로운 심판 없이 사랑하기만 하면서 관용을 베풀고 인내하고 죄를 사해 주며,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언제나 용서해 주고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지 않는다면, 전체 경영은 언제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성품으로 언제 사람들을 인류에게 적합한 종착지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사람들을 언제나 사랑하기만 하는 재판관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지르든 사랑해 주고, 그 누구든 아껴 주고 감싸 준다면, 공정한 판결은 언제 할 수 있겠느냐? 말세에는 오직 공의로운 심판만이 인류를 각기 부류대로 나눌 수 있고, 사람을 더 새로운 경지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과 형벌의 공의 성품으로 전체 시대를 끝내야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역 이상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82)

육신이 하는 사역이 가장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은 사역을 근거로 말한 것이다. 마지막에 사역을 끝내는 것은 영이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이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어느 날 땅에 와서 사람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친히 전 인류를 심판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통과시킬지 모르니 누구도 빠질 생각을 말아야 한다고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단계의 성육신 사역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통과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심판 사역이라 말할 수 없다. 모든 인류의 패괴는 다 같지 않느냐? 사람의 본질은 다 같지 않느냐? 심판하는 것은 사람의 작은 결점이 아니라 인류의 패괴된 본질, 사탄이 패괴시킨 사람의

본질, 그리고 사람의 모든 죄업이다. 심판 사역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오롯이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을 심판함으로써 전 인류에 대한 심판 사역을 대표한다. 육신이 하는 사역은 일부 사람에게 친히 하는 사역으로 전 인류의 사역을 대변하며, 그런 다음 점차 확장한다. 심판 사역도 이리하다. 어느 한 부류의 사람이거나 일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불의, 예를 들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등을 심판하는 것이다.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본질이며, 이 심판 사역이 바로 말세의 정복 사역이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이 바로 예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말세의 최고 큰 보좌 앞의 심판 사역이다. 지금 성육신한 하나님이 하는 사역 역시 최고 큰 보좌 앞의 심판이다. 오늘날 성육신한 하나님이 바로 말세에 전 인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이 육신과 육신의 사역, 말씀, 모든 성품이 그의 전부다. 비록 육신이 하는 사역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직접적으로 우주 전체에 미치지 못하지만 심판 사역의 본질은 모두 직접 전 인류를 심판하는 것이다. 단지 중국 선민만을 위해서, 또 몇 사람만을 위해서 심판 사역을 펼치는 것이 아니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사역하는 동안 사역의 범위가 우주 전체까지 미칠 수 없다 해도, 그가 하는 사역은 우주 전체의 사역을 대표한다. 또한 그가 육신의 사역 범위 안에서 하는 사역을 끝내면 이 사역을 즉시 전 우주 각 지역으로 확장할 것이다. 마치 예수가 부활해 승천한 후 복음이 전 우주 각 지역으로 전파된 것처럼 말이다. 영의 사역이든 육신의 사역이든 모두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행하지만, 우주 전체를 대변한다. 말세의 사역은 성육신의 신분으로 나타나 하는 사역이다. 그 육신의 하나님이 바로 최고 큰 보좌 앞에서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그가 영이든 육신이든, 결국 심판 사역을 하는 이는 말세에 인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겉모습이나 다른 여러 가지 면에 근거해 정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에 근거해 정한 것이다. 사람이 이에 대해 관념을 갖고 있더라도 성육신한 하나님이 전 인류를 심판하고 정복하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사실은 결국 사실이다. 누구도 “사역은 하나님이 한 것이지만 육신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 육신의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이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역이 다 끝난 이상, 이 사역 이후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사람을 심판하는 사역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성육신이 이미 전체 경영 사역을 모두 끝냈으므로 네 번째 단계의 사역이 있을 리가 없다. 사탄의 영을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패괴되고 육에 속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 사역은 영계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행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패괴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83)

사람 육체의 패괴를 심판하는 사역은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해야만 가장 적합하고,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만이 가장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심판한다면 여러 면에서

빈틈없이 할 수 없고 사람이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영은 사람과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없고, 더욱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스를 수 없는 성품을 더 또렷하게 보여 줄 수도 없다. 오직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인류의 패괴를 심판해야만 사탄을 철저히 물리칠 수 있다. 똑같이 정상 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불의를 직접 심판할 수 있다. 이것은 그가 본래 거룩하고 남다르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지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심판할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진리와 공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 반면, 진리와 공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이 사역을 한다면 그것은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다. 영은 본래 육체를 지닌 존재보다 위대하며, 하나님의 영은 본래 거룩하고 육체를 능가한다. 영이 직접 이 사역을 하면 사람의 모든 패역을 심판할 수 없고, 사람의 모든 불의를 드러낼 수도 없다. 심판 사역도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관념을 통해 행하는 것인데, 사람은 본래 영에 대해 관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사람의 불의를 더 잘 드러낼 수는 없고, 더욱이 사람의 불의를 확실히 들추어낼 수도 없다. 성육신 하나님은 그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원수이다. 그는 그에 대한 사람의 관념과 대적을 심판함으로써 인류의 패역을 모두 들추어낸다. 육신이 하는 사역은 영이 하는 사역보다 더 뚜렷한 성과를 낸다. 그러므로 인류 전체를 심판하는 사역은 영이 직접 하지 않고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며, 사람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 사람은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다가 순종하고, 핍박하다가 받아들이고, 관념을 갖고 있다가 알게 되고, 저버리다가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 성과다. 사람은 모두 그의 심판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만 차츰 그를 알게 된다. 또 대적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정복되고, 그의 형벌을 받는 과정에서 그에게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된다.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영의 신분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하는 사역은 가장 큰 사역이자 가장 심오한 사역이다. 세 단계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 두 단계 성육신 사역에 있다. 성육신하여 사역할 때는 장애물이 너무 많다. 사람이 매우 심하게 패괴된 데다, 특히 말세에 이 사람들에게 하는 사역이 더욱 힘들고 외부 환경이 열악하며 각 부류 사람들의 자질도 몹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역이 끝날 때는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고, 그 성과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육신으로 사역한 성과로, 이 성과는 영이 하는 사역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세 단계 사역은 육신 중에서 끝나며, 또 반드시 성육신 하나님이 끝내야 한다.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역은 모두 육신으로 해야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반드시 육신이 친히 해야 한다. 모든 인류가 육신의 하나님은 사람과 무관한 것 같다고 느끼지만 사실 이 육신은 인류 전체의 운명, 그리고 생존과 관계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패괴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84)

지금 너희를 심판하고 형벌하고 정죄하지만, 그것은 너희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형벌하는 것 모두 너 자신을 알게 하고 너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며, 더욱이 너의 몸값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공의롭고 그의 성품에 따라 한 것이며, 그의 사역의 필요에 따라 한 것이자 사람을 구원하는 그의 계획에 따라 한 것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네가 만약 자신의 지위가 낮다는 것과 자신이 패괴되었고 패역하다는 것만 알 뿐,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하는 심판과 형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려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너는 체험할 수 없고 계속 나아갈 수도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치거나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심판하고 저주하고 형벌하고 구원하러 온 것이다. 6 천 년 경륜이 끝나기 전, 즉 각 부류 사람들의 결말을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이 땅에 와서 하는 사역은 모두 구원을 위한 것이며,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온전케 하여 그의 권세 아래로 돌아와 복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든, 그것은 모두 사람에게 있는 사탄의 옛 성품을 벗어 버리게 함으로써 즉, 사람이 생명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사람은 생명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고, 생명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형벌이나 심판, 저주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공훈과 자비가 있어야 하고, 더욱이 위로의 말씀도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무궁한 축복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과 은혜를 내려 감동시킴으로써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사람을 구원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구원은 거래적인 구원일 뿐이다. 하나님이 백배로 주는 전제하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의 이름을 빛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는 것은 패괴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친히 사역을 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구원 방식은 하나님이 모든 공훈과 자비를 다 베풀고 더 나아가 자신의 전부를 사탄에게 넘겨줌으로써 전 인류와 맞바꾸는 것이었다.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 지금은 너희를 구원함에 있어 각기 부류대로 나누는 마지막 때이므로 공훈과 자비가 아닌 형벌과 심판의 방식으로 더 철저하게 인류를 구원한다. 따라서 너희는 형벌, 심판, 무자비한 매질만 받게 된다. 하지만 너희는 그 무자비한 매질 속에 징벌은 전혀 들어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말씀이 아무리 엄할지라도 너희에게 임하는 것은 그저 무정해 보이는 말들뿐이며, 나의 분노가 아무리 클지라도 너희가 받는 것은 여전히 꾸짖는 말일 뿐, 너희를 해치려는 뜻도, 너희를 사지로 몰아넣으려는 뜻도 전혀 없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냐? 너희도 알다시피, 지금의 공의로운 심판이나 무자비한 연단과 형벌은 모두 구원을 위한 것이고, 지금 각기 부류대로 나누려고 하든 아니면 각 부류의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든,

모든 말씀과 사역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의로운 심판은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고, 무자비한 연단도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며, 엄한 말씀이나 채찍질은 모두 정결케 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구원 방식은 예전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오늘날 공의로운 심판은 너희의 구원이 되었고, 너희를 각기 부류대로 나누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었으며, 무자비한 형벌은 너희의 크나큰 구원이 되었다. 이런 형벌과 심판 앞에서 너희가 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너희가 처음부터 줄곧 누려 온 것이 모두 구원이 아니냐? 너희는 성육신 하나님의 육신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전능과 지혜를 알았고, 더욱이 매질과 징계도 여러 번 겪었지만 또 지극히 큰 은혜도 받지 않았느냐? 너희는 어느 누구보다 큰 복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는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생각해 보아라. 만약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징벌하러 왔다면 너희의 날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겠느냐? 죄에 속하는 육적인 너희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겠느냐? 단순히 너희를 징벌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성육신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큰 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었겠느냐? 너희 같은 무명소졸을 징벌하러 한다면 말 한 마디면 충분하지 않았겠느냐? 굳이 너희를 정죄한 뒤에 멸망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아직도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공휼과 자비의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밖에 없단 말이나?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사람을 구원할 수밖에 없단 말이나? 공의로운 성품이 사람을 완전히 순종하게 하는 데 더 유리하지 않느냐? 사람을 더욱 온전히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지위의 복을 내려놓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85)

내가 한 말이 엄하기는 하지만 사람에게는 모두 구원이다. 나는 말만 했을 뿐 사람의 육체를 징벌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 사람이 모두 빛 속에서 살고 빛의 존재를 인식하고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며, 더욱이 이런 말씀이 사람에게 매우 이롭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곧 구원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비록 형벌과 심판의 말을 많이 했지만 너희에게 사실로 닥치지는 않았다. 나는 사역을 하러 온 것이고 또 말을 하러 온 것이다. 말이 비록 엄하기는 하지만 모두 너희의 패괴와 패역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 역시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해 내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려는 것이지 사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엄한 것은 사역 성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이렇게 사역해야만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패역한 성품을 벗어 버릴 수 있다. 말씀 사역의 가장 큰 의의는 사람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진리를 실천해 성품을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되는 것에 있다. 말씀하는 사역 방식을 사용해야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소통시킬 수 있고, 말씀만이 진리를 천명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을 정복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사람이 명확하게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하는 데 말씀 사역보다 더 좋은 방식은 없다.

그러므로 마지막 단계의 사역에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알지 못하는 모든 진리와 비밀을 사람에게 열어 주어 하나님에게서 참도와 생명을 얻게 하고, 이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역하는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도록 하는 것이며,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기간에는 사람을 징벌하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 사람을 구원하는 기간에는 상선벌악(賞善罰惡)을 하지 않고 각 부류 사람들의 종착지를 드러내지도 않는다. 마지막 단계의 사역을 다 한 후에야 상선벌악의 사역을 하고 각 부류 사람들의 결말을 드러낸다. 징벌받는 사람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반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기간에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다. 구원 사역을 하는 기간에 하나님은 구원 가능한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최대한 구원한다. 그의 사역 목적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기간에 성품의 변화를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기간에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자는 모두 징벌받을 대상이 된다. 이 단계의 말씀 사역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과 도를 모두 사람들에게 열어 주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구를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줌으로 성품 변화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은 그저 말씀으로 사역할 뿐 사람이 조금 거역한다고 해서 사람을 징벌하지는 않는다. 지금은 구원 사역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거역한다고 해서 사람을 징벌한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모조리 징벌받아 음부에 떨어질 것이다. 말씀으로 사람을 심판하는 목적은 사람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다. 말씀 사역을 하는 기간에 많은 사람은 거역과 대적, 성육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드러낼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일일이 징벌하지는 않는다. 오로지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히 패괴된 사람들만 버리는데, 그 육체를 사탄에게 넘겨줄 것이며 어떤 경우는 육체를 없애 버릴 것이다. 그 외의 사람들은 계속 따르면서 책망과 훈계를 겪게 될 것인데, 따르는 기간 동안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점점 타락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미 구원받을 기회를 잃은 것이다. 말씀으로 정복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구원받을 기회가 여러 번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함에 있어 최대한 너그럽게 대한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돌아온다면, 즉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기회를 줄 것이다.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구원하려고 한다. 하지만 정말로 구원의 여지가 없다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단 한 사람도 쉽게 징벌하지 않는 것은 구원 가능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는 말씀으로 심판하고 말씀으로 깨우치고 인도할 뿐, 형벌의 막대기로 치지는 않는다.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 사역의 목적과 의의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지위의 복을 내려놓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86)

하나님이 심판과 형벌의 사역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의 증거를 위한 것이다. 그가 사람의 패괴 성품을 심판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의 거스를 수 없는 공의 성품을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낡은 인식에서 새로운 인식으로 바꿀 수도 없다. 그의 증거와 그의 경영을 위해, 그는 자신의 전부를 사람들에게 공개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의 공개적인 현현으로 그를 알게 하고, 성품 변화를 이루며, 그를 힘 있게 증거하게 한다. 사람의 성품은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변화된다.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도 없다. 사람의 성품 변화는 사람이 이미 사탄의 속박과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 사역의 모델과 표본이 되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으며,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하며 사람들에게 한 요구는 바로 그를 알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증거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의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사역을 알라는 것이요, 사람의 고정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그의 모든 말씀과 사역에 순종하라는 것이요, 사람을 구원하는 그의 모든 사역과 사람을 정복하는 모든 행사를 증거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런 증거야말로 정확하고 실제적이며, 사탄을 수치스럽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의 심판과 형벌, 책망과 훈계를 겪고 그를 알게 된 자를 통해 그를 증거하게 한다. 그는 사탄에 의해 패괴된 자를 통해 그를 증거하게 하고, 성품 변화로 그의 축복을 받은 자를 통해 그를 증거하게 한다. 그는 사람의 입에 발린 찬양을 바라지 않고, 그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탄의 부류가 그를 찬양하고 증거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성품이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자격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고의로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87)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하느냐? 그의 공의 성품을 통해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성품은 기본적으로 공의, 진노, 위엄과 심판, 저주이며,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케 할 때 주로 심판의 방식을 택한다. 어떤 이는 어째서 심판과 저주를 통해야만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사람은 죽지 않겠습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건 정죄받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온전케 될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묻는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다.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은 사람의 패역이고, 심판하는 것은 사람의 죄다. 비록 엄한 말씀으로 가차 없이 사람 내면의 것들을 전부 들춰내고, 사람 내면의 본질적인 것들을 전부 드러내기는 하지만, 이러한 심판의 방식을 통해 사람이 육의 본질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한다. 사람의 육은 죄에 속하고 사탄에게 속한다. 육은 패역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벌 대상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게 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해야 하며, 게다가 온갖 방법으로 연단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역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미 사람의 욕을 정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은 저주의 말씀에 속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사람의 본모습을 드러내는 말씀이며, 이러한 드러냄을 통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통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너무 많은 빚을 저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때로는 성령이 내면에서 너를 징계하는데, 그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온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너에게 얼굴을 가리며, 너를 외면하고 너에게 역사하지도 않으며, 소리 없는 형벌로 너를 연단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역할 때 주로 그의 공의 성품을 나타낸다.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증거하겠느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의 성품이 바로 공의이자 진노, 형벌, 심판임을 증거한다. 즉, 사람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성품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구원한다. 하지만 그의 사랑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느냐? 심판과 위엄, 진노와 저주가 들어 있다. 지난날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했지만, 사람을 완전히 무저갱에 버리지 않는 않았다. 그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의 믿음을 연단했다. 그는 사람을 온전케 하려고 했지 전부 사지로 몰아넣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욕의 본질은 사탄에게 속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한 말씀대로 사실이 임하게 하지는 않았다. 그가 너를 저주하는 이유는 그를 사랑하게 하고, 네 욕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가 너를 형벌하는 이유는 너를 각성시켜 네 내면의 부족함을 알게 하고, 사람이 형편없고 자격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위엄, 진노는 모두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현재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과 너희에게 나타내는 공의 성품은 전부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알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88)

사람은 전통 관념에 근거해 하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고, 사람의 연약함을 체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기는 하나, 너무 단편적이며,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주요 방식이 아니다. 병에 걸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있다면, 그 병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이다.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오늘날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은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진리를 몰랐던 관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매우 많이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게 했고, 사람을 오늘날까지 인도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내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다! 교회 건축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봉사자’ 단계의 사역을 하여 사람을 무저갱 속으로 빠뜨렸다. 봉사자 그 당시의 말씀은 모두 저주의 말이었다. 너의 욕을 저주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사탄의 패괴 성품을 저주했으며,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주했다. 그 단계 사역에서 하나님이 나타낸 것은 위엄이었다. 곧이어 하나님은 또 형벌 사역을 했고, 죽음의 시련을 주었다. 사람은 그러한 사역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위엄, 심판과 형벌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도 보았다.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과 나타내는 성품은 전부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그는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 사람의 분량에 따라 사람에게 공급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본래 모습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의 분량에 맞춰 조금씩 사람에게 공급해 주어 그에 대한 인식이 사람 내면에 점차 생겨나게 했다. 사람은 오늘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심판이 더없이 좋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봉사자 단계의 사역은 하나님이 창세 이래 행한 첫 번째 저주 사역으로, 사람을 저주하여 무저갱 속에 넣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 비로소 정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접할 수 있었다. 사람은 모두 봉사자의 시련을 통해 드러났고, 자신의 충성심이 형편없고, 분량이 너무도 보잘것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없으며, 언제든지 하나님을 흡족게 하겠다는 것은 말뿐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봉사자 단계 사역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했지만,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단계 사역이 몹시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사람에게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으며, 사람의 생명 성품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봉사자 단계 전에 사람은 생명 추구는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사역한다는 것을 몰랐으며,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에게 시련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봉사자 단계의 사역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이 지극히 기묘하여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으며, 사람의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사람의 분량이 몹시 보잘것없고, 사람의 패역이 너무나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당시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한 것은 한 가지 성과를 얻기 위함이었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그가 사람을 저주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저 말씀의 저주였을 뿐, 사실이 임한 적은 없었다. 하나님이 저주한 것은 사람의 패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저주의 말씀 역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도, 저주도 전부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사람 내면의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에게 연단을 주었고, 사람 내면의 부족한 것들은 그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온전케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이 행한 각 단계의 사역은 엄한 말씀이든 심판과 형벌이든 할 것 없이 전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며, 너무나도 적절한 것이다. 하나님은 만세와 만대에 이런 사역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날, 너희에게 이런 사역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한 것이다. 너희는 내적으로 고통을 조금 겪었지만, 늘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이번 단계 사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너희의 행복이다. 나중에 무엇을 얻게 되든 어쨌든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한 사역이 전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연단을 겪지 않아 늘 겉으로만 행하고, 겉으로만 열성적일 뿐, 성품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얻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현재 사람의 내면에는 여전히 방자하고 오만한 것들이 많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성품이 많이 안정되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는 것 역시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 당시에는 조금 고통스럽겠지만, 언젠가 네 성품이 변화했을 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행한 사역이 지극히 지혜로웠다고 느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현재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은 거짓말이다. 그가 지금까지 아직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인지, 저주하는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가 지금은 밝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젠가 너는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날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로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너는 인생을 알고, 너의 육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며, 영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물론,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져 늘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오늘날의 하나님 사역이 엄청난 가치가 있음을 진실로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알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89)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사람이 사탄을 저버리고 조상을 저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말씀의 심판은 사람의 패괴 성품을 들추어내고 사람에게 인생의 본질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한 차례 또 한 차례 계속되는 심판이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 모든 심판은 사람의 운명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여 사람이 그런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사람은 인생과 이 더러운 세상에 대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을 알게 되며, 사탄이 패괴시킨 인류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이렇게 형벌하고 심판할수록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찌를 수 있고, 사람의 영을 불러 깨울 수도 있다. 이런 심판의 목적은 아주 깊이 패괴되고 가장 심하게 속은 사람의 마음과 영을 깨우는 것이다. 사람에게에는 영이 없다. 다시 말해, 사람의 영이 이미 오래전에 죽어 하늘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며, 더욱이 자신이 죽음의 나락에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자신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 지옥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자신의 썩은 시체가 사탄에 의해 패괴된 후 죽음의 음부에 떨어진

존재임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지상 만물이 이미 인류에 의해 파괴되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오늘날, 창조주가 땅에 와서 구원 가능한 패괴된 사람들을 찾고 있음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온갖 연단과 심판을 겪었지만 사람은 시종일관 무감각하여 거의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사람은 너무도 타락하였다! 이러한 심판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자비한 우박과도 같겠지만 사람에게에는 가장 이로운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고 고해의 심연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며, 이렇게 사역하지 않으면 사람을 음부에서 건져 내기 힘들다. 사람의 마음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사람의 영이 사탄에게 짓밟혔기 때문이다. 극도로 타락한 너희들을 구원하려면 온 힘을 다해 불러 깨우고 심판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차디찬 너희의 마음을 깨울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온전케 된 사람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90)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가장 낙후되고 더러운 곳에 임해야 그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을 전부 드러낼 수 있다. 그의 공의로운 성품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겠느냐? 바로 사람의 죄와 사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혐오, 그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원수에 대한 증오를 통해 드러난다. 오늘날 내가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의 죄와 불의를 심판하고 사람의 패역을 저주하려는 데 있다. 사람의 간사함과 교활함, 사람의 언행 등 그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심판받아야 하며, 사람의 패역은 정죄받아야 한다. 심판을 중심으로 말하는데, 사람의 불의를 심판하고 사람의 패역을 저주하며 사람의 모든 추한 면모를 밝혀냄으로써 그의 공의로운 성품을 나타낸다. 거룩함은 그의 공의로운 성품의 상징으로, 그의 거룩함이 곧 그의 공의로운 성품이다. 오늘날 이런 말들을 하는 배경은 다 너희의 패괴 성품을 빌려 말하고 심판하며, 정복 사역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사역이며,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히 부각시킬 수 있다. 만약 네게 패괴 성품이 조금도 없다면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며, 네게 그의 공의로운 성품을 드러내지도 않을 것이다. 네가 패괴 성품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람이 너무나 더럽고 패역한데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너를 심판하지도 않고 너의 불의로 인해 너를 형벌하지도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그런 존재는 근본적으로 죄를 미워하지 않을뿐더러 사람과 똑같이 더럽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너를 심판하는 이유는 너의 더러움 때문이며, 오늘 내가 네게 형벌을 가하는 이유는 너의 패괴와 패역 때문이다. 너희에게 위풍을 떨거나 일부러 너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러운 땅에 태어난 너희가 더러움에 너무 많이 물들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정말이지 인격도 인간성도 잃어버렸으며, 가장 더러운 곳에 태어난 돼지와 다름이 없다. 바로 너희의 이러한 점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에게 진노하는 것이다. 또 너희는 바로 이러한 심판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며 거룩한

하나님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거룩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에게 진노하는 것이다. 그는 사람의 패역을 보고 공의로운 성품을 나타내며, 사람의 더러움을 보고 거룩함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그가 바로 흠 없이 거룩한 존재이자, 또한 더러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자신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사람과 더불어 더러운 것을 좇는 자라면 그에게는 거룩함의 요소도, 공의로운 성품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불의를 심판할 자격도, 사람을 심판할 자격도 없다. 사람이 사람을 심판한다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 아니겠느냐? 똑같이 더러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더러운 전 인류를 심판할 수 있는 이는 오직 거룩한 하나님 자신뿐이다. 사람이 어찌 사람의 죄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또 어찌 사람의 죄를 볼 수 있겠으며,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사람의 죄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면 그가 어찌 공의로운 하나님 자신이겠느냐? 사람이 패괴 성품을 드러낼 때, 말씀으로 심판해야 사람에게 그가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그가 사람의 죄를 심판하고 형벌하고 드러내면 그 어떤 존재도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더러운 것은 모두 그에게 심판을 받으니 그의 이러한 성품이야말로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어찌 명실공히 부각물이라고 칭할 수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두 번째 정복 사역은 어떻게 성과를 거두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91)

이스라엘에서 했던 사역은 오늘날의 사역과 크게 다르다. 여호와와 그들의 생활을 이끌어 주었을 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형벌과 심판으로 대하지 않았다. 당시 사람들은 세상일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고, 패괴 성품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인은 여호와에게 무조건 순종했다. 제단을 세우라고 하면 즉시 제단을 쌓았으며, 제사장 성의를 입으라고 하면 그대로 따랐다. 그들에게 여호와와 목자와 같았다. 여호와와 그들을 목양했고,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풀을 먹였다. 여호와와 그렇게 그들의 생활을 인도하고 그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시기가 아니었다. 당시의 인류는 처음 난 인류였기에 패역과 대적이 매우 적었고 더러움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부각시킬 수도 없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더러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 드러난다. 오늘날 하나님은 더러운 땅에 사는 자들이 드러내는 더러움에 따라 심판하며, 그의 어떠함은 모두 심판 속에서 흘러나온다. 그는 왜 심판을 하겠느냐? 죄를 혐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심판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가 인류의 패역을 혐오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노할 수 있겠느냐? 그가 조금의 혐오도, 반감도 느끼지 못하고 사람의 패역을 보고도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면, 사람과 똑같이 더럽다는 의미가 된다. 그가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더러움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그가 혐오하는 것은 모두 그에게는 없는 것들이다. 만약 그에게도 대적하고 거역하는 면이 있다면 자신과 똑같이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를

혐오하지 않을 것이다. 말세의 사역을 계속 이스라엘에서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가장 어둡고 낙후된 중국이라는 곳에서 말세 사역을 하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요컨대 어두운 곳일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잘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이다. 너희는 이제야 비로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너희 가운데서 계시는데, 그가 너희의 더러움과 패역으로 부각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크게 높임 받은 것 아니겠느냐? 사실, 너희가 바로 중국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이토록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데도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크게 높여 주었음을 증명한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나타나 모든 거룩한 성품을 보여 주었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어 너희가 부족함 없이 모든 복을 누리게 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체험하게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게 했다. 가장 더러운 너희가 이토록 많은 은혜를 누렸으니 복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높여 주심 아니겠느냐? 누구보다 지위가 낮은 너희는 본래 이렇게 큰 복을 누릴 자격이 없었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깨고 너희를 높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부끄럽지 않느냐? 네가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결국엔 수치스러움에 자신을 형벌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를 징계하지도 벌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네 육은 무탈하겠지만,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너는 지금의 말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형벌한 적이 없다. 비록 말은 엄하게 했지만 사람을 어떻게 대하였느냐? 위로해 주기도 하고, 권면해 주기도 하고, 일깨워 주기도 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단 말이나? 너희는 내가 한 말을 모두 알아듣고 그 말에 고취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제야 비로소 이 복은 부각물이 되었기에 얻은 것임을, 부각물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복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전형적인 부각물입니다.”라고 하면 듣는 이는 “전형적인 부각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라고 물을 것이다. 그때 네가 “하나님의 사역과 크신 능력을 부각시키는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성품은 우리의 패역을 통해 부각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세 사역의 봉사자이자 부속품, 그리고 도구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신기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계속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사역을 이루고 전 인류를 정복하는 사역의 모델이자 표본입니다. 우리가 성결하든 더럽든 어쨌든 우리는 당신들보다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고, 정복되는 것을 기회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각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과 패괴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부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큰 약속과 복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토록 더러운

인간들이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서 부각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니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또 그들이 “그러면 모델과 표본이란 무엇인가요?”라고 물으면 너는 “우리는 가장 패역하고 가장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사탄에 의해 극도로 파괴된 존재이며 가장 뒤떨어지고 비천한, 육에 속한 자들이지요. 또한 사탄에게 이용당한 전형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인류 가운데서 가장 먼저 정복되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깨닫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복하심으로써 더 많은 사람을 정복하시기에 우리는 정복된 인류의 모델이자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해라. 이것이 바로 너의 가장 훌륭한 간증이며 최고의 체험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두 번째 정복 사역은 어떻게 성과를 거두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92)

너희에게 하는 정복 사역은 그 의미가 가장 깊다. 한편으로는 한 무리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데, 이기는 자들을 온전케 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진 한 무리, 즉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과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한다. 사람에게 공홀과 자비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형벌과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역하면서 행한 모든 것은 전부 사랑일 뿐 미움은 전혀 없다. 네가 본 형벌과 심판도 사랑으로, 더 참되고 실제적인 사랑이다. 이 사랑이 사람을 인생의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사탄 앞에서 증거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복음 확장을 위해 기초를 다지기 위함이다.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의 목적은 사람을 인생의 바른길로 인도하여 정상적인 인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생활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으면 헛되게 살아간다. 너는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이 살아갈 뿐 결코 정상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정복하는 가장 깊은 의의이다. 너희는 모두 모압의 후손이다. 너희에게 정복 사역을 하는 것은 커다란 구원이다. 너희는 모두 죄악이 넘치는 음란한 땅에 살고 있는, 음란하고 죄악된 사람이다. 오늘날 너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형벌과 심판을 받았고, 이렇게 가장 깊은 구원을 받았다. 즉,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것이다. 그가 행하는 것은 모두 참된 사랑이며 악의는 없다. 그는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여 반성하게 하고, 이 크나큰 구원을 받게 한다. 이 모든 사역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시종일관 전력을 다해 사람을 구원한다. 그는 친히 만든 사람이 완전히 멸망하길 결코 원치 않는다. 그가 지금 또 너희 가운데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더욱 구원 아니겠느냐? 그가 너희를 미워한다면 이렇게 큰 사역을 하여 직접 너희를 인도하겠느냐? 굳이 이런 고난을 겪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으며 조금의 악의도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진실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사람의 패역 때문에 반드시 심판으로 사람을 구원해야 할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너희는 생활할 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며, 이 음란하고 죄악된 땅에서 살고 있으므로 음란하고 더러운 귀신에 속한다. 그는 너희가 더 타락하는 것이 안타깝고, 또 너희가 이렇게 더러운 땅에서 살면서 사탄에게 마구 짓밟히고 음부에 떨어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기에 오로지 이 무리 사람들을 얻고 철저히 구원하려고 한다. 이것이 너희에게 정복 사역을 하는 주된 목적이다. 바로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는 것이 모두 사랑이고 구원임을 보지 못한 채, 그것은 그저 일종의 방식일 뿐이며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의 세계로 돌아가 고통과 고난을 겪어라! 이 흐름 속에서 이 심판과 크나큰 구원을 누리고, 인간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이 모든 복과 사랑을 누리고 싶다면, 이 흐름 속에서 고분고분 정복 사역을 받아들이고 온전케 되어라. 너는 지금 심판으로 인해 약간의 고난과 연단을 받고 있지만, 그 고난은 가치와 의의가 있다. 형벌과 심판은 사람에게 연단이고 무정한 폭로이며, 그것은 사람의 죄와 욕을 징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사역은 사람의 욕을 정죄하여 멸하려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엄하게 폭로하는 것도 모두 너를 바른길로 이끌기 위함이다. 너희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직접 체험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비뚤어진 길로 인도한 적은 없지 않더냐! 전부 네가 정상 인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며, 너의 정상 인성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각 단계 사역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바탕으로, 너의 연약함과 너의 실제 분량에 맞추어 행하지, 너에게 감당하기 힘든 짐을 억지로 지우지는 않는다. 네가 지금은 꿰뚫어 보지 못하여 내가 너를 괴롭히는 것 같고, 내가 너를 미워해 날마다 형벌하고 심판하고 꾸짖는 것 같겠지만, 네가 받는 형벌과 심판은 사실 너에 대한 사랑이고 크나큰 보호다. 이 단계 사역의 더 깊은 의의를 알지 못한다면 너는 이 사역을 체험해 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런 구원으로 위안을 얻어야지, 잘못된 생각에 빠져 깨닫지 못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겪었으면 너도 이 정복 사역의 의의를 분명하게 알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이런저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정복 사역의 실상 4>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93)

말세에 심판과 형벌을 하는 사역, 즉 정결케 하는 마지막 사역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최후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정결케 되는 마지막 단계의 사역을 거친 후에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다. 마지막에 얻어지는 그들은 최후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형벌과 심판 사역은 본질이 인류를 정결케 하고 마지막 안식의 날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전 인류는 각기 부류대로 나뉘 수도,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 사역은 인류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정결케 하는 사역만이 인류의 불의를 정결케 할 수 있고, 형벌과 심판의 사역만이 인류의 패역한 것들을 모두 드러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원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 낼 수 있다. 사역이 끝나면 살아남는 사람들은 모두 정결케 되어 더 높은 경지에 들어갈 것이며, 땅에서

제 2 의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릴 것이다. 다시 말해, 안식의 날을 맞아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이다. 반면, 살아남지 못하는 자들은 형벌과 심판을 거쳐 본모습이 철저히 드러난 후 모두 멸망하여 사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땅에서 생존하지 않을 것이다. 이후의 인류 중에는 이 부류의 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 안식처에 들어갈 자격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안식의 날을 맞이할 자격도 없다. 그들은 의인이 아니라 징벌받을 대상이자 악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구속받은 바 있고 심판과 형벌도 받았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 힘을 쓴 적도 있지만, 마지막 날이 이르면 자신의 악과 패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채 도태되고 멸망하여 더 이상 이후의 세상과 인류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든 육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든, 악을 행했거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거룩한 인류가 안식에 들어갈 때 모두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 악을 행한 영혼과 악을 행한 사람들, 의인의 영혼과 의를 행한 사람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결국 악한 자는 멸망하고 의인은 모두 살아남을 것이다. 사람이든 영혼이든 구원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마지막 시대의 사역만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는지에 근거해 결정된다. 지난 시대의 사람이 악을 행했고 또 구제 불능이었다면 틀림없이 징벌받을 대상이고, 이 시대에서 악을 행하고 또 구제 불능이라면, 그 역시 반드시 징벌받을 대상이다. 각 부류의 사람을 구분할 때는 시대가 아닌 선과 악에 근거한다. 사람을 선과 악으로 구분했다고 해서 곧바로 징벌하거나 상을 주는 것은 아니다. 상선벌악(賞善罰惡)의 사역은 말세 정복 사역이 끝난 뒤 행하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선과 악으로 사람을 구분해 왔다. 단지 사역이 끝난 후에 의인에게 상을 주고 악인에게 벌을 줄 뿐, 마지막 사역이 끝날 때 악인과 의인을 구분한 다음 바로 상선벌악의 사역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최후의 상선벌악 사역은 오직 전 인류를 철저히 정결케 하여 온전하고 거룩한 인류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단계 사역은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서 전체 경영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 속한다. 악한 자를 멸하지 않고 남겨 둔다면, 전 인류는 계속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또한 더 아름다운 경지로 전 인류를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완전히 끝난 사역이라고 할 수 없다. 사역이 끝날 때 전 인류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편히 안식하며 지낼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94)

나의 발은 온 우주 땅끝을 밟으며, 나의 눈은 늘 모든 사람을 감찰하고, 더 나아가 우주의 전모를 살펴보고 있다. 나의 말은 실제로 우주의 모든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데 누가 감히 날 위해 봉사하지 않고, 누가 감히 날 위해 충성하지 않겠느냐? 또 누가 감히 내 이름을 판단할 것이며, 누가 감히 내 아들을 모욕하고 비방하겠느냐? 정말로 그런 짓을 저지르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의 심판은 전면적으로 임한다. 다시 말해, 지금은 심판의 시대이며, 자세히 관찰하면 나의 심판이 우주 세계에

널리 퍼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나의 집도 예외가 아니다. 마음과 생각, 말, 일거수일투족이 내 뜻에 맞지 않는 자는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깨달아야 한다! 나의 심판은 일부 사람이나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그것을 느꼈느냐? 네가 마음과 생각으로 맞선다면 내적으로 즉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의 심판은 아주 다양하다. 너희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나는 우주 세계에서 유일한 지혜로운 하나님이다! 그 어떤 일도 나에게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의 심판을 너희에게 낱알이 보여 주겠다. 마음과 생각으로 맞서면 내가 바로 너를 깨우쳐 줄 것이다. 즉, 네게 경고할 것이다. 만약 듣지 않는다면, 나는 바로 너를 내칠 것이다(이런 것은 모두 나의 이름을 의심하지 않고 육적인 누림을 좇는 너의 외적인 일을 가리킨다). 만약 마음과 생각으로 나를 대적하고 원망하며 자꾸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느낌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 너의 영 안은 어두워지고 육체는 고통받을 것이다. 나와 가까워지려 해도 하루 이틀 내에는 절대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고, 생명은 확연하게 멀리 뒤흔어져 있을 것이다. 나는 제멋대로 말하는 네 입과 혀를 징계하고 너의 혀를 다스릴 것이다. 일할 때 방종하고 단속을 받지 않는 자 역시 내가 영 안에서 경고할 것이며, 그래도 듣지 않는 자는 중벌을 내릴 것이다. 공개적으로 나를 판단하고 대적하는 자, 즉 말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철저히 도태시키고 내칠 것이다. 그렇게 그를 멸망시켜서 최고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모두 내가 택했다가 도태시킨 자들이다. 우매한 자들, 즉 이상(異象)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 깨우침을 주고 구원하겠지만, 진리를 깨닫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가 우매한 자든 아니든 앞에서 말한 몇 가지 항목에 비추어 집행할 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심이 바르지 못한 자가 줄곧 실체를 찾지 못하게 했다. 결국에는 그들을 천천히 하나씩 도태시켜 한 명도 남기지 않겠지만, 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남겨 두겠다(나는 일을 함에 있어 경솔하지 않으며, 순서와 차례를 따르기 때문이다).

나의 심판이 완전히 열렸으니 다양한 사람에게 다 비추어 볼 것이다. 누군가 어떤 항목을 범하면 나는 그 항목에 따라 집행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 명단에 없고, 말세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의 결과밖에 없다. 만약 나를 대적하는 자라면 나는 바로 그의 영, 혼, 육을 저승으로 보낼 것이다. 나를 대적하지 않는 자라면 너희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 다시 한번 심판할 것이다. 나는 조금도 숨김없이 명확하게 다 말했다. 너희가 시시각각 마음에 새기기를 바랄 뿐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제 67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95)

말세에는 정복을 통해 만물이 각기 부류대로 나뉘게 한다. 정복은 말세의 사역이다. 즉, 각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 말세의 사역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찌

각기 부류대로 나뉠 수 있겠느냐? 너희들 가운데서 하는, 각기 부류대로 나누는 사역은 전 우주에서 각기 부류대로 나누는 사역의 시작이다. 이후에는 각 지역, 각 민족도 다 이 정복 사역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창조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각기 부류대로 나뉘게 될 것이고, 모두 심판대 앞으로 돌아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사물도 이 형벌과 심판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한 각기 부류대로 나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부류에 따라 나뉜다. 만물의 결말이 가까이 왔고 온 천지가 끝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이 어찌 생존이 끝나는 날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의 패역한 행위가 얼마나 오래가겠느냐? 너희의 마지막 날이 다 눈앞에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날을 보지 못할 수 있겠느냐? 어찌 마지막에 선행에 대한 상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너는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들이어 순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들이어 저주받는 사람이나? 너는 빛 속의 심판대 앞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어두운 음부에서 살고 있느냐? 네가 마지막에 상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는 너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의 행위와 너의 마음은 대체 어떠한가? 지금 내가 너를 정복함에 있어, 너의 행위가 악인지 선인지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는 나를 위해 얼마나 포기했느냐? 너는 나를 얼마나 깊이 경배하느냐?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너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의 결말이 과연 어떨지, 네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실대로 알려 주겠다. 나는 인류를 만들고 또 너를 만들었을 뿐, 너희를 사탄의 손아귀에 넘겨주지 않았고, 일부러 너희로 하여금 나를 거역하고 대적하게 해서 나의 징벌을 받게 하지도 않았다. 그런 재앙을 당하는 것은 모두 너희 자신의 마음이 너무 강퍽하고 너희의 행동이 너무 비열하기 때문 아니겠느냐? 그럼 너희의 결말 역시 너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너희의 결말은 너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 사람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네가 더 잘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지, 너에게 악을 행하라고 하는 것도, 일부러 너를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때가 되어 심하게 고통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면 그것은 전부 너의 죄 때문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 자신의 선이나 악은 너에게 가장 좋은 심판 아니겠느냐? 너의 결말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 아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정복 사역의 실상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96)

우레와 같은 음성이 온 땅을 진동시키며 귀를 찢을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으며, 사람은 미처 피할 겨를이 없었다. 따라서 일부는 죽임을 당하고, 일부는 멸망당하고, 일부는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유례없는 광경이다. 귀를 기울여 들어 보니 계속되는 우렛소리 속에서 애곡 소리도 들려온다. 그 소리는 음부와 지옥에서 오는 것으로, 나의

심판을 받은 패역한 자식들의 통곡 소리이다. 내 말을 듣지 않고 실행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내 엄한 심판과 진노의 저주를 받았다. 나의 음성이 바로 심판이고 진노이다. 그러니 누구에게든 사정을 봐주는 일이 없고 누구든 가차 없이 대할 것이다.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 자신이며, 진노와 불사름, 정결함, 그리고 파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숨김도, 감정도 없이 전부 공개하며 공의롭고 공평무사하다. 나의 장자들이 이미 나와 함께 보좌에 올라 만국 만민을 다스리므로 불공정한 일들과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기 시작했다. 나는 철저히 조사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드러낼 것이다. 나의 심판이 이미 남김없이 드러났고, 모두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뜻에 맞지 않는 자를 무저갱에 내던져 그 속에서 영원히 멸망하게 하고, 불사름 당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공의이자 정직이다. 이는 아무도 바뀌 놓을 수 없으며, 반드시 내 것에 따라 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말씀은 말씀이고 사실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내 말을 소홀히 하고 있다. 참으로 눈이 멀었구나! 내가 진실한 하나님 자신임을 모르는 것이냐? 내 말은 사실과 병행한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 아니더냐? 사람은 아예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오직 깨우침을 얻은 자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사람은 내 말을 보기만 해도 놀라 혼비백산하며 사방으로 흩어져 숨는데, 하물며 내 심판이 임할 때는 어떻겠느냐? 나는 만물 창조, 세상 파멸 그리고 장자들을 만드는 것 모두 말 한 마디로 이룬다. 나의 말은 그 자체가 권병이고 심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나, 이 사람이 바로 심판이고 위엄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도 바뀌 놓을 수 없다. 이는 내 행정의 일면이자, 내가 사람을 심판하는 방식이다. 내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이 다 내 손안에서 주관되며, 내 심판 가운데 있다. 그 어떤 사람도, 사물도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며, 전부 내 입에서 나온 말대로 이뤄진다. 사람은 관념적으로 모두 나,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내 영이 음성을 발할 때면 전부 반신반의하며, 전혀 나의 전능을 알지 못하고 게다가 나를 모함하기까지 한다. 내가 알려 주마! 내 말에 의혹을 품고 내 말을 성의 없이 대하는 자는 모두 멸망될 대상이며, 영원히 침륜에 빠질 자이다. 이를 통해 장자들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나의 사역 방식이기 때문이다. 내가 말했듯이, 나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오직 말로 모든 것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나의 전능이다. 누구도 내 말에서 그 근원이나 목적을 찾지 못한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 오직 내 인도에 따라 행동하고, 내 공의에 따라 내 뜻에 맞게 모든 일을 하여 나의 집을 공의롭고 평안하게 하고,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존재하게 해야 한다.

나의 심판이 모든 이에게 임하고, 나의 행정이 모든 이에게 미치며, 나의 말과 본체가 모든 이에게 드러날 때가 바로 나의 영이 크게 역사할 때이다(바로 이때, 복을 받을지 화를 입을지가 분명히 가려짐). 나의 말이 나오면 나는 누가 복을 받을 자인지, 누가 화를 입을 자인지 정확히 가려낼 수 있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해서 한눈에 알 수 있다(내 인성에 입각해 하는 말이다. 그러니 이는 나의 예정·선택과 모순되지 않는다.). 나는 산천 만물과 온 우주 세상을 두루 누비며 구석구석 감찰하고 깨끗이 정리할 것이다. 따라서 불결한

곳이나 음란한 땅들은 전부 내 말에 의해 무(無)로 돌아가고 깨끗이 불살라질 것이다. 나에게는 그 무엇도 문제 될 것이 없다. 만약 지금이 내가 세상을 멸하기로 예정한 때라면 나는 말 한 마디로 온 세상을 삼켜 버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므로 반드시 모든 것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래야 내 계획이 어긋나지 않고, 내 경영이 방해받지 않는다. 나는 어떻게 해야 이치에 맞는지 알고 있다. 나에게는 나의 지혜와 나만의 계획이 있으니 사람은 조금이라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내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것은 내 행정을 거스르는 일이다. 여기에서 내 행정의 엄함과 원칙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하나는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행정을 거스르는 모든 자를 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진노를 지니고 내 행정을 거스르는 모든 자를 저주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내 행정의 집행 원칙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집행하며,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아무리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이를 통해 나의 공의와 위엄, 진노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땅과 세상에 속하고, 내 뜻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불사를 것이다. 나의 말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고, 또한 밝혀진 비밀도 있다. 그러므로 관념과 사유로는 사람이 영원히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은 반드시 관념과 사유를 벗어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 경영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이렇게 해야만 나의 장자들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하려는 일을 이룰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제 103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97)

시온아! 환호하라! 시온아! 노래하라! 내가 승전고를 울리며 돌아왔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만민들아! 어서 질서 있게 정렬하라! 만물아! 모두 멈추어라. 나의 본체가 전 우주를 향하고, 나의 본체가 세상의 동방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누가 엎드려 경배하지 않겠느냐? 누가 참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겠느냐? 누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앙망하지 않겠느냐? 누가 찬미하지 않겠느냐? 누가 환호하지 않겠느냐? 나의 백성들은 반드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나의 나라에는 필히 내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산천 만물이 환호를 그치지 않고, 기쁨의 춤을 멈추지 않는구나. 이 순간, 그 누구도 감히 물러가지 못하고, 그 누구도 감히 일어나 대적하지 못하니 이는 나의 기묘한 행사이자 큰 능력이다! 나는 모든 것들이 나를 경외하고 나를 찬미하게 할 것이다. 이는 내 6 천 년 경영의 최종 목적이자 내가 정해 놓은 일이니 어떤 사람도, 사물도, 일도 감히 일어나 대적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모두 나의 산(내가 이후에 창조할 세계를 가리킴)으로 모여들 것이고, 반드시 내 앞에 엎드릴 것이다. 나는 위엄과 심판, 그리고 권병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몸으로 있을 때를 가리킨다. 육신에도 권병이 있지만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기에 완전히 영광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육신으로 장자들을

얻었지만 영광을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시온에 돌아가 형상이 바뀌어야만 권병을 지니게 되었다고, 즉 영광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다. 모든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파멸되고, 또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세워지고 이뤄진다. 이것이 바로 나의 큰 능력이자 권병이다. 나에게는 능력과 권병이 넘쳐 나기에 그 누구도 나를 가로막지 못한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이겼고, 모든 패역한 자식들을 이겼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의 장자들과 함께 시온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모두 나의 장자들을 보고 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장자들을 얻는 목적이며, 또한 창세 때부터 계획해 놓은 것이다.

모든 것이 자리를 잡는 날이 바로 내가 시온에 돌아가는 날이다. 그날은 분명 만민이 기념할 것이다. 내가 시온에 돌아갈 때, 땅의 만물이 침묵하고 땅의 모든 것이 평온해질 것이며, 내가 시온에 돌아가고 나면 모든 것 또한 원래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그때 나는 시온에서 하는 나의 일을 시작할 것이다.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를 벌하며, 나의 공의를 시행하고 나의 심판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말로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사람과 사물로 하여금 형벌을 내리는 내 손맛을 느끼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나의 모든 영광과 모든 지혜, 나의 완전함을 보게 하리니, 아무도 감히 판단하지 못할 것이다. 내게는 모든 것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로써 모든 사람에게 나의 모든 존귀를 보게 하고, 나의 온전한 승리를 직접 보게 할 것이다. 내게는 모든 것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로써 나의 큰 능력과 권병을 볼 수 있다. 감히 범할 자가 아무도 없고, 감히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내게는 모든 것이 열려 있거늘 누가 감히 덮어 가리겠느냐? 그런 자는 내가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 나는 천박한 자들을 반드시 중형으로 처벌할 것이고, 그러한 인간 말종을 반드시 내 시야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또한 그런 자를 철장(鐵杖)으로 다스리고, 나의 권병으로 인정사정없이 심판할 것이다. 나는 인간처럼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며, 위엄 있고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모두가 이 점을 인식하고 깨달아 '아무 이유 없이' 내게 죽임을 당하거나 파멸되는 일을 피해야 할 것이다. 나의 채찍은 나를 거스르는 모든 이를 친다. 그자가 나의 행정을 알든 모르든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 나의 본체는 거스르는 자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를 사자라고 일컫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자는 내가 반드시 칠 것이다. 지금에 와서 나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나는 원래 양이 아니라 사자이니 누구도 거슬러서는 안 된다. 누군가 나를 거스른다면 사정 봐주는 일 없이 당장 죽일 것이다! 여기에서 내 성품을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물러갈 것이다. 사람에게는 아쉬운 일이겠지만, 나는 오히려 홀가분하고 유쾌하며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 나의 성품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제 120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98)

하나님나라에서는 만물이 소생하고 생기를 발산하기 시작한다. 땅의 모습이 변함에 따라 땅의 경계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땅이 갈라질 때, 땅이 합쳐질 때가 곧 내가 열국을 산산조각 낼 때임을 예언한 바 있다. 그때 나는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전 우주를 다시 나눌 것이다. 이로써 온 우주를 바로잡고, 옛 모습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이는 나의 계획이고, 나의 행사이다. 열국 백성이 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때, 나는 즉시 하늘의 모든 풍요로움을 세상에 베풀어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더없이 풍요로워지게 할 것이다. 옛 세상이 존재할 때, 나는 열국에 크게 진노하고 온 우주에 공개할 행정을 반포할 것이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형벌에 처해질 것이다.

내가 온 우주를 향해 말을 할 때 모든 이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즉, 온 우주 아래에서 행한 나의 모든 행사를 보는 것이다. 나의 뜻을 거스르는 자, 다시 말해 사람의 행위로 내게 맞서는 자는 나의 형벌 속에서 쓰러질 것이다. 나는 하늘의 못별을 모두 새롭게 바꿀 것이다. 나로 인해 해와 달도 새롭게 바뀌어 더 이상 예전의 하늘이 아닐 것이며, 땅의 만물도 새롭게 바뀔 것이다. 이는 나의 말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온 우주 아래의 열국을 다시 나누고, 나의 나라로 바뀌, 땅에 있는 나라를 영원히 소멸시키고 나를 경배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또한 땅에 있는 나라는 모두 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할 것이다. 온 우주 아래에 있는 사람 중 마귀에 속하는 자는 모두 멸함을 당할 것이며, 사탄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은 나의 불사름 속에서 쓰러질 것이다. 즉, 현재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종교계는 내가 만민을 형벌할 때 각각 다른 정도로 나의 나라로 돌아올 것이고, 나의 행사로 말미암아 정복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흰 구름을 탄 거룩한 자’가 이미 왔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각기 부류대로 나뉘지고, 각자의 행위에 따라 그에 맞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는 모두 멸망할 것이나 땅에서의 행위가 나와 관련이 없는 자는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땅에 존재하고, 아들과 백성들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만국 만민에게 나타나고, 땅에서 친히 음성을 발할 것이며, 나의 대업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여 모든 사람이 이를 직접 목도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이 깊어짐에 따라 나는 또한 온 우주의 모습을 관찰하였다. 만물이 나의 말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하늘도 변하고, 땅도 변하고, 사람도 원래의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은 서서히 각기 부류대로 나뉘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종족’에게로 돌아간다. 나는 이에 크게 기뻐한다. 나를 방해하는 것이 없으므로 어느새 나의 대업은 이루어지고 만물도 어느새 모두 변하였다. 나는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것을 각기 종류대로 나누어 형체가 있는 모든 것을 분류하였다. 나의 경륜이 끝나려 할 때, 나는 세상을 창조했을 때의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모든 것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 완전히 변화시켜 모든 것이 나의 계획 안에 포함되도록 할 것이다. 때가 되었도다! 내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곧 완성될 것이다. 더러운 옛 세상아! 너는 반드시 나의 말에 무너질 것이다! 반드시 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사라질 것이다! 만물들아! 나의 말에서 다시 생명을 얻고,

‘주재자’를 얻으리라! 흠 없이 거룩한 새 세상아! 만드시 나의 영광으로 다시 소생할 것이다! 시온산아!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 내가 이기고 돌아왔노라! 내가 만물 가운데서 온 땅을 살펴보니 땅의 사람은 다시 새 삶을 시작했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내 백성들아! 어찌 나의 빛 속에서 부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찌 나의 인도 아래에서 기뻐 뛰지 않을 수 있겠느냐? 땅은 기뻐 환호하고, 물은 즐거움에 크게 웃는도다! 부활한 이스라엘아! 어찌 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긍지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가 눈물을 보였었느냐? 누가 애곡했었느냐? 지난날의 이스라엘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세상 위에 우뚝 섰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섰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만드시 내 백성으로 인해 생존의 근본을 얻게 될 것이다! 가증스러운 애굽아! 아직도 나를 대적하는 것이냐? 어찌 나의 긍휼을 틈타 내가 주는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어찌 나의 형벌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는 만드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나를 대적하는 자는 만드시 영원토록 나에게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사람을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의 모든 소행을 쉬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온 땅을 감찰할 것이며, 공의, 위엄, 진노, 형벌로 세상의 동쪽에 나타나 만민에게 나타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 제 26 편> 중에서

제 4 절 성육신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99)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을 일컫는다. 즉,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들 가운데서 육신의 형상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육신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먼저 육신, 그것도 정상 인성을 갖춘 육신이 필요하다. 이것은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함의는 육신으로 사역하고 육신으로 생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본질이 육신이 되고 사람이 된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의 삶과 사역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직분을 이행하기 전의 삶이다. 일반인의 가정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인성으로 살며,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 윤리와 법칙, 정상적인 필요(의식주 등), 정상적인 연약함과 정상인의 희로애락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신성이 아닌 완전히 정상적인 인성으로 살면서 정상인들이 하는 모든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한 후의 삶이다. 이때도 여전히 정상 인성의 외형을 지닌 평범한 인성으로 살며, 겉모습에는 조금도 초자연적인 부분이 없지만,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 살아간다. 이때의 정상 인성은 오로지 신성의 사역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정상 인성이 이미 직분을 이행할 수 있는 인성으로 성숙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단계의 삶은 정상 인성으로 직분을 이행하는 삶이자, 정상 인성과 완전한 신성의 삶이다. 첫 번째 단계의 삶이 완전히 평범한 인성으로 사는 삶인 이유는 그때의 인성이 신성의 모든 사역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았으며, 인성이 성숙해질 때까지, 즉 직분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인성으로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그가 이행해야 할 직분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신인 이상,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의 삶은 그저 정상 인성의 삶에 불과하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의 삶은 인성으로 사역을 충분히 담당하고 직분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삶이다. 그러므로 성육신 하나님이 직분을 이행하는 기간의 삶은 바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의 삶이다. 만약 성육신 하나님이 태어나자마자 본격적으로 직분을 이행하고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만 행한다면, 육신의 본질은 없어진다.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의 인성은 육신의 본질을 위해 존재하고, 인성이 없는 육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성이 없는 사람은 비인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듯, 육신의 인성은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고유한 속성이 되었다. 만약 누군가가 “성육신 하나님께는 신성만 있고 인성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모독이다. 이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성육신의 원칙과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는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한 후에도 여전히 인성의 옷을 입은 신성으로 살며 사역한다. 다만, 이때의 인성은 오로지 신성이 정상 육신에서 사역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역사하는 것은 인성 안에 있는 신성이다. 즉, 신성으로 사역하는 것이지 인성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신성은 인성에 가려져 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인성이 아닌 완전한 신성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단, 역사하는

것은 육신이며, 이 육신을 사람이라고도,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되고, 사람의 외형과 본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본질을 지닌 사람이기에 창조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높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높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외형을 지닌 사람들 가운데, 인성을 지닌 모든 사람 가운데 오직 그만이 성육신한 하나님 자신이며, 그 외에는 모두 창조된 인류인 것이다. 똑같이 인성을 갖추고 있지만, 창조된 사람은 인성 말고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성육신 하나님은 다르다. 그의 육신에는 인성 말고도 무엇보다 중요한 신성이 있다. 인성은 육신의 외관으로 알아볼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도 있지만, 신성은 쉽게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는다. 신성은 인성이 있는 전제하에 나타나며, 사람의 상상처럼 그렇게 비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는 신성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장 측량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많은 말을 했음에도 너희 대다수는 이에 대해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했다고 하면 그의 본질은 인성과 신성의 결합체이다. 이 결합체를 하나님 자신이자 땅의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육신’의 본질>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00)

땅에서 예수의 삶은 어디까지나 육신의 정상적인 삶이었다. 그는 육신의 정상 인성으로 살았다. 그가 직분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사역하고 말씀하는 권병,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병 등 비범한 일들이 기본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29 세가 되기 전, 그러니까 직분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그가 단지 정상 육신일 뿐이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정상 육신인 데다가 직분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그에게서 하나님이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저 그를 정상적인 일반 사람으로 봤을 뿐이다. 당시 일부 사람들이 그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다. 사람이 보기에 그는 일반인의 아들이었으며, 전혀 하나님이 입은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가 직분을 이행할 때 많은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는 다 그가 정상 인성의 외형을 지닌 그리스도였기 때문이다. 그의 정상 인성과 그가 행한 사역, 이 두 가지는 모두 첫 번째 성육신의 의의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하나님이 참으로 육신에 임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되었음을 실증하기 위해서였다. 사역을 하기 전까지 정상 인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평범한 육신이었음을 말해 준다. 그것은 그가 사역을 시작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거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은 전부 정상 인성의 육신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가 이적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육신이 하나님의 권병을 지니고 있고, 그의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이기 때문이다. 그런 권병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그렇다고

그가 육신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가 이행해야 할 직분 중의 사역이었고, 인성으로 가려진 신성의 발현이었다. 그는 어떻게 이적을 보이든, 어떻게 권병을 나타내든, 여전히 정상 인성으로 살았고, 여전히 정상 육신이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부활하기 전까지 계속 정상적인 육신으로 살았다. 사람에게 은혜를 내리고, 병을 고쳐 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모두 그의 직분이었고, 정상적인 육신으로 행한 것이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무엇을 하든 정상 인성의 육신을 벗어나지 않았다. 비록 그가 하나님 자신이고, 또 그가 행한 일들이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라고 해도, 그는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었기에 의식주가 필요했고, 정상 인성으로서의 필요한 것이 있었으며, 정상인의 이성과 사유를 가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정상인이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이 정상인은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정상 인성을 지닌 육신이지 비범한 육신이 아님을 증명한다. 그가 행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첫 번째 성육신으로 완성해야 할 사역, 첫 번째 성육신으로 이행해야 할 직분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육신의 의의는 평범하고 정상적인 한 사람이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하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성으로 신성의 사역을 하며, 이를 통해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다.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육신 된 것, 즉 하나님이 육신 된 것이다. 육신이 하는 사역은 곧 영이 하는 사역이다. 영이 하는 사역은 육신을 통해 실체화되고, 육신을 통해 발현된다. 하나님이 거하는 육신 외에는 누구도 성육신 하나님의 직분을 대신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정상 인성만이 신성 사역을 나타낼 수 있고,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 만일 하나님이 처음 성육신했을 때 29 세 이전까지 정상 인성이 없고, 태어나자마자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세상의 모든 일을 꿰뚫어 보며, 말을 떼자마자 천상의 말씀을 하고, 사람의 생각과 품고 있는 마음을 모두 알 수 있었다면, 이런 사람은 정상인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육신은 육신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성육신의 의의와 본질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에게 정상 인성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성육신’ 하나님임을 증명한다. 그가 정상인의 성장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더더욱 그의 육신이 정상적이었음을 말해 준다. 또한 그의 사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영’이 ‘육신’ 된 존재임을 충분히 보여 준다. 하나님은 사역의 필요로 인해 육신이 되었다. 다시 말해, 그 단계의 사역은 반드시 육신, 즉 정상 인성을 통해 해야 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의 전제 조건이며, 두 차례에 걸친 성육신의 실상이다. 아마 사람들은 예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적을 보였고, 땅에서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정상 인성의 모습이 조금도 없었으며, 그에게는 정상 인성의 필요나 연약함도, 사람의 희로애락도, 사람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의식주도 없었으며, 또한 사람의 상상처럼 초자연적인 두뇌와 비범한 인성만 지녔을 뿐 정상인의 두뇌 사유는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사람은 하나님이라면 정상적인 두뇌의 사유도, 정상 인성의 삶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오직 정상인이나 합격한 사람만이 정상 인성이 갖춰야 할 사유와 정상 인성의 삶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상상하는 것은 전부 사람의 뜻이고 사람의 관념이며, 그런 관념은 하나님 사역의 원 뜻에

위배된다. 정상적인 두뇌의 사유가 있어야 정상적인 이성과 인성이 유지될 수 있고, 정상 인성이 있어야 육신의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며, 육신의 정상적인 기능이 있어야 육신의 모든 생활이 정상적이 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육신으로 사역해야 성육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성육신 하나님께 오직 육신의 외형만 있고 정상적인 두뇌의 사유가 없다면, 그 육신은 인성과 이성을 지니지 않았으며, 합격한 인성은 더더욱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인성이 없는 그런 육신으로 성육신이 이행해야 할 직분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겠느냐? 정상적인 두뇌의 사유는 사람의 모든 생활을 유지시켜 준다. 하지만 정상적인 두뇌의 사유가 없게 된다면 그 사람은 비인간인 것이다. 다시 말해, 두뇌의 사유가 없는 사람은 정신병자이며, 인성 없이 신성만 있는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입은 육신에 어떻게 정상 인성이 없을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께 인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상인이 하는 모든 활동은 두뇌의 정상적 사유에 의해 유지된다. 만약 두뇌의 정상적 사유가 없다면 사람의 활동은 규칙이 깨질 것이며, 심지어 옳고 그름과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윤리까지 잃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성육신 하나님께 두뇌의 정상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육신은 자격 미달이다. 즉, 정상적인 육신이 아니라는 말이다. 두뇌의 사유가 없는 이런 육신은 전혀 신성 사역을 담당할 수 없으며, 정상 육신으로 해야 하는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사람들과 함께 땅에서 생활하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성육신의 의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 본질도 잃게 된다. 성육신 하나님의 인성은 육신 안에 있는 신성의 정상적인 사역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며, 정상적인 두뇌의 사유는 정상 인성과 육신의 모든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시켜 준다. 정상적인 두뇌의 사유는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그 육신에 정상 인성의 사유가 없다면 하나님은 육신으로 사역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육신으로 해야 할 사역을 영원히 완성할 수 없다. 성육신 하나님은 정상적인 두뇌의 사유를 지니고 있지만, 그의 사역에는 사람의 사유가 섞여 있지 않다. 그는 정상 사유를 지닌 인성으로 사역하고, 사유를 지닌 인성의 전제하에서 사역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두뇌의 사유를 발휘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거하고 있는 육신의 사유가 얼마나 고차원적이든, 그의 사역에는 논리학도, 사고학도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의 사역은 육신의 사유를 통해 상상해 낸 것이 아니라 신성의 사역을 인성으로 직접 나타낸 것이다. 그의 사역은 전부 그가 이행해야 할 직분이지, 그가 머리로 생각해서 만든 것은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그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십자가에 달린 것은 머리로 상상한 것이 아니며, 두뇌의 사유를 지닌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의 정복 사역도 마찬가지로 성육신 하나님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직분이다. 하지만 이 사역은 전부 사람의 뜻이 아닌 신성이 해야 하는 일로, 육에 속하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육신 하나님은 반드시 두뇌의 정상적인 사유와 정상 인성이 필요하다. 그것은 그가 정상 사유를 지닌 인성으로 사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의 본질이자,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01)

예수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단지 정상 인성으로 살았다. 사람은 그가 하나님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성육신 하나님임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은 그저 그를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을 뿐이다. 이 지극히 평범한 정상 인성은 하나님이 육신 되었음을 실증하고, 은혜시대는 영이 아닌 성육신 하나님이 사역한 시대임을 실증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육신으로 실체화했으며, 하나님이 성육신한 시대에는 육신이 영의 모든 사역을 한다는 것을 실증했다. 정상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정상 인성과 정상적인 이성, 정상적인 사유를 가진 육신으로 실체화한 것이다. '실체화'란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영이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이 정상 인성을 지닌 육신에 거하면서 그 육신을 통해 신성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체화', 즉 말씀이 육신 된 것이다. 처음 성육신하였을 때는 사람을 위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야 했다. 그가 하는 사역이 속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인류를 속량하기 위해 사람에게 공훈과 관용을 베풀어야 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그의 사역은 바로 사람을 위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다. 그 사역은 그가 사람을 죄와 더러움에서 구원할 것임을 예시했다. 은혜시대이기에 그는 사람의 병을 고쳐 주어야 했고,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다. 이러한 이적과 기사는 은혜시대 은혜의 상징이다. 은혜시대에는 주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 또는 물질적인 축복이 은혜시대의 상징이자 예수를 믿는 상징이 되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병을 고쳐 주고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은혜시대에 예수가 지닌 육신의 본능이었다. 영이 육신으로 실체화하여 행한 사역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시종 육신에 거하면서 그런 사역을 행했으며 육신을 초월하지는 않았다. 어떤 식으로 사람의 병을 고쳐 주었든 여전히 정상 인성을 지니고, 인성의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 성육신의 시대에 육신이 영의 모든 사역을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어떻게 사역하든 전부 육신으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행한 사역 때문에 사람은 그의 육신이 육신의 본질을 완전히 지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의 육신이 이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아주 가끔 육신을 초월하는 사역을 할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모두 그가 직분을 이행한 후에 나타난 일이다. 그가 40 일 동안 시험을 받은 것이나 산 위에서 형상을 바꾼 것이 그 일례다. 그러므로 예수의 몸으로 성육신한 의의가 완전해지지 않았고, 일부만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육신의 모든 삶이 지극히 정상이었으나, 사역을 시작한 후로는 육신의 외형만 유지했다. 그가 하는 사역은 신성의 발현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정상적인 기능을 뛰어넘었다. 어쨌든 하나님이 입은 육신인 만큼 육에 속하는 사람과 같지 않았다. 물론 그도 평상시에는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잠을 자고, 집에 사는 등 정상적인 의식주 활동을 했고, 정상인의 이성과 두뇌 사유를 지니고 있었다. 사람이 보기에 그는 여전히 정상인이었으나, 그가 행한 사역은 아주 초자연적인

것이였다. 사실, 그는 어떤 사역이든 평범한 정상 인성으로 했다. 또한 그가 사역하는 때일수록 그의 이성은 더욱 정상적이었고, 그의 생각은 더욱 맑고 또렷했으며, 모든 정상인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었다. 이러한 이성과 생각도 바로 성육신 하나님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이다. 신성의 사역은 가장 정상적인 이성과 가장 맑고 또렷한 생각을 지닌 육신을 통해 발현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육신으로 신성의 사역을 발현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예수는 33년 반 동안 세상에 있었다. 그는 33년 반 동안 시종일관 정상 인성을 유지했다. 다만 그가 3년 반 동안 행한 직분 사역 때문에 사람은 그가 매우 비범하고, 그전보다 훨씬 초자연적이라고 느꼈을 뿐이다. 사실, 예수는 직분을 이행하기 전이나 후나 정상 인성에 변함이 없었으며, 항상 똑같은 인성을 유지했다. 다만 직분을 이행하기 전과 후의 차이점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육신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성육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가 본래 갖고 있던 정상 인성을 유지한다. 하나님은 성육신한 이상 육신으로 살아야 하고, 정상 인성의 육신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직분을 이행하든 안 하든, 인성은 육신의 근본이므로 그의 육신이 지닌 정상 인성은 없어서는 안 된다. 직분을 시작하기 전, 예수의 육신은 완전하고 정상적이었으며, 정상인의 모든 활동을 해 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서 초자연적인 면이나 이적을 조금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때 그는 그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였다. 다만 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간절하고 진실하게 추구했을 뿐이다. 이는 그의 가장 정상적인 인성의 모습이었다. 그는 직분을 이행하기 전까지 어떤 사역도 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그의 신분은 물론, 그의 육신의 남다른 점도 알아채지 못했다. 당시 그는 어떤 이적도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 자신의 어떤 사역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한 후에도 여전히 정상 인성의 외형을 지니고 정상 인성의 이성으로 살았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행하며, 평범한 인간, 즉 육에 속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정상 인성이 없다고 여겼으며, 그를 완전하고 정상적인 육신이 아닌 불완전한 육신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행한 사역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를 정상 인성이 없는 육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은 사람이 성육신의 의의를 알지 못해서 생긴 것으로, 모두 잘못된 것이다.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이유는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은 신성 사역이고, 그 사역은 정상 인성의 육신으로 발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신에 거하며, 인성을 통해 사역하면서 정상 인성이 가려졌기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성만 있고 인성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육신’의 본질>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02)

하나님은 처음 성육신했을 때 성육신의 사역을 완전히 끝내지 않았다. 다만 육신이 해야 할 첫 단계의 사역만 마쳤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육신의 사역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다시 한번 육신으로 돌아와서 육신의 모든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살아 내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도를 가장 정상적이고 평범한 육신으로 나타냄으로써 육신으로 끝내지 못한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입은 육신은 첫 번째의 육신과 본질 면에서 같지만, 첫 번째 육신보다 더 실제적이고 정상적이다. 이로 인해 두 번째의 성육신이 받는 고난은 첫 번째 성육신 때보다 더 크다. 그러나 그 고난은 육신의 직분으로 인해 생긴 것이지, 패괴된 인간이 받아야 할 고난과는 다르다. 또한, 그 고난은 육신이 정상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가장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육신으로 직분을 이행하기에 그 육신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육신이 정상적이고 실제적일수록 직분을 이행할 때 겪는 고난은 더 커진다. 하나님의 사역은 지극히 평범한 육신으로 발현되기에 초자연적인 모습이 조금도 없다. 육신이 정상적인 데다가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까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가 겪는 고난은 초자연적인 면을 가진 육신이 겪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다. 그 고난은 모두 육신이 실제적이고 정상적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다. 두 번의 성육신이 직분을 이행하면서 겪는 고난을 통해 성육신의 본질을 알 수 있다. 사역을 담당하는 육신이 정상적일수록 겪는 고난이 더 크고, 사역을 담당하는 육신이 실제적일수록 사람의 관념은 더욱 심해지며, 감당해야 할 위험도 커진다. 그러나 실제적인 육신일수록, 그리고 정상인의 완전한 이성과 요구를 지닌 육신일수록 하나님이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을 더 잘 담당할 수 있다. 예수는 육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육신으로 속죄 제물이 되었다. 즉, 정상 인성을 지닌 육신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사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구원한 것이다. 두 번째의 성육신은 완전한 육신으로 정복 사역을 하며, 사탄을 물리친다. 완전히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육신만이 완전한 정복 사역을 할 수 있고,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면과 정상적인 면을 통해 이루는 성과이지, 초자연적인 이적과 계시를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성육신한 하나님이 이행해야 하는 직분은 말씀을 하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 사람을 정복하고, 온전케 한다. 즉, 영이 육신으로 실체화하여 행하는 사역은 말씀을 하는 것이며, 육신의 기본 사역 또한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을 완전히 정복하고, 드러내며, 온전케 하고, 도태시키는 목적을 이룬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은 정복 사역을 통해 철저히 완전해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첫 번째의 속죄 사역은 성육신의 초기 사역에 불과하며, 정복 사역을 하는 육신이야말로 성육신의 모든 사역을 보완한다. 성별을 봐도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로, 성육신의 의의가 완전해졌으며, 이로써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그 어떤 관념도 가지지 않게 된다. 즉, 하나님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으며,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에는 성별의 구분이 없다. 그는 남자를 만들고 여자도 만들었으며, 그에게는 성별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단계 사역에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 성과를 얻는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이며, 또 다른 이유는 이번 성육신의 사역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본능은 말씀하고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그가 정상

인성으로 하는 사역은 이적을 보이거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두 번째로 입은 육신은 첫 번째의 육신보다 훨씬 정상적이고, 또한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번 성육신이 예수의 성육신과 다르며, 성육신이기는 하나 완전히 같지는 않은 것이다. 예수는 정상적이고 평범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따라다녔다. 이번 성육신에게서는 사람의 병을 고쳐 준다거나 귀신을 쫓는다거나 물 위를 걷는다거나 40 일 동안 금식하는 등의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떤 이적과 기사도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예수가 했던 것과 같은 사역을 하지 않는다. 이는 그가 입은 육신의 본질이 예수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직분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망가뜨리지도, 방해하지도 않는다. 실제적인 말씀으로 정복하기에 이적으로 사람을 탄복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 단계는 성육신의 사역을 완전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오늘날, 내가 볼 수 있는, 육신의 하나님은 완전한 육신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면도 지니고 있지 않다. 평범한 사람들처럼 병도 앓고 의식주 활동도 하는 완벽한 육신이다. 만약 이번 성육신도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누군가에게 죽으라 명해 그 사람이 바로 쓰러진다면 어떻게 정복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 사역을 이방으로 확장할 수 있겠느냐? 사람을 위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은혜시대의 사역이자 구속 사역의 첫걸음이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십자가에서 구원했기에 더 이상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 말세에 예수와 동일한 ‘하나님’이 와서 병을 고쳐 주고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같아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령이 입은 육신이다. 한 번 이룬 것은 영원히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성육신의 사역은 첫 번째 성육신이 행한 사역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세에 정복 사역을 평범하고 정상적인 육신으로 실체화한다. 그는 사람을 위해 병을 고쳐 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으며, 그저 육신으로 말씀하고 사람을 정복한다. 이런 육신만이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며,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을 완전케 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육신’의 본질>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03)

성육신 하나님이 이 단계에서 고난을 받거나 직분을 이행하는 것은 모두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다. 이는 마지막 성육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두 번까지일 뿐, 세 번째는 없다. 하나님은 처음에 남자로, 두 번째는 여자로 성육신하여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육신의 형상을 완전케 하였다. 게다가 두 번의 성육신 사역은 이미 육신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끝냈다. 첫 번째 성육신이 정상 인성을 지니고 있었던

이유는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단계에도 정상 인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의의는 첫 번째와 다르며, 첫 번째보다 훨씬 깊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가 행하는 사역의 의의 또한 더 깊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성육신한 이유는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케 하기 위함이다. 이 단계의 사역을 철저히 끝내면 성육신의 모든 의의, 즉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이 철저히 끝나므로 더 이상 육신이 해야 할 사역은 없다. 다시 말해, 앞으로 하나님은 다시는 육신으로 와서 사역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인류를 구원하고 온전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성육신의 사역을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면 절대로 쉽게 육신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가 육신으로 와서 사역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육신이자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으며, 인류를 속량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사탄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다! 사탄은 인류를 패괴시키기 위해 역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한다. 사탄은 사람을 무저갱에 밀어 넣고, 하나님은 사람을 무저갱에서 구원한다. 사탄은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의 권세 아래에 복종하게 한다. 그는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역은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해 성과를 얻는다. 이 육신의 본질은 인성과 신성의 결합이며, 정상 인성을 갖춘 육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없다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성과를 얻을 수 없고, 육신에 정상 인성이 없다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 또한 성과를 얻을 수 없다.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에는 반드시 정상 인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육신의 원 뜻과 어긋나게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육신’의 본질>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04)

무엇 때문에 예수의 그 단계 사역이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케 하지 못했다고 하겠느냐? 그것은 말씀이 완전히 육신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가 행한 사역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 중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구속 사역만 했을 뿐, 사람을 완전히 얻는 사역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에 두 번째로 성육신한 것이다. 이번 단계 사역도 평범한 육신으로 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한다. 그에게는 비범한 인성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완전한 사람, 완전한 육신으로 사역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비범한 면이 조금도 없는 육신이자,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그는 이적을 나타내지도, 권능을 행하지도 않으며, 예배당에서 종교의 실상을 폭로하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는다. 사람이 보기에 두 번째 성육신이 하는 사역은 첫 번째 성육신이 한 사역과 완전히 다르며, 심지어는 똑같은 점이 하나도 없다. 또한 이번 단계에서는 첫 단계의 사역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두 번째로 하는 사역은 첫 번째에 한 사역과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근원이 하나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들의 근원이 하나인지 아닌지는 육신으로 하는

사역의 성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육신의 외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3 단계 사역에서 총 두 번 성육신하였다. 또한 두 번의 성육신 사역은 모두 시대를 열고 새로운 사역을 하는 것으로, 두 번의 성육신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 사람의 육안으로는 이 두 육신의 근원이 하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다. 물론, 이는 사람의 육안으로 알아볼 수 없고, 사람의 사유로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본질은 원래부터 하나다. 그들의 사역은 하나의 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의 성육신의 근원이 하나인지를 알아보려면 육신의 출생 연대나 출생지, 혹은 육신의 다른 조건들을 볼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나타낸 신성 사역을 봐야 한다. 두 번째의 성육신 사역에서는 예수가 행한 사역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역할 때마다 이전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길을 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성육신한 이유는 첫 번째 육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긴 인상을 더 깊게 하거나 공고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 육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긴 형상을 보완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이며,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규례를 깨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잘못된 형상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하나님 자신이 행한 어느 한 단계의 사역도 사람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게 할 수는 없다. 일부만 알 수 있을 뿐, 완전히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성품을 다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불완전하다. 사람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남김없이 다 표현할 수 없을진대, 단 한 단계의 사역으로 어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밝힐 수 있겠느냐? 육신의 사역은 정상 인성에 가려져 있기에 사람은 오로지 신성의 말씀을 통해 그를 알 수 있을 뿐, 육신의 외형을 보고서는 그를 알 수 없다. 육신을 입고 온 그는 서로 다른 사역을 통해 사람에게 그의 사역이 단계마다 다르다는 점을 알게 한다. 그래야 사람은 육신으로 하는 그의 사역을 일정 범위에 규정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두 번에 걸친 성육신의 사역이 서로 다르지만, 육신의 본질은 같고 사역의 근원은 동일하다. 다만 두 번의 성육신은 서로 다른 두 단계의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고, 두 시대에 나타났을 뿐이다. 하지만 어찌 됐든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본질은 같고 그들의 근원도 같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육신’의 본질>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05)

성육신 하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이며, 이 육신은 육에 속한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르다. 다르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육에 속하지 않은, 영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정상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갖고 있으며, 그의 신성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다. 그의 정상 인성은 육신으로 하는 모든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신성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인성이든 신성이든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 그리스도의 본질은 영이자

신성이기에 그의 본질이 곧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다. 그 본질이 그의 사역을 방해할 리 없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망치는 일도, 자신의 뜻에 위배되는 말도 할 리가 없다. 그렇기에 성육신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경영을 방해하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누구나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할 점이다. 성령 역사의 본질은 인류 구원과 하나님 자신의 경영을 위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역 역시 인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한 이상 그의 본질을 육신에 실체화하여 육신이 충분히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 그러므로 성육신한 기간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 영의 모든 사역을 대신하고, 성육신 기간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핵심으로 하며, 다른 어떤 시대의 사역도 섞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육신한 이상 육신의 신분으로 사역하며, 육신으로 온 이상 육신에서 그가 해야 할 사역을 완성한다. 하나님의 영이든 그리스도든 어쨌든 모두 하나님 자신이므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하고 직분을 다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06)

하나님의 본질은 그 자체로 권병을 지니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권병에서 나온 모든 것에 순종할 수도 있다. 영의 사역과 육신의 사역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은 만물에 대한 권병을 지니고, 하나님의 본질이 있는 육신 역시 권병을 지니고 있지만,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이를 수 없고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권병이지만, 그의 육신은 그의 권병에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는 말에 내포된 의미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할 수 있고, 사람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교란하지 않으며, 모순되는 사역은 더욱 하지 않는다. 영과 육신이 하는 사역의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이든 육신이든 모두 같은 뜻을 이루려 하며, 같은 사역을 경영하기 때문이다. 비록 영과 육신이 서로 아무 상관 없는 두 가지 속성을 지닌다고는 하나 그 본질은 동일하다. 모두 하나님 자신의 본질과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에게는 패역의 성분이 없으며, 하나님의 본질은 선하다. 그는 모든 아름다움과 선함의 발현이자 모든 사랑의 발현이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일을 할 수는 없다.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감수하지, 다른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는다. 하나님에게는 독선적이거나 자만하는 성분이 없고, 오만 방자하거나 교활한 성분도 없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은 모두 사탄에게서 비롯된다. 사탄은 모든 추함과 악함의 근원이다. 사람이 사탄과 같은 속성을 갖게 된 이유는 사탄에 의해 파괴되고 가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탄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속성만 있을 뿐, 사탄의 속성은 없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생활할 때 사역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의 육신이 아무리 연약해져도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며 거역하는 일은 더더욱 저지르지 않는다. 육신이 고통받을지언정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는 예수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과 같다. 사람에게에는 자신의 선택이 있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자신의 선택이 없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의 신분을 지니고 있다고는 하나 그는 똑같이 육신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준 사명을 완수한다. 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본질만 있을 뿐 하나님의 본질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존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지도 못한다. 그리스도를 제외한 사람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저지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직접 담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경영을 자신의 당연한 본분으로 삼아 이행할 수도 없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탄의 속성이다. 이 두 가지 속성은 공존할 수 없으므로 사탄의 속성을 가진 자를 그리스도라 부를 수는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본질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과 앞날을 위함이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07)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의 제약을 받는다. 비록 그가 육신에 거하고 있으나 그의 인성이 육에 속한 사람의 것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 그에게는 특정한 성격이 있으며, 그 성격 역시 신성의 제약을 받는다. 신성에는 연약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연약함이란 그의 인성을 두고 한 말이다. 이 연약함은 신성을 어느 정도 제약하지만 무한정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와 기한이 있다. 신성의 사역을 해야 할 때가 되면 인성이 어떠한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전적으로 신성의 지배를 받는다. 인성의 정상 생활 이외에도 인성의 모든 활동은 신성의 영향을 받고, 신성에 좌우된다. 그리스도가 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의 사역과 서로 방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이 인성은 비록 처세에 미숙하지만 신성의 정상 사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성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직접적으로 신성에 지배되며, 그에게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이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의 인성은 신성이 지배하고 사역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성이며, 신성의 사역을 가장 잘 나타내고 신성의 사역에 가장 잘 순종할 수 있는 인성이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사역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육신을 입은 사람이 이행해야 할 본분을 이행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드릴 수 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으며, 그의 신분은 하나님 자신의 신분이다. 그는 그저 하나의 피조물로

이 땅에 왔기에 피조물의 외형, 전에 없었던 인성을 갖게 되었을 뿐이다. 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 이는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이요, 사람이 따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신분이 하나님 자신임에도 그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육신의 위치에서 행하는 일이므로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드린다’는 표현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역시 그의 어떠함이다. 사람에게 요구하기 전에 그는 이미 그렇게 행하였다. 그는 절대로 자신은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어떠함이기 때문이다. 그가 어떻게 사역하든 하나님을 거역할 리 없고, 그가 사람에게 어떻게 요구하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리 없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경영을 위한 것이다. 신성을 지닌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보다도 높으므로 그는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권병을 갖고 있다. 그 권병은 신성이자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어떠함이다. 그 성품과 어떠함으로 그의 신분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그의 인성이 아무리 정상일지라도 그에게 하나님 자신의 신분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가 어떤 위치에서 말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든, 그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은 흔히 그리스도의 정상 인성을 그리스도의 결점으로 간주한다. 그리스도가 아무리 신성의 어떠함을 나타내도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또한 그리스도가 순종하고 자신을 낮출수록 어리석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더욱 경시한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멸시하면서 위대한 형상을 한 ‘위인’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숭배하기도 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까닭은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정상 인성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만약 그리스도가 인성에 가려져 있지 않고,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으며, 비범한 인성을 지니고 있다면, 아마 누구도 그를 거역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늘 하늘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인성도, 피조물의 속성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그리스도는 멸시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08)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사역하지만, 그가 땅에 온 목적은 사람에게 그가 입은 육신의 형상을 보여 주려는 것이 아니다. 그를 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람을 인도하여 새 시대로 진입시키려 온 것이다. 그리스도가 입은 육신의 역할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을 위한 것이지, 사람에게 육신의 본질을 완벽히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가 어떻게 사역하든 육신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으며, 모두 정상 인성을 지닌 육신으로 한다. 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본모습을 모두 나타내지는 않는다. 또한 육신이 행하는 사역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초자연적이거나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 자신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행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자신의 행사를 대대적으로 펴뜨리지는 않는다. 그저 자신을 낮추고 감추어 육신에 거할 뿐이다. 그리스도 이외에 그를 사칭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속성이 없다. 교만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거짓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 어떤 육신이 그리스도인지 판별할 수 있다. 거짓 그리스도일수록 자신을 드러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킨다. 거짓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없다. 또한 그리스도에게는 거짓 그리스도의 성분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다.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육신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이지, 사람에게 그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함이 아니다. 그는 사역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입증하고, 그가 드러내는 것으로 자신의 본질을 증명한다. 그의 본질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그의 신분은 그가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과 본질로 결정된다. 그는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지니고,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행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는 영과는 다른 육신이며, 영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외형을 지닌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가 얼마나 정상적이고 연약하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든 그의 신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성육신 하나님에게는 정상 인성과 정상 인성의 연약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성의 기묘함과 측량 불가능함, 그리고 육신의 모든 행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모두 확실히 지니고 있으며, 조금도 공허하거나 초자연적이지 않다. 그가 이 땅에 온 주요 목적은 사역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상 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성의 위력이 아무리 크다 한들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인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인성이 그의 본질은 아니다. 그의 본질은 신성이다. 그러므로 그는 땅에서 직분을 행하기 시작할 때 신성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그의 인성은 그저 육신의 정상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신성이 육신에서 정상적으로 사역하게 할 뿐이고, 사역을 지배하는 것은 오롯이 신성이다. 그가 사역을 완성하면 자신의 직분을 다한 것이다.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의 모든 사역이며, 사람은 사역을 통해 그를 알게 된다. 그는 사역하는 과정에서 신성의 어떠함을 완전히 나타낸다. 거기에는 인성의 성품이 들어 있지 않고, 사유나 사람의 어떠함 또한 들어 있지 않다. 그의 모든 직분이 끝날 때, 그는 자신이 나타내고자 했던 성품을 완벽하게 나타낸 것이다. 그의 사역은 어느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며, 그의 성품 역시 아주 자유롭게 나타난다. 머리로 지배하거나 생각을 통해 가공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환경이 열악하거나 조건이 여의치 않아도 그는 적절한 때에 그의 성품을 나타낸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나타내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다. 그러므로 그를 대적하거나 그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나타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절대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것을 이유로 그리스도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모두 아주 어리석지만, 무엇이 사람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는 알고 있다. 단지 많은 사람이 본인의 속셈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신성은 분명 존재하며, 사람은 육안으로 직접 그의 사역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09)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이 그의 본질을 결정한다. 그는 진심을 다해 자신의 어깨에 놓인 사명을 완성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 이는 모두 그의 본질로 결정된다. 그에게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역시 그의 본질로 결정된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는 까닭은 그가 드러내는 것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언가를 모방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우거나 수년간 양육받은 결과도 아니며, 그가 스스로 배우거나 꾸민 것도 아니다. 사람은 그의 사역과 말씀을 부정하고, 그의 인성과 그가 지닌 정상 인성의 모든 생활을 부정한다. 하지만 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한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는 사실 역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의 형상은 사람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그의 말에는 비범한 분위기가 풍기지 않으며, 그의 사역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천지를 개벽하거나 세상을 뒤흔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분명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이다. 그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를 쉽게 믿지 못하지만 이는 분명 존재하는 사실이다. 그리스도가 직분을 완전히 다하고 나면, 사람은 그의 사역을 통해 그의 성품과 어떠함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함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그가 행한 모든 사역을 종합해 보면, 그는 육에 속한 사람과 같은 육신이 아닌, ‘말씀’으로 된 ‘육신’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땅에서 행하는 사역은 단계마다 대표적인 의의가 있지만, 각 단계의 현실적인 사역을 체험한 사람은 그가 사역하는 의의를 밝히 알지 못한다. 특히 두 번째 성육신이 행한 몇 단계의 사역은 더욱 간파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거나 보기만 했을 뿐, 정작 그리스도는 보지 못한 사람들 중 대다수는 그의 사역에 관해 어떠한 관념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또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역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의 사역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겉모습과 그의 정상 인성이 사람의 기호에 맞지 않기 때문 아니겠느냐? 그리스도가 떠난 후에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정상 인성을 접하지 못한 채 그저 그의 사역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내려놓지 못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그들이 그저 외형만 볼 뿐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으로 그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이 눈을 감고 그리스도의 겉모습을 보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인성은 논하지 않고 신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그의 사역이나 말씀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관념이 이전에 비해 반은 줄어든 것이다. 심지어 사람의 어려움까지도 다 해결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10)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은 성육신한 이상 해야 할 사역을 가져오고,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낼 것이며, 성육신한 이상 사람에게 진리를 가져다주고, 생명을 베풀고, 길을 가리켜 줄 수 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갖추지 않은 육신이라면 분명히 성육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맞는지 알아보려면 그가 나타내는 성품과 말씀으로 확인해야 한다. 바뀌 말해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맞는지, 혹은 참도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그의 본질로 판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인지 아닌지의 핵심은 그 본질(사역, 말씀, 성품 등 훨씬 다양한 측면)에 있지, 겉모습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겉모습을 살피느라 그 본질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무지몽매한 것이다. 겉모습은 본질을 결정할 수 없다. 더구나 하나님이 한 사역이 사람의 관념에 부합할 리도 없다. 예수의 겉모습이 바로 사람의 관념에 어긋나는 모습 아니더냐? 예수의 용모와 차림새는 예수의 진짜 신분을 설명할 수 없지 않더냐? 당시 바리새인이 예수를 대적한 것도 예수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의 겉모습만 봤기 때문 아니더냐? 나는 하나님의 나타남을 찾는 모든 형제자매가 역사적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현대의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하나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어떻게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지 정신 차리고 고민해 보길 바란다. 이는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모든 사람의 책무다. 우리는 뜬구름 잡는 허황된 말에 빠지지 말고 영의 눈을 밝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실적인 사역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면을 봐야 한다. 늘 모든 것을 잊고 온종일 붕 뜬 채, 하늘의 흰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예수가 갑자기 너희 가운데로 내려와 이제껏 그를 안 적도 만나 본 적도 없고, 그의 뜻대로 행할 줄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가 주길 바라서는 안 된다. 좀 더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거라!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서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11)

성육신 하나님은 그가 친히 사역하는 동안 자신을 따르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뿐,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가 육신을 입은 이유는 한 단계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지, 사람들에게 그 형상을 보여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은 반드시 그가 친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육신을 입고 사역해야 한다. 사역이 끝나면 그는 인간 세상을 떠난다. 앞으로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만민에게 나타내는 것은 그의 공의 성품과 모든 행사일 뿐, 그가 두 차례 성육신할 때 입은 육신의 형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그의 성품으로만 드러날 뿐, 성육신의 형상으로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입은 육신의 형상은 일부 한정된 사람들, 즉 육신으로 사역할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낸다. 그러므로 지금의 사역은 은밀한 사역이다. 이는 예수가 사역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났을 뿐 유대인 외에는 그 어떤 족속에게도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는 사역을 완성한 후 인간 세상에 머물지 않고 일찌감치 떠났고, 그 후에도 예수의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직접 역사했다.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이 모두 끝나면 그는 인간 세상을 떠나며, 그 후에는 육신으로 있었던 동안 행한 것과 비슷한 사역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 후의 사역은 모두 성령이 직접 한다. 그 기간에 사람은 그가 육신으로 있었을 때의 형상을 보기가 어렵다. 그는 결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고 영원히 모습을 감춘다.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은 시간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특정 시대, 특정 시간, 특정 국가, 특정 사람들 가운데서 행해진다. 그 사역은 오직 성육신한 기간의 사역만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시대성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 하는 모든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한 개 시대에 행하는 사역만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형상이 만민에게 나타나는 일은 없다. 만민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모든 성품이지, 하나님이 두 차례 입은 육신의 형상이 아니다. 또 하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의 형상이 합해져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은 해야 할 사역을 완성한 후에는 반드시 땅을 떠나야 한다. 성육신 하나님은 해야 할 사역을 완성하러 온 것일 뿐 그의 형상을 사람에게 보여 주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두 차례 성육신을 통해 성육신한 의의를 완전케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본 적 없는 다른 어떤 족속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는 두 번 다시 유대인에게 공의로운 해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감람산에 올라 만민에게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 본 것은 오직 예수가 유대에 있었을 때의 초상화뿐이다. 성육신한 예수의 사역은 이미 2 천 년 전에 끝났으므로 그는 다시 유대인의 형상을 지니고 유대에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며, 유대인의 형상으로 이방의 다른 어떤 족속에게 나타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성육신한 예수의 형상은 요한이 보았던 ‘인자’의 형상이 아니라 유대인의 형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수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더라도 그가 유대인의 형상을 지니고 이방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희는 ‘성육신’의 사역은 시대를 여는 사역이고 한정된 몇 년간의 사역이므로 하나님 영의 모든 사역을 끝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 예로, 예수의 유대인 형상은 유대에서 사역한 하나님의 형상만을 대표할 수 있고, 오직 십자가의 사역만 할 수 있었다. 예수는 육신에 거하는 동안 시대를 끝내고 인류를 멸하는 사역은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사역을 끝낸 후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 사람에게 영원히 모습을 감추었다. 그때부터 이방의 충성스러운 신자들도 예수가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벽에 붙여 놓은 예수의 초상화만 보았는데, 그 초상화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 앞에 나타난 형상이 아니라 사람이 그린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두 차례 성육신한 형상을 지니고 만민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역은 사람들에게 그의 성품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서로 다른 시대의 사역을 통해 사람에게 나타낸 것이다. 그것은 그가 공개한 성품과 행한 사역으로 도달한 것이지 예수의 현현을 통해 이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공개할 때는 성육신의 형상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 있는 성육신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통해 공개한다는 뜻이다. 그가 한 사역으로 사람들에게 그의 형상을 나타내고 그의 성품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성육신하여 행하려는 사역의 의의다.

두 차례 성육신의 사역이 끝나면 그는 이방의 각 족속에게 그의 공의 성품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만민이 그의 형상을 보게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것으로 각 부류 사람의 결말을 드러냄으로써 옛 시대 전체를 끝낼 것이다. 그가 육신으로 하는 사역이 그리 큰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예수는 유대에서만 사역했고 오늘날에는 너희들 가운데서만 하는 것처럼) 육신의 사역에 범위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평범하고 정상적인 육신의 형상을 통해 짧게 사역할 뿐, 하나님이 입은 육신으로 영세의 사역을 하거나 이방의 만민에게 나타나는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다. 육신으로 하는 사역은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유대에서만 하거나 너희들 가운데서만 하는 것처럼), 그 범위 안에서 행한 사역을 통해 다시 사역 영역을 확대한다. 물론 확장하는 사역은 그의 영이 직접 행하며, 그때는 그가 입은 육신의 사역이 아니다. 육신으로 하는 사역은 범위가 있는 것이지, 전 우주 아래의 구석구석을 두루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육신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의 영은 육신으로 한 사역을 통해 그 후의 사역을 전개한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하는 사역은 유한한 범위에서 하는 시작 사역이며, 그 후에는 그의 영이 그 사역을 이어 나갈 뿐만 아니라 범위를 확대해 역사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의 비밀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12)

하나님이 땅에 와서 하는 사역은 시대를 이끌어 가고 새 시대를 열며 또 옛 시대를 끝내는 것뿐이다. 땅에서 사람의 인생 여정을 걸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인간 세상의 온갖 고초를 몸소 체험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며, 친히 어떤 사람을 온전케 하거나 어떤 사람의 성장 과정을 직접 보려고 오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의 사역이 아니다. 그의 사역은 단지 새 시대를 시작하고 옛 시대를 끝내는 것뿐이다. 다시 말해, 그 자신이 시대를 시작하고 시대를 끝내며, 친히 사역하는 방식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다. 그가 친히 행하는 모든 사역은 직접 '전장'에 나가는 것과 같다. 우선 육신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제 모든 영광을 얻고, 2 천 년 전체 사역의 '서막'을 연다. 그리하여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길을 열어 주며 평안하고 기쁜 나날을 보내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땅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며 어쨌든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정상인의 일생을 살 수 없다. 즉, 지극히 평범한 정상인처럼 세상에 상주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는 정상인이 갖추고 있는 정상 인성 중 아주 작은 부분만으로 인성의 생활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떻게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가 정상 인성을 가진 것은 단지 정상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지, 정상인처럼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의 정상적인 이성과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욕신으로 먹고 입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정상 인성이 있음이 충분히 증명된다. 그러니 그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자신의 정상 인성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땅에 온 것은 '말씀'이 욕신 된 것이다. 그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씀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할 뿐이다. 즉, 욕신이 하는 사역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것이다. 그가 바라는 것은 사람이 그의 욕신을 어떻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사람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다시 말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하는 모든 사역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는 욕신으로 사역을 할 뿐이다. 일부러 사람들에게 그의 욕신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높이 받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가 사역하는 지혜와 그의 모든 권능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아주 뛰어난 인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선전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해야 할 사역만 한다. 너희는 왜 하나님이 욕신을 입고도 그의 정상 인성을 널리 알리거나 증거하지 않고 그가 하고자 하는 사역만 하는지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의 인성과 어떠함을 선전하며 사람들에게 본받으라고 한 적이 없다. 그렇기에 너희는 성욕신 하나님에게서 그가 지닌 신성의 어떠함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다. 오직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이끌 때 자신의 어떠함을 소개함으로써 탄복과 복종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다른 이들을 이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자신이 행하는 사역(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역)만으로 사람을 정복한다. 그는 사람을 탄복하게 하거나 숭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이 경외심을 느끼거나 그를 측량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할 뿐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탄복시킬 필요가 없다. 단지 네가 그의 성품을 보고 그를 경외할 수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며, 이는 사람이 대신할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새 시대를 열어 사람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가 하는 사역은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새 시대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의 사역은 모두 인성이 정상적이고 사람을 탄복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 행하게 한다. 그래서 그는 은혜시대에 2 천 년의 사역을 욕신을 입고 있던 33 년 중 3 년 반 만에 끝냈다. 하나님이 땅에 와서 사역할 때는 언제나 2 천 년, 또는 전체 시대의 사역을 몇 년이라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끝낸다. 시간을 끌지 않고 날짜를 연장하지도 않는다. 그저 오랜 기간의 사역을 가장 짧은

몇 년 안에 단축해서 완성할 뿐이다. 그가 몸소 사역하는 것은 오직 새로운 길을 열고 새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의 비밀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13)

하나님이 사역하는 것은 무엇을 세우거나 어떤 운동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성육신할 때마다 한 단계의 사역을 완성하고 새 시대를 열 뿐이다. 지금은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들어섰으며 하나님나라의 훈련에 진입했다. 이 단계에 하는 것은 사람의 사역이 아니고 또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만드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부 사역을 완성할 뿐이다. 그가 행하는 것은 사람의 사역이 아니고, 사람을 만듦에 있어 어떤 성과를 낸 다음 땅을 떠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직분을 완수하고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끝내는 것이다. 즉, 땅에서의 사역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영광을 얻는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 하는 사역과 다르다. 하나님은 땅에 와서 사역할 때, 그의 직분을 이행하는 데만 신경 쓸 뿐 그 밖에 그의 직분과 무관한 일은 거의 간섭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그는 오직 자신이 해야 할 사역만 할 뿐이며, 특히 사람이 해야 할 사역에는 더욱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는 그의 해당 시대와 그의 직분에 관련된 사역만 하며, 그 외의 일은 그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는 사람으로서의 상식을 더 많이 갖추지 않고, 사교적인 기술을 키우지도 않으며, 그 밖에 사람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갖추지 않는다. 그는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것들에 아무 관심도 없다. 오직 직분 내에 있는 사역만 할 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육신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보이며, 더욱이 사람이 갖추어야 할 많은 것에 아무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생활 상식이나 사람으로서의 처세 원칙 같은 것들은 그와 거의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너는 성육신 하나님에게서 비정상적인 면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그는 인성을 통해 정상적인 인성 생활과 정상적인 이성을 유지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었지만, 그 외의 것들은 갖추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 외의 것들은 오직 사람(피조물)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직분을 이행할 뿐이다. 그는 전체 시대를 겨냥해 사역하는 것으로,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지역을 겨냥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상대로 사역한다. 이것이 그가 사역하는 방향이자 원칙이다. 아무도 이것을 바꿀 수 없고 절대 관여할 수도 없다. 성육신할 때마다 그 시대에 맞는 사역을 가져올 뿐, 사람들이 그를 더 많이 이해하고 알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20 년, 30 년, 40 년, 심지어는 70~80 년이나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는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도 전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래 성품을 더 깊이 알게 할 수 없으며, 사람의 관념만 키우고 사람의 관념과 사상을 더 굳어지게만 할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설마 너희는 “나는 정상인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정상인의 생활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잊은 것이냐? 너희는 하나님이 성육신한 목적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찌 피조물의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땅에 올 수 있겠느냐?”라는 말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땅에 온 것은 오직 그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그가 땅에서 사역하는 시간은 짧다. 그가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의 영이 그 육신을 훌륭한 교회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땅에 온 자체가 ‘말씀’이 ‘육신’ 된 것이다. 단지 사람이 그가 하는 사역을 모르기에 그에게 강요할 뿐이다. 그러나 너희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 된’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어떤 육신을 육성하여 그 육신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은 육성된 것이 아니라 ‘도’, ‘말씀’이 ‘육신’ 되어 지금 본격적으로 너희들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성육신한 사실을 알고 있고 인정도 하지만, 모두가 머릿수만 채우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하려는 사역, 나아가 그의 성육신의 의의와 본질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남들이 하는 말만 따라 할 뿐이다. 너는 하나님의 성육신이 네 상상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의 비밀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14)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오직 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사역을 전개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다. 이는 사람의 기능과 크게 다르므로 양자를 같이 논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사역을 하려면 오랜 시간 양성되고 온전케 된 후에야 쓰임 받을 수 있다. 또 매우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정상 인성의 이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처세의 원칙과 법칙을 많이 알고 사람의 지혜와 윤리 지식도 많이 배워야 한다. 이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것들이다. 하지만 성육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갖추 필요가 없다. 그는 사람을 대표해 사역하거나 사람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하기 때문이다(물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때 하며, 직분을 이행해야 할 때 사역하기 시작한다). 그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람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의 인성 안에는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아도 그의 사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는 직분을 이행해야 할 때 자신의 직분을 이행할 뿐이며, 어떤 지위에 있든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이 해야 할 사역만 한다. 사람이 그를 어떻게 알고 있든, 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그의 사역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예수가 사역할 때도 그가 대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오직 자신의 사역만을 해 나갔다. 그러한 것은 그가 해야 할 사역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수는 처음에 사람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거나 알리지 않고 그저 자신을 따르게만 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낮춤이었으며, 또한 육신으로 와서 사역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사람의 육안으로는 알 방도가 없었고,

성령 사람이 알아본다 해도 그의 사역을 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가 성육신한 목적은 사람에게 그의 육신을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을 하고 그의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가 해야 할 사역이 다 끝나면 사람들은 저절로 그의 신분과 지위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육신 하나님은 무언가를 크게 알리지도 않고 묵묵히 지낸다. 사람들이 어떠하든, 그를 어떻게 따르든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직분을 이행하며 자신이 해야 할 사역만 한다. 그의 사역은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다. 그가 사역을 끝낼 때가 되면, 사역은 반드시 끝나고 종결된다. 아무도 이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사람들은 그가 사역을 끝내고 떠난 뒤에야 그의 사역을 알게 되지만 그래도 완전히 알지는 못한다. 그가 사역할 때의 뜻을 사람들이 완전히 알게 되려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다시 말해, 성육신 하나님 시대의 사역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한 부분은 성육신 하나님이 친히 사역하고 말씀하는 것이다. 육신의 직분이 끝나면 다른 한 부분은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에게 맡겨서 행하게 된다. 이때는 사람이 자신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미 길을 열어 주었으므로 사람 스스로 가야 한다. 다시 말해, 성육신 하나님이 일부 사역을 한 뒤에 성령과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 그 사역을 이어서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단계 사역에서 성육신 하나님이 주로 하는 사역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성육신한 의의가 무엇이며, 그가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람의 실수이자 사람의 관념이며, 더욱이 사람의 패역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의 비밀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15)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사람에게 자신의 육신을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은 육신과 사람의 육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도록 하기 위함도 아니며, 사람의 분별력을 훈련시키기 위함도 아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입은 육신을 경배하게 함으로써 큰 영광을 얻으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런 것은 모두 하나님이 성육신한 본래 의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일부러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일부러 사람을 괴롭히려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은 모두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다. 그의 성육신은 언제나 불가피한 일이다. 사람의 상상과 달리, 더 큰 사역과 더 큰 경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땅에 온 것은 사역에 필요하기 때문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부러 땅에서 살피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가 해야 할 사역을 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가 이렇게 큰 중임을 짊어지고 이렇게 큰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 사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육신은 부득이한 일로, 거기에는 모두 특별한 의의가 있다. 그저 사람에게 보여 주고 시야를 넓혀 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는 절대로 쉽게 인간 세상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땅에 온 것은

그의 경영과 그의 더 큰 사역을 위해서이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이다. 또한 그는 시대를 대변하고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왔다. 그것도 육신을 입고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왔으며, 더욱이 전 인류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 모든 것은 그의 경영, 그리고 전 우주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 만약 하나님이 오직 사람에게 자신의 육신을 알게 하고 시야를 넓혀 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성육신했다면 어째서 세계를 일주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주 쉬운 일 아니겠느냐?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합당한 곳을 택해 머무르며 그가 해야 할 사역을 시작했다. 이 육신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 그는 시대 전체를 대변하고 또 시대 전체의 사역을 전개했다. 그는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었다. 이런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경영과 관계되는 큰일이고, 하나님이 땅에 와서 행하는 한 단계 사역의 의의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의 비밀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16)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때 직접 영의 방식과 영의 신분으로 구원하지 않는다. 그의 영은 사람이 만질 수도, 볼 수도 없고 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영으로 직접 사람을 구원한다면 사람은 그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의 외형을 입지 않으면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아무도 여호와와 구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람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창조된 사람이 되어야만, 즉 그의 ‘도’를 그가 입으려는 육신에 채워야만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 ‘도’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다. 그래야만 사람이 직접 그의 도를 듣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그의 도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람은 비로소 완전히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면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지극히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면, 사람은 모두 죽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접촉할 수가 없어 사탄에게 철저히 사로잡힐 것이다. 첫 번째 성육신은 죄에서 사람을 속량했다. 이는 예수의 육신으로 사람을 속량해 온 것, 즉 사람을 십자가에서 구해 낸 것이다. 하지만 사람 안에는 여전히 사탄의 패괴 성품이 존재했다. 두 번째 성육신은 더 이상 속죄 제물이 되지 않고, 죄에서 속량해 온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한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완전히 정결케 되고, 성품이 변화됨으로써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야만 사람이 완전히 성결해질 수 있다. 율법시대가 끝나고 은혜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시작했다. 말세에 하나님은 인류의 패역을 심판하고 형벌하는 사역을 하여 인류를 완전히 얻고 정결케 한 뒤에야 구원 사역을 끝내고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3 단계 사역 중 두 차례만 성육신으로 친히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것이다. 3 단계 사역 중 한 단계는 사람의 생활을 이끌어 주는 사역이고, 나머지 두 단계는 구원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해야만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 있고 인간 세상의 고통을 체험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육신으로 살 수 있다. 그래야만 창조된 사람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도를 공급할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지, 직접 하늘에 간구하여 얻은 것이 아니다. 사람은 모두 육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에 접근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입은 육신뿐이다. 사람은 이 육신을 통해야만 모든 진리와 도를 깨닫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성육신은 사람의 죄를 충분히 벗겨 버릴 수 있고 사람을 완전히 정결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성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모든 사역을 끝내고 하나님이 성육신한 의의를 완전케 한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은 전부 끝나게 되었다. 그가 두 번째의 성육신 후에 또다시 세 번째로 성육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의 모든 경영이 끝났으며, 말세의 성육신을 통해 이미 그가 택한 사람들을 완전히 얻었고,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모두 각기 부류대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구원 사역을 하지 않을 것이고, 육신으로 되돌아와 사역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의 비밀 4>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17)

사람이 지금 도달한 것, 즉 지금 사람의 분량, 인식, 사랑, 충성심, 순종, 그리고 깨달음까지, 이 모든 것은 말씀의 심판으로 얻은 결실이다. 네가 충성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설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말씀을 통해 이룬 것이다. 이제 사람은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이 확실히 평범하지 않으며, 많은 것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비밀이고 또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순종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에게도 복종한 적이 없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숭복하게 되어 더는 연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말씀 속에서 쓰러지고 말씀의 심판 아래 엎드리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사람에게 말씀한다면, 사람은 모두 그 ‘음성’ 앞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 속에 엎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사람을 폭로하지 않아도 모두 엎드릴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사람은 영원히 말씀의 심판으로 자신의 패괴를 깨달아 구원받는 이 목적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성육신해야만 모든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전해 주어 귀 있는 자들이 다 그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심판 사역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말씀이 성과를 내는 것이지, 영으로 나타나 사람을 ‘놀라 쓰러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실제적이면서도 비범한 사역을 통해야만 사람의 깊은 곳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옛 성품을 완전히 들추어내어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변화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모두 성육신의 실제적인 사역이다. 실제로 말씀하고 실제로 심판함으로써 말씀으로 사람을 심판하는 성과를 거둔다. 이것이야말로 성육신 하나님의 권병이자 성육신의 의의다. 이는 성육신 하나님의 권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즉, 말씀으로 얻은 사역 성과를 나타내고 영이 육신에 왔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말씀으로 사람을 심판하는 방식을 통해 그의 권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비록 육신은 평범한 정상 인성을 지닌 외형이지만, 말씀으로 얻은 성과를 통해 그가 권병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그가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 주며, 그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선포한 것임을 보여 준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그가 하나님 자신일 뿐만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누구도 그를 범할 수 없고 그의 말씀의 심판을 뛰어넘을 수 없으며 어떤 흑암 세력도 그의 권병을 능가할 수 없음을 알게 한다. 사람이 그에게 순종하는 것은 ‘말씀’으로 된 그의 육신과 그의 권병, 그리고 그의 말씀의 심판 때문이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가져온 사역 또한 그가 지닌 권병이다. 성육신한 이유는 육신도 권병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실제적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여 사람이 보고 만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역은 모든 권병을 지닌 하나님의 영이 직접 행하는 사역보다 훨씬 실제적이고 성과도 뚜렷하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사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신의 외형은 권병을 지니고 있지 않아 모두가 가까이할 수 있지만 그의 본질은 권병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도 그의 권병을 볼 수 없다. 사람은 그가 말씀하고 사역할 때도 그의 권병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이는 그가 실제적으로 사역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된다. 그의 이런 실제적인 사역은 모두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비록 모든 사람이 그가 권병을 지니고 있음을 모르고, 거스를 수 없는 그의 일면과 그의 진노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는 은밀한 권병, 은밀한 진노, 공개적인 말씀을 통해 말씀의 성과를 거둔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어조와 말씀의 준엄함, 말씀의 모든 지혜로 사람이 진심으로 탄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은 모두 권병이 없는 듯한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것 역시 성육신의 또 다른 측면의 의의이다. 즉, 더 실제적으로 말씀하기 위함이고, 말씀의 실제로 사람에게서 성과를 얻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사역은 성육신을 통해 하지 않는다면 전혀 성과를 얻을 수 없고, 죄악된 사람을 완전히 구원할 수도 없다. 성육신하지 않은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는 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은 육에 속한 피조물이다. 사람과 하나님의 세계는 서로 다르며, 그 성질 또한 달라서 하나님의 영과 육에 속한 사람은 전혀 맞는 구석이 없고, ‘수교’가 아예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사람이 영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피조물이 되어 그의 원래의 사역을 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오를 수도 있고 창조된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어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며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지극히 높이 올라 영이 될 수 없을뿐더러 지극히 낮추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역해야 한다. 첫 번째 성육신 때처럼 말이다. 오직 하나님이 입은 육신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을 속량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직접 육신을 입고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지만, 사람은 직접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비한 속죄 제물을 가져올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늘 위아래를 몇 번 왕복해야지', 사람을 하늘로 올려 보내 구원받게 할 수는 없다. 사람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사람들 가운데 와서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사역을 친히 해야 했다. 매번의 성육신은 다 몹시 필요했던 것이다. 그중 한 단계라도 하나님의 영이 직접 할 수 있었다면, 그는 수모를 감내하며 성육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의 비밀 4>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18)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그의 사역 대상이 사탄의 영도 아니고, 육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며, 사탄에 의해 파괴되고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육체가 파괴되었기에 하나님이 육에 속한 사람을 자신의 사역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더욱이 사람이 파괴된 대상이기에 하나님이 어느 단계의 구원 사역을 하든 사람을 자신의 유일한 사역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사람은 육체를 지닌 평범한 존재로 육에 속하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이 더 좋은 결실을 얻으려면 사람과 같은 속성을 가진 육신이 되어 사역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육에 속하는 데다가 죄를 이기는 능력과 육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육신이 되어 사역해야 한다.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과 신분이 사람의 본질, 신분과는 크게 다르지만 그의 겉모습은 사람과 같다. 그는 정상인의 외모를 지녔고 정상 인성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에게서 정상인과 다른 점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그는 이 정상적인 외모와 정상 인성만으로도 충분히 정상 인성 안에서 행하는 신성의 사역을 할 수 있다. 그의 육신은 그가 정상 인성 안에서 행하는 사역에 이롭고,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사역에 이롭다. 또 그의 정상 인성은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구원 사역에 더욱 이롭다. 비록 그의 정상 인성이 사람들 가운데서 적잖은 풍파를 일으키겠지만 그것은 그의 사역이 정상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데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요컨대, 그가 정상적인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은 사람에게 크나큰 도움이 된다. 많은 사람이 그의 정상 인성을 받아들이지 못해도 그의 사역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또한 이 성과가 정상 인성을 통해 이뤄진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가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은 사람이 그의 정상 인성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의 10 배, 수십 배를 훨씬 넘는 것을 얻게 한다. 그런 관념들은 결국 그가 행하는 사역에 모두 파묻히고, 사역이 거두는 성과, 즉 그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그에 대한 관념보다 훨씬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가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은 상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이다. 그의 육신은 육에 속한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외형은 같아도 본질은 전혀 다르다. 사람은 그의 육신으로 인해 하나님에게 수많은 관념을 갖게 되었지만, 그의 육신은 또 사람이 수많은 인식을 얻게 할 수 있다. 심지어 그의 육신은 그와 외형이 비슷한 그 어떤 사람이든 정복할 수 있다. 그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외형을 가진 하나님이기에 누구도 그를 완전히 측량할 수 없고 완전히 알 수도 없다.

사람들은 모두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러르고 환영한다. 만일 하나님이 그저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일 뿐이라면 사람은 아주 쉽게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또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상상할 수 있고, 자기 마음의 즐거움과 유쾌함을 위해 자기가 좋아하는 형상을 마음대로 골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면 사람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자신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자신에게 가장 바라는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모두가 자신만이 ‘하나님’에게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경건한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은 이방의 개이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막연함과 도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추구하며, 대동소이하여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각자 상상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를 뿐, 그 본질은 모두 같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폐기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19)

성육신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 이유는 전적으로 폐기된 사람의 필요 때문이다. 이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이 모든 대가와 고통은 인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는 득실과 보답이라는 말이 없다. 그가 얻는 것은 그가 나중에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가 인류를 위해 행한 모든 것과 지불한 모든 대가는 더 많은 보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인류를 위한 것이다. 육신으로 사역하면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이 많지만 결국에는 영이 직접 사역하는 것보다 성과가 훨씬 더 크다. 육신으로 사역하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영과 같은 위대한 신분을 가질 수 없고, 영과 같은 비범한 행사가 있을 수도 없으며, 영과 같은 권병은 더더욱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육신이 하는 사역의 본질은 영이 직접 하는 사역의 본질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 육신 자체는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구원받는 사람에게 있어 영의 사용 가치는 육신의 사용 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영의 사역은 우주 전체로 널리 퍼질 수 있고 산천 호수에 널리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육신의 사역은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더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형상이 있는 육신은 사람의 이해와 신뢰를 더 잘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에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의 실제 행사에 대해 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영의 사역은 매우 신비로워서 평범한 사람은 예측하기 어렵고, 눈으로 보기는 더욱 어려우며, 그저 터무니없이 상상할 뿐이다. 반면 육신의 사역은 정상적이고 실제적일뿐더러 풍부한 지혜가 있으며, 평범한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다. 모두가 하나님이 사역하는 지혜를 직접 깨달을 수 있어 풍부한 상상을 펼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육신으로 하는 하나님 사역의 정확성이자 실제적인 가치이다. 영은 단지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만 할 수 있다. 영의 깨우침, 영의 감동, 영의 인도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영의 이러한 사역들은 사고력을 가진 사람에게 명확한 뜻을 알려 줄 수 없고, 말로 분명하게 가리켜 줄 수 없으며,

그저 감동이나 대략적으로 비슷한 뜻만 줄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은 이와 전혀 다르다. 육신으로 사역하면 정확한 말씀의 인도, 명확한 뜻, 그리고 명확한 요구와 목표가 있으므로 사람이 모색할 필요도 없고 상상할 필요도 없으며 더욱이 추측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의 명확성으로, 영의 사역과는 크게 다르다. 영의 사역은 일부 제한적인 범위에만 적합할 뿐, 육신의 사역을 대신할 수 없다. 육신이 사역하면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정확한 목표와 사람이 얻는 인식의 실제 가치는 영의 사역이 지니는 정확성이나 실제 가치를 크게 뛰어넘는다. 패괴된 사람에게는 정확한 말씀과 명확한 추구 목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역만이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이다. 현실적으로 사역하고 제때 인도해야만 사람의 기호에 맞출 수 있고, 실제로 사역해야만 사람을 패괴되고 타락한 성품에서 구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오직 성육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성육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패괴되고 타락한 옛 성품에서 구원할 수 있다. 영은 하나님의 고유한 본질이지만, 이런 사역은 오직 육신으로만 할 수 있다. 오직 영이 단독으로 역사한다면 사역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육신으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해도, 이 육신이 자신의 사역을 끝낼 때면 그와 적대 관계였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증인이 될 것이며, 그에게 정복된 증인이 되고, 그와 합하여 헤어지기 힘든 증인이 될 것이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으로 하는 사역이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육신이 사람의 생존 의의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또 사람의 생명 성장에 있어 육신이 가진 실제 가치를 알게 되고, 더욱이 이 육신이 사람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하나님의 신분이나 지위와 크게 다르고, 사람이 보기에 그의 실제 신분에도 걸맞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본래 형상을 지니지 않고 본래 신분도 없는 이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 하지 못하는 사역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한 본래의 의의와 가치다. 하지만 사람은 이 의의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한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영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육신을 내려다본다. 사람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든 육신의 실제 의의와 가치는 영의 실제 의의와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다. 물론 이것은 패괴된 인류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다.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현현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영의 사역이 그저 감동이나 묵시를 줄 뿐이고, 또 신묘막측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신기한 느낌과 위대하고 비범하며 모든 사람이 우러르면서도 닿을 수 없고 이를 수 없는 느낌을 줄 뿐이다. 사람과 하나님의 영은 그저 아득히 멀리서 서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 마치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영원히 서로 갈아질 수 없는 것 같으며, 꼭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영에 대한 사람의 착각에 불과하다. 이런 착각은 그저 영과 사람이 같은 부류가 아니고 영과 사람이 절대로 같은 세계에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또 영은 사람이 가진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영이 아니다. 영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역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육신의 사역은 사람에게

실제적인 추구 목표와 명확한 말씀을 주고, 실제적이고 정상적이라는 느낌과 자신을 낮추고 평범하다는 느낌을 준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대다수 사람에게는 접촉하기가 상당히 쉽다. 사람은 그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므로 아득히 멀리서 서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 이 육신은 사람에게 아득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주고, 측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준다. 이는 이 육신이 사람과 같은 세계에 있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폐괴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20)

육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성품을 변화시키려면 추구할 목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실제 행사와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오로지 하나님이 입은 육신만이 할 수 있고,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육신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필요성이며, 모든 폐괴된 인류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요구하는 만큼 반드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들을 없애야 하고, 사람에게 폐괴 성품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하는 만큼 반드시 먼저 이런 폐괴 성품을 알게 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을 제거하기 위해 사람이 이 사역을 한다면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말로 들추어내고 벗겨 버리고 나아가 완전히 없앨 수 없다. 그렇게 하면 결국 사람에게 깊이 뿌리박힌 것을 없앨 수 없다. 오직 실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래 형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대신하여 사람이 차츰 깨닫게 해야만 원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사람이 지난날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즉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영의 직접적인 인도 때문이 아니고, 나아가 누군가의 가르침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성육신 하나님 덕분이다. 성육신 하나님의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모습과 사람의 상상 속에 있는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성육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는 사람의 관념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 성육신 하나님을 통해 부각해야만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관념이 모두 드러난다. 성육신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지 않는다면 사람의 관념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실제적인 것으로 부각하지 않으면 막연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역은 누구도 말로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말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 자신만이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을 뿐, 사람은 그 누구도 그것을 대신하지 못한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풍부해도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여 그의 형상과 어떠함을 모두 알려야만 사람이 그를 더 실제적으로 알 수 있고,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물론 하나님의 영 또한 이런 사역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하나님은 폐괴된 사람을 구원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지만, 이 사역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 하나님이 입은 육신만이 할 수 있다. 이 육신은 사람이자 하나님이고, 정상 인성을 갖춘 사람이자 완전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또한 영과 크게 다르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이는 여전히 성육신 하나님 자신이고 또 영이자 육신이다. 호칭이 어떠하든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과 육신은 서로 떨어질 수 없고, 육신이 하는 사역은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다만 영의 신분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신분으로 사역할 뿐이다. 영이 직접 해야 하는 사역이면 성육신할 필요가 없고, 육신이 해야 하는 사역은 영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육신의 방식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은 사역에 필요한 것이고, 또 패괴된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세 단계 사역 중 오직 한 단계 사역만 영이 직접 한 것이고, 나머지 두 단계 사역은 모두 영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이 한 것이다. 영이 행한 율법시대의 사역은 사람의 패괴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과도 관련이 없었다. 반면 육신이 행한 은혜시대와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의 사역은 모두 사람의 패괴 성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 육신이 행한 사역은 구원 사역에서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역이다. 그러므로 패괴된 인류에게는 성육신 하나님의 구원과 성육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 더욱 필요하다. 인류에게는 성육신 하나님의 목양, 붙들, 양육, 심판, 형벌이 필요하고, 성육신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와 더 큰 구원(원문: 救贖)이 필요하다. 오로지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만이 사람의 지기(知己)가 될 수 있고, 사람의 목자가 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에도, 과거에도 성육신이 필요했던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패괴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21)

사람은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할 대상은 사람이지만 사탄이 아니며,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지 마귀가 아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멸할 대상이고,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이다. 하지만 사람의 육체가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으므로 반드시 먼저 사람의 육체를 구원해야 한다. 사람의 육체는 가장 심하게 패괴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으며,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패괴된 육체는 아주 완고하고, 육체의 패괴 성품은 다루기도 변화시키기도 가장 어렵다. 사탄은 사람의 육체를 찾아와 방해하며, 사람의 육체를 이용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친다. 그렇게 해서 사람도 사탄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사람을 구원하려면 먼저 사람을 정복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육신으로 와서 그가 하려는 사역을 하고 사탄과 싸운다. 그 목적은 패괴된 인류를 구원하며 그를 거역한 사탄을 물리치고 멸하는 것이다. 사람을 정복하는 사역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한편 패괴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일거양득의 사역이다. 그가 육신으로 사역하고, 육신으로 말씀하고, 육신으로 모든 사역을 담당하는 것은 사람과 더 잘 접촉하고 사람을 더 잘 정복하기 위함이다. 마지막 성육신은 말세에 하는 사역을 육신으로 끝내고, 모든 사람을 각기 부류대로 나누며, 그의 경영 전체를 끝내고, 그가 육신으로 하는 모든 사역을 끝낸다. 땅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끝나면 그는 철저히 승리하게 된다. 육신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이 인류를 철저히 정복하고 얻으면 하나님의 모든 경영이 끝나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이 끝나고 사탄을 철저히 물리치면 하나님은 이미 승리한 것이므로 사탄에게는 더 이상 사람을 패괴시킬 기회가 없다. 첫 번째 성육신의 사역은 사람의 죄를 속량하고 사하는 것이었고, 지금의 사역은 정복하여 사람을 철저히 얻는 것이다. 그러면 사탄은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고 완전히 패배할 것이고, 하나님은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이것은 육신이 하는 사역이자 하나님 자신이 하는 사역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패괴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22)

3 단계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은 육신이 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직접 한 사역이었다. 3 단계 사역의 마무리 사역은 영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중간 단계의 구속 사역 역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한 사역이었다. 전체 경영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을 구원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핵심 사역은 패괴된 사람을 철저히 정복하여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원래 갖고 있던 경외심을 되찾게 하고 정상인의 생활, 즉 정상적인 피조물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며 경영 사역의 핵심이다. 이 세 단계 구원 사역 중 1 단계인 율법시대의 사역은 경영 사역의 핵심과 큰 차이가 있다. 율법시대의 사역은 구원 사역의 겉모습만 조금 갖추었을 뿐이며,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사역은 시작하지 않았다. 1 단계 사역을 영이 직접 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 알았을 뿐 더 많은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율법시대의 사역은 사람의 성품 변화와 거의 관련이 없고, 사람을 어떻게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하는지에 대한 사역과는 더더욱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패괴 성품과 관련되지 않는, 극히 간단한 사역만 완성한 것이다. 그 단계의 사역은 경영의 핵심과 그리 큰 관계가 없었고, 본격적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과도 그리 큰 관련이 없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친히 사역할 필요가 없었다. 영이 하는 사역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측량할 수 없으며 사람들이 무서워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므로 직접 구원 사역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직접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역시 영의 사역을 사람과 가까운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즉,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평범한 정상인이 되어 사역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영의 사역을 대신해야 한다. 이 사역 방식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다. 이 세 단계 사역 중 두 단계

사역은 육신이 행한 것이며, 또 이 두 단계 사역은 경영 사역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두 번의 성육신은 서로 보충하며 완전케 한다. 첫 번째 성육신은 두 번째 성육신을 위해 기초를 다졌다. 두 차례 성육신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단계 사역을 성육신의 신분으로 행한 것은 전체 경영 사역에서 이 두 단계 사역이 실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의 성육신 사역이 없었다면 전체 경영 사역이 정체되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도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사역의 중요성은 인류의 필요성, 인류의 타락 상황, 사탄의 거역과 사역을 방해하는 정도에 근거한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자는 사역자의 사역 성질과 사역의 중요성에 따라 결정된다. 사역의 중요도를 놓고 볼 때, 사역 방식을 택함에 있어 하나님의 영이 직접 사역하는 것, 성육신하여 사역하는 것, 또는 사람을 통해 사역하는 것의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이 가운데서 제일 먼저 탈락된 것은 ‘사람을 통해 사역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는 사역의 성질, 영과 육신이 하는 사역의 성질에 근거해 최종적으로 육신이 사역하는 것이 영이 직접 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이로울 뿐만 아니라 장점이 훨씬 더 많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영이 사역할지, 육신이 사역할지를 결정할 때의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각 단계의 사역은 터무니없는 상상도 아니고,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행하는 것도 아니라, 모두 의의가 있고 근거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지혜가 깃들여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의 실상이다. 특히 성육신하여 친히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중대한 사역을 하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어떠함은 그가 사역할 때의 일거수일투족, 마음과 생각 속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어떠함이다. 사람은 이런 세밀한 마음과 생각을 상상하기 어렵고 믿기도 어려우며 더욱이 깨닫기도 어렵다. 사람이 사역할 때는 대체적인 원칙이 있다. 사람에게는 이것도 이미 상당히 만족스럽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비하면 실로 격차가 크다. 하나님의 행사는 위대하고 그의 사역 규모 역시 매우 거대하지만, 이런 사역들의 이면에는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세세하고 정밀한 계획과 안배가 많이 들어 있다. 그가 하는 각 단계 사역에는 원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언어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사람에게는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영의 사역이든, 성육신의 사역이든 모두 하나님의 사역 계획이 있다. 그는 근거 없이 사역하지 않고 무의미한 사역도 하지 않는다. 영이 직접 사역하는 데에는 그의 목적이 있고, 사람이 되어(그의 외형을 바꾸어) 사역하는 데에는 더더욱 그의 뜻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쉽게 신분을 바꿀 리 있겠느냐? 그가 어떻게 그리 쉽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폄박당하는 사람이 될 리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패피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23)

육신이 하는 사역이 가장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은 사역을 근거로 말한 것이다. 마지막에 사역을 끝내는 것은 영이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이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어느 날 땅에 와서 사람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친히 전 인류를 심판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통과시킬지 모르니 누구도 빠질 생각을 말아야 한다고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단계의 성육신 사역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통과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심판 사역이라 말할 수 없다. 모든 인류의 패괴는 다 같지 않으나? 사람의 본질은 다 같지 않으나? 심판하는 것은 사람의 작은 결점이 아니라 인류의 패괴된 본질, 사탄이 패괴시킨 사람의 본질, 그리고 사람의 모든 죄업이다. 심판 사역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오롯이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을 심판함으로써 전 인류에 대한 심판 사역을 대표한다. 육신이 하는 사역은 일부 사람에게 친히 하는 사역으로 전 인류의 사역을 대변하며, 그런 다음 점차 확장한다. 심판 사역도 이렇하다. 어느 한 부류의 사람이나 일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불의, 예를 들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등을 심판하는 것이다.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본질이며, 이 심판 사역이 바로 말세의 정복 사역이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이 바로 예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말세의 최고 큰 보좌 앞의 심판 사역이다. 지금 성육신한 하나님이 하는 사역 역시 최고 큰 보좌 앞의 심판이다. 오늘날 성육신한 하나님이 바로 말세에 전 인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이 육신과 육신의 사역, 말씀, 모든 성품이 그의 전부다. 비록 육신이 하는 사역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직접적으로 우주 전체에 미치지 못하지만 심판 사역의 본질은 모두 직접 전 인류를 심판하는 것이다. 단지 중국 선민만을 위해서, 또 몇 사람만을 위해서 심판 사역을 펼치는 것이 아니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사역하는 동안 사역의 범위가 우주 전체까지 미칠 수 없다 해도, 그가 하는 사역은 우주 전체의 사역을 대표한다. 또한 그가 육신의 사역 범위 안에서 하는 사역을 끝내면 이 사역을 즉시 전 우주 각 지역으로 확장할 것이다. 마치 예수가 부활해 승천한 후 복음이 전 우주 각 지역으로 전파된 것처럼 말이다. 영의 사역이든 육신의 사역이든 모두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행하지만, 우주 전체를 대변한다. 말세의 사역은 성육신의 신분으로 나타나 하는 사역이다. 그 육신의 하나님이 바로 최고 큰 보좌 앞에서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그가 영이든 육신이든, 결국 심판 사역을 하는 이는 말세에 인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겉모습이나 다른 여러 가지 면에 근거해 정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에 근거해 정한 것이다. 사람이 이에 대해 관념을 갖고 있더라도 성육신한 하나님이 전 인류를 심판하고 정복하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사실은 결국 사실이다. 누구도 “사역은 하나님이 한 것이지만 육신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 육신의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이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역이 다 끝난 이상, 이 사역 이후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사람을 심판하는 사역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성육신이 이미 전체 경영 사역을 모두 끝냈으므로 네 번째 단계의 사역이 있을 리가 없다. 사탄의

영을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패괴되고 육에 속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 사역은 영계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행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패괴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24)

사람 육체의 패괴를 심판하는 사역은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해야만 가장 적합하고,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만이 가장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심판한다면 여러 면에서 빈틈없이 할 수 없고 사람이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영은 사람과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없고, 더욱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스를 수 없는 성품을 더 또렷하게 보여 줄 수도 없다. 오직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인류의 패괴를 심판해야만 사탄을 철저히 물리칠 수 있다. 똑같이 정상 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불의를 직접 심판할 수 있다. 이것은 그가 본래 거룩하고 남다르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지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심판할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진리와 공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 반면, 진리와 공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이 사역을 한다면 그것은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다. 영은 본래 육체를 지닌 존재보다 위대하며, 하나님의 영은 본래 거룩하고 육체를 능가한다. 영이 직접 이 사역을 하면 사람의 모든 패역을 심판할 수 없고, 사람의 모든 불의를 드러낼 수도 없다. 심판 사역도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관념을 통해 행하는 것인데, 사람은 본래 영에 대해 관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사람의 불의를 더 잘 드러낼 수는 없고, 더욱이 사람의 불의를 확실히 들추어낼 수도 없다. 성육신 하나님은 그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원수이다. 그는 그에 대한 사람의 관념과 대적을 심판함으로써 인류의 패역을 모두 들추어낸다. 육신이 하는 사역은 영이 하는 사역보다 더 뚜렷한 성과를 낸다. 그러므로 인류 전체를 심판하는 사역은 영이 직접 하지 않고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며, 사람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 사람은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다가 순종하고, 핍박하다가 받아들이고, 관념을 갖고 있다가 알게 되고, 저버리다가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 성과다. 사람은 모두 그의 심판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만 차츰 그를 알게 된다. 또 대적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정복되고, 그의 형벌을 받는 과정에서 그에게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된다.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영의 신분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하는 사역은 가장 큰 사역이자 가장 심오한 사역이다. 세 단계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 두 단계 성육신 사역에 있다. 성육신하여 사역할 때는 장애물이 너무 많다. 사람이 매우 심하게 패괴된 데다, 특히 말세에 이 사람들에게 하는 사역이 더욱 힘들고 외부 환경이 열악하며 각 부류 사람들의 자질도 몹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역이 끝날 때는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고, 그 성과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육신으로 사역한 성과로, 이 성과는 영이 하는 사역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세 단계 사역은 육신 중에서 끝나며, 또 반드시 성육신 하나님이 끝내야 한다.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역은 모두 육신으로 해야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반드시 육신이 친히 해야 한다. 모든 인류가 육신의 하나님은 사람과 무관한 것 같다고 느끼지만 사실 이 육신은 인류 전체의 운명, 그리고 생존과 관계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패피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25)

하나님이 어느 단계의 사역을 하든 모두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고, 그가 하는 사역은 모두 인류 전체를 마주한 것이다. 설령 육신으로 하는 사역일지라도 전 인류를 마주한다. 그는 전 인류의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과 비피조물의 하나님이다. 육신으로 하는 사역이 범위도, 사역하는 대상도 제한적이지만, 그가 매번 성육신하여 사역할 때마다 택한 사역 대상은 모두 지극히 큰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는 ‘단순하고 평범한’ 한 무리 사람을 택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육신으로 하는 사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한 무리를 택해 사역 대상으로 삼는다. 이 한 무리 사람들은 그가 육신으로 하는 사역의 범위가 제한적이기에 선택된 자들이고, 오로지 하나님이 입은 육신만을 위해 예비된 자들이며, 또 그가 육신으로 하는 사역을 위해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다. 사역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근거 없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다. 사역 대상은 반드시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인류 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대인은 인류 전체를 대표해 예수가 친히 행한 구속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중국인은 인류 전체를 대표해 성육신 하나님이 친히 행하는 정복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유대인이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근거가 있고, 중국인이 인류 전체를 대표해 하나님이 친히 행하는 정복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근거가 있다. 유대인 가운데서 구속 사역을 하면 구속의 의의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고, 중국인 가운데서 정복 사역을 하면 정복 사역의 완벽함과 성공적인 결과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 육신으로 사역하고 말씀하는 것이 보기에는 그저 일부 소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일부 소수 사람들 가운데서 우주 전체의 사역을 하고 인류 전체를 향해 말씀하는 것이다. 그가 육신으로 하는 사역이 끝나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한 사역을 널리 확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육신으로 하는 사역의 가장 큰 장점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말씀과 당부를 남길 수 있고, 인류에 대한 그의 정확한 뜻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 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그가 육신으로 한 모든 사역과 전 인류에 대한 그의 뜻을 더 정확하고 실제적으로 전해 줄 수 있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니 비로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진정으로 실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이 친히 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소망을 실현하게 되었다.

성육신 하나님은 ‘인류에게 여호와와 닮은 모습만 보여 주던’ 시대를 끝내고, 인류가 막연한 하나님을 믿던 시대도 끝냈다. 특히 마지막으로 성육신한 하나님의 사역은 인류 전체를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아름다운 시대로 인도했다. 율법과 규례의 시대를 끝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하나님, 공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경륜 사역을 펼치고 인류의 비밀과 종착지를 보여 주는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고 경영 사역을 끝내는 하나님, 수천 년간 숨겨져 있던 하나님을 인류에게 공개하여 막연한 시대를 완전히 끝낸 것이다. 또한 전 인류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었던 시대와 사탄을 섬기던 시대를 끝내고, 전 인류를 새로운 시대로 완전히 인도해 들어갔다. 이런 사역은 모두 육신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대신하여 사역함으로써 거둔 성과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역을 해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시는 있는 듯 없는 듯한 것을 찾지 않게 되고, 다시는 막연한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한 사역을 확장할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가 육신으로 했던 모든 사역을 각 종교, 각 교파에 전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전 인류에게 전할 것이다. 또 그의 복음을 얻은 모든 사람은 그가 사역한 사실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직접 보고 들은 것으로, 뜬소문이 아닌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모두 그가 사역을 확장한 증거이자 사역을 확장하는 수단이다. 만일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의 복음이 모든 지역과 나라에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없고 단지 사람의 상상만 있다면 영원히 우주 전체를 정복하는 사역을 할 수 없다. 영은 사람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존재다. 영으로 사역하면 사람에게 더 많은 증거와 사역한 사실을 남길 수 없으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고, 영원히 막연하고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만 믿을 것이다. 또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친히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상상하는 것은 어쨌든 헛된 것이므로 결코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과 그 자신의 사역은 사람이 연기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들 가운데 와서 친히 사역해야만 하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사역을 땅에 옮겨 올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알게 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성육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다. 지금 이 정도까지 사역을 행하여 이미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정도까지 한 것도 이미 큰 노력으로 얻어낸 성과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전체 경영 사역 가운데 90%를 완성했다. 이 육신은 그의 모든 사역을 더 좋은 시작으로 인도했다. 이 육신은 그의 모든 사역을 총결짓고 널리 알렸으며, 마지막으로 완전히 보완했다. 이제 다시는 성육신 하나님이 와서 네 번째 단계의 사역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세 번째로 성육신하는 이 놀라운 사역이 있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패피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26)

육신으로 하는 각 단계의 사역은 사람처럼 어느 한 시기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체 시대 사역을 대변한다. 그러므로 그의 마지막 성육신 사역이 끝났다고 해서 그의 사역이 전부 끝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육신으로 하는 그의 사역은 그가 육신으로 사역하는 기간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대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가 전체 시대에 하는 사역은 육신에 거하는 동안 모두 끝낸 다음 여러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뿐이다. 성육신 하나님은 그의 직분을 다한 후,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그가 앞으로 할 사역을 맡긴다. 그래야만 그의 전체 시대 사역이 끊기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 사역이 전 우주 각 지역으로 확장되었을 때 비로소 성육신의 전체 시대 사역이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성육신의 사역은 새 시대를 여는 사역이며, 그의 사역을 잇는 것은 그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모두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의 직분 안에 있는 사역이며, 절대로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낡은 시대를 끝낼 수 없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도 없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단지 본분 내에 있는 것, 즉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일 뿐이다.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해 사역할 수는 없다. 오직 성육신 하나님만이 그가 해야 할 사역을 완수할 수 있을 뿐, 그 외에는 누구도 그의 사역을 대신할 수 없다. 물론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성육신의 사역에 대한 것이다. 이번에 성육신하여 먼저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 한 단계의 사역을 한 후, 다시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 사역을 더 많이 할 것인데, 그 목적은 사람을 정복하는 데 있다. 성육신 자체가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 데다가 그가 한 더 많은 사역 역시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은 더욱 예사롭지 않아졌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수많은 관념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정복 사역을 한다. 사람이 그를 어떻게 대하든 그가 직분을 다하고 나면 모든 사람이 그의 권세 아래에 복종할 것이다. 이 사실은 중국인 가운데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류 전체가 정복되는 과정도 이와 같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성과 역시 전 인류에게서 나타날 성과를 미리 보여 준다. 심지어 그가 앞으로 할 사역은 이 사람들에게서 하는 사역보다 점점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다. 육신의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기세가 대단하지도 않고 보일 듯 말 듯 희미하지도 않다. 그것은 매우 실제적이며,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누구에게도 감추지 않고 누구도 속이지 않는다. 사람이 보는 것은 모두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의 것이고, 사람이 얻는 것도 모두 실제적인 인식과 진리다. 사역이 끝날 때 사람은 그를 새롭게 알게 될 것이고, 진심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관념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그가 중국인에게서 거둔 사역 성과일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인류 전체를 정복하는 사역의 성과를 뜻한다. 이 육신, 이 육신의 사역, 이 육신의 모든 것은 전 인류를 정복하는 사역에 가장 이롭기 때문이다. 오늘도 그의 사역에 이롭고 앞으로도 그의 사역에 이롭다. 이 육신은 인류 전체를 정복하고, 또 인류 전체를 얻는다. 그의 사역은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역이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제한적인 범위만을 대표한다. 하나님은 사역을 할 때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해 말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말하는

것이다. 또 결말을 선포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결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결말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그는 인류 전체를 상대로 사역하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이번에 성육신한 하나님이 이미 인류 전체를 각기 부류대로 나누었고, 인류 전체를 심판했으며, 인류 전체를 위해 적합한 종착지를 예비했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중국에서만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는 이미 우주 전체의 사역을 모두 해결했다. 그는 인류 전체의 사역이 다 확장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씩 말하거나 하나씩 안배할 수 없다. 그러면 너무 늦지 않겠느냐? 지금은 이후의 사역을 충분히 앞당겨 완성할 수 있다. 사역하는 이는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는 무한한 범위의 사역을 유한한 범위에서 행한 후, 사람에게 그들이 해야 할 본분을 이행하게 한다. 이것이 그의 사역 원칙이다. 그는 사람과 한 시기만 함께 생활할 뿐, 전체 시대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사람과 함께할 수는 없다.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후의 사역을 미리 예언할 수 있다. 이후에는 그 말씀에 따라 인류 전체를 각기 부류대로 나눌 것이고, 그의 말씀에 따라 인류 전체가 그의 사역 속으로 한 단계씩 진입하게 될 것이다.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영이 아닌 말씀이 시대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패괴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27)

사람의 육체는 사탄에 의해 패괴되고, 가장 심하게 기만당했다. 육체는 극심한 해를 입은 대상이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으로 사역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구원의 대상이 육에 속한 사람이고, 사탄도 사람의 육체를 이용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사탄과의 싸움은 사실 사람을 정복하는 사역이며, 사람은 또 구원받는 대상이다. 따라서 성육신으로 사역할 필요성이 크다. 사탄이 사람의 육체를 패괴시켜 사람은 사탄의 화신이 되었고 하나님이 물리칠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사탄과 싸우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모두 땅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 되어 사탄과 싸워야 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사역이다. 그가 육신으로 사역하는 것도 사실은 육신으로 사탄과 싸우는 것이고, 영계에서의 그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는 영계에서의 사역을 모두 땅에 실체화했다. 그가 정복하는 대상은 그를 거역하는 사람이고, 그가 물리치는 대상은 그를 적대시하는 사탄의 화신(물론 이 역시 사람)이며, 또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대상 역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피조물의 외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했다. 사탄과 실제적인 싸움을 할 수 있고, 그를 거역할뿐더러 그와 같은 외형을 가진 사람을 정복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외형을 갖고 있는, 사탄에게 해를 입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의 원수는 사람이고, 정복할 대상도 사람이며, 구원할 대상 역시 창조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렇게 하면 그의 사역이 훨씬 편해져 사탄을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정복할 수 있고 더욱이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다. 비록 ‘육신’이 정상적이고

실제적일지라도 평범한 육신이 아니고 인성만 있는 육신도 아니며,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진 육신이다. 이것이 그와 사람의 다른 점이며, 하나님의 신분을 상징하는 표지이다. 이런 육신만이 그가 하려는 사역을 할 수 있고,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의 직분을 이행할 수 있으며,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하는 사역을 철저히 완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하는 사역은 영원히 공백 상태일 것이고, 영원히 허점일 것이다. 설령 하나님이 사탄의 영과 싸울 수 있고 이긴다고 해도 패괴된 사람의 옛 성품은 영원히 해결되지 못하고, 그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의 권세 아래에 진실로 복종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영원히 인류를 정복할 수 없고 인류 전체를 얻을 수 없다. 땅의 사역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의 경영은 끝날 수 없고, 인류 전체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러한 경영 사역은 영원히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에 따라 사라질 것이다. 그의 육신은 권병을 지니지 않았지만 그가 한 사역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그가 행하는 사역의 필연적인 흐름이다. 권병을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 자신이다. 육신이 아무리 정상적이고 평범해도 그가 해야 할 사역을 할 수 있다. 이 육신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육신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내면에 있는 본질이 그 누구와도 다르기 때문이고, 그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신분이 그 누구와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 이 육신이 인류에게 더없이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람이면서 더욱이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평범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하지 못하는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땅에서 그와 함께 생활하는 패괴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육신 하나님은 인류에게 있어 그 어떤 가치 있는 사람보다도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이 하지 못하는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잘 증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보다 더욱 완전하게 인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육신은 평범하고 정상적이지만 그가 인류에게 기여한 것과 인류의 생존에 대해 갖는 의의를 논한다면 아주 보배롭다. 이 육신의 실제 가치와 의의는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다. 육신은 비록 사탄을 직접 멸할 수 없지만 그는 사역의 방식으로 인류를 정복하고 사탄을 물리쳐 철저히 그의 권세 아래에 굴복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였기에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는 사탄을 직접 멸하지 않고 성육신하여 사역하면서 사탄에 의해 패괴된 인류를 정복한다. 그러면 피조물 가운데서 그 자신을 더 잘 증거할 수 있고, 패괴된 사람을 더 잘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 사탄을 멸하는 것보다 더 좋은 증거가 되며 설득력도 더 강하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창조주를 알아 가는 데 더 도움이 되고, 피조물 가운데서 그 자신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패괴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28)

하나님이 땅에 와서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친히 사람 앞에 나타나고 사람에게 보게 하는데, 이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이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보게 하고 막연하거나 공허한 존재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 위대한 존재가 될 수도, 자신을 낮출 수도 있음을 알게 하려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이 그렇게 단순할 리 있겠느냐? 사탄이 패괴시킨 것은 사람의 육이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대상 또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육신을 입고 와서 사탄과 싸우고 친히 사람을 목양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역에 이롭다. 하나님은 두 번 성육신했는데, 그 두 차례 입은 육신은 모두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자 사람을 더 잘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탄과 싸우는 대상은 하나님의 영이든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든, 어쨌든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천사는 사탄과 싸울 수 없고, 사탄에 의해 패괴된 사람은 더더욱 사탄과 싸울 수 없다. 천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며, 사람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을 만들고 인간 세상에 임하여 사람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해야 한다. 즉, 육신을 입고, 그의 원래 신분을 지니고 그가 해야 할 사역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와서 친히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사역하거나 사람이 사역한다면 이 싸움은 영원히 성과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끝을 맺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와서 친히 사탄과 싸워야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되며, 사탄도 수치를 당하고 더 이상 탐탈 기회나 수작 부릴 방법이 없게 된다.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모두 하나님의 영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더더욱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그가 하는 사역은 모두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며, 사람의 패괴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 싸움에 ‘참여’한다면 그저 참패하여 낭패를 당할 뿐, 사람의 패괴 성품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을 십자가에서 구원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패역한 인류를 정복할 수도 없다. 그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낡은 사역을 하거나 사탄을 물리치는 것과 관련 없는 사역을 조금 할 수 있을 뿐이다. 무엇 때문에 그런 헛수고를 하겠느냐? 사람을 얻지 못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사역은 더더욱 할 수 없다면 그 사역에 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사탄과의 싸움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할 수 있으며,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의 본분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다. 사람은 결코 천지개벽의 사역을 할 수 없고, 사탄과 싸우는 사역은 더더욱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창조주를 만족케 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칠 수밖에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때마다, 즉 새 시대의 사역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 사역을 행하며, 이를 통해 시대 전체를 이끌고 온 인류를 위해 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다. 시대가 새롭게 바뀔 때마다 사탄과의 싸움이 새로 시작되며, 이로써 인류도 더 새롭고 아름다운 경지, 하나님이 친히 이끄는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지만, 하나님께 얻어진 사람은 모든 싸움이 끝난 후의 열매이기도 하다. 사탄은 만물을 부패시킨 존재이고, 모든 싸움의 패장이자 싸움이 끝난 후에 벌을 받는 대상이다. 하나님, 사람, 사탄, 이 셋 중에서 오직 사탄만이 버림받을 대상이지만,

사탄에게 얻어져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징벌받는 대상이 된다. 앞서 말한 셋 중에서 만물의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한편,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다가 하나님께 되찾아진 뒤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악한 자를 심판하는 대상이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고 사탄은 반드시 패배하겠지만, 사람은 이기는 자도 있고 실패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긴 자에 속하고, 패배하는 사람은 패배자에 속한다. 이것이 바로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것으로, 모든 사역의 종결이자 근본 취지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다. 경륜의 주된 핵심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주된 이유도 이 핵심과 이 사역을 위함이고, 사탄을 물리치기 위함이다. 첫 번째 성육신도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하나님은 친히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첫 번째 싸움의 사역, 즉 인류를 속량하는 사역을 완성했다. 마찬가지로 이번 단계도 하나님이 친히 사역한다. 성육신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고 친히 말씀하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다른 사역도 곁들여 하겠지만, 그가 친히 이 사역을 하는 주목적은 역시 사탄을 물리치고, 모든 인류를 정복하여 얻는 데 있다. 그러므로 성육신 하나님의 이 사역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만약 그가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감춘다는 것을, 하나님이 바로 실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만 사역을 한다면 성육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지 않아도 그의 낮춤과 감춤, 위대함과 거룩함을 사람에게 직접 계시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사람을 구원하거나 온전케 하지 못하며, 더욱이 사탄을 물리치지도 못한다. 단순히 영과 영의 싸움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사역은 실질적인 가치가 전혀 없으며, 사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그르칠 뿐이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깊은 의의를 지닌다. 그것은 그저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사람의 시야를 넓혀 감동과 격려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라면 어떤 의의도 없다. 네가 이런 인식밖에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네가 아직도 하나님이 성육신한 진정한 의의를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람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사람을 아름다운 종착지로 이끌어 간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29)

하나님의 각 단계 사역에는 모두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 예수는 예전에 왔을 때는 남성으로 왔었지만 이번에는 여성으로 왔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은 모두 그의 사역을 위해서이며, 하나님께는 성별의 구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영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육신을 취할 수 있고, 그 육신은 하나님을 대표한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라면 모두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말이다. 설령 예수가 여자의 몸으로 왔더라도, 즉 당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남자아이가 아닌 여자아이였어도 똑같이 그 단계의 사역을 완성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지금 단계의 사역은 남자가 하게 됐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역을 완성할 것이다. 사역은 어느 단계든 모두 의의가 있으며, 두 단계의 사역은 중복되지도, 서로 모순되지도 않는다. 예수는 사역할 당시에 독생자라고 불렸다. 독생자의 ‘자(子)’는 남자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독생자라고 하지 않느냐? 사역의 필요에 따라 예수와 성별이 달라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는 성별의 구분이 없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으며, 그의 사역은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매우 자유롭지만, 모든 단계에 다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 하나님은 두 번 성육신했는데, 두말할 필요 없이 말세에 성육신한 것이 마지막이며, 그는 자신의 모든 행사를 보여 주기 위해 왔다. 만약 이번 단계에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직접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는다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여자가 아닌 남자일 것이라는 관념을 가질 것이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은 남자여야만 하고, 여자는 하나님으로 불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남자는 여자에 대한 권병이 있으며, 그 권병은 남자만 담당할 수 있고 여자는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기에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지 남자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사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말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에게 해당할 뿐, 여호와가 처음에 만들었던 남자와 여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여자는 마땅히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사랑해야 하며, 남편은 가족을 부양할 줄 알아야 한다. 이는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율레이자 법도이다. 여호와는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라고 말씀했다.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다만 인류(남자와 여자)가 여호와의 권세 아래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상규를 지키며 질서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남자와 여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규칙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는 땅에서 생활하는 모든 피조물에 해당하는 것일 뿐, 하나님이 입은 육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나님이 어찌 피조물과 같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된 인류에게만 국한되는 것으로, 창조된 인류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별에 따른 규칙을 만든 것이다. 여호와는 태초에 사람을 만들면서 남자와 여자, 두 부류로 나누었다. 그러므로 그가 입은 육신 또한 남자와 여자로 구분됐을 뿐이지, 그가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씀으로 자신의 사역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의 두 차례 성육신 또한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의 생각대로 결정되었다. 즉, 파괴되지 않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 두 번의 성육신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다. 만약 당시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와 아담에게 여호와가 했던 말씀을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에 적용한다면, 예수 또한 마땅히 사모해야 할 아내를 사모해야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겠느냐? 또한 그렇다면, 그가 자신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이 여자의 몸으로 성육신한 것이 잘못이라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든 것부터가 크나큰 잘못 아니겠느냐? 또한, 하나님이 여자의 몸으로 성육신한 것이 잘못이라면, 아내를 맞이하지도, 사모하지도 않은 예수 또한 사람의 말대로 오늘날의 성육신과 마찬가지로 잘못을 저지른 것 아니겠느냐? 여호와가 하와에게 한 말씀으로 오늘날 하나님이 성육신한 일을 평가한다면, 은혜시대에 성육신한 주 예수에 대해서도 여호와가 아담에게 한 말씀으로 평가해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예수를 뱀에게

유혹당한 적 없는 남자로 본다면, 오늘날 성욕신한 하나님을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로 보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불공평하다! 그런 평가는 너에게 이성이 없음을 뜻한다. 여호와가 두 차례 입은 욱신의 성별은 뱀에게 유혹당한 적 없는 남자, 여자와 관련된다. 즉, 뱀의 유혹을 받지 않은 남자와 여자로 두 번 성욕신한 것이다. 예수를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같은 남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예수’와 ‘아담’ 사이에는 아무 관계도 없다. 둘은 성질이 전혀 다른 남자다. 예수가 남자라고 해서 그가 모든 여자의 머리일 뿐, 모든 남자의 머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는 모든 유대인(남자와 여자 포함)의 왕이 아니더냐? 그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는 여자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남자의 머리이며,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자 머리이다. 너는 어째서 예수의 성별을 여자의 머리라는 상징으로 규정하느냐? 그것은 모독이 아니겠느냐? 예수는 패괴되지 않은 남자이며, 그는 하나님이자 그리스도이며 주님이다. 그가 어떻게 패괴된 아담과 같은 남성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예수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취한 욱신이다. 네가 어찌 그를 아담의 남성성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도 모두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여호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의 남성성을 예수에게 더했을 리 있겠느냐? 오늘날의 성욕신은 예수와 성별은 다르나 성질은 똑같은 성욕신의 또 다른 사역이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너는 여자가 먼저 뱀에게 속아 넘어갔으니 하나님은 여자의 몸으로 성욕신하면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 여자는 가장 더러운 존재이자, 인류의 패괴를 초래한 기원이니, 하나님이 여자로 성욕신할 리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 또한 “여자는 언제까지나 남자에게 순종해야 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고, 직접 하나님을 대변할 수도 없다.”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이 하나님이 입은 욱신을 모독하겠느냐? 잘 모른다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 너의 어리석음과 무지함, 추태가 드러나지 않도록 말이다. 네가 무엇이든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 네게 알려 주겠다. 지금까지 네가 보고 체험한 것으로는 내 경륜의 천분의 일조차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도 네가 그렇게 오만하게 굴 것이 뭐가 있느냐? 네가 가진 보잘것없는 재능과 인식은 예수가 행하는 사역에 1 초도 이용될 수 없다! 너의 체험은 얼마나 되느냐? 여태까지 네가 본 것에 네가 평생 듣고 상상한 것을 더해도 내 한순간의 사역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 흠잡을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겠다. 네가 아무리 교만하게 굴어도 재미만도 못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네 배 속에 들어 있는 것들은 재미 배 속에 들어 있는 것보다도 적다! 네가 체험이 많고 관록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지껄여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체험과 관록 또한 다 내가 한 말에서 비롯된 것 아니더냐? 설마 그게 너의 성실과 근면의 대가라 생각하느냐? 너는 오늘날 나의 성욕신을 보았기에 그렇게 풍부한 상상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관념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다. 내가 성욕신하지 않았더라면, 너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그렇게 많은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너의 관념 또한 그로 인해 생긴 것 아니더냐? 만약 예수의 첫 번째 성욕신이 없었다면, 성욕신에 대해 네가 알거나 했겠느냐! 너는 첫 번째 성욕신을 알게 됐다고 그렇게 방자하게 두 번째 성욕신을 평가하는 것 아니더냐? 너는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되지는 못할망정,

또 무엇을 따지는 것이냐? 네가 이 흐름에 들어와 성육신 하나님 앞에 온 이상 네가 연구하는 것을 그가 용납하겠느냐? 네가 네 집안의 가족사를 따져 보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가족사’를 따져 보고자 한다면, 오늘날의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겠느냐? 너는 눈이 먼 것이 아니냐? 화를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두 번의 성육신으로 성육신의 의의가 완전해지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30)

예수와 나는 같은 영에서 왔다. 육신은 서로 관련이 없지만 영은 하나이며, 사역의 내용과 담당하는 사역이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서로 다른 모습의 육신을 취한 이유는 시대가 다르고, 사역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직분이 다르기에 가져온 사역도 다르고, 사람에게 보여 주는 성품 역시 다르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이 보고 깨닫는 것 역시 예전과 다르다. 이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차이이다. 두 육신은 성별도, 모습도 다르고, 같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며, 같은 시기에 태어난 것은 더더욱 아니지만, 그들의 영은 하나이다. 둘의 육신은 어떤 혈연관계도, 육적인 관계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서로 다른 시기에 입은 육신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둘 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둘은 같은 혈통도 아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는다(한 사람은 유대어를 쓰는 남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중국어만 쓰는 여자임). 이 때문에 둘은 서로 다른 시기, 서로 다른 나라에서 각자 해야 할 사역을 하는 것이다. 둘은 하나의 영, 그러니까 같은 본질을 지니고 있으나, 육신의 겉모습은 닮은 부분이 전혀 없다. 똑같은 인성을 지녔을 뿐, 육신의 생김새나 출생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각자의 사역이나 그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들은 결국 하나의 영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그들을 분리시킬 수 없다. 둘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고 해도, 그들의 영이 그들의 전 존재를 지배하여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사역을 담당하게 한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육신은 같은 혈통이 아니다. 여호와와 영이 예수 영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의 영 또한 여호와 영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결국 하나의 영이다. 오늘날 성육신한 하나님과 예수 역시 그 어떤 혈연관계도 없다. 그러나 둘의 근원은 하나이다. 이는 둘의 영이 원래부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역을 할 수 있고, 공의로운 심판의 사역도, 사람을 형벌하거나 저주하는 사역도 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는 세상을 멸하고 악인을 징벌하는 사역 또한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직접 하는 것 아니더냐?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더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두 번의 성육신으로 성육신의 의의가 완전해지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31)

전 우주 위아래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존재인데, 육신 하나의 형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모두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것은 한 단계 사역을 하기 위함이다. 육신의 형상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시대의 변천이나 하나님의 성품과도 관계가 없다. 당시에 예수가 왜 그의 형상을 남기지 않았겠느냐? 왜 사람들에게 그의 형상을 그려 영원히 전하도록 하지 않았겠느냐? 왜 사람들에게 예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하도록 하지 않았겠느냐?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맞지만, 사람의 모습이 어찌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하늘에서 하나의 특정한 육신에 내려온 것에 불과하다. 이는 그의 영이 육신에 임한 후 육신에서 영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 영이 육신에서 발현하는 것이며, 영이 육신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육신이 행하는 사역은 오롯이 영을 대표한다. 육신은 사역을 위한 것이지만 육신의 형상으로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형상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한 목적과 의의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가 성육신하는 목적은 단지 영이 역사하기에 적합한 거처를 찾아 육신의 사역을 하는 데 있으며, 또한 사람이 그의 행사를 보고 그의 성품을 깨달으며,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기묘한 사역을 알게 하는 데 있다. 그의 이름은 그의 성품을 대표하고 그의 사역은 그의 신분을 대표한다. 하지만 그는 육신의 모습이 그의 형상을 대표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것은 사람의 관념일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의 핵심은 바로 그의 이름과 사역, 성품, 그리고 그의 성별에 있으며, 이로써 그 시대의 경영을 대표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가 성육신한 모습은 단지 그 당시의 사역을 위한 것일 뿐 그의 경영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성육신한 하나님에게는 특정한 모습이 있어야 하기에, 그는 적합한 가정을 택하여 그의 모습을 결정한 것이다. 모습에 대표적인 의의가 있다면, 그와 비슷하고 용모가 단정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말인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니냐? 예수의 초상화는 사람들이 스스로 경배하려고 그렸다. 당시에 성령도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상상해서 그린 그 초상화를 오늘날까지 전해 온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원뜻에 따른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지만, 사람의 지나친 열성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초상화가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므로 사람은 영원히 그가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지 개괄할 수 없다. 그저 그의 성품으로 그의 형상을 대신할 뿐이다. 그의 코와 입, 눈은 어떻게 생겼고, 머리카락은 어떠한지, 너는 이러한 것들을 개괄할 수 없다. 지난날 요한은 계시를 받아 인자의 형상을 보고서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느니라”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지만, 그가 묘사한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피조물의 형상이 아니다. 그가 본 것은 물질세계에 있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이상(異象)에 불과하다. 요한이 이상을 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참으로 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형상은 피조물의 형상에 속하므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대표할 수 없다. 여호와와 인류를 창조할 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다. 이렇듯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했지만,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하다고 해서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네가 인류의 언어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개괄해 내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크며,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기묘하여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역 이상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32)

이번에 온 하나님은 영체가 아닌 아주 평범한 몸으로 사역한다. 그 몸은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성육신한 몸이며, 또한 하나님이 다시 육신을 입고 돌아온 몸이고, 아주 평범한 육신이다. 너는 그에게서 남다른 점을 찾을 수 없으나 지금까지 들어 본 적이 없었던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이 보잘것없는 육신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진리의 말씀의 화신이고, 하나님이 하는 말세 사역의 담당자이며,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나타내 알게 하는 존재다. 너는 하늘의 하나님이 몹시 보고 싶지 않았더냐? 너는 하늘의 하나님을 몹시 알고 싶지 않았더냐? 너는 인류의 종착지를 몹시 보고 싶지 않았더냐? 그는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 주지 못했던 이 모든 비밀을 너에게 알려 줄 것이고, 또한 네가 깨닫지 못한 진리도 알려 줄 것이다. 그는 너를 하나님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대문이자 너를 새 시대로 이끄는 인도자다. 이런 평범한 육신에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비밀이 많이 깃들여 있다. 그의 행사는 네가 분명하게 측량할 수 없지만, 그가 행하는 사역의 모든 목표를 통해 너는 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육신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세의 뜻을 대변하고, 말세의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너는 천지를 진동하는 듯한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불꽃 같은 그의 두 눈을 볼 수 없으며, 그의 철장(鐵杖)의 다스림을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너는 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류를 긍휼히 여기고 있음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도 엿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염려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은 말세 사역을 통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그가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은 사람과 다른 없는 하나님, 눈과 코가 달린 하나님,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천지가 크게 변하고,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혼돈에 빠지며, 인류가 기근과 전염병 속에서 살게 될 것임을 보게 할 것이다. 또 말세에 성육신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진작에 모든 사람을 지옥에 멸했을 것이고, 이 육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영원한 죄수이자 영원한 시체임을 보게 할 것이다. 너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육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온 인류는 큰 재난을 피하기 어렵고, 말세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리는 더 무거운 징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이다. 또한 이 평범한 육신이 강생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 것이고, 이 육신이 존재(원문: 存活)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너희는 진리를 얻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너희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육신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기회가 없고, 또한 이 육신이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옛 시대를 벌써 끝냈을 것이다. 이러함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성육신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 평범한 사람이 너희에게 이렇게 유익한데도 너희는 왜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매우 큰 일을 하였다는 것을>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33)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은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네가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분명하게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이 성공할지도 모르겠다면, 너는 어째서 이 평범한 사람이 정말로 너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매우 큰 사역을 하였는지 네 운을 시험해 보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알려 줄 것이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는 것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노아 일가족 여덟 식구와 각종 날짐승과 길짐승만 남기고 큰 홍수로 모든 사람을 멸해 버렸다. 하지만 말세에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모든 사람을 남겨 둔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심히 패괴된 시대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는 패괴된 인류인 것은 똑같지만, 노아 시대의 사람은 하나님이 모두 멸해 버렸다. 하나님을 극도로 상심케 한 지경에 이른 것은 똑같지만 말세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내하였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너희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너희가 정말 모르겠다면, 내가 알려 주겠다. 하나님이 말세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은 말세의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보다 덜 패괴되었거나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더욱이 말세의 과학 기술이 발달하여 하나님이 멸하기 아쉬워서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세에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할 사역이 있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친히 이 사역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이 이 한 무리의 사람들 중 일부를 골라 구원의 대상이자 경륜의 결정체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음 시대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말하든지, 하나님이 치른 모든 대가는 말세의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예비한 것이다. 너희에게 오늘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육신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육신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생존할 기회를 얻었는데, 이 모든 복은 이 평범한 사람으로 인해 얻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만국이 모두 이 평범한 사람에게 경배하고,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순종할 것이다. 그가 가져온 진리와 생명과 길이 온 인류를 구원하였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였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소통시키고, 또 그가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영광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런 평범한 사람이 네가 믿고 앙모할 만한 가치가 없단 말이나? 이런 평범한 육신이 그리스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단 말이나? 이런 평범한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발현이 될 수 없단 말이나? 사람에게 재난을 면케 해 준 이러한 사람이 너희가 사랑하고 붙들 만한 가치가 없단 말이나? 만약 너희가, 그가 입으로 선포한 진리를 저버리고 또 그가 너희들 가운데에 거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너희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세 사역은 다 이 평범한 사람을 통해 한다. 그는 너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람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범하여 언급할 가치조차 없겠느냐? 그의 진리가 너희로 하여금 마음으로나 입으로 탄복케 하기에 부족하냐? 그의 행사가 너희로 하여금 눈으로 탄복케 할 수 없느냐? 아니면 그가 이끄는 길이 너희가 걸어갈 가치가 없느냐? 과연 어떤 것이 너희에게 그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고, 그를 저버리고 피하게 하느냐? 진리를 선포하고 공급하는 이도 이 사람이고, 너희가 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이도 이 사람이다. 너희는 아직도 이러한 진리에서 하나님이 사역한 발자취를 찾을 수 없단 말이나? 예수의 사역이 없었다면, 인류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육신이 없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온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영원히 새 시대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평범한 사람이 오지 않았다면,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볼 기회도, 자격도 없었을 것이다. 너희는 다 진작에 멸망되었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였고, 너희에게 공활을 베풀어 주었다. 어쨌든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역시 이것이다. 말씀이 육신 된 이 평범한 사람이 너희에게 지극히 중요한 존재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행한 매우 큰 일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매우 큰 일을 하였다는 것을>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34)

실제 하나님에 대해 네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실제 하나님 자신을 구성하는 것은 영, 사람, 말씀이다. 이것이 실제 하나님의 진정한 함의이다. 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의 생활 습관이나 성격은 알지만, 영의 역사와 영이 육신에서 행한 것은 모르고, 또 하나님의 영이 실제 하나님의 몸에서 행한 사역은 모른 채 영과 말씀만 중시하며 영 앞에서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네가 실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알고 체험하며, 성령 역사의 법칙과 원칙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육신으로 사역하는지를 아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영의 지배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의 말씀이 영의 직접적인 선포임을 아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실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주로 하나님이 인성과

신성으로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접하는 영의 선포와 관련된다.

영의 선포는 어떤 면이 포함되어 있을까? 때로는 인성으로, 때로는 신성으로 사역하지만, 포괄적으로 말하면 모두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사람에게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속에 있는 영에 근거한다. 영은 정상적으로 일을 한다. 하지만 그가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은 인성으로 하는 사역과 신성을 통해 하는 사역, 두 부분으로 나뉜다. 너는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즉, 다양한 상황에 따라 영의 사역 역시 다르다. 인성의 사역이 필요할 때는 영이 인성을 지배하여 사역하고, 신성의 사역이 필요할 때는 신성으로 직접 사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역하고, 육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인성으로 사역할 수도 있고 신성으로 사역할 수도 있다. 인성 사역은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는 사람의 육체적 요구를 만족시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사람들에게 실재적이고 정상적인 하나님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육신으로 왔고, 인간 세상에 와서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접촉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신성 사역은 사람의 생명을 공급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인 면으로 이끌고,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켜 영이 육신을 입고 나타났음을 진실로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사람 생명의 성장은 주로 신성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신성의 사역을 받아들여야 성품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풍족해질 수 있다. 거기에 인성의 사역, 즉 하나님이 인성으로 하는 목양, 붙들, 공급이 있어야 완전히 하나님 사역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오늘 언급한 실재 하나님은 인성으로 사역하기도 하고, 신성으로 사역하기도 한다. 실재 하나님의 나타남을 통해 정상적인 인성의 사역과 생활도 있고 완전한 신성의 사역도 있는, 인성과 신성이 하나로 연결되는 상태에 이른다. 또한 인성의 사역과 신성의 사역은 모두 말씀으로 이루어지므로 인성에서든 신성에서든 다 말씀한다. 인성으로 사역할 때는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인간적인 언어는 대중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서 누구에게나 공급할 수 있고, 지식인이든 지식이 없는 자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다. 신성으로 사역할 때도 역시 말씀을 통해 하지만 신성 사역에는 공급이 가득하고 생명이 충만하며, 사람의 뜻이 섞여 있지 않고, 인성의 취향과 무관하고 인성의 제약이 없다. 또한 정상 인성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 육신으로 사역하는 것은 같지만, 이는 영의 직접적인 선포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인성 사역만 받아들인다면 한쪽 범위에만 국한되기에 오랜 시간 책망과 훈계, 징계를 거쳐야 약간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함께함이 없는 자는 고질병이 재발하게 된다. 이는 신성 사역을 통해 그 폐단과 결점을 보완함으로써 완전해지게 해야 한다. 장기간의 책망과 훈계가 필요 없이 긍정적인 면으로부터 공급하고, 말씀으로 모든 결점을 보완하고, 말씀으로 사람의 모든 내적 상태를 드러내고, 말씀으로 사람의 생활과 말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지배하여 사람의 속셈과 목적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재 하나님이 하는 실재 사역이다. 그러므로 실재 하나님을 대할 때는 그의 인성 앞에서 순종하고, 신성의 사역과 말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확신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 영의 모든 사역과 말씀이 정상 인성을 통해, 그리고 성육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이 인성의 사역을 지배하고, 육신으로 신성의 사역을 한다는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을 통해 너는 하나님이 인성으로 하는 사역도 볼 수 있고, 완전한 신성으로 하는 사역도 볼 수 있다. 이것이 실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실제적 의의이다. 네가 이 점을 간파했다면 하나님의 각 부분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으니 신성의 사역을 지나치게 중시하지도, 인성의 사역을 지나치게 경시하지도 않을 것이요, 극단으로 가지도, 길을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실제 하나님의 함의는 신성의 사역과 영의 지배를 받는 인성의 사역을 육신을 통해 나타내어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인성에서 하는 사역은 과정 단계가 있다. 먼저 인성 부분을 온전케 함으로써 인성이 영의 지배를 받게 해 교회들을 공급하고 목양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하나님이 사역하는 정상적인 일면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성 사역의 원칙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인성 사역에 대해 쉽게 관념이 생기지 않는다. 어찌 됐든 하나님의 영은 틀릴 리 없고 모두 정확하다. 하나님은 실수할 리 없다. 신성의 사역은 인성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나타내는데,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신성으로 하는 사역 역시 정상적인 인성이 하는 것인지라 전혀 초자연적이지 않기에 마치 정상인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온 것은 주로 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육신을 통해 하나님 영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실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35)

지금 실제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앎은 너무 단편적이고, 성육신의 의의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육신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포하는 것이 참으로 많고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찌 됐든 하나님이 증거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어떻게 사역하는지, 즉 어떤 원칙에 따라 인성에서는 어떻게 사역하고, 신성에서는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오늘 네가 이 사람을 경배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는 성육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 최소한 알아야 할 점이다. 사람은 육신을 통해 영의 본질을 알게 되고, 영이 육신으로 하는 신성의 사역과 인성의 사역을 알게 되며, 육신에서 하는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육신을 지배하는지, 어떻게 육신에서 그의 큰 능력을 나타내는지 알게 된다. 바꿔 말해서, 육신을 통해 하늘에 계신 영을 알게 되고, 실제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남으로써 사람의 고정 관념 속의 막연한 하나님을 제거하고, 실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경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된다. 그리고 육신으로 하는 하나님 영의 신성 사역과 인성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계시와 목양을 받고 생명 성품이 변화된다. 이것이 영이 육신에 온 실제 함의인데, 주로 사람이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은 내면에 실제 하나님에 대해 주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을까? 성육신에 대해,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 실제 하나님의 행사 등을 과연 어떻게 인식하느냐? 지금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성육신, 말씀이 육신에 오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이 몇 가지를 반드시 꿰뚫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너희의 분량에 따라, 시대에 따라 너희는 생명 체험 속에서 차츰 이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꿰뚫어 보고 뚜렷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과정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을 통해 영의 사역 원칙을 파악하고 실제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된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사람을 얻는 것은 사람이 실제 하나님의 행사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자 실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성육신의 실제적 의미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음을 보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얻어지고 하나님께 온전케 된다는 것은 실제 하나님의 선포로 사람을 정복하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의 생명을 사람의 내면에 만들어 넣어 사람을 그의 어떠함(인성의 어떠함이든 신성의 어떠함이든)과 그의 말씀의 본질로 채워서 그의 말씀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얻기 위해 주로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부족함을 다루고, 사람의 패역 성품을 심판하고 드러내어 사람이 필요한 것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왔음을 알게 한다. 실제 하나님이 하려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모든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더러운 땅을 벗어나게 하고 사람들의 패괴 성품을 없애는 것이다. 실제 하나님께 얻어지는 가장 깊은 의미는 실제 하나님을 뜻대와 본보기로 삼아 정상적인 인성으로 살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에 따라 실행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게 간극 없이 그가 말씀한 대로 실행하고, 그가 요구한 것을 모두 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하나님께 얻어진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얻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하나님이 네게 요구한 대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은 네게 생명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핵심은 네가 실제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네가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실제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역하는 가장 큰 의미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생생하게 실제로 육신으로 나타나 육신으로 영의 사역을 하고 사람의 뜻대가 되는 것을 현실감 있게 보여 줌으로써 한 무리의 사람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육신에 온 주된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실제 행사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무형의 영을 육신에 실체화하여 사람들이 만지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에게 온전케 된 사람이야말로 그를 살아 낸 사람이요, 그에게 얻어진 사람이요, 그의 뜻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음성을 발하고 실제로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행사를 그저 공허한 이론으로 전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말씀을 실체가 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 땅에 와서 주로 하나님이 얻으려는 사람을 위해 쏫대를 세우고,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만지고, 볼 수 있으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실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36)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행한 사역에는 두 부분이 있다. 처음 성육신하였을 때, 사람은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두 번째 성육신하였을 때도 사람은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지기(知己)가 되겠느냐? 또 어찌 하나님의 증인이 될 자격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 아니겠느냐? 비현실적이고 비실제적인 것을 목숨 걸고 추구한들 부질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너는 누가 하나님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기가 되겠느냐? 그러한 추구는 너무나 막연한 것이 아니냐? 또한 기만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나님의 지기가 된다는 실제 의미는 무엇이나? 너는 하나님 영의 지기가 될 수 있겠느냐? 그 영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볼 수 있느냐?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지기가 된다는 것은 너무 막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추구에 무슨 실제적인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은 모두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지기가 되기를 추구하지만, 사실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다. 이는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네가 추구하는 것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네 고정 관념 속에만 있는 '만유 가운데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런 '하나님'은 조금 막연하게 말하면 사탄이고, 조금 현실적으로 말하면 너 자신이다. 너는 너 자신의 지기가 되기를 추구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지기가 되겠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모독이 아니냐? 그런 추구에 어떤 가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육신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람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생명의 영일 뿐이다. 그 영은 형상이 없고, 비물질적이며, 사람이 다가설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다. 비물질적이고 기묘하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영을 사람이 어떻게 지기로 삼을 수 있겠느냐? 이는 웃음거리만 되지 않겠느냐? 이는 성립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 않은, 그릇된 이론이다. 창조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은 원래 같은 부류가 아닌데 어떻게 서로 지기가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육신에 실체화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성육신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피조물이 되지 않는다면, 창조된 사람은 아예 그의 지기가 될 자격도, 그의 지기가 될 방법도 없다. 어쩌면 경건한 신도들의 영혼이 천국에 간 후에 하나님의 지기가 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하나님 영의 지기가 될 수 없다. 성육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늘의 하나님의 지기가 되려 한다면, 이런 사람은 멍청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인류’가 아니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만 ‘충성을 다할’ 뿐, 보이는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추구하기 쉽고, 대하고 싶은 대로 대할 수 있지만, 보이는 하나님은 추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막연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얻을 수 없다. 막연한 것은 사람이 상상해 낸 것이며, 또한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에 온 분이 위대하고 접촉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너희가 어떻게 그의 뜻을 찾을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 그를 알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가 사역만 하고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접촉하지 않거나 그에게 정상 인성이 아예 없다면, 보통 사람은 그에게 다가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너희에게 수없이 많은 사역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와 접촉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정상 인성’을 갖춘 육신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였기 때문에 사람은 ‘육신을 지닌’ 이 하나님의 지기가 될 자격이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지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와 함께 생활한 덕분에 차츰 인식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모두 헛된 것이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의 지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 때문만이 아니라, 성육신한 그의 실체와 정상 때문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였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이행할 기회와 ‘참하나님’을 경배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진리가 아니냐? 너는 아직도 하늘의 하나님의 지기가 되고 싶으냐?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야만, 즉 성육신해야만 사람이 그의 지기가 될 수 있고 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본래 영이다. 그토록 위대하고 측량하기도 어려운 존재일진대 사람이 어떻게 그의 지기가 될 자격이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이 육신에 임하고 사람과 같은 외형을 갖춘 피조물이 되어야만, 사람은 그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에게 실제로 얻어질 수 있다. 그는 육신으로 말씀하고 사역하면서 사람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환난을 같이 겪는다. 또한 같은 세계에 살면서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모두가 정결케 되고 그의 구원과 축복을 받게 한다. 사람은 이런 것을 얻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그의 지기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실제적이다. 사람이 그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면, 어떻게 그의 지기가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은 공허한 이치가 아니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흡족게 할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37)

하나님은 땅에 임하여 신성의 사역만을 행한다. 이는 하늘의 영이 성육신 하나님에게 준 부탁이다. 그가 와서 하는 일은 곳곳에서 말씀하는 것뿐이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여러 위치에 서서 말씀을 하는데, 기본 목적과 사역 원칙은 사람에게 공급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나 사람 생활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의 주요 직분은 영을 대표해 말씀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육신으로 현현하는 것이다. 그는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진리를 선포할 뿐, 사람의 사역에 간섭하지 않는다. 즉, 인성 사역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람은 신성 사역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람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땅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역하면서 항상 사람을 통해 사역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성육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하나님은 직접 신성의 위치에서 말씀하고, 영의 음성을 발하며, 영을 대표해 사역할 수 있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통해 사역을 하는 것인데, 어째서 역대로 그렇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라고 불리지 못했겠느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이 직접 육신으로 사역하고, 예수 역시 하나님의 영이 육신으로 사역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양자는 하나님이라고 불린다. 그 차이는 무엇이겠느냐? 역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정상적인 사유와 정상적인 이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사람의 처세 원칙을 알고 있었다. 또한 정상인의 생각과 정상인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것들을 전부 갖추고 있었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재능이 출중하고 천성적으로 총명했다. 하나님의 영은 그들의 은사인 재능을 통해 그들에게 역사했다. 즉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발휘시켜, 그들의 장점을 이용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생각도, 사유도 없으며 사람의 뜻이 섞여 있지 않다. 심지어 정상인이 갖추고 있는 것도 결여되어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처세 원칙조차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오늘날 땅에 임한 하나님이 바로 이렇다. 그의 사역과 말씀에는 사람의 뜻이 섞여 있지 않으며, 사람의 사유도 없다. 그는 직접 영의 원 뜻을 드러내고, 직접 하나님을 대표해 사역한다. 즉, 영이 직접 말씀하고 신성이 직접 사역하므로, 사람의 뜻이 전혀 섞여 있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입은 육신은 직접 신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람의 사유나 생각이 없고, 사람의 처세 원칙도 모른다. 만약 신성의 사역만 있다면(하나님 자신만 사역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땅에서 전개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땅에 온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몇 명의 사람들이 인성에서 하나님의 신성 사역에 협력하게 해야 한다. 즉, 인성 사역으로 신성 사역을 수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신성의 사역을 직접 접할 수 없다. 예수와 몇몇 제자들처럼 말이다. 예수는 세상에 있을 때, 낡은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계명을 정했으며, 수많은 말씀을 했다. 그 사역들은 모두 신성으로 행한 것이었다. 반면 베드로, 바울, 요한 등이 후에 한 사역은 모두 예수가 한 말씀의 기초 위에서 행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그 시대에 하나님은 시작 사역을 하여 은혜시대를 이끌기 시작하였다. 즉, 새 시대를 인도하고 옛 시대를 폐했으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을 이루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반드시 신성 사역의 기초 위에서 사람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수는 땅에서 그가 해야 할 말씀을 다 하고 그의 사역을 완성한 후 사람들을 떠났다. 그 후에 사람의 모든 사역은 전부 그의 말씀을 원칙으로 하고, 그가 말씀한 진리에 따라 실행한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위해 사역한 사람들이었다. 만약 예수만 사역했다면, 그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했어도

사람은 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신성으로 사역하기에 신성의 말씀만 할 수 있지, 일반 사람들이 깨닫도록 해석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뒤의 사도나 선지자들을 통해 이후의 사역을 보충해야 했던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이 갖고 있는 원칙은 바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을 통해 말씀하고 사역하여 신성 사역을 완성한 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몇 명, 또는 더 많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보충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통해 인성으로 양육하고 목양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육신으로 와서 신성의 사역만을 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몇 명의 사람들이 그와 협력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을 접하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상인을 통해 이 사역이 완전해지게 하고, 많은 교회를 돌보고 목양하게 해야만 사람의 사유와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를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몇 명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신성으로 하는 사역을 ‘번역’하여 풀어 주는 것이다. 즉, 신적 언어를 인간적인 언어로 바꿔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이 신성으로 하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은 어쨌든 소수이고, 사람의 이해력 또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사역할 때 이런 방식을 택한다. 신성의 사역만 있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접할 수도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을 통해 그 말씀들을 확실히 전달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 하는 인성 사역만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나님의 사역 또한 새로운 기점을 열지 못하고 그저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며 옛것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해야 할 말씀과 사역을 육신에 거하는 단계에서 끝내고, 그 뒤에 사람들이 또 그의 말씀에 따라 사역하고 체험해야만 사람의 생명 성품이 변화될 수 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다. 신성 사역은 하나님을 대변하지만, 인성 사역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다. 즉, ‘성육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이다. 성육신 하나님은 신성의 사역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신성 사역을 할 수 없다. 각 시대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은 친히 말씀을 하여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사람을 새로운 기점으로 인도한다. 그의 말씀이 끝나면 하나님이 신성으로 하는 사역도 끝난 것이다. 그다음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인도에 따라 생명 체험에 진입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 단계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여 사람에게 새로운 기점을 열어 준다. 이때가 되면 육신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도 끝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 하나님과 쓰임 받는 사람의 본질적 차이>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38)

하나님은 땅에 와서 그의 정상 인성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다. 땅에 온 하나님은 정상 인성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 인성에서 신성의 사역을 할 뿐이다. 하나님이 말하는 정상 인성이란 사람이 생각하는 정상 인성과 다르다. 사람의 해석에 따르면, ‘정상 인성’은 아내와 남편, 자녀 등이 있는 것을 말하며, 이것으로 정상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생각하는 ‘정상 인성’이란 정상인의 생각과 정상인의 생활이 있고, 정상인에게서 태어난 것을 말한다. 하지만 그 ‘정상’의 범주에 사람들이 말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가 있는 것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정상 인성’은 인성이 없고, 감정이 없다시피 하며, 마치 육신에 필요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정상인의 외형을 갖추고 정상인의 모습을 지녔지만, 본질적으로는 정상인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완전히 갖추지 않았던 예수처럼 말이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본질은 정상 인성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꼭 갖추어야 할 것들의 일부만 갖추는 것이다. 이는 정상인의 생활 법칙과 정상인의 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생각하는 정상 인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갖추어야 할 것들이다. 혹자는 성육신 하나님께 아내와 자녀, 가정이 있어야 정상 인성을 갖춘 것이라고 말하며, 심지어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한다. 그렇다면 너에게 묻겠다. 하나님께 아내가 있겠느냐? 하나님께 남편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자녀가 있겠느냐? 이것은 황당무계한 논리가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이 입은 육신은 돌 틈에서 튀어나오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며, 그 역시 정상인의 가정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게 부모와 형제가 있는 것이다. 이는 성육신 하나님의 정상 인성에 당연히 갖추어져야 할 것들이다. 예수에게 부모와 형제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다 정상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아내와 자녀가 있다면 그의 인성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육신 하나님이 갖추어야 할 정상 인성이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신성을 대표해 사역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아내와 자녀가 없었지만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그리고 정상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신성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상인’이란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만이 신성 사역을 할 조건을 갖추 수 있다. 하지만 그에게 아내나 남편, 또는 자녀가 있다면 그는 신성 사역을 할 수 없다. ‘사람’에게 필요한 정상 인성만 갖추었을 뿐, ‘하나님’이 원하는 정상 인성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흔히 사람의 인식과 판이하게 다르며 큰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이번 단계 사역에는 사람의 관념을 일축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으며, 사람의 관념과 크게 다르다. 이 단계 사역은 전적으로 신성이 개입해 사역하고, 인성은 조연의 역할만 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땅에 와서 친히 자신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직접 말씀이 육신(완전하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사람) 되어 자신의 사역을 한다. 또한, 이번에 성육신한 것을 기회로 사람에게 새 시대를 열어 주고, 하나님의 다음 단계 사역을 알려 주어 모든 사람이 그가 말씀한 길을 따라 실행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육신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역도 끝난 것이므로, 그는 사람을

떠나고 사람과 이별할 것이다. 더 이상 정상 인성을 가진 육신에 거하지 않고 사람을 떠나 다른 부분의 사역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 땅에서의 사역을 계속 완성해 나갈 것이다. 단, 그것은 인성에서 행해진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 하나님과 쓰임 받는 사람의 본질적 차이>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39)

성육신 하나님이 항상 사람과 함께 있을 수는 없다. 하나님께는 더 많은 사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육신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며, 육신을 벗어나 그가 해야 할 사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육신의 형상을 지니고 사역한다. 땅에 온 하나님은 정상인처럼 죽을 때의 모습이 되어야 사람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사역이 끝나면 사람을 떠난다. 그에게는 나이의 많고 적음이 없다. 그는 사람의 나이 계산법에 따라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 단계에 따라 육신의 생명을 끝내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육신으로 온 하나님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나이가 차서 언젠가 육신이 말을 듣지 않을 때에야 떠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사람의 상상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그는 육신으로 와서 그가 해야 할 사역만 하지, 정상인의 삶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태어나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세상의 풍파를 겪는 등 정상인의 갖가지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은 것이고, 육신에 임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정상인의 생활을 하지는 않고, 그저 하나님 경륜의 한 부분을 완성한 후에 사람을 떠날 뿐이다. 그가 육신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영은 육신의 정상 인성을 온전케 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이 예정한 시간에 신성으로 직접 사역하고, 그가 해야 할 사역을 완성하며, 그의 직분을 이행한다. 이것은 그의 육신의 수명과는 무관하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 단계 사역을 끝내면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생명도 끝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육신이 얼마나 유지될지, 땅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지는 전부 영의 사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사람이 생각하는 정상 인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예수는 육신에서 33년 반 동안 살았다. 육신의 수명만 보자면 죽을 수 없는 나이였고 떠나서도 안 됐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았다. 그의 사역이 끝나자 육신도 거두어들이니, 육신은 영을 따라 사라진 것이다. 하나님은 육신에 있을 때 이러한 사역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해서 성육신의 인성은 주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가 땅에 온 이유는 정상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정상인의 삶을 산 후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정상인의 가정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신성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뜻도, 혈기도 섞여 있지 않으며, 사회성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사람의 사유나 관념은 물론 처세 철학과도 관련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이 하려는 사역이자, 성육신의 실제 의의이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 주된 이유는 육신이 해야 할 사역을 하기 위해서이지, 다른 번잡한 과정은 없다. 그는 정상인의 체험을 갖추지 않는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으로

해야 하는 사역에는 정상인의 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은 육신이 해야 할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이며, 나머지는 그와 무관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번잡한 과정을 겪지 않는다. 그의 사역이 끝나면 그가 성육신한 의의도 따라서 없어지게 된다. 이 단계의 사역이 끝나면 그가 육신으로 해야 할 사역이 끝나고 육신의 직분은 전부 이행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언제까지나 육신에 거하며 사역할 수는 없다. 그가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해야 하므로 그때는 육신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해야 그의 사역이 전면적으로 행해질 수 있고, 더 잘 전개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원래의 계획에 따라 사역한다. 어떤 사역을 해야 하고, 어떤 사역을 끝냈는지, 그는 손금 보듯 훤히 꿰뚫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가 예정한 길로 인도하므로 아무도 도망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영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어쩌면 이후의 사역에서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말씀하여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 있는 영이 사람의 삶을 인도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지고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요구하는 실체에 더 잘 진입하여 실제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를 사역이자, 그가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은 것이니, 너희는 여기에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봐야 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 하나님과 쓰임 받는 사람의 본질적 차이>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40)

그리스도란 성육신 하나님의 호칭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진리를 베풀어 주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사람이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으면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는 가짜다. 그리스도란 땅에서의 하나님의 발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땅에서 사역을 펼치고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사역을 완성할 특유한 육신이다. 그 육신은 아무나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육신은 하나님이 땅에서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으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육신인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들은 언젠가 모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본질은 조금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짜와 가짜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답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네가 진실로 생명의 도를 찾고자 한다면 너는 먼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와서 생명의 도를 베풀어 주는 사역을 하고 있으며, 또한 말세에 인간 세상에 와서 생명의 도를 베풀어 주고 있음을 시인해야 한다.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에 말이다.

말세의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생명이고, 영원하고 영원한 진리의 도이다. 이 진리가 바로 사람이 생명을 얻는 길이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유일한 길이다. 말세의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생명의 도를 찾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예수의 칭찬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천국의 대문에 들어설 자격도 없다. 이는 네가 역사(歷史)의 꼭두각시이자 역사의 죄수이기 때문이다. 규례와 글귀, 역사의 멍에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영구한 생명의 도를 얻지 못한다. 그들이 얻은 것은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고여 있던 더러운 물이기 때문이다.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시체이고 사탄의 노리개이며 지옥의 자식이다. 이런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네가 역사(歷史)를 답습하고, 제자리걸음을 하며 현상 유지에 그칠 뿐, 현 상태를 변화시켜 역사를 도태시키려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솟구치는 파도처럼, 요동치는 천둥소리처럼 거침없이 나아가거늘, 네가 죽을 때까지 앉아서 요행만을 바라며 기다린다면 어찌 너를 어린양의 발걸음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어찌 항상 새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바랜 지 오래인 네 책의 글귀가 어찌 너를 다른 시대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 사역의 발걸음을 어찌 찾아 줄 수 있겠으며, 또 어찌 너를 하늘나라로 데려다줄 수 있겠느냐?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 그저 잠시 위안을 주는 글귀에 불과하다. 네가 읽는 성경 구절은 인생을 알려 주는 현묘한 이치도 아니고 너를 온전케 하는 길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그저 네 혀를 충실하게 해 주는 구절일 뿐이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도 너는 반성하지 않는단 말이나? 그 속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나? 너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너 스스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느냐?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 꿈에서 깨어나라. 너는 현재 사역을 행하는 이가 누구인지, 사람을 구원하는 말세 사역을 하는 이가 누구인지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진리도 생명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로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가져다준 생명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허황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말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 영원히 혐오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말세에 하나님나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야 한다.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에 순종해야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공급을 거부한 채 복받을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말세에 그리스도가 온 이유는 그를 진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이 사역은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사역이며, 새 시대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네가 인정하지 않고 정죄하거나 모독하거나 핍박을 가한다면, 반드시 영원히 불태워질 것이며,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이 그리스도는 성령의 발현이자 하나님의 발현이며, 땅에서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이다. 그러므로 말세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 것이다. 명심해라. 네가 말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저버린다면 아무도 너 대신 그 대가를 치러 주지 못할 것이다. 그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기회가 더는 없을 것이고, 나아가 만회하고자 해도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대적하고 저버린 이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런 결과를 알고 있느냐? 너는 작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권하노니, 진리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말고, 사실을 외면한 채 함부로 말하지도 말라.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이기 때문이다. 진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너를 소생시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할 수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말세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영생의 도를 줄 수 있다> 중에서

제 5 절 하나님의 사역 알아 가기

하나님의 사역 알아 가기[1]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41)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안다는 것은 주로 말세에 성육신한 하나님의 주요 직분이 무엇인지, 그가 땅에 와서 행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예전에 나는 하나님이 땅에 와서(말세를 가리킴) 본보기를 제시한 후 떠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본보기는 어떻게 제시하느냐? 바로 말씀으로 제시한다. 즉, 각지에서 사역하고 말씀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세에 하는 사역이다. 말씀만 함으로써 땅이 말씀의 세계가 되게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깨우침을 받아 영의 눈을 뜨고 이상(異象)을 환히 알게 한다. 말세에 성육신으로 땅에 온 하나님은 주로 말씀을 한다. 예수가 왔을 때에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율법시대를 끝내고 낡은 것들을 모두 폐하였다. 예수는 와서 율법시대를 끝내고 은혜시대를 열었다. 말세에는 성육신한 하나님이 와서 은혜시대를 끝냈다. 그는 와서 주로 말씀을 하며,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고, 말씀으로 사람에게 빛 비춤과 깨우침을 줘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 버린다. 예수가 왔을 때에는 이 단계 사역을 행하지 않았다. 그는 와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하였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이러할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예수가 와서 행한 사역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말세에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한편으로는 사람의 관념 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 사람 마음속에 더 이상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하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과 실제적인 사역을 통해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실제적이고 정상적으로 사역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실재를 알게 하고, 막연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육신이 한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것을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세에 이루려는 사역이다.

너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사역은 초자연적이지 않으니 관념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둘째, 성육신 하나님이 이번에 와서 주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는 이번에 와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적을 행하지 않는다. 그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러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이 속량받게 하려고 온 것도 아니다. 예수가 이미 그 단계 사역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중복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와서 은혜시대를 끝내는 것은 은혜시대의 모든 관행을 폐하는 것이다. 실제 하나님은 와서 주로 그의 실재를 나타낸다. 예수는 와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주로 권능을 나타내고, 이적과 기사를 행했으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또 약간의

예언으로 사람들이 믿고 복종하게 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고 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했다. 지금의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고,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지도 않는다. 예수가 왔을 때 행한 사역은 하나님의 일부를 대변했으며, 하나님이 이번에 온 것은 그가 이번 단계에 해야 할 사역을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중복 사역을 하지 않고, 그는 늘 새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지금 보는 것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일 뿐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현재 사역에 대한 인식>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42)

하나님은 말세에 성육신하여 주로 말씀을 통해 사람의 생명에 필요한 것을 모두 설명해 주고, 사람이 진입해야 할 것을 알려 주며,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 기묘함을 모두 나타내 보여 준다. 사람은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고지상함을 보았고, 더욱이 하나님의 낮춤과 감춤을 보았으며, 하나님은 지고하지만 가장 작은 자로 자신을 낮추고 감춤 수 있음을 보았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영의 위치에서 직접 한 것이고, 어떤 말씀은 사람의 위치에서 직접 한 것이며, 또 어떤 말씀은 제 3자의 위치에서 한 것이다. 이로부터 하나님의 사역 방식은 매우 다양하며, 모두 말씀을 통해 사람이 깨닫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말세에 행하는 사역은 정상적이면서도 실제적이다. 그러므로 말세의 이 무리 사람들이 받는 시련이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상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시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는 시련 속에 빠져드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이 정상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이다. 예수 시대에는 사람에게 관념도 시련도 없었다. 예수가 행한 많은 일들이 사람의 관념에 부합했기에 사람은 모두 그를 따랐고, 그에 대한 관념도 없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받는 시련이 가장 크기에 이들을 모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환난이 바로 이 환난을 가리킨다.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의 믿음과 사랑, 고난받는 것과 순종하는 것에 모두 성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다. 말세에 성육신한 하나님은 바로 사람의 본성과 본질, 그리고 행위와 태도에 근거해 말씀하고, 현재 사람이 진입해야 하는 것에 근거해 말씀한다. 이는 실제적이면서도 정상적이다. 하나님은 앞날의 일을 얘기하지 않고 지난날의 일도 돌아보지 않으며, 오늘날 진입하고 실행하며 깨달아야 할 것만 말씀한다. 오늘날 만약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칭 돌아온 예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악령이 가장한 것이고, 악령이 예수를 모방하여 행한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중복 사역을 하지 않는다. 예수의 그 단계 사역은 이미 완성되었기에 그 뒤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역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구약에서 메시야가 오리라고 예언했지만 결국에는 예수가 온 것처럼 말이다. 만약 메시야가 한 명 더 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가 한

번 왔었는데 이번에 ‘예수’가 다시 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 시대에 이름은 하나뿐이며, 모든 이름은 다 시대성을 지니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항상 예수와 같아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이 예수가 행한 것과 똑같이 말세에도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중복된다. 그러면 예수의 사역은 의의도, 가치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시대에 한 단계 사역만 행한다. 하나님이 한 단계 사역을 마칠 때마다 악령이 곧이어 모방하고, 사탄이 하나님을 뒤따라가면 하나님은 다시 방식을 바꾼다. 너희는 하나님이 한 단계 사역을 마치면 악령이 이를 모방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이 무엇 때문에 예수의 사역과 같지 않겠느냐? 오늘날 하나님은 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며, 병을 고치지도 않겠느냐? 만약 예수가 율법시대와 똑같은 사역을 했다면, 그가 은혜시대의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 십자가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겠느냐? 예수가 율법시대처럼 성전에 들어가고 안식일을 지켰다면, 그 누구도 그를 핍박하지 않고 옹호했다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겠느냐? 구속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겠느냐? 말세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여전히 예수처럼 이적과 기사를 나타낸다면, 그것이 무슨 의의가 있겠느냐? 오직 말세에 다른 부분의 사역을 행하여 그의 경륜 중 일부를 대표해야만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앎이 깊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현재 사역에 대한 인식>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43)

하나님은 말세에 와서 주로 말씀을 하는데, 영의 위치에서 말하고, 사람의 위치에서 말하고, 제 3 자의 위치에서도 말하는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씀한다. 일정한 기간마다 말씀하는 방식이 각기 다르며, 말씀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관념을 돌려세우고,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을 없앤다. 하나님은 주로 이 사역을 한다.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이 오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적을 행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베풀어 준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심판과 형벌의 사역을 하여 사람 관념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없애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실제적이고 정상적임을 알게 하고, 사람 마음속의 예수 형상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이 사람을 점유하게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내면에서 오래되면 우상에 속하게 된다. 예수가 와서 행한 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변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적과 기사를 어느 정도 행하고, 약간의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는 하나님의 일부를 대변했을 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을 대표하여 일부 사역만 행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묘하고 위대하여 측량할 수 없는 데다가 하나님은 한 시대에 일부 사역만 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주로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고, 사람의 본성, 본질과 패괴 성품을 폭로하며, 사람의 종교 관념, 봉건적인 사상과 낡은 사상을 없애는 것이다. 사람의 지식, 문화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말씀으로 드러내야 정결하게 된다. 하나님은 말세에 이적과 기사가 아닌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한다. 말씀으로 사람을 드러내고, 심판하며, 형벌하고, 온전케 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스러움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행사를 보게 한다. 율법시대에 여호와께는 말씀으로 모세를 인도하여 출애굽 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간의 말씀을 했으며, 그때 하나님의 행사를 일부 나타냈다. 사람의 자질은 제한적이어서 어떻게 해도 전면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사역했던 것이다. 은혜시대에 사람들은 또 하나님 행사의 일부를 보았다. 예수는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육신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뿐이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여 주면 사람은 거기까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보여 주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그 정도 차원으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 사역하여 사람의 앎을 더욱 깊게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세에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패괴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실체로 너의 종교 관념을 대체한다. 하나님은 말세에 성육신하여 주로 “말씀이 육신 되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며,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을 이룬다. 이 부분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굳게 설 수 없다. 하나님은 말세에 주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이 사역을 이루는데, 이것은 하나님 경륜의 일부 사역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든 결국 하나님은 사람이 그를 규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말세에 이 사역을 행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앎이 어느 정도에서 그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든가, 소돔을 멸할 수 있다든가,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가 이런 것들만 알 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사람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만 이러한 앎을 얘기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어, 하나님을 자신의 관념으로 규정하지 않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 가는 유일하면서도 정확한 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현재 사역에 대한 인식>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44)

지금 너희는 하나님이 말세에 주로 ‘말씀이 육신 된’ 이 사실을 이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땅에서 실제로 사역하여 사람이 그를 알게 하고, 접하게 하며, 그의 실제 행사를 보게 한다. 또한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으며, 이는 시대별로 구분된다는 것도 사람에게 분명히 보여 준다. 이로부터 너는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역과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사역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단계 사역에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지만 예수 시대에는 이적과 기사를 어느 정도 나타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사역이 달랐기 때문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없다거나,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잘못된 논리가 아니냐?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지만 사역하는 시대가 다르기에 그런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다. 시대와 사역 절차가 다르기에 하나님이 나타내는 행사 역시 다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적과 기사나 권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시대에 행하는 실제 사역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앎이 생기며, 그러한 앎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행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번 단계 사역에서 주로 말씀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적과 기사를 보려고 기다리지 말라. 볼 수가 없다! 네가 은혜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은혜시대에 태어났다면 이적과 기사를 볼 수 있었겠지만, 말세에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면만 볼 수 있을 뿐이다. 너는 말세에 초자연적인 예수를 보려고 하지 말라. 너는 단지 정상인과 똑같은 성육신한 실제 하나님만 볼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각기 다른 행사를 나타내고, 한 시대에 하나님 행사의 일부를 나타내며, 각 시대의 사역은 하나님 성품의 일부와 하나님 행사의 일부만 대변한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그가 나타내는 행사 또한 달라지지만, 결론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고, 더욱 견실하고 진실하게 믿게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행사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묘하고 위대하며 전능하여 측량할 수 없기에 그를 믿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면 너의 관점은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악령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사탄의 형상을 혼동한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날 사람은 하나님의 많은 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많은 사역과 말씀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정복하고 온전케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많은 행사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것이지, 그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나서야 그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실제 행사를 앎으로써 그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떤 지혜로운 방식을 쓰며,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사람을 온전케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때, 너는 비로소 하나님의 실재를 깨닫고 그의 성품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또한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혐오하는지, 그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혐오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앎으로써 무엇이 긍정적인 것이고 무엇이 부정적인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을 앎으로써 생명이 성장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관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45)

네가 어떻게 추구하든, 먼저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사역을 이해해야 하고, 그 사역의 의의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말세에 어떤 사역을 가져왔는지, 어떤 성품을 지녔고 사람에게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야 한다. 그가 육신으로 와서 행하는 사역을 전혀 인식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그의 뜻을 찾을 것이며, 또 어떻게 그의 지기가 될 수 있겠느냐? 사실, 하나님의 지기가 되는 것은 복잡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단순하지도 않다. 명확히 알고 실행에 옮긴다면 복잡하지 않겠지만, 명확히 알지 못하면 무척 어렵고, 또한 막연한 것만 추구하기 쉽다.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서야 할 입장도 없고 자신이 지켜야 할 진리도 모른다면, 토대가 없어 똑바로 서기가 어렵다. 지금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애증이 분명치 못한 자들이 부지기수인데, 이들은 모두 서기 어렵다. 하나님을 믿을 때 중요한 것은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육신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행한 사역과 하나님이 말씀한 원칙을 아는 것이다. 또한 대세를 따르지 말고, 자신이 마땅히 진입해야 할 것에 원칙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깨우쳐 준 원래의 것들을 지켜야 한다. 이는 너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좌로 치우치고 내일은 우로 치우치다가 결국 실제적인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 너의 생명에도 이로움이 없을 것이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늘 남들을 따라 하기 좋아한다. 남들이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자기도 성령의 역사라고 따라 말하고, 남들이 그것을 악령의 역사라고 하면 자신도 덩달아 의심하거나 악령의 역사라고 한다. 언제나 부화뇌동하고, 조금도 분별할 줄 모르며, 주관이 전혀 없다. 이들은 좃대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자들로, 무지렁이나 다름없다! 너는 언제나 남들이 말하는 대로 말한다. 지금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만, 어느 날 또 누군가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다 사람이 한 것이다.”라고 하면, 너 역시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말하는 그대로 말할지도 모른다. 실은 성령의 역사인데 사람의 사역이라고 말한다면, 너는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냐? 이는 분별이 없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 아니냐? 어느 날, 또 어떤 멍청한 자가 뜬금없이 그것을 악령의 역사라고 말하면, 너는 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남의 말에 구애받을지도 모른다. 누군가 너를 방해할 때마다 너는 입장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는데, 이는 너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만 있다고 해서 온전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너에게 체험과 인식이 필요하다. 일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하며, 성령의 역사를 얻어야 한다. 너에게 체험이 있으면 많은 일을 분별할 수 있고, 선과 악, 정의와 사악, 육에 속하는 것과 진리에 속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이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길을 잃고 헤매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의 실제 분량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46)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너 자신에게 추구의 기준과 목표가 있어야 하고, 참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한다. 또한 과연 그것이 참도인지, 하나님의 사역인지를 가늠할 줄도 알아야 한다. 참도를 구하는 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이나? 그것은 바로 그 도에 성령 역사가 있는지, 그 말씀에 진리의 선포가 있는지, 누구를 증거하였는지, 너에게 무엇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참도와 거짓 도를 분별하려면 몇 가지 방면의 상식이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본질은 사실 하나님의 영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을 믿는 이유도 그 육신이 하나님 영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즉, 그렇게 믿는 것은 역시 영을 믿는 것이다. 영과 육신이 서로 구별되긴 하지만, 그 육신은 영에서 비롯된 것이고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믿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고유한 본질이다. 그러므로 참도를 구별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다음으로는 그 도에 진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진리란 정상적인 인성이 지닌 생명 성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사람에게 요구한 것, 즉 모든 정상적인 인성(이성, 식견, 지혜, 사람됨의 상식)을 말한다. 다시 말해, 그 도를 통해 사람이 정상적인 인성 생활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가 말한 진리가 정상적인 인성의 실체에 따라 요구한 것인지, 그 진리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지, 가장 시기적절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진리가 있다면, 사람을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체험으로 이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갈수록 사람은 정상이 되고, 사람의 인성과 이성이 온전해지며, 사람의 육체적 생활과 영 생활이 질서를 갖추고, 사람의 희로애락이 정상이 된다. 이것들이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내용 중 한 가지다. 다른 하나는 사람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사역과 진리의 체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갈수록 가깝게 하는지를 봐야 한다. 이것으로 참도인지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도가 초자연적이 아닌 현실적인 것인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이 몇 가지를 갖춘다면 그 도가 참도인지 확신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이후에 체험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를 받아들이라는 것도 아니고, 이후에 또 새 시대의 사역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에게 오늘날의 도가 참도임을 확신시켜 주려는 것이다. 너희가 오늘날의 사역을 꿰뚫어 보지 못하여 반신반의하지 않도록 말이다. 심지어 많은 이들은 확신하였음에도 여전히 흐리멍덩하게 따르고 있다. 그런 확신은 원칙이 없는 것이고, 이런 자들은 조만간 도태될 것이다. 아주 열성적으로 따르는 사람일지라도 확신은 3 할에 불과하고 의심은 5 할이나 된다. 이것이 바로 토대가 없는 모습이다. 너희는 자질이 너무 부족하고 토대가 지나치게 얇은 탓에 분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사역, 비현실적인 사역은 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에게 파격적인 요구도 하지 않고, 사람의 이성 범위를 벗어나는 사역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사람의 정상적인 이성의 범위 내에 있고, 정상 인성의 이성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사람의 정상적 필요에 따라 사역한다. 성령의 사역이라면 사람은 물론 인성도 갈수록 정상이 되고, 사탄에 의해 파괴된 사람의 성품과 사람의 본질에 대해 갈수록 인식이 생기고, 갈수록 진리를 사모하게 된다. 다시 말해, 사람의 생명은 갈수록 더 성장하고, 사람의 파괴 성품은 갈수록 더 변화된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는 본래의 뜻이다. 만일 그 도가 사람의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의 성품도 변화시키지 못하며, 더욱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하지 못하며, 심지어 인성이 점점 나빠지고 이성도 점점 비정상이 되게 한다면, 그것은 참도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거나 낡은 도일 것이다. 어쨌든 성령의 현실 역사는 아니다. 너희는 그토록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어 왔지만, 참도와 거짓 도를 분별하는 원칙과 참도를 찾는 원칙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다. 심지어 많은 이들이 이 일을 알려고조차 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말에 맞장구만 친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참도를 찾는 사람이라고 하겠느냐? 이런 자들이 또 어떻게 참도를 찾을 수 있겠느냐? 네가 중요한 몇 가지만 파악한다면, 어쨌든 미혹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분별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정상 인성에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사람이 체험하는 과정에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람이 여태껏 따르면서도 조금도 분별할 줄 모르고, 인성과 이성이 여전히 제자리라면, 이는 사람이 너무 어리석은 것이고, 그 추구가 틀리고 잘못된 것이다. 너는 여태껏 추구하였지만 조금도 분별할 줄 모른다. 네가 참도를 찾았다고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너는 얻었느냐? 분별이 조금이라도 향상되었느냐? 참도의 본질은 무엇이나? 너는 참도 안에 있으면서도 참도를 얻지 못했고, 진리도 전혀 얻지 못했다. 다시 말해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한 것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파괴 성품의 변화가 없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추구한다면 결국 도태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따른 이상 더는 의심하지 말고 자신이 가는 길이 바른길임을 확신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사소한 일 때문에 의심하고, 사소한 일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는 자, 흐리멍덩하게 따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지기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없다. 복받기만을 바라고 막연한 것만 추구하는 자들에게 권고하겠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루빨리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흠족게 할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47)

6 천 년의 전체 사역은 시대가 바뀔에 따라 변화해 왔다. 사역의 변화는 전 세계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온 인류의 발전 양상에 따라 이뤄지며, 그렇기에 경영 사역도 점차 바뀌는 것이지, 창세가 시작될 때부터 미리 계획된 것은 아니다. 창세 이전 또는 창세 직후에

여호와가 제 1 단계는 율법 사역, 제 2 단계는 은혜 사역, 제 3 단계는 정복 사역을 하고, 모압의 후손 중 일부에게 우선적으로 사역함으로써 우주 전체를 정복하겠다고 계획한 것이 아니다. 그는 창세 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모압 이후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롯 전에는 더더욱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사역은 진행 상황을 보아 가며 하는 것이다. 6 천 년 경영 사역은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창세 전에 ‘인류 발전 연표’ 같은 계획을 미리 세워 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역할 때 그의 어떠함을 직접 나타내지, 고심해서 계획하지는 않는다. 물론 여러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속 치밀하게 계획하며 사역했다고 할 수는 없다. 예언 역시 현실의 사역에 따라 하는 것이다. 그의 사역은 언제나 가장 현실적인 사역이다. 그는 시대의 발전과 사물의 변화에 따라 가장 현실적인 사역을 하며, 증상에 따라 약을 쓰는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사역한다. 그는 각 단계의 사역에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충분히 나타낸다. 그는 해당 시대의 사역에 따라 그의 지혜와 권병을 충분히 나타내기에 그 시대에 그가 되찾아 온 사람들은 다 그의 모든 성품을 볼 수 있다. 그는 각 시대에 행하는 사역에 따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해야 할 사역을 하며, 사람이 사탄에 의해 파괴된 정도에 맞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한 예로, 태초에 여호와가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은 그들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거를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고 아담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둘 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는 그들에게 다른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가죽으로 옷을 지어 몸을 가려 주었다. 그 후 아담에게 말씀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 필경은 흙으로 돌아 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했다.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후 그들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동산 밖에서 오늘날의 인류처럼 살게 되었다. 태초에 그는 인류를 만들 때, 그가 만든 인류가 뱀에게 유혹당하게 한 뒤에 사람과 뱀을 저주하기로 미리 계획해 놓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 그저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자신이 만든 만물 가운데서 새로운 사역을 했을 뿐이다. 여호와가 땅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역을 한 후,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발전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때 여호와는 또 새로운 사역을 하였다. 그것은 그가 만든 인류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후 죄악이 아주 커졌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 맞춰 여호와는 사람들 가운데서 노아 일가를 택해 살아남게 하고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사역을 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줄곧 이렇게 발전하면서 점점 더 깊이 파괴되었고, 인류의 발전은 최고조에 다다랐다. 다시 말해, 인류의 끝이 다가온 것이다. 태초부터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행한 사역의 실상은 이러하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것은 처음부터 다양한 사람을 어떤 한 부류에 속하도록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인류가 발전하면서 점차 부류가 생긴 것이다. 마지막에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인류 가운데서 하는 사역 중 어느 하나도 창세 때 미리 예비해 놓은 것은 없다.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사역을 한 것이다. 한 예로, 여호와 하나님이 뱀을 만든 것은 여자를 유혹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는 그가 전적으로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정해 놓은 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일로 인해 여호와와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내쫓고 다시는 인류를 만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예전에 내가 “나의 지혜는 사탄의 계략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인류가 얼마나 패괴되었든, 뱀이 어떻게 유혹했든 여호와에게는 자신만의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새로운 사역을 해 왔으며, 어느 한 단계도 중복된 사역을 하지 않았다. 사탄은 끊임없이 계략을 쓰고, 인류는 계속해서 사탄에 의해 패괴되며, 여호와 하나님도 부단히 지혜로운 사역을 행한다. 그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역을 멈춘 적이 없다. 인류가 사탄에 의해 패괴된 이래로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여 인류를 패괴시킨 그 원수를 물리쳤는데, 이 싸움은 태초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그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은 사탄에 의해 패괴된 인류가 그의 크나큰 구원을 받는 한편, 그의 지혜와 전능, 권병을 보게 하고, 마지막에는 그의 공의로운 성품, 즉 상선벌악(賞善罰惡)까지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오늘날까지 사탄과 싸우면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이는 그가 지혜로운 하나님이고 그의 지혜 또한 사탄의 계략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만물을 모두 그의 권병 아래 순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땅의 만물도 모두 그의 발등상 아래에서 살게 하며, 더욱이 온 인류를 침범한 악한 자들이 그의 형벌 가운데서 쓰러지게 한다. 이 모든 사역 성과는 다 그의 지혜로 이룬 것이다. 인류가 있기 전에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지혜를 나타낸 적이 없었다. 하늘과 땅, 우주 전체에 그의 원수가 없었고, 흑암 세력이 만물을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사장이 그를 배반한 후 그는 땅에 인류를 만들었고, 또 인류로 인해 본격적으로 사탄, 즉 천사장과 수천 년 동안의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한 단계 한 단계 더 격렬해졌지만 어느 단계든 그의 전능과 지혜가 있었다. 이로써 하늘과 땅의 만물이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을 보고 나아가 하나님의 실체도 보게 되었다. 그는 오늘날에도 이처럼 실제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하고 있다. 또한 사역을 하면서 지혜와 전능을 나타내 너희에게 각 단계 사역의 실상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게 하며, 더욱이 하나님의 ‘실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게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너는 온 인류가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 알아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48)

성령 역사는 진행 상황에 따라 행하고, 때에 맞추어 사역을 계획하며, 그때그때 행한다. 어째서 늘 성령 역사는 현실적이며 언제나 새롭고 가장 신선하다고 말하겠느냐? 사역은 창세부터 계획해 놓은 것이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각 단계의 사역은 모두 당시에 있어야 할 성과를 거두지만, 그 어떤 단계의 사역도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네가 마음속으로 계획한 것은 성령의 새 사역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의 사역은 사람이 추리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사람이 상상한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다. 그는 사람에게 현시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 그때그때 공급한다. 그는 사람의 본질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사역 또한 사람의 현실적인 필요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의 사역이 수천 년 전에 미리 계획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것도 너희의 내적 상태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행하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런 내적 상태를 보고 꼭 알맞은 말씀을 하니, 그것이 바로 때마침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첫 번째 형벌 시대의 사역처럼 말이다. 형벌 시대가 시작된 후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사람에게 어떤 패역한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긍정적인 상태가 나타나고 또 어떤 소극적인 상태가 나타났는지, 어느 정도로 소극적이었고 최악의 상태는 어땠는지 이런 것에 맞춰 사역하면서 그것들을 소재로 취해 더 좋은 사역 성과를 거뒀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현재의 상태에 따라 사람에게 공급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가 행하는 모든 단계의 사역은 사람의 실제 상태에 따라 이뤄진다. 모든 피조물이 그의 손안에 있는데 그가 주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의 내적 상태에 따라 다음 단계에 해야 할 사역을 그때그때 한 것이지, 아주 오랜 옛날에 미리 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 사람의 관념이다! 하나님은 당시에 사역을 행하는 한편 성과를 보아 가면서 사역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고 발전시켰으며, 사역의 성과를 보아 가면서 다음 단계의 사역을 하고, 많은 일을 통해 점진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사람에게 조금씩 새로운 사역을 보여 주었다. 이런 사역은 모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늘에서 이렇게 역사하였고, 또 성육신해서도 이렇게 하였다. 이는 현실 상황에 따라 안배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한 것이다. 모든 사역은 창세 전에 미리 안배해 놓은 것이 아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둔 것도 아니다. 창세 이후 2 천 년이 지난 뒤 인류가 그 지경까지 패괴된 것을 본 여호와와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율법시대가 끝난 후에 은혜시대에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물론 그것은 여호와의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도 당시에 그가 본 상황에 따라 세운 것이지 아담을 만들자마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이사야를 통해 예언만 했을 뿐, 여호와와 율법시대에 그 사역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은혜시대가 시작된 직후에야 그 사역을 시작했다. 바로 요셉의 꿈에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이 성육신하리라고 계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의 성육신 사역이 비로소 시작되었다. 사람의 상상처럼 하나님이 창세 후에 성육신의 사역을 예비해 놓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인류의 발전 정도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 또 사탄과 싸우는 상황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49)

하나님이 육신에 온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 몸에 임한 것이자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은 것이다. 그가 이 땅에 와서 행하는 사역은 몇 가지 절차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결코 정해진 한도가 없다. 성령이 육신에 와서 사역하는 것도 사역의 성과에 맞춰 결정하며, 그가 육신으로 사역하는 기간도 이런 것들에 따라 정한다. 모든 단계의 사역은 성령이 직접 나타낸다. 성령 역사 역시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한 단계씩 보아 가며 하는 것이다.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사역도 마찬가지다. 그는 계획해 가면서 사역했다. 빛과 어둠을 나누어 아침과 저녁이 생기자 마침 하루가 되었고,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들자 또 마침 하루가 되었으며, 그다음 땅과 바다, 그 속의 만물을 창조하자 또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여섯째 날이 되었을 때 사람을 만들어 땅의 만물을 다스리게 하였다. 일곱째 날에는 만물을 다 창조했으므로 안식하였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복을 내려 거룩한 날로 정했다. 거룩한 날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 창조한 후에 비로소 정한 것이다. 또한, 이 사역도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옛세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기로 미리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아 가면서 행한 것이다. 사실이 그렇지 않고, 그가 그렇게 말씀하지도, 그렇게 계획하지도 않았다. 그는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겠다고 미리 말씀하지 않았으며, 그때 그가 보기에 좋은 대로 창조했다.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나니 여섯 날이 지났다. 만약 그가 다섯째 날까지 만물을 다 창조했다면 여섯째 날을 거룩한 날로 정했을 것이다. 그저 그날이 여섯째 날이었기에 일곱째 날이 거룩한 날이 되어 지금까지 전해졌을 뿐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너희의 내적 상태에 따라 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영이 사람의 내적 상태를 보아 가면서 말씀하고 사역하며, 영이 모든 것을 감찰하면서 그때그때 사역하는 것이다. 내가 행한 것, 말한 것, 너희에게 더해 주고 베풀어 준 것은 모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은 현실을 떠나지 않으며 다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너희도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리 정해 놓았다면 지나치게 규례를 지키는 것 아니겠느냐? 너는 하나님이 6 천 년 계획을 연구해 낸 뒤 사람에게 거역과 대적, 교활과 간사, 육적인 패괴, 사탄의 성품과 안목의 정욕, 사적인 기호가 있도록 미리 정해 놓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패괴시킨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탄이 이렇게 사람을 패괴시키도록 정해 놓은 뒤에 사람에게 사역하신 것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설마 사탄이 인류를 패괴시키도록 정해 놓았겠느냐? 인류가 모두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가 인류의 삶을 방해하겠느냐? 그렇다면 그가 사탄을 물리치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헛수고가 되지 않겠느냐? 인류가 거역하도록 어떻게 미리 정해 놓을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본래 사탄의 방해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사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너희의 생각은 나의 말과 크게 다르다.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사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사탄은 배반할 수가 없다. 너희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인식은 너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영원히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지혜 또한 영원히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는 건 한 치 오차도 없는 진실이다. 처음에 하나님이 천사장에게 권병의 일부를 주었기 때문에 천사장이 배반한 것이다. 물론 이 일도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한 것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사탄이 어떻게 배반했든 사탄에게는 하나님의 전능이 없다. 너희가 사탄은 만능이라고 한 것처럼 말이다. 사탄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고, 사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말의 본래 뜻이다. 그러므로 사탄과 싸울 때는 한 단계 한 단계 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은 사탄의 계략에 따라 자신의 사역을 정한다. 다시 말해, 시대에 맞춰 사람을 구원하고 그의 전능과 지혜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의 사역도 은혜시대 전에 미리 정해 놓은 것이 아니며, ‘첫째, 사람의 외적 성품을 변화시킨다. 둘째, 사람이 형벌과 시련을 받게 한다. 셋째, 사람이 죽음의 시련을 겪게 한다. 넷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대를 체험하고 피조물의 의지를 내보이게 한다. 다섯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한 다음 사람을 온전케 한다.’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미리 정해 놓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은혜시대에 이렇게 계획해 놓지 않았으며, 이 시대에 와서야 계획하기 시작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도 역사하고 있다. 사탄은 파괴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고 음성을 발하면서 본질적인 것들을 들추어 밝힌다. 이것이 현재의 사역이며, 또한 일찍이 창세 이래로 이런 원칙에 따라 사역하였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너는 온 인류가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 알아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50)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뱀도 만들었는데, 만물 중에서 뱀은 가장 독한 것이었다. 뱀의 몸에 독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 독을 통해 뱀을 이용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 죄를 범하게 했고, 하와가 죄를 범한 후 아담도 죄를 지었다. 이로써 그들 둘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었다. 당초 여호와가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아담을 유혹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왜 그들을 모두 한 동산에 두었겠느냐? 그가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어째서 뱀을 만들고 또 그것을 에덴동산에 두었겠느냐? 어째서 에덴동산에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겠느냐? 일부러 그들이 먹게 했겠느냐? 여호와가 오자 아담과 하와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러자 여호와는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독사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결국 뱀을 저주하고 아담과 하와도 저주했다. 그들 둘이 나무 열매를 먹을 때 여호와는 알지 못했다. 인류가 파괴되어 사악하고 음란해지고 마음에 악과 불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지경에 이르자 여호와는 인류를 창조한 것을

후회했다. 그 후 여호와와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사역을 했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살아남게 되었다. 어떤 일들은 사람의 상상처럼 그렇게 고차원적이거나 초자연적이지 않다. 천사장이 배반하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면 어쩌서 천사장을 만들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사실은 이렇다. 땅이 없었을 때는 하늘에서 천사장이 가장 큰 천사였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를 다스렸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사장에게 준 권병이었다. 하나님 외에는 천사장이 천사 중에서 가장 컸다. 그 후에 인류가 창조되자 천사장은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더 큰 일을 저질렀다. 그가 배반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병을 뛰어넘어 인류를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천사장이 하와를 유혹해 죄를 범하게 한 것은 땅에서 따로 왕국을 세워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천사장이 보니 많은 것들이 자기 말을 따르고 있었다. 천사도, 땅의 사람도 모두 그의 말을 따르고 있었다. 땅의 날짐승과 길짐승, 나무, 숲, 산천 만물을 모두 사람, 즉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들도 천사장의 말을 따르고 있었다. 그때부터 천사장은 하나님의 권병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했으며, 나중에는 또 많은 천사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갖가지 더러운 귀신이 되게 했다. 인류가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은 천사장이 패괴시켰기 때문 아니더냐?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류를 패괴시켰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처럼 된 것이다.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사역은 사람이 상상한 것처럼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고, 간단하지도 않다. 사탄이 배반한 데는 이유가 있다. 사람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어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또 사탄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탄을 증오하시고 사탄은 또 그분의 원수인데, 어쩌서 사탄을 만드신 거지? 사탄을 만든 것은 원수를 만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원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아서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필연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사람이 어느 정도 살면 죽어야 하는 것처럼 일이 그 지경까지 전개된 것이다. 그릇된 인간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탄이 당신의 원수인데 어쩌서 그것을 만드셨습니까? 천사장이 당신을 배반할 줄 모르셨습니까? 당신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내다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본성을 모르셨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배반할 줄 뻔히 알면서도 어쩌서 그것을 천사장으로 삼으셨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천사를 이끌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인류를 패괴시킨 탓에 당신의 6 천 년 경륜이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말이나? 너의 이런 생각은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만일 사탄이 사람을 지금 이 지경까지 패괴시키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이렇게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탄 때문에 인류를 만드시고, 그 후 그것으로써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거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분의 행사를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은 어떤

사역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논리는 더더욱 일의 진상과 다르다. 하나님께는 더러움이 없기에 더러움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 지금 그가 자신의 행사를 나타내는 것은 단지 원수를 물리쳐 자신이 만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처음에는 그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그에게 속했지만 지금은 그를 증오하고 배반하고 대적하는 마귀 사탄을 물리치기 위함이며, 이 마귀들을 물리침으로써 만물에게 그의 전능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지금 땅의 만물과 전 인류는 모두 사탄의 권세 아래 속하며,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누워 있다. 하나님은 만물에게 자신의 행사를 나타냄으로써 사람이 그를 알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치고 그의 원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자 한다. 이 모든 사역은 그가 나타내는 행사를 통해 이뤄진다. 모든 피조물이 사탄의 권세 아래로 돌아갔으므로 그는 피조물에게 자신의 전능을 나타냄으로써 사탄을 물리치려고 한다. 사탄이 없었다면 그의 행사를 나타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사탄의 방해가 없었다면 그는 인류를 만든 뒤에 텐동산에서 생활하도록 인도했을 것이다. 어째서 사탄이 배반하기 전에는 그가 천사나 천사장에게 자신의 행사를 전혀 나타내지 않은 것일까? 만약 처음부터 천사와 천사장이 그를 알고 그에게 순종했다라면 그런 무의미한 사역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탄과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내면에 패역한 성품만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행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사탄과 싸워야 하기에 자신의 권병과 모든 행사로 사탄을 물리쳐야 했다. 그렇게 사람 가운데서 하는 구원 사역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을 보여 준 것이다. 오늘날 행하는 사역은 의미 있는 사역이다. 이는 사람이 “당신이 하신 사역은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저런 사역들 모두 스스로를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사탄을 만들어 당신을 배반하고 대적하게 하였고, 또 인류를 만들어 사탄의 손에 넘겨줌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으면서 어째서 또 인류를 증오하고 사탄을 증오하시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이 당신이 하신 일인데 증오하시다니요!”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속으로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정말 모순되네요!”라고 말하는 그릇된 자들이 많다. 진상을 알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하다니 너무도 그릇되었구나! 하나님이 일을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네가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원망하기만 한다. “당신이 사탄을 만들고 또 사탄을 인간 세상으로 쫓아내셨죠. 그러고는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사탄의 성품을 갖게 했으면서 용서하지 않고 몹시 증오하십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무척 사랑하시더니 지금은 또 인류를 증오하시지요. 당신은 사람을 미워하시기도 하고 사랑하시기도 하니,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모순 아닙니까?”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 하늘의 상황이 그렇고, 천사장은 그렇게 배반했으며, 인류도 그렇게 패괴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너희가 뭐라고 하든 일의 자초지종이 그렇다. 하지만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오늘날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는 점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51)

하나님은 사람을 경영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은 사람을 패괴시킴으로써 사람의 운명을 끝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사역 중 어느 단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냐? 어느 단계가 사람을 정결케 하고, 사람이 의를 행하게 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냐?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류를 패괴시킨다. 사탄은 줄곧 천 우주 아래에서 사람을 패괴시키는 이 일을 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도 자신의 사역을 하지만 사탄을 상대하지는 않는다. 사탄에게 아무리 권병이 있다 해도 그 권병은 하나님이 준 것이다. 다만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신의 권병을 다 내주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사탄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어떤 행사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저 사탄에게 권병을 조금 주어 천사들을 다스리게 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사탄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권병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준 권병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한쪽에서 사역을 하면 사탄은 한쪽에서 방해한다. 말세에 이르러 사탄의 방해가 끝나면 하나님의 사역도 끝나고, 하나님이 만들려는 사람도 온전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면에서 사람을 인도하며, 그의 생명은 끝없이 흐르는 생수이다. 사탄이 사람을 심각하게 패괴시켰지만 마지막에는 생명의 생수가 사람을 온전케 하기에 사탄은 끼어들어 역사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완전히 얻게 된다. 사탄은 지금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승부를 겨루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상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는 반드시 사탄의 모든 흑암 세력과 흑암 권세를 이길 것이다.”라고 말씀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육신으로 하려는 사역이자 성육신한 의의다. 다시 말해, 사탄을 물리치는 마지막 단계의 사역을 완성하여 사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은 필연적인 흐름이다! 사실, 사탄은 이미 패배했다. 큰 붉은 용 국가에서 복음이 확장된 후, 즉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사역하기 시작해 사역의 국면을 연 후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다. 성육신은 바로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하나님이 또 한 번 성육신하여 사역하기 시작하자 그 어떤 세력도 막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해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처음에 사탄은 자신의 지혜도 꽤 많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가로막으려 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또 한 번 성육신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패역을 통해 사람을 폭로하고 심판하며, 이로써 사람을 정복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사역을 할 줄은 생각지 못했다. 하나님은 사탄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사역은 사탄의 사역을 훨씬 초월한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나의 사역은 사탄의 계략 위에 세워져 있어 결국에는 나의 전능이 나타나고 사탄의 무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앞에서 사역하면 사탄은 뒤에서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께 멸망당하게 된다.

온몸이 산산조각 날 정도로 내쳐진 뒤에야 크게 깨닫겠지만, 그때는 이미 불 못에 던져져 타 버린 뒤일 것이다. 그러면 사탄은 어쩔 도리 없이 완전히 굴복하지 않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너는 온 인류가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 알아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52)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사역은 모두 사람을 떠날 수 없다. 사역의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다. 사람의 삶과 모든 활동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전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이므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인류의 이익은 물론, 사탄의 간계까지 겨냥한다.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사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 역시 고의적으로 사람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모두 전 인류를 위한 것이고, 그의 생각은 언제나 선하다. 그리하여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과 하나님의 생각(하나님의 뜻)은 모두 사람이 알아야 할 ‘이상(異象)’이 되었다. 이런 이상도 다 하나님의 경영이며,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역이다. 반면 하나님이 사역하면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을 사람의 ‘실행’이라고 한다. ‘이상’이란 하나님 자신의 사역, 또는 사람에 대한 그의 뜻과 그가 사역하는 목적, 의의를 말한다. ‘이상’은 또한 ‘경영’의 일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경영’은 하나님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역, 즉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역은 모두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가는 근거이자 길이며, 게다가 사람에게 너무도 중요하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이치나 사소한 일만 중시하고 그의 사역에 대한 인식을 등한시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거니와 그의 뜻에 맞게 행할 수도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가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상은 모두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사역의 목적과 의의를 말한다. ‘실행’이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하나님을 따르는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사람에게 요구한 것이다. 이 요구는 모두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차츰차츰 심화되고 높아진다. 예를 들어, 사람은 율법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했고, 은혜시대에는 십자가를 져야 했다.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는 그와 다르다. 사람에 대한 요구는 율법시대와 은혜시대보다 더 높아졌다. 이상이 높아지면서 사람에 대한 요구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명확해지며, 실제적으로 바뀐다. 마찬가지로 이상 역시 갈수록 실제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많은 실제적인 이상은 사람이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하게 되는 데 이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 가는 데에도 더욱 도움이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실행>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53)

하나님나라시대에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 더 현실적이고, 사람의 본질과 성품 변화에 더 초점을 둔다. 이런 사역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나라시대에 사역하는 동시에 사람에게 이전의 어느 때보다 자신을 더 많이 공개한다. 즉, 사람이 인식해야 할 이상이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행한 사역이 전례 없는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나라시대의 사람이 알게 되는 이상은 전체 경영 사역에서 가장 높은 이상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전례 없는 경지에 이르러 사람이 인식한 이상 역시 가장 높은 이상이 되었고, 그에 따라 사람의 실행 역시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 더 높아졌다. 사람의 실행은 이상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다. 이상이 완전해진다는 것은 또한 사람에 대한 요구가 완전해짐을 뜻한다. 하나님의 모든 경영이 멈추면 그에 따라 사람의 실행도 멈추게 된다. 하나님이 사역하지 않으면, 사람은 이전의 규례를 지킬 수밖에 없거나 아예 행할 길이 없어진다. 새로운 이상이 없으면 사람에게 새로운 실행도 없고, 완전한 이상이 없으면 사람에게 완벽한 실행도 없다. 이상이 높아지지 않으면 사람의 실행도 높아지지 않는다. 사람의 실행은 하나님의 발걸음에 따라 바뀐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식과 체험 역시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바뀐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잠시라도 사역하지 않으면 사람은 즉시 그의 진노 속에서 죽게 된다. 사람에게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다. 오늘날 사람의 인식이 얼마나 높아지고, 체험이 얼마나 깊어졌든 하나님의 사역을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추구해야 하는 것과 사람의 실행은 이상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역에는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이상이 있고, 그에 따라 사람에게 적합한 요구를 제시한다. 그런 이상을 기반으로 삼지 않는다면 사람은 아예 실행하지도, 끝까지 따르지도 못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그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도 없다. 사람이 지닌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인도를 떠날 수는 없다. 또 사람이 제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많이 해도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찌 되었든 사람의 실행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새 이상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실행이 없다. 그들의 실행이 진리와 무관한 까닭은 모두 규례와 죽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새 이상이 전혀 없고, 따라서 새 시대의 실행도 없다. 그들은 이상을 잃었고, 또한 성령 역사와 진리를 잃은 것이다. 진리가 없는 자는 모두 그릇됨의 후손이자 사탄의 화신이다. 어떤 인물이든 하나님 사역의 이상이 없어서는 안 되고, 성령의 함께함을 잃어서도 안 된다. 사람이 일단 이상을 잃으면 즉시 음부로 떨어져 흑암 속에서 살게 된다. 이상이 없는 사람은 흐리멍덩하게 따르는 자이고, 성령 역사가 없는 자이며, 지옥에서 사는 자이다. 이런 사람은 모두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관으로 내건 자이다. 성령 역사와 성육신 하나님, 그리고 전체 경영의 3 단계 사역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상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자는 모두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진리가 없는 자는 모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기꺼이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상을 기반으로 삼은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협력하기 때문이다. 그 협력이 바로 사람이 마땅히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실행>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54)

이상(異象)에는 수많은 실행의 길이 포함되어 있다. 사람에 대한 실제적인 요구 역시 다 이상에 들어 있고, 사람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사역 역시 다 이상에 들어 있다. 예전에는 각 지역에서 특별 예배를 하거나 대예배를 하면, 한 부분의 실행 길만 강조했다. 그런 실행은 모두 은혜시대에 실행해야 했던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별로 깊은 관계가 없다. 은혜시대의 이상은 기껏해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뿐, 그 외에 더 큰 이상은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를 구속한 사역밖에 없었으므로 은혜시대에는 사람에게 알려 줄 이상이 더는 없었다. 그리하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사람에게는 예수의 자비와 긍휼을 아는 것 외에 단순하고도 초라한 실행만 조금 있었을 뿐이다. 이는 오늘날과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모임을 가져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말할 수 없었고, 사람이 진입해야 할 가장 적합한 실행의 길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그저 포용과 인내를 바탕으로 단순한 세부 내용들만 조금 더해졌을 뿐, 그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하나님은 동일한 시대에 더 새로운 사역을 전혀 행하지 않았고, 사람에 대한 요구 역시 포용하고 인내하거나 십자가를 지는 것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실행 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보다 더 높은 이상이 더는 없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더 많은 이상을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행하지 않았고, 사람에 대한 요구 역시 유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쉽고 단순한 실행만 조금 했을 뿐, 어떻게 해도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오늘날 더 많은 이상을 말하는 까닭은 오늘날에 더 많은 사역, 율법시대와 은혜시대보다 몇 배 많은 사역을 행했으며, 사람에 대한 요구 또한 이전 시대보다 몇 배나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 사역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이 사역들의 의의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이 사역들에 필생의 정력을 쏟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복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실행의 길만 말한다면 사람을 정복할 수 없고, 이상에 대해서만 말하고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사람을 정복할 수 없다. 실행의 길만 말하면 사람의 정곡을 찌를 수 없고, 사람의 관념을 없앨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철저히 정복할 수도 없다. 사람을 정복하는 도구는 주로 이상이다. 그러나 이상 외에 실행의 길이 조금도 없다면 사람은 따라갈 수 없고, 나아가 진입할 수도 없다.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이상 속에 실행이 있고, 실행 외에 또 이상이 있다. 사람의 생명과 성품의 변화 정도는 모두 이상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의 노력에만 기댄다면 변화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상이란 하나님 자신의 사역과 그의 경영을 말하고, 실행이란 사람이 실행할 길과 생존의 길을 가리킨다. 전체 경영에서 이상과 실행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이다. 이상을 없애거나 이상만 말하고 실행은 말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사람의 실행은 없애고 이상만 있다면 그것은 경영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이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본분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마저도 부인하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없이 사람에게 실행만 요구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사역을 알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역은 더더욱 경영이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뜻도 모르면서 무작정 막연하게 실행하기만 한다면, 사람은 영원토록 온전히 합격한 피조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부분의 내용은 모두 필수적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역, 즉 이상만 있고 사람의 협력과 실행이 없다면 그것은 경영이라 하지 않는다. 또 사람의 실행과 진입만 있다면, 사람이 진입하는 길이 가장 높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의 진입은 반드시 사역과 이상에 따라 차츰차츰 바뀌어야지 마음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 실행의 원칙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범위가 있다. 이 원칙들은 모두 사역의 이상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기에 경영은 결국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실행으로 귀결된다고 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실행>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55)

경영 사역은 인류 때문에 생겨났다. 즉, 인류가 있어서 생긴 것이지, 인류가 있기 전이나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생긴 것이 아니다. 모든 사역에서 사람에게 이로운 실행이 없다면, 즉 하나님이 패괴된 인류에게 적합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그가 행하는 사역에 사람에게 적합한 실행의 길이 전혀 없다면) 그 사역을 경영이라고 할 수 없다. 또 모든 사역에서 패괴된 인류에게 어떻게 실행하라고 요구하기만 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전능이나 지혜를 조금도 나타내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얼마나 높은 요구를 하든,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오래 생활하든, 사람은 그의 성품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사역을 더더욱 경영이라고 할 수 없다. ‘경영’이라는 이 사역을 간단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그에게 얻어진 모든 사람이 그의 인도를 받으며 행하는 모든 사역을 뜻한다. 이런 사역을 ‘경영’이라고 총칭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사역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그와 협력하는 것을 통칭하여 ‘경영’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상’이라고 하고, 사람의 협력은 ‘실행’이라고 한다. 하나님 사역이 높아질수록(이상이 높아질수록) 그의 성품은 사람에게 더 많이 공개되고, 사람의 관념과는 더 부합하지 않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실행과 협력 또한 더 높아진다. 또 사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관념에 더 부합하지 않고, 그에 따라 사람에 대한 시련의 정도와 사람이 달성해야 하는 요구 기준도 더 높아진다. 사역이 끝날 때면 모든 이상이 완벽해지고, 사람의 실행에 대한 요구 역시 모두 완전무결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때가 바로 각기 부류대로 나눌 때이다.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을 이미 사람에게 모두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상이 최고조에 이를 때는 사역도 그에 따라 막바지에 이르고, 사람의 실행 역시 절정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의 실행은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경영 또한 사람의 실행과 협력을 통해야만 완전히 나타난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존재이고, 전체 경영 사역의 사역 대상이며, 또한 전체 경영의 산물이다. 하나님 자신의 사역만 있고 사람의 협력이 없다면, 그의 전체 사역의 결정체로 삼을 만한 것이 없으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경영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다. 하나님은 사역을 하는 것 외에도 적합한 사역 대상을 택해 그의 사역을 나타내고, 그의 전능하고 지혜로운 사역을 실증해야만 그의 경영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모든 사역으로 사탄을 철저히 물리치는 목적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경영 사역에서 사람은 필수 불가결한 일부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경영이 성과를 거두고 최종 목적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사람을 제외하고는 생명을 가진 그 어떤 생물도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 사람을 경영 사역의 진정한 결정체로 만들려면, 반드시 패괴된 인류의 모든 패역을 벗겨 버려야 한다. 그러려면 시기에 따라 사람에게 적합한 실행을 요구하고, 또한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에 상응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마지막에 경영 사역의 결정체가 된 한 무리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사역은 하나님 혼자 행해서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사역에 적합한, 생기 있는 사람을 통해 그의 사역을 이뤄야 한다. 하나님은 먼저 이들에게 사역한 후, 다시 이들을 통해 그 사역을 나타내고, 그의 이러한 증거가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역하는 목적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홀로 사역하여 사탄을 물리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서 직접 자신을 증거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진심으로 탄복할 수 없다. 반드시 사람에게 행한 사역으로 사람을 모두 정복해야만 피조물 가운데서 자신의 증거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만 계속 사역하고 사람이 협력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협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 또한 영원히 사람에게 알려질 수 없다. 그것은 경영 사역이라고 할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한 채 혼자 노력하고 추구하고 애쓴다면, 그것은 짓궂은 장난을 하는 것이다. 성령 역사가 없다면 사람이 하는 일은 곧 사탄이 하는 짓이고, 모두 거역하는 것이자 악을 행하는 것이다. 패괴된 사람이 행하는 것은 모두 사탄을 연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모두가 사탄을 나타내는 것이다. 모든 말씀은 이상과 실행이라는 두 부분을 벗어나지 않는다. 사람은 이상을 바탕으로 실행과 순종의 길을 찾아야 하며, 관념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와 협력하고 그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하기를 바라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그의 전능을 깨달으며

그의 성품을 알기를 원한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바로 경영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이 바로 경영이며, 이것은 가장 큰 경영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실행>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56)

이상(異象)과 관련된 것은 주로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가리키지만, 실행과 관련된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자신이 완성하고, 사람의 실행은 사람 스스로 해야 한다. 하나님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할 필요가 없고, 사람이 실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다.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은 그 자신의 직분이므로 사람과 관계가 없다. 그 사역은 사람이 할 필요가 없고, 더구나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려는 사역을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실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사람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 헌신하는 것일지라도, 사탄에게 넘겨져 굳게 서야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다 사람이 해내야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을 전부 끝내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모두 사람에게 지시하고 나면, 나머지 사역은 사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은 직분 내의 사역만 할 뿐, 그 외의 사역은 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길을 가리켜 주고 길을 여는 사역만 행할 뿐, 길을 닦는 사역은 행하지 않는다. 사람은 모두 이 점을 깨달아야 한다.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사람이 하나님도 사람처럼 진리와 관련해 고통받거나 연단받아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패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모든 인도에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생활하든, 사람이 해내야 하는 것은 사람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하나님뿐이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사람에게 요구할 자격이 있다. 사람은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완전히 순종하고 실행해야만 한다. 이는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이성이다. 하나님 자신이 행해야 할 사역을 다 하고 나면 사람은 조금씩 체험해야 한다. 전체 경영이 끝나는 마지막 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지 못한다면 징벌을 받아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패역한 탓이지, 하나님이 사역을 분명하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는 자는 모두 징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다. 너희가 자신의 본분조차 다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서 고생하는 것 아니겠느냐? 죽음을 자초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 놓고 또 무슨 훗날과 앞날을 바라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인류를 위한 것이고, 사람의 협력은 하나님의 경영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다 한 다음에는 사람이 전력을 다해

실행하고 협력해야 한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의 온 힘을 다하고 충성을 바쳐야지, 관념을 계속 늘려 가거나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데, 사람은 왜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는데, 사람은 왜 조금도 협력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사역하는데, 사람은 왜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 자신의 본분을 조금도 이행하지 못하느냐? 이렇게까지 사역했음에도 너희는 보고도 행하지 않고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자는 모두 침륜될 대상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사람은 왜 지금까지도 착실하게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께는 사역이 첫째이고, 자신의 경영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첫째이다. 이런 것은 너희 모두가 알아야 한다. 너희에게 한 말은 이미 너희의 본질을 뺏속까지 짚어 냈고, 사역은 이미 전례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여전히 이 도의 진위를 분별하지 못하고, 관망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행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하나님이 먹고 입는 것에 신경 쓰며, 관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자는 모두 스스로 번뇌를 자초하는 사람 아니겠느냐? 이런 자가 어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겠느냐? 어찌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겠느냐? 자신의 충성과 본분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상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행적’에만 관심을 두니 정말 가증스럽기 그지없는 자들이다! 사람이 깨달아야 할 것을 모두 깨닫고 실행해야 할 것을 모두 실행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모두 사람의 본분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실행해야 할 것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징벌받게 될 것이다. 눈에 뵈는 만큼 대적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는 사람은 적대시하는 자이고,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대적하는 태도를 지닌 자이다. 성령 역사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한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이다. 말씀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이고,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는 자이며,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는 자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실행>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57)

하나님의 사역과 경영이 일정한 정도에 이르면, 그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사람에게 요구하며, 자신의 경영에 대해 언급하는 동시에 사람에게 길을 가리켜 주고 살아가는 법을 알려 준다. 하나님의 경영과 사람의 실행은 한 단계의 사역으로, 동시에 행하는 것이다. 경영을 언급하면 사람의 성품 변화와 관련되고, 사람이 해야 하는 것과

사람의 성품 변화를 언급하면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람의 실행이 점차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바뀌고, 또 그의 사역이 언제나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전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실행이 규례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역과 인도를 잃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의 실행이 늘 바뀌지도 않고 깊어지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실행이 사람의 뜻에서 나온 실행이자 비진리의 실행임을 의미한다. 사람에게 행할 길이 전혀 없다면, 그들은 벌써 사탄의 손아귀에 떨어져 통제를 받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악령에게 통제받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실행이 깊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 또한 발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의 진입 또한 정체되는데, 이것은 필연적이다. 전체 사역에서 사람이 계속 여호와의 율법만 지킨다면, 하나님의 사역 역시 진전될 수 없고, 더욱이 전체 시대가 끝날 수도 없다. 사람이 계속 십자가를 지키면서 겸손하게 행동하고 인내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 역시 계속 발전할 수 없다. 6 천 년 경영은 율법이나 십자가만 지키면서 인내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서는 전혀 끝나지 않는다. 전체 경영 사역은 하나님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옴으로써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을 아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에게서 끝난다. 이것이야말로 사역의 필연적인 추세이다. 왜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의 실행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하겠느냐? 그들이 실행하는 것이 지금의 사역과 동떨어졌기 때문이다. 은혜시대에는 그들이 실행한 것도 옳았지만, 시대가 달라지고 사역이 바뀌면서 그들의 실행은 점점 시대에 뒤떨어졌다. 새 사역과 새 빛으로 말미암아 뒤쳐지게 된 것이다. 성령 역사는 기존 사역을 바탕으로 몇 단계나 더 심화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존 상태에 그대로 머무른 채 낡은 방식과 빛을 고수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은 3 년 혹은 5 년 내에도 아주 큰 변화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2 천 년이란 시간에는 더욱 큰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사람에게 새로운 빛과 실행이 없는 것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의 실수이다. 예전에 성령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이 현재에도 여전히 낡은 방식을 고수한다고 해서 새 사역의 존재가 부인될 수는 없다. 성령 역사는 언제나 앞을 향해 발전한다.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차츰 심화되고 변화해야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성령 역사를 모르는 자들만이 기존의 사역에 정체되어 성령의 새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패역한 자들만이 성령 역사를 얻지 못한다. 사람이 성령의 새 역사를 따라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 실행은 분명히 지금의 사역과 동떨어진 것이고, 또한 틀림없이 지금의 사역에 방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더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굳건한 증인이 될 수도 없다. 전체 경영 사역 역시 그런 무리에게서는 끝날 수 없다. 지난날 여호와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과 십자가를 위해 고난받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단계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들이 행한 것은 모두 헛되고 쓸데없는 것이다. 성령 역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현실적이고, 옛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사역을 따르지 못하는 자와 오늘날의 실행과 동떨어진 자는 모두 성령 역사를 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현재

사역에 대적하는 자이다. 그들이 이전의 빛을 지키고 있다 해서 성령 역사를 안다고 할 수는 없다. 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행의 변화에 대해 말하고, 이전의 실행과 현재 실행의 구별에 대해 말하고, 이전의 그 시대에 어떻게 실행했고 현재 이 시대에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를 말하겠느냐? 늘 이런 실행의 구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성령 역사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람에게 요구하는 실행 또한 계속 달라진다. 사람이 어떤 상태에 멈추어 있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과 빛에 닿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성령의 흐름 밖에 있는 자들은 늘 자신의 것이 옳다고 여기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하던 사역을 이미 오래전에 중단했으므로 그들에게는 성령 역사가 전혀 없다. 하나님은 사역을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옮겼고, 그들에게서 자신의 새 사역을 이루려고 한다.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옛 사역만 지키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그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새 사역을 행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새 사역에 협력하는 사람들이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경영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경영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사람의 실행 또한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역하고 있고, 사람 역시 언제나 필요한 것이 있기에 이 둘의 관계는 최고조에 달했다.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대업이 이루어졌다는 표시이자 전체 경영의 최종 결과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실행>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58)

각 단계마다 하나님은 사역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것을 사람에게 요구한다.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는 모두 성령의 함께함과 징계가 있지만, 성령의 흐름 밖에 있는 자는 전부 사탄의 지배를 받으므로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다.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새 사역에 협력하는 사람들이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협력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시기에 요구한 진리를 실행하지 못한다면, 징계를 받게 되며 심한 경우 성령께 버림받게 된다. 성령의 새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성령의 흐름 속에서 살면서 성령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는다. 기꺼이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깨우침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성령의 징계가 있고 심지어 징벌도 임한다. 어떤 사람이든 성령의 흐름 속에 있기로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새 사역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진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기꺼이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은 그의 축복을 받지만, 그를 거역하고 그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징벌을 받게 된다.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바로 새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새 사역을 받아들인 이상, 하나님과 상응하는 협력을 해야지,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 패역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이다. 그러나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르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흐름 밖에 있는

자들이니 성령의 징계나 책망 같은 것은 아예 말할 것도 못 된다. 그들은 온종일 자신의 육체와 머릿속에서 살아간다. 그들이 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머리로 분석하고 연구해 낸 이치지, 성령의 새 역사에서 비롯된 요구도, 더욱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함이 전혀 없으며, 축복이나 보호 같은 것은 더더욱 논할 수 없다. 그들의 언행은 대부분 지난날 성령 역사에서 비롯된 요구를 지키는 것으로, 이치이지 진리가 아니다. 그런 이치와 규례들은 그들의 집합체가 종교일 뿐, 선민이나 하나님의 사역 대상이 아님을 충분히 보여 준다. 그들 모든 사람의 집합체는 종교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교회라고 칭할 수는 없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새 역사가 없고, 그들의 모든 행위에서는 종교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며, 그들의 삶은 전부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함께함과 역사가 없으며, 더욱이 성령의 징계나 깨우침을 받을 자격도 없다. 그들은 모두 생명이 없는 시체이고, 영성(靈性)이 없는 구더기이다. 그들은 사람의 거역과 대적에 대해 알지 못하고, 사람의 온갖 악행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지금의 뜻은 더더욱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무지한 소인배들이고, ‘신자’로 불릴 자격이 없는 인간 말종들이다! 그들이 어떻게 행하든 하나님의 경영과는 관계가 없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도 없다. 그들의 언행은 너무나 역겹고 초라하여 아예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성령의 흐름 속에 있지 않은 자들이 행하는 것은 성령의 새 사역과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행하든 성령은 징계하지도, 깨우쳐 주지도 않는다. 그들은 모두 성령에게 버림받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육을 좇아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하나님이 사역할 때 고의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거슬러 역행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지 못하는 것만 해도 이미 크나큰 패역인데, 하물며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역행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실행>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59)

너희는 하나님 사역의 이상(異象)을 알고 기본 방향을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모두 적극적인 측면의 진입이다. 네가 이런 이상과 관련된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역이 어떻게 바뀌든 전반적으로 너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상이 분명해지며, 네가 진입하고자 하는 것과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도 목표가 생긴다면, 너의 체험과 인식은 더 깊어지고 더 구체적이 되며, 큰 방향을 알게 되어 네가 생명에 해를 입거나 해매지도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사역을 알지 못한다면, 각 단계의 사역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사나흘이나 네댓새가 지나도 돌이키지 못하고, 열흘이나 보름이 지나도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일에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는 적극적인 측면의 진입과 실행을 다방면적으로 잘 알아야

한다. 또한 사역 이상에도 너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바로 정복 사역의 의의, 앞으로 온전케 되는 길, 환난과 시련을 통해 이루려는 것, 그리고 심판과 형벌의 의의, 성령 역사의 원칙, 온전케 되는 것과 정복되는 것의 원칙이다. 이것은 모두 이상과 관련된 진리에 속한다. 이 밖에 율법시대와 은혜시대, 그리고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세 단계 사역이 있다. 또 이후의 증거에 관한 것도 있는데, 이것 역시 이상에 관련된 진리로, 무엇보다 기본적인 것이고 중요하다. 지금 너희에게는 진입하고 실행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게다가 그것들은 각각 절차와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 이런 진리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것은 네가 아직 진입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진리에 대한 인식이 너무 얕박해서 기본적인 진리들도 실행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들도 처리하지 못한다. 사람이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성품이 패역한 데다 오늘날의 사역에 대한 인식 또한 너무 얕박하고 단편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온전케 되기가 쉽지 않다. 네가 너무나 패역하고, 자기주장이 강해 진리의 편에서 지 못하며, 심지어 가장 분명한 진리마저 실행하지 못한다면, 너 같은 사람은 구제 불능으로, 정복되지 못한 자에 속한다. 너의 진입에 세부적 내용과 목표가 없다면 너의 성장은 느릴 것이고, 너의 진입에 조금도 실체가 없다면 너의 추구는 헛될 것이다. 또한, 진리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면 너에게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사람의 생명 성장과 성품 변화는 모두 실제에 진입함으로써 이룰 수 있고, 나아가 세부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진입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많이 체험하고, 현실적으로 많이 깨닫고 진입한다면, 너의 성품은 빨리 변화할 것이다. 지금 너는 실행에 대해서는 그다지 분명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사역 이상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너는 진입할 수가 없다. 반드시 먼저 진리를 깨달아야 그 후에 진입할 수 있다. 체험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깨우침이 있어야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더 깊이 진입하게 된다.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 하나님의 직분과 사람의 본분의 구별>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60)

태초에 인류를 창조한 후 이스라엘 사람을 사역할 기반으로 삼았고, 이에 모든 이스라엘 땅은 여호와가 땅에서 행하는 사역의 근거지가 되었다. 여호와가 행한 사역은 율법을 정해 직접 사람을 인도하고 목양함으로써 사람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여호와를 정상적으로 경배하게 하는 것이었다. 율법시대의 하나님은 사람이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였다. 그는 그저 처음 사탄에 의해 패괴된 사람을 인도하고 가르치며 목양하기만 했기에, 그가 말씀한 내용은 단지 율례와 법도, 그리고 사람됨에 대한 상식이었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진리는 아니었다. 그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은 사탄에 의해 깊이 패괴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가 행한 율법 사역은 구원 사역의 첫걸음이자 최초의 구원 사역으로, 사람의 생명 성품 변화와는 거의 관련이 없었다. 그러므로 최초의 구원

사역부터 그가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그런 까닭에 그가 사람과 접촉하려면 매개체가 필요했다. 즉, 도구를 통해 사람과 접촉해야 했다. 그리하여 피조물 가운데서 여호와를 대신해 사역하고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인자와 선지자가 생겨났다. ‘인자’란 여호와를 대변해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사람으로, 여호와께 ‘인자’라 칭함 받았다. 이 호칭에는 여호와를 대변하여 율법을 반포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라는 뜻이 있다. 또한, 여호와가 보살피고 지키며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는 제사장이라는 뜻과 여호와를 직접 섬기는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뜻도 담겨 있다. 그리고 선지자는 전적으로 열방과 모든 족속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주는 대언자이자 여호와의 사역을 예언하는 사람이다. 인자든 선지자든 이들은 모두 여호와의 영이 친히 세운 사람들이자 여호와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이다. 또한 백성들 가운데서 여호와를 직접 대변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들은 단지 여호와가 세웠기에 사역한 것이지, 성령이 친히 성육신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하나님을 대변하여 사역하고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율법시대의 선지자와 인자들은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아니다. 그러나 은혜시대와 마지막 단계의 사역은 정반대이다. 사람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사역은 모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친히 행하는 것이므로 다시 선지자와 인자를 세워 그의 사역을 대신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사람의 눈에 그들의 사역은 본질과 방식 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기에 사람은 늘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을 선지자나 인자의 사역과 혼동한다. 성육신 하나님은 선지자나 인자와 기본적으로 겉모습이 같은 데다가, 선지자보다 더 정상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양자 간의 차이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기에 사역하고 말하는 것이 똑같아도 그 속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다. 사람은 분별력이 너무 부족해 단순한 문제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이렇게 복잡한 문제는 더욱 분별하지 못한다. 선지자들과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말과 사역은 모두 사람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고, 피조물로서 자신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성육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사역하는 것은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의 외형이 피조물의 외형이지만, 그의 사역은 기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본분은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말이고, 직분은 하나님이 입은 육신에 적용되는 말이다. 이 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없다. 사람이 사역한다 함은 단지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역한다 함은 경영을 하고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도가 성령께 쓰임 받고, 또 많은 선지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이 사역하고 말한 것은 그저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예언이 성육신 하나님이 말한 생명의 도보다 더 대단하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들의 인성이 성육신 하나님보다 훨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들은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지,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본분은 사람의 기능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육신 하나님이 이행하는 직분은 경영과 관련된 일로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이 말씀하든, 사역하든, 아니면 이적을 나타내든 간에, 결국

그가 행하는 것은 모두 경영 사역 중의 큰 사역이다. 이 사역은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행하는 사역은 단지 하나님의 경영 사역 중 어느 한 단계에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영이 없다면, 즉 성육신 하나님의 직분이 없어진다면 피조물의 본분도 없어지게 된다. 하나님이 사역하고 직분을 이행하는 것은 사람을 경영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창조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결코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의 고유한 본질인 영의 입장에서 보자면 경영을 하는 것이고, 성육신하여 피조물의 외형을 갖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가 어떤 사역을 하든 모두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사람은 오직 그의 경영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의 인도하에서만 자신의 능력을 다하게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 하나님의 직분과 사람의 본분의 구별>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61)

은혜시대에 예수 또한 적지 않은 말씀과 사역을 했다. 그는 이사야와 어떻게 다르겠느냐? 다니엘과는 어떻게 다르겠느냐? 그는 과연 선지자냐, 아니냐? 왜 그를 그리스도라 하겠느냐? 그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더냐? 다 같은 사람이고 다 말을 했으며, 게다가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말은 기본적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모두가 말하고 사역했다. 구약의 선지자는 예언을 했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도 예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어찌 된 일이나? 이런 것은 사역의 성격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 네가 이런 일을 분별할 때는 그의 육신의 속성이 어떠한지, 그의 말씀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보지 말고 먼저 그가 행한 사역과 그 사역이 사람에게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보아야 한다. 당시에 선지자가 한 예언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지 못했다. 이사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받은 묵시는 생명의 도가 아니라 예언에 불과했다. 당시 여호와가 직접 계시해 주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예수 또한 많은 말씀을 했지만 그 말씀들은 생명의 도였고, 사람은 그 속에서 실행의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첫째, 예수는 생명이므로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었다. 둘째, 예수는 사람의 치우치고 그릇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셋째, 예수는 여호와의 사역을 이어받아 시대를 이을 수 있었다. 넷째, 예수는 사람이 내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고, 사람의 부족한 점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그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낡은 시대를 끝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라고도, 그리스도라고도 하며, 이사야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선지자와도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가 행한 사역을 예수의 사역과 대조해 보면, 첫째, 이사야는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없었다. 둘째, 이사야는 시대를 열 수 없었다. 그는 여호와의 인도하에서 사역한 것이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며 사역한 것이 아니다. 셋째, 그가 한 말은 이사야 본인도 도달하지 못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 계시한 것이었으며, 다른 사람들 역시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 몇 가지로 이사야가 한

말은 단지 예언이자 여호와를 대신해 행한 하나의 사역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야는 여호와를 완전히 대변할 수 없다. 그는 여호와와 종이자 사역 도구였다. 그는 율법시대에만 사역했고 여호와가 역사한 범위 내에서만 사역했을 뿐, 율법시대의 사역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러나 예수가 행한 사역은 다르다. 예수는 여호와와 사역 범위를 뛰어넘어 사역했다. 그는 성육신 하나님의 신분으로 나타나 사역했으며, 십자가의 사역으로 전 인류를 속량했다. 다시 말해, 예수는 여호와가 행하지 않은 새로운 사역을 했다. 이는 바로 시대를 연 것에 속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는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의 말씀들을 할 수 있었다. 예수가 행한 사역은 하나님의 경영 사역이고 전 인류와 관련된 사역이지, 사람 몇을 만드는 사역도 아니고 한정된 사람을 인도하는 사역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었는지, 당시에 영이 어떻게 계시했는지, 영이 또 어떻게 사람의 몸에 임하여 역사했는지는 사람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런 사실로는 그가 성육신 하나님임을 증명할 수가 없다. 현실적인 방법은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영이 행한 일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분명히 알고 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입은 육신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너 또한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지 그가 행한 사역으로 확신할 수밖에 없다. 예수가 행한 사역을 보면, 첫째, 예수는 시대를 열 수 있었다. 둘째, 예수는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가리켜 줄 수 있었다. 이것으로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고, 최소한 그가 행한 사역은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대변할 수 있었다고 확정할 수 있다. 즉, 예수가 행한 사역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은 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사역을 인도하며, 새로운 경지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몇 가지로 예수를 하나님 자신이라고 확정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이사야나 다니엘 같은 대선지자들과 구분할 수 있다. 이사야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지식수준이 높은 부류로, 모두 여호와가 인도하던 비범한 사람들이었다. 성육신 하나님이 입은 육신도 식견이 있고 이성이 부족하지 않았지만, 그는 매우 정상적인 인성을 갖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안으로는 그에게 어떤 특별한 인성이 있는지, 그에게 어떤 남다른 인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에게는 초자연적이거나 특별한 점이 조금도 없고, 대단한 지식은 물론, 이론 수준도 대단하지 않다. 그가 말하는 생명과 그가 인도하는 길은 이론이나 지식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삶의 경험이나 가정 교육으로 얻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전부 영이 직접 행한 사역, 즉 성육신 하나님이 행한 사역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관념이 너무 크고, 특히 사람의 관념에는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것들이 너무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없고, 정상적이지만 연약한 인성을 지닌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모두 사람의 그릇된 관념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정상인이 아니라면 어찌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라 할 수 있겠느냐?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비범한 사람이라면 말씀으로 된 ‘육신’이 아니다. 그가 육신임을 실증하기 위해서는 성육신한 이상 반드시 정상적인 육신이어야 한다. 이것은 오로지 성육신한 의의를 완전케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선지자와 인자는 이와

다르다. 은사를 갖춘 그들은 성령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다. 사람이 보기에 그들은 아주 훌륭한 인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 인성을 뛰어넘는 많은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하나님처럼 여겼다. 지금 너희는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것은 유사 이래 모든 사람이 가장 헛갈려 한 일이며, 또한 성육신에 관련된 것은 가장 심오한 일이고, 성육신 하나님은 사람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렵기 때문이다. 나의 이 말은 너희가 기능을 다하는 데에도, 성육신의 비밀을 아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경영과 관련된 일이자 이상과 관련된 일이다. 너희가 이것들을 깨닫는다면 이상, 즉 경영 사역을 알아 가는 데 더욱 이로울 것이며, 그렇게 되면 각 부류의 사람이 이행해야 할 본분에 대해 깨닫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 말들이 너희에게 직접 길을 가리켜 주지는 않지만, 너희가 진입하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지금 너희의 삶에는 이상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의 진입에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계속 해결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진입할 동력을 잃게 된다. 그렇게 추구해서 어찌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 하나님의 직분과 사람의 본분의 구별>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62)

어떤 이는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과거에 선지자와 사도들이 한 사역과 어떻게 다릅니까? 다윗도, 예수님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행한 사역이 서로 달랐으나 호칭은 같았어요. 왜 그들의 신분은 다른 겁니까? 요한이 본 것은 이상(異象)이었고, 마찬가지로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하려는 말씀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요한의 신분은 예수님과 다른 거죠?”라고 물을 것이다. 예수가 한 말씀은 하나님을 완전히 대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역을 완벽하게 대변했다. 요한이 본 것은 이상에 속한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완벽하게 대변할 수 없었다. 요한, 베드로, 바울이 많은 말을 했고, 예수 또한 많은 말씀을 했는데, 그들의 신분에는 왜 차이가 있는 것이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사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수가 대표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친히 역사한 것이었다. 또한, 그의 사역은 새 시대의 사역으로, 누구도 한 적이 없었던 사역이었다. 그는 새로운 길을 열었고, 그가 대표한 것은 여호와이자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러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윗은 어떤 호칭으로 불렸는지에 상관없이 그저 피조물의 신분을 대변하고 예수 또는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이적을 보였을지라도, 그저 피조물일 뿐, 하나님의 영을 대표하지는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역했고, 또한 예수나 여호와가 열어 준 시대 안에서 사역한 것이지, 그 밖의 사역을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그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구약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예언서를 썼으나, 누구도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가 사역하자 하나님의 영은 그가

하나님임을 증거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나? 이제는 너도 알았을 것이다! 과거의 사도며 선지자들은 각종 서신을 쓰고 많은 예언을 했으나, 후세 사람들은 그중 일부만 선택하여 성경에 실었고, 또 일부는 소실되었다. 그들의 말이 전부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째서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겠느냐? 또한, 어째서 선택된 것과 선택되지 않은 것이 있겠느냐? 정말 성령의 말씀이라면 사람이 그것을 고를 필요가 있었겠느냐? 예수의 말씀과 사역은 어째서 4 복음서에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겠느냐? 그것은 기록한 자의 실수가 아니냐? 어떤 이는 “바울이나 신약의 저자들이 쓴 서신과 행한 사역이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람의 관념이 섞여 있다면, 당신(하나님)이 오늘날 하는 말씀에는 사람의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까? 사람의 관념이 조금도 없는 겁니까?”라고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이 단계의 사역은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 선지자들이 한 사역과 완전히 다르다. 신분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한 사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바울은 매를 맞아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 후부터 성령에게 이끌려 사역하게 된 사람이다. 그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므로 그가 교회들에 쓴 편지는 전부 예수의 가르침을 잇는 것이었다.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내심을 받아 사역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올 때는 어떤 이름을 받들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대표해 사역한다. 하나님은 와서 곧바로 사역을 하지, 사람처럼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누군가의 가르침을 토대로 사역하지 않는다. 이 단계의 사역은 개인의 체험에 대한 간증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가 소유한 것에 따라 사역한다. 예를 들면, 봉사자의 시련, 형벌 시대, 죽음의 시련,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대 등등의 이러한 사역은 전부 과거에 한 적이 없는 사역이자 현시대의 사역이며 사람의 체험이 아니다. 내가 한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사람의 체험이더냐? 전부 직접 영에서 비롯된, 영의 말씀이 아니더냐? 네가 자질이 너무 부족해 명확하게 알지 못할 뿐이다! 내가 말하는 실제적인 생명의 도는 길을 안내하는 것으로, 여태껏 그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 것들이다. 과거에는 누구도 이 길을 체험하지 못했으며, 누구도 이 실재를 알지 못했다.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는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못했고, 이런 체험을 이야기하지 못했으며,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말하지 못했다. 이런 내적 상태를 짚어 이런 것들을 드러낸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오늘날 내가 인도하는 이 길은 과거의 누구도 이끌지 못한 길이다. 만약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더 새로운 길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바울이나 베드로는 예수가 인도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체험이 없었다. 그들은 예수가 그 길을 개척한 다음에야 예수가 한 말씀과 이끌어 준 길을 토대로 체험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체험을 하고 그런 서신들을 쓸 수 있었다. 그러므로 사람의 체험과 하나님의 사역은 다르며,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관념, 사람의 체험으로 얻은 인식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나는 현재 내가 새 길을 이끌고, 새 사역을 하고 있으며, 요한과 여러 선지자들이 한 말이나 행한 사역과 다르다고 누차 이야기한다. 나는 먼저 체험하고 나서 너희에게 말해 주는 식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절대 그렇지 않다. 만약 그랬다면 진작에 너희를 망치지 않았겠느냐? 과거의 많은 이들이 한 말도 인식 수준이 매우 높지만, 그들은 소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의 인식을 토대로 말한 것으로,

길을 이끄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체험, 깨달음,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중에는 사람의 관념도 있고, 사람이 종합해 낸 경험도 있다. 현재 내 사역의 성질은 그들과 완전히 다르다. 나는 다른 이의 인도를 받아 본 적이 없으며, 다른 이의 도움을 받은 적도 없다. 또한, 내가 말하고 교제하는 것은 누구와도 다르며, 여태까지 그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 것들이다. 오늘날, 너희 가운데 누가 사역하든 모두 내 말의 기초 위에서 사역한다. 이러한 말씀이나 사역이 없다면 누가 이러한 것(봉사자의 시련, 형벌 시대...)들을 체험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인식을 말할 수 있겠느냐? 너는 아직도 이러한 것들을 간파하지 못하겠단 말이나? 어느 단계의 사역이든, 내 입에서 말이 나오면 너희는 나의 말에 따라 교제를 시작하고, 내가 한 말에 따라 사역하지, 너희 중 어떤 자가 생각해 낸 길이 아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너는 이렇듯 간단명료한 문제를 간파하지 못했던 말이나? 누군가가 생각해 낸 길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사람을 기반으로 생긴 것도 아니라 완전히 새로 개척한 길이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 중 시대착오적인 것까지 많이 폐하였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천지개벽과도 같은 사역이며, 완전히 새로운 가업을 세우는 것이다. 나의 사역과 말은 모두 새로운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새 사역이 아니란 말이나? 당시 예수님의 사역도 이러했다. 그가 한 것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것보다, 바리새인들이 한 것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보다 달랐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맞을까?’라며 감히 확정하지 못했다. 예수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가 와서 사람을 가르치며 한 말은 전부 새로운 것이었으며, 구약의 옛 선지자들이 한 말과 달랐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확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은 다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다. 너희 중 많은 이는 이 단계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기 전에 모두 과거의 영적인 사람들을 토대로 실행하고 진입하는 길을 갔다. 하지만 오늘날, 내가 하는 사역은 완전히 다르기에 너희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확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네가 과거에 어떤 길을 갔는지, 누구의 ‘밥’을 먹었는지, 누구를 너의 ‘아버지’로 여겼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와서 새 사역으로 사람을 이끄는 이상, 나를 따르는 자는 모두 내가 한 말대로 해야 한다. 네가 어떤 ‘명문가의 자제’든 너는 나를 따라와야 한다. 너는 더 이상 과거의 실행 방식에 따라 실행해서는 안 된다. 네 ‘양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됐고, 너는 마땅히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네가 얻어야 할 몫을 구해야 할 것이다! 네 모든 것은 전부 내 손안에 있으니 너는 네 ‘양아버지’를 너무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너를 완전히 주관하지 못한다. 오늘 하는 사역은 전부 새로운 가업을 세우는 것이다. 오늘 말하는 것은 분명히 과거의 것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네가 이것을 사람의 힘만으로 세운 것이라고 한다면 너는 구제 불능의 눈먼 자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호칭과 신분에 관하여>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63)

이사야, 에스겔, 모세, 다윗, 아브라함, 다니엘 등은 이스라엘 선민의 지도자나 선지자였다. 왜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겠느냐? 성령은 왜 그들을 증거하지 않았겠느냐? 예수가 사역하고 말씀하자 성령은 왜 그를 증거했겠느냐? 왜 다른 사람은 증거하지 않았겠느냐? 똑같이 사람이고 육신이며, 모두 주로 불렸다. 그들이 어떤 호칭으로 불렸든 간에 그의 사역은 그의 어떠함과 본질을 대변하고, 그의 어떠함과 본질은 그의 신분을 대변한다. 호칭은 그의 본질과 관련이 없다. 반면 그가 나타낸 것과 살아 낸 것으로 그의 본질을 대변한다. ‘주’로 불리는 것은 구약에서는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으며, 어떻게 불리든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본질과 원래의 신분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어째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고, 본래 사람이며, 다른 이를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신분이 없다. 다윗도 열두 지파에서 주로 불리지 않았더냐? 예수 또한 주로 불렸다. 왜 예수만을 성육신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것이겠느냐? 예레미야도 ‘인자’로 불리지 않았더냐? 예수도 ‘인자’로 불리지 않았더냐? 어째서 예수는 하나님을 대표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겠느냐? 그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더냐? 또한, 그들이 한 사역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더냐? 그런 것이 호칭에 달려 있단 말이나? 예수도 인자로 불렸지만, 그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성육신으로, 정사를 메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러 왔다. 바로 이 점이 예수의 신분과 본질이 똑같이 인자로 불렸던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 준다. 오늘날, 너희 중 누가 감히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전부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어째서 에스라의 예언서와 옛 선지자들이 쓴 서적들을 없애 버렸겠느냐? 모두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너희는 어째서 감히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냐? 너에게 성령의 역사를 선택할 자격이 있느냐? 이밖에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야기를 없애 버렸다. 네가 만약 과거에 기록된 그 책들이 전부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일부 책들을 없애 버렸겠느냐? 모두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전부 남겨 교회들에게 보내어 형제자매들이 보게 해야 하며, 사람의 생각을 섞어 함부로 취사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바울, 요한 등 사람들의 체험에 개인의 깨달음이 섞여 있다고 해서 그들의 체험과 인식이 사탄에게서 나왔다는 말은 아니다. 그저 그들이 개인의 체험과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들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그들은 당시의 현실적인 체험 배경을 토대로 인식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만약 4 복음서가 전부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어째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이 당시 예수의 사역에 대해 한 말이 다 다르겠느냐? 못 믿겠다면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아라. 베드로가 주를 세 번 부인한 사실이 다 다르고, 각각 ‘특색’이 있다. 식견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성육신 하나님도 사람인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전부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나 요한의 말에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다면, 그분이 하는 말씀에는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지 않단 말입니까?”라고 말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눈멀고 식견이 없는 자들이다! 4 복음서를 잘 보아라. 예수가 마친 일, 예수가 한 말씀에 대한 그들의 기록은 그야말로 각기 다 다르고, 각자 자신의 견해가 있다. 만약 저자가 쓴 것이 전부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같고 일치해야지, 어째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느냐?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너무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느냐? 너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증거하겠느냐! 너의 그 인식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만약 다른 사람이 너에게 “요한이나 누가의 기록에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다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는 말씀에는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너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 누가, 마태는 예수가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가 한 사역을 본 후에 개인의 인식을 말하고, 회고록처럼 예수가 사역한 사실의 일부를 기록했다. 너는 그들의 인식이 전부 성령의 계시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성경 외에도 영적인 사람들의 인식이 그들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는데 어째서 그것들은 후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냐? 그들도 성령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 아니더냐? 너는 오늘날의 사역이 예수가 행한 사역의 기초 위에 나 자신의 견해를 더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사역을 배경으로 삼아 나의 인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가 당시에 행한 것은 어떤 사역이냐? 내가 오늘날 하는 것은 또 어떤 사역이냐? 내가 행하고 말하는 것은 모두 전례가 없던 것들이고, 오늘날 가는 길은 모두 옛사람들이 간 적이 없는 길이며, 역대의 사람들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길이다. 그것을 오늘날에 열었으니 영의 역사가 아니겠느냐? 과거에 리더가 되었던 사람들의 사역은 성령 역사라고 할지라도 전부 다른 이가 닦아 놓은 기초 위에서 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사역은 다르다. 예수의 그 단계 사역도 마찬가지로 혼자 새로운 길을 열고, 세상에 와서 천국의 복음을 전했으며, 사람은 마땅히 회개하고 죄를 자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수의 사역이 끝난 뒤, 베드로와 바울 등이 예수의 사역을 이어 나가기 시작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승천한 다음, 그들은 그 영의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시작했다. 설령 바울이 매우 높은 내용들을 말했다 해도 그것은 예수가 한 말씀의 기초 위에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내와 사랑, 고난받고, 머리에 수건 쓰는 것, 세례받는 것, 또는 지켜야 할 다른 규례를 전하는 것 등등은 전부 예수가 한 말씀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길을 열지는 못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호칭과 신분에 관하여>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64)

당시 예수는 말씀하거나 사역할 때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성경의 구약 율법의 사역대로 하지 않았다. 반대로 은혜시대에 해야 할 사역에 따라 했을 뿐이다. 그는 그가 가져온 사역에 따라 행했고, 그의 계획에 따라 행했으며, 그의 직분에 따라 사역했을 뿐, 구약의 율법에 따라 사역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일을 구약의 율법에 따라 하지 않았다.

그는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기 위해 사역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옛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각 단계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규례를 지키거나 일부러 옛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온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은 옛 선지자들의 예언을 교란하지 않았으며, 그의 이전 사역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그가 하는 사역의 특이점은 어떤 규례도 지키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선지자도, 예언가도 아닌 '실무가'로, 매우 실제로 그가 해야 할 사역을 함으로써 그의 새로운 기원을 열고 새 사역을 시작했다. 물론, 예수의 사역으로 구약 선지자들의 말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 하는 사역으로도 구약의 옛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다만 오늘은 너와 그 '오래된 책력'을 펼쳐 보면서 따지지 않을 뿐이다. 내가 해야 할 사역이 많고, 너희에게 해야 할 말도 많으며, 이러한 사역과 말은 그런 성경 구절들을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사역은 너희에게 그다지 큰 의미도, 가치도 없고, 너희에게 도움이 되거나 너희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새 사역을 할 것이며,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이루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옛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성육신 하나님이 크겠느냐, 아니면 옛 선지자들이 크겠느냐? 옛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지배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옛 선지자들을 지배하는 것이냐? 이 말을 너는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호칭과 신분에 관하여>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65)

하나님의 각 단계 사역은 모두 하나의 흐름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6 천 년 경륜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 단계 한 단계 맞물려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길을 닦는 사람이 없었다면 뒤에 온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뒤에 올 사람이 있었으니 길을 닦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사역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전해 내려오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어질 수 있었다. 길을 여는 자가 없다면 사역은 전개될 수 없고, 하나님은 사역을 계속 앞으로 진행시킬 수 없을 것이다. 어느 단계든 어긋나지 않고 전부 순서대로 이어져 하나의 흐름을 이루며, 한 분의 영이 하는 일이다. 하지만 길을 연 자든, 길을 이은 자든, 결코 신분을 결정하지는 못한다. 그렇지 않느냐? 요한은 길을 열었고 예수는 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신분이 요한의 신분보다 낮다고 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와는 예수보다 먼저 역사했다. 그렇다고 여호와가 예수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느냐? 길을 닦거나 잇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의 본질과 대변하는 신분이다.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려는 이상, 그는 반드시 길을 닦는 사람을 일으켜 사역하게 해야 했다. 요한은 처음에 전도할 때,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라고 외쳤다. 그는 처음부터 이 도를 전했다. 왜 그는 이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 말을 한 전후를 따지자면 요한이 먼저 천국의 복음을 말했고, 그다음에 예수가 말했다. 사람의 관념대로라면 요한이 새로운 길을 열었으니, 그가

예수보다 당연히 커야 한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하지 않았다. 다만 그를 통해 길을 열고 주의 길을 예비했을 뿐이다. 그는 예수를 위해 길을 닦았지만, 예수의 사역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사람의 사역 또한 전부 성령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다.

구약시대는 여호와가 길을 이끈 시대였다. 여호와의 사역은 구약의 모든 시대를 대변하며, 이스라엘에서 행한 모든 사역을 대표한다. 모세는 그저 땅에서 그 사역을 지켰을 뿐이다. 그의 사역은 인성 협력에 속한다. 당시 여호와는 음성을 발해 모세를 불렀고, 이스라엘인들 가운데서 모세를 일으켰으며, 모세가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다. 그것은 여호와가 친히 지시한 일이지, 모세가 스스로 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으로 불릴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율법도 정했다. 하지만 그 율법은 여호와가 친히 반포한 것으로, 단지 모세에게 전하게 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도 계명을 정했다. 게다가 구약의 율법을 폐하고 새 시대의 계명을 정했다. 어째서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겠느냐? 이는 같은 맥락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 모세가 한 사역은 시대를 대변한 것이 아니며, 새로운 길을 연 것도 아니었다. 여호와가 앞에서 길을 이끌고 그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한 것이었다. 그는 그저 쓰임 받는 사람에 불과했다. 예수가 왔을 때, 요한은 이미 길을 닦는 단계의 사역을 마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성령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예수는 와서 바로 그 자신의 사역을 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은 모세의 사역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그렇게 많은 예언을 했는데, 어째서 그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겠느냐? 예수는 그렇게 많은 예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왜 하나님 자신이겠느냐? 당시 예수가 했던 사역이 전부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아무도 단언할 수 없었고, 또한 전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으며,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한 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이러한 일들은 사람이 분석할 수 없는 것이다. 이사야의 사역과 예언들도 직접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부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고, 여호와의 묵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는 그리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많은 말씀도, 매우 많은 예언도 하지 않았으며,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높은 도를 전하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요한이나 이사야, 다윗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들을 신이라고 부른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다윗 신이나 요한 신이라고 그렇게 부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오직 예수만을 그리스도라고 불렀다. 이는 하나님의 증거와 그가 담당한 사역, 그리고 그가 이행한 직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아브라함, 다윗, 여호수아, 다니엘, 이사야, 나아가 요한과 예수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큰 인물들이 행한 사역을 통해 너는 누가 하나님 자신이고, 누가 선지자에 속하고, 누가 사도에 속하는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자이고, 누가 하나님 자신인지는 그들이 행한 사역의 본질과 유형에 따라 구분되고 확정된다. 네가 이러한 것들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는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가 하나님인 이유가 그렇게 많은 말씀과 사역을 하고 더욱이 수많은 이적을 나타냈기 때문이라면, 요한도 그렇게 많은 일과 많은 말을 했고, 모세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리지 못하느냐? 아담은 하나님이 친히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이라고 불리지 않고 그저 피조물이라고 불리겠느냐? 다른 사람이 너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역과 말씀을 하셨다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면, 모세도 그렇게 많은 말을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 자신이겠죠?”라고 묻는다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은 왜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증거하셨으면서 요한을 증거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요한이 한 사역이 큼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큼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요한이 한 사역이 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요한을 증거하지 않으셨을까요?”라고 반문하여라.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 자신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구름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직접 이끌었다. 이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한 사역이다. 모세에게는 그런 영광과 어떠함이 없었고, 그는 그 사역을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가 한 일과 예수가 한 일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는 행하는 사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인지, 선지자인지, 사도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인지는 사역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너는 의문이 없어질 것이다. 성경의 기록에는 어린양만이 일곱 인을 뿜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역대로 수많은 큰 인물들이 성경을 해석했다고 해서 너는 그들을 전부 어린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해석이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그저 성경 해석가일 뿐, 그들에게는 어린양의 신분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일곱 인을 뿜 수 있겠느냐? ‘어린양만이 일곱 인을 뿜 수 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일곱 인을 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그 사역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며, 하는 김에 곁들여 하는 사역일 뿐이다. 그는 자신이 하는 사역을 똑똑히 알고 있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 굳이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겠느냐? 6 천 년 사역에 굳이 ‘어린양이 성경을 해석하는 시대’를 더해야겠느냐? 그는 새 사역을 하기 위해 왔다. 다만 과거의 사역에 대해 조금 풀어 주어 사람이 6 천 년 사역의 실정을 알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구태여 많은 성경 구절을 해석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현재 하는 사역이다. 너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곱 인을 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호칭과 신분에 관하여>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66)

은혜시대에 요한은 예수를 위해 길을 닦는 사역을 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의 사역은 할 수 없었으며, 그저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을 이행했을 뿐이다. 요한이 주의 선구자이기는 했지만 성령께 쓰임 받는 한 사람에 불과하며, 하나님을 대표하지는 못한다. 예수가 세례를

받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에게 임했고, 그때부터 예수는 사역을 시작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행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신분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이다. 그전에 그가 어떻게 믿었든, 연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모두 직분을 이행하기 전 정상 인성의 생활이었다. 예수가 세례를 받자(기름 부음을 받자) 바로 능력이 따랐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하였으며, 그는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그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권능을 행하며 능력과 권병을 가졌던 것은 직접 하나님을 대표해 사역하고, 영을 대신해 사역하며, 영의 음성을 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의심할 여지 없는 하나님 자신이었다. 요한은 성령께 쓰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표하지 못하며 대표할 수도 없다. 요한이 하나님을 대표하려고 했다면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하려는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한에게 사람의 뜻이 많았을 수도 있고 치우친 점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는 직접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었다. 요한의 잘못과 그릇됨은 그 본인을 대변하지만 그가 사역한 부분은 성령을 대변한다. 그렇다고 그의 전부가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설마 그의 치우침과 그릇됨까지도 하나님을 대변하겠느냐? 사람을 대변할 때 치우침과 그릇됨이 있는 것은 정상이지만, 하나님을 대변하는데도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성령을 모독하는 것 아니겠느냐? 성령은 함부로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지 않는다. 사람들이 높이 받드는 자라고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국 그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없다. 성령은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요한의 경우도 성령이 증거한 사람이었고 예수의 길을 닦는 자라고 성령이 밝힌 사람이었다. 하지만 성령이 요한에게 행한 사역은 상당히 적절했다. 예수의 길을 닦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위해 길만 닦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성령은 요한의 길 닦는 사역만 수호했으며, 그 외에 다른 일은 허락하지 않았다. 요한은 엘리야를 상징하며 길을 닦는 선지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런 사역은 성령이 수호했다. 요한의 길 닦는 사역을 위한 것이라면 성령은 모두 수호하였다. 하지만 요한이 하나님을 자처하며 자기가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면 성령은 그를 징계했을 것이다. 요한이 한 사역이 아무리 크고 또 성령의 수호를 받았을지라도 그의 사역은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성령이 요한의 사역을 수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그에게 부여한 능력은 길을 닦는 데 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역은 전혀 할 수 없었다. 그는 예수가 아니라 그저 길을 닦는 요한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증거가 중요하기는 해도 사람이 하는 사역을 성령이 허락하는지가 그보다 더 중요하다. 지난날 요한은 아주 크게 증거되었고, 그가 한 사역도 매우 크지 않았더냐? 하지만 요한이 한 사역은 예수를 넘어설 수 없었다. 요한은 그저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일 뿐 직접 하나님을 대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한 사역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가 길을 닦는 사역을 끝낸 뒤에는 성령이 더는 그의 증거를 수호하지 않았고, 새로운 사역이 그를 따르지도 않았으며, 그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 떠났다.

악령이 들려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고 말았다. 그들이 대표하는 것이 틀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탄을 대표했고, 성령은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아무리 대단하게 말하고 그럴듯하게 외쳐 대도 그들은 피조물이며, 사탄에 속한 존재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외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 굳이 외칠 필요가 있겠느냐? 높이 치켜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지위나 어떤 존칭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가 하는 사역이 바로 그의 신분과 지위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세례를 받기 전에도 하나님 자신 아니었더냐? 성육신 하나님 아니었더냐? 설마 그가 증거된 후에야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었겠느냐? 그가 사역을 하기 전부터 ‘예수’라는 이 사람이 있지 않았더냐? 네가 새 길을 열지 못하면 영을 대표할 수 없다. 영의 사역과 영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으며, 영이 하는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와 기묘함, 난측함, 사람을 형벌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나타낼 수도 없다면,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자처해도 허울만 있을 뿐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왔을 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그는 계속 사역을 행하며, 또한 영을 대표해 사역한다. 네가 그를 사람이라고 불러도 좋고,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좋고, 주님이든 그리스도든 자매든 어떻게 불러도 괜찮다. 하지만 그가 하는 사역은 영의 사역이고,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대변한다. 그는 사람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든 개의치 않는다. 사람이 그에게 붙인 호칭으로 그의 사역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를 뭐라고 부르든 하나님이 보기에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이고 영을 대표하는 존재이며 영이 인정하는 존재이다. 네가 새 시대의 길을 개척하지 못하고 옛 시대를 끝낼 수도 새 시대를 열 수도 없으며, 새 사역도 하지 못한다면, 너를 하나님이라고 칭할 수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의 비밀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67)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을 대표할 수는 없다. 비단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사역도 하나님을 직접 대변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사람의 체험을 직접 하나님의 경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체험’은 ‘하나님의 경영’을 뜻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역은 모두 그가 자신의 경륜에 따라 하고자 하는 사역이며 커다란 경영과 관계된 일이다. 반면 사람이 하는 사역은 모두 개인의 체험을 공급하고 앞사람이 개척한 길을 이어 다른 체험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다른 형제자매들을 인도하는 것이다. 그들이 공급하는 것은 다 개인의 체험이나 영적 인물의 영적 저술이다. 성령께 쓰임 받기는 하지만 그들의 사역은 6 천 년 계획 중 큰 경영과 관계된 사역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 다른 각 단계에 성령이 세운 사람으로, 자신의 역할이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 뿐이다. 그들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을 위해 적합한 길을 예비하거나 하나님이 땅에서 행한 경영 사역의 한

부분을 이어 가는 것뿐이다. 그들은 경영 안에서 더 큰 사역을 할 수 없고, 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없으며, 더욱이 아무도 하나님의 옛 시대 사역을 끝낼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역은 피조물이 자신의 기능을 다하는 것을 의미할 뿐, 하나님 자신이 직분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사역과 하나님 자신이 하는 사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대를 여는 사역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며, 성령의 감동이나 깨우침을 받아서 하는 사역이다. 그들의 사역은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실행해야 하는 길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길을 이끌어 주는 것이다. 사람의 사역은 하나님의 경영과 관련이 없고 영의 사역을 대변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위트니스 리와 워치만 니가 한 사역은 모두 길을 인도하는 것으로, 새 길이든 옛길이든 모두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지방 교회를 회복시켰든 세웠든, 결국에는 다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행한 것은 전부 은혜시대에 예수와 다른 사도들이 다 하지 못했거나 심화시키지 못한 사역이었다. 그들의 사역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세례를 받고, 떡을 떼거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 등은 모두 예수가 사역할 당시 사람에게 요구했던 것을 회복하여 행한 것이었다. 그들의 사역은 다 성경을 지키고 성경에서 길을 찾는 것이었으며, 새로운 진전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들의 사역을 통해 성경에서 새 길을 발견하고 더 훌륭하고 현실적인 실행 방법을 찾아낼 수만 있을 뿐, 하나님의 현재 뜻을 찾아볼 수 없고 나아가 말세에 하나님이 하려는 더 새로운 사역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그들이 계속 옛길을 가며 새로워지지 않고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과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는’ 실행을 고수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과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니,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을 지켰다. 나아가 “자매는 설교할 수 없고 순종하는 사람만 될 수 있다”라는 전통 관념을 고집하였다. 그들의 그런 방식대로 계속 이끌어 간다면 성령은 영원히 새 사역을 할 수 없고 사람을 규례에서 해방시킬 수 없으며 사람을 자유롭고 아름다운 경지로 인도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를 바꾸는 이 단계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행하고 친히 말씀해야 한다. 그 외에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 지금 이 흐름 밖에 있는 성령 역사는 모두 정지되어 있고, 한때 성령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하는 사역과 다르고, 그들의 신분이나 대표하는 대상도 다르다. 이는 성령이 하려는 사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똑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신분과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도 몇몇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고 옛 시대의 사역들을 폐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새 시대에 나타내려는 성품과 뜻을 나타낼 수 없다. 그저 옛 시대의 사역을 폐하기 위해 사역을 하는 것일 뿐이지, 직접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대변하는 새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낡은 방식을 얼마나 폐하든, 또는 새로운 방식을 얼마나 가져오든, 그들은 사람을 대표하고 피조물을 대표할 뿐이다. 반면 하나님 자신이 사역할 때는 공개적으로 옛 시대의 방식을

폐한다고 선포하지 않고 시대를 열 것이라고 직접 선포하지도 않는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자신이 하려는 사역을 행한다. 즉, 직접 자신이 가져온 사역을 선포하고, 자신이 본래 하려던 사역을 행하며, 자신의 어떠함과 성품을 나타낸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의 성품이 과거 시대와 다르고 그의 사역도 과거의 시대와 다른 것 같겠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그저 사역을 이어 가고 더 심화시키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을 선포하고 직접 새로운 사역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사람의 사역은 사고나 연구를 거쳐, 또는 다른 사람이 도출한 결론을 기반으로* 인식을 심화하고 실행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 하는 사역의 본질은 ‘정해진 대로 착실히 따르고’, ‘새 신을 신고 옛길을 가는’ 것이다. 즉,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 가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친히 개척한 길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고,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의 비밀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68)

요한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삭처럼 약속으로 태어났다. 그는 예수를 위해 길을 닦았고 수많은 사역도 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에 속한다. 예수를 위해 길을 닦는 일만 했기 때문이다. 그도 매우 큰 일을 했다. 그가 앞에서 길을 잘 닦아 놓은 후에야 예수가 정식으로 사역을 시작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위해 봉사한 것에 해당하며, 그가 한 사역은 예수의 사역에 이바지한 것이다. 예수는 요한이 길을 닦아 놓은 후에 사역을 시작했으며 더 새롭고 세밀하고 구체적인 사역을 했다. 요한은 시작 사역만 했고, 더 많은 새 사역은 전부 예수가 했다. 요한도 새로운 사역을 했지만, 그는 새 시대를 여는 자가 아니었다. 요한은 약속으로 태어난 자이고, 그의 이름 역시 사자가 지어 주었다. 당시에 누군가 그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를 따라 사가랴라고 하자고 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지시했다. 예수의 이름도 성령이 지시한 것이었다. 예수는 성령으로 태어났고 성령이 약속한 자였다. 그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고, 인자였다. 요한도 매우 큰 사역을 했는데 어째서 하나님이라고 불리지 않았겠느냐? 예수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에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단순히 요한은 예수를 위해 길을 닦는 자였기 때문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이겠느냐?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라고 외치며 천국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사역은 시작일 뿐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다. 반면 예수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낡은 시대를 끝냈으며 구약 율법도 완전케 했다. 그는 요한보다 더 큰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했다. 요한은 길만 잘 닦아 놓았을 뿐이다. 비록 그 역시 큰 사역을 하고 많은 말을 했으며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적지 않았지만 그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주는 데 그쳤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생명과 길 또는 더 깊은 진리를 얻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했다. 요한은 큰 선지자(엘리아)다.

그는 예수의 사역을 위해 장소를 준비하고 적합한 사람들을 예비하였으며, 은혜시대의 길을 연 선구자였다. 정상인의 겉모습만 봐서는 결코 이런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 더구나 요한도 매우 큰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약속한 자였고, 성령이 그의 사역을 수호했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한 사역을 통해 각자의 신분을 구별하는 수밖에 없다. 사람의 겉모습으로는 사람의 본질을 구별할 수 없고, 사람 또한 무엇이 성령의 증거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한과 예수의 사역이 다르고 사역의 성질 또한 같지 않으므로 이런 것을 통해 그가 정말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예수는 시작, 후속, 종결, 성취의 몇 단계 사역을 했지만 요한은 시작하는 사역만 했다. 예수는 처음에 회개의 도를 말씀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후에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마지막에는 인류를 죄에서 속량함으로써 그의 전체 시대 사역을 완성했다. 예수는 또한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천국의 복음을 전했다. 이 점은 요한과 같다. 그러나 다른 점은 예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사람들에게 은혜시대를 가져다주었다는 것이다. 은혜시대에 사람이 실행해야 하는 것과 가야 하는 길은 전부 그의 입에서 나왔다. 또한 마지막에 그는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 요한은 이런 사역을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한 것이며, 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직접 하나님을 대표한 것이다. 사람은 약속으로 태어나고, 영으로부터 태어나고, 성령의 수호를 받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이런 설에 따르면 요한도 하나님이고, 모세, 아브라함, 다윗 등등도 모두 하나님이 된다. 이것은 몹시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성육신의 비밀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69)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왜 시대를 여는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하셔야 합니까? 피조물은 대신할 수 없단 말입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함이다. 물론 새 시대를 여는 동시에 옛 시대도 끝낸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다. 그가 직접 사역을 전개했으므로 옛 시대를 끝내는 것도 그가 직접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긴 증거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친히 사역을 할 때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새 사역이 시작되지 않으면 당연히 옛 사역도 끝나지 않는다. 옛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면 사탄과 싸우는 사역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와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새로운 사역을 해야만 사람이 완전히 사탄의 권세에서 나와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시작이 생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영원히 낡은 시대에서 살게 되고 영원히 사탄의 낡은 권세 아래에서 살게 된다. 하나님이 시대를 한 번 이끌어 주면 사람은 어느 정도 해방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이기면 그를 따르는 사람도 이긴다. 시대를 끝내는 일을 창조된 인류에게 맡긴다면 사람이나 사탄의

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배반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사역이 사탄에게 빌미를 주게 된다. 하나님이 친히 열어 놓은 시대에서 사람이 순종하고 따라야만 사탄이 완전히 굴복할 수 있다. 이것이 피조물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다른 일은 할 필요 없이 오직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각자 본분을 지키고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면서 이를 대신할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피조물의 사역에 개입하지도 않는다. 또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사탄을 물리치는 증거이다. 하나님이 시대를 열고 나면 더 이상 친히 인간 세상에 와서 사역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사람은 본격적으로 새 시대로 들어가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기 시작하고, 피조물의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 이는 모두 사역의 원칙이므로 누구도 어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직접 한다. 그는 사역을 전개하는 분이자 사역을 끝내는 분이며, 사역을 계획하는 분이자 사역을 경영하는 분이고 나아가 사역을 이루는 분이다. 성경에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씨를 뿌리는 자이자 곡식을 거두는 자이니라.’라고 한 것처럼 말이다. 그의 경영과 관계된 이 모든 사역은 그가 직접 행한다. 그는 6 천 년 경륜의 주재자이며, 누구도 그의 사역을 대신하거나 그의 사역을 끝낼 수 없다. 그가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을 창조한 이상 온 세상이 그의 빛 속에서 살도록 인도할 것이고, 반드시 전체 시대를 끝내 자신의 모든 계획을 이룰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의 비밀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70)

6 천 년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전부 나타냈다. 은혜시대에만 나타낸 것이 아니고, 율법시대에만 나타낸 것도 아니며, 말세에만 나타낸 것은 더더욱 아니다. 말세에 하는 사역은 심판, 진노, 형벌을 대변한다. 말세에 하는 사역은 율법시대의 사역을 대체할 수 없고, 은혜시대의 사역을 대체할 수도 없다. 하지만 세 단계의 사역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를 이루며, 한 분의 하나님이 행한 것이다. 물론 그것은 시대를 나누어서 행한 사역이다. 말세에 하는 사역은 마무리 사역이고, 율법시대의 사역은 시작 사역이며, 은혜시대의 사역은 구속 사역이다. 6 천 년 경륜이라는 이 사역의 이상(異象)은 아무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해 줄곧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말세에는 말씀 사역만으로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를 열었지만 그것이 모든 시대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말세는 그저 말세이고 하나님나라시대일 뿐, 은혜시대나 율법시대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다만 말세에 6 천 년 경륜의 모든 사역을 너희에게 보여 줄 뿐이다. 이것이 바로 비밀을 여는 것이다. 이런 비밀은 어떤 사람도 열지 못한다. 사람은 성경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잘 이해해도 글귀를 아는 데 그칠 뿐이다. 성경을 보고 진리를 얼마간 깨닫거나 글귀를 조금 해석하고 유명한 장절을 파고들 수는 있겠지만 그

글귀 속에 담긴 뜻은 영원히 풀지 못한다. 사람이 본 것은 죽은 글귀이지, 여호와와 예수가 사역한 현장이 아니며, 또한 사람은 그 사역들의 비밀을 풀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6 천 년 경륜의 비밀은 가장 신비롭고 은밀하며, 사람이 결코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직접적으로 알 수 없다. 그가 직접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거나 풀어 주지 않는 한, 그런 것이 사람에게는 언제까지나 ‘수수께끼’요, 영원히 닫혀 있는 비밀이 될 것이다. 종교계 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너희 역시 오늘날 이렇게 알려 주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 6 천 년의 사역은 모든 선지자의 예언보다 더 신비로운, 창세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비밀이며, 역대 선지자도 측량하지 못한 것이다. 이 비밀은 마지막 시대가 되어야 열리며, 이전에는 열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비밀을 알고 전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모든 종교계 인사들은 이 비밀에 정복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상이며, 사람이 가장 알고 싶어 하지만 또 가장 모르는 것이다. 너희는 은혜시대에 살았으면서도 예수가 행한 사역이 도대체 무엇인지 몰랐다. 또한 여호와가 도대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째서 율법을 제정해야 했는지, 어째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지, 어째서 성전을 건축해야 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했는지는 더더욱 알지 못했다. 오늘날에야 이런 일들을 밝히게 된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의 비밀 4>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71)

성령의 특별한 지시나 인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사람은 전혀 독립적으로 생활할 능력이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섬김과 목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서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그의 사역을 위해 분주히 오가며 교회들을 목양하게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을 통해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성령은 사람에게서 취할 만한 부분을 통해 사역하며, 또 그 사람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든다. 사람은 이해 능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목양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모세를 쓴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당시 상황에 쓰기에 적합한 부분을 많이 찾아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단계 사역을 했다. 이 단계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성령이 쓸 수 있는 부분을 통해 사역한다. 성령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한편, 쓰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은 온전케 한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역이나 성령의 역사에 협력하기 위해 사역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선민을 이끌기 위해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킨 사람이자 인성으로 협력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성으로 협력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려는 사역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는 목적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하나님의 요구를 더 많이 충족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직접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쓰임 받는 사람을 일으켜 이런 사역을 한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는 데 필요한 매개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담당하는 ‘통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집에 있는 어떤 일꾼이나 사도와는 다르다. 그들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다른 일꾼이나 사도들과 사역의 본질, 그리고 쓰임 받는 배경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사역의 본질과 쓰임 받는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으킨 자로,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 예비한 사람이며, 하나님 자신의 사역에 협력하는 사람이다. 그의 사역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고, 신성으로 역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인성으로 협력하는 사역이다. 반면, 다른 일꾼이나 사도의 사역은 그저 각 시기에 교회에 대한 다방면의 지시를 전달하고 실시하는 것이거나, 교회 생활을 유지하는 일부 단순한 생명 공급 사역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일꾼들이나 사도들은 하나님께 지정된 자가 아니며, 또한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들은 모두 교회에서 선발된 자들로, 한동안의 배양과 훈련을 거쳐 쓰기에 합당한 사람은 쓰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진다. 이들은 모두 교회에서 선발된 자들이므로 일부는 리더가 된 후 실체가 드러났고, 또 어떤 이는 많은 악행을 저질러 결국 도태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어느 정도 자질과 인성을 갖춘 사람이며, 성령이 미리 예비하여 온전케 한 사람이다. 성령이 그를 완전히 인도하는 것은 물론, 특히 사역 면에서는 성령이 지배하고 주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민을 인도하는 길에 오차가 생길 수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사역에 책임을 질 것이며, 언제나 자신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것에 관하여>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72)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사역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든, 쓰임 받는 사람의 사역이든 모두 성령의 사역이다. 하나님 자신의 본질은 원래 영이기 때문에 영은 성령이라고도, 일곱 배 강화된 영이라고도 하며, 어쨌든 모두 하나님의 영이다. 단지 시대가 다름에 따라 하나님의 영에 대한 호칭이 다를 뿐, 그 본질은 여전히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의 사역은 원래부터 성령의 사역이며,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 또한 성령의 사역에 속한다. 쓰임 받는 사람이 하는 사역 역시 성령의 사역이다. 다만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완전한 발현으로, 조금의 오차도 없지만, 쓰임 받는 사람의 사역은 성령의 직접적인 발현이 아니고, 완전한 발현은 더더욱 아니며, 사람에게 속하는 것들이 많이 섞여 있다. 성령은 역사 형식이 매우 다양하고, 어떤 조건의 제약도 받지 않으며, 서로 다른 사람에게 서로 다르게 역사한다. 이러한 역사는 모두 각기 다른 사역의 본질을 나타내며, 시대별, 국가별로 행하는 사역도

다르다. 물론 성령이 역사하는 방식과 원칙은 매우 다양하지만,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든 모두 서로 다른 본질을 갖는다. 서로 다른 사람에게 행해지는 역사는 모두 원칙이 있으며, 역사할 대상의 본질을 대변할 수 있다. 성령의 역사는 적합한 범위와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에게서 행해지는 사역은 사람에게 행하는 사역과 다르고, 자질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사역도 서로 다르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입은 육신에게서 행해지는 사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입은 육신에게서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과 같은 사역을 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든 대상에 따라 행해지는 사역이 서로 다르며, 다양한 사람의 내적 상태와 본성에 따라 그가 역사하는 원칙도 다르다. 성령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역사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본질에 따라 역사하지,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본질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지 않고, 본디 갖고 있는 자질을 뛰어넘어 역사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성령은 사람에게 하는 사역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 대상의 본질을 보여 준다. 사람의 고유한 본질은 변하지 않고,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질은 한계가 있다. 성령은 사람을 쓰거나 사람에게 역사할 때, 사람의 유한한 자질에 따라 역사하여 사람에게 얻는 것이 있도록 한다. 성령은 쓰임 받는 사람에게 역사할 때, 그 사람의 타고난 재능과 고유한 자질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한다. 고유한 자질을 모두 발휘함으로써 사역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다. 즉, 그는 사람에게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취해 사역함으로써 사역 성과를 내는 것이다. 반면, 하나님이 입은 육신에게서 하는 사역은 직접 영의 사역을 발현하는 것으로, 사람의 생각이나 사유가 섞여 있지 않다. 이는 사람의 은사나 체험, 선천적 조건으로는 이를 수 없는 것이다. 성령의 다양한 역사는 모두 사람에게 유익하며, 사람을 만들기 위해 이뤄진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온전케 될 수 있는 데에 반해, 어떤 사람들은 온전케 될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온전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되기도 힘들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도 결국엔 도태되고 만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완전히 온전케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길은 온전케 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그저 성령의 일방적인 역사만 있을 뿐, 사람의 주관적인 협력도, 올바른 추구도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이뤄지는 성령의 역사는 온전케 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역사가 된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직접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다. 다만 사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통해 그 사역을 발현할 뿐이다. 즉,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발현됨으로써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73)

성령의 역사는 각양각색의 사람을 통해, 그리고 서로 다른 조건을 통해 이뤄지고 온전케 된다.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이 시대 전체의 사역과 그 시대 사람의 진입을 대변하지만, 사람의 구체적인 진입과 관련된 사역은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들을 통해 이뤄지며, 성육신

하나님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 즉 하나님 자신의 직분은 성육신이 하는 사역이며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통해 완전케 되지, 어느 한 사람이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것도, 전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교회들을 이끄는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대변할 수는 없으며, 이끄는 사역의 일부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자신의 사역, 쓰임 받는 사람의 사역, 그리고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부분의 사역 중에서 하나님 자신의 사역은 시대 전체를 인솔하는 것이다. 쓰임 받는 사람의 사역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 있는 뒤에 보내심을 받거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인솔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는 사람이다.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그 자신의 모든 사역을 수호하기 위한 것, 즉 모든 경영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자 그의 증거를 수호하는 동시에 온전케 될 수 있는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세 부분의 사역이야말로 성령의 완전한 사역이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 없다면, 모든 경영 사역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다. 하나님 자신의 사역은 전 인류와 관계된 사역이자 시대 전체를 대변하는 사역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의 사역은 성령 역사의 모든 동향과 추세를 대변한다. 반면, 사도의 사역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 있은 이후에 이어지는 것으로, 시대를 이끌지 못하며,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성령 역사의 동향을 대변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을 할 뿐이며, 경영 사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나님 자신이 하는 사역은 경영 사역의 내용이지만, 사람이 하는 사역은 단지 쓰임 받는 사람이 이행하는 본분이며 경영 사역과는 무관하다. 신분, 그리고 행하는 사역이 대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성령의 역사라고 해도 하나님 자신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의 본질적 차이는 매우 뚜렷하다. 또한, 서로 다른 신분을 가진 대상에게 이뤄지는 성령의 역사에도 경중의 차이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역사의 원칙과 범위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74)

사람이 하는 사역은 그 사람의 체험과 인성을 대변한다. 사람이 공급하는 것과 사람이 하는 사역은 그 사람을 대변하며, 사람의 사역에는 사람의 깨달음, 사람의 추리, 사람의 논리는 물론이고, 풍부한 상상력까지 모두 포함된다. 특히 사람의 체험은 사람의 사역을 더 잘 대변한다. 사람이 어떤 것을 체험하면 그 사람의 사역에 그런 성분이 묻어나기에 사람의 사역은 사람의 체험을 나타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소극적인 상태에서 체험을 했다면, 그가 교제하는 말의 대부분은 소극적인 성분이다. 그가 그동안 긍정적으로 체험하고 특별히 긍정적인 면에서 길이 있다면, 그의 교제는 다른 사람을 고무시킬 것이고, 사람은 그에게서 긍정적인 부분의 공급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에 사역하는 사람이 소극적으로 되었다면, 그가 교제하는 말에도 늘 소극적인 성분이 들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제는 사람을 가라앉게 하며, 사람들은 그의 교제가 끝난 후 자기도 모르게 침울한 기분이 들게 된다. 따르는 사람의 상태는 이끄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사역하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은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다. 또한, 성령의 역사는 흔히 사람의 내적 상태에 따라 변한다. 성령은 사람의 체험에 맞춰 역사하고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고, 사람의 정상적인 체험 과정에 따라 요구한다. 다시 말해, 사람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 사람은 자신이 본 것과 체험한 것을 교제하고,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토대로 자신이 보고 체험한 것을 나타낸다. 그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사역이나 말씀이 끝난 후, 마땅히 실행해야 할 것과 진입해야 할 것을 찾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역은 사람의 진입과 실행을 대변한다. 물론, 이러한 사역에는 사람의 경험과 교훈, 또는 일부 생각들이 섞여 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든, 사람을 통해 역사하든 아니면 성육신을 통해 역사하든, 모두 사역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모두 사람의 고유한 어떠함을 토대로 이뤄지는 것이다. 성령은 아무 까닭 없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성령은 아무 근거 없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실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사람의 성품이나, 낯은 관념, 낯은 사상이 변화될 수 있다. 사람이 나타내는 것은 모두 사람이 보고 체험한 것이며, 사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도리나 관념이라고 해도 전부 사람의 사유로 닿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크기에 상관없이 사람이 체험한 것, 본 것,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구상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으로,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사람의 사유로 이를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전 인류를 이끄는 그의 사역을 선포하는데, 이는 사람의 세부적인 체험과 무관하며, 그 자신의 경영과 연관된다. 사람이 나타내는 것은 사람의 체험이고,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이다. 이 어떠함은 곧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으로, 사람이 갓출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체험은 하나님이 나타낸 어떠함을 토대로 보고 인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인식한 것을 모두 사람의 어떠함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의 고유한 성품과 자질을 토대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사람의 어떠함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체험하고 본 것을 교제할 수 있다. 체험하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나 사람의 사유로 닿지 못하는 것, 즉 사람의 내면에 없는 것은 교제할 수 없다. 만약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상상이나 도리일 것이다. 요컨대 그런 말에는 실체가 조금도 없다. 가령 네가 사회의 일을 겪어 본 적이 없다면 너는 복잡한 사회관계를 제대로 교제할 수 없다. 또한, 너에게 가정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가정사를 교제할 때 너는 그가 말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의 교제나 사역은 그 사람 내면의 어떠함을 대변한다고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형벌과 심판에 대한 인식을 교제할 때, 너에게 체험이 없으면 너는 상대방의 인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고, 더욱이 상대방의 인식을 백프로 확신할 수도 없다. 그가 교제하는 것은 네가 한 번도 체험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것이며, 네가 사고를 통해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저 그의 인식을 통해 앞으로의 형벌과 심판의 길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길 역시 너에게 이론적인

인식으로만 남을 뿐 너의 삶을 대체할 수 없으며, 너의 체험은 더더욱 대체할 수 없다. 어쩌면 너는 상대방의 인식을 들으면서 확실히 옳다고 여겼을지도 모르나, 막상 체험하게 되면 실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어쩌면 너는 상대방의 인식을 들었을 당시에는 그중의 일부를 근본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관념을 갖고 마지못해 받아들였을지도 모르나, 막상 체험하게 되면 너에게 관념을 갖게 한 그 인식이 오히려 너의 실행에 길이 되어 주고, 또한 실행할수록 그 말의 실제 가치와 의의를 더 잘 깨닫게 될 수도 있다. 너는 체험을 하고 난 후에는 네가 체험한 일에 대해 네가 마땅히 가져야 할 인식을 말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의 인식이 진실하고 실제적인지, 어떤 사람의 인식이 이론적이고 무가치한지 분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네가 말하는 인식이 진리에 부합하는지를 보려면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실제 체험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너의 체험 속에 진리가 있다면 너의 인식은 실제적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너는 체험을 통해 분별력과 식견을 키우고, 인식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지혜와 상식을 늘릴 수도 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이 말하는 인식은 아무리 높아도 그저 도리에 불과하다. 이런 사람은 육적인 일에는 아주 지혜로울지 몰라도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분별력이 없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일에 대한 체험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일에 있어 트이지 못한 사람이며, 영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네가 어떤 측면의 인식을 말하든 그것이 네 어떠함이라면 곧 네가 직접 체험한 것이고 너의 진실된 인식이다. 언제나 도리만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와 실체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그들의 어떠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도리 역시 고심을 거듭해 생각해 낸 것이고, 그들의 머리로 심사숙고한 끝에 얻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단, 그것은 그저 도리이자 사람이 상상해 낸 것일 뿐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75)

다양한 사람의 체험은 각자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대변한다.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은 진리에 대한 인식을 말할 수 없으며, 각종 영적인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말할 수 없다. 사람이 나타내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어떠함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사람은 영적인 것과 진리를 인식하려면 반드시 실제 체험이 필요하다. 너는 인성 생활의 상식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것은 또 어떠하겠느냐? 교회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이끄는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실제 체험이 있어야 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하며,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험 또한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람만이 일꾼이나 사도가 되어 교회들을 이끌 자격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작은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을 뿐, 이끄는 자가 될 수 없으며,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사도는 더더욱 될 수 없다. 사도의 역할은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도, 싸우는 것도 아닌, 생명을 돌보고 사람의 성품 변화를 이끌어

나는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명과 중임을 맡은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지, 아무나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역은 생명의 어떠함이 있는, 즉 진리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만 맡을 수 있는 것으로, 포기할 수 있고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의 체험이 없고 책망과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사역을 할 수 없다. 체험이 없는 사람, 즉 실체가 없는 사람은 실체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에게는 이 측면의 어떠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인솔하는 사역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진리가 없을 경우 도태될 대상이 된다. 네가 얘기하는 깨달음은 너라는 사람이 어떤 고난의 삶을 체험했는지, 어떤 일에서 형벌을 받고 심판을 체험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 이는 시련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에서 연단을 받았고, 어떤 일에서 연약했다면, 그 일에 체험이 있고, 또 그 일에서 길이 생긴 것이다. 예컨대, 어떤 이가 결혼에서 좌절을 겪었다면, 그는 대부분 다음과 같이 교제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해 드려야 하며, 제 일생과 결혼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제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사람 내면의 모든 것과 어떠함은 교제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말의 속도나 성량 등 체험과 무관한 일은 사람의 소유와 어떠함을 대변하지 못한다. 그저 사람의 성격이나 본성의 좋고 나쁨에 대해 말해 줄 수 있을 뿐, 사람의 체험 유무와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는 없다. 말의 표현 능력이나 기교, 속도는 훈련이 가능한 일이기에 사람의 체험을 대신할 수 없다. 너는 네 체험을 교제할 때 네가 마음으로 중시하는 것과 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다. 내가 하는 말은 나의 어떠함을 대변하지만, 사람은 내가 하는 말에 이를 수 없다. 내가 하는 말은 사람이 체험한 것도, 볼 수 있는 것도, 접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전부 나의 어떠함이다. 어떤 이는 내가 교제하는 것이 내가 체험한 것이라고만 인정할 뿐, 영의 직접적인 발현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말은 당연히 내가 체험한 것이고, 6 천 년 경영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나는 태초에 인류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체험했는데 어찌 말하지 못할 수 있겠느냐? 나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 꿰뚫고 있고 벌써 다 살펴보았는데, 어찌 제대로 말하지 못할 수 있겠느냐? 나는 사람의 본질을 꿰뚫고 있으므로 사람을 형벌하고 심판할 자격이 있다. 사람은 모두 내게서 나왔고, 또한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내가 한 사역을 평가할 자격이 있다. 그 사역은 내 육신이 한 것이 아니지만 영의 직접적인 발현이고, 나의 소유와 어떠함이다. 그러기에 나는 발현할 자격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사역을 할 자격도 있다.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 사람이 체험하고 본 것이며, 사람 혼자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의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이러한 일들만 나눌 수 있다.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말은 영의 직접적인 발현으로, 영이 이미 행했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육신이 체험한 것도, 본 것도 아니지만, 나타내는 것은 여전히 그의 어떠함이다. 육신의 본질이 영이고, 나타내는 것은 영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설령 육신이라도 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영이 이미 행한 사역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한 후에 육신의 발현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하는 사역을

보게 한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사람들이 마땅히 진입해야 할 것과 깨달아야 할 것을 더욱 명확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을 이끌어 진리를 깨닫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은 붙들어 주는 사역이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인류를 위해 새로운 활로와 시대를 열고, 평범한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밝혀 그의 성품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가 하는 것은 전 인류를 이끄는 사역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76)

성령의 사역은 전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며,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사람에게 무익한 사역은 조금도 없다. 진리의 깊이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질과는 상관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어떻게 행하든 사람에게는 전부 유익하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반드시 그와 협력하는 사람을 통해 그의 사역을 나타내야 한다. 그래야만 성령이 하려는 사역이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성령이 직접적으로 역사한다면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 사역하면 많은 불순물이 섞이게 마련이고, 이는 성령의 원래 사역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진리도 어느 정도 달라지게 된다. 따르는 사람들이 얻는 것도 성령의 원래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사람의 체험, 또는 사람의 인식이 결합된 것이다. 따르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얻는 부분은 정확한 것이고, 얻는 사람의 체험과 인식은 사역하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 사역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깨우침과 인도가 있고, 그들이 그 깨우침과 인도를 기반으로 체험하며, 그 체험 과정에서 사람의 생각과 경험, 인성의 어떠함이 결합되어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인식이나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진리를 체험한 후에 실행하는 길이다. 사람마다 체험이 서로 다르므로 이 실행의 길도 완전히 같을 수 없으며, 체험한 일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똑같이 성령의 깨우침이지만, 깨우침을 받은 사람에 따라 깨우침에 대한 인식과 실행이 다른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실행할 때 오차가 작고, 어떤 사람은 오차가 크며,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틀리게 실행한다. 사람마다 이해 능력이 서로 다른 데다가 고유한 자질 또한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한 편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의 진리를 듣고 저렇게 이해하며, 어떤 사람은 치우치는 면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리의 참 뜻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해한 대로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것이다. 이는 조금도 틀림이 없다. 그가 하는 사역이 바로 그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진리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가 이끄는 사람도 진리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진다. 설령 그릇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소수일 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진리를 그릇되게 이해하는 자라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의심할 여지 없이 치우치고 그릇된 것이다. 그런 자들은 모두 그릇된 자들이다. 철두철미하게 그릇된 자들이다. 따르는 사람들의 진리에 대한 인식 정도는 대체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에게 달렸다. 물론 하나님에게서 온 진리는 오차가 없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지만, 사역하는 사람은 완전히 정확할 수는 없고 완전히 믿을 만하다고도 할 수 없다. 사역하는 사람이 진리 실행에 길이 있고, 또한 그 길이 매우 실제적이라면, 따르는 사람도 실행의 길을 갖게 된다. 만약 사역하는 사람이 진리 실행에 길이 없고 그저 이론만 있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실체가 전혀 없게 된다. 따르는 사람의 자질과 본성은 선천적으로 결정된 것이며, 사역하는 사람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따르는 사람의 진리에 대한 이해 정도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모두 사역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이는 일부분 사람에게만 적용됨). 사역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그를 따르는 사람도 그 사람처럼 된다. 사역하는 사람이 나타내는 것은 모두 자신의 어떠함이며, 또한 조금도 남기지 않고 나타낸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자신이 달성하길 원하거나 혹은 그 자신이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한다. 많은 사람은 사역할 때 자신이 행한 것에 근거해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예 해낼 수 없는 데도 말이다. 사람이 해내지 못하는 것은 진입의 방해물이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77)

책망 훈계와 심판 형벌을 겪은 사람의 사역에는 편차가 훨씬 적고, 사역할 때 나타내는 내용도 훨씬 정확하다. 반면, 천성대로 사역하는 사람의 오차는 상당히 큰 편이다. 온전케 되지 않은 사람이 사역하면서 나타내는 것에는 천성적인 것이 너무 많아 성령의 사역에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 자질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책망과 훈계, 심판을 겪어야만 하나님이 맡겨 준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심판을 겪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진리의 원칙에 부합할 수 없고, 행하는 것이라고는 전부 천성적인 것과 인위적인 호의에 불과하다. 책망 훈계와 심판을 겪은 사람이 사역을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할 때보다 훨씬 정확하다. 심판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것은 육적인 것과 사람의 사유일 뿐이고, 거기에는 사람의 총명과 선천적인 재능이 너무 많이 섞여 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나타낸 것이 아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의 선천적인 자질에 끌려 그의 앞으로 가게 된다. 그가 나타내는 것에는 사람의 깨달음과 체험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본뜻과 어긋나고 오차도 너무 크다. 그런 사람이 사역을 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으로 인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심판과 형벌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 준 사역을 할 자격이 없다. 자격을 갖춘 일꾼이 하는 사역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깊이 진입하게 할 수 있다. 그가 하는 사역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게다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으며, 규례의 제약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방과 자유를 줄 수 있고, 또한 생명이 점차 성장하고 진리에 더 깊이 진입하게 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일꾼이 하는 사역은 이와 크게 다르다. 그는 어리석게 사역을 하며 사람을 규례 속으로 인도할 뿐이다. 그는 사람에 따라 요구를 달리하지도 않고, 사람의 실제 필요에 맞춰

사역하지도 않는다. 그런 사역에는 규례와 이론이 너무 많아 사람을 실제 속으로 이끌 수 없으며, 생명이 성장하는 정상적인 실행 속으로 이끌 수도 없다. 그저 사람들에게 가치 없는 규례를 지키게 할 뿐이다. 이러한 인도는 사람을 치우치게 만든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너를 어떻게 인도할지가 결정되며, 그는 너를 그의 소유와 어떠함 안으로 이끌 수 있다. 따르는 사람이 이끄는 사람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가 인도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사역의 효과가 어떠한지, 따르는 사람이 얻은 것이 진리의 원칙에 맞는지, 사람의 변화에 적합한 실행의 길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관건이다. 너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사역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어리석게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사람의 진입에 관련된 일이다. 네가 누구의 인도에 길이 있고, 누구의 인도에 길이 없는지를 분별할 수 없다면, 쉽게 미혹된다. 이것들은 모두 너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다. 온전케 되지 않은 사람이 하는 사역에는 천성적인 것이 너무 많고, 사람의 뜻도 너무 많이 섞여 있다. 그의 어떠함은 천성적인 것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다듬어지면서 얻게 된 생명도, 변화를 거치며 갖게 된 실제도 아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 있겠느냐? 사람의 원래의 생명은 사람의 선천적인 총명이나 재능을 말한다. 이런 총명이나 재능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요구와는 거리가 매우 멀다. 온전케 되지 않고, 패괴 성품이 책망과 훈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내는 것은 진리와 거리가 매우 멀며, 사람의 상상과 단편적인 체험 등 막연한 것들이 섞여 있다. 또한, 그가 어떻게 하든 사람들은 총체적인 목표가 없고, 모든 사람의 진입에 적합한 진리가 없으며,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의 대부분이 어려운 일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뜻으로 행하는 사역이다. 사람의 패괴 성품, 사람의 사유와 관념은 사람의 온몸에 두루 퍼져 있고, 사람은 천성적으로 진리를 실행하는 본능이 없으며, 진리를 직접 깨닫는 본능도 없다. 거기에 패괴 성품까지 더해졌으니 그런 천성적인 사람이 사역을 하면 전부 방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온전케 된 사람은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진리에 대한 체험이 있고, 사람의 패괴 성품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며, 사역하는 과정에서 막연하고 실제적이지 않은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람의 불순물도 점점 줄어들며, 그의 사역과 섬김은 하나님이 요구한 기준에 점점 가까워진다. 그리하여 그가 하는 사역은 진리의 실제에 진입하고 현실적이 된다. 사람 두뇌의 사유는 성령의 사역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사람에게는 풍부한 상상력과 합리적인 논리력, 그리고 노련한 처세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교정되지 않는다면 전부 사역을 가로막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역은 가장 정확한 수준에 이를 수 없으며, 특히 온전케 되지 않은 사람의 사역은 더더욱 그러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78)

사람이 하는 사역은 범위가 있고 제한적이다. 한 사람은 특정 단계의 사역만 할 수 있을 뿐,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사역은 할 수 없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을 규례로 이끌게 된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특정 시기, 또는 특정 단계에만 적용될 뿐이다. 사람의 체험에는 모두 범위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하는 사역과 비교가 불가능하다. 사람이 실행하는 길과 깨달은 진리는 모두 특정 범위에 적용되며, 사람이 가는 길이 완전히 성령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람은 성령의 깨우침을 받을 수만 있지,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정상 인성의 범위 안에 있으며, 정상 인성의 두뇌 사유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진리 실체를 살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범위 안에서 체험한 것이다. 그들은 다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 정상 인성의 삶 속에서 진리를 체험하는 것이지, 정상 인성의 삶을 벗어나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다 인성의 삶을 유지하는 기초 위에서 성령이 깨우쳐 주는 진리를 체험하며, 게다가 그 진리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르고, 그 깊이도 사람의 내적 상태와 관련된다. 그들이 가는 길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정상 인성의 삶이자, 성령의 깨우침이 있는 정상인이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 성령이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정상 인성의 체험을 보면, 추구하는 사람이 다름에 따라 성령이 하는 사역도 각기 다르다. 또한, 사람이 체험하는 환경과 범위가 서로 다르고, 사람의 생각과 사유가 섞이기 때문에 사람의 체험에는 서로 다른 정도의 불순물이 섞이게 된다. 어떤 진리에 대한 인식은 각자 개인의 조건 차이에 따라 다르다. 그들이 인식하는 진리의 참뜻은 완전하지 않으며, 단지 어느 한 측면, 또는 여러 측면에 국한된다. 사람이 체험하는 진리의 범위 역시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똑같은 진리라고 해도 사람마다 인식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체험에는 한계가 있기에 성령의 뜻을 완전히 대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잘 맞는다고 해도, 또 사람의 체험이 성령이 하려는 온전케 하는 사역에 매우 근접한다고 해도 사람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종만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맡긴 사역만 할 수 있으며, 그저 성령의 깨우침으로 얻은 인식과 자신이 직접 체험해서 얻은 진리만 말할 수 있다. 사람은 성령의 대변인이 될 자격도, 조건도 없으며, 사람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자격 또한 없다. 사람에게는 사람으로서의 사역 원칙이 있고, 사람은 모두 서로 다른 체험과 조건을 갖고 있다. 사람의 사역에는 성령의 깨우침으로 얻은 모든 체험이 포함되며, 이 체험은 사람의 어떠함만 대변할 수 있을 뿐, 하나님의 어떠함이나 성령의 뜻을 대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는 길을 성령이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람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을 대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역과 체험은 완전한 성령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흔히 규례에 빠지고, 사역 방식도 제한된 범위 안에 한정되기 쉬워 사람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인도할 수 없다. 따르는 사람들도 대부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살며, 체험 방식 또한 제한된 범위 안에 있다. 사람의 체험은 모두 한계가 있고, 사역 방식도 몇 가지로 한정되며, 성령의 사역이나 하나님 자신이 행하는 사역과 비교할 수 없다. 사람의 체험은 어쨌든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의 사역은 어떻게 행하든 규례가 없고,

하나의 방식에 국한되지 않으며, 어떤 규례도 없이 자유롭다.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따른 사람이라도 그의 사역 방식에서 어떤 법칙도 도출해 낼 수 없다. 비록 그의 사역에는 원칙이 많지만,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새로운 발전이 있으며, 게다가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시기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사역을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몇 가지 인도를 할 수 있어 사람이 언제나 새로운 진입을 하고, 늘 새로운 변화를 얻게 한다. 그의 사역은 언제나 새로운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너는 그가 사역하는 법칙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 따르는 사람들이 규례에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 자신이 하는 사역은 언제나 사람의 관념을 피해 가고, 사람의 관념을 일축한다. 진심으로 그를 따르고 추구하는 사람만이 성품의 변화를 얻을 수 있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살 수 있으며, 어떤 규례의 제약이나 종교 관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람은 사역할 때, 자신의 체험과 자신이 달성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해 사람에게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의 기준은 특정 범위에 국한되며, 실행 방법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따르는 사람까지 어느샌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살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규례나 의식이 형성된다. 만약 직접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지도 않고,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사역을 맡긴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은 모두 종교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문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합격한 리더라면 반드시 심판을 겪고 온전케 됨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심판을 겪지 않은 사람은 설령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해도, 막연하고 실체가 없는 것만 나타내게 되며, 오랜 시간 인도하다 보면 사람을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규례 속으로 이끌게 된다.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사람의 욕과 사유에 부합하지 않고, 사람의 관념에 반하며, 막연한 종교적 색채가 섞여 있지 않다. 그의 사역 성과는 그에 의해 온전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고, 사람의 사유로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79)

사람의 머리에서 비롯된 사역은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교계의 목사나 지도자들은 은사와 직함으로 사역을 하며, 오랫동안 그들을 따른 사람들도 그들의 은사에 전염되고 그들의 어떠함에 물든다. 그들은 사람의 은사와 재능, 그리고 지식을 중시하며, 초자연적인 것들과 심오하고 비현실적인 수많은 도리(물론 이 심오한 도리는 전부 사람이 이를 수 없는 것들임)도 중시한다. 그들은 사람의 성품 변화를 중시하지 않는 반면, 설교 능력과 사역 능력 육성, 그리고 지식과 풍부한 종교적 도리 함양을 중시한다. 또한, 사람의 성품 변화가 어떠한지, 사람이 깨달은 진리가 어떠한지는 중시하지 않으며,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와 비정상적인 상태는 더구나 파악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의 관념을 일축하지도, 들추어내지도 않으며, 더욱이 사람의 부족한 점과 패괴 성품을 책망하지도 않는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은 대부분이 은사로 섬기고, 종교적 관념과 신학 이론만 퍼뜨리며, 현실과 동떨어져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사실 그들이 하는 사역의 본질은 인재 양성이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신학교를 졸업한 수재로 양성하여 사역을 하도록 하고, 인도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한 6 천 년 사역에서 너는 법칙을 찾아낼 수 있느냐? 사람이 하는 사역은 규례와 격식이 많고, 사람의 생각은 너무 교조적이다. 그래서 사람이 나타내는 것도 사람의 체험 범위 안에서 얻은 인식과 체득에 불과하다. 사람은 이러한 것들 외에 다른 것은 나타내지 못한다. 사람의 체험이나 인식은 선천적인 은사나 사람의 본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직접적인 목양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은 이러한 목양을 받아들일 기관(器官)만 가지고 있을 뿐, 신성의 어떠함을 직접 나타낼 수 있는 기관은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은 원천이 될 수 없으며, 그저 원천 수를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사람의 본능이자,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기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기관과 사람의 본능을 잃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잃고,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잃은 것이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서 인식과 체험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잃은 것이다. 즉, 피조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본분을 잃은 것이자 피조물로서의 존엄성을 잃은 것이다. 하나님이 신성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본능이다. 육신으로 나타내든, 영이 직접 나타내든 그것은 하나님의 직분인 것이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과정에서, 혹은 사역이 끝난 후에 사람이 자신의 체험이나 인식을 말하는 것(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자 본분이고, 사람이 마땅히 도달해야 하는 것이다. 비록 사람이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거기에는 많은 규례가 있을지라도,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 사람은 본분을 이행함에 있어 조금도 여지를 두지 말고 성심성의를 다해야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80)

너희는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너는 사람의 사역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사람의 사역에는 사람의 체험 성분이 많고, 사람이 나타내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이다. 하나님도 사역할 때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지만, 그의 어떠함은 사람의 어떠함과 같지 않다. 사람의 어떠함은 사람의 체험과 생애(사람이 평생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또는 어떤 처세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대변한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이 나타내는 어떠함은 서로 다르다. 네가 사회 경험을 갖고 있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경험했는지는 모두 네가 나타내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사역에서는 그의 사회적 이력을 볼 수 없다. 그는 사람의 본질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을 모두 들춰낼 수 있고, 사람의 패괴 성품과 패역 행위는 더욱 잘 들춰낼 수 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생활하지 않지만 일반인의 본성과 세상 사람의 모든 패괴를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어떠함이다. 그는 세상살이를 해 보지 않았지만, 세상살이에 관련된 작은 것까지 잘 알고 있다. 그는 사람의 본성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영의 역사를 알 수 있으며, 현재나 과거의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여기에는 처세 철학이 아닌, 지혜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기묘함이 담겨 있다. 이것은 그의 어떠함으로, 사람에게 공개되기도 하고, 숨겨져 있기도 하다. 그가 나타내는 것은 비범한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영의 고유한 속성과 어떠함이다. 그는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지 않았지만 천하의 일을 알고 있다. 그는 지식도, 식견도 없는 ‘유인원’들을 접했지만 지식보다 뛰어나고 위인보다 고매한 말씀을 선포한다. 또 인성이 없고 인성의 규칙과 인성 생활을 모르는 어리석고 무감각한 사람들 속에서 살지만, 인류에게 정상 인성으로 살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동시에 인류의 비열하고 천박한 인성을 들춰낸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어떠함이며, 육에 속하는 그 어떤 사람의 어떠함보다도 높다. 그는 복잡하고 번거로우며 불결한 사회생활을 체험하지 않고서도 그가 해야 할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파괴된 인류의 본질을 남김없이 들춰낼 수 있다. 불결한 사회생활은 그의 육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의 사역과 말씀은 사람의 패역을 들춰내기만 할 뿐, 사람에게 처세 경험이나 교훈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는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때, 사회 조사도, 사람의 가정 조사도 할 필요가 없다. 그가 사람을 들춰내고 심판하는 것은 그의 육신이 체험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사람의 패역을 알고 인류의 패괴를 증오했기에 사람의 불의를 들춰내는 것이다. 그가 하는 사역은 다 사람에게 그의 성품을 공개하고, 그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사역은 그 자신만이 할 수 있으며, 육에 속한 사람이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81)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육신의 체험을 대변하지 않고, 사람이 하는 사역은 그 사람의 체험을 대변한다.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직접 진리를 선포하지만, 사람은 진리를 체험한 후에야 그에 상응하는 체험을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규례가 없고, 시간과 지리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그의 어떠함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의 사역은 다 자유롭게 이뤄진다. 사람은 조건과 배경이 없이는 사역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진리에 대한 체험도 말하지 못한다. 하나님 자신의 사역인지, 사람의 사역인지는 대조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의 사역이 없고 사람의 사역만 있다면, 너는 사람의 말이 고차원적이어서 아무도 해낼 수 없고, 말투나 일 처리 원칙, 사역할 때의 능숙함과 진중함도 아무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만 알 뿐이다. 너희는 자질이 뛰어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우러러본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에서는 그의 대단한 인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매우 평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사역할 때 정상적이며 실제적이지만, 그것은 또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이므로 사람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사람의 사역을 보면, 그 사람의 체험이나 상상력, 추리력이 아주 높고 인성이 특히 좋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사람을 탄복하게 할 수는 있어도 경외와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지는 못한다. 사람은 사역 능력이 있고 체험이 깊으며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며 탄복하지만, 어찌 됐든 경외하지는 않는다. 그저 감탄하고 부러워할 뿐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이 사람이 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것임을 인지하며 신선함과 놀라움을 느낀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면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측량할 수 없고 지혜로우며 또 놀랍다는 것이다. 또한 그로 인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고, 그가 하는 사역의 비밀이 사람의 사유로 닿을 수 없는 것임을 느끼게 된다. 사람은 다만 그의 요구에 다다르고 그의 마음을 만족게 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 그를 뛰어넘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의 사역은 사람의 사유나 상상을 초월하고,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스스로도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지만, 그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새로운 길을 열어 사람을 더 새롭고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도했으며, 그로 인해 인류는 새로운 진전과 시작을 얻게 되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것은 탄복이 아니다. 탄복뿐만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경외와 사랑이며, 하나님의 기묘함을 느끼고, 그가 하는 사역과 말씀을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한 사람은 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오묘한 느낌을 받곤 한다. 충분히 깊게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의 지혜로움과 기묘함을 느낄 수 있다. 그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 무궁무진한 힘이 생겨난다. 두려움이나 어찌다 한 번씩 생기는 추앙심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을 깊이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형벌과 심판을 체험한 사람은 또 그의 거스를 수 없는 위엄을 느낀다. 그의 사역을 아무리 많이 체험한 사람이라도 그를 측량하지 못한다. 진실로 그를 경외하는 사람은 모두 그의 사역이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으며, 사람의 관념을 일축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완전한 탄복이나 외적인 순종이 아니라 진실한 경외와 순종이다. 이렇게 많은 사역에서 진실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전부 그에게 탄복을 넘어서 경외심을 갖게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그의 형벌과 심판의 사역을 통해 그의 성품을 보았으며, 그로 인해 그에게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경외심과 순종을 자아낸다. 그의 어떠함과 성품이 피조물과 같지 않고, 피조물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피조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경외와 순종을 받을 자격이 있고, 사람에게에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을 체험하고, 또 그에 대해 진실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다 경외심을 갖게 된다. 그에 대한 관념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 즉 그를 아예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일말의 경외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른다고는 하나 정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천성이 패역한 자들이다. 그의 이러한 사역이 이루려는 성과는 바로 피조물로 하여금 창조주에게 경외심을 갖고, 그를 경배하며, 조건 없이 그의 권세 아래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역으로 이루려는 최종

성과이다. 이러한 사역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여태까지의 패역에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분명 도태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그저 탄복하거나 경원시하는 것에 그치고, 사랑이 조금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온전케 될 조건이 결핍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사람의 진실한 사랑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에게 진실로 진리를 추구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인정은 더더욱 받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심판을 겪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자는 본성을 고치지 못하는, 극도로 악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모두 도태되고 징벌받을 대상이며, 또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과 똑같이 징벌을 받게 된다. 그들이 받는 고통은 심지어 불의를 행한 사람이 받는 고통보다 더 크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82)

하나님의 사역은 어쨌든 사람의 사역과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또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하나님만의 성품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본분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의 사역에서 발현되고, 사람의 본분은 사람의 체험에서 체현되고 사람이 추구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는 사역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이 밝힐 필요도, 사람이 온 힘을 다해 증거할 필요도 없고, 나아가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를 압제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모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일이지 강요할 일도,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사람의 본분은 사람의 체험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사람이 따로 체험을 할 필요는 없다. 사람은 본분을 이행하는 동시에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동시에 본디 지닌 성품을 나타낸다. 사람의 사역이라면 숨길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더더욱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릴 수 없다. 또한 그것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사람의 사역이나 말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거나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반면, 하나님은 육신을 입었으므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을 사람의 사역이나 본분으로 정의 내려선 안 되며, 하나님의 음성과 바울의 서신을 같은 선상에 놓고 논하거나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사람의 교훈과 동등하게 대해선 더더욱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은 원칙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본질에 따라 구분이 된다. 절대 사역의 범위나 사역의 단기간적인 효율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이 측면에서 원칙적인 오류를 범한다. 사람이 보는 것은 사람이 이를 수 있는 결면이지만,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의 육안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본질이기 때문이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보통 사람의 본분으로 여기고, 인간의 큰 사역을 사람의 본분이 아닌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여긴다면, 원칙적인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은 자유롭게 서신과 전기를 쓸 수 있지만, 그것은 성령 역사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의 지혜와 사유로 이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탐구해서 밝히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희가 이 원칙적인 일들에 아무 느낌도 없다면 그것은 너희의 믿음이 참되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너희의 믿음은 막연함으로 가득할 뿐이며, 원칙이 없고 어정쩡할 뿐이다.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양자의 본질적인 문제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몰지각한 믿음이 아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너는 '13 편 서신'을 어떻게 보느냐>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83)

예수는 땅에 와서 33 년 반 동안 살았다. 그가 온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였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의 일부를 얻었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와서 자신을 낮추고 감추었을 뿐만 아니라 크나큰 고통도 견뎌 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그 모든 모욕과 비방, 그리고 크나큰 고통을 견디며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 사역을 이루었다. 그 단계 사역이 끝난 후 사람은 하나님이 지극히 큰 영광을 얻은 것을 보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예수에게서 하나님 영광의 일부만 얻었을 뿐이다. 예수는 온갖 고통을 견뎌고, 자신을 낮추고 감추었으며,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의 일부만 얻은 것으로,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얻은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또 한 부분의 영광이 있다. 그것은 땅에 와서 실제로 사역하면서 한 무리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예수는 그 단계 사역에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했지만, 그 단계의 사역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 단계에서 예수는 주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크나큰 고통을 견뎌 냈으며, 하나님이 그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기꺼이 바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얻었고 사탄 앞에서 한 단계의 증거를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중국에 성육신하게 되었는지 알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얻은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수많은 정복 사역을 행하고 너희가 굳게 선다면 그의 이 단계 사역은 성공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영광의 일부이며, 너희는 이것만 볼 뿐이다. 하지만 너희는 아직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지 못했고,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지도 못했다. 너희는 아직 이 영광을 완전하게 보지 못했고, 그저 하나님이 이미 너희의 마음을 정복했다는 것만 보았을 뿐이다. 너희가 더 이상 그를 떠나지 못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보아야 할까?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에게서 이룬 성과에서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실로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것을 보고, 또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많은 교회의 형제자매가 힘이 솟구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행한 사역의 위력이 지극히 크고 말씀의 위력도 비할 데 없으며, 말씀이 권병을 지니고 중국 대륙이라는 이 귀신의 성에서도 그의 사역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 사람은 연약하지만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 연약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보배롭게 여길 만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언젠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의 앞날과 운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된다면, 하나님은 두 번째 부분의 영광을 모두 얻은 것이다. 다시 말해, 실제 하나님의 사역이 전부 완성되면, 중국 대륙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일단락된다. 즉,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한 사람들이 모두 온전케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한 두 번째 부분의 영광이 동방으로 옮겨졌지만,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하나님이 사역을 동방에 가져왔다는 것은 그가 이미 동방에 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는 하려고 하는 이상 반드시 이를 것이다. 하나님은 중국에서 이 사역을 이룰 것이다. 그는 너희를 온전케 하기로 마음먹었기에 지금 너희의 퇴로를 모두 막아 버렸다. 즉, 사람의 마음을 이미 정복한 것이다. 너는 가고 싶어도 가야 하고 가기 싫어도 가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께 얻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얻는다. 하나님이 아직 영광을 완전히 얻지 못한 이유는 너희가 아직 온전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너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지만, 육체의 연약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만족케 하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부정적인 것들을 수없이 벗어 버리고, 또 앞으로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어야 한다. 그래야만 생명 성품의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천년하나님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를 간략하게 논하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84)

예수가 당시에 행한 사역은 전 인류를 속량하는 것이었다.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를 믿기만 하면 속량받았고, 그를 믿기만 하면 죄에 속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것은 조금씩 벗어 버려야 한다. 구원을 얻었다 함은 사람이 예수에게 온전히 얻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속하지 않고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죄에 속하지 않게 된다. 당시 예수가 했던 수많은 사역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다. 또한 예수가 한 수많은 말씀을

사람은 깨닫지 못했다. 그 당시 예수가 해석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가 떠나고 몇 년 후, 마태가 그를 족보에 올렸으며, 다른 사람들도 인의적인 많은 사역을 했다. 그때는 사람을 온전케 하거나 얻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사역을 하기 위해 천국의 복음을 가져오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의 사역은 모두 끝났다. 반면, 이 단계의 정복 사역은 반드시 더 많이 말씀하고 더 많이 사역하며,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예수가 이전에 행한 사역이나 여호와가 행한 사역의 비밀을 모두 열어 모든 사람이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 이것은 말세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말세는 마무리하는 사역을 하고, 사역을 끝내는 시기이다. 이 단계의 사역은 네가 여호와와 율법과 예수의 속량에 대해 명확히 알게 할 것이다. 그것은 주로 6 천 년 경륜의 모든 사역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네가 6 천 년 경륜의 모든 의의와 본질을 이해하고 예수가 행한 수많은 사역을 알게 할 것이며, 그가 한 수많은 말씀의 의도, 나아가 성경에 대한 네 맹목적인 숭배까지 모두 명확히 깨닫게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예수가 당시에 행한 것과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는 것들도 알게 할 것이며, 모든 진리와 생명과 길을 다 깨닫고 보게 할 것이다. 예수는 왜 그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사역을 하지 않고 떠났겠느냐? 그 단계의 사역은 마무리하는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의 말씀도 끝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그의 사역 또한 모두 끝났다. 그 단계의 사역은 반드시 할 말을 다 하고 모든 사역을 마무리해야만 끝나는 이 단계의 사역과는 다르다. 예수는 그 단계의 사역에서 많은 말씀을 다 하지 않았고 밝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예수의 직분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후 떠났다. 그 단계 사역은 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것으로, 이 단계의 사역과는 달랐다. 이 단계 사역은 주로 마무리를 하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며 모든 사역을 끝내는 것이다. 말씀을 끝까지 다 하지 않으면 사역을 끝낼 수 없다. 이 단계는 말씀으로 모든 사역을 끝내고 이루기 때문이다. 지난날 예수가 행한 수많은 사역을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그는 조용히 떠났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잘못 이해했으면서도 옳다고 여기고, 틀린 것을 알지 못한다. 마지막 이 단계에서는 사역을 철저히 끝내고 마무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알게 한다. 사람 내면의 관념과 속셈, 잘못된 이해 방법, 여호와와 사역과 예수의 사역에 대한 관념, 이방인에 대한 견해 등 치우치고 그릇된 모든 것을 되돌리고, 사람에게 인생의 바른길과 하나님이 행한 모든 사역, 그리고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면 이 단계의 사역은 끝난다. 여호와가 행한 사역은 세상을 창조한 서막이었고, 이번 단계의 사역은 사역을 끝내는 종막이다. 시작은 이스라엘 선민들 가운데서 행하여 가장 성결한 곳에서 천지를 열었고, 마지막 단계는 가장 더러운 나라에서 행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시대를 끝낸다. 첫 단계는 가장 밝은 곳에서 사역했고 마지막 단계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사역하여 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광명을 가져오며, 이 사람들을 모두 정복한다. 가장 더럽고 어두운 곳에서 사람을 정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와 참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탄복하게

함으로써 이 사실로 전 우주를 정복하는 사역을 행할 것이다. 이 단계 사역은 대표적인 의의가 있다. 이 시대의 사역이 완성되면 6 천 년 경영 사역은 완전히 끝난다. 가장 어두운 곳의 사람들이 정복되었으니 그 외의 곳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하는 정복 사역만이 대표적 의의를 갖는다. 중국은 모든 흑암 세력을 대표하며, 중국인은 육체와 사탄, 그리고 혈기에 속한 모든 자를 대표한다. 중국인은 큰 붉은 용에 의해 가장 심하게 패괴된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을 가장 심하게 대적하는, 가장 천하고 더러운 인성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모든 패괴된 인류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괜찮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람의 관념은 모두 똑같다. 자질이 좋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 역시 대적할 것이다. 유대인이 왜 대적하고 거역했겠느냐? 바리새인은 또 왜 대적했겠느냐?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겠느냐? 당시 많은 제자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뒤에도 사람은 왜 그를 믿지 않았겠느냐? 사람의 패역은 다 같은 것 아니겠느냐? 단지 중국인을 모델로 삼았을 뿐이다. 또한 정복한 후에는 본보기와 표본으로 세워 참고 대상이 되게 할 뿐이다. 어째서 늘 너희를 가리켜 내 경륜의 부속물이라고 하겠느냐? 사람의 패괴와 더러움, 불의, 대적, 패역 같은 것들이 중국인에게서 가장 전반적이고 다양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자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삶과 사상이 뒤쳐졌으며, 생활 습관, 사회 환경, 출생 가정 전부 열악하고, 모든 것이 가장 뒤떨어졌다. 또 이들은 지위도 낮아서 이곳에서 사역하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시범 사역을 전면적으로 행하면 이후에 사역을 전개할 때 행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이 단계의 사역이 이루어지면 이후의 사역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이 단계의 사역을 완성하여 대업이 완벽히 이루어지면 온 우주를 정복하는 사역 또한 완전히 끝나게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역 이상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85)

오늘날 이러한 모압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은 바로 가장 어두운 흑암 속에 떨어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비록 저주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영광을 얻고자 한다. 애초에 그들은 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으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복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사역의 성과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설득력이 있으며, 이렇게 해야만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세에 얻고자 하는 영광이다. 지위가 낮은 이들이지만 지금 이렇게 큰 구원을 받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높여 주심이다. 이 사역이 더없이 큰 의의를 지닌 것은 심판으로 이들을 얻기 때문이다. 심판은 일부러 이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다. 만약 말세의 정복 사역도 이스라엘에서 한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을 것이다. 설령 성과가 있다 해도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으며, 모든 영광을 얻을 수도 없을 것이다. 너희에게 사역하는 것은 가장 어두운

곳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것이자, 가장 뒤떨어진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이 피조물들은 사탄에 의해 심하게 파괴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사탄에게 속아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른다. 너희는 전부 마음속으로 우상과 사탄을 경배하고 있으니 가장 비천하고 뒤떨어진 사람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은 가장 천한 욕을 가졌으며 개인의 자유가 조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다. 또한 너희는 이 사회의 최하층 사람으로, 신앙의 자유조차 없다. 너희에게 사역하는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날 모압의 후손인 너희에게 사역하는 것은 일부러 너희를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의의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너희를 크게 높여 준 것이다. 이성이 있고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모압의 후손인 저를 오늘날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높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군요. 저는 정말이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행한 것과 말한 것, 저의 신분과 가치로 볼 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들이 누린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신분이 훨씬 높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얼마나 충성했고, 베드로는 또 예수님께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백배나 더 충성했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인들의 섬김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못 되며, 정말로 너무 형편없다. 너희가 오늘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높여 주심이다! 너희가 언제 하나님의 사역을 찾은 적이 있더냐? 언제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적이 있더냐? 언제 가정, 부모, 자식을 기꺼이 버리려고 한 적이 있더냐? 아무도 큰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성령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너희 중 몇이나 희생할 수 있었겠느냐? 모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지금까지 따라온 것이다. 너희의 충성심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순종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행실대로라면 진작에 멸하고 단번에 쓸어버렸어야 한다.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큰 복을 누린단 말이나? 그럴 자격이 전혀 없다! 너희 중 스스로 길을 개척한 자가 있더냐? 스스로 참도를 찾은 자가 있더냐? 다 놀고먹기 좋아하며 안락만 탐하는 천박한 존재들이다! 너희는 자신이 대단하게 보이느냐? 칭찬할 것이 뭐가 있느냐? 너희가 모압의 후손임을 말하지 않으면, 너희의 본성과 출생지가 최상으로 변하기라도 한단 말이나? 너희가 모압의 후손임을 말하지 않아도 너희는 뺏속까지 모압의 자손이 아니냐? 사실이 바뀌기라도 하겠느냐? 지금 너희의 본성을 폭로한 것이 사실이 아니란 말이나? 너희의 노예근성, 너희의 삶, 너희의 인격을 보고도 너희 자신이 가장 비천한 하등 인류임을 모른단 말이나? 그러고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더냐? 너희의 사회적 지위를 보아라. 너희는 사회의 최하층 사람들 아니냐?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는데 너희는 무엇을 바쳤느냐? 욕은 모든 것을 바쳤는데 너희는 무엇을 바쳤느냐? 많은 사람이 참도를 찾기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렸는데, 너희는 그런 대가를 치렀느냐? 그들에 비하면 너희는 이토록 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전혀 없다. 오늘날 너희를 모압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에게 억울한 일이란 말이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너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너희에게 이렇게 큰 구원과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었던만 너희는 아무것도 바치지 않고 은혜를 거저 누렸다. 그러고도 부끄럽지 않느냐? 이 참도를 너희 스스로 찾아서 얻은 것이냐? 전부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게 성령이 역사한 것 아니더냐? 너희에게는 본디 찾고 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진리를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더더욱 없었다. 모두 남의 성과를 앉아서 누리며,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이런 진리를 얻었다. 그러고도 무슨 자격으로 불평을 늘어놓는단 말이나? 너는 네 신분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느냐? 일생을 바치고 피를 흘린 자들과 비교해 보면 너희에게 불평할 것이 어디 있단 말이나? 지금 너희를 멸한다 해도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너희는 순종하고 따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다!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고 나온 자들이다. 상황에 떠밀리지 않았거나 너희를 불러내지 않았다면, 너희는 결코 나오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 이렇게 기꺼이 포기하려고 했겠느냐? 누가 이렇게 기꺼이 육체적 즐거움을 내려놓으려고 했겠느냐? 모두 안락을 탐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좇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도 또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이나? 또 무슨 원망이 있단 말이나? 너희가 하늘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 주고, 땅에서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 사역을 오늘날 너희에게 드러내 보였건만, 이것이 복이 아니란 말이나?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것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형벌을 받았고, 형벌로 인해 하나님의 공호와 자비를 깨닫게 되었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거룩함을 깨닫게 되었고, 이 형벌과 사람의 더러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함,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진귀한 진리 아니겠느냐? 이것이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행한 사역은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러므로 너희의 지위가 낮을수록 하나님의 높여 주심이 증명되고, 오늘날 너희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매우 가치 있는 일임이 증명된다. 이는 값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다! 지금까지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없었다. 너희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매우 크다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신실하다는 것, 즉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모압의 후손을 구원하는 의의>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86)

하나님은 땅에 왔지만 본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을 누리기 위해 성육신한 것이 아니다. 그는 사역하여 자신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곳, 또 가장 의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에 강생한다. 거룩한 곳이든 더러운 곳이든, 어떤 곳에서 사역하든 그는 거룩하다. 세상 만물은 모두 그가 만든 것이다. 그저 만물이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만물은 여전히 그에게 속하고 모두 그의 손안에 있다. 그가 더러운 곳에 와서 사역하는 것은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더러운 곳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극도의 고통을 참으며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다. 이는 증거를 위한 것이자, 전 인류를 위한 것이다. 이런 사역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고지상한 존재임을 더 확실히 증명해 준다. 그의 위대함과 정직함은 모두가 업신여기는 비천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서 드러난다. 그가 더러운 곳에 강생했다고 해서 비천한 존재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저 모든 피조물에게 그의 위대함과 인류를 향한 참된 사랑을 보여 줄 뿐이다. 그가 이렇게 할수록 인류에 대한 그의 흠 없이 깨끗한 사랑을 더 잘 보여 줄 수 있다. 더러운 곳에 강생했더라도, 더러움이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더라도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다. 은혜시대에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생활한 것과 같은 이치다. 그가 행한 그 모든 사역은 전 인류의 생존을 위한 것 아니었더냐? 인류가 크나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었더냐? 2 천 년 전에 그가 죄인들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한 것은 구속을 위해서였다. 오늘날 그가 또다시 더럽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구원을 위해서이다. 그의 모든 사역은 다 너희, 이 인류를 위한 것 아니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가 어찌 말구유에서 탄생했으며, 오랫동안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고난을 받았겠느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가 어찌 두 번째로 육신을 입고 마귀들이 무리 지어 사는 곳에 강생하여 사탄에 의해 심하게 패괴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더냐? 그가 한 사역 중에 인류를 위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너희의 운명을 위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더러운 곳에 왔다고 해도 그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일말의 사심도 없고, 그가 너무나 큰 고통과 고통을 참아 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너희를 위해, 너희 운명을 위해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참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냐? 그는 높고 대단한 사람들과 돈 많고 세력 있는 자들을 구원하지 않고, 비천하고 남들에게 멸시당하는 사람들만 구원한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거룩함 아니겠느냐? 그의 공의로움 아니겠느냐? 전 인류의 생존을 위해 그는 기꺼이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 모든 고통을 참고 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기에 거짓된 일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 어느 단계의 사역이든 모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뤄지지 않더냐? 비록 모든 사람이 그가 죄인과 함께 식사한다고 비방하고, 그가 더러운 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가장 비천한 자들과 함께 생활한다고 조롱해도, 그는 계속해서 이처럼 사심 없이 자신을 바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있다. 그가 참아 낸 고통이 너희보다 크지 않겠느냐? 그가 행한 사역이 너희가 치른 대가보다 많지 않겠느냐? 너희는 더러운 곳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었고, 마귀들이 무리 지어 사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커다란 보호를 받았다. 너희에게 또 무슨 선택이 있겠느냐? 또 무슨 불평할 것이 있겠느냐? 그가 받은 고통이 너희보다 더 크지 않겠느냐? 그는 땅에 와서 한 번도 인간 세상의 복락을 누린 적이 없으며, 도리어 그런 것들을 혐오한다. 땅에 온 하나님은 사람의 물질적인 대우를 누리지도 않고, 사람이 즐기는 호의호식을 누리지도 않는다. 그는 그런 것들을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가 땅에 온 것은 인간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 고난받기 위함이다. 그는 고통받기 위해, 사역하기 위해, 또 그의 경륜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 그는 대사관이나 고급 호텔 같은 좋은 곳에서 살지도 않고 많은 종을 거느리며 시중들게 하지도 않는다. 너희가 본 것으로도 그가 사역하기 위해 왔는지, 누리려고 왔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 너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느냐? 그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것이 아직도 부족하단 말이나? 그가 편한 곳에 태어났다면 영광을 얻을 수 있겠느냐?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의의 있겠느냐? 사람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겠느냐? 사람을 더러운 곳에서 구원해 낼 수 있겠느냐? 관념에 따른다면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어째서 저희가 사는 이 더러운 곳에 태어나셨습니까? 당신은 더러운 저희를 증오하고 혐오하시며, 또 저희의 대적과 패역을 혐오하시면서 어째서 저희와 함께 생활하십니까?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니 어디에서든 태어날 수 있는데, 어째서 굳이 더러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당신은 매일 저희를 형벌하고 심판하십니다. 저희가 모압의 후손임을 분명히 아시면서 어째서 저희 가운데서 생활하십니까? 어째서 모압 후손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 하십니까?” 너희의 이런 인식은 너무도 비이성적이다! 이런 사역만이 사람에게 그의 위대함과 낮춤과 감춤을 알게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자 했고, 자신의 사역을 위해 모든 고통을 받았다. 이는 인류를 위한 것이고, 더욱이 사탄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피조물이 그의 권세 아래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의의 있고 가치 있는 사역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모압의 후손을 구원하는 의의>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87)

지난날, 예수는 유대에서 공개적으로 사역했지만, 지금 너희들 가운데서 하는 사역과 말씀은 은밀하기에 이방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너희들 가운데서 하는 사역은 모두 폐쇄적이다. 이 말씀과 이 형벌, 심판은 너희만 알고 있을 뿐 다른 이들은 모른다. 이 사역은 모두 너희들 가운데서 행하는 것으로, 오직 너희에게만 열려 있고 이방인 중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형벌을 받아 곧 온전케 될 것이지만 외부의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 이 사역은 참으로 은밀하다! 성육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밀히 감추어져 있지만,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공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나타내고 자유롭게 하지만, 이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지, 그 외의 이방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금 중국에서, 너희 가운데서 하고 있는 사역이 철저히 폐쇄적인 것은 그들이 모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알게 된다면 정죄하고 핍박하기만 할 뿐, 믿지 않을 것이다. 큰 붉은 용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 가장 낙후된 곳에서 사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역을 공개한다면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이 단계의 사역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이 사역을 공개적으로 한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 더 큰 위험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사역을 은밀하게 하지 않고 예수 때처럼 기세 높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았겠느냐? 그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 오늘날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가르쳤다면 나는 벌써 온몸이 으스러지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사역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수 있겠느냐? 지금 이적과 기사를 공개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은 비밀스럽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발견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번 단계에서도 은혜시대의 예수처럼 사역한다면 이렇게 안정적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은밀하게 사역하는 것은 너희에게도 유익하고 모든 사역에도 유익하다. 하나님이 땅에서 하는 사역, 즉 은밀한 사역이 끝날 때, 이 사역은 폭발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중국에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중국에 왔고 그의 사역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에야 사람들은 중국이 오랫동안 쇠락하지도 무너지지도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중국에서 친히 사역하여 이기는 자들을 온전케 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성육신의 비밀 2> 중에서

하나님의 사역 알아 가기[2]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88)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세 사역과 하나님이 계획하고 내게 행한 모든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높여 주심이자 구원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온 우주 사역의 중점을 이 사람들에게 두었다. 너희에게 모든 심혈을 다 쏟았으며, 온 우주의 영의 사역을 거두어 모두 너희에게 쏟아부었다. 그래서 너희가 행운아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이스라엘, 즉 그의 선민에게서 너희에게로 옮겨 왔고, 그의 계획에 담긴 근본 취지를 너희를 통해 모두 드러낼 것이다. 따라서 너희 모두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사람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이다. 너희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란 말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너희 모두 이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지만 그 진정한 함의를 깨닫지는 못하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이 말의 실질적인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세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 큰 붉은 용이 빠리를 틀고 있는 곳에서 그것의 잔혹한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큰 붉은 용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원수이므로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따라서 이 말은 너희에게 이뤄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서 사역을 펼치므로 그의 모든 사역이 강력한 저지를 당하게 되며, 그의 말씀 중 많은 부분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데, 이 역시 ‘고난’의 한 요소이다. 하나님이 큰 붉은 용의 땅에서 사역을 펼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 한 단계의 사역을 행함으로써 그의 지혜와 기묘한 행사를 나타낸다. 또한, 그것을 기회로 이 사람들을 온전케 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받는 고난, 사람의 자질, 이 더러운 땅에 있는 사람의 모든 사탄 성품으로 인해 정결케 하고 정복하는 사역을 행하며, 이를 통해 영광을 얻고, 그의 행사를 증거하는 사람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르는 의의이다. 즉,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 정복 사역을 하며,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 다시 말해, 더러운 땅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부각시킬 수 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더러운 땅에서 영광을 얻고, 더러운 땅의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가 했던 그 사역처럼, 그를 핍박하는 바리새인 가운데서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바리새인들의 핍박과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예수는 조롱과 비방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고, 영광을 얻지도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각 시대에 사역하는 곳, 그의 육신이 사역을 행하는 곳에서 영광을 얻으며, 그곳에서 그가 얻고자 하는 사람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 사역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경영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89)

몇천 년에 달하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육신을 입고 행하는 사역은 두 부분이다.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함으로써 영광을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세에 정복하고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함으로써 영광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사명을 너무 간단하게 보서는 안 된다. 너희 모두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어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사람이다.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한 부분은 너희에게서 드러난다. 하나님은 영광 중의 한 부분을 모두 너희에게 베풀어 이어받도록 하였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높여 주심이자 일찍이 정해 놓은 계획이다. 하나님이 큰 붉은 용이 살고 있는 곳에서 행한 이 큰 사역을 다른 곳에서 했다면 일찌감치 큰 효과를 거두고, 모든 사람이 쉽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특히 ‘하느님(원문: 上帝)’을 믿고 받드는 서방의 선교사들은 더 쉽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예수가 그 단계의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는 이 단계의 사역을 다른 곳에서는 완수할 수 없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지지하고 국가도 인정할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사역을 이 땅에서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지금 너희는 법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법의 제재를 받고 있다. 더 큰 난관은 사람들이 너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친척, 부모, 친구, 동료, 그 누구도 너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원하지 않을’ 때, 너희는 아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정복하는 의의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다. 오늘 너희가 받은 것은 역대의 사도와 선지자들이 받은 것보다 많으며, 심지어는 모세와 베드로보다도 많다. 복은 하루 이틀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즉, 너희는 연단받은 사랑과 크나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한 수많은 진리를 갖추어야 한다. 정의를 바라보며, 굽히거나 흔들리지 말고, 죽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의지를 갖고, 생명 성품의 변화를 이루며, 패괴를 치유받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지배에 따르고, 원망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죽기까지 순종해야 한다. 이는 너희가 마땅히 도달해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이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그는 너희에게 베풀어 주었으니 너희에게 무언가를 받아 낼 것이고, 또 너희에게 합당한 요구를 제시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이치에 맞으며, 여기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이 왜 그렇게 늘 높은 기준과 엄격한 요구를 갖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야 한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가 그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더러운 땅에서 극심한 해를 입은 이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우매하고 식견이 없으며 비이성적인 많은 이에게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더

이상 대적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하나님은 이미 아무도 겪어 보지 못한 고통을 감내했고, 사람 대신 수없이 많은 굴욕을 당하였다. 그런데 더 내려놓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더러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더없이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사람이 이를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른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지연될 것이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그의 사역과 영광을 가장 중시한다. 따라서 그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모든 대가를 불사한다. 이것이 바로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이 두 번째 부분의 영광을 얻어야만 비로소 그의 사역이 끝나게 된다. 하나님이 온 우주 아래에서 두 번째 부분의 영광을 얻는 사역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그의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고, 그의 손길 역시 선민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의 영광도 이스라엘에 임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계획 역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역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이미 파괴되고 극도로 무감각해진 사람을 변화시키고, 창조된 후 사탄의 손을 거친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아담이나 하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빛이나 각종 동식물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사탄에 의해 파괴된 것을 정결케 한 후 다시 얻어 그의 소유물, 나아가 그의 영광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듯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으며, 사탄을 저주하여 무저갱에 던져 버리는 사역도 아니다. 이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으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그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그에게 속하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사역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번에 행하는 사역의 실상이므로 너희 모두 알아야 할 것이다.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역은 일반적인 사역과 다르고, 그 기묘함과 지혜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번 사역은 만물을 창조하는 것도, 파괴하는 것도 아니라 그가 창조한 만물을 변화시키고, 사탄에 의해 더럽혀진 만물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일을 펼친다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담긴 모든 의의이다. 여기까지 보고도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게 간단한 것 같으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의 상상처럼 그렇게 간단한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90)

6 천 년 경영 사역은 율법시대, 은혜시대, 그리고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의 3 단계로 나뉜다. 이 3 단계 사역은 모두 인류, 즉 사탄에 의해 심하게 파괴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사탄과 싸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구원 사역이 3 단계로 나뉘고 사탄과의 싸움도 3 단계로 나뉘며, 이 두 부분의 사역은 동시에 진행된다. 사실, 사탄과의 싸움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한 단계

사역으로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사탄과의 싸움도 단계와 시기를 나누어 진행되며, 인류의 필요와 사탄에 의해 파괴된 정도에 따라 사탄과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싸움’이라고 하면 사람은 두 군대가 맞붙어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 간에 벌어지는 전쟁을 상상한다. 이것은 그저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지극히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구상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서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은 바로 사탄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은 3 단계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사탄과의 싸움은 3 단계로 나뉘며, 이를 통해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게 된다. 하지만 사탄과 싸우는 모든 사역의 실상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되며, 사람의 죄를 사해 주고, 사람을 정복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등의 몇 단계 사역을 통해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탄과의 싸움은 사탄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의 생명을 만들고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다. 즉, 사람의 파괴 성품을 변화시켜 사탄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사탄을 물리치고 나면, 그러니까 사람을 철저히 구원하고 나면 수치당한 사탄을 단단히 결박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완전히 구원받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의 본질은 사탄과 싸우는 것이고, 사탄과의 싸움은 대부분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구현된다. 사람을 정복하는 최종 단계 사역은 사탄과 싸우는 마지막 사역, 즉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하는 사역이다. 사람을 정복한다는 것은 사탄에 의해 파괴된 사탄의 화신을 정복하여 창조주에게 돌아오게 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사탄을 저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면 철저히 구원받게 된다. 그러므로 정복 사역은 사탄과 싸우는 마지막 사역이자 사탄을 물리치는 마지막 단계의 경영이다. 이 단계의 사역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사람을 완전히 구원할 수도, 사탄을 완전히 물리칠 수도 없으며, 인류는 영원히 아름다운 종착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으면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도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 경영 사역의 핵심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과 파괴로 사람은 사탄에게 속박당해 악한 자의 손아귀에 떨어졌다. 이로 인해 사탄은 경영 사역에서 물리칠 대상이 되었다. 사탄이 사람을 점령했고, 사람은 또 전체 경영의 밀천이기에 사람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와야 한다. 즉, 사탄에게 사로잡혀 간 사람을 다시 빼앗아 와야 한다. 그러려면 사람의 옛 성품을 변화시켜 본래 이성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사탄을 물리쳐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로잡혀 간 사람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다. 사람이 사탄의 권세와 결박에서 벗어나면 사탄은 수치를 당한다. 결국 사람을 빼앗아 오고, 사탄은 패하게 된다. 사람은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남으로써 모든 싸움의 전리품이 되겠지만, 사탄은 싸움이 끝난 후에 징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사역도 끝을 맺게 된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91)

하나님은 중화 대륙, 즉 홍콩이나 대만 동포가 말하는 내륙에 성육신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에 왔을 때, 하늘 위아래의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는 하나님이 은밀히 재림한 참뜻이기 때문이다. 그가 육신으로 와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생활했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아는 이가 없다. 어찌면 이는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이번에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사람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영이 얼마나 대단한 기세로 역사하든 하나님은 시종일관 내색하지 않으며, 빈틈을 보이지 않는다. 이 단계의 사역은 천계(天界)에서의 사역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모두 눈으로 보았지만, 알지는 못한다. 하나님이 이 단계의 사역을 끝내면 모든 사람은 긴 꿈에서 깨어나 태도가 일변할 것이다¹¹. 하나님은 “이번에 육신으로 온 것은 호랑이 굴에 떨어진 것과 같다.”라고 말씀한 바 있다. 즉, 하나님은 이번 사역을 육신으로 행하고, 그것도 큰 붉은 용이 군거하는 곳에 강생하여 행하기 때문에 더욱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땅에 온 것이다. 하나님이 직면한 것은 총칼과 몽둥이요, 시험이요, 살기등등한 사람들이므로, 언제든지 죽임 당할 위험이 있다. 하나님은 진노를 지니고 왔다. 그러나 그가 온 이유는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이다. 즉, 구속 사역에 이어 두 번째 부분의 사역을 하기 위해 온 것이다. 하나님은 이 단계의 사역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천방백계로 시험의 공격을 피하며 자신을 낮추고 감추었지, 한 번도 자신의 신분을 과시한 적이 없다. 예수가 사람을 십자가에서 구원한 것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것일 뿐, 온전케 하는 사역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이 반만 완성되었다. 구속 사역을 끝낸 것은 전체 계획의 절반에 불과했다. 새 시대가 시작되고 옛 시대가 지나가려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두 번째 부분의 사역을 깊이 생각하고, 두 번째 부분의 사역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과거에는 말세에 성육신할 것이라고 명확히 예언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더 은밀하게 육신으로 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만인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동틀 무렵에 땅에 와 육신에서의 생애를 시작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순간이 도래했음을 모른다. 어찌면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이가 깨어 기다릴 수도 있으며, 수많은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드리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이미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는 더 순조롭게 사역을 펼치고, 보다 나은 사역의 성과를 거두며, 더 이상의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봄잠에서 깨어나는 동틀 녘에 하나님의 사역은 이미 끝났을 것이며, 하나님은 땅을 떠남으로써 땅에서 떠돌며 기거했던 생애를 마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친히 행하고 친히 말해야지, 사람이 끼어들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극심한 고통을 감수하고 땅에 와 친히 사역을 행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은혜시대의 수천 배에 달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큰 붉은 용이 군거하는 곳에 내려와 자신의 사역을 하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빈궁한 백성, 거름 더미 속의 사람을 구원(원문: 救贖)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고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크나큰 장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두 극악무도한데 어찌 하나님의 존재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 이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 와서 늘 묵묵히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잔혹하게 굴어도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며, 하늘의 아버지가 맡긴 더 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사역만 할 뿐이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깨달은 자가 있느냐? 어느 누가 아버지 하나님의 부담을 아들보다 더 잘 헤아릴 수 있겠느냐? 어느 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영은 항상 걱정하고, 땅에 있는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늘 간구하며 애태우는데, 어느 누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어느 누가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아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늘과 땅으로 갈라져 있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일이어서 항상 멀리서 마주하며, 영 안에서 함께한다. 인류야! 언제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것이냐? 언제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것이냐? 아버지와 아들은 본래 서로를 의지하거늘, 이들을 하늘 위아래로 갈라놓아야만 하겠느냐?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듯 아버지도 아들을 그리워하거늘, 왜 하염없이 기다리고 고대해야만 한단 말이냐? 떨어져 지낸 세월이 길지는 않으나 수많은 낮과 밤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아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애타게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을 누가 알겠느냐? 그는 지켜보며,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랑하는 아들의 빠른 귀환을 위한 것이건만, 세상 끝과 바다 끝을 떠돌고 있으니 언제쯤 재회할 수 있겠느냐? 상봉하는 날 영원히 함께할지라도 어찌 수천 번의 밤낮을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떨어져 지내겠느냐? 땅에서의 수십 년은 하늘에서의 수천 년과 같거늘 어찌 아버지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땅에 온 하나님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세파에 시달린다. 하나님은 본래 죄가 없거늘 어찌 사람과 같은 고난을 겪게 하는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늘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넘치도록 주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보답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적어도 너무나 적으니 어찌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역과 진입 4> 중에서

[1] 태도가 일변할 것이다[一反常態]: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생각과 관점이 바뀌는 것을 가리킴.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92)

사람 중에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을 이해하는 이는 거의 하나도 없다. 사람은 자질이 형편없기 짝이 없고, 영 안이 몹시 둔하며, 하나님의 행사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야만성이 언제라도 튀어나올 것 같아 늘 마음을 놓지 못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크나큰 시험을 무릅쓰고 땅에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무리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영광을 가득 안고 그의 뜻을 숨김없이 다 사람에게 알려 주었다. 그는 이들을 온전케 하기로 결정했기에 고난이나 시험에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사역만 해 나가고 있다. 언젠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누군가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오해하며, 누군가는 하나님을 원망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를 전혀 개의치 않는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할 때,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이 인류의 행복과 더 나은 생존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시험을 무릅쓰고 왔으며, 또한 진노와 위엄을 지니고 왔다. 하나님이 사람을 떠날 때는 이미 영광을 얻었으므로 영광과 귀환의 기쁨으로 가득한 채 떠날 것이다. 땅에서 사역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그를 어떻게 저버리든 상관하지 않고 그의 사역만 행할 따름이다. 세상을 창조하고 천만년의 역사(歷史)가 흐르는 동안 하나님은 땅에 와서 수많은 사역을 했지만 세상에서 수없이 버림받고 비방당했다. 하나님을 반겨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이 수천 년의 고초를 겪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로 마음에 모진 상처를 입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의 패역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계획을 세워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결케 하기로 했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와서 조롱, 비방, 핍박, 환난, 십자가의 고통, 사람의 배척 등을 더는 겪을 수 없을 정도로 겪었다. 또 육신으로 온 하나님은 인간 세상의 갖은 고난을 겪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차마 볼 수 없어 고개를 젓히고 눈을 감은 채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직 모든 사람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그의 육신 앞에서 죽도록 참회하고, 그에게 거역하지 않기를,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를 바랄 뿐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뭔가 더 큰 것을 기대하지 않은 지 오래다. 하나님은 너무도 큰 대가를 지불했건만 사람은 무사태평¹⁾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신경조차 쓰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역과 진입 4> 중에서

[1] 무사태평[高枕無憂]: 여기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안중에 두지 않음을 가리킴.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93)

사실 하나님이 은혜시대에 셋째 하늘로 돌아갈 때, 온 인류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있었다. 땅에는 예수가 져던 십자가, 그의 몸에 감싸졌던 세마포, 그가 썼던 가시 면류관, 그가 입었던 자색 옷(유대인이 그를 희롱하며 사용했던 물건들)만 남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역은 한바탕 큰 파문을 일으켰다 잠잠해졌고, 그 후 예수의 제자들은 곳곳의 교회에서 양육하고 목양하며 그의 사역을 이어 나가기 시작했다. 사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게 했고, 또 세례받게 했다. 사도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내막과 실제 상황을

전하여 사람들이 절로 ‘예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하게 했으며, 또 곳곳에서 예수의 말씀을 전했다. 이때부터 은혜시대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 시대에 예수가 한 일 역시 사람의 삶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다만 시대가 다른 관계로 많은 표현과 실행들이 오늘날과 크게 달랐을 뿐이다. 하지만 그 본질은 모두 같다. 즉, 전부 하나님의 영이 육신으로 사역하는 것으로, 조금의 차이도 없다. 그런 사역과 말씀이 오늘날까지 이어졌기에 지금의 종교계에서는 여전히 조금의 변화도 없이 이를 그대로 ‘공유하는’ 것이다. 예수의 사역이 끝날 무렵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정상 궤도에 올라섰으나, 하나님은 또다시 다른 단계의 사역 계획, 즉 말세에 성육신하는 일을 시작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의 성육신 사역을 끝냈고, 온 인류를 속량했으며, 음부의 열쇠를 손에 넣은 것 같을 것이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이 철저히 완성되었다고 여긴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의 사역 중 작은 부분만 완성됐을 뿐이다. 그는 인류를 속량했을 뿐 정복하지 않았고, 나아가 사람에게 존재하는 사탄의 추한 몰골을 바꾸지도 않았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성육신한 몸은 죽음의 고통을 겪었으나 이는 내가 성육신한 모든 목적이 아니다.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나의 사역 중 일부만 완성했을 뿐 모든 사역을 완전히 끝내지는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 성육신의 사역을 잇는 두 번째 계획을 시작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사탄의 손에서 구원한 사람을 온전케 하고 얻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육신으로 왔다. ‘성육신’이란 영광을 지니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의 신분으로 나타난 것을 말한다(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영광을 지니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기에 위험을 무릅쓴다고 하는 것이다. 육신의 힘은 근소신미한 데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병과는 거리가 멀기에, 다만 육신의 직분을 이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완성할 뿐이다. 다른 사역은 하지 않고 오직 일부분 사역만 완성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땅에 오는 순간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것이 그 합의이다. 시험을 무릅쓰고 왔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사역만을 완성하기 때문이며, 게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만 부를 뿐, 모든 영광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육신을 입고 온 목적은 한 가지 사역을 하는 데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직분을 이행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아들’이 어깨에 짊어진 사명을 모두 완성할 때 아버지는 모든 영광과 신분을 그에게 준다. 이는 ‘하늘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성육신과 하나님 아버지는 서로 다른 경지에 있으니 그저 영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뿐이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돌보며 지켜보지만 아들은 아득히 멀리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한다. 육신의 능력은 너무도 미약하여 언제든 죽음의 화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에 크나큰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또다시 범의 아가리에 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탄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에 그를 넘긴 것이다.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더럽고 음란한 땅의 사람에게 맡겨 그를 ‘어른으로

키우게' 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사역이 이치에 맞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인류 가운데서 하는 마지막 사역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도 아버지 하나님의 한 단계 사역을 완성했을 뿐이다. 육신이 서로 동떨어져 있고 또한 완성할 사역이 다른 관계로 예수 역시 두 번째로 육신을 입고 와야 한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성경 해설자나 예언가들은 하나님이 말세에 또 성육신한다는 것, 즉 말세에 다시 육신으로 와서 육신의 두 번째 부분 사역을 행한다는 것을 아무도 명확하게 예언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이 일찍이 육신에 숨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예수가 부활하여 승천한 후에야 이 사명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두 번째 성육신에 대한 더 명확한 예언은 없으며, 사람이 헤아리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경의 그 많은 예언서에도 이 일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예수가 와서 사역할 때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즉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명확한 예언이 있었다. 그랬음에도 하나님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왔다고 했는데, 하물며 오늘날은 어떻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이번에 은혜시대의 몇천 배에 이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성육신했다고 말씀한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하나님은 시님(원문: 秦國) 땅, 즉 세계의 동방에서 이긴 자들을 얻을 것이라고 이미 많은 곳에 예언해 둔 바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성육신하는 곳은 틀림없이 시님 땅인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큰 붉은 용이 꼬리를 들고 있는 곳에서 큰 붉은 용의 자손들을 얻음으로써, 그것에게 완전한 패배와 수치를 안겨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극심한 고난을 겪는 이 사람들을 불러일으켜 완전히 깨우고, 그들이 안개 속에서 걸어 나와 큰 붉은 용을 버리게 할 것이다. 또한 꿈에서 깨어나 큰 붉은 용의 본질을 알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흑암 세력의 억압 속에서 힘차게 일어나 세계의 동방에 굳게 서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승리한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마친 사역을 다시 큰 붉은 용이 꼬리를 들고 있는 곳으로 가져온 것이며, 떠난 지 2천 년이 되었을 무렵 또다시 육신으로 와서 은혜시대의 사역을 이은 것이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다시 육신으로 새 사역을 펼친 것 같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시대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단지 몇천 년이 흘렀고, 사역의 장소와 내용이 달라졌을 뿐이다. 오늘날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육신이 입은 형상은 예수와 확연히 다르나 그 본질과 근원은 결국 하나이고, 하나의 기원을 지닌다. 겉으로 보기에 비슷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을지도 모르나, 사역의 실상은 한 치의 차이도 없다. 아무튼 시대가 완전히 다른데 하나님의 사역이 천편일률적이거나 서로 방해가 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역과 진입 6> 중에서

[1] 근소신미(謹小慎微): 육신의 기능이 보잘것없어 사소한 일에 신경 쓰고 지나치게 신중함. 여기에서는 육신의 어려움이 많아서 사역이 몹시 제한되어 있음을 가리킴.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94)

사람은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비단 영적 생명의 공급과 하나님을 아는 체험에 그치지 않으며, 더 큰 결핍은 성품의 변화임을 깨달았다. 사람은 인류의 역사와 고대 문화를 전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사람은 모두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사람의 육이 몹시 패괴된 데다 무감각하고 또 우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 오늘날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온 목적은 천만년 동안 이어져 온 사람의 사상과 정신,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한 하나님의 형상을 바꾸기 위함이며, 이 기회에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즉, 사람의 ‘인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 방법과 태도를 바꿈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을 되돌리는 한편, 사람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바꾸고자 함이다.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방식이고, 정복하고 새롭게 바꾸는 것은 목적이다. 사람이 막연한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미신적인 사상을 타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자 현재의 간절한 뜻이다. 모두가 이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이 체험 방식을 바꾸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나님이 땅에서 행하는 마지막 단계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해라. 너희가 마땅히 보여야 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한 번 위로해라. 형제자매 중 그 누구도 이를 행함에 있어 책임을 회피하거나 건성으로 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이번에 육신으로 온 것은 초청에 응하여 온 것이고, 사람의 영적 상태에 맞추어 온 것이다. 즉, 사람이 필요로 하는 바를 공급하고자 온 것으로, 사람의 자질과 교양이 어떠한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현현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게 온전케 되고 사상과 관념을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땅에서 바라는 유일한 염원이다. 사람에게 천성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본질이 얼마나 나쁜든, 과거에 사람이 도대체 어떤 행위를 했든, 하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오로지 사람이 마음속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바꾸고, 인류의 본질을 인식하여 사상적 면모의 변화를 이루길, 또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그리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길 바랄 뿐이다. 이는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역과 진입 7>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95)

하나님의 말세에 하는 사역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크나큰 상처를 받은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죄악에 깊게 물들어 해를 입은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누차 말했다. 즉, 사람의 영을 일깨움으로써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 소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다. 사람의 생명과 체험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는 차치하자. 사람의 마음이 일깨워질 때,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 큰

불은 용의 해악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본직 사역은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는 날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길을 가기 시작할 때이다. 그때 하나님의 직분, 바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사역이 전부 끝나고, 사람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이행해야 할 본분, 그러니까 사람의 ‘직무’를 이행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역의 절차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인식한 후에 너희가 진입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들이다. 사람의 마음이 변화해야만 더 잘 진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역은 속량해 온 사람들, 여전히 흑암 세력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마귀가 군집한 땅에서 철저히 구원하고 천고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큰 불은 용을 완전히 뭉개 버려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이 한시바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한다. 또한, 너희 마음속에 가득한 원한을 ‘남김없이’ 발산하게 하고, 곰팡이가 슬어 버린 독균(毒菌)을 깨끗이 없애며, 소나 말 같은 삶에서 벗어나 더는 노예로 살지 않게 하고, 더는 큰 불은 용에게 마구 유린당하거나 함부로 부림 받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더 이상 이 패망의 민족에도, 극악무도한 큰 불은 용에게도 속하지 않으며, 더는 그것의 부림을 받지 않게 할 것이다. 마귀의 ‘소굴’은 반드시 하나님 손에 부서져 멸망될 것이다. 하나님의 편에 선 너희는 이 노예 왕국이 아닌,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 어둠의 사회를 뼈에 사무치도록, 이가 갈리도록 증오했다. 당장이라도 이 극악무도한 옛 뱀을 두 발로 짓밟아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싶은 심정이다. 또한, 하나님은 그것의 과거도, 그것이 다시 사람을 속이는 것도 용납하지 않고, 역대로 쌓인 죄업의 대가를 하나하나 치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원흉^[1]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없애 버릴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역과 진입 8> 중에서

[1] 원흉[罪魁禍首]: 본문에서는 ‘늑은 마귀’를 가리키며, 극도의 증오를 나타냄.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96)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사역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밤을 뜬눈으로 지새웠는지 모른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했고, 사람이 살고 있는 생지옥에 내려와 하늘 끝까지 사람과 함께하면서도 궁상맞은 인간 세상을 원망한 적 없고, 사람의 패역을 질타한 적도 없으며, 도리어 크나큰 치욕을 참으면서 자신이 친히 해야 할 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찌 지옥에 속할 수 있겠느냐? 어찌 지옥의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는 전 인류를 위해서, 인류 전체가 하루빨리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치욕과 억울함을 참고 땅에 내려와 친히 ‘지옥’과 ‘음부’,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사람을 구원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나? 무슨 이유로 또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나? 무슨 낯짝으로 다시 하나님을 마주한단 말이나? 하늘의 하나님은 가장 더럽고 음란한 땅에

와서 단 한 번도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묵묵히 사람의 박해^[1]와 억압을 감내하고 있다. 그는 한 번도 사람의 무리한 요구에 반항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지나친 요구나 무리한 요구를 한 적도 없으며,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 한 마디 없이 가르침, 깨우침, 책망, 말씀의 연단, 일깨움, 권면, 위로, 심판, 폭로 등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사역을 할 뿐이다. 사람의 생명을 위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비록 사람의 앞날과 운명을 거두어 갔다고는 하나, 하나님이 하는 일 중에서 사람의 운명을 위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사람의 생존을 위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이 고난과 칠혹처럼 어두운 흑암 세력의 압제에서 사람을 구해 내려고 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사람을 위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인자한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그 절박한 심정을 누가 이해하겠느냐? 하나님의 불처럼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기대로 얻은 것은 뜻밖에도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 냉혹하고 무정한 눈동자,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의 훈계와 욕설, 그리고 냉소와 조롱, 비방과 폄하, 사람의 비웃음, 유린과 저버림, 사람의 오해와 원망, 소외와 회피, 기만과 공격, 쓰디쓴 결과뿐이었다. 따뜻한 말씀은 ‘차디찬 시선과 손가락질’로 돌아왔으니, 하나님은 ‘머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며^[2]’ 고통을 참아야만 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전반측하며 아버지와의 이별보다 천배나 더한 고통을 참아 내고, 사람의 공격과 ‘깨뜨림’, ‘훈계’와 ‘책망’을 참아 내야 했다. 하나님이 ‘낮추고 감춘’ 대가로 얻은 것은 사람의 차별^[3], 불공평한 시선과 대우였다. 하나님의 묵묵한 인내와 포용으로 얻은 것은 인정사정없이 하나님을 밟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갈라진 땅 틈 사이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사람의 탐욕스러운 시선이였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보기 드물게 똑똑해져’, 사람 눈에 만만해 보이고 사람들이 깔보는 하나님을 만인의 발아래 깔아뭉개고는 마치 ‘왕 노릇을 하려는’ 듯, ‘대권을 독차지하여^[4]’ ‘수렴청정’하려는 듯 스스로를 높이 추켜올리고, 하나님에게는 고분고분 순순히 ‘무대 뒤의 감독’ 역할을 맡겨 반항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였다. 또한 하나님을 ‘마지막 황제’처럼 분장시켜 자유라곤 전혀 없는 ‘꼭두각시^[5]’ 역할을 맡게 했다. 사람의 작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니, 또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이런저런 요구를 한단 말이나?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건의’를 한단 말이나?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사람의 연약함을 배려해 달라고 요구한단 말이나?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더냐?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관대함을 누릴 자격이 있더냐? 계속되는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을 자격이 있더냐? 사람의 양심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은 일찍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없이 아프게 하였고, 갈기갈기 찢어 버렸다. 하나님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가슴 가득 기쁨을 안고 인간 세상에 와서 사람이 그에게 아주 작은 온정이라도 베풀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오래도록 사람의 위로를 얻지 못했고, 돌아온 것이라고는 설상가상^[6] 식의 공격과 괴롭힘뿐이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 탐욕스럽고, 사람의 욕망은 너무 커서 하나를 얻으면 둘을 갖고 싶어 하고, 무리한 트집을 잡으면서 하나님께 약간의 자유도, 일말의 발언권도 주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은 울분을 참으면서 묵묵히 사람의 조종을 받아야 했다.

[1] 박해[摧殘]: 여기서는 사람의 패역을 폭로함.

[2] ‘차디찬 시선과 손가락질’, ‘머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며’: 원래 문장은 ‘사나운 눈초리로 못사람들의 질타에 맞서고[橫眉冷對千夫指], 머리 숙여 기꺼이 어린아이의 소가 되다[俯首甘爲孺子牛]’라는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더 정확히 설명하고 있음. 앞 구절은 사람의 ‘행위’를, 뒷 구절은 하나님이 받는 고난과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고 감추는 것을 가리킴.

[3] 차별[歧視]: 본문에서는 사람의 패역 행위를 가리킴.

[4] 대권을 독차지하여[獨攬大權]: 사람의 패역 행위, 즉 자신을 추켜올리는 한편 다른 사람이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위해 고통받도록 통제하는 행위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대한 표현. 원뜻은 큰 권력을 혼자 틀어쥐고 있음을 의미함.

[5] 꼭두각시[傀儡]: 본문에서는 이 어휘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조롱함.

[6] 설상가상(雪上加霜): 본문에서는 이 어휘로 사람의 비열한 행위를 더 두드러지게 함.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97)

하나님이 성육신한 일은 각 교파와 교단을 뒤흔들었고, 종교계의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하나님의 나타남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누구인들 앙모하지 않겠느냐? 누구인들 하나님 뵈기를 고대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온 지 여려 해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다. 오늘에 이르러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 모두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으니, 이 어찌 즐겁지 않겠느냐? 지난날 하나님은 사람과 만남의 기쁨과 헤어짐의 슬픔을 나눴고, 이제 또다시 인류와 만나 옛정을 나누고 있다. 하나님은 유대에서 떠나간 이후로 줄곧 종무소식이였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회할 날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그러다 오늘날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으니, 어찌 지난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 2 천 년 전의 오늘, 유대인의 자손인 바요나 시몬은 구주 예수를 만나 음식을 나누고 오랜 세월 그를 따르면서 깊은 우정을 나눴으며, 예수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가슴 깊이 사랑했다. 어둡고 차가운 말구유에 강생한 노란 머리의 갓난아이가 바로 성육신 하나님의 첫 번째 형상이었음을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알았겠느냐? 사람들은 모두 그를 자신과 같은 부류로 생각했지, 그를 특별하게 여긴 이는 아무도 없었다. 평범하고도 일반적인 ‘예수’를 사람이 어찌 알아볼 수 있었겠느냐? 유대인들은 모두 그를 당시 유대인의 아들로 여겼지, 사랑스러운 하나님으로 본 자는 아무도 없었다. 사람은 언제나 그를 향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내려 달라고 요구할 뿐이었고, 오로지 그가 백만장자처럼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한 번도 그를 사랑해야 하는 분으로 대하지 않았다. 당시 사람들 또한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저 그에게 반항하고 터무니없는 요구만을 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고, 일관되게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는 묵묵히 사람에게 따스함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으며, 나아가 새로운 실행을 알려 줌으로써 사람을 율법의 속박에서 풀어 주었다. 사람은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저 그를 부러워하고, 그의 ‘출중한 재능’을 높이 살 뿐이었다. 사랑스러운 구주 예수가 얼마나 큰 굴욕을 참음으로 이 세상에 왔는지, 눈먼 인류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고충을 헤아려 주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그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다. 마리아가 그의 ‘생모’라고는 하나, 인자한 주 예수의 마음의 소리를 그녀가 어찌 이해했겠느냐? ‘인자’가 참아내야 했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누가 알아주었더냐? 당시 사람들은 그에게서 얻어 낸 뒤에는 냉정하게 그를 뇌리에서 지워 버리고, 또한 문전 박대 했다. 그는 그렇게 길거리를 떠돌아다니어야 했다. 하루 또 하루, 한 해 또 한 해, 수많은 나날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길고도 짧은 고난의 33 년 인생을 보낸 것이다. 사람은 그를 필요로 할 때는 집으로 초대하여 원하는 바를 얻어 내고자 만면에 미소를 머금었고, 그의 ‘공헌’을 받은 후에는 즉각 그를 문밖으로 밀어냈다. 사람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공급받고, 그의 피를 마시고, 그가 베풀어 주는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를 대적했다.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누가 베풀어 주었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는 여전히 불평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사람은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고, 그가 해 주는 밥으로 배를 채우며, 그가 개척한 길을 걸으면서도 그를 저버리려 한다. 사람은 자신에게 생명을 베풀어 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자신과 같은 부류의 노예를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고의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느냐? 너희는 알고 있느냐? 그를 먹고 마시고 누리며 그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유다가 그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더냐? 팔아넘긴 이유는 예수가 보잘것없는 평범한 ‘선생’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더냐? 예수가 하늘에 속한 비범한 분이라는 걸 정말로 보았더라면 사람이 그를 산 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숨이 끊길 때까지 24 시간 동안이나 매달아 놓았겠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더냐? 사람은 끝을 모르고 탐욕스럽게 하나님을 누릴 줄이나 알지, 한 번도 그를 안 적이 없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면서 ‘예수’가 자신의 지시와 부름에 완전히 복종하기만을 원했다. 머리 둘 곳도 없는 ‘인자’에게 일말의 온정을 베풀 이가 있었더냐? 그와 한마음으로 협력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맡긴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던 자가 있었더냐? 그를 생각해 준 자가 있었더냐? 그의 고충을 헤아려 준 자가 있었더냐?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그를 이리 끌어당기고 저리 밀치고 했을 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광명과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인간 세상의 고난을 체험한 2 천 년 전의 ‘예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을 꿈꿨지만 가지고 있다. 설마 ‘예수’가 그렇게 혐오스러운 존재란 말이나? 그가 행한 모든 것을 사람은 벌써 다 잊었던 말이나? 수천 년 전부터 쌓인 원한을 끝내 쏟아 내려고 하는구나. 유대인 같은 자들아! ‘예수’가 언제 너희에게 적의가 있었느냐? 어찌하여 그리도 그를 증오한단 말이나? 그가 한 수많은 일과 수많은 말씀들이 설마 다

너희에게 무익하기라도 하단 말이냐? 그는 너희에게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베풀어 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산 채로 그를 삼키려 드느냐? 그는 너희에게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바쳤고, 세상의 영화, 인간세상의 따스함, 사랑과 모든 복과 즐거움은 한 번도 누려 보지 못했다. 그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너무나도 야박했다. 그는 땅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누려 본 적이 없고, 자신의 진실하고 뜨거운 마음을 전부 너희에게 바쳤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인류에게 바쳤다. 그런 그에게 누가 온정을 베풀었느냐? 누가 위안을 주었느냐? 사람은 모든 압력을 그에게 가했고, 모든 불행을 그에게 주었으며, 인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체험을 그에게 강제로 떠넘기고, 모든 불의를 그에게 덮어씌웠으나 그는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가 누군가에게 항의를 한 적이 있느냐? 보답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누가 그를 체휼했었느냐? 정상적인 사람 치고 낭만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은 자가 있느냐? 오색찬란한 청춘을 가져 보지 못한 자가 있느냐? 가족의 온정을 느껴 보지 못한 자가 있느냐? 친구와 친척들의 사랑을 받아 보지 못한 자가 있느냐? 다른 이의 존중을 받아 보지 못한 자가 있느냐? 따뜻한 가정이 없는 자가 있느냐? 절친한 벗의 위로를 받아 보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가 어찌 누려 봤겠느냐? 누가 그에게 조금이라도 온정을 주었느냐? 누가 그에게 일말의 위안이라도 주었느냐? 누가 그에게 조금이라도 인성의 도덕을 베풀었느냐? 누가 그에게 관용을 보였느냐? 누가 그와 고난의 날들을 함께 했느냐? 누가 그와 인생의 힘든 삶을 함께 했느냐? 사람은 한 번도 그에 대한 요구를 느슨하게 한 적이 없으며 그저 아무 거리낌 없이 그에게서 받아 내려 요구했을 뿐이다. 마치 그가 인간 세상에 온 이상, 반드시 사람의 마소 역할을 해야 하고, 단상 아래 선 죄인이 되어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인류는 절대로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이대로 포기하지도, 그를 하나님이라고 하지도, 높이 평가하지도 않을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너무나도 엄격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고통 속에서 죽게 만들어야 요구를 느슨하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요구치를 낮추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증오를 사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오늘날의 비극이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의 양심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입에 침이 마르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해부하고 잔인하게 괴롭혀 죽음으로 몰아가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비법'이 아니더냐? '유대인'은 어디에나 다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은 일,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높인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육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겠느냐? 육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영에서 비롯되어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겠느냐? 누가 알아볼 수 있겠느냐? 인간 세상에 진리가 어디에 있더냐? 진정한 공의는 또 어디에 있더냐? 하나님의 성품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겨룰 수 있겠느냐? 사람이 인간 세상에 온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버린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용인할 수 있겠느냐? 어찌 빛이 인간 세상에서 어둠을 쫓아내는 것을 용인하겠느냐? 이 모든 것이 사람의 공명정대한 봉헌 정신이 아니더냐? 사람의

정정당당한 진입이 아니더냐? 하나님의 사역은 전부 사람의 진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더냐? 너희가 사역과 진입을 결합시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본분을 다하며, 모든 성의를 다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 역시 영광을 받음으로 끝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역과 진입 10>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98)

지금은 중국의 하나님 선민들에게 하는 사역을 통해 이 사람들의 패역한 성품을 모두 드러내고 추악한 모습을 다 들추어낸다. 이것을 배경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고, 그 후 전 우주를 정복하는 다음 단계 사역을 할 것이다. 너희를 심판함으로써 전 우주 사람들의 불의를 심판하는 것이다. 너희는 인류의 패역자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부각물이 되고 봉사하는 존재가 될 것이며, 따라오는 사람은 쓰임 받는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왜 부각물이라고 하겠느냐? 그것은 지금 사역하고 말하는 것이 모두 너희의 상황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이고, 또 너희는 인류 중 패역자의 대표이자 전형이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너희를 정복하는 이 말씀들을 외국으로 가져가 외국 사람들을 정복할 텐데, 네가 얻지 못한다면 부각물에 속하지 않겠느냐? 전 인류의 패괴 성품, 사람의 패역한 행위, 사람의 이런 추한 모습과 면모가 다 오늘날 너희를 정복하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각 나라와 각 교파의 사람들을 정복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본보기이고 선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러 너희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 네가 제대로 추구하지 않아 구제 불능이 된다면 완전히 봉사만 하는 존재, 부각물이 아니겠느냐? 나는 예전에 나의 지혜는 사탄의 간계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왜 그 말을 했겠느냐? 그것이 지금 내가 말하고 사역하는 실상 아니겠느냐? 네가 따라오지 못해 온전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벌을 받게 된다면, 부각물에 속하지 않겠느냐?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는 많은 고난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여 생명의 일에 대해 조금도 모르며, 형벌과 심판을 받기는 했지만 아무 변화도 없고 생명을 얻지도 못했다면, 공사를 점검할 때 불 같은 시련과 더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 불이 닥치면 너는 송두리째 재가 될 것이다. 너에게 생명이 없고, 정금의 성분이 전혀 없으며, 예전의 패괴 성품이 변함없고, 부각물이 된다 해도 좋은 부각물이 될 수 없다면, 너를 도태시키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정복 사역을 할 때 한 푼의 가치도 없고 생명도 없는 사람을 쓸 수 있겠느냐? 그때가 되면 너희는 노아와 소돔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 구원 사역이 끝났을 때 네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느냐? 구원 사역이 모두 끝나면 더 이상 구원 사역을 하지 않고 악인을 징벌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한다. 너는 대적하고 거역하고, 알면서도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니, 무거운 형벌을 받을 대상 아니겠느냐? 오늘날 너에게 분명히 알려 주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나중에 재난이 닥칠 텐데, 그때 가서 후회하고 믿는다 한들 너무 늦은 것

아니겠느냐? 지금 너는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는데도 원치 않는데,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형벌의 날까지 이럴 것이냐? 지금 나는 네 이전의 과오를 기억하지 않고, 한 번 또 한 번 너를 용서해 주며, 너의 부정적인 면을 보지 않고 긍정적인 면만 본다. 지금 말하고 사역하는 이유는 너에게 아무런 악의도 없고 모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도 너는 진입하지 않고,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며, 은혜를 모른다. 이런 사람에게는 오직 그 징벌과 공의의 보응만 기다리고 있지 않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정복 사역의 실상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99)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여호와가 베풀어 준 물이 솟아 나온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다윗이 비파와 수금으로 나, 여호와를 찬양했을뿐더러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욥이 산을 가득 채운 우양과 많은 가산을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난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나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영광의 증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요한이 인자의 영광의 형상을 보게 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말세의 이상(異象)을 보게 된 것은 더더욱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이방의 백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나의 계시를 받고, 내가 이미 육신으로 돌아와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도 그들의 믿음 때문이다. 나의 엄한 말에 매를 맞아도 위안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들 또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느냐?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얻었다. 꼭 복만 얻은 것은 아니다. 다윗처럼 기쁨과 환희를 얻었을 수도 있고, 모세처럼 여호와가 베풀어 준 물을 얻었을 수도 있다. 욥과 같은 경우도 있다. 그는 믿음으로 인해 여호와가 베풀어 준 복도 얻었고, 재앙도 입었다. 하지만 복을 받든 화를 입든 다 복이 있는 일이다. 믿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너는 이 정복 사역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오늘날 너의 눈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행사는 더더욱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볼 수도 없고 더욱이 얻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화와 재난, 모든 심판이 너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네가 오늘날 여호와의 행사를 볼 수 있었겠느냐? 오늘날 너는 믿음으로 인해 정복되었고, 또 정복됨으로 인해 여호와의 모든 행사를 믿게 되었다. 너는 믿음으로 인해 이런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너는 이런 형벌과 심판으로 인해 정복되고 온전케 된다. 오늘날의 이런 형벌과 심판이 없었다면 너의 믿음은 모두 부질없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믿는다고 한들 실체가 없는 텅 빈 글귀이기 때문이다. 네가 이런 정복 사역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순종하게 되어야만 너의 믿음이 진실하고 확실한 것이며,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 것이다. ‘믿음’ 때문에 많은 심판이나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가장 참되고 가장 알차고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되었다. 너는 심판 가운데서 비로소 피조물의 종착지를 알게 되었고, 창조주의

사랑스러움을 보게 되었다. 또 너는 이러한 정복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팔을 보게 되었으며, 인생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너는 이러한 정복 가운데서 인생의 바른길을 얻었고, '사람'의 참뜻도 깨닫게 되었다. 너는 이러한 정복 가운데서 전능자의 공의 성품과 아름다운 얼굴을 보게 되었으며, 사람의 근원과 전 인류의 '불후의 역사'도 알게 되었다. 너는 이러한 정복 가운데서 인류의 조상과 인류가 파괴된 기원을 알게 되었으며, 희락과 위안을 얻었다. 또한 끝없는 채찍질과 징계도 받았고, 창조주가 지음 받은 인류에게 하는 질책의 말씀도 듣게 되었다. 너는 이러한 정복 사역 가운데서 축복은 물론,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화도 입었다.... 이 모든 것이 너의 그 작은 믿음으로 인한 것 아니더냐? 이런 것들을 얻음으로 인해 너의 믿음도 커지지 않았더냐? 네가 얻은 것이 매우 많지 않았더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사역도 직접 체험했다. 어쩌면 너는 자신이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형벌이나 심판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네가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형벌과 전능자의 보살핌을 받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를 만날 기회도 영영 놓치고, 또 인류의 기원도 영원히 알지 못하며, 인생의 의미도 영원히 깨닫지 못했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설령 너의 육체가 멸망하고 영혼이 이탈한다고 해도 너는 창조주의 모든 행사를 알지 못할 것이고, 더욱이 창조주가 인류를 만든 후에 땅에서 이처럼 큰 사역을 했다는 것도 알지 못할 것이다. 창조된 인류로서, 너는 그렇게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어둠 속에 떨어져 영원히 징벌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오늘날의 형벌과 심판을 떠난다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네가 오늘날의 심판을 떠난다고 해서 이 고난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 땅'을 떠나면 고통에 시달리거나 마귀에게 해를 입지 않겠느냐? 견디기 힘든 나날이 닥치지 않겠느냐? 오늘날의 심판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훗날의 고통을 영원히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장차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네가 바라는 무릉도원이겠느냐?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면 훗날 그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기회와 축복을 네가 이후에 두 번 다시 찾을 수 있겠느냐? 재앙이 임할 때 찾을 수 있겠느냐? 모든 인류가 안식에 들어갈 때 찾을 수 있겠느냐? 지금의 만족스러운 생활과 화목한 가정이 네 훗날의 영원한 종착지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 만약 네게 진실한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인해 많은 것을 얻었다면, 그것은 피조물인 네가 마땅히 얻어야 할 몫이고, 또한 네가 본래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정복은 너의 믿음에도 가장 이롭고 너의 생명에도 가장 이롭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정복 사역의 실상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00)

지금 너는 어떻게 해야 정복되는지, 또 정복된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너는 네가 정복되었다고 말하지만,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너는 앞날에 희망이 있든 없든 끝까지 따르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며, 마지막에는 두

가지 증거, 즉 죽기까지 순종했던 욥의 증거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베드로의 증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너는* 욥과 같아야 한다. 욥은 물질적인 것을 다 잃고 육체에 질병의 고통이 임했어도 여호와와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욥의 증거이다. 베드로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는 자기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아름다운 소망이나 사치스러운 생각들을 추구하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안배에 순종하기를 추구했다. 네가 이런 기준에 도달해야 증거했다고 할 수 있고, 정복된 후에 온전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본질과 지위를 안다면 또 무슨 앞날이나 소망을 추구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날 온전케 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라야 해.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고, 나를 위한 거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거지. 더러운 곳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 더러움을 벗어 버리고, 부정한 것과 사탄의 권세를 떨쳐 내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거야.' 너는 이러한 인식을 갖춰야 한다. 물론 너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저 정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이 순종하려는 의지를 갖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배에 따를 수 있으면 이룬 것이다. 지금 이미 많은 사람이 정복되었지만, 사람의 내면에는 아직도 패역한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많고, 사람의 실제 분량 또한 너무 작다. 사람은 소망과 앞날이 있을 때 힘을 내지만 조금의 소망도, 앞날도 보이지 않으면 또다시 소극적이 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려고까지 하면서 정상 인성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정복에 대해 계속 얘기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정복하는 동시에 온전케 하는데, 너를 정복하는 한편 너를 기본적으로 온전케 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정복되는 것과 온전케 되는 것의 차이는 사람의 변화 정도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정복되는 것은 사람이 온전케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복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온전케 된 것은 아니며, 사람이 완전히 얻어졌음을 증명할 수도 없다. 사람이 정복되면 성품이 어느 정도 변화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얻어진 사람의 변화에는 훨씬 못 미친다. 지금 하는 것은 온전케 하기 위한 기초적인 사역, 즉 정복하는 것이다. 정복될 수 없다면 너는 온전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완전히 얻어질 수도 없다. 형벌과 심판의 말씀을 조금 얻을 수는 있지만 네 마음이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다. 그런 너는 도태된 사람이니, 식탁에 차려진 산해진미를 쳐다보기만 하고 먹지 못한 것과 같다. 그것은 너무 가련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정복되는 것이든 온전케 되는 것이든 다 너의 변화 여부와 너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 바로 이것으로 네가 얻어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 정복되는 것과 온전케 되는 것은 단지 변화된 정도와 순종 정도를 두고 하는 말이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결도를 두고 하는 말임을 너는 알아야 한다. 오늘날 네게 바라는 것은 철저히 온전케 되는 것이지만, 처음에 너는 정복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형벌과 심판에 대해 충분히 알고 하나님을 따를 믿음을 가져야 하며,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온전케 하는 과정에서

정복하고, 정복하는 과정에서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오늘날, 네가 온전케 되기를 추구해도 좋고, 외적인 인성 변화와 자질 향상을 추구해도 좋다. 하지만 가장 주된 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이 의미 있고 이로운 일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더러운 땅에서 태어난 네가 더러움에서 벗어나고 더러움을 떨쳐 버리게 해주며,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 또한 네가 그 일들을 중시하게 함으로써 더러운 땅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해 준다. 궁극적으로 네게 어떤 간증을 하라는 것이겠느냐? 그러니까 더러운 땅에서 태어났지만 거룩해질 수 있고 더 이상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태어났지만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탄에게 점령되지 않고, 사탄으로 인해 곤경에 처하지 않으며, 전능자의 손안에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간증이요, 사탄과 싸워 이긴 증거이다. 네가 사탄을 저버릴 수 있으며 네가 살아 내는 것에는 더 이상 사탄의 성품이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에게 요구한 것, 즉 사람에게 요구한 정상 인성, 정상적인 이성과 정상적인 식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정상적인 의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이 해야 할 간증이다. 너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우리는 더러운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우리에게 대한 정복으로 인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하심으로 얻은 성과이지, 우리 자신이 훌륭해서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그분께 정복되고, 그분을 증거하며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보호하셨기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받았으며,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더러움을 벗어던지고 정결케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정복 사역의 실상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01)

말세에 하는 사역은 모든 규례를 타파한다. 네가 저주받은 자든 징벌받은 자든, 내 사역에 이롭고 지금의 정복 사역에 도움이 되면, 모압의 후손이든 큰 붉은 용의 자손이든 상관없다. 네가 이 단계 사역에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 사역을 철저하게 행할 수만 있으면, 이는 성과를 낸 것이다. 네가 큰 붉은 용의 자손이든 모압의 후손이든, 어쨌든 육에 속한 사람은 모두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만든 존재이다. 너는 피조물이니 선택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이것은 너의 본분이다. 물론 오늘날 창조주는 우주 전체를 향해 사역한다. 네가 누구에게서 태어났든 결국 너는 피조물 중 하나이다. 너희, 모압의 후손들 역시 신분이 비천할 뿐 피조물의 일부이다. 오늘날의 사역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행해지고 우주 전체를 향하는 이상, 창조주는 사람과 일, 사물을 임의로 선택해 사역할 수 있다. 그는 네 과거 출생이 어떻든 상관없이 네가 피조물이기만 하다면, 또 네가 그의 사역에 — 정복과 증거에 —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너에게 자신의 사역을 행할 것이다.

이는 사람의 전통적인 관념을 깬 것이다. 즉, 하나님은 영원히 이방인, 특히 저주받은 비천한 사람에게는 사역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념, 조상이 저주받았으니 후손도 영원히 저주받아 영영 구원받을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관념, 하나님은 거룩하므로 이방에 임하거나 사역하는 일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더러운 땅에 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념 말이다. 이런 관념들은 하나님의 말세 사역에 의해 모두 깨졌다. 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고, 천지 만물의 주재자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하는 이 단계 사역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열방에 널리 전할 일이 아니겠느냐? 앞으로는 큰 증거가 중국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만 정복한다면 마귀들이 굴복할 수 있겠느냐? 마귀는 정복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무엇인지 모른다. 전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선민들에게 이 단계 사역의 최종 성과를 보게 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피조물이 정복된다. 모압의 후손은 가장 뒤떨어지고 패괴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까지 정복된다면, 다시 말해 가장 심하게 패괴된 사람, 과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정복되어 모두가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복된 증거이다. 너희가 비록 베드로는 아니지만 베드로의 모습을 살아 낼 수 있고, 베드로의 증거와 욥의 증거를 할 수 있다. 그것은 가장 큰 증거이다. 마지막으로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버림받은 모압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도 아니고 그런 자질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욥도 아니고, 바울만큼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고 헌신할 의지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뒤떨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게 해 드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런 자질과 조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족게 해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할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압의 후손이고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운명으로 정해져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과 인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만족게 해 드리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너에게 이런 의지가 있다면 네가 이미 정복된 증거가 있음을 말해 준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정복 사역의 실상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02)

정복 사역으로 얻으려는 성과는 주로 사람의 욕이 거역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사상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고,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의지를 다지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성격이나 욕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정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사람의 사상, 의식, 이성, 즉 너의 모든 정신적 면모에 변화가 생겼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정복된 것이다. 순종하려는 의지가 생기고, 사상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 아무런 관념도 불순한 의도도 없어지고,

정상적인 사유를 가질 수 있다면, 다시 말해 오직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완전히 정복된 자이다. 많은 종교인이 평생 적지 않은 고난을 받았다. 그들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거나 십자가를 졌으며, 심지어는 죽기 전까지 고난을 받고 인내했다! 어떤 이는 죽는 날 아침까지도 금식했고, 평생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좋은 옷도 입지 않았으며, 고난받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들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거나 욕을 버릴 수 있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은 그들의 정신은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그들의 사상, 관념, 정신적 면모, 나아가 그들의 옛 성품은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에 대해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전통적 관념 속의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으려는 그들의 의지는 그들의 열정과 인성의 좋은 성격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다. 무작정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고 고난만 받았을 뿐 전혀 분별할 줄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길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는 더더욱 알지 못했다. 그들이 섬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해 내거나 타인에게서 들었거나 혹은 글에서 찾아낸 전설 속의 하나님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풍부한 상상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았고, 하나님이 하려는 사역을 담당하고자 했다. 그들의 섬김은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길 수 있는 자가 거의 없었다. 얼마나 고난을 달게 받았든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섬김의 관점과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연단, 온전케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또 진리로 그들을 이끌어 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구주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구주에 대해서는 전설과 풍문만 들었을 뿐 구주를 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섬김은 소경이 제 아버지를 모시듯 두 눈을 감고 아무렇게나 섬긴 것에 불과했다. 그런 섬김이 최종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또 누가 칭찬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섬김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모두 인위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타고난 천성과 기호대로 섬겼는데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를 본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길 수 있는지 모르고 지내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즉 늙어서야 깨달았다. 그러니 어떤 책망도 훈계도 받지 않고 인도자도 없는 소경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오늘날, 너희 많은 사람의 섬김도 소경의 섬김과 같지 않느냐? 심판을 받지 않고 책망 훈계를 받지 않으며 아무 변화도 없는 사람들은 모두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자들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너의 사상, 인생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새로운 변화가 없고 진정한 수확이 조금도 없다면, 너의 섬김은 영원히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이상(異象)이 없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없다면 너는 정복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네가 따르는 것도 고난받으며 금식하는 사람들처럼 아무 가치가 없다! 그들이 행한 것은 아무런 증거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섬김은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평생 고난도 받고 감옥살이도 했으며, 언제나 참으며, 사랑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중시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당하고 버림받으며 슬한 고난을 받았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순종하기는 했지만 정복되지 않았고 정복된 증거도 없었다.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에게 존재하는 낡은 사상, 낡은 관념, 종교적인 행실, 인위적인 인식, 사람의 생각은 모두 다듬어지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내면에 새로운 깨달음이 조금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는 진실하고 정확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뜻도 잘못 이해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느냐? 예전에 네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이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오직 자기 관념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즉 하나님에 대해 새롭고 참된 인식이 없고,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과 고유한 성품에 대해 알지 못하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봉건 미신 사상에 좌우되고 여전히 사람의 상상과 관념에 머물러 있다면, 너는 정복되지 못한 것이다. 지금 내가 너에게 한 많은 말은 모두 네가 인식해야 할 것들이다. 이런 인식으로 너를 이끌어 정확하고 더 새로운 인식을 심어 주려는 것이며, 또한 네가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네 내면의 낡은 관념과 진부한 인식 방법을 다듬으려는 것이다. 네가 제대로 먹고 마신다면 너의 인식 방법은 많이 바뀔 것이다. 또 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만 하면 너의 관점은 바로잡힐 것이다. 네가 한 번 또 한 번의 형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너의 낡은 사상이 점차 바뀔 것이고, 너의 낡은 사상이 철저히 바뀌면 그에 따라 너의 실행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너의 섬김도 점점 바로잡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네가 너의 삶을 바꾸고 인생에 대한 인식을 바꾸며 하나님에 대한 많은 관념을 바꿀 수 있다면, 너의 천성적인 것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을 정복함으로써 얻은 성과, 즉 사람의 변화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거나 인내하며 고난받아야 하는 것만 알고,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며, 더욱이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면, 그렇게 실행해서 어떻게 변화가 생길 수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정복 사역의 실상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03)

온전케 되는 것이란 무엇이겠느냐? 정복되는 것이란 무엇이겠느냐? 사람이 정복되고 싶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겠느냐? 온전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겠느냐? 정복하는 것과 온전케 하는 것은 모두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원래 모습을 되찾아 사탄의 패괴 성품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정복하는 것은 사람을 만드는 기초적인 사역, 즉 사람을 만드는 첫 단계 사역이고,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람을 만드는 두 번째 단계 사역이자 마무리하는 사역이다. 모든 사람은 정복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존재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만들어질 수 없다. 네가 만들어질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를 알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 그를 추구할 수 있겠느냐? 너는 그를 증거할 수 없을뿐더러 그를 만족케 할 믿음은 더더욱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제일 먼저 정복 사역을 거쳐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하지만 정복하는 것이든, 온전케 하는 것이든 모두 사람을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으로,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 중의 하나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단계 사역을 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정복된다'는 말이 듣기에 좋지는 않지만, 사실 정복하는 과정 역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네가 정복된다고 해도 네 패괴 성품이 완전히 벗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복 사역을 통해 자신의 비천한 인성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패역도 알게 된다. 비록 정복 사역의 짧은 시간 동안 너의 그것이 벗겨지거나 변화될 수는 없을지라도 네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케 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복하는 것과 온전케 하는 것은 모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또 사람이 가진 사탄의 패괴 성품을 벗겨 냄으로써 사람이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복되는 것은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는 첫 단계이자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첫 단계이며, 온전케 되는 것보다 낮은 단계의 사역일 뿐이다. 정복된 사람은 온전케 된 사람보다 생명 성품의 변화 정도가 훨씬 낮다. 정복되는 것과 온전케 되는 것의 개념이 다른 이유는 사역 단계가 다르고, 사람에게 대한 요구 기준도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을 정복하는 요구 기준은 낮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요구 기준은 높다. 온전케 된 사람은 의인이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들은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의 결정체이자 완성품으로, 비록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반면 정복된 사람은 어떠하냐? 그들은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을 인정하며,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음을 인정할 뿐이다.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심판과 형벌의 사역을 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채찍질과 연단이 모두 사람에게 이롭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이다. 그들은 이제 막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고 인생을 조금 꿰뚫어 보게 되었지만 아직도 모호하다. 다시 말해, 이제 막 인성을 조금 갖추게 된 것이다. 이는 정복됨으로써 나타난 효과다. 사람이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서면 옛 성품이 변화될 수 있고, 생명이 부단히 자라 진리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며, 세상에 염증을 느끼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을 혐오하게 된다. 특히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 분명한 인식이 생기면서 진리에 따라 살기를 원하고, 진리 추구를 목표로 삼는다. 또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으려 하고, 사람의 독선과 오만함, 방자함에 염증을 느끼며, 분수에 맞게 말하고, 일이 닳치면 분별력과 지혜를 갖고, 하나님께 충성심과 순종을 보이게 된다. 형벌과 심판을 겪을지라도 소극적이 되거나 연약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떠날 수 없다고 느끼며, 형벌과 심판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평안함, 즐거움, 기복 신앙을 추구하지 않고, 한순간의 육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모두 온전케 된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이다. 사람이 정복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정복된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모두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성육신이란 무엇이겠느냐? 그는 어떤 사역을 행했겠느냐? 그가 사역을 하는 목적과 의의는 무엇이겠느냐? 그의 그 많은 사역을 체험하고, 그가 육신으로 행하는 행사를 체험하면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정복된 사람이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육적인 즐거움을 떨쳐내야 할 때 떨쳐 내지 않으며, 예전처럼 육적인 안락을 탐하고, 형제자매 사이에 선입견이 있어도 내려놓지 못하고, 여러 가지 쉬운 실행에서도 대가를 치르지 못한다면, 이는 내가 정복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러면 내가 많은 것을 깨달았다 해도 모두 헛된 것이다. 정복된 사람은 기본적인 변화와 진입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겪으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생긴다. 비록 더 깊고 세밀한 많은 진리의 실체에 완전히 진입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 속에서 너의 육적인 즐거움이나 개인의 지위 등과 같은 얕은 진리는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다 정복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과다. 정복된 사람에게도 성품 변화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람의 옷차림이나 치장, 생활 등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관점이 바뀌며, 추구하는 목표도 명확해지고 의지도 높아진다. 정복되는 사역에서도 사람의 생명 성품은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 변화의 정도가 얕고 기초적이며 온전케 된 후의 성품 변화와 추구하는 목표에 비해 훨씬 낮을 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은 아니다. 정복 사역에서 성품에 변화가 전혀 없고 조금의 진리도 얻지 못한다면, 그런 인간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폐물이다! 정복되지 않은 사람은 온전케 될 수 없다! 사람이 정복되기만을 추구한다면 설령 정복 사역에서 성품에 상응하는 변화가 나타날지라도 완전히 온전케 될 수는 없고, 처음에 얻은 진리도 잃게 될 것이다. 정복된 사람과 온전케 된 사람의 성품 변화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정복되는 것은 기초적인 변화이자 토대이다. 이런 기본적인 변화조차 없으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인식도 없다는 증거다. 이런 인식은 심판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이 심판은 정복 사역의 주된 사역 항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전케 되는 모든 사람은 정복되는 과정을 거친 자들이며, 그 과정이 없으면 온전케 될 수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정복 사역의 실상 4>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04)

오늘 나의 이러한 경고는 너희의 생존을 위한 것이자 나의 사역을 순조롭게 펼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온 우주의 시작 사역을 더 적절하고 완벽하게 행하는 한편, 열국과 열방 사람에게 나의 말과 권병, 위엄, 심판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하는 나의 사역은 우주 전체에서 전개되는 사역의 시작이다. 지금을 말세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말세’란 한 시대를 의미하는 대명사임을 알아야 한다. 말세란 율법시대나 은혜시대처럼 한 시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마지막 때의 몇 년, 몇 달 정도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말세’는 은혜시대나 율법시대와 다르다. 말세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에서 사역한다. 이 사역은 이스라엘 밖의 각 나라와 족속의 사람을 정복하여 내 보좌 앞에 오게 함으로써 전 우주 아래의 나의 영광을 우주 궁창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즉,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인데, 땅의 모든 피조물이 나의 영광을 만방에 알리고 후세에 길이 전할 수 있게 하며, 하늘 위아래의 모든 피조물이 땅에서 얻은 내 모든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다. 말세에는 정복 사역을 한다. 백성들을 이끌고 땅의 삶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땅에서 수천 년간 겪어 온 고난의 삶을 끝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세의 사역은 이스라엘에서 했던 사역처럼 수천 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유대에서 몇 년간 사역한 후 두 번째로 성육신하기 전까지 2 천 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과도 같지 않다. 말세의 사람은 단지 말세에 육신으로 다시 나타난 구속주를 접하고, 하나님이 친히 한 사역과 말씀을 받아들였다. 말세는 예수가 유대에서 은혜시대의 사역을 전개했을 때처럼 짧은 기간으로, 2 천 년 동안 지속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말세는 전체 시대를 끝내고, 6 천 년 경륜을 마무리하며, 고난으로 점철된 인류의 인생 여정을 끝내는 때이기 때문이다. 말세는 인류 전체를 다음 시대로 인도하거나 인류의 삶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때가 아니다. 말세가 그런 것이라면 나의 경륜과 사람의 생존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만약 인류가 계속 이대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그 악마에게 모조리 잡아먹힐 것이고, 나에게 속한 영혼들도 결국에는 악마의 손에 파멸될 것이다. 나의 사역은 6 천 년뿐이며, 내가 그 악한 자에게 인류를 지배하도록 허락한 시간 역시 6 천 년뿐이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 말세에 나는 사탄을 크게 이겨 나의 모든 영광을 되찾아 올 것이며, 내게 속한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거두어들임으로써 슬픔에 빠진 영혼들을 고해에서 구해 내고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끝낼 것이다. 그 후로는 다시 땅에 성육신하지 않을 것이고, 만유를 주재하는 나의 영도 땅에서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만 땅에서 인류를 다시 창조할 것인데, 그들은 거룩한 인류이자 땅에 있는 내 신실한 성읍이다. 하지만 너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는 세상을 전부 멸하거나 인류를 전부 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완전히 정복된, 나를 사랑하는 3 분의 1의 사람들을 남겨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고,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키운 많은 소와 양, 땅의 모든 부요함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런 인류는 장차 나와 함께 영존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처럼 더럽기 그지없는 인류가 아니라 내게 얻어진 모든 사람의 집합체이다. 그들은 사탄의 파괴와 방해, 공격을 받지 않는 인류이며, 내가 사탄을 물리친 후 이 땅에서 유일하게 생존할 인류이다. 그들이 바로 오늘날 정복되고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말세에 정복되는 자들은 살아남아 영원한 복을 받을 인류이며, 내가 사탄을 물리쳤다는 유일한 증거이자 전리품이다. 그 ‘전리품’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내게 구원받은 사람들로, 나의 6 천 년 경륜의 유일한 결정체이자 커다란 열매이다. 그들은 각 나라와 각 교파, 전 우주 아래의 각 나라와 각 지역에서 온 자들로서, 민족도 언어도, 풍속도 피부색도 전부 다르다. 그들은 온 땅의 각 나라 각 교파, 나아가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마지막에 한데 모여 완전한 인류를 이루고, 사탄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집합체를 이룰 것이다. 나의 구원과 정복을 거치지 않은 인류는 모두 바닷속에 조용히 가라앉을 것이며, 내 불길에 영원히 불사름 당할 것이다. 나는 극도로 더러운 옛 인류를 멸할 것이다. 마치 애굽에서 어린양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문 인방에 어린양의 피로 표시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 두고,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의 소와 양은 전부 멸했던 것처럼 말이다. 나에게 정복된 내 가족 중의 사람 역시 내 어린양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내게 구속함을 받은, 나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냐? 이런 사람에게는 항상 나의 영광이 따르지 않더냐? 내 어린양의 살이 없는 사람들은 벌써 바닷속에 조용히 가라앉지 않았더냐? 오늘날 너희는 나를 대적하고 있다. 지금 나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말하고 있지만, 너희 마음의 강박함이 내 분노를 쌓고 있다. 너희는 자신의 육체가 받을 고통을 쌓고, 자신의 죄악으로 받을 심판을 쌓으며, 자신의 불의로 받을 내 분노를 더 많이 쌓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그 누가 내 분노의 날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누가 불의를 저지르고도 사람을 형벌하는 내 두 눈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누가 죄악을 저지르고도 나 전능자의 두 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누가 나를 대적하고도 나 전능자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는 이방 족속의 자손인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율법시대와 은혜시대에 했던 모든 말을 능가하지만 너희는 그 애굽 백성들보다 더 강박하다. 내가 편안히 사역할 때 너희는 나의 분노를 쌓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어찌 나 전능자의 날을 무사히 피할 수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육에 속한 자는 누구도 그 분노의 날을 피할 수 없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05)

너희는 나의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하고, 내게 이로운 사역을 해야 한다. 나는 너희가 깨닫지 못한 것을 모두 알려 주고, 너희에게 없는 모든 것을 내게서 얻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부족한 부분이 셀 수 없이 많다고 해도 나는 계속 너희에게 내가 해야 할 사역을 하고, 내 마지막 공훈을 베풀어 줌으로써 너희가 내게서 이로움을 얻고, 너희에게 없는, 세상 사람이 본 적 없는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사역해도 나를 아는 자가 없기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지 않았던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 주고자 한다.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본래 사람이 볼 수 없고 접촉할 수 없는 영이다.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세 단계 사역(창세·속량·궤멸)을 위해 나는 각각 다른 시기에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공개적으로 나타난 적은 없음) 나의 사역을 했다. 내가 처음으로 인간 세상에 온 것은 구속시대였다. 물론 그때는 유대 족속 가운데 왔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온 ‘하나님’을 처음 본 사람은 유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그 단계의 사역을 친히 한 까닭은 내가 입은 육신을 속죄 제물로 삼아 구속 사역을 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은혜시대의 유대인이었다. 이것이 내가 육신으로 행한 첫 번째 사역이다.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나는 사람을 정복하고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한다.

그래서 똑같이 육신에서 목양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하는 두 번째 사역이다. 마지막 두 단계 사역에서 사람들이 접한 것은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영이 아니라 영이 육신으로 실체화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또 한 번 사람이 된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티가 전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사람이 본 하나님은 남성일 뿐만 아니라 여성이기도 하니,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장 놀라워하고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오랫동안 이어진 낡은 믿음 방식은 예사롭지 않은 나의 거듭된 사역으로 깨어졌고, 사람은 놀라 어리둥절해졌다! ‘하나님’이란 성령, 그 영, 일곱 배로 강화된 영, 만유를 포함하는 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이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고 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또 남성일 뿐만 아니라 여성이기도 한데, 같은 점은 둘 다 사람에게서 났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과 사람에게서 났으나 직접 영에서 왔다는 것이다. 같은 점은 성육신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맡았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한쪽은 구속 사역이고 한쪽은 정복 사역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것은 같지만 한쪽은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구속주이고, 한쪽은 진노와 심판이 가득한 공의의 하나님이다. 한쪽은 구속 사역을 펼친 사령관이고, 한쪽은 정복 사역을 이루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한쪽은 시작이고, 한쪽은 끝이다. 한쪽은 죄 없는 육신이고, 한쪽은 구속을 완성하고 이어지는 사역을 하는, 본래 죄에 속하지 않는 육신이다. 동일한 하나의 영이지만 각각 다른 육신에 거하고 다른 곳에서 태어났으며, 수천 년의 시간 차에도 하는 사역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며,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 있다. 또한 둘 다 사람이지만 남자 아기이고, 또 여자 아기이다. 오랫동안 사람이 본 것은 영이었고, 사람이었고, 남자였으며, 또한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많은 일이었다. 그리하여 사람은 나에 대해 늘 짐작하지 못했다. 내가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 또 존재하지 않는 꿈 같기도 하여 늘 나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 네가 정말 간단한 말 한마디로 나를 요약할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 “예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은 영이고, 영은 하나님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 “예수의 형상은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너의 글재주로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분명히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남성을 만들었을 뿐, 자신의 형상대로 여성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네 말대로라면 여자는 다 내가 택한 대상이 아니며, 인류에 속하는 부류는 더더욱 아닐 것이다. 지금 너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이나? 하나님은 영이나? 하나님은 정말 남자이나? 오직 예수만이 내가 하려는 사역을 완수할 수 있느냐? 네가 이중의 하나를 택해 나의 본질을 요약한다면 너는 너무나 무지한, 충성스러운 신자에 속할 것이다. 만일 내가 성육신 사역을 한 번만 한다면 너희가 나를 규정하지 않겠느냐? 네가 정말 나를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네가 살아 있는 동안에 접했던 것만으로 정말 나에 대해 확실히 요약할 수 있겠느냐? 내가 육신으로 행한 두 차례의 사역이 모두 같은

사역이라면 너희는 또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나를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에 대해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06)

과거 두 시대의 사역 중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다른 하나는 유대에서 행해졌다. 즉, 두 단계의 사역 모두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모두 최초의 선민에게 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다. 또한, 예수가 유대에서 사역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완성하였기에 유대인의 눈에 예수는 유대인의 구속주이며, 오직 유대인의 왕이지 다른 이들의 왕이 아니었다. 또 그는 영국인이거나 미국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을 속량하는 주인이며, 이스라엘에서 그가 속량한 백성은 유대인이었다. 사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재자이자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다. 다만 예전의 두 단계 사역이 이스라엘에서 행해졌기에 사람들에게 관념이 생긴 것이다. 사람들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였고 예수는 성육신하여 유대에서 친히 사역을 전개하였으니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가 애굽 사람이나 인도 사람에게는 사역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역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저런 관념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의 범위 속에 규정해 놓았다. 그러고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민에게만 사역해야 하며, 반드시 이스라엘에서만 사역해야 한다고,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하나님에게 사역 대상도, 사역 범위도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들은 성육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더 엄히 ‘통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모두 사람의 관념이 아니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였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에서만 사역할 리 있겠느냐?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는 온 세상을 창조하였다. 6 천 년 경륜은 온 우주 아래의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영국인이든 러시아인이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창조된, 아담의 후손이다.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피조물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아담의 후손이라는 호칭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람은 모두 피조물이자 아담의 후손이며, 패괴된 아담과 하와의 후예이다. 이스라엘 사람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다 피조물인데, 다만 저주받은 피조물도 있고 축복받은 피조물도 있을 따름이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취할 점이 많았다. 처음에 그들에게 사역한 것도 그들이 가장 적게 패괴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에 비해 중국인은 많이 부족하며 뒤처졌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였고, 두 번째 단계의 사역은 유대에서만 행한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수많은 관념과 규례들이 생겼다. 사실 사람의 관념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이방으로 확장할 수 없다. 그는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언서에는 여호와와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되고 이방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되어 있다. 왜 그렇게 말했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면 사역을 확장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만 사역할 것이며, 그런 예언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예언을 한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이방 족속과 각 나라, 각 지역으로 사역을 확장할 것이다. 그는 말한 이상 반드시 행하며, 이는 그의 계획이다. 그는 본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자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역하든 유대 전역에서 사역하든, 그가 한 사역은 전 우주의 사역이고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사역이다. 오늘날, 그는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다. 즉, 이방 족속에서 그의 사역을 하지만, 이것 역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다. 이스라엘은 그가 땅에서 펼치는 사역의 거점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그가 이방에서 펼치는 사역의 거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여호와와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실현된 때가 아니냐? 이방에서 행하는 사역의 시작은 큰 붉은 용의 국가에서 전개되는 이 사역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람의 관념에 특히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서 사역한다는 것과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사역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가장 비천하고 무가치하며, 처음에 여호와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모든 지위와 가치를 잃고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피조물로서 사탄에게 침해당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창조주께 버림받는다면 이는 그의 지위가 가장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압의 후손은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낙후한 국가에서 태어났다. 그러니 의심할 여지 없이 이들은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지위가 가장 낮은 부류이다. 이들이 과거의 지위가 가장 낮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는 사역은 사람의 관념을 가장 잘 깨뜨리는 사역이며, 6 천 년 경륜에 가장 이로운 사역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사역하면 사람의 관념을 가장 잘 깨뜨릴 수 있다. 이로써 시대를 열고, 사람의 모든 관념을 깨뜨리고, 은혜시대의 사역을 끝내는 것이다. 최초의 사역은 유대에서 행해졌고, 이스라엘의 범주에서 진행되었지만, 이방에서는 시대를 여는 사역이 전개된 적이 없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의 사역은 이방 사람들, 나아가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행해진다. 바로 이 점이 사탄을 가장 수치스럽게 만드는 증거이다. 이로써 하나님은 전 우주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 ‘되었고’, 만물의 주인이 되었으며, 생기 있는 모든 것들의 경배 대상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07)

어떤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새 사역을 펼쳤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방에서 새롭게 시작하였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새로운 사역을 펼쳤다. 모압의 후손에게 행한 이러한 사역이야말로 가장 새로운 사역이 아니겠느냐? 만세와 만대 동안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역을 겪어 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들어 본 사람도 없거니와 체험해 본 사람은 더더욱 없다. 하나님의 지혜와 신묘막측함, 위대함과 거룩함이 말세의 이 사역을 통해 명확히 나타났다. 이는 사람의 관념을 깨뜨리는 더 새로운 사역이 아니겠느냐? 혹자는 ‘하나님은 모압을 저주하셨고 모압의 후손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이제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걸까?’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이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의 개라고 불렀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이들은 이방의 개일 뿐만 아니라 멸망의 자식이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는 말이다. 최초에 이들은 이스라엘 범위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않으며, 이방으로 쫓겨났으니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시대를 여는 사역을 한 것이다. 이들이 패괴된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무런 선택도, 목적도 없이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들에게 행하는 사역 역시 피조물에게 행하는 사역이다. 노아가 피조물이었듯, 노아의 후손 역시 피조물이며, 하늘 아래 육에 속한 자는 모두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이지 저주받은 피조물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경영 사역은 저주를 받지 않은 선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피조물에게 사역을 행하기로 한 이상, 반드시 이룬다. 그는 자신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사역하기 때문에 모든 규례에서 벗어나 사역한다. 그 대상이 저주받은 자든, 형벌받은 자든, 축복받은 자든 상관하지 않는다! 유대인도 훌륭하고 이스라엘 선민 역시 팬찮다. 자질이 뛰어나고 인성 또한 좋다. 처음에 여호와와는 그들에게서 사역을 전개해 최초의 사역을 행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들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 사역한다면 의미가 없다. 그들 역시 피조물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이 단계 사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을 정복할 수도 없고 모든 피조물을 설득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사역의 대상을 큰 붉은 용 국가의 사람들로 바꾼 의의가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큰 의의는 시대를 열고 모든 규례와 사람의 온갖 관념을 깨뜨리며, 은혜시대의 사역을 끝내는 데에 있다. 오늘날의 사역을 예전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한다면, 6 천 년 경륜이 끝날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세에 성육신하여 이방의 큰 붉은 용 국가에서 그가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라는 사역을 완성하였고, 모든 경영 사역을 완전케 하였으며, 모든 경영의 중심 사역을 큰 붉은 용 국가에서 끝냈다. 3 단계 사역의 핵심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즉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 단계의 사역은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은 의미 없거나 가치 없는 사역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번 사역은 시대를 열고 예전 두 시대를 끝내는 한편, 사람의 모든 관념과 하나님을 믿는 낡은 방법, 그리고 고루한 인식법을 깨뜨렸다. 하나님은 예전의 두 시대에는 사람의 각기 다른 관념에 따라 사역하였지만, 이번에는 사람의 관념을 철저히 깨뜨리고 이를 통해 사람을 철저히 정복할 것이다. 모압의 후손을 정복함으로써, 그리고 모압의 후손에게 사역함으로써 전

우주의 사람을 정복할 것이다. 이것이 이번 사역의 가장 큰 의의이자,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다. 이제 너는 자신의 신분과 가치가 보잘것없음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과 약속을 받았다고 여길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크나큰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한 일이라고 여길 것이다. 예전 두 단계의 사역은 모두 이스라엘에서 행해졌다. 만약 말세의 사역마저 이스라엘 사람에게 행한다면, 모든 피조물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길 것이며, 전체 경륜 또한 결실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두 단계 사역을 했지만, 그 기간에 이방에서 새로운 사역이나 시대를 여는 사역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대를 여는 사역을 먼저 이방, 그것도 모압의 후손에게 행했으며, 이로써 전체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사람에게 관념으로 자리 잡은 모든 인식은 하나님께 깨어져 어느 하나 남지 않을 것이며, 사람의 관념과 낡은 인식법은 정복 사역으로 모조리 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규례나 낡은 것이 전혀 없으며, 그의 사역은 아무런 매임도 없이 자유롭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 줄 것이다. 그는 어떻게 해도 옳다. 그가 피조물에게 행하는 사역이라면 너는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 또한, 그가 하는 사역은 모두 의의가 있다. 그는 사람의 선택이나 관념에 따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과 지혜에 따라 사역한다. 그의 사역에 이로우면 그대로 행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어렵었다! 그는 사역의 의의와 목적에 따라 사역할 대상과 지역을 선택하지, 과거의 규례나 낡은 공식에 따라 사역하지 않는다. 그는 사역의 의의에 따라 사역을 계획하여 궁극적으로 참된 결실을 거두고 소기의 목적을 이룬다. 지금 네가 이런 점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사역은 네게서 결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08)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 방해로 받겠느냐? 누가 그것을 안 적이 있더냐? 짙은 미신 색채가 사람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알 수 있겠느냐? 미개한 교육 수준은 경박하고 또 터무니없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전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얼굴을 맞대고 하나하나 말해 준다 한들, 떠먹여 준다 한들, 사람이 어찌 이해하겠느냐? 어떨 때는 쇠귀에 경 읽기가 따로 없다. 아무리 말해도 반응이 없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찌 애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토록 ‘유구한^[1] 고대 문화와 역사, 그리고 지식’이 뜻밖에도 이러한 폐물을 육성했다! 그따위가 무슨 고대 문화, 귀중한 유산이란 말이나! 전부 쓸모없는 폐품들이다! 오래전부터 썩어 문드러져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그것들을 더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법을 가르쳤고, ‘차근차근 진행되는^[2]’ 국가의 교육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거역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은 상당히 힘들고, 하나님이

땅에서 하는 때 단계의 사역은 모두 하나님을 난처하게 했다. 땅에서의 사역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하나님이 땅에서 하는 사역의 발걸음은 너무나 험난하다.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 미숙함, 무지함, 그리고 사람의 모든 것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은 것이 없고, 주도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이 없다. 사람은 마치 ‘종이호랑이’ 같아서 감히 건드리지도, 언짢게 하지도 못한다. 가볍게 부딪치기만 해도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혹은 쓰러지고 길을 잃는다. 사람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옛병이 도지거나 하나님을 거들떠보지 않거나 혹은 ‘개돼지’ 부모의 품으로 달려가 그것들의 몸에 있는 오물을 즐기는 것 같다. 이 얼마나 큰 장애물이나! 하나님의 사역은 거의 걸음마다 시험이며, 하나님은 거의 매번 크나큰 위험을 감수하며 사역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곡하고 뜻깊으며 악의가 없지만,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원하더냐? 누가 완전히 복종하기를 원하더냐?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만 할 뿐이다. 사람을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람의 생명을 위해 초조해하며, 사람의 연약함을 헤아리고 있다. 모든 사역과 모든 말씀에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늘 진퇴양난이고 밤낮으로 사람의 연약함과 패역, 미숙함, 유약함 등을 생각하며 노심초사하는데, 이것을 누가 알고 있더냐? 이것을 누구에게 털어놓겠느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늘 사람의 죄를 증오하고, 사람의 짓대 없음과 유약함을 미워하지만, 또 늘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 졸이고, 사람의 앞으로의 길을 생각한다. 또한, 사람의 언행을 보며 긍휼이 가득 하지만 또 분노로 가득 차기도 하고, 늘 사람을 보면서 가슴 아파한다. 무고한 사람들이 이미 무감각해졌는데 굳이 그들을 힘들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유약한 사람들은 이미 의지력이 없는데 굳이 그들에게 분노를 쏟을 이유가 있겠느냐?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에게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굳이 그들의 패역을 훈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위협을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사람은 결국 연약한 존재이니 어쩔 수 없이 분노를 가슴 깊은 곳에 묻고 사람이 천천히 반성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류는 극도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늙은 마왕’에게 짓밟혔으면서도 조금도 지각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께 대적하거나 미지근한 태도를 보인다. 많은 말씀을 했지만, 누가 진지하게 대했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초조해하거나 갈급해 하지 않으며, ‘늙은 마귀’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음부와 지옥에서 살면서 ‘바닷속 궁전’에서 살고 있다고 여기고, ‘큰 붉은 용’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국가의 ‘은총¹³⁾’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며,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서도 육체의 뛰어난 ‘기예’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불결하고 천박한 머저리들! 비참한 불행을 맛당뜨리고도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 어두운 사회에서는 언제나 화불단행¹⁴⁾임에도 깨닫지 못한다. 자기를 후대하는 것과 노예의 성품은 언제쯤 벗어던질 것이냐? 어째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냐? 이러한 압박과 고난을 모두 묵묵히 받아들이겠느냐? 설마 언젠가는 흑암을 광명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 왜곡된 정의와 진리를 되찾아 오고 싶지 않단 말이나? 진리를 저버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겠느냐? 억울함을 기꺼이 참아 넘기겠느냐? 기꺼이 노예가 되겠느냐? 기꺼이 망국노들과 함께 하나님의 손에 멸망을 당하겠느냐?

너의 의지는 어디에 있느냐? 너의 기개는 어디에 있느냐? 너의 존엄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인격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진정 너의 일생을 ‘큰 붉은 용’이라는 마왕을 위해 기꺼이 간뇌도지¹⁵할 것이냐? 너는 진정 너의 이번 생을 그것에게 시달리다 마감할 것이냐? 깊은 물은 혼돈하고 어두우며, 백성은 하늘과 땅을 원망하고 도탄에 빠져 있는데, 어느 누가 빛을 볼 날이 있겠느냐? 미약하기만 한 사람이 어찌 이 잔인한 폭군 마귀와 겨룰 수 있겠느냐? 어찌하여 하루빨리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냐? 아직도 망설이고 있으면, 언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무런 목표도 없이 압제를 받게 되면 결국 이번 생을 헛되이 보내게 될 텐데 굳이 총총히 왔다가 총총히 갈 필요가 있겠느냐? 어찌하여 귀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남겨 하나님께 바치지 않느냐? 천고의 원한을 모두 잊은 것이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역과 진입 8> 중에서

[1] 유구한[悠遠]: 본문에서는 풍자의 의미로 사용됨.

[2] 차근차근 진행되는[循循善誘]: 본문에서는 풍자의 의미로 사용됨.

[3] 은총(恩寵): 여기에서는 목석처럼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풍자함.

[4] 화불단행(禍不單行): 본문에서는 큰 붉은 용의 땅에 태어나 빛을 볼 날이 없음을 가리킴.

[5] 간뇌도지(肝腦塗地): 본문에서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됨.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09)

오늘날 가야 하는 길은 힘든 길이다. 그 길은 또한 얻기 힘든 길이며 천고를 통틀어 흔하게 찾아오는 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육체가 사람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생각해 보았겠느냐? 오늘날의 사역이 봄비처럼 귀하고 또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처럼 중하지만, 사람이 오늘날 그가 행하는 사역의 근본 취지를 알지 못하고 인류의 본질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귀하고 중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육은 본래 인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육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사람은 아무도 꿰뚫어 보지 못한다. 하지만 너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창조주는 창조된 사람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사람을 창조할 때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킬 것이며, 사람에게 불어넣었던 숨결을 완전히 거두어들이고 사람의 뼈와 살까지도 거두어 그것을 창조한 ‘주’께 돌려줄 것이다. 또한 인류를 철저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바꾸는 한편, 본래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신의 유업을 모두 거두어들여 다시는 인류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원래 인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이 모든 것을 거두어들임은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인류를 새롭게 바꾸려는 것이다. 이것이 합리적인, 사람의 종착지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처럼 육을 형벌한 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파멸된 육체의 시신이

아니라 인류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속한 원래 성분이기에 그는 인류를 멸절시키거나 사람의 육을 완전히 없애 버리지는 않는다. 사람의 육은 사람의 사유 재산이 아니라 인류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부속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어찌 사람의 육을 멸절시키는 것을 ‘기쁨’으로 삼겠느냐? 지금 너는 진정으로 동전 한 닢의 가치도 안 되는 네 육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느냐? 네가 말세 사역에 대해 ‘30%’(여기에서 30%란 오늘날 성령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고, 말세에 하나님이 한 말씀 사역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만 꿰뚫어 보아도 지금처럼 계속 오랫동안 패괴된 너의 그 육을 ‘보살피고’ ‘효성스럽게 공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류가 오늘날까지 발전한 것은 이미 전례 없는 상황이며, 더 이상 역사의 수레바퀴처럼 계속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너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너의 곰팡이가 핀 육은 이미 파리가 득실거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발전시킨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병어리 같은 말세의 시계가 다시 소리 나게 하고 계속 시침을 따라 돌아가게 할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 자옥한 안개 같은 세상을 새로이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네 육이 다시 강산을 뒤흔들 수 있겠느냐? 네 육이 가진 얼마 안 되는 ‘기능’을 통해 과연 네가 원래부터 동경하던 인류 세계로 돌려놓을 수 있겠느냐? 너는 정말 너의 후손이 모두 ‘사람’이 되도록 교육할 수 있겠느냐? 이제 알았느냐? 너의 육은 도대체 무엇에 속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고 변화시키는 본뜻은 너에게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려는 것도, 사람의 육에 안식을 가져다주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의 증거를 위한 것이다. 또 사람이 미래에 더 좋은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인류가 일찍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너의 육을 위한 것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 경영의 밑천이지만, 사람의 육은 그저 부속물(‘사람’은 모두 영과 형체가 있지만 육은 그저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즉, 육은 본래 경륜 중의 도구에 불과하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케 하고 만들고 얻기 위해 사람의 육에 칼을 휘두르고 매질을 하고 끝없는 고난과 불사름, 무자비한 심판, 형벌, 저주, 끝없는 시련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의 내막과 실정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육을 대상으로 하며, 적대하는 창끝은 모두 무자비하게 사람의 ‘육’을 향한다(사람은 본래 무고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영광과 증거를 위함이고, 그의 경영을 위함이다. 그의 사역은 사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체 계획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창조한 그의 원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체험한 것 중 90%는 아마 고난과 불의 시련일 것이고, 사람의 육이 바라는 달콤하고 아름다운 나날은 아주 적거나 심지어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의 육이 함께 아름다운 밤을 보내는 행복한 순간은 더더욱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육은 본래 더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이 보고 누리게 되는 것은 모두 사람의 뜻과 맞지 않는, 마치 정상적인 이성이 없는 듯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맞지 않고’, 사람이 거스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원수를 증오하는 공의로운 성품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성품을 사람들에게 보여 줄 것이고, 6 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사탄과 싸우는 사역, 즉 전 인류를 구원(원문: 救贖)하고 사탄을 멸하는 사역을 끝마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람을 경영하는 근본 취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10)

말세가 도래하면서 각국이 불안정하고 정치가 혼란하며, 기근, 전염병, 수해, 가뭄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인간 세상에 재난이 있고 하늘도 재앙을 내린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 하지만 사람의 눈에 세상은 화려하기만 하다. 세상이 화려해질수록 사람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사기술과 사악한 술수를 부리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만약 네가 진취적이지 않고 꿈도 없고 참도에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너는 이런 죄악의 파도에 휩쓸려 가고 말 것이다. 중국이라는 이 나라는 가장 낙후되고 큰 붉은 용이 파리를 뜯 곳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사악한 술수를 행하는 자들이 가장 많고 사당이 가장 많다. 또한 더러운 귀신이 무리를 지어 사는 곳이기도 하다. 너는 그것에게서 태어났고, 그것에게 교육과 영향을 받았으며, 그것에 의해 패괴되었고 그것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하지만 각성한 후에 그것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얻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 단계의 사역이 매우 의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역을 하고 이렇게 많은 말을 하여 결국 너희를 완전히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는 사역이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얻는 '전리품'이다. 너희들이 좋아질수록 교회 생활도 점점 더 좋아지고 큰 붉은 용도 점점 무너지게 된다. 이것은 모두 영계의 일이고 영계의 싸움이다.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면 사탄은 수치를 당하고 무너진다. 그래서 이 사역이 대단한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역을 하여 이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한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거룩한 땅에서 살고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며 빛의 인솔과 인도가 있으면 너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너희가 먹고 입는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과 다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의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그들은 단지 '조상의 유산'과 '민족적 기개'만 누릴 뿐 그 어떤 인간미도 없다! 너희들의 차림새와 언행은 모두 그들과 다르다. 궁극적으로 너희는 불결한 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는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매일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늘 신중해야 한다. 더러운 땅에서 살아도 더러움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으며, 크나큰 보호를 받았다. 이 황토의 땅에서 너희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니 너희는 누구보다 복받은 사람이 아니냐? 너는 피조물이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해야 한다. 네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더러운 육체 속에서 살고 있다면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 된 것이 아니냐? 네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너는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작은 고난을 마땅히 기쁘고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욕이나 베드로처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사람은 세상에서 마귀의 옷을 입고,

마귀가 주는 밥을 먹으며, 마귀의 밑에서 일을 하고 충성하면서 마귀에게 짓밟혀 온몸이 더러워졌다. 네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참도도 얻지 못한다면, 그렇게 평생을 살아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희는 바른길을 추구하고, 진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큰 붉은 용 나라에서 펼쳐 일어난 너희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이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실행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11)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사역은 너희를 정상 인성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새 시대를 여는 사역이자 사람을 새 시대의 삶으로 이끄는 사역이다.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해 온 사역은 내가 직접 너희 가운데서 펼치고 전개했으며, 내가 직접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알려 주었고, 너희에게 없는 것을 전부 베풀어 주었다. 이 모든 사역이 너희에게는 생명의 공급이며, 또한 너희를 정상 인성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적으로 말세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이 모든 사역은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탄을 두고 말하자면, 내가 말씀이 육신 된 것은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고 있는 사역은 현시점의 공급이자 즉각적인 구원이다. 하지만 이 짧고 제한된 몇 년 동안 모든 진리와 생명의 도, 나아가 이후의 사역까지 전부 알려 준다면, 너희는 앞으로 충분히 정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모든 말은 다 너희에게 하는 유일한 부탁이다. 내게 다른 부탁은 없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이 모든 말이 바로 너희에게 하는 부탁이다. 현재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의 대부분을 체험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말들에 내포된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언젠가 너희는 오늘의 말대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들이 오늘은 너희에게 이상으로 자리 잡히고, 내일은 너희들의 의지처가 될 것이다. 또한 오늘은 너희에게 생명의 공급이 되고, 앞으로는 너희에게 부탁이 될 것인데, 가장 좋은 부탁이 될 것이다. 내가 땅에서 사역하는 시간은 어디까지나 너희가 나의 말을 체험하는 시간만큼 길지 않기에는 나는 그저 사역을 완성할 뿐이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추구하는 자들이므로 기나긴 생명의 여정이 필요하다. 많은 일을 겪은 후에야 생명의 도를 완전히 얻고, 오늘 내가 한 말들에 내포된 진정한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너희의 손에는 내가 한 말과 내가 맡긴 사명이 있다. 나는 맡겨야 할 사명을 모두 맡겼으니, 그 결과가 어떻든 말씀 사역은 끝까지 한 셈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네가 생각한 것처럼 반드시 너를 어느 수준까지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의 관념대로 일하지 않는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실행 7>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12)

하나님은 말세에 성육신하여 자신이 해야 할 사역, 말씀하는 직분을 이행하고 있다. 그가 친히 사람들 가운데 와서 사역하는 목적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을 온전케 하는 데 있다. 창세 때부터 오늘날까지 오직 말세에만 이런 사역을 하고, 말세에만 성육신으로 이처럼 대규모의 사역을 한다. 그는 이 세상 사람이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감내하며, 위대한 하나님에서 자신을 낮추어 평범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자신의 사역을 전혀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전혀 망치지 않았다. 그는 원래 계획해 놓았던 사역을 하고 있다. 이번에 성육신한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는 그가 온전케 한 사람을 직접 보고자 하고, 또한 그가 온전케 한 사람이 그를 증거하는 것을 직접 보고자 한다. 온전케 될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이들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는 목적은 이들을 얻고, 이들이 그를 위해 하는 증거를 얻으며, 이들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그는 의미나 가치가 없는 사역은 하지 않는다. 그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는 목적은 자신이 온전케 하고자 하는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악인들을 도태시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악인들 때문에 이렇게 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그에 의해 온전케 될 극소수의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가 한 사역과 말씀, 그가 열어 준 비밀, 그의 심판과 형벌은 모두 이 극소수의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는 악인들 때문에 성육신한 것이 아니며, 그들 때문에 크게 화를 내지도 않는다. 그는 온전케 될 사람들을 위해 진리를 말하고, 진입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온전케 될 사람들 때문에 성육신하였고, 그들을 위해 그의 약속과 축복을 베풀었다. 그가 말한 진리, 진입, 인간적인 삶은 악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악인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온전케 될 사람들에게 모든 진리를 베풀고자 한다. 그러나 사역상의 필요로 악인들도 잠시나마 그의 풍성함을 누리게 한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흠족게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는 모두 악인이다. 이들은 다 온전케 될 수 없는 자들이며, 하나님께 미움받고 버림받을 자들이다. 반대로 진리를 실행하여 하나님을 흠족게 하는 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오롯이 자신을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하는 사역도 이들을 위한 것이다. 그가 말씀하는 진리는 기꺼이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하지 않는다. 식견을 넓히고 분별력을 키우라는 말은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이들을 향해 한 말이며, 온전케 된다는 말 역시 이들에게 하는 말이다. 성령의 역사는 진리를 기꺼이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지혜가 있고 인성이 있다는 것도 모두 기꺼이 진리를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본성이 너무 악해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진리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깨닫는 것은 그저 이치와 글귀이고, 텅 빈 이론에 불과하여 그들의 생명 진입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얻지 못하며, 하나님께 정죄받는 사람들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13)

정복 사역을 하는 주목적은 사람을 정결케 하여 진리가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깨달은 진리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에게 정복 사역을 하는 것은 가장 의의 있다. 너희는 어둠의 권세 아래에 떨어졌고 게다가 심각한 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이 사역을 하는 목적은 너희가 사람의 본성을 깨달아 진리를 살아 내게 하는 것이다. 온전케 되는 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만약 이번 단계에서 온전케 하는 사역만 한다면 영국이든,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어느 국가의 사람에게 하든 상관없지만, 정복 사역을 하려면 다른 선택이 필요하다. 정복 사역의 첫 단계는 단기적인 것이고, 이를 통해 사탄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전 우주를 정복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정복 사역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믿는 피조물이라면 누구나 온전케 될 수 있다. 온전케 되는 것은 사람이 오랜 시간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복되는 것은 다르다. 정복 대상의 표본, 모형은 반드시 가장 뒤처지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이어야 하고, 가장 미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또 하나님을 가장 심하게 거역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람만이 정복된 간증을 할 수 있다. 정복 사역은 주로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지만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다. 정복된 간증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정복 사역을 이곳에서, 너희에게 하게 되었다. 이는 정복된 간증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정복된 사람을 통해 사탄을 부끄럽게 만드는 목적을 달성한다. 정복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형벌, 심판, 저주, 폭로인데 공의로운 성품으로 사람을 정복한다.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진심으로 탄복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의 실제와 말씀의 권병으로 사람을 정복하여 진심으로 탄복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정복되는 것이다. 온전케 된 사람은 정복된 후에 순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 사역에 대한 인식이 있고 성품이 변화되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가며, 진리를 충분히 갖추고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줄 알며,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자신만의 굳센 의지가 있다. 온전케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체험을 통해 진리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이 생긴 사람이고, 정복된 사람은 진리를 알지만 진리의 참뜻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정복된 후 사람이 순종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순종은 심판을 통해 얻은 성과이다. 그러나 많은 진리의 참뜻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이다.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진리에 진입하지 못하고, 진리를 알기만 할 뿐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온전케 되는 사람에게 행하는 사역에는 형벌도 있고 심판도 있으며 생명 공급도 따른다. 진리 진입을 중시하는 사람은 온전케 될 사람이다. 온전케 된 사람과 정복된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진리에 진입했는지에 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진입하고, 진리를 살아 낸 사람은 온전케 된 사람이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 진리를 살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만약 이런 사람이 지금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그는 정복된 사람인

것이다. 만약 정복된 사람이 진리를 찾지 않고, 따르고는 있지만 진리를 살아 내지 못하고, 진리를 듣고 보기만 하고 진리를 살아 내는 것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온전케 될 수 없다. 온전케 된 사람은 온전케 되는 경로 중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진리를 실행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여 온전케 된 것이다. 정복 사역이 끝나기 전에 끝까지 따라온 자는 정복된 자라 할 수는 있지만 온전케 된 자라고 할 수는 없다. 온전케 된 사람이란 정복 사역이 끝난 후에 진리를 추구하여 하나님께 얻어진 사람이며, 정복 사역이 끝난 후 환난에서 굳건히 서고 진리를 살아 낸 사람이다. 정복되는 것과 온전케 되는 것은 사역의 절차 및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진입한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서지 못한 자, 즉 진리가 없는 자는 결국 도태될 것이다. 진리가 있는 자, 진리를 살아 낸 자만이 하나님께 완전히 얻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베드로처럼 사는 사람은 모두 온전케 된 사람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복된 사람이다. 정복된 자에게는 저주, 형벌, 진노의 사역을 하고, 공의와 저주가 임하게 하며,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내면의 패괴 성품을 들추어내어 스스로 알고 진심으로 탄복하게 만든다. 사람이 완전히 순종하게 될 때 정복 사역은 끝이 난다. 설령 대부분 사람이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더라도 정복 사역은 끝이 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온전케 된 사람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14)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온전케 하는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모두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앎을 기반으로 생명 성품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사람은 훈계와 연단을 겪을수록 힘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사역 절차가 많을수록 더 온전케 된다. 오늘날의 체험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단계 사역이 사람의 고정 관념에 상반되며, 모두 사람의 사유로는 이룰 수 없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함에 있어, 모든 면이 사람의 고정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네가 연약할 때 음성을 발하고 말씀을 한다. 이렇게 해야 네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다. 하나님은 네 고정 관념을 깨 네가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게 한다. 이렇게 해야 네가 패괴를 벗어 버릴 수 있다. 오늘날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신성으로 사역하기도 하고 정상 인성으로 사역하기도 한다. 너는 하나님이 한 모든 사역을 부정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정상 인성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행하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며, 그가 아무리 정상적이라 해도 순종하고 알 수 있어야 한다. 네게 실제 체험이 있어야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어떤 관념도 없이 끝까지 따를 수 있다. 하나님은 지혜롭게 사역하며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또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 그의 말씀은 너의 치명적인 약점을 찌를 수 있지만,

그는 또 자신의 위엄 있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네가 그를 증거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묘한 행사이다.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사람의 사고로는 이를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육에 속한 사람에게 어떤 패괴가 있는지, 어떤 본질적인 것이 있는지를 드러내어 사람을 몹시 부끄럽게 한다.

하나님이 심판과 형벌의 사역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의 증거를 위한 것이다. 그가 사람의 패괴 성품을 심판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의 거스를 수 없는 공의 성품을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낡은 인식에서 새로운 인식으로 바꿀 수도 없다. 그의 증거와 그의 경영을 위해, 그는 자신의 전부를 사람들에게 공개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의 공개적인 현현으로 그를 알게 하고, 성품 변화를 이루며, 그를 힘 있게 증거하게 한다. 사람의 성품은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변화된다.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도 없다. 사람의 성품 변화는 사람이 이미 사탄의 속박과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 사역의 모델과 표본이 되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으며,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하며 사람들에게 한 요구는 바로 그를 알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증거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의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사역을 알라는 것이요, 사람의 고정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그의 모든 말씀과 사역에 순종하라는 것이요, 사람을 구원하는 그의 모든 사역과 사람을 정복하는 모든 행사를 증거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런 증거야말로 정확하고 실제적이며, 사탄을 수치스럽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의 심판과 형벌, 책망과 훈계를 겪고 그를 알게 된 자를 통해 그를 증거하게 한다. 그는 사탄에 의해 패괴된 자를 통해 그를 증거하게 하고, 성품 변화로 그의 축복을 받은 자를 통해 그를 증거하게 한다. 그는 사람의 입에 발린 찬양을 바라지 않고, 그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탄의 부류가 그를 찬양하고 증거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성품이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자격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고의로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15)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던 장면을 돌이켜 보아라. 그리고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라. 니느웨 성의 백성이 어떻게 베옷을 입고 채 위에 앉아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는지 생각해 보아라. 2 천 년 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의 결말을 돌이켜 보아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쫓겨나 세계 각국으로 도망갔다. 많은 사람이 살육당하고 온 민족이 유례없는 망국의 고통을 겪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렀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고, 모든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정죄하고 저버렸기에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통치자가 국가와 민족에게 안긴 쓰라린 결과이자 재앙이었다.

오늘날 하나님은 또다시 인간 세상에 내려와 그의 사역을 하고 있다. 그의 첫 사역 장소는 독재자들이 집결되어 있는, 무신론의 견고한 보루, 중국이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 무리의 사람을 얻었으나 그동안 중국 집권당의 집요한 추적으로 모진 고난을 겪어 머리 둘 곳도, 몸을 기탁할 곳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사역, 즉 음성을 발하고 복음을 확장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전능은 아무도 헤아릴 수 없다. 중국처럼 하나님을 원수로 보는 국가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멈춘 적이 없으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과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였다. 하나님은 최대한 인류의 모든 구성원을 구원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은 어떤 국가도,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역을 저지하고, 그의 말씀에 대적하며, 그의 계획을 방해하고 망치려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자를 지옥에 처넣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국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국가를 멸망시킬 것이다. 또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민족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민족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이다. 나는 모든 민족과 국가, 모든 업계의 사람에게 전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인류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라고 충고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며 지고하신 유일한 경배 대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의 후예가 여호와와의 약속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산 것과 같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게 되도록 말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거침없는 거센 파도와 같아서 아무도 그를 만류할 수 없고, 그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 오직 귀 기울여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찾으며 갈망하는 자만이 그의 발걸음을 따르고 그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의 재앙과 응분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은 전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16)

하나님은 창세 이후 그의 경영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경영 사역의 핵심이 바로 ‘사람’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의 경영 사역은 1분 1초나 눈 깜빡할 사이, 또는 1~2년이 아니라 수천 년에 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해와 달, 각종 생물, 인류의 양식과 생활 환경 같은, 사람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더 많은 것들을 창조해야 했다. 이것이 하나님 경영의 시작이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인류를 사탄에게 내주었고, 그리하여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점차 하나님의 첫 번째 시대 사역, 즉 율법시대의 이야기가

생겨나게 되었다.... 율법시대가 이어진 수천 년 동안 율법시대의 인도에 익숙해지고 무심해진 인류는 차츰 하나님의 보살핌에서 멀어졌다. 그로 인해 율법을 지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보호가 사라졌고, 그들은 성전에서 제단을 지키며 생활할 뿐이었다. 사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들을 떠난 지 오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율법을 고수하며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는 자신들만이 여호와의 백성이자 선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조용히 그들을 버리고 떠났다....

하나님은 사역할 때 항상 한 곳에서 조용히 떠나 또 다른 곳에서 소리 없이 새로 개척한 사역을 하는데, 둔감한 사람이 보기에는 천일야화와도 같은 이야기일 뿐이다. 사람은 항상 낡은 것을 둘도 없는 보물로 여기고, 낡설고 새로운 것을 보면 원수나 눈엣가시처럼 여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사역을 하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만물 가운데서 가장 늦게 그 사실을 아는 존재는 사람뿐이다.

여호와의 율법시대 사역에 이어 하나님은 또 예외 없이 두 번째의 새 사역, 육신을 입는 사역을 시작했다. 즉, 성육신하여 사람으로 10 년, 20 년이란 오랜 시간을 보내며 신자들 가운데서 사역하고 말씀한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자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를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인정했다. ... 하나님의 두 번째 사역이 완성되었을 때, 즉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죄에서(사탄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오는 사역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인류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았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사람의 죄가 더 이상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고, 사탄이 사람을 참소하는 빌미가 되지 못했다. 하나님 자신이 실제적인 사역을 하고, 죄 있는 육신의 형상이 되어 미리 겪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속죄 제물이었다. 그렇게 해서 인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육신, 즉 죄 있는 육신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속량되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사탄에게 잡혀갔던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하나님께 구원받게 되었다. 당연히 이 사역은 율법시대보다 진일보하고 한층 더 깊어진 하나님의 경영이었다.

하나님의 경영이란 이런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이고, 무엇이 창조주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어째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이런 인류를 사탄에게 내주어 사탄이 제멋대로 패괴시키게 한 뒤, 다시 사탄의 손아귀에서 단계적으로 빼앗아 옴으로써 인류가 완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탄을 저버릴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이다. 이는 어쩌면 신화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어쩌면 이해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사람이 이것을 신화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수천 년 동안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나아가 이 우주 궁창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생겨났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람의 육안으로는 이 물질세계 뒤에 숨어 있는 더 기묘하고 무서운 세계를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의의와 하나님의 경영 사역의 의의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인류를 원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류가 사탄에 의해 패괴되지 않은 아담과 하와 같은 인류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경영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는 인류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인류는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으나 더 이상 사탄을 아버지로 삼지 않고, 사탄의 추악한 몰골을 간파하여 저버린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고, 추함과 거룩함의 차이를 알며, 하나님의 위대함과 사탄의 사악함 역시 깨닫는다. 그런 인류는 더 이상 사탄을 위해 힘쓰지 않고, 사탄에게 절하지도 사탄을 섬기지도 않는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얻어진 인류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류 경영 사역의 의의이다. 이 경영 사역에서 인류는 사탄이 패괴시킨 대상인 동시에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이며, 또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가지려고 다투는 산물이다. 하나님이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차츰차츰 빼앗아 오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진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는 더 현실적이지만 사람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사역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채찍이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면모 또한 사람에게 더 뚜렷하게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인류는 속량받은 뒤 정식으로 하나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편하게 누리며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인류는 오히려 하나님의 ‘호된 공격’을 받았다. 이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와 같은 세례를 ‘누려야’ 했다. 이런 대우를 받자 사람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가 비싼 대가로 사 온 양인데, 하나님은 어째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걸까? 설마 하나님이 그분 방식으로 나를 조롱하고 드러내시려는 걸까?’ 그렇게 수년을 겪으며 보냈고, 인류는 연단과 형벌의 고난을 통해 풍상고초를 다 겪어 본 사람으로 거듭났다. 비록 과거의 ‘광채’와 ‘낭만’은 잃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됨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사람을 구원한 그 고심을 알게 되었다. 사람은 차츰 자신의 야만성을 증오하는 한편, 길들이기 어렵고 하나님을 수없이 오해하며 하나님께 지나치게 바랐던 스스로를 증오하기 시작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지나간 일은 사람이 참회하는 기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은 사람이 새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사람은 날마다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몸이 건강해지면서 우뚝 일어나 전능자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줄곧 내 곁에 있었다. 그의 미소와 아름다운 얼굴은 여전히 그렇게 감동적이었다. 그의 마음은 늘 그렇게 자신이 만든 인류를 염려하고 있었으며, 그의 두 손은 늘 처음처럼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사람은 마치 에덴동산에 있던 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의 사람은 더 이상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더 이상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다. 또한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보며 가장 귀한 제물을 바친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경영 사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활이 스며들어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고심을 이해할 수 있든 없든, 그는 쉬지 않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사역을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역이 가져다준 도움과 이익은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과 생명의 공급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겠다는 결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웃는 얼굴이 네 앞에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경영 사역의 근본 취지는 사탄에 의해 파괴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을 빼앗아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람은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17)

사람은 내가 땅에서 사역하는 근본 취지, 즉 내가 사역하여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사역의 종점에 다다르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 사람이 오늘날까지 나를 따라오고도 내가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헛되이 따라온 것이 아니겠느냐?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나는 땅에서 수천 년 동안 사역해 왔고, 오늘날도 여전히 이렇게 나의 사역을 하고 있다. 내 사역의 항목은 매우 많을지라도 사역의 근본 취지는 변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내가 사람에게 술한 심판과 형벌을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또 사람을 온전케 한 후 나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모든 이방에서 내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실망했을 때에도 나는 변함없이 내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 내가 해야 할 사역을 함으로써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고 있다. 사람이 내 말을 귀찮아할지라도, 내 사역에 관심이 없을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사역을 하고 있다. 내 사역의 근본 취지는 변하지 않고, 나의 원래 계획도 무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의 심판은 사람이 더 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나의 형벌은 사람이 더 잘 변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하는 사역은 나의 경영을 위한 것이지만 사람에게 무익한 사역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이스라엘 외의 족속들을 이스라엘처럼 순종하게 만들고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어 이스라엘 밖에서도 나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경영이고, 이방에서의 나의 사역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나의 경영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람은 자기의 앞날과 종착지에만 관심을 가질 뿐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말해도 사람은 여전히 내가 하는 사역에 무관심한 채 오로지 자신의 미래 종착지에만 관심을 둔다. 이렇게 나아간다면 어떻게 나의 사역을 확장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나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의 사역이 확장될 때 내가 너희를 분산시키고, 여호와가 이스라엘 각 지파를 친 것처럼 너희를 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나의 복음을 온 땅에 널리 전파하고, 나의 사역을 이방으로 확장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나의 이름을 높이

받들며, 각 나라 각 족속도 모두 나의 거룩한 이름을 칭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마지막인 이 시대에 나의 이름이 이방에서 높임을 받게 하고, 나의 행사를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 주며, 또한 나의 행사로 인해 내가 전능자로 불리게 하고, 나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설령 내가 저주한 족속일지라도 말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임을 보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가장 큰 사역이고, 말세에서의 나의 사역과 계획의 근본 취지이며, 내가 말세에 성취하려는 유일한 사역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복음을 확장하는 사역도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18)

수천 년 동안 경영해 온 나의 사역은 말세가 되어야만 사람들 앞에 완전히 드러나 보여질 수 있다. 오늘날에 이르러 나는 비로소 내 경영의 모든 비밀을 사람에게 완전히 공개했다. 그리하여 사람은 내 사역의 근본 취지를 알게 되었고, 나아가 나의 모든 비밀도 알게 되었다. 나는 사람의 관심사인 사람의 종착지까지도 전부 알려 주었고, 5 천 9 백 년 넘게 감추어 두었던 나의 비밀을 사람에게 모두 공개했다. 누가 여호와인가? 누가 메시아인가? 누가 예수인가? 너희는 내 사역의 전환점이 이 몇 개의 이름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어떻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전하고 칭송해야 하는지, 또 지난날 나의 이름 중 어느 한 이름을 부르짖었던 모든 족속에게 어떻게 나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지 알고는 있느냐? 나의 사역은 이미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나는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나의 모든 사역을 확장할 것이다. 나는 나의 모든 사역을 너희에게 행하였기에 너희를 칠 것이다. 마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다윗 집 목자를 쳤듯이 모두 각 족속으로 흩어지게 할 것이다. 나는 말세에 열국을 산산조각 내고 열국의 백성을 새 나라와 무리로 다시 분류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이미 열국이 나의 불사름으로 경계가 나뉘어 있을 것이다. 그때에 나는 뜨거운 해로 사람에게 다시 나타나고, 사람이 본 적 없는 거룩한 자의 형상으로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 만방에서 다닐 것이다. 마치 나 여호와가 유대 각 족속 가운데에서 다녔던 것처럼 말이다. 그때부터 나는 땅에서 사는 사람의 생활을 인도할 것이다. 사람은 반드시 그들 위에 있는 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사람의 생활을 인도하는 하늘의 구름 기둥도 볼 것이다. 나는 거룩한 땅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의 공의로운 날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영광이 나타나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그때는 내가 온 땅에서 왕이 될 때이고, 또한 많은 아들들을 인도하여 영광에 들어갈 때이다. 사람은 온 땅 위에 엮드릴 것이고, 나의 장막은 반드시 인간 세상에 굳게 세워질 것이며, 내가 오늘날 하는 사역의 반석 위에 지어질 것이다. 사람 또한 성전 안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더럽고 가증한 것들로 가득한 그 제단은 반드시 나에 의해 부서져 새롭게 세워질 것이며, 처음 난 어린양과 송아지는 반드시 그 거룩한 제단 위에 가득 쌓일 것이다. 나는 반드시 오늘날의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새롭게 지을 것이다. 가증한 사람들로 가득한 오늘날의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내가 지은 성전에는 반드시 나에게 충성하는 종들로 가득할 것이며, 그들은 내 성전의 영광을 위해 다시 일어나 나를 섬길 것이다. 너희는 내가 크게 영광받는 날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는 날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며, 나의 장막이 인간 세상에 임하는 날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성전을 허무는 방식대로 나의 장막을 인간 세상에 임하게 할 것이다. 마치 사람이 나의 강림을 보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열국을 산산이 부순 다음 또 새로이 모을 것이다. 그런 후 나의 성전을 짓고 나의 제단을 세워 모든 사람이 나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고, 나의 성전에서 나를 섬기게 하며, 이방에서의 내 사역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장의 옷을 입고 화관을 쓸 것이며, 나 여호와와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고, 나의 위엄이 그들 위 하늘에서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이방에서 하는 나의 사역도 그와 같을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방식대로 이방에서도 그렇게 사역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사역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이방으로 확장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복음을 확장하는 사역도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19)

지금이 바로 내 영이 크게 역사하는 때이자, 내가 이방에서 일을 시작하는 때이며, 더욱이 모든 피조물을 분류하는 때이다. 나는 모든 피조물을 부류대로 나누어 나의 사역이 더 빨라지게 하고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전히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사역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네게 하는 나의 모든 사역을 더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보며, 나의 사역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너의 모든 힘을 다 쏟으라는 것이다. 이것은 네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나의 사역을 그르치지 않고 또한 너의 아름다운 앞날을 그르치지 않도록, 더 이상 서로 다투거나 빼앗지 말고, 더 이상 자신이 빠져나갈 길을 찾지 말며, 더 이상 육적인 안락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 자신을 망치기만 할 뿐 보호할 수 없을 텐데, 어리석은 짓이 아니겠느냐? 네가 지금 누리려고 하는 것들은 너의 앞날을 망치는 것들이고, 네가 오늘 참고 견디는 고통은 너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너는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시험에 빠지고, 해가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으로 잘못 들어가게 되며, 짙은 안개가 사라질 때는 큰 날의 심판 속에 있을 것이다. 그때는 나의 날이 이미 인류에게 다가왔을 때인데, 네가 어찌 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어찌 그 뜨거운 해를 견딜 수 있겠느냐? 내게 있는 풍부함을 인류에게 베풀어 주었을 때, 사람은 그것을 품에 간직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곳에 던져 버렸다. 나의 날이 사람에게 임할 때, 사람은 더 이상 나의 풍부함을 발견할 수 없고, 내가 일찍이 사람에게 했던 귀에 거슬리는 충고도 찾을 수 없어 대성통곡할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빛 비춤을 잃고 어둠 속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너희는 오늘 내 입에서 나온 날 선 검만 보았을 뿐, 내 손에 있는 채찍과 사람을 불사르는 불길은 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계속 내 앞에서 교만하고 방종하며, 계속 내 집에서 나와 싸우면서 사람의 혀로 나의 말에 반박한다. 사람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늘날까지도 전혀 두려움 없이 나를 적대하고 있다. 너희 입에는 불의한 자의 혀와 이가 있고, 너희 언행은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독사와 같아서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고, 내 앞에서 자신의 지위와 명리를 다투지만, 내가 너희 언행을 은밀히 관찰하고 있고, 너희가 내 눈앞에 오기 전에 내가 이미 너희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았다는 것은 전혀 모른다. 사람은 늘 내 손에서 벗어나려 하고 내 눈의 감찰을 피하려고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사람의 언행을 피한 적이 없다. 오히려 사람의 불의를 형벌하고 사람의 패역을 심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람의 언행이 나의 두 눈에 띄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이 뒤에서 하는 말과 행동은 늘 나의 심판대 앞에 있고, 나의 심판은 지금까지 사람을 떠난 적이 없다. 이는 사람의 패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나의 사역은 사람이 내 영 앞에서 하는 모든 언행을 불살라 정결케 하고, 내가 땅을 떠날 때에도 사람이 내게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게 하며, 나의 거룩한 종이 나를 섬겼던 것처럼 내 사역을 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 사역이 끝나는 그날까지 땅에서 하는 내 사역이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복음을 확장하는 사역도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20)

너희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서 이루는 사역이 무엇인지 보았느냐? 지난날 하나님이 말씀했듯, 천년하나님나라(역주: 천년왕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인도하여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으로 지시하였으며, 하늘에서 양식과 물, 만나를 내려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친히 먹고 마실 것을 내려 사람에게 베풀고, 친히 저주를 내려 사람을 형벌한다. 그러므로 각 단계의 사역을 전부 하나님이 친히 행한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사람은 사실이 임하기를, 또 이적과 기사를 보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런 자는 버림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점점 더 실제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것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과 자양품을 내렸지만 그것을 아는 자 또한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다. 사람이 상상하는 천년하나님나라의 활기찬 광경 역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땅에서 왕권을 잡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땅에서 왕권을 잡는다는 말은 육신을 가리킨다. 육신이 아니라면 땅에 있을 리 없다. 그러므로 셋째 하늘에 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의 소망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언젠가 온 우주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온 우주의 사역은 하나님이 발한 음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화나 레이저로

하나님이 발한 음성을 받아들이고, 비행기나 배를 타고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앙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행사이다. 한 가지 명심해라! 앞으로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일은 절대로 없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은 온 우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현하러 오고, 땅의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의 사역을 모두 중단했으니, 사람은 참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 예전에 먹을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양식을 가지고 있던 요셉에게 가서 그를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도 굶주림의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참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 현재 종교계 전반에는 심각한 기근이 들었다. 오직 오늘날의 하나님만이 생수의 원천이고 사람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베풀어 주기에 모두가 그에게 의탁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행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니 온 우주 위아래의 사람들이 모두 와서 볼품없는 이 ‘사람’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날 아니겠느냐? 언젠가는 환갑에 가까운 목사도 전보를 보내 생수의 원천을 찾고 구할 것이다. 연로한 육신을 끌고 와서 한때 자신들이 업신여기던 이 사람에게 경배할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것이다. 이것이 이적과 기사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날, 온 나라가 기쁨으로 들끓을 것이며,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얻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나라도, 그런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축복과 보살핌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추세가 나타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사람은 땅에서 나아갈 길이 있게 된다. 반면, 장사를 하든, 과학 연구를 하든, 교육이나 공업에 종사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 참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있으면 온 세상을 두루 다닐 수 있고, 진리가 없으면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이 바로 이러하다. 하나님은 ‘길’(‘길’이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킴)로써 온 우주 위아래를 통제하고, 인류를 다스리며 정복한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 방식에 더 큰 전환점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통제하므로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한다. 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니,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 또한, 이는 대세의 흐름이자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천년하나님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21)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집집마다 전파될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역이 전 우주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역을 전 우주로 확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부터 확장해야 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권병과 위력을 드러내는 날이 되면,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오늘날까지 한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 이뤄지고 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땅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권세를 잡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한 말씀으로 인해 모든 악인이 형벌을 받고 모든 의인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이적이나 기사도 나타내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실이 나타나는 것이다.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이 칭송할 것이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고 또 땅에서 사람이 생생하게 보게 한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 된 것’이다. 하나님이 땅에 온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이 육신 되는’ 이 사실을 이루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은 육신에서 말씀하고(구약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발한 것과는 다름) 그것을 천년하나님나라시대(역주: 천년왕국시대)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사람이 볼 수 있는 사실로 나타냄으로써 말씀과 사실이 조금의 차이도 없다는 것을 직접 보게 한다. 이는 하나님이 성육신 된 크나큰 의의이다. 즉, 육신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영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 되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다’는 말의 진정한 함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의 뜻을 말할 수 있고, 오직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만이 영을 대신하여 음성을 발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육신한 하나님을 통해 나타난다. 그 외의 모든 사람은 그의 말씀의 인도 아래에서 살아가며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니다. 사람은 그의 음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를 통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을 얻으려는 생각은 깨끗이 단념하는 것이 좋다. 이는 성육신한 하나님이 나타낸 권병으로서 모든 사람이 믿고 복종하게 한다. 아무리 권위 있는 전문가나 교계의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할 수 없다. 모두가 말씀 앞으로 돌아와 복종할 것이며, 누구도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정복하려 한다. 성육신 하나님의 육신이 아니라 친히 발한 음성으로 온 우주 위아래의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 된 것이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대단한 사역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면 모두 탄복을 금치 못하고, 놀라서 입이 딱 벌어질 것이다. 사실이 없다며 요란하게 떠들어 대던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모두 입을 다물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말씀이 땅에 왔다는 이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일찍이 정해 놓은 계획이기 때문이다. 사실, 굳이 내가 짚어 줄 필요도 없다. 천년하나님나라가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왔다는 뜻이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와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마음, 생각과 함께한다는 의미이다. 이것 역시 하나님이 이루려는 일이자 천년하나님나라의 아름다운 광경이다. 이는 하나님이 정해 놓은 계획이다. 즉 말씀이 땅에서 천 년 동안 나타나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나타내고,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류는 일단락을 짓게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천년하나님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22)

시님(원문: 秦國)이 땅에 실현될 때, 즉 하나님나라가 실현될 때, 땅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기근도, 전염병도, 지진도 없을 것이고, 사람은 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모두 평온한 환경에서 살면서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정상적인 왕래가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상태다. 천하는 대혼란에 빠져 있고, 각국 내부에서는 점차 정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사람은 점점 변화되고, 각국 내부는 조금씩 와해된다. 견고하던 바벨론의 기반도 마치 공중누각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나님 뜻의 바뀌면서 부지불식간에 세계에 크나큰 변화가 발생하고, 각종 조짐이 수시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세상의 종말이 왔음을 알게 한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그의 사역 절차로, 반드시 열국을 사분오열시키고, 옛 소돔을 다시 한번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이 기울어지고 있도다! 바벨론이 마비되고 있도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완벽히 알 수 없다. 사람은 안다고 해도 결국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들은 현재 정세가 불안정하고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지만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 그저 흐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고, 언젠가 태양이 다시 동쪽에서 떠올라 온 땅을 비추어 이런 참담한 상황을 만회해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태양이 다시 떠오를 때, 그것은 이전 형세를 만회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모든 것을 철저히 바꾸기 위함임을 그들이 어찌 알겠느냐? 이는 전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사람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의 비밀 해석·제 22 편과 제 23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23)

지진은 이 세상 재난의 시작이다. 먼저 세상, 그러니까 이 땅에 먼저 변동이 생긴 뒤, 전염병과 기근이 이어질 것이다. 이는 나의 계획이자 절차이다. 나는 내 경륜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움직여 나를 위해 힘쓰게 할 것이다. 그로 인해 온 우주와 세상은 내가 멸하지 않아도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땅이 크게 흔들렸다. 마지막에도 그러할 것이다. 내가 육신에서 영계로 진입하는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장자들은 결코 재난의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나, 그 외의 사람들은 재난 속에서 연단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장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람의 예감에 이는 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재난의 고통을 피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큰 붉은 용의 음모이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그것이 중한 징벌을 받게 할 것이다. 그 후에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나를 위해 힘쓰게 할 것이며(아들들과 백성들을 만드는 것을 가리킴), 영원히 자신의 간계에 빠져 영원토록 나의 심판과 불사름을 받게 할 것이다. 이는 봉사자들로 하여금 나를 찬미하게(그들을 통해 나의 큰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을 뜻함) 하는 참뜻이다. 나는 큰 붉은 용이 내 나라에 섞여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나를 찬미할 자격을 부여하지도 않을 것이다(그것에게는

영원히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임)! 오직 그것이 영원히 나를 위해 힘쓰게 할 뿐이다! 또한, 그것이 내 앞에 엎드리게 할 뿐이다(멸망되는 것은 침륜되는 것보다 견디기 쉽다. 멸망은 일시적인 중형이지만, 침륜되는 자는 영원히 중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엎드리게’ 한다고 한 것이다. 또한, 이 사람들이 나의 집에 섞여 들어와 나의 은혜를 적잖이 누렸고, 나에게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기에 중형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집 밖에 있는 자들은 아는 것이 없기에 정죄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관념으로 멸망이 침륜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와 반대다. 침륜되는 자는 영원히 중형을 받을 것이고, 멸망되는 자는 영원히 무(無)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제 108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24)

하나님나라의 예포가 울릴 때는 ‘일곱 우레가 크게 울릴 때’이다. 그 소리는 하늘과 땅, 그리고 궁창을 뒤흔들고,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하나님나라의 축가가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울려 퍼지면, 내가 큰 붉은 용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의 나라를 세웠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나의 나라가 땅에 세워졌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세계 각국을 두루 누비며 아들과 백성들을 목양할 것이다. 이것 역시 다음 단계 사역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큰 붉은 용이 빠리를 튼 곳에 친히 임하여 그것과 ‘겨룬다’. 모든 사람이 육신을 통해 나를 알고 나의 행사를 볼 때, 큰 붉은 용의 소굴 역시 그에 따라 잿더미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내 나라의 백성들이 큰 붉은 용을 뼈에 사무치게 증오하는 이상 일거수일투족으로 내 마음을 만족케 함으로써 큰 붉은 용을 수치스럽게 해야 한다. 너희는 진정 큰 붉은 용이 증오스럽다고 여기느냐? 큰 붉은 용이 ‘하나님나라 왕’의 원수라고 여기느냐? 너희는 진정 나를 아름답게 증거할 자신이 있느냐? 큰 붉은 용을 물리칠 자신이 있느냐? 이것은 너희에 대한 나의 요구이다. 너희는 이 정도 수준에만 이르면 된다. 할 수 있겠느냐? 이 수준에 이를 자신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어디까지나 내가 친히 하는 것 아니더냐? 내가 왜 친히 전장에 왔다고 했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다. 사람은 모두 내 말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측면에서 ‘빠딱하게 바라보기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목적을 달성했느냐? 그렇게 해서 나를 알게 되었느냐? 솔직히 말해, 땅에서 내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 말의 함의를 순수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땅에서 전례 없는 일을 시작해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참된 형상’이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여 ‘관념’이 사람 마음을 지배하던 시대를 끝낸다.

오늘날, 나는 큰 붉은 용의 나라에 강림했을 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마주했으며, 이에 온 궁창이 흔들리고 있다. 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내린 재난 속에서 살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온갖 ‘재난의 씨앗’을 뿌려 놓았다. 이는 내가 사역하는 방식으로, 의심할 바 없이 사람에게 대한 구원이자 사람에게 배푸는

일종의 사랑이다. 나는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알게 하고 보게 함으로써 오랜 세월 보지 못했지만 오늘날에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것이다. 내가 왜 세상을 창조했겠느냐? 왜 파괴된 인류를 전부 멸하지 않았겠느냐? 왜 인류는 모두 재난 속에 있겠느냐? 왜 내가 친히 육신을 입었겠느냐? 내가 나의 일을 행하고 있을 때, 사람은 쓴맛뿐만 아니라 단맛도 보았다. 세상 사람 중 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 않는 자가 있느냐? 내가 사람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지 않는다면, 그 누가 세상에서 풍족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백성의 지위를 주어야만 축복이겠느냐? 백성이 아니라 봉사자라 해도 너희는 내 축복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내 말의 근원을 짚어 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사람은 내가 준 칭호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봉사자’란 칭호로 인해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백성’이란 칭호로 인해 나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내 눈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으니 누구도 나를 속여선 안 될 것이다! 너희 중에 그 누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완전히 순종하느냐? 하나님나라의 예포가 울리지 않았다면, 너희가 정말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를 나는 일찍이 예정해 놓았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 제 10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25)

지금 하나님나라 건축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나라의 예포는 아직 정식으로 울리지 않았다. 지금은 예언일 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온전케 되고, 땅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는 바로 ‘일곱 우레가 크게 울릴’ 때이다. 지금은 그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날을 향해 ‘진격’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머지 않은 장래에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한 것은 모두 하나님이 이미 이룬 것이다. 여기에서 세상의 나라는 공중누각처럼 곧 무너지게 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마지막 날이 눈앞에 이르렀고, 큰 붉은 용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꾸러진다. 하나님 계획의 완벽한 성공을 위해 천사 역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자신의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있고, 성육신한 하나님 또한 친히 전쟁터에서 원수와 싸우고 있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있는 곳이 바로 원수가 멸망하는 곳이다. 중국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하나님 손에 멸망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게 조금의 인정사정도 봐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숙해질수록 큰 붉은 용이 더 빨리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람이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백성이 성숙해지는 것은 원수가 멸망할 징조이다. 이것은 ‘대결’에 대한 약간의 해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 번 백성에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증거하여 ‘관념’, 즉 큰 붉은 용의 추태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없애 버려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다. 하나님은 여러 번의 일깨움으로 사람의 믿음을 불러일으킬 뿐이고 또 그런 방식으로 사역의 성과를 거둔다.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어디까지나 내가 친히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두 그러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언제나 낙심하고 실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몰래 사람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 전 우주를 향해 말씀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그의 새 사역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서 그의 오늘날의 새 사역을 시작했다. 이 단계 사역에서, 하나님은 온 땅에서 그의 모든 행사를 나타내어 궁극적으로 그를 배반했던 전 인류가 다시 그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복종하게 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는 여전히 공홀과 자비가 들어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일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 기회를 빌려 하나님을 찾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은 내가 사역하는 방식이고, 의심할 바 없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며, 여전히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의 비밀 해석 · 제 10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26)

나는 땅에서 내 권병을 행하고 내 모든 사역을 전개했다. 내 사역에 대한 모든 반응은 다 땅에서 나타났다. 사람은 땅에서 하늘에 있는 내 움직임을 안 적이 없고, 내 영의 운행 궤적을 자세히 알지도 못했다. 대다수는 영 밖의 사소한 것들만 파악할 뿐, 영 안의 실제 상태는 살피지 못했다. 사람에게 대한 요구는 하늘에 있는 막연한 내가 제시한 것도, 땅에 있는 가늠할 수 없는 내가 제시한 것도 아니다. 나는 땅에 있는 사람의 분량에 따라 적정 수준에서 요구한다. 누군가를 곤란하게 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고혈을 짜내’ 나를 즐겁게 하라고 한 적도 없다. 설마 내 요구가 겨우 그 정도 수준이겠느냐? 땅의 만물 중 무엇이 내 말에 복종하지 않겠느냐? 내 말과 내 불길로 깨끗이 불타 없어지지 않을 존재가 있겠느냐? 내 앞에서 감히 ‘활개 치고 다니는’ 존재가 있겠느냐? 내 앞에서 허리 굽히지 않는 존재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내가 그저 만물을 침묵하게 하는 하나님이겠느냐? 나는 만물 가운데서 내 뜻에 맞는 것을 택하고, 만인 가운데서 내 마음을 헤아리는 자를 택하며, 모든 별 가운데서 최고를 택하여 내 나라에 빛을 더한다. 나는 땅을 거닐며 곳곳에 내 향기를 뿌리고, 내 그림자를 남긴다. 곳곳에는 내 음성이 울려 퍼진다. 사람은 다 어제의 아름다운 광경을 그리워한다. 사람은 과거를 추억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두 나를 만나길 갈망한다. 하지만 막상 내가 땅에 오니 내가 온 것에 질색하며 찾아온 빛을 몰아낸다. 내가 하늘에 있는 적이라도 되는 양 ‘경계’의 눈빛을 보내며 시시각각 조심하고, 내가 그들을 ‘어찌기라도 할까’ 몹시 두려워한다. 사람은 나를 낯선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내게 그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는 그들의 숙적이다. 사람은 환난 속에서 나의 따뜻함을 느낀 후에도 나의 자비를 깨닫지 못하고, 내 앞에서 계속 나를 경계하고 대적하려는 마음을 품는다. 하지만 나는 사람의 이러한 상태를 기회 삼아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그 품에 따뜻함을 주고, 그 입에 감미로움을 주고, 그 배에 필요한 음식을 채워 준다. 그러나 내 진노가 산과 강을

뒤흔들 때는 사람이 ‘겁낸다’ 하여 다른 지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 나는 크게 노할 것이며, 그 어떤 존재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리고, 그들에게 합당한 보응을 내릴 것이다. 그 순간 천둥 번개는 성내는 파도나 무너지는 산 같을 것이며, 사람은 패역으로 인해 모두 번개에 맞아 죽고, 사물은 우렛소리로 인해 모두 소멸할 것이다. 그리하여 전 우주가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만물은 원래의 생기를 되찾을 수 없고, 만인은 우렛소리에서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빗발치는 번개 속에서 사람은 한 무리씩 급류에 쓰러져 산에서 밀려오는 물에 휩쓸려 갈 것이다. 어느새 사람의 ‘종착지’에는 또 ‘사람’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바다 위에는 사람의 시체가 떠다니고 있으며, 모든 사람은 내 진노 때문에 내게서 매우 멀어진다. 그것은 사람이 내 영의 본질을 거스르고, 패역함으로 나를 거슬렀기 때문이다. 물이 없는 땅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즐겁게 웃고 노래하면서 내가 준 약속을 누리고 있다.

모든 사람이 침묵할 때 내가 그들 앞에 한 줄기 빛을 비추면, 사람은 문득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느끼며 침묵을 깨고 싶어 한다. 그리하여 곧바로 마음속 영을 깨운다. 이때 사람은 모두 부활해 자신의 괴로움을 던져 버리고 내 앞으로 온다. 내가 해 준 말로 또 한 번 생존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두 땅에서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특별히 나를 위해 살고자 한 자가 있더냐? 자신에게서 ‘훌륭한 것’을 찾아 내가 즐기도록 바친 자가 있더냐? 매력적인 나의 향을 느낀 자가 있더냐? 사람은 모두 거친 존재다. 겉으로는 눈부시게 빛나 보여도 본질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조금이라도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너무도 부족하여 나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이다. 그러나 나는 절대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고, 사람의 부족함을 두고 비웃지 않는다. 내 손길은 수천 년간 땅에 있었고, 내 눈길은 줄곧 만인을 굽어살폈지만, 내 손이 사람의 목숨을 장난감처럼 함부로 가지고 논 적은 없다. 나는 사람이 쏟는 심혈을 헤아리고, 사람이 치르는 대가도 이해하고 있기에 사람이 방심한 틈을 타서 형벌을 내리거나 나쁜 것을 주고 싶지는 않다. 그저 계속 사람에게 공급하고 베풀 뿐이다. 그러니 사람이 누리는 모든 것은 나의 은혜요, 내 손에서 나온 풍요로움인 것이다. 내가 땅에 있기에 사람은 굶주림의 고통을 겪지 않고, 내가 주는 누릴 거리를 얻을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이 내 축복 속에서 살고 있거늘, 모두가 내 형벌 속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 산은 깊은 곳에 자신만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고, 물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내 말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즐기고 경험할 양식이 그보다 더 많지 않겠느냐? 내가 땅에 있으면 사람도 그로 인한 축복을 누린다. 하지만 내가 땅을 떠날 때, 즉 내 사역이 완성될 때, 사람은 두 번 다시 자신의 ‘연약’을 이유로 내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제 17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27)

너희는 정말로 큰 붉은 용을 증오하느냐? 진심으로 증오하느냐? 왜 내가 이렇듯 여러 차례 물겠느냐? 왜 내가 이런 질문을 거듭 반복하겠느냐? 너희 마음속에 있는 큰 붉은 용의 형상은 대체 어떠하냐? 정말로 없었느냐? 정말 ‘아비’처럼 대하지 않게 되었느냐? 모든 사람은 내 질문에 담긴 뜻을 알아야 한다. 그 뜻은 대중의 분노를 유발시키려는 것도, 반기를 들게 하려는 것도, 사람에게 ‘스스로 살길을 찾게’ 하려는 것도 아니라, 모든 사람을 큰 붉은 용의 결박에서 해방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조급해하지 말라. 내 말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아무도 개입할 수 없고, 아무도 내가 하려는 사역을 할 수 없다. 나는 온 땅의 기운을 깨끗하게 하고, 땅의 마귀들을 흔적도 없이 소탕할 것이다. 나는 일을 시작했고, 큰 붉은 용이 사는 곳에서 형벌의 시작 단계 사역을 할 것이다. 여기에서 내 형벌은 이미 온 우주에 내렸고, 큰 붉은 용과 온갖 더러운 귀신은 결코 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내가 온 땅을 감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땅의 사역을 완성할 때, 즉 심판 시대가 끝날 때, 나는 본격적으로 큰 붉은 용을 형벌할 것이다. 나의 백성은 틀림없이 내가 그것에게 내리는 공의로운 형벌을 볼 것이고, 나의 공의에 칭송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나의 공의로 말미암아 영원히 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써 본격적으로 너희의 본분을 이행하고, 온 땅에서 나를 영원토록 찬미할 것이다!

심판 시대가 절정기에 들어설 때, 나는 내 사역을 서둘러 끝내지 않고, 더 나은 효과를 위해 형벌 시대의 ‘증거’들을 결합해 모든 백성에게 보여 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내가 큰 붉은 용에게 형벌을 가하는 수단이다. 나는 백성에게 이것을 직접 보게 하여 나의 성품을 더 잘 알게 할 것이다. 백성이 나를 누릴 때가 큰 붉은 용이 ‘형벌받을’ 때이다. 큰 붉은 용의 민중이 일어나 그것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나의 계획으로, 이는 내가 백성을 온전케 하는 방식이자 모든 백성의 생명이 자랄 좋은 기회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제 28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28)

밝은 달이 떠오를 때 조용한 밤은 순식간에 깨진다. 달이 짝 차오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좋은 기분에 취한 모든 사람은 달빛 아래 조용히 앉아 달빛에 비친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한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한 사람의 심정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사람의 얼굴에 열은 미소가 번지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맑은 향기가 퍼진다. 한 줄기 ‘미풍’이 불어오자 사람은 그윽한 향기를 느끼며 그것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때가 바로 내가 인간 세상에 임한 때라, 사람은 더더욱 그윽한 향기를 느끼게 되고, 나아가 모두가 향기 속에서 살게 된다. 나는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사람은 나와 화목하게 산다. 사람은 더 이상 나를 다른 눈으로 보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사람의 부족함을 훈계하지 않는다. 사람의 얼굴에서는 수심이 사라지고, 전 인류를 위협하는 죽음도 사라진다. 오늘날 나는 사람과 함께 형벌 시대로 발을 내디디고,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아간다. 나는 나의 사역을 하고 있다.

즉, 인간 세상에, 인류의 패역한 곳에 나의 채찍을 내리친다. 사람의 눈에 나의 채찍은 초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나의 채찍은 내 원수들을 놓아주지 않고,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서 원래 기능을 발휘한다.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은 내 본래 뜻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내 뜻을 거스른 것과 변질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에 물은 포효하고, 산은 무너지고, 강은 붕괴되고, 사람은 이랬다저랬다 변덕을 떨고, 태양은 어두워지고, 달은 칠흑으로 변한다. 사람은 더 이상 평안할 날이 없고, 땅은 더 이상 평온할 때가 없으며, 하늘은 더 이상 차분하지도, 침묵하지도, 인내하지도 않는다. 만물은 다시 ‘바뀌어’ ‘원래 모습’을 회복한다. 땅의 가정은 모두 ‘파탄’되고, 땅의 나라는 ‘분열’되며, 더 이상 ‘부부가 함께 모이는’ 날도, ‘모자가 재회하는’ 때도, ‘부녀가 만나는’ 시간도 없을 것이다. 땅의 모든 옛 모습은 나에게 의해 깨질 것이다. 나는 사람에게 감정을 ‘표출’할 기회를 남겨 두지 않는다. 내게는 감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감정에 대한 나의 증오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사람은 사람과의 ‘정’ 때문에 나를 한쪽에 밀쳐 두었고, 그로 인해 나는 사람의 눈에 ‘제삼자’가 되었다. 또한, 사람은 사람과의 ‘정’ 때문에 나를 잊었고, 사람의 정 때문에 기회를 틈타 다시 ‘양심’을 주워 들었으며, 사람의 정 때문에 언제나 나의 형벌을 싫어했다. 사람은 정 때문에 늘 내가 공정하지도 의롭지도 않다고 말하고, 내가 일을 처리할 때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설마 땅에 내 ‘친족’이라도 있단 말이나? 누가 나처럼 내 모든 경륜을 위해 침식을 잊고 밤낮으로 애썼더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겠느냐? 창조주인 하나님이 어찌 피조물인 사람과 동류가 되겠느냐? 내가 어찌 계속 사람과 함께 땅에서 생활하며 움직일 수 있겠느냐? 누가 내 마음을 걱정하고 헤아릴 수 있겠느냐? 설마 사람의 간청으로 되겠느냐? 나는 사람과 모이고 사람과 동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확실히 지금까지 사람은 나의 보살핌과 보호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나의 보살핌에서 벗어나는 날이 언제 오겠느냐? 사람은 나의 마음을 걱정하고 헤아려 본 적이 없다지만, 누가 빛이 없는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나의 축복이 있었기에 사람은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 제 28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29)

각국 정세는 상당히 혼란스럽다. 하나님의 채찍이 땅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땅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데, ‘물은 포효하고, 산은 무너지고, 강은 붕괴된다’는 것은 땅에서 채찍질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이로써 “땅의 가정은 모두 ‘파탄’되고, 땅의 나라는 ‘분열’되며, 더 이상 ‘부부가 함께 모이는’ 날도, ‘모자가 재회하는’ 때도, ‘부녀가 만나는’ 시간도 없을 것이다. 땅의 모든 옛 모습은 나에게 의해 깨질 것이다.” 이는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의 상황이다. 물론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 흐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앞으로 처하게 될 상황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는 말씀의 형벌을 받고, 이방인이 재난을 겪은 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가족 관계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나라에서 충성을 다하는 시님(원문: 秦國) 사람이 될 것임을 예시한다. 그러기에 더 이상 ‘부부가 함께 모이는’ 날도, ‘모자가 재회하는’ 때도, ‘부녀가 만나는’ 시간도 없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가족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산산조각 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마지막 사역이다. 하나님은 전 우주로 이 사역을 확대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참에 ‘감정’이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사람에게 ‘밝혀’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의 가정을 깨뜨리는 것임을 보여 준다. 이는 하나님이 형벌로 전 인류의 모든 ‘가정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땅에서 마지막 부분의 사역을 마무리할 수 없다.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인류의 최대 약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사람은 모두 ‘정’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피하지 않고 전 인류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냈다. 왜 감정을 떨쳐 버리지 못하느냐? 그것이 양심의 기준보다 높은 말이나?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감정이 난관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눈에 감정은 하나님의 원수다. 설마 하나님이 이를 명확히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의 비밀 해석 · 제 28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30)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 성품의 일부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성품은 말씀으로 나타낼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과 알 수 있는 것에는 결국 한계가 있다. 사람의 능력도 결국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한다 해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바로 “번개 속에서 모든 동물이 본모습을 드러냈다. 나의 빛을 받아 사람도 원래의 거룩함을 회복했다. 파괴된 옛 세상아! 드디어 더러운 물에서 무너지고, 물에 잠겨 진흙이 되었구나!”라는 말씀처럼 말이다.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어떠함이 담겨 있다. 사람은 이 말을 알고는 있어도 이 말씀의 함의를 이해한 적은 없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원수에 속한다. 즉, 악령에 속한 자는 모두 동물에 속한다. 이로부터 교회의 실제 상태를 살펴보면, 인위적인 훈계, 채찍질, 직접적인 출교나 인위적인 어떤 방법을 거치지 않아도, 또 누가 명확히 알려 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빛 비춤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며, 뱃속에 얼마나 많은 병이 있는지 ‘현미경’의 투시로 똑똑히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종 영들은 부류대로 나뉘고 원래 모습을 드러내는데, 천사에 속한 영도 점점 더 많은 빛 비춤과 깨우침을 얻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래의 거룩함을 회복했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얻을 성과에 근거해서 한 말씀이다. 물론 지금은 아직 완전할 수 없다. 이것은 맛보기일 뿐이지만, 이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쓰러지고, 모든 사람이 점차 거룩해지는 과정에서 패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한 “물에 잠겨

진흙이 되었구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멸한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한 ‘번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킨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할 때면 온 세상은 이로 인해 갇은 재난을 겪는다. 이는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과 같다. 하늘 위에 서서 보면 땅에서 온갖 재앙이 전 인류에게 나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높은 곳에 서서 살펴보면 마치 지진이 일어나기 전처럼 땅에서 각종 현상이 보인다. 곳곳에서 불물이 마구 움직이고, 곳곳에서 용암이 흐르며, 산이 이동하고, 곳곳에 섬뜩한 빛이 번쩍이며, 전 세계는 불 속에 잠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노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며, 하나님이 심판할 때이므로 육에 속하는 자는 모두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나라 간의 전쟁, 사람 간의 싸움으로 세상을 멸할 필요가 없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형벌의 요람 속에서 ‘자각적으로 즐기게’ 하면 된다.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며, 하나하나 통과해야 한다. 이때가 지나가면 온 우주 아래는 다시 신성한 빛으로 빛나고, 전 인류는 다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 위에서 안식하며 매일 전 인류를 축복한다. 하늘 위는 처량하기 그지없는 모습이 아니라 창세 이래 없었던 생기를 회복한다. ‘6 일’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 사람은 모두 안식에 들어간다. 온 우주 아래는 더 이상 혼탁하지도, 더럽지도 않고, 새롭게 바뀐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땅은 더 이상 적막하지 않고, 하늘은 더 이상 처량하지 않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하늘나라에는 불의가 있었던 적도 없고, 사람의 정이 있었던 적도 없으며, 사람의 모든 패괴 성품이 있었던 적도 없다. 사탄의 방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하늘 위의 생활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고, 하늘 위에 있는 사람은 모두 지혜와 하나님의 존엄을 가지고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의 비밀 해석 · 제 18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31)

오늘의 모든 말씀은 앞으로의 일을 예언한 것으로, 다음 단계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교회 사람들에게 할 사역을 거의 다 했으니, 이제 ‘진노’의 방식으로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나는 땅에 있는 사람이 내 모든 행사를 인정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내 행사가 ‘심판대’ 앞에서 증명되게 하여 온 땅에 있는 사람이 내 행사를 공인하고 굴복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말이다. 이 말씀 속에서 뭔가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다음 사역의 주요 사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우선 ‘정권’을 잡은 집 지키는 개들을 모두 승복시켜 더 이상 지위 쟁탈이나 암투를 벌이지 않고 스스로 역사(歷史)의 무대를 떠나게 할 것이다. 이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이 땅에서 일으킨 각종 재앙과 기근을 통해 이뤄지나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의 큰 붉은 용의 나라는 여전히 불결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형벌로만 존재를 나타낼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누구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 기간에 큰 붉은 용의 나라에 거주하는 자는 모두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물론 땅에 있는

‘하나님나라’(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이때 바로 사실이 임하니 모든 사람이 꺾어야 하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이다. 바로 이 사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원대한 계획을 펼칠 때이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앞으로는 땅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또 재난이 임하기 때문에 사람은 눈앞의 일에 허덕이느라 재난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좋은 시절에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큰 붉은 용을 철저히 물리칠 것이고, 백성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역도 끝날 것이다. 그 후 하나님은 다음 단계의 일을 시작하여 큰 붉은 용의 나라를 철저히 멸망시키고, 마지막에는 전 우주의 사람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은 다음 전 인류를 멸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의 사역 절차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의 평화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야 한다. 앞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가 없다. 육으로 있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가 있지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사람이 아예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의 직무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살아 있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느냐? 생각해 보았느냐? 죽음에 이르러서야 사랑할 것이냐? 그건 빈말이 아니냐? 지금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느냐? ‘분주히’ 보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겠느냐? 하나님의 현 단계 사역이 곧 끝난다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이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사람이 뭔가를 할 필요가 없으며,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관건이다. 하나님의 요구가 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 애타기 때문에 지금의 사역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음 단계 사역의 주요 사항을 보여 주었다. 여기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조급하지 않다면 미리 이런 말씀을 하겠느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니 너희가 자기 목숨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란다. 이것이 바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겠느냐? 또 어디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하느냐? 그건 너무 눈먼 것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느냐?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합당한 분이나? 사람은 아낄 가치가 있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염려치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죽이기라도 하겠느냐?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임무는 하나님을 위해 이것저것 기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네 인생이 더 가치 있고 즐거워질 수 있도록 더 중요한 일을 앞자리에 두어라. 그런 다음 너에 대한 하나님의 ‘처결’을 기다려라. 너의 계획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모든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이 이뤄 주는 것이 되고, 모두 실현되길 바란다.

제 6 절 하나님의 성품, 소유와 어떠하심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32)

나는 공의롭고, 신실하며,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하나님이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내가 곧 드러낼 것이다. 당황하지 말라. 모든 것에는 다 나의 때가 있다. 누가 진심으로 나를 원하는지, 누가 진심으로 나를 원하지 않는지, 내가 하나하나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너희는 잘 먹고, 잘 마시고, 내 앞에서 나를 가까이하는 것에만 신경 쓰면 된다. 나의 일은 내가 직접 할 것이다. 속히 일을 이루려 하지 말라. 나의 사역은 단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그 속에는 나의 절차와 지혜가 있다. 그러므로 나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내 손이 하는 일, 즉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를 벌하는 것을 보여 주겠다. 나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나 역시 진심으로 사랑할 것이며,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면 내 진노가 영원히 그와 함께할 것이다. 이로써 내가 바로 참하나님,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을 보이지 말라. 나는 너의 모든 행위를 낱알이 보고 있다. 너는 사람을 속여도 나를 속이지 못한다. 내가 전부 꿰뚫어 보고 있는데도, 나를 속이려 들다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모든 것은 내 손안에 있다. 너 자신이 총명하다고, 이해타산에 능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에게 알려 주겠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결국에는 내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한다. 만사와 만물은 다 내 손안에 있거늘, 사람 하나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피하지도 숨지도 말고, 속이거나 감추지도 말라. 내 영광의 얼굴과 진노, 심판이 공개되고 드러났건만, 아직도 보지 못한 것이냐? 진심으로 나를 원하지 않는 자들을 나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즉시 심판할 것이다. 나의 궁핍은 한계에 도달해 더는 존재하지 않으니, 더 이상 외식하지도, 함부로 날뛰 생각도 하지 말라.

나의 아들이야, 유의해라. 내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라. 내가 책임지고 결정할 테니 겁내지 말라. 나의 그 좌우에 날 선 검을 들고 내 뜻에 따라 사탄과 끝까지 싸워라. 내가 너를 지켜 줄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 모든 숨겨진 것들이 공개되고 드러날 것이다. 나는 빛을 발하는 태양이니 인정사정없이 모든 어두운 면을 밝게 비출 것이다. 나의 심판은 이미 완전히 임했으며, 교회는 바로 전장이다. 너희 모두는 최후의 결전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바칠 준비를 해야 한다. 너희가 나를 위해 아름다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내가 지켜 주겠다.

조심해라. 현재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을 만큼 간사해서 미답지 못하다. 오직 나만이 완전히 너희를 위할 수 있다. 내게는 간사함이 없으니 나를 의지하면 된다! 내 아들은 최후의 결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사탄이 나타나 마지막 발악을 하겠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내가 바로 너의 능력이고, 너의 전부이다. 이것저것 재지 말라. 그럴 시간이 없다. 내가 말했듯이,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끌고 가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촉박하기에 너희의 귀를 잡고 일깨워 줄 수는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전투

준비에만 신경 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완전히 책임질 것이다. 모든 것은 내 손안에 있다. 이것은 목숨을 건 혈투이니,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지만 똑똑히 기억해라. 나는 영원히 패배를 모르는 승자이다. 반면, 사탄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것 또한 나의 절차이자 나의 사역, 나의 뜻, 나의 계획이다!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겁먹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통치하리라! 내가 한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 일이 곧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깨어 있어라! 내가 한 모든 말을 깊이 되새기며, 더는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명심해라! 내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 제 44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33)

나는 이미 일을 시작하여 악을 행하는 자와 집권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있다. 지금부터 마음으로 내게 맞서는 자가 있다면 나는 반드시 내 행정의 손으로 그를 다스릴 것이다. 명심해라! 이것이 바로 내 심판의 시작이다. 누구도 봐주거나 놓아주지 않는다. 나는 인간적 감정이 없이 공의를 실행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보응을 받는 것이다. 나는 함부로 사람을 징벌하지 않고, 억울하게 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공의를 실행한다. 나의 아들이라면 나는 반드시 사랑할 것이고, 나를 대적하는 악한 자라면 나는 반드시 증오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일 처리 원칙이다. 너희는 모두 나의 행정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말의 두려움도 없고 내 앞에서 너무 조심성이 없으며, 내가 무엇을 온전케 하고 무엇을 만들려 하는지,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내 나라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모를 것이다.

나의 행정은 다음과 같다.

1. 누구든 마음으로 맞서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 내가 택한 자가 그릇된 생각을 품는다면 즉시 징계가 임할 것이다.
3.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한쪽으로 제쳐 두어 마음대로 지껄이고 행동하게 두었다가 마지막에 철저히 징벌하고 응징할 것이다.
4. 나를 믿는 자들은 시시각각 돌보고 보호하며 구원의 방식으로 생명을 공급해 줄 것이다. 이 사람들은 내 사랑이 함께하므로 절대 넘어지거나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설령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일시적이며, 나는 그의 연약함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5. 반신반의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으며, 또한 대적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가장 가련한 자들이다. 나는 일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확실히 보게 할 것이다. 그 일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고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6. 가장 먼저 내 이름을 받아들인 장자들은 복이 있다! 나는 반드시 너희에게 가장 좋은 복을 내려 마음껏 누리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해 완벽하게 예비되어 있다. 이는 나의 행정이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 제 56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34)

나의 말을 보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내가 결코 너를 소홀히 대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믿는 것이 너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데, 이는 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나의 말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명증한다. 모든 이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나는 바로 너희의 치명적인 약점을 치료해 줄 명의이니 내 앞으로 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왜 앞으로는 근심과 눈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겠느냐? 바로 이 때문이다. 내게는 모든 것이 이뤄지지만,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파괴되었으며, 전부 공허하고 인류를 속이는 것뿐이다. 너는 반드시 내 앞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든 복을 보고 누리게 될 것이다. 내 앞으로 오지 않는 자는 분명 거역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일 테니, 나는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고 무거운 형벌을 가할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해라! 내 앞에 많이 오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얻을 것이나, 이는 은혜에 불과하며, 그 후에 더 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나는 이 사람들, 즉 지금의 너희를 예정하고 택하였다. 성품, 자질, 모습, 체격, 출생 가정, 직업, 결혼 등 너의 모든 것, 심지어는 너의 머리카락 색깔, 피부색, 출생 시간까지도 다 내가 직접 안배했다. 네가 매일 무엇을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내 손으로 안배한 것이며, 오늘날 너를 내 앞으로 인도한 것은 더더욱 내가 안배한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담담히 앞으로 나아가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누리도록 한 것은 당연한 너의 몫으로, 내가 세상을 창조했을 때부터 일찍이 예정해 놓은 것이다. 사람은 모두 이렇게 극단적이다. 마음이 너무 강박하거나 뻔뻔하고, 나의 계획과 안배에 따라 행하지 못한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내게는 모든 것이 다 자유로우니 스스로를 옳아매지 마라. 그러면 생명이 해를 입을 것이다. 기억하였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 제 74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35)

나는 유일한 하나님 자신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본체이다. 나, 곧 이 육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발현이다. 누가 감히 나를 경외하지 않겠고, 누가 눈빛으로 나와 맞서겠으며, 누가 입으로 나를 대적하겠느냐? 그런 자는 반드시 내 저주와 진노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진노가 있으므로 저주함). 또 누가 감히 나에게 불충하고 불효하며, 허튼수작을 부리겠느냐? 그런 자도 반드시 나의 증오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나의 공의와 위엄, 심판은 영원히 세세토록 존속할 것이다. 처음에 나는 자비와 긍휼이었지만, 이는 내 완전한 신성의 성품이 아니다. 공의와 위엄, 심판이야말로 나, 완전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다. 은혜시대에 나는 자비와 긍휼이었다. 그때 내가 자비와 긍휼을 지녔던 것은 완성해야 할 사역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더 이상 자비나 긍휼이니 할 필요가 없어졌다(앞으로도 없을 것임). 오직 공의와 위엄, 심판뿐이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정상 인성에 완전한 신성이 더해진 완전한 성품이다.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무저갱에 떨어져 멸망할 것이고, 나를 확신하는 자들은 내 사랑의 보살핌과 보호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음성을 발하면 온 우주는 물론 땅끝도 진동한다. 누가 내 말을 듣고도 전전긍긍하지 않겠느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누가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나의 공의와 위엄을 깨닫지 않으랴! 또 누가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나의 전능과 지혜를 보지 않으랴! 누구든 유의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유의하지 않는 자는 바로 나를 대적하는 자이자 나를 알지 못하는 자이고, 천사장이며, 가장 방자한 자이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라. 누구든 방자하고 독선적이며 거만하게 굴고 스스로를 크게 여긴다면, 그자는 분명 내가 증오하는 대상이자 멸망될 대상이다!

지금 나는 내 나라의 행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모든 것이 내 심판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또한 내 공의와 위엄 안에 있으며, 나는 누구에게든 공의를 행할 것이다. 말로는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 내게 맞서거나 나를 이미 저버린 자는 내가 단번에 차 버릴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다 나의 때가 있다.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지라도 나에게 풍자의 뜻이 담긴 말을 하는 자는 즉시 죽을 것이다(그의 영, 혼, 육을 가리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억압하거나 냉대하는 자는 내가 즉시 진노로 심판할 것이다.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질투하며, 나를 공의롭지 않다고 여기는 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넘겨 심판받게 할 것이다. 성실하고 무던한 자(지혜가 부족한 자 포함),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자는 모두 나의 나라에 남길 것이다. 훈련받지 못한 자, 즉 지혜와 식견이 부족한 정직한 자들이 내 나라에서 권세를 잡겠지만 다듬어지고 깨지는 과정은 거쳐야 한다. 훈련받는 과정이 결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나는 이를 통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전능과 지혜를 보게 하려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내게 의혹을 품고 있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를 단번에 차 버리겠다. 그런 자는 단 한 명도 원치 않는다(이러한 때조차 아직 나에게 의심을 품고 있다니, 나는 이런 자를 혐오한다). 내가 전 우주에서 하는 일을 통해 정직한 자들로 하여금 나의 기묘한 행사를 보게 할 것이다. 이로써 그들의 지혜와 식견과 분별력을 키워 줄 것이다. 반대로 간사한 자들은 나의 기묘한 행사로 인해 순식간에 파멸될 것이다. 일찍이 나의 이름을 받아들인 장자들(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직한 자들)은 먼저 내 나라에 들어가 나와 함께 만국 만민을 다스리고, 내 나라에서 왕권을 잡아 만국 만민(모든

장자들만이 내 나라에 있고 다른 사람은 없음을 의미함)을 심판할 것이다. 만국 만민 중에 심판을 받고 회개한 자들은 나의 나라에 들어가 백성이 되겠지만, 뻔뻔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자는 무저갱에 던져질 것이다(영원한 멸망을 가리킴). 이는 내 나라에서 이뤄지는 마지막 심판이며, 내가 세상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더 이상 불의도, 슬픔도, 눈물도, 탄식도 없을 것이며, 세상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온통 그리스도의 발현이고 그리스도의 나라이다. 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 얼마나 큰 영광이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 제 79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36)

이제 너희에게 나의 행정을 반포하겠다(행정은 반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형벌을 내림).

나는 말한 대로 하며, 모든 것은 나의 손에 달려 있다. 이를 의심하는 자는 필히 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는 고민할 것도 없이 즉시 화근을 제거하고 응어리진 마음을 풀 것이다(이로써 쳐 죽임을 당한 자는 내 나라의 백성일 리가 만무하며, 사탄의 후손임이 확실하다는 사실이 증명됨).

장자인 사람은 오지랖 넓게 행동하지 말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나의 경륜을 위해 자신을 바치고, 가는 곳마다 나를 아름답게 증거해야 하고,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떼떽하지 못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잠시라도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며, 아들과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항상 장자로서 모두의 앞에 서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야지, 남에게 굽신대서는 안 된다.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장자도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맡긴 직책으로, 다른 사람에게 떠맡겨서는 안 된다. 반드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자신을 바치고 맡은 일을 완수해야 한다.

앞으로 온 우주 세계에서 아들과 백성들을 목양하는 일을 장자들에게 맡겨 완성하게 할 것이다. 이를 마음과 뜻을 다해 완수하지 못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형벌을 가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공의이다. 나는 장자도 쉽사리 넘어가거나 용서하지 않는다.

아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한 명의 장자에게라도 조롱하거나 욕설을 한다면, 나는 반드시 무거운 형벌을 내릴 것이다. 장자는 나를 대변하므로 그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이는 나의 행정에서 가장 엄격한 조항이다. 아들과 백성들 중에 나의 행정을 거스르는 자가 있다면 나는 나의 장자로 하여금 자신의 뜻에 따라 나의 공의를 시행하도록 할 것이다.

나를 가볍게 대하고,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과 나의 외적인 일만 중시하며, 나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사람을 나는 조금씩 멀리할 것이다. 이는 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나를 위한 봉사를 마친 사람은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 아니면 내가 너를 손볼지도 모른다(이 조항은 추가 사항임).

오늘부터 모든 장자가 철장(鐵杖)을 들고 나의 권병을 시행하여 만국 만민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은 만국 만민 가운데서 다니고, 만국 만민 가운데서 나의 심판, 공의, 위엄을 시행할 것이다. 나의 경륜이 완성되고 나의 모든 장자가 나와 함께 다스리므로 아들과 백성들은 나에게 경외심을 품고, 영원토록 나를 찬미하고, 나에게 환호하며,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는 내 행정의 일부이며, 앞으로는 사역의 진행 단계에 따라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위의 행정을 통해 너희는 내 사역의 발걸음과 진행 단계가 어디에 이르렀는지 보아야 한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다.

나는 일찌감치 사탄에게 심판을 시작했다. 나의 뜻이 막힘없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장자가 나와 함께 영광을 얻었으므로 나는 세상과 사탄에게 속하는 모든 것들에게 나의 공의와 위엄을 보여 주었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고, 사탄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나와 이야기를 나눌 자격이 없기 때문임).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해 왔을 뿐이다. 나의 사역이 한 단계 한 단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나의 뜻이 온 땅에서 막힘없이 통하고 있다. 그래서 사탄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완전히 멸망하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나는 모든 장자로 하여금 사탄에게 나의 행정을 시행하게 했다. 사탄에게 나의 진노가 임했음을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영광도 보여 주었다(나의 모든 장자가 사탄에게 치욕을 안겨 줄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증거임을 보여 준 것). 나는 사탄을 직접 벌하는 대신 나의 모든 장자를 통해 공의를 시행하고 위엄을 보여 주었다. 사탄이 과거에 나의 아들을 학대하고 꺾박하고 유린했으므로 오늘날 사탄이 자기 역할을 다 한 뒤에는 그것을 처리할 권한을 장성한 장자에게 맡긴다. 세계 각국이 겪고 있는 극심한 혼란은 사탄이 힘없이 무너졌음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사람 간의 싸움,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해 사탄의 나라가 무너졌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나는 과거에는 단계별로 조금씩 사탄에게 치욕을 안기고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사탄을 완전히 소멸시킬 때 나의 큰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사람의 생각에 맞지 않는 초자연적인 일도 이뤄질 것이다(곧 임할 복을 말함). 나는 살아 있는 하나님 자신이니 규례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다. 각기 다른 내 경륜에 따라 말을 하므로 과거에 했던 말이 오늘날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지 말라! 나는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며, 나에게서는 모든 것이 자유롭고 초월적이며 완전히

해방된다. 내가 했던 지난날의 말들이 오늘에 이르러서는 어쩌면 뒤쳐졌을 수도 있고 없어졌을 수도 있다(그러나 나의 행정은 한 번 반포되면 영원히 바뀌지 않음). 이것이 내 경륜의 절차이다. 날마다 새로운 빛과 계시를 줄 것이니 너희는 규례를 고집하지 말라. 이것은 나의 계획이다. 나는 매일 너희에게 빛을 계시해 줄 것이며, 우주 세계에 나의 음성을 발할 것이다. 알겠느냐? 이는 너의 직책이며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니, 한시라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나는 나의 검증에서 통과한 사람을 끝까지 쓸 것이며,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므로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이것이 나의 전능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 제 88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37)

내가 하는 말 한 마디 한 마디에는 권병이 있고 심판이 있으므로 누구도 그것을 바꿔 놓을 수 없다. 내가 말을 한 이상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나의 성품이다. 나의 말이 곧 권병이므로 이를 고치려는 자는 형벌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반드시 내게 죽임 당할 것이다. 심한 자는 목숨을 잃고 음부로, 그리고 무저갱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인류에 대한 내 유일한 처리 방식이며, 사람은 바꿀 수 없다. 이것이 나의 행정이다. 명심하라! 누구도 거슬러서는 안 된다. 반드시 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여태까지 나는 너희에게 몹시 관대했다. 그저 말만 했을 뿐, 죽인다는 것과 관련된 말들은 아직 사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모든 재앙(행정을 가리킴)이 연달아 임하여 내 뜻에 맞지 않는 모든 자를 징벌할 것이다. 반드시 사실이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나의 진노를 보지 못하고 계속 제멋대로 굴 것이다. 이는 내 경륜의 절차이자, 다음 단계 사역의 방식이다. 이것을 미리 알려 주는 이유는 너희가 이를 거슬러 영원한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오늘 이후로 나는 나의 뜻에 따라 장자들 외의 모든 사람을 하나씩 자기 자리에 앉게 한 후 형벌할 것이며, 누구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어디 한번 더 방탕하게 굴어 보아라! 더 거역해 보거라! 내가 말했듯이, 나는 누구에게나 공의로우며,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이를 통해 범할 수 없는 내 성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나의 본체이며, 사람이 바꿔 놓을 수 없다. 사람들은 모두 내 말을 듣고, 내 영광의 얼굴을 보며, 완전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내게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행정이다. 우주 땅끝의 모든 사람이 나를 찬미하고 내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 자신이자,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이다. 나의 말과 내가 사용하는 어휘, 나의 언행은 누구도 바꿔 놓을 수 없다. 이는 내 자신이 하는 일이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 제 100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38)

내가 계획한 사역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한시도 멈춘 적이 없다. 이미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들어섰고 너희를 나의 나라로 데려와 나의 백성이 되게 한 이상, 나는 너희에게 또 다른 요구를 하겠다. 즉, 나의 이 시기의 헌법을 너희에게 반포하겠다.

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는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즉, 시련 속에서 굳게 서야 한다. 나를 기만하고 내게 숨기면서 내 뒤에서 떳떳하지 못한 짓을 저지르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는 일률적으로 출교시켜 나의 집과 격리시키고, 나의 처분을 기다리게 할 것이다. 이전에 나에게 충성하지도, 공경하지도 않은 자와 오늘날 또 나서서 공개적으로 나를 판단하는 자 역시 나의 집 밖으로 출교시킬 것이다. 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항상 나의 부담을 생각하고 내 말을 깨닫기 위해 추구해야 한다. 나는 그런 사람만 깨우쳐 줄 것이다. 그들은 틀림없이 나의 깨우침과 인도하에 살게 되고, 형벌 또한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 나의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앞날만 중시하는 자들, 즉 모든 행위가 내 마음을 만족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밥 빌어먹기’ 위함인 ‘비렁뱅이’ 같은 부류들은 내가 절대 쓰지 않을 것이다. 그자들은 천성적으로 나의 부담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성도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그자들의 머리는 ‘영양’실조에 걸렸으므로 집으로 돌아가 ‘보양’해야 한다. 나는 그런 자를 쓰지 않는다. 나의 백성들은 저마다 반드시 나에게 대해 알아 가는 것을 자기 본연의 사역으로 여겨 끝까지 해 나가야 하고, 먹고 입고 자듯이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중에는 나에게 대한 인식이 밥 먹듯이 ‘익숙’하고, 식은 죽 먹듯이 전혀 힘들지 않은 정도가 되어야 한다. 내가 한 말은 한 마디 한 마디 확신을 가지고 철저히 이해해야지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 나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나를 직접 대적하는 자이다. 나의 말을 먹지도 않고, 인식하려 노력하지도 않는 자는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이니 직접 내 집 문밖으로 쫓그리 내칠 것이다. 전에 말했듯이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알짜이기 때문이다. 백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내 말에서 나를 알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나머지 사람들을 도태시킬지라도 그 한 명만을 집중적으로 깨우쳐 주고 빛을 비춰 줄 것이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나를 나타내고 살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밀(날알이 짝 차지 않았을지라도)을 원하지 가라지(날알이 짝 차고 사람들이 흡족해할지라도)는 원하지 않는다. 추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태만하기만 한 그런 자는 내 이름을 계속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자발적으로 떠나야 한다. 나는 그런 자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 제 5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39)

내 집의 백성이 된 이상, 또 내 나라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 이상, 모든 행위는 반드시 내가 요구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너에게 떠다니는 구름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새하얀

눈이 되라는 것인데, 본질은 물론 가치도 있어야 한다. 나는 본래 거룩한 곳에서 왔으므로 이름만 있고 본질이 없는 연꽃과는 전혀 다르다. 연꽃은 본래 진흙에서 온 것이지, 거룩한 곳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 하늘이 땅에 내려오고 새 땅이 궁창에 펼쳐질 때는 바로 내가 인간 세상에서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이기도 하다. 사람 중에 나를 아는 자가 있더냐? 내가 강림하는 것을 본 자가 있더냐? 내게는 이름뿐만 아니라 본질도 있음을 깨달은 자가 있더냐? 내가 손으로 구름을 걷어 내고 궁창을 자세히 살펴보니, 우주에는 내 손으로 안배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우주 아래에서는 나의 대업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미약한 힘’을 바치고 있다. 땅에 있는 사람에 대한 나의 요구는 크지 않다. 그것은 내가 본래 실제 하나님이며, 사람을 만들고 주관도 하는 전능자이기 때문이다. 사람 중에 그 누가 전능자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늘 끝이나 바다 끝에 있다고 한들 어찌 내 영의 감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나의 영을 ‘알기도’ 하지만 거스르기도 한다. 나의 말은 모든 사람의 추악한 몰골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झा어 냄으로써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빛에 드러나게 했고, 나의 감찰 속에서 쓰러지게 했다. 사람은 쓰러졌지만 그 마음은 감히 내게서 멀리 떠날 수 없었다. 피조물 중에 그 누가 나의 행사로 인해 나에 대한 ‘사랑’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 누가 나의 말로 인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 누가 나의 사랑으로 인해 그리움의 정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은 사탄에 의해 패괴되어 내가 요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내가 요구한 ‘최저 기준’에 이르는 것조차 ‘걱정’하는데, 하물며 사탄이 극도로 미쳐 날뛰고 기고만장한 시대인 오늘날은 어떻겠느냐? 혹은 사람이 이미 그것에게 ‘짓밟혀’ 온몸이 더러워진 때는 어떻겠느냐? 사람이 타락하여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으로 인해 내가 슬퍼하지 않은 적이 있더냐? 설마 내가 사탄을 불쌍히 여기겠느냐? 설마 내가 사랑한 것이 잘못된 것이겠느냐? 사람이 나를 거역할 때 나는 마음속으로 몰래 눈물을 흘렸고, 사람이 나를 대적할 때 나는 형벌을 주었다. 또한 사람이 내게 구원받아 죽음에서 부활했을 때 나는 정성 들여 양육했고, 사람이 내게 순종할 때 내 마음은 상쾌하기 그지없었는데, 순식간에 천지 만물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기분이었다. 사람이 나를 찬미할 때 내가 어찌 그 기쁨을 누리지 않겠느냐? 사람이 나를 증거하고 나에 의해 얻어질 때, 내가 어찌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내가 지배하고 공급하지 않더냐? 내가 지시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모두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저마다 ‘나를 등지고’ ‘사람이 좋아하는’ 짓을 할 것이다. 너는 너 자신이 한 일과 행동, 그리고 말을 육신을 입은 내가 전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오랜 세월 나는 갖은 고초를 겪었으며, 인간 세상의 고통도 겪어 보았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고난도 육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실망하도록 할 수 없었고, 더욱이 그 어떤 즐거움도 육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 냉대하거나 믿음을 잃게 할 수도, 나를 저버리게 할 수도 없었다. 설마 나를 향한 사람의 사랑이 고난도 즐거움도 없는 것에 제한되어 있겠느냐?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40)

오늘날, 내가 너희를 이 단계까지 이끌어 온 이상, 나는 합당한 안배를 해 놓았고 나 자신의 목적도 갖고 있다. 지금 그것을 너희에게 알려 준다고 한들 너희가 정말 알 수 있겠느냐? 나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신을 위해 활로를 찾지 않는 자가 있더냐?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있더냐?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풍부하고 다채롭다 한들 만세 후의 오늘이 이럴 줄 누가 예상했겠느냐? 설마 네 스스로 노력한 결과란 말이나? 너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얻어 낸 것이란 말이나? 너의 머리로 그려 낸 아름다운 화면이란 말이나? 내가 온 인류를 이끌지 않았다면, 어느 누가 나의 안배에서 벗어나 다른 활로를 찾을 수 있었겠느냐? 설마 사람의 ‘상상’과 ‘바람’이 사람을 오늘날까지 이끌어 왔단 말이나? 많은 사람들의 일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이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란 말이나? 많은 사람은 일생이 예상 밖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데, 이는 그들의 요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란 말이나? 전체 인류를 통틀어, 전능자의 눈 아래에서 보살핌을 받지 않는 자가 있느냐? 전능자의 예정 속에서 생존하지 않는 자가 있느냐? 사람의 생사존망은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냐? 사람의 운명은 자신이 주관할 수 있는 것이더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원했는지 모르지만 죽음은 오히려 그들을 멀리 피해 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삶의 강자가 되길 원하고 죽음을 두려워했는지 모르지만, 부지불식간에 죽는 날이 다가와 그들을 죽음의 심연 속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대성통곡하였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련 속에서 넘어지고 시험 속에서 잡혀갔는지 모른다. 내가 비록 사람이 나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격살하고 멸할까 봐 내 얼굴 보기를 무서워했는지 모른다. 과연 사람은 참으로 나를 알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분명히 말할 수 없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무서워하고 내가 형벌을 내릴까 두려워하면서도 일어나 공개적으로 나를 대적하고 판단하는데, 설마 이것이 실제 상황이 아니란 말이나? 사람이 전에 나를 알지 못한 것은 내 얼굴을 본 적도, 내 음성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내가 있다고 해도 어느 누가 모호하지 않겠느냐? 어느 누가 분명히 알고 있겠느냐? 나는 백성들이 나에 대해 모호하고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하여 나는 이렇게 큰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나는 살며시 인간 세상에 왔다가 표연(飄然)히 떠나간다. 누가 나를 본 적이 있느냐? 설마 태양이 붉다고 나를 볼 수 있겠느냐? 설마 달이 밝고 맑다고 나를 볼 수 있겠느냐? 설마 별들이 높이 떠 있다고 나를 볼 수 있겠느냐? 내가 올 때에는 사람도, 만물도 모르고, 내가 떠나갈 때에도 사람은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 설마 땅에 있는 사람의 찬미란 말이나? 설마 들판에 피어 있는 백합이란 말이나? 하늘을 나는 작은 새란 말이나? 산속에서 포효하는 사자란 말이나? 아무도 나를 완전하게 증거할 수 없다! 아무도 내가 하려는 일을 할 수 없다! 설령 한다 해도 효과는 또 어떠하겠느냐?

나는 날마다 많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날마다 많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아무도 나의 심판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아무도 나의 심판의 실재를 벗어난 적이 없다. 내가 궁창 위에 서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나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긍휼과 자비 속에서 살고 있다. 너희도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제 11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41)

땅에 있을 때, 나는 사람 마음속의 실제 하나님이고, 하늘에 있을 때, 나는 만물의 주재자이다. 나는 높디높은 산을 넘고 깊디깊은 물을 건너기도 했으며, 표연(飄然)히 사람들 가운데를 거닐기도 했다. 그 누가 감히 공개적으로 ‘실제 하나님 자신’에게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 누가 감히 전능자의 주재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 누가 감히 내가 확실히 하늘에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또한 그 누가 감히 내가 틀림없이 땅에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그 누구도 내가 거하는 곳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하늘에 있을 때, 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 자신이기만 하겠느냐? 땅에 있을 때, 나는 실제 하나님이기만 하겠느냐? 설마 만물을 주재하거나 인간 세상의 고통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실제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단 말이나? 그렇다면 사람은 구제 불능일 정도로 어리석은 것 아니겠느냐? 나는 하늘에 있으면서 땅에도 거하고, 만물 가운데도 만인 가운데도 거하므로 사람은 날마다 나를 접하고 볼 수 있다. 사람에게 나는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또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내게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비밀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내게 있는 비밀을 더 많이 발견하여 마음속의 ‘괴로운 심정’을 없애고자 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다. 그러나 사람이 투시경을 사용한다고 한들, 어찌 내게 있는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백성들이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영광을 얻을 때, 큰 붉은 용의 소굴은 즉시 파헤쳐지고 진흙은 모조리 제거될 것이다. 또 오랫동안 고여 있던 더러운 물은 모두 내 불길에 말라 더 이상 남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큰 붉은 용은 멸망하여 유황불 못에 던져질 것이다. 너희는 정말 큰 붉은 용에게 붙잡혀 가지 않도록 내가 사랑으로 보살피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정말 그것의 간계를 증오하느냐? 그 누가 나를 위해 굳세게 증거할 수 있겠느냐? 내 이름과 내 영, 그리고 내 전체 경륜을 위해 그 누가 자신의 힘을 바칠 수 있겠느냐? 오늘날 하나님나라가 인간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친히 인간 세상에 임한 때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누가 나를 위해 두려움 없이 전장에 나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나라의 형성을 위해, 나의 마음을 만족게 하기 위해, 나아가 내 날의 도래를 위해,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때와 번성하는 날을 위해, 사람을 고해에서 구원하기 위해, 내일의 도래를 위해, 그리고 내일의 아름다움과 번영을 위해, 더욱이 훗날의 누림을 위해 모든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 분투하고 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미 승리했다는 상징 아니더냐? 바로 내가 이미 계획을 완성했다는 표징 아니더냐?

말세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세상의 공허함을 느끼고 살아갈 용기를 잃어 간다. 그리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망 속에서 죽어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하다가 실망하는지 모르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탄의 손아귀에 지배당하는지 모른다. 나는 일찍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붙들어 주었으며, 사람이 광명을 잃었을 때, 그들을 빛이 있는 곳으로 데려와 빛 속에서 나를 알게 하고 행복 속에서 나를 누리게 했다. 하나님나라의 백성은 모두 나의 빛이 비치자 나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 나는 본래 사람이 사랑하고 그리워하게 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나의 그림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사람은 그 누구도 그것이 영의 작용인지, 아니면 육신의 기능인지 깨닫지 못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사람이 한평생 구체적으로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혐오하지 않았고 오히려 영의 깊은 곳에서 나를 그리워했다. 나의 지혜는 사람의 탄복을 자아내며, 나의 기묘한 행사는 사람의 눈을 호강시켜 준다. 사람은 나의 말을 헤아리지 못하면서도 매우 소중히 여기며, 나의 '실제'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도 달갑게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실제 분량 아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제 15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42)

1.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야지, 함부로 잘난 체하거나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된다.
2. 마땅히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한 모든 일을 행해야 하며, 하나님 사역의 이익에 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사역을 수호해야 한다.
3. 하나님 집의 제물과 물질, 모든 재산은 사람이 마땅히 바쳐야 하는 제물이다. 그 제물은 제사장과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다. 사람이 바친 제물은 하나님께 누리도록 드린 것이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오직 제사장에게만 베풀어 누릴 수 있게 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은 그 제물을 누릴 자격이나 권리가 전혀 없다. 사람이 바친 그 제물(돈과 누릴 수 있는 물질)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런 것들을 누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그런 것들을 누린다면 제물을 훔쳐 먹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 자들은 모두 유다이다. 유다는 주를 팔았을 뿐만 아니라 돈주머니의 돈도 훔쳐 썼기 때문이다.
4. 사람에게에는 패괴 성품은 물론, 감정까지 있다. 그러므로 서로 협력하며 섬길 때 남녀가 단둘이 함께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출교한다.

5.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논해서도 안 된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말을 하되, 범위와 한계를 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말을 경계하고 자신의 행동거지를 조심해라.

6. 마땅히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너의 의무를 다하며, 너의 직책을 수행하고, 너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자신이 바쳐야 할 몫을 바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자격도, 하나님의 집에 남아 있을 자격도 없다.

7. 사역이나 교회의 사무적인 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은 물론, 모든 것은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야지, 이를 조금이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또한 절대적으로 순종하되, 옳고 그름을 분석하지 마라. 옳든 그르든 너와는 무관하니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8.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해야지, 사람을 높이거나 우러러보아서는 안 된다. 또한, 하나님을 가장 높은 지위에 두고 네가 우러러보는 사람과 너 자신을 순서대로 그 밑에 두어서도 안 된다. 네 마음속에 어떤 사람의 자리도 있어서는 안 되며, 특히 네가 숭상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평등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9. 마땅히 교회의 사역을 위해 생각하고 자신의 육적인 앞날은 내려놓아야 한다.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온몸과 마음을 쏟아부어야 한다. 마땅히 하나님의 사역을 주된 것으로 하고, 자신의 삶은 부차적인 것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갖춰야 할 품위이다.

10.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너의 자녀, 남편이나 아내 또는 형제나 부모 등)을 억지로 데려오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집은 사람이 부족하지 않으니 쓸모없는 자로 머릿수를 채울 필요가 없다. 기꺼이 원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교회로 데려오지 마라. 이 조항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니, 너희는 이 일에서 서로 제약하고 감독하며 일깨워 주어야 한다. 그 누구도 이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마지못해 교회에 들어왔을지라도 책을 내어 주어서는 안 되며, 새 이름을 지어 주어서도 안 된다. 그런 자는 하나님 집의 사람이 아니니 그런 부류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든 철저히 막아야 한다. 마귀가 교회에 침입하여 문제를 일으킨다면, 너를 출교시키거나 제한을 가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이행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함부로 행동하거나 개인적인 앙갚음을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나라시대의 선민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10 가지 행정>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43)

사람으로서 다해야 할 많은 본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마땅히 지키고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다. 성령이 해야 할 것은 성령이 하면 된다. 사람은 간섭할 수 없다. 사람이 행해야 할 것은 성령과는 무관하게 사람이 지켜야 한다. 이것은 완전히 사람이 해야 할 것이므로,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듯 마땅히 계명으로 삼아 지켜야 한다. 지금이 율법시대는 아닐지라도, 율법시대의 말씀과 유사한 수많은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 성령의 감동에만 기대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실제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증거한 사람을 대적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분수를 지켜야지 방자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말할 때는 분수를 지키고, 일을 하거나 말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한 사람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마땅히 하나님의 증거를 경외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어투와 그 말씀의 목적을 흉내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증거한 사람에게 노골적으로 대적해서도 안 된다.'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은 각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이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서나 특별히 율법과 유사한 수많은 규례를 정하여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이런 규례를 통해 사람의 성품을 통제해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찾아낸다. 예를 들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구약시대의 말씀은 오늘날에는 통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당시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을 어느 정도 통제함으로써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상징이기도 하였다. 지금이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례는 여전히 많으며, 지난날의 규례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더 적합한 실행법이 많이 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성령 역사와 관계되지 않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은혜시대에 율법시대의 수많은 규례들이 폐지된 까닭은 그런 율법들이 당시의 사역에 크게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규례가 폐지된 후, 당시의 상황에 맞는 수많은 실행법이 정해졌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규례들이 되었다. 이 규례들은 오늘날의 하나님이 오자마자 폐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는 또한 오늘날의 사역에 알맞은 수많은 계명을 정했는데, 그것은 규례가 아니라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훗날에는 규례가 될 수도 있다. 종합하자면, 오늘날의 사역에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너는 마땅히 지켜야 한다. 훗날에 어떻게 되든, 오늘날 하는 것은 오늘날을 위한 것이다. 앞으로 지켜야 할 더욱 좋은 실행 방식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오늘날 지켜야 할 것을 마땅히 지켜야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된다. 오늘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즉, 네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만하거나 진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음탕하고 망령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온갖 감언이설로 눈앞의 하나님의 신임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반항과 대적은 물론, 반박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며, 악인의 간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의 입과 혀를 경계해야 한다. 하나님이 정해 준 범위를 벗어나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교만하게 말해 하나님께 혐오받지 않도록 너의 발걸음을 경계해야 한다. 남이 너를 비웃지 않고 마귀가 너를 조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전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오늘날 행하는 모든 사역에 순종해야 한다. 모른다 할지라도 판단해서는 안 되며, 단지 구하면서 교제해야 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고유한 지위를 넘어서서는 안 되며, 오직 사람의 위치에서 오늘날의 하나님을 섬겨야지, 가르치려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하나님이 증거한 사람의 자리에는 그 누구도 서서는 안 되며, 말하거나 행하거나 생각할 때는 모두 사람의 위치에 서야 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직책이니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행정을 거스르는 일이니 그 누구도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새 시대의 계명>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44)

나는 너희가 많은 일을 해내기를 바란다. 하지만 너희의 행위와 삶이 나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너희에게 나의 뜻을 설명하는 수밖에 없다. 너희는 분별력이나 감상 능력이 너무 부족한 탓에 나의 성품과 본질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당장 너희에게 나의 성품과 본질을 알려 주려고 한다. 이전에 네가 얼마나 알았든, 또 이런 문제에 대해 알려고 했든 아니든 너희에게 상세히 알려 줄 생각이다. 언급된 이 문제가 너희에게 그리 낯설지는 않겠지만, 너희는 이 속에 담긴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그 뜻에 그리 익숙하지도 않다. 많은 이들이 어렵듯이 조금 알 뿐, 깊이 이해하지는 못한다. 너희가 진리를 더 잘 실행하려면, 즉 내 말을 더 잘 실행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다. 그게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은 여전히 아주 막연하고 위선적이며, 또한 종교적인 색채로 가득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할 수 없고, 무심하게 넘기거나 얼버무리고, 더욱이 구제 불능일 정도로 모독하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파고들어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 보면, 너희는 내가 반포한 행정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 쉽게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노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네가 최종적으로 얻는 결과는 행정을 범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본질을 인식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동시에 행정 자체를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론 행정에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행정 속에 모두 구현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45)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에게나 아주 추상적인 문제이고, 또 누구에게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인 까닭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의 성격과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도 자신의 희로애락이 있지만 그것 역시 사람의 희로애락과는 다르다. 하나님께는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과 소유가 있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드러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신분을 대변한다. 그런 어떠함과 소유, 본질, 신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 위로, 증오도 있고, 더욱이 인류에 대한 철저한 이해도 있다. 하지만 사람의 성격에는 명랑함, 활발함 혹은 무감각함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은 만물 생령을 다스리는 주재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자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다. 그의 성품은 존귀함과 권세를 대변하고, 고상함과 위대함을 대변하며, 더욱이 지고지상함을 대변한다. 그의 성품은 권병의 상징이자 모든 정의와 아름다움, 선함의 상징이며, 더욱이 모든 적대 세력과 흑암이 압도하거나 침해할 수 없음을 상징하고, 또 그 어떤 피조물도 거스를 수 없음(또한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음)을 상징한다. 그의 성품은 최고 권력을 상징하며,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도 그의 사역과 성품을 방해할 수 없고 또 그럴 능력도 없다. 사람의 성격은 동물보다 조금 우월함을 상징할 뿐 사람 자체는 권병도 없고, 자주적이지도 못하며, 자아를 초월하는 능력도 없다. 그저 나약하게 모든 사람, 일, 사물의 지배를 받는 본질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정의의 존재와 탄생, 광명의 존재와 탄생을 기뻐하고, 흑암과 사악이 멸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그 자신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광명과 아름다운 삶 때문에 기뻐한다. 그의 '희(喜)'는 정의로운 것으로, 모든 긍정적인 사물의 존재를 상징하고, 더욱이 상서로움의 상징이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사물의 존재와 교란이 그의 인류를 침해하는 것 때문에 노하고, 사악과 흑암의 존재, 그리고 진리를 몰아내는 일의 존재 때문에 노하며, 더욱이 아름답고 선한 사물에 대항하는 사물의 존재 때문에 노한다. 그의 '노(怒)'는 모든 부정적인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상징하고, 더욱이 그가 본래부터 거룩함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그가 기대했던 인류가 흑암 속에 떨어지고 그가 사람에게 행하는 사역이 그의 뜻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그가 사랑하는 인류 전체가 광명속에서 살지 못하는 사실에 슬퍼한다. 또 그는 무고한 인류 때문에 슬퍼하고, 정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슬퍼하며, 선량하지만 주관 없는 사람 때문에 슬퍼한다. 그의 '애(哀)'는 그의 선량함과 긍휼의 상징이자 아름다움과 인자함의 상징이다. 그는 원수를 물리치고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얻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은 물론, 모든 적대 세력을 몰아내고 멸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한다. 또 그는 인류가 아름답고 평안한 삶을 얻는 것으로 인해 즐거워한다. 그의 '낙(樂)'은 사람의 희열과 달리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즐거움이며, 이는 희열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이다. 그의 '낙'은 인류가 앞으로 고난받지 않음을 상징하고, 또 인류가 광명의 세계로 들어감을 상징한다. 반면 인류의 희로애락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의나 광명, 아름다운 사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내리는 은혜를 위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인류의

죄로애락은 이기적이다. 그것은 어두운 세계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나란히 논할 수 없다. 하나님은 영원히 지고지상하고 존귀하며, 사람은 영원히 미천하고 한 톨의 가치도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류를 위해 대가를 치르고 헌신하지만, 사람은 모두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요구하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류의 생존을 위해 힘써 일하지만, 사람은 결코 정의와 광명을 위해 무언가를 바치지 않는다. 설령 사람이 잠시 노력한다 해도 작은 일에도 견디지 못한다. 사람의 노력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영원히 이기적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사심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정의와 아름다움, 선함의 시작이고, 사람은 모든 추함과 사악함의 계승자요, 발현자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롭고 아름다운 본질을 영원히 바꿀 리 없지만,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정의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46)

나의 모든 말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으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틀림없이 큰 수확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헤아리기가 몹시 어렵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대략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지 않는 일을 많이 하여 내게 보여 주길 바란다. 그러면 나도 마음을 놓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언제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일을 할 때는 그의 말씀에 따르며, 매사에 그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불경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미래에 대한 네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다. 또 일생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일을 착실하게 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면, 너는 행정을 거스르지 않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네가 “나는 왜 그분이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내 생각에 이런 말씀은 성령의 깨우침에 불과해”,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인성은 나보다 뛰어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등의 판단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 나는 네가 죄를 많이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권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영영 사함 받을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는 네가 노여움을 산 대상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너는 네가 어떤 사람을 판단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그의 육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를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네가 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영이 하는 모든 일은 그가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을 수호하고,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라. 이 점을 간과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믿어도 영원히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일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으므로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벌로 너를 훈계할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너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본질을 점점 더 알게 되고, 그와 동시에 더 높고 아름다운 경지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너 자신의 추악한 영혼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더욱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너의 행위는 점점 적어지고, 너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가까워지며 나아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점차 생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인류가 아름다운 경지로 들어감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너희들은 아직 이르지 못했다. 너희가 모두 자신의 운명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의 본질을 인식하려는 마음이 있겠느냐? 이대로 계속 나아간다면, 너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정을 범하는 일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기 위한 기초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역과 무관하지 않다. 너희가 늘 행정을 범한다면, 너희 중에 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 나의 사역이 모두 헛수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자신의 행위를 점검하고, 걸음을 신중히 내디디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 대한 나의 더 높은 요구이니 너희 모두가 신중하게 고려하고, 진지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어느 날 너희의 행위가 나를 노기충천하게 한다면, 너희를 대신해 벌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로지 너희 스스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47)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므로 끝까지 따르기만 하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공의로우신데, 끝까지 따른 사람을 어떻게 뿌리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공의로운 성품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나의 요구에는 다 적합한 기준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요구하든 사람은 다 그것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는 네가 얼마나 대단한 경력이나 관록을 갖고 있는지 보지 않고, 오직 네가 나의 도를 행하는 사람인지, 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인지만 본다. 너에게 진리가 없고 오히려 내 이름을 모욕하며 나의 도에 따라 행하지 않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따르기만 한다면, 그때는 내가 너의 악을 이유로 너를 치고 징벌할 것이다. 그때 네게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오늘 내가 한 말을 다 지킨다면 나는 그런 사람을 칭찬할 것이다. 너는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르면서 고난을 받고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환난을 함께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내지는 못했다. 너는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거나 헌신하면 된다고 생각할 뿐,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 또 너는 “어쨌든 저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고통받고 열심히 뛰어다니며 헌신했는데, 공로는 없어도 고생은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꼭 저를 기억하실 겁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공의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고, 사람의 뜻이 전혀 없으며, 육적인 것도, 사람처럼 거래하는 것도 섞여 있지 않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는 자는 모두 징벌을 받아야 한다. 하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봐주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저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으니 나중에 제게 축복을 조금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너는 내가 한 말을 지켰느냐?” 네가 말한 공의는 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다. 너는 내가 공의로우니 그 누구도 차별할 리가 없으며,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고 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그러나 “끝까지 따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나의 말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담겨 있다.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 나에게 완전히 얻어지는 사람이고, 또 나에게 정복된 후 진리를 구해 온전케 되는 사람이다. 너는 몇 가지를 해냈느냐? 끝까지 따랐다면 그 외의 것은 어떠냐? 너는 내 말을 준행했느냐? 너는 내가 내놓은 다섯 가지 요구 가운데 하나만 충족했을 뿐, 그 외의 네 가지는 충족시킬 생각도 하지 않는다. 너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길을 찾아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추구한다. 나의 공의로운 성품은 너 같은 사람에게는 그저 형벌이자 심판이고 공의로운 응징이다. 악을 행하는 모든 이에게는 공의로운 징벌이다. 나의 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설령 끝까지 나를 따른다고 해도 반드시 징벌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이 공의로운 성품을 나타내 사람을 징벌할 때가 되면 사람은 매우 당혹해할 것이다. 하나님을 따를 때 그의 도를 행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면서 ‘그동안 고난만 조금 받았지,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는 않았으니 할 말이 없어. 그냥 형벌을 받자!’라고 할 것이다. 또 마음속 한 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 것이다. ‘아무튼 나는 끝까지 따랐으니 형벌을 받더라도 너무 무거운 형벌은 받지 않겠지. 형벌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받아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 나를 계속 이렇게 대하지는 않으실 거야. 어쨌든 난 멸망당할 사람들과는 다르거든. 멸망당할 사람은 무거운 형벌을 받겠지만 나는 좀 가벼운 형벌을 받을 거야.’ 공의 성품은 네가 말한 것과 다르다. 죄를 순순히 인정한다고 해서 가볍게 처벌하지는 않는다. 공의란 바로 거룩함이자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성품이다. 더러운 자와 변화되지 않은 자는 모두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상이다. 공의로운 성품은 법률이 아니라 행정, 하나님나라의 행정이다. 이런 행정은 진리와 변화가 없는 모든 자에게 있어 공의로운 징벌이며, 돌이킬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이는 사람이 각기 부류대로 나뉠 때, 상선벌악(賞善罰惡)하기 때문이다. 그때는 인류의 종착지가 드러나는 때이자 구원 사역이 끝나는 때이므로 그 후로는 더 이상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한 모든 사람을 응징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베드로의 체험—형벌과 심판에 대한 인식>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48)

나는 맹렬한 불이니 거스르는 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사람은 모두 내가 만든 존재이므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반항하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 사람에게에는 내 일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내 사역과 내 말의 옳고 그름을 분석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 나는 창조주이다. 피조물은 마땅히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며, 이치를 따져서도, 나아가 나를 대적해서도 안 된다. 나는 나의 권병으로 내 백성들을 다스리니, 내가 만든 피조물들은 모두 내 권병에 순종해야 한다. 오늘날, 너희가 비록 내 앞에서 겁 없이 방자하게 굴고, 너희를 훈계하는 나의 말을 거역하면서도 두려운 줄 모르고 있지만, 나는 오직 인내로 너희의 패역에 대응할 뿐이다. 나는 보잘것없는 구더기들이 거름 더미를 뒤집는다고 해서 크게 화를 냄으로 내 사역에 영향을 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내가 심히 중오하고 혐오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를 참고 있다. 이는 내 말이 끝날 때까지, 내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안심해라! 나는 이름 없는 구더기와 똑같이 굴지 않을 것이고, 너와 ‘능력’의 고하를 겨루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중오하지만 참을 수 있다. 그러나 네가 나를 거역하면, 너는 내 아버지가 내게 허락한, 너에게 형벌을 가하는 날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피조물인 구더기가 정녕 창조주를 당해 낼 수 있겠느냐? 가을날, 낙엽이 뿌리로 돌아갈 때, 너는 네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고, 나는 내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에게는 내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고, 너에게는 네 ‘아비’의 유린이 따를 것이다. 나에게는 내 아버지의 영광이 있고, 너에게는 네 ‘아비’의 치욕이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오랜 기간 참아 왔던 형벌로 너와 함께하고, 너는 만년 동안 패괴되어 찢어 버린 그 육체로 나의 형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서 인내를 동반한 말씀 사역을 끝마치지만, 너는 내 말에서 화를 당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매우 기뻐하며 이스라엘에서 역사하겠지만, 너는 슬피 울고 이를 갈면서 진흙 속에서 살고 죽을 것이다. 나는 원래의 형상으로 돌아가 더 이상 너와 함께 더러움 속에 거하지 않을 것이고, 너도 원래의 추태를 되찾아 거름 더미 속을 헤집고 다닐 것이다. 나의 사역과 나의 말이 끝나는 날은 나에게 경사로운 날이 되겠지만, 너의 대적과 패역이 끝나는 날은 너에게 통곡하는 날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동정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와 ‘대화’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다시는 나와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너의 패역을 중오하겠지만, 너는 내 사랑스러움을 그리워할 것이다. 나는 너를 치겠지만, 너는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나는 기쁘게 너를 떠나겠지만, 너는 내게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나는 영원히 너를 보지 않겠지만, 너는 영원히 나를 갈망할 것이다. 내가 너를 중오하는 이유는 지금 네가 나를 대적하기 때문이고, 네가 나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너에게 형벌을 가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와 함께 거하기를 원치 않지만, 너는 간절히 기대하며 영원히 슬피 울 것이다. 네가 내게 행한 모든 짓을 통회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너의 패역과 대적을 통회하여 바닥에 얼굴을 대고 온전히 내 앞에 엎드려 더는 나를 거역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할지라도 영원히 내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네가 스스로 창피를 당하게 할 것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49)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자에게 공휼을 베풀다. 악인들이 받는 징벌 또한 내 공의로운 성품의 증거이자, 나아가 내 진노의 증거가 된다. 재난이 닥칠 때, 나를 대적한 모든 자는 기근에 빠지고 전염병에 걸려 슬피 울 것이며, 오랜 세월 나를 따랐지만 온갖 악을 저지른 자들 역시 죄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천만년 이래 보기 드문 재난 속에 떨어져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따르면서 나에게 일편단심 충성한 사람들은 오히려 기쁘게 손뼉 치며 나의 큰 능력을 찬양할 것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쾌한 마음으로 내가 인간 세상에 한 번도 베풀 적 없는 즐거움 속에서 살 것이다. 나는 사람의 선행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악행을 극도로 증오하기 때문이다. 나는 인류를 오늘날까지 이끌어 오면서 나와 한마음 한뜻인 사람들을 얻기를 기대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와 한마음 한뜻이 아니었던 자들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속으로 미워했다. 그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걸 보며 통쾌해할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오늘, 마침내 나의 날이 왔으니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마지막 사역은 사람을 징벌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종착지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모든 사람이 나의 행사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옳음을 보여 주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내 성품의 발현임을 보여 주며, 나아가 대자연이 인류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에게 양분을 공급하고 있음을 보여 줄 것이다.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면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재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구도 다시는 아름다운 해와 달과 푸르른 세상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인류는 음산하고 차디찬 암흑의 밤과 저항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인류의 유일한 구원(원문: 救贖)이자 희망이며, 나아가 전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의지처다. 사람들이 모두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라도 나를 잃으면 인류는 즉시 정체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며, 오직 멸망의 재앙을 당하고 온갖 유령에게 짓밟힐 것이다. 나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사역을 행했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조금의 선행으로 나에게 보답하는 것뿐이다. 나에게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적을지라도 나는 인간 세상에서의 여정을 끝내고 다음 단계에 전개할 사역을 행할 것이다.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오랫동안 바쁘게 일한 결과가 이미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선행이다. 요컨대, 나는 너희가 자신의 종착지를 위해 충분한 선행을 예비하길 바란다. 그래야만 나를 만족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 엄습할 재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재난은 내가 일으키며 또 당연히 내가 지배한다. 너희가 내 앞에서 선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재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모든 행위가 온전히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다 공허하고, 두려움이나 강인함만 드러낼 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에 대해 좋다거나 나쁘다는 평가만 내린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은 너희 개개인의 모든 행위와 태도이다. 그것으로 너희의 결말을 정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밝혀 둘 것이 있다. 환난 가운데서 나에 대한 충성심이 조금도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공활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나의 공활은 여기까지이고, 또 나는 나를 배반했던 자를 좋아하지 않으며 친구의 이익을 팔아먹은 자와 왕래하는 것은 더더욱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의 성품이다.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다.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누구든 내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하는 사람은 두 번 다시 나의 관용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너는 종착지를 위해 충분한 선행을 예비해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50)

하나님은 땅에 왔지만 본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을 누리기 위해 성육신한 것이 아니다. 그는 사역하여 자신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곳, 또 가장 의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에 강생한다. 거룩한 곳이든 더러운 곳이든, 어떤 곳에서 사역하든 그는 거룩하다. 세상 만물은 모두 그가 만든 것이다. 그저 만물이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만물은 여전히 그에게 속하고 모두 그의 손안에 있다. 그가 더러운 곳에 와서 사역하는 것은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더러운 곳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극도의 굴욕을 참으며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다. 이는 증거를 위한 것이자, 전 인류를 위한 것이다. 이런 사역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고지상한 존재임을 더 확실히 증명해 준다. 그의 위대함과 정직함은 모두가 업신여기는 비천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서 드러난다. 그가 더러운 곳에 강생했다고 해서 비천한 존재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저 모든 피조물에게 그의 위대함과 인류를 향한 참된 사랑을 보여 줄 뿐이다. 그가 이렇게 할수록 인류에 대한 그의 흠 없이 깨끗한 사랑을 더 잘 보여 줄 수 있다. 더러운 곳에 강생했더라도, 더러움이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더라도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다. 은혜시대에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생활한 것과 같은 이치다. 그가 행한 그 모든 사역은 전 인류의 생존을 위한 것 아니었더냐? 인류가 크나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었더냐? 2 천 년 전에 그가 죄인들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한 것은 구속을 위해서였다. 오늘날 그가 또다시 더럽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구원을 위해서이다. 그의 모든 사역은 다 너희, 이 인류를 위한 것 아니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가 어찌 말구유에서 탄생했으며, 오랫동안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고난을 받았겠느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가 어찌 두 번째로 육신을 입고 마귀들이 무리 지어 사는 곳에 강생하여 사탄에 의해 심하게 파괴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더냐? 그가 한 사역 중에 인류를 위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너희의 운명을 위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더러운 곳에 왔다고 해도 그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일말의 사심도 없고, 그가 너무나 큰 고통과 굴욕을 참아 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너희를 위해, 너희 운명을 위해 그가 얼마나 큰 굴욕을 참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냐? 그는 높고 대단한 사람들과 돈 많고 세력 있는 자들을 구원하지 않고, 비천하고 남들에게 멸시당하는 사람들만 구원한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거룩함 아니겠느냐? 그의 공의로움 아니겠느냐? 전 인류의 생존을 위해 그는 기꺼이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 모든 굴욕을 참고 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기에 거짓된 일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 어느 단계의 사역이든 모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뤄지지 않더냐? 비록 모든 사람이 그가 죄인과 함께 식사한다고 비방하고, 그가 더러운 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가장 비천한 자들과 함께 생활한다고 조롱해도, 그는 계속해서 이처럼 사심 없이 자신을 바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있다. 그가 참아 낸 고통이 너희보다 크지 않겠느냐? 그가 행한 사역이 너희가 치른 대가보다 많지 않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모압의 후손을 구원하는 의의>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51)

하나님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더럽고 패괴된 사람들에게 사역하며 이들을 온전케 한다. 또한 성육신하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목양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극도로 패괴된 사람들에게 크나큰 구원 사역과 정복 사역을 행한다는 것이다. 그는 큰 붉은 용의 심장부에 와서 가장 패괴된 사람들을 구원하고 새롭게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극심한 고통은 성육신하여 받는 고통에 그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크나큰 수모를 받은 것, 바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감추어 평범한 인간이 된 것이다. 그는 육신을 입고 육신의 형상을 취함으로써 사람에게 그가 정상 인성의 생활을 하고, 정상 인성에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는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음을 충분히 증명한다. 하나님의 영은 육신에 실체화되었다. 그의 영은 더없이 높고 위대하지만 그는 평범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의 형상을 취하여 그의 영이 하는 사역을 한다. 너희 각자의 자질, 식견, 이성, 인간성, 삶을 놓고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를 위해 이토록 큰 고통을 받게 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높고 크다. 하나님은 더할 수 없이 높고, 사람은 비천하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역한다. 성육신하여 사람에게 공급하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함께 생활하기까지 한다. 자신을 한없이 낮춘 하나님은 사랑스럽기 그지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실행을 중시하는 사람만이 온전케 될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52)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사역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밤을 뜬눈으로 지새웠는지 모른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했고, 사람이 살고 있는 생지옥에 내려와 하늘 끝까지 사람과 함께하면서도 궁상맞은 인간 세상을 원망한 적 없고, 사람의 패역을 질타한 적도 없으며, 도리어 크나큰 치욕을 참으면서 자신이 친히 해야 할 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찌 지옥에 속할 수 있겠느냐? 어찌 지옥의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는 전 인류를 위해서, 인류 전체가 하루빨리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치욕과 억울함을 참고 땅에 내려와 친히 ‘지옥’과 ‘음부’,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사람을 구원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나? 무슨 이유로 또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나? 무슨 낯짝으로 다시 하나님을 마주한단 말이나? 하늘의 하나님은 가장 더럽고 음란한 땅에 와서 단 한 번도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묵묵히 사람의 박해^[1]와 억압을 감내하고 있다. 그는 한 번도 사람의 무리한 요구에 반항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지나친 요구나 무리한 요구를 한 적도 없으며,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 한 마디 없이 가르침, 깨우침, 책망, 말씀의 연단, 일깨움, 권면, 위로, 심판, 폭로 등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사역을 할 뿐이다. 사람의 생명을 위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비록 사람의 앞날과 운명을 거두어 갔다고는 하나, 하나님이 하는 일 중에서 사람의 운명을 위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사람의 생존을 위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이 고난과 칠혹처럼 어두운 흑암 세력의 압제에서 사람을 구해 내려고 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사람을 위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인자한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그 절박한 심정을 누가 이해하겠느냐? 하나님의 불처럼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기대로 얻은 것은 뜻밖에도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 냉혹하고 무정한 눈동자,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의 훈계와 욕설, 그리고 냉소와 조롱, 비방과 폄하, 사람의 비웃음, 유린과 저버림, 사람의 오해와 원망, 소외와 회피, 기만과 공격, 쓰디쓴 결과뿐이었다. 따뜻한 말씀은 ‘차디찬 시선과 손가락질’로 돌아왔으니, 하나님은 ‘머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며^[2]’ 고통을 참아야만 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전반측하며 아버지와의 이별보다 천배나 더한 고통을 참아 내고, 사람의 공격과 ‘깨뜨림’, ‘훈계’와 ‘책망’을 참아 내야 했다. 하나님이 ‘낮추고 감춘’ 대가로 얻은 것은 사람의 차별^[3], 불공평한 시선과 대우였다. 하나님의 묵묵한 인내와 포용으로 얻은 것은 인정사정없이 하나님을 밟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갈라진 땅 틈 사이로 밀어 넣으려 하고 하는 사람의 탐욕스러운 시선이였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보기 드물게 푹푹해져’, 사람 눈에 만만해 보이고 사람들이 깔보는 하나님을 만인의 발아래 깔아뭉개고는 마치 ‘왕 노릇을 하려는’ 듯, ‘대권을 독차지하여^[4]’ ‘수렴청정’하려는 듯 스스로를 높이 추켜올리고, 하나님에게는 고분고분 순순히 ‘무대 뒤의 감독’ 역할을 맡겨 반항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였다. 또한 하나님을 ‘마지막 황제’처럼 분장시켜 자유라곤 전혀 없는 ‘꼭두각시^[5]’ 역할을 맡게 했다. 사람의 작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니, 또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이런저런 요구를 한단 말이나?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건의’를 한단 말이나?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사람의 연약함을 배려해 달라고 요구한단 말이나? 사람에게 하나님

공활을 받을 자격이 있더냐?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관대함을 누릴 자격이 있더냐? 계속되는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을 자격이 있더냐? 사람의 양심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은 일찍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없이 아프게 하였고, 갈기갈기 찢어 버렸다. 하나님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가슴 가득 기쁨을 안고 인간 세상에 와서 사람이 그에게 아주 작은 온정이라도 베풀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오래도록 사람의 위로를 얻지 못했고, 돌아온 것이라고는 설상가상¹⁶ 식의 공격과 괴롭힘뿐이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 탐욕스럽고, 사람의 욕망은 너무 커서 하나를 얻으면 둘을 갖고 싶어 하고, 무리한 트집을 잡으면서 하나님께 약간의 자유도, 일말의 발언권도 주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은 울분을 참으면서 묵묵히 사람의 조종을 받아야 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역과 진입 9> 중에서

[1] 박해[摧殘]: 여기서는 사람의 패역을 폭로함.

[2] ‘차디찬 시선과 손가락질’, ‘머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며’: 원래 문장은 ‘사나운 눈초리로 못사람들의 질타에 맞서고[橫眉冷對千夫指], 머리 숙여 기꺼이 어린아이의 소가 되다[俯首甘爲孺子牛]’라는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더 정확히 설명하고 있음. 앞 구절은 사람의 ‘행위’를, 뒷 구절은 하나님이 받는 고난과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고 감추는 것을 가리킴.

[3] 차별[歧視]: 본문에서는 사람의 패역 행위를 가리킴.

[4] 대권을 독차지하여[獨攬大權]: 사람의 패역 행위, 즉 자신을 추켜올리는 한편 다른 사람이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위해 고통받도록 통제하는 행위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대한 표현. 원뜻은 큰 권력을 혼자 틀어쥐고 있음을 의미함.

[5] 꼭두각시[傀儡]: 본문에서는 이 어휘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조롱함.

[6] 설상가상(雪上加霜): 본문에서는 이 어휘로 사람의 비열한 행위를 더 두드러지게 함.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53)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은 공허하지 않고 실제적이며, 전부 하나님이 직접 체험한 것들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체험한 고통을 대가로 인류의 종착지를 바꾸어 오니, 이것이 실제적인 사역이 아니겠느냐? 자식을 위해 치르는 부모의 참된 대가는 부모의 진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렇게 행하는 것도 당연히 인류에 대한 가장 큰 진실함이요, 신실함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신실하다. 그는 말씀한 이상 반드시 행하며, 행한 이상 반드시 이룬다. 사람에게 행한 그의 모든 것은 다 진실되다.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대가를 치르고, 사람의 고통을 감당하고 사람 대신 고통을 받겠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와서 살면서 그러한 고통을 받으며 직접 그 고통들을 체험한다. 그리고 전 우주 위아래의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한

모든 것이 옳고 공의롭다는 것을, 그것은 전부 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 이는 강력한 증거이다. 한편, 인류에게는 훗날 아름다운 종착지가 있다. 살아남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행사가 확실히 사람에게 대한 사랑임을 찬미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춰 평범한 한 사람으로 인간 세상에 온다. 또한, 사역과 말씀을 마친 후에 바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없이 실제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와서 인간 세상의 고통을 체험한다. 그는 그 고통들을 전부 체험한 후에야 떠날 것이다. 하나님은 이토록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사역한다. 이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미할 것이며,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과 선량한 면을 보게 될 것이다. 성육신에 관한 의의를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함의 본질을 알 수 있다. 그는 어떤 일을 하든 참되게 하고 모든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진실되게 하며, 모든 것이 신실하다. 그는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려는 일을 모두 실제적으로 행하며, 대가를 치르는 것 역시 실제적으로 치른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성육신의 두 번째 측면의 의의>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54)

생명의 도는 아무나 갓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비롯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본질과 생명의 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자 끝없이 솟아나는 생명수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다. 창세 이후 하나님은 생명의 기운을 품고 있는 사역,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을 수없이 행하였으며,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술탄 대가를 치렀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영생이자 사람을 부활시키는 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매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고,时时刻刻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는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과 생존하는 근본이 되었으며, 또 사람이 생존해 나가는 데 풍부한 자원이 되어 주었다. 그는 사람을 소생시켜 모두가 굳건하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도록 했다. 사람은 그의 힘과 영원히 사그라지지 않는 그의 생명력에 의지해 한 세대 한 세대 이어 올 수 있었다. 하나님의 생명의 힘은 시종일관 변함없이 사람들을 지탱해 주고 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치른 적 없는 대가를 치렀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모든 힘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힘을 초월할 수 있다. 그의 생명은 영원하고 그의 힘은 비범하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적대 세력도 그의 생명력을 압도하지 못한다. 그의 생명력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며, 눈부신 빛으로 반짝인다. 천지가 크게 변해도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만물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생명은 계속 존재한다. 하나님은 만물이 생존하는 원천이자 만물이 의지해 살아가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하늘은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게 되었으며, 땅 역시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원천으로 숨 쉬고 있다. 생기를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재를 벗어날 수 없고, 활력을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병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인물이든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와 복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말세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영생의 도를 줄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55)

네가 진정으로 영생의 도를 얻고자 하고 또 그것을 갈급하게 찾고 있다면 우선 나의 질문에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마도 너는 “하나님은 당연히 하늘에 계시지요. 설마 당신 집에 계시겠습니까?”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은 당연히 만물 가운데 있다거나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다거나 영계에 있다고 대답할 수도 있다. 나는 그 대답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 같다. ‘하나님이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대답은 완전히 옳은 것도,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진정으로 믿는 사람과 거짓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증오하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는 사람과 도태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일부 사람의 마음속에만 거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의심할 바 없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대상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대상인 만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생의 도를 보고 들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거짓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증오하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 도태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생명의 도를 얻지 못한 자들이며,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자들이다. 반대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에게서 영생의 도를 받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대상이다. 지금 너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사람의 곁, 영계, 그리고 만물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땅 위에도 있다. 그러므로 말세가 도래함에 따라 하나님 사역의 발걸음도 새로운 경지로 들어섰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재하는 동시에 사람의 마음속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며, 나아가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래야만 인류에게 생명의 도를 전해 줄 수 있고 사람을 생명의 도로 인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 땅에 임하여 인간 세상에서 사는 것은 사람이 생명의 도를 얻게 하기 위함이고, 사람이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서 행하는 자신의 경영에 보조를 맞추게 하기 위해 만물 가운데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이 진리는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과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이치만 인정한다면, 너는 영원히 생명의 도, 진리의 도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곧 생명이고 진리다.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는 공존한다. 진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생명의 도도 얻지 못한다. 진리로 인도해 주고 붙들어 주고 공급해 주는

일이 없다면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글귀와 이치, 그리고 죽음뿐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나 존재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생명과 함께 공존한다. 진리의 근원을 찾지 못한다면 너는 생명의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할 것이다.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너에게는 분명 진리가 없을 것이며, 너의 몸뚱이는 상상과 관념으로 가득 찬 육체, 즉 구린내가 진동하는 육체에 불과할 것이다. 명심해라. 책의 글귀는 생명으로 삼을 수 없고, 역사적 기록은 진리로 삼아 섬길 수 없으며, 과거의 규례는 하나님이 현실에서 한 말씀의 실제 기록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땅에 임하여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한 말씀만이 진리이자 생명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현실적인 사역 방식이다. 하나님이 지난 시대에 했던 말씀의 기록을 오늘날에도 고수한다면 너는 고고학자나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너에게는 역사·문화재 전문가라는 호칭이 가장 어울릴 것이다. 너는 늘 하나님이 과거에 사역할 때 남겨 둔 흔적만 믿고, 하나님이 지난날 인간 세상에서 사역할 때 남겨 둔 그림자만 믿으며, 하나님이 오래전 하나님을 따르던 당시 사람들에게 전해 준 도만 믿을 뿐, 하나님이 현재 사역하는 방향이나 현재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현재 선포한 진리의 도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매우 비현실적인 공상가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글귀만 고수하고 있다면 너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썩어 문드러진 나무와 다름없다. 너는 너무나 고집스럽게 낡은 것을 지키고 너무나 완고하며 너무나 딱 막혀 있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말세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영생의 도를 줄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56)

하나님 자신은 진리를 갖추고 있고, 그는 진리의 원천이다. 모든 긍정적인 사물과 진리는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는 만사 만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그는 과거에 발생한 일이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이든, 아니면 앞으로 벌어질 인류가 모르는 일이든 모두 판단할 수 있다. 그는 모든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재판관이고, 이는 모든 사물의 옳고 그름은 오직 그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사물의 준칙을 알고 있다. 이래야 곧 진리의 화신이며, 그러니까 그 자신이 진리의 본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온전케 되면 진리의 화신과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사람이 온전케 되면 하나님이 지금 행하는 이 모든 것과 하나님이 요구한 것들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정확한 실행 방법을 얻게 된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알게 된다. 하지만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일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아직 사람에게 알려 주지 않은 일, 미지의 일을 사람이 알 수 있겠느냐? (모릅니다.) 사람은 예측조차 할 수 없다. 이 밖에,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진리와 진리의 실재를 얻었고, 수많은 진리의 본질을 깨달았으며, 시시비비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치자. 하지만 사람에게 모든 사물을 통제하고 주관할 능력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이다. 피조물은 영원히 진리의 원천으로부터 진리를 얻을 뿐이다. 사람에게서

진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진리를 베풀어 줄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 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이다. 너는 오직 받아들이기만 할 수 있을 뿐, 공급해 줄 수는 없다. 그렇다면 너를 진리의 화신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진리의 화신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진리를 공급하는 원천이요, 모든 사물을 주관하고 주재하는 원천이요, 또한 만사 만물을 판단하는 기준이자 준칙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화신이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 · 리더와 일꾼이 길을 택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10)>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57)

하나님의 진리 선포는 자신의 성품과 본질을 선포하는 것이지, 인류가 종합해 낸, 사람이 생각하는 각종 긍정적인 사물이나 긍정적인 말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인류가 마땅히 의지해 살아가야 하는 법칙이자 근본이다. 반면 인류에게서 비롯된, 그 소위 신조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 말씀의 근원이나 근거는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 그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의 본질을 나타낸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또 하나님은 모든 긍정적인 사물의 실제이기에 하나님이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진리이다. 이 패괴된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위치에 놓고 어떻게 정의하든,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인식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이 사실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했다 해도, 그 말씀이 이 패괴되고 죄악된 인류에게 어떻게 정죄된다 해도, 심지어 그 말씀이 세상에 널리 퍼지지 않고 패괴된 인류에게 무시당한다 해도, 한 가지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추종하는 소위 문화, 전통이라는 것들이 그로 인해 긍정적인 사물이나 진리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인류의 전통문화와 생존의 방식은 시간의 변화와 흐름으로 인해 진리로 바뀌지는 않는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역시 인류의 정죄와 망각으로 인해 사람의 말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 본질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진리는 언제까지나 진리이다. 여기에 존재하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나? 바로 인류가 종합해 낸 속담들의 출처가 사탄이며, 인류의 상상, 관념, 심지어는 욕이라는 것이다. 이는 긍정적인 사물과 조금도 관계가 없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본질의 발현이자 하나님 신분의 발현이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들을 선포했겠느냐? 왜 이 말씀들을 진리라고 하겠느냐? 그것은 만물의 법칙, 규율, 근원, 본질, 진상, 비밀이 다 하나님이 주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다. 만물의 규율, 진상, 사실, 비밀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것들의 기원과 근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에 대해 내린 정의만이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에게 제시한 요구만이 인류의 기준이며, 인류가 기대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법칙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 · 진리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58)

너는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오는 순간부터 너의 직책을 이행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으로 말미암아 네가 맡은 역할을 이행하고, 너의 인생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너의 배경이나 앞으로의 여정이 어떻든 하늘의 지배와 안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신의 운명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다. 이 같은 일은 오직 한 분, 즉 만물을 주재하는 이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류가 생겨난 후로 계속 이 일을 해 왔으며, 이 우주를 경영하고 만물의 변화 법칙과 운행 궤도를 다스려 왔다. 사람은 만물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하나님의 감미로움과 비와 이슬의 자양분을 공급받는다. 또한, 만물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살아간다. 사람의 마음과 영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으며, 사람의 모든 삶 역시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진다. 네가 이 모든 것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존재는 생명이 있든 없든 전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하고 새로워지며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방식이다.

밤이 살며시 찾아올 때,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은 밤이 어디에서 왔고, 또 어떻게 왔는지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두운 밤이 살그머니 달아날 때 사람은 낮을 맞이한다. 사람의 마음은 낮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밤을 몰아냈는지 알지 못할뿐더러 느끼지도 못한다.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낮과 밤의 변화와 교체는 한 번, 또 한 번 인류를 서로 다른 시기, 서로 다른 시대 배경으로 이끌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각 시기 사역과 각 시대 계획도 이루었다.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이처럼 다양한 시기를 지나왔으나 하나님이 만물 생령의 운명을 주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만물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리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는 현재와 과거의 사람들이 모두 알지 못하는 사실이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 은밀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아서도 아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면서’ 사탄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발걸음과 하나님의 나타남을 자발적으로 찾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 아래에서 살아가려는 사람도 없다. 도리어 자신을 갇아먹는 사탄과 악한 자에게 몸을 맡겨 이 세상과 사악한 인류의 생존 법칙에 적응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영이 사탄에게 바치는 공물, 사탄의 먹이로 변해 버렸고, 더 나아가 사탄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곳, 사탄의 당연한 놀이터로 전락한 것이다. 그렇게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도리뿐만 아니라 생존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과의 약속은 점점 퇴색되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거나 상대하지 않는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의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율법과 법도에 맞서기 시작했다. 사람의 마음과 영은 무감각해졌다.... 하나님은 처음에 만든 사람을 잃게 되었고, 사람 역시 본래의

뿌리를 잃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슬픔이다. 사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류에게 사람이 주인공이자 피해자인 비극을 연출해 왔다. 그러나 아무도 이 비극의 감독이 도대체 누구인지 대답하지 못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은 사람 생명의 근원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59)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그가 부여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란 생명체를 세상에 데려왔다. 그리하여 사람은 부모와 가족이 생기면서 외로움에서 벗어났다. 사람은 이 물질적인 세상을 본 후부터 하나님이 정한 운명에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생명체 하나하나를 밀받침해 주어 ‘어른으로 성장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살아가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부모의 길러 준 은혜라고, 사람의 생명의 본능을 밀거름으로 하여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누가 자신의 ‘생명’을 부여했는지,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모르며, 생명의 본능이 어떻게 기적을 일구는지는 더더욱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저 음식이 생명 연장의 근본이고, 의지력이 사람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며, 머릿속의 신념이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밀천이라고 알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을 이렇게 헛되이 허비하고 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아무런 가망도 보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 자신이 계획한 사역을 할 뿐이다. 그의 바람은 언젠가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 불현듯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베풀면서 치른 대가와 사람이 마음을 되돌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사람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속되는지, 이 모든 비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만이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받고도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준 상처와 충격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다. 사람은 생명이 가져다준 모든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누리고, 하나님 역시 ‘당연하게’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망각되고, 갈취당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그렇게도 중요할까?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 사람이란 생명체가 정말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생명체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존재하므로 하나님은 인류를 증오한다고 해서 자신의 계획을 망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위해, 입으로 불어넣은 숨결을 위해 모든 고통을 참고 있다. 이는 사람의 육이 아닌 생명을 위함이고, 사람의 육이 아닌 그가 불어넣은 생명을 되찾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은 사람 생명의 근원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60)

이 세상에 온 사람은 모두 생과 사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많은 사람이 생사윤회의 과정을 겪게 된다. 살아 있는 사람은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은 사람은 또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 모두는 하나님이 각각의 생명체를 위해 안배한 생명의 여정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여정과 윤회를 통해 사람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하려 한다. 즉,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생명은 끊임없이 지속되며, 육,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생명의 비밀이자 생명이 본래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많은 이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땅의 모든 것을 거두어들이고, 그의 생명을 되찾고자 한다면 이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모든 것에게 공급하고, 자신의 큰 능력과 권병으로 이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 가고 있다. 이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 나는 너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 주려 한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생명이 가진 위대함과 능력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러했으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내가 알려 주고자 하는 두 번째 비밀은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생명의 형태와 구조에 어떤 차이가 있든, 어떤 생명체든, 하나님이 정한 생명의 궤적을 이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찌 되었든 나는 사람이 다음의 사실을 깨닫길 바랄 뿐이다. 하나님의 보살핌, 보호, 공급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싸워도 얻어야 할 모든 것들을 얻지 못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와 생명의 의미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의 가치를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이에 다시 한 번 강조하니, 하나님이 네 생명의 근원임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베푸는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처음에 주었던 것까지 거두어 가는 것은 물론, 자신이 심혈을 기울인 만큼 사람에게 곱절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은 사람 생명의 근원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61)

세상의 모든 것은 전능자의 생각 속에서, 눈 아래에서 아주 빨리 변하고 있다. 인류가 한 번도 들어 본 적 없는 것이 갑작스레 등장하는가 하면 오랫동안 지니고 있던 것이 부지불식간에 사라지기도 한다. 아무도 전능자의 행적을 헤아릴 수 없고, 전능자의 생명력이 얼마나 비범하고 위대한지 느끼지 못한다. 그는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에 비범하고, 인류에게 버려지고도 그들을 구원하는 분이기에 위대하다. 그는

생과 사의 의미는 물론, 창조된 인류에게 어떠한 생존 법칙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다. 그는 인류가 생존하는 근거이며, 인류를 다시 부활시키는 구속자이다. 그는 자신의 사역과 계획을 위해 기쁨을 슬픔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다.

전능자의 생명 공급에서 벗어난 인류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면서 또 죽음을 두려워한다. 인류는 의지하고 도움받을 데가 없음에도 여전히 눈을 감고 싶어 하지 않고, 영혼의 지각이 없는 육을 간신히 지탱하며 이 세상에서 되는데로 살아간다. 너는 이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그 역시 그렇게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간다. ‘오직 전설 속의 거룩한 자만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그의 강령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는 이 신념은 무감각한 사람에게서는 쉽사리 실현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은 계속 그렇게 바라고 있다. 전능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공허히 여기면서도 전혀 지각이 없는 사람을 혐오한다.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야 사람에게서 오는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찾으려 한다. 너의 마음과 영을 찾아 네게 물과 음식을 공급함으로써 너를 깨우고, 네가 더 이상 목마름과 굶주림을 겪지 않게 하려 한다. 더없이 피곤할 때도, 이 세상이 처량하다고 조금 느껴질 때도 방황하거나 울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 지키며 바라보는 그이가 네가 언제 돌아오든 너를 안아 줄 것이다. 그는 너의 곁을 지키며 네가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문득 기억을 되찾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네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지만 언제부터인가 방향을 잃고 길에서 쓰러졌다는 것, 언제부터인가 네게 ‘아버지’가 생겼다는 것, 또 전능자가 그곳에서 네가 돌아오기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을 깨닫는 그날을 말이다. 그는 답이 없는 응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인간의 마음과 영을 위해 그가 곁을 지켜 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 이 지킴은 무기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끝이 났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는 오늘날 너의 마음과 영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전능자의 탄식>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62)

인류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우리의 온몸과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의 주재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준 사명과 인류의 정의로운 사업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준 사명을 위해 순교한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준 하나님을 마주할 면목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했고 이 인류를 지었으며, 나아가 고대 그리스 문화와 인류 문명까지 만들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인류를 위로하고 있고, 또 밤낮으로 보살피고 있다. 인류의 발전과 진보는 하나님의 주재와 떼어 놓을 수 없고, 인류의 역사와 미래는 하나님의 배치를 벗어날 수 없다. 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배치 아래 있음을 믿을 것이다. 모든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인류가 어디로 가게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인류가 좋은 운명을 원한다면, 또 한 국가가 좋은 국운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죄를 자백하며 회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인류의 운명과 종착지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노아가 방주를 짓던 시대를 돌아보자. 인류는 심히 패괴하여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잃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잃고, 하나님의 빛이 없는 흑암 속에서 살고 있었다. 노아가 음란이 일상이 되며 차마 볼 수 없는 지경까지 타락했다. 그런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격도 없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저버렸고, 하나님이 베풀어 준 모든 것을 뿌리쳤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마음이 멀어지면서 이성과 인간성을 잃을 정도로 타락했다. 그들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죽음을 향해 나아갔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불러오게 되었다.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악을 멀리하였기에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를 들을 수 있었다. 노아는 하나님의 부탁대로 방주를 만들어 각종 생물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자 하나님은 마침내 세상을 멸하는 사역을 시작했다. 세상을 멸할 당시, 그 재앙을 피해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일가 8 명뿐이었다. 노아는 여호와를 경배하며 악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이제 오늘날 이 시대를 보자.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며 악을 멀리하는 의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인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고, 이 마지막 시대의 인류를 너그러이 용서하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준 사명을 잊지 않고 그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순종하며 대적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있다. 네가 어떤 세력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지위와 명성이 대단할지라도, 지식과 재물이 많고, 지지자들이 많을지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아 하나님이 맡겨 주는 일을 한다면, 네가 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인류 가운데서 가장 정의로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지위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한다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지어 증오하는 일이 될 것이다. 네가 대통령이든 과학자든, 목사이든 장로이든, 네 관직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네 능력과 지식에 의지해 개인적인 일을 한다면, 너는 영원한 실패자가 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네가 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네가 정의로운 일을 한다거나 인류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네가 인류의 지식과 힘을 이용해 하나님의 보호를 힘써 밀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정하는 일을 한다고 말할 것이다. 또한 그는 네가 인류를 어둠과 죽음으로 이끌어 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축복을 잃은 흑암 속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63)

인류에게 사회 과학이 생긴 이래, 과학과 지식은 인류의 마음을 차지했으며, 나아가 인류를 지배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로 인해 인류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유리한 여건을 잃게 되었고, 인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사라졌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인류의 내적 세계는 어둡고 절망적이며 공허하다. 뒤이어 사회 과학자, 역사학자, 정치가들이 일어나 사회 과학론, 인류 진화론 등을 발표하여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했다는 진리에 어긋나는 관점을 인류의 머리와 마음에 채워 넣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만유 창조를 믿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고, 반대로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점점 늘어났다. 또한 갈수록 많은 사람이 하나님 사역의 기록과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나 전설로 대하기 시작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존엄과 위대함은 희미해졌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만유를 주재한다는 믿음도 아득해졌다. 사람은 더 이상 인류의 존망이나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인류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공허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이 오늘날 어디에서 사역하는지, 인류의 종착지를 어떻게 주재하고 계획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어느덧 인류의 문명은 이렇게 기대와 멀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죽은 사람이 더 행복하겠다고 생각할 정도다. 지난날 문명이 발전했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조차 이런 원망을 품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기에 통치자나 사회학자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 인류의 문명을 유지하려 해도 소용이 없다. 그 누구도 사람의 생명이 될 수 없으므로 인류 마음속의 공허함을 메우지 못하고, 어떤 사회적 담론도 공허의 질곡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과학, 지식, 자유, 민주, 즐길, 안락으로 사람이 얻는 것은 그저 일시적인 위안에 불과하다. 인류는 이런 것들이 있어도 불가피하게 계속 죄를 짓고, 사회의 불공평을 원망한다. 또한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인류의 탐구하려는 갈망과 욕망이 멈추지는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기에, 인류의 무의미한 희생과 탐구는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은 고뇌를 안겨 줄 뿐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불안에 떨며 인류의 미래와 앞길을 어떻게 직면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과학과 지식을 두려워하고, 공허함을 더욱 두려워하기에 이르렀다. 네가 이 세상의 자유 국가에 있든, 인권이 없는 국가에 있든 너는 인류의 운명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 네가 통치자이든, 통치를 받는 자이든 너는 인류의 운명, 비밀, 종착지를 탐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떨쳐 버릴 수 없고, 영문 모를 공허함을 떨쳐 버릴 수도 없다. 사회학자는 인류의 이러한 공통적 현상을 가리켜 사회 현상이라 말하지만, 나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인은 한 명도 없다. 결국 사람은 사람인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사람도 대신하지 못한다.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정한 사회뿐만이 아니다.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 공급이 필요하다.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 공급과 구원을 얻어야만 필요와 탐구욕, 그리고

심적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나 보살핌을 얻지 못하는 국가와 민족은 몰락과 흑암으로 나아갈 것이고, 중국에는 하나님에 의해 멸망될 것이다.

너의 국가는 지금 번영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네가 네 국민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면, 그 국가는 점점 더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고, 국가의 문명은 점점 더 짓밟힐 것이다. 머지않아 그 국가의 국민은 일어나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늘을 욕할 것이다.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한 국가의 운명이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강대한 국가를 일으켜 하나님께 저주받은 국가를 상대하게 하고, 지구상에서 그런 국가가 사라지게 할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존망은 그 국가의 통치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국민들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경배하는 길로 이끄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하나님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국가를 특별히 우대하고 그런 국가를 결집해 세계에서 비교적 정의로운 진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무신론 국가, 참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국가는 자연히 정의 진영의 대립 세력이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서 사역할 곳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의의 권세를 행사하는 국가를 얻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국가를 제재하고 단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지 못했다. 이는 인류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고 하나님을 잊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지구상에는 그저 정의를 행사하거나 비정의를 배격하는 국가만 남아 있다. 이 정도로는 하나님의 뜻에 전혀 미칠 수 없었다. 하나님께 국민을 통치하도록 맡기는 통치자도 없고, 국민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당도 없기에 하나님은 모든 국가와 민족, 집권당의 마음속에, 나아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잃었다. 세상에 일부 정의 세력이 있다고는 해도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통치는 미약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정치 무대는 혼란스럽고 취약하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는 것은 태양을 잃는 것과 같다. 통치자가 국민을 위해 아무리 성실히 일하며 공헌한다 한들, 인류가 정의로운 대회를 수없이 개최한다 한들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인류의 운명도 바꿀 수 없다. 사람은 의식주가 해결되고 모두가 화목하게 공존하는 국가가 좋은 국가이자 좋은 지도자가 있는 국가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없는 국가는 그의 눈에 멸해야 할 국가일 뿐이다. 사람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정상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의 운명은 매우 비참할 것이고, 그 국가는 종착지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의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나 모든 국가와 민족의 운명,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우주를 주관하고 있다. 인류의 운명과 하나님의 계획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어떤 사람도, 어떤 국가와 민족도 하나님의 주재를 벗어나지 못한다. 인류의 운명을 알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와야 한다.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경배하는 인류를 번영시킬 것이고, 그를 대적하고 저버리는 인류를 쇠퇴시키고 멸망시킬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은 전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64)

아득한 우주에 수많은 생명이 번식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생명의 법칙을 따라 순환하며, 불변의 법칙을 지키고 있다.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의 이야기를 갖고 떠나고, 산 사람은 또 죽은 사람의 역사적 비극을 재연하며 살아간다. 인류는 이런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는 왜 죽는가?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가? 누가 이 인류를 창조했는가? 이것이 정녕 대자연의 조화일까? 인류가 진정으로 자기 운명을 지배할 수 있을까?’ 인류는 수천 년간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던졌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문제에 집착할수록 과학에 대한 갈망은 점점 더 커졌다. 과학은 사람의 육에 일시적인 만족과 짧은 누림을 주었지만, 영혼 깊은 곳의 고독과 적막, 감출 수 없는 공포, 무력감에서 벗어나게 해 주지는 못했다. 인류는 그저 눈으로 볼 수 있고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과학 지식으로 심령을 마비시키고 있었을 뿐, 비밀 탐구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는 못했다. 인류는 우주 만물의 주재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인류의 시초와 미래는 더더욱 알지 못한 채 그저 속절없이 법칙에 따라 살아가기만 할 뿐이다. 그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고 또 그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만물 가운데서, 또 하늘 위에서 태고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인류가 목도한 적이 없는 분이요, 인류가 안 적이 없는 분이요, 인류가 한 번도 존재를 믿지 않았던 분이다. 하지만 그는 인류의 선조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인류에게 생명을 부여한 분이요, 인류가 살 수 있도록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분이고, 오늘날까지 인류를 인도한 분이요, 나아가 인류가 유일하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분이다. 그는 만물을 주재하며, 우주 만물의 생명을 주재한다. 그는 사계절을 주관하며, 풍상설우(風霜雪雨)의 변화를 조절한다. 그는 인류에게 햇빛을 선사하고, 밤의 장막도 베풀어 주었다. 그는 하늘과 땅을 펴고, 인류를 위해 산과 강과 호수, 그리고 그 속의 생물까지 준비했다. 그의 행사는 모든 곳에 존재하고, 그의 능력 역시 모든 곳에 존재한다. 그의 지혜는 모든 곳에 존재하고, 그의 권병 역시 모든 곳에 존재한다. 이 모든 규율과 법칙은 그의 행사를 구현하고, 그의 지혜와 권병을 나타낸다. 누가 그의 주재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안배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만물은 다 그의 눈앞에서 살아가고, 더욱이 그의 주재하에서 살아간다. 그의 행사와 능력 앞에서 사람은 그가 분명히 존재하며,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는 어떤 존재도 이 우주를 주관할 수 없고, 더욱이 인류에게 이토록 무한히 많은 것을 공급해 줄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의 행사를 알든 모르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든 믿지 않든, 너의 운명을 하나님이 정해 놓았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만물을 주재하는 분이 영원히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병은 인류가 알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네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든 없든, 이 모든 것은 머지않은 장래에 사람이 직접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 역시 하나님이 곧 이룩할 사실이다. 인류는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서 살고 또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서 죽는다. 인류는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 두 눈을 감는다.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하며 왔다가 가고 갔다가 또 온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이다. 하나님의 경영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그의 존재를 알게 하고, 그의 주재를 믿게 하며, 그의 행사를 보게 하고, 또 그의 나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수천 년 동안 경영해 온 사역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람은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중에서

제 7 절 성경의 비밀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65)

오랜 세월 사람이 전통적으로 믿어 온 방식(세계 3 대 종교 중 기독교의 믿음법)은 성경을 보는 것이었다. 성경을 떠나면 주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떠나면 사이비이자 이단이라는 것이다. 다른 책을 보더라도 반드시 성경 해석이 밑바탕이 된 책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를 믿는다면 반드시 성경을 봐야 하고, 성경과 관련되지 않는 다른 책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었다. 성경이 생긴 후, 사람이 주를 믿는 것은 바로 성경을 믿는 것이 되어 버렸다. 사람이 주를 믿는다고보다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믿기 시작했고, 주 앞에 돌아왔다고 하기보다는 성경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편이 더 낫게 되어 버렸다. 이처럼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 삼아 숭배하고 자신의 목숨으로 여기게 되었다. 성경이 없어진다면, 이는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과 똑같이 높게 보며,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우러러보기도 한다. 성령 역사가 없거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성경책이 사라지거나 성경의 유명한 장절, 문구가 없어진다면 생명이라도 잃는 줄 안다. 그래서 사람은 주를 믿으면서부터 성경을 보고 외우기 시작한다. 성경을 잘 외울수록 주를 사랑하고 믿음이 크다는 것을 더 잘 증명할 수 있으며, 성경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훌륭한 형제자매라고 한다. 이처럼 오랫동안 사람은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근거로 주에 대한 충성심이나 믿음을 가늠해 왔다. 많은 사람이 대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덮어놓고 성경 구절을 풀이할 수 있는 단서만 찾고 있다. 사람은 단 한 번도 성령 역사의 동향을 좇은 적이 없다. 그저 고생스럽게 성경만 연구하고 조사할 뿐, 성경 밖에서 성령의 더 새로운 역사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누구도 성경을 떠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감히 성경을 떠나지 못한다. 사람은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다양한 해석을 하는 데에 많은 공을 들였다. 하지만 성경에 대한 견해에는 수많은 이견이 있었고 논쟁도 끊이지 않았다. 그 결과 오늘날 2 천 개가 넘는 교파가 형성되었다. 사람은 모두 성경에서 명인들의 해석이나 더 심오한 비밀들을 찾아내려 하고, 성경을 탐구하려 한다. 또한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했던 사역의 배경이나 예수가 유대에서 했던 사역의 배경, 혹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더 많은 비밀을 성경에서 찾아내려 한다. 사람이 성경을 대하는 관점은 ‘탐닉’과 ‘믿음’뿐이고, 성경의 실상과 본질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늘날까지도 사람은 성경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함을 느끼며, 성경에 더욱더 ‘탐닉’하고, 더욱더 ‘믿음’을 가진다. 지금, 사람은 성경에서 말세 사역의 예언을 찾고자 한다. 하나님이 말세에 어떤 사역을 하고, 말세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를 찾아내려는 것이다. 이렇듯 사람은 성경을 숭배하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고,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성경의 예언, 특히 말세에 관한

예언을 더욱 맹신하게 되었다. 사람이 성경을 이처럼 맹신하고 신뢰하게 되면, 성령 역사를 찾으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만다. 사람의 의식 속에는 다음과 같은 관념이 존재한다. ‘오직 성경만이 성령 역사를 이끌 수 있고,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발걸음을 찾을 수 있다.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 사역의 비밀이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일체 모든 사역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다른 책이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성경은 하늘의 사역을 땅에 가져올 수 있고, 시대를 시작할 수도 끝낼 수도 있다.’ 사람에게 이런 관념이 생기자 성령 역사를 찾는 일은 무의미해졌다. 그러므로 성경이 지난날 사람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든,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의 최신 사역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성경이 없었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로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발걸음은 모두 성경에 ‘통제’되었고, 최신 사역을 확장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려워져 조금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모두 성경의 유명한 장절과 문구, 그리고 수많은 예언으로 초래된 것이다. 성경은 사람들 마음속의 우상이 되었고, 사람들 머릿속의 ‘불가사의’가 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 밖에서 따로 사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사람이 성경을 떠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한다. 또한 하나님이 마지막 사역에서 성경을 떠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은 더욱 믿지 못한다. 이런 사실들은 사람이 생각하기도 어렵고, 믿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더 새로운 사역을 받아들이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었고, 하나님이 더 새로운 사역을 확장하는 데에 난관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경에 관하여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66)

하나님이 율법시대의 사역을 한 후에 구약 성경이 생겨났고, 그때부터 사람은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 예수가 와서 은혜시대의 사역을 한 후에는 예수의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썼다. 그렇게 신구약 성경이 생겨난 것이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성경을 보고 있다. 성경은 한 권의 역사책이다. 물론 그 안에는 선지자의 예언도 어느 정도 들어 있다. 선지자의 예언은 결코 역사(歷史)가 아니다. 성경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에는 예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가 행했던 사역만 있는 것도 아니며, 바울이 쓴 서신만 있는 것도 아니다. 너는 성경이 몇 부분으로 구성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구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선지자들이 쓴 예언서도 포함되어 있으며, 마지막은 말라기로 구약 성경 전체가 마무리된다. 구약은 여호와가 인도했던 율법시대의 사역을 기록한 것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 율법시대의 모든 사역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이다. 다시 말해, 율법시대에 여호와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겪은 일들을 모두 구약에 기록했다는 것이다. 구약 율법시대에 여호와는 많은 선지자를 일으켜 그를 위해 예언하게 함으로써 각 나라와 족속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가 행하려는 사역을 예언했다. 여호와가 일으킨 그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가 베풀어 준 예언의 영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여호와로부터 이상(異象)을 볼 수 있었고,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여호와에게서 계시를 받아 예언을 기록했다. 그들이 행했던 이 사역들도 다 여호와와 음성으로 선포하고 여호와와 예언 사역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여호와는 그 당시 사역할 때 성육신하지 않고 영으로만 사람을 인도했기 때문에 사람은 그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호와는 수많은 선지자를 일으켜 자신의 사역을 했으며, 그들이 묵시를 받아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와 족속의 사람에게 알려 주도록 했다. 그들의 사역은 예언을 하는 것이었고, 게다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여호와가 알려 준 말씀을 모두 기록하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여호와가 그들을 일으킨 것은 예언을 하기 위함이었다. 즉, 사람들이 여호와와 기묘함과 지혜를 볼 수 있도록, 이후에 행할 사역이나 당시에 아직 행하지 않은 사역을 예언한 것이다. 그런 예언서들은 성경의 다른 책들과 매우 다르다. 예언서는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 즉 여호와로부터 이상을 보거나 음성을 들은 사람이 한 말, 또는 기록해 놓은 말이다. 예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여호와가 사역을 마친 후에 사람이 기록한 책이다. 그러므로 그런 책들은 여호와가 일으킨 선지자의 예언을 대신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사야서, 다니엘서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언은 사역을 하기 전에 한 말이다. 예언서 이외의 다른 책들은 사역을 마친 후에 기록한 것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때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와 계시를 받아 예언을 하고 많은 말을 했다. 그들은 은혜시대의 일이나 말세에 세상을 멸하는 일을 예언했는데, 이는 바로 여호와가 앞으로 행할 사역을 예언한 것이다. 그 이외의 책은 모두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행한 사역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는 주로 여호와가 지난날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게 된다. 구약 성경에는 주로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사역,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게 함으로써 바로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광야로 들어가게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입성한 후 그곳에서 살았던 내용도 기록되어 있으며, 그 외에 여호와가 이스라엘 각지에서 사역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구약에 기록된 것은 여호와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땅, 이스라엘에서 행한 사역이다. 하나님은 노아 이후부터 땅의 사람을 정식으로 인도했는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전부 이스라엘에서 행한 사역뿐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이외의 지역에서 행한 사역은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지역이 인류의 발원지였기 때문이다. 최초에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가 없었던 데다가 여호와도 다른 곳에서 역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모두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사역이다. 그리고 이사야,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등 선지자들이 했던 말은 땅에서 행할 다른 사역, 즉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행할 사역을 예언한 것이었다.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성령의 역사이다. 그 선지서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당시 사람이 여호와와 역사를 체험한 것에 대한 기록이다.

세상을 창조한 것은 인류가 존재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창세기는 인류가 생겨난 후에 나온 책으로, 모세가 율법시대에 기록한 것이다. 오늘날 너희 사이에서 생긴

일을, 일이 끝난 후에 후세 사람이 볼 수 있게 기록하는 것처럼 말이다. 후세 사람이 보기에 네가 기록한 것은 지나간 시대에 일어난 일에 불과하므로 그들은 그저 역사(歷史)로 취급할 것이다. 구약에 기록된 것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사역이고, 신약에 기록된 것은 은혜시대에 예수가 행했던 사역이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두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한 사역의 실제 기록이다. 구약은 율법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한 사역을 실제로 기록한 것이므로 한 권의 역사책이라 할 수 있다. 신약은 은혜시대 사역의 산물이지만,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면 그 또한 시대에 뒤쳐진 책이 된다. 그러므로 신약 역시 한 권의 역사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신약의 내용은 구약만큼 체계적이지 못하고 기록된 일도 많지 않다. 여호와께서 한 수많은 말씀은 모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의 말씀은 4 복음서에만 일부가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물론 예수께서 행한 사역도 매우 많지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신약에 기록된 내용이 적은 이유는 예수께서 한 사역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땅에서 3년 반 동안 행한 사역과 다른 사도들이 한 사역은 여호와께서 행한 사역보다 훨씬 적었다. 그러므로 신약의 내용이 구약보다 적은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경에 관하여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67)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이냐? 구약은 율법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한 사역이다. 구약 성경은 여호와께서 율법시대에 행한 사역, 나아가 여호와께서 창세 사역까지 기록한 책으로, 여호와께서 행했던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행한 사역에 대한 기록은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로 끝난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행한 두 가지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세상을 창조한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을 반포한 사역이다. 그 사역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행한 것이다. 율법시대의 사역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하는 사역이며, 전반 사역은 여호와께서 이름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구약은 여호와께서 행한 사역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한다. 신약은 예수의 사역을 기록한 것으로, 이는 예수의 이름을 위주로 이루어진 사역이다. 예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가 행한 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대부분 신약에 기록되어 있다. 구약 율법시대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게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땅에서 살 수 있게 인도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선민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땅에서 처음으로 택한, 그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며, 또한 그가 처음으로 친히 인도해 준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바로 여호와께서 택한 첫 번째 선민이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율법시대 사역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들에게 역사했다. 제 2 단계의 사역은 신약 은혜시대의 사역으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유대 족속에게 행해졌다. 이렇게 사역 범위를 좁힌 이유는 예수께서 성육신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유대 전역에서만 사역하였으며, 그것도 3년 반 동안만 사역했다. 그러다 보니 신약에 기록된 분량은 구약에 훨씬 못 미쳤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경에 관하여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68)

네가 율법시대의 사역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도를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알고 싶다면 구약 성경을 봐야 하고, 은혜시대의 사역을 알고 싶다면 신약 성경을 봐야 한다. 그렇다면 네가 말세의 사역에 대해 알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오늘날의 하나님 인도를 받아들이고, 오늘날의 사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사역이라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따로 중국에서 다시 선민들을 택했고, 이들에게 사역하며 땅에서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즉, 은혜시대의 사역을 이어 가고 있다. 오늘날의 사역은 이전 사람이 가 본 적 없는 길이고, 그 누구도 보지 못한 도이며, 아직 행한 적이 없는 사역이다. 다시 말해, 이는 하나님이 땅에서 행하는 최신 사역이다. 그렇기에 행한 적이 없는 사역은 역사(歷史)가 아니라고 한다. 현재는 현재고, 아직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땅에서, 이스라엘 밖에서 다시 더 크고 더 새로운 사역을 행하여 이미 이스라엘의 범위와 선지자의 예언을 뛰어넘었음을 모르고 있다. 이는 예언에 없는 새로운 사역이고, 이스라엘 밖에서 행하는 더 새로운 사역이며, 사람이 꿰뚫어 볼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한 사역이다. 이런 사역이 어떻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을 수 있겠느냐? 오늘날의 사역을 그 누가 하나도 빠짐없이 미리 기록해 놓을 수 있겠느냐? 그 누가 관례를 깨는 더 크고 더 지혜로운 이 사역을 오래되어 곰팡내 나는 책에 기록해 놓을 수 있겠느냐? 현시점의 사역은 역사(歷史)가 아니다. 그러므로 네가 오늘날의 새 길을 가려면 성경에서 나와야 하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서나 역사서의 범위를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새로운 길을 잘 갈 수 있고, 새로운 경지와 새로운 사역에 진입할 수 있다. 너는 지금 왜 성경을 보지 말라고 하는지, 왜 성경 밖에 또 다른 사역이 있는지, 왜 성경에서 더 새롭고 더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밖에 더 큰 사역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것들이다. 너는 이전 사역과 새로운 사역의 차이를 알아야 하며, 성경을 보지는 않아도 분석할 줄은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계속 숭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사역에 진입하기도,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도 힘들어진다. 더 높은 도가 있는데 굳이 낮고 시대에 뒤쳐진 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더 새로운 말씀과 사역이 있는데 굳이 케케묵은 역사(歷史) 기록 속에서 살 필요가 있겠느냐? 새로운 말씀이 너에게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새로운 사역임을 증명한다. 옛날의 기록이 너의 배를 불리지 못하고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시점의 사역이 아니라 역사(歷史)라는 것을 증명한다. 최고의 도는 바로 가장 새로운 사역이다. 새로운 사역이 있으면, 이전의 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모두 사람에게 추억의 역사(歷史)로 남고, 아무리 참고할 가치가 있을지라도 옛 도에 그친다. 옛 도는 '성서'에 기록되었을지라도 역사(歷史)이고, 새로운 도는 '성서'에 한 쪽도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현실이다. 이 도는 너를 구원할 수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69)

성경은 역사책에 속한다. 네가 구약 성경을 은혜시대에 가져다가 먹고 마시거나, 구약시대에 요구한 것을 은혜시대에 가져다가 실행한다면, 예수는 너를 버리고 정죄할 것이다. 예수의 사역을 구약의 틀에 맞추는다면, 너는 바리새인이다. 지금 네가 신약과 구약을 한데 묶어 먹고 마시며 실행한다면, 오늘날의 하나님은 너를 정죄할 것이고, 너는 오늘날의 성령 역사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네가 구약도 신약도 모두 먹고 마신다면, 너는 성령의 흐름 밖에 있는 자다! 예수 시대에, 예수는 당시 성령이 그에게 하는 사역에 따라 유대인들을 인도했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했다. 예수가 행한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에 따라 말씀한 것이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했든 예수는 상관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인도할 때 성경에서 길을 찾지도 않았다. 예수는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회개의 도를 전했다. 그러나 '회개'라는 이 두 글자는 구약의 그 많은 예언에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예수는 성경을 근거로 사역하지 않았을뿐더러 더 새로운 길을 펼쳤고, 더 새로운 사역을 했다. 그는 성경을 참고하여 전도한 적이 없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의 이적은 율법시대에 아무도 행하지 못했고, 그의 사역과 가르침, 그의 말씀의 권병과 능력 역시 율법시대에 아무도 닿을 수 없었다. 예수는 오로지 자신의 새로운 사역만 했다. 수많은 사람이 성경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구약 성경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지만, 그의 사역은 오히려 구약 성경을 넘어섰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사람이 어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다 예수의 가르침과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이 구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느냐? 예수가 행한 사역은 일부러 성경과 '싸움'을 하거나 구약 성경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펼쳐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직분을 이행하러 왔을 뿐이며, 그를 갈망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역을 가져다주었을 뿐이다. 예수는 구약을 해석하거나 구약의 사역을 수호하러 온 것이 아니었고, 그의 사역은 율법시대가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의 사역은 성경의 근거 유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사역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는 구약의 예언들을 해석하지 않았고, 구약 율법시대의 말씀에 따라 사역하지도 않았다. 그는 구약에서 어떻게 말했든, 그것이 자신의 사역과 부합하든 않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인식하든, 어떻게 정죄하든 자신이 행해야 할 사역만 계속하였다. 많은 사람이 구약 선지자의 예언으로 그를 정죄했을지라도 말이다. 사람이 보기에 예수가 하는 사역은 아무런 근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수없이 많았다. 그것은 모두 사람의 착오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규례에 맞출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도 선지자의 예언에 근거해야 한단 말이나? 성경이 크겠느냐, 하나님이 크겠느냐? 왜 하나님이 꼭 성경에 근거해 사역해야 한단 말이나? 설마 하나님 자신에게는 성경을 벗어날 어떤 권리도 없단 말이나? 하나님은 성경을 떠나 따로 사역할 수 없다는 것이냐? 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겠느냐?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고 구약의 그 계명들에 따라 실행했다고 한다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밭을 췌겨 주고 수건을 쓰고 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셨겠느냐? 그런 것은 모두 구약에 없는 계명 아니더냐? 예수가 구약대로 하고자 했다면, 왜 그런 규례들을 깨뜨렸겠느냐? 너는 하나님이 먼저였는지 성경이 먼저였는지 알아야 한다! 그가 안식일의 주인은 될 수 있어도 성경의 주인은 될 수 없다는 것이냐?

신약시대에 예수가 한 사역은 새 사역을 개척한 것이었다. 예수는 구약시대의 사역대로 하지 않았고 구약시대에 여호와가 했던 말씀에 맞추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사역을 했다. 그는 더 새로운 사역, 율법보다 더 높은 사역을 했다. 그래서 예수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라고 했던 것이다. 그가 이룬 것에 따라 수많은 규례가 깨졌다. 안식일에 예수는 제자들을 데리고 밭밭을 지나다가 밭 이삭을 잘라 먹으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는 말까지 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법에 따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였다. 하지만 예수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다. 예수가 한 그 사역들은 여호와가 구약시대에 하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한 사역은 구약 율법을 뛰어넘었으며, 구약 율법보다 더 높아졌다. 그는 구약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다. 은혜시대에 이미 구약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그런 규례들을 깨뜨렸건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고수하며 예수를 정죄하였다. 이는 예수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교계도 성경을 고수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거룩한 책이므로 반드시 봐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은 그 어느 때에도 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이므로 폐할 수 없지요. 그러니 안식일은 언제라도 꼭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런 사람은 너무 그릇된 자 아니겠느냐? 예수가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어찌 된 일이겠느냐? 예수가 죄를 짓기라도 했단 말이나? 누가 그 일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사람의 깨닫는 능력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본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알기는커녕 갈수록 관념이 많아져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성육신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모두 자신의 관념에 의해 끝장났을 것이고, 하나님의 형벌 속에서 죽었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경에 관하여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70)

성경은 신구약 전서로도 불린다. 너희는 무엇을 ‘언약’이라고 하는지 아느냐? ‘구약’을 ‘언약’이라 부르는 것은 여호와가 애굽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해 애굽의 바로에게서 벗어나게 할 때, 이스라엘 사람과 세운 언약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그 ‘언약’은 문 인방에 바른 ‘양의 피’를 증거로 삼았다. 여호와는 그것으로 사람과 언약을 세우면서 문 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으면 모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가 남겨 둘

대상이라고 말했다(이는 그때 여호와가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우양을 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 ‘언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애굽의 사람과 가축은 모두 여호와가 구원할 대상이 아니므로 그 모든 애굽의 장자들과 처음 난 우양을 죽인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수많은 예언서에 애굽 백성을 중하게 벌한다고 예언된 것은 모두 여호와가 세운 언약 때문이었다. 이것이 ‘언약’의 첫 번째 의미이다. 여호와는 애굽의 장자들과 처음 난 모든 가축을 죽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남겨 두었다. 다시 말해, 여호와는 이스라엘 땅의 사람이라면 모두 귀하게 여겨 그들을 전부 보존하려는 것이었다. 여호와는 그들에게 오래도록 사역하려 했고 또한 그들과 ‘양의 피’로 언약을 세웠다. 그때부터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않았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한 그의 선민이라고 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서 율법시대의 모든 사역을 펼치고 그의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열어 놓으려고 했다. 또한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와 사사들을 택해 이들을 중심으로 사역하려 했다. 여호와는 시대가 바뀌지 않는 한, 자신이 택한 백성들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별도로 사역하지 않겠다고 그들과 약속하였다. 여호와가 세운 언약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는 피로 언약을 맺었고, 그의 선민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적합한 사역 범위와 대상을 택하여 자신의 시대 전체의 사역을 펼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언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것이 ‘언약’의 두 번째 의미이다. 전체 구약 성경에서 언약을 세우기 전의 창세기를 제외한 다른 책들은 모두 언약을 세운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행한 사역을 기록한 것이다. 물론, 간혹 이방 족속의 일도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에 전반적으로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사역이다. 율법시대에 기록된 책은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약’이라 불렸다. 이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서 명명된 것이다.

신약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피로 그를 믿는 사람들과 맺은 약속에서 명명되었다. 예수의 약속은 사람이 그를 믿기만 하면 그가 흘린 피로 죄 사함을 받으며, 그것으로 예수에게서 구원을 얻고 거듭나서 더 이상 죄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죽은 후에 지옥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전체 은혜시대에 기록된 책은 모두 약속을 맺은 이후에, 그리고 약속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 사역과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벗어나지도 않고 약속의 범위도 넘어서지 않는다. 그것은 다 주 안에서 체험한 형제들이 기록한 책이다. 그렇기에 그 책들 또한 약속에서 명명되어 ‘신약’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두 ‘언약’은 율법과 은혜, 두 시대에만 해당될 뿐, 마지막 시대와는 무관하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날 말세의 사람들에게 별로 쓸모가 없게 되었다. 기껏해야 임시적인 참고용으로만 쓰일 뿐, 사용할 만한 가치가 거의 없다. 그러나 종교 인사들에게는 여전히 성경이 가장 보배로운 존재이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해석만 할 뿐, 성경의 유래는 전혀 모른다. 그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다음과 같다. 즉, 성경은 완전히 옳은

것이며, 오차 없이 정확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먼저 성경은 옳은 것이고, 틀림없이 정확한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게 연구하고 살펴보기 시작한다. 오늘날 이 단계의 사역은 성경 안에 예언되어 있지 않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정복 사역을 행하는 이 일은 언급된 적이 없다. 이것은 가장 새로운 사역이기 때문이다. 사역하는 시대가 서로 달라 예수 자신도 말세에 이 단계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는데, 말세의 사람이 또 어찌 성경에서 이 단계의 사역을 알아낼 수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경에 관하여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71)

성경의 기록이 모두 하나님이 친히 발한 음성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전 두 단계 사역에 대한 사실 기록일 뿐이다. 거기에는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기록도 있고, 역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 쓴 체험과 인식도 있다. 사람의 체험에는 사람의 견해와 인식이 섞여 있기 마련이며,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 수많은 책들 중 어떤 것은 사람의 관념이나 편견, 그릇된 이해 방식에 속한다. 물론 대부분은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에서 비롯된, 올바른 깨달음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완전히 정확하게 말했다고는 할 수 없다. 어떤 일들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개인적으로 체험하여 얻은 인식이나 성령의 깨우침에 불과하다.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이 친히 지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시에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나 다니엘, 에스라, 예레미야, 에스겔이 했던 예언은 성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 예언자에 속하는 그들은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 모두 구약의 선지자들이다. 율법시대에 여호와와 목시를 받은 그들은 많은 예언을 했는데, 그것은 여호와가 직접 지시한 것이었다. 왜 그들에게 목시를 주었겠느냐?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에 속하고, 선지자는 반드시 그 선민들 가운데서 사역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계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이 받은 계시는 사실 그들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다. 성령이 그들의 입을 빌려 그런 말씀을 한 이유는 후세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간파하게 하고, 그것이 사람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의 영이 한 것, 성령이 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그것으로 성령 역사에 대한 확증을 주기 위함이었다. 은혜시대에는 예수 자신이 그들을 대신하여 모든 사역을 했으므로 더 이상 예언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다면 예수는 선지자겠느냐, 아니겠느냐? 예수도 물론 선지자이다. 하지만 예수는 사도의 사역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었으며, 각지에서 전도하며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의 사역과 그가 대표하는 신분은 달랐다. 예수는 와서 전 인류를 구속했고 죄에서 사람을 속량했다. 예수는 선지자요, 사도요, 더욱이 그리스도이다. 선지자가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라 말할 수는 없다. 예수도 그 단계에서 많은 예언을 했기에 그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가 선지자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예수는 하나님을 대표하여 한 단계의 사역을 한 데다, 그의 신분 역시 이사야와는 달랐기 때문이다. 예수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러 왔고, 또한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었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예수의 몸에 임한 것으로, 그가

행한 사역은 하나님의 영이 묵시하거나 여호와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 영이 직접 역사한 것이었다. 이 점만으로도 예수가 선지자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예수는 구속 사역을 했고 부차적으로 예언도 했다. 예수는 선지자이자 사도이며, 더욱이 구속주이다. 하지만 예언자들은 예언만 할 수 있었을 뿐, 하나님의 영을 대신하여 더 많은 사역을 할 수는 없었다. 예수는 사람이 행한 적 없는 많은 사역을 한 데다가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도 했기 때문에 이사야 같은 사람들과는 다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경에 관하여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72)

지금 사람들은 늘 성경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성경이라고 여긴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그만큼만 말씀했고, 성경에 있는 그만큼의 말들은 모두 하나님이 한 말씀이라고 여긴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신구약 66 권은 사람이 쓴 것이지만 다 하나님이 묵시한 것이고 성령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여긴다. 이는 사람의 치우치고 그릇된 이해 방식으로, 사실과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사실, 구약에서 예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역사(歷史) 기록에 속한다. 신약 서신에는 사람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 성령의 깨우침에서 비롯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쓴 서신은 사람이 한 일이었다. 그것은 모두 성령이 한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깨우쳐 준 것으로,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들이며, 여러 교회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권면과 격려이다. 바울은 성령을 대표하여 말할 수 없는 데다가 선지자도 아니었고, 요한이 본 이상(異象)은 더더욱 보지 못했다. 그 편지들은 당시 에베소, 빌라델비아, 갈라디아 등의 여러 교회에 써 보낸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바울 서신은 바울이 교회들에 써 보낸 편지이지, 성령이 묵시한 것도, 성령이 직접 한 말씀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 서신은 다만 바울이 사역하는 기간에 쓴 여러 교회에 대한 권면과 위로와 격려이자 당시 그가 했던 많은 사역에 대한 기록일 뿐이다. 그것은 주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써 준 것이고, 또한 당시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그의 권유를 듣고 예수가 전한 회개의 도를 행하라는 것이기도 했다. 바울은 당시의 교회든, 그 이후의 교회든 모두 그가 써 준 것을 먹고 마셔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자신의 그 말들이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당시 교회의 상황에 대해 형제자매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권면하며, 믿음을 불러일으켰을 뿐이다. 또 그는 단지 설교하거나 일깨워 주고 권면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감과 연관 지어 말했고, 그런 말로 그들을 붙들어 준 것에 그쳤다. 당시 교회들의 사도로 사역한 바울은 예수가 쓴 일꾼이었다. 그렇기에 바울은 교회에 대해 책임지고, 교회의 사역을 담당하며, 형제자매들의 상태를 파악해야 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긍정적이었던 바울의 말은 모두 옳았다. 하지만 바울의 말은 성령의 말씀도, 하나님도 대변할 수 없다. 사람들이 만일 사람의 서신과, 체험에 대한 기록을 성령이 교회들에 한 말씀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인식법이고, 크나큰 모독이다! 특히 바울이 교회들에 보낸 서신이 그렇다.

바울은 그 당시 각 교회의 상황과 실제 상태에 근거해, 주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예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려고 편지를 써 보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을 격려해 주기 위한 것으로, 바울 본인이 저야 할 책임감이자 성령이 그에게 더해 준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은 어디까지나 당시 교회들을 이끄는 사도였으므로 교회들에 편지를 보내 권면하는 것은 그의 책임이었다. 바울의 신분은 사역하는 사도이고 보냄을 받은 사도일 뿐 선지자도, 예언자도 아니었다. 그에게는 자신의 사역과 형제자매들의 생명이 가장 중요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을 대표해 말할 수 없다. 바울이 한 말은 성령의 말씀도 아니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바울은 피조물일 뿐, 성육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울과 예수의 신분은 다르다. 예수의 신분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바울을 어떻게 예수와 동등하게 볼 수 있겠느냐? 사람이 바울의 서신이나 말과 유사한 것들을 성령의 음성으로 간주하고 또한 하나님으로 여겨 경배한다면, 너무나 분별력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심하게 말하면, 이는 완전히 모독에 속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표하여 말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서신 기록을 '성서'와 '천서(天書)'로 삼아 엮드릴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표하여 말할 수 있단 말이나? 이러한데 바울이 교회들에 써 보낸 편지에 자신의 생각이 섞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또한 바울 자신의 뜻이 섞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자신의 체험과 인식에 따라 교회에 편지를 썼다. 예를 들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와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의 견해는 서로 각각 다르다. 그렇다면 어떤 견해가 성령에게서 비롯되었겠느냐? 그 누구도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교회에 대해 책임감이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들의 편지는 그들의 분량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에 대한 그들의 공급과 붙들어 줌,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들의 책임감을 의미한다. 단, 그것은 사람이 사역하는 면만 의미할 뿐, 절대적으로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네가 바울의 서신을 성령의 말씀에 속한다고 말한다면, 너는 그릇된 자이다. 이는 모독에 속한다! 바울의 서신과 신약의 다른 서신은 근대 영적 인물의 전기에 해당하며, 그것은 위치만 니의 책이나 로렌스의 체험 등과 같이 사람이 쓴 영적 전기와 동일시할 수 있다. 단지 근대 인물들이 쓴 책은 신약 성경에 편성되지 않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들의 본질은 같다. 그들은 다 성령께 한동안 쓰임 받았던 인물로, 직접 하나님을 대표할 수는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경에 관하여 3> 중에서

*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겠느냐: (직역)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73)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는 예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의 첫머리에서는 예수를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자손,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뒤에 가서는 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가 낳았다고 나와 있다. 그것은 예수가 요셉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도, 다윗의 자손도 아니라는 말이지만, 족보의 기록은 예수와 요셉을 억지로 엮어 놓았다. 족보의 뒷부분에는 예수가 강생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고 나온다. 그러나 족보에는 분명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족보는 예수를 위해 쓴 것이기에 요셉 세대까지 42 대 인물을 기록한 후, 뒤이어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말한다. 그 말은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앞뒤가 모순되지 않느냐?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분명 요셉 가문의 인물들이다. 그것은 요셉의 족보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가리켜 예수의 족보라고 억지 주장을 했다. 이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부인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마태가 쓴 족보 같은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아주 황당한 말이다! 이렇듯 너는 이 책이 온전히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땅에 계실 경우 족보가 필요하므로 예수를 아브라함 가문의 제 42 대 인물 자리에 놓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너무도 황당한 생각이다! 하나님이 땅에 왔다고 해서 어찌 족보가 있을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께 족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피조물 가운데 나열한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을지라도 사람과 본질이 다르다. 그런데 네가 어찌 하나님을 피조물과 같은 부류로 취급할 수 있단 말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다. 당시 여호와와 사역 대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여호와께 인정받은 충성스러운 종이었을 뿐이다. 그가 어찌 예수의 조상이 될 수 있겠느냐?

예수의 족보는 누가 써 준 것이더냐? 예수 자신이 쓴 것이더냐? 예수가 친히 그들에게 “나를 위해 족보를 만들라.”라고 했더냐?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마태가 기록해 놓은 것이다. 당시 예수는 수많은 사역을 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예수 또한 해석해 주지 않았다. 예수가 떠난 뒤, 제자들은 곳곳에서 전도하고 사역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그 단계의 사역을 위해 서신과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다. 신약 복음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20~30 년이 지난 뒤에 기록된 것이다.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던 것은 모두 구약 성경이었다. 즉, 은혜시대가 막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보았던 것은 다 구약 성경이었다. 신약 성경은 은혜시대에 비로소 생긴 것이다. 예수가 사역할 때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다. 예수가 부활하여 승천한 후, 후세 사람들이 그의 사역을 기록하여 그제야 4 복음서가 생겨났고, 거기에 바울의 서신과 베드로의 서신, 계시록 책까지 추가되었다. 그리고 예수가 승천하고 3 백여 년이 지난 뒤, 후세 사람들이 다시 그 원고들을 골라 하나로 편집하면서 비로소 신약 성경이 생겨났다. 신약 성경은 당시 사역이 끝난 후에야 생겨난 것이지 미리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역을

행했고,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곳곳의 교회에 그 많은 서신을 써 보냈다. 후세 사람들이 사도들의 그 서신을 함께 모으고, 요한이 밧모섬에서 본 가장 큰 이상(異象)에 대한 기록을 맨 마지막 책으로 묶었다. 그것은 말세에 행할 사역을 예언한 것이다. 그 순서는 모두 사람이 배열한 것으로, 지금의 말씀과는 다르다. 지금은 사역하는 순서에 따라 기록하고 있고,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친히 한 사역과 말씀이다. 또한 사람이 개입할 필요 없이 직접 영에서 비롯된 말씀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나열해 놓았는데, 이는 사람이 기록한 순서와는 다르다. 그들이 기록한 내용은 그들의 지식수준과 자질에 근거한, 사람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마다 기록 방식이나 인식이 다르므로 기록한 내용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네가 성경을 하나님으로 여겨 숭배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왜 오늘날의 하나님 사역을 찾지 않느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일 뿐, 성경이 아니다. 사람은 수천 년간 성경을 읽어 왔지만, 조금도 변화가 없었다. 네가 성경을 숭배한다면 영원히 성령 역사를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경에 관하여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74)

많은 사람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면 참도를 찾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것이 정말 그렇게 간단하겠느냐? 사람은 성경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역사(歷史) 기록이고, 하나님의 앞 두 단계 사역에 대한 증거일 뿐이다. 너는 성경에서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를 알 수 없다. 성경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율법시대와 은혜시대에 하나님이 행한 두 단계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歷史), 즉 창세부터 율법시대가 끝날 때까지 여호와가 어떻게 사역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다. 신약 4 복음서에는 예수가 땅에서 행했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바울이 행한 사역도 신약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모두 역사 기록에 속하지 않더냐? 지난날의 일이 오늘날에는 모두 역사(歷史)에 속한다. 그것이 아무리 진실할지라도 역사일 뿐이다. 역사는 현실에 초점을 맞출 수 없다. 하나님은 역사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성경만 알고 하나님이 현재 행하려는 사역은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 역사를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네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역사(歷史), 즉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한 역사를 연구하기 위함이라면, 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 네가 죽은 글귀나 도리, 역사(歷史)를 알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이상, 반드시 하나님의 현시점의 뜻을 구해야 하고, 성령 역사의 동향도 찾아야 한다. 네가 고고학자라면 성경을 봐도 무방하겠지만, 고고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현시점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성경을 보면 기껏해야 이스라엘의 일부 역사 및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모세의 일생을 알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했는지, 여호와가 자신을 대적한 자들을 어떻게 불살랐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 주었는지를 알 수 있을 뿐이다. 너는 그저 하나님의 지난 사역을 이해하는 데 그칠 뿐이다. 성경에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와 인도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생활했는지도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에 속하므로 너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심을 볼 수 있다. 여호와께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여호와와 보살핌과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또한 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때 공훈과 자비가 충만했지만 불사르는 불길도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스라엘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여호와를 경외했으므로 온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歷史)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경에 관하여 4>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75)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행한 사역을 기록한 역사책에 속한다. 그 안에는 많은 옛 선지자의 예언과 여호와가 당시에 사역했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책을 ‘성스럽다’고 여긴다(하나님은 거룩하고 위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모두 여호와에 대한 사람의 경외심이자 하나님에 대한 양모의 마음이다. 사람들이 그 책을 그렇게 칭찬 이유는 단지 피조물에게 창조주를 경모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책을 ‘천서(天書)’라고까지 했다. 사실, 그 책은 사람의 기록일 뿐이지 여호와가 친히 명명하거나 지도하여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그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다. ‘성스러운’ 경전이라고 칭하는 것은 그 책에 대한 사람의 존칭일 뿐, 여호와와 예수가 함께 논의한 후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뜻에 불과하다. 그 책은 여호와가 기록한 것도, 더욱이 예수가 기록한 것도 아니며, 많은 옛 선지자, 사도, 예언자들의 기록을 후세 사람들이 수집하여 편찬한, 사람이 매우 거룩하다고 여기는 고서(古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은 그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심오한 비밀이 많이 있어 후세들이 이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 책을 더욱더 ‘천서’라고 여겼다. 거기에서 신약 성경의 4 복음서와 계시록까지 더해지니 그 책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그 어떤 책보다 각별했다. 그러다 보니 그 누구도 감히 그 ‘천서’를 파헤치려 들지 않았다. 이는 다 그 책이 너무나 ‘신성’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왜 성경을 보고 거기에서 실행해야 할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왜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파헤치는 것은 성경을 혐오하거나 성경의 참고할 만한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고유한 가치와 기원을 너에게 분명히 밝혀 주어 네가 캄캄절벽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에 대한 사람의 견해가 너무 많은 데다 대부분은 정확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내가 행하려는 사역까지 가로막아 앞으로의 사역에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이익은 없이 폐단만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는 어디까지나 너에게 성경의 본질과 실상을 알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지 말라거나 가치 없는 책이라고 소문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견해를 가지라는 것이고, 너무 단편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역사책이라고 하지만, 그 책에는 옛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겼던 원칙과 근대 사도들이 하나님을 섬긴 체험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게다가 그것은 사람의 참된 깨달음과 인식이다. 그런 것은 모두 참도를 추구하는 현시대의 사람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경을 보면 다른 책에서 얻을 수 없는 많은 생명의 도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도는 모두 역대 선지자나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체험했던 생명의 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매우 귀한 말씀이 많이 있어 사람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성경을 보려고 한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비밀스러운 것이 무척 많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사람의 견해는 그 어떤 영적 위인의 저서에 대한 견해와도 같지 않다. 성경은 신구약시대에 여호와와 예수를 섬긴 사람들의 체험과 인식을 수집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그 책에서 많은 깨우침과 빛 비춤, 그리고 실행의 길을 얻을 수 있었다. 성경이 영적 위인들의 그 어떤 저서보다 훌륭한 까닭은 그들의 모든 저서가 성경에서 소재를 취했으며, 그들의 체험 역시 모두 성경에서 비롯되었고 또한 성경을 풀이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영적 위인의 책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사람이 숭배하는 것은 여전히 성경이다. 사람이 보기에 성경은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바울의 서신’이나 ‘베드로의 서신’과 같이 생명의 말씀을 다룬 일부 책들이 수록되어 있고, 사람은 그 책들에서 공급과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책들은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자 구시대의 책이다. 그 책들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한 시기에만 적용될 뿐, 영원히 남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사역은 끊임없이 발전하므로 바울과 베드로가 있었던 시대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은혜시대에만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책들은 은혜시대에만 적용될 뿐, 마지막 시대인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은혜시대의 신자들에게만 공급해 줄 수 있을 뿐, 하나님나라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공급해 줄 수 없기에 아무리 좋아도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창세 사역이나 그가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사역이 아무리 좋아도 시대에 뒤처지고 흘러간 것처럼 말이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끝날 때가 있는 것처럼, 영원히 창세 사역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영원히 십자가 사역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없다. 십자가 사역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고 사탄을 물리치는 성과를 낼 수 있다 해도 사역은 어디까지나 사역일 뿐이고, 시대 또한 어디까지나 시대일 뿐이다. 사역은 어느 한 기초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시대 역시 영구불변할 수 없다. 창세가 있으면 반드시 말세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의 ‘생명의 말씀’, 즉 ‘사도 서신’과 ‘4 복음서’를 오늘날로 가져오면 모두 역사책이 되고, 오래된 책력이 된다. 그런 오래된 책력으로 어찌 사람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 들어가겠느냐? 그 오래된 책력이 아무리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고,

사람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 수 있다 할지라도 모두 시대에 뒤쳐진 것 아니겠느냐? 모두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더 이상 그 오래된 책력을 맹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 오래된 책력은 너무 ‘케케묵어’ 너를 새로운 사역으로 이끌 수 없고 너에게 짐만 될 뿐이다. 그것은 너를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진입으로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낡은 교회당 안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퇴보한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경에 관하여 4>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76)

오늘날, 너희 중 누가 감히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전부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어째서 에스라의 예언서와 옛 선지자들이 쓴 서적들을 없애 버렸겠느냐? 모두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너희는 어째서 감히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냐? 너에게 성령의 역사를 선택할 자격이 있느냐? 이밖에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야기를 없애 버렸다. 네가 만약 과거에 기록된 그 책들이 전부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일부 책들을 없애 버렸겠느냐? 모두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전부 남겨 교회들에게 보내어 형제자매들이 보게 해야 하며, 사람의 생각을 섞어 함부로 취사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바울, 요한 등 사람들의 체험에 개인의 깨달음이 섞여 있다고 해서 그들의 체험과 인식이 사탄에게서 나왔다는 말은 아니다. 그저 그들이 개인의 체험과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들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그들은 당시의 현실적인 체험 배경을 토대로 인식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만약 4 복음서가 전부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어째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이 당시 예수의 사역에 대해 한 말이 다 다르겠느냐? 못 믿겠다면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아라. 베드로가 주를 세 번 부인한 사실이 다 다르고, 각각 ‘특색’이 있다. 식견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성육신 하나님도 사람인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전부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나 요한의 말에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다면, 그분이 하는 말씀에는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지 않단 말입니까?”라고 말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눈멀고 식견이 없는 자들이다! 4 복음서를 잘 보아라. 예수가 마친 일, 예수가 한 말씀에 대한 그들의 기록은 그야말로 각기 다 다르고, 각자 자신의 견해가 있다. 만약 저자가 쓴 것이 전부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같고 일치해야지, 어째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호칭과 신분에 관하여>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77)

당시 예수는 말씀하거나 사역할 때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성경의 구약 율법의 사역대로 하지 않았다. 반대로 은혜시대에 해야 할 사역에 따라 했을 뿐이다. 그는 그가 가져온 사역에 따라 행했고, 그의 계획에 따라 행했으며, 그의 직분에 따라 사역했을 뿐,

구약의 율법에 따라 사역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일을 구약의 율법에 따라 하지 않았다. 그는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기 위해 사역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옛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각 단계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규례를 지키거나 일부러 옛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온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은 옛 선지자들의 예언을 교란하지 않았으며, 그의 이전 사역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그가 하는 사역의 특이점은 어떤 규례도 지키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선지자도, 예언가도 아닌 '실무가'로, 매우 실제적으로 그가 해야 할 사역을 함으로써 그의 새로운 기원을 열고 새 사역을 시작했다. 물론, 예수의 사역으로 구약 선지자들의 말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 하는 사역으로도 구약의 옛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다만 오늘은 너와 그 '오래된 책력'을 펼쳐 보면서 따지지 않을 뿐이다. 내가 해야 할 사역이 많고, 너희에게 해야 할 말도 많으며, 이러한 사역과 말은 그런 성경 구절들을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사역은 너희에게 그다지 큰 의미도, 가치도 없고, 너희에게 도움이 되거나 너희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새 사역을 할 것이며,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이루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옛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성육신 하나님이 크겠느냐, 아니면 옛 선지자들이 크겠느냐? 옛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지배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옛 선지자들을 지배하는 것이냐? 이 말을 너는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호칭과 신분에 관하여>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78)

지난날, 유대인들은 모두 구약 성경을 보았으므로 한 남자 아기가 구유에 강생하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왜 예수를 핍박했겠느냐? 패역한 본성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무지 때문이 아니겠느냐?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행하는 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예언 속 남자 아기와 같지 않다고 여겼고, 오늘날의 사람은 성육신 하나님이 성경에 따라 사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저버린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의 본질은 다 같은 것이 아니냐? 너는 성령의 역사라면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임이 분명하다면 '흐름'이 옳은 것이니 고르거나 선택하지 말고 주저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네가 하나님을 상대로 식견을 넓히려 하고 여러 가지 의구심을 품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더 이상 성경에서 근거를 찾지 말고,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다면 바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므로 하나님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 나에 대한 더 많은 근거를 찾아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설사 성경에서 확실한 증거를 더 많이 찾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완전히 내 앞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 그런 너는 성경 속에서 사는 사람이니 내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내가 나를 알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해주지도 못한다. 성경에는 한 남자 아기가 강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했기에 그 예언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랐다. 그로 인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대적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사람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와 예수는 완전히 다르며,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당시 예수는 은혜시대에 제자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등등 은혜시대의 도만 가르쳤다. 즉, 예수는 은혜시대의 사역을 한 것이다. 예수는 당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는 은혜시대의 사역만 했을 뿐, 말세의 사역은 하지 않았다. 율법시대에 여호와와 구약 율법을 제정하고 왜 은혜시대의 사역은 하지 않았겠느냐? 어찌서 은혜시대의 사역을 미리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겠느냐? 사람이 더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겠느냐? 여호와와 한 남자가 강생하여 정사를 뗄 것이라는 예언만 했을 뿐, 은혜시대의 사역을 앞당겨 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이 하는 각 시대의 사역은 다 일정한 범위가 있다. 그는 해당 시대의 사역만 할 뿐, 다음 단계의 사역을 미리 하지는 않는다. 그래야만 각 시대의 대표적인 사역을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 그 당시 예수는 말세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인내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어떻게 회개하고 죄를 자백해야 하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만 말했다. 말세의 사람이 어떻게 진입하고 어떻게 추구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 네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찾는다면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네가 성경만 받쳐 든다면 무엇을 알아낼 수 있겠느냐? 그 어떤 성경 해석가나 설교자가 오늘날의 사역을 미리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을 ‘관념’으로 규정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79)

성경은 사람과 수천 년을 함께했고,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처럼 대했으며, 심지어 말세에 이르러서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이 몹시 증오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틈틈이 성경의 실상과 그 기원을 낱알이 밝혀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은 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며, 사람은 성경의 글귀로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정죄하고 가늠할 것이다. 하나님이 성경의 본질과 구성, 그리고 그 결점을 설명한다고 해서 성경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성경을 정죄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성경에 대해 적절하고 올바른 설명을 덧붙이고, 성경을 본래 자리로 되돌렸으며, 성경에 대한 사람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았을 뿐이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성경에 대해 정확한 견해를 갖고, 더는 성경을 숭배하거나 방향을 잃는 일이 없게 했다. 즉, 성경에 대한 맹신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경배라고 착각하고, 성경의 실제 배경이나 결점에 감히 직면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한 것이다. 사람은 성경을 순수하고 정확하게 알게 된 후에야 거리낌 없이 그것을 버리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몇 편의 말씀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이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 주려는 진리는 바로 어떤 이론이나 사실도 하나님의 현실적인 역사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성경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오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모든 존재를 지워 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흡족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오직 성경에 대해서만 해석했다. 하지만 잊지 말라. 사람은 성경을 떠받드는 것 외에도 참으로 많은 그릇된 것들을 떠받든다. 사람이 유일하게 떠받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참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저 성경을 일례로 모든 이에게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또다시 극단으로 치닫거나 미망에 빠져선 안 된다.”라고 깨우쳐 주었을 뿐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그리스도가 교회들을 다니며 한 말씀·내용 소개>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80)

나는 인간 세상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면서 그동안 많은 말을 했다.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말이자 사람으로 하여금 내 마음에 합하게 하기 위한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땅에서 내 마음에 합하는 사람을 많이 얻지는 못했다. 그렇기에 나는 사람들이 내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모두 내 마음에 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내가 사역을 하는 이유는 사람이 나를 경배하도록 하는 데 있고, 더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하도록 하는 데 있다. 패괴된 사람은 모두 사탄의 울무에서 살아가고, 자신의 욕, 그리고 사욕으로 살아가며, 내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내 마음에 합했다고 자칭하는 자들은 모두 막연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거룩하다 칭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도는 나와 상반된다. 그들의 말에는 교만함과 자신감이 가득 배어 있다. 그들은 본래 나를 적대시하는 자들이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날마다 성경에서 나의 종적을 찾으려, 내키는 대로 ‘적합한’ 구절을 찾아 하염없이 읊조리는가 하면, ‘경전’으로 삼아 외우기까지 한다. 그들은 내 마음에 합하는 방법을 모르고, 무엇이 나와 적대되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저 ‘성경’만 읽을 뿐이다. 그들은 아예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막연한 하나님을 성경에 국한시키고, 여유가 생길 때면 꺼내어 보곤 한다. 그들은 성경의 범위 안에서 내 존재를 믿는다. 그들은 ‘성경’이 없으면 ‘나’도 없고 ‘내’가 없으면 ‘성경’도 없다며 ‘나’와 ‘성경’을 동일시한다. 그들은 내 존재와 내 행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은 매우 각별하다. 심지어 적지 않은 이들이 성경의 예언이 없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글귀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성경 장절로 내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가늠하고, 나를 정죄하기까지 한다. 그들이 찾는 것은 성경 글귀에 부합하는 길이지, 내 마음에 합하는 길이나 진리와 합하는 길이 아니다.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은 다 나의 사역이 아니라 여기니, 이런 자들은 바리새인의 충실한 자손들 아니겠느냐?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를 정죄하였다. 그들은

당시 예수의 마음에 어떻게 합할 것인지는 찾지도 않으면서 율법 구절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대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에게 구약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과 메시야가 아니라는 죄명을 씌워 죄 없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다. 그들의 본질은 무엇이겠느냐? 진리와 합하는 길을 찾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 그들은 성경의 글귀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내 뜻과 내 사역의 절차와 방식에는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글귀를 고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성경을 지키는 종들이었다. 그들은 성경의 이익과 존엄성, 그리고 성경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인자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단지 성경을 옹호하고, 또 성경의 글귀가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까닭에 자신의 앞날을 망칠지라도, 속죄 제물을 얻을 수 없을지라도, 성경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그런 그들을 성경 글귀의 앞잡이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오늘날의 사람은 어떠하냐? 사람은 천국에 가거나 은혜를 받기 위해, 이 땅에 와서 진리를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인간 세상 밖으로 내몰려 하였다. 또한 성경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진리의 도래를 완전히 말살하려 하였으며, 성경이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 두 번째 육신으로 돌아온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으려고 하였다.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악독하고, 그 본성이 나를 이토록 적대시하는데 어찌 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사람은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아도 나의 존재를 모르고, 나의 빛을 밝게 비추어 주어도 여전히 나의 존재에 대해 모른다. 나의 진노가 사람에게 닥칠 때면 나의 존재를 더욱 부인한다. 사람은 저마다 글귀와 어우러지고 성경과 합하기를 구하지만, 어느 누구도 내 앞에 와서 진리와 합하는 길을 찾지는 않는다. 사람은 모두 천상에 있는 나를 앙망하고, 천상에 있는 내 존재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지만, 육신으로 살아가는 나는 개의치 않는다.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내가 너무도 보잘것없기 때문이다. 내 눈에는 오직 성경 글귀에 합하기만을 구하고, 막연한 하나님과 합하기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비천해 보인다. 그들이 숭배하는 대상은 죽은 글귀와 자신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물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지배를 받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사람의 비천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나를 적대시하는 자들, 나에게 끝없이 요구하는 자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나를 거역하는 자들이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할 수 있겠느냐?

나를 적대시하는 자는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자 또한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를 거역하는 자는 더더욱 나를 적대시하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악한 자의 손에 넘겨 악한 자에 의해 파괴되게 하고, 그들의 악행이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악한 자에게 넘겨주어 집어삼키게 할 것이다. 나는 나를 경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나는 내 마음에 합하는 사람의 숫자에만

관심이 있지, 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에는 무관심하다는 의미이다.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를 배반한 악인이자 원수로, 굳이 그 원수를 내 집에서 ‘떠받들’ 리가 없다. 내 마음에 합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내 집에서 나를 섬기겠지만, 나를 적대시하는 자들은 나의 징벌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의 글귀에만 신경 쓸 뿐, 진리와 내 발걸음을 찾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은 모두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나를 성경에 국한시키고, 성경 안의 존재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에 대한 크나큰 모독인데 그들이 어찌 내 앞에 올 수 있겠느냐? 그들이 중시하는 것은 나의 행사와 나의 뜻, 진리가 아니라 글귀, 그것도 사람을 죽이는 글귀이다. 이런 자들이 어찌 내 마음에 합할 수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너는 마땅히 그리스도와 합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중에서

제 8 절 종교 관념 폭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81)

‘하나님’과 ‘사람’은 동일 선상에서 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가장 측량하기 어렵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지도 말씀하지도 않는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사역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헛수고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간파’했다는 사람들은 다 무능한 자, 교만하고 무지한 자라고 말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규정해서는 안 되며, 더군다나 규정할 수도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실로 개미보다 작은 존재거늘 어찌 하나님의 사역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입만 열면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사역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러저러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허황된 말을 늘어놓는 자 아니겠느냐? 육에 속한 사람은 전부 사탄에 의해 패괴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과 대등해질 수 없고, 더욱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계책을 낼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할 일이다. 사람은 마땅히 순종해야지, 이런저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람은 그저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이상, 자신의 관념을 하나님이 사역하는 데 참고해 달라며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자신의 패괴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의도적으로 극력 대적하는 것은 더 안 될 일이다. 이런 사람은 적그리스도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논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이상, 하나님을 만족게 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 이상, 진리의 도를 찾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길을 찾아야지, 목을 뺏뺏이 하고 하나님과 대립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느냐?

오늘날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을 했다. 너는 이 말을 못 받아들일 수도, 신기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일단 너의 천연적인 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만이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진정으로 경건한 자만이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구하는 데에 있어 언쟁을 벌인다고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음을 차분히 하고 구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내가 “오늘날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역을 했다”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온 이 일을 가리킨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말을 아주 싫어할 수도 있고, 이 말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어쨌든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타남을 갈망하는 사람 모두가 이 사실을 마주하고, 또한 신중하게

알아보기를 바란다. 가장 좋은 것은 경솔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서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82)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가야겠느냐? 하나님의 현재 말씀과 사역을 바탕으로 알아 가야 한다. 치우쳐서도 그릇되어서도 안 된다.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아 가는 기초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각종 궤변은 전부 종교 관념에 속하며, 편파적이고 그릇된 이해이다. 종교 인사들은 예전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끄집어내어 지금의 하나님 말씀과 맞춰 보는 것에 가장 능하다. 과거에 성령이 깨우쳐 준 것들을 고수하며 오늘날의 하나님을 섬기니, 방해하는 섬김과 낡은 실행이 되었고 완전히 종교 의식이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하고 참을성 있는 겉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의 인식을 오늘날에 적용해 실행한다면, 이런 인식은 종교 관념이며, 이런 실행은 외식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종교 관념이란 과거의 낡아 빠진 것(하나님의 과거 말씀에 대한 이해와 성령이 직접 깨우쳐 준 빛 포함)을 말하는데, 그것을 오늘날에 적용해 실행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되며,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종교 관념에 속하는 것들이 사람 내면에서 제거되지 않는다면 사람의 섬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종교 관념이 있는 사람은 성령 역사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한 걸음 뒤처지게 되면 그 후로는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된다. 그런 종교 관념이 사람을 몹시 독선적이고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자신의 과거 말씀과 사역에 미련을 두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도태시키는데, 너는 고정 관념을 내려놓지 못하겠단 말이나? 하나님의 과거 말씀을 고수한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과거의 빛을 고수하며 현재 성령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를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아직도 종교 관념을 내려놓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종교 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현재 말씀과 사역을 머리로 가늠할 필요 없이 바로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의 현재 사역이 예전과 확연히 다르다 할지라도 과거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현재 사역에 바로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예전에 어떻게 했든 현재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너는 고정 관념을 내려놓은 사람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역을 분석하거나 연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난날의 사역을 ‘잊어버린’ 것처럼 너 역시 ‘잊어버려야’ 한다. 현재는 현재이고 과거는 과거이다. 현재 하나님은 과거에 행한

사역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너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지 마라.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종교 관념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현재 사역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83)

하나님의 사역에는 항상 새로운 진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역이 생기면 그에 따라 시대에 뒤쳐진 낡은 사역이 있게 마련이다. 이 낡은 사역과 새로운 사역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며 한 단계씩 이어진다. 새로운 사역이 있으므로 낡은 것은 당연히 도태시켜야 한다. 일례로, 오랜 세월 사람의 실행과 관례적인 견해에 다년간의 경험과 교훈이 더해져 사람의 마음에는 형형색색의 관념이 생겼다. 하나님이 그의 본모습과 고유의 성품을 사람에게 전부 공개하지 않은 데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전통 학설까지 더해져 사람의 관념은 더 쉽게 형성되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각종 고정 관념의 영향으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관념적 인식이 끊임없이 형성되고 발전되었으며, 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종교 인사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 관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크게 대적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원수라고 한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새롭기에 규례를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다른 수준의 변화와 새로움을 낳는다. 이런 사역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의 발현이자 고유의 사역 원칙이고, 그의 경영을 완성하기 위한 일종의 사역 수단이다. 이렇게 사역하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될 수 없고 하나님을 알아 갈 수 없으며, 사탄은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에는 규칙이 없는 듯하나 주기적인 변화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이와 크게 다르다. 사람은 낡고 익숙한 규례와 제도를 고수할 뿐만 아니라, 낡으면 낡을수록 더 좋아한다. 아무리 두드러도 꿈적하지 않는 돌처럼 어리석은 사람의 머리로 어찌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그 많은 새 사역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사람은 모두 낡아 빠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백발이 성성한 하나님을 좋아할 뿐, 새로운 하나님은 싫어한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서로 다른 '취향'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나아가 더 많은 갈등이 지금까지 남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6 천 년 가까이 새로운 사역을 행한 오늘날, 이러한 갈등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사람이 완고하여 변하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의 행정이 사람의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종교 관료와 그 부인들은 여전히 낡아서 곰팡이가 핀 그 옛날 책과 신문들을 붙들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경영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비록 적대적인 갈등이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갈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대한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생각'을 붙잡고 놓지 못한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사람의 '입장'이 아무리 굳건해도 하나님의 '발'은 언제나 움직이며,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꾼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람은 결국 스스로 패배하는 대상이며, 하나님은

모든 패장의 가장 큰 ‘원수’이자 패배했거나 패배하지 않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승자’이다.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 점차적으로 많은 관념이 생겨났기 때문에 사람의 관념이 꼭 하나님에게서 온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며,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맞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사역 외의 산물을 무더기로 만들어 낸다고 해서 칭찬하지도 않는다. 반대로 그는 사람의 고정 관념과 낡아 빠진 경건한 신앙에 극도로 반감을 품으며 그런 고정 관념이 생긴 날을 거들떠볼 마음도 없다. 하나님은 그런 관념들이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만들어졌다고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의 관념은 사람에게서 전염된 것으로, 그 발원지는 사람의 사고와 머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사역의 원뜻은 본래 새롭고 살아 있는 것이지 낡고 죽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사람에게 지키도록 한 것은 시대별, 단계별로 나누어진 것이지 영원한 것이나 한 번 이루어지면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사람을 죽게 하고 낡게 하는 마귀가 아니라 사람을 살게 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너희는 아직도 모르겠느냐? 네가 하나님에 대한 고정 관념을 잡고 놓지 못한다면, 이는 네 머리가 트이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사역에 일리가 없거나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의 뜻과 안 맞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 네가 고정 관념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네 순종이 턱없이 부족하고, 네가 피조물로서의 면모를 조금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너를 괴롭히기 때문이 아니다. 이 모두는 네가 초래한 것으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모든 고통과 화근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그는 너에게 고정 관념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으며, 네가 시대에 따라 새로워지고 변화하길 원한다. 그러나 너는 사리 분별을 못 한 채 연구나 분석에만 매달린다. 하나님이 너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너의 패역한 마음이 너무 큰 것이다. 작디작은 일개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이 과거에 준 것들 중 극히 일부로 하나님을 공격하다니, 이것이 패역 아니겠느냐? 말하자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자격이 아예 없으며, 자신의 그 아무 가치도 없는 썩어 문드러진 말과 글을 제멋대로 뽐낼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곰팡이가 핀 고정 관념은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더 무가치하지 않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현재 사역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84)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사역의 근본 취지는 바뀌지 않지만 사역 방식은 부단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하나님을 더 전반적으로 알게 되고, 사람의 성품도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자, 진리를 모르는 그릇되고 망령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의 사역은 항상 새롭기 때문이다. 그는 옛 사역을 반복하지 않으며, 과거에 한 적 없는 사역을 행한다. 하나님이 중복 사역을 하지 않고 또 사람은 늘 하나님이 과거에 했던 사역으로 오늘날의 사역을 가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시대의 사역을 전개할 때마다 언제나 많은 난관을 겪어야 했다. 사람에게서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고,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보수적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면서 규정하기까지 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까지 잃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생명도 진리도 받아들이지 않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보다 큰 축복은 더욱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을 얻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이 바뀌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이 고정불변한 것이며, 영원히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하나님을 그저 율법 아래의 하나님,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며, 하나님은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벗어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이런 '생각'은 그들을 낳은 율법과 죽은 규례에 단단히 못 박아 놓았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느 단계의 새 사역을 하든 예언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새 사역을 할 때마다 '그를 진심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계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고 한다. 가뜰이나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운데, 그릇된 마음과 스스로를 높이는 패역한 본성까지 지녔으니 사람이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새 사역을 자세히 살피거나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며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만 기다린다.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오늘날 내가 예수의 사역이 시대에 뒤쳐졌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도 은혜시대에 여호와의 사역이 시대에 뒤쳐졌다고 했다. 율법시대만 있고 은혜시대가 없었다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전 인류를 속량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율법시대만 있었다면 인류가 오늘날까지 발전할 수 있었겠느냐? 역사(歷史)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역사(歷史)는 하나님 사역의 정상적인 법칙이 아니냐? 온 우주에서 행한 인류 경영에 대한 사실적 묘사가 아니냐?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며 발전하듯 하나님의 사역도 앞으로 나아가며 발전하고, 하나님의 뜻 역시 계속 바뀌고 있다. 하나님은 한 단계 사역을 6천 년이나 지속하지 않는다.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분이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사역을 줄곧 이어 나가며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릇된 사람의 인식이다. 하나님은 한 가지 사역을 계속 지속하지 않는다. 그의 사역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언제나 새롭다. 내가 너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말과 사역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는 사역으로, 그 핵심은 '새롭다'와 '놀랍다'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다”라는 말 또한 확실한 사실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지 사탄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사역도 그의 본질처럼 영원불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영원불변한 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항상 새로운 하나님’이라는 말은 또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변화하며, 하나님의 뜻 또한 부단히 사람에게 나타나고 공개된다. 한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면서 끊임없이 성품이 변화하고, 인식도 변화한다. 그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느냐? 부단히 변화하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사람의 성품도 변화될 수 있는데 내 사역과 내 말의 끊임없는 변화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단 말이나? 반드시 사람에게 제한받아야 한단 말이나? 그것은 억지가 아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을 ‘관념’으로 규정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85)

지난날, 유대인들은 모두 구약 성경을 보았으므로 한 남자 아기가 구유에 강생하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왜 예수를 핍박했겠느냐? 패역한 본성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무지 때문이 아니겠느냐?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행하는 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예언 속 남자 아기와 같지 않다고 여겼고, 오늘날의 사람은 성육신 하나님이 성경에 따라 사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저버린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의 본질은 다 같은 것이 아니냐? 너는 성령의 역사라면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임이 분명하다면 ‘흐름’이 옳은 것이니 고르거나 선택하지 말고 주저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네가 하나님을 상대로 식견을 넓히려 하고 여러 가지 의구심을 품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 아니겠느냐? 더 이상 성경에서 근거를 찾지 말고,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다면 바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므로 하나님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 나에 대한 더 많은 근거를 찾아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설사 성경에서 확실한 증거를 더 많이 찾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완전히 내 앞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 그런 너는 성경 속에서 사는 사람이니 내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내가 나를 알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해주지도 못한다. 성경에는 한 남자 아기가 강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했기에 그 예언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랐다. 그로 인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대적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사람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와 예수는 완전히 다르며,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당시 예수는 은혜시대에 제자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등등 은혜시대의 도만 가르쳤다. 즉, 예수는 은혜시대의 사역을 한 것이다. 예수는 당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는 은혜시대의 사역만 했을 뿐, 말세의 사역은 하지 않았다. 율법시대에 여호와와 구약 율법을 제정하고 왜 은혜시대의 사역은 하지 않았겠느냐? 어째서 은혜시대의 사역을 미리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겠느냐? 사람이 더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겠느냐? 여호와와 한 남자 아기가 강생하여 정사를 뿜 것이라는 예언만 했을 뿐, 은혜시대의 사역을 앞당겨 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이 하는 각 시대의 사역은 다 일정한 범위가 있다. 그는 해당 시대의 사역만 할 뿐, 다음 단계의 사역을 미리 하지는 않는다. 그래야만 각 시대의 대표적인 사역을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 그 당시 예수는 말세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인내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어떻게 회개하고 죄를 자백해야 하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만 말했다. 말세의 사람이 어떻게 진입하고 어떻게 추구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 네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찾는다면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네가 성경만 받쳐 든다면 무엇을 알아낼 수 있겠느냐? 그 어떤 성경 해석가나 설교자가 오늘날의 사역을 미리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을 ‘관념’으로 규정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86)

너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대적한 근본 원인을 알고 싶으냐? 바리새인의 본질을 알고 싶으냐?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만 믿었을 뿐 생명 진리는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의 도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리석고 완고하고 무지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메시아를 볼 수 있겠느냐? 그들이 예수를 대적한 이유는 성령 역사의 방향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가 말한 진리의 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더욱이 메시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메시아를 본 적도, 메시아와 함께 지낸 적도 없기에 메시아란 이름만을 헛되이 지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메시아의 본질을 대적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그 바리새인들의 본질은 완고하고, 교만하며,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그들의 원칙은 ‘당신이 전하는 도가 아무리 대단하고, 당신의 권병이 아무리 크다 해도, 메시아로 불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너무나 황당하고 엉터리 같은 관점 아니냐? 다시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는 예수를 털끝만큼도 알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도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을 너무도 쉽게 저지르지 않겠느냐? 너는 진리의 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느냐? 정말 너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을 것이라 보증할 수 있느냐? 너는 성령의 역사를 따를 줄 아느냐? 네가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적할지 않을지 모른다면, 나는 네가 이미 죽음의 벼랑 끝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예수를 대적하고, 저버리고, 비방하는

것을 저지를 수 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예수를 저버리고 모욕할 수 있으며, 심지어 예수의 재림을 사탄의 미혹으로 여길 수도 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은 육신으로 다시 돌아온 예수를 정죄할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두렵지 않느냐? 너희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한 말씀을 훼손하고, 예수가 선포한 말씀을 경멸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너희가 이처럼 미망에 빠져 있는데 예수에게서 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처럼 고집부리며 깨닫지 못하는데 어찌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육신으로 돌아오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가 '흰 뭉게구름'을 타고 강림하기만을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분명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며, 분명 멸망할 부류이다. 너희는 오로지 예수에게서 오는 은혜를 받고 천국의 복을 누릴 생각만 할 뿐, 예수가 하는 말씀을 한 번도 청종한 적이 없다. 또 예수가 육신으로 다시 돌아와 선포한 진리도 받아들이는 적이 없다. 너희는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온 이 사실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죄짓기를 반복하고 입술로 죄를 자복하는 너희의 성심이나? 너희는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온 예수께 무엇을 제물로 바치겠느냐? 너희가 자신을 높이면서 오랫동안 사역한 자산이나? 너희는 무엇으로 재림한 예수가 너희를 신임하도록 하겠느냐? 어떤 진리에도 순종하지 않는 너희의 그 교만한 본성이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네가 예수의 영체를 볼 때는 하나님이 이미 하늘과 땅을 새롭게 바꾼 후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87)

너희들의 충성은 입술에만 머물고, 너희들의 삶은 머릿속 관념에만 머물며, 너희들의 수고는 하늘나라의 복을 위한 것이다. 그럼 너희의 믿음은 또 어떠하냐? 지금까지도 너희는 이 진리들을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 또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어떻게 성령 역사에 진입하는지,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미혹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 중 한 마디라도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정죄하기만 한다. 너의 겸손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순종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충성은 또 어디에 있느냐? 진리를 찾는 너의 태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분명 멸망될 부류이며, 육신으로 돌아온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분명 지옥의 자손, 천사장의 후손, 영원히 멸망될 부류이다. 어찌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따르는, 이른바 성도라고 하는 모든 이에게 말해 주겠다. 흰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강림하는 예수를 너희 육안으로 직접 보게 될 때는 공의로운 해가 공개적으로 나타난 때이다. 그때 네 마음은 몹시 흥분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알고 있느냐? 예수가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을 보게 될 때는 네가 지옥으로 떨어져 징벌을 받아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끝났다고 선고될 때이며, 하나님이 상선벌악(賞善罰惡)할 때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이적을 보기 전 진리만 선포되었을 때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이적을 좇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여 정결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창조주의 품속에 안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흰 구름을 탄 예수가 아니라면 거짓 그리스도이다’라는 신념을 고집하는 자들은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적을 행하는 예수만을 믿고,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고 생명의 참도를 전하는 예수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가 공개적으로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올 때 그들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그들은 너무나 완고하고 너무나 교만하며 자신을 과신하는데, 그런 인간 말종들이 어찌 예수에게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의 재림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구원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정죄받는 기호가 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의 길을 택해야 한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진리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말고,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에게 충고하겠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나님을 믿는 길을 가고 함부로 단정짓지 마라. 또한 제멋대로 건성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리를 듣고 코웃음 치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고, 진리를 듣고도 멋대로 단정짓거나 정죄하는 자들은 다 교만한 자들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른 이를 저주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다. 너희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리의 도를 듣고 생명의 말씀을 본 후, 그 말씀 중에서 단 만분의 일이라도 너의 생각과 일치하고 성경과 일치한다고 여겨진다면, 너는 그 만분의 일에 해당하는 말씀에서 계속 찾고 구하여라. 나는 또 네게 자신을 과신하거나 높이 여기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을 권한다. 미약하게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의 마음에 더 큰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고 자꾸 생각해 보면, 너는 이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과연 진리가 맞는지, 생명이 맞는지 알게 될 것이다. 혹자는 몇 마디 보지도 않고 “이것은 성령의 깨우침에 불과해.”라고 하거나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는 거야.”라며 맹목적으로 정죄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 자는 그야말로 너무나 무지하다! 너는 하나님의 사역과 지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지극히 적다. 그러니 나는 너에게 다시 시작할 것을 권한다! 너희는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맹목적으로 정죄해서는 안 되고, 미혹될 것이 두려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느냐? 여러 번 살펴보고도 이런 말씀이 진리도 길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포가 아니라고 여긴다면, 너는 결국 징벌받을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진리를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였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잘 생각해 보아라! 경솔하게 굴지도, 덤땡대지도 말라. 하나님 믿는 일을 아이들 장난으로 여기지도 말라. 자신의 종착지와 앞날, 자신의 생명을 생각해야지, 스스로를 우롱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 말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88)

예수가 당시에 사역할 때, 일부 사역은 구약 성경이나 여호와와 율법시대 말씀, 모세의 율법에 근거했다. 그는 그런 것들을 통해 일부 사역을 행하였다. 당시 그는 회당에서 설교하고 가르쳤으며, 그를 적대시하는 바리새인들을 구약 선지자의 예언으로 훈계하였고, 성경 말씀으로 그들의 패역을 드러내고 그들을 정죄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가 행한 것을 혐오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예수의 수많은 사역은 성경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으며, 예수의 가르침이 그들의 말은 물론, 심지어는 성경 속 선지자의 예언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이다. 예수가 행한 사역은 단지 속량하기 위한 것,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더 많은 말씀을 하여 사람을 정복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으며, 그가 행하는 사역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도 십자가의 사역은 완성할 수 있었다. 그가 행한 사역은 말씀의 사역도, 인류를 정복하기 위한 사역도 아니라 인류를 속량하기 위한 사역이었다. 그는 그저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었을 뿐, 인류에게 말씀의 원천이 되지는 않았다. 그는 이방의 사역, 즉 사람을 정복하는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였다. 비록 그가 성경을 바탕으로 사역했으며, 옛 선지자의 예언으로 바리새인들을 정죄했을지라도, 십자가의 사역은 충분히 완성할 수 있었다. 지금도 성경 속 옛 선지자의 예언을 바탕으로 사역한다면, 너희를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구약에는 너희 중국인들의 패역과 죄업은 물론, 너희의 그 죄악의 역사(歷史)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속 성경 속에서 맴돈다면, 너희는 영원히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인들의 유한한 역사(歷史)로는 너희가 악한지 선한지를 판단하거나 너희를 심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말해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歷史)에 따라 너희를 심판한다면, 너희가 지금처럼 따를 수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가 다루기 힘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번 단계의 사역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정복 사역을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이외에 다른 말을 더 하여 너희를 정복할 것이다. 예수가 행한 사역은 성경 구약의 사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에 불과했다. 그는 그것으로 한 시대를 개척하고, 한 시대를 이끌었다. 그는 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라고 했겠느냐? 하지만 그가 행한 사역에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인들이 실행한 율법이나 그들이 지켰던 계명과 다른 것이 수없이 많았다. 그는 율법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케 하려 왔기 때문이다. 완전케 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실제적인 것들이 포함된다. 그는 규례를 고수한 것이 아니라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으로 행하고 더 융통성 있게 행하였다. 이스라엘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때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가 말했듯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왔으니 그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는 구약의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온 것이며, 율법을 바꾸기

위해 온 것이기도 했다. 오늘날의 사역은 완전히 지금 상황에 맞춰 행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여호와가 율법시대에 했던 사역을 기초로 하는 것이지, 그 범위를 초월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하고, 음란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 아니더냐? 지금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십계명에만 국한되지 않는, 예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계명과 율법이지, 그것들을 폐한 것이 아니다. 각 단계의 사역은 모두 이전 단계의 사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너희는 당시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것, 예를 들어 제사를 드리고, 부모를 공경하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남을 때리거나 욕하지 않으며, 간음하지 않고,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않으며, 죽은 것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는 것 같은 요구를 바탕으로 실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전 것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행하는 동안, 비록 이전의 율법을 언급하지 않고 너희에게 새로운 요구를 했다 할지라도, 이런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높아졌다. 폐해졌다는 것은 시대에 뒤쳐졌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부 계명은 영원히 지켜야 한다. 이전의 계명은 사람이 실천할 수 있게 되어 이미 사람의 어떠함이 되었다. 예를 들어, 금주와 금연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것을 바탕으로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과 너희의 분량, 그리고 지금 행하는 사역에 근거하여 다시 새로운 계명을 정하는 것이다. 새 시대의 계명을 반포하는 것은 옛 시대의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기초로 더 높이 끌어올려 사람으로 하여금 더 완전하고 실제적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계명과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데 국한되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하라고 한다면, 심지어 여호와가 정한 율법을 외우라고 한다면, 너희에게는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한계가 있는 몇 가지 계명을 지키거나 수많은 율법을 외운다고 해도 너희의 옛 성품은 여전히 깊이 뿌리박혀 있어 파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갈수록 타락할 수밖에 없으며, 아무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간단한 몇 가지 계명이나 수많은 율법은 너희가 여호와의 행사를 깨닫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외우기만 해도 여호와의 행사를 볼 수 있었으며, 여호와께 일편단심으로 충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너희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구약시대의 몇 가지 계명들은 너희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바치게 하거나 너희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너희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어 음부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내가 행하는 정복 사역은 오로지 너희의 패역과 옛 성품만을 겨냥한다. 그렇기에 여호와와 예수의 타이르는 말씀은 오늘날의 이 엄한 심판의 말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엄한 말씀이 없다면 수천 년 동안 거역해 온 너희, ‘전문가들’을 정복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구약의 율법은 너희에게서 효력을 잃은 지 이미 오래다. 오늘날 심판의 위력은 당시 율법의 위력을 훨씬 뛰어넘었다. 너희에게는 간단한 율법의 제약보다 심판이 가장 적합하다. 너희는 시초의 인류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패괴된 인류이기 때문이다. 지금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두 오늘날 사람의 실제 상태와 자질, 그리고 실제 분량에 근거한 것으로,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 너희의 옛 성품을 변화시키고 너희의 관념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89)

역사(歷史)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하나님의 사역도 끊임없이 발전한다. 6 천 년 경륜을 끝내려면 반드시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사역을 하고, 해마다 새로운 사역을 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길과 새로운 기원뿐만 아니라 더 새로운 사역과 더 큰 사역을 개척해야 한다. 그에 따라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사역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새로운 사역을 한다. 낡은 것을 지킨 적이 없고 규례도 지키지 않지만, 그는 사역을 중단하지 않을뿐더러 시시각각 행하고 있다. 너는 성령이 행하는 사역이 영원불변하다고 말한다. 그러면 여호와와는 왜 제사장에게 성전 안에서 그를 섬기라고 했겠느냐? 예수가 왔을 때, 사람은 그를 대제사장이라고도 하고, 다윗 집안의 사람이나 대제사장, 대군왕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예수는 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왜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느냐? 성전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모두 하나님 자신이 행하는 사역 아니더냐? 사람의 상상대로라면 예수가 다시 와야 하고 말세에도 여전히 예수라고 불러야 한다. 또한 흰 구름을 타고 예수의 형상으로 사람들 가운데 임해야 한다. 그러면 사역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겠느냐? 성령이 낡은 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모두 관념이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문자의 표면적 의미와 사람의 상상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성령 역사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리 없고 그렇게 어리석거나 멍청할 리도 없다. 그의 사역은 네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사람의 상상대로라면,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와서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며, 너희가 흰 구름을 타고 와서 자신을 예수라고 말하는 그를 보고, 그의 손에 난 못 자국까지 확인한 후에 그가 바로 예수임을 알아볼 것이다. 또 그는 다시 너희를 구원하여 능력이 매우 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에게 새 이름을 주고 흰 돌을 하나씩 준 다음 너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며, 천국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생각은 사람의 관념이 아니냐? 말해 보아라. 하나님이 사람의 관념대로 사역하겠느냐, 아니면 사람의 관념을 깨면서 사역하겠느냐? 사람의 관념은 모두 사탄에게서 온 것 아니냐? 사람은 모두 사탄에 의해 파괴된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의 관념대로 행한다면 사탄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피조물과 같은 부류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피조물은 이미 사탄에 의해 이 지경까지 파괴되어 모두 사탄의 화신이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탄의 방식에 따라 행한다면 사탄과 한패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사역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관념대로 행하지도, 너의 상상대로 행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흰 구름을 타고 오리라고 한 것은 그가 친히 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이 친히 한 말씀인 것은 맞지만, 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비밀을 완전히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너는 성령이 너에게 깨우쳐 주고 빛을 비취 준 것이라고 100% 장담할 수 있느냐? 설마 성령이 너에게 그렇게 직접 지시했다는 말이나?

성령이 지시한 것이냐, 아니면 네가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냐? 그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관념과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늠해서는 안 된다. 이사야가 한 말일지라도 네가 그 말을 모두 해석할 수 있다고 100% 장담할 수 있느냐? 네가 감히 그의 말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의 말도 감히 해석하지 못하면서 어찌 감히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느냐? 예수가 높으냐, 아니면 이사야가 높으냐? 예수가 높다면, 왜 그가 한 그 말씀들을 모두 해석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사역을 너에게 미리 알려 줄 리 있겠느냐? 피조물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하늘의 사자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는데, 네가 알 수 있겠느냐?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다. 지금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3 단계 사역을 아는 것이다. 여호와부터 예수까지, 그리고 예수부터 이 단계의 사역까지 세 단계 사역이 이어져 오면서 하나의 완전한 경영이 되었는데, 이는 모두 한 분의 영이 행한 사역이다. 창세 이래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역하면서 인류를 경영하고 있다. 그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며, 시대를 펼치는 분이자 시대를 끝내는 분이다. 3 단계 사역은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한 분의 영이 행한 것임에 틀림없다. 3 단계 사역을 따로 갈라놓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지금 너는 첫 단계부터 지금까지 행한 사역이 의심할 바 없이 한 분의 하나님이 행한 것이고, 한 분의 영이 행한 사역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역 이상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90)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이상, 단계마다 하나님의 발걸음을 바짝 따라야 하고, ‘어린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참도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다. 글귀나 이치만을 고집스레 지키는 자는 모두 성령 역사에 의해 도태될 자이다. 하나님이 시기마다 새 사역을 전개하므로 사람에게는 시기마다 새로운 시작이 생기는 것이다. 사람은 단지 ‘여호와 하나님이다’ 혹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어느 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진리들을 지킨다면, 영원히 성령 역사를 따라갈 수도, 얻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든 아무 의심도 없이 바짝 따라간다면, 사람이 어찌 성령에 의해 도태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든 성령 역사임을 확신하고, 아무 걱정 없이 성령 역사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요구대로 한다면, 사람이 어찌 징벌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으며 그의 발걸음도 멈춘 적이 없다. 하나님은 경영 사역을 완성하기 전에는 늘 바쁘게 보내며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성령 역사를 조금 얻으면 영구불변한 것으로 삼고, 인식이 조금 생기면 하나님의 더 새로운 사역을 ‘쫓아’ 앞으로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역을 조금 보면 하나님을 특정한 조각상으로 규정하기 바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자신이 본 그 형상대로일 것이고, 예전에 어땠으면 이후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라고 여긴다. 알팍한 인식이 조금 생기면 우쭐거리면서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함을

제멋대로 퍼뜨리기 시작한다. 한 단계 성령의 역사를 확신하고 나면 누군가 하나님의 새 사역을 아무리 전해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성령의 새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고, 지나치게 옛것을 고수하며 새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다. 또한 이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이다.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만 믿고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여기지만, 또 절대다수의 사람이 ‘여호와만 믿으면서 예수를 저버리는’ 역할과 ‘메시야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예수라 칭하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 사람이 모두 한 단계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였음에도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는 모두 사람의 패역이 초래한 것 아니냐? 오늘날의 새 사역에 뒤쳐진 세계 각지의 기독교인들은 모두 요행을 바라며 하나님이 그들 각자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셋째 하늘로 올려 주어야 하는지, 예수가 어떻게 흰 구름을 타고 와서 그들을 맞아 줄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확신이 없다. 더욱이 예수가 정말 흰 구름을 타고 그들이 상상하는 그날에 올 것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확신도 없다. 그들은 저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하나님이 과연 다양한 교파에 속한 하나하나의 ‘작은 무리’를 끌어 올려 줄지 그들 자신조차 분명히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말하지도 못하면서 하루하루 손꼽으며 세월을 보내고 있다. 어린양의 발걸음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만이 최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으면서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얻었다고 여기는 그 ‘똑똑한 자’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나타남을 볼 수 없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계속 발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아무런 까닭 없이 중단시킨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 즉 ‘하나님께 일편단심으로 충성하면서 그를 따르고 그의 말씀을 지킨 자’들을 끌어 올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편단심으로 충성’할지라도 그들의 언행은 여전히 너무도 역겹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역사에 대적하고, 간계를 부리며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길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성령 역사도 뒤따라가지 못하면서 옛 사역만 고수하는 자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새 시대에 버림받으며, 징벌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가장 가련한 자들 아니겠느냐? 또 많은 사람은 낡은 율법을 버리고 새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양심’만 따질 뿐 성령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앞날을 망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도 사역할 때는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자신이 행한 사역일지라도 미련을 두지 않으며, 부인할 것은 부인하고 도태시킬 것은 도태시킨다. 그런데 사람이 오히려 경영 사역의 일부를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적대시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그릇됨 아니겠느냐? 사람의 무지함 아니겠느냐? 복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없고, 마지막 복도 받을 수 없다. 율법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자들은 모두 율법에 절대적으로 충성한다. 그들은 그렇게 율법에

충성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자가 된다. 지금은 율법시대가 아니라 하나님나라시대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역을 과거의 사역과 함께 논해서는 안 되고, 과거의 사역을 오늘날의 사역과 비교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사역이 바뀌었고 사람의 실행 또한 바뀌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십자가에 대한 사람의 충성심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실행>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91)

오늘날 너를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며, 나아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자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인 동시에 애굽 사람의 하나님이고, 영국 사람의 하나님인 동시에 미국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는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의 하나님이며, 하늘에 있는 만물의 하나님인 동시에 땅에 있는 만물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든, 이방의 모든 족속이든 모두 한 분의 하나님 손에 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수천 년 동안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일찍이 유대 땅에 태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또 큰 붉은 용이 꼬리를 들고 있는 중국 땅에 강림했다. 그가 유대에서 태어났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지금은 너희 가운데 강림했으니 너희의 하나님 아니겠느냐? 그는 이스라엘 사람을 인도했었고, 유대 땅에 태어났었으며, 다시 또 이방에 태어났지만, 그가 행한 모든 사역은 그가 만든 인류 전체를 위한 것 아니겠느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은 백배로 좋아하고 이방인은 천배로 미워하겠느냐? 이것은 모두 너희의 고정 관념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피조물 중에 누가 전능자의 손에 있지 않더냐? 오늘날 너희를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의 다윗 집안만이 하나님의 출생지가 될 수 있다고,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어느 민족도 하나님을 ‘탄생시킬’ 자격이 없으며, 더욱이 어떤 이방 민족도 여호와의 사역을 직접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완고한 자가 된 것 아니겠느냐? 계속 이스라엘만 주시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바로 너희 가운데 있으니 계속 하늘만 쳐다보지도 말고, 더 이상 하늘에 있는 너의 하나님을 그리워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왔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을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은 시간은 길지 않지만, 너의 관념은 적지 않다. 그리하여 너는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왕립’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더욱이 이렇게 더럽기 그지없는 너희가 친히 나타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생각지 못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이방에 친히 강림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는

시내산이나 감람산에 강림하여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고, 이방인(이스라엘 외의 사람)은 모두 그가 미워하는 대상이므로 친히 그들에게 사역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은 오래전부터 너희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던 관념이다. 오늘날 너희를 정복하는 것은 너희의 이런 관념을 깨뜨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친히 나타난 것을 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시내산도 아니고 감람산도 아닌, 과거에 인도한 적 없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두 단계 사역을 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과 모든 이방인에게는 이런 관념이 생겼다. 즉,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할 뿐,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은 너희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즉 우리의 하나님은 너희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의 모습을 지니고 유대인의 특징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사역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형상과 비슷하며, 우리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다.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이방인은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의 속죄 제물이다.'라고 생각한다. 그저 두 단계 사역을 했을 뿐인데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 족속에게는 이처럼 많은 관념이 생겼다. 그들은 하나님을 독점하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방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백지상태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고, 그의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들, 특히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만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수와 여호와가 행한 사역이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한 것임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지금 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너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오늘날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더냐? 설마 이것이 꿈이란 말이나? 너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이 바로 너희 가운데 있지 않더냐? 너희는 아직도 이 말을 믿지 못하겠느냐? 이제부터 정복된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선민 아니겠느냐? 지금 따르고 있는 너희가 바로 이스라엘 이외의 선민 아니겠느냐? 너희의 신분도 이스라엘 사람의 신분과 같아지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너희를 정복하는 것도 이러한 목적을 위한 사역 아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가 모두 그를 따르고 그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그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정복 사역의 실상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92)

새로운 얇은 낱은 관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생기지만, 낱은 얇이 꼭 낱은 관념인 것은 아니다. 관념이란 사람이 혼자 상상하는,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말한다. 낱은 얇이 옛 시대에서도 이미 되쳐진 데다 사람이 새로운 사역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그런 얇은 관념이다. 그러나 사람이 그런 얇을 정확하게 대할 수 있고, 다양한 면에서 하나님을 알아 가 새것과 옛것을 결합할 수 있다면, 그 낱은 얇은 오히려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새 시대로 들어가는 밑바탕이 된다. 하나님을 알아 가는 이 공과에서 너는 수많은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아 가는 길에 들어설 수 있을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 할지, 어떻게 관념과 옛 성품을 벗어 버리고 새 사역의 모든 안배에 순종해야 할지,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다시 하나님을 알아 가는 이 공과에 진입한다면, 너의 얇은 갈수록 깊어질 것이다. 네가 3 단계 사역, 그러니까 전체 경륜의 사역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앞 두 단계의 사역을 현재에 연결 지어 한 분의 하나님이 행한 사역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너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될 것이다. 3 단계 사역은 하나님 한 분이 행한 것으로, 최대의 이상이자 하나님을 알아 가는 유일한 길이다. 3 단계 사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오로지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3 단계 사역은 시대도, 장소도 다르고, 행한 사역도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 한 분이 행한 사역이다. 이는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이상 가운데 가장 큰 이상이다. 사람이 이것을 철저히 깨닫는다면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각 종교 각 교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며, 어떤 것이 성령 역사고 어떤 것이 성령 역사가 아닌지 분별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이번 단계의 사역이 앞 두 단계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한 것인지 더더욱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따르면서도 이 길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사람은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는 길인지, 말씀이 육신 된 것이 사실인지 걱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실들을 분별하기 위한 실마리가 별로 없다. 따르는 사람이 도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면 그 도는 그런 사람에게 일부 효과만 낼 뿐, 100%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의 생명 진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람이 3 단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세 단계의 사역을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했음을 깨닫는다면 사역의 내용은 서로 다를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하나님 한 분이 행한 사역인 이상, 분명 어떤 오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이 한 일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이 행한 사역임을 확신한다면, 사람의 관념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사소한 것이 된다. 이상에 대해 불분명하기 때문에, 즉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주라는 것만 알 뿐, 오늘날의 성육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에, 많은 사람이 여호와의 사역과 예수의 사역에 미련을 둔 채 오늘날의 사역에 대해 수많은 관념을 갖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늘 마음을 놓지 못하고 오늘날의 사역을 진지하게 대하지 못한다. 사람은 볼 수 없는 앞 두 단계 사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념도 없다. 그것은 사람이 앞 두 단계 사역의 실정을 전혀 모르고, 또

직접 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볼 수 없기에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이다. 사람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상상하든 입증할 수 있는 사실도, 바로잡아 줄 이도 없었다. 사람이 자신의 성향대로 대담하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지라도 입증할 사실이 없었기에 그 상상은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실’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머릿속으로 자신이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을 뿐, 실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신앙을 갖고 있다면 백 사람이면 백 가지 신앙을 갖고 있다. 사람에게 이런 신앙이 생겨난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역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단지 귀로만 들었을 뿐 눈으로 보지는 못했기 때문이며, 전설과 이야기로만 들었지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에 대한 인식은 거의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1년 믿은 사람은 물론, 하나님을 한평생 믿은 사람 역시 관념 속에서 믿고 있는 것이다. 사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관념적 신앙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사람은 모두 자신은 이미 낡은 관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지에 들어갔다고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모두 관념이자 떠도는 소문이라는 것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사람은 모두 자신의 관념이 정확하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여겼지만, 오늘날 이 사역을 마주하면서 오랫동안 지녀 온 관념을 분출하게 되었다. 지난날의 상상과 생각이 이번 사역의 장애물이 되었건만 사람은 모두 이 관념들을 내려놓기 어려워하고, 이전의 생각들을 뒤엎기도 힘들어한다. 오늘날까지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은 한 걸음씩 진행되는 이 사역에 대해 관념이 점점 심해져 성육신 하나님과 풀기 어려운 원한을 맺게 되었다. 그 원한의 근원이 바로 사람의 관념과 상상이다. ‘사실’은 사람이 멋대로 펼치는 상상을 용납하지 않으며 사람이 제멋대로 뒤집으려는 것은 더더욱 용납하지 않는다. 반면 사람은 관념과 상상 때문에 존재하는 사실을 용납하지 않으며, 사실의 정확성과 진실성은 무시한 채 한결같이 자신의 관념만 분출하고 상상의 나래만 펼친다. 이렇게 사람의 관념과 상상은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오늘날의 모든 사역과 원수가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한 단계는 고사하고 조금도 뒤엎을 수 없다.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은 사람의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는다. 너는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고, 심지어 여호와와 예수 사역의 정수를 모아 편찬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와 예수가 행한 사역의 사실들을 뒤엎지는 못한다. 이것은 원칙이자 행정이다. 너희는 모두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은 이번 단계 사역은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지만 앞 두 단계의 사역은 잘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앞 두 단계의 사역은 절대 지금처럼 이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역 원칙은 모두 똑같고, 그의 사역은 어쨌든 다 실제적이며, 어느 시대의 사역에서든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무리가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느냐? 오늘날 이 단계 사역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는 분명 이전에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3단계 사역을 하나님 한 분이 행한 사역으로 여기고, 또 자신의 관념을 버릴 수 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진실로 따르는 사람이다. 전체 경영이 끝날 때 하나님은 만물을 각기 부류대로 나눌 것이다. 사람은 창조주의 손에서 창조되었으므로 마지막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3 단계 사역의 종결이다. 이스라엘과 유대에서 행한 앞 두 단계의 사역과 말세의 사역은 곧 전 우주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이므로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이다. 사람은 많은 사역을 체험하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사실은 사실이니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전 우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 3 단계 사역을 받아들일 것이다. 네가 어느 한 단계 사역만 알 뿐, 나머지 두 단계 사역과 과거의 하나님 사역을 알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전체 경륜의 모든 실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알 뿐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자격이 없다. 지금 이러한 것에 대해 깊게 알든 얕게 알든, 결국 마지막에는 너희가 모두 깨닫고 철저히 인정할 것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전체 사역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면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고,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의 권세 아래로 돌아와 이 참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며, 모든 사교가 사라져 더는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3 단계 사역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93)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어떤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악해야 할 것들이다. 현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사람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한 행사, 하나님의 모든 사역,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이는 전체 종교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다. 언젠가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행한 모든 행사를 보고, 하나님의 어떠함과 소유를 알며, 또한 그의 풍성함, 지혜, 기묘함 그리고 사람에게 행한 모든 사역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 있다. 흔히 하나님은 만유를 포함하고 매우 풍성하다고 말한다. 만유를 포함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나? 풍성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나? 네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다. 왜 종교계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 마귀의 부류라고 하겠느냐? 그들이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은 다 눈먼 자들이라 하나님의 행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려진 자들이라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며, 성령의 역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사람은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는 사역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설 수도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사람의 패괴 성품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 원칙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歷史)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초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 온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외에 사람의 패괴 성품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는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이 정해 준 율례를 준수하는지에 따라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했다. 예를 들면, 율법시대에는 여호와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간주되었다. 여호와와 제물을 흠쳐 먹는 자, 여호와가 중히 여기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돌에 맞아 죽을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사람을 때리거나 욕하는 자는 모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해당되었고, 여호와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로 간주되었다. 은혜시대에 이르러서는 달라졌다. 예수를 대적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었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더욱 정확하고 실제적이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앙망하는지에 따라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였다.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실제적이지 않았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역하는지, 어떻게 말씀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전무했고,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해서 믿든 하나님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으며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사역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육신을 통해 행하는 행사를 보게 되었다. 그때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관념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러나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진심으로 순종한 경우에는 정죄받지 않았고, 반대로 의도적으로 대적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이다.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있음에도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셈과 행실에 근거하여 정죄한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정죄한다면 아무도 노한 하나님의 두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은 모두 그들의 불복으로 인해 징벌을 받는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허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정죄받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 해 동안 체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고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며, 아무리 오랫동안 체험해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관념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설사 방해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 해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아주 많으며, 비록 그러한 관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지도,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지도 못하므로 하나님의 사역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얼간이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조금도 내려놓지 못하므로 정죄받는다.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을 갓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해 관념을 가지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나,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믿고 수많은 사역을 체험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가진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 비정상적인 것이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므로 정죄받게 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람은 모두 쓸모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심하게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누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도태될 사람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94)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만족케 하기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대예배당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성경을 외우지만,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를 깨닫거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그들은 모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인배이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내세우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하에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악마이며,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마왕이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걸림돌이다. 그들이 비록 ‘건장하고 튼튼할’지라도,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사람을 이끌어 가는 적그리스도임을 알겠느냐? 어찌 그들이 전문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산 귀신임을 알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가장 비천한 자이며,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는 자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역을 안다고 여기고, 또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멋대로 전하는 자는 가장 무지한 사람이다.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의 증거가 없는 사람이며,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체험이 확실히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증거가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위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성육신 하나님에 대해 관념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증거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충고하겠다. 너희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이 정말 있다면 계속해서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면 일찌감치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아주 위험할 것이다. 너희의 본성이 너무도 패괴되었기 때문이다. 너희에게서는 충성심과 순종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공의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너희는 엉망진창인 상태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며,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능마저 발휘하지 못하며, 마땅히 갖추어야 할 충성심과 양심, 순종, 의지도 없고, 겪어야 할 고난을 회피하고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다. 좋은 점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으면서 너희가 무슨 낮썽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나?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차라리 빨리 눈을 감으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더 이상 심려하지 않고 고난받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삶에 분투 목표도 없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간다. 사람임에도 일말의 양심도, 인격도, 신용도 없다. 이런데도 너희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돈을 욕심내며, 하나님의 제물을 먹는 것도 모자라 결국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 없이 대하고 일말의 양심도 없이 대하며, 하나님의 작은 요구조차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런데도 너희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밥을 먹고, 하나님의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는 쓸모없는 열간이로 전락했다. 이것이 개보다도 못한 짐승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나? 동물 중에 너희보다 더 악독한 존재가 어디 있단 말이나?

높은 강단에 서서 사람을 가르치는 목사나 장로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며, 사탄의 동맹이다. 그러나 높은 강단에 서지 않고도 사람을 가르치는 너희는 하나님을 더 대적하지 않느냐? 더더욱 사탄과 결탁한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를 아는 사람도 설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지 모른단 말이나? 하나님의 사역은 틀릴 리 없다. 다만 사람의 추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말종들은 목사나 장로보다 더 음흉하고 악랄한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는 천태만상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각양각색이며,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다양하고 각양각색이다.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든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족케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다 탕감해 준다. 사람이 진리를 구하고 실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저지른 모든 일을 마음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실천함으로 인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기 전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든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한 후에는 사람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사서(史書)'에 기록된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하나님의 지존 무상함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진정으로 알고, 옛 성품에 변화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 성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다시 말해, 누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적이 있지만, 네가 성육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며, 네가 행해야 할 진리를 실천하고, 너의 본분을 이행하며, 네가 지켜야 할 규정을 지킨다면, 너는 패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족케 하려는 사람이자,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될 사람이다. 반대로 네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뉘우치는 마음이 없이 패역 행위를 계속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협력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너와 같이 고집불통인 사람은 확실히 징벌받을 대상이지 온전케 될 대상은 절대 아니다. 그러면 너는 오늘도, 내일도, 모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남게 될 것이다. 네가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원수로 남는다면 하나님이 과연 너 같은 사람을 용서하겠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본성을 바꾸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결'을 찾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너는 일찌감치 떠나는 편이 낫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도록, 또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야만적인 행동을 하여 하나님께 육신이 제거되지 않도록 말이다. 너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결국에 화를 입게 된다면 얼마나 헛된 일이겠느냐!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따로 계획을 세울 것을 권하겠다. 뭘 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꼭 이 길을 가야만 하겠느냐? 진리를 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지 않더냐? 굳이 이렇게 하나님과 맞설 이유가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95)

나는 인간 세상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면서 그동안 많은 말을 했다.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말이자 사람으로 하여금 내 마음에 합하게 하기 위한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땅에서 내 마음에 합하는 사람을 많이 얻지는 못했다. 그렇기에 나는 사람들이 내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모두 내 마음에 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내가 사역을 하는 이유는 사람이 나를 경배하도록 하는 데 있고, 더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하도록 하는 데 있다. 패괴된 사람은 모두 사탄의 울무에서 살아가고, 자신의 욕, 그리고 사욕으로 살아가며, 내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내 마음에 합했다고 자칭하는 자들은 모두 막연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거룩하다 칭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도는 나와 상반된다. 그들의 말에는 교만함과 자신감이 가득 배어 있다. 그들은 본래 나를 적대시하는 자들이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날마다 성경에서 나의 종적을 찾으며, 내키는 대로 ‘적합한’ 구절을 찾아 하염없이 읊조리는가 하면, ‘경전’으로 삼아 외우기까지 한다. 그들은 내 마음에 합하는 방법을 모르고, 무엇이 나와 적대되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저 ‘성경’만 읽을 뿐이다. 그들은 아예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막연한 하나님을 성경에 국한시키고, 여유가 생길 때면 꺼내어 보곤 한다. 그들은 성경의 범위 안에서 내 존재를 믿는다. 그들은 ‘성경’이 없으면 ‘나’도 없고 ‘내’가 없으면 ‘성경’도 없다며 ‘나’와 ‘성경’을 동일시한다. 그들은 내 존재와 내 행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은 매우 각별하다. 심지어 적지 않은 이들이 성경의 예언이 없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글귀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성경 장절로 내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가늠하고, 나를 정죄하기까지 한다. 그들이 찾는 것은 성경 글귀에 부합하는 길이지, 내 마음에 합하는 길이나 진리와 합하는 길이 아니다.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은 다 나의 사역이 아니라 여기니, 이런 자들은 바리새인의 충실한 자손들 아니겠느냐?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를 정죄하였다. 그들은 당시 예수의 마음에 어떻게 합할 것인지는 찾지도 않으면서 율법 구절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대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에게 구약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과 메시야가 아니라는 죄명을 씌워 죄 없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다. 그들의 본질은 무엇이겠느냐? 진리와 합하는 길을 찾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 그들은 성경의 글귀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내 뜻과 내 사역의 절차와 방식에는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글귀를 고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성경을 지키는 종들이었다.

그들은 성경의 이익과 존엄성, 그리고 성경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인자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단지 성경을 옹호하고, 또 성경의 글귀가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까닭에 자신의 앞날을 망칠지라도, 속죄 제물을 얻을 수 없을지라도, 성경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그런 그들을 성경 글귀의 앞잡이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오늘날의 사람은 어떠하냐? 사람은 천국에 가거나 은혜를 받기 위해, 이 땅에 와서 진리를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인간 세상 밖으로 내몰려 하였다. 또한 성경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진리의 도래를 완전히 말살하려 하였으며, 성경이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 두 번째 육신으로 돌아온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으려고 하였다.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악독하고, 그 본성이 나를 이토록 적대시하는데 어찌 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사람은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아도 나의 존재를 모르고, 나의 빛을 밝게 비추어 주어도 여전히 나의 존재에 대해 모른다. 나의 진노가 사람에게 닥칠 때면 나의 존재를 더욱 부인한다. 사람은 저마다 글귀와 어우러지고 성경과 합하기를 구하지만, 어느 누구도 내 앞에 와서 진리와 합하는 길을 찾지는 않는다. 사람은 모두 천상에 있는 나를 앙망하고, 천상에 있는 내 존재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지만, 육신으로 살아가는 나는 개의치 않는다.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내가 너무도 보잘것없기 때문이다. 내 눈에는 오직 성경 글귀에 합하기만을 구하고, 막연한 하나님과 합하기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비천해 보인다. 그들이 숭배하는 대상은 죽은 글귀와 자신들에게 해아릴 수 없는 재물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지배를 받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사람의 비천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나를 적대시하는 자들, 나에게 끝없이 요구하는 자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나를 거역하는 자들이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할 수 있겠느냐?

나를 적대시하는 자는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자 또한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를 거역하는 자는 더더욱 나를 적대시하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악한 자의 손에 넘겨 악한 자에 의해 파괴되게 하고, 그들의 악행이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악한 자에게 넘겨주어 집어삼키게 할 것이다. 나는 나를 경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나는 내 마음에 합하는 사람의 숫자에만 관심이 있지, 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에는 무관심하다는 의미이다.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를 배반한 악인이자 원수로, 굳이 그 원수를 내 집에서 ‘떠받들’ 리가 없다. 내 마음에 합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내 집에서 나를 섬기겠지만, 나를 적대시하는 자들은 나의 징벌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의 글귀에만 신경 쓸 뿐, 진리와 내 발걸음을 찾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은 모두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나를 성경에 국한시키고, 성경 안의 존재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에 대한 크나큰 모독인데 그들이 어찌 내 앞에 올 수 있겠느냐? 그들이 중시하는 것은

나의 행사와 나의 뜻, 진리가 아니라 글귀, 그것도 사람을 죽이는 글귀이다. 이런 자들이
어찌 내 마음에 합할 수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너는 마땅히 그리스도와 합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96)

예수가 성육신한 사실이 있는 뒤부터 사람은 하늘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이 있고
심지어는 영까지 있다고 여겼다. 사람은 전통적인 관념으로 하늘에는 이런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있다고 여겼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한 분의 하나님에게는 세 부분이 있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전통적인 관념에 심각하게 사로잡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는 세
부분이다. 오직 이 세 부분이 합쳐져야만 하나님의 전부가 된다고 한다. 성부가 없으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고, 성자 또는 성령이 없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관념적으로 성부나 성자는 단독으로 하나님이라고 일컬을 수 없고, 오직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합쳐져야만 하나님 자신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고 여긴다. 지금까지도
모든 종교 신자, 나아가 너희 가운데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는 아무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
자신의 일에 대해 언제나 흐릿하기 때문이다. 관념적인 인식일지라도 너희는 그것의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종교적 관념에 심하게 물들었고, 종교적 전통 관념을 너무
깊이 받아들여 매우 심각하게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이 일에서도 전해
내려온 독소에 중독되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 사람의
전통 관념이자 그릇된 인식 방법이다. 수많은 세기(世紀)를 거쳐 오면서 사람은 모두
머릿속 관념으로 상상해 내고 또 사람 스스로 만들어 낸,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성경 해석가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참뜻’을
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해석한 자들도 서로 위격이 다른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애매모호해하며, 분명하게 해석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구조’에
대해서 어리둥절해한다.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했다. 대부분 이치나
문자적으로는 통할 수 있었지만, 그 내포된 뜻을 완전히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본 적이 없으며, 운 좋게 하나님의
처소를 유람하면서 하나님의 침상에 도대체 어떤 물건이 있고, ‘하나님의 집’에는 도대체
몇만 세대 또는 몇억 세대가 있는지, 하나님의 고유한 구조는 도대체 몇 부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한 사람 또한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조사할 내용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부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고, 성자의 나이와 성령의 나이는 또 얼마나 되었는지,
그들은 각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분리되고 또 어떻게 일체가 되는지

등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누구도 이런 일들을 조사해 내지 못했기에 사람은 모두 ‘추측’만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열성적이고 경건한 모든 종교 신자에게 사실의 진상을 보고하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유람한 다음 전 인류에게 ‘조사 보고’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에게 이런 관념이 있다고 해서 사람만 탓할 수는 없다. 성부인 여호와 자신이 인류를 창조할 때 성자 예수를 곁에 두지 않은 탓 아니겠느냐? 그들이 당시에 다 여호와라고 불렀다면 좋았을 것이다. 탓하려면 세상을 창조할 때 한순간의 실수로 성자와 성령을 곁에 불러 놓지 않고 혼자 사역한 여호와 하나님을 탓해야겠구나. 그들이 동시에 사역했다면 하나가 되지 않았겠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와 이름만 있고 은혜시대에 예수의 이름이 없었거나 여전히 여호와로 불렀다면, 하나님이 인류에 의해 분리되는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느냐? 물론, 이 모든 것에 있어 여호와만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탓하려면 수천 년 동안 줄곧 이렇게 역사하면서 여호와라 불리기도 하고 예수라 불리기도 하며 또 무슨 성령이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여 도대체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게 한 성령을 탓해야 할 것이다. 성령 자신이 형체도 모양도 없이 역사하고, 더욱이 예수 같은 이름도 없으며, 사람이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이 그저 천둥 치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면, 이런 사역이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되었을 텐데 말이다. 그렇지 않느냐? 이제 어떻게 해야겠느냐? 사람의 관념은 썩어서 산이 되고 또 모여서 바다가 되어 오늘날의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전에 여호와와 예수, 그리고 그들 사이의 성령, 이 세 분에 대해 사람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는데, 오늘날 ‘전능자’ 한 분이 더 추가되고 그 역시 ‘하나님의 일부분’이라고 하니 그가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어느 위격에 해당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분인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해석하는 데만 평생을 들여도 모자랄 판인데, 오늘날 한 분이 더 추가되어 ‘사위일체 하나님’이 되었으니 이를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네가 해석할 수 있겠느냐? 형제자매들아! 너희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오늘날까지 믿어 왔느냐? 나는 정말 너희에게 탄복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만 해도 너희가 감당하기 버거울 텐데, 오늘날의 사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견실하게 믿을 수 있다니 말이다. 너희에게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가지도 않다니 참으로 놀랍구나! 너희는 정말 대단하구나! 사람 혼자서 ‘네 분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개의치 않아 하다니 너희는 이것이 이적이라고 생각지 않느냐? 너희가 이렇게 큰 이적을 나타낼 줄은 정말 몰랐구나! 너희에게 알려 주겠는데, 사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주 위아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아버지도 아들도 없고, 더욱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용하는 도구가 성령이라는 이런 학설도 없다. 이것은 모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그릇된 논리이다! 하지만 이 그릇된 논리 또한 ‘근원’이 있고 근거가 아예 없지는 않다. 너희 인간들의 머리는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너희의 구상 역시 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합당하고 교묘하여, 심지어는 그 어떤 사탄도 깨부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지 아쉬운 것은 그것이 전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그릇된

논리라는 것이다! 너희는 사실의 진면목을 전혀 보지 못한 채 그저 추리와 상상만 하고 있다. 그러고는 일련의 이야기를 지어내어 사람들의 신뢰를 편취하고, 누구보다 어리석고 생각이 없으며 이성도 없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루어 그들이 너희의 위대하고 저명한 ‘전문가 학설’을 믿게 만들었다. 그것이 진리이냐? 그것이 사람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생명의 도이냐? 모두 허튼소리이다! 합당한 말이 하나도 없다! 오랜 세월 동안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어 왔다. 심지어 너희는 한 세대 한 세대 지나며 더 세밀하게 나누다가 공개적으로 한 분의 하나님을 세 분으로 나누기에 이르렀다. 이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다시 합칠 수가 없게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너무 세밀하게 나누었기 때문이다! 내가 일찌감치 이 사역을 행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언제까지 미쳐 날뛰었을지 모른다! 이렇게 나누어 가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너희의 하나님일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너희가 뿌리를 찾아 돌아올 수 있겠느냐? 내가 한발 늦게 왔더라면, 너희는 예수와 여호와, 이 ‘두 부자(父子)’를 이스라엘로 쫓아내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일부라고 일컬었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지금은 말세다. 겨우 오늘날까지 기다려 내가 친히 이 단계 사역을 행하고 나서야 ‘하나님 자신’을 나누는 너희의 사역을 제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나눌수록 더 심해졌을 것이고, 심지어는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사탄을 너희의 상 위에 놓고 섬겼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 너희의 수법, 즉 ‘하나님’을 나누는 수법이다! 너희는 아직도 나누고 있느냐? 너희에게 묻겠다. 하나님은 도대체 몇 분이냐? 어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느냐? 너희가 온종일 기도하는 분은 첫째 하나님이냐, 둘째 하나님이냐, 아니면 셋째 하나님이냐? 너희가 온종일 믿고 있는 분은 도대체 어느 하나님이냐? 아버지이냐, 아니면 아들이냐? 아니면 영이냐? 말해 보아라. 너는 도대체 누구를 믿느냐? 그러면서도 말끝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구나. 사실 너희가 믿는 것은 모두 너희의 ‘머리’이다! 너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예 없다. 너희 머릿속에 있는 것은 수많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말해 보아라. 그렇지 않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97)

삼위일체설에 따라 세 단계 사역을 따져 보면, 세 분의 하나님이 행한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세 분인 것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너는 도대체 무엇이 삼위일체인지 설명할 수 있겠느냐? 성부는 무엇이냐? 성자는 무엇이냐? 성령은 무엇이냐? 성부가 바로 여호와이냐? 성자가 바로 예수이냐? 성령은 또 무엇이냐? 아버지는 영 아니더냐? 아들의 본질 또한 영 아니더냐? 예수가 행한 사역은 성령이 행한 것 아니더냐? 당시 여호와가 행한 사역 또한 예수의 영과 같은 한 분의 영이 행한 것 아니더냐? 하나님께는 영이 몇이나 존재할 수 있겠느냐? 너의 주장대로 성부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라면, 영이 세 분인 것이고, 영이 세 분이면 하나님도 세 분이 된다. 그렇게 되면 유일한 참하나님이 아닌데, 그러한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고유한 본질이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에게 어떻게 아들이 있고 또 아버지가 있겠느냐? 이것은 모두 너의 고정 관념 아니겠느냐? 성경에 ‘성령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하나님의 위격 또한 오직 하나이며, 하나님의 영은 오직 하나이다. 네가 말한 성부, 성자가 존재하는지와는 관계없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고 너희가 생각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본질 또한 모두 성령의 본질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영이 하나뿐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는 성육신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고, 만유를 초월할 수도 있다. 그의 영은 만유를 포함하는 영이기도 하고, 무소부재 하는 영이기도 하다. 그는 육신에 거할 수도 있고 동시에 전 우주의 위아래에 있을 수도 있다.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유일한 참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상,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니 그 누구도 제멋대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영이 오직 하나이며 위격도 하나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네 말대로 성부와 성자, 성령이 있다면 하나님도 세 분 아니겠느냐? 성령은 성령대로 다르고, 성자는 성자대로 다르며, 성부 또한 성부대로 다르다면, 그들의 위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본질도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한 하나님의 각 부분이 되겠느냐? 성령은 영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성부는 더욱 영이다. 그는 인간 세상에 내려온 적도, 성육신한 적도 없으며 바로 사람 마음속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또한 필연적으로 영이다. 그렇다면 그 영은 성령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겠느냐? 아니면 아버지의 영과 성령의 관계겠느냐? 그들 두 영의 본질은 같겠느냐? 아니면 아버지가 성령을 도구로 삼았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성자와 성령은 또 무슨 관계겠느냐? 영과 영의 관계겠느냐, 아니면 사람과 영의 관계겠느냐? 이것은 모두 설명할 방법이 없는 일들이다! 그들의 영이 하나라면 세 위격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소유한 영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위격이 다르다면 강한 영도, 약한 영도 있을 수 있으며, 절대 영이 하나일 수 없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설은 가장 그릇된 말이다! 이런 말은 바로 하나님을 나눈 것이다. 세 조각으로 나뉜 하나님은 각각의 지위와 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영이 하나이고 하나님이 한 분일 수 있겠느냐? 네가 말해 보아라.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는 성부이냐, 성자이냐, 아니면 성령이냐? 어떤 사람은 그들이 함께 창조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인류를 속량한 것은 성령이냐, 성자이냐, 아니면 성부이냐? 어떤 사람은 성자가 인류를 속량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성자의 본질은 또 누구이냐?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 아니더냐? 육신이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창조된 사람의 입장에 서서 말한 것이다. 너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모르느냐? 그의 내면은 성령이다. 네가 어떻게 말하든 그는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과 한 분이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이기 때문이다. 성자라는 말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한 분의 영이 행한 사역이고, 하나님 자신이 행한 사역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행한 사역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이냐? 바로 성령 아니더냐? 예수에게 역사한 분은 성령 아니더냐? 성령(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면 그가 행한 사역이 하나님 자신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지난날, 예수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단지 창조된 사람의 입장에 서서 부른 것이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영이 평범하고 정상적인 육신을 입었고, 피조물의 외형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내면은 하나님의 영일지라도 그의 겉모습은 여전히 정상적인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 예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말하는 ‘인자’가 된 것이다. 인자라고 한 이상,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킨다(남자든 여자든, 결국엔 다 사람의 외형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너희가 처음에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된 사람의 입장에 서서 부른 것이다. 너희가 외웠던, 예수가 가르쳐 준 주기도문을 아직 기억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 또 그 역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만큼, 너희와 평등한 위치에 서서 하늘의 하나님을 부른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상, 예수는 자신을 너희와 평등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자 하나님이 땅에서 택한 사람(하나님의 아들)으로 여긴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것 또한 너희가 피조물이기 때문 아니겠느냐? 예수가 땅에서 얼마나 큰 권병을 가졌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그는 여전히 성령(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인자이자 땅의 피조물 중 하나였다. 그는 사역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단지 자신을 낮추고 순종한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하나님(하늘의 영)을 그렇게 불렀다고 해서 그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 영의 아들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다른 위치에 섰을 뿐이지 위격이 다른 것은 아니다. 위격이라는 그런 그릇된 논리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육신의 제한을 받는 인자였으므로 영의 권병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렇기에 그는 피조물의 위치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했다. 그것은 그가 겻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면서 세 번 기도한 것과 같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는 그저 유대인의 왕이자 인자, 그리스도였을 뿐, 영광의 몸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는 피조물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다 성자라고 해서 안 된다.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가 너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준 뒤부터 너희는 모두 ‘성자’가 된 것 아니겠느냐? 그래도 너희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말해 보아라. 너희가 부르는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를 가리킨다면 예수의 ‘아버지’는 또 너희에게 무엇이냐? 예수가 떠난 뒤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단지 예수가 육신으로 있었던 몇 년 동안만 적용될 뿐이며, 그 밖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의미한다. 어떤 때에도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론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는 천고에 보기 드문 그릇된 논리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98)

많은 사람이 또 창세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 사람을 만들고”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연상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류를 만들었다고 말씀한 만큼 ‘우리’는 둘 이상이고, ‘우리’라고 말씀한 만큼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은 ‘위격’이 다를 것이라는 추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토대로 성부, 성자, 성령이 생겨났다. 그렇다면 성부는 어떤 모습이나? 성자는 어떤 모습이나? 성령은 또 어떤 모습이나? 설마 세 형상으로 있다가 합쳐진 형상에 따라 오늘의 인류를 만들었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사람의 형상은 도대체 성부를 닮았느냐, 아니면 성자를 닮았느냐, 그도 아니면 성령을 닮았느냐? 도대체 어느 위격의 하나님을 닮았느냐? 사람의 이런 말은 결코 옳지 않고 통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 한 분을 여럿으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는 세상 창조가 끝나 인류가 생긴 다음이었다. 세상을 창조할 때는 모세라는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모세가 성경을 쓸 때는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런데 그가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지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는 모세도 전혀 몰랐다. 구약 성경에는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는 말이 없고, 오로지 유일한 참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다는 내용만 있다.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고 해서 이름 하나가 위격 하나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위격이 있지 않겠느냐? 구약에 기록된 것은 여호와가 행한 사역이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율법시대에 행한 시작의 사역으로, 있으라 명하면 생기고, 세워지라 명하면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여호와와는 단 한 번도 그가 성부로 사역하러 왔다고 말한 적이 없고, 성자가 인류를 속량하러 올 것이라고 예언한 적도 없다. 예수가 있던 그 당시에 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전 인류를 속량하러 왔다고만 했지, 성자가 왔다고 말한 적은 없다. 시대가 다르고 하나님이 행할 사역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른 차원에서 사역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하여 대표하는 신분 또한 달라진 것이다. 사람은 여호와가 예수의 아버지라고 여기지만, 예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원래 아버지와 아들의 구분이 없느니라. 나와 하늘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사람이 아들을 본 것은 바로 하늘의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라고 했다. 어떻게 말해도, 결국 아버지든 아들이든 모두 한 분의 영이고 위격의 구분이 없다. 그러나 사람이 말하면 복잡해지는데, 위격이 다르다고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관계라고도 한다. 사람이 위격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물질화하는 것 아니겠느냐? 또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는 것 역시 모두 사람의 상상이다. 조금의 참고할 가치도 없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네가 그에게 하나님이 몇 분이냐고 묻는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의 유일한 참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네가 다시 그에게 성부는 누구냐고 묻는다면, 성부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늘의 총책임자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호와와는 영이 아릅니까?”라고 물으면 그는 영이라고 말할 것이다! 네가 다시 성자는 누구냐고 묻는다면 성자는 당연히 예수라고 말할 것이다. “그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라고 물으면,

마리아에게서 났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본질 또한 영 아니냐? 그가 한 사역도 성령을 대변하지 않느냐? 여호와와 영이고 예수의 본질 또한 영이다. 말세라는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여전히 영인데, 그들에게 또 무슨 위격의 차이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다른 위치에 서서 영의 사역을 행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위격의 구분이 없는 것이다. 그때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므로 의심할 바 없이 예수의 사역 또한 성령의 사역이었다. 여호와가 행한 제 1 단계 사역에서 그는 성육신하지도, 사람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으므로 사람은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했다. 그가 얼마나 높고 크든 그는 영이고, 처음에 사람을 만든 하나님 자신이며,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다. 그는 구름 속에서 사람에게 말쑤했지만 그저 영이었기에 그 누구도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했다. 은혜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육신에 오고, 성육신으로 유대에 임해서야 사람은 처음으로 성육신한 그의 형상이 유대인의 형상임을 보게 되었지만, 여호와라는 느낌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다시 말해, 여호와와 영으로 친히 잉태되었으므로 강생한 예수는 여전히 하나님 영의 화신이라는 말이다. 당시에 사람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예수 자신이 전용하는 영이 아니라 성령이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또 성령과 분리될 수 있겠느냐? 예수는 예수이자 성자이고 성령은 성령이라면, 어떻게 하나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사역을 행할 수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영과 하늘의 영, 그리고 여호와와 영은 모두 하나이다. 성령이라고도 불리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리며 일곱 배 강화된 영이자 만유를 포함하는 영이라고도 불린다. 하나님의 영은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고 홍수로 세상을 멸할 수도 있으며, 전 인류를 속량할 수도 있고, 더욱이 전 인류를 정복하거나 멸할 수도 있다. 이 사역은 모두 하나님 자신이 하는 사역이지, 그 어떤 위격의 신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영은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라고 부를 수도 있으며, 전능자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는 주이고, 그리스도이며, 또한 인자가 될 수도 있다. 그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으며, 전 우주 위에도 있고 만인 가운데에도 있는, 하늘과 땅의 유일한 주관자이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 사역은 하나님의 영이 혼자 행했다. 하늘에서 행한 사역이든 육신으로 행한 사역이든 모두 그의 고유한 영이 행한 것이다. 하늘의 피조물이든 땅의 피조물이든 모두 그의 전능한 손에 지배되며,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므로 그 누구도 대신하지 못한다. 그는 하늘에서 영이고, 또한 하나님 자신이다. 그가 사람 가운데서 육신으로 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자신이다. 그의 이름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이며, 모든 것이 다 그의 영의 직접적인 선포이다. 십자가에 달려 전 인류를 속량한 것은 그의 영이 직접 역사한 것이고, 말세에 각 나라와 지역에 알리는 것 역시 그의 영이 직접 역사하는 것이다. 어느 때든 하나님은 오직 전능하고 유일한 참하나님, 만유를 포함하는 하나님 자신이라 불린다. 위격은 절대 존재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는 설은 더욱 존재하지 않는다. 천상천하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99)

하나님의 경륜은 총 6 천 년이며, 사역이 서로 다른 관계로 세 시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대는 구약의 율법시대이고, 두 번째 시대는 은혜시대이며, 세 번째 시대는 마지막 시대에 속하는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이다. 각 시대에서 대표하는 신분은 모두 다른데, 그것은 다만 사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사역의 필요로 말미암은 것이다. 첫 번째 단계인 율법시대의 사역은 이스라엘에서 행했다. 두 번째 단계인 구속 사역은 유대에서 완성했다. 당시 예수는 구속 사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독생자가 되었다. 이것은 모두 사역의 필요로 인해 정해진 것이다. 말세에 하나님은 사역을 이방으로 확장한다. 그는 이방인을 정복하는 사역을 하여 그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 받게 할 것이다. 또한 사람이 모든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 진입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모든 사역은 한 분의 영이 한다. 서는 위치는 다르지만, 사역의 성질과 원칙은 모두 같다. 너는 그들이 사역하는 원칙과 사역의 성질을 보고, 모든 사역은 한 분의 영이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성부는 성부이고, 성자는 성자이고, 성령은 성령이며, 궁극적으로 그들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그들을 하나로 합치겠느냐? 성부와 성령을 어떻게 하나로 합쳐야겠느냐? 원래 둘이었다면 어떻게 합치든 여전히 두 부분 아니겠느냐? 합친다는 말은 서로 다른 두 부분이 함께 모여 하나의 전체가 되는 것 아니더냐? 그러나 그들이 하나의 전체가 되기 전까지는 두 부분 아니겠느냐? 한 분의 영은 하나의 본질이므로 두 영을 하나로 합칠 수는 없다. 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며, 물질세계의 것과는 다르다. 사람은, 성부는 한 분의 영이고, 성자도 한 분의 영이며, 성령 또한 한 분의 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 영을 마치 세 잔의 물처럼 하나의 전체가 되게 합친다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이것은 순전히 그릇된 해석이다! 이는 하나님을 나누는 것 아니겠느냐? 성부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지겠느냐? 그들은 성질이 다른 세 부분 아니더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한다.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 자신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증거한 것으로, 단지 다른 위치에 서서 그 자신을 증거하고 하늘에서 영의 위치에 서서 그가 입은 육신을 증거한 것에 불과하다. 예수는 그가 입은 육신이지 하늘에 있는 그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이해하겠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예수의 말씀은 그들의 영이 원래 하나임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느냐?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위아래로 분리된 것 아니겠느냐? 사실은 여전히 하나이다. 어찌 됐든 이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증거한 것이다. 시대의 다름과 사역의 필요성, 그리고 경륜 절차의 차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를 부르는 호칭 또한 달라졌다. 제 1 단계의 사역에서는 여호와라고만 부를 수 있었으며, 그는 이스라엘 사람의 목자였다. 제 2 단계에서는 성육신 하나님을 주님, 또는 그리스도라고만 부를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하늘의 영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을 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어떻게 독생자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성육신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렸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생겨났는데, 그것은 단지 하늘과 땅에 있는 차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는 육신의 위치에 서서 기도했다. 그는 정상 인성을 가진 육신을 입었기에 육신의 위치에 서서 “나의 외형은 피조물이다. 나는 육신을 입고 땅에 왔으므로 하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는 육신의 위치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그의 본분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성육신하여 마땅히 갖춰야 하는 것이었다. 그가 육신의 위치에서 아버지께 기도했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대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자신이다. 그는 단지 영이 입은 육신일 뿐, 본질은 여전히 영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면서 왜 기도하지?’라고 여길 수 있다. 그것은 단지 그가 성육신한 하나님,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지, 하늘에 있는 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성부와 성자, 성령은 모두 하나님이고, 그 세 분이 하나로 합쳐져야만 유일한 참하나님이라고 불린다고, 그러면 능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여긴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야 일곱 배로 강화된 영이시지. 성자가 오셔서 기도했는데, 바로 그 영께 기도하신 거야.”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는 피조물의 위치에 서서 기도했다. 그것은 육신이 불완전했기 때문이다. 육신에 거하면 완벽하지 못하며 많은 연약함이 따르고, 육신으로 사역하면 많은 방해로 받게 된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세 번 기도했다. 세 번 기도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기도한 적이 있었다. 제자들과 함께할 때도 기도하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배 위에서도 기도했다. 또한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떡을 떼 때도 기도하고, 사람에게 축복할 때도 기도했다. 그가 왜 그렇게 했겠느냐? 그가 기도한 대상은 영이었다. 그는 육신의 위치에 서서 영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그 단계 사역에서 예수는 성자로 보인 것이다. 그럼 이 단계에서는 왜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가 가져온 것은 말씀의 사역이고, 말씀의 형벌과 심판이기 때문이다. 그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의 직분은 바로 말씀하는 것이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고, 정권을 잡은 자들에게 넘겨질 일도 없으니, 곧바로 사역만 하면 된다. 지난날, 예수가 천국이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였다. 이번 단계에서는 천국이 이미 임했는데 그가 더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가 하는 것은 시대를 끝내는 사역이기에 더 이상은 새로운 시대가 없다. 그런데 다음 단계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겠느냐? 아마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말에는 모순되는 점이 수없이 많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사람의 관념이다. 만일 추궁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모두 옳다고 여길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말들은 모두 사람의 관념이라는 것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이를 완전히 아는 사람은 없다. 모두 불순물이 있으며, 사람의 뜻이 너무 많다. 이는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다. 그것은 모두 논리와 사유에서 나왔으며, 진리에 상반된다. 너의 논리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철저히 분석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행한 사역을 모두 분명하게 알 수 있겠느냐? 인간인 네가 한눈에 다 간파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꿰뚫고 있겠느냐? 네가 태초부터 영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느냐? 너는 뭐라고 설명을 하겠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느냐? 네가 무엇을 근거로 해석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천지 만물은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것이다. 네가 창조한 것도 아닌데 왜 멋대로 해석하느냐? 너는 아직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너무 피곤하지 않느냐? 네가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닌 한 분의 하나님을 믿기를 바랄 뿐이다. 역시 가벼운 것이 좋지 않겠느냐? 주의 짐은 가벼우니 말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중에서

제 9 절 인류의 패괴 폭로

인류의 패괴 폭로[1]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00)

사람은 수천 년의 패괴를 겪고 나서 모두 무감각하고 우둔해졌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가 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역사(歷史)는 모두 ‘사기(史記)’에 기록되었고, 심지어 사람의 패역한 행위는 사람 스스로도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사탄에 의해 너무 심하게 패괴되었고,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갈 곳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도 배반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도 배반하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본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한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의 이성이 원래의 기능을 잃었고, 사람의 양심도 원래의 기능을 잃었다고 말한다. 내 눈에 보인 사람은 모두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자 독사다. 사람이 내 앞에서 얼마나 가련한 척을 하든 나는 사람에게 연민의 정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흑과 백의 차이를 전혀 모르고,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성이 이렇게 무감각함에도 여전히 복을 받고 싶어 하고, 이렇게 비열한 인성을 가지고도 여전히 왕이 되어 권력을 잡고 싶어 한다. 이런 이성을 가지고 누구에게 왕 노릇을 하겠느냐? 이러한 인성으로 어떻게 보좌에 오를 수 있겠느냐? 정말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구나! 모두 제 주제도 모르는 소인배로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하는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우선 거울을 찾아 자신의 추한 물골을 비춰 보아라. 네가 왕이 될 재목이냐? 너는 복받을 만한 오관을 가졌느냐? 성품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진리를 조금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아름다운 앞날을 생각하다니 참으로 망상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토록 더러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심하게 사회에 물들었고, 봉건 예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고등 학부’의 교육을 받았다. 뒤쳐진 사상, 부패한 도덕, 저열한 인생관, 비열한 처세 철학, 일말의 가치도 없는 삶, 저속한 풍속과 생활,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심하게 침해하고, 사람의 양심을 심하게 파괴하며, 사람의 양심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사람의 성품은 나날이 더 악랄해져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거나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기꺼이 하나님의 나타남을 찾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반면에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마음껏 쾌락을 찾아 즐기고, 진흙탕에서 마음껏 자신의 육체를 패괴시키고 있다.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설령 진리를 듣더라도 실천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이미 나타난 것을 보아도 찾으려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이렇게 부패한 인류가 어떻게 빛 속에서 살 수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적이 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01)

사람의 패괴된 성품의 근원은 사람이 이미 사탄에게 해를 입고 사탄에게 짓밟혀 사람의 사상, 도덕, 식견, 이성이 사탄에 의해 심하게 파괴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근본적인 것들이 이미 모두 사탄에 의해 패괴되어 하나님이 만든 원래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려면 우선 사람의 사상, 식견, 이성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진리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가장 심하게 패괴된 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무엇인지 더더욱 모른다. 사람은 심하게 패괴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더 알지 못하고, 이성과 식견이 더 부족하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근본적 원인은 사람이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기 때문이다. 사탄에 의해 패괴되어 사람은 양심이 무감각하고 도덕이 부패하고 사상이 진부하고 정신 면모가 뒤처지게 된 것이다. 사람은 사탄에 의해 패괴되기 전에는 본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순종했으며, 이성과 양심이 건전하고, 인성이 정상적이었다. 하지만 사람이 사탄에 의해 패괴된 이후로 사람에게 원래 있었던 이성과 양심, 인성이 무감각해지고 전부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을 모두 잃게 된 것이다. 사람의 이성이 정상에서 벗어나고, 사람의 성품도 짐승처럼 변해 하나님에 대한 패역이 점점 많아지고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아직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대적하고 거역하기만 한다. 사람이 드러내는 성품은 곧 사람의 이성, 식견, 양심의 발현이다. 사람은 이성과 식견이 건전하지 못하고, 양심이 극도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품이 된 것이다. 사람의 이성과 식견을 바꾸지 못하면 성품 변화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것도 말할 나위가 못 된다. 사람은 이성이 건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정상적인 이성이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스러우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이고 양심적이며, 하나님에 대해 일편단심이고,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이성은 그렇지 않다. 사람은 사탄에 의해 패괴된 후 하나님에 대해 관념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졌으며,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게 되었다. 양심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인 줄 뻔히 알면서도 뒤에서 판단하며, 순종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계속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요구하기만 한다. 이처럼 이성이 비정상적인 사람은 자신의 비열한 행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패역한 행위를 통회하지도 못한다. 자신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성이 조금은 회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이성이 더 건전하지 못하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적이 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02)

사람의 패괴 성품이 드러나는 근본 원인은 사람의 무감각한 양심, 악독한 본성과 건전하지 못한 이성에 있다. 사람의 양심과 이성이 정상으로 회복된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의 양심이 줄곧 무감각한 상태에 있고, 사람의 이성이 한 번도 건전했던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세에 하나님이 입은 육신을 문전 박대 하며, 하나님의 육신을 정죄하고, 또 하나님의 육신이 비천하다고 여긴다. 사람에게 인간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입은 육신을 이렇게 잔혹하게 대할 수 없고, 이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입은 육신을 이렇게 악독하게 대할 수 없으며, 정말로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육신 하나님께 이같이 ‘감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성육신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온 것을 욕하거나 하나님이 성육신한 사실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어쩌면 부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귀찮아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하나님이 온 것을 사람이 어떻게 대하든 하나님은 싫은 기색 없이 계속 자신의 사역을 한다. 사람이 그를 조금도 환영하지 않고, 그에게 계속 뭔가를 요구하더라도 말이다. 사람의 성품은 극도로 악독해졌고, 사람의 이성은 극도로 무감각해졌으며, 사람의 양심은 이미 악한 자에게 짓밟혀 원래 가지고 있던 양심은 진작에 사라져버렸다. 사람은 성육신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풀어 준 이처럼 많은 생명과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준 진리로 인해 하나님을 혐오하고, 진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하나님에게조차 혐오감을 갖게 되었다. 사람은 성육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서 ‘기름을 짜내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수십 배나 많은 이자를 달라고 요구한다. 사람은 이런 양심과 이성을 가졌으면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것이 너무 많고 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는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물 한 그릇을 주고는 우유 두 그릇 값의 금화를 달라고 손을 내밀고, 내가 그의 집에서 하룻밤 묵으면 이보다 몇 배 넘는 숙박비를 요구한다. 너희는 이런 인성과 양심을 갖고도 생명을 얻으려 하느냐? 정말 비열한 소인배들이구나! 사람의 이런 인성과 양심 때문에 성육신 하나님은 기거할 곳 없이 곳곳을 떠돌게 된 것이다. 정말로 양심과 인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육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설사 그가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그를 경배하고 일편단심으로 그를 섬겨야 한다. 이것은 이성이 건전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사람의 본분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조건을 내건다. 그런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는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조건만을 얘기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만 한다. 너희는 나에게 밥을 지어 주면 품값을 요구하고, 나를 위해 다리품을 팔면 수고비를 요구하며, 나를 위해 사역하면 사역비를 요구하고, 나에게 빨래를 해 주면 세탁비를 요구하며, 교회에 공급하는 일을 하면 몸보신 비용을 요구한다. 말하는 자는 강의료를 요구하고, 책을 배부하는 자는 책 배부 비용을 요구하며, 글을 쓰는 자는 원고료를 요구한다. 심지어 내게 책망받은 사람은 내게 보상금을

요구하고, 집으로 돌려보낸 사람은 명예 훼손 배상금을 요구하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혼수비와 청춘을 바친 대가를 요구한다. 또한 닭 잡은 사람, 요리를 만든 사람, 국을 끓인 사람 등 다 그에 따른 수고비를 요구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너희의 고상하고도 위대한 인성이며, 너희의 그 따뜻한 양심에서 비롯된 일이다. 너희의 이성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인성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너희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너희들 가운데서 사역하지 않을 것이고,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에게 사역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같은 인면수심의 무리들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것이고, 구원할 여지가 조금도 없는 이런 짐승들을 위해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등을 돌리는 날은 바로 너희가 죽는 날이고, 어둠이 너희에게 임하는 날이며, 광명이 너희를 버리는 날이다.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나는 너희처럼 짐승보다도 못한 무리에게 큰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하고 일하는 데는 나만의 기준이 있다. 너희의 인성과 양심이 이러하니 나는 더 많은 사역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무 양심이 없고, 나의 마음을 너무 많이 상하게 했으며, 너희의 비열한 행위는 나를 너무 역겹게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성과 양심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나는 이렇게 흉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날이 올 때, 나는 나를 크게 진노하게 했던 이 패역한 자식들에게 영원히 불사름의 불을 쏟을 것이고, 예전에 나를 욕하고 저버린 이 짐승들에게 영원히 징벌을 내릴 것이며, 나와 함께 먹고 함께 지냈지만 나를 믿지 않고 모욕하고 배반한 그 패역한 자식들을 영원히 나의 분노의 불길로 태울 것이다. 나를 분노하게 한 모든 사람을 나의 징벌 속에 내던질 것이고, 나와 동등해지고 싶어 하며 나를 전혀 경배하지 않고 내게 순종한 적이 없는 짐승들에게 나의 모든 분노를 쏟을 것이며, 내 입에서 나온 말의 비밀과 나의 보살핌을 누리고 나에게서 물질적인 누림을 다투었던 짐승들을 나의 채찍으로 칠 것이다. 나는 내 지위를 빼앗으려는 자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나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투는 자는 그 누구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별 탈 없이 평안하고, 점점 더 큰 욕심을 내며 내게 요구하고 있지만, 분노의 날이 오면 더는 내게 요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나는 너희가 마음껏 ‘누리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입으로 진흙을 씹게 할 것이고, 너희는 영원히 그 처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조만간 이 빛을 너희에게 모두 ‘되갚을’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너희가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란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적이 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03)

사람이 하나님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정이 있어서도, 사람이 얻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가 있느냐? 이성이 건전하고 양심이 예민한 사람 중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가 있더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 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불사름 당한 이가 있더냐?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한 사람 중에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집 밖으로 쫓겨난 이가 있더냐?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 살게 된 이가 있더냐?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린 사람 중에 빈털터리가 된 이가 있더냐?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재물을 쓰려고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위해 자기 일생의 정력을 쓰려고 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사람의 생각에 맞지 않는 점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너희 같은 이런 인성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설령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다. 너희는 자신이 인류 중의 불량품이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나? 너희의 인성이 가장 비천하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나? 너희의 '존칭'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희를 늑대의 아비나 어미, 늑대의 자식이나 손자, 늑대의 후예, 늑대의 민족이라고 한다. 너희는 자기 신분을 알고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하며, 스스로를 상등 인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인류 가운데 가장 악랄한 한 무리의 비인류이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모른단 말이나?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너희의 이성이 정상을 되찾지 못하고, 너희의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늑대'라는 호칭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고, 저주와 징벌의 날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너희는 출생이 비천하고, 본래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본래 한 무리 굶주린 늑대이고, 한 무더기 잡동사니나 쓰레기다. 내가 너희에게 사역하는 것은 너희처럼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역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계속 이렇게 거역한다면 나는 나의 사역을 그만둘 것이며, 앞으로 다시는 너희에게 사역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나는 내가 좋아하는 다른 무리의 사람들에게 옮겨 가서 사역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영원히 너희를 떠나게 된다. 나는 나와 적이 되는 사람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마음에 합하길 원하느냐, 아니면 나와 적이 되길 원하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적이 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04)

사람은 누구나 예수의 참모습을 보고 싶어 하고 예수와 함께하길 원한다. 예수를 만나거나 예수와 함께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형제자매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예수를 만나기 전, 다시 말해 성육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 너희는 예수의 모습이 어떨지, 말씀은 어떤 식으로 할지, 생활 방식이 어떨지 등 생각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정말로 만났을 때 너희의 생각은 곧바로 바뀔 것이다. 어째서 그럴까? 알고 싶으냐? 사람의 사유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본질은 더더욱 사람이 바꿀 수 없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신선이나 성인(聖人)으로 여기지만, 누구도 그리스도를 신적 본질을 지닌 일반인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만을 고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란 말이나? 지금까지도 너희는 자신의 믿음과 충성심이 그리스도를 뵈기에 충분하다고 여기는데, 나는 너희에게 실제적인 것들을 더 많이 갖추라고 충고하고 싶다! 과거와 현재에 그리스도와 접한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바리새인의 역할을 하여 실패했고, 이후에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너희들이 실패한 까닭은 무엇이나? 그것은 너희의 고정 관념 속에 사람들이 앙모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의 바람과 다르다. 그리스도는 위대하기는커녕 아주 보잘것없으며, 사람인 데다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다. 그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행동이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를 평범한 사람처럼 대하고, 그와 거리낌 없이 지내며, 그에게 막말을 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진정한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린다. 너희는 이미 온 그리스도를 보통 사람으로 대하고 그의 말씀을 보통 사람의 말로 여기므로 그리스도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빛 속에서 자신의 추한 모습만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리스도와 만나기 전에 너는 자신의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자라 여기며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많은 길을 열심히 뛰어다녔고 많은 사역을 행하여 많은 결실을 맺었으므로 자신이 나중에 꼭 면류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사람의 패괴 성품과 패역, 대적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때 드러나는 패역과 대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적나라하다는 사실을 아느냐? 그리스도가 인자이며 정상 인성을 지닌 인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불경스레 대하고, 하나님이 육신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패역이 남김없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임함으로 인류의 패역이 모두 파헤쳐졌고, 그리스도의 임함으로 인류의 본성이 다 부각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맹수를 굴 밖으로 유인하는’ 것이다. 너는 감히 자신이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감히 자신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감히 자신이 패역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떤 자는 자신이, 하나님이 환경을 마련할 때마다 아무 불평 없이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정 관념이 전혀 없다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자는 자신이, 하나님이 맡긴 일을 건성으로 대한 적 없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완수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럼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할 때 그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느냐? 그런 날은 또 얼마나 오래 갈까? 하루? 이틀? 한 시간? 두 시간? 너희의 믿음은 가상이나 너희의 의지력은 결코 강하지 않다.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게 될 때는 너의 독선과 자만이 언행에서 조금씩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뒤를 이어 너의 사치스러운 욕망과 불복하고 불만스러워하는 마음 또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결국 교만함이 나날이 심해져 물과 불처럼 그리스도와 상극이 될 때면, 너의 본성이 전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 너의 고정 관념은 감출 수 없게 되고, 너의 불평도 자연스럽게 ‘표출’되면서 너의 그 비열한 인성이

전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너는 여전히 자신의 패역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그리스도는 너무 냉혹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더 나은 그리스도가 있으면 완전히 순종할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의 패역에 이유가 있다고 여기며, 그리스도가 너희를 그렇게 거역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한다. 너희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그에게 순종할 마음이 없었음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한사코 그리스도에게 너의 뜻에 따라 사역하길 강조하며, 한 가지 일이라든 너의 뜻에 따라 하지 않으면 그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여긴다. 너희 중 많은 사람이 이렇게 그와 힘겨루기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믿는 이는 대체 누구인가? 너희는 어떻게 추구했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05)

너희는 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자신을 너무 높이 보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만날 수는 있지만 나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한다. 인간의 본성은 악과 교만, 패역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본성이 너를 망치고, 네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네가 형제(자매)와 접할 때에는 너를 어떠하다고 설명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접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너의 고정 관념이 수시로 뿌리를 내리고, 너의 교만함이 수시로 싹이 트고, 너의 패역이 수시로 무화과를 맺을 것이다. 너의 그런 인성으로 어찌 그리스도를 접한단 말이나? 너는 진정 그를 언제나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느냐? 너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실체가 있느냐? 너희는 마음속의 위대한 하나님을 여호와로 여겨 경배하고, 보이는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대하니 이성이 너무도 없고, 인간성 또한 몹시 저열하다! 너희는 가끔 기쁨 때에만 그를 끌어와 하나님으로 여겨 경배할 뿐, 영원히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당이라고 한다.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도 보답을 받는데, 그리스도는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까지 사역하면서도 사람들의 사랑과 순종, 보상도 받지 못한다. 이는 마음이 미어지고 눈물이 날 일이 아니겠느냐?

어쩌면 네가 하나님을 여러 해 믿으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악담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네가 그리스도를 접했을 때 정직한 말과 일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나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음험하고 악랄한 사람이라고 한다. 네가 친지와 친구, 아내(남편)와 자녀, 부모에게 매우 자상하고 충실하며, 여태껏 다른 이를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네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지낼 수 없다면, 너의 모든 것으로 이웃을 구제하거나 부모와 가족을 세심하게 돌본다 하더라도 나는 네가 여전히 악인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간계가 많은 악인이라고 할 것이다. 네가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 좋은 일을 좀 했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다고 여기지 말라. 너는 선심을 쓰는 것으로 교묘하게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좋은 일을 좀 했다고 순종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모두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인성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그런 믿음은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분량이 너무 작아서 그리스도를 만날 자격조차 없기 때문이다. 네가 패역을 완전히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책망이나 심판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멸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본래 하나님께 적대적이다. 사람은 사탄에 의해 심하게 파괴된 존재이므로 만약 파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낸다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 언행 하나하나에서 파괴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접할 때 곳곳에서 패역을 드러내어 부지중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기만하고, 저버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때는 사람의 처지가 더욱 위험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징벌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접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니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자가 하나님께 충실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접하는 것이 물론 어렵지만 이는 모두 사람이 파괴되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접할 수 없어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자신을 아는 진리에 공을 들이면 좋겠다. 하나님이 왜 너희를 알아주지 않을까? 왜 너희의 성품을 혐오할까? 왜 너희의 언사를 증오할까? 너희는 충성심이 좀 있으면 뽐내고 공헌을 좀 하면 보답을 바란다. 또 조금 순종하면 타인을 업신여기고 보잘것없는 사역을 좀 하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을 대접하고는 돈과 물질을 요구하고 칭찬해 달라고 하며, 동전 두 닢을 내놓고는 아까워하고, 동전 열 닢을 내놓고는 축복해 달라고 하며 특별 대우를 받으려 한다. 너희의 이런 인성은 정말 입에 담기 민망하고 듣기조차 거북하다. 너희의 언행에 자랑스러울 것이 뭐가 있단 말이나? 본분을 이행하는 자나 이행하지 않는 자, 인도하는 자나 따르는 자,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나 하지 않는 자, 헌금하는 자나 하지 않는 자, 전도하는 자나 받는 자 등등의 모든 사람이 자기 자랑만 하는데 우습지 않느냐?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을 자랑하는데, 너희들의 이성이 자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지 않는단 말이나? 이런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접할 수 있단 말이나? 너희는 이런 자신이 걱정스럽지 않느냐? 너희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너희의 믿음이 우습지 않느냐? 너희의 믿음이 터무니없지 않느냐? 너는 너의 미래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네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06)

내가 많은 말을 하고 내 뜻과 내 성품까지 나타내었건만, 사람은 여전히 나를 알지도, 믿지도 못한다. 혹은 나에게 순종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성경만 따르며 사는 사람, 율법만 따르며 사는 사람, 십자가에만 기대어 사는 사람, 규례만 따르며 사는 사람, 오늘날 나의 사역을 따르며 사는 사람, 이들 가운데 그 누가 내 마음에 합하겠느냐? 너희는 복받거나 상받을 궁리만 하였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와 적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에 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너희가 너무나 실망스럽다. 너희에게 셀 수 없을 만큼 베풀어 주었지만, 내가 너희에게서 얻은 것은 너무나도 미미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기만과 교만, 너희의 탐욕과 사치스러운 욕망, 너희의 배반과 불복종,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무성의하게 대하고 속이며 욕되게 한다. 또한 기만하고, 사기 치며, 나의 제물을 강탈한다. 이런 악행들이 어떻게 내 징벌을 피해 갈 수 있겠느냐? 이 악행들은 너희가 나를 적대시하며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너희는 저마다 내 마음에 합하는 부분이 아주 많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이 확실한 증거는 또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이란 말이나? 너희는 나에게 진심을 다하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충성한다고 여긴다. 또한 너희는 자신들이 더없이 착하고, 동정심도 넘쳐난다고 여기며, 나에게 셀 수 없이 많이 바쳤고, 나를 위해 행한 것도 충분히 많다고 여긴다. 하지만 너희는 그런 생각들을 자신의 행위와 대조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말해주겠다. 너희는 교만으로 가득 찼고, 너무나 탐욕스러우며, 건성으로 하는 일이 많다. 게다가 나를 속이는 데 탁월하고, 비열한 속셈과 수단이 너무 많다. 너희는 충성심과 진심이 한없이 부족하고, 양심은 더욱 없으며, 마음씨 또한 너무나 악독하여 어떤 사람도 그냥 두지 않는다. 심지어 나에게도 예외는 없다. 너희는 자녀와 남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를 문전 박대 한다. 너희의 가정과 자녀, 지위와 앞날, 그리고 누리는 데에만 관심을 둘 뿐, 나에게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너희가 말을 할 때, 일을 할 때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날이 추울 때도, 더울 때도 너희는 자녀와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를 생각하지, 나를 떠올리지는 않는다. 본분을 이행할 때도 네가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신변 안전, 그리고 너의 가족이다. 네가 행한 일 중에 나를 위한 것이 있었느냐? 언제 나를 생각한 적이 있었느냐? 나와 내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불사한 적이 있었느냐? 내 마음에 합하는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실제로 나에게 충성하였느냐? 실제로 나에게 순종하였느냐? 복을 얻으려는 마음을 갖지는 않았느냐? 너희는 모두 나를 건성으로 대하며 기만하고 있다. 또한 진리를 우롱하고, 진리의 존재를 덮어 감추며, 진리의 본질을 배반하고 있다. 나를 이토록 적대시했으니,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너희는 막연한 하나님과 합하며, 막연한 신앙만을 추구하지,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합하지 않는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악인과 똑같은 보응을 받지 않겠느냐? 그때가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은 자는 그 누구도 분노의 날을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자가 어떤 보응을 받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고, 또 천국에 가려는 너희의 꿈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고 수없이 고통을 겪었지만, 내가 인류에게 베풀어 주는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것이다. 최종에 너희는 오직 나만이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오직 나만이 인류를 아름다운 종착지로 인도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너는 마땅히 그리스도와 합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07)

하나님은 사람에게 많은 일을 맡겼고, 사람의 진입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다. 그러나 사람의 자질이 너무 부족해 하나님의 많은 말씀은 거의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사람의 자질이 부족한 이유는 다양하다. 사람의 사상과 도덕이 부패하고 교양이 없는 것, 봉건적 미신이 사람 마음을 심각하게 점령한 것, 타락하고 문란한 생활 방식이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 각종 폐단을 일으킨 것, 거의 98%의 사람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고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은 더더욱 극소수일 정도로 교육 수준이 얕은 것, 이러한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봉건적인 미신으로부터 얻어진 하나님에 대한 막연하고 불명확한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민족의 기개’는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악영향과 봉건사상을 남겨, 조금의 자유도 없이 움아매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패기도, 의지력도, 진취심도 없이 소극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노예근성에 깊이 젖어 버렸다. 이러한 객관적 요소들은 사람의 사상적 풍모, 개인의 이상(理想)과 도덕, 성품을 씻을 수 없는 더럽고 추한 몰골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모두 공포의 암흑세계에 갇힌 것처럼 누구도 벗어날 생각을 못 하고, 이상적인 세상도 생각지 못한 채, 그저 현실에 안분지족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자녀를 낳아 기르고, 힘껏 땀 흘려 일하며, 안락하고 원만한 가정, 부부간 사랑, 자녀의 효도, 즐거운 노년과 편안한 여생 등을 꿈꾸면서 말이다. 사람은 수십 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심지어 지금도 이렇게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아무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그저 어두운 세상에서 서로 죽고 죽이고, 명예와 이익을 다투며, 아귀다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 중 하나님의 뜻을 구한 자가 있더냐? 하나님의 사역에 신경을 쓴 자가 있더냐? 흑암 권세에 점령당한 사람의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고질화되었기에, 하나님의 사역은 전개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날 맡긴 일에 대해 신경 쓸 생각조차 없다. 어찌 됐든, 나는 사람이 내가 한 말들을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말하는 것은 수천 년의 역사(歷史)이기 때문이다. ‘역사’란 곧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게다가 이 모든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추문’이니, 굳이 사실을 숨길 필요가 있겠느냐? 하지만 나는 또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내 말을 보면서 깨닫고 분발할 것임을 믿는다. 하나님은 사람이 편안하게 살면서 즐겁게 일하기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란다. 전 인류가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더욱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소망이다. 애석하게도 사람은 모두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고, 사탄에 의해 파괴되어 오늘날 사람 같지도 않은 몰골이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정신적 면모를 변화시키는 데는 무엇보다 사상, 도덕과 교육이 중요하고, 지식 습득 훈련은 그다음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역과 진입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08)

사람들은 생명 체험 과정에서 늘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가정도 직장도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 그동안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한번 계산해 보고 따져 봐야겠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을 들이며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동안 내가 한 것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해 주실까? 하나님은 나의 선행을 기억해 주실까? 나의 결말은 도대체 어떨까? 복은 받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은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계산하고, 저의와 야심을 품고, 또한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어 내려고 한다.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상대로 계산하고, 자신의 결말을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치를 따지며 논쟁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며 하나님께 구두 증거를 구걸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거래를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얻어 내려고만 한다. 심지어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동시에, 또 끊임없이 하나님과 논쟁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시련이 임하거나 어떤 환경에 처하면 늘 나약해지고 일을 태만히 하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화수분이나 만물 상자로 삼고,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큰 채권자로 간주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약속을 얻어 내는 것이 생득적 권리이자 책무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사람을 보호하고 보살피며 사람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 할 책임이라 여긴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이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이기도 하다. 사람의 본성과 본질로부터 사람의 주관적인 추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과는 아예 관련시킬 수도 없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고, 그래야 한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이러한 상태를 볼 때, 사람의 본질은 뻔한 것이다. 이 본질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씨가 악독하고 음험하고 간사하며, 공평과 공의를 좋아하지 않고 긍정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게다가 비열하고 탐욕스럽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태껏 사람의 진심을 보지 못했으며, 사람의 경배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든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행하든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급하든지 간에, 사람은 봐도 못 본 척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사람은 시종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이 주관하고 자신이 결정하려고 한다. 그 뜻인즉,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을 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고 싶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사람들의 상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09)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지식과 이치로 성령의 역사를 가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들은 체험이 알팍하면서도 천성이 교만하고 방종하여 성령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고 성령의 징계를 등한시한다. 또 자신의 미약하기 짝이 없는 낡은 이치로 성령의 역사를 ‘입증’하고, 스스로 학식이 높다고 믿으며 온 세상을 주름잡을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린다. 그런 자는 모두 성령께 혐오받아 버림받는 자이자 새 시대에 도태되는 자임을 어찌 알지 못한단 말이나?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모두 알팍한 지식으로 경망을 떠는 소인배들 아니냐? 얼마 되지도 않는 성경 지식으로 세상의 ‘학술계’를 휘어잡으려 하고, 겨우 사람이나 가르칠 수 있는 보잘것없는 이치로 성령의 역사를 돌려세우려 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무르려는 야심을 품으며, 좁은 안목으로 하나님의 6 천 년 사역의 풍모를 한눈에 다 꿰뚫어 보려고 한다. 그런 자에게 무슨 이성이 있다고 하겠느냐!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역을 쉽사리 평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현재 사역에 대한 인식을 좀 말할 뿐 함부로 단정 짓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하고 분수를 모르며, 또한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 실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론만 멋대로 떠벌릴 뿐이다. 이런 사람은 가장 무가치한 자이다. 성령의 역사를 아이들 장난으로 치부하는 사람은 모두 경박한 자들이다! 이들은 성령의 새 역사를 마주하고도 신중하게 대하기는커녕 함부로 지껄이고 멋대로 평가하며, 자기 성미대로 성령 역사의 정확성을 부인하고, 모욕적인 말과 모독도 서슴지 않는다. 이렇게 오만불손한 자들은 모두 성령 역사를 알지 못하고, 천성이 거만하며 방자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 자는 언젠가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용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을 안중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한다. 그러니 그런 악당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사함 받지 못할, 영원히 지옥에 멸할 대상이다. 그 오만하고 방종한 자들은 또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는 간판을 내건 사람들이다. 그런 자들일수록 하나님의 행정을 더 쉽게 거스른다. 천성적으로 방종하고 복종할 줄 모르는 교만한 자들은 모두 그런 길을 가지 않더냐? 모두가 이렇게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지 않더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3 단계 사역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10)

수천 년의 고대 문화와 역사적 지식으로 사람의 사상과 관념, 정신적 면모는 물샐틈없이 밀봉되었으니, 호추부두^{III}와 같다. 사람은 십팔 층 지옥에서 살며, 하나님에 의해 지하 감옥에 던져진 것처럼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 봉건사상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억눌려 질식당하고, 반항할 여력이 없어 그저 묵묵히 참고 또 참는다.... 지금까지 아무도 정의와 공평을 위해 싸우거나 일어서지 않았다. 그저 봉건적 예교(禮敎)의 가혹한 학대와 속박에 시달리며 개돼지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날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사람은 구타를 당해 늦가을의 낙엽처럼 시들었으며, 누렇게 뜨고 바싹 야위었다.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기억을 잃고, 인간 세상이라 불리는 지옥에서 속절없이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고대하는 종말의 날이 ‘편히 누리는’ 날이더라도 한 양 종말의 날을 기다리고, 지옥과 함께 파멸을 맞고자 한다. 봉건적 예교가 사람의 삶을 ‘저승’으로 이끌어 사람은 더더욱 반항할 힘을 잃어버리고, 온갖 압박 속에서 한 걸음씩 저승으로 추락하여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다. 오늘날, 사람은 하나님과 생면부지의 사이가 되어 얼굴을 마주하면 계속 피하기에 급급하다. 모두가 하나님을 안 적도, 본 적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고 한쪽에 고립시켰다. 기나긴 인생 여정이 펼쳐지는 내내 하나님은 줄곧 기다려 왔고,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한 번도 사람에게 퍼붓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침묵하며 사람이 개과천선하기를 기다릴 따름이다. 하나님은 일찍이 인간 세상에 와서 사람과 함께 세상의 고난을 겪었고,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으나 사람은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묵히 인간 세상의 쓰라린 아픔을 감내하며, 자신이 가져온 사역을 행할 뿐이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인류가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 인내하며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사람 앞에서 소리 없이 그들을 돌보며,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인류의 필요를 위해 사역하고 있다. 고대 문화의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몰래 흠쳐 마왕과 그 자손에게 넘겼다. ‘사서오경(四書五經)’은 사람의 사상과 관념을 또 다른 패역의 시대로 끌어갔으며, 사람이 ‘서경(書經)’의 편자를 더욱 숭배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한층 더 깊어졌다. 어느덧 마왕은 사람 마음속의 하나님을 부정하게 내쫓고, 득의양양하게 사람의 마음을 차지했다. 그때부터 사람은 추악한 영혼을 가지게 되었고, 마왕의 물골을 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게 되었다. 마왕의 사악한 독은 하루하루 사람 안에서 퍼져 나갔고 사람을 통째로 집어삼켰다. 사람은 더 이상 자유를 누릴 수 없었고, 마왕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다. 그저 그렇게 마왕에게 사로잡혀 항복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의 어린 마음에는 오래전에 ‘무신론’이란 암세포가 심어졌다. ‘과학과 기술을 배워 4 대 현대화를 실현하자.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이론을 교육시키고, 말끝마다 “우리의 근면한 노동으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꾸려 가자.”라고 외쳐 대며 누구나 어린 시절부터 이에 동참하여 조국에 보답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마왕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앞에 오게 만들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공로(하나님이 손으로 온 인류를 받들고 있는 공로)를 자신에게 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없으며, 게다가 뻔뻔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자신은 쥐처럼 책상 위로 ‘뛰어올라’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으로 간주하고 경배하게 한다. 이 악당들아! 입으로 “세상에는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바람은 자연법칙에 의한 변화이고, 비는 안개가 찬 공기를 만나 응결되어 작은 물방울로 맺힌 후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지진은 지형의 변형이 초래한 지각의 흔들림이고, 가뭄은 태양 표면의 핵자가 깨지고 갈라지면서 공기의 습기가 사라진 현상이다. 이것이 자연 현상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행사일 수 있겠는가?”라고 외치며 끔찍한 소문을 퍼뜨리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고대 유인원에서 진화한 것이고, 지금의 세계는 약 억만년 전의 원시 사회가 교체되며 형성된 것이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국민의 두 손에 달려 있다.”라는 등의 입에 담기도 민망한 논리를 외치는 자도 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화상을 벽에 걸거나 책상 위에 봉안하고 경배하게 한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치면서 스스로를 신으로 간주하고, ‘사정없이’ 하나님을 지계(地界) 밖으로 밀어내며,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마왕 노릇을 하려 드는구나. 실로 터무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치 하나님이 마왕의 원수이고,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뺀에 사무치도록 증오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내쫓고 자신은 범람 밖에서 노닐고자^[2] 한다. 이 마왕들아! 어찌 그것의 존재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여 뒤죽박죽, 엉망진창^[3]으로 만들어야 그만둘 태세다. 하나님께 끝까지 맞서려는 듯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달려들며, 고의로 하나님과 대립하고 점점 강한 압박을 가하는구나. 추악한 몰골은 이미 오래전에 낱알이 드러났고^[4], 진퇴유곡^[5]의 처지에 이르렀건만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은 여전하며, 하나님을 통째로 집어삼켜야 마음속의 원한이 풀릴 것처럼 군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원수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말살시키고 근절해야 금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어찌 그것이 계속 미쳐 날뛰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그것은 사람을 패괴시켜 하늘해(원문: 天日)를 모르게 만들었고, 아둔하고 무감각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인의 이성을 상실하게 했다. 그러니 어찌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바쳐 그것을 쳐부수고 불태워 후환을 없앴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하루빨리 공전의 성황을 이루도록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악한 무리는 인간 세상에 와서 소란을 일으키고 불안을 조성하며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사람을 벼랑 아래로 떨어뜨려 온몸이 산산조각 나게 한 다음 사람의 시체를 집어삼키려는 속셈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고,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는 헛된 생각을 하며 모든 것을 걸었지만^[6], 그것이 어디 말처럼 쉽겠느냐! 십자가는 결국 극악무도한 마왕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속하지 않고, 이미 십자가를 마귀에게 던졌다. 하나님은 일찍이 승리하였으며, 더 이상 인류의 죄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1] 호추부두(戶樞不蠹): 문의 회전축은 좀먹지 않는다는 뜻으로, 늘 움직이는 것은 쉽게 부식되지 않으며, 오랫동안 망가지지 않음을 비유함. 여기서는 완고하고 고루한 사람의 지식, 문화, 정신적 면모를 풍자함.

[2] 범망 밖에서 노닐고자[逍遙法外]: 여기서는 마귀가 미쳐 날뛰고, 황포를 부리는 것을 의미함.

[3] 엉망진창[狼藉遍地]: 여기서는 마귀의 행동이 난폭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음을 가리킴.

[4] 날날이 드러났고[暴露無遺]: 여기서는 마왕의 몰골이 하나님에 의해 폭로된 것을 의미함.

[5] 진퇴유곡[焦頭爛額]: 마왕의 추악한 몰골을 비유함.

[6] 모든 것을 걸었지만[孤注一擲]: 마귀의 음흉하고 악랄한 술수를 비유함. 여기서는 풍자적으로 쓰였음.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11)

사탄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에게 맞서고 있다. ‘오랜 문화유산’이니 소중한 ‘고대 문화의 지식’이니 ‘도가 학설, 유가 학설’이니 ‘공자의 경전, 봉건적 예교’니 하는 것들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 현대의 선진적인 과학기술과 발달한 공업, 농업, 상업은 그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고대 ‘유인원’이 가져다준 봉건적 예교만을 강조하면서 고의로 하나님의 사역을 교란하고, 대적하고, 무너뜨리며 오늘날까지 사람을 해쳐 왔다. 게다가 사람을 통째로 집어삼키려¹¹¹ 한다. 사람은 봉건적 예교의 가르침을 받고 고대 문화의 지식을 물려받아 크고 작은 마귀로 물들어 버린 지 오래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오심을 즐겁게 맞이하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는다. 사람은 모두 얼굴에 살기가 가득하고, 여기저기 독살스러운 기운이 잔뜩 올라와 있으며, 하나님을 욕지에서 몰아내려 한다. 손에 칼을 쥔 채 진을 치고 하나님을 ‘말살’하려 한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마귀의 땅에는 우상이 널려 있다. 온 땅의 상공에 종이를 태우고 향을 피우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하여 숨 쉬기가 힘들 정도이다. 그것은 마치 독사가 똥굴며 일으키는 썩은 흙냄새 같아서 구토를 유발한다. 또한, 머나먼 지옥에서 어렴풋이 들려오는 듯한 악귀의 ‘독경’ 소리는 사람을 몸서리치게 한다. 알록달록한 우상이 빼곡히 진열된 땅은 주지욕립의 세상으로 전락했다. 마왕은 음모를 실현한 듯 섬뜩한 웃음을 멈추지 않는데, 사람은 오히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마귀에 의해 파괴되어 정신이 혼미하고 실의에 빠져 있다는 것 역시 깨닫지 못한다. 마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욕보이고 암살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허물고 방해하려고 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을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땅에서 인간 세상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추악한 몰골을 폭로하는 것을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망치는 것을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악에 받친 마귀가 하나님이 땅에서 그것의 정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을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어찌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겠느냐? 추악한 몰골이 남김없이 드러나니 울 수도 웃을 수도 없고, 언급할 수조차 없다. 이것이 마귀의 본질 아니겠느냐? 그런데도 추한 영혼은 이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이 공모자^[2]들아! 그것들은 속세에 내려와 쾌락을 추구하고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염량세태를 초래하고, 사람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했다. 사람을 농락하여 성결했던 본래의 모습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악하고 사악하게 만들었다. 그것도 모자라 세상에 군림하고 세상을 호령하려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가로막고, 사람을 철옹성처럼 둘러싸 가둔다. 이렇게 많은 죄업을 쌓고, 화를 야기하고도 벌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나? 잡귀와 요괴가 세상에서 잠시 횡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혈을 물샷틈없이 차단했으니, 정말이지 극악무도하다. 이러할진대 어찌 하나님이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찌 하나님이 크게 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심히 가로막고 대적하니, 패역이 너무도 심하구나! 크고 작은 잡귀조차 호가호위하며, 덩달아 풍파를 일으키고, 진리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대적한다. 패역한 자식들아! 그것의 염라대왕이 현재 ‘왕’이라고 새겨진 보좌에 오르기라도 한 듯 여유만만해하며^[3]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구나. 진리를 찾고 정의를 따르는 자가 몇이나 되느냐? 개돼지 같은 짐승들이 역겨운 파리 떼를 이끌고 거름 더미 속에서 의기양양해하며 못된 수작을 부리고^[4], 자신의 ‘염라대왕’이 가장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하며 우쭐한다. 자신이 역겨운 파리 한 마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찌 모르는 것이냐? 개돼지 같은 아비 어미에게 기대 하나님의 존재를 모독하는구나. 보잘것없는 파리가 자신의 아비 어미는 이빨고래^[5]만큼 크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보잘것없이 작고, 아비 어미는 자신보다 수억 배나 큰, 더러운 개돼지임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자신의 비천함을 알지 못한 채 개돼지의 ‘썩은 냄새’를 믿고 곳곳에서 횡포를 일삼으며, 후대를 번성하겠다는 헛된 생각에 빠져 부끄러움도 모르는구나! 초록색 날개를 달고(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을 가리킴) 잘난 체하며, 여기저기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뛰어난 점을 뽐낸다. 또 자신의 더러움을 슬그머니 사람에게 내던지고, 오색찬란한 날개로 자신의 더러움을 감추었다는 듯 득의양양해하며 참하나님의 존재를 폄박한다(종교계의 실상을 가리킴). 파리가 날개는 아름답고 매혹적일지 몰라도 배 속은 불결함으로 가득 차 있고, 온몸은 독을 가진 균으로 들끓는, 작디작은 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람이 어찌 알겠느냐? 파리는 개돼지 아비 어미에 기대어 횡포를 부리고, 미쳐 날뛰다(여기에서 횡포란 하나님을 폄박하는 종교계의 관계자들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믿고 참하나님을 배반하고 진리를 배반하는 것을 일컫는다). 마치 유대 바리새인의 영혼이 하나님을 따라 큰 붉은 용의 나라, 자신의 소굴로 되돌아와 또다시 폄박을 시작하고,

수천 년 동안 해 온 일을 이어 나가는 듯하구나. 이 인간쓰레기들은 결국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수천 년이 지난 후의 더러운 귀신은 더욱더 ‘교활하고 간사해진’ 듯하다. 속으로 늘 하나님의 사역을 망가뜨리겠다는 생각을 품고, 온갖 술수를 쓰며, 수천 년 전의 비극을 자신의 고국에서 ‘재연’하려 한다. 하나님은 꺾박을 받다 못해 큰 소리로 부르짖을 뻔했고, 당장이라도 셋째 하늘로 되돌아가 그것을 멸해 버리고 싶을 정도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의 뜻을 깨닫고, 그의 기쁨과 슬픔을 알며, 그가 혐오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사람의 진입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사람의 진입이 빠를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큰 만족을 얻으며, 마왕을 꿰뚫어 볼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져 하나님의 염원을 이룰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역과 진입 7> 중에서

[1] 집어삼키려[吞噬]: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은 마왕의 잔혹한 행위를 가리킴.

[2] 공모자[幫凶]: 흉악한 일이나 나쁜 짓을 돕는 사람으로, 악당 패거리와 같은 부류임.

[3] 여유만만해하며[悠閑自得]: 여기에서는 표정이나 태도가 오만하고 무례하여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함.

[4] 못된 수작을 부리고[興妖作怪]: 여기서는 마귀에 속한 자들이 곳곳에서 횡포를 부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을 가리킴.

[5] 이빨고래[齒鯨]: 여기서는 작디작은 파리가 ‘개돼지’를 ‘고래’로 생각한 것을 풍자함.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12)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불결의 땅은 차마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더럽고 도처에 참상이 난무해 있다. 곳곳에서 유령이 횡포와 협잡을 일삼고, 사시이비^[1]한 언행과 악랄한 수법으로 이 마귀의 성을 무참히 짓밟아 시체가 즐비하고 썩은 내가 온 땅의 상공을 뒤덮게 했다. 게다가 경계가 삼엄^[2]하니 누가 바깥세상을 볼 수 있겠느냐? 마귀는 사람의 온몸을 뽕뽕 묶고 두 눈을 가렸으며, 입을 단단히 막아 버렸다. 수천 년 동안 횡행한 이 마왕이 오늘날에도 마귀의 성을 이토록 빈틈없이 감시하고 있으니, 마치 난공불락의 ‘마귀 궁전’ 같다. 그리고 이 집 지키는 개들은 하나님이 그것의 빈틈을 노려 그들을 일망타진하면 ‘안락’의 땅을 잃을까 두려워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마귀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의 친절함과 사랑스러움을 어디에서 누려 봤겠느냐? 인간 세상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지극히 은밀하게 성육신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어두운 사회의 마귀는 잔인무도하다. 사람을 죽여도 눈 한 번 깜빡하지 않는 마왕이 어찌 사랑스럽고 선량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용납하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강림을 손뼉 치며 반기겠느냐? 그 개만도 못한 노예들!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하나님을 학대하고 극히 잔인하게 굴며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았다. 그러면서 흉포하게 약탈을 일삼고, 악행을 저질렀으며, 양심을 내다 버리고, 무고한 인류를 유혹해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했다. 고대의 계승자니, 경애하는 지도자니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다! 세상을 농락해 어둠으로 밀어 넣었다! 무슨 종교와 신앙의 자유니,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죄악을 덮으려는 수법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누가 지지하더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피를 흘린 자 그 누구더냐? 조상 대대로 노예로 부림 받던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노예로 부른다. 그러니 어찌 분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천고의 원한이 마음에 맺히고, 만고의 죄악이 가슴에 응어리져 있다. 그러니 어찌 증오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위해 원한을 갚고, 하나님의 원수를 철저히 없애 버릴 것이다. 그들에게 계속 미쳐 날뛰고 제멋대로 발광해 보라고 해라! 이제 때가 왔다. 사람은 그 마귀의 추악한 물골을 벗겨 버리기 위해 일찍이 온몸의 힘을 모아 준비하였고 모든 심혈을 기울였으며 대가를 치렀다. 속임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그 아픔 속에서 떨쳐 일어나 이 악마를 저버리도록 말이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물샴틈없이 가로막는 것이냐? 어찌하여 갖가지 수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것이냐? 진정한 자유와 합법적인 권익이 어디에 있느냐? 공평이 어디에 있느냐? 위로가 어디에 있느냐? 따스함이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간계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것이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강령을 강제로 막는 것이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땅에서 마음대로 노닐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머리 둘 곳도 없게 쫓아가 죽이려는 것이냐? 인간 세상의 따스함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 세상의 환영은 또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게 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애타게 부르짖게 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걱정하게 몰아붙이는 것이냐? 어두운 사회와 궁지에 몰린 집 지키는 개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고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크나큰 고통을 감내하고 가슴 아프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골육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본 체도 하지 않는 것이냐? 너희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령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우정을 거절했다. 어찌하여 그리도 양심이 없는 것이냐? 이런 어두운 사회에서 너희는 억울함을 계속 참겠단 말이냐? 어찌하여 가슴에 천고의 원한을 품지 않고 마왕의 ‘배설물’을 채우는 것이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역과 진입 8> 중에서

[1] 사시이비[捕風捉影]: 말을 하거나 일을 할 때 허무맹랑한 것을 근거로 삼음을 비유함. 본문에서는 마귀가 사람을 해치는 수단을 가리킴.

[2] 경계가 삼엄[戒備森嚴]: 여기에서는 마귀가 사람을 해칠 때 매우 악랄한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을 꼼짝도 못 하게 통제하는 것을 가리킴.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13)

사람이 진정으로 인생의 바른길과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는 근본 취지를 꿰뚫어 본다면, 자신의 앞날과 운명을 마음에 담아 두며 보배처럼 여기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개돼지보다 못한 자신의 아비 어미를 보살피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운명과 앞날은 소위 현대판 베드로의 ‘아비 어미’가 아니겠느냐? 사람은 그들과 골육처럼 가깝다. 육의 종착지, 육의 장래라는 것이 과연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죽은 후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겠느냐? 육의 내일이 환난과 같은 커다란 풀무 불 속에 있겠느냐, 아니면 불사름 속에 있겠느냐? 사람의 육체가 화를 당할지 고통을 받을지에 관한 이런 문제들(여기서 고통받는다라는 것은 복을 얻는다라는 뜻이고, 고통은 장래의 시련이 사람의 종착지에 이롭다는 의미다. 화는 굳게 설 수 없거나 미혹되거나 재난 속에서 ‘불행히 어려움을 만나’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고 영혼이 적합한 종착지가 없음을 의미한다.)이 바로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는, 사고할 수 있고 이성을 지닌 모든 사람의 최대 관심사 아니겠느냐? 사람이 건전한 이성을 가지기는 했지만 늘 이성에 걸맞은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모두 멍하며, 맹목적으로 따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진입해야 하는 것에 대해 손바닥 보듯 훤히 알아야 하고, 환난 속(풀무 불의 연단 속을 의미한다)에서 진입해야 하는 것과 불의 시련 속에서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분명하게 갈피를 잡아야 한다. 개돼지와 같고 개미나 빈대보다도 못한 아비 어미(육을 가리킨다)를 계속 섬기지 마라. 어째서 굳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온갖 궁리를 다하며 애써 머리를 짜내는 것이냐? 육은 본래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제하고 사탄을 장악하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이다(원래는 사탄에게 속하지만 사탄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이 완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너는 육체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그 육체는 너에게 속한 것이더냐? 육체가 너에게 지배당하고 있더냐? 굳이 육을 위해 모든 마음을 쏟아부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미 오래전에 정죄받고, 저주받고, 더러운 귀신에게 더럽혀지고, 냄새가 나도록 썩어 버린 너의 육을 위해 애타게 하나님께 간청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탄의 패거리를 늘 가슴에 두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육 때문에 너의 진정한 앞날과 아름다운 소망, 인생의 진정한 종착지를 망치게 될까 봐 걱정되지 않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람을 경영하는 근본 취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14)

너희가 지금 깨달은 것은 온전케 되지 않은 역대의 그 누구보다 높다. 시련에 대한 인식이든 또는 믿음에 대한 인식이든 하나님을 믿는 그 누구보다 높다. 너희가 깨달은 것은 모두 환경의 시련을 겪기 전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의 실제 분량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으며 모든 깨달음이 실천에 앞선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복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기만을 원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너희가 삶에서 보여 주는 행동은 그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고 불순물도 너무 많다. 많은 이가 평안과 이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 이익이 없으면 믿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입을 비쭉거리니, 너의 말이 어찌 너의 실제 분량을 대표하겠느냐? 아이의 질병, 가족의 입원, 농작물의 수확 감소, 가족의 꾀박 등 평소에 벌어지는 피할 수 없는 가정의 변고, 즉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너는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일이 생기면 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하곤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너를 속였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를 조롱했다고 원망한다. 너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일들이 너희 가운데서 드물게 발생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온종일 이런 일들에 빠져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을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너희의 실제 분량은 너무나 작아서 그야말로 병아리만큼도 되지 않는다. 사업이 손해를 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원망하고, 심지어 집에 있는 병아리가 죽거나 외양간의 소가 병들어도 원망하고,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집에 돈이 없어도 원망한다. 접대하며 본분을 이행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도 원망한다. 너의 뱃속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도 않으며, 기약 없이 부정적인 상태로 지낸다. 지금 임한 이런 일들은 너의 미래나 운명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일어났을 일들이다. 그러나 너는 이 일들의 책임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고는 하나님이 너를 도태시켰다고 우긴다. 너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정말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느냐? 오늘날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 욕과 같은 시련을 준다면 단 한 명도 굳게 서지 못하고 다 넘어질 것이다. 너희와 욕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이다. 오늘날 내가 너희의 재산 중 반을 빼앗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자녀를 거둬 간다면 길거리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욕할 것이고, 얼마 안 되는 네 생계의 길을 막아 버리면 하나님과 결판을 내려고 할 것이다. 애초에 왜 그렇게 많은 말로 엄포를 놓았느냐며 너희는 무슨 일이든 저지를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너희는 참된 깨달음이 없고, 참된 분량 또한 전혀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받는 시련이 큰 것이다. 아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데 진정한 깨달음은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의 천 분의 일도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깨닫고 이해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말고, 자신이 얼마나 참되게 실행할 수 있는지, 자신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얻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실행으로 자신의 의지를 실현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너는 자신의 분량과 실행을 참답게 대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네가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너 자신의 추구에 달려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실행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15)

또 어떤 사람들은 외관을 번지르르하게 꾸민다. 자매들은 ‘한 송이 꽃’처럼 치장하고, 형제들은 귀공자나 부잣집 도련님처럼 멋을 내며 먹고 입는 등의 겉면의 것에 치중한다. 그러나 내적 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을 정도로 궁핍하기 그지없다.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밥 뵈어먹는 거지들처럼 입고 다니는데, 그런 자들을 보면 딱 동아시아의 노예 상(相)이다! 너희는 정녕 너희에 대한 내 요구를 모르는 것이냐? 너희가 대체 무엇을 얻었는지 서로 교제하고 나누어 보아라!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도 너희가 얻은 수확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낮부끄럽지도 않으냐?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냐? 참도에서 몇 년이나 추구했음에도 너희의 분량은 여전히 이토록 보잘것없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잘난 아씨들을 보아라. 하나같이 꽃처럼 치장하고는 서로 비교하고 있다. 대체 무엇을 비교한단 말이나? 누가 더 잘 누리고 있는지, 누가 더 많이 얻어 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내가 ‘모델’이라도 모집하러 온 줄 아느냐? 수치심도 없구나! 너희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모두 너희의 그 지나친 욕심이 아니더냐?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더없이 아름답다고 여긴다. 그러나 제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할지라도 너는 분토 속에서 굴러다니는 구더기가 아니냐? 오늘날 너희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내가 너희를 전례 없이 높여 주었기 때문이지, 너희의 그 ‘잘난 얼굴’ 때문이 아니다. 네 출신을 아직도 모르느냐? 생명에 대해 말하면 너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한 마디도 못하면서 앓아서 치장이나 하고, 얼굴에 분칠할 생각이 드느냐? 또 너희 가운데 있는 한량들을 보아라. 온종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돼먹지 못하게 행동하면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전혀 단정치 않다. 거기에 사람의 모양이 있느냐? 남녀를 막론하고, 너희 각자가 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누구 덕에 밥을 먹고 있는지 모르느냐? 내가 입고 있는 옷과 네 손에 들린 수확물, 그리고 너의 그 배를 만져 보아라. 이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심혈의 대가로 얻은 결실은 무엇이나? 그런데도 여기저기 놀러나 다니고 냄새 나는 몸뚱이를 꾸밀 생각이 드느냐?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이나! 정상인이 되라고 했거늘, 지금의 너는 정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그런 주제에 무슨 낮짝으로 내 앞에 서는 것이냐? 자신의 자태를 뽐내고 육체를 드러내며, 늘 육체의 정욕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인성을 보면 네가 바로 더러운 귀신과 악령의 후예가 아니냐? 나는 이런 더러운 귀신을 오래 살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네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를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네가 정욕과 육체를 방종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네가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네 눈이 무엇을 탐내고 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너희 아씨들이 꽃처럼 단장하는 이유는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냐? 남자들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그들이 진정 너희를 이 고해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또한, 너희 한량들이 번지르르하게 멋을 내는 것은 전부 자신의 ‘멋들어진 용모’를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냐? 그것은 또 누구를 위함이나? 여인들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너희를 죄짓게 하는 근원이 아니더냐? 나는 너희 모든 남녀 족속들에게 적지 않은 말을 했지만, 너희가 듣고 따른 것은 극히 적다. 너희는 귀가 먹었고, 눈이 흐려졌으며, 마음은 강박하고, 나아가

온몸은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구나. 오물 속에서 굴러다니는 너희 구더기들에게 누가 다가가고 싶겠느냐? 명심해라. 너희는 내가 분토 속에서 들어 올린 존재로, 원래 정상 인성이 없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것은 정욕을 과시하라는 것도, 마귀에게 오랜 세월 조련된 그 냄새 나는 육체를 방종하라는 것도 아니라 너희가 원래 갖추지 못한 ‘정상 인성’을 갖추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치장하는데, 더 깊이 빠질까 두렵지 않느냐? 너희는 본디 죄에 속한 자들이다. 그것을 모른단 말이나? 너희의 온몸은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도 모른단 말이나? 나아가 그 정욕이 너희의 옷을 적시며 스며 나와 추악하기 이를 데 없는 귀신의 몰골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너희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 아니냐? 너희의 마음, 너희의 눈, 너희의 입술은 모두 더러운 귀신에게 더럽혀지지 않았느냐? 전부 불결한 것이 아니냐? 너는 일만 저지르지 않으면 자신이 누구보다 성결한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겉으로 화려한 옷을 차려입으면 너희의 그 더러운 영혼을 가릴 수 있다고 여기느냐? 어렵었다! 거짓을 꾸며 낼 생각도, 자신의 용모를 뽐낼 생각도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라. 너희는 서로 정욕을 드러내지만, 그 대가로 얻는 것은 영원한 고통과 무정한 채찍질이다! 그런데 서로 추파를 던지며 연애질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이 너희의 올곧음이나? 그것이 너희의 강직이며 절개더냐? 나는 너희들 중 술객 따위들과 자신의 육체를 사랑하는 젊은 남녀들을 혐오한다. 그러니 가능한 한 인내심을 발휘하는 게 좋을 것이다. 지금 너희에게 정상 인성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자신의 정욕을 드러내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는 틈만 나면 언제든 기회를 이용하려 하는데, 그것은 너희에게 육적인 것이 너무 많고, 정욕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실행 7>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16)

현재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너희가 추구하는 것에 성과가 있는지를 가늠하고, 그것으로 너희의 결말을 정할 것이다. 즉, 너희가 치른 대가와 너희가 행한 것들을 통해 너희의 결말을 드러낸다는 말이다. 나는 너희가 추구하는 것과 너희의 믿음, 너희가 행한 것으로 너희의 결말을 드러낼 수 있다. 너희들 중 수많은 사람이 이미 구제 불능 상태이다. 이제 사람의 결말을 드러낼 때가 되었으므로 나는 어리석게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전혀 구제할 방법이 없는 사람을 다음 시대로 인도하지도 않을 것이다. 사역도 결국엔 끝이 있는 법이다. 나는 전혀 구제할 방법이 없는, 찢어 빠져 영이 없는 시체에게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사람을 구원하는 마지막 때이니 그렇게 불필요한 사역은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원망이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인 흐름이다. 일이 이미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바꾸고 싶다고 바꿔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제, 너는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 대가를 치르지 않았고, 충성을 다하지도 않았다. 오늘은 이미 때가 도래했으니 너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내일이 되면 너는 내쳐질 것이고, 그러면 구원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설령 내 마음이

약해져 온 힘을 다해 너를 구원한다고 할지라도 너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 노력하지도, 생각하지도 않는데 내가 뭘 어쩔 수 있단 말이나? 늘 자신의 육체를 위해 계산하고 편안함을 즐기는 자, 반신반의하는 자, 더러운 주술과 사술(邪術)을 부리는 자, 행음하고 추하기 그지없는 자, 여호와의 제물을 흠쳐 먹고 여호와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자, 뇌물을 좋아하는 자, 천국에 가기를 꿈꾸는 자, 거만하고 건방지며 자신의 명리를 위해 싸우는 자, 망령된 말을 퍼뜨리는 자, 하나님 자신을 모독하는 자, 늘 하나님 자신을 논단하고 비방하는 자, 패거리를 짓고 독립을 꾀하는 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자, 음란한 짓거리에서 빠진 경박한 젊은 남녀와 중·노년 남녀, 사람들 가운데서 개인의 명리와 지위를 탐하는 남자와 여자들, 죄악에 빠져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다 구제 불능 아니겠느냐? 음란과 죄악, 주술, 사술, 모독의 말, 망령된 말이 너희들 가운데서 성행하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너희들 가운데서 짓밟혔으며, 거룩한 말씀은 너희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다. 더러움과 패역으로 가득한 이방의 족속들아! 너희의 결말이 어떨 것 같으냐? 육체를 탐닉하고, 육적인 사술을 부리며, 음란한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이 무슨 낮잠으로 살아간단 말이나? 너희들이 이미 구제 불능의 구더기임을 모른단 말이나?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저런 요구를 한단 말이나?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오직 육체만 탐닉하는 자들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생명의 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거나 증거하지 않으며, 자신의 지위를 도모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가 아니더냐? 그들을 구원할 가치가 있겠느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얼마나 관록이 있는지, 얼마나 오래 사역했는지에 달린 것이 아니며, 경험이 얼마나 풍부한지에 달린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너의 추구에 결실이 있는지에 달렸다. 구원받는 사람은 꽃이 흐드러지고 이파리가 무성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임을 너는 알아야 한다. 네가 오랜 세월 거리를 떠돌아다녔다 한들 그게 어쨌단 말이나? 너의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네 마음은 너 자신을 사랑하고 정욕을 탐하는 마음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인간 말종이 아니겠느냐? 그런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 표본이나 모델이 될 수 있겠느냐? 너의 본성은 바뀌기 힘들고, 너의 패역은 너무나 많아 구제할 방도가 없다! 이런 사람이 바로 도태될 대상이 아니냐? 나의 사역이 끝날 때가 바로 너의 마지막 날이 임할 때가 아니겠느냐? 나는 너희 가운데서 수많은 사역과 말을 했다. 너희는 그중 얼마나 귀담아들었느냐? 얼마나 순종했느냐? 내 사역이 끝날 때가 바로 나에 대한 너의 대적과 대립이 끝나는 시점이다. 내가 사역하는 동안 너희는 늘 내게 반기를 들었고, 한 번도 내 말대로 하지 않았다. 나는 내 사역을 하고 너는 자신의 ‘사역’을 하며,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세웠다. 짐승 같은 너희들은 극력 내게 맞서 왔다! 언제나 너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품으로 끌어들이려 하는데, 너희의 경외심은 어디로 간 것이냐? 속임수뿐이구나! 기만과 모독뿐, 순종과 경외는 찾아볼 수도 없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음란한 것을 좋아하는 호색한들은 늘 요염한 음녀들을 품으로 끌어와 ‘누리려’ 한다. 나는 그런 음란한 귀신들을 절대로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처럼 더러운 귀신들을 빼에

사무치도록 증오한다. 너희의 '색정'과 너희의 '요염'이 너희를 지옥에 떨어뜨릴 텐데, 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더러운 귀신, 악령 같은 너희는 한없이 가증스럽다! 보기만 해도 역겹구나! 그런 천한 것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오늘날 이러한 진리와 길, 생명은 너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고, 오히려 그 죄악과 재물, 지위, 명리, 육체의 쾌락, 남자의 용모, 여자의 요염함이 너희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런데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내 나라에 들어오겠단 말이나? 너희의 형상은 하나님보다 크고, 너희의 지위는 하나님보다 높다. 사람들 가운데서의 위세와 명망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너희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천사장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의 결말을 드러낼 때가 되면, 즉 구원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면, 반드시 너희 중 수많은 사람이 도태될 것이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시체들이기 때문이다. 구원 사역 기간에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온화한 얼굴을 보여 주겠지만, 사역이 끝나고 각 부류 사람들의 결말이 모두 드러나면 더 이상 그런 모습은 없을 것이다. 사람의 결말이 전부 드러나고, 모두가 각기 부류대로 나뉠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의 시대가 지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므로 그때는 더 이상 구원 사역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실행 7>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17)

사람은 계속 흑암 권세의 그늘에 살고 있다. 사탄의 권세에 얽매어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사탄에게 가공된 성품은 점점 더 파괴되고 있다. 사람은 늘 사탄의 파괴 성품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독선적이고,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등 사탄에게 속하는 모든 성품을 반드시 벗어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의 사랑은 전부 불순물이 섞인 사랑이자 사탄의 사랑이기에 절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성령에게 직접 온전케 되고 책망받고 깨지고 훈계와 징계, 채찍질, 연단을 받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일 네 어떤 성품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너는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요, 그릇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바로 천사장이다! 사람의 천성은 하나님을 직접 대변할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 온전케 되어 천성을 벗어 버린 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만족게 하며 나아가 성령의 역사를 거쳐야 사람이 살아 내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육으로 사는 자 중에 하나님을 직접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은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의 성품과 살아 내는 모습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가 살아 내는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만 할 수 있을 뿐, 그 사람의 성품 또한 하나님을 대변할 수는 없다.

사람의 성품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 하나님이 정한 것이므로 긍정적인 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성품은 또 사탄의 가공을 거쳤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성품이 다 사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한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성품처럼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 그런 성격이 있다며, 자신의 그런 성품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어떤 사람이나? 사탄의 패괴 성품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자신의 성품이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이며, 성령을 모욕하는 자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방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땅에서 하는 사역은 그저 정복 사역일 뿐이다. 그렇기에 사람이 지닌 사탄의 수많은 패괴 성품이 아직 정결케 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그렇기에 사람은 여전히 사탄의 형상, 즉 자신들이 좋다고 여기고 육적인 행위를 대표하는 것들을 살아 내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사탄을 대변하는 것일 뿐, 결코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다. 설령 누군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땅에서도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을 누리고, “하나님, 저는 아무리 당신을 사랑해도 부족하기만 합니다.”라는 말도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정도가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살아 내고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람과 하나님은 본질이 다르기에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살아 낼 수 없고 하나님이 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지배 속에서 살아 내는 것 또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따른 것일 뿐이다.

사탄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지금 사람의 모든 행위는 다 사탄의 발현이므로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다. 사람이 바로 사탄의 화신이므로 사람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할 수 없다.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그의 성격을 통해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의 성품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은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도구로 쓴 것뿐이다. 역대 선지자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직접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모두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뿐, 자발적으로 노력하며 협력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사물이란 무엇이나? 하나님에게서 직접 온 것은 다 긍정적인 사물이다. 하지만 사람의 성품은 모두 사탄의 가공을 거쳤으므로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다. 오직 성육신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받는 의지, 공의, 순종 그리고 낮춤과 감춤만이 하나님을 직접 대변한다. 이것은 그가 죄짓는 본성을 지니지 않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사탄의 가공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는 단지 죄 있는 몸의 형상만 지녔을 뿐, 결코 죄를 대변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그의 모든 행사, 일언일행,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이루기 전까지(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 포함) 모든 것이 직접 하나님을 대변한다. 예수의 예로 증명된 것이 있다. 바로 죄짓는 본성을 지닌 존재는 모두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으며, 사람의 ‘죄’의 일면은 사탄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죄는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으며 하나님에게는 결코 죄가 없다. 사람에게 행해지는 성령의 역사 부분도 성령의 지배라고 할 수 있을 뿐, 하나님을 대표해 사역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을 놓고 말했을 때, 사람의 죄와 성품은 하나님을 대변하지 않는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성령이 사람에게 행한 역사를 보면,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했기에 사람이 진리를 살아 낼 수 있었다. 성령의 책망과 징계를 받은 뒤에 진리를 살아 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말하자면 성령이 역사한 요소만 있고 사람이 협력한 요소는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성령이 역사할 때, 너는 어떻게 전력으로 협력하며 너의 본분을 이행해야 하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폐괴된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18)

네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서 너의 사람됨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실제로부터 출발하고 현실을 마주해야지 허무맹랑한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사람으로서의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인생의 의미까지 없어진다. 너의 추구하고 인생은 그저 허망함과 기만 속에서 덧없이 흘러갈 뿐이고, 네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진리와 무관한 그릇된 이치밖에 얻지 못한다. 그런 것들은 너를 공허한 상태에 빠지게 할 뿐, 네가 생존하는 의미나 가치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이렇게 되면 너의 일생은 그 어떤 가치도 의미도 없게 될 것이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너는 한평생을 헛되이 보내게 될 텐데, 그런 삶을 어떻게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은 말 그대로 짐승이 아니냐?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길을 가려고 하지만, 보이는 하나님은 추구하지 않고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만 숭배한다면, 이것은 더욱 헛된 추구가 아니냐? 네가 추구하는 바는 결국 잿더미로 변할 텐데, 그런 추구가 너에게 또 무슨 이로움이 있겠느냐? 사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들만 사랑한다는 점이다. 그런 것은 신묘하기 그지없고, 상상하기도 어려우며, 평범한 사람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 비현실적인 것일수록 사람은 더 분석하며, 만사를 제쳐 두고 추구하면서 그것을 얻으려는 망상까지 한다. 또한, 그런 비현실적인 것일수록 사람은 더 자세히 생각하고 분석하며, 심지어 치밀하게 구상하기까지 한다. 이와 반대로, 현실적인 것일수록 사람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심지어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다. 오늘날 행하는 나의 현실적인 사역에 대한 너희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현실적인 것일수록 너희는 더 경시하고, 그것을 알아볼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으며, 아예 거들떠보려 하지도 않는다. 너희는 기준이 낮은 이런 현실적 요구를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심지어 가장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그의 실제와 정상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다면 너희의 믿음은 모두 막연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이전의 막연한 하나님은 그토록 굳게 믿었으면서도 오늘날의 실제 하나님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것은 어제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다른 시대의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냐? 어제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늘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땅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냐? 사람이 숭배하는 하나님은 관념 속에서 탄생한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은 땅에서 탄생한 실제적인 육신이기 때문이 아니냐? 결국, 오늘날의 하나님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사람이 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오늘날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사람이 가장 하기 싫어하고 또 난감해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난처하게 하고, 또 일부러 자신들의 허물만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그래서 현실을 추구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성육신 하나님의 원수, 즉 적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 아니냐? 이전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지 않았을 때, 너는 단지 종교인이거나 경건한 신자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육신한 후, 경건했던 많은 신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새에 적그리스도가 되었다. 어찌 된 일인지 그 원인을 아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현실을 중요시하지 않았고, 진리도 추구하지 않았으며, 공허한 것에만 매달렸다. 이것이 바로 네가 성육신 하나님의 원수가 된 가장 뚜렷한 원인이 아니냐? 성육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믿고 사랑하는 분이 정말 육신에 거하는 이 하나님이 맞느냐? 현실을 가장 중요시하고 ‘유달리’ 정상적이며 생생하게 살아 계신 이 하나님이 맞느냐? 네가 추구하는 목표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늘이냐, 아니면 땅이냐? 고정 관념이냐, 아니면 진리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신선이냐? 사실, 진리는 가장 실제적인 것이고 인류의 최고 인생 격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자 하나님 자신이 직접 행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생 격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격언은 종합해 낸 것도 아니고 위인의 명언도 아니라 천지 만물의 주재자가 인류에게 발한 음성이다. 또한 사람이 이것저것 종합해서 생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최고의 인생 격언’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이 진리 실행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요구’의 본질은 가장 현실적인 진리이지, 그 누구도 이를 수 없는 공허한 이치가 아니다. 네가 추구하는 것에 이치만 넘쳐 나고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면, 너는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자는 진리를 반대하며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일 수 있겠느냐? 실체가 없는 이 사람들은 모두 진리를 배반한 자이자 패역한 천성을 가진 자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흡족게 할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19)

너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고 하나님의 눈에 들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다. 사람은 항상 높은 것을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뒤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 많은 이들이 시종일관 하늘의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 한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충성심과 진심은 너희 자신에 대한 충성심과 진심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충성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너희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더더욱 부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너희가 경배하는 하나님, 너희가 앙모하는 막연한 하나님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내가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졌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충성심을 지닌 이유는 너희 마음속에 또 다른 우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보기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나, 하나님은 말로만 인정할 뿐이다.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졌다는 말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거리는 한없이 멀고, 막연한 하나님과는 눈앞에 있는 듯 가깝다는 의미이다. ‘크지 않다’라 함은 오늘날 너희가 믿는 이 하나님이 별 대단한 ‘능력’도 없는 사람, 그리 위대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작지 않다’라 함은 이 사람이 비바람을 불러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불러 경천동지할 사역을 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너희가 땅 위의 그리스도에게 충실히 복종하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 너희는 그를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바꿔 말해, 너희가 진정으로 믿는 존재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막연한 하나님이요, 너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는 너희가 밤낮으로 그리면서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하나님이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의 믿음은 미미하기 짝이 없고, 그에 대한 너희의 사랑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믿음이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랑이란 마음속으로 연모하고 앙망하면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음을 뜻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믿음에 대해 말하면 너희는 어떻게 그를 믿고 있느냐? 사랑에 대해 말하면 너희는 또 어떻게 그를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는 그의 성품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의 본질은 더더욱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를 믿은 것이냐? 너희가 그를 믿는 실체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어떻게 그를 사랑한 것이냐? 너희가 그를 사랑하는 실체는 어디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오늘날까지 나를 따라왔다.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너희도 적지 않은 ‘피로’의 고난을 받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천성과 취향에 대해 더없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 너희와 일일이 상대하는 것은 몹시도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나는 너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너희는 정작 나에 대해 조금도 아는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순간의 어리석음으로 어떤 이의 꾀에 빠졌다는 말을 듣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확실히, 너희는 나의 성품을 모르고, 나의 마음은 더더욱 읽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에 대한 너희의 오해는 설상가상으로 커지고 있고, 너희의 믿음은 여전히 어리석기만 하다.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보다는 나에게 잘 보이려 하고 아첨을 한다는 게 낫겠다. 너희의 목적은 아주 단순하다. 누구든 나에게 상을 주는 사람을 따르고, 큰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는 사람을 믿을 뿐, 그가 하나님이건 아니건, 어떤 하나님이건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매우 많으며, 이런 상태 또한 아주 심하다. 어느 날, 너희 중 그리스도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그를 믿는 자가 몇이나

될지 테스트해 본다면, 아마 내 기대에 부합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다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는 거리가 매우 먼데,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본질은 무엇이나? 너희가 하나님이라 이르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너희는 나와 점점 더 멀어지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또 무엇이나? 너희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희의 그런 믿음의 결과는 어떨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땅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20)

나는 타인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고, 기꺼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매우 좋아한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보살피는데, 내 눈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네가 매우 간사한 사람이라면 너는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경계하고 추측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너의 믿음 역시 의심의 토대 위에 세워졌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나는 영원히 인정할 수 없다. 참된 믿음이 없다면 참된 사랑은 더욱 논할 것도 못 된다.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제멋대로 추측하기까지 한다면, 너는 틀림없이 누구보다 간사한 사람일 것이다. 너는 ‘하나님도 사람처럼 죄 사함을 못 받지는 않을까, 사람처럼 속이 좁지는 않을까, 사람처럼 불공평하고 불합리하지 않을까, 사람처럼 정의감이 없지 않을까, 사람처럼 수단이 악랄하고, 음험하고 간교하지 않을까, 사람처럼 사악함과 흑암을 좋아하지는 않을까....’라고 의심을 한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한 믿음은 그야말로 죄업을 쌓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이는 내가 비위를 잘 맞추고 아첨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들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환대를 받지도, 발을 붙이지도 못할 것이라고 여긴다. 이것이 바로 오랜 기간 동안 너희가 얻은 인식이더냐? 이것이 바로 너희가 얻은 수확이더냐? 너희가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오해에 그치지 않는다.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고 하늘을 능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그런 믿음이 너희가 내게서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너희가 나를 더욱 적대하게 만들 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 해 동안의 사역을 통해 너희도 수많은 진리를 보고 접했다. 그러나 내 귀에 들리는 것들이 전부 무엇인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너희 중 기꺼이 진리를 받아들이려는 자가 몇이나 되느냐? 너희는 하나같이 자신이 진리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를 의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진리를 위해 고난받은 자가 몇이나 되느냐?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는 불의뿐이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나 다 똑같이 간사하고 교활하다고 생각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이 입은 육신까지도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선한 마음과 인자한 사랑이 없다고 여긴다. 나아가 고상한 품성이나 인자하고 자비로운 본성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런 성인(聖人)은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은 어둠과 사악이 권력을 잡고 있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아름다운 소망의 정신적 존재이자 사람이 만들어 낸 전설 속

인물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너희 마음속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매우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또한 너무도 위대하여 경배하고 앙망할 가치가 있는 분이지만,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대역이자 도구일 뿐이다. 너희는 이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과 절대 동등한 분이 될 수 없으며, 같은 선상에서 논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여긴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존귀함을 얘기할 때면 그것은 전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고, 사람의 본성과 패괴에 대해 논할 때면 땅에 있는 이 하나님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여긴다. 하늘의 하나님은 영원히 위대한 반면, 땅의 하나님은 영원히 하찮고 연약하며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은 사사로운 감정 없이 언제나 공의로운 반면, 땅의 하나님은 전혀 공평하거나 합리적이지 않고 사사로운 마음뿐이라는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은 전혀 교활하지 않고 영원히 신실한 반면, 땅의 하나님은 정직하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은 사람을 지극히 아끼는 데 반해 땅의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보살핌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상관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그릇된 인식은 너희 마음에 이미 오랫동안 자리해 왔으며, 너희는 앞으로도 이 잘못된 인식을 유지할지도 모른다. 너희는 불의한 자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일을 바라본다. 또한 악인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그의 신분과 본질을 평가한다. 너희는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고, 이전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하고 말았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지금까지 면류관을 쓴 하늘의 위대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보잘것없어 눈에 띄지 않는 이 하나님은 ‘시중’조차 든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죄행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른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겠느냐? 너희는 하늘의 하나님을 매우 숭배하고, 위대한 형상을 아주 숭상하며, 비범한 말재주를 가진 사람을 무척 존경한다. 너희 두 손에 재물을 가득 채워 주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고, 무엇이든 너희 뜻에 딱 맞는 하나님을 그리워한다. 네가 유일하게 숭배하지 않는 대상은 바로 이 위대하지 않은 하나님이며, 유일하게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도 높이 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유일하게 원치 않는 것은 이렇게 지금까지 너에게 한 톨도 주지 않은 하나님을 위해 힘쓰는 것이다. 또한, 네가 그리워할 수 없는 대상은 바로 이 사랑스럽지 않은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은 너의 시야를 넓혀 주지도, 너에게 보물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을 주지도 못하며, 네가 원하는 것을 이뤄 주지도 못한다. 그런데 너는 왜 그를 따르느냐? 너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의 행위는 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다. 내 생각엔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아닐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땅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21)

너희는 몹시 하나님의 기쁨을 사고 싶어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것은 어찌 된 일이나? 너희는 그의 말씀만 받아들일 뿐, 그의 책망과 훈계는 받아들이지

않으며, 더욱이 그의 모든 안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완전히 믿지도 못한다. 이것은 또 어찌 된 일이나? 결국 너희의 믿음은 영원히 병아리가 나올 수 없는, 속이 텅 빈 달걀과 같다. 너희의 믿음이 너희에게 가져다준 것은 진리와 생명이 아니라 뜯구름과도 같은 기대와 희망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바로 그 기대와 희망을 위한 것이지 진리와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그저 부끄러움도 모른 채 비굴하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만 하는 것으로, 아예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한 믿음에서 어떻게 병아리가 나오겠느냐? 다시 말해, 그러한 믿음이 어떻게 결실을 맺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을 이용해 너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하늘의 하나님의 존재는 믿으면서 땅의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한다. 하지만 나는 너희의 그런 관점을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착실하게 땅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을 인정하며, 땅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는 인정할 적이 없다. 그런 자들은 아무리 하늘의 하나님께 충성한다 해도 결국에는 악한 자를 징벌하는 내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바로 악한 자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 한 번도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순종한 적이 없는 악한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또한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된다. 너는 하늘의 하나님께 충성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에게는 제멋대로 해도 되는 줄 아느냐? 틀렸다! 네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네가 아무리 하늘의 하나님께 충성해도 그것은 전부 공허한 외침이며 거짓일 뿐이다. 땅의 하나님은 사람이 진리를 얻고 더 깊은 인식을 얻는 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그 뒤에 사실을 파악하여 악한 자를 징벌하는 데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너는 알아들었느냐? 체험했느냐? 나는 너희가 하루빨리 다음과 같은 진리를 깨닫기만을 바란다. 즉, 하나님을 알려면 하늘의 하나님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땅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중을 분간하지 못해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 하나님의 마음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소원하다면, 나는 네가 분명 하나님의 성품을 자주 거슬렀을 것이며, 너의 결말은 짐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오랜 세월 나와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성과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기는커녕 나쁜 습관이 몸에 배고, 교만이 배가될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오해가 가중되어 심지어 나를 너의 소꿉친구로 여긴다면, 너는 이미 걸만 병든 것이 아니라 골수까지 병들었으니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더 이상 내게 찾아와 너의 하나님이 되어 달라고 간구할 필요도 없다. 너는 이미 용서받지 못할 죽을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네 목숨을 거두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른 일은 보통 문제가 아닌, 상당히 심각한 성질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어 왜 진작 알려 주지 않았느냐고 원망하지 말라. 여전히 말했던 대로다. 네가 그리스도, 땅의 이 하나님을 보통 사람처럼 취급하고 함께

지낸다면,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이 그저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너는 황천길로 갈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 모두에게 하는 유일한 충고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땅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22)

사람에게는 그저 있는 듯 없는 듯한 ‘믿음’밖에 없다.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왜 믿어야 하는지는 더더욱 모른다. 사람은 아는 것이 너무 없고 부족함도 너무 많다. 그저 무지몽매하게 나를 믿을 뿐이다. 믿음이 무엇인지, 왜 나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데도 ‘집요하게’ 나를 믿고 있다. 내가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이처럼 어리석게 내게 간구하거나 아무렇게나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나를 알게 하려는 것이지, 결코 내 사역으로 나를 달리 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수많은 권능도 행했던 적이 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게 매우 ‘탄복’했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나의 뛰어난 능력을 몹시 흠모하기도 했다. 당시 유대 백성은 내가 의술이 뛰어나고 범상치 않다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나의 그 많은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를 앙모하고 나의 그 모든 능력을 참으로 부러워하였다. 그리하여 내가 행한 권능을 본 자들은 나를 가까이 따르기 시작했으며, 수천 명이 나를 둘러싸고 내가 병자를 고쳐 주는 것을 보기도 했다. 내가 그토록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음에도 사람은 나를 훌륭한 의사로만 생각했고, 내가 많은 말로 당시 사람들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나를 제자보다 뛰어난 스승으로만 생각했다. 오늘날 사람은 내가 행한 사역의 역사적 기록을 보았음에도, 그 성경 구절에서 나를 병 고쳐 주는 ‘대단한 의사’, 무지한 자들의 ‘스승’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또 나를 ‘인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은 나의 ‘의술’을 뛰어넘고 심지어는 이미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가 되었지만, 의아하게도 그렇게 명망 높고 명성이 자자한 자들이 나를 보잘것없는 의사로 과소평가하고 있다. 내 행사가 해변의 모래알보다 많고, 내 지혜가 높디높아 모든 ‘솔로몬의 자손’을 능가하지만 사람은 나를 그저 하찮은 의사라고 믿고, 또 사람을 가르치는 무명의 스승이라고 믿는다. 많은 사람이 그저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나를 믿고, 많은 사람이 그저 나의 능력을 빌어 자기 몸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나를 믿는다. 또 많은 사람이 그저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 나를 믿고, 많은 사람이 그저 내게서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얻어 내기 위해 나를 믿는다. 많은 사람이 오직 이생을 무사히 보내고 내세에 무탈하기를 바라면서 나를 믿고, 많은 사람이 지옥의 고통을 피하고 천국의 복을 얻기 위해 나를 믿는다. 또 많은 사람이 내세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일시적인 편안함을 위해 나를 믿는다. 내가 사람에게 분노해 원래 사람에게 있던 기쁨과 평안을 거두어 가자 사람은 모두 의심하였다. 내가 천국의 복을 거두고 지옥의 고통을 주자 사람은 분노하였다. 사람이 내게 병을 고쳐 달라고 할 때 내가 모른 척하고 혐오하자, 사람은 내게서 멀리 떠나 더러운 무당을 찾아갔다. 사람이 내게서 얻어 낸 것을 내가 다

거두어 가자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나를 믿는 것은 나의 은혜가 매우 많기 때문이며, 나를 믿으면 이로운 점이 아주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유대 족속은 나의 은혜 때문에 나를 믿었고 곳곳에서 나를 따랐다. 그 무지하고 식견이 좁은 자들은 그저 내가 나타내는 이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 나를 따랐다. 그들은 나를 유대 족속 중 가장 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지도자로 여겼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을 때, 의견이 분분했다. 그들은 나를 엘리야 또는 모세라고 하고 가장 오래된 선지자라고도 했으며, 또 최고의 의사라고도 했다. 나 스스로 내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고 했을 뿐, 나 외에는 누구도 나의 어떠함과 신분을 알지 못했다. 나 스스로 하늘은 본디 내 아버지가 거하는 곳이라고 말했을 뿐, 나 외에는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임을 알지 못했다. 또 나 스스로 내가 전 인류를 구속하고 속량하리라고 말했을 뿐, 나 외에는 누구도 내가 인류의 구속주임을 알지 못했다. 사람은 그저 나를 인자한 사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다. 내 모든 것을 전부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나 자신일 뿐, 사람은 모두 나를 알지 못했고,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다. 사람은 그저 이렇게 나를 믿고 있고, 또 이렇게 나를 기만하고 있다.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믿음’에 대해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23)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지는 오래됐으나 대부분 ‘하나님’이란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흐리멍덩하게 따를 뿐, 대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또는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른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할 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큰 웃음거리 아니겠느냐?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천상의 비밀을 보고, 이제껏 이해하지 못했던 높은 수준의 ‘지식’을 수없이 들었지만, 가장 알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수많은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어쩌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 온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모르겠어요? 사람 얹잡아 보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사실 사람은 지금 나를 따르고 있으면서도 오늘날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지 못한다.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문제도 그냥 흘려보내는데, 하물며 가장 복잡한 ‘하나님’ 같은 문제는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너는 마땅히 이 점을 알아야 한다. 네가 관심을 두지 않는 문제,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야말로 네가 가장 잘 알아야 할 문제이다. 너는 큰 흐름을 따르는 것만 알 뿐 네가 갖추어야 할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아느냐? 정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정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존엄성을 잃은 것 아니겠느냐? 오늘날 내가 하는 사역은 사람에게 인간 본질과 나의 모든 행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는 경륜의 마무리이자 내 사역의 마지막 단계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인생의 모든 비밀을 미리 알려 주어 내게서 받아들이게 하려 한다. 이는 말세 시대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너희가 받아들인 적 없는 모든 생명 진리를 반드시 너희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너희는 너무도 부족하고, 갖춘 것이 몹시 적기 때문이다. 어둠이 닥쳤을 때 너희가 또다시 길을 잘못 들어 악한 자의 간계에 빠지지 않도록, 나는 해야 할 사역을 다 하고,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모두 전하여 사역을 끝내려 한다. 너희는 깨닫지 못한 도가 너무 많고 알지 못하는 일도 한없이 많다. 너희는 너무 무지하다. 나는 너희의 분량과 부족함을 잘 알고 있기에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이 많다 해도 너희가 지금까지 받아들인 적 없는 모든 진리를 알려 주고자 한다. 지금 너희의 분량으로 나를 위해 굳게 설 수 있을지 늘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너희를 알보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모두 나의 정식 교육을 거치지 않은 우마 부류이며, 너희에게서 과연 어느 정도의 영광이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내가 많은 정력을 쏟아 너희에게 사역하였음에도 적극적인 요소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소극적인 요소도 손뼉을 정도로, 겨우 사탄에게 치욕을 주는 간증만 할 뿐이다. 나머지는 거의 다 사탄의 독소이니 내 눈에 너희는 구제 불능처럼 보인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러 나는 너희의 갖가지 표정과 태도를 보고 나서야 너희의 진짜 분량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늘 너희를 염려한다. 사람이 혼자 살아간다면 정말 오늘보다 낫거나 오늘과 비슷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자신의 작은 분량이 걱정되지 않느냐? 너희는 정말 이스라엘 선민처럼 언제나 나에게 일편단심일 수 있느냐? 너희가 드러내는 것은 부모에게서 벗어나려는 어린애의 장난기가 아니라 주인의 채찍을 벗어나기 위해 분출하는 우마의 야성이다. 너희는 너희의 본성이 너희, 모든 사람의 약점이자 공통적인 병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유일한 당부는 절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굳게 서서 나를 증거하라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내 사역의 중심이다. 너희는 내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 마리아가 꿈에서 여호와와의 계시를 받아들인 것처럼 믿고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정결’이다. 너희는 나의 말을 가장 많이 들었으므로 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자들이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귀중한 재산을 주었고, 모든 것을 베풀었다. 너희의 지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위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지만 너희는 그들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을 얻었다. 그들은 나의 출현을 고대했으나 너희는 나와 함께 좋은 나날을 보내며 나의 풍성함을 누렸다. 그들과 비교했을 때 너희는 무슨 자격으로 나와 다투고 재산을 쟁탈하려 하느냐? 너희가 얻은 것이 아직도 적단 말이나? 나는 너희에게 아주 많은 것을 주었지만 너희가 돌려준 것은 가슴 시린 슬픔과 걱정, 그리고 억누르기 힘든 울분이다. 나는 너희가 너무나 밋지만, 한편으로는 또 안쓰럽다. 그래서 모든 분노를 참으며 너희에게 거듭 저항할 수밖에 없다. 나는 수천 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번도 인류에게 항의한 적이 없다. 인류가 오늘날까지 발전해 오면서 나는 너희의 ‘기만책’만이 가장 유명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명성 높은 옛 ‘선조’가 너희에게 남겨 준 귀중한 유산 같다. 나는 이런 비인간적인 개돼지 부류를 실로 증오한다. 너희는 너무 양심이 없다! 너희의 인격은 너무도 저열하다! 너희의 마음은

너무나 강박하다! 나의 이런 말과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가져갔다면 벌써 영광을 얻었겠지만 너희 가운데서는 불가능하다. 너희에게는 무자비한 매장과 차가운 눈빛, 책임 전가만 있을 뿐이다. 너희의 감각은 지나치게 마비됐고 너무도 무가치하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에 대해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24)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의 진정한 함의를 깨달아야 한다.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의 함의는 모두 너희의 긍정적인 진입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오늘은 그때와 달리, 너희의 믿음에 대한 본질을 분석하려 한다. 물론 이것은 부정적인 면에서부터 너희를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자신의 진면목을 영원히 알지 못한 채, 스스로가 경건하고 충성스럽다며 끝없이 과시할 것이다. 내가 너희 마음속 깊은 곳의 추한 모습을 들추어내지 않는다면, 너희는 저마다 면류관을 제 머리에 씌우고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릴 것이라는 의미다. 너희는 오만 방자한 본성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었으며,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대적하였다. 또한 너희의 그 추악한 몰골이 드러나면서 너희의 속셈과 생각, 사치스러운 욕망과 탐욕스러운 두 눈도 빛 속에 드러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말끝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한평생 몸 바치겠다고 외치고, 그가 일찍이 말씀했던 진리를 입에 달고 살면서 끊임없이 되뇌다.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 바로 너희의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믿음’이다. 예로부터 사람에게 대한 내 요구는 매우 엄격했다. 네 충성심에 다른 속셈이나 조건이 있다면, 나는 너의 그 소위 충성심을 차라리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람이 저의를 지닌 채 나를 기만하고, 조건을 내밀며 뭔가 얻어 내려는 것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그저 나에게 변함없이 충실하고, 무슨 일을 하든 오직 ‘믿음’을 위해, 그리고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감언이설로 나의 환심을 사려는 것을 미워한다. 나는 언제나 너희를 진심으로 대했으므로 너희 또한 나를 참된 믿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믿음’이란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왜 구태여 이러한 고난을 받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묻겠다. 너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왜 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조금도 없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육신임을 인정하면서 왜 그를 멸시하느냐? 왜 그에게 함부로 이래라저래라 하느냐? 왜 그를 공개적으로 판단하느냐? 왜 늘 그의 행적을 캐느냐? 왜 그의 안배에 순종하지 않느냐? 왜 일을 할 때 그의 말씀을 준칙으로 삼지 않느냐? 왜 그의 제물을 강탈하고 흠치느냐? 왜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서 말하느냐? 왜 그의 사역과 말씀에 대해 옳고 그름을 평가하느냐? 왜 그를 뒤에서 모독하느냐? 이런 것들이 너희의 ‘믿음’이냐?

너희의 언행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성분이 드러나고, 너희가 일을 행하는 동기와 목표에는 ‘불신’의 성분이 가득하다. 심지어 너희의 눈빛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이 섞여 있다. 너희는 일분일초도 불신을 버린 적이 없었기에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배반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육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피가 온몸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길에 새긴 발자국이 참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너희는 착실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너희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한 말씀을 반신반의할 뿐 곧장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그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리스도에 대해 늘 관념에 사로잡히는 것도 그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며, 그의 말씀도 늘 껌등으로 흘려보낸다. 또한 편견으로 인해 그가 행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 줘도 관념을 내려놓기 어려워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너희 마음속에 섞여 있는 불신의 요소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르면서 아직 뒤쳐진 적이 없긴 하지만, 너희의 마음속에는 패역의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 있다. 그 패역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데에 끼어 있는 불순물이다. 어찌면 너희는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말을 보고 자신의 속셈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는 멸망할 존재가 분명하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는 사람은 그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니, 그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그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서 억지로 따르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25)

세력이나 재물은 좋아하지만 심판은 물론, 진리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세력파라고 한다. 그들은 세상에서 세력이 있는 교파만을 골라 찾아다니고, 신학교를 나온 목사와 강사만을 찾는다. 그들은 설령 진리의 도를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반신반의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지 못한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주시하는 사람은 대단한 목사와 강사일 뿐, 그리스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들에게는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밖에 없다. 그들은 이렇게 작디작은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정복할 수 있고, 이렇게 불품없는 한 사람이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믿지 않는다. 또한 먼지와 거름으로 뒤범벅된 이 변변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는 전혀 믿지 않는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는 대상이라면 천지가 뒤집힐 일, 그야말로 배꼽 잡고 웃을 일이라고 여긴다. 또 그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택해 온전케 한다면, 저 대단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 자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관점에는 불신의 요소가 섞여 있다. 어찌 불신뿐이겠는가? 그들은 진정 이치로는 깨우칠 수 없는 짐승들이다. 그들은 지위와 명망, 세력, 그리고 거대한 단체와 파벌만 중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끄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진리와 생명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배반자들이다.

너는 높디높은 지위를 가진 저 거짓 목자들을 숭상하지, 그리스도의 낮춤을 앙모하지는 않는다. 또한 세상과 야합하는 저 음탕한 자들을 좋아하지,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과

지혜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너는 제물을 약탈하고 주색에 빠져 사는 저 시체들에 감탄할 뿐, 머리 둘 곳 없는 그리스도의 고통은 비웃기만 한다. 또한 제멋대로 행하는 저 적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길 원하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너에게 공급하는 것이 육체와 글귀, 그리고 통제뿐일지라도 말이다. 지금도 너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에게 향해 있고, 그들의 명예와 지위, 세력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이유로 너에게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네가 지금까지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었다. 너의 마음속에는 높고 큰 형상이 우뚝 솟아 있다. 너는 그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잊지 못하고, 권세를 지닌 그들의 말과 두 손도 잊지 못한다. 너희 마음속의 그들은 영원히 지고지상한 영웅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네 마음속의 그는 영원히 초라하고 경외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는 지극히 평범하고, 권세도 거의 없으며, 너무도 위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진리를 중시하지 않는 자들을 불신파, 진리의 배반자라 한다. 이런 자들은 영원히 그리스도에게 칭찬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 너는 자신에게서 얼마나 많은 불신의 요소를 찾아냈느냐?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는 요소를 얼마나 많이 찾아냈느냐? 네가 진리의 도를 선택한 이상, 모든 심혈을 쏟아붓고, 망설이지도 흔들리지도 말 것을 권고한다. 너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일편단심으로 충성하는 모든 사람에게 속하지, 세상과 그 어떤 한 사람에게 속하지는 않는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26)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에게서 적합한 종착지와 무궁한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람의 종으로 삼으려는 것이며, 언제나 하나님과 아무런 충돌이 없이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사람의 모든 요구를 들어 달라고 요구한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라는 성경의 말처럼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든 무조건 다 베풀어 줄 것을 요구한다. 또 하나님은 항상 인자한 구주 예수이므로 언제 어디서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사람을 심판하지도 훈계하지도 말 것을 요구한다. 사람이 믿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거역하든 순종하든 상관없이 말이다. 또한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빛을 독촉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항 없이 사람에게 ‘빛을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곱절로 갚아야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있든 없든 그저 사람이 지배하는 대로 따라야 할 뿐 사람을 마음대로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오랫동안 감추어 온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로운 성품을 마음대로 ‘사사로이’ 사람에게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은

싫어하지 말고 언제까지나 사람의 죄를 사해 주기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람은 하나님에게 시키기만 하고 하나님은 오로지 순종하기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사람의 종이 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믿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지 못하면 도망치려 하고,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노발대발 화를 내고 심지어 욕설까지 퍼붓는다. 너희는 전혀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와 기묘함을 나타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일시적인 안락만 탐할 뿐이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의 태도는 지금도 여전히 과거의 낡은 관점에 머물러 있다.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위엄을 드러내면 싫어한다. 이제 너희는 자신의 분량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를 보았느냐? 너희는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라. 사실 너희의 낡은 관점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절정에 달하지만, 작은 일만 생겨도 음부까지 추락해 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지위의 복을 내려놓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27)

너희의 추구에는 개인의 관념, 기대와 미래에 대한 것이 너무나 많다. 현재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는 바로 지위에 대한 너희의 마음과 사치스러운 욕망을 다스리기 위함이다. 그러한 기대와 지위, 관념은 모두 전형적인 사탄 성품을 대변한다. 사람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탄의 독소가 사람의 사상을 쏙먹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시종일관 사탄의 그 유혹을 벗어던지지 못하여 죄 속에서 살면서도 죄로 여기지 않는다. 또한,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맞게 마련해 주셔야 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하는 거야. 어떤 사람보다도 지위가 높고 앞날이 밝아야 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셔야 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잖아.’라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생존의 토대가 된 사상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쏙먹어 사람을 간사하고 나약하며 비열하게 만들어 버렸다. 사람은 끈기도,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탐욕스럽고 거만하게 변했다. 자신을 초월하려는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이 흑암 권세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용기는 더더욱 없다. 사람의 사상과 삶은 썩어 문드러졌고, 이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관점 또한 추하기 그지없다. 심지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관점에 대해 말하자면 그야말로 듣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사람은 모두 나약하고 무능하며 비열하고 연약하다. 흑암 권세에 대해 어떤 증오심도 느끼지 못하고, 광명과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쫓아낸다. 현재 너희의 사상과 관점도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 이상 복을 받아야 하고,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하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높은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관점이 너희

내면에 자리 잡은 건 1~2 년의 일이 아니라, 이미 꽤 오래되었다. 너희는 장삿속이 아주 발달했다.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지위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한 채 계속 바둑바둑 ‘추궁’하고 있다. 게다가 매일같이 관찰하며, 언젠가 지위도, 명예도 모두 잃게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사람은 안락을 탐하는 마음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다.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심판하면 너희가 궁극적으로 얼마나 깨닫게 되겠느냐? 너희는 자신의 지위가 높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높여 주심을 누렸다고 말할 것이며, 지위가 없는 것은 너희의 출생이 미천하기 때문이고, 지위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높여 주심과 베풀어 주심 때문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께 형벌과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이 높여 주신 덕분이다. 또한 직접 하나님께 정결함과 불사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 덕분이다. 역대 이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정결케 함과 불사름을 받지 못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지 못했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며, 너희를 정결케 하고 너희 속에 있는 패역을 드러내고 있으니,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 준 것이다.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다윗의 자손이든 모압의 후손이든 사람은 모두 피조물이니 자랑할 것이 없다.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요구가 없다. 너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제게 지위가 있든 없든 저는 이제 자신을 알게 됐습니다. 제 지위가 높다면 그것은 당신의 높여 주심이고, 제 지위가 낮다면 그것 또한 당신의 결정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달렸으니 저는 어떤 선택도, 원망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살게 하셨으니 저는 당신의 권세에 오롯이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지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피조물일 뿐이니깐요. 당신께서 저를 무저갱에, 유향불 못에 넣으신다고 해도 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당신께서 저를 쓰셔도 저는 피조물이고, 당신이 저를 온전케 하셔도 저는 피조물입니다. 당신께서 저를 온전케 하지 않으셔도 저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저는 그저 일개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조주께서 만드신 보잘것없는 피조물이자, 당신께서 지으신 인류 중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저를 만드셨고, 오늘날 또 저를 당신의 손안에서 지배하시니 저는 당신의 도구, 당신의 부각물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누구도 바꿔 놓을 수 없습니다. 만사 만물이 다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러면 너는 지위 따위를 중시하지 않고 해방을 받게 된다. 그래야 너는 담대하게 추구해 나가고, 너의 마음이 그 어떤 일에도 구애받지 않게 된다. 사람은 거기에서 풀려나면 어떤 염려도 하지 않게 된다. 현재 너희 대다수가 염려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늘 지위에 묶여 있고, 자신의 앞길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늘 말씀 책을 뒤적이면서 인류의 종착지에 관련된 말씀을 보고 싶어 하고, 자신의 앞길과 종착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또한 ‘내 앞길은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앞길을 없애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각물이라는 말씀만 하셨어. 그렇다면 앞길은 대체 무엇일까?’라고 늘 속으로 궁리한다. 너희는 앞길과 운명을 내려놓기를 너무 힘들어한다. 현재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이

단계 사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지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는 못했다. 지위가 높아지면 열심히 추구하고, 지위가 낮아지면 추구하지 않으니, 지위의 복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하겠다. 어쩌서 많은 사람이 늘 소극적이 되어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앞날이 ‘암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는 거기에서 황급히 자신의 지위와 신분이 어떠한지를 확인한다. 지위와 신분, 이 두 가지를 너희는 가장 앞자리에 놓고, 이상(異象)은 그다음이며, 자신의 진입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비로소 현재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먼저 부각물이라는 호칭이 바뀌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뒤적거리다가 부각물의 꼬리표가 떨어졌으면 기뻐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찬양하지만, 여전히 부각물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괴로워하며 그 순간 힘이 다 빠져 버린다. 네가 이렇게 추구할수록 얻는 것이 없다. 지위에 대한 욕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큰 책망을 받고, 더 큰 연단을 겪게 된다. 그런 사람은 너무나도 무가치하다! 많은 책망과 심판을 받아야만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추구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생명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할 수 없고,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얻을 수 없다. 너는 자신의 변화와 진입을 추구하기보다는, 언제나 사치스러운 욕망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가까이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중시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너를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너를 하나님나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네가 추구하는 목표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이 기회에 세상으로 돌아가 한바탕 크게 하고 싶은 일을 벌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헛되이 시간만 보내 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굳이 너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있겠느냐? 아름다운 세상에서 무엇인들 누릴 수 없겠느냐? 재물과 미인, 지위, 허영, 가정, 자녀 등등 이 모든 세상의 산물이 전부 네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 아니더냐? 무엇 하러 여기에서 편히 쉴 곳을 찾아 헤매느냐?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거늘, 네게 어찌 안락한 곳이 있겠느냐? 아무렴 그가 네게 안락하고 좋은 쉼터를 마련해 주겠느냐?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오늘날 네가 내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심판과 진리의 가르침뿐이다. 너는 내게서 안락을 얻을 수 없고, 오매불망 바라는 안락한 거처도 얻을 수 없다. 나는 네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주지 않는다. 네가 진심으로 추구한다면 나는 네게 모든 생명의 도를 줄 것이고,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누리게 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진심으로 추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네게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갈 것이다.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안락을 탐하는 개돼지 같은 자들에게 줄 생각이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너는 왜 부각물이 되기 싫어하느냐?>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28)

자신의 행동이 의를 행하는 것인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감찰을 거쳤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일 처리 원칙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흡족게 할 수 있기에 의롭다 칭함 받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아들이기에 의롭다 칭함 받는다. 하나님이 보기에, 그의 보살핌과 보호, 그리고 온전케 함을 받아들이어 그에게 얻어진 사람은 모두 의인이고, 그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현실적인 말씀을 받아들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살아 낼 수 있으며, 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사명으로, 너희 모두가 마땅히 해내야 하는 바이다. 관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규정하면서 그를 영원히 변치 않는 조각상인 양 완전히 성경 안에 국한하고 유한한 사역 가운데 고정해 놓는다면, 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정죄했다는 의미이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고정화된 우상으로 여겼다. 하나님은 오직 메시아라고 불러야만 하고, 또 그렇게 불러야만 하나님인 것처럼 말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조각상(생명이 없는 존재)처럼 여기면서 섬기고 경배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당시의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리하여 죄 없는 예수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죄가 없지만, 사람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을뿐더러 기어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고불변의 존재로 생각하며 성경 한 권에 기대어 하나님을 규정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경영을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파악한 것처럼 말이다. 인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터무니없고 교만하며, 모두가 과장해서 떠벌리기를 좋아한다.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든, 내가 보기에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장 심하게 대적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정죄하는 사람이다. 이는 네가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길을 전혀 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일을 왜 늘 못마땅해할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고정 관념이 너무 많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실제 사실에 완전히 어긋나고 천편일률적이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이다. 잔혹한 인류야! 언제까지 그렇게 서로 암투를 벌이고 명리를 다투며 싸울 것이냐? 하나님은 많고 많은 말씀을 했지만 누구 하나 깨닫지 못한 채 모두 가정과 자녀, 직업, 앞날, 지위, 허영, 재산, 먹고 입는 것, 육체를 생각하느라 급급했다.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남을 억압하거나 배척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또 얼마나 많은 잔인한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정죄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모른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여 의인이라 칭함 받을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자나 의인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그렇게 쉽겠느냐? “세상에는 의인이 없고, 의인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사실이다. 하나님 앞에 와서 너희의 옷차림새, 너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마음과 생각 하나하나를 낱알이 살펴보아라.

너희가 매일 꾸는 꿈조차도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 아니더냐? ‘의로움’이란 타인에게 재물을 베풀거나 남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예수가 행한 모든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맡긴 일을 자신의 임무로 삼고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는 것을 천직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한 의로움이다. 롯이 의롭다 칭함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두 천사를 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그가 당시에 행한 일을 두고 의롭다 칭한 것뿐이지, 그를 의인이라고 칭할 수는 없다. 롯은 하나님을 보았기에 자신의 두 딸을 두 천사와 바꾸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이전에 행한 일이 다 의로움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회복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가 아무리 잘 행하고, 겉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영화롭게 할지라도, 남을 때리거나 욕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의롭다고 칭함 받을 수 없다. 이런 일은 보통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사실은 네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점이다. 오늘날에야 네가 정상 인성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뿐, 하나님이 말한 의로움은 조금도 갖추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의 행위는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증명하지 못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악인은 반드시 징벌받을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29)

이전에 하나님이 하늘에 있었을 때, 사람은 어떤 일에서나 하나님을 속였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온 지 오래되었건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고, 여전히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무성의하게 대하며 속이고 있다. 이는 사람의 생각이 너무 뒤쳐진 것 아니겠느냐? 마치 유다처럼 말이다. 유다는 예수가 오기 전에 늘 거짓말을 하고 형제자매를 속였으며, 예수가 온 후에도 그 버릇을 못 고쳤다. 또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해 마지막에는 예수를 팔았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런 짓을 저지른 것 아니겠느냐?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도 유다처럼 될 것이고, 그로 인해 2 천 년 전 은혜시대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비극이 재현될 것이다. 믿지 못하겠느냐? 이것은 사실이다! 지금 대다수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말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그런 자들은 모두 유다의 역할을 맡은 인물들이다. 이는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네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나 사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은 썩은 물이 가득 고인 시궁창이다. 지금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너희는 내가 조금도 모를 거라고 여긴다. 오늘날 나의 영이 나를 위해 주관하고 증거하건만,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여기느냐? 너희 마음속 엉큼한 수작과 꿩꿩이를 내가 전혀 모를 거라고 여기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느냐? 마음 내키는 대로 대해도 된다는 말이나? 이전에는 너희가 속박받을까 봐 줄곧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 하지만 사람은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 채 끝없이 욕심을 부렸다. 너희가 서로 알아보아라. 나는 그 누구도 책망한 적이 거의 없고 그 누구도 쉽게 훈계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사람의 속셈과 관념을 분명히 알고 있다. 너는 하나님이 증거한 하나님 자신을 바보 멍청이라고 여기느냐? 그렇다면 나는 너를 완전히 눈먼 자라 하겠다! 나는 너를 폭로하지 않고 네가 어느 정도까지 파괴되는지 지켜보겠다. 너의 잔피가 너를 구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너의 사랑이 너를 구할지 지켜보겠다. 나는 지금 너를 정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보응하는지 보아라. 지금은 너와 잡담할 여유도 없고 너 하나로 인해 더 큰 사역을 그르치고 싶지도 않다. 너 같은 구더기는 하나님이 시간을 내서 상대할 가치도 없다. 네가 어느 정도까지 방자하게 굴지 지켜보겠다. 이런 사람은 털끝만큼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칭함 받기를 바란다. 이것은 웃기는 일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너희 중 몇몇 일부는 정직하기에 나는 한결같이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에만 신경 쓸 뿐이다. 나는 지금 해야 할 일만 하고, 이후에는 각자가 행한 것에 따라 보응할 것이다. 내가 해야 할 말은 다 했다. 내가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역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해야 할 것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진실한지, 자신이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아닌지 성찰해 보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악인은 반드시 징벌받을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30)

오늘날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추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느냐? 너는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간주하고 추구해야 하겠느냐? 너는 오늘날 네게 임한 모든 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것이 시련이든, 고난이든, 무정한 형벌이든, 저주이든, 너는 그 모든 것이 임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내가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오늘 너에게 임한 것은 한번씩 되풀이되는 짧은 시련이므로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네가 이를 내팽개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너는 조심성이 없기 짝이 없구나! 이 소중한 자산을 눈앞을 스쳐가는 구름이라고 생각하다니. 되풀이되는 호된 매질에 크게 아파하지 않고, 이를 일시적인 고통으로 치부하며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관심 없이 냉담하게 바라보며 어찌다 직면한 한 차례의 난관으로 간주할 뿐이다. 너는 거만하기 짝이 없구나! 거듭하여 밀어닥치는 거센 비바람을 하찮게만 여긴다. 심지어 싸늘하게 웃으며, 대수롭지 않은 표정을 짓기도 한다. 이는 네가 계속 이런 ‘불행’을 겪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기라도 한다는 말이나? 내가 오로지 너의 허물만 들춘다는 말이나? 너의 생각이 내가 말한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해도 너의 그 ‘태연한’ 표정과 태도는 너의 내면을 여실히 드러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의 마음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은 불만에 가득 찬(원문: 不近人意) 욕설과 사람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끝없는 슬픔일 뿐이다. 너는 시련을 겪는 것이 몹시 불공평하다고 느끼기에 욕설을 퍼붓는다. 시련으로 인해 세상의 쓸쓸함을 느끼고, 이로 인해 낙담한다. 연거푸 이어지는 매질과 징계를 최고의 보살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늘이 생트집을 잡거나 합당한 보응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는 무지하기 짝이 없구나! 너는 무정하게 절호의 시기를 어두운 곳에 봉하고, 되풀이되는 아름다운 시련과 징계를 원수의 공격으로 간주한다. 너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적응할 생각도 없다. 네가 잔혹하다고 여기는 이 거둠되는 형벌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거나, 구하거나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갈 데까지 가 보자는 식으로 운명에 맡길 뿐이다. 네가 잔혹하다고 여기는 채찍질은 너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점유하지 못하고 네 마음에 생채기를 냈다. 너는 ‘잔혹한 형벌’을 금생의 원수라고 생각할 뿐 거기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너는 독선적이기 짝이 없구나! 너는 자신이 비열하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법이 거의 없다. 도리어 자신이 더없이 불행하다고 여기고, 내가 항상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말한다. 이 지경에 이르렀건만 너는 도대체 내가 한 말과 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이냐? 네가 하늘보다는 약간 낮고 땅보다는 훨씬 높은 타고난 천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는 결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지 않다. 지구상의 어떤 이성적인 사람보다 어리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너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여 열등감을 느낀 적이 없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군다. 사실 너는 전혀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다. 너는 아예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인생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도 하늘의 축복만을 바라보며 경작하는 농부만도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너는 네 인생을 몹시 하찮게 여기고, 자신의 평판도 알지 못하며, 주제 파악을 못 한다.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불학무식한 자는 짐승이 아닌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31)

너희는 내가 몇 번이고 되풀이한 훈계의 말을 까맣게 잊어버린 지 오래다. 심지어 한가로울 때에 즐기는 심심풀이용 오락 거리로 삼기도 한다. 너희는 언제나 훈계의 말을 자신의 ‘부적’으로 여긴다. 사탄이 참소할 때는 기도하고, 소극적일 때는 늘어지게 잠을 잔다. 기쁠 때는 여기저기를 싸돌아다니기 바쁘고, 내가 책망할 때는 급실거린다. 그랬다가 나를 떠나자마자 험상궂은 모습으로 깔깔 웃어 댄다.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가장 높게 평가하면서도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항상 거들먹거리고, 스스로 득의양양하여 날뛴다. 이렇게 불학무식한 ‘도련님’, ‘아가씨’, ‘나리’, ‘마님’들이 나의 말을 어찌 보물처럼 귀히 여길 리 있겠느냐? 내가 다시 너에게 묻겠다. 내가 오랫동안 말을 하고 사역을 했건만 너는 대체 무엇을 배운 것이냐? 너의 속임수가 더욱 그럴듯해진 것이냐? 너의 욕이 더욱 노련해진 것이냐? 네가 나를 더욱 업신여기게 되지 않았느냐?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해서 오늘날 너의 작았던 배짱만 커진 것 같구나. 내가 나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은 점점 줄어들만 가고 있다. 내가 인자하기 그지없고, 폭력을 동원하여 너의 욕을 제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불손한 말만 일삼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너를 대할 때가 더 많고, 너의 면전에서 대놓고 질책한 적이 거의 없으며, 너의 연약함을 항상 너그러이 헤아려 주었다. 그래서 오늘날 네가 선한 농부를 대하는 뱀처럼 나를 대하게 된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의중을 살피는 인류의 현란하고 능란한 기교에 실로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 오늘날 네가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떨리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다. 하지만 나는 너같이 불학무식한 ‘천재’도 결국 자아도취에 빠지는 잔머리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임을 알고 싶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도, 형벌을 받는 것도 너 자신일 것이다. 나는 너와 같은 부류가 아니기 때문에 너와 함께하며 지옥에서까지 고통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너는 내게 저주받고 나의 가르침으로 구원받은 피조물이라는 것과 내가 미련을 가질 만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라. 나는 어느 때든 사람과 일, 사물에 구애받으며 일하지 않는다. 내가 인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생각은 변함이 없다. 나는 너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너는 본래 내 경영의 부속물일 뿐 다른 어떤 존재보다 나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항상 네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나와 함께 지내고 있다 해도 너는 네 신분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망하거나 훈계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대한다고 해도 이것이 너와 내가 같은 부류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너는 자신이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는 항상 나의 말에 따라 변화해야 하며,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같은 절호의 시기에 소중한 기회가 찾아온 만큼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좋겠다. 나를 속이지 말라. 나는 나를 기만하는 너의 아침 따위는 필요 없다. 네가 나를 찾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스스로를 위해서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불학무식한 자는 짐승이 아닌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32)

지금 너희가 보내는 매일매일은 아주 중요한데, 너희의 종착지와 운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날들이다. 그러므로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살아가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모든 시간을 확보해 최대의 수확을 거두도록 해야 한다. 아마 너희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영문을 모를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너희에게 기대한 것이 지금의 이런 모습이 아니기에 나로서는 너희 개개인의 행동거지가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그래서 너희 모두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지난날 구원을 갈구하던 목소리와 진리를 추구하고 광명을 바라던 마음의 소리도 이제는 끝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내게 최종적으로 보답하는 모습, 또한 내가 전혀

기대한 적이 없었던 모습이다. 너희에게 너무도 실망했기에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너희는 이대로 순순히 수긍하고 싶지도, 진실을 직면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너희에게 진지하게 물어야겠다. 지난 몇 해 동안 너희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느냐? 너희의 마음은 대체 누구에게 충성했느냐? 내 질문이 너무 느닷없다고,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희에 대해 너무나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너희의 일거수일투족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기에 너희에게 끊임없이 질타를 가하고, 갇은 고난도 감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내게 돌아온 것이라곤 너희들의 외면과 참을 수 없어 하며 마지못해하는 모습이였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하는 걸 내가 전혀 모를 거란 말이나? 만일 그렇게 여겼다면 이는 나를 진심으로 선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증한다. 그러니 나는 너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말한다. 너희 모두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똑똑하다. 그렇다면 너희는 내게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의 마음이 도대체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다. 너희 모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자신이 도대체 누구에게 충성하며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어찌면 지금까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문제의 답을 찾도록 도와주겠다!

기억을 가진 자라면, 사람은 모두 자신을 위해 살며 자신에게 충성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답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 저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며 각자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것들에 충성하지 전적으로 자신에게만 충성하지는 않는다. 각자가 주위 사람과 일, 사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너희는 진정으로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은 스스로에게 충성하는 것을 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너희의 충성심을 폭로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랜 세월 나는 너희 가운데 내게 ‘충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를 따른 지 그렇게 오래되었으면서도 너희는 나에게 ‘충성한’ 적이 없었다.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것들을 싸고돌며, 한순간도 버리는 법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속에 꿰뚫어 담아두고 있기까지 했다. 나를 따르면서 심지어 내 말을 듣고 있을 때조차도 너희는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충성심을 가지고 너희의 ‘애완동물’에 충성하고 너희의 ‘애완동물’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다소 바쳤다고는 하나, 그것이 너희의 전부를 뜻하지도 않고, 너희가 진실로 나에게 충성함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는 열렬히 좋아하는 일에 몸담고 있다. 어떤 자는 자녀에게, 어떤 자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어떤 자는 금전이나 업무에, 어떤 자는 직속 상관이나 지위에, 어떤 자는 여자에게 충성한다. 너희는 자신이 충성하던 것들 때문에 피곤해하거나 번뇌한 적이 없다. 자신이 충성하는 것들을 더 많이, 더 쉽게 가질 수 있기를 더욱더 갈구하였고 또 이를 포기한 적도 없다. 여태까지

너희는 나와 내가 한 말을 너희가 열중하는 모든 것의 끝자리에 놓아두었는데 그것도
 마지못해 마지막 자리에 놓아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자는 그 끝자리마저도 자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충성하고 싶어질 것들을 위해 남겨 두었다. 그들 마음속에는 나에 대한
 것이 눈곱만큼도 없었다. 너희는 어쩌면 내 요구가 너무 지나치고 너희를 억울하게 한다고
 여길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워할 때 너희는 나에게 단 한 번도
 충성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었느냐? 그때 너희는 이로 인해 괴로워했느냐?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수고의 대가를 받을 때 진리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낙심했었느냐? 너희는 나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느냐?
 자녀를 위해서는 온갖 지혜를 짜내며 애쓰면서도 여전히 만족할 줄 모르며 여전히
 자녀에게 정성과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여기는데, 내게는 어떠하였느냐? 너희는 지금껏
 늘 나를 건성으로 대했다. 단지 기억만 할 뿐 마음속 깊이 오래도록 간직하지 않았다.
 너희는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기울인 심혈을 느낀 적도 이해한 적도 없이 단지 조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다. 그런 ‘충성’은 내가 오래도록 기대해 온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증오해 온 것이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너희는 여전히
 아주 조금만 인정할 뿐 완전히 받아들이려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너희가 ‘자신만만하여’
 언제나 내 말을 가려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면 내게는 그
 자신감을 상대할 방법이 있다. 또한, 나는 내 말이 사실을 전혀 왜곡하지 않은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하게 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너는 도대체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나?>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33)

지금 너희 각자 앞에 돈을 얼마 놓아두고서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해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 가운데 많은 자가 진리를 버리고 돈을 선택할 것이다. 그보다 좀 나은 자는
 돈을 버리고 마지못해 진리를 선택할 것이고, 그 두 부류 중간에 있는 자는 한 손으로는
 돈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진리를 붙들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의 참모습이 어떠할지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자신이 충성스럽게 대하는 모든 것과 진리 사이에서 너희는
 모두 이런 선택을 할 것이고, 너희 태도 또한 이럴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많은
 자가 옳고 그름 사이에서 망설이지 않았느냐? 가정과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화목과 파탄,
 부와 빈곤, 지위와 평범함, 지지받는 것과 버림받는 것과 같은 모든 정(正)과 반(反), 흑과
 백의 싸움에서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였는지 너희 스스로 모를 리 없지 않느냐? 가정의
 화목과 파탄 사이에서 전자를 선택하는 데에 조금의 망설임이 없었고, 금전과 본분
 사이에서 또 전자를 선택했는데, 이를 뉘우치고 바른길로 돌아서려는 의지조차 없었다.
 사치와 빈곤 사이에서도 전자를, 자녀, 아내, 남편과 나 사이에서도 전자를, 관념과 진리
 사이에서도 전자를 선택하였다. 나는 너희의 온갖 악행에 너무나 놀랐고, 너희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었다.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누그러지지 않을 줄은 생각도 못 했다.

오랜 세월 심혈을 기울여 얻은 결과가 나를 포기하고 속수무책으로 구는 너희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나의 모든 날들을 이미 너희 앞에 펼쳐 보였기 때문에 너희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너희는 지금도 어둡고 사악한 것을 추구하며 놓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너희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준다면 너희는 어떤 태도를 보이겠느냐? 그래도 전자를 택하겠느냐? 나에게 여전히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슬픔을 안겨 주겠느냐? 너희의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그렇게도 작을까? 어떻게 해야 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지 여전히 모르겠느냐? 지금 이 순간,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가셔하는 것이냐? 내 날은 이미 너희 앞에 펼쳐졌고, 너희 앞에 놓인 것은 새로운 삶과 새로운 출발점이다. 하지만 이번 출발점은 이전 새 사역의 시작이 아니라 옛 사역의 마무리이자 마지막 장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겠다. 나는 너희 모두 이 시작점이 예상롭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머지않은 어느 날, 너희는 이 시작점의 진정한 함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이 시작점을 지나 마지막을 맞이하도록 하자! 하지만 정의와 불의에 맞닥뜨리면 너희는 언제나 불의를 선택하기에 나는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다 너희의 과거이다. 나 또한 너희의 과거를 모조리 잊어버리고 싶지만 그리 쉽지가 않다. 하지만 나에게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미래로 과거를 대체함으로써 너희 과거의 어두운 모습을 사라지게 하여 오늘날 참모습을 되찾아 오는 것이다. 그러자면 어쩔 수 없이 너희가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 한다. 너희가 도대체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인지 봐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너는 도대체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나?>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34)

너희는 종착지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매우 진지하게 대하고, 개개인 모두가 종착지에 관한 일에 특별히 민감하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해서라도 좋은 종착지를 얻고 싶어 한다. 나는 너희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으니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다. 너희는 그저 자신의 육체가 재난에 빠지지 않고, 더욱이 자신이 이후에 영원한 징벌에 떨어지지 않으며,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안락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종착지를 언급하면 특히 관심을 기울이며, 자칫 부주의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 그에 따르는 보응을 받게 될까 봐 매우 두려워한다. 게다가 너희는 자신의 종착지를 위해서라면 굶질거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능구렁이 같던 자들도 종착지를 위해 갑자기 매우 성실해지고 온순해지는데, 그 성실한 모습은 실로 소름이 끼칠 정도다. 어찌 됐든, 너희의 마음은 다 ‘정직’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이든, 기만이든, 충성심이든 너희 마음속 비밀을 하나도 숨김없이 내게 털어놓았으니 말이다. 결론적으로, 너희는 가장 깊은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본질적인 것들을 내게 솔직하게 ‘고백’했고, 당연히 나 역시 그러한 것들을 피하지 않았다. 내게는 그 모든 것이 너무도 익숙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최후의 종착지를 위해서라면 불바다라도 뛰어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머리카락 한 올 바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너무 교조주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너무 충성심 없이 대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간단히 설명을 하겠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진리와 생명, 사랑됨의 원칙이 아니고, 내가 심혈을 기울인 사역은 더더욱 아니며, 너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재물, 지위, 가정, 혼인 등등)이다. 너희는 내가 하는 말과 사역에 대해서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두 글자로 너희의 믿음을 개괄하겠다. 그것은 바로 '건성'이다. 너희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달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충성하고 상대적으로 진지하게 대한다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지극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데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너희 가운데 실패한 사람이 많지 않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데 성공한 것은 그 자신의 행한 바 때문이고,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 역시 사람의 행위로 초래된 것이지, 결코 다른 요인의 영향 때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일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 어떤 일도 온갖 방법을 강구하여 해낼 것이고, 매우 진지하게 대할 것이며, 심지어 그 어떤 오차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바로 너희 개개인이 자신의 생활을 위해 부단히 기울이는 노력이다. 심지어 너희는 자신의 혈육 중 누구도 속이지 않으면서 나의 육신을 속이는 짓도 해낼 수 있다. 이것이 너희의 일관된 행위이자 처세 원칙이다. 너희는 자신의 종착지를 위해서, 아름답고 이상적인 종착지를 위해서 여전히 거짓된 모습으로 나를 속이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의 충성심이 일시적인 것이고, 성실함도 일시적인 것임을 알고 있다. 너희의 의지와 대가도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는 것 아니더냐? 너희는 오로지 마지막 한번의 노력으로 있는 힘을 다해 아름다운 종착지를 쟁취할 생각만 한다. 너희의 목적은 교환하는 것일 뿐, 진리에 부응하는 것도, 더욱이 나의 대가에 보답하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머리를 써서 얻으려고만 할 뿐 노력으로 밀어붙일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본심 아니더냐? 스스로를 위장하지 마라. 더욱이 자신의 종착지를 위해 식음을 잊고 밤잠을 설칠 정도로 머리를 쥐어짜지도 마라. 결국 너희의 결말은 정해진 것 아니겠느냐? 너희는 솔직하고 당당하게 각자의 본분을 잘 이행하되, 어떠한 대가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말했듯이,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그를 위해 고생하고 대가를 치른 그 누구도 홀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신념은 간직할 만하며 또한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내가 너희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에 대해 영원히 안심할 수 없고, 너희를 영원히 싫어할 것이다. 너희가 양심에 따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나의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나의 복음 사역을 위해 평생의 정력을 바친다면, 내 마음이 항상 너희로 인해 기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에 대해 완전히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내가 바라는 것들 가운데 초라한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이 애석할 따름이다. 그러니 너희가 무슨 낯으로 나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종착지에 관하여>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35)

종착지와 운명은 둘 다 너희에게 매우 중요하며, 또한 너희와 매우 중대한 관계가 있다. 너희는 경솔하게 일을 하면 종착지가 없어지고 자신의 운명을 망치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이 종착지를 위해 바친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다면 그런 노력은 허상과 기만일 뿐 진심이 아니며, 만약 그렇다면 종착지를 위해 노력을 바친 자는 결국 마지막 실패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너희는 생각해 보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모두 기만 때문이다. 말했듯이, 나는 사람이 나에게 아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아부하거나 열성적으로 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나는 정직한 사람이 나의 진리와 기대를 마주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이 나의 마음을 극진히 보살피고 나아가 나를 위해 전부를 바치는 것을 더 좋아하며, 그렇게 해야 나의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 너희에게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기뻐하는 것들은 또 얼마나 있느냐? 설마 너희가 종착지를 위해 행한 온갖 추태를 발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나?

나는 적극적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그 누구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고, 본분을 이행하며 충성을 다하려는 의욕은 더더욱 꺾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개개인의 부족한 부분과 내면 깊은 곳의 더러운 영혼을 일깨워 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그저 너희가 진심을 바쳐 나의 말과 마주하길 바라는 데 있다. 나는 사람이 나를 기만하는 것을 제일 혐오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나의 마지막 단계 사역에서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또한 모두 일편단심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치길 바랄 뿐이다. 물론 나는 또 너희 모두가 좋은 종착지를 갖게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나에게도 바라는 바가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최선의 선택을 하여 너희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충성심이자 마지막 충성심을 나에게 바치는 것이다. 유일한 충성심도 없는 자라면 틀림없이 사탄이 아끼는 자일 테니, 나도 더 이상 남겨 두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 그의 부모가 돌보도록 하겠다. 내가 하는 사역은 모두 너희에게 큰 도움이 된다. 내가 너희에게서 얻고 싶은 것은 정직하게 발전하려는 마음이지만 지금까지 나는 아무런 수확도 없이 여전히 빈손이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라. 어느 날 내가 여전히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면 너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겠느냐? 계속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계속 이렇게 평온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무진 애를 써서 농사를 지었으나 낱알 한 알 거두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느냐?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느냐? 희망을 가득 품었지만 불쾌한 기분으로 헤어지게 된 자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 격노한 자가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적대시되고 기만당한

자의 불타는 복수심을 아느냐? 너희가 사람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태도로 사람에게 보응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너희 모두가 자신의 종착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길 바란다. 다만 속임수 없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너희에게 실망할 것이다. 이러한 실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를 우롱한 것 아니겠느냐? 종착지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종착지를 망치는 자는 가장 구제 불능이다. 그런 자가 곤경에 처해 허둥댄들 그 누가 가없이 여기겠느냐? 어쨌든 나는 너희를 축복하여 모두에게 적합하고 아름다운 종착지가 있기를 바라며, 더욱이 너희 모두가 재난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종착지에 관하여> 중에서

인류의 패괴 폭로[2]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36)

너는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과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몰래 일을 저지르며, 그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겠느냐? 그의 말씀은 인정하지만 네가 해낼 수 있는 것조차 실행하지 않고 그의 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이 그를 인정하는 것이겠느냐? 너는 그를 인정하기는 하나, 그를 경계하는 마음만 있을 뿐 경외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다. 그가 행한 사역을 보고,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미온적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런 사람은 정복되지 않은 사람이다. 정복된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 한다. 높은 진리에 진입하지도, 미치지도 못할지언정 마음으로는 당길 원해야 한다. 깨달음이 유한하기 때문에 실행하는 것에도 범위와 한계가 있지만 최소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한다. 네가 이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모두 정복 사역으로 인해 나타난 성과다. 가령 네가 “그분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하나님이겠습니까?”라고 말한다고 치자. 너에게 이런 인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는 실제 행동이 있어야 한다. 교회를 이끄는 자가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재물을 탐내 교회 돈으로 늘 자기 주머니를 채운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며 사람이 경외할 만한 분이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두렵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비열한 짓까지 저지르는 것이 진정으로 그를 인정하는 것이냐? 네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냐? 너는 막연한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나 양심에 찢리는 일을 하지 못한다. 특히,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인식한 일은 더더욱 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너의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너에게 잘해 준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느냐? 형제자매가 너를 혐오한다면 너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느냐? 네가 그를 인정한다면 이런 일이 생길 때 적절하게 행동하고 실제적으로 살아 낼 것이다. 실제 행동은 없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너는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다! 너는 그를 믿고 인정한다고 말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를 인정하는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그를 믿는 것이냐? 너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느냐? 경외심이 있느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슬프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스럽다고 느끼지만 그 후에는 없었던 일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러야 하겠느냐? 내가 언급한 내적 상태들, 예를 들어 자신이 대단하다고 자부하고, 무엇이든 빨리 깨닫는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구속하고 업신여기고, 외모로 판단하고, 착한 사람을 괴롭히고, 교회 돈을 탐내는 등등 이런 사탄의 패괴 성품이 너에게서 일부 벗겨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정복된 후에 보여야 할 모습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정복 사역의 실상 4>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37)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이렇게 사역하고 말하며 얼마나 많은 정력과 심혈을 쏟았더냐? 하지만 내가 분명히 알려 준 것을 너희가 언제 청중할 적이 있더냐? 너희가 나 전능자에게 엎드린 적이 있더냐?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냐?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분노를 사는 언행만 일삼는 것이냐? 너희는 어찌하여 이리도 마음이 강박한 것이냐? 내가 너희를 친 적이 있더냐?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슬프고 애타게만 하느냐? 설마 나 여호와와의 분노의 날이 임할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냐? 내가 너희의 패역으로 인해 솟구친 분노를 쏟아 낼 때까지 기다리려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은 모두 너희를 위한 것 아니더냐? 하지만 너희는 나 여호와를 계속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다. 나의 제물을 훔쳐 먹고, 나의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훔쳐 집으로 가져가서는 이리 굴 속에 있는 이리의 자손들에게 먹인다. ‘백성’과 ‘백성’ 간에 서로 싸우고 죽이며, 분노의 눈길과 총칼로 서로를 대하고, 나 전능자의 말은 배설물로 가득 찬 변소에 던져 더럽힌다. 너희의 인격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성을 잃고 모두 짐승이 되었구나! 너희의 ‘마음’은 이미 단단한 돌로 변했다. 내 분노의 날이 닥치면, 지금 나 전능자에게 행한 너희의 악행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어찌 모르느냐? 너희는 이렇게 나를 속이며, 내 말을 청중하기는커녕 더러운 진흙에 던져 버린다. 그렇게 내 뒤에서 행동하면 내 분노의 눈길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가 나의 제물을 훔쳐 먹고 나의 재물을 탐낼 때 나 여호와가 두 눈으로 보고 있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너희가 내 제물을 훔쳐 먹은 곳이 제물이 바쳐진 제단 앞이었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너희가 어찌 잔머리를 굴리며 나를 기만할 수 있느냐? 나의 분노가 하늘에 사무치는 너희의 죄를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나의 진노가 너희의 악행을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오늘 저지르는 악행은 자신의 살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받을 형벌을 쌓는 것이고, 나 전능자에게 형벌받을 짓을 하는 것이다. 너희의 그 악행과 악담이 어찌 나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간구하는 것이 어찌 나의 귀에 전해질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가 불의를 저지르도록 길을 열어 줄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나를 거역한 너희의 악행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독사 같은 너희의 입술과 혀를 자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자신의 의를 위해 내게 간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불의로 인해 나의 분노를 쌓고 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나 전능자의 눈에 너희의 언행은 더럽고, 너희의 불의는 끝없는 형벌을 받을 대상이다. 그런데 내 공의로운 형벌과 심판이 어찌 너희를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나를 대하므로 나는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너희가 내 수중에서 달아나고

나 여호와와의 형벌과 저주의 날을 피하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모든 악한 말들이 이미 내 귀에 전해졌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너희의 불의가 이미 내 거룩한 의의 두루마기를 더럽혔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너희의 패역이 이미 가득 쌓인 내 분노를 자극했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내가 너희 때문에 분노하고 또 인내한 지 오래되었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너희가 내가 거하는 욕신을 심하게 망가뜨렸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나는 지금까지 인내해 왔지만 이제는 분노가 폭발해 더 이상 너희를 용납해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너희는 내가 이미 너희의 악행을 보았음을, 내 아버지가 나의 간청을 들었음을 알고 있느냐?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그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사역 중 너희를 위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더냐? 그런데 너희는 어떠하냐? 나 여호와와의 사역을 위해 선한 마음을 쓴 자가 있느냐? 내가 어찌 나의 연약함과 받은 고난을 이유로 아버지의 뜻에 충성을 다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냐? 여호와가 너희에게 알려 주었던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말하겠다. 너희를 위한 내 헌신이 부족한 것이냐? 나는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 이 모든 고초를 기꺼이 감내하고자 한다. 하지만 내가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내가 너희에게 내릴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나의 것을 누린 것이 아직도 부족하더냐? 내 아버지가 오늘날 나를 너희에게 주었거늘, 너희가 누리는 것이 어찌 나의 풍성한 말뿐이겠느냐? 너희의 생명과 너희가 누리는 것이 모두 내 생명으로 바꾸어 온 것임을 어찌 모르는 것이냐? 내 아버지가 나의 생명으로 사탄과 싸우며,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베풀어 백배로 얻게 하고 많은 시험을 면케 하였거늘, 너희는 어찌 모르는 것이냐? 나의 사역 덕에 많은 시험과 불의 형벌을 면케 되었건만, 너희는 어찌 모르는 것이냐? 내 아버지가 나를 생각해서 너희에게 지금까지 누리게 한 것임을 어찌 모르는 것이냐?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마음이 그렇게 강박한 것이냐?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 놓고,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 닥칠 분노의 날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이 강박한 무리가 여호와와의 분노를 피하게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이 욕신으로 나타남 · 욕에 속한 자는 누구도 그 분노의 날을 피할 수 없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38)

너희는 지난날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내가 눈을 부릅뜨고 너희에게 소리친 적이 있더냐? 너희와 작은 일까지 시시콜콜 따진 적이 있더냐? 또 너희를 이유 없이 부당하게 훈계한 적이 있더냐? 대놓고 질책한 적이 있더냐? 내가 나의 사역을 위해 너희가 모든 시험을 면하도록 아버지께 간청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냐? 내가 나의 권병으로 너희의 욕을 친 적이 있더냐? 너희는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보복하는 것이냐? 나에게 차가왔다가 뜨거웠다가 또 미지근하고, 나를 속이거나 나에게 뭔가를 감추곤 한다. 너희의 입에는 불의한 자의 타액이 가득하다. 너희의 혀가 나의 영을 기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의 혀가 나의 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의 혀로 나 여호와와의 행사를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사람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나? 너희처럼 미친한 구더기가 나를 모독하는 것을 내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이런 패역의 자식들에게 내가 어찌 나의 영원한 복을 내릴 수 있겠느냐? 너희의 언행은 이미 너희의 실체를 폭로했고, 너희 자신을 정죄했다. 나는 하늘을 펴고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나 외의 어떤 피조물도 함부로 내 일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더욱이 그 어떤 존재도 제멋대로 나의 사역과 경영을 교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용납하지 않았거늘, 나에게 잔인무도하게 구는 자들을 어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내 말을 배반하는 사람을 어찌 사해 줄 수 있겠느냐? 나를 거역하는 사람을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느냐? 사람의 운명이 나 전능자의 손안에 있지 않느냐? 내가 어찌 너의 불의와 패역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겠느냐? 너의 죄악이 어찌 나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있겠느냐? 나는 그 불의한 자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불의한 자의 예물도 누리지 않는다. 네가 나 여호와에게 충성한다면 어찌 내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자기 것인 양 차지할 수 있겠느냐? 어찌 그 독사의 입술과 혀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할 수 있겠느냐? 어찌 이렇게 나의 말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어찌 나의 영광과 거룩한 이름을 사탄, 그 악한 자를 위해 힘쓰는 도구로 삼을 수 있겠느냐? 나의 생명은 거룩한 자에게 누리라고 주는 것이거늘, 그 생명을 함부로 가져다가 노리개 취급을 하고 너희끼리 싸울 때 사용하는 도구로 삼는 것을 내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어찌 이렇게 나에게 무자비하며 선인의 도마저 저버릴 수 있단 말이나? 내가 너희의 모든 악행을 이 생명의 말씀에 기록하였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애굽을 형벌하는 내 진노의 날을 너희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처럼 계속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을 내가 어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그날이 오면 너희는 애굽이 받은 것보다 더 중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어찌 내 분노의 날을 피할 수 있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인내는 본래 너희의 악행을 상대로 예비한 것이고, 너희가 그날에 받을 형벌을 상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의 인내심이 바닥에 다다른 뒤 내 진노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 아니더냐? 만물이 다 나 전능자의 손에 있지 않더냐? 너희가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나를 거역하는 것을 내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날은 몹시 견디기 힘들 것이다. 너희는 오겠다고 했지만 온 적이 없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 그와 적이 되지 않았더냐? 예수는 일찍이 너희와 벗이 되었건만, 너희는 메시아와 적이 되었다. 너희가 예수와 벗이 됐다고는 하나, 너희의 악행은 이미 가증스러운 자의 그릇에 가득 찼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너희가 여호와와 매우 친밀하다고는 하나, 너희의 악한 말이 이미 여호와의 귀에 상달되어 그의 분노를 사게 되었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그가 어찌 너희와 친밀히 지낼 수 있겠으며, 또 어찌 악행으로 가득 찬 너의 그릇을 불태우지 않을 수 있겠느냐? 또, 그가 어찌 너와 적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육에 속한 자는 누구도 그 분노의 날을 피할 수 없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39)

지금 나는 네가 그 방종한 육체로 나를 기만하는 것을 보면서도 경계의 말만 할 뿐, 손을 들어 형벌로써 너를 ‘보살피지는’ 않는다. 너는 네가 내 사역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면 나는 만족할 것이다. 그것 말고는 네가 나를 대적하든, 내 돈을 쓰고 나 여호와와 제물을 먹든, 너희 구더기들끼리 서로 물고 뜯든, 개들처럼 서로 맞서고 공격하든 관심을 갖지 않겠다. 너희가 스스로 자신이 어떤 ‘물건짝’인지 알기만 해도 나는 만족한다. 그것 말고는 너희가 서로 간에 총검을 휘두르고 싶어 하든, 설전을 벌이든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그러한 것들에 간섭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인간 세상의 일은 나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는 내가 너희들 사이의 분쟁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너희 중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나는 본래 피조물이 아니고, 세상에 속해 있지도 않으므로 인간 세상의 시끄러운 삶과 사람들 사이의 무질서하고 정당하지 못한 관계를 혐오하며, 요란스러운 인간 군상들은 더더욱 혐오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피조물의 마음에 있는 불순물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너희를 만들기 전부터 이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남아 있는 불의를 알고 있었으며, 사람 마음속에 존재하는 교활함과 간사함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불의를 행하면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 마음속에 남아 있는 불의가 내가 창조한 만물의 품성함에 앞선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 각자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올라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너희는 또한 매우 난폭하여 모든 구더기 속에서 제멋대로 활개 치며 안락한 곳을 찾고, 자기보다 작은 구더기들을 삼키려고 망상한다. 너희의 마음은 음험하고 악랄하기가 창해의 깊은 물 속을 떠도는 유령들보다도 더하며, 거름 더미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살면서 위아래의 모든 구더기들을 편안할 틈 없이 방해하고, 서로 살육전을 벌인 후에야 조용해진다. 너희는 자신의 지위도 알지 못하는 주제에 거름 더미 속에서 서로 공격을 일삼으니, 그렇게 싸운들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이나? 너희에게 진실로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나를 등지고 서로 아귀다툼을 할 수 있단 말이나? 네 지위가 아무리 높아 봤자 거름 더미 속에 사는 작고 더러운 버러지가 아니냐? 설마 날개라도 돌아 하늘을 나는 흰 비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보잘것없는 너희 버러지들이 나 여호와와 제단에 있는 제물을 훔쳐 먹었다. 그런 너희가 바닥에 떨어진, 깨진 명성을 주워 이스라엘의 선민이 될 수 있겠느냐? 염치없고 천박한 것들아! 그 제단에 있던 제물은 사람들이 나에게 바친 것으로, 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표시한 것이다. 그것은 원래 내가 지배하고 사용해야 하는 제물이었다. 그런데 네가 어찌 사람들이 내게 바친 작은 산비둘기를 훔쳐 간단 말이나? 너는 유다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 너의 발이 ‘피발’이 되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물건짝들아! 사람들이 바친 산비둘기가 너, 구더기의 더러운 배를 채우라고 준 것으로 생각했느냐? 내가 너에게 베푸는 것은 기꺼이 원해서 주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는 것은 마땅히 내가 지배해야 하는 것이다. 네가 함부로 내게 바쳐진 공물을 훔쳐 먹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역사하는 이는 나 여호와, 곧 창조주이다. 사람들은 나를 위해 제물을 바쳤다. 너는 그것이 네가 열심히 뛰어다닌 대가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수치심도 없구나! 너는 누구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냐? 어째서 내 제물을 훔쳐 먹는 것이냐? 왜 내 주머니 속의 돈을 훔쳐 가는 것이냐? 너는 ‘가룟 유다의 자손’이 아니냐? 나 여호와와 제물은 제사장이 누릴 수 있게 주는 것들이다. 네가 제사장이냐? 감히 득의양양하게 나의 제물을 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 위에 차려 놓기까지 하다니, 정말 값어치 없는 존재구나! 쓸모없는 천 것이구나! 나 여호와와 불길이 너를 깨끗이 불태워 버릴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낙엽이 뿌리로 돌아갈 때 네가 행한 모든 악행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40)

너희는 믿음이 아주 훌륭하여 내 사역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치겠다는니, 기꺼이 목숨을 걸겠다는니 하는 말을 내뱉지만, 성품은 별로 변화하지 않았다. 그저 교만한 말만 할 뿐, 실제 행동은 형편없다. 마치 입술과 혀는 천상에 있고, 양발은 지상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 그러기에 사람의 언행과 명성은 여전히 불품없기 짝이 없다. 너희의 명성은 망가졌고, 너희의 행동거지는 비천하며, 너희의 말은 저속하고, 너희의 삶은 천박하다. 심지어 너희는 인성마저 저열하다. 너희는 사람에 대해 속이 좁고 무슨 일이든 옥신각신 따지고 들며,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 다투고, 그것을 위해 지옥이나 불 못에 들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오늘날, 너희의 이런 언행만으로도 너희를 정죄하기에 충분하며, 내 사역에 대한 너희의 태도만으로도 너희를 불의한 사람으로 규정하기에 충분하다. 또 너희의 모든 성품은 너희를 가증스러운 것들로 가득 찬 더러운 영혼이라 부르기에 충분하며, 너희가 나타내는 모든 모습은 너희가 더러운 귀신의 피로 배를 채운 사람임을 보여 준다. 천국에 가는 일에 대해 말하면 너희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현재 너희는 그런 모습으로 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게 언행을 검증받지 않고도 너희는 자유로이 내가 사역하고 말하는 성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내 두 눈을 속일 수 있겠느냐? 너희의 비천한 행동거지와 저속한 말투가 어찌 내 눈을 피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의 삶을 더러운 귀신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삶이라 규정했다. 너희는 날마다 내 앞에서 그 더러운 귀신의 물골을 훔내 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앞에서 더없이 저열한 작태를 보이는데 내가 어찌 혐오감이 들지 않겠느냐? 너희의 말에는 더러운 귀신의 불순물, 즉 사기와 기만, 아첨이 들어 있다. 그것은 사술(邪術)을 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간사한 짓을 벌이며 불의한 자의 피를 마시는 것 같기도 하다. 사람은 모든 모습이 극도로 불의한데, 어떻게 그런 자들을 의인들이 거하는 그 거룩한 땅에 들일 수 있겠느냐? 너는 그 비열한 행위를 보이면서도 불의한 자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독사 같은 혀바닥이 결국에는 너의 그 멸망의 가증한 육체를 망칠 것이며, 더러운 귀신의 피로 물든 네 그 두 손이 결국에는 네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갈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이 기회에 더럽혀진 두 손을 깨끗이 씻지 않는 것이냐? 어찌하여 이 기회에 불의한 말을 하는 네 혀를 ‘잘라 내지’ 않는 것이냐? 네 두 손과 혀바닥 때문에 지옥 불에 불사를 당하겠다는 것이냐? 내 두 눈은 만인의 마음을 감찰한다. 나는 인류를 만들기

전부터 사람의 마음에 정통했기 때문이다. 내가 오래전부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거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어찌 내 눈을 피할 수 있겠느냐? 또 어찌 내 영의 불사름을 피할 수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너희의 인격은 너무나 비천하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41)

네 입술은 비둘기보다도 선량하지만, 네 마음은 옛 뱀보다도 음험하다. 더 나아가 네 입술은 레바논의 여인처럼 아름답지만, 네 마음은 가나안 사람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레바논의 여인만큼도 선량하지 않다. 네 마음은 너무나 간사하다! 내가 증오하는 것은 불의한 자의 입술과 마음이다. 사람에게 대한 내 요구는 거룩한 자보다 높지 않다. 나는 다만 그 불의한 자들의 악행에 혐오감을 느낄 뿐이다. 나는 그저 그 불의한 자들이 더러움을 벗어던지고 지금의 곤경에서 벗어나, 그 불의한 자들에게서 구별되고 의인들과 함께 거하며 함께 성결해지기만을 바랄 뿐이다. 너희는 나와 같은 경지에서 함께하지만 더러움으로 가득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태초에 지음 받았을 때의 모습이 한 점도 남아 있지 않다. 너희는 날마다 더러운 귀신의 꼬락서니를 흉내 내고, 더러운 귀신의 작태를 행하며, 더러운 귀신의 말을 입에 담는다. 그로 인해 너희의 온몸은 물론, 너희의 헛바닥까지 전부 그것의 오물로 더럽혀졌으며, 너희 전체가 그 얼룩으로 뒤덮였다. 너희에게는 내 사역에 사용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으니 참으로 가슴 아프구나! 그런데 너희는 이 짐승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도 근심과 고뇌를 느끼기는커녕 환희로 가득 차 자유롭게 살고 있다. 또, 이 오물 속에서 헤엄치면서도 자신이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매일 더러운 귀신과 왕래하고, ‘분노’와 왕래하는 저질스러운 삶을 살고 있음을 모르는구나. 네가 정녕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너 스스로를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인생은 진작에 그 더러운 귀신에게 유린당했음을 왜 모른단 말이나? 네 인격은 이미 오래전에 그 오물로 더럽혀졌음을 왜 모른단 말이나? 너는 네가 인간 낙원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느냐? 자신이 평생 더러운 귀신과 함께 살아왔고, 그 귀신이 너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들과 일생을 함께했음을 왜 모르는 것이냐? 네 삶이 의의가 있겠느냐? 네 인생이 가치가 있겠느냐? 너는 그 더러운 귀신 아비 어미를 위해 지금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뛰어다녔으면서도, 너를 해한 자가 실은 너를 낳고 길러 준 그 더러운 귀신 아비 어미임을 모르고, 너의 더러움은 그것이 네게 공급해 준 것임은 더더욱 모르는구나. 네가 아는 것이라고는 그것이 네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뿐이다. 그것은 너를 형벌하지도 심판하지도 않으며, 더욱이 저주하지도 않는다. 또한 한 번도 네게 노발대발한 적이 없이 늘 ‘온화하고 상냥하게’ 대했다. 그것의 말은 네 마음을 적시고 네 정신을 쪽 빼 가 방향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게 빠져들어 기꺼이 그것을 위해 힘쓰게 되었고, 그것의 대변인, 그것의 노예가 되었다. 그럼에도 너는 어떤 원망조차 하지 않고 기꺼이 그것을 위해 온갖 충성을 다한다. 너는

그것에게 넘어간 것이다. 그랬기에 내 사역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또 그랬기에 줄곧 내 손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감언이설로 내 환심을 사려 했던 것이다. 너에게는 다른 타산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너는 나, 전능자의 행사에 대해 얼마간 알고 있지만, 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는 추호도 알지 못한다. 너는 내 형벌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른다. 그저 나를 기만할 줄만 알 뿐, 내가 사람의 범함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네가 나를 섬기기로 다짐한 이상, 나는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악을 증오하는 하나님이자, 사람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네가 너의 말을 내 제단 앞에 놓은 이상, 나는 네가 내 눈앞에서 도망치는 꼴을 보고 있지 않을 것이며, 두 주인을 섬기는 것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네 말을 내 제단 위에, 내 눈앞에 놓은 후에는 다른 것을 사랑해도 된다고 생각했느냐?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를 놀리는 것을 내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너는 함부로 네 그 헛바닥을 움직여 내게 소원을 빌고 서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네가 어찌 나, 지극히 높은 자의 보좌를 가리키며 서원할 수 있단 말이나? 너는 네 서원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느냐? 내가 알려 주겠다. 너희의 육체는 사라져도 너희의 서원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지막 때에 나는 너희의 서원에 따라 그 죄를 정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말만 늘어놓고 대충 넘어가면서 마음으로는 그 더러운 귀신과 악령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분노가 어찌 그 개돼지 같은 놈들의 기만을 용납하겠느냐? 나는 나의 행정을 집행할 것이다. 낡은 틀에 박혀 나를 믿는 그 ‘경건한’ 자들을 더러운 귀신의 손에서 되찾아 와 순순히 나를 ‘섬기게’ 하고 언제든 내게 도살될 수 있는 내 우마가 되게 할 것이다. 나는 네가 과거의 다짐을 모두 찾아 다시 나를 섬기게 할 것이고, 어떤 피조물도 나를 기만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함부로 요구하고 거짓을 입에 담아도 된다고 생각했느냐? 내가 네 말을 듣지 못하고 네 행위를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네 언행이 어찌 내 눈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를 기만하는 것을 내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너희의 인격은 너무나 비천하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42)

나는 너희 가운데서 몇 해를 다녔고, 또한 오랜 세월 너희 가운데서 생활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생활했는데, 너희의 비열한 행위가 내 눈앞에서 얼마나 사라졌느냐? 너희의 마음속 말은 내 귀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너희의 다짐은 내 제단 위에 첩첩이 쌓여 그 수를 셀 수도 없다. 그러나 너희의 봉헌과 헌신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너희의 진심은 내 제단 위에 전혀 놓이지 않았다. 나에 대한 너희 믿음의 열매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나에게서 한없는 은혜를 얻고, 한없는 하늘의 비밀을 보았다. 나는 너희에게 하늘의 불길까지 보여 주었으나 차마 너희를 불사르지는 못했다. 그런데 너희는 내게 얼마나 돌려주었느냐? 너희가 기꺼이 내게 준 것은 얼마나 되느냐? 내가 베풀어 준 음식을 다시 내게 바치는 주제에, 힘들게 피땀 흘려 얻은 것이라느니, 너의 모든 것을 바친다느니 하며

지껄이는구나. 내가 ‘바친’ 것이 전부 내 제단에서 훔쳐 간 것임을 모른단 말이냐? 오늘 그것을 다시 내게 바치니 이는 나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은 전부 내 제단 위에 놓인 제물이니, 내가 피땀 흘려 얻은 것을 내게 바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어찌 모르는 것이냐? 너희가 이렇게 나를 기만하는데,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어찌 계속 참을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었다. 나는 전부 공개하며,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여 너희의 시야를 넓혀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양심을 저버리고 나를 기만하는구나. 나는 사심 없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었다. 너희는 비록 고통을 받기는 했지만, 내가 하늘에서 가져온 모든 것을 얻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조금도 봉헌하지 않는구나. 설령 조금 공헌했다고 해도 조금만 지나면 또 내게 ‘장부를 들이대니’, 너의 공헌이 전부 헛되지 않겠느냐? 내가 내게 바친 것은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 한 톨이지만, 내게 요구한 것은 황금 만 냥이다. 이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 나는 너희 가운데서 사역하지만, 많은 제물을 얻는 것은 고사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십일조마저도 받지 못했다. 또 경건한 사람들이 바친 십일조마저 전부 악한 자들에게 빼앗겼다. 그러니 너희는 모두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들이 아니겠느냐? 나를 적대시하는 자들이 아니겠느냐? 내 제단을 파괴하는 자들이 아니겠느냐? 그런 자들이 어찌 내 눈에 귀하게 보이겠느냐? 그런 자들이야말로 내가 가장 혐오하는 개돼지가 아니냐? 내가 어찌 너희의 악행을 귀히 여기겠느냐? 나의 사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겠느냐? 내가 너희를 쳐서 내 권병을 나타내려 하는 것뿐이겠느냐? 너희의 목숨은 전부 내 말 한마디에 달려 있지 않느냐? 내가 왜 말로만 너희를 타이를 뿐, 일찌감치 너희를 쳐서 말이 사실이 되게 하지 않았겠느냐? 내가 단지 사람을 치기 위해 말하고 사역하겠느냐? 내가 어찌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하나님이겠느냐? 오늘날, 너희 중 몇이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내 앞에 와서 인생의 참길을 찾고 있느냐? 너희는 몸만 내 앞에 와 있을 뿐, 마음은 구만리 떨어진 곳에 있다. 내 사역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에 너희 중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려 한다. 나를 멀리하여 형벌과 심판이 없는 극락세계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바라는 것이 아니냐? 나는 강요하지 않겠다. 어떤 길을 가든 그것은 네가 택할 일이다. 오늘의 길은 심판과 저주가 수반되는 길이다. 하지만 너희는 알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심판이든 형벌이든 모두 최고의 선물이며,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너희의 인격은 너무나 비천하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43)

내가 땅에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펼치고, 이토록 오랫동안 사람 사이를 오갔건만 나의 형상과 성품에 대해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몹시 드물다. 인류는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고,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며, 언제나 경계심을 품고 있다. 마치 모두들 내가 사람을 다른 지경으로

이끌어 간 후 방치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나에게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거나 나를 매우 조심스럽게 대한다. 오늘날에 이르렀음에도 사람은 여전히 내가 하는 사역을 알지 못하며, 특히 내가 사람에게 한 말은 더더욱 ‘이해를 못 하기’ 때문이다. 즉, 두 손으로 내 말을 받쳐 들고는 끝까지 믿어야 할지, 망설이다가 그냥 잊어야 할지 몰라 한다. 또한 실행에 옮겨야 할지, 바라보며 기다려야 할지 종잡지 못하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담대하게 따라가야 할지, 세상과 계속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사람의 내면세계는 복잡하기 그지없고 또 간교하기 그지없다. 많은 이가 내가 한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파악하지도 못하기에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도, 자신의 마음을 내 앞에 내놓는 것도 몹시 힘들어한다. 나는 너희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 육으로 살다 보니 연약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고, 객관적인 요인이 가져온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가족을 부양하느라 애를 쓰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말이다. 육으로 사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나 역시 부인하지는 않는다. 너희에 대한 나의 요구는 당연히 너희의 고충을 감안하며, 내가 하는 모든 사역 또한 당연히 너희의 현실적인 분량을 고려한다. 지난날 사람들은 사역을 할 때 불순물이 담긴 ‘지나친’ 요구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과 행사에 ‘지나친 요구’가 들어 있던 적은 없으며, 나는 언제나 사람의 본성과 육체, 필요를 감안하여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명심해라. 너희에게 분명히 말해 두노니, 나는 사리에 맞는 사람의 생각과 원래의 본성에 맞서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나의 요구 기준에 대해 당최 알지 못하고, 내 말의 본뜻도 이해하지 못하기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내 말을 반신반의하는 것이다. 심지어 나의 말을 믿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모두 불신파다. 또한 상당수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즐겨 듣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구경꾼이다. 너희에게 경고한다. 나의 많은 말이 나를 믿는 자에게 열린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나라의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기만’ 하고 하나님나라의 문밖에 서 있는 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나에 의해 내쳐졌다. 너희는 내게 미움을 받고 버려진 가라지 아니더냐? 그런데 어떻게 나를 배웅하고 또 나의 귀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고한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여호와의 진노의 말씀을 들은 즉시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아 회개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너무 놀라고 두려운 나머지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아 회개한 것이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내가 한 말을 ‘믿으며’, 나아가 여호와가 오늘날 다시 너희 가운데 왔다는 것을 믿기는 한다. 그러나 너희의 태도는 거만하기 짝이 없는데, 마치 수천 년 전에 유대에서 태어났다가 오늘날 다시 너희 가운데 임한 예수를 살펴보는 듯하다. 나는 너희 마음속에 자리한 간사함을 잘 알고 있다. 너희 대부분은 호기심 때문에 나를 따르고, 또 공허함 때문에 나를 찾는다. 너희의 세 번째 소망인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산산조각 날 때 너희의 호기심도 함께 사라진다. 너희 각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사함은 너희의 언행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솔직히 말하면, 너희는 나에 대해 호기심만 느낄 뿐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말을 가려서 하거나, 더욱이 행동에 신중을 기하는 법도 없다. 너희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진실한 것이냐? 너희는 내 말을 그저 근심을 해소하고, 자신의

삶에 존재하는 허전함을 채우는 데 쓸 뿐이다. 너희 중 누가 내 말을 실행에 옮겼느냐? 누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는 전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분이십니다.”라고 외치지만 너희가 마음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이 나와 합할 수 있느냐? 너희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또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냐? 이것이 너희가 내게 보답하겠다고 하는 사랑이란 말이나? 너희는 말로는 많은 것을 바쳤다. 그런데 너희가 바친 ‘제물’과 ‘선행’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너희의 말이 내 귀에 상달되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너희를 이토록 증오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믿는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궁색한 처지로 전락했겠느냐? 음부에서 심문을 받기라도 하는 것처럼 잔뜩 풀이 죽어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구나. 맥없이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는데 온통 원망과 악담뿐이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에 믿음을 잃었고, 심지어는 너희가 원래 갖고 있던 믿음조차 모두 잃어버렸다. 이래서야 어떻게 끝까지 따를 수 있겠느냐?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나이 든 자와 젊은 자들에게 전하는 말>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44)

나의 사역이 너희에게 크나큰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은 항상 너희에게서 물거품이 되고, 결실이 맺히지 않으며, 내가 온전케 할 대상을 찾기가 힘들다. 그리하여 오늘날 너희에게 거의 희망을 잃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오랫동안 너희 가운데서 나의 지기(知己)를 찾고 또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계속 역사할 자신이 없고,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진 듯하다. 너희가 거둔 그 형편없기 짝이 없는 성적이 이미 오래전부터 혐오스러웠기 때문이다. 너희가 거둔 성적은 마치 내가 너희 가운데서 말을 하거나, 너희에게 역사를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너희의 성적은 역겹기 그지없다. 너희는 항상 철저히 실패하여 가치 있다고 할 만한 것이 거의 하나도 없다. 너희에게서는 ‘사람’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냄새도 나지 않는다. 너희의 상큼한 향기는 어디에 남아 있는 것이냐? 너희가 오랫동안 치른 대가와 헌신은 어디로 가고, 그 성과는 또 어디에 있는 것이냐?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냐? 오늘날 나의 사역은 또다시 새로운 기점을 맞이하여 새로이 시작되었다. 나는 큰 뜻을 펼치고, 더 큰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건만 너희는 아직도 예전처럼 진흙탕 속에서 타락해 있으며, 예전처럼 구정물에서 살면서 원래 겪던 곤경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여전히 나의 말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가 아직도 더러운 물이 고인 진흙탕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저 나의 말을 알기만 할 뿐 내 말에 담긴 자유의 세계에 들어서지는 못했기 때문에 내 말이 몇천 년 동안 단단히 봉해져 있던 선지자의 예언서처럼 너희에게 열리지 않은 것이다. 나는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에게 나타나지만, 너희는 이를 알아차리는 법이 없고, 심지어 나를 전혀 알지 못한다. 내가 하는 말의 거의 절반이 너희에 대한 심판이고, 성과는 절반에 불과한데도 너희는 모두 뉘를 잃었다. 나머지 절반은 삶에 대한

것이나 올바른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이지만, 너희는 이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한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말을 들은 것처럼 언제나 ‘애매하게’ 웃고는 그냥 넘어간다. 너희는 나의 말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고,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나의 행사를 살펴본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모두가 흑암에 빠져 빛을 찾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슬피 울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의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한다. 또 나아가 너희가 나의 말을 등한시하지 않고 굳게 믿기를 바란다. 나의 말을 이렇게 대하며 대충 넘어가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인데, 하물며 너희가 나의 말과 사역에 늘 무관심한 것은 어떻겠느냐? 나의 사역은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나는 너희에게 수많은 말을 베풀었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나를 대한다면 나는 너희가 얻은 적도 실행한 적도 없는 모든 것을 이방 족속에게 줄 수밖에 없다. 내 손안에 있지 않은 피조물이 어디 있단 말이나? 너희 중의 다수가 ‘연로하여’ 더는 나의 이런 사역을 받아들일 기력이 없다. 항상 한고조(寒苦鳥)처럼 계획 없이 살아갈 뿐 내 입에서 나온 말을 참답게 대하는 법이 없다. 한편, 젊은이들은 허영과 방종으로 가득하다. 내가 하는 사역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잔칫상의 진수성찬을 맛보려 하지도 않으며, 새장을 벗어난 작은 새처럼 ‘타향’으로 멀리 날아가 버린다. 이런 노인과 젊은이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나이 든 자와 젊은 자들에게 전하는 말>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45)

너희 젊은이들은 기운이 넘치는 어린 사자 같으나 마음속에 참도를 간직한 자는 몹시 드물다. 너희는 젊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역사를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반감을 산다. 너희는 나이가 어린데도 패기가 없는 것인지, 포부가 부족한 것인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다.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너희에게서는 젊은이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패기, 이상, 주관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젊은이들은 자신의 주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다. 싱그러운 느낌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고, 칙칙한 분위기만 풍길 뿐이다. 또 이런 젊은이들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일의 진위를 가리지 못하며, 완벽을 기하는 법이 없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도 구분하지 못한다. 너희에게 남아 있는 종교적인 성향은 나이 든 자보다 더 많고 더 강하다. 심지어 너희는 거만하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며, 승부욕이 강하고 몹시 호전적이다. 이런 젊은이가 어떻게 진리를 지니고 있겠느냐? 주관도 없으면서 어떻게 굳게 설 수 있겠느냐?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도 없으면서 어찌 젊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젊은이의 패기, 생기, 싱그러움, 침착함, 진중함도 없으면서 어찌 나를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진리와 정의감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장난치고 노는 데 정신이 팔린 사람에게 어떻게 나의 증인이 될 자격이 있겠느냐? 젊은이는 간사함과 멸시로 가득한

눈빛을 지녀서는 안 된다. 파괴적이고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어서도 안 된다. 또한, 이상(理想), 기개, 힘차게 전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앞날에 대해 낙담하거나, 삶에 대한 희망이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서도 안 된다. 오늘날 자신이 선택한 진리의 도를 위해 곳곳하게 걸어갈 의지를 지녀야 하고, 나를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야 한다. 젊은이는 진리가 없어서는 안 된다. 거짓과 불의를 감싸서도 안 되며, 마땅히 가져야 할 주관을 가져야 한다. 쫓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정의와 진리를 위해 과감히 헌신하며 노력하는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젊은이는 흑암 세력의 압제에 무릎 꿇지 말고, 자신이 살아가는 의의를 바꿔 놓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 또한 역경에 순응해서는 안 되며, 허심탄회한 마음과 형제자매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물론, 이는 모든 사람에 대한 내 요구이자 권고이며, 더 나아가 모든 젊은이를 향한 위로의 말이다. 너희는 마땅히 나의 말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 특히 젊은이는 사리를 분별하고, 정의와 진리를 찾겠다는 의지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는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을 추구하고, 모든 긍정적인 사물의 실재를 얻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지, 이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 사람이 세상에 와서 나를 한 번 마주치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고, 진리를 찾고 얻을 기회도 가지기 어렵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이 좋은 시간을 소중히 간직해 금생에 추구할 바른길로 삼지 않는 것이냐? 또 어찌하여 항상 진리와 정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냐? 어찌하여 늘 사람을 우롱하는 불의와 불결함으로 인해 스스로를 짓밟고 망치는 것이냐? 어찌하여 나이 든 자들과 똑같이 불의한 자의 행동을 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시대에 뒤쳐진 낡아 빠진 것을 따라 하는 것이냐? 너희의 인생은 본디 정의, 진리, 거룩함으로 가득한 것이어야지, 이렇게 빨리 타락하여 음부에 떨어져선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이 너무도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는단 말이나? 너희는 이것이 너희에게 너무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나이 든 자와 젊은 자들에게 전하는 말>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46)

이렇게 많은 사역과 많은 말씀이 네게서 아무런 결실도 보지 못하고, 사역을 확장할 때 네가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면, 너는 부끄러움에 수치까지 당하게 된다. 그때 너는 하나님께 너무 죄스러우며,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얕박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 이 사역 기간에 알려고 추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추구하려고 해도 늦고 만다. 결국 머릿속에 든 것이 없고 아무런 인식도 말하지 못할 텐데, 네가 하나님께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볼 낮이 있겠느냐? 지금 열심히 추구하여 최종적으로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사람에게 크게 이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없으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이 더러운 땅에서 수렁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사탄에 의해 패괴되어 아귀다툼을 벌이고, 서로 짓밟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었다. 사람은 패역이 너무 크고, 관념이 너무 많아 전부 사탄에 속한다.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떠난다면 사람은 패괴 성품이 정결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에서 나타내는 것은 바로 영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고, 그가 한 사역은 영이 하는 대로 한 것이다. 오늘날, 이런 사역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너는 너무 어리석은 것이고 또 너무 많은 것을 잃은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너의 믿음은 종교적인 신앙이고 너는 종교적인 기독교 신자다. 너는 죽은 규례를 붙잡고 지키는 바람에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잃어버렸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추구함으로써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너는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기는커녕 도리어 악을 행하는 사람, 멸망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 또 사탄의 웃음거리이자 사탄의 노획물이 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앙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추구하고 경배해야 하는 대상이다. 지금 추구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때 저는 왜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만족케 해 드리지 못하고, 생명 성품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스럽네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왜 추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정말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아주 증오하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 내가 한 말을 믿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지만, 어느 날 이 사역이 전개되는 것을 전부 보게 되면 그때는 후회하고 아연실색할 것이다. 있는 복도 누릴 줄 모르고, 있는 진리도 추구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겠느냐? 비록 아직은 다음 단계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지금 너에게 요구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역과 무관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많은 사역과 진리가 모두 네가 알 가치가 없는 것이냐? 형벌과 심판은 너의 영을 깨어나게 할 수 없느냐? 형벌과 심판이 너로 하여금 너 자신을 증오하게 할 수 없단 말이나? 너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면서 평안하고 즐겁고 육의 편안함을 조금 얻는 것에만 만족하느냐? 그런 사람은 가장 비천한 사람 아니더냐? 구원을 보고도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보다 미련한 사람이고, 육적인 것을 탐하는 사람이며 사탄을 즐기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어려움과 환난, 고통이 조금도 없기를 바란다. 너는 늘 이런 가치 없는 것들만 추구하고, 정작 생명은 한 톨의 가치도 없다고 여기며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각을 진리보다 앞자리에 놓는다. 너는 너무도 무가치한 사람이다! 네가 돼지처럼 산다면 개돼지 따위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육적인 것을 좋아하는 자는 모두 짐승 아니겠느냐? 영이 없는 죽은 자는 모두 걸어 다니는 송장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말했더냐?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한 사역이 적더냐? 너희 가운데서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공급했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서 얻지 못했느냐? 또 무슨 불평이 있단 말이나? 내가 얻지 못한 것은 육을 너무 귀하게 여긴 탓이 아니더냐? 네 생각이 너무 사치스러운 탓이 아니더냐? 네가 너무 어리석은 탓이 아니더냐? 너는 이 복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았다고 원망할 수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은 뒤 평안만 얻고자 한다. 자식에게 병이 없고, 남편에게 좋은 직업이 있고,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찾고, 딸이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너의 우마가 밭갈이를 잘하고, 한

해의 농사가 잘되길 바란다. 네가 추구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너는 오직 편안하게 살기만을 바라고, 너의 집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바람이 불어도 네 몸에는 불지 않고, 모래가 날려도 네 얼굴은 때리지 않으며, 홍수가 나도 네 집의 곡식은 잠기지 않고, 모든 재난이 너와 무관하길 바란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고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너처럼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못난 놈에게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짐승 아니겠느냐? 아무 대가도 없이 참도를 네게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추구하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느냐? 진정한 인생을 베풀어 주었는데 추구하지 않는다. 그럼 너는 개돼지 따위가 아니겠느냐? 돼지는 인생을 추구하지 않고 깨끗함을 바라지도 않으며 인생이 무엇인지 모른 채 날마다 배불리 먹고 쿨쿨 잠만 잔다. 참도를 베풀어 주었건만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런 돼지 같은 삶을 계속하고 싶느냐? 그런 사람이라면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비루하고 저속하며, 더럽고 음란하게 살면서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도 없으니 너의 일생은 가장 비천한 일생 아니겠느냐? 무슨 낚으로 하나님을 뵈겠느냐? 계속 그렇게 체험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네게 참도를 베풀어 주었지만 결과적으로 네가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너 자신의 추구에 달려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베드로의 체험—형벌과 심판에 대한 인식>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47)

너희의 육, 사치스러운 욕망, 탐욕, 정욕이 너희 몸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너희의 마음을 통제하고 있어 너희는 이 봉건적이고 타락한 생각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조차 없게 되었다. 너희는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도,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그저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다. 너희는 이 같은 인생이 고통스럽기 그지없고 이런 세상이 너무나 어둡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런 삶을 변화시킬 용기가 없다. 그저 이런 실생활에서 벗어나고 영혼을 제도(濟度)하여 하늘나라 같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에서 살기만을 바랄 뿐이다. 너희는 고생을 겪으며 자신의 현재 삶을 바꾸려 하지 않고, 이러한 심판과 형벌 속에서 자신이 진입해야 할 인생을 찾으려 하지 않으며, 육체에서 벗어난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실제적이지 못한 공상만 품고 있다. 너희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쉽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동경한다. 그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너희가 바라는 것은 육체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려는 것도, 진리를 얻는 삶을 살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너희는 진리를 위해 살고 정의를 위해 굳게 서는 것이 찬란한 인생이라 생각지 않으며, 그런 인생이 빛나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 여기지 않는다. 너희는 평생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비록 지금 너희가 이 형벌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너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진리를 얻고 진리를 살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육체에서 벗어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함이다. 너희는 진리를 찾지 않고, 진리를 위해 굳게 서지 않으며, 더욱이

진리를 위해 살지도 않는다. 너희는 지금 진입할 것을 추구하지 않고, ‘먼 훗날’에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괴로운 눈물을 흘리면서 언젠가는 하늘에 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 너희는 그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너희는 늘 구주가 큰 자비를 베풀어 언젠가는 세상에서 고난받고 있는 너를 데려갈 것이며, 틀림없이 억압을 당한 너를 위해 원한을 풀어 주고 복수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너의 죄가 적단 말이나? 하늘 아래 고통받는 이가 어찌 너 하나뿐이겠느냐? 너 스스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 원한을 풀어 줘야 한단 말이나?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의 좋은 행위가 그리 대단한 것이냐? 그렇다고 너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네가 좋은 일을 조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억압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원한을 풀어 주고 복수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을 행했지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자도 형벌을 받지 않았더냐? 너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하나님께 너를 위해 원한을 풀어 주고 복수해 주고, 너를 출세하게 해 달라고만 할 뿐, 진리를 거들떠보지 않고 진리를 살아 내길 갈망하지 않는다. 더욱이 고통스럽고 공허한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죄에 빠진 육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원한을 풀어 주고 네 앞에 드리운 짙은 안개를 거두어 주길 바란다.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너에게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진리를 살아 내면 하나님 말씀을 나타낼 수 있으며,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고난을 겪은 자들을 위해서는 원한을 풀어 주지만,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사탄의 속임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는 원한을 풀어 주지 않는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선함이 있겠느냐? 오로지 육적인 것을 좋아하는 자에게 어떻게 의로움이 있겠느냐? 선함과 의로움은 모두 진리를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한 것이 아니냐?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썩은 시체를 가진 자는 모두 악을 품고 있지 않느냐? 진리를 살아 내지 못하는 자는 모두 진리의 원수가 아니냐? 너희들은 또 어떠하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온전케 된 사람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48)

사람을 경영하는 것은 내 본연의 사역이고, 나아가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 내가 창세 때 이미 정해 놓은 것이다. 사람은 내가 말세에 그들을 철저히 정복할 것이란 사실을 모르고, 또한 내가 인류 중의 패역자를 정복하는 것이 곧 사탄을 물리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하지만 지난날 내 원수가 나와 싸울 때, 나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그것의 아들딸, 집지기가 된 충실한 종을 정복할 것이라고 알려 준 바 있다. 정복의 원뜻은 상대를 물리쳐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표현법에 따르면 본래 상대를

철저히 물리치고 쳐부쉬 다시는 내게 반항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었지만, 오늘날 이 사람들에게는 정복이란 뜻으로 쓰인다. 너희는 내 본래의 뜻이 인류의 악한 자를 철저히 멸하고 쳐부쉬 다시는 나를 배반하지 못하게 하고, 내 사역을 방해하거나 어지럽힐 기운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정복이 된다. 하지만 그 내포된 의미가 어떠한 결론적으로 말해 내 사역은 인류를 쳐부수는 것이다. 인류가 내 경영의 부속물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류는 내 원수요, 나를 대적하고 거역하는 악한 자요, 내게 저주받은 악한 자의 후예요, 나를 배반한 천사장의 후손이요, 일찍이 내게 버림받고 나와 첨예하게 맞서는 악마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전 인류의 상공은 혼탁하고 어두워 맑은 느낌이 전혀 없으며, 인간 세상 또한 칙흑같이 캄캄해 거기서 살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고개를 들어도 햇빛을 볼 수 없다. 발밑의 길은 질퍽거리고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하며, 도처에 송장이 즐비하다. 어두컴컴한 구석에는 죽은 자의 백골이 가득하고, 음산한 모퉁이에는 온갖 귀신이 머물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도처에 귀신들이 출몰한다. 더럽기 그지없는 온갖 짐승의 후손들이 서로 참혹하게 싸우고 죽이니, 그 소리가 간담을 서늘케 한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상, 이러한 ‘인간 낙원’ 가운데 어디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겠느냐? 사람은 또 어디에서 인생의 종착지를 찾겠느냐? 이미 오래전에 사탄에게 짓밟힌 인류는 본래 사탄의 형상을 연기하는 존재이며, 나아가 사탄의 화신이자 사탄을 위해 ‘힘 있는 간증’을 하는 증거물이다. 이런 인류, 이런 인간 말종, 이런 ‘폐괴된 인류 족속’의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내 영광이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내 증거는 어디서부터 논하겠느냐? 나와 맞서며 인류를 폐괴시킨 그 원수는 내가 창조한, 내 영광과 나를 살아 내는 모습이 충만했던 인류를 더럽히고 또 내 영광을 빼앗아 갔다. 그것이 사람에게 한 일이라고는 사탄의 추태로 가득한 독소와 선악과의 과즙을 채워 넣은 것뿐이었다. 태초에 나는 ‘인류’를 창조하였다. 즉,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만들었다. 아담에게는 형상이 있었고 생기와 활력이 넘쳤으며 더욱이 내 영광이 함께했다. 그날은 본래 내가 사람을 창조한 영광의 날이었다. 이어서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생겨났다’. 그녀 역시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내가 창조한 사람은 나의 생기로 충만했고 나의 영광으로 가득했다. 아담은 내 손에서 ‘난’ 존재로, 본래 내 형상을 대표한다. 그렇기에 ‘아담’이란 본디 나의 활기가 넘치고, 나의 영광이 가득하며, 형태도 모양도 있고, 영광 생기를 갖춘 나의 피조물이란 뜻이었다. 또한 내가 창조한, 유일하게 나를 대표할 수 있고 내 형상을 지니고 나의 생기를 받은, 영이 있는 피조물이라는 뜻이었다. 한편, 하와는 내가 태초에 정해 놓았던, 두 번째로 지음 받은 생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와’란 내 영광을 이어 가고 나의 생기가 가득하며, 나아가 내 영광을 지닌 피조물이라는 의미이다. 하와는 본래 아담에게서 왔으므로 그녀에게도 내 형상이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내 형상대로 지음 받은 두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와’란 영이 있고 뼈와 살이 있는 산 사람이라는 의미로, 인류 중에 내 두 번째 증거이자 두 번째 형상이었다. 이들은 인류의 조상이면서 인류의 보배롭고 성결한 존재로, 본래 영이 있는 산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악한 자가 인류 조상의 자손을 짓밟고

약탈했으며, 나아가 인간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어 이 ‘후손’들이 더 이상 내 존재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더욱 혐오스러운 것은 그 악한 자가 사람을 패괴시키고 짓밟는 동시에 나의 영광과 증거, 내가 사람에게 준 생기, 내가 사람에게 불어넣은 숨결과 생명, 그리고 인간 세상의 내 모든 영광과 내가 인류에게 기울인 모든 심혈까지 무자비하게 빼앗아 갔다는 사실이다. 인류는 광명을 잃고, 내가 준 모든 것을 잃었으며, 내가 베풀어 준 영광을 버렸는데 어떻게 나를 피조물의 주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늘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또 땅에도 내 영광이 나타나고 있음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그들의 선조가 경외하던 하나님을 자신들의 창조주로 여길 수 있겠느냐? 뜻밖에도 이 가련한 ‘손자, 손녀들’은 내가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준 영광과 형상, 증거, 나아가 인류가 생존하도록 베풀어 준 생명까지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악한 자에게 ‘증여’하였다. 또한 그 악한 자의 존재를 조금도 개의치 않고 나의 이 모든 영광을 다 그것에게 주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말종’이라는 호칭의 유래 아니겠느냐? 이런 인류, 이런 악귀, 이런 산송장, 이런 사탄, 이런 원수에게 어떻게 나의 영광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나는 내 영광은 물론이고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나의 증거와 이전에 인류에게 베풀었던, 원래 내게 속했던 모든 것을 다시 빼앗아 올 것이다. 즉, 사람을 철저히 정복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내가 지은 사람은 본래 내 형상과 영광을 지닌 성결한 사람으로, 사탄에게 속하지도 짓밟히지도 않았으며, 오롯이 나를 나타내는 존재로서 사탄의 독소가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오로지 내 손으로 지은 사람이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본래 다른 것에 속하지 않은 성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게다가 나는 그런 사람을 나의 기쁨과 영광으로 여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은 사탄에 의해 패괴되고 오늘날 사탄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태초에 지은 그런 인류도 아니다. 나는 인간 세상의 내 영광을 빼앗아 올 것이므로 인류 가운데서 ‘요행히 살아남은 자들’을 철저히 정복함으로써 내가 사탄을 물리친 영광의 증거로 삼을 것이다. 나는 오로지 내 증거만을 나의 결정체로, 나의 기쁨으로 삼는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진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49)

인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만 년 동안 발전해 왔다. 하지만 내가 지은 최초의 인류는 오래전에 타락하여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인류가 아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비친 사람은 더 이상 인류라고 할 수 없으며, 사탄에게 잡혀간 인간 말종, 사탄이 거하고 입는, 썩은 산송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전혀 내 존재를 믿지 않으며 내가 온 것도 환영하지 않는다. 마지못해 내 요구에 응대하며 잠시 그것을 들어줄 뿐, 진심으로 나와 고락을 함께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나를 알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억지로 웃어 주며, 비위를 맞춘다. 내 사역을 알지 못하며, 지금의 내 뜻은 더더욱 모르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말하겠다. 그날이 오면, 나를 경배하는 사람은 누구든 너희보다 덜 고난받을 것이다. 지금 나에 대한 사람의 믿음이 옅은커녕 유대 바리새인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불의 날이 오면, 너희의 날은 예수에게 질책받던 바리새인들보다 더 심할 것이고, 모세를 대적했던 250 명의 족장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며, 불사름에 멸망한 소돔보다 더 심할 것이다.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여호와가 베풀어 준 물이 솟아 나온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다윗이 비파와 수금으로 나, 여호와를 찬양했을뿐더러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욥이 산을 가득 채운 우양과 많은 가산을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난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나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영광의 증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요한이 인자의 영광의 형상을 보게 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말세의 이상(異象)을 보게 된 것은 더더욱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이방의 백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나의 계시를 받고, 내가 이미 육신으로 돌아와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도 그들의 믿음 때문이다. 나의 엄한 말에 매를 맞아도 위안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들 또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느냐? 나를 믿어 고난받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적이 있지 않더냐? 내 말 속에서 살지 않고 시련의 고통에서 도망친 자들은 모두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더냐? 그들은 여기저기 떨어지는 늦가을의 낙엽처럼 발붙일 곳도 없고, 내 위로의 말은 더더욱 듣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내 형벌과 연단이 없지만, 그들이 바로 천국 밖에서 떠돌고 길거리에서 유랑하는 거지들 아니겠느냐? 세상이 정말로 네 안식처겠느냐? 네가 나의 형벌을 피한다고 세상에서 진정한 위안이 되는 기쁨을 얻을 수 있겠느냐? 잠시의 누림으로 정녕 네 마음속의 감출 수 없는 공허함을 가릴 수 있겠느냐? 네가 가족은 속일 수 있어도 절대 나를 속일 수는 없다. 네 믿음이 너무 작기에 아직껏 삶의 낙을 찾지 못한 것이다. 너에게 권하노니, 육을 위해 평생을 무의미하고 바쁘게 보내면서 참기 어려운 온갖 고초를 겪느니 차라리 나를 위해 진심으로 반평생을 바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구태여 자신을 그렇게 아끼면서 내 형벌을 피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 일시적인 형벌을 피하기 위해 영원한 괴로움과 형벌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사람이 정말 내 모든 안배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나 또한 냉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욥이 나 여호와를 믿은 것처럼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믿기를 바란다. 너희의 믿음이 도마보다 크다면 너희의 믿음 또한 내게 칭찬받을 것이다. 너희의 충성심에 나 또한 기뻐할 것이며, 너희의 날에도 반드시 내 영광이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과 악마를 믿었던 자들은 마음이 소돔 성의 백성처럼 강박하여 눈에는 바람에 날리는 모래가 들어가고 입에는 악마가 준 제물을 물게 될 것이다. 속임을 당한 마음은 세상을 차지한 그 악한 자에게 이미 점령되었고, 사람의 생각은 거의 다 고대의 악마에게 빼앗겨 버렸다. 그로 인해 인류의 믿음도 바람에 흩날리듯 사라졌다. 내가 사역을 행해도 사람은 잠시 응대하거나 분석만 할 뿐 전혀 신경 쓰지도 못한다. 이는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사탄의 독소에 젖어 버렸기 때문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50)

내가 인류를 정복하는 이유는 사람이 내게 지음 받고 또한 내가 창조한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렸음에도 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은 나를 마음에 두지 않고 삶의 짐으로 여기고 있다. 심지어 사람은 분명히 나를 보았으면서도 저버리고, 온갖 수단으로 나를 '물리치려고' 한다. 사람은 내가 진지하게 대하거나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사람의 불의를 심판하고 형벌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사람은 이를 새롭게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싫증을 낸다. 그렇기에 내 사역은 나를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도 나를 알지 못하는 인류를 쳐부쉬 철저히 물리친 뒤, 나의 사자들, 나의 영광과 더불어 내 처소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의 행실이 이미 오래전에 내 마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고, 내 사역도 깨뜨렸기 때문에 나는 악한 자가 빼앗아 간 영광을 되찾아 기쁜 마음으로 떠날 것이다. 그리고 더는 사람의 삶에 관여하지 않고 인류가 계속 자신의 '삶'을 살면서 '안거낙업'하며, '자신의 농토를 경작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내 영광을 악한 자의 손에서 완전히 빼앗아 올 것이다. 창세 때 사람에게 주었던 영광을 모조리 거두어 다시는 땅의 인류에게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람이 내 영광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내 영광을 사탄의 모습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내가 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 영광의 날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또한 내 형벌을 달갑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더욱이 나의 영광을 내게 돌려주려 하지도 않으며, 악한 자의 독소를 버리려 하지도 않는다. 사람은 나의 영광이 인류를 떠났을 때 인류가 얼마나 큰 어둠에 빠지게 될지 모르고, 나의 날이 전 인류에게 임했을 때 인류의 날이 노아의 날보다 훨씬 지내기 어려울 거라는 사실도 모른 채, 여전히 이렇게 나를 기만하며,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다. 내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캄캄했는지, 동이 틀 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는지 망각했기 때문이다. 해가 다시 숨고 어둠이 다가오면 사람은 다시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내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주한 고난의 날이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다는 것을 잊었느냐? 지금은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보는 때이며, 또한 나와 더불어 영광의 날을 함께 보내는 때이다. 그러나 내 영광이 이 더러운 땅을 떠날 때, 사람은 어둠 속에서 슬피 울 것이다. 지금은 내가 사역하는 영광의 날이고, 또한 인류에게 고난을 면케 해 주는 날이다. 나는 사람과 함께 고난과 고통의 날을 보내지 않으며, 오직 인류를 철저히 정복하고 인류의 악한 자를 완전히 쳐부수기만 하기 때문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51)

나는 땅에서 많은 사람을 찾아 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였다. 따르는 사람 중에는 제사장이 되는 사람도 있고, 리더나 아들들이 되는 사람도 있고, 백성이나 봉사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 나는 나에 대한 사람의 충성심에 따라 사람을 각 부류로 나눈다. 모든 사람이 각기 부류대로 나뉘었을 때, 즉 각 부류 사람들의 본성이 죄다 드러날 때, 나는 그들을 각각 있어야 할 부류에 속하게 하고 가장 적합한 자리에 배치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내 목적을 이룰 것이다. 또한 나는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단계적으로 불러 모아 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한 다음, 모두가 내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게 하는 한편, 사람을 부류대로 나눈다. 그런 뒤 그들이 행한 대로 상벌을 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역하는 절차이다.

현재 나는 땅에서,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으며, 사람은 나의 사역을 체험하고 나의 말을 보고 있다. 이에 발맞춰 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모든 진리를 베풀어 내게서 생명을 얻게 하고, 이에 행할 길을 얻게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생명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내 오랜 사역 속에서 많은 것을 얻었고, 또 많은 것을 버렸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사람이 나를 진실로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람은 입으로만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뿐, 내 입에서 나온 진리는 수긍하지 않고 내가 요구한 진리는 더욱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인정할 뿐,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만 인정할 뿐 하나님의 본질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열정 때문에 사람을 혐오한다. 사람은 듣기 좋은 말로 나를 기만하기만 할 뿐, 진심으로 나를 경배하는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너희의 말은 독사의 유혹을 품고 있으며, 극히 교만하여 천사장의 ‘소리’ 같다. 너희의 행실은 썩어 빠졌고, 너희의 사치스러운 욕망과 탐욕스러운 속셈은 듣기조차 민망하다. 너희는 모두 내 집의 좀 벌레, 내가 혐오하여 내치는 대상이 되었다. 너희는 전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가 땅에서 권세 잡는 장관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같이 극도로 패괴되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을 따를 자격이 있겠느냐? 너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 전혀 없는 아름다운 광경을 볼 자격이 있겠느냐?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희의 입에는 나를 기만하는 말과 더러운 말, 그리고 나를 배반하는 말과 교만한 말로 가득하다. 너희는 진실한 말로 나에게 간절히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거룩한 말도, 나의 말을 체험하여 나에게 순종하는 말도 한 적이 없다. 이런 너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하냐? 너희의 마음속은 욕망과 돈으로 가득 찼고, 너희 머리는 물질로 가득 찼다. 너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내게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지, 내게 얻은 돈과 물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있으며, 더 많은 축복이 임하여 더 많고 좋은 물질을 누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매 순간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게서 온 진리도 아니라, 너희의 남편(아내)과 아들딸, 그리고 너희가 먹고 입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더 잘 즐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것을 즐길 수 있는지 등이다. 너희가 자신의 배를 가득 채운다고 해도 여전히 시체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겉으로 아주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도 생기 없는 산송장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머리가 세도록 고생하면서도 내 사역을 위해서는 털끝 하나 바치려고 하지 않는다. 또 너희는

자신의 육체와 아들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며 고생하고 머리를 쥐어짜지만 내 마음을 생각하며 조급해하고 근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너희는 내게서 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나는 사역할 때 급하게 서두르는 법이 없다. 사람이 어떻게 따르든 나는 내 절차와 계획대로 사역한다. 그렇기에 너희가 이처럼 나를 거역하더라도 나는 나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예정해 놓은 사람들을 전부 내 집으로 불러 모아 내가 하는 말을 듣는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뒤에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을 다 내 보좌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한 내 말에 등 돌리고, 내게 청종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으며, 나를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은 죄다 한쪽에 두어 최후의 징벌을 기다리게 할 것이다. 사람은 모두 패괴 성품으로 살고 있고,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다시 말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리고 진리로 나를 경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도리어 패괴와 패역과 기만의 수법으로 나의 신임을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하는 것이다. 청함을 받은 자는 모두 극도로 패괴된 사람이고,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진리를 믿고 인정하며 실행하는 일부의 사람들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나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더 많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에 대조해 볼 때, 너희는 자신이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의 결말은 어떠할 것 같으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52)

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은 대가를 치를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너는 댈 만한 이유도 많을 것이고, 사랑도 아주 클 것이다. 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이란 티 없이 순수한 감정이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느끼고 헤아리는 것이다. ‘사랑’에는 조건도 간격도 거리도 없다. ‘사랑’에는 의심도 추측도 없고 기만도 간교도 없다. ‘사랑’에는 거래도 어떠한 불순물도 없다. 너에게 사랑이 있다면 기만도 원망도 하지 않을 것이고, 배반도 거역도 하지 않을 것이다.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무엇을 얻고자, 얼마큼 얻고자 바라지도 않을 것이다. 너에게 사랑이 있다면 기꺼이 바치고, 고난을 감내할 것이다. 또한 나와 마음을 합할 것이며, 나를 위해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다. 너의 가정과 앞날, 청춘과 결혼까지도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너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기만이고 배반이다! 너에게는 어떤 사랑이 있느냐? 참된 사랑이냐, 거짓된 사랑이냐? 너는 얼마나 포기하였느냐? 얼마나 바쳤느냐? 내가 너에게서 얻은 사랑은 얼마나 될 것 같으냐? 너는 알고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는 악과 배반, 기만이 가득하다. 그렇다면 너희의

사랑에는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위해 충분히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고, 나에게 대한 사랑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긴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의 언행은 늘 패역과 기만을 띠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면서도 나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면서도 나를 저버린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면서도 나의 존재를 용납하지 못한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면서도 나의 신분에 걸맞게 나를 대하지 않고 늘 나를 난처하게 한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면서도 매사에 나를 속이고 기만한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섬기면서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사사건건 내게 반기를 든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가 바친 것은 많지만 정작 내가 요구한 것들은 단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세히 따져 보면, 너희에게서는 나를 사랑하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했고 이토록 많은 말씀을 공급했는데, 너희가 얻은 것은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권고하고자 한다. 내가 불러 모은 이는 패괴된 사람이고, 내가 택한 이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땅히 자신의 언행을 경계하고 속마음과 생각을 성찰하여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또 마지막 때에 온 힘을 다해 너희의 사랑을 내 앞에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진노는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53)

각 사람이 날마다 행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의 눈을 피해 갈 수 없으며, 이는 또한 자신의 앞날을 위해 예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거쳐 가야 할 길이며, 내가 각 사람을 위해 예정해 놓은 것이다. 아무도 이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전례를 깨뜨릴 수도 없다. 나는 많은 말을 했고, 더욱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역을 했다. 나는 매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원래 본성과 심해지는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려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부지불식간에 많은 사람이 ‘정상 궤도’에 들어섰다. 이 정상 궤도는 각 부류의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설정한 것이다. 나는 일찍이 각 부류의 사람을 모두 서로 다른 환경 속에 두었고, 그들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원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어느 누가 속박하지도, 유혹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자유로웠고, 드러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웠다. 유독 그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말이었다. 그래서 그들 중 일부는 ‘죽지 않는’ 결말을 얻기 위해 나의 말을 억지로 읽어 볼 뿐 그대로 실천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내 말의 인도와 공급을 받지 못하는 날들을 견디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내 말을 늘 받들고 있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호르면서 그들은 인생의 비밀과 인류의 종착지, 그리고 사람됨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되었다. 인류는 내 말 앞에서 이런 상태에 머물 뿐이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순리에 맡길 뿐, 내 말을 생존의 토대로 삼으라고 강요하는 어떤 사역도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양심도, 생존할 가치도 없는 자들은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과감하게 내 말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한다. 그들은 진리는 물론, 내게서 비롯된 모든 것을 싫어하기 시작하였고, 내 집에 머무는 것은 더욱 싫어하였다. 그들이 힘을 쓴다 할지라도 그저 종착지를 위하여, 그리고 징벌을 피하기 위하여 잠시 내 집에 머무를 뿐이다. 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바뀐 적이 없었고, 그들의 행위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복을 받으려는 그들의 욕망을 더욱 부채질했고, 단번에 영구히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려는 생각, 심지어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욕망을 더욱 부추겼다. 이렇게 나의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랄수록, 그들은 진리가 장애물과 걸림돌이 된다고 여긴다. 그들은 단숨에 하나님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하여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도 되고,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며, 더욱이 내 집에서 굶신거리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란다. 그들이 내 집에 들어온 것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의 경영에 협력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들의 목적은 다음 시대에 멸망되지 않는 일원이 되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음속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는 것이 전혀 없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진리를 실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에도, 또한 자신이 심하게 패괴되었다고 여기지 않으면서도 처음부터 내 집에 머무르며 ‘중’이 된 이유이다. 그들은 ‘인내심’ 있게 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내 사역 방식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들이 얼마나 큰 노력을 했든, 어떤 대가를 치렀든 그들이 진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옛 시대를 폐하는 그날을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어 하는 마음뿐이며, 내 능력과 권병이 얼마나 큰지 알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바꾸고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서두른 적이 없다. 그들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며, 내가 증오하는 것을 소망하고 내가 혐오하는 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 그들은 이 사악한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증오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게다가 또 내가 그것을 멸해 버릴까 봐 몹시 두려워한다. 그들에게는 모순되는 마음이 있다. 내가 혐오하는 이 세상을 좋아하면서도 내가 이 세상을 하루빨리 멸하기를 ‘바라는’ 그것이다. 그들이 참도를 떠나기 전에 온 좋게 재난을 피할 수 있고, 한순간에 다음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이 모두가 바로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내게서 온 모든 것을 싫어하는 이유이다. 그들은 복을 잃지 않으려고 한동안 ‘순한 백성’이 될지도 모르지만, 복을 받으려는 다급한 심리와 멸망되어 불 못에 던져질까 봐 두려워하는 속마음은 지금껏 감추지 못했다. 나의 날이 임박할수록 그들의 욕망은 더욱 강렬해지고, 재난이 커질수록 그들은 더욱 안전부절못하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내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오랫동안 바라마지않던 복도 잃지 않을 수 있는지를 몰라 한다. 나의 손이 일을 시작하면, 그들은 바로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해 선봉이 되려고 한다. 행여 내 눈에 띄지 못할까 봐 두려워 대오의 가장 앞쪽으로 나설 궁리만 하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말들을 한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진리와 무관하며, 그들의 행위가 내 계획을 파괴하고 방해한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다. 비록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할지라도, 고통을 감내하려는 의지와 속내가 아주 진실할지라도,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은 나와 무관하다. 나는 그들의 행위가 선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느낀 적이 전혀 없거니와 그들이 내 제단에 무엇이랄도 올려놓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내 면전에서 행한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너희는 자신의 모든 행위를 숙고해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54)

본래 나는 너희에게 더 많은 진리를 공급해 주려고 했지만, 진리를 대하는 너희의 태도가 너무도 차가워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내 심혈을 헛되이 낭비하고 싶지 않으며, 사람들이 내 말을 가지고 곳곳에서 나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모독하는 상황을 보고 싶지도 않다. 너희의 갖가지 태도 때문에, 또한 너희의 인성 때문에 나는 그저 작은 부분,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말만 공급하여 인류 가운데서 행하는 시범적인 사역으로 삼을 뿐이다. 지금에 이르러서야 나는 내가 한 결정과 계획이 다 너희의 필요에 부합한 것임을 참으로 실증했고, 더욱이 인류를 대하는 내 태도도 옳았음을 실증했다. 너희가 오랜 세월 내 면전에서 행한 행위로 나는 지금껏 얻지 못했던 답을 찾았다. 그 답의 질문은 바로 ‘사람은 진리와 참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다. 내가 사람에게 쏟은 심혈로 사람을 향한 내 사랑의 본질이 실증되었다. 또한 사람이 내 면전에서 행한 모든 행위로 진리를 중요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의 본질도 실증되었다. 나는 언제나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나를 따르는 각 사람은 언제나 내게서 비롯된 말을 깨닫지 못하며, 심지어 내게서 비롯된 ‘제안’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일이다. 내 태도가 진실했고 내 말이 부드러웠을지라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욱 없었다. 저마다 자기가 처음 생각한 대로 내가 맡긴 일을 하면서 나의 뜻을 찾지 않고, 나아가 나의 요구도 묻지 않는다. 그들은 다 나를 거역하면서도 충성을 다해 섬긴다고 말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며, 자신이 실천하지 못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서 나의 진리는 부인되고 버림받는 것이 되었다. 또한 나는 사람이 입으로는 하나님이라 인정하지만 진리, 길, 생명은 아니라고 여기는 제 3의 존재가 되었다. 아무도 이런 이치를 모른다. 내 말은 영원불변한 진리이며, 나는 사람의 생명 공급자이자 인류의 유일한 인도자다. 또한 내 말의 가치와 의의는 인류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 자체의 본질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 설령 이 세상에 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내 말의 가치와 인류에 대한 도움은 그 누구도 측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거역하고 반박하거나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나의 태도는 오직 하나뿐이다. 바로 시간과 사실이 나를 증거하여, 내 말이 곧 진리이자 길이자 생명이며, 내가 한 모든 말은 옳은 것이고,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임을 실증할 것이다. 나는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사실을 알게 할 것이다. 즉, 나의 말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사람, 나의 말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나의 말에서 목표를 찾지 못하는 사람, 나의 말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내 말에 정죄받을 사람이고, 더욱이 내 구원의 은혜를 잃은 사람으로, 내 채찍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너희는 자신의 모든 행위를 숙고해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55)

인류에게 사회 과학이 생긴 이래, 과학과 지식은 인류의 마음을 차지했으며, 나아가 인류를 지배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로 인해 인류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유리한 여건을 잃게 되었고, 인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사라졌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인류의 내적 세계는 어둡고 절망적이며 공허하다. 뒤이어 사회 과학자, 역사학자, 정치가들이 일어나 사회 과학론, 인류 진화론 등을 발표하여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했다는 진리에 어긋나는 관점을 인류의 머리와 마음에 채워 넣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만유 창조를 믿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고, 반대로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점점 늘어났다. 또한 갈수록 많은 사람이 하나님 사역의 기록과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나 전설로 대하기 시작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존엄과 위대함은 희미해졌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만유를 주재한다는 믿음도 아득해졌다. 사람은 더 이상 인류의 존망이나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인류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공허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이 오늘날 어디에서 사역하는지, 인류의 종착지를 어떻게 주재하고 계획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어느덧 인류의 문명은 이렇게 기대와 멀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죽은 사람이 더 행복하겠다고 생각할 정도다. 지난날 문명이 발전했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조차 이런 원망을 품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기에 통치자나 사회학자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 인류의 문명을 유지하려 해도 소용이 없다. 그 누구도 사람의 생명이 될 수 없으므로 인류 마음속의 공허함을 메우지 못하고, 어떤 사회적 담론도 공허의 질곡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과학, 지식, 자유, 민주, 즐길, 안락으로 사람이 얻는 것은 그저 일시적인 위안에 불과하다. 인류는 이런 것들이 있어도 불가피하게 계속 죄를 짓고, 사회의 불공평을 원망한다. 또한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인류의 탐구하려는 갈망과 욕망이 멈추지는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기에, 인류의 무의미한 희생과 탐구는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은 고뇌를 안겨 줄 뿐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불안에 떨며 인류의 미래와 앞길을 어떻게 직면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과학과 지식을

두려워하고, 공허함을 더욱 두려워하기에 이르렀다. 네가 이 세상의 자유 국가에 있든, 인권이 없는 국가에 있든 너는 인류의 운명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 네가 통치자이든, 통치를 받는 자이든 너는 인류의 운명, 비밀, 종착지를 탐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떨쳐 버릴 수 없고, 영문 모를 공허함을 떨쳐 버릴 수도 없다. 사회학자는 인류의 이러한 공통적 현상을 가리켜 사회 현상이라 말하지만, 나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인은 한 명도 없다. 결국 사람은 사람인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사람도 대신하지 못한다.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정한 사회뿐만이 아니다.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 공급이 필요하다.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 공급과 구원을 얻어야만 필요와 탐구욕, 그리고 심적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나 보살핌을 얻지 못하는 국가와 민족은 몰락과 흑암으로 나아갈 것이고, 중국에는 하나님에 의해 멸망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은 전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56)

네 마음에는 크나큰 비밀이 존재한다. 그러나 네가 빛이 비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왔기에 여태껏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너는 마음과 영을 악한 자에게 빼앗겼다. 너의 두 눈은 어둠에 가려져 하늘의 태양과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지 못하며, 너의 두 귀는 거짓된 말에 막혀 여호와와 천둥 같은 음성과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물소리를 듣지 못한다. 너는 가지고 있어야 할 모든 것과 전능자가 너에게 베푸는 모든 것을 잃고 끝없는 고통의 바다에 빠져 스스로를 구원할 힘도 없고, 살아서 돌아갈 희망도 없다. 그저 발버둥 치며 정신없이 돌아다닐 뿐.... 그 순간부터 너는 악한 자에게 시달릴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전능자의 축복과 공급에서 떨어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었다. 천만번 불러도 너의 마음과 영을 깨울 수가 없다. 너는 악한 자의 손에서 깊이 잠들었고, 그의 꼬임으로 끝없는 나락에 떨어져 방향과 이정표를 잃어버렸다. 그때부터 너는 원래의 순진무구함을 잃고, 전능자의 보살핌을 피하기 시작했다. 악한 자가 너의 마음속에서 네 모든 것을 조종하며 너의 생명이 되어 너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되었고, 그를 마음속의 하나님으로 삼아 섬기고 숭배하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생사를 같이하기로 약속했다. 너는 자신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왜 태어났는지, 왜 죽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또 너는 전능자가 낮설게 느껴지고, 그의 근원과 그가 네게 행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너는 그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을 적대시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한다. 전능자의 공급을 받은 날부터 너는 악한 자와 동행해 왔고, 수천 년 동안 그자와 함께 풍파를 겪으며 네 생명의 근원이었던 하나님께 같이 '맞섰다'. 그러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자신이 파멸에 이르렀음은 더더욱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너는 악한 자가 너를 유혹하고 괴롭혔다는 사실을 잊고 자신의 근원을 망각한 채 오늘날까지 그 악한 자에게 잔인하게 짓밟혀 왔다.

마음과 영이 마비되고 부패한 너는 더 이상 세상의 번뇌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으며, 전능자의 존재 여부는 눈곱만큼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너는 오래전부터 악한 자를 친아버지로 여기고, 그를 떠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네 마음속 ‘비밀’이다.

동이 틀 무렵 동쪽에서 새벽 하나가 반짝였다. 지금껏 없었던 그 별은 고요한 별하늘을 밝게 비추고, 꺼져 있던 사람들 마음속의 등불을 환히 밝혔다. 그 등불은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 주었고, 너와 그를 밝게 비추었다. 그러나 너는 여전히 그 칠야 속에서 깊이 잠들어 음성을 듣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며, 새 하늘과 새 땅,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네 아버지가 너에게 “애야, 일어나지 말거라. 아직 때가 이르잖니. 날씨도 몹시 추우니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나갔다가는 칼과 창에 눈이 찢린단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너는 네 아버지만 옳다고 믿고, 그가 너보다 연장자이며 진심으로 널 사랑한다고 생각하기에 그의 당부에만 귀를 기울인다. 이 같은 당부와 사랑으로 인해 너는 세상에 광명이 존재한다는 전설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진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며, 전능자의 구원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현실에 안주할 뿐, 더 이상 광명이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고, 전설 속 전능자가 강림하는지를 더 이상 살펴보지 않는다. 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이 소생하거나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인류의 내일과 미래는 네 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너는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잃지는 않을까, 가야 할 먼 길의 ‘방향’을 잃지는 않을까 심히 두려워 아버지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그와 함께 고난을 견디려고 한다. 막막한 세상은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의지로 이 세상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너 같은 이들을 줄줄이 길러 냈고,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들을 잇따라 키워 냈다. 또한, 왜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무감각하고 병약한 사람들을 대거 배출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인류를 하나하나 살펴본 전능자는 고통으로 울부짖는 사람의 소리를 들었고, 상처를 입은 인간의 뻔뻔한 모습을 보았으며, 구원을 잃은 인류의 무력함과 두려움을 느꼈다. 인류는 전능자의 보살핌을 뿌리치고 제 갈 길을 가며, 그의 감찰을 피하면서 오히려 원수와 함께 심해의 쓴맛을 맛보고자 했다. 전능자의 탄식은 더 이상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고, 그의 두 손은 더 이상 비참한 인류를 어루만지려 하지 않는다. 수없이 되찾고 수없이 잃어버리며 그는 그렇게 사역을 반복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지치고 싫증이 난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더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가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은 이 모든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전능자의 오고 감, 그의 슬픔과 실망 또한 알지 못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전능자의 탄식>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57)

하나님의 경영이 사람에게 아주 심오하기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경영과 관련되어 있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과 관련되어

있으며, 인류의 생명과 삶, 그리고 인류의 종착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서 행하고 사람에게 행하는 사역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매우 현실적이고 의미가 있으며, 사람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경영이 또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만 오로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재난을 피할 수 있을지에만 관심을 갖는다. 하나님의 사역과 경영을 언급하면 그들은 입을 다물고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이런 지루한 문제를 이해한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에 관한 메시지를 들어도 건성으로 대할 뿐 보배로 여겨 받아들이지 않을뿐더러 생명의 일부로는 더더욱 여기지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은 아주 간단하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복을 받는 것이다. 그 외에 그들의 목표와 전혀 무관한 일은 귀찮아하며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는 것이 가장 정당한 목적이며, 또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치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현재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의 상태가 이렇다. 그들의 목적과 속마음은 얼핏 들으면 아주 정당한 것 같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본분을 이행하고 있으며, 청춘을 바치고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심지어 오랫동안 외지에 나가 동분서주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자신의 취미도 인생관도 바꾸고, 심지어는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까지 바꾸지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바꾸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꿈을 경영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으며, 그 길이 얼마나 멀든,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죽음까지 불사한다. 어떤 힘이 그들을 그토록 끊임없이 바치게 하는 것이겠느냐? 그들의 양심이겠느냐? 그들의 위대하고 고상한 인격이겠느냐? 사악한 세력과 끝까지 맞서겠다는 결심이겠느냐?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려는 그들의 믿음이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충성심이겠느냐? 아니면 단 한 번도 사적으로 무언가를 바란 적이 없는 그들의 희생정신이겠느냐? 하나님의 경영 사역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 심혈을 쏟아붓고 대가를 치를 수 있다니, 그야말로 대단한 기적이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바쳤는지는 차치하자. 그들의 행위만 해도 자세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그토록 많은 대가를 치를 수 있다니, 거기에 사람과 밀접한 이익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겠느냐? 여기까지 말하다 보니, 우리는 지금껏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즉,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노골적인 이익 관계, 그러니까 복을 받는 자와 복을 베푸는 자의 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이는 피고용인과 고용인의 관계다. 피고용인의 수고는 오직 고용인이 주는 품삯을 받기 위함이다. 이런 이익 관계에는 혈육의 정은 없고 거래만 있으며,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없고 베품과 연민만 있다. 또 이해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참는 것과 기만하는 것만 있으며,

친밀한 관계는 없고 영원히 넘을 수 없는 깊은 골만 있다. 상황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누가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겠느냐? 또 이런 관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확신컨대, 모두가 복을 받는 기쁨에 도취되어 있을 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처럼 난감하고 차마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깨달은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인류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자기 경영을 하면서 하나님의 경영을 등한시한다는 사실이고, 가장 크게 실패한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꿈꾸는 종착지를 구상하고, 어떻게 해야 가장 큰 복과 가장 좋은 종착지를 얻을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령 모든 사람이 비참하고 가증스럽고 가련한 자신의 모습을 알았다 해도, 자신의 꿈과 소망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더 이상 스스로를 위해 계산하지 않을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그의 경영을 완성하는 데 긴밀하게 협력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경영 사역에 몸과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이다. 날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내밀며 구걸하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얼마간 헌신하고 빛을 받아 내려는 사람은 더더욱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얼마간 바친 뒤 그것을 밀천으로 삼아 기대 살아가려는 사람을 증오하고, 하나님의 경영 사역에는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늘에 올라가 복받는 일에만 관심 있는 냉혈 인간을 증오한다.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하는 기회를 틈타 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은 더더욱 증오한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경영 사역을 통해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지,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사역하는 틈을 타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채 자기 앞날과 운명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경영 사역에 반감을 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조금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경영 사역 밖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지도, 칭찬하지도 않으며, 더욱이 좋아하지도 않는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람은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58)

나의 사역은 곧 끝날 것이다. 함께 지냈던 오랜 시간은 떠올리기도 싫은 옛일이 되었다. 나는 끊임없이 나의 말을 되풀이하고, 쉼 없이 나의 새 사역을 진전시켰다. 물론 나의 충고는 내가 사역할 때마다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이다. 충고가 없으면 너희는 모두 잘못된 길에 들어설 것이며, 더구나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다. 이제 사역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끝나는 시점에 나는 다시금 충고와 같은 일, 다시 말해 너희가 귀를 기울이도록 충고와 같은 말들을 하고자 한다. 나는 오로지 너희가 나의 심혈을 헛되지 않게 하고, 나아가 나의 고심을 이해하며, 나의 말을 사람이 되기 위한 근간으로 삼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그것이

너희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이든 아니든,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든 받아들이기 힘겨운 것이든, 모두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제멋대로이고 무관심한 성품과 태도가 나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할 것이고, 더구나 나의 미움까지 사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나의 말을 천만 번 이상 되풀이해서 읽고, 더 나아가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너희에 대한 나의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그렇게 살기는커녕 오히려 모두 주지욕립의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으며, 나의 말로 마음과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 없다. 이에 나는 사람의 진면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바로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배반할 수 있으며, 나의 말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사탄에 의해 이미 사람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라는 말은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에게 얼마간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서의 ‘인정’이 표면상의 동의에 불과할 뿐, 참된 앎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지도 못한다. 그 때문에 너희가 항상 나의 말에 반신반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실로써 너희에게 존재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즉 ‘배반’에 대해 설명하겠다. 여기에서 언급한 ‘배반’이란 말에 대해서는 너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타인을 배반하는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편은 아내를 배반하고 아내는 남편을 배반한다. 아들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딸은 어머니를 배반한다. 종은 주인을 배반하고 친구는 서로 배반한다. 가족끼리 서로 배반하고 판매자가 구매자를 배반한다. 이런 것들이 다 배반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례이다. 요컨대 ‘배반’은 맹세를 깨고, 도덕규범을 위반하며, 세상의 윤리를 저버린, 인간성을 상실한 행위이다. 한 사람으로서 타인을 배반한 적이 있는지를 기억하든 못 하든, 혹은 타인을 배반하는 일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든 없든, 결국 너희는 세상에 태어난 이상 진리에 위배되는 일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너는 부모나 친구를 배반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으며, 더구나 나를 배반하고 내가 증오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즉, 배반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부도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진리와 모순되는 것들이다.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거역하는 근원이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배반은 사람의 천성으로, 이 천성은 모든 사람이 나의 마음에 합하는 것을 가로막는 천적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매우 심각한 문제 - 배반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59)

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행위는 배반이고, 나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행위는 배반이며, 나를 속이고 거짓말로 나를 기만하는 행위는 배반이다. 관념으로 가득하고 또한 이를 사방에 퍼뜨리는 것은 배반이고, 나의 증거와 이익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배반이며, 마음속으로는 나를 멀리하면서 웃는 얼굴로 배웅하는 행위는 배반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다 너희가 으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너희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배반하는 일을 애들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고, 더욱이 보고도 못 본 척할 수도 없다.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서 사역해도 너희가 이럴진대, 언젠가 신경 써 주는 이가 없는 날이 오면 산을 차지하고 왕 노릇을 하는 마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때 너희가 하늘이 무너져 내릴 정도의 큰 화를 부른다면 그 뒷수습은 또 누가 하겠느냐? 너희는 몇몇 배반 행위가 어찌다 한 번 있는 일일 뿐, 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이렇게 진지하게 말을 꺼내어 너희의 체면을 구기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도 분위기 파악을 못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일수록 전형적인 배반의 표본이다. 사람의 본성은 사람의 생명이자 사람이 의존하고 있는 생존 원리로, 사람 스스로는 이를 바꿀 수 없다. 배반의 본성처럼 말이다. 네가 가족이나 친구를 배반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네 생명의 일부이자 너의 타고난 천성임을 증명한다. 그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좋아한다면 ‘도둑질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의 생명의 일부인 것이다. 다만 남의 물건을 훔칠 때도 있고 훔치지 않을 때도 있을 뿐이다. 도둑질을 했든 안 했든, 이는 그가 한 도둑질이 일종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의 생명의 일부, 즉 그의 본성임을 증명한다. 혹자는 그것이 그의 본성이라면 왜 좋은 물건을 보고도 훔치지 않는 경우가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 그가 도둑질하지 않은 이유는 무척 많다. 예를 들어, 물건이 너무 커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가져갈 수 없었을 수도 있고, 손을 쓸 만한 적절한 타이밍이 없었을 수도 있다. 혹은 그 물건이 너무 고가여서 물샷틈없는 감시가 이루어졌거나, 그가 그 좋은 물건에 구미가 당기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물건을 어떤 용도로 쓸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도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로 도둑질이 그의 머릿속에 잠시 스쳐지나간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반대로 그것은 바꾸기 힘든 본성의 일부이다. 이런 사람은 절대 한 번의 도둑질에 만족하지 않으며, 좋은 물건이나 적당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남의 물건을 가로채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은 어찌다 주워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매우 심각한 문제—배반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60)

어떤 사람이든 다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낼 수 있으며, 그 진면목은 당연히 사람의 본성이다. 네가 말을 빙 돌려 하는 사람이라면 네 본성은 교활할 것이다. 네가 매우 간사한 본성을 지녔다면 일을 아주 매끄럽게 처리하고 손쉽게 사람들을 기만할 것이다. 네가 악랄한 본성을 가졌다면 너의 말이 듣기에는 그럴싸해도 너의 행동은 네 악랄한 수단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네가 게으른 본성을 가졌다면 너의 말은 모두 건성과 게으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들일 것이다. 네 행동은 매우 굵직한 것이며 또한 상황을 모면하고 진실을 감추는 데 능할 것이다. 네가 이해심이 많은 본성을 지녔다면 너의 말은 아주 합리적일 것이며 네 행동 또한 진리에 부합할 것이다. 네가 누구에게나 매우 충성하는 본성을 가졌다면 너의 말은 분명 진정성이 넘칠 것이며, 또한 착실하게 일을 하여 주인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네가 호색하거나 금전을 탐하는 본성을 가졌다면 네 마음은 항상 그런 것으로 가득할 것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넘거나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 사람들이 너를 항상 기억하고 역겨워하게 될 것이다. 말했듯이, 네가 배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일을 피해 가기는 어렵다. 너희 모두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짓을 한 적이 없다고 해서 자신에게 배반의 본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 요행을 바라지 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몹시 역겨운 일이다. 나는 매번 특정인이나 특정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를 상대로 말을 한다. 네가 어떤 일에서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일에서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될 수는 없다. 결혼에 실패하여 진리 추구에 대한 믿음을 잃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정 파탄으로 나에 대한 충성심을 지키는 의무를 저버린 사람도 있다. 또 일시적인 쾌락과 짜릿함을 즐기고자 나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둠의 절벽에서 구름지연정 광명 속에서 살면서 성령 역사가 주는 기쁨과 위안을 얻으려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돈 욕심을 채우고자 친구의 만류도 뿌리치고 지금도 여전히 길을 헤매며 올바른 길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도 있다. 나의 보호만을 바라며 내 이름 아래 잠시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 삶에 대한 미련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 억지로 내게 조금 봉헌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듯 부도덕하고 비인격적인 행위가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배반하는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나? 물론 나는 사람의 배반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자연스레 드러난 것임을 알고 있다. 나를 배반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를 배반하는 일을 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으며, 오히려 전전긍긍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렇지 않느냐? 그럼 너희는 이런 배반을 어떻게 만회할지, 오늘날의 상황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 생각하고 있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매우 심각한 문제 - 배반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61)

사람의 본성과 나의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 사람의 패괴된 본성은 모두 사탄에게서 비롯되었으며, 사람의 본성은 사탄에 의해 가공되고 패괴되었기 때문이다. 즉, 사람은 사탄의 사악함과 추함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진리의 세상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도 아니며, 광명 속에서 생존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본성에 선천적으로 진리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질을 가지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반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며 진리를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본성이 바로 내가 말하려는 문제, 즉 배반이다. 배반은 모든 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원이며, 이

문제는 사람에게만 존재할 뿐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혹자는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배반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으신 겁니까?”라고 물을 것이다. 너희에게 이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사람의 생존은 영혼의 반복적인 환생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즉, 모든 사람은 영혼이 환생할 때 육의 생명을 갖게 된다. 그 생명은 육의 탄생과 함께 시작하여 육체의 최후, 즉 영혼이 빠져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되며, 사람의 영혼은 왔다 가고, 갔다 오는 것을 반복한다. 이렇게 전 인류의 생존이 유지되는 것이다. 육의 생명은 곧 사람의 영혼이 지닌 생명으로, 사람의 영혼은 사람 육의 존재를 지탱한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의 생명은 영혼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육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의 본성은 사람의 육이 아닌 영혼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어떻게 사탄에게 유혹되고, 괴롭힘을 당하고, 패괴되었는지는 오직 사람의 영혼만이 알 뿐, 사람의 육은 이를 알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인류는 자신도 모르게 갈수록 불결해지고, 사악해지며, 어둠에 빠지게 된다. 또한, 나와와 거리가 점차 벌어지고, 점점 더 암담한 날을 보내게 된다. 사람의 영혼이 사탄의 손아귀에 묶여 있으므로 사람의 육도 당연히 사탄에게 점령당해 있다. 이런 육, 이런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겠느냐? 내가 사탄을 반공중으로 내친 이유는 나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인류라고 다르겠느냐? 이것이 바로 배반이 사람의 본성인 이유이다. 나는 너희가 이 이치를 깨달았으니 그리스도의 본질도 어느 정도 믿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은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육신이다. 하나님의 영은 지고지상하고 전능하며 거룩하고 공의롭다. 그러므로 그의 육신 역시 마찬가지로 지고지상하고 전능하며 거룩하고 공의롭다. 이 같은 육신은 오로지 공의로운 일, 인류에게 유익한 일, 거룩하고 빛나며 위대한 일만 할 수 있다. 진리와 도의에 어긋나는 일을 할 리 없고, 하나님의 영을 배반하는 일을 할 리는 더더욱 없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므로 그의 육신 또한 사탄에 의해 패괴될 수 없으며, 그것은 사람과는 다른 본질을 가진 육신이다. 사탄이 패괴시키는 것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며, 게다가 사탄은 하나님 자신의 육신을 패괴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과 그리스도가 같은 공간에서 살아도 사람만 사탄에게 점령되고, 이용당하고, 해를 입는 것이다. 반면 그리스도는 절대 사탄에게 패괴되지 않는다. 사탄은 영원히 가장 높은 곳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너희는 나를 배반하는 존재는 오직 사탄에게 패괴된 인류뿐이며, 이 문제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하등의 관계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매우 심각한 문제-배반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62)

사탄에게 패괴된 영혼은 모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만이 구별되어 사탄의 진영에서 구원받고 오늘의 하나님나라로 인도되었다. 이들은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성은 여전히 욕에 뿌리박혀 있다. 즉, 너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본성은 예전 그대로이며, 너희가 나를 배반할 가능성은 여전히 백 퍼센트이다.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사역하는 것 또한 너희의 본성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는 모두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애를 쓰고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바로 너희 모두가 나를 배반하고 다시 사탄의 권세 아래로, 사탄의 진영으로 돌아가 예전의 삶을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때 너희는 지금처럼 인간미와 사람의 면모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심각한 경우 멸망에 이를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을 것이며, 영원히 환생하지 못하고 중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 앞에 놓인 문제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일깨우는 이유는 첫째, 나의 사역이 헛수고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둘째, 너희 모두가 빛이 있는 날들 속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사실 내가 헛수고를 하는지 아닌지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사역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네 영혼이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네 육은 평온한 날을 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 육을 지킨다면 네 영혼 역시 분명 나의 보살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몹시 혐오한다면 네 영혼과 육은 즉시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다. 그때의 상태가 어떨지 상상할 수 있겠느냐? 어느 날, 나의 말이 너희에게서 물거품이 된다면 나는 노여움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너희를 사탄에게 넘겨 갑절의 고통을 받게 하거나 너희같이 구제 불능인 인간들을 친히 벌할 것이다. 너희는 나에 대한 배반의 마음을 바꾼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매우 심각한 문제—배반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63)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나를 배반하는 요소가 얼마나 더 있는지 하루빨리 성찰해야 한다. 나는 너희의 답을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다. 너희 모두 나를 무성의하게 대해선 안 될 것이다. 나는 사람과 장난을 치는 법이 없다. 나는 말을 하면 반드시 그대로 옮긴다. 너희 모두 나의 말을 공상 과학 소설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참답게 대하길 바란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실제 행동이지 상상이 아니다. 이제 모두 나의 질문에 답하여라. 1. 네가 정말로 봉사자라면 어떠한 속임수나 부정적인 요소 없이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하여 봉사할 수 있겠느냐? 2. 내가 너를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도 내게 머무르며 한평생 봉사할 수 있겠느냐? 3. 네가 많은 힘을 보탬에도 내가 여전히 너를 차갑게 대한다면 그때도 계속해서 나를 위해 묵묵히 일할 수 있겠느냐? 4. 네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바쳤는데 내가 너의 요구를 단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자. 그럼 나에게 믿음을 잃고 실망하거나 나아가 원망과 욕을 퍼부을 수도 있겠느냐? 5. 네가 줄곧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나를 사랑해 왔다고 하자. 그런데도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궁색한 삶을 살며, 가족과 친구에게 버림받거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때도 나에 대한 너의 충성과

사랑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 6. 네 마음속의 상상과 내가 행한 일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너는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가겠느냐? 7.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했다면 그때도 계속해서 나를 따르는 자로 남을 수 있겠느냐? 8. 내가 나의 사역 목적과 의의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때도 제멋대로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9. 내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한 말과 사역을 귀하게 대할 수 있겠느냐? 10. 나를 충실하게 따르는 자가 되어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도 나를 위해 한평생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 11. 나를 위해 앞으로 너 자신의 생존의 길을 고려하거나 계획하거나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위의 질문은 너희에 대한 나의 마지막 요구이니 모두가 답해 주기 바란다. 네가 위의 질문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에 해당된다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위의 요구 사항 중 단 하나도 충족시킬 수 없다면 너는 분명 지옥으로 떨어질 부류일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분명 나의 마음에 합할 수 없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내 집에 둘 수 있겠느냐? 대부분의 상황에서 나를 배반할 수 있는 자들의 경우는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따로 처리할 것이다. 하지만 나를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배반했든 다 기억할 것이며, 마음속에 하나하나 새겨 두었다가 적당한 시기에 그들의 악행을 응징할 것이다. 위에서 내가 요구한 것들은 전부 너희가 성찰해 봐야 할 문제에 해당한다. 나를 대충 속여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나는 머지않은 미래에 나의 요구와 너희가 나에게 한 답변을 대조할 것이다. 그때는 너희에게 더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간곡한 충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나의 권병을 행사하여 남길 사람은 남기고, 상을 내려야 할 사람에게는 상을 내릴 것이며, 사탄에게 넘겨야 할 사람은 넘기고, 중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중벌을 받게 하며, 멸망해야 마땅한 사람은 멸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의 날을 방해하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의 말을 믿느냐? 인과응보를 믿느냐? 내가 나를 기만하고 배반한 모든 악인을 징벌할 것임을 믿느냐? 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천천히 오기를 바라느냐? 너는 징벌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징벌받는 한이 있어도 나와 맞서고자 하는 사람이나? 그날이 올 때, 네가 웃음과 환호 소리 속에 살고 있을지, 아니면 슬피 울고 이를 갈며 보내게 될지 상상할 수 있겠느냐? 너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이고 싶느냐? 네가 나를 백 퍼센트 믿는지, 아니면 백 퍼센트 의심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의 모든 행동이 너 자신에게 어떤 결과와 결말을 가져올지 신중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는 나의 말이 하나씩 이루어지길 바라느냐, 아니면 나의 말이 하나씩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하느냐? 내가 서둘러 떠나 나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다면 너는 스스로의 언행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내가 떠나는 것도, 나의 말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네 믿음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너 자신이 왜 나를 따르는지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이냐? 단지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다. 복을 받거나 앞으로 닥칠 재난을 피하기 위함이라면 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이냐? 왜 스스로에게 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묻지 않는 것이냐? 또 왜 너 자신에게 앞으로 복받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는 것이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매우 심각한 문제—배반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64)

내 앞에서 나를 섬기는 백성들은 모두 과거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 ‘나에 대한 사랑에 불순물이 섞여 있지는 않았느냐? 나를 향한 충성심이 순수했느냐? 나에 대한 인식이 참되었느냐? 너의 마음에 나의 자리가 얼마나 되느냐? 완전하였느냐? 내 말이 너희에게서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나를 속이지 말라! 이런 것들을 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 오늘날 내가 구원의 음성을 발할 때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조금 더 커졌느냐? 나에 대한 충성심이 조금은 더 순결해졌느냐? 나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느냐? 과거의 찬미가 오늘날 너희의 인식에 탄탄한 기초가 되었느냐? 나의 영이 너희 안에 얼마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나의 형상이 너희 안에 얼마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나의 음성이 너희의 정곡을 정확히 찔렀느냐? 너희는 정말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르느냐? 진정으로 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만약 나의 이런 질문을 듣고도 깨닫는 바가 없다면 이것은 네가 한몫 챙길 기회만 엿보고 머릿수만 채우는 사람으로, 반드시 내가 예정한 시간에 도태되어 두 번째로 무저갱에 떨어지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내 경고의 말이다. 이것을 흘려듣는 자는 누구든 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일정한 때가 되면 그에게 재난이 닥칠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내가 또 예를 들어 설명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가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분명히 짚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창세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이 내 말을 거역하여 회복의 흐름에서 버림받고 도태되었다. 결국 육체가 사라지고, 영체는 음부에 떨어져 지금까지도 중벌을 받고 있다. 많은 이들이 내 말에 순종하였으나 나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어겼다. 그래서 나의 발길에 차인 뒤 사탄의 권세 아래로 떨어져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오늘날 나를 직접 대적하는 자는 모두 내 말의 외면에만 순종할 뿐 내 말의 본질은 거역하고 있다.). 또 많은 자들이 내가 과거에 했던 말만 듣고 늘 과거의 ‘폐물’을 끌어안고 지키면서 현재의 ‘토산품’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인간은 사탄에게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천고의 죄인이 되고 나의 원수가 되었다. 이들은 나를 직접 대적하는 자이며, 나의 진노가 극에 달할 때 심판받을 대상이다. 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눈먼 상태로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부패되고 마비되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시체들 가운데 있다. 그들은 나에게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눈먼 상태’라고 말한 것이다.). 내가 실례를 하나 들 테니 참고하여 교훈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바울을 언급하면 너희는 그의 과거가 생각날 것이고, 그에 관한 부정확하고 실제에 맞지 않는 일들이 떠오를 것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서 교육을 받고 나의 생명을 받아들였다. 그는 나의 예정으로 내가 갖추게 한 자질을 갖추었다. 그는 열아홉 살부터 생명에 관한 여러 서적들을 읽고 연구했다. 그래서 내가 자세히 말할 필요 없이 바울은

그의 자질로 인해, 그리고 나의 깨우침과 빛 비춤으로 인해 영적인 일들에 대해 어느 정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고 나의 뜻을 찾을 줄도 알았다. 물론 이것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였다. 하지만 옥에 티라면, 그는 타고난 재능 때문에 늘 큰소리쳤다는 점이다. 그의 패역으로 인해 어떤 것은 직접 천사장을 대변했다. 그러므로 내가 처음 성육신했을 때 그는 온 힘을 다해 나를 대적했다. 그는 나의 말을 알지 못한 자로, 그의 마음속에서 나의 자리는 이미 사라졌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그런 까닭에 직접 나의 신성에 대적하여 내게 맞고 결국 엎드려 죄를 자백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그의 장점을 이용한 뒤, 즉 그가 나를 위해 한동안 사역한 후 그의 고질병이 또 재발했다. 비록 그가 나의 말을 직접 거역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내적인 인도와 깨우침은 거역했다. 그래서 그가 이전에 했던 일들이 모두 헛수고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그가 말한 영광의 면류관은 공허한 말이 되고 혼자만의 상상이 되었다. 그가 지금도 나에게 결박당한 채 나의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예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듯이, 누구든 나(육신을 입은 나뿐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말과 나의 영, 즉 나의 신성임)를 대적하는 자는 육체에서 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나의 영이 너를 떠날 때 너는 일락천장하여 곧장 음부에 떨어질 것이다. 비록 육체는 땅에 있지만, 정신병자처럼 이성을 잃게 되어 즉시 자신이 죽은 사람처럼 느껴질 것이다. 심지어 육체를 당장 없애 달라고 내게 애원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너희처럼 영이 있는 많은 사람이 깊이 체험했을 것이므로 내가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다. 과거에 내가 정상 인성으로 사역할 때, 많은 사람이 이미 나의 진노와 위엄과 ‘겨룬’ 적이 있기 때문에 나의 지혜와 성품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다. 오늘 내가 신성으로 직접 말하고 일해도 여전히 나의 진노와 심판을 직접 보게 될 사람들이 일부 있다. 게다가 심판 시대에 하는 두 번째 주된 사역은 모든 백성이 내가 육신으로 하는 행사를 직접 알게 하는 것이고, 너희 모든 사람이 나의 성품을 직접 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육신에 있는 까닭에 나 역시 너희의 연약함을 이해한다. 나는 너희가 자신의 영, 혼, 육을 장난감으로 삼아 함부로 사탄에게 ‘바치기’ 앓길 바라며, 자기가 가진 것들을 어린애 장난처럼 대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길 바란다. 이런 것들이 너희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정말로 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느냐? 나의 진실한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릴 수 있느냐?

너희는 땅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대한 인식과 내 말을 누리고 나를 아는 것을 너희 일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로 삼고 싶느냐? 진정으로 자신의 앞날을 위하지 않고 오로지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너희는 진정으로 스스로를 양처럼 여겨 내가 죽이고 끌고 다니도록 맡길 수 있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나에게 열납되고 내 약속을 받은 자라고 다 복을 받은 자이겠느냐? 나의 이 말에서 너희는 뭔가를 깨달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시련을 준다면 너희는 진정으로 나의 지배를 따르고, 시련 속에서 나의 뜻을 찾고 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입으로 얼마나 많은 감동적인 말이나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반대로 나는 네가 나를 위해 아름답게 증거하고 모든 면에서 실제에 깊이 진입할 수 있길 바란다. 내가 직접 말하지 않는다면, 네가 너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버리고 너를 내게 맡겨 쓰도록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내가 요구하는 실체가 아니란 말이나? 누가 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가 내 말을 오해하거나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나의 행정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더는 걱정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진입하여 내 말의 본질을 깨닫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가 내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배에 맡기겠다’고 세운 뜻과 같이, 더는 자신의 앞날을 위해 생각하지 말고 내 말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뜻을 알기를 바란다. 나의 집에서 굳게 선 모든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내가 땅에서 하는 마지막 사역을 위해 자신의 가장 훌륭한 것을 바쳐야 한다. 너는 진정으로 이렇게 실천하기를 원하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제 4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65)

온갖 악령들이 땅에서 시시각각 안식할 곳을 찾고 있고, 삼킬 자의 시체를 찾고 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반드시 나의 보호와 보살핌 아래에 있어야 한다. 절대 방종하지 마라! 절대 제멋대로 행하지 마라! 마땅히 내 집에서 충성을 바쳐야 한다. 충성심이 있어야만 마귀의 간계에 반격할 수 있다. 더는 예전처럼 내 앞뒤에서 서로 다르게 행해선 안 된다. 그러면 구제 불능이 된다. 내가 이런 말을 적게 했느냐? 누누이 타일러도 사람의 옛 성품이 고쳐지지 않기에 누차 일깨워 주는 것이다. 지겹다고 하지 마라! 전부 너희의 운명을 생각해 말하는 것이다! 사탄은 불결하고 더러운 곳을 원한다. 구제 불능이 될수록,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할수록 온갖 더러운 귀신이 기회를 틈타 침입한다. 그 지경에 이른다면 너희의 충성심은 조금도 실제적이지 않은 허튼소리가 될 것이다. 또한 너희의 ‘의지’도 더러운 귀신에게 삼켜져 ‘패역’이 되고 사탄의 ‘간계’로 변질돼 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나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일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뿐 전혀 신중히 대하지 않는다. 나는 네 지난 행실을 기억하지 않는다. 설마 그래서 내가 또다시 ‘기억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어 주길 기다리는 것이냐? 사람이 나에게 대항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사람의 분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절제하며 방종하지 말라고 할 뿐이다. 이것조차 못 하겠단 말이나? 많은 사람이 내가 더 많은 비밀을 열어 주어 ‘눈 호강’을 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된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그렇다고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이 커지기라도 하겠느냐? 나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기라도 하겠느냐? 나는 사람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며, 사람에 대해 경솔하게 결론을 내리지도 않는다. 사람이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절대 아무렇게나 사람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지 않는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누명을 씌운 적이 있더냐? 너희를 과소평가한 적이 있더냐? 너희의 실제 사정에 맞지 않게 너희를

감찰한 적이 있더냐?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진심으로 탄복시키지 않은 적이 있더냐? 내가 한 말이 너희의 심금을 울리지 않은 적이 있더냐? 내 말을 볼 때 무저갱에 떨어질까 봐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은 사람이 있더냐? 내 말로 인해 시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더냐? 나의 말에는 권병이 있지만, 나는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지 않는다. 사람의 실제 사정을 감안하여 내 말의 뜻을 꿰임없이 사람에게 나타낸다. 실제로 그 누가 내 말에서 나의 전능을 알 수 있겠느냐? 그 누가 내 말의 정금(正金)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토록 많은 말을 했지만, 내 말을 소중히 여긴 자가 있더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제 10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66)

나는 날마다 우주 위에 서서 살펴보고, 또 자신을 낮추고 감추어 내 처소에 거하면서 인생을 겪으며 사람의 모든 행위를 자세히 관찰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진정으로 나를 위해 자신을 내놓지 않았고, 그 누구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다. 나를 위해 진지하게 임한 사람도 없었고, 내 앞에서 의지를 다지며 자신의 본분을 지킨 자 역시 없었다. 또한 그 누구도 나를 자신의 마음에 거하게 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명처럼 나를 중시하지 않았다. 아무도 실제 속에서 내 신성의 모든 어떠함을 보지 못했고, 실제 하나님 자신과 접촉하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사람의 온몸이 물에 잠길 때 나는 사람을 그 죽은 물에서 구해 내 다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었다. 사람이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을 때, 나는 사람을 죽음의 벼랑 끝에서 끌어 올려 삶의 용기를 주었고, 나를 생존의 근본으로 삼게 했다. 사람이 나를 거역할 때, 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역 속에서 나를 알게 했다. 사람의 옛 성품 때문에, 또한 나의 긍휼 때문에 나는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지 않고 개과천선하게 했다. 사람이 기근에 빠졌을 때, 숨이 넘어가기 직전일지라도 사탄의 간계에 빠지지 않도록 나는 그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빼앗아 왔다. 사람이 나의 손길과 자비로운 얼굴과 웃는 얼굴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또 나의 위엄과 진노를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른다. 사람은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사람의 연약함을 ‘트집 잡을 기회’로 삼지 않았다. 나는 인간 세상의 고통을 살피기에 사람의 연약함 역시 헤아려 준다. 다만 사람이 패역하고 배은망덕하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 합당한 형벌을 줄 뿐이다.

나는 사람이 바쁠 때 모습을 감추고, 사람이 한가할 때 그들에게 나타난다. 사람의 상상 속에서 나는 ‘만물박사’이고,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단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내 앞에 올 뿐, 내 앞에서 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 사람은 병세가 위중할 때 다급히 내게 도움을 청하고, 환난 속에 있을 때 역경에서 벗어나려고 최대한 내게 고충을 털어놓는다. 하지만 편안할 때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평안하고 행복할 때 자신과 더불어 즐기며 나를 찾아오는 사람 역시 없다. ‘집안’에 행복이 가득할 때, 사람은 일찌감치 나를 한쪽에 내버려 두거나 문전 박대 하고서는 즐겁게 온 집안의 행복을 누린다. 사람은 웅졸하고 속이 좁아 이렇게 자비와

공홀을 베풀며 사람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하나님인 나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사람이 즐겁게 웃을 때 내가 몇 번이나 그들에게 버림받았는지 모르고, 사람이 넘어졌을 때 몇 번이나 그들의 지팡이로 사용되었는지 모른다. 또한 사람이 병마에 시달릴 때, 내가 몇 번이나 그들의 ‘의사’로 불러 갔는지 모른다. 이 얼마나 잔인한 인류더냐! 그야말로 이성도 없고 도의도 모른다.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정’을 조금도 볼 수 없고, 인간미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렵다.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오늘날과 견주어 보아라. 너희는 조금이라도 변화했느냐? 과거의 성분들이 오늘날에는 줄어들었느냐? 여전히 새로운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냐?

나는 온갖 모진 시련과 고난, 그리고 인간 세상의 모든 우여곡절을 겪었고, 사람들 가운데서 오가며 여러 해를 사람과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사람의 성품은 얼마 바뀐 것 같지 않다. 또한 옛 성품이 사람의 내면에 뿌리내려 싹트기라도 한 듯 사람의 옛 성품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그저 원래 상태보다 조금 나아졌을 뿐이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본질은 바뀌지 않고 방식만 많이 바뀐 셈이다. 사람은 모두 나의 눈을 어지럽게 함으로써 어물쩍 넘어가 나의 기쁨을 사려고 나를 속이는 것 같다. 나는 사람의 ‘수작’을 기뻐하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나는 그로 인해 격노하지 않으며, 알면서도 내버려 둔다. 나는 사람을 어느 정도 느슨하게 풀어 주었다가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처리’할 것이다. 사람은 모두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천박한 존재이기에 본인조차 자신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도 내가 또다시 공홀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단 말이나? 사람은 모두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니, 저울에 달아 보아야 한다. 사람이 나를 거들떠보지 않으니 나 역시 사람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 사람이 나를 중시하지 않으니 나 역시 사람에게 많은 공을 들일 필요가 없다. 이러면 서로에게 좋은 일 아니겠느냐? 나의 백성이 된 너희 역시 이런 상황 아니더냐? 내 앞에서 다짐을 했다가 폐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더냐? 내 앞에서 수시로 다짐을 반복하지 않고 한 번 세운 다짐을 변함없이 오래 지킨 자가 누가 있더냐? 사람은 상황이 순조로울 때는 내 앞에서 다짐을 세우지만, 역경에 처하면 그것을 백지화했다가 일이 지나간 후에 다짐을 다시 주워 내 앞에 내놓는다. 내가 사람이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 온 폐품을 마구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천하단 말이나? 사람 중에 자신의 다짐과 정절을 지키는 자는 매우 적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제물로 바치는 자도 매우 드물다. 너희 또한 이러하지 않더냐? 하나님나라 백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게 미움받고 버림받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 제 14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67)

사람은 모두 자신을 정확히 아는 능력이 없는 것들이라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 손금 보듯 한다. 마치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모두 그의 앞에서 ‘검열’을 받았거나 먼저 그의 승낙을 받고 한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까지 모두 훤히 꿰뚫는 듯하다. 사람은 모두 이러하다. 오늘날,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본성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 여전히 내 앞에서는 내가 하는 것을 하지만, 내 뒤에서는 또 자신만의 독특한 ‘사업’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고도 내 앞에 왔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인 양 거리낌도 두려움도 없는 듯 낮빛 하나 변하지 않고 천연덕스럽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추태가 아니더냐? 많은 사람이 내 앞에서는 내 뒤에서 전혀 딴 사람 같다. 많은 사람이 내 앞에서는 갓 태어난 양 같지만 내 뒤에서는 사나운 호랑이 같고 또 산속의 새처럼 ‘신이 나서 깡충거린다’. 또 많은 사람이 내 앞에서 의지를 다지며 내 말을 찾고 갈망하지만, 뒤에서는 내 말을 싫어하고 포기한다. 마치 나의 말이 그들에게는 짐이 된 것처럼 말이다. 나는 ‘원수’에 의해 패괴된 인류를 바라보며 그들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적이 수도 없이 많다. 또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내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수없이 보았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품위를 지키지 않고, 또 몇 번을 타일러도 고치지 않기에 그 마음이 아무리 진실하고 그 뜻이 아무리 간절해도 분노를 띠고 사람의 행위를 외면했었다. 나는 사람이 나와 협력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내 앞에서 내 품에 안긴 듯, 내 품의 따스함을 느끼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다. 나는 선민들의 활발하고 순진하며 사랑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어찌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사람은 내 손안에서 정해진 복을 누릴 줄 모른다. 이는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고통’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나를 참되게 추구하지 않는다. 내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너희 중에 그 누가 내 앞에서 눈같이 깨끗하고 옥같이 순결할 수 있겠느냐? 나에게 대한 사랑을 맛있는 음식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높은 직위와 후한 급여로 바꿀 수 있겠느냐? 또는 너를 향한 다른 사람의 사랑과 맞바꿀 수 있겠느냐? 설마 사람이 시련 때문에 나에게 대한 사랑을 포기하게 되겠느냐? 설마 사람이 고난과 환난 때문에 나의 안배를 원망하게 되겠느냐? 그 누구도 내 입의 날 선 점을 진실로 깨닫지 못했다. 그저 그 겉면의 뜻만 알 뿐, 내면의 뜻은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 사람이 정말 날 선 점의 예리함을 봤다면, 모두 쥐가 땅굴을 파고 들어가듯 했을 것이다. 사람은 무감각해져서 내 말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므로 내 말의 엄준함을 모르고, 내 말이 사람의 본성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는지, 사람의 패괴를 얼마나 많이 심판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말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이해하여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제 15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68)

역대로 수많은 사람이 실망과 미련을 안고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왔다. 나는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을 계획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내 손을 거쳐 갔다. 많은 영들이 저승에 떨어졌고, 많은 영들이 육신에서 살고 있으며, 많은 영들이 땅에서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나라에서 복을

누릴 기회는 얻지 못했다. 내가 사람에게 준 것은 적지 않으나 사람이 얻은 것은 많지 않다. 사탄 세력의 공격으로 사람은 나의 모든 풍요로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바라만 볼 뿐 다 누리지는 못한다. 사람은 자신에게 하늘의 풍요로움을 받을 수 있는 보물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에 내가 내린 복을 놓쳐 버렸다. 사람의 영은 나의 영과 통하는 기관(器官)이 아니더냐? 왜 사람은 늘 영을 통해 나와 접촉하지 못하느냐? 왜 육신에서는 나를 가까이하면서 영을 통해서는 그러지 못하느냐? 설마 나의 본래 모습이 육신이기라도 하단 말이나? 왜 사람은 나의 본질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의 영 안에 나에 대한 기억이 조금도 없단 말이나? 내가 사람의 영 안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냐? 사람이 영계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나의 뜻을 알 수 있겠느냐? 설마 사람의 눈은 영계까지 볼 수 있단 말이나? 나는 영을 통해 수없이 사람을 불렀다. 그러나 사람은 나에게 자상이라도 입은 듯, 내가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할까 몹시 두려워하면서 먼발치에서 나를 바라만 보았다. 나는 사람의 영을 통해 사람에게 수없이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사람은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사람의 집에 들어가 모든 물건을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를 문밖에 세워 두었다. 내가 마주한 것은 굳게 닫힌, 차가운 ‘대문’뿐이었다. 나는 사람이 길을 잃었을 때, 사람을 수없이 구했다. 그러나 사람은 정신이 든 순간 나를 떠났다. 나의 자비에 감동하기는커녕 사람은 나에게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없었다. 사람은 감정이 없는 냉혈 동물이다. 나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껴도 감동하지 않는다. 사람은 산속의 야만인 같아 내가 사람을 ‘아껴’ 주는 것을 귀하게 여긴 적이 없다. 나를 가까이하느니 차라리 산속에 묻혀 살기를 원한다. 산짐승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나에게 의지하고자 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에게도 강요하지 않는다. 그저 나의 사역을 행할 뿐이다. 모든 사람이 망망대해에서 나의 곁으로 헤엄쳐 와 육지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바닷물에 삼켜질 위험에서 벗어날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ی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 제 20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69)

많은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자 했으나 그들의 ‘마음’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탓에 뜻대로 하지 못했다. 또 많은 사람이 내가 준 시련 속에서도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지만 늘 내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저 공허함 속에서 나를 사랑했지, 내가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마음을 내 앞에 두고도 거들떠보지 않은 탓에 사탄에게 틈을 주어 마음을 빼앗겼고, 결국 나를 떠나가 버렸다. 많은 사람이 내가 말씀을 공급할 때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다. 하지만 내 말을 귀하게 여기며 영 안에서 소중히 여기지 않고, 공공재처럼 아무렇게나 쓴 후 아무 때나 원래 있던 자리에 던져 버렸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나를 찾고, 시련이 닥쳤을 때 나를 앙망하며, 평안할 때 나를 누리다가, 위험할 때 나를 부정하고, 바쁠 때 나를 잊고, 한가할 때 나를 무성의하게 대한다. 평생토록 나를 사랑하는 자는 없었다. 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진지하기를 바란다. 나는 사람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사람이 나를 기만하지 않고, 내게 진심을 주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에게 나의 깨우침과 빛 비춤이 퍼져 있고 내가 기울인 심혈이 스며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모든 행위의 ‘진상’과 나를 향한 기만이 차 있다. 마치 사람은 모태에서 ‘기만의 성분’을 갖고 나오고, 독특한 ‘사기술’을 타고난 듯하다. 그 ‘사기술’은 한번도 정체를 드러낸 적이 없어 아무도 그 근원이 어디인지 모른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기만 속에서 살면서 본인이 원해서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안배’였을 뿐이라며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나를 기만하는 근원 아니겠느냐? 사람의 간계 아니겠느냐? 나는 사람의 감언이설에 속아 우왕좌왕한 적이 없다. 사람의 본질을 일찌감치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다. 사람의 핏속에 불결한 성분이 얼마나 많은지, 또 사람의 골수에 사탄의 독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세월을 거둬하며 그것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은 사탄의 괴롭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 제 21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70)

사람은 빛 속에 살지만 빛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 빛의 본질도 모르고, 빛의 출처도 모르며, 빛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더 모른다. 나는 인간 세상에 빛을 내린 후 바로 세상의 모습을 관찰했는데, 모든 사람이 빛으로 인해 변화되고, 빛으로 인해 성장하고, 빛으로 인해 어둠에서 벗어났다. 온 우주 곳곳을 살펴보니 산은 안개 속에 잠겨 있고, 물은 흑한 속에 얼어 있었다. 사람은 빛의 도래로 동방을 바라보며 더 귀중한 것을 찾고자 했지만, 짙은 안개 속에서 좀처럼 방향을 구별하지 못했다. 온 세상이 짙은 안개로 덮여 있었기에 내가 구름 위에서 세상을 살필 때 내 존재를 알아챈 사람은 없었다. 사람은 모두 땅 위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다. 먹을 것을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주의를 기울여 나의 강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나의 날을 모르기에 수시로 동방의 희미한 빛을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만민 가운데서 진정 내 뜻에 부합하는 사람을 찾고자 만민 사이를 돌아다니고 만민과 함께 생활했지만, 땅에 있는 모두가 근심 없이 평안함에 빠져 있어 진정 내 뜻에 부합하는 사람은 없었다. 사람은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을 관찰하지 못하고, 빛 안에서 행하며 빛 비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사람은 한때 내 말을 소중히 했으나 사탄의 간계를 꿰뚫어 보지 못했고, 분량이 너무 작아 자신이 마음으로 원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 내가 사람을 높여 주었을 때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느꼈으나 그로써 나를 만족게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준 ‘지위’를 두 손으로 받쳐 들어 자세히 연구했고, 나의 사랑스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지위의 복을 ‘탐할’ 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부족한 점 아니겠느냐? 산이 움직일 때 네 ‘지위’ 때문에 너를 피해 돌아가겠느냐? 물이 흐를 때

사람의 '지위'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겠느냐? 천지가 사람의 '지위' 때문에 뒤집힐 수 있겠느냐? 나는 사람에게 거둬 공활을 베풀었지만 사람은 그저 '이야기' 삼아 듣고, '소설' 삼아 볼 뿐 아무도 아끼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내 말이 사람의 심금을 울리지 못한 것이냐? 내 말이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이냐? 설마 내 존재를 믿는 자가 없는 것이냐?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사탄과 영합하여 내게 반격하며, 사탄을 자신의 '자산'으로 삼아 나를 섬긴다. 나는 사탄의 모든 간계를 간파해 땅에 있는 사람이 다시는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사탄의 존재로 인해 나를 대적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 제 22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71)

내 마음속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나는 사람에게 작지 않은 권병을 주어 산속의 초목, 숲속의 동물, 수중의 물고기 등 지상 만물을 다스리게 했으나, 사람은 이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늘 근심으로 가득하다. 사람의 일생은 한없이 서글프고, 한없이 분주하며, 또 공허와 기쁨이 뒤섞여 있을 뿐 새로운 '발명과 창조'는 없다. 아무도 공허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아무도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아무도 '실제적인 삶'을 체험해 보지 못했다. 비록 오늘날의 사람들이 모두 나의 빛 아래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하늘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만약 내가 공활을 베풀지 않고, 내가 인류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헛되이 이 땅에 와서 무의미하게 살다가 자랄 만한 것 하나 없이 헛되이 사라질 것이다. 각 종교, 각 분야, 각 나라, 각 교파의 사람들은 모두 땅의 공허함을 알고 나를 찾으며, 내가 다시 올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올 때 누가 나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 나는 만물을 창조하고 또 인류를 창조했으며,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임하였으나 사람은 도리어 나를 공격하며 내게 '보응'하고 있다. 설마 내가 사람에게 한 일들이 모두 사람에게 무익했다는 말이냐? 설마 나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말이냐? 사람은 왜 나를 버리는 것이냐? 사람은 왜 내게 그토록 얼음처럼 차가운 것이냐? 어찌하여 땅에 시체들이 즐비한 것이냐? 설마 이것이 내가 사람에게 만들어 준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냐? 나는 사람에게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주었거늘 어찌서 사람은 내게 빈손으로 보답하는 것이냐? 사람은 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사람은 왜 언제나 내 앞에 있지 않는 것이냐? 설마 나의 말이 모두 헛된 것이란 말이냐? 설마 나의 말은 '수증기'처럼 사라지고 없단 말이냐? 왜 사람은 나와 협력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냐? 설마 나의 날이 왔을 때가 사람이 죽을 때라는 말이냐? 하나님나라가 모습을 갖췄을 때 설마 내가 사람을 몰살시키겠느냐? 왜 나의 모든 경륜 안에서 나의 뜻을 찾은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냐? 내 입에서 나온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싫어하여 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사람이 냉정하게 자신을 반성하게 할 뿐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 제 25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72)

사람은 일찍이 나의 따듯함을 체험하고 진실로 나를 섬겼으며, 내 앞에서 진실로 나에게 순종하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단지 영 안에서 슬피 울기만 한다. 굶주린 이리에게 잡혀간 것처럼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부르짖지만 늘 곤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예전에 사람이 내 앞에서 한 약속과 굳은 맹세를 회상한다. 사람은 자신의 정으로 내 뜻에 보답하겠다고 했고,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 그 통곡 소리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가슴을 아프게 했다. 사람의 의지 때문에 나는 늘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 사람이 수없이 내 앞에 와서 나에게 순종하니,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잊기 어렵다. 수없이 나를 사랑하고 충정을 굽히지 않으니, 그 진실한 마음에 탄복했다. 수없이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사랑하니,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진실함을 보고 나는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수없이 내 앞에 와서 자신을 바치고 나를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나는 사람의 수심에 찬 얼굴을 어루만지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내가 사람을 애지중지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고, 원수를 대하듯 미워했던 적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그랬음에도 사람은 나의 마음을 여전히 알지 못한다. 사람이 근심하고 슬퍼할 때 내가 위로해 주었으며, 연약할 때도 내가 붙들어 주었다. 또 사람이 길을 잃었을 때 내가 그 길을 인도해 주었으며, 통곡할 때도 내가 눈물을 닦아 주었다. 하지만 내가 근심하고 슬퍼할 때 누가 마음으로 나를 위로할 수 있겠느냐? 내가 애간장을 태울 때 누가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상심할 때 누가 내 마음의 상처를 메워 줄 수 있겠느냐? 내가 사람을 필요로 할 때 누가 자진해서 나와 협력할 수 있겠느냐? 설마 사람들이 예전에 나를 대하던 태도를 오늘날에는 더는 볼 수 없단 말이나? 왜 사람의 기억에는 조금도 남아 있지 않는 것이냐? 왜 사람은 이런 것들을 모두 망각하였느냐? 이는 인류의 원수가 패괴시킨 까닭이 아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제 27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73)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지만, 사람은 인간 세상에 온 하나님을 전력으로 대적하면서 나라 밖으로 쫓아냈다. 하나님은 사방을 떠도는 고아 같기도 했고, 또 국적 없이 세상을 떠도는 사람 같기도 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거나 진실로 사랑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돌아온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 돌아온 하나님을 보았을 때, 웃음 가득했던 얼굴엔 삼시간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마치 폭풍우가 곧 휘몰아치기라도 할 듯, 하나님이 사람의 집에 있는 행복을 빼앗아 가기라도 하는 듯,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람에게 축복은 주지 않고 재해만 주기라도 한 듯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고 계속 사람을 저주하기만 했다는 인상만 남아 있다. 그리하여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외면하고 반기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찔찔맞게 대하는 태도가 바뀐 적이 없었다.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이성도 없고 도의도 모르며,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정’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씀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매정했으며, 이른바 ‘공의’를 취하여 하나님을 건성으로 대했다. 수많은 세월, 사람은 언제나 그랬으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성품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했다. 여기에서 사람의 무게가 깃털 몇 개의 무게밖에 되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사람은 모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천박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을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설마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망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란 말이나? 사람은 모두 음녀처럼 스스로를 우롱하고, 자신을 임의로 다른 자의 손에 넘겨주어 유린하게 했다. 그럼에도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비천함을 모르고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해 주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여 자신을 다른 사람이 장악하게 그들에게 넘겨 주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더러운 부분이 아니냐? 나는 인간 세상의 생활을 겪어 보지 않았고, 인생을 진정으로 체험해 보지도 않았어도 사람의 말과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는 오히려 손금 보듯 훤히 알고 있다. 심지어 사람을 몸 둘 바 모를 정도로 해부할 수 있고, 나아가 두 번 다시 자신의 수작을 과시하지 못하고 두 번 다시 자신의 정욕을 방종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달팽이가 껍질 안으로 움츠러드는 것처럼 두 번 다시 자신의 추태를 드러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사람이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가장 큰 허물은 바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용모와 추악한 물골을 자랑하기 좋아한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혐오한다. 사람 간의 관계가 비정상이고, 서로 정상적인 대인 관계도 없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말할 나위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한 주목적은 그것을 통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사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전 인류 가운데서 권세를 잡아 하나님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룬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의 비밀 해석 · 제 14 편> 중에서

제 10 절 생명 진입

생명 진입[1]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74)

만유의 머리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좌 위에서 왕권을 잡고 우주와 만유를 주관하며 온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늘 그를 가까이하고 그의 앞에 와 마음을 평온히 하라. 한순간도 놓치지 말라. 매 순간 배울 공과가 있다. 주변 환경과 사람, 일, 사물은 모두 보좌가 허락한 것이므로 절대로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질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 비록 육체가 조금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질병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구하며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깨우쳐 줄 것이다. 육의 믿음이 어떠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한 의사이다! 병 안에서 살면 그저 병뿐이지만 영 안에서 살면 병이 없다. 너에게 한 모금의 숨이라도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은 너를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부활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실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부족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더해 주길 바란다.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달콤하다! 하나님 말씀은 특효약이며, 마귀와 사탄을 치욕스럽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의지할 곳이 생기며,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데 즉효이다! 만사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평안해진다. 믿음은 외나무다리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건너기 어렵고 목숨을 내걸면 편안히 건널 수 있다. 사람에게 겁나고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은 사탄의 우롱으로 인한 것이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의 다리를 건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항상 자신의 생각을 보낸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빛 비춤과 깨우침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해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독소를 정결케 하며, 영 안에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훈련을 하여 하나님이 권세를 잡고 온몸과 마음을 점유하게 해야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제 6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76)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진리를 깨달았든, 얼마나 많은 본분을 이행했고 본분을 이행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체험했든, 분량이 크든 작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떠날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매사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는 가장 큰 지혜이다. 어째서 가장 큰 지혜라고 하겠느냐? 사람이 많은 진리를 깨달았다 한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하나님을 꽤 오랜 시간 믿고, 일부 진리를 깨달았으며, 몇 번의 시련을 겪어 실제 체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대야 할지 또한 모른다면, 그런 사람에게 지혜가 있겠느냐? 그런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자로, 견제하는 부류에 속할 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아니다. 어떤 이는 “저는 많은 진리를 깨달았고, 진리의 실제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을 처리할 때 원칙대로만 하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야 하는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진리에 의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한다. ‘진리에 의지한다’는 말이 도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람은 많은 시기, 많은 상황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의 원칙은 또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실제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런 경험을 해 봤을 것이다. 예를 들어, 네게 어떤 일이 임했는데 그 측면의 진리를 어떻게 실행하고 적용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느냐? 아무리 실제 체험이 있다고 해도 모든 일에서 다 진리를 갖추고 있을 수는 없다.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믿었다고 한들, 체험한 일과 책망 훈계, 징계가 아무리 많다고 한들, 네가 진리의 근원이나? 어떤 이는 “저는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의 명문장들을 막힘없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할 필요가 없지요.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들에 의지하면 됩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네가 외운 그 말씀들은 죽어 있고, 네가 처한 환경이나 상태는 살아 있다. 글귀를 이해하고, 영적인 도리를 많이 말할 수 있다고 해서 진리를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는 더욱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공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즉,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며,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사에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실행할 길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에 있어 옳게 행동하고, 진리의 원칙에 부합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그것은 인위적인 행위에 불과하며, 반드시 하나님을 흡족게 했다고 할 수도 없다. 사람이 깨닫는 진리는 너무 얇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늘 동일한 진리로 규례에 맞추고 글귀와 도리를 목숨 걸고 지킨다면, 많은 일을 이루고 대체적으로 진리의 원칙에 부합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 역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바로 많은 일을 할 때 자기가 깨달은 경험과 규례, 또는 인위적인 일부 상상에 의지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사역과 인도를 통해 최고의 성과를 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매사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 · 하나님을 믿을 때는 먼저 세상의 사악한 흐름을 꿰뚫어 봐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77)

진리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본질, 그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한다. 사람이 얼마간 체험을 했다고 해서 진리를 갖춘 것이라고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한 가지 진리의 한 측면, 또는 한 부분을 어느

정도 체험하고 빛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원히 공급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얻은 그 빛은 진리가 아니라, 그저 사람이 이를 수 있는 어떤 정도이다. 즉, 그것은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올바른 체험이자 올바른 인식, 진리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으로 얻은 인식이다. 그 정도의 빛과 깨우침, 체험으로 얻은 인식은 영원히 진리를 대체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한 마디의 진리를 체험하고 그 체험한 인식들을 종합해 놓는다고 해도 그 한 마디의 진리를 대체하지는 못한다. 예전에 “내가 인간 세상에 대해 ‘사람 중에는 나를 사랑하는 이가 없다.’라는 격언을 만든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는 하나의 진리이자 인생의 정수, 가장 심오한 것으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다. 네가 체험하고 또 체험해서 3년간 체험하면 얕은 인식이 생길 것이고, 7~8년간 체험하면 또 어느 정도 인식을 갖게 되겠지만, 그런 인식은 영원히 그 한 마디의 진리를 대체할 수 없다. 누군가 2년 동안 체험하면 약간의 인식이 생길 것이고, 10년 동안 체험하면 좀 높은 인식이 생길 것이며, 일생 동안 체험하면 또 어느 정도 인식이 생기겠지만, 너희 둘을 합해 얼마나 많은 인식과 체험, 깨달음, 빛 비춤, 실례(實例)가 있든 그것은 그 한 마디의 진리를 대체하지 못한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느냐? 사람의 생명은 영원히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다. 너의 인식이 아무리 진리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해도 그것은 영원히 진리를 대체하지 못한다. 사람에게 진리가 있다는 것은 얼마간 실체가 있고, 진리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이 있으며, 하나님이 한 말씀에 대해서도 실제 진입과 체험을 좀 하고,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면 사람이 평생 체험할 수 있다. 심지어 몇 번의 생 동안, 몇천 년 동안 체험해도 하나의 진리를 다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누군가 글귀를 좀 안다고 해서 진리를 갖췄다고 말한다면, 이는 터무니없는 소리 아니겠느냐? ...

사람이 아무리 진리를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사람의 본질로, 하나님의 본질과는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 없다. 사람은 영원히 진리를 다 체험할 수 없으므로 진리를 완전히 살아 낼 수 없으며, 사람이 닿을 수 있는 극히 제한된 진리만 조금 살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 ...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체험하여 진리에 대한 인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네 생명이 되었다고 해도 진리가 네 생명이고, 네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가 또 틀린 것이다. 네가 진리의 한 부분을 어느 정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를 대표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럼 너는 진리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너는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느냐? 발견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한 측면, 한 범위에서 진리를 체험한다. 각자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체험하므로 진리의 모든 면을 아우르지 못한다. 사람이 진리의 본뜻을 살아 낼 수 있겠느냐? 네가 체험한 그 정도의 진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겠느냐? 백사장의 모래 한 알, 바닷물의 한 방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네가 체험한 그 인식과 네가 얻은 그 느낌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그것을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 진리의 근원과 내용은 매우 넓은 범위를 포함하므로 그

어떤 것도 반박하지 못한다. ... 그러나 사람이 지닌 그 약간의 것, 그 얼마 안 되는 빛은 오직 한 범위 안에서만 자신, 또는 일부 사람들에게 적합할 뿐, 다른 범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사람이 아무리 깊게 체험해도 한계가 있고, 어떻게 해도 진리가 적용되는 범위에는 이르지 못한다. 사람의 빛과 인식은 영원히 진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 · 너는 진리가 대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80)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감찰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감찰을 받으면, 네 마음은 올바른 것이다. 네가 늘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해 일을 하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지 않는다면,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 일을 할 때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이익이나 지위, 체면, 명예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생각하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제일 앞자리에 두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먼저 자신의 본분 이행에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지, 충성을 다했는지, 책임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자신의 본분 그리고 하나님 집의 사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 네가 늘 이런 것을 생각하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 네가 자질이 부족하고 체험이 얕거나 업무에 정통하지 못해 일에 실수와 잘못이 생기고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이미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네가 네 자신의 사욕이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서나 하나님 집의 사역과 하나님 집의 이익을 생각하며, 또한 본분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쌓은 것이다. 그렇게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진리의 실체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증거가 있게 된다. 늘 욕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사욕을 만족시키는 사람에게는 진리 실체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징표이다. 너는 “저는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하십니까?”라고 물을 것이다. 네 생각과 일하는 속셈, 목적, 동기, 일을 행한 결과는 모두 사탄을 만족시키고, 사탄의 웃음거리가 되며, 사탄에게 약점을 잡히고,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증거가 조금도 없다. 네가 매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진실한 증거가 없으니, 하나님이 네가 행한 것을 기억하겠느냐?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의 모든 행위와 네가 이행한 본분에 어떤 결론을 내리겠느냐? 결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성경에서 예수는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라고 하였다. 예수는 왜 이런 말을 했겠느냐?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열심히 뛰어다닌 사람이 어째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겠느냐? 불법을 행하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본분을 이행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본분을 이행하면서 충성심과 증거가 없었으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라고 한 것이다.

사람의 행위가 선인지 악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은 무엇이나? 바로 네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드러내는 것, 행하는 것에 진리를 실행하고 진리의 실재를 살아 낸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네게 그러한 실체가 없고 그러한 살아 남이 없다면, 너는 의심할 나위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겠느냐? 네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겉으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욕보이는 표가 되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도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자신을 위한다’라는 말에 숨은 뜻이 무엇이겠느냐? 사탄을 위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기에 네가 행한 것이 선행이 아니라 악행이다. 너는 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억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럼 전부 허사가 되지 않겠느냐?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 정도가 깊은 얕은 상관없이, 진리의 실체에 진입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실행 방법은 바로 어디서나 하나님 집의 이익을 생각하고, 자신의 사욕과 속셈, 동기, 체면, 지위를 내려놓는 것이다. 하나님 집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 이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본분을 이행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마땅히 하나님 집의 이익과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들을 첫자리에 놓아야 하며, 그다음 네 지위가 안정적인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지를 생각해야 한다. 두 단계로 나누어 절충하면 좀 쉬운 것 같지 않느냐? 시간이 지나면 너는 하나님을 만족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밖에 너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본분을 이행하고, 사욕과 속셈, 동기를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집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렇게 한동안 체험하다 보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고 정정당당하게 사는 것이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비열한 소인배처럼 나약하고 천하고 야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광명정대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마땅히 살아 내야 할 모습이자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이다. 이렇게 하면 네 마음속에 있던, 이익을 채우려던 욕망은 점차 천천히 작아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 · 하나님께 진심을 바치면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81)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특히 행위를 중요시하기에 행위 면에서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다. 예컨대 하나님을 믿은 후로 다른 이와 다투지 않는다거나 싸우고 욕하지

않는다거나 담배나 술을 끊는다거나 공공 물건이라면 못 하나, 널빤지 하나라도 탐내지 않는다거나 심지어 손해를 좀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소하지 않는 등 행위 면에서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은 후로 참도를 잘 받아들였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성령 역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매우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심지어는 무엇이든 다 버리고 어떤 고난이든 전부 감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지 3년, 5년, 1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사람의 생명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 결국엔 옛병이 도져 교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이 예전보다 더욱 심해졌다. 그리하여 권력과 이익을 놓고 다투고, 교회의 재물에 눈독 들이며, 이익만 추구하고, 지위와 안락을 탐하여 하나님 집의 기생충이 되고 말았다. 특히 리더를 맡았던 많은 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느냐? 단순한 행위 변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사람의 생명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흉악한 물골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행위 변화는 열정에서 비롯되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까지 더해지면 사람이 열정을 갖고 한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좋은 일을 한 번 하기는 쉽지만, 평생 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방인들의 말처럼 사람은 좋은 일을 평생 하지는 못한다. 사람의 행위는 생명의 지배를 받으며, 그 생명에 따라 행위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생명과 본성을 대표하며, 위장한 것들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사역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좋은 행위를 꾸며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켜 환골탈태시키고 새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고 시련하고 연단하는 것은 모두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며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역사의 근본 취지이다. 좋은 행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합하는 사람이라고는 더더욱 말할 수 없다. 행위상의 변화는 도리에 기반해 열정으로 이뤄진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인식이나 진리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며, 더욱이 성령의 인도로 인한 것도 아니다. 때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도 같지 않다. 행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 주지는 않고, 나아가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임을 증명하지도 못한다. 행위상의 변화는 한때의 거짓된 모습이자 열정에서 비롯된 모습이지, 생명의 드러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외적인 변화와 성품 변화의 차이>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82)

사람이 행위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열정으로는 그저 도리에 근거해 규례를 지킬 수 있을 뿐, 진리가 없는 사람은 본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도리는 진리를 대체할 수 없다. 그러나 성품이 변화된 사람은 다르다.

성품이 변화된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으며, 모든 일을 분별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어떻게 해야 진리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흠족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또한, 자신이 드러내는 패괴 성품이 어떤 성질인지 알고 있으며, 사람의 생각과 관념이 드러날 때 그것을 분별하여 욕을 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품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다. 성품 변화의 가장 주된 모습은 진리를 밝히 깨닫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 진리 실행이 비교적 정확하며, 패괴된 성품을 드러내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품이 변화된 사람은 행위가 남달리 이성적이고 분별력이 있다. 진리를 깨달았기에 교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을 적게 드러내며, 드러내는 많은 패괴된 성품을 명확히 알고 분별할 수 있기에 교만해질 수 없다. 사람이 마땅히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이성적인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본분을 지키는 것인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일들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비교적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성품이 변화된 사람만이 진실로 사람의 모습을 살아 낸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진리가 있기에 말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하거나 일을 바라볼 때도 진리에 근거해 할 수 있으며, 무슨 일을 하든 원칙이 있다. 또한, 어떤 사람과 일, 사물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주관을 지키며, 진리의 원칙을 견지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의 성품은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쉽게 끓거나 식는 일이 없으며, 어떤 환경에서든 어떻게 해야 본분을 잘 이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흠족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성품이 변화된 사람은 겉으로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일지 신경 쓰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는지를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열정적이지 않은 것 같고, 큰일을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에는 의의와 가치, 그리고 실질적 성과가 있다. 성품이 변화된 사람은 틀림없이 많은 진리를 갖추고 있다. 그것은 그가 일을 바라보는 관점과 일을 처리하는 원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리가 없으면 결코 성품이 변화되지 못한다. 성품 변화는 인성이 성숙하고 노련해진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주로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사탄의 독소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바뀐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탄의 독소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가 그 사람의 내면에 뿌리내려 생명과 생존 토대가 됨으로써 그를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성품이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성품 변화는 사람의 외적인 성품이 전보다 온순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는 교만한 편이었는데 지금은 이성적으로 말한다든가, 예전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듣는다든가 하는 외적인 변화로 성품이 변화되었다고 하지 않는다. 물론 성품 변화에는 당연히 이러한 변화도 포함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생명에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가 그 사람의 내면에서 생명이 된 것이다. 내면에 있던 사탄의 독소가 없어지고,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세상의 관점과 맞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큰 붉은 용의 음모와 독소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인생의 참뜻을 깨달아 가치관이 바뀐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변화이며 성품 변화의 본질이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 · 외적인 변화와 성품 변화의 차이>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84)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려면 무엇보다도 사람이 하나님께 지나친 욕망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속셈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를 보아야 한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 늘 요구한다면,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어떤 일이 임하든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를 구하지 않으며, 늘 자신의 이치를 따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문제가 된다. 이런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이자 하나님을 제일 심하게 거역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늘 요구만 하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 요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는 의미이며, 자신의 뜻을 선택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바로 배반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성이 없는 행위이다. 그가 하나님임을 진실로 믿는다면, 너는 무리한 요구든 합리적인 요구든 감히 그에게 요구를 할 수 없고, 그에게 요구를 할 자격도 없다. 네게 진실한 믿음이 있고, 그가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경배하고 순종할 것이다. 요즘 사람은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뜻대로 행할 것도 요구한다. 그는 자신의 뜻을 선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에게 자기 뜻대로 행하라고 하며,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내면에는 진정한 믿음도, 믿음 안에 포함된 본질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에 대한 네 요구가 적어지면 진실한 믿음과 순종의 성분은 많아질 것이며, 네 이성도 비교적 정상적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 ·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요구는 너무나 많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86)

네가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는 것도, 드러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다. 책망과 훈계를 받든 드러나든 이것을 명심해라.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정죄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네게 생명 체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자신의 패괴된 본모습을 알 수 있는 기회도 조건도 배경도 얻지 못한다. 네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 깊이 숨겨져 있어 인식하기도 찾아내기도 힘든 면면들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진실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은 개과천선하여 새사람이 되고 거듭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진실로 자신을 인식하면 진리가 생명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있게 되고, 진리를 갈망하며 실제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더없이 좋은 일이다! 네가 이 기회를 잡아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 진지하게 스스로를

반성하여 진실로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면, 소극적이고 연약한 상태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 고비를 넘기면 크게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고 진리의 실체에 진입할 수 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주재를 믿는다면, 너는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연히 발생한 것은 없다는 것을, 누군가 일부러 너를 괴롭히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배한 것임을 믿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안배했겠느냐? 그것은 너의 추한 모습을 들춰내기 위함도, 너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다. 최종 목적은 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온전케 하고 구원하는 데에 있다. 어떻게 너를 온전케 하고 구원하겠느냐? 먼저 너에게 패괴 성품이 있음을 알게 하고, 너의 본성과 본질, 부족함, 결점 등을 알게 할 것이다. 네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 마음속으로 깨달아야 비로소 진리를 추구하고 패괴 성품을 차츰 벗어 버릴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이 네게 준 기회이다. 너는 기회를 잡아야지, 하나님과 대립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하나님이 네 주변에 안배한 사람과 일, 사물이 늘 네 뜻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기며 벗어나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오해해선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리의 실체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다. 어떤 일이 임해 밝히 알지 못하고 어려움을 느낄 때, 너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마땅히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많이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 상태가 변하고,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기간에 진리의 실체가 내면에 만들어져 너는 성장할 것이며 생명의 상태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변화가 생기고 이러한 진리의 실체를 갖추면, 너에게 분량이 생기며, 분량이 생기면 생명이 생긴다. 사람이 늘 사탄의 패괴 성품에 기대어 살아간다면, 아무리 열정이 많고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분량도, 생명도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든, 어떤 사람과, 일, 사물을 통해 힘쓰게 하든, 사람에게 어떤 어조로 말씀하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단 하나, 바로 너를 구원하려는 것이다. 너를 구원하기 전에 너를 변화시켜야 한다. 고통 없이 변화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이 고통에는 많은 것이 포함된다. 어떤 때 주변 사람과 일, 사물을 일으켜 네가 너 스스로를 알게 할 것이다. 혹은 직접 책망하고 훈계하고 들춰낼 것이다. 수술대에 오른 것처럼 고통을 좀 겪어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매번의 책망과 훈계, 그리고 매번 일으키는 사람과 일, 사물이 모두 네 마음을 흔들고 너에게 촉진제가 되면, 옳은 것이다. 그러면 네가 분량이 생기고 진리의 실체에 진입한 것이다. 모든 책망과 훈계, 매번 일으키는 환경이 너에게 어떤 느낌도 감각도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진리를 찾지도 않는다면, 너는 너무 무감각한 사람이다! 사람이 지나치게 무감각하고 영 안에 지각이 없다면 하나님도 역사할 수 없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자는 너무도 무감각하고 심하게 패괴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이토록 많은 공을 들이고, 그에게 이토록 많은 일을 했건만 그의 마음을 불려일으킬 수도, 그의 영을 일깨울 수도 없으니 심각하구나. 구원받기 쉽지 않은

자구나.”라고 말씀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너에게 배치한 환경, 사람과 일, 사물, 혹은 책망과 훈계 속에서 공과를 배운다면, 하나님 앞에 오고 진리를 찾고 구하는 법을 배워 자기도 모르는 새에 깨우침과 빛 비춤을 입고 진리를 얻게 된다면, 그 환경 속에서 변화되고 성과를 거두며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해하고, 원망하지 않게 된다면, 다시 말해 그러한 환경과 시련 속에서 굳게 서서 시험을 견디게 된다면, 너는 시험에 통과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 · 진리를 얻으려면 주변의 사람과 일, 사물로부터 공과를 배워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87)

교회의 리더와 일꾼이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다음의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 사역지침에서 규정한 원칙을 정확히 따라 행하되, 원칙을 어기거나 마음대로 상상하거나 자기 뜻대로 행동해선 안 된다.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 집의 사역을 생각하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매사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도록 신경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히 따라 실행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성령의 인도를 어기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뜻과 상상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늘 성령의 깨우침과 인도에서 어긋나면 막다른 길에 들어서게 되며, 성령 역사를 잃어버리면 사역을 할 수 없게 된다. 설령 사역을 할지라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사역 전개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원칙이 있다. 하나는 정확히 상부의 안배에 따라 사역하고, 상부에서 안배한 원칙에 근거하여 일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내면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파악하면 사역할 때 쉽게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 · 리더와 일꾼이 사역하는 주요 원칙>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88)

베드로가 추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연단과 하나님이 그에게 준 각종 시련 속에서 스스로를 깨닫고, 자신이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가 진정으로 자신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사람이 너무도 파괴되어 무가치하며 하나님을 섬길 자격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자격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죽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야.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살아갈 자격도 없고 인생도 없어.’라고 느꼈다. 베드로는 이 수준까지 체험했을 때, 자신의 본성을 어느 정도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다. 지금 사람들은 그가 말로 확실히 설명하지 못했을 거라고 상상하지만, 그는 그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그러므로 생명을 추구하여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길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더 깊게 깨닫는 것이다. 자신의 본성 안에 들어 있는 갖가지 것들을 인식해 말로 정확히 표현하고, 자신의 옛 생명과 사탄 본성의 생명을 철저히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결실을 얻은 것이다. 이 정도까지 깨닫지 못했다면, 너 스스로 자신을 알고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허풍이 아니겠느냐? 네가 너 자신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사람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탄에 속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하며, 너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도 확실치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조차 모르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베드로의 생명 추구는 시련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과 성품 변화에 집중하며,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람은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후에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셔도 원망은커녕 더없는 기쁨을 느낄 것이며, 내 인생에 만족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베드로의 이 정도의 인식은 하나님을 믿자마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시련을 겪고 어느 수준까지 체험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인식한 후에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그가 간 길은 생명을 얻는 길, 온전케 되는 길이었다. 그의 구체적인 실행은 주로 이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 · 어떻게 베드로의 길을 갈 것인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89)

베드로는 내 앞에서 오랜 세월 충성을 다하면서도 입에 불평을 담은 적이 없었고, 원망의 마음을 품은 적도 없었다. 욥도 그에게 미치지 못했고, 역대의 성도들 또한 베드로보다 훨씬 뒤떨어졌다. 베드로는 나를 알기를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 간계를 부릴 때에도 나를 알려고 했다. 그리하여 그의 오랜 섬김이 다 나의 뜻에 부합하였고, 그로 인해 사탄에게 이용당한 적이 없었다. 그는 욥의 믿음을 본받았으나 욥의 단점도 파악하였다. 욥은 믿음이 컸지만, 영계의 일에서는 인식이 부족하여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말을 많이 했다. 이는 그의 인식이 알아 완벽한 경지에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언제나 영적인 느낌을 찾는 것과 영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살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간계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역대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었다.

베드로의 체험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듯이, 사람이 나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세심하게 살피는 것을 중요시해야 한다. 너에게 나를 위해 곁으로 얼마를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모두 부차적인 일이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면, 네가 말하는 믿음과 사랑, 충성심은 전부 환상이고 물거품이다. 너는 분명 내 앞에서 큰소리치지만,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또다시 사탄의 울무에 빠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침륜의 자식이 될 것이고 멸망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말에 냉담하다면 의심할 것도 없이 너는 나를 대적하는 자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네가 영계의 문을 통해 그 안에서 나의 형벌을 받는 각양각색의 영들을 보는 것도 좋겠다. 어느 누가

나의 말에 냉담하지 않고, 소극적이지 않았으며, 또 나의 말을 거부하지 않았더냐? 어느 누가 나의 말을 조소하고 비아냥거리지 않았더냐? 어느 누가 나의 말에서 꼬투리를 잡지 않았더냐? 어느 누가 나의 말을 자신의 ‘호신용 무기’로 삼아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았더냐? 그들은 나의 말에서 나를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말을 ‘이용’해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을 뿐이다. 이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대적한 것이 아니더냐? 내 말은 누구냐? 내 영은 누구냐? 나는 너희에게 이런 질문을 몇 번이나 했다. 그런데 너희는 더 높은 차원에서 분명하게 깨달은 적이 있더냐? 진실한 체험이 있었느냐? 다시 한번 일깨워 주겠다. 나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실행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내 형벌의 대상이 될 것이며, 사탄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 제 8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90)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극히 적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알고 ‘하나님의 사역’과 같은 말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역은 더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모두 흐리멍덩하게 믿는 것도 당연하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일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 사람에게 너무 생소하고 낯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에서 한참 멀어지게 됐다.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역을 모르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없고 더욱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의 가장 간단한 개념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신앙으로, 질은 종교적 색채를 띤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함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물의 주재자로 믿는 것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체험하여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종종 하나님을 믿는 일을 아주 쉽고 가볍게 본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의미를 잃었으며, 마지막까지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이 가는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도 글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텅 빈 도리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에게 하나님을 믿는 본질이 없고 자신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게 지켜 달라고 하느님(원문: 上帝)에게 기도하고 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차분히 하고 생각해 보자. 하나님을 믿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함의가 고작 더 많은 은혜를 얻는 것에만 국한되겠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겠느냐?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91)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대체 무엇을 얻었느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얼마나 변화하였느냐? 너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과 육적인 평안을 위해서라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다. 지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육적인 평안이나 잠시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설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의 마음이 최고조에 달해 더 이상 무언가를 구하지 않을 지경에 이른다 하더라도 네가 추구하는 그 '사랑'은 불순한 사랑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용해 자신의 무료한 삶을 충실하게 하고,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자는 안락을 탐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랑은 마지못해 하는 사랑이고, 정신적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너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에 속하느냐? 너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지금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느냐? 너희 가운데 대다수의 사랑은 모두 앞에서 언급한 사랑이다. 이런 사랑은 기껏해야 현상 유지나 가능할 뿐, 영원불변할 수 없고, 사람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릴 수도 없다. 이런 사랑은 피고 시든 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과 같다. 다시 말하면 네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한 번 사랑한 후, 누군가 너를 앞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내 쓰러지고 말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대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후에 너의 생명 성품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너는 여전히 흑암 권세의 그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탄의 결박과 농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얻어지지 못하고, 결국 영과 혼과 몸이 여전히 사탄에게 속하게 된다. 이는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얻어지지 못한 자는 모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즉, 사탄에게 돌아가 유황불 못에 던져져 하나님의 다음 단계의 징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 얻어진 자는 사탄을 저버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자로, 정식으로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나라 백성의 유래이다. 너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얻어지기를 원하느냐? 너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느냐? 지금 너는 사탄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나라의 백성이냐?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테니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92)

지난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야심과 관념을 갖고 추구했으며, 자신의 소망을 위해 추구했었다. 이런 문제들은 일단 차치해 두자.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의 길을 찾는 것이다. 너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또한 사탄 권세의 결박에서 조금씩

벗어나, 하나님께 얻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실행의 길 말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흐리멍덩하게 믿으며 대세를 따른다. 그래서 줄곧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며,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또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로부터 사람에게 어려움과 결점,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으며, 진정한 삶의 체험 속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느냐? 정상 궤도에 진입한다는 것은 바로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평온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교제하며, 사람의 부족한 점을 하나둘씩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또한 점점 깊어지게 됨을 뜻한다. 이를 통해 너의 영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깨우침을 얻으며, 점점 더 간절히 사모하고, 진리에 진입하기를 추구하며, 날마다 새로운 빛 비춤과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된다. 또 이런 방식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조금씩 벗어나 생명이 점차 자라게 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정상 궤도에 진입한 사람이다. 너의 실제 체험을 살펴보고,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추구하는 길에 대해 생각해 보거라, 앞에서 말한 것들과 대조해 볼 때, 너는 정상 궤도에 진입한 사람이 맞느냐? 너는 어떤 일에서 사탄의 결박과 권세에서 벗어났느냐? 네가 아직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면 너와 사탄의 관계는 아직 단절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실하고 유일하며 순결한 사랑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에 대한 너의 사랑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매우 깊다고 말하면서도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에 불순물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 얻어져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해야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93)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보편적 문제는 진리를 깨닫기는 하지만 실행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이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분별력이 너무 부족한 까닭에 실생활 속의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꿰뚫어 보지 못해 어떻게 실행해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체험이 너무 얇고, 자질이 부족하며, 진리를 깨닫는 정도 또한 한계가 있어 실생활 속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줄 모르니,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생활은 생활일 뿐,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다. 사람은 다들 이렇게 여긴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얻어질 수 없고,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될 수 없다. 사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해 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이다. 하나님의 원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모두 개인의 뜻에 따라, 자신이 이전부터 갖고 있던 종교 관념에 따라,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 변화가 생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행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며, 대부분은 잘못된 관점을 고집하며 깨닫지 못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저 종교의 오래된 규칙에 따라 믿고, 생활과 처세 부분에서는 완전히 자신의 처세 철학에 따라 행한다. 열 사람 중 아홉은 이렇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 별도의 계획을 세워 새사람이 되려는 자는 아주 드물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겨 대하지도, 실행하지도 않는다.

예수를 믿을 때의 일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금방 믿었던 오래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있는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기량을 펼치며, 기존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만 더했을 뿐, 성품 변화는 전혀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전혀 커지지 않았다. 사람이 추구하는 바 역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여 믿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바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순종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게 진정한지 거짓인지 모르겠고, 믿는 등 마는 등 참답게 대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어영부영하다가 결국 어리벙벙하게 죽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나? 오늘 실제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반드시 정상 궤도에 진입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저 복만 얻고자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깨우침과 개인의 추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며, 진심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생겨날 수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네 사랑이 가장 참되어 아무도 그 사랑을 파괴하거나 방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너의 믿음은 정상 궤도에 진입했고, 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이 입증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네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사로잡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너를 점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의 체험을 통해, 너의 대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너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러날 때면, 너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의 빛 속에서 살게 된다. 어둠의 권세를 벗어나야 하나님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 개개인의 책무이다. 너희는 현재 모습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탄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마땅히 어디서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말하고 일할 때 하나님 집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만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을 믿는다면 진리를 위해 살아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94)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큰 병폐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생활 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이다.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사람의 실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께 적잖게 기도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위는 매우 하찮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사람에게 시련을 준다. 이는 사람이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 시련을 주는 것인데, 사람들이 시련 속에서 부끄러움을 자각하고, 스스로를 인식하게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모두 천사장의 후예가 되어 날이 갈수록 파괴될 것이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정결 과정을 거쳐 개인의 많은 속셈과 목적을 제거하게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전혀 쓸 수 없으며, 하나님이 해야 할 사역을 사람에게 전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스스로를 알게 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내면에 만들어 지고,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 사람들이 말하듯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기에 네가 그저 인식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으며, 자신의 인식에만 머물러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뜻하고, 네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최종 목적이고 사람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너는 살아 내는 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네가 그저 도리만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야말로 공허한 일일 뿐이다. 네가 여기서 더 나아가 실행하고 살아 내야만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많은 인식을 말할 수 있지만 죽을 때는 오히려 눈물을 글썽거리며 자신이 한평생 헛되이 살았다고, 부질없이 살았다고 한탄한다. 그저 도리만 알았을 뿐, 진리를 실행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줄 몰랐고, 외적으로 동분서주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다가 죽음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진실로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 왜 오늘의 기회에 자신이 좋아하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느냐? 왜 꼭 내일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생전에 진리를 위해 고통받으려 하지 않고 진리를 얻으려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설마 죽을 때 평생의 여한이라도 남기기 위해서란 말이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사실 사람은 조금만 노력하면 수많은 일에서 진리를 실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줄곧 엉뚱한 데 마음이 쏠려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는 않고, 언제나 육체를 위해 분주히 뛰어다녀 결국에는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한다. 그리하여 고뇌와 어려움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의 괴롭힘이 아니겠느냐? 육체의 파괴가 아니겠느냐? 너는 그저 입만 놀리면서 불성실하게 하나님을 대하지 말고 뭔가 실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자기 스스로를 농락하지 마라.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나? 자신의 육체를 위해 살아가고, 명예와 이익을 다툼들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95)

지금 나는 너희에게 백성이 되기를 추구하라고 한다. 모든 것이 정상 궤도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너희에게 백성이 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나라의 훈련에 들어갈 것이니 앞으로는 더 이상 예전처럼 해이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요구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너에게서 긴박감을 찾아볼 수 없다면 너는 진취적이지 못하고 생각 없이 추구하는 사람임을 뜻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없다. 하나님나라의 훈련에 들어가면 백성의 생활을 하게 된다. 너는 이 훈련을 받을 마음이 있느냐? 긴박감 있는 분위기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서 살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서 살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련이 임할 때, 너는 어떻게 실행하겠느냐? 직면하게 될 갖가지 사실 앞에서 너는 또 어떻게 하겠느냐? 여태까지 생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제는 생명의 실제에 진입하는 것과 생명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해야 하는 것이다. 백성이라면 모두 생명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나라의 훈련을 받아야 하며, 생명 성품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나라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하나님나라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이 주는 사명을 받아들일 것, 즉 하나님이 말세에 사역하면서 한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것.
2. 하나님나라의 훈련에 들어갈 것.
3.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너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면 정상적인 영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곧 자유로운 경지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핌과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4. 하나님께 얻어질 것.
5.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될 것.

이 다섯 가지 사항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명이다. 나의 말은 모두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사명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나도 강요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진정 이 다섯 가지 사명을 받아들인다면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이 주는 사명을 받고,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추구하며, 하나님나라 백성의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이것이 진입의 첫걸음이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이 다섯 가지 사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다섯 가지를 다 행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며, 반드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나라의 훈련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님나라의 훈련에 들어가는 것은 영 생활에 관련된다. 예전에는 영 생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나라의 훈련에 들어가면 정식으로 영 생활에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최신 사역을 알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96)

그렇다면 어떤 생활이 영 생활이겠느냐?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이다. 또한, 마음이 다른 것에 점령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현재 뜻을 찾아내고, 성령이 비추는 현재의 빛에 따라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이러한 생활이 바로 영 생활이다. 네가 만약 현재의 빛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심지어 단절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정상적인 영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초로 세워진다. 너는 정상적인 영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너는 성령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이나? 성령의 현재의 빛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네가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너는 분명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진취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할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기운이 나지 않고 늘 소극적인 상태에 있다. 지금 너는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느냐? 성령의 흐름 안에 있느냐? 소극적인 상태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기반으로 한 사람, 성령의 현재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모두 성령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가기로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할 수 있다.

성령의 흐름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극적인 상태를 벗어 버려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늘 대세를 따르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사람은 진취성이 없고 추구하는 기준도 매우 낮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얻어지기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또 어떤 이는 단지 양심적으로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없다. 추구하는 기준이 높을수록 하나님의 뜻에 더 잘 부합한다. 정상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나라에 들어가 백성이 되는 것이 참된 미래이고, 무엇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다. 너희보다 복된 자는 아무도 없다. 어째서 그렇게 말하겠느냐? 불신자들은 언제나 육과 사탄을 위해 살지만, 오늘날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인생은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사람들만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너희 외에는 세상에 있는 누구도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택함과 높여 줌으로 말미암아,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참된 인생을 찾게 되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는 너희가 잘 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대 덕분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영적 눈을 열어 주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 행운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깨우쳐 주지 않았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때 영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면에 힘이 넘치며 내려놓지 못할 것이 없다고 느끼게 된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것이고, 너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다. 그럴 때 너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 당신은 정녕 저희를 예정하고 택해 주셨군요. 저는 당신의 영광에 자부심을 느끼고, 당신의 백성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저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며, 저의 일생과 평생의 정력을 모두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참된 순종의 마음이 생길 것이다. 너는 이런 체험이 있었느냐? 사람이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다면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저는 당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당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는 결코 사탄이나 육적인 것을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높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반드시 하나님을 얻어야겠다고,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죽어도 여한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또 이런 기도를 하고 나면 내면에 힘이 넘쳐흐를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서 온 힘인지는 너도 모르겠지만, 마음에 무궁무진한 힘이 생겨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스럽고, 하나님은 사랑받기에 너무도 합당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때, 너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이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이다. 늘 하나님께 감동받는 사람의 생명에는 변화가 생긴다. 그런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얻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굳건한 편이다. 그런 사람은 또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가정이나 세상, 집, 미래 따위를 멀리 던져 버리고 평생의 정력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은 모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온전케 될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최신 사역을 알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97)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현재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다. 생명 진입을 추구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기를 추구하는 것이든, 모두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네가 교제하는 내용도, 진입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이므로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따라오는 사람을 원한다. 과거에 네가 깨달은 것들이 아무리 순수하고 좋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앞으로 너의 진입에 큰 방해가 될 것이다. 성령의 현재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복 있는 사람이다. 만세와 만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랐지만, 오늘날까지 따라오지는 못했다. 그러니 이는 말세 사람들의 복이다. 성령의 현재 역사에 발맞추고, 하나님의 자취를 좇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성령의 현재 역사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사역 안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큰 고난을 받으며 아무리 많은 길을 달렸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모두 성령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현재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은 모두 성령의 흐름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성령의 현재 말씀에서 벗어난 섬김은 전부 육적인 것과 관념에 속하는 섬김이다. 그러한 섬김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사람이 종교 관념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상상에 따라, 관념에 따라 섬길 뿐, 전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길 수 없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의 뜻에 맞는 섬김이지, 관념적이거나 육적인 섬김이 아니다. 성령 역사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관념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 사람의 섬김은 방해이자 교란이고, 그러한 섬김은 하나님과 반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며,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오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현재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현재 요구하는 대로 행하고, 또한 오늘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의 최신 말씀에 따라 진입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오는 사람이자, 성령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사람의 관념과 패역, 사람의 본성과 본질도 알 수 있다. 또 섬기는 과정에서 성품이 점차적으로 변화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며, 진정으로 참도를 찾은 사람이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 도태된 사람은 하나님의 최신 사역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최신 사역에 등 돌린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을 하였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관념 속 하나님의 형상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판단하여 하나님께 미움받고 버려졌다. 하나님의 최신 사역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 사역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역을 찾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볼 기회와 성령의 최신 인도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고의로 하나님의 역사를 저지하는 자들은 모두 성령의 깨우침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최신 사역을 얻을 수 있는지는 하나님의 선대에 달렸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의 추구하고 마음가짐에도 달렸다고 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최신 사역을 알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98)

성령의 현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복 있는 사람들이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떠했는지, 예전에 성령이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를 했는지에 상관없이 최신 사역을 얻은 사람은 모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반면, 오늘날 최신 사역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도태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새로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며, 최신 사역을 받아들이고 알 수 있는 사람이다. 어째서 정결한 처녀가 되라고 말하겠느냐? 그런 사람만이 성령의 역사를 찾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낡은 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오늘날 역사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최신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예정한,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 너희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으므로 천상천하, 만세와 만대에 너희보다 복된 자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 그리고 하나님의 선대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겠느냐? 그러므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높여 줌으로 인해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어찌 소극적이 될 수 있겠느냐? 어찌 힘이 안 생길 수 있겠느냐?

오늘날, 네가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 채찍질, 연단은 물론, 하나님이 준 사명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예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벌을 받을 때도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너희에게 하는 사역과 베풀어 준 복, 그리고 너희에게 더해 준 모든 것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종교인들은 너희와 비교가 안 된다. 비록 너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종교적 도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한 사역으로 인해 너희는 역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얻었다. 그래서 너희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더더욱 자신을 바쳐야 하며, 더더욱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높여 줌으로 인해 더 힘을 내야 하고, 분량을 예비하여 하나님이 준 사명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정해 준 자리에 굳게 서서 백성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나라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얻어져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증거가 되어야 한다. 너는 이러한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네게 이런 각오가 있다면 최종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얻어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증거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 얻어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증거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최선 사역을 알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99)

성령의 현재 말씀이 곧 성령 역사의 움직임이며, 성령이 일정 기간 사람들에게 늘 깨우쳐 주는 것이 곧 성령 역사의 동향이다. 현재 성령 역사의 동향은 무엇이나? 바로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현재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정상적인 영 생활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영 생활에 들어가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1. 먼저 마음을 전부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지난 말씀을 추구하거나 연구하거나 나아가 대조하지 말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현재 말씀에 기울여라. 만약 예전의 하나님 말씀이나 영적 서적, 혹은 다른 설교집을 보고 싶어 하고 성령의 현재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혐오한다. 성령의 현재 빛을 받고 싶다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현재 말씀에 기울여라.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2.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하여 하나님과 교제해라. 또 네가 어떤 기준에 이를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의지를 다져라.

3. 성령의 현재 역사를 바탕으로 진리에 깊이 진입하기를 추구해라. 과거의 낡은 논리와 도리를 고수하지 말라.

4.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해라.

5. 성령이 현재 가고 있는 길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해라.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구해야겠느냐? 그 핵심은 하나님의 현재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바탕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반드시 너를 감동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바탕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용없다. 너는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대적하였으니 실로 죄스럽습니다. 제가 너무나 패역하여 늘 당신을 만족게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마지막까지 힘쓰고, 당신을 위해 죽기 원합니다. 저를 심판하고 형벌하셔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대적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보게 하십시오.” 네가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현재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너를 감동시키지 않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루려는 것에 따라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고, 맡겨 주신 것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생을 바치기 원하오니

제가 백성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당신께서 항상 깨우쳐 주사 제가 모든 행동으로 사탄에게 수치를 주게 하시고, 제가 당신께 얻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기도한다면 성령이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냈는가 하는 것이다. 너희는 모두 다음과 같은 체험을 해 봤을 것이다. 간혹 예배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 역사의 움직임이 절정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면 모든 사람의 힘을 불러일으키는데,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사람도 있고, 의지를 다지며 맹세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성령 역사로 얻은 성과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것이다. 과거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네가 계속 과거의 것을 고수한다면 성령은 네게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중요성을 알겠느냐?

너희는 성령이 현재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앞에서 말한 몇 가지는 성령이 현재와 미래에 이루려는 것들이다. 즉, 성령이 가는 길로서, 사람이 마땅히 진입해야 하는 것이다. 생명 진입이 있으려면 최소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진리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요구한 목표를 향해 추구해야 한다. 너에게 이러한 힘이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감동시켰고 또한 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생명 진입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온전히 기울이는 것이고, 그다음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를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겠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면 더 깊은 진리를 사모하고 찾으며 구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협력할 것이다. 현재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은 목표를 갖고 추구하고 기도하며, 목표를 두고 말씀을 교제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맞춰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과 협력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바라기만 하고 자신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며, 기도하지도 구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을 협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사람에게 협력하는 요소가 없고, 진입할 목표를 세워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협력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떤 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사람이 혼자 어찌겠어요?”라고 한다. 하나님의 사역은 조금도 초자연적이지 않으며 정상적이다. 네가 자발적으로 찾고 구해야 성령이 역사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 역사할 기회를 드려야 한다. 네가 추구하지도 진입하지도 않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마저 없다면 하나님은 역사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해라. 늘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너는 육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즉, 남편, 아내, 자녀,

돈이나 재물 등에 매이지 않고, 오직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자유로운 경지에서 사는 사람이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최선 사역을 알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00)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케 하기로 뜻을 정했다. 그가 어떤 위치에서 말씀하든 그것은 이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영의 위치에서 말하면 사람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실행의 길을 찾지 못한다. 사람이 깨닫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각 단계 사역에는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역마다 성과도 서로 다르다. 또한 하나님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말씀해야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다. 영의 위치에서만 음성을 발한다면 이 단계의 사역은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하는 말씀의 어조를 보면 틀림없이 이 사람들을 온전케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 온전케 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 한다. 현재 하나님의 사역은 새로운 방식에 들어섰다. 시대가 바뀌면서 사역 방식과 말씀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다시 말해, 사역 방식뿐만 아니라 시대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나라시대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대이며, 천년하나님나라시대를 미리 체험하는 것이다. 천년하나님나라시대는 말씀 시대로, 다양한 말씀 방식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고, 각각 다른 위치에서 말씀하여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일단 천년하나님나라시대에 들어서면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시작할 것인데, 생명의 실제에 진입하게 하고 정상 궤도로 이끌어 준다.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 사역 절차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뀌고 심화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랜 시간을 거치며 사역은 계속해서 바뀌고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근본 취지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사역이 아무리 변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도 진리와 생명을 떠나지는 않는다. 사역 방식의 변화는 사역의 형식과 말씀할 때의 위치가 바뀌는 것일 뿐, 결코 사역의 주된 목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말씀의 어조와 사역 방식의 변화는 모두 상응하는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일 뿐, 말씀의 어조가 달라진다고 해서 사역의 근본 취지나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생명 추구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생명을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네가 하나님나라에 들어가 왕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이 현실적이겠느냐? 오직 생명을 추구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만이 현실적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현실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 실제로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다. 이것이 참된 추구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나라시대는 말씀 시대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01)

지금은 하나님나라시대로, 네가 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는지를 알려면 네가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들어갔는지, 하나님 말씀이 너의 생명 실체가 되었는지를 보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결국에는 모두를 말씀의 세계에서 살게 하고, 각자에게 깨우침과 빛 비춤을 준다. 만약 네가 이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읽고 말씀에 흥미를 느끼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네 내적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네가 말씀 시대에 들어가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을 것이고,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 시대의 출발점에서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역사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 시대에 너희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일을 이루고자 한다.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내고, 진리를 실행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삼고 실체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말씀을 실행하여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잡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사역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되겠느냐? 현재 많은 이들이 하루 이틀만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아도 매우 답답해하며, 매일 말씀을 봐야 하고, 시간이 없으면 듣기라도 해야 한다고 한다. 성령은 사람에게 이런 느낌을 주고,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키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사람을 제어하고,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네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어둠과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답답해할 것이다. 이는 네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며, 성령이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너는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하루 이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아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며 아무런 감동도 없다면, 이는 성령이 너를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내적 상태에 문제가 있고 말씀 시대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이니, 뒤쳐진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제어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좋다고 느껴지고, 먹고 마시지 않으면 행할 길을 잃게 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양식과 동력이 된 것이다. 예전에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고 한 바 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 사역을 이룰 것이다. 그는 너희에게서 이 사실을 이루고자 한다. 과거에는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도 밥도 잘 먹고 일도 잘 했었는데, 왜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고 온전케 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에게 생명과 광명, 그리고 실행할 길을 줄 수 있다. 특히 하나님나라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네가 하나님 말씀의 실체를 떠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나라시대는 말씀 시대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02)

생명이 자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이뤄지는 일이 아니므로 생명 추구에 있어 성급히 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역은 정상적이고 실제적이며, 모든 사역에는 다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예수가 성육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완성하는 데에도 33년 반이나 걸렸는데, 사람을 정결케 하고 사람의 생명을 변화시키는 사역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는 무엇보다 어려운 사역이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정상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의 말씀과 사역이 필요하다. 그러니 서둘러 결실을 맺으려 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 후, 실제로 실행하여 인식과 식견, 분별력, 지혜를 키운다면 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보고 인식하며, 체험하고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할 것이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조금할 게 뭐 있느냐? 분량이 어느 정도 자라면 실행할 수 있다. 네댓 살 된 아이가 부모를 부양하거나 효도하지 못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자신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실행할 수 있는 만큼 실행하되, 하나님의 경영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만 신경 쓰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일단 하나님이 너를 온전케 할 수 있을지 등은 상관하지도, 생각하지도 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다 보면 틀림없이 온전케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도 원칙이 있으니 무턱대고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네가 인식해야 할 것, 즉 이상(異象)에 관한 말씀을 찾아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실행해야 할 것, 즉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에 관한 것을 찾아내야 한다. 하나는 인식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입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즉 네가 어떤 것들을 인식하고 어떤 것들을 실행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줄 아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나라시대는 말씀 시대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03)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네가 말하는 원칙이 될 것이다. 평소 너희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화제로 삼아 자신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행했는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교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기만 하면 성령이 빛 비춤을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세상을 만들려면 사람도 협력해야 한다. 네가 진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할 수 없다. 네가 입 다물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네게 빛 비춤을 줄 수 없다. 시간이 나면 잡담이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삶을 채워야 경건한 신자라고 할 수 있다. 교제의 깊이가 알아도 상관없다. 어떻게 처음부터 깊을 수 있겠느냐! 얕은 곳을 거쳐야

깊은 곳에 갈 수 있는 법이다. 훈련을 통해 너에게 있는 성령의 빛 비춤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마셔야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등을 한동안 모색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협력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비로소 성령의 역사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원칙에는 인식에 관한 것과 진입에 관한 것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인식에 관한 것일까? 이상에 관한 내용(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어느 시대에 들어섰는지, 혹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성육신이란 무엇인지 등등은 다 이상에 해당됨)이다. 어떤 것이 진입해야 할 길일까? 사람이 실행해야 하고 진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는 이 두 가지가 있으니, 이렇게 먹고 마시면 된다. 단, 이상에 관한 것들은 확실히 이해하고 난 후에는 자주 보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진입에 관한 말씀을 많이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해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는지, 욕을 버릴 수 있는지 등등의 내용은 다 실행이 필요한 것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은 진실한 교제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먹고 마실 줄 알고 핵심을 짚을 수 있으면 자유로운 교제가 가능하다. 즉, 어떤 문제를 내놓든 교제할 수 있고 실제적인 것을 짚어 낼 수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 말씀을 교제할 때 실제적인 것이 없다면, 다시 말해 핵심을 잡지 못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줄 모른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싫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싫증을 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좋다고 느껴야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진입한 사람의 먹고 마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사람이 진입해야 할 것이라고 느낀다면, 또 사람에게 더없이 도움이 되고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느낀다면, 그 느낌은 성령이 준 것, 즉 성령의 감동이다. 그것은 너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싫증을 느껴 하나님의 말씀은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라고 여기는데, 그것은 비정상적인 상태다. 그런 사람은 실체에 진입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며, 온전케 되기를 바라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네가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너의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의미한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외면했는지를 판단할 때 그 사람 마음에 평안과 즐거움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지금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실체가 되었는지,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의 실체로 사람을 가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네가 즐겨 본다면 깨우침을 얻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깨우침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깨우침을 준다.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도 깨우침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보았겠느냐? 주마간산(走馬看山) 식으로 대충 보고 실제적인 것을 중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깨우침을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온전케 할 리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진리도 실제도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실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쁘든 한가하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시련이 있든 없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생존의 토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세끼 끼니 챙기듯 먹어야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얻어지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겠느냐? 네가 지금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알든 그렇지 못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셔야 한다. 이것이 적극적인 진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 뒤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행하고, 진입할 수 없는 것은 일단 내버려 두어라.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많겠지만, 2~3 개월, 혹은 1 년 정도 지나면 깨닫게 될 것이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은 하루 이틀 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많은 경우 보자마자 바로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 당시에는 아무리 봐도 글자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한동안 체험하고 나면 그제야 그 뜻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을 하였으니, 네가 가능한 한 먹고 마시면 시나브로 이해하게 될 것이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성령의 깨우침을 얻게 될 것이다. 성령의 깨우침은 흔히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뤄진다. 네가 갈급해하고 찾을 때, 성령이 너를 깨우쳐 주고 인도해 줄 것이다. 성령의 사역 원칙은 네가 먹고 마시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다른 태도를 가지며,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라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은 실체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도, 깨우침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자는 밥이나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요, 머릿수만 채우는 남곽 선생(南郭先生) 같은 사람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나라시대는 말씀 시대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04)

하나님이 말씀하면 너는 그 즉시 받아서 먹고 마셔야 한다. 얼마를 깨닫든 네가 가져야 할 관점은 먹고 마시고 인식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너의 분량이 얼마나 자랄 수 있을지는 상관치 말고 오로지 먹고 마시기만 해라. 이것은 사람이 협력해야 하는 일이다. 너의 영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을 실행하는 실제에 진입하는 데 역점을 뒤탈지, 다른 것을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이끄는 사람은 형제자매들을 이끌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줄 알게 해야 한다. 이는 교회를 이끄는 사람의 책임이다. 나이가 많은 적든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 이 실제에 들어선다면 하나님나라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현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느끼고, 하나님 말씀은 늘 새롭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정상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역하고 말씀으로 공급한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세계로 들어선 것이다.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했는데, 너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진입한 것은 또 얼마나 되느냐?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말씀의 실제로 이끌지 못했다면, 이는 직책을 다하지 못한 것이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은 얕든, 얼마나 깨달음을 얻었든, 너는 먹고 마실 줄 알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해야 하며, 먹고 마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거나 추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체험하며 그의 말씀을 살아 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도 못하고 실제적인 것을 내놓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배를 불리는 것'에 불과하다. 사소한 간증과 쓸모없는 것, 외적인 것들만 말하고 실제적인 것이 조금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길을 전혀 찾지 못한 것이다.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셔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는 않고 하늘나라에 가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아도 온전케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실체가 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최소한 갖춰야 할 것은 겉으로 보기에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는 것이다. 어찌 됐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앞으로는 각 나라 각 교파, 각 종교 각 분야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손에 하나님 말씀을 받들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할 것이므로 안팎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것이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실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니, 이것이 곧 안팎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 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온전케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다.

말씀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곧 천년하나님나라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바로 이 사역을 이루고 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훈련을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체험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낼 수 있다. 네가 실제 체험을 내놓아야 다른 사람도 납득할 것이다. 네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낸 실체가 없다면 누구를 납득시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말씀 실재를 살아 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실재가 없다면 그것은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지 않았고, 네가 온전케 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이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 앞으로 하나님은 각 종교와 각 교파에 더 많은 말씀을 할 것이다. 먼저 너희들 가운데서 말씀하여 너희들을 온전케 하고, 그다음에는 이방을 향해 음성을 발함으로써 그들을 정복할 것인데, 말씀으로 사람들을 탄복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폭로를 통해 사람은 패괴 성품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패역한 성품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권병을 떼는 말씀으로 사람에게 사역하여 하나님의 빛 속에 사람을 정복한다. 하나님이 현시대에 하려고 하는 것과 사역의 전환점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으니, 네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한편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본인 또한 실제로 체험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진정으로 실재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나라시대는 말씀 시대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05)

“이적과 기사 보는 것을 중시하는 자들은 다 버림받을 것이고, 모두 온전케 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도 사람은 이 사역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고, 이 경지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이적과 기사를 바란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적과 기사를 보기 위함이나, 아니면 생명을 얻기 위함이나? 예수도 그 당시 수많은 말씀을 했는데, 그중에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다. 그렇다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했는데도 네가 부인할 수 있느냐? 오늘날 하나님은 말씀만 하므로, 네가 완전히 알지 못하면 제대로 설 수 없다. 너는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냐, 아니면 그의 말씀의 실현 여부에 따라 믿는 것이냐? 너는 이적과 기사를 믿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오늘날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이나, 아니냐?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이나, 아니냐?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의 실현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냐?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뒤에야 그를 믿으려 하느냐? 이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관념을 가진 사람은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관념으로 하나님을 가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믿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으며, 늘 이적과 기사를 보고자 하는데, 이들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이 아니겠느냐? 네가 굳게 설 수 있는지는 실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것은 무척 중요한 문제다! 너에게 하나님 말씀의 실재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실재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시련 속에서

더 굳게 설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이적과 기사에 눈을 돌릴수록 제대로 설 수 없고, 시련 속에서 쓰러지게 된다. 이적과 기사는 토대가 아니다. 하나님의 실제야말로 생명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이 이를 성과도 알지 못한 채, 온종일 흐리멍덩하게 보내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고자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만을 원하며, 그 후에야 제대로 믿으려 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생명을 추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적과 기사를 바라는 것으로 여기고, 천국에 가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것으로 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실제로 진입하기를 추구하고 생명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얻어지기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추구가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제 이해가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적과 기사를 보는 것이냐? 천국에 가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마땅히 종교적 믿음법을 없애야 한다.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을 추구하고, 이적과 기사를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 하며, 육적인 안락함과 앞날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종교적 믿음법이다. 이런 믿음법은 막연한 신앙이다. 오늘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생명 실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를 알고 진실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피조물이 해야 할 본분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존경스러움을 알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행하는 사역이 구원이요, 온전케 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데에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로 육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고, 패괴된 삶에서 하나님 말씀의 생명 안에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다. 또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아래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육체를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의 온 마음을 얻고 너를 온전케 함으로써 사탄의 패괴 성품을 벗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사탄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적과 기사를 보려고 하거나 육적인 것을 위하지 말아야 한다.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베드로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추구해야 한다. 주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족케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되는데, 그런 뒤에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목적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이적과 기사를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관점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생명의 실제로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실행하고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이른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 매사에 순종하기를 추구해야 한다. 네가 불평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베드로의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같은 베드로의 풍격을 갖게 되면, 이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이는 네가 하나님께 얻어졌음을 의미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말씀이 모든 것을 이룬다> 중에서

생명 진입[2]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06)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흡족게 하려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접해 하나님의 만족을 얻어야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 정상적인 영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해야 한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어야만 조금씩 정상적인 영 생활이 이뤄진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부담을 자신의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며, 종교 인사들의 행위와 같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그저 하나님 역사의 부각물, 즉 하나님 집의 장식품처럼 숫자만 채우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기회가 없을뿐더러 온전케 될 가치도 없으며, 전형적인 산송장이므로 성령이 쓸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 이들은 전부 사탄에게 점령당하고 사탄에 의해 극도로 파괴된, 하나님께 도태될 대상들이다. 오늘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할 때, 사람의 취할 만한 부분은 활용해 쓰고, 취하지 못하는 부분은 온전케 하고 변화시킨다. 만약 네가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쏟아부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질 수 있다면, 너는 성령께 쓰임 받을 기회와 자격을 얻게 될 것이며,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받게 될 것이다. 나아가 성령을 통해 네 부족한 부분을 메울 기회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긍정적인 면에서는 더 깊이 진입하여 더 높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자신의 부족함과 결함에 대해 더 잘 인식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기를 더욱 갈망하게 될 것이며,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는 네가 올바른 사람임을 설명해 준다.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졌다는 전제하에, 성령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의 관건은 네가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성령이 사람을 깨우치고 사용하는 데에는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모두 사람을 적극적으로 향상하게 만든다. 연약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생명의 성장을 지체하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며, 이것 하나만으로도 네가 성령의 함께함을 얻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만약 사람이 항상 소극적이라면, 성령 빛 비춤을 얻어 자신을 인식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일 것이며, 일어나 하나님과 협력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 입었을 뿐, 성령의 함께함을 얻지는 못했다. 이렇듯 사람의 소극적인 면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고, 사람의 영이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지 못했음을 말해 준다. 모두 이 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07)

체험을 통해 알 수 있듯,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은 사람의 영 생활 및 생명 성장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져야만 진리와 성품 변화를 추구함에 있어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너는 부담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왔기에 늘 자신은 부족함이 많고, 깨달아야 할 진리와 체험해야 할 실체가 많고,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느낀다. 이러한 일들이 늘 마음에 걸려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로 억눌려 마음이 무거워질 것이다(하지만 소극적인 상태는 아님).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의 깨우침과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부담과 무거운 마음으로 인해, 즉 하나님 앞에서 지불한 대가와 받은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게 대한다. 하지만 그는 마음대로 사람에게 베풀어 주거나 무조건적으로 더해 주지는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한 측면이다. 많은 사람이 실생활에서 이 경지에 이르지 못했는데, 최소한 마음조차도 하나님께로 완전히 향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명 성품에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만 할 뿐, 성령 역사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모습이 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을 느끼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진리를 구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런 사람만이 성령 역사를 얻을 수 있으며, 늘 깨우침과 빛 비춤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이성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도 맺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는 적절하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한 ‘이성이 없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같고, 또한 밖으로 보이는 사랑이나 행위를 중시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영적인 일을 교제할 때면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체험하여 얻은 빛 비춤과 깨우침을 사심 없이 다른 이에게 공급해 주며, 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한다. 다른 이들이 모두 그를 비방하고 조롱해도, 그는 외부의 사람과 일, 사물에 좌우되지 않고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서 평온할 수 있다. 그는 마치 자신만의 독특한 견해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마음이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담소를 나눌 때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묵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는 다른 이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조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처세 철학이 없는 듯 보인다. 겉으로 볼 때 이런 사람은 활발하고 사랑스러우며 치기(稚氣)가 있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는 침착하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모습이다. 처세 철학이니, ‘정상적인 이성’이니 하는 것은 이런 사람에게 아예 통하지 않는다. 그는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있는 듯, 온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일 뿐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한 ‘이성이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언제 어디서든 항상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으며, 다른 사람이 얼마나 제멋대로이든, 정욕과 육체를 얼마나 방종하든,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시류를 따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며, 성령께 온전케 될 사람이다. 이렇게 될 수 없다면, 너는 하나님께 얻어지고 성령께 온전케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08)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면 반드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이것을 기초로 다른 사람과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만약 너와 하나님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가 없다면, 네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든, 어떻게 노력하고 힘을 쓰든 그것은 모두 사람의 처세 철학에 속한다. 그것은 사람의 관점과 처세 철학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너의 위치를 지키고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려는 것일 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른 이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다. 만약 네가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길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와 다른 이의 관계는 육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초에서 맺어진 것이 된다. 육적인 왕래는 거의 없지만, 영적으로 교제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공급하게 된다. 모든 행함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족게 하는 기초에서 이뤄진다. 이는 사람의 처세 철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담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므로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하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성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너는 네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들 가운데서의 네 위치는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네가 접한 사람 중 너와 관계가 가장 좋은 자들은 누구냐? 너와 관계가 가장 나쁜 자들은 누구냐? 너와 사람들의 관계는 정상적이냐? 너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느냐? 너와 모든 사람의 관계는 너의 처세 철학을 통해 유지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이뤄진 것이냐?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영이 둔해지고 무감각해져 지각을 잃게 된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 이런 자의 성품은 영원히 변하지 못한다.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는 과정은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얻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부정적인 면에서는 그것을 인식한 후 벗어 버리게 한다. 네가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경지에 이르면 영 안의 모든 미세한 감동까지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작은

깨우침과 빛 비춤까지 모두 알 수 있다. 이를 계속 유지하면 성령께 온전케 되는 길에 차츰 들어서게 된다.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질수록 네 영은 더욱 예민해지고 섬세해지며, 성령의 감동을 더욱 세밀하게 살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갈수록 정상적이 될 것이다. 사람 간의 정상적인 관계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을 기초로 이뤄지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육적인 관계만 있을 뿐인데,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이것은 모두 정욕의 방종으로, 하나님이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이다. 만약 네가 너의 영에 감동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늘 너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나 중시하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찾고 구하는데도 네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편견을 갖고 입을 다물어버린다면, 이는 네가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이며, 너와 하나님 사이에는 전혀 정상적인 관계가 없음을 증명한다. 그것은 네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신의 추한 모습을 덮어 가리는 행위이다. 설령 네가 인식을 좀 말할 수 있을지라도 의도가 불순하다면 네가 하는 모든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만 좋아 보일 뿐, 하나님은 너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육으로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왕래할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이다. 그때는 네가 사람들과 어떻게 접촉하든 그것이 처세 철학과는 무관하고,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된다. 너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너와 다른 이의 관계는 정상적이나? 그것은 어떤 기초에서 맺어진 것이냐? 너의 처세 철학은 얼마나 되느냐? 벗어 버렸느냐? 만약 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없다면,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온 사람이니, 결국 사탄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너는 이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09)

하나님을 믿는다면 최소한 하나님과의 정상 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정상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의의도 없게 된다. 하나님과의 정상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평온히 해야만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의혹을 품거나 부정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자신을 위해 타산하지 않으며,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집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안배에 순종하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평온히 하고, 설령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온 힘을 다해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 다음에 그에 따라 실행해도 늦지 않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정상적이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요구대로 실행하고, 관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나 교회를 교란하는 일을 하지 말고, 형제자매들의 생명에 이롭지 못한 일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 광명정대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때로 육적인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집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탐하지 않으며, 의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실행한다면 너와 하나님의 관계는 정상이 된 것이다.

일을 할 때면 항상 자신의 마음가짐이 올바른지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상인 것이다. 이것이 최소한의 기준이다. 네가 자신의 마음가짐을 살펴 올바르지 못한 속셈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 된 것이다. 이는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정상적이며, 네 모든 행동이 너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며 감정이나 개인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일 처리 원칙이다. 작은 일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분량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길에 진입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가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결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어야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책망, 훈계, 징계, 연단이 너에게서 당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개인의 앞날을 생각(육적인 것을 생각함을 가리킴)하지 않는다면, 또 생명 진입에 부담을 갖고 온 힘을 다해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한다면, 네가 추구하는 목표는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상인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영적 노정에 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라 개인이 바꿀 수 없지만, 네가 온전케 될 수 있을지,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을지는 모두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인지에 달려 있다. 어쩌면 너에게 연약하고 패역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의 관점이 옳고 마음가짐이 바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정상적이라면 너는 하나님께 온전케 될 자격을 갖춘 것이다. 그러나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그 관계가 육이나 가정을 위한 것이라면, 네가 얼마나 노력하든 전부 헛수고이다.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이면 모든 것이 잘 풀리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너의 관점이 올바른지만 본다.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대체 누구를 믿는지, 누구를 위해 믿는지, 왜 믿는지 등을 꿰뚫어 보고 관점을 바로잡아 실행할 수 있다면, 너의 생명은 성장할 것이고 반드시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관점이 치우쳐 있다면, 모든 것이 허사이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 봤자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라야 육을 저버리고, 기도하고, 고통받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형제자매를 돕고,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하는 것 등의 행동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네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이 될지는 네 마음가짐과 관점이 올바른지에 달려 있다. 현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고개를 빼딱하게 돌리고 시계를 보는 것처럼 관점이 올바르지 못하는데, 이것을 깨뜨리고 해결해야 모든 것이 좋아지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 어떤 이들은 내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뒤에서는 대적하는 일을 저지른다. 이는 교활하고 간사한 태도이고, 이런 사람은 사탄의 종이자 전형적인 사탄의 화신이며, 하나님을 시험하러 온 자이다. 내 사역과 내 말에 순종해야 옳은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고, 네가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으며, 무슨 일을 하든 전부 광명정대하고, 떳떳하지 못한 일이나 타인의 생명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고, 빛 속에서 살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은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너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10)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마음가짐과 관점을 바로잡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하나님이 마련해 준 모든 환경과 하나님이 증거한 사람, 그리고 실제의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하며,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거나 자신의 의견대로 결정하지 말고, 범사에 진리를 찾으며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고 생명의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싶다면 네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하고, 제멋대로 굴어서는 안 되며, 사탄을 쫓아서도, 사탄에게 역사할 기회를 줘서도 안 된다. 사탄이 너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너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이 너를 주관하게 해야 한다.

너는 사탄의 종이 되고 싶으냐?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싶으냐? 네가 하나님을 믿고 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 위해서냐, 아니면 하나님 사역의 부각물이 되기 위해서냐? 너는 하나님께 얻어져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내고 싶으냐, 아니면 무가치하고 공허한 인생을 보내고 싶으냐? 너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사탄에게 이용당하기를 원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충만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죄악과 사탄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보아라. 일상생활 속에서 너는 어떤 말과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만드느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을 바로잡아 올바른 방식으로 들어가야 한다. 수시로 자신의 모든 언행과 일거수일투족, 마음의 생각을 성찰하고, 자신의 실제 상태를 파악해 성령의 역사 방식에 진입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정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지를 가늠함으로써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로잡아야 하고, 인간의 본성과 본질을 알아야 한다. 나아가 진실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통해 실제 체험에 진입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자신을 저버릴 수 있으며,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지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너는 하나님께 온전케 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수많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사탄의 수많은 간계를 꿰뚫어 보고 사탄의 음모를 간파할 수 있다. 이러한 길로 가야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안배에 순종하기 위함이며, 실제 체험에 더 깊이 진입하여 더 많은 성령 역사를 얻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정상 관계를 맺는 것은 대부분 욕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너는 마땅히 ‘협력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얻기 힘들고, 육체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없으며, 영적 싸움이 없으면 사탄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조목들을 실행하여 확실히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너의 관점도 바로잡힐 것이다. 너희는 현재의 실행에서 ‘떡으로 배 불리려는’ 관점을 버리고, ‘모든 것이 성령께 달려 있으므로 사람은 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없애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모두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성령이 역사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거지. 사람은 욕적으로 절제할 필요 없고, 협력할 필요도 없어. 성령의 감동만으로 다 되잖아.’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성령은 이런 상황에서는 역사할 수가 없다. 이러한 관점이 바로 성령 역사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성령 역사는 많은 경우에 사람의 협력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람이 협력하지 않고 의지도 없으면서 성품 변화나 성령 역사, 하나님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얻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생각이다. 이것을 바로 ‘스스로에게 여지를 주고, 사탄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이다. 네가 자신에게서 사탄의 모습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많이 찾고, 지난날의 행실에 하나님이 현재 요구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도 찾게 된다면, 너는 사탄을 저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새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지난날의 과오를 따지지 않고, 지나치게 통회하지 않으며, 일어나 하나님께 협력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면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상인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너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11)

네가 이러한 말들을 다 본 뒤에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저 입으로만 인정하고, 하나님과 정상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지도 않는다면, 이는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고 네 관점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의 마음가짐은 여전히 하나님께 얻어지거나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음모가 이루어지는 것, 곧 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사람은 모두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며 관점이 비뚤어진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든 꿈쩍도 하지 않고 어떤 변화도 없으며, 마음속으로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영이 없는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보고 깨달았다면 실행해야 한다. 과거에 네가 어떻게 했든, 욕적으로 연약하거나 거역하고 대적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들이 오늘날 네

생명의 성장을 가로막지 못한다. 현재 네가 하나님과 정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희망이 있다. 네가 언제나 말씀을 보고 나서 변화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네 삶이 달라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는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고 정상임을 뜻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과오에 근거해 그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 네가 깨닫고 이해하여 더는 거역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추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너의 상태는 정상이 될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 이렇게 생각하여라.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나님 집의 사역에 이로울까?’ 기도하든, 교제하든, 대화하든, 일하든, 다른 사람과 소통하든 모두 자신의 마음가짐을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지를 살펴야 한다. 마음가짐도 생각도 살피지 못한다면 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깨달은 진리가 너무 적은 것이다. 반면,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을 판단할 수 있으며,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판단할 수 있다면 너의 관점은 올바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며, 모든 사람이 반드시 실행해야 할 첫 번째 임무이자 인생의 대사라고 할 수 있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정상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마음가짐이 올바르다면 그때 움직여야 한다. 하나님과 정상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신의 이익이 손해를 볼까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해야 하며, 사탄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사탄의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정상 관계를 수립했다는 뜻이다. 이는 육적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을 위한 것이며, 또한 성령 역사를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기 위한 것이다. 올바른 내적 상태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관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나님이 너를 얻고, 말씀의 성과가 너에게서 뚜렷하게 보여지고, 더 많은 깨우침과 빛 비춤을 받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너는 올바른 방식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성령의 현재 역사 방식에 진입해야 한다.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고, 과거의 낡은 실행법을 고수하지 말며, 지난날의 행실에 연연하지 말고 하루빨리 오늘날의 역사 방식에 진입해야 한다. 그러면 너와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정상이 될 것이며, 너는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너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12)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수록 더 많은 깨우침을 얻게 되며, 몹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더 깊이 있고 풍성한 체험을 할 수 있고, 그의 생명 또한 나날이 성장한다.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전적으로 이를 자신의 일로 삼고 대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공허할 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또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효과를 얻지 못한다면 어떤 일도 할 마음이 없다'는 결심을 해야지, 자신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생명 체험은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로 이룰 수 있는 것이며, 너희의 주관적 노력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너희는 모두 자신에게 '생명 체험 과정에서 스스로를 용서하면 안 된다'는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때로는 상태가 비정상적이어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잃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이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정상이며, 마땅히 바로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와 멀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루, 이틀, 심지어 한 달, 두 달이 되도록 성령의 함께함이 없고, 성령의 역사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처해 어느 정도까지 무감각해지면 너는 또다시 사탄에게 끌려갈 것이며, 심지어 무슨 일이든 다 저지르게 될 것이다. 재물을 탐하고, 형제자매를 속이고, 영화를 보고, 영상을 보고, 마작을 하고, 심지어는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셔도 징계받지 않을 것이며,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몰래 독립을 꾀하고 제멋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판단할 것이다. 더 심한 자는 남녀 관계에서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런 사람은 성령이 버린 자로, 이미 오래전부터 성령 역사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갈수록 파괴되고 죄악의 손길이 점점 더 멀리 뻗어 나가는 모습만 보일 뿐이다. 그는 결국 이 도의 존재를 부정할 것이며, 죄를 따라 사탄에게 끌려갈 것이다. 만약 네가 성령의 함께함만 있고 성령의 역사가 없음을 발견했다면 이미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성령의 함께함을 느낄 수 없게 되면, 너는 죽음의 벼랑 끝에 있는 셈이다. 그 상황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완전히 사탄에게 돌아갈 것이며, 도태될 것이다. 그러므로 네 상태가 성령의 함께함만 있고(죄를 짓지도, 방종하지도, 눈에 띄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하지 않는 것),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기도해도 감동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도 명확한 깨달음이나 빛 비춤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항상 귀찮고, 생명 또한 성장하지 않으며, 꽤 오랜 시간 동안 큰 빛 비춤이 없는 것) 더욱 조심해야지, 자신과 타협해서는 안 되고 너는 자신의 성미대로 행해서도 안 된다. 성령의 함께함은 언제든 없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상태이다. 네가 이런 상태에 처했다면 되도록 빨리 돌이켜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 또한, 마음을 평온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먹고 마셔야 하며, 이것을 기반으로 많이 기도해야 한다. 또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거나 본분을 이행하는 것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가장 연약할 때야말로 사탄에게 마음을 점령당하기 가장 쉽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네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사탄에게로 끌려갈 것이며, 결국 네게서 성령의 함께함이 없어질 것이다. 그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다. 그러니 성령이 함께할 때 성령의 역사를 구하여 하나님이 더 많이 너를 깨우쳐 주고, 너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은 모두 사탄에게 역사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성령이 네게 역사하도록 할 수 있다. 네가 이렇게 되돌리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다가 성령의 함께함을 잃게 된다면, 성령의 특별한 감동과 빛 비춤, 깨우침이 없는 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성령의 특별한 감동과 빛 비춤, 깨우침이 있을지라도 네 상태는 하루 이틀에 회복될 수 없으며, 심지어 어떨 때는 반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못한다. 이것은 전부 사람이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정상적으로 체험하지 못해 성령께 버림받은 것이다. 설령 되돌린다 해도 하나님의 최신 역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다. 일락천장한 것처럼 생명 체험에서 멀리 뒤쳐졌기 때문이다. 그러니 생명이 위급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나는 이런 사람에게 지금 회개하면 늦지 않았다고 말해 주고 싶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로 많이 노력하고 게으름 피우지 않는 것이다. 다른 이가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한다면 너는 열 번 기도해야 한다. 다른 이가 하루에 두 시간 먹고 마신다면 너는 네 시간, 나아가 여섯 시간 먹고 마셔야 한다. 또한, 다른 이가 두 시간 찬양을 듣는다면 너는 적어도 반나절은 시간을 내서 찬양을 들어야 한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평온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해야 한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야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렇게 실행해야만 예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상태에 진입할 수 있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13)

하나님을 믿는 길에서 너희가 지나온 노정은 여전히 너무 짧다. 너희는 아직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뒤쳐져 있으며, 너희들의 분량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의 자질과 파괴된 천성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항상 건성으로 대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는 너희의 가장 큰 단점이다. 성령이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대부분이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참답게 대하지도 않는다. 만약 계속 이런 상태로 나아가면서 성령의 사역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가 가는 하나님을 믿는 길은 전부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추구하지 않고, 잘 협력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이 사역하지 않았거나 성령이 감동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 경솔해서 성령의 역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다. 마땅히 이를 즉시 바로잡고 성령이 인도하는 길에 들어서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요 화제이다.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란, 영 안에서 깨우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식을 얻는 것이다. 또한, 눈앞에 펼쳐진 길을 분명하게 알고, 진리에 점차 진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이 인도하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여 치우치거나 그릇됨 없이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런 성과를 내려면 조화로운 협력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실행의 길을 찾아 성령이 인도하는 길에 들어서야 한다. 이것은 사람의 협력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성령이 인도하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 말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행의 길을 확실하게 알면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연목구어(緣木求魚)처럼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사람을 위해 근심을 덜어 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너희는 이 점을 확실히 알아야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성령이 가는 길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다. 예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는 성령이 인도하는 길에 들어서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정상 궤도에 들어설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 일을 어떻게 의식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모두 건성으로 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기도하곤 한다. 그래 놓고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마음속으로는 가정사와 육적인 일을 생각하니, 마음은 하나지만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 마음이 늘 외적인 것에 있기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마음을 평온히 하려면 반드시 의식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너희는 모두 자기만의 영 생활 시간을 가져야 하며,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을 피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져야 한다. 사람마다 영 생활에 대해 기록을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과 영적인 감동이 깊은 얄든 다 기록해야 하며,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해야 한다. 만약 네가 하루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 가량 진실한 영 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하루의 삶이 충실해짐을 느끼고 마음은 밝아질 것이다. 그런 영 생활을 매일 해서 네 마음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면, 네 영은 갈수록 강해질 것이며, 너의 상태는 갈수록 좋아질 것이고, 성령이 인도하는 길에 더 잘 들어설 수 있고, 하나님은 너를 곱절로 축복할 것이다. 너희의 영 생활은 의식적으로 성령의 함께함을 얻기 위한 것이지, 규례를 지키고 종교 의식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 즉, 진실로 하나님과 협력하고, 진실로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네가 잘 협력할수록, 그리고 네가 기울이는 노력이 많아질수록, 네 마음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더 평온해질 것이다. 그러다가 어떤 경지에 도달해 하나님이 네 마음을 완전히 얻고, 그 누구도 네 마음을 흔들거나 빼앗아 갈 수 없게 되면, 너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것이다. 네가 이 길에 들어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너에게 나타나 네가 모르는 것들을 깨우쳐 줄 것이다. 이러한 것은 모두 네 협력으로 인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줄곧 “나와 협력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곱절로 베풀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 길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바른길에 들어서려면 반드시 너희의 모든 힘을 기울여 하나님을 흠족게 해야 한다. 영 생활은 온 힘을 다해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일에서 그다지 큰 성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소극적이 되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 계속 노력하여라! 영 생활이 많아질수록 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점유되어 항상 이런 일들을 유념하고 책임감을 갖게 된다. 그런 후에는 영 생활을 통해 네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모두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한다. 네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체험하여 깨달았는지 조금도 숨김없이 전부 하나님께 말해야 한다. 하나님께 마음속 말을 털어놓고 심정을 토로하는 훈련을 해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말씀드리도록 해라. 그렇게 할수록 너는 하나님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질 것이고, 네 마음은 하나님께 더욱 끌릴 것이다. 그때 너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친근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매일 이런 영적 수양을 하고 항상 유념하며 그것을 네 평생의 큰일로 여겨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점유될 수 있다. 그것을 바로 성령께 감동받은 것이라고 한다. 네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점유된 것 같고, 네 마음속에 늘 네가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면, 그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네 안에 살아 계신 것이며, 네 마음속에서 자리를 갖게 된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정상적인 영 생활은 사람을 정상 궤도로 인도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14)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정상적인 영 생활을 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실제에 진입하는 기초이다. 지금 너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노래하고, 찬미하며,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기는 등의 실행은 정상적인 영 생활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느냐? 너희 모두는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정상적인 영 생활이란 생생하고 활기찬 영 생활을 하는 것으로서 기도와 찬양, 교회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등등의 방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즉, 방식이 아니라 효과가 중요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정상적인 영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거나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 성과가 있든 없든, 참된 인식이 있든 없든, 겉으로 보이는 과정만 중시할 뿐, 그 성과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종교 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나라의 사람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와 찬양,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은 모두 규례를 지키는 것에 속한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혹은 주변 분위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찬송해도 성과를 얻을 수 없다. 그들이 실행하는 것은 종교적인 규례와 의식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법만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 삼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육체를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해 행동할 뿐이다. 그러한 종교적 의식과 규례는 모두 사람에게서 비롯되었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규례도 율법도 지키지 않으며, 날마다 새로운 일과 실제적인 사역을 한다. 삼자교회의 사람들처럼 매일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 식전 기도를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등의 제한적인 것만 실행한다면, 그런 실행은 아무리 많이, 또 아무리 오래 해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다. 사람이 규례 속에서 살면서 행위에만 마음을 쏟는다면 성령은 역사할 수가 없다. 사람의 마음이 규례와 관념에 점령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할 수가 없고, 사람은 계속 율법의 통제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정상적인 영 생활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을 말한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게 해 준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깨우침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현재 하나님이 하려는 일에 대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실행의 길을 찾을 수 있고, 옛것을 고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실행이 생명 성장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기도는 듣기 좋은 말을 몇 마디 중얼거리거나 하나님 앞에서 한번 대성통곡함으로써 자신의 죄책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을 운용하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여 범사에 말씀의 인도를 구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마음이 날마다 새로운 빛에 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소극적으로 되지도, 게을러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정상 궤도에 들어서기 위한 것이다. 현재 많은 사람이 다 행위만 중요시할 뿐, 생명의 성장을 위해 진리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이는 치우친 것이다. 새로운 빛은 받아들이지만 실행법을 바꾸지 않는 일부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오늘날의 하나님 말씀을 과거의 종교 관념과 결합해 받아들인다.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종교 관념을 떼 도리이지, 순전한 오늘날의 빛이 아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실행에는 불순물이 끼어 있으며, 형식만 바꿨을 뿐 내용은 그대로이다. 그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행해도 그것은 외식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매일 사람을 인도하고 새로운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낯아 빠지고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닌, 날마다 새로운 견해와 인식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네가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겉으로만 열정적이고 바벨 뿐, 행실이 조금도 바뀌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받아들이고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고, 새로운 실행법에 따라 실행하지 않으며, 더 새로운 인식을 추구하지 않고, 언제나처럼 옛것을 고수하고 제한적인 새 빛만 받아들일 뿐 실행법이 그대로라면, 그런 사람은 명목상으로는 이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성령의 흐름 밖에 있는 종교 바리새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정상적인 영 생활에 관하여>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15)

정상적인 영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날마다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된 인식을 얻기 위해 추구해야 한다. 또한, 진리를 더 밝히 깨닫고, 범사에 실행의 길을 찾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새로운 문제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마음이 생겨 네 전 존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게 되고, 자신이 뒤처질까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이렇듯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진입하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 생활의 정상 궤도에 들어선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고 향상심이 있으며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깊은 인식을 얻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가를 치르며,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실제로 진입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체험을 더 참되고 실제로 만들어 허황된 글귀상의 도리나 초자연적인 느낌을 추구하지 않게 되고, 어떤 큰 인물도 숭배하지 않게 된다. 이런 자는 정상적인 영 생활에 진입한 사람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더 큰 생명 성장을 위한 것이고, 영 안에서 생기가 넘치고 침울해지지 않기 위한 것이며, 늘 적극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깨닫고 실제에 진입하게 된다. 사람에게 정상적인 영 생활이 있고, 영이 날마다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실행하고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기도를 한다고 해도 형식을 따르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빛을 좇게 된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훈련을 통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평온해진다면,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어떤 사람과 일, 사물도 그의 정상적인 영 생활을 제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훈련은 일정한 성과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에게 규례를 찾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실행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네가 이것을 규례로 여겨 지킨다면 너의 생명은 영원히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하니 너도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성령 역사의 발걸음을 따라잡고 너는 성령의 흐름에서도 태워진다면, 이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고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에게서 막힘없이 이뤄져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함이며,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함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정상적인 영 생활에 관하여>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16)

너희의 일상생활을 보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하고 있다. 예전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도 대충대충 건성으로 했다. 무슨 일이 생겨야만 하나님께 간구할 뿐, 지금껏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진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너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 흘린 적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게 되었던 적이 있느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기도한 적이 있느냐? 기도는 천천히 훈련해야 한다. 평소에 집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에 가서도 기도할 수 없고, 평소에 작은 예배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큰 예배에서도 기도할 수 없다.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기도하려 해도 할 말이 없고, 설령 기도한다 해도 그것은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 입술만 놀리는 것에 불과하다.

진실한 기도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와 교제하면 그가 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하나님이 바로 네 앞에 있는 것 같고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며, 마음이 환해지고 그가 매우 사랑스럽게 느껴져 특별히 격려받는 느낌이 들게 된다. 그 기도를 듣는 형제자매들도 기쁨을 누린다. 네가 그들의 속마음과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한 기도다. 진실한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생겨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너의 기도가 결실을 맺었다는 증거다. 너는 이런 기도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

기도는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할까? 너의 진실한 내적 상태와 성령이 하는 것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사람에게 요구한 것에 따라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 기도하는 훈련을 시작할 때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마음속 말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려고 해야 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제가 지금껏 당신을 거역해 왔다는 것을 오늘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증오스러울 만큼 패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허송세월했으니 앞으로는 당신을 위해 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며, 당신의 마음을 흡족게 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영이 저에게 역사하사 빛 비취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제가 당신 앞에서 굳세고 힘 있게 증거하고, 사탄이 우리에게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증거, 당신께서 승리하신 증거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가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완전히 해방될 것이고, 네 마음이 하나님과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다. 네가 늘 이렇게 기도한다면 성령도 반드시 너에게 역사할 것이며, 늘 이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의 다짐을 열납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마음, 너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얻어진다면 최종적으로 너는 하나님께 온전케 될 것이다. 너희에게 기도는 실로 너무나 중요하다. 네가 기도하여 성령 역사를 얻으면,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도 솟아난다. 하지만 기도할 때, 네가 마음을 쓰지 않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너에게 역사할 수 없다. 네가 진심을 털어놓고 기도를 했음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 네가 격려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네 마음이 간절하지 않고 네 말이 진실하지 않으며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뜻이다. 네가 기도를 마친 뒤에 기쁨이 찾아온다면 네 기도가 하나님께 열납되고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역사했다는 뜻이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은 기도가 부족해서는 안 된다. 네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여긴다면 기도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서는 안 된다. 기도가 부족하면 너는 욕으로 살게 되고, 사탄에게 잡혀서 살게 되며, 진실한 기도가 없으면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살게 된다. 나는 형제자매들이 날마다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것은 규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이다. 잠을 조금 적게 자고, 조금 적게 누리더라도 이른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한 뒤 하나님 말씀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신다면 더더욱 하나님께 열납될 것이다. 네가 매일 아침 이렇게 실천하고, 날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왕래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나님, 저는 저의 본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서 증거를 누리실 수 있도록,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 저를 온전히 바치길 원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흡족게 하며 당신을 제가 추구하는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네가 이런 부담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네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이 가장 진실한 기도다.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나?

과거에 너희는 기도할 줄도 몰랐고 또 기도를 소홀히 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기도 훈련을 잘해야 한다. 네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솟아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 제 마음에 당신에 대한 참된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싶지만 힘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당신 앞에서 모든 부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고 그 어떤 사람과 일, 사물에도 속박받지 않고 당신께 완전히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저를 온전히 당신께 바칠 수 있도록, 제 영의 눈을 열어 주시고 당신의 영으로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저에게 어떤 시련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제 앞길이 밝든 어둡든 연연하지 않을 것이고, 죽음에도 구속받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찾고 싶습니다. 만사 만물이 당신 손에 있듯이 저의 운명도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의 일생도 물론 당신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의 허락이 있든 없든, 사탄이 어떻게 방해하든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이렇게 기도하여라. 네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조금씩 생길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기도의 실천에 관하여>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17)

어떻게 진실한 기도에 들어갈 수 있을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평온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기도는 지금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께 더 많은 깨우침과 빛 비춤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다짐을 포함해 자신의 실제 상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을 늘 평온히 할 수 있게 지켜 달라고 간구해야 하며, 또 하나님이 마련한 환경에서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을 미워하고 저버림으로써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기도의 의의는 무엇일까?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길이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식이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과정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이 없는 죽은 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동받는 기관(器官)이 없다는 뜻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영 생활이 있을 수 없고, 성령의 역사에 발맞추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할수록, 즉 하나님께 감동을 많이 받을수록, 더 큰 다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깨우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성령에 의해 빨리 온전케 될 수 있다.

기도는 어떤 결실을 맺어야 할까?

사람이 기도를 실천하고 그 의의는 깨달을 수 있지만 기도로 결실을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도는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외우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말을 따라 하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눔으로써 감동받아야 하는 것이다. 기도가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더 많은 깨우침과 빛 비춤을 받을 수 있다. 진실한 기도를 한 번 하고 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요구에 부응하길 원하며 하나님이 중오하는 것을 중오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인식이 더해져 하나님이 밝혀 준 진리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 기도를 하고 나면 의지와 믿음이 생기고, 인식과 실천의 길이 생긴다. 그래야 진실한 기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기도야말로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평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도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지에 진입한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기도의 실천에 관하여>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18)

기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다음과 같다.

1. 맹목적으로 마음대로 몇 마디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마음속에 부담, 즉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2.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해야 한다.
3. 기도는 상투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현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해야 한다.
4. 단체로 기도할 때는 중심이 있어야 하며, 성령의 현재 사역이 바로 그 중심이어야 한다.
5. 누구든 대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이다.

개인의 기도 생활은 그 바탕에 기도의 의의와 상식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항상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간구하고 기도하며, 생명 성품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도해야 한다. 누구나 자기만의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실사구시의 태도로 자신의 내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참된 인식과 하나님 말씀의 실제 체험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 생활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묵도, 하나님 말씀 묵상,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인식 등등 이처럼 목적 있는 영적 교감은 모두 정상적인 영 생활에 진입해 하나님 앞에서 점점 상태가 나아지고 생명이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든, 묵도를 하든, 큰 소리로 외치든, 네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하나님이 너에게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에 도달함으로써 네 생명을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은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드리고 진심을 말한다면, 하나님도 사람에게 역사하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교활한 마음이 아니라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원한다. 사람이 진심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고 그에게 역사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부족함과 패역한 성품을 하나님께 고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야 하나님도 너의 기도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외면할 것이다. 기도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을 계속 평온히 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어쩌면 네가 한동안은 더 새롭고 높은 인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네 상태가 퇴보하지 않도록 기도를 통해 현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 기준에도 이르지 못했다면 너의 영 생활이 정상 궤도에 들어서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로 인해 너는 본래 가지고 있던 이상(異象)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며 너의 다짐 또한 사라지게 된다. 네 기도가

정상 궤도에 진입했는지의 여부는 네가 영 생활에 진입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모든 이들이 이러한 실재에 진입해야 하고,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소극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구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기도를 시작할 때 너는 첫술에 배부를 것이라는 허황된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입을 여는 즉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깨우침과 빛 비춤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나친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그가 사람의 기도를 이루어 주는 것은 모두 때가 있다. 그는 때로 너의 믿음을 검증함으로써 네가 그에게 충성하는지 살펴보기도 한다. 기도할 때는 믿음과 끈기, 의지가 있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훈련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성령의 감동을 찾지 못하면 쉽게 실의에 빠지곤 한다. 그래서 안 된다! 너는 변치 않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찾고 모색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때로는 네가 실천하는 길이 잘못되었거나, 개인의 마음가짐과 관념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해 하나님의 영이 너를 감동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네가 충성스러운지 보려고 할 수도 있다. 요컨대, 훈련하는 동안 대가를 많이 치러야 한다. 네가 실천하는 방법에 치우친 점이 있다면 기도하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 네가 진심으로 구하고 얻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성령은 반드시 너를 그 실재로 인도할 것이다. 때로는 네가 진심으로 기도해도 큰 감동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믿음에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감찰하고 있음을 믿고 굳은 의지로 기도해야 한다.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감사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통해 수시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으면 너의 성품이 점차 변화될 것이다. 진정한 영 생활은 바로 기도하는 생활이다. 다시 말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생활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과정은 사람의 성품이 변화하는 과정이고, 성령의 감동이 없는 생활은 영 생활이 아니라 종교 의식이다. 항상 성령에 감동받고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얻는 사람이야말로 영 생활에 들어간 사람이다. 사람의 성품은 기도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을수록 더 적극적이고 더 잘 순종하게 되며, 사람의 마음 또한 점점 정결케 되고 성품도 점차 변화된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기도로 얻을 수 있는 결실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기도의 실천에 관하여>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19)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현재 모든 사람이 우선 진입해야 할 공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기 위한 진입 경로는 다음과 같다.

1. 외적인 일에서 마음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서 평온히 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2.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누린다.

3.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되새긴다.

먼저 기도에서 시작하여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시간이 없어도, 일이 바빠도, 무슨 일이 생겨도 매일 정상적으로 기도하며,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한다.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만 하면 영 안에 특별한 누림이 생기고, 주위 사람과 일, 사물의 방해받지 않으며, 평소에 하나님을 그리워할 때도 외적인 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분량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먼저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고 기도하면 가장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묵상하면 빛을 얻을 수 있고, 실행의 길을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깨달음이 치우치지 않게 된다. 평소에 마음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외적인 일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너의 마음이 깊이 평온해지면 정념(靜念)의 단계에 이르러 어떤 환경에 있든 내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께 다가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마음속에서 찬미가 흘러나오는 경지에 도달하는데, 이는 기도할 때보다 더 낫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분량이 있는 것이다. 네가 앞에서 말한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네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첫 번째 기본기이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한 후에야 성령의 감동과 빛 비춤, 깨우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영생활의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을 하여 일정한 깊이를 갖게 되면 자신을 저버리고 증오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마음이 평온해진 것이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증오하거나 저주하거나 저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한 성과이며,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은 당장 진입해야 할 공과이다.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는 물론이고, 기도할 때조차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지 못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지지 못한다면 누군가 나타나기라도 하면 네 마음이 뺏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말이라도 하면 네 마음이 뺏길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하는 일도 네 마음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만약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다면 어떤 외적인 일에도 방해받지 않고, 어떤 사람과 일, 사물에도 점령당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측면에서 진입이 있다면 소극적인 상태나 사람의 관념, 처세 철학,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 생각 등 부정적인 것들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네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며, 늘 하나님의 현실적인 말씀에 점유되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 부정적인 것들을 벗어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새롭고 긍정적인 것들이 너를 점유하면 낡고 부정적인 것들은 자리를 잃을 것이니 그 소극적인 것들에 신경을 쓰지 말라. 그러한 것들은 네가 힘써 억제할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지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시며 누리고,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찬미하며, 하나님이 너에게서 역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하나님은 친히 사람을 온전케 하려 하고, 너의 마음을 얻으려 하므로 그의 영이 너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네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을 흡족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에 신경을 쓰고, 진리를 많이 교제해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얻게 되면 그런 종교 관념이나 독선적이고 스스로를 높이 여기는 것들은 모두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흡족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 외의 것들은 너도 모르는 새에 하늘 끝 저 멀리 버려질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에 관하여>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20)

하나님의 현실적인 말씀을 먹고 마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첫걸음이다. 만약 네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다면,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모든 영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해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해야 깨우침과 빛 비춤이 있을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평소에 묵상하고 교제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다가가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해야 네 내면에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친근감이 생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사역에 대해서도 진실한 인식이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헤아릴 수 있다. 평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수록 빛 비춤도 더 많아질 것이며, 자신의 패괴 성품과 부족한 점, 진입해야 할 것, 자신이 해야 할 역할, 부족한 면 등을 인식할 수 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에 깊이가 생기면 영 안의 비밀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현재 네게서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의 정수와 본질, 어떠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실행의 길을 더욱 선명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영 안에서 평온해지는 것에 깊이가 부족하면 성령의 감동이 좀 있고, 내적으로 힘이 좀 있으며, 약간의 누림과 평안만 있을 뿐, 더 깊은 것들은 찾을 수 없다. 나는 “사람이 온몸의 힘을 다하지 않으면 내 음성을 듣기 힘들고, 내 얼굴을 보기 힘들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런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이

깊이가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지, 외적으로 힘을 쓰는 것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점유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장담컨대 모두 절제함이 없이 제멋대로 구는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생명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영적 교제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세상에 연연하는 허황된 사람이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뿐이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온전케 하고 만들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 아주 적고, 바깥일에만 정신없이 바쁘며, 생명 진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외식하는 자들로, 발전 전망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에 관하여>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21)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생명으로 삼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너를 깨우쳐 주고 네게 인식을 더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수록 하나님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더 잘 얻을 수 있다. 그러려면 모두 경건함과 믿음이 필요하며, 그래야 온전케 될 수 있다. 영생활에 진입하기 위한 기본기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모든 영적인 훈련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얻을 수 없다. 네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한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네가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간다면, 그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한 사람임을 의미한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길을 걸을 때 ‘내 마음은 외적인 것들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평온해진 사람이다. 네 마음을 바깥으로 끌어갈 수 있는 일은 접하지 말고, 네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과는 가까이하지 말라. 무슨 일이든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내려놓고 하지 말거나 멀리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의 생명에 더 유익하다. 지금은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시기이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온전케 하는 시기이다. 바로 이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외의 다른 일을 추구하면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없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럴 때 너 자신을 바치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릴 셈이냐? 자신을 바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바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 진실로 마음을 바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될 가망이 있다. 너는 어떤 일을 마주하든 영향받지 말아야 한다. 책망과 훈계를 받든, 좌절과 실패를 맛보든, 네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평온히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든 네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평온히 해야 하고,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환난과 고통, 핍박이나 갖가지 시련이 닥치든 네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서 평온히 해야 한다. 이것은 전부 온전케 되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평온히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현실적인 말씀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고, 성령의 빛 비춤과 깨우침을 치우침 없이 더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더 정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더 정확하게 깨달아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살아갈 자신이 생긴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평온히 할 때 얻게 되는 성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실행의 길이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실행에 원칙이 없는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고 실제적이며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너를 온전케 할 방법이 없다. 사람에게 의지가 없다면 이는 마음이 없는 것과 같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질 수 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사역과 말씀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도 모르니, 이것이 마음 없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으며, 그런 사람은 짐승과 같은 부류에 속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질 수 없다면, 이런 자는 짐승이 아니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실행법을 잘못 인식해 밥때가 되어도 밥을 하지 않고, 일할 때가 되어도 일을 하지 않으며, 시종일관 기도하고 묵상만 한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은 밥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며, 일과를 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다. 그것은 모든 정상적인 내적 상태를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뜻이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고, 일을 하거나 밥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찬송을 하는 것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만의 실행 길을 갖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다가가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해야 한다. 조건이

되면 전념해서 기도하고, 조건이 안 되면 손으로는 일을 하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을 때는 그리워해라. 즉, 처한 환경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진입하는 것이다. 혹자는 일이 없을 때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고, 일이 생기면 마음도 그와 함께 사라지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확한 체험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지 않는 것이며, 외부의 사람, 일, 사물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된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진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지만, 교제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평온히 하지 못해 잡생각이 많아진다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진 것이 아니다. 현재 많은 사람이 다 이런 상태에 처해 있으며,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면에서 많이 노력하고 훈련해서 점차 생명 체험의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서야 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에 관하여>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22)

하나님이 말씀하고 사역하는 것은 모두 너희의 성품 변화를 위한 것이다. 그의 목적은 너희가 깨닫거나 인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다지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이 인간적인 언어로 이뤄져 있으며, 매우 명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깨닫고, 무엇을 실행하라고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이해 능력이 있는 정상인이라면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하나님이 하는 말씀은 더욱 분명하고 명확하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일이나 사람의 각종 상태까지도 하나님은 다 짚어 내며, 밝은 달과 같이 구석구석 다 말씀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 사람은 많은 문제들을 다 깨닫고 이해했으니 이제 실행하는 일만 남았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각 측면의 진리를 세부적으로 체험하고 상세히 탐색하며 찾아야지, 더는 가만히 앉아서 누가 떠먹여 주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대로 계속 나아가다가는 공짜 밥만 빌어먹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므로 결국에는 도태되고 만다. 90 년대의 베드로의 품격을 갖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체험 속에서 참된 진입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나님과의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더 많고 큰 깨우침을 얻고, 자신의 생명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보고도 그 말씀을 글귀상으로만 이해할 뿐, 실제 체험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으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아니라 죽은 글귀만 될 뿐이다. 네가 죽은 글귀만을 붙잡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종잡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네가 실제 체험으로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영적인 뜻이 너에게 활짝 열릴 것이다. 오직 체험으로만 수많은 진리의 영적인 뜻을 찾아낼 수 있고, 체험으로만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풀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명확하게 말씀하더라도 네게는 그저 공허한 글귀나 도리에 불과하며, 너의 종교 규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작태가 아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체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실체가 되겠지만, 실행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셋째 하늘에서 온 전설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사실상,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과정이자, 하나님께 얻어지는 과정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체험하고 살아 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실체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생각만 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것은 잔치에 가서 잔칫상에 어떤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마음속에 담아 두기만 할 뿐, 직접 맛보지는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진리를 깨달았다면 마땅히 실행해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23)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진리와 사람에게 아주 이롭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 들어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필요한 자양분이자 영양분으로, 정상 인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진리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수록 너희의 생명은 더 빨리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수록 진리는 더욱 명확해진다. 너희의 분량이 커지면 영계의 일을 꿰뚫어 볼 수 있으며, 더욱 강력한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 너희가 깨닫지 못한 수많은 진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때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표면적 의미를 깨닫는 데 만족하고 도리적인 글귀를 채우는 데에만 집중할 뿐, 실행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작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라”라는 말의 실체를 갖출 수 있겠느냐?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했을 때 생기는 것이지, 말씀을 보는 것으로 생기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생명과 분량이 생길 거라고 여겼다면, 네 인식은 치우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했을 때에야 참되게 깨닫는 것이다. 너는 ‘진리는 실행했을 때 깨닫는다’는 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오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 후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고 할 정도는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이는 진리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절반만 맞을 뿐,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네가 어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너는 그 진리를 체험하지 못한 것이다. 설교를 들으면 언뜻 이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다. 그저 진리의 글귀를 갖췄을 뿐, 진리의 참뜻을 갖춘 것은 아니다. 진리의 겉껍데기를 안다고 해서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았다고는 할 수 없다. 진리의 참뜻은 모두 체험 과정에서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체험해야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체험 과정에서 진리의 감춰진 부분을 찾아낼 수 있으며, 체험이 깊어져야 진리의 함의를 포착하고 진리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가 있어야 천하를 다닐 수 있다고 한다. 네게 진리가 없으면 많은 종교 인사들을 탄복시키기는커녕, 네 가족들조차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진리를 갖추지 못하면 바람에 흩날리는 눈송이 같겠지만, 진리를 갖추면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유유자적할 수 있다. 그때는 누구도 너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진리를 무너뜨릴 순 없다. 진리가 있으면 천지를 뒤집어엎고 산을 밀고 바다를 뒤엎을 수 있지만, 진리가 없으면 한낱 버려지로 인해 무너지는 성처럼 허술할 것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진리를 깨달았다면 마땅히 실행해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24)

현재 관건은 진리를 알게 된 후에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며, 더 많은 진리의 참뜻을 갖추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도달해야 할 경지이다. 다른 이에게 너의 글귀에 순종하기만을 강요하지 말고, 네 실행에 순종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일이다. 어떤 일이 닥치든, 어떤 사람과 마주치든, 진리가 있어야 굳게 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사람을 살게 하지, 죽게 하지 않는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았는데도 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죽은 사람 같다면 그것은 너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네가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실체가 있는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침체된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네가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얻어지고자 한다면 도리를 갖추고 높은 도리로 사람을 가르치는 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현재 진입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역하는 기간은 다 정해져 있다. 그런데 네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무슨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어째서 하나님은 늘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는 그 말씀을 실행하라고 하겠느냐?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밝히 알려 준 후에는 너희가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가 실행할 때, 하나님은 다시 깨우치고 인도해 줄 것이다. 일의 순서는 바로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명을 성장하게 하지 사람을 치우치게 하는 요소나 소극적으로 만드는 부분은 없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실행했음에도 아직 성령 역사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믿어 줄 사람은 어린아이뿐이다. 네 마음이 올바른지 아닌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까지 모르겠느냐? 어째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 성령의 깨우침이 있겠느냐? 어째서 네가

실행하면 성령의 깨우침이 없겠느냐? 하나님에게도 감정적으로 일하는 면이 있겠느냐? 네 마음가짐이 정말 올바르고 또 협력도 했다면, 하나님의 영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일부 사람은 늘 일어나 따로 깃발을 날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끌게 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본분을 다하기만 했을 뿐인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이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한다. 사람이 진리를 추구할 때는 마음가짐이 올바라야지, 그렇지 않다면 결코 굳게 설 수 없다. 너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행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참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찌면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메워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수많은 진리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핵심 중의 핵심이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는 33년 반의 삶 속에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받았다. 그가 진리를 실행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으며, 하나님의 마음만 헤아렸기 때문에 수많은 고초를 겪은 것이다. 그가 진리를 알기만 할 뿐 실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고초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예수가 유대인의 교훈을 따르고 바리새인들을 따랐다면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너는 예수의 사례를 통해 사람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성과를 거두려면 사람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은 너희가 꼭 알아야 할 것이다. 예수가 진리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겪었겠느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면 슬퍼하며 기도를 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진리 실행을 위해 고난을 겪어야 하는데, 이 고난은 사람이 응당 받아야 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진리를 깨달았다면 마땅히 실행해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25)

실행 과정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 연관되어야 한다. 계명을 지키면서도 진리 실행이 되고, 진리를 실행하면서도 계명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계명을 거스르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이 네게 요구하는 대로 해야 한다. 진리 실행과 계명 준수는 서로 연관되며 모순되지 않는다. 진리를 실행할수록 계명의 본질을 더 잘 지킬 수 있으며, 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이해하게 된다. 진리 실행과 계명 준수는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처음에 사람은 계명을 잘 지킨 후에야 진리를 실행할 수 있었으며, 그래야만 성령의 깨우침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네가 마음을 다해 경배하는 것을 원하지, 그저 올바른 행동만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는 최소한 표면적으로라도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점차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대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의심하지도 않아야 계명의 본질을

지킬 수 있다. 그렇기에 계명만을 지키고 진리를 실행하지 않으면 성과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너에게 실제 분량이 없기 때문이고, 진리가 없이 계명만을 지키는 것은 맹목적으로 규례를 지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실행한다면 계명은 율법이 되어 네 생명 성장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짐이 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구약의 율법처럼 너를 단단히 묶아매어 너는 성령의 함께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실행해야만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진리를 실행하기 위함이다.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더 많은 진리를 실행할 수 있고, 진리를 실행할 때 계명에 내포된 실제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한 목적과 의의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규례를 지키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 진입과 관련된다. 너는 생명이 자라는 만큼 계명도 지킬 수 있다. 비록 계명은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계명의 본질은 오직 생명 체험을 통해서만 분명히 알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계명만 잘 지키면 ‘모든 것이 완벽해. 이제 들림 받기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은 너무 지나친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다. 이것은 진취성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며, 육적인 것을 탐하는 사람이 하는 억설에 불과하다! 이는 실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진리만 실행하고 실제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이런 사람은 다리 한쪽이 없는 불구자와 다름이 없다. 또한, 마치 규례를 지키듯이 계명만 지킬 뿐 진리가 없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눈 한쪽이 없는 불구자와 같다. 계명을 잘 지키고, 실제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되면 진리를 얻은 것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실제 분량도 생긴 셈이다. 그것은 실행해야 할 진리를 실행하면서 계명도 지킨 것이니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진리 실행과 계명 준수는 사람의 생명 체험에 없어서는 안 될 두 개의 큰 줄기이다. 사람은 체험할 때 계명 준수와 진리 실행을 동시에 진행해야지, 둘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 둘 사이에는 다른 점도 있고 연관성도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계명을 지키는 것과 진리를 실행하는 것>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26)

새 시대의 계명이 반포되었다는 것은 이 흐름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오늘날 하나님이 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음을 증명한다. 이것은 하나님 사역의 새로운 기점이자, 6 천 년 경륜 중 마지막 부분 사역의 시작이다. 새 시대의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의 경지에 들어갔음을 상징한다. 또한,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예수가 유대 민족 가운데서 사역했듯, 하나님이 땅에서 더 실제적인 사역, 더 큰 사역을 더 많이 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이는 이 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 더 큰 사명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실제 공급과 양육, 보살핌, 불뽕, 보호를 받고, 더 실제적인 훈련과 말씀의 책망 및 깨뜨림, 나아가 연단까지 받게 될 것임을 뜻한다. 새 시대 계명의 의의는 참으로 깊다. 이는 하나님이 실제로 땅에

나타나고, 땅에서 온 우주를 정복하고, 육신으로 그의 모든 영광을 나타낼 것임을 예고하며, 실제의 하나님이 땅에서 더 실제적인 사역을 전개하고 하나님이 택한 모든 대상을 온전케 할 것임을 예시한다. 또한, 하나님이 땅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성육신한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 올라 크게 높임 받고, 만국 만민은 크게 높임 받으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한다’는 사실을 실현할 것임을 말해 준다. 새 시대의 계명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하고, 사람이 본분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계명이 상징하는 의미는 사실상 매우 깊어서 한두 마디 말로 완전히 표현할 수 없다. 새 시대의 계명은 여호와가 반포한 구약의 율법과 예수가 반포한 신약의 규례를 대체하였다. 그러므로 이는 더 깊은 공과이며,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새 시대의 계명은 실제적 의의의 일면을 지니며, 은혜시대와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의 교차점이다. 새 시대의 계명은 옛 시대의 모든 실천 방식과 규례, 예수의 시대와 그 이전 시대에 있던 모든 실천 방식을 종결지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온전케 되도록 더 실제적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으며, 이는 사람이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서는 기점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새 시대의 계명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지, 소홀히 여기지도 말고 건성으로 대하지도 말아야 한다. 새 시대의 계명은 사람이 오늘날 실제의 하나님 자신을 경배하게 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 다시 말해, 영의 본질에 더 실제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공의로운 해로 나타날 때, 사람을 죄와 의로 판정하는 원칙을 강조하기도 한다. 계명은 알기는 쉬워도 실행하기는 어렵다. 여기에서 사람이 온전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가 필요하며, 사람의 타고난 총명함이나 영리함으로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새 시대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지는 실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관계된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루 이틀의 노력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매우 심도 있는 공과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계명을 지키는 것과 진리를 실행하는 것>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27)

진리 실행은 생명 성장의 노정이다.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론만 있을 뿐, 실제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는 사람의 분량을 가늠하는 표징이다. 너의 진리 실행 여부는 너의 분량 유무에 직결된다. 만약 네가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공의롭지 못하며, 감정적이고, 육적인 것을 좇는다면, 계명 준수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가장 깊은 공과이기 때문이다. 시대별로 사람이 진입하고 인식해야 할 수많은 진리가 있지만, 또 시대마다 서로 다른 계명이 진리와 함께한다. 사람이 실행하는 진리와 준수하는 계명은 시대와 관련이 있다. 시대마다 모두 실행해야 할 진리가 있고, 더욱이 지켜야 할 계명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반포한 계명에 따라,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사람이 진리를 실행할 때 이뤄야 할 목적과 성과도 달라진다. 계명은 진리를 위해 존재하며, 진리는 계명을 수호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진리만 있다면 하나님 사역의 변화는 언급할

수도 없다. 하지만 계명과 결합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어느 선에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사람 또한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많은 종교인들이 율법시대 사람들이 실행했던 많은 진리는 실행할 수 있지만, 새 시대의 계명은 얻지도, 지키지도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낡아 빠진 방식으로 살고 있는 원시인이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역사 방식이 없다. 게다가 그들은 새 시대의 계명을 보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역사 또한 없다. 그것은 병아리가 나올 수 없는 속 빈 달걀과 같다. 그러면 영이 없는 것이다. 조금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새 시대에 진입하지 못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옛 시대의 진리만 있고 새 시대의 계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너희 중 많은 사람이 오늘날의 진리를 실행하지만, 오늘날의 계명은 지키지 않고 있다.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하다. 그들이 실행하는 진리는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으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도 없다. 진리 실행은 반드시 오늘날의 성령 역사 방식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즉, 오늘날의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하며, 이것을 떠나면 밀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이것 역시 새 시대의 계명이 반포된 실제 의의이기도 하다. 계명을 잘 지키려면 최소한 실제로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계명의 원칙을 잘 파악하고 지켜야 한다. 계명을 지킴에 있어 함부로 지키거나 마음대로 지켜서는 안 되고, 근거와 목적, 원칙이 있게 지켜야 하며, 먼저 이상(異象)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만약 네가 오늘날의 성령 역사에 대해 확실히 알고 그 역사 방식 안으로 진입할 수 있다면, 계명을 지키는 일도 자연히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 네가 새 시대 계명의 본질을 참으로 꿰뚫어 보고 잘 지킬 수 있을 때면, 그때 너는 온전케 된 것이다. 이것이 진리를 실행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의 실제 의의이다. 네가 진리를 실행할 수 있을지는 새 시대 계명의 본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사람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요구는 점점 높아진다.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실행해야 할 진리도 점점 많아지고 높아지며, 계명 준수를 통해 이뤄야 할 성과도 점점 커지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땅히 진리 실행과 계명 준수를 동시에 실천해야 하며, 누구도 이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새 시대에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계명과 함께 발맞춰야 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계명을 지키는 것과 진리를 실행하는 것>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28)

실행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두 마디 정도 개인의 느낌을 이야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도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얻은 빛 비춤일 뿐, 본인이 직접 실행한 부분이 없고, 본인이 체험해서 얻은 깨달음도 없다. 나는 일찍이 이러한 문제를 분석했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라.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네가 어찌 사탄에 대한 승리를 운운하겠느냐? 어찌 이겼다는 간증을 입에 담느냐? 어찌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 낸다고 하느냐? 전부 터무니없는 헛소리다! 오늘날 하나님이 감상이나 하라고 너희에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입으로는 옛 자아를 저버리고 진리를 실행하겠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다른 일을 하고, 마음으로는 다른 타산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어째서 마음과 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많이 교통해 줘는데도 공허한 글귀가 되었으니, 비통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이는 네가 성령 역사의 방식에 진입하지 못했으며, 성령 역사와 성령의 인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고만 말하고 그것을 실행하지는 못한다면, 너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구속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극도의 고통을 받은 것은 죄인과 가난한 사람 그리고 비천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속죄 제물이 되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겠다면, 하나님 집에 눌러앉아 공짜 밥을 얻어먹지 말고 속히 나가라. 뚜렷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서도 많은 사람이 자제하기 어려워한다. 이는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운운하느냐? 무슨 낮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준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작을 부리니, 음험하고 악랄하며 몹시 간교하다. 설령 하나님이 네게 축복을 내릴지라도 그것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 때 부끄럽지 않겠느냐? 낮이 뜨겁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홀로 딴 살림을 차리는’ 수작을 부리면서도 두렵지 않더냐? 이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앞날을 입에 올릴 수 있겠느냐? 네게 앞날은 진작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늘 무슨 더 큰 희망을 품는다는 것이냐? 뻔뻔하기 그지없는 말을 하고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에 어떤 느낌도 없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네 본성이 되었는데, 그 상태로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겠느냐? 천하를 두루 누빌 수 있겠느냐? 누가 너에게 탄복하겠느냐? 네 진상을 아는 사람은 모두 너를 멀리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겠느냐? 결과적으로 말해, 말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말할 때는 성령 역사가 있지만 실행하지 않을 때는 성령 역사가 없는 이런 상황을 반복하면서 어찌 앞날을 논할 것이며, 어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자신을 바치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하기만 했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치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님이 너에게서 얻은 것은 말뿐인 마음이지 진리를 실행한 마음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너의 실제 분량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언제 하나님께 온전케 되겠느냐? 네 앞날이 암담한데 초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네게 이미 실망했다고 느껴지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이 더 많고 새로운 사람들을 온전케 하려 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낡아 빠진 것들이 굳게 설 수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지 않으면서 내일을 기다리겠단 말이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구원받는 사람은 기꺼이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29)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망설임 없이 한번 쪽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실체가 있다는 것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내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 생명이 되고, 너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비로소 실체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네게 진정 인식과 실제 분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랜 검증을 견디고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 억지로 만들어 낸 모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어야말로 참으로 실제와 생명이 있는 것이다. 모두가 아는 ‘봉사자의 시련’을 예로 들어 말하겠다. ‘봉사자’에 관한 이론적인 인식은 누구나 말할 수 있다. 들어 보면 인식한 깊이도 알지 않아 서로 경기장에서 경쟁하듯 말은 누구보다 잘한다. 하지만 큰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에게는 훌륭한 간증이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 어찌 됐든 사람이 살아 낸 것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인식한 것과 일치한 구석이 없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실제 분량도 생명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이 인식한 것을 실제에 적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분량은 사상누각처럼 위태롭기 그지없고, 실제는 너무도 적어 찾아보기조차 힘들 정도다.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실제적인 부분이 너무 적고, 모두 강제로 살아 낸 것이기에 나는 사람에게 실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은 입으로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는 그저 시련이 임하기 전에 한 말에 불과하다. 언젠가 갑자기 시련이 임하면 사람이 한 말과 실제는 또 한 번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여전히 사람에게 실체가 없음을 증명한다. 네 관념에 맞지 않는 일이 임해 네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오면, 그것은 너에게 시련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나타나기 전까지,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준엄한 검증이며, 크나큰 시련이다. 너는 이 일을 꿰뚫어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련을 줄 때는 늘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기 전에 사람에게 선택을 하게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련을 줄 때는 항상 진상을 알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을 드러낼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네가 오늘날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지, 너에게 실체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너는 정녕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있느냐? 큰 시련이 닥쳐 왔을 때 정말 굳게 설 수 있느냐? 누가 “절대 걱정 마세요.”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누가 “어느 누가 의심할지라도 저는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시련을 겪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진상이 드러나기 전에는 늘 큰소리를 친다. 이는 베드로 한 사람만의 결점이 아니라, 현재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너희들이 오늘날의 하나님 사역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내가 몇 곳을 찾아가거나 일부 형제자매를 방문한다면, 너희는 분명 수많은 인식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의심도 없는 듯 얘기할 것이다. 내가 만약 “오늘날의 사역이 진정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라고 확신하느냐? 조금도 틀림이 없느냐?”라고 물으면 너는 분명 “조금도 틀림없는 하나님 영의 사역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너는 이렇게 대답한 후, 어떤 의심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리며 자신에게 어느 정도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실체가 없으며, 자신이 뭔가를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시련 속에서 똑바로 서지 못한다. 교만하고 자신을 크다 하는 자,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말은 누구보다 잘하지만, 실행은 제일 형편없다. 그들은 몹시 작은 일에서도 곧바로 의심하거나 나갈 생각을 하며 실재가 전혀 없다. 그저 종교보다 높은 이론만 갖추었을 뿐, 오늘날 하나님이 요구한 실재는 갖추지 못했다. 나는 이론만을 말하고 실재가 없는 사람을 가장 혐오한다. 평소에 사역할 때는 누구보다 크게 외치지만, 실재가 임하면 바로 주저앉으니, 이것이 실재가 조금도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무리 큰 바람과 파도가 쳐도 굳게 서서 의심하지 않고, 주변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굳건히 서서 부인하지 않는다면, 너에게는 진실로 인식과 실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흘러가는 대로 따르며,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배운 것으로 아무리 훌륭하게 말할지라도 너에게 실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공허한 글귀를 너무 일찍 외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는지를 알고 있느냐? 나중에 얼굴도 들지 못할 정도로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다면 베드로가 했던 일을 반복하는 역할을 말지 말라. 그런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에게 실제 분량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지만 사실이 임한 것은 하나도 없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친히 형벌하지 않았다. 그러자 혹자는 이러한 시련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최악의 손을 점점 더 크게 뻗친 것이다. 이런 시련조차 통과하지 못하면서 무슨 더 큰 시련이니 실제니 하는 것을 운운한단 말이나? 이는 전부 하나님을 기만하는 말이 아니냐? 실재는 네가 있는 척한다고 생기는 것도, 인식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네 실제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든 시련 속에서 굳게 설 수 있는지에 달린 문제다. 알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진리를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실재가 있는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30)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실재를 말로 할 수 있는 걸로 끝이 아니다. 그렇다면 너무 간단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왜 또 생명 진입에 대해 말씀했겠느냐? 왜 변화에 대해 논했겠느냐? 실재에 대해 공리공론을 늘어놓기만 한다면 성품이 변화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하나님나라의 정예병은 실재를 말하기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큰소리만 치는 사람도 아니라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낼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좌절이 와도 굽히거나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며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한 실재이며,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한 실재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깨우침이 있다고 해서 실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대한 것이다. 거기에는 사람이 이론 성과가 없다. 누구나 베드로가 받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더구나 베드로의 영광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를 얻어 살아 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실체를 말할 수 있다고 해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그것은 꾀변이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말로, 실제적인 의의가 없다!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런 말을 없애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깨닫는 사람은 모두 '이방인'으로서, 실제적인 인식은 물론, 실제 분량도 없다. 그런 자는 식견과 실체가 없는 사람에 속한다. 즉, 하나님 말씀의 본질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방인'에 속한다. 사람이 생각하는 이방인은 하나님께 짐승 취급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방인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실체가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내지 못하는 자는 모두 '이방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의 실체를 살아 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두가 실체를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실체를 살아 내는 것이다. 사람이 생각하는 실체는 너무 얕팍하고 가치가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없다. 그것은 너무 비천해서 언급할 가치도 없으며, 너무 많은 것이 결핍되어 하나님의 요구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모든 사람에게 대대적인 검증 사역을 하여 누가 인식만 말하고 길을 가리키지 못하는지, 누가 쓸모없는 폐물인지 알아볼 것이다. 앞으로 명심하여라! 공허한 인식을 말하지 말고, 오직 실행의 길과 실제만을 말해라. 실제적인 인식에서 실제적인 실행으로 옮겨 가고, 실행에서 실제적인 살아 냄으로 옮겨 가야 한다. 사람을 가르치는 말도, 소위 실제적인 인식이라는 것도 말하지 말라. 너의 인식이 길이라면 얘기해도 되겠지만, 길이 아니라면 입을 다물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말해 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 몇 마디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다른 이의 부러움을 사려 한다면 그것은 네 야심이 아니겠느냐? 고의로 사람을 농락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가치가 있겠느냐? 체험한 후에 인식을 말한다면 그것은 허풍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너는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체험 과정에서는 수많은 일을 이겨 내지 못하고, 자신의 욕을 버리지도 못하며, 늘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낮췄으로 이론이니 인식이니 하는 것을 거론한단 말이나? 정말 부끄러움도 모르는구나! 무슨 낮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을 말한단 말이나? 후안무치하구나! 허풍을 떨고 큰소리를 치는 게 본성이 되고 습관이 되어 언제든 식은 죽 먹기처럼 술술 말을 꺼내며, 실행 과정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꾸미니 이것이 사람을 속이는 수작이 아니겠느냐?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사람은 잘 모르고 분별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진지하게 대하므로 너를 가만두지 않는다. 아마 형제자매들은 모두 너를 옹호하고 네 인식에 칭찬을 늘어놓으며 탄복을 금치 못하겠지만, 네게 실체가 없다면 성령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실제 하나님은 네게서 흠을 잡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영은 너를 상대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너는 몹시 힘들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실행의 실제에 대해 많이 말해야 한다는 것을 잊은 것이냐? 실제의 길에 대해 많이 말해야 한다는 것을 잊은 것이냐? "큰 도리나 무가치한 큰소리는 적게 해야 하는데, 가장 좋기는 지금부터 실행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잊은 것이냐? 조금도 깨닫지 못한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말이나?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31)

지금 너희는 더 현실적인 공과를 배워야지, 그럴싸한 고담준론 따위를 늘어놓아선 안 된다. 인식한 것을 말할 때 보면 하나같이 고매하지만, 여전히 실행의 길은 없다. 실행의 원칙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실제적인 공과를 배운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누가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인식한 것을 말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너의 진짜 분량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저 네 타고난 총명함과 재능에 불과하다. 네가 길을 가리킬 수 없다면 전부 허사이고, 쓸모없는 폐물이다! 실제적인 실행의 길을 조금도 말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가식 아니겠느냐? 자신의 실제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여 공과를 배우게 하거나 실행할 길을 갖게 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가짜 아니겠느냐? 모조품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겠느냐? 그런 사람은 그저 ‘사회주의 이론의 창시자’일 뿐, ‘사회주의 실현의 기여자’는 되지 못한다. 실체가 없으면 진리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자는 폐물이자 산송장이며,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가’이므로 하등의 참고할 가치가 없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론을 떠드는 입을 다물고 좀 진실되고 참된 것, 실용적인 것을 말하라고 권하겠다. ‘현대 예술’을 공부하고 현실적인 것을 말하고, 실제적인 것을 내놓고 봉사 정신을 가져라. 말할 때는 현실을 직면해야지, 쓸데없이 부풀리거나 과장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특별한 시선을 받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할 때는 ‘예술성’에 신경 쓰고, 행동할 때는 공평하게 하며, 일을 처리할 때는 이성적이어야 한다. 말에는 실체가 있어야 하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 집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적인 감정에 치우치는 모습이 나올 때는 양심적이어야 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거나 위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는 실제와 많이 연관 짓고, 교통할 때는 현실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하며,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을 대할 때는 많이 ‘참고’, ‘양보’하며 마음을 넉넉하게 쓰고 ‘관용’을 배워라. 그릇된 생각이 들 때는 욕을 버리는 것을 많이 실행해라. 사역할 때는 실제적인 길을 많이 말하되, 너무 높은 것을 말하지 말라.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한다. 적게 누리고 많이 기여하며, ‘공평무사’한 봉사 정신을 가져라.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헤아리고 양심적인지를 잘 살펴보아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날마다 고심하며 말씀하니 그것을 많이 되새기고 잊지 말며, ‘오래된 책력’은 되도록 덮어라. 많이 기도하고 교제하며, 더는 흐리멍덩하게 굴지 말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되 식견을 키워라. 죄악의 손이 뻗어 나올 때는 웅크려 너무 멀리 뻗지 말라. 그래 봤자 소용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만 받을 뿐이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무기로 늘 다른 사람을 때리지 말라. 진리에 대한 인식을 많이 교제하고, 생명에 대해서도 많이 나누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라. 말은 적게 하고 실제적인 일을 많이 하여라. 파헤치고 분석하는 것은 적게

하고 실행을 많이 하여라.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 온전케 될 기회를 많이 얻어라. 사람의 뜻에서 난 성분을 더 많이 없애라. 인간의 방식이 여전히 너무 많다. 피상적인 방식과 행위는 혐오감만 불러올 뿐이니 더 많이 제거하여라. 심리 상태는 너무나도 혐오감을 들게 하니 많이 고쳐라.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람의 자리가 적지 않다. 하나님께 더 많은 자리를 드리고, 억지를 부리지 말라. ‘전’은 본디 하나님의 것이니 사람이 점유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공의를 많이 행하고, 감정에는 적게 연연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욕을 버리는 것이 좋다. 실재를 많이 말하고 인식은 적게 말하여라. 그러지 못할 바엔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행의 길을 많이 말하고 무가치한 큰소리는 적게 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지금부터 실행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실재를 좀 더 중시하여라>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32)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그리 높지 않다. 사람이 조금만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다. 사실,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은 진리를 실행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이다. 먼저 진리를 실행한 후에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 역사의 절차이자 방식인데,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너 스스로의 힘으로 성령의 역사를 얻을 수 있겠느냐? 성령이 너의 뜻에 따라 역사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너의 부족한 부분에 맞춰 역사하겠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전부 헛수고이다. 어쨌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에 힘을 적잖게 들였는데도 인식만 있을 뿐 실제적인 길을 말하지 못하겠느냐? 너는 인식이 있으면 진리도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어리석은 견해가 아니냐? 네가 백사장의 모래만큼 많은 인식을 말할 수 있다 한들, 그 안에 실제적인 길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허세가 아니겠느냐? 전부 남을 해하는 수작에 불과하다! 이론이 고매할수록 실재가 없기에 사람을 실제 속으로 인도하지 못하며, 이론이 고매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거역하고 대적하게 된다. 고매한 이론을 보배처럼 여기지 말라. 그것은 화근일 뿐, 아무런 쓸모도 없다! 어떤 이가 최고의 이론을 말할 수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실재가 조금도 없을 수도 있다. 그 자신이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에 실행의 길도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다른 이를 잘못된 길로 이끌 뿐, 정상 궤도로 인도할 수 없다. 그러니 이것이 사람을 해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너는 적어도 눈앞의 어려움을 해결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네가 봉헌한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늘 비현실적인 큰소리만 치면서 합당하지 못한 수작으로 다른 이를 속박하여 네게 복종시키려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점점 더 흐리멍덩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다 보면 수많은 규례가 생겨 사람들이 너를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전부 사람의 부족한 면인데, 실로 골치 아픈 문제이다. 그러므로 현재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많이 말하되, 타인의 체험을 ‘자신의 소유물’인 양 가져다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

너의 교제에서 다른 사람이 실행의 길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네게 실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네가 말을 어떤 식으로 하든 다른 사람을 실행으로 인도하고 실행할 길이 있게 해야 한다. 인식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할 길이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사역을 통해 인도하는 길을 가야 한다. 다시 말해, 네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은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 실행할 길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서야 한다. 너무 멀리 뒤쳐져서도,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제대로 따라가며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성령 역사를 얻고, 진입할 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며, 사람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많이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사역하는 사람은 말을 분명하게 하고, 따르는 사람은 고난받고 순종하는 것을 많이 중시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서로의 자리를 지키며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똑똑히 깨닫고 성령이 인도하는 길로 가야지, 치우치거나 어긋나서는 안 된다. 또한, 오늘날의 사역에 대해 반드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오늘날의 사역 방식에 진입하는 것은 너희가 응당 실행해야 할 일이자, 제일 먼저 진입해야 할 것이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많이 말할 필요가 없다. 오늘날 하나님 집의 사역을 하는 것은 너희의 직책이고, 오늘날의 사역 방식에 진입하는 것은 너희의 본분이며, 오늘날의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너희가 짊어져야 할 짐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실체를 좀 더 중시하여라>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33)

하나님은 실체의 하나님이며, 그의 모든 사역 역시 실체적이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선포한 모든 진리는 실체적이다.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은 모두 헛되고, 존재하지 않으며, 확고하지 못하다. 지금 성령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하도록 인도한다. 사람이 실체에 진입하려면 실체를 찾고 인식한 다음, 실체를 체험하고 살아 내야 한다. 실체에 대해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의 말이 실체적인지 더 잘 분별할 수 있으며, 사람의 관념은 줄어든다. 실체를 체험할수록 실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사탄의 패괴 성품에서 더 쉽게 벗어날 수 있다. 또 실체를 갇출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며, 육을 더 중오하고 진리를 더 사랑하게 된다. 사람은 실체를 갇출수록 하나님이 요구한 기준에 가까워진다. 하나님께 얻어지는 사람은 바로 실체가 있는 사람이자 실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며, 실체를 체험하여 하나님의 실체적인 행사에 대해 인식을 갖게 된 사람이다.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협력하며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킬수록 성령 역사를 더 얻게 되고, 실체를 더 갇추게 되며, 하나님의 깨우침을 더 얻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사에 대해 더 잘 알게 된다. 현재의 성령의 빛 속에서 살 수 있으면, 지금 실행해야 하는 길에 대해 더욱 명확히 알게 되고, 기존의 종교 관념과 낡은 관행을 더 잘 벗어 버릴 수 있다. 지금은 현실적인 것만 이야기하겠다. 사람은 실체가 있을수록 진리를 더 명확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실체는 모든 글귀와 이치, 나아가 모든 이론과 지식을 압도한다. 실체를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급해하는 법이다. 네가 언제나 실체를 중시한다면, 너의 처세술과 종교 관념, 그리고 타고난 개성은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실체를 추구하지 않고 실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하고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다. 성령은 그런 자에게 역사할 수 없으므로 사람은 이내 공허함을 느끼고, 삶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성령은 네가 실제적으로 훈련하고 찾고 기도할 때 역사하며, 네가 진리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내할 때 비로소 역사한다. 진리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직 글귀와 이치, 공허한 이론만 있다. 또한, 진리가 없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그의 육체를 영체로 바꿔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해 주기만을 바란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으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실체에 대해 알지 못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협력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기다릴 뿐이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명확하게 알며 나아가 진리에 진입해 진리를 실행하려면 실제로 훈련하고, 찾고 구하며,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네가 갈급해하며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협력할 때,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너를 감동시키고 네게 역사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더 많은 깨우침을 얻고 실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니, 이는 네 생명에 더 큰 도움이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실제’에 대해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34)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가려면 먼저 하나님이 실제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나타난 것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 사역에 대해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이 모두 실제임을 알아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야 너의 생명이 자랄 수 있다. 실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없고, 관념에 빠진 채 상상 속에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실체에 대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진다. 반면, 막연한 것과 이치를 추구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가 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 진입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하고 영 생활의 정상 궤도에 진입하려면 먼저 실체를 알고,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말해, 무엇보다 먼저 성령이 너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깨우치고 인도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성령이 사람에게 행하는 실제 역사를 진실로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이다.

지금 모든 것은 실제에 근거하여 이야기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가장 실제적이고, 사람이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체험하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것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현재 사역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체험하는 과정에서 늘 편차가 생기고 힘겹게 느껴진다. 이는 전부 사람의 관념으로 초래된 것이다.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원칙을 파악할 수 없고 실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늘 소극적이 되고, 하나님의 요구에 이르지 못한 채 멀리서 바라만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실로 좋다고만 생각할 뿐 진입하는 길은 찾지 못한다. 성령 역사에는 원칙이 있다. 바로 사람의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성령은 사람이 능동적으로 기도하고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역사하며, 깨우침과 빛 비춤을 준다. 성령이 일방적으로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도 아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어선 안 된다. 사람이 협력하고 하나님이 요구한 기준에 다가갈수록 성령도 더 역사한다. 사람의 실제적인 협력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져야만 실제적인 체험이 만들어지며,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대한 인식도 생겨난다. 이렇게 조금씩 체험해 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만들어진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전능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성령의 감동만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순수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가 협력하는 만큼 사역하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어떤 성과를 거두시는 내가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달려 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온 힘을 다해 찾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해. 이걸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라고 생각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실제’에 대해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35)

너에게는 종교적인 행위가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자기 뜻대로 행한 적이 얼마나 있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행동함에 있어 규례가 아닌 원칙을 지키고,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려 하지 말고 진리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족게 해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을 만족게 하는 모든 행동은 규례가 아닌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이들은 형제자매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죄스럽다고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진리를 실천하지 않고 다른 꿈꿨이를 부린다. 이들이 종교 바리새인과 다를 바 있겠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이들은 어떤 일에 맞닥뜨렸을 때 기꺼이 진리를 실천하며, 양심을 거스르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모든 일을 지혜로이 해결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칙 있게 일한다. 이런 자들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말로만 하나님께 죄스럽다고 얘기하면서 온종일 울상을 짓고, 능청스럽게 불쌍한 척 연기를 하니 정말 못 봐줄 노릇이다! “왜 하나님께 죄스럽다고 합니까?”라고 물어보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한 마디도 못 하면서 말이다. 네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겉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 줘야 하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무성의하게 말로만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은 모두 위선자이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죄스럽다고 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며, 성령의 감동이 없음에도 울음을 터뜨리려 한다. 이들은 종교 의식과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그것에 기대어 살아간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이 겉으로 보이는 경건함이나 슬픔의 눈물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그릇된 자들이 발전성이 있겠느냐? 어떤 자는 겸손해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암전한 척 말한다. 또 어떤 자는 순한 양처럼 자신을 한없이 낮춰 아무 힘도 없는 양 행동한다.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정말 그렇단 말이나? 하나님나라의 백성들은 활발하고 자유로우며, 순수하게 마음을 열어 놓는다. 또한, 정직하고 사랑스러우며, 자유로운 상태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인격과 존엄성을 갖추어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기에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새 신자들은 형식적인 것이 너무 많아 한동안 훈계와 깨뜨림을 받아야 한다. 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겉으로는 티 나지 않지만,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내는 사람이다. 네가 매일 여기저기 복음만 전하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데에만 급급해하면서 정작 자신은 규례와 도리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종교 인사에 속하며 외식하는 사람이다.

.....

그렇다면 외적인 좋은 행위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욕을 의미한다. 외적인 행위는 제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의 성품만을 의미할 뿐, 생명을 의미할 수는 없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할 수도 없다. 네가 하나님께 죄스럽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도 다른 사람의 생명에 공급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도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영적인 것이라 여기겠지만, 사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너는 자신이 좋아하고 바라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의 기호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성격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네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요, 너의 습관은 하나님이 혐오하여 버리는 것들이다. 하나님께 죄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지 않고 늘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보여 주기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겠느냐? 겉으로만 행동을 취하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 가식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외적인 좋은 행위만 있을 뿐 실체가 없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나?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요, 종교 인사이다! 외적인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한다면, 가식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가식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대적하게 된다. 그런 사람은 결국 도태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종교 의식이 아닌 실체를 중요시해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36)

정상인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그러니까 정상 인성을 갖추려면 입술로만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며, 진입과 변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변화를 받으려면 반드시 조금씩 훈련을 해서 천천히 진입해야 하고, 조금씩 찾고 모색하면서 올바르게 진입하여 실제적인 진리의 생활, 성도의 생활을 해야 한다. 그다음은 실물과 실제 사실 그리고 실제 환경을 통해 실제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 환경을 통해 훈련하는 것이므로 입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사람이 자신의 자질 부족을 깨닫고,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며 진입하고 훈련을 해야 실체가 생기고, 더 빨리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이 변화하려면 실체가 있어야 하며, 훈련을 할 수 있는 실물과 실제 사실, 실제 환경이 있어야 한다. 교회 생활에만 의존한다면 진정한 훈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실제에 진입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실생활에 진입하지 못하면 사람의 낡아 빠진 행태와 생활 방식이 변화할 수 없다. 이는 사람의 게으름이나 의존적인 성향 때문만은 아니다. 사람에게 생활 능력이 전혀 없으며, 나아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상인의 모습이 대체 어떤 기준에 이르러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날 사람은 모두 말하고 교제하는 것에만 치중했으며, 심지어는 다 ‘연설가’가 되었다. 그러나 생명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로지 심오한 이론을 추구하는 데에만 심취해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은 바뀌야 한다. 특정한 일과 사물, 사람에 초점을 맞춰 진입하고 훈련하되, 명확한 목표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본질부터 바뀌야 한다. 사람의 본질과 생활, 게으름, 의존성, 노예근성에 집중해서 사역해야만 사람을 바꿔 놓을 수 있다.

교회 생활도 한 면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는 하나, 핵심은 역시 실생활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실생활이 없으면 사람의 옛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은혜시대 예수의 사역을 들어 말해 보자. 예수가 과거의 율법을 폐하고 새 시대의 계명을 세운 것도 다 실생활 속의 실례에 근거한 것이다. 예수가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날 때였다. 배가 고프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안식일에는 송아지가 구덩이에 빠져도 구해서는 안 된다면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예수는 이러한 일들을 바탕으로 조금씩 새 시대의 계명을 반포했다. 당시, 그는 수많은 실제 일들을 가지고 사람에게 인식을 주고 변화를 주었다. 이는 성령이 역사하는 원칙이며, 이렇게 해야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은 실제 일이 없으면 도리상으로만 인식한다. 즉, 머리로 이해하고 끝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럼 훈련을 통해 지혜와 식견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저 듣고 보고 인식하는 것만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커질 수 있겠느냐? 반드시 실생활 속에서 인식하고 체험해야 한다! 그러므로 훈련이 빠져서는 안 되고, 실생활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마땅히 여러 면을 중시해야 하며, 다양한 면에서 진입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식적 소양, 표현력, 통찰력,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 인간으로서의 상식과 사람이 지켜야 할 규범 등 인성과 관련해 갖춰야 할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 인식한 후에는 모두 진입을 중요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변화될 수 있다. 사람이 인식만 하고 실행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느냐? 이제 사람은 많은 것을 이해했지만, 실재를 살아 내지는 못했다.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도 매우 알팍한 것이다. 네가 약간의 깨우침과 성령의 빛 비춤만을 얻었을 뿐, 실제 생활에서 진입이 없고, 심지어 진입 자체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은 아주 많은 것을 깨달았고 도리에 대한 인식 또한 많이 말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겉으로 보이는 성품은 예전과 같으며, 기존의 자질 또한 조금도 향상되지 않고 그대로이다. 이러면 네가 언제쯤 진입할 수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교회 생활과 실생활에 관하여>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37)

교회 생활은 그저 사람들이 한데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생활로, 사람의 삶 속에서 극히 적은 일부의 시간만을 차지할 뿐이다. 만약 사람이 실생활에서도 교회 생활처럼 정상적으로 영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가가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실생활 속에서 산다면, 또한 범사에 진리에 따라 행하는 실생활 속에서 살고, 기도와 하나님 앞에 평온해지는 것, 찬송하고 춤추는 것을 훈련하는 실생활 속에서 산다면, 이런 생활은 사람을 하나님 말씀의 삶 속으로 인도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몇 시간 안 되는 교회 생활을 할 때의 상태만 중시할 뿐, 그 외의 생활에 대해서는 자신과 무관한 듯 전혀 ‘돌보지’ 않는다. 또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거나 찬송하거나 기도할 때만 성도의 생활에 진입할 뿐, 이 시간 외에는 다시 원래 모습대로 살아간다. 이런 생활은 전혀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도록 해 주지도 못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품이 변화하려면 실생활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 실생활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을 저버리며, 진리를 실행해야 한다. 또한, 범사에 사람으로서의 원칙과 상식, 규범을 배워야만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 네가 도리상의

인식만을 중요시하고 종교 의식 속에서만 생활할 뿐, 실제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실생활에 진입하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실제에 진입할 수도, 자신에 대해,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 알 수도 없을 것이며, 언제까지나 눈멀고 무지한 사람으로 살 것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단기간 내에 정상인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며, 틀린 관념이나 도리를 바꿔 놓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옛 성품과 모든 옛 생활, 사람의 뒤쳐진 사상과 정신적인 면모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교회 생활만 중요시해서는 사람의 낡은 생활 습관이나 오래된 생활 방식을 바꿔 놓을 수 없다. 사람은 어쨌든 실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교회 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도 정상 인성으로 살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교회 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도 진리를 살아 낼 것을 요구하고, 교회 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실제에 진입하려면 모든 것을 실생활로 향해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생활에 진입해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실생활 속에서 정상 인성으로 살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실패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모두 실생활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이고, 하는 말은 인간성이 있어 보이나 귀신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며, 입술에만 진리가 있을 뿐 이론으로 사는 사람이다. 실생활 속에서 진리를 살아 내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혐오받고 버림받은 사람이다. 너는 실생활 속에서 진입하는 훈련을 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패역, 어리석음, 비정상적인 인성, 연약한 면 등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너의 실제 상태와 실제 어려움에 결부해야 한다. 그래야 너의 인식이 실제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어 성품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

현재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시작했으니, 사람은 반드시 실생활에 진입해야 한다. 변화를 얻고 싶다면 먼저 실제 생활에 들어가 조금씩 변화해야 한다. 만약 네가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전부 무시하고 그저 영 안의 일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그것은 단조롭고 무미건조하며 비현실적인 것이다. 그러한데 사람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느냐? 지금 너에게 실생활에 진입해 훈련을 하라고 하는 것은 모두 실제 체험에 진입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라는 것이다. 이는 전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이다. 성령의 역사는 주로 길을 인도하는 데 있다. 나머지는 사람이 훈련하고 진입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진입의 길에 따라 실생활 속으로 진입해야 하며, 하나님을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진정한 정상 인성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생활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교회 생활과 실생활에 관하여>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38)

예전에 성령의 함께함과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고 말한 적이 있다. 성령이 함께하는 상황에서는 사람의 사유, 이성, 인성이 모두 정상적이다. 성격은 예전과 같으나 내면에 평안이 깃들고 외적으로 성도의 품위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 성령이 함께할 때, 사람의 생각도 정상적이다. 배가 고프면 밥이 생각나고, 목이 마르면 물이 생각나는 등등이다. 이러한 인성의 정상적인 현상은 성령의 깨우침이 아니라 사람의 정상적인 생각에 속하며, 성령의 함께함이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성령이 함께하면 육에서 거의 벗어난 것처럼 배고픔이나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고, 가정이 있다는 것도 망각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사실 성령이 함께할수록 사람은 더욱 정상적이 된다. 즉, 어떻게 먹고 입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고, 다 버리고 헌신하며, 충성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이 가져야 할 정상적인 인간성을 전혀 잃지 않으며, 굉장히 이성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되새기다 보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진리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 성령의 역사는 당연히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성을 잃은 것이고, 이러한 상태는 비정상적이다.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정상인의 이성을 갖고 있다. 즉,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는 때가 있다. 반면 성령의 함께함은 일반적으로 언제나 있는 것이다. 사람의 이성, 생각, 상태가 정상적이면 분명 성령의 함께함이 있는 것이다. 사람의 이성과 생각이 비정상적이면 인간성도 정상적일 수가 없다. 지금 네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면 분명 성령의 함께함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함께함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성령은 특별한 경우에만 역사하기 때문이다. 성령이 함께하면 사람은 다만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성령의 역사는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네가 리더나 일꾼이라고 하자. 교회에서 공급하고 양육을 할 때, 어떤 말씀에서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 교제하면 듣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형제자매들의 실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는 성령이 역사하는 경우이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다가 성령의 깨우침으로 유난히 자신의 체험에 잘 비춰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자신의 상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데, 그런 것도 성령의 역사다. 때로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듣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태와 잘 결부시키고, 내 말에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는데, 그것도 성령의 역사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언제나 성령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에게 언제나 성령의 함께함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현실적이다. 또한 언제나 정상적인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 역시 현실적이다. 이는 그에게 성령의 함께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그에게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깨우침과 성령의 감동이 따르며, 시시각각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정상이다! 그런 것은 너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악령이다!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어도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느냐? 악령이 들린 사람은 육의 연약함이 없이 무엇이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감정이 없고 고통에 강해 힘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육을 초월한 것 같다. 이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냐? 악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이어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런 자를 보면 부러워한다. 또한 하나님을 정말 열성적으로 믿고,

믿음이 굳건하며, 연약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이는 악령이 역사하는 현상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인간적인 연약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실행 4>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39)

굳게 서서 간증한다는 것이 무엇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신경 쓰지 않고 그런 대로 따르겠다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생명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나가지도 않는다. 그저 이 단계의 사역이 모두 하나님이 행한 것이라고 인정할 뿐이다. 이는 간증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은 정복된 간증조차 할 수 없다. 정복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생명을 추구한다. 실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안배에 순종한다. 이런 사람이 간증이 있는 사람이다. 간증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추구하는 법이 없고 지금까지도 허송세월하면서 따르고 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도 정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정복된 것에도 기준이 있다. 따르는 사람이라고 다 정복된 것은 아니다. 너는 자신이 오늘날의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도 전혀 모르고, 또한 자신이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또 누가 지금까지 올 수 있게 잡아 주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엉터리인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따른다고 할지라도 간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대체 참된 간증이란 무엇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간증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정복된 간증이고, 다른 하나는 온전케 된 간증이다(물론 이것은 미래에 더 큰 시련이나 환난을 겪은 후의 간증을 말함). 즉, 네가 환난과 시련 속에서 굳게 설 수 있다면 두 번째 부분의 간증을 하는 것이 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부분을 간증하는 것이다. 즉, 연이은 형벌과 심판의 시련 속에서 굳게 설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복된 간증이다. 지금은 정복되는 기간(너는 지금 하나님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성육신 하나님이 땅에서 하는 주된 사역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과 형벌로 정복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이기 때문이다. 네가 정복되었음을 간증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렸다. 또한, 더 중요하게는 네가 각 단계의 사역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에 대한 참된 인식이 있는지, 이 모든 사역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지에 달렸다. 끝까지 따른다고 해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한번 또 한번 반복되는 형벌과 심판에 기꺼이 복종하고, 네가 체험하는 단계별 사역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최종적으로 해야 할 정복된 것에 대한 간증이다. 정복되었음을 간증한다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해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간증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한 것이다. 네가 세상 사람이나 집권자들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사역에 순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이 단계의 간증은 사탄과 모든 원수를 —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성육신하여 더 큰 사역을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육신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모든 마귀와 원수, 즉 모든 적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모든 원수를 —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거나 바란다고 해서 하나님께 정복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복됐다는 것은 그가 곧 ‘도’가 ‘육신’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영’이 ‘말씀’이 되었으며,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음을 믿을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중요한 간증이다.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는지, 얼마나 헌신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정상적인 인성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진리의 성령’이 ‘육신’에 실체화되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즉, 모든 진리, 길, 생명이 모두 육신으로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확실히 땅에 왔으며, 영이 육신으로 왔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사역을 통해 영이 육신에 실체화되었고, ‘도’가 ‘육신’ 되었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음을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다. 따라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란 말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다. 너는 오늘날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 되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한다. 이것이 너의 가장 좋은 간증이다. 이러면 네가 단순히 성육신 하나님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가고 있는 길이 생명의 도, 진리의 도임을 깨달았기에 진정으로 그에 대해 알게 되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예수가 한 단계 사역을 했지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본질적 의미만 이루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은 육신과 함께하므로 둘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즉, 육신을 입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므로 성육신한 예수가 하나님의 첫 번째 성육신이라는 증거가 더 뚜렷해지는 것이다. 이번 단계의 사역은 ‘말씀이 육신 되었다’는 말의 함의를 이룬 것이다. 또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는 말의 의미와 더 깊게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말까지도 확신하게 만든다. 즉, 천지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며, 그의 말씀은 그와 함께하였으므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마지막 시대에는 그의 말씀의 위력과 권병을 한층 더 명확하게 드러내어 그의 모든 말씀을 보게 한다. 즉, 그의 모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는 사역이다. 너는 이런 것을 밝히 알아야 한다. 육신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과 말씀, 육신과 도의 관계를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간증이자 모든 이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두 번째로 성육신하여 하는 사역이자 마지막 성육신이다. 즉, 말씀이 육신 된 의의를 완전케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에서 하는 모든 사역을 철저하게 하여 선포하고, 하나님이 육신에 있는 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따라서 너는 말씀이 육신 된 의의를 알아야 한다. 열심히 뛰어다니거나 다른 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여 자신을 온전히 바치며,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것이 네가 해야 할 것이자 어김없이 지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 단계의 간증은 네가 온전케 될 수 있는지를 간증하는 것이다. 즉, 네가 성육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이해한 다음,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살아 냄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베드로의 풍격’, ‘요한의 믿음’, 이런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더 나아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자신을 온전히 바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겪어 정복되고 온전케 된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간증이고, 궁극적으로 온전케 될 사람이 해야 할 간증이다. 이는 사람이 두 차례에 거쳐 해야 할 간증으로, 이 두 단계는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요구하는 간증은 세상 사람이나 어느 특정 인물 앞에서 간증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만족스러워할 수 있는지,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요구한 기준에 완전히 합치할 수 있는지에 근거한다. 이는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실행 4>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40)

어느 정도 고통과 단속을 받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너희를 느슨하게 하면 망가지게 될 것인데, 어찌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너희들은 형벌과 심판, 저주를 받고, 많은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 보호를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일찌감치 타락했을 것이다. 내가 일부러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사리 바뀌지 않으므로 이렇게 해야만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 너희는 바울의 양심과 이성언어 바울처럼 스스로를 정확히 아는 능력조차 없다. 너희에게는 늘 압력을 가하고, 늘 형벌하고 심판해야 너희의 영을 일깨울 수 있다. 너희의 생명에 가장 유익한 것은 역시 형벌과 심판이다. 필요시 사실로 형벌을 가해야 너희가 완전히 수궁하게 된다. 너희는 본성상 형벌과 저주 없이는 머리를 숙이거나 수궁하려 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사실 없이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너희의 인품은 천박하고 서툰어치도 안 된다! 형벌과 심판 없이는 너희를 정복하거나 너희의 불의와 불순종을 억누르기 어렵다. 너희의 옛 성품은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너희를 보좌에 올려 놓는다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어디에 서야 할지를 모를 것이다. 너희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모르는데 어찌 창조주를 알 수 있겠느냐? 오늘날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진 형벌과 저주가 없었다면 일찌감치 너희의 마지막 날이 임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너희의 운명은 몹시 위태롭지 않았겠느냐? 형벌과 심판이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너희가 얼마나 교만을 부리고 타락했을지 모른다. 이러한 형벌과 심판이 너희를 오늘날까지 이끌어 왔고, 너희의 삶을 유지해 왔다. 지금도 너희의 ‘아비’처럼 너희를 ‘교육’한다면 너희가 어떤 지경에 이를지

모른다! 너희는 자제력과 자기 반성력이 하나도 없다. 너희 같은 사람들이 따르고, 순종하고, 방해하거나 교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의 목적은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는 오늘날의 형벌과 심판을 더 잘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달리 무슨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실행 6>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41)

생명을 갖추려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인생에 대한 생각, 특히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대한 인식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생명을 추구하는 한 이런 것들을 갖춰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는 반드시 자신의 실제 상태와 결부시켜야 한다. 즉, 실제 체험 속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에는 실행의 길을 찾고 자신의 그릇된 마음가짐과 관념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네가 늘 이런 면에서 노력하고 이런 일들에 마음을 쏟으면, 실행의 길이 생길 것이고 공허한 느낌이 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라야 자신의 생명에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이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핵심적인 것들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생명에 무책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핵심을 잡지 못하면 실행의 길도 없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자신의 상태에 결부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저 자신의 상태와 연관시켰습니다. 또한, 제가 패괴되었고 자질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표면적인 것만 조금 알게 된 것이다. 육적인 즐거움과 독선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켜야 할지, 이런 것들에 어떻게 진입하고 어떻게 자신의 자질을 높여야 할지, 어느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등등 실제에 속하는 것들을 너는 전혀 모르고 있다. 단지 일부 외적인 것들만 잡아내고 자신이 확실히 패괴되었다는 것만 인식할 뿐이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을 만나 자신의 패괴에 대해 말을 하면, 자신을 인식한 것처럼 보이고 생명에 대해 부담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너의 패괴 성품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 이는 네가 실행의 길을 찾지 못했음을 말해 준다. 만약 네가 교회를 이끄는 자라면 너는 형제자매들의 상태를 짚어 주고 일깨워 줄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당신들은 정말 패역하네요. 뒤쳐졌어요!”라고만 말하면 되겠느냐? 도대체 어떤 면에서 패역한지, 어떤 면에서 뒤쳐졌는지, 구체적인 모습을 말해 줘야 한다. 즉, 그들의 패역한 상태와 행위, 사탄 성품을 지적해 그들이 진심으로 인정하게 해야 한다. 사실을 말하고, 예를 들어 문제를 설명하며, 대체 어떻게 해야 그러한 패역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있고, 실행의 길을 가리켜 줄 수

있어야 설득력이 생긴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다른 이를 이끌 수 있으며, 진리 실체가 있는 사람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실행 7>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42)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너의 인식을 말하는 것이다. 즉, 그가 어떻게 사람을 정복하고 구원하며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사람을 진리의 실제 속으로 이끌어 가는지, 따라서 그에 의해 정복되고 온전케 되며 구원받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의 사역과 너의 모든 체험을 말하는 것이다. 그가 한 사역만이 그를 대변할 수 있고, 그의 사역만이 그의 모든 것을 명확히 공개할 수 있으며, 그의 사역만이 그를 증거할 수 있다. 그의 사역과 음성은 직접적으로 영을 대변한다. 그가 한 사역은 영이 한 사역이며, 그가 한 말씀은 영이 한 말씀이다. 그저 말씀으로 된 육신을 통해 선포된 것일 뿐, 사실상 그것은 영의 선포이다. 그가 한 사역과 말씀은 그의 본질을 대변한다. 만약 육신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온 하나님이 말씀도, 사역도 하지 않으면서 너희에게 그의 실제와 정상적인 면, 전능을 인식하라고 한다면 알 수 있겠느냐? 영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그의 육신의 성질이 어떤지 알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의 사역을 일일이 체험했기에 그를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너희가 어떤 체험도 하지 못했다면 그런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는 정상 인성의 겉모습은 물론이요, 그가 한 사역과 인도한 길까지 증거해야 한다. 네가 그에게 어떻게 정복되었는지, 어떤 면에서 온전케 되었는지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에 관해 증거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네가 어디를 가든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로 실제적입니다! 그분은 조금도 초자연적이지 않으시며, 어떤 이적과 기사도 나타내지 않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라고 외친다면 다른 사람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건 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적과 기사 없이도 당신을 정복할 수 있었던 말입니까?”라고 물을 것이다. 그 질문에 “어떤 이적과 기사도 없이 말씀만으로 우리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으로 우리를 정복하신 거죠.”라고 대답한다면, 결국 본질적인 말은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말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성육신한 하나님이 사람을 정복했다는 것은 그의 신성에서 나온 말씀으로 정복했다는 것이다. 이는 인성으로 이를 수 없는 일이며, 평범한 사람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정상인 가운데 최고의 자질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불가능하다. 그의 신성은 어떤 피조물보다도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에게에는 비범한 것이다. 어디까지나 창조주는 피조물보다 높기 때문이다. 피조물은 창조주보다 높을 수 없다. 만약 네가 그보다 높다면 그는 너를 정복할 수 없다. 그가 너보다 높아야 너를 정복할 수 있다. 전 인류를 정복할 수 있는 이는 창조주뿐이다. 그 외에는 누구도 이 사역을 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증거이며, 네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측면의 증거이다. 네가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형벌, 심판, 연단, 시련, 좌절, 환난을 겪고 정복되어 앞날에 대한 기대와 자신의 속셈, 그리고 모든 육체적 이익을 내려놓는다면, 너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정복된 것이다. 너의 생명이 그가 요구한 정도까지 성장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네가 이러한 것들을 모두 깨닫고 그가 한 일을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증거이다. 이는 실제적인 증거인 것이다! 그가 심판과 형벌의 사역을 하러 온 것은 사람을 정복하기 위함이지만, 그는 또한 사역을 끝마치고 시대를 끝내며 마무리 사역을 하는 자이다. 그는 모든 시대를 끝내고 전 인류를 구원한다. 또한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철저히 구원하여 그의 피조물인 인류를 완전히 얻은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네가 해야 할 증거이다. 너는 하나님의 많은 사역을 직접 보고 직접 체험했음에도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못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 복음을 확장할 때가 되면 너는 자신의 인식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네가 얻은 것을 전부 증거함으로써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번 단계 사역의 의의는 대체 무엇인지,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지, 사람에게서 이뤄진 것은 얼마나 되는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성육신한 하나님이 땅에서 행한 모든 사역을 너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완벽하게 증거하는 것이다. 그가 행한 사역의 의의와 내용, 본질, 그리고 대변하는 성품과 사역 원칙, 이 다섯 가지 측면을 전부 밝히 말할 수 있다면, 이는 네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진실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너희에 대한 내 요구는 그다지 크지 않다. 진심으로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는 결심이 서 있다면, 너는 그가 중요하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너 자신이 그의 사역을 얼마나 체험했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통해 그의 성품을 알고, 그의 뜻과 인류에 대한 그의 요구를 알아야 한다. 이것으로써 그를 증거하고, 너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네가 “저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심판과 형벌은 지극히 혹독하며, 그의 말씀은 정말로 엄합니다. 정말 공의롭고 위엄 있어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라고만 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 줄 수 있겠느냐? 사람들에게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너는 이 심판과 형벌의 사역이 너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참으로 인식했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네 패역과 패괴를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네 안에 있는 더럽고 패괴된 것들을 정결케 하고 없애 버릴 수 있지 않느냐? 만약 심판과 형벌이 없다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너는 사탄이 너를 매우 심하게 패괴시켰다는 것을 정녕 깨달았느냐? 이러한 것들이 전부 현재 너희가 갖추고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실행 7>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43)

지금 너희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고 있느냐? 한 가지는 사역의 이상에 관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너의 실행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생명이

자라기를 바라면서 이상이 없다면 너에게는 토대가 없는 것이다. 실행 방법만 있을 뿐, 이상이 전혀 없고 전체 경륜에 관한 사역을 조금도 모른다면 너 같은 사람은 쓸모없는 자다. 이상에 관한 진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실행에 관한 진리는 이상을 알고 난 뒤에 적당한 실행 방법을 찾고, 말씀대로 실행하면서 네 상태에 비추어 진입해야 한다. 이상은 토대다. 이를 가볍게 여기면 너는 끝까지 따를 수 없고, 아무리 체험해도 그 체험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넘어지고 실패해서 성공하지 못한다! 큰 이상이 토대가 되지 못한 사람은 실패만 있을 뿐 성공이 없으며, 굳게 설 수도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너에게 이상이 없다면 네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겠느냐? 오늘날의 사역에서 네가 이상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케 될 수 없다. 네가 믿는 이는 누구냐? 너는 어째서 그를 믿느냐? 너는 어째서 그를 따르느냐? 그저 장난으로 믿는 것이냐? 네 목숨을 장난감처럼 여기는 것이냐? 오늘날의 하나님이 바로 가장 큰 이상인데, 너는 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 또 얼마나 깨달았느냐? 오늘날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토대가 탄탄해졌느냐? 그렇게 흐리멍덩하게 따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이 흐려진 것을 기회로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쉽겠느냐? 너는 오늘날의 하나님이 하는 말씀에 대해 네 관념을 얼마나 내려놓았느냐? 오늘날의 하나님에 대한 이상을 갖추었느냐? 오늘날의 하나님에 대한 네 인식은 어디에 있느냐? 너는 항상 따르면 바로 얻을 수 있고, 보면 곧 얻을 수 있으며, 아무도 너를 빼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그렇게 쉬우리라 생각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그를 알고 그의 사역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받고 목숨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에게 온전케 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네가 마땅히 가져야 할 이상이다. 항상 은혜를 누리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누리게 하고 은혜를 베풀기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목숨을 버리고 따를 수 없다면, 자신 이외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없다면, 결단코 끝까지 따르지 못한다! 이상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 만약 어느 날 네가 화를 입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따를 수 있겠느냐? 끝까지 따를 수 있을지 없을지 쉽게 말하지 말고 우선 지금이 어떤 때인지 눈을 크게 뜨고 보아라. 너희가 지금은 모두 성전의 기둥인 것 같아도 그때가 되면 너희, 이 많은 기둥은 벌레에 갉아먹힐 것이며, 결국에는 성전마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에게는 이상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저 너희 자신의 좁은 세상만 중요하게 생각할 뿐, 어떻게 추구하는 것이 가장 온당하고 적합한지 모른다. 너희는 오늘날 사역의 이상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한 것에 마음 쓰지도 않는다. 그러나 언젠가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가장 낮은 곳에 데려다 놓을 것이라는 생각은 해 보았느냐? 내가 너희의 전부를 빼앗아가는 날, 너희가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있겠느냐? 지금의 열의가 그때까지 유지되겠느냐? 너희의 믿음이 또다시 나타나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이라는 이 가장 큰 이상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거룩히 구별된다고 해서 하나님 집에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운동을 펼치려고 인간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하기 위해 왔다. 너희 중에는 오늘날의 사역이 하늘의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행하는 사역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오늘날의 사역은 너희를 출중한 인재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인생의 의의와 인류의 종착지에 대해 알게 하고 하나님과 그의 모든 것에 대해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는 자신이 창조주의 손안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네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네가 깨달아야 할 진리 아니겠느냐? 네가 알아야 할 이상 아니겠느냐?

사람에게 이상이 있으면 토대가 생기고, 토대 위에서 실행하면 진입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그렇게 진입에 토대가 생기면 걱정할 필요 없이 아주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이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 너희는 이러한 측면의 것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의 진리를 갖추지 않고 실행 방법만 안다면 많이 부족하다. 너희 중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소홀히 여기며 이 부분의 진리를 글귀 듣듯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도 인내심을 가지고 구해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다. 조금씩 갖추어라. 영적인 도리라도 조금 깨달을 수 있다면 소홀히 여기는 것보다는 낫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도 낫다. 이는 너의 진입에 도움이 되고 너의 의심을 없앨 수 있으므로 관념을 갖고 있는 것보다 낫다. 네가 이런 이상을 토대로 삼으면 훨씬 좋아지고 근심이 모두 사라져 당당하게 진입할 수 있는데, 항상 의심하면서 흐리멍덩하게 따를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아니겠느냐? 당당하게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으냐! 굳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찰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은 사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와 사역과 예수의 사역, 그리고 이번 단계 사역에 대해 모두 알게 되면 토대가 생긴다. 너는 지금 아주 단순하게 상상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때 가서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면 저는 무슨 말씀이든 다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깨닫지 못한 것은 성령께서 저를 깨우쳐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지금 네가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때 가서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너는 지금 네가 갖춘 것이 많아서 종교계 인사와 최고 이론가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심지어 그들의 말을 반박해 굴복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그럴 수 있겠느냐? 너의 그 알팍한 체험으로 어떤 인식을 말할 수 있겠느냐? 진리를 갖추고 진리를 위해 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은 네가 생각하듯 그렇게 하나님이 하기만 하면 전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너를 괴롭힐 수도 있다. 그러면 너는 아연실색할 것이다. 핵심은 네가 이 단계 사역을 과연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적대 세력을 이길 수 없고 종교 세력과도 싸워 이길 수 없다면,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오늘날의 사역을 체험하면서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었음에도 결국 증거할 수

없다면 네가 낫을 들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누구에게 면목이 서겠느냐?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라. 앞으로 행하게 될 사역은 네 상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진리를 위한 싸움은 그렇게 쉽지 않고 또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다. 지금은 갖추어야 한다. 지금 진리를 갖추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성령도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지 않을 때 너는 어쩔 줄 모르게 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호리명당하게 따르지 말고 사역에 대해 알아야 한다!> 중에서

생명 진입[3]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44)

영 안의 세세한 것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성령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탄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악령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것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 일이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순종해야 할지 아니면 저버려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사람은 실제 실천 과정에서 사람의 뜻에서 나온 많은 것들을 성령에게서 나왔다고 여기고, 악령에게서 온 것들을 성령에게서 온 것이라고 여긴다. 가끔은 성령이 안에서 인도하는 것임에도 그것이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일까 두려워 순종하지 못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성령의 깨우침이다. 그러므로 분별에 신경 쓰지 않으면 실제 체험 과정에서 체험을 할 수 없고, 체험 중에 분별에 신경 쓰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악령은 또 어떻게 역사하느냐? 무엇이 사람의 뜻에서 온 것이냐? 무엇이 성령의 인도와 깨우침에서 비롯된 것이냐? 성령이 사람에게 행하는 역사의 법칙을 찾아내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실제 체험 속에서 식견을 키우고 분별력을 갖출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탄을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다. 또한, 순종하고 추구함에 있어 흐리멍덩하지 않으며,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 성령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성령의 역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하고 올바르게 깨우쳐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게 하고 마음에 위안을 얻게 해 준다. 또한, 사람에게 믿음과 의지를 심어 주어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기를 추구할 수 있게 해 준다.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은 적극적인 면에서 진입할 수 있으며, 수동적인 것도, 강제적인 것도 아닌 자발적인 태도로 진입할 수 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요, 기꺼이 순종하며 자신을 낮춘다. 내적으로 고통스럽고 연약할지라도 협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하며 순종할 수 있다. 여기에는 사람의 뜻도, 사람의 생각도, 나아가 사람의 기대나 속셈도 섞여 있지 않다. 성령 역사를 체험할 때 사람의 내면은 매우 성결해진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을 혐오하는 삶을 산다. 성령이 역사하고 감동시키는 사람은 정상적인 인간성을 갖춘 데다 평소에 진리를 추구하고 인성이 있는 사람이다.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하면 사람의 상태는 갈수록 좋아지고, 인간성은 갈수록 정상이 된다. 미련한 협력도 있겠지만 그것은 방해를 위한 것도, 나쁜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닌,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적극적인 면에서 진입한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정상적이고 실제적이다. 그래서 정상인의 생활 법칙에 따라 사람에게 역사하고, 정상인이 실제로 추구하는 것에 맞춰 사람의 내면을 깨우치고 인도한다.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할 때는 정상인의 필요에 맞춰 인도하고 깨우치며, 사람의 필요에 맞춰 공급하고, 사람의 결핍함과 부족함에 맞춰 적극적인 면에서 인도하고 깨우친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 실생활에서

사람을 깨우치고 인도하기에 사람은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만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이 적극적인 상태에 있고 정상적인 영 생활을 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격려를 받는다. 또한, 어떤 일을 마주하든 소극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 일에서 너는 하나님이 배우라는 공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또 소극적이거나 연약해지지 않고,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안배에 순종하길 바라게 된다.

성령 역사는 어떤 효과를 내느냐? 네가 우매하든, 분별력이 없든, 성령이 역사하면 내면에는 믿음이 생긴다. 또한,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신의 사랑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협력하기를 원한다. 눈앞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놓여 있는 협력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몰라도 소극적이거나 태만해지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 이는 성령의 정상적인 역사에 속한다. 성령이 역사한다 해도 사람은 실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어떤 일을 이겨 내지 못할 때도 있다. 이것은 모두 성령의 일상적인 역사 단계에 속한다. 당시에는 이겨 내지 못해 연약해지고 불평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너의 소극적인 면이 너의 정상적인 체험을 막지는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너를 어떻게 공격하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기도할 때면 예전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일을 맞닥뜨리면 하나님을 만족게 하고 욕을 저버려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이런 힘은 그 사람에게 성령 역사가 있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성령 역사의 정상적인 상태이다.

사탄에게서 온 역사는 어떠하냐? 사탄이 역사하면 사람은 이상(異象)에 대해 모호해지고, 정상적인 인간성을 잃고, 일할 때 불순한 의도를 품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내면에 늘 참소가 있고, 그러한 참소와 생각이 늘 내면을 교란하여 생명 성장에 제동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정상 상태로 살지 못하게 막는다. 다시 말해, 사탄이 역사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평온히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른다. 또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도망치고 싶고,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는 눈을 감지 못한다. 악령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정상 관계를 망가뜨리고, 사람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상이나 생명 진입의 길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로 인해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언제나 무언가에 방해받고 통제받아 마음을 평온히 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의가 사라지고, 영적으로 가라앉는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탄 역사에서 비롯된 모습이다. 사탄의 역사로 인해 드러나는 모습은 입장을 확실히 하지 못하고, 굳게 증거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사람, 충성심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탄이 방해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정상 관계가 무너지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향상하고자 하지도 않게 된다. 뒷걸음치고, 소극적이 되고, 자신에게 관대해지며, 죄가 커져 가는 것을 방치하고, 죄를 증오하지도 않게 된다. 또한 제멋대로 굴고 하나님이 준 감동이 사라지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날 위험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45)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된 일인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에서 비롯된 일인지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겠느냐? 사람의 상태가 정상이면 영생활과 육적 생활이 정상이며, 이성도 정상적이고 질서 있게 작동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체험한 일이나 얻게 된 인식은 성령의 감동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과정에서 깨달음이나 앎은 인식을 얻는 것, 또는 어떤 일에서 충성하거나 어떤 일에서 하나님을 힘 있게 사랑하는 것은 모두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임).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할 때는 매우 정상적이라 사람은 이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이 역사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역사한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자질이 뛰어난 사람은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성령이 특별히 깨우쳐 주고, 자질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는 이해가 느리지만 성령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 역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 성령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한다.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거역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경역을 방해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교란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정도로 역사한다. 감동을 주거나 깨우침을 주며, 믿음과 힘을 준다. 또한 사람이 나태해지지 않고, 육적인 쾌락을 탐하지 않으며, 진리를 실천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이런 적극적인 면에서 진입하도록 감동을 준다. 이러한 것은 전부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너의 상태가 비정상일 때 성령은 버리고 떠난다. 사람 안에 있는 원망의 마음, 삐뚤어진 마음가짐, 나태하고 육체를 방종하며 진리를 배반하는 마음과 같은 이런 것은 전부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의 상태가 비정상일 때, 내면이 어둠에 빠져 정상적인 이성을 잃어버리고, 성령께 버림받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어 사탄이 사람에게 역사한다. 사람이 내적으로 계속 힘이 넘치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에 있으면 보통 어떤 일이 임하든 그것은 다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어떤 사람을 마주치든 다 하나님의 안배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너의 상태가 정상일 때, 그리고 성령이 크게 역사할 때, 사탄은 너를 흔들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기본으로 뒷받침되면 일체 모든 것이 성령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옳지 못한 생각이 들더라도 충분히 그 생각을 따르지 않고 저버릴 수 있다. 이는 전부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상황에서 개입하느냐? 너의 상태가 비정상이고, 너에게 하나님의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을 때, 내면이 메마르고, 기도해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말씀을 먹고 마셔도 별다른 깨우침이나 빛 비춤을 얻지 못할 때

사탄이 쉽게 내면에서 역사한다. 다시 말해, 성령이 떠나고 네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많은 일이 사탄의 시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할 때 동시에 사탄도 역사한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교란한다. 하지만 이때 성령 역사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므로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은 모두 이를 이겨 낼 수 있다. 이는 성령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를 이긴 것이다.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 내면에는 여전히 패괴 성품이 존재한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할 때면 사람은 자신의 패역과 속셈, 불순물을 쉽게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은 후회하고 회개하고 싶어진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패역과 패괴 성품은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점차 벗어 버릴 수 있다. 성령은 매우 정상적으로 역사하므로, 역사하는 동안에도 사람은 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눈물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연약해지기도 하며, 알 수 없는 많은 일을 겪는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뒷걸음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괴롭고 눈물 흘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매우 정상적이며, 조금도 초자연적이지 않다. 많은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기만 하면 사람의 상태가 바뀌고 본질적인 것들도 벗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할 때도 사람의 부정적인 요소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분량 또한 전과 같다. 다만 성령의 빛 비춤과 깨우침이 있어서 적극적인 요소가 많아지고, 사람의 내적 상태가 정상으로 바뀌며, 변화가 빨라질 뿐이다. 사람이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주로 성령의 역사나 사탄의 역사다. 사람이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실제적인 체험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성품의 변화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에 있어 관건은 이러한 일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 잘 체험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46)

성령의 역사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나 사탄의 역사는 퇴보적이고 소극적이다. 또한,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게 하며, 노래하고 싶지도 않고, 본분을 이행하는 적극성도 없어지게 한다. 성령의 깨우침에서 온 것은 강요가 없이 매우 자연스럽다. 네가 따르면 편안하고,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가책이 든다. 성령의 깨우침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방해나 통제를 받지 않게 하며, 네게 자유를 주고, 일할 때 실행의 길을 열어 준다. 또한, 아무 제약 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도록 한다. 반대로 사탄의 역사는 네가 하는 수많은 일을 방해한다. 기도하고 싶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 태만하게 하며, 교회 생활을 원치 않게 하고, 영 생활에서 멀어지게 한다. 성령의 역사는 너의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으며, 너의 정상적인 영 생활을 교란하지도 않는다. 많은 일이 당시에는 분별이 안 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마음이 어느 정도 밝아지고, 생각도 어느 정도 맑고 깨끗해지며,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느낌이 생기고, 내면의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점차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일부 분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전부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일부 불분명한 것들은 당시에는 분별하기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 드러난 모습을 보고 다시 분별하면 된다. 어떤 일이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어떤 일이 성령의 지배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확실히 분별한 후에 체험에 들어가면 한쪽으로 쉽게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간혹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내면의 어떤 생각으로 소극적인 상태에서 나오게 될 때가 있다. 이는 네 상태가 나쁠 때도 어떤 생각은 성령에게서 비롯될 때가 있으며, 네가 소극적인 상태에 빠져 있을 때라고 해서 모든 생각이 다 사탄에게서 온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네가 언제 적극적인 상태로 바뀔 수 있겠느냐? 한동안 소극적인 상태로 있을 때 성령은 네게 온전케 될 기회와 감동을 주어 그 소극적인 상태에서 나오게 한다.

성령 역사란 무엇이고 사탄 역사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체험 과정에서 자신의 상태나 체험에 비춰 보아라. 그렇게 하면 너의 체험에 원칙과 관련된 진리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알면 자신의 실제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파악하면 사람과 일을 분별할 수 있으며, 힘들지 않게 성령의 역사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전제 조건은 바른 마음가짐과 기꺼이 구하고 실천하는 모습이다. 원칙과 관련된 이런 말씀은 네가 체험할 때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갖추지 못했다면, 너의 체험은 사탄의 방해로 가득할 것이며, 어리석은 깨달음으로 가득할 것이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진입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고,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자신의 발걸음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사람이 다 알아야 하는 것이며, 사람의 체험 과정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47)

정상 인성에는 몇 가지 측면이 포함되느냐? 식견, 이성, 양심, 인격, 이 몇 가지 측면에서 정상 수준에 도달한다면, 네 인성은 합격이다. 정상인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면 된다. 그리 높은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교를 하라는 것도 아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정상인이 갖추어야 할 이성,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갖추고, 최소한 정상인처럼 보여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건목수생(乾木水生)과 같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쓸모없는 말, 쓸모없는 사역은 결코 너에게 하지 않는다. 네 생활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추태들을 반드시 벗어 버려야 한다. 너희는 사탄에 의해 파괴되어 사탄의 독소가 너무나 많다. 나는 네게 그러한 사탄의 파괴 성품을 벗어 버리라고 하는 것이지, 고위급 인사나 유명인, 위대한 인물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의미 없는 요구이다. 나는 너희에게 원래 있는 것들에 맞춰 사역한다. 사람에 대한 요구에는 정도라는 것이 있다. 지식인들이 말하는 방식과 어투를

따라 훈련한다면, 이는 옳은 방법도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될 수도 없다. 너희의 자질에 따라 최소한 지혜롭고 격식 있게 말하고, 의사 전달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다면, 요구에 부합한 것이다. 최소한 식견과 이성을 갖추면 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탄에 의해 패괴된 성품과 네가 드러내는 추태를 벗어 버리는 것이다. 이것들을 벗어 버리지 않고서 무슨 최고의 이성과 식견을 논하겠느냐! 많은 이가 시대가 변했다며, 겸손과 인내를 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전혀 없고, 성도의 품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릇되기 그지없다! 그들에게 어디 정상 인성이 있으며, 그들이 어디에 가서 증거하겠느냐? 식견이고 이성이고 전부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일부 실행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 고쳐야 하고, 과거의 틀에 박힌 영 생활과 사람의 무감각하고 우둔한 모습들은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바뀌어야 한다고 해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육체를 방종하라는 것은 아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고 아무렇게나 떠들어선 안 된다. 정상인의 언행이란 말에 조리가 있고, 맞으면 맞았다고 틀리면 틀렸다고 하며, 사실에 부합하고 적절하고,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성품 변화에 관해서는, 정상인이라면 어느 수준까지 다다를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실제로 진입할 수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자질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48)

사람이 본분을 이행한다는 것은 사실 사람에게 원래 있는 것, 즉 사람이 본래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자신의 본분을 다한 것이 된다. 섬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폐단은 단계적으로 체험하고 심판받는 과정에서 점점 줄어들므로 본분을 가로막거나 본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섬기는 과정에서 폐단이 생길까 봐 섬김을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가장 나약한 자다. 사람이 섬기는 과정에서 표현해야 할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본래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며, 속이고 대충 하기까지 한다면, 피조물에게 있어야 할 기능을 잃은 것이다. 그런 자는 이른바 ‘둔재’이자 쓸모없는 폐물이다. 그런 자를 어찌 당당한 피조물이라 칭하겠느냐? 겉보기는 화려하나 속은 썩어 문드러진 자가 아니겠느냐? 만일 자신을 하나님이라 말하면서도 신성의 어떠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행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대표하지도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본질을 갖추지 못했으며, 하나님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만약 자신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사람’이라 할 수 없고 피조물의 자리에 설 자격도 없다. 또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보호를 받거나 온전케 될 자격은 더더욱 없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신임을 잃은 후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증오하지 않을뿐더러 하나님의 도가 옳지 않다고 제멋대로 떠들어 댔으며, 더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패역한 자에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크게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께 매우 죄스러운 일이다. 그런데도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이 행한 것이 옳지 않다고 떠들어 대며 욕한다. 그런 자에게 어찌 온전케 될 자격이 있겠느냐? 그것은 도태되고 징벌받을 징조가 아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최악이 극에 달한 것이고 백번 죽어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도 사람은 뻔뻔스럽게 하나님과 이치를 따지고 하나님과 겨룬다. 이런 자에게 무슨 온전케 될 가치가 있겠느냐?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느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 그리고 자신의 패역과 패괴를 증오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쳐야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피조물이다.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누릴 자격이 있고,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될 자격이 있다. 그런데 너희 대부분은 또 어떠하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살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의 앞에서 또 어떻게 너희의 본분을 이행하고 있느냐? 성심성의를 다하고 기꺼이 목숨을 바쳤느냐? 너희의 희생은 어떠하냐? 너희가 나에게서 얻은 것이 아직도 적단 말이나? 너희는 분별할 줄 아느냐? 나에 대한 너희의 충성심은 어떠하냐? 나를 섬기는 것은 또 어떠하냐?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고 너희를 위해 행한 것은 또 어떠하냐? 너희는 가늠해 본 적이 있느냐? 너희의 쥐꼬리만 한 양심으로 가늠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느냐? 너희의 언행이 떳떳하냐? 설마 너희의 그 작디작은 희생으로 내가 베풀어 준 모든 것에 떳떳하단 말이나? 너희에 대한 나의 마음은 한결같아서 다른 선택지가 없지만, 너희는 나에게 음흉한 속셈과 탄마음을 품고 있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본분이고 얼마 되지도 않는 너희의 기능이다. 그렇지 않느냐? 설마 너희는 자신들이 아예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했음을 모른단 말이나? 그렇다면 너희가 어찌 피조물이라 불리겠느냐? 너희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는 자기 자신이 잘 알지 않느냐? 너희는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관용과 풍성한 은혜를 얻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런 은혜는 한 톨의 값어치도 없는 너희 소인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라는 것 없이 기꺼이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다. 너희 같은 사람들, 너희 같은 둔재들은 하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전혀 없다. 오직 고난의 나날과 끝없는 징벌만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충성을 다할 수 없다면 너희의 운명은 곧 고통이고, 나의 말과 사역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면 너희의 결말은 곧 징벌이다. 그 어떤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나라의 아름다운 삶도 너희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너희가 누릴 몫 또한 없다. 너희에게 이것은 당연한 결말이며 자업자득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 하나님의 직분과 사람의 본분의 구별>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49)

그 어리석고 오만한 자들은 온 힘을 다하고 본분을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요구가 당연한 것인 양, 손을 내밀어 은혜를 요구한다. 요구가 무위로 돌아가면 더욱

신의를 저버리는데, 이런 자에게 이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자질이 부족하고 이성 또한 전무하여 경영 사역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본분을 추호도 이행하지 못한다. 너희의 몸값은 이미 바닥을 쳤다. 이토록 은총을 베풀었음에도 너희가 보답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극도로 패역한 것이다. 이런 것들로 너희를 족히 정죄할 수 있고, 너희의 나약함과 무능함, 그리고 비열함과 용졸함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또 무슨 자격으로 다시 손을 내밀어 요구한단 말이나? 너희가 나의 사역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되고, 충성을 다하지 못하며, 나를 굳게 증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희의 잘못이고 부족함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도리어 나를 공격하고, 나의 잘못이라고 허튼소리를 하며, 내가 공의롭지 못하다고 원망한다. 이것이 너희의 충성심이나? 너희의 사랑이나? 너희가 이것 말고 또 무슨 사역을 할 수 있느냐? 너희는 모든 사역에 있어 어떤 공헌을 했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않는 것만 해도 이미 지극히 큰 관용을 베푼 것인데도 너희는 뻔뻔스럽게 이유를 따지고, 암암리에 나를 원망한다. 그런 너희에게 인간미가 조금이라도 있느냐? 사람의 본분 이행에 사람의 생각과 관념이 수없이 섞여 있을지라도 너는 본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이 사역하다가 불순한 것들이 섞이는 것은 자질의 문제지만,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패역이다. 사람의 본분은 사람이 복을 받거나 화를 입는 것과 무관하다. 본분은 사람이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천직이므로 보수나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하고 이유도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본분 이행이라 할 수 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심판받은 후 온전케 되어 누리는 복을 말하고, 화를 입는다는 것은 사람이 형벌과 심판을 거친 후에도 성품 변화를 이루지 못해, 즉 온전케 되지 못해 받는 징벌을 말한다. 그러나 복을 받은 화를 입든 사람은 피조물로서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는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이것은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것이다. 너는 복을 받기 위해 본분을 이행해서도 안 되고, 화를 입을 것이 두려워 본분 이행을 거부해서도 안 된다. 내가 한마디 하겠다.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바이고,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패역이다. 사람은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점점 변화하고, 또 그 과정에서 비로소 충성심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네가 자신의 본분을 이행할수록 더 많은 진리를 얻게 되고,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그러나 본분을 건성으로 이행할 뿐 진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 도태될 것이다. 그런 자는 진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본분을 이행하지도 않고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실행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런 자는 변화되지 않은, 화를 입을 대상이다. 그들이 표현하는 것에는 불순한 것들이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악으로 가득 차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육신 하나님의 직분과 사람의 본분의 구별>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50)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해야 할지 모를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 원칙이 무엇이고 사탄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른다면 실행의 길이 없을 것이다. 열정으로 추구하기만 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과를 낼 수 없다. 이런 체험 방법은 로렌스처럼 분별력 없이 그저 체험만을 강조하는 것일 뿐, 무엇이 사탄의 역사이고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온전케 하는지 등은 전혀 모르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할지, 현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알아 가야 할지, 하나님의 공훈과 위엄, 공의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상태와 어떤 시대를 대상으로 말한 것인지 등 일련의 일들을 분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만약 사람이 많은 이상(異象)을 체험의 토대로 삼지 않는다면 생명은 물론 체험조차 논할 수 없을 것이다. 그저 어리석게 늘 하던 대로 순종하고 인내할 뿐이니, 이런 사람은 모두 온전케 되기 힘들다. 다시 말해, 위에서 말한 이상을 네가 조금도 갖고 있지 않다면, 이는 네가 멍텅구리임을 의미한다. 언제나 이스라엘에 우뚝 서 있는 소금 기둥 같으니 그야말로 쓸모없는 폐물인 셈이다! 어떤 사람은 언제나 무턱대고 순종하기만 하고, 언제나 자신을 인식하며, 언제나 자신의 처세술로 새로운 일들을 처리하고, 언제나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사소한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는데, 이런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다. 천대받으려고 태어난 사람인 양 참고 견디기만 하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 주니, 조금의 분별력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할 줄도, 사람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여 줄 줄도 모르니 이런 자는 체험이 없는 사람에 속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다 못해 결국에는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을 보고도 감히 일어나 정죄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았다. 또한, 명백히 성령의 역사인데도 감히 일어나 순종하지 못하고, 악령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여기며 조금의 반항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으로, 절대 하나님을 위해 중임을 맡을 수 없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분별력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 이러한 체험 방법은 마땅히 근절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기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체험에 관하여>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51)

오늘날 이 흐름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온전케 될 기회를 얻게 된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각기 다른 역할에 따라 사람을 온전케 한다. 그러므로 네가 모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다. 너희가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여 할 수 있는 역할이 한 부분이나 두

부분밖에 안 되지만 온 힘을 쏟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 온전케 될 것이다.

젊은 사람은 처세 철학이 적지만, 지혜와 식견이 부족하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사람의 지혜와 식견을 온전케 하여 채워 줄 수 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은 성품이 안정적이지 못하기에 이 부분은 하나님께 변화받아야 한다. 젊은 사람은 종교 관념과 처세 철학이 적어 어떤 일에서든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이것은 인성이 아직 굳어지지 않은 부분으로, 취할 만한 부분이다. 하지만 젊은 사람은 사리에 어둡고 지혜가 부족한데, 이는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는 과정을 통해 너희의 분별력이 강해져 영적인 일을 많이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점차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나이 든 형제자매들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들에게도 취할 만한 부분과 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나이 든 형제자매들은 처세 철학과 종교 관념이 많고, 일 처리에 여러 가지 규정이 많다. 또 항상 교조적이고, 기계적이며, 융통성이 없다. 이런 것은 취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나이 든 형제자매들은 어떤 문제가 닥쳐도 침착하고, 성품이 안정적이며, 이랬다저랬다 하지 않는다. 깨닫는 것이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너희들은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현실적인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태도로 대해서는 안 된다. 또 절대 판단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고, 순종하면서 따르고 받아들여 실행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다면 온전케 될 수 있다.

젊은 형제자매든 나이 든 형제자매든 모두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알아야 한다. 젊은 사람은 오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나이 든 사람은 소극적이거나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 또 서로의 장점을 취해 단점을 보완하고, 어떠한 편견도 없이 서로를 섬겨야 한다. 젊은 형제자매와 나이 든 형제자매 사이에 우정의 다리를 놓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해야 한다. 젊은 형제자매들은 나이 든 형제자매들을 무시하지 않고, 나이 든 형제자매들은 독선적이지 않으면 이것이 조화로운 협력이 아니겠느냐? 너희 모두에게 이러한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너희 세대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각자의 역할을 다함에 관하여>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52)

앞으로 너희가 복을 받을지 화를 입을지는 모두 오늘날 너희의 행위에 달려 있다.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이 시대밖에 없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케 하려는 것은 분명하며, 이는 말하는 방식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 어떤 시련이나 재앙이 닥치든 또는 어떤 일이 발생하든 어쨌든 하나님은 너희를 온전케 하려 한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역대에 지금과 같이 절정에 이르거나 최고의 경지에 들어간 적이 없으며, 성령이 전례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는 역대에 거의 아무도 체험하지 못했던

것이다. 예수 시대에도 지금과 같은 계시는 없었다. 너희에게 하는 말과 너희가 깨닫고 체험하는 것 모두가 절정에 이르렀다. 너희들이 시련이나 형벌 속에서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 역사가 전례 없는 성황을 이루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이 친히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많은 사역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반드시 너희를 온전케 할 것이다. 너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새롭게 깨달았다면 예수의 두 번째 강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시대에서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고자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은 소극적이 되는 것을 신경 쓰지 말라. 너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우선 내려놓고 신경 쓰지 말라. 일을 처리할 때는 찾고 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취약점을 알게 되어도 그것에 구애받지 말고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이 든 형제자매들은 종교 관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찬송할 수 있는 등등이다. 요컨대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소극적인 상태로 기다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여야 한다.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흠족게 하는 것이 첫째이다. 거기에 또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진입하면,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각자의 역할을 다함에 관하여>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53)

의지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에게만 하나님을 섬길 자격과 권리가 주어진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했다. 많은 사람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전도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버리는 등등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많은 종교 인사들은 성경을 받쳐 들고 곳곳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복하고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긴다.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신학교에서 심도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 여러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고 성경 구절로 사람들을 교훈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떤 ‘빈곤 지역’의 사람들은 형제자매들을 위해 병을 고쳐 주고 귀신을 쫓아내며, 중보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긴다. 너희 중에 많은 이들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어떤 형제자매들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않으며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다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매우 적다.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별처럼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길 수 있는 자는 극히 드물며 턱없이 부족하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급히 알아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기고자 한다면 우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어떤 사람을 증오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온전케 하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것들이다. 너희는 또한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난 후에, 너희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 먼저 진입하고, 먼저 하나님이 준 사명을 받아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진실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길 자격을 갖게 된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를 섬길 때 너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알고 더 분명히 이해하게 한다. 네가 이 실체에 진입할 때, 너의 체험은 더욱 깊어지고 더 실제적이 된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형제자매들에게 공급할 수 있어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하고 영적인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한다. 이 효과에 도달한 후에야 너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길 수 있고, 또한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지기(知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며, 하나님께 일편단심 충성하는 자여야 한다. 사람 뒤에서 한 일이든 사람 앞에서 한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설 수 있으며,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든 너는 항상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지기인 것이다. 하나님의 지기가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중임을 맡고 하나님의 짐을 함께 지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부담을 자신의 부담으로 생각하며, 전망과 득실을 따지지 않는다. 설사 아무런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지라도, 그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지기인 것이다. 하나님의 지기는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급해하는 것을 급해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한다. 비록 육체는 고통스럽고 연약할지라도 그 고통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흡족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런 사람을 통해 증거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잡을 수 있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기가 될 때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잡게 되는 때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54)

예수가 하나님이 맡긴 일을 완수하고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을 위해 계산하거나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너희가 가장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지기이자 하나님 자신이다(사실, 그는 하나님이 증거한 하나님 자신이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이 사실을 통해 한 가지 일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는 하나님의 경륜을 중심으로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일 당신의 뜻이라면 이루소서. 제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하소서. 사람이 연약하긴 하나 당신께서 어찌 그것까지 헤아리시나이까? 당신 손안의 개미와도 같은 사람이 어찌 당신의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겠나이까? 저의 마음은 오직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오니, 원컨대 당신의 뜻에 따라 제게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소서.”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슴이 칼로 에는 듯 아프고 괴로웠으나 마음속에는 일말의 후회도 없었다. 그는 계속 어떤 큰 힘에 이끌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곳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의 형상으로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수하고, 모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났다. 사망, 지옥과 음부는 그의 앞에서 위력을 잃고 그에게 패하였다. 그는 33 년의 생애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당시 사역에 맞춰 하나님을 흠족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개인의 득과 실을 따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가 세례를 받은 뒤에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한 것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속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그에게 맡겨 완수하게 한 것이다. 그는 그 중임을 완수할 자격과 권리가 있었다.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수많은 고통과 사탄의 시험을 받았지만, 낙담한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사랑하였기에 그 크고 중요한 임무를 그에게 맡겼던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했던 것이다. 그 당시에는 오직 예수만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 이는 하나님이 은혜시대에 행한 인류 구속 사역 실상의 일부이다.

너희도 만약 예수처럼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여 너희 육을 저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중책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만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이며,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너는 네가 하나님의 지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네가 하나님의 지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나? 네 스스로 생각해 보아라. 네가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나, 아니면 너 자신이나? 너는 사탄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기고 있다. 이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나? 많은 사람들은 내 뒤에서 지위의 복을 탐하고, 먹는 것과 자는 것을 탐하며, 늘 육체가 편하지 못할까 걱정하기에 급급하다. 교회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공밥을 먹거나 나의 말로 형제자매를 훈계하고, 높은 위치에 서서 사람들을 속박한다. 이런 사람들은 말끝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떠들어 대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지기라고 한다. 이는 황당무계한 논리가 아니고 무엇이나? 만약 네가 마음 자세는 바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기지 못한다면, 너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마음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 나는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공짜로 밥을 먹고 항상 육적인 안락만을 탐하며, 하나님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도모한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 영의 감찰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늘 간교하게 형제자매들을 기만하고, 사람들 앞과 뒤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 마치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가 포도를 훔쳐 먹고 포도원을 짓밟는 것과 같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지기가 될 수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자신의 생명과 교회에 대해 부담이 전혀 없는 네가 하나님이 준 사명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런 자를 누가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너처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임무를 맡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일을 그르치지 않겠느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섬김을 행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너희가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것처럼 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신임을 얻기 어려우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찌면 지금은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항상 하나님을 기만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무성의하게 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찌 됐든 네가 하나님을 기만하면 가차 없는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는 지금 막 하나님을 섬기는 정상 궤도에 들어선 이 기회에, 마음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음으로 두 가지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너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기는 자로 온전케 할 것이다. 네가 만일 하나님에 의해 진정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섬기고 싶다면, 너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예전의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예전의 구태의연한 방법을 바꾸어, 네 안에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지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구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결국 유다와 같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55)

하나님은 전 우주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를 섬길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을 예정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고, 땅에서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순조롭게 완수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 그를 섬기게 하는 목적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아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땅에서 사역하는 원칙은 물론,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까지 보게 되었다. 하나님은 실제로 땅에 와서 사역하며, 사람과 접촉하여 사람이 그의 행사를 더욱 분명히 알게 한다. 오늘날 너희가 온 좋게 실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너희의 무한한 복이며, 그야말로 하나님의 높여 줌이다. 하나님이 그를 섬길 사람을 택하는 데는 언제나 원칙이 있다. 사람의 상상대로 열정만 있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늘날 너희가 보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인도로 성령 역사가 있어야 하고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패괴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기란 불가능하다. 너의 성품이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 성품은 여전히 사탄을 대변한다. 그러므로 너의 섬김은 선의에서 나온 것임을 말해 준다. 이는 사탄의 본성으로 섬기는 것이다. 너는 타고난 개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취향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싫어할 것이라고 여기며 완전히 자기 취향대로 사역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계속 그렇게 한다면, 너의 성품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채 도리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더욱 완고해지고 패괴 성품이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 내면에는 네 개성을 위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들과 네 성품대로 섬기면서 정리된 경험이 형성될 텐데, 이는 사람이 경험으로 얻게 되는 교훈이고, 또 사람의 처세술이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바리새인과 종교 관원에 속한다. 이런 사람들이 각성하지도,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반드시 말세에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른바 거짓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부류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개성에 따라 자기 뜻대로 행한다면 언제라도 도태될 위험성이 있다. 또 여러 해 동안 종합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농락하고, 높은 자리에 서서 훈계하고 통제하며, 회개하거나 죄를 자백한 적도 지위의 복을 포기한 적도 없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고야 말 것이다. 이런 자들은 관록과 경험을 내세워 거들먹거리는 바울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이런 자를 온전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섬김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다. 사람은 늘 낡은 것과 고루한 고정 관념,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을 고수하는데, 이는 섬김에 크나큰 걸림돌이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네 인생은 이로 인해 망가질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뛰어다니고, 허리가 끊어질 만큼 고생하며, 심지어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칭찬은커녕 도리어 너를 가리켜 악을 행한 자라고 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반드시 없애야 할 종교적 섬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56)

지금부터 하나님은 종교 관념이 없고 과거의 자신을 내려놓으려 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온전케 할 것이니, 이런 사람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에게는 끝없는 풍부함과 무한한 지혜가 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그의 기묘한 사역과 보배로운 말씀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종교 관념이 있거나 관록을 내세우는 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는 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성령을 통해 온전케 될 기회도 얻을 수 없다. 사람에게 순종하려는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없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갈수록 패역해지고 간교해지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지금 하나님은 사역을 통해 그를 진실로 사랑하고 새로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더 많은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나이를 내세우며 거들먹거리는 종교 관원들은 완전히 제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고집불통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원치 않는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느냐? 너는 자신의 취향대로 사역하며 섬겼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요구대로 행하며 섬겼느냐? 이는 너 자신이 잘 알 것이다. 너는 종교 관원에 속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케 된 신생아에 속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령께 얼마나 인정받았느냐? 하나님이 전혀 기억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되느냐? 여러 해 동안 섬기면서 너의 생명에는 얼마나 큰 변화가 생겼느냐? 너는 이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느냐?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과거의 낡은 종교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사람은 낡은 종교 관념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사람이 종합해 낸 경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자기 뜻대로 행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네가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생명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섬기는 모든 이를 온전케 하며, 쉽게 도태시키지 않는다. 진실로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여 이전의 종교적 행위와 규례를 버리고, 과거의 종교 관념으로 하나님이 오늘날 하는 말씀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낡은 것들을 고수하며 이를 보배로 여긴다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정말로 온전케 되고 싶다면 각오를 다지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한다. 이전에 행한 일이 옳을지라도, 하나님이 행한 것일지라도 고수하지 말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또 이전에 행한 일이 분명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이 직접 행한 것일지라도 오늘은 절대 고수하지 말고 내려놓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요구이니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한다. 하나님은 사역하고 말씀할 때 과거의 낡은

것들을 조금도 언급하지 않으며, 지나간 일을 돌아보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이므로 자신이 이전에 말씀한 것일지라도 고수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사람은 언제나 이전의 것들을 고집하며 내려놓지 않고 억지로 공식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네가 그렇게 한다면 말과 행동으로 방해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 아니겠느냐? 너는 네 일생이 이 낡은 것들에 의해 망가지길 원하느냐? 이 낡은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정말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한시라도 빨리 방향을 바꾸어 다시 시작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전의 섬김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반드시 없애야 할 종교적 섬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57)

사역이라 하면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곳곳에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이는 옳긴 하지만 아주 단편적인 인식이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많이 섬기고 공급하는 것이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체험했음에도 하나님을 위한 사역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사람의 관념 속 사역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일치하는 구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사역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진입도 매우 단편적이 되었다. 너희는 모든 측면에서 더 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것에서부터 진입을 시작해야 한다. 이는 너희가 마땅히 진입해야 할 것이다. 사역이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 내는 것과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역이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충성심과 인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람의 책임이자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다. 너희의 진입이 곧 너희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과정에서 진입하기를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줄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섬길 줄 알며, 사람을 돌보고 공급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사역이자 너희의 진입이며, 모든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바이다. 많은 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곳곳에서 설교하는 것만을 중시한 나머지 개인의 체험을 망각하고, 영 생활에 진입하는 것을 간과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돌봐 온 이가 사역과 설교를 진입할 것으로 여기면서도, 개인의 영적 체험은 중요하게 진입할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반대로 성령 역사로 인한 깨우침을 밀천 삼아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며, 설교할 때면 사명감으로 가득 찬 채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 성령의 음성을 쫓아 낸다. 이때, 사역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개인의 영적 체험인 양 득의양양해하며

자신이 한 말이 개인의 어떠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또 자신의 체험은 입 밖에 낸 것만큼 그렇게 명확하지 않고, 게다가 말하기 전까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 성령이 역사하면 청산유수처럼 줄기차게 말을 늘어놓는다. 네가 이렇게 설교를 한 번 하고 나면 네 실제 분량이 생각했던 것만큼 작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성령이 이와 비슷하게 몇 차례 역사하면 사람은 자신에게 이미 분량이 생겼다고 확신한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곧 자신의 진입이고, 자신의 어떠함이라고 착각한다. 늘 이런 체험을 하다 보면 개인의 진입에 해이해지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나태해져 개인의 진입을 전혀 중시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타인을 돌볼 때에는 네 분량과 성령의 역사를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네 진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네 체험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성령의 역사를 개인의 체험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락의 시작이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너희의 진입을 핵심 공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역과 진입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58)

사역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사람을 전부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함이며,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여 하나님 사역의 성과를 완벽하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너희는 반드시 사역의 본질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사역할 자격이 있다. 즉, 모두에게 성령께 쓰임 받을 기회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 사람이 하나님이 맡겨 준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기회를 얻은 것이지만 사람이 말한 것과 깨달은 것이 전부 사람의 분량은 아니라는 점이다. 너희는 오직 사역하는 과정에서만 너희의 부족함을 더 잘 알 수 있고, 더 많은 성령의 깨우침을 얻을 수 있으며, 더 잘 진입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인도를 자신의 진입으로 여기고, 게다가 자신에게 원래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면 사람의 분량은 발전이 없다. 성령은 사람의 상태가 정상적일 때 깨우쳐 준다. 이때 사람은 흔히 자신이 얻은 깨우침을 자신의 실제 분량으로 착각한다. 성령의 깨우침이 너무나 정상적이고,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행해지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역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불현듯 어떤 진리에 눈을 뜨게 된다. 사실 사람이 깨달은 것은 성령의 깨우침일 뿐 자신의 실제 분량은 아니다(물론 이 깨우침 역시 사람의 협력과 관계가 있다). 사람이 다시 한동안 체험하면서 어느 정도 어려움과 시련에 봉착하게 될 것인데, 그 상황에서 비로소 진실한 분량이 드러나고, 그제서야 사람은 자신의 분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람의 사심, 잡념, 탐욕 등이 모두 쏠아져 나오니 말이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많은 이가 이런 체험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서야 예전의 깨우침이 자신의 실체가 아닌 성령의 일시적인 빛 비춤이었고, 사람은 그저 빛 비춤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성령이 사람을

깨우쳐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전후사연 없이 분명하고 명확한 경우가 많다. 즉, 사람의 어려움을 계시에 연관시키지 않고, 직접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다. 사람이 진입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를 다시 성령의 깨우침에 연관시키면 사람의 실제 체험이 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너희의 진입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도대체 무엇이 성령 역사인지, 무엇이 너희의 진입인지를 알아야 한다. 또 성령 역사를 너희의 진입 속으로 끌어들이 성령의 온전케 함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너희에게서 성령 역사의 본질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성령을 알고 자신도 알게 된다. 또한, 여러 차례의 극심한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쌓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 조금씩 더 가까워지며, 수많은 혼계와 연단 속에서 하나님에게 참된 사랑을 갖게 된다. 따라서 너희는 고통, 채찍질, 환난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정말 무서운 것은 너희에게 성령 역사만 있고 자신의 진입이 없어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는 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임을, 또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해도 성령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진입이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성령이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은 사람의 열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진입을 위해 활로를 열어 주기 위해서이며,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역과 진입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59)

책망 혼계와 심판 형벌을 겪은 사람의 사역에는 편차가 훨씬 적고, 사역할 때 나타내는 내용도 훨씬 정확하다. 반면, 천성대로 사역하는 사람의 오차는 상당히 큰 편이다. 온전케 되지 않은 사람이 사역하면서 나타내는 것에는 천성적인 것이 너무 많아 성령의 사역에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 자질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책망과 혼계, 심판을 겪어야만 하나님이 맡겨 준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심판을 겪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진리의 원칙에 부합할 수 없고, 행하는 것이라고는 전부 천성적인 것과 인위적인 호의에 불과하다. 책망 혼계와 심판을 겪은 사람이 사역을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할 때보다 훨씬 정확하다. 심판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것은 육적인 것과 사람의 사유일 뿐이고, 거기에는 사람의 총명과 선천적인 재능이 너무 많이 섞여 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나타낸 것이 아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의 선천적인 자질에 끌려 그의 앞으로 가게 된다. 그가 나타내는 것에는 사람의 깨달음과 체험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본뜻과 어긋나고 오차도 너무 크다. 그런 사람이 사역을 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으로 인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심판과 형벌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 준 사역을 할 자격이 없다. 자격을 갖춘 일꾼이 하는 사역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깊이 진입하게 할 수 있다. 그가 하는 사역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게다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으며, 규례의 제약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방과 자유를 줄 수 있고, 또한 생명이 점차 성장하고 진리에 더 깊이 진입하게 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일꾼이 하는 사역은 이와 크게 다르다. 그는 어리석게 사역을 하며 사람을 규례 속으로 인도할 뿐이다. 그는 사람에 따라 요구를 달리하지도 않고, 사람의 실제 필요에 맞춰 사역하지도 않는다. 그런 사역에는 규례와 이론이 너무 많아 사람을 실제 속으로 이끌 수 없으며, 생명이 성장하는 정상적인 실행 속으로 이끌 수도 없다. 그저 사람들에게 가치 없는 규례를 지키게 할 뿐이다. 이러한 인도는 사람을 치우치게 만든다. 그가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 너를 어떻게 인도할지가 결정되며, 그는 너를 그의 소유와 어떠함 안으로 이끌 수 있다. 따르는 사람이 이끄는 사람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가 인도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사역의 효과가 어떠한지, 따르는 사람이 얻은 것이 진리의 원칙에 맞는지, 사람의 변화에 적합한 실행의 길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관건이다. 너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사역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어리석게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사람의 진입에 관련된 일이다. 네가 누구의 인도에 길이 있고, 누구의 인도에 길이 없는지를 분별할 수 없다면, 쉽게 미혹된다. 이것들은 모두 너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다. 온전케 되지 않은 사람이 하는 사역에는 천성적인 것이 너무 많고, 사람의 뜻도 너무 많이 섞여 있다. 그의 어떠함은 천성적인 것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다듬어지면서 얻게 된 생명도, 변화를 거치며 갖게 된 실체도 아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 있겠느냐? 사람의 원래의 생명은 사람의 선천적인 총명이나 재능을 말한다. 이런 총명이나 재능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요구와는 거리가 매우 멀다. 온전케 되지 않고, 패괴 성품이 책망과 훈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내는 것은 진리와 거리가 매우 멀며, 사람의 상상과 단편적인 체험 등 막연한 것들이 섞여 있다. 또한, 그가 어떻게 하든 사람들은 총체적인 목표가 없고, 모든 사람의 진입에 적합한 진리가 없으며,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의 대부분이 어려운 일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뜻으로 행하는 사역이다. 사람의 패괴 성품, 사람의 사유와 관념은 사람의 온몸에 두루 퍼져 있고, 사람은 천성적으로 진리를 실행하는 본능이 없으며, 진리를 직접 깨닫는 본능도 없다. 거기에 패괴 성품까지 더해졌으니 그런 천성적인 사람이 사역을 하면 전부 방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온전케 된 사람은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진리에 대한 체험이 있고, 사람의 패괴 성품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며, 사역하는 과정에서 막연하고 실제적이지 않은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람의 불순물도 점점 줄어들며, 그의 사역과 섬김은 하나님이 요구한 기준에 점점 가까워진다. 그리하여 그가 하는 사역은 진리의 실제에 진입하고 현실적이 된다. 사람 두뇌의 사유는 성령의 사역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사람에게는 풍부한 상상력과 합리적인 논리력, 그리고 노련한 처세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교정되지 않는다면 전부 사역을 가로막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역은 가장 정확한 수준에 이를 수 없으며, 특히 온전케 되지 않은 사람의 사역은 더더욱 그러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60)

너는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 많은 상태에 대해 알아야 한다. 특히 협력하며 섬기는 자는 더욱더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할 때 생기는 많은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만약 많은 체험이나 진입법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이는 사람의 체험이 너무 단편적이라는 의미이다.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원칙을 파악하지 못하면 성품이 변화될 수 없다. 성령 역사의 원칙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 역사로 이뤄지는 성과를 알지 못한다면 악령 역사를 구분하기 어렵다. 악령의 역사와 사람의 관념에서 나온 것은 반드시 폭로해야 하며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 실행상 치우친 부분이나 하나님을 믿는 어려움 등 많은 것 역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짚어 주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사람이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파악해야지, 억지를 부리거나 무리한 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사람의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성령 역사의 움직임과 성령이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야 한다. 사람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문제의 핵심을 명확히 알며, 그 근원을 포착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협력하며 섬기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지, 많은 일을 명확히 알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의 체험이 어떠한지에 달려 있다. 너는 네가 체험한 대로 사람들을 이끌 것이다. 네가 글귀만 이해했다면 사람들을 글귀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실재를 체험했다면 그대로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의 실재로 이끌어 진입하게 할 것이다. 만약 네가 하나님 말씀 속의 많은 진리를 깨닫고 많은 일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면 사람들을 이끌어 많은 진리를 깨닫게 할 것이며, 네가 이끄는 사람들도 이상(異象)에 대해 잘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초자연적인 느낌을 중시하면서 그런 것을 찾고자 하면, 네가 이끄는 사람들도 초자연적인 느낌을 중시하며 찾으려고 할 것이다. 만약 네가 실행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말하는 것에 치중한다면, 네가 이끄는 사람들 역시 말하는 것에 치중하고 실행은 조금도 하지 않을 것이며, 성품에도 아무 변화가 없고 겉으로만 열심히 뿐, 진리를 전혀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모두 자신이 소유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끄냐에 따라 길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이 이끄냐에 따라 병사(兵士)가 달라진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쓰기 합당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개인의 의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깨우침이나 하나님 말씀의 인도, 또는 하나님의 다루심이나 말씀의 연단이 있어야 한다.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평소 유심히 관찰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리하며 받아들이거나 제거해야 한다. 이는 모두 너희가 실제에 진입하는 길이며,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다. 네가 하나님의 이런 사역 방식에 진입한다면 매일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환경이 좋은 나쁜든,

시련을 겪든 시험을 당하든, 사역을 하든 안 하든, 또는 개인 생활을 하든 단체 생활을 하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기회를 찾을 수 있고, 하나도 빠짐없이 언제든지 모두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비결을 터득하게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쓰임 받기에 합당한 목자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61)

현재 많은 사람이 협력할 때 어떤 공과들을 배워야 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본 너희는 대부분 함께 협력할 때 전혀 공과를 배우지 못할뿐더러 각자 자신의 생각을 고집한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말하며 서로 상관하지 않고 전혀 협력하지 않는다. 그저 각자 내면의 깨달음을 교제하고 자기 안의 '부담'을 털어놓는 데만 신경을 쓸 뿐, 전혀 생명을 추구하지 않으니 건성으로 대충 사역하는 것과 같다. 또 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교제하면 된다고 여긴다. 너희는 다른 이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자기 성찰은 하지 않으니, 참으로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다. 너희에게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독선적인 상태가 적지 않은데, 꼭 고질병이 또 재발한 것 같다. 너희는 서로 완전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교제를 하지 않는다. 어느 교회에 가서 사역할 때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최근에 너의 내적 상태가 어떠한지 등등 이러한 교제는 아예 없다. 예컨대 관념을 내려놓거나 자신을 저버리는 이러한 실행은 너희에게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리더와 일꾼은 형제자매들이 소극적으로 변하지 않고 힘 있게 따르도록 하는 데만 신경을 쓴다. 그러나 모두가 힘 있게 따르면 그만이라고만 생각할 뿐, 스스로를 알아 가고 저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엇이 서로 협력하며 섬기는 것인지는 더더욱 모른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각오와 베드로처럼 살 각오만 있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너는 어리석은 순종을 중요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너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만 추구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네 각오는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너희가 보여 준 모습 아니더냐? 너희는 각자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면서 온전케 되기를 바란다. 내가 그토록 오랜 시간 너희의 섬김을 지켜봤지만 이렇다 할 성장은 거의 없었다. 특히 '조화로운 협력'에 대한 공과는 백지와도 같다! 교회에 가면 너는 네 방식대로 그는 그의 방식대로 제각기 교제를 하고, 조화롭게 협력하는 경우가 극히 적으니, 아래에서 따르는 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너희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등을 아는 이는 매우 적다. 너희는 흐리멍덩하여 이 부분의 공과를 어린애 장난처럼 여기고, 심지어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의 진리를 실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잘못을 범한다. 또한, 여러 해 섬긴 사람도 서로 암투를 벌이고 시기하며 분쟁을 일으키고, 각자 제 할 일만 하며 협력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 너희의 분량 아니더냐? 너희는 매일 함께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직접 섬긴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가 어찌 어떻게 협력을 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모른단 말이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이스라엘인의 섬김을 본받아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62)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를 섬기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조화롭게 협력하기를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섬김을 멈추게 할 것이다. 너희는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에 최소한 충성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며, 실제적으로 공과를 배워야 한다. 특히 교회에서 사역하는 자라면 너희 밑에 있는 형제자매 중 누가 감히 너희를 책망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앞에서 너희의 잘못을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모두 높은 자리에 앉아 정말 왕 노릇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실제적인 공과를 배우지도 않고 진입하지도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입에 담는단 말이나! 오늘날 네게 교회를 이끌게 하였지만 너는 너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관념과 생각을 고집한다. 그러면서 “제 생각엔 이 일은 이렇게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도 다른 사람의 구속을 받지 말라고 하였고,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걸 중시하지는 않는다고요.”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여전히 각자의 생각을 고집하며 누구도 굽히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의 섬김에 길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는 이만하면 된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둘은 말은 부분이 서로 다르니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교제합시다. 당신은 당신의 이상(異象)을 교제하고 나는 내 진입을 교제하는 것으로 하죠.”라고 말한다. 처리해야 하는 많은 일에 대해서는 늘 책임을 지지 않거나 건성으로 대하며, 모두가 제각기 다른 의견을 말한다. 자신의 지위, 명예, 체면은 매우 신중하게 지키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생명이 더 빨리 성장하도록 자신을 낮추거나 자발적으로 자신을 버리지는 않는다. 너희는 협력할 때 진리를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저는 이 부분의 진리를 잘 모릅니다. 당신은 어떻게 체험하셨나요?”라고 하거나 “이 부분에서는 당신이 저보다 체험한 것이 많으니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너희는 많은 도를 들었고 섬김의 부분에서도 얼마간 체험을 했다. 너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서로 배우거나 돕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지 않으면 어디서 공과를 배울 수 있겠느냐? 어떤 일이 닥치면 모두 서로 교제하여 너희의 생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자세하게 교제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교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건성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교회에 가서 한 바퀴 돌아본 후 함께 모여서 발견한 문제와 사역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까지 모두 교제하고, 자신이 얻은 깨우침과 빛 비춤을 교제해야 한다. 이는 섬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실행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교회의 이익을 위해, 형제자매들을 이끌기 위해 조화롭게 협력해야 한다. 서로 협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어 더 좋은 사역의 성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협력이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진입한 사람이다. 협력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해도 괜찮다. 간과하지 말고 나중에 다시 교체하여 분명히 알도록 해라. 이러한 교체 후에는 다시 형제자매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어야 한다. 항상 이렇게 끊임없이 깊이를 더하며 사역해야만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범사에 교회의 이익을 지켜야지, 혼자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서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행동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 이러한 자는 성품이 극도로 악하여 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조차 없는데, 영락없는 사탄이자 짐승이다! 너희 가운데는 지금도 이런 일이 있다. 심지어 교체 중에 서로를 공격하며 고의적으로 변명 거리를 찾는다. 사소한 일로 얼굴을 붉히며 싸우고 누구도 자신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으며 서로 앙심을 품은 채 상대방을 관찰하고 경계한다. 이러한 성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러한 사역으로 어떻게 형제자매들이 공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너는 사람을 생명의 바른길로 이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에게 패괴 성품을 주입시키고 있으니, 이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 아니겠느냐? 너는 양심이 썩은 자로, 정말이지 너무나 패악하다! 너는 실제로 진입하지 않고 진리도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고도 부끄러움을 모른 채 다른 사람 앞에서 그 마귀 같은 본성을 드러내다니, 참으로 낮췄도 두껍구나! 형제자매들을 네게 맡겼는데 모두 너에 의해 지옥으로 끌려갔으니, 너는 양심이 없는 자 아니겠느냐? 참으로 파렴치하구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이스라엘인의 섬김을 본받아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63)

너는 시대적 의미가 있는 적합한 언어로 하나님이 각 시대에 나타낸 성품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세 사역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느냐? 너는 너의 목양을 기다리고 있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가련하고 가난하고 경건한 그 종교 신자들에게 자신이 보고 체험한 것을 어떻게 알려 줄 것이냐? 너의 목양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어떤 ‘인물’일지 상상할 수 있겠느냐? 네가 짊어진 중책과 너에게 맡겨진 사명, 너의 책임을 너는 모두 알고 있느냐? 너의 역사적 사명감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떻게 다음 시대의 주인이 될 것이냐? 너는 주인 의식이 강렬하냐? 만물의 주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정말로 생물과 세상 모든 물질의 주인이겠느냐? 너는 다음 단계 사역의 진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너의 목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너의 임무가 무척 무겁지 않느냐?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먼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흑암 속에 떨어져 흐느끼고 있다.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밝은 빛이 문득 유성처럼 내려와 오랫동안 인간을 억압한 이 흑암 세력을 몰아내길 얼마나 갈망하고 있겠느냐? 간절히 기대하고 밤낮으로 생각하지만 누가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느냐? 심한 고난에 빠진 그 사람들은 빛이 가로지르는 날에도 여전히 흑암의 감옥에 갇힌 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언제쯤이면 더 이상 애곡하지 않겠느냐? 한 번도 안식을 취한 적이 없는 그 연약한

영들은 그렇게 참혹한 불행을 겪고 있다. 비정한 밋줄과 굳어 버린 역사(歷史)가 일찍이 그들을 그 속에 가둔 것이다. 그 흐느낌을 누가 들은 적이 있느냐? 그 근심하는 모습을 누가 본 적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손수 지은 무고한 인류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어쨌든 인류는 해를 입은 불행한 자들이다. 비록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남기는 했지만 일찍이 악한 자에게 해를 입었음을 누가 알겠느냐? 설마 너는 자신이 그 피해자 중의 하나임을 잊은 것이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생존자들을 모두 힘써 구원해 오고 싶지 않느냐? 네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부어, 사람을 자신의 골육처럼 사랑하는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써 평범하지 않은 일생을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으로 의미 있는 일생을 살 의지와 믿음이 있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너는 앞으로의 사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64)

사람은 나를 믿지만 나를 증거하지 못한다. 또 내가 드러내기 전에 나를 증거하지도 못한다. 사람은 그저 내가 피조물을 능가하고 모든 거룩한 자들보다 뛰어나다는 것, 그리고 내가 행하는 사역을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만 알 뿐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부터 현재의 사람들까지, 내 영광스러운 행사를 본 사람은 나에게 큰 호기심을 갖고 있지만 그 어떤 피조물도 나를 증거하지는 못한다. 오직 내 아버지만이 나를 증거하고, 내 아버지만이 피조물 가운데서 내게 길을 열어 주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해도 사람은 내가 창조주임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은 그저 나에게 요구할 줄만 알 뿐, 내가 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나를 알게 된 것은 내가 본래 무고하고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고, 내가 많은 비밀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사람이 내게서 이로움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창조주임을 믿는 이는 드물다. 그렇기에 사람은 왜 나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고, 나를 믿는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며, 실체가 너무 적고 나를 증거할 조건을 거의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참된 믿음이 너무 적고 얻은 것도 극히 적다. 그래서 너희가 ‘증거하는 것’도 몹시 적은 것이다. 게다가 너희들은 아는 것이 너무 적고 부족함이 너무 많아 ‘나의 행사를 증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너희의 의지가 강하기는 해도 진정 ‘하나님의 본질’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체험하고 본 것들은 역대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뛰어넘는다. 하지만 너희가 그들의 말보다 더 훌륭하게 나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 지금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것들은 모세보다 많고 다윗을 뛰어넘는다. 또한 나는 너희의 증거가 모세를 뛰어넘고 너희의 말이 다윗보다 훌륭하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에게 백배를 주었으니 너희도 나에게 백배로 갚아야 한다. 인류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는 이는 나이며, 내 생명을 받아들이고 나를 증거해야 하는 존재는 너희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준

본분이자, 너희가 마땅히 나를 위해 이행해야 할 본분이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모든 영광을 주었고, 이스라엘 선민들도 얻지 못한 생명을 주었으니, 너희는 마땅히 나를 증거해야 하며, 나를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쳐야 한다. 내게서 영광을 받는 자는 나를 증거해야 하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 이는 내가 일찍이 정해 놓은 것이다. 나의 영광을 받는 것은 너희의 복이며, 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은 너희의 본분이다. 너희가 그저 복 때문에 나를 믿는다면 나의 사역은 별 의미가 없어지며, 너희 역시 너희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것은 나의 공훈과 자비, 위대함뿐이었고, 유대인들이 본 것은 나의 인내와 구속뿐이었다. 그들은 내 영의 역사를 아주 조금밖에 보지 못했다. 심지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의 만분의 일에 불과하다. 너희가 본 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보다 더 많다. 오늘 너희가 깨달은 진리는 그들보다 더 높으며, 오늘 너희가 본 것은 율법시대보다 더 많고 은혜시대를 뛰어넘는다. 또 너희가 체험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만 알고 여호와의 뒷모습만 보았기 때문이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의 구속만 알고 예수의 은혜만 받았으며 유대 족속의 형상을 지닌 예수를 본 게 전부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너희는 ‘여호와의 영광’과 ‘예수의 구속’과 오늘날 내 모든 행사를 보았다. 또한 직접 내 영이 하는 말을 들었고, 나의 지혜를 느꼈으며, 나의 기묘함을 깨닫고, 나의 성품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내 경륜의 전부를 알려 주었다. 너희는 자비롭고 사람을 공훈히 여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가 충만한 하나님을 보았고, 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다. 또한 내게 진노와 위엄이 가득함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진노를 쏟았던 내가 오늘날 그 진노를 너희에게 내렸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너희는 하늘의 내 비밀에 대해 이사야와 요한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며, 내 사랑스러움과 존경스러움에 대해 역대 성도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나의 진리와 길과 생명뿐 아니라 요한보다도 더 큰 이상(異象)과 계시를 받았다. 너희는 더 많은 비밀을 깨달았고, 나의 본모습도 보았다. 너희는 나의 심판을 더 많이 받았고, 나의 공의 성품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렇기에 너희는 말세에 태어났지만 예전 것과 지난 것들을 깨닫고, 오늘날 내가 친히 행한 것까지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다. 너희에 대한 내 요구는 과하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었고, 너희도 내게서 매우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역대 성도들을 향해 나를 증거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바람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믿음’에 대해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65)

너는 지금 왜 나를 믿어야 하는지 진정으로 알고 있느냐? 너는 내가 사역하는 목적과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있느냐? 너는 진정 너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너는 진정 나의 증거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네가 나를 믿기만 할 뿐, 네게서 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나의 증거를 볼 수 없다면, 너는 내가 일찍이 도태시킨 대상일 것이다. 더구나 뭐든 다 알고 있다는 자들은 내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이고, 내 집에서는 걸림돌에 불과하다. 또한 내 사역에서 걸려 내야 할 가라지로서 아무 쓸모도 존재감도 없는, 오래전부터 내게 혐오받은 자다. 나를 전혀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나의 분노가 따를 것이고, 나의 채찍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그들을 악한 자의 손에 넘겼으므로 그들에게는 나의 축복이 조금도 없다. 형벌받는 날이 오면 그들은 어리석은 여자보다 더 중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나는 내가 맡은 범위의 사역만을 하고 있는데, 모든 밀을 단으로 묶고 가라지도 그 속에 넣어 함께 묶고 있다. 이것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다. 내가 키질을 할 때 그 가라지들을 모두 걸러 낼 것이다. 그다음 알곡은 곳간에 넣고, 걸러진 가라지는 불 속에 넣어 재로 만들 것이다. 지금 내가 하는 사역은 모든 사람을 단으로 묶는 것, 즉 철저히 정복하는 것뿐이다. 그 후에 키질을 시작해 모든 이의 결말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어떻게 나를 만족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나를 믿는 정상 궤도에 들어서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지금의 충성심과 순종이며, 지금의 사랑과 증거이다. 설령 네가 지금은 무엇을 증거라고 하는지,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는지 모를지라도 마땅히 너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한다. 너의 유일하고 보배로운 충성심과 순종을 내 손에 바쳐야 할 것이다. 내가 사탄을 물리친 증거는 사람의 충성심과 순종에 있고, 내가 사람을 완전히 정복한 증거 또한 사람의 충성심과 순종에 있음을 너는 알아야 한다. 나를 믿는 이상 너의 본무는 나를 증거하고, 내게 일편단심으로 충성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다음 단계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너는 나를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너는 또 어떻게 내게 충성하고 순종할 것이냐? 너는 내가 하고 있는 기능에서 충성을 다할 것이냐, 아니면 뿌리치고 그만둘 것이냐? 너는 내 모든 안배에 순종할 것이냐(설령 죽거나 멸망할지라도), 아니면 내 형벌을 피하려고 중도에 도망칠 것이냐? 내가 너를 형벌하는 것 또한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며, 내게 충성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의 형벌은 다음 단계 사역을 펼치기 위함이고, 앞으로의 사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자신의 생명과 생존의 의의를 가치 없는 한 줌의 흙처럼 여기지 말고 현명하게 행동하라고 권하겠다. 앞으로 나의 사역이 대체 어떤 것일지 네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지, 사역을 어떻게 전개할지 네가 알 수 있겠느냐? 너는 내 사역을 체험하는 의의를 알아야 하며, 더욱이 나를 믿는 것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알아야 한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는데, 어찌 네가 상상하는 것처럼 중도에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토록 큰 공사를 시작했는데, 어찌 허물 수 있겠느냐? 내가 시대를 끝내기 위해 온 것은 맞다. 하지만 내가 시대를 여는 자이자 사역을 전개하는 자이며 더구나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확장하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의 사역이 그저 시대를 여는 것이고, 앞으로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 기초를 다지는 것이며, 또 앞으로 시대를 끝내기 위해 기초를 다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나의 사역은 네가 상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고, 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혀 가치 없고 무의미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한번 너에게 알려 주겠다. 너는 내 사역을 위해 헌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너 자신을 바쳐야 한다. 나를 증거하는 것은 내가 일찍부터 바랐던 것이며, 나의 복음을 확장하는 것은 더더욱 내가 오랫동안 바라 왔던 것이다. 너는 내 마음을 알아야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믿음'에 대해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66)

너희의 믿음은 아주 진실하지만 너희 중에 나에 대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본 사실을 전부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다. 생각해 보아라. 지금 너희 대다수는 본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좇고, 욕을 만족시키고, 욕을 탐하고 누리면서 진리는 얼마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본 것을 전부 증거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진정 나의 증인이 될 자신이 있느냐? 나중에 네가 오늘 본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없다면 너는 피조물의 기능을 잃은 것이다. 그러면 너라는 사람은 존재할 의미가 조금도 없고, 사람이 될 자격도 없다.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나는 너희에게 수많은 사역을 했지만 네가 지금 배운 것도, 얻은 것도 전혀 없는 연고로, 나의 사역을 확장해야 할 때 어리둥절해하며 말문을 못 열고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다면, 너는 역사의 죄인 아니겠느냐? 그때가 되면 심히 후회하지 않겠느냐? 낙심하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은 한가하고 무료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할 사역을 위해 기초를 닦는 것이다. 절대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마땅히 내가 하는 사역이 길거리 개구쟁이가 아니라 내 아버지를 대표하여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대표하여 하는 것이며, 너희의 기능은 그저 따르고, 순종하고, 변화하고, 증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너희가 왜 나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내 아버지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세 때부터 내게 너희를 예정해 주었다. 그가 너희를 예정한 것은 나의 사역을 위해서이고 또 그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로 인해 나를 믿고, 내 아버지의 예정으로 인해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는 결코 너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를 증거하기 위해 내 아버지가 내게 준 자들임을 알아야 한다. 내 아버지가 너희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도를 지키고, 너희에게 가르친 도와 말을 따라야 한다. 너희의 본분은 나의 도를 지키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믿는 본뜻도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너희는 내 아버지가 나에게 준, 나의 도를 지키는 사람에 불과하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할 뿐 내게 속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본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옛 뱀의 부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증거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나의 도를 행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의 증거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나의 도를 듣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별다른 가치가 없다. 그러면 내 아버지가 너희를 내게 준 의미도

사라진다. 내가 변함없이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나의 도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에 대해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67)

지금 성령이 교회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너는 알고 있느냐? 형제자매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나?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이나? 지금 어떤 사람들은 시련 속에서 소극적으로 변했다. 심지어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끝내자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들어서지 못해 독립적으로 생활할 줄 모르고, 스스로 영 생활을 유지하지도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면 따라가기도 하고 힘 있게 추구하며 실행하려고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러나오지 않고, 지난날에는 강요에 밀려 하나님을 따랐다. 또 지금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위험한 상황 아니겠느냐? 많은 사람이 건성으로 대하고 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마음이 산만하고 예전처럼 힘 있게 추구하려는 마음도 없다. 하나님이 연단하고 온전케 하는 사역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항상 내면에 힘이 없는 것 같고, 과오를 이기지 못해도 하나님께 죄스러움을 느끼지 못하며, 통회할 줄도 모른다. 또한,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교회를 떠나지도 않으며 일시적으로 누리려고만 한다. 이런 자는 누구보다 어리석은 바보다! 그들은 때가 되면 모두 버림받을 것이다!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 너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말이다! 생명 진입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 모두 형벌받을 것이다. 많은 이가 생명 진입, 이상(異象), 진리의 실천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진입하려고 하지 않으며, 나아가 깊이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는 스스로를 망치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어떤 사람들은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성령이 역사할수록 내면에 더욱 믿음이 생기고,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심오함을 느낀다. 또 깊이 진입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크다고 느끼며, 마음이 편안하고 환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 역사가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없다고 해도 진리를 추구하고 더 깊이 진입하겠다고 한다. 또한 실제 체험 속에서 범사에 참답게 대하며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진입하겠다고 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 역사가 있다. 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고 모습을 감추고 말씀도 하지 않으며 음성도 발하지 않아서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 연단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 사람이 실천해야 할 진리를 지키지 못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연단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단계에서, 믿음이 없어 뒷걸음질 치고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도망친 것이며 나중에 결국 버림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진입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설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힘에 지배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사역은 주로 사람에게 진리를 얻게 하는 것이다. 너에게 생명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은 모두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고 너를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네가 지금 비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볼거리나 얻으려 하고, 어떤 새로운 것이나 움직임이 있는지 보면서 호기심을 충족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따를 수 없다.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협력하지 않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염증을 느끼기 때문이다. 사람은 늘 축복의 말씀만 듣고 싶어 할 뿐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는 말씀은 듣기 싫어한다. 왜 그렇겠느냐? 바로 복을 바라는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 소극적이고 나약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사람을 매질하려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 소극적이고 나약해지는 것은 마음가짐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며,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 사람이 소극적이고 나약해져서 뒷걸음질 치는 것은 모두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사람에게 어느 정도 연단을 주는데, 연단 속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얼굴을 가려도, 또는 말씀하지 않거나 역사하지 않아도 한결같이 추구하며, 설령 하나님이 너를 원치 않는다고 해도 계속 따를 수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향해 얼굴을 가렸다고 해서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선 것이겠느냐? 사람이 실제에 진입하지 못한 것은 실제 분량이 없는 것이기에 정말 큰 시련이 닥치면 쓰러지게 된다. 하나님이 지금 음성을 발하지 않거나 그가 하는 일이 너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으면 주저앉고, 하나님이 계속 너의 관념에 따라 역사하고 너의 뜻을 충족시켜 줄 경우에는 일어나 힘 있게 추구할 수 있다면, 너는 도대체 무엇에 의지해 사는 것이냐? 나는 많은 사람이 순전히 자신의 호기심으로 살아갈 뿐, 진실로 추구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고 말한다. 진리에 진입하려고 하지 않는 자든, 호기심에 의지해 사는 자든 모두 위험한 소인배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는 것은 모두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사람은 계속 호기심을 품고, 늘 외국 상황이 어떤지, 이스라엘은 어떤지, 애굽에 지진이 나지는 않았는지 등 뜬소문만 알아본다. 항상 이렇게 새롭고 기이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 또 생명을 추구하지도 않고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날이 빨리 와서 아름다운 꿈이 실현되고 사치스러운 욕망이 충족되기만을 바란다. 이런 사람은 실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고 관점이 바르지 않은 사람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근본이다. 생명 진입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흡족게 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징벌받는 대상이다. 징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역하는 기간에 성령 역사가 없는 사람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지키라>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68)

하나님이 이번 단계 사역을 할 때 사람은 어떻게 협력해야 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련을 주고 있다. 말씀하지 않고,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며 사람과 직접 접촉하지도 않는다. 겉으로 보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사람의 내면에서 역사하고 있다. 생명 진입을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을 추구하는 측면의 이상이 있어 하나님의 사역을 꿰뚫어 보지 못해도 의심하지 않는다. 너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이루려는지도 모를지라도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좋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진심으로 그를 추구한다면, 그가 언제나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반드시 너를 온전케 할 것이며, 사람을 적합한 종착지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에게 어떤 시련을 주든, 언젠가는 반드시 사람에게 적합한 결말을 줄 것이고, 사람이 한 모든 일과 모든 행위에 따라 그에 맞는 보상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이끌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내팽개치지는 않는다. 성령은 이 단계에서 연단의 사역을 하기에 모든 사람에게 연단을 준다. 과거 죽음의 시련이나 형벌의 시련 사역에서 연단은 다 말씀으로 임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우선 하나님이 현재 하는 사역에 대해 알아야 하고, 사람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든, 연단을 하든 음성을 발하지 않든, 어쨌든 하나님의 모든 단계 사역은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고, 사람의 관념을 타파하며, 사람의 관념을 벗어난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 특정 단계에 이르렀으며, 그는 무슨 일이 있든 절대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는 사람에게 약속도 주고 축복도 준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두 그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태될 것이다. 이는 네가 어떻게 추구하는지에 달려 있다. 어떻든 간에 너는 하나님의 사역이 끝날 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종착지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망을 주었지만, 사람이 추구하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 수 없다. 지금 너는 사람을 연단하고 형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사람은 언제나 성품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실제 체험에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네가 진입해야 할 것을 찾고 네 부족한 부분을 찾아 네 실제 체험과 결부시켜 진입해야 하며, 하나님 말씀에서 실천할 부분을 찾아 훈련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한 측면이다. 교회 생활 역시 중단해서는 안 되고 정상적인 영 생활이 있어야 하며, 현재 자신의 모든 내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야 한다. 또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바뀌든

너는 정상적인 영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영 생활을 해야 정상적인 진입을 유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너는 영 생활을 멈추지 말고 네 본분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모두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다. 똑같이 성령이 하는 역사지만 상태가 정상인 사람에게는 온전케 되는 것이고, 상태가 비정상인 사람에게는 시련이 된다. 성령이 하는 이 연단의 사역에 대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도 잘하시는 것이라고 한다. 사람의 분량이 작아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기에 연단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는 이유가 된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행하든, 어떤 변화를 주든 사람은 최소한 영 생활을 정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일정 기간 동안 영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도 얻은 것이 별로 없거나 매우 적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규례적으로라도 지켜야 한다. 생명에 해를 입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기 위해, 반드시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다. 영 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사역을 분명하게 알 수 없고, 늘 너의 관념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따르고 싶어도 마음속에서 힘이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행하든 사람은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협력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고, 사람에게 협력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성령 역사를 얻기가 어렵다. 네가 성령 역사를 얻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네 기존의 충성심을 지켜야 한다. 지금은 더 깊은 인식이나 더 높은 이론 또는 더 많은 것을 갖출 필요가 없다.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원래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뿐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고 더 깊이 진입하기를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원래 있었던 것까지 모두 거두어 간다. 사람의 마음은 늘 안락을 탐하고 이미 있는 것을 누리려고만 하며, 조금의 대가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려고 한다. 이는 사람의 사치스러운 생각이다. 조금의 대가도 치르지 않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다니,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생명 진입과 성품 변화를 추구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항상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이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규례적으로라도 지켜야 한다. 시련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과의 정상 관계를 잃지 말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형제자매들을 떠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시련을 줄 때도 진리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영 생활이다. 늘 구하는 마음을 갖고, 스스로 최선을 다해 협력하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기초로 분별력과 실제 진입을 추구한다면, 쉽게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너의 내적 상태가 정상이면 하나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진리를 실천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느끼며,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 아주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 너의 상태가 좋지 못하면 하나님이 한 사역이 아무리 좋고 다른 사람의 말이 아무리 듣기 좋아도 너는 신경 쓰고 싶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역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사람의 성품도 변화되지 못한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69)

사람에게 믿음이 전혀 없으면 이 길을 가기가 어렵다. 지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관념과 너무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한 많은 사역과 말씀은 사람의 관념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에는 자신이 본 것과 체험으로 얻은 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끈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든, 결론적으로 사람은 마땅히 자신이 가진 것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지녀야 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 이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은 해야 하는 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한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는 그 수많은 사역이 모두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연단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더욱이 형벌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은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람이 누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엄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왔으니 사람은 하나님의 위엄과 진노를 두려워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하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이행하고,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며, 시련이 있을 때마다 사람이 가져야 할 간증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힘 있게 증거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다.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하든 너는 믿음이 넘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며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즉, 사람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항상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다. 하나님이 말하는 이기는 자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의 포위 공격 아래에서, 그러니까 흑암 세력 속에서도 굳게 설 수 있고 원래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선 것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이기는 자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때는 잘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을 때 물러선다면, 이것이 정결한 것이겠느냐? 참도라고 확신했다면 끝까지 가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지켜야 하며, 하나님이 친히 너를 온전케 하려고 이 땅에 왔음을 알았다면 마땅히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혹여 마지막에 네게 나쁜 결말을 주더라도 네가 계속 따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지킨 것이다. 거룩한 영체, 정결한 동정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진심이 곧 정결함이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정결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네가 실천해야 하는 바이다.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해야 할 때는 예배하고 교제하며, 찬송을 불러야 할 때는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육을 버려야 할 때 육을 버리고, 본분을 이행할 때 건성으로 하지 않으며, 시련이 닥쳤을 때 굳게 설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만일 네가

사람이 해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전에 받은 고난과 내린 결심이 모두 헛수고가 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지키라>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70)

하나님이 하는 매 단계 사역에는 사람이 협력해야 하는 길이 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하는 것은 사람이 연단 속에서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이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연단, 책망, 훈계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내면에서 역사하여 깨우침과 빛 비춤을 주는 것은 사람이 협력하고 실천하게 하려는 것이다. 연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음성을 발하지 않아도 사람에게에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너는 원래 있는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자신의 본분을 이행한 것이다. 너희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분명히 보았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검증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자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이 너를 깨우쳐 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도 네가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누릴 때도 늘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지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할 때는 매우 힘이 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어둠에 빠진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것조차 싫어한다. 그러므로 너는 사람이 이행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모르더라도 자기 본분을 이행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진리를 실천해야 할 때 진리를 실천하면서 사람이 해야 할 것을 다 하고 원래의 이상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다음 단계 사역을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역사할 때 추구하지 않으면 곤란해진다.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고 예배에서 설교할 때는 힘이 나서 듣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어느새 힘이 빠지고 뒷걸음질 친다면 이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이는 대세를 따르는 사람으로, 자기 주관도, 증거도 없으며 이상도 없다! 많은 사람이 이런데,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시련이 닥치면 너는 징벌 속에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주관이다. 네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의심하지 않고, 사람의 본분을 이행하며 하나님이 실천하라고 한 것을 진심으로 지킨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당부를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든 하나님의 당부를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자기 주관과 증거를 지키면서 계속 승리해 나간다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기는 자로 온전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는 모든 시련에서 굳게 설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굳게 설 수 있다면, 네가 바로 이긴 자이고 하나님께 온전케 된 사람이다. 지금의 시련에서 굳게 서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욱 서기 힘들다. 작은 고난만

받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여 빈털터리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추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의 마음도 흩어져 버린다. 이는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은 실체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늘 겉으로 분주하고 열성적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 그 역시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 연단을 받을 때는 적극적인 면에서 진입해야 하고, 배워야 할 공과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내적 상태와 대조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자신이 배워야 할 공과가 아주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연단 속에서 진실하게 추구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다. 연단 가운데서 많은 일이 임하면 너는 그것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에 원망하며 자신의 육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자기 안에 패괴 성품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지키라>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71)

하나님의 말세 사역은 사람의 크나큰 믿음, 옅보다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한다. 믿음이 없으면 꺾어 나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없다. 어느 날 큰 시련이 닥쳐 이 교회에서 몇 사람이 나가고, 저 교회에서 몇 사람이 나가고, 며칠 전까지도 잘 추구하던 사람들이 이유 없이 믿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일이 닥치면 너는 영문을 알 수 없을 것이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를 보이지 않고, 초자연적인 일도 전혀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네가 굳게 설 수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실로 사람에게 연단을 준다. 지금 네가 받는 고난은 아직 적다. 앞으로 큰 시련이 닥치면 어떤 곳에서는 교회 사람 전체가 나가고 너와 사이가 아주 좋던 사람까지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그때도 굳게 설 수 있겠느냐? 지금은 네게 임한 시련이 작기에 간신히 굳게 설 수도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으로 연단하고 말씀으로 온전케 하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적인 일들이 너에게 연단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더 심각할 경우에는 하나님도 너에게 빨리 떠나라 하고 종교인들도 와서 너를 자기편으로 끌어당길 텐데, 그래도 네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보기 위한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시련이다. 아직은 시련이 작지만 어느 날 어떤 집에서는 부모가 믿지 않고, 또 어떤 집에서는 자녀가 믿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도 너는 계속 나아갈 수 있겠느냐? 네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시련은 더 커질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와 분량에 따라 사람에게 연단 사역을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단계에는 사람 수가 많아질 수 없으며 오히려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런 연단을 통해야만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다. 책망, 징계, 시련, 형벌, 저주 같은 것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어느 교회의 상황이 매우 좋고 형제자매들이 모두 힘 있게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 네 마음도 고무되겠지만, 어느 날 사람들이 모두 나가 버려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종교로 돌아간다면, 그때도 네가 굳게 설 수 있겠느냐? 네 마음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을 가지고 사람을 연단한다. 사람의 눈에는 어떤 방식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방식이 아닌 사실이다. 최종적으로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연단해 전혀 불평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 단계 사역도 끝날 것이다.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것은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고, 역사하지 않고 모습을 감추는 것은 더더욱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야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람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더 쉽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할 때는 네가 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모습을 감추었을 때야말로 네가 구하고 모색해야 한다. 너는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고, 훗날의 결말이 어떻든 종착지가 어떻든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대하든 불평하지 않아야 한다. 성령이 사람 내면에 역사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사람이 갈급한 마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한 일에 다른 마음을 품거나 의심하지 않으며 언제든 사람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만이 성령 역사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어느 단계 역사든 사람은 크나큰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한다. 그래야 체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매우 사랑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성령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알 수 있다. 체험하지 않고 모색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반드시 체험 속에서 모색해야 한다. 체험 속에서만이 하나님의 행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을 알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지키라>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73)

너는 “앞으로 더 큰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지금 한 이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온전케 되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 적어도 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며, 나아가 욥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 너는 앞으로 닥칠 시련은 욥이 겪은 시련보다 더 크고, 게다가 장시간의 형벌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간단한 일이겠느냐? 너의 자질이 향상되지 않고, 깨닫는 능력이 형편없고, 아는 것이 거의 없다면 그때에 이르러 증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웃음거리나 노리개가 될 것이다. 네가 지금 이상을 지킬 수 없다면 근간이 통째로 무너져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이다! 어느 단계의 길이든 모두 가기가 쉽지 않다. 이 일을 가볍게 보지 말라. 마지막 구간의 길도 대체 어떻게 갈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고, 미리 준비하여라. 이는 앞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고, 모든 이가 가야 할 길이다. 지금의 이런 깨달음을 허투루 흘리지 말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쓸데없는 말로 치부하지 말라. 언젠가는 쓰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나는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는다. 지금은 진리를 갓출 때이며, 앞날을 위해 길을 닦아야 할 때이다. 네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예비하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굳건히 설 수 있을지에 대해 애태워야 한다. 식충이처럼 살지 말고 앞날의 길을 위해 잘 예비해야 한다!

최대한 모든 시간을 아껴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얻어야 한다. 내가 모든 것을 주어 깨닫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3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직접 보았다.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결여된 것이 너무나 많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가 생각한 방법대로 반드시 사람들이 다 분명하게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고, 그다음에 증거하고 사용해야 한다면 너무 늦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해야 하겠느냐? 내가 백발 때까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 큰 환난을 겪게 하여 사람의 내면에 참된 깨달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사역의 절차이다. 오늘 교체하고 있는 이상을 온전히 깨닫고 진실한 분량을 갖추면 앞으로 어떤 고난을 겪든 어려움을 이겨 내고 굳건히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마지막 단계의 사역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을 다 한 후에는 사람이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러면 예전에 “성령은 모든 이에게 사명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해야 할 사역이 있다.”라고 했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앞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에 각자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다. 환난을 겪는 와중에 누가 누구를 보살필 수 있겠느냐? 모두 자기만의 고통이 있을 것이며, 사람마다 분량이 달라 각자의 분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때는 남편이 아내를 신경 쓸 겨를이 없고, 부모도 자녀를 챙겨 주지 못하며, 지금처럼 서로 챙겨 주고 붙들어 주는 것과 달리 누가 누구를 챙겨 줄 형편이 못 될 것이다. 그때는 각 부류의 사람이 드러나는 시기이다. 즉, 하나님이 목자를 치는 때가 되어 양떼가 흩어지는 것이다. 그리되면 너희는 참된 리더가 없으니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지금처럼 단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거나 하겠느냐? 앞으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모두가 본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남편은 아내를 팔고, 아내는 남편을 팔며, 자식은 부모를 팔고, 부모는 자식을 핍박할 것이므로,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 마지막 구간의 길을 올바르게 가는 수밖에 없다. 오늘날 너희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일에만 사로잡혀 있다. 이 단계의 사역을 잘 체험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너는 마지막 구간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74)

많은 사람이 훗날의 종착지나 일시적인 누림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책망도 겪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온전케 되기 위한 것이나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자 상을 받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자신의 직책을 이행하거나 본분을 완수하는 데 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주 드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천경지위(天經地緯)이자 사람의 천직이므로 살아가는 이상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이처럼, 사람마다 추구하는 목표는 제각각이지만 그 목적과 속셈은 모두 비슷하며, 또한 추구하는 많은 사람이 숭상하는 대상도 대부분 비슷하다.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신자들이 죽었고 또 수많은 신자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고 나아가 1, 2 천 명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개인의 앞날이나 훗날의 아름다운 소망을 위해 추구했을 뿐,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을 다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경건한 신자들이 수도 없이 자기 울무에 걸려 죽었고, 이긴 자는 언급할 가치도 없을 만큼 적다. 사람은 패배한 원인이나 이긴 비결을 지금까지도 분명히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열성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이런 비밀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그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이 심혈을 다해 추구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들이 가는 길은 앞사람들이 갔던 성공의 길이 아니라 실패의 길이다. 그러니 어떻게 추구하든 간에 그들이 가는 길은 모두 어둠으로 통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들이 얻는 것은 쓰라린 결과뿐 아니겠느냐? 과거에 성공한 사람을 따라 하는 자들도 최종적으로 복을 받을지 화를 입을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실패한 사람의 전철을 밟으며 추구하고 있는 자들은 어떠하겠느냐? 더더욱 실패하고도 남지 않겠느냐? 그들이 가는 길이 또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모두 헛된 길을 가는 것 아니겠느냐? 사람의 추구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결국 거기에는 모두 원인이 있다. 아무렇게나 추구한다고 득실이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공 여부는 사람이 가는 길에 달려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75)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가장 기본은 마음이 정직하며, 완전히 헌신하고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일은 일생을 바쳐 참된 믿음을 얻음으로써 모든 진리를 얻고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패한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한 것이고, 더욱이 그리스도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것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주를 위해 본분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보고서도 피해 자기 자신의 길을 가기 때문에, 늘 실패한 사람이 갔던 길을 따라 추구하고 때문에, 또 늘 하늘을 거역하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고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며 자신의 울무에 빠진다.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데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너무나 숭상하는 데다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늘 무턱대고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순종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대한 위인들과 인간 세상의 풍파를 겪은 사람들마저도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형벌 속에서 죽었다. 나는 그들이 모두 비명에 죽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결말, 즉 그들의 죽음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그들의 실패는 더더욱 하늘의 이치로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 진리는 인간 세상에서 온 것이지만, 인간 세상의 진리는 그리스도가 전한 것이고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진리를 공급할 뿐, 사람이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까지는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리를 얻는 데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은 본래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일이며, 사람이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사람의 종착지나 성패를 모두 하나님께 떠맡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일이 아니라 피조물이 이행해야 하는 본분과 직접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바울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추구하고 종착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그들의 결과만 알 뿐, 그들의 성공 비결이나 실패의 원인은 알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이 추구한 본질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너희의 추구도 대부분 실패할 것이고, 설령 소수의 사람들이 성공할지라도 베드로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추구하는 길이 옳은 길이라면 성공할 희망이 있지만, 내가 진리 추구를 위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너는 영영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또 바울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공 여부는 사람이 가는 길에 달려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76)

베드로는 온전케 된 사람이다. 그는 형벌과 심판을 겪은 후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마음이 생겼고 그런 다음에야 완전히 온전케 되었다. 그가 간 길은 온전케 되는 길이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처음부터 올바른 길을 갔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가짐도 옳았기 때문에 온전케 된 것이다. 그가 간 길은 앞사람이 간 적 없는 새 길이었다. 반면 바울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길을 갔다. 다만 성령이 그를 쓰려고 했고 그의 은사와 모든 장점을 이용해 사역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몇십 년 동안 사역하게 되었을 뿐이다. 그는 그저 성령께 쓰임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가 쓰임 받은 것은 그의 인성이 예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은사 때문이었다. 바울이 예수를 위해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그를 쳤기 때문이지, 그가 기꺼이 예수를 위해 사역한 것은 아니었다. 바울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깨우쳐 주고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한 사역은 그의 추구하고 인성을 대변할 수 없다. 바울이 한 사역은 종의 사역을 뜻한다. 즉, 그가 행한 것은 사도의 사역이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다르다. 그도 일부 사역을 했고, 비록 바울만큼 큰 사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사역과는 달리 자신의 진입을 추구하면서 사역했다. 베드로가 한 사역은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었다. 그는 사도의 자리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역했다. 바울도 사역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가 추구한 것은 그저 미래의 소망과 좋은 종착지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사역하면서 연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책망과 훈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자신을 위한 상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사역에는 그 자신의 체험이 없었다. 그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역을 위한 사역을

했다. 그의 사역에는 거래만 있을 뿐 피조물의 본분이나 순종은 조금도 없었다. 그는 사역하는 동안 옛 성품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그가 한 사역은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한 것일 뿐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바울은 온전케 되는 과정도, 책망을 받는 과정도 없이 바로 사역했다. 그의 마음가짐은 오로지 상을 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다. 베드로는 책망과 훈계와 연단을 거친 사람이었다. 이 두 사람의 사역 목적과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다. 베드로는 사역은 그리 많이 하지 않았지만 성품이 많이 변화되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진리와 참된 변화였지, 단순히 사역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바울이 많은 사역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사역들은 모두 성령의 역사였다. 설사 그가 협력했다 할지라도 그의 체험에서 온 것은 아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많지 않은 이유는 단지 성령이 그에게서 그리 큰 역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전케 되는지의 여부는 사역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상을 받고자 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며, 더 나아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고자 했다. 겉모습도 다르고 본질도 다르다. 너는 사역의 양만 보고 그들 중에 누가 온전케 된 것인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를 추구했으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훈계와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추구했다. 그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었으며,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 그에게는 이런 각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대로 해냈다. 마지막에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다른 결말을 맞이한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한 사역은 온전케 하는 것이었고, 바울에게 한 사역은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는 그들이 추구하는 관점이나 그들의 본성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둘 다 성령 역사가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역사를 자신에게 적용하였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기도 했다. 반면 바울은 성령 역사를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만 공급했을 뿐,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리하여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여러 해 체험하고도 변화가 미미해 거의 천연적인 모습 그대로였으며, 여전히 과거의 바울이었다. 단지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어 ‘사역’하는 법을 배우고 인내를 배웠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옛 성품, 즉 승부욕이 강하고 이익만을 꾀하는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사역하고도 자신의 패괴 성품을 알지 못했고, 자신의 옛 성품도 벗어 버리지 못했다. 이 옛 성품들은 그의 사역에서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바울은 그저 사역의 경험만 좀 늘었을 뿐이었다. 이 약간의 경험으로는 그를 변화시킬 수 없었고, 생존에 대한 그의 관점과 그가 추구하는 의의를 바꿀 수도 없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오랫동안 사역했고, 예수를 핍박하던 때의 행위를 다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속 인식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을 바치기 위해 사역한 것이 아니라 훗날의 종착지를 위해 마지못해 사역한 것이었다. 그는 처음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원래부터 그리스도를 고의로 대적한 패역자였으며, 원래부터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까지도 그는 여전히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했고, 그저 자신의 성격대로 독단적으로 행동하면서 성령의 뜻은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렇기에 그의 본성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인 것이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령 역사에 버림받은 사람, 성령 역사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그가 한 사역이나 그가 얼마만큼 바쳤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역사를 아는지, 진리를 실행했는지, 추구하는 관점이 진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공 여부는 사람이 가는 길에 달려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77)

베드로도 예수를 따르면서 타고난 성품을 드러낸 적은 있었지만, 본성을 보자면 그는 처음부터 성령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원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성령께 순수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명리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리에 순종했다. 베드로는 비록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를 시험했지만, 이런 약간의 인성의 연약함은 그의 본성과 무관하며, 훗날 그가 추구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 또한 그의 시험이 적그리스도의 행위라고 증명할 수도 없다. 인성의 보편적인 연약함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인데, 너는 베드로만 예외적이기를 바라는 것이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부정적인 관점을 지니는 것은 그가 어리석은 일을 몇 번 했기 때문 아니더냐? 반면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숭상하는 것은 바울이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서신을 썼기 때문 아니더냐?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본질을 분명히 알 수 있겠느냐? 진정으로 이성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작은 일을 분명히 알지 못한단 말이냐? 베드로가 겪은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체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참된 체험이 없음을 증명할 수는 없고, 베드로가 온전케 된 사람이 아님을 증명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측량할 수 있겠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가 직접 선택해 수록한 것이 아니라 후세 사람이 편찬한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 사람의 뜻에 따라 선택된 것 아니겠느냐? 게다가 서신에는 베드로와 바울의 결말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그리하여 사람은 자신의 안목과 취향에 따라 베드로와 바울을 평가하게 되었다. 또 바울은 사역을 아주 많이 하고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깊은 신뢰를 얻었다. 사람은 모두 외적인 것을 중시하지 않더냐?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바울은 몇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숭상받는 대상이었는데, 누가 감히 그의 사역을 가볍게 부정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는 그저 그물을 던져 고기 잡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바울처럼 큰 ‘기여’를 할 수 있었겠느냐? 기여한 것으로 보면, 베드로보다 바울이 먼저 상을 받아야 하고, 베드로보다 바울이 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대할 때 단지 그의 은사를 빌려 사역했고, 베드로를 대할 때는 온전케 하고자 했다. 이것은

처음부터 예수가 그들에게 미리 계획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유한 본성에 따라 온전케 하거나 사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외적으로 기여한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본질과 사람이 원래부터 추구하는 길, 그리고 마음가짐을 본다. 사람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모두 사람의 관념과 안목에 따라 판단한다. 하지만 사람의 최종적인 결말은 사람의 외적인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가 처음부터 성공의 길을 가고 올바른 관점으로 추구한다면 너는 베드로처럼 될 것이고, 반대로 실패의 길을 간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든 바울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어쨌든, 너의 종착지나 성패는 네가 희생한 것이나 치른 대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길이 옳은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베드로와 바울, 이 두 사람은 본질이 다르고 추구한 목표도 다르다. 이런 것들을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온전히 알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본질을 보지만, 사람은 자신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사람 내면의 본질을 보지 못하며 내면의 실제 분량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의 성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바울을 숭상하지, 베드로를 숭상하지는 않는다. 바울이 쓰임 받아 공개적으로 사역한 것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바울의 ‘업적’을 인정하는 것이다. 반대로 베드로의 체험은 사람들이 볼 수 없고 그가 추구한 것은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베드로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성공 여부는 사람이 가는 길에 달려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78)

베드로는 책망과 연단을 겪어 온전케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겠나이다. 제가 행하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기만을 원하나이다. 설사 형벌과 심판을 받을지라도 기꺼이 원하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다. 그의 사역과 말, 모든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체험할수록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졌다. 반면 바울은 표면적으로만 사역했다. 비록 그도 공을 들이긴 했지만 그것은 사역을 잘해서 상을 받기 위함이었다. 만약 그가 자신이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바로 사역을 그만두었을 것이다. 베드로는 마음속 진실한 사랑과 현실적으로 닿을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자신이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바울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사역하는 것에 치중하고 외적인 사역과 기여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정상인의 체험에 없는 도리적인 것을 중시했다. 그는 깊은 곳의 변화와 진실한 사랑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베드로의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과 참된 인식을 갖기 위함이었으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실제적으로 살아 내기 위함이었다. 바울의 사역은 예수에게 받은 사명을 위한 것이자 자신이 얻고자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 자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는 무관했다. 그의 사역은

전적으로 형벌과 심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베드로는 순결한 사랑을 추구했고,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추구했다. 베드로는 여러 해 동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실제로 알게 되었으며 자신에 대해서도 깊이 알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 역시 순결했다. 여러 해 연단을 겪으며 예수와 생명에 대한 그의 인식도 높아졌다. 그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자발적인 사랑이었다. 그는 보수를 바라지 않았고 그 어떤 이득도 바라지 않았다. 반면 바울은 오랫동안 사역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했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다. 그가 사역하고 열심히 뛰어다닌 것은 마지막에 월계관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최고의 면류관이지 가장 순결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는 자발적으로 추구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추구했으며, 본분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 역사에 붙들려 어쩔 수 없이 추구했다. 그러므로 바울의 추구는 그가 합당한 자격을 가진 피조물임을 증명할 수 없다. 베드로야말로 본분을 이행한, 합당한 자격을 가진 피조물이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께 기여하면 상을 받아야 하고 또 크게 기여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의 관점을 보면 그 본질은 거래의 성질을 띤 것이지, 자발적으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즉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인정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사람에게 사람의 원래 본분을 회복하고 원래 지위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람은 피조물이므로 선을 넘어 하나님께 그 어떤 요구도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바울과 베드로의 종착지는 그들이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되었다. 또 그들이 얼마나 많이 사역했는지, 그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지가 아니라 그들이 원래 추구한 것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길이 가장 옳은 길이며, 옛 성품을 변화시켜 순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성공의 길인 것이다. 성공의 길이란 피조물이 원래의 본분과 모습을 되찾는 길, 즉 회복의 길이며,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한 모든 사역의 근본 취지이다. 사람의 추구에 여전히 자신의 사치스러운 요구와 불합리한 소망이 섞여 있고 성품 변화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것은 회복의 사역과 서로 어긋나며 틀림없이 성령이 행한 사역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추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추구가 또 무슨 의의가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공 여부는 사람이 가는 길에 달려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79)

바울이 한 사역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가 마음속 깊이 얼마나 순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 사람들은 볼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그가 행한 사역만 보고 그가 확실히 성령께 쓰임 받았다는 것만 알 수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훌륭하고 그가 행한 사역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단지 개인의 체험만을 중시했다. 가끔 사역을 해도 사람을 많이 얻지 못했으며, 몇 통 안 되는 서신도 이름나지 않았다. 하지만 베드로가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누가 알 수 있었겠느냐?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사역했고, 사역이 있기만 하면 가서 했다. 그는 그렇게 하면 면류관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흡족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사역하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추구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흡족게 하지 못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지 못하면 통회했으며, 그 후에 적합한 길을 찾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기 위해 힘써 노력했다. 그는 생활 속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려고 했으며, 자신의 옛 성품을 조금도 그냥 넘여가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진리에 깊이 들어가려고 했다. 반면, 바울은 외적인 명예와 지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추구했을 뿐 생명 진입에서 깊이를 더하는 것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실체가 아니라 도리였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그를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위해 겨우 그 정도 사역을 했을 뿐이고 교회에 기여한 바도 별로 크지 않은데, 하나님은 왜 그를 온전케 하셨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간증이 있는 사람이다. 바울은 어떠했느냐?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너는 아느냐? 바울이 사역을 한 것은 무엇을 위함이었느냐? 베드로가 사역을 한 것은 또 무엇을 위함이었느냐? 베드로가 비록 사역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너는 아느냐? 바울이 한 사역은 교회에 공급하고 교회를 붙들어 주는 것이었으며, 베드로가 체험한 것은 생명 성품의 변화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 네가 그들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누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고 누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고, 한 사람은 진실로 사랑하지 않았다. 또 한 사람은 성품의 변화가 있었고, 한 사람은 성품의 변화가 없었다. 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섬긴 까닭에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았고, 한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을 숭상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형상을 가졌다. 한 사람은 성결해지기를 추구하고, 한 사람은 성결해지기를 추구하지 않았다. 더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순결한 사랑은 전혀 없었다. 한 사람은 진정한 인성이 있었고, 한 사람은 진정한 인성이 없었다. 한 사람은 피조물의 이성이 있었고, 한 사람은 피조물의 이성이 없었다. 이것이 바울과 베드로의 본질적인 차이이다. 베드로가 간 길은 성공의 길, 즉 정상 인성을 회복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회복하는 길이었다. 베드로는 성공한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 바울이 간 길은 실패의 길이었다. 바울은 겉으로만 순종하고 헌신할 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진리가 없는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흡족게 하고자 했으며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에 순종하고자 했다. 그는 형벌과 심판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연단과 환난, 궁핍한 생활 역시 받아들였으며,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것 아니겠느냐?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한 것 아니겠느냐? 형벌이든 심판이든 환난이든 너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피조물이 도달해야 하는 경지이자, 사랑 안에 있는 순결한 요소이다. 사람이 이런 경지에 도달한다면 그는 합당한 자격을 가진 피조물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창조주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을 위해 사역은 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너는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죄받을 것이다. 너는 진리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진리를 실행하는 것과 자신에 대한 인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창조주를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할뿐더러 창조주께 순종하지도 않고 창조주를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너는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창조주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공 여부는 사람이 가는 길에 달려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80)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바울은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교회에 큰 책임감을 갖고 있었으며, 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울의 서신 13 권은 은혜시대를 2 천 년 동안 유지했고요. 4 복음서를 제외하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울의 13 권 서신인데, 누가 그와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 쓴 계시록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지만, 바울이 쓴 서신은 모두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그는 교회에 유익한 사역을 했지요. 다른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기여도를 따지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사람의 본성을 기준으로 한다. 바울은 생명을 추구한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본질을 알지 못한 사람이다. 그는 결코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본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세부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진리를 실행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부족한 면과 연약한 면, 피조물의 패괴 성품에 대해 모두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성품의 변화를 위한 실행의 길도 있었다. 그는 이론만 있고 실체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변화한 사람은 구원받은 새사람이자 진리를 제대로 추구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천연적인 모습 그대로인 옛 사람이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가 아무리 큰 사역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너 자신의 추구하고 비교해 보면, 네가 베드로 같은 사람인지 바울 같은 사람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네가 추구함에 있어 여전히

진리가 없고, 지금까지도 바울처럼 교만하고 거칠게 굴며 허풍을 늘어놓는다면 너는 패배한 인간쓰레기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네가 베드로처럼 추구하고자 한다면, 즉 베드로처럼 실행하고 진실하게 변화하고자 하며, 교만하게도 방자하게도 굴지 않고 본분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너는 이길 수 있는 피조물일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본질과 패괴를 알지 못했고 자신의 패역은 더욱 알지 못했다. 그는 예전에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비열한 행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크게 통회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조금 해명했을 뿐이다. 그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온전히 굽히지 않았다. 비록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엎드리기는 했지만, 자신을 마음속 깊이 성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역하는 것에만 만족했다. 바울은 자신을 알아 가는 것과 자신의 옛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입에만 달고 있는 진리로 만족했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자신의 양심을 달래는 것에 만족했으며, 예수의 제자들을 더 이상 핍박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지난날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에 만족했다. 그가 추구한 목표는 그저 훗날의 면류관과 일시적인 사역이고, 풍성한 은혜였을 뿐, 충분한 진리를 추구하고자도 않았고 지난날 깨닫지 못한 진리에 더 깊이 진입하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의 인식은 거짓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형벌과 심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가 자신의 본성과 본질에 대해 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외적인 행위에만 치중하고 변화가 아닌 인식에만 힘썼다. 그가 사역을 한 것은 전적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가 그에게 나타난 결과였다. 그는 처음부터 그런 의지를 가졌던 것이 아니고, 옛 성품이 책망받은 후에 사역을 한 것도 아니다. 그가 어떻게 사역하든 그의 옛 성품은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은 그가 지난날에 지은 죄를 속량하지 못하고 그저 당시의 교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뿐이다. 이렇게 옛 성품이 고쳐지지 않은 사람, 즉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 더욱이 진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예수께 열납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사랑과 경외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진리를 찾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성육신의 비밀을 찾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는 그저 궤변에 능하고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나 진리가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굽히기 싫어한 자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과 상반되거나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 혹은 진리를 질투했으며, 위대한 형상을 지니고 해박한 지식을 갖춘 인재들을 좋아했다. 그는 진리만을 사랑하고 참도를 찾는 가난한 사람들과 왕래하기를 싫어했고, 도리만 말하고 지식이 풍부한 종교계 고위층 인사들과 접촉하기를 좋아했다. 그가 좋아했던 것은 성령의 새 역사가 아니었고, 그가 중요시했던 것도 성령의 새 역사 동향이 아니었다. 그는 일반적인 진리보다 높은 규례와 도리를 좋아했다. 그의 선천적인 본질과 그가 추구한 모든 것을 놓고 보면,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전혀 없고, 하나님 집의 충실한 종이라고 불릴 자격은 더더욱 없다. 그에게는 가식적인 것이 너무 많고 패역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예수의 종이라고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천국의 문에 들어설 자격이 전혀 없다.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행한 것은 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한 적이 있지만 가식적이고 불의를 행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를 악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불의를 행한 자라고 하면 딱 맞을 것이다. 그가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의 양을 놓고 논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가 한 사역의 질과 본질을 두고 논해야 한다. 그래야만 일의 경위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사역을 잘하고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나는 주님의 부담을 생각한다. 아무도 나만큼 주님의 부담을 생각하지 못했고, 아무도 나만큼 깊이 회개하지 못했다. 나는 큰 빛 비춤을 받았고, 큰 빛을 보았으니 누구보다도 깊이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당시 바울의 생각이었다. 그는 해야 할 사역을 끝낸 후 이렇게 말했다.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다 마치고 달려야 할 길을 마쳤으니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가 싸우고 사역하고 달려온 것은 전적으로 의의 면류관을 위한 것이었지, 적극적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었다. 바울이 사역을 대충 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사역은 그저 자신의 과오를 만회하고 더 이상 양심에 참소받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하루빨리 사역을 끝내고,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싸워야 할 싸움을 다 마쳐 자신이 소망하는 의의 면류관을 빨리 얻게 되기만을 바랐다. 그가 바라는 것은 자신의 체험과 참된 인식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사역을 끝내 예수를 만났을 때 사역한 것에 대한 상을 받는 것이었다. 그는 사역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사역으로 거래함으로써 훗날의 면류관과 맞바꾸려고 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진리도 하나님도 아닌 오로지 면류관이었다. 이런 것을 어찌 제대로 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의 속셈, 그가 한 사역, 그가 치른 대가, 그의 모든 희생은 자신의 아름다운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사사로운 소망에 따라 사역했다. 그가 모든 사역에서 치른 대가는 기꺼이 원해서 치른 것이 아니라 그저 거래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렀던 것이다. 그렇게 치른 대가가 또 몇 푼의 가치가 있겠느냐? 누가 또 그 깨끗하지 못한 대가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런 대가에 흥미를 갖겠느냐? 그의 사역에는 내일에 대한 몽상과 아름다운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을 뿐,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길은 전혀 없었다. 그에게는 가식적인 자비가 너무나 많았고, 그의 사역은 생명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고상한 척하며 거래를 한 것이었다. 그런 사역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람의 원래 본분을 회복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공 여부는 사람이 가는 길에 달려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81)

베드로가 추구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설사 고통받고 화를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고자 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추구다. 바울이 추구한 것에는 자신의 육체, 자신의 관념, 자신의 타산과 의도가 섞여 있었다. 그는 합당한 자격을 가진 피조물이 전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고자 구한 사람도 아니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대로 따르고자 했다. 비록 베드로가 한 사역이 크지는 않지만, 그가 추구한 마음가짐과 걸어온 길은 옳은 것이었다. 그는 사람을 많이 얻지는 못했지만 진리의 도를 추구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까닭에 그가 합당한 자격을 가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설령 네가 지금은 사역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대로 모두 따를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든 다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어떤 환난과 연단도 모두 겪을 수 있어야 하고, 연약하지만 마음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생명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추구하는 관점이 옳바르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원한다. 네가 많은 사역을 하고 다른 사람도 너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 해도, 정작 너 자신은 변화가 없고 조금의 간증도, 참된 체험도 없으며, 죽기 전까지도 네가 하는 일에 간증이 전혀 없다면, 이런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겠느냐? 진리를 추구한 사람이겠느냐? 성령이 당시에는 너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때 사용하는 것은 네가 사역할 수 있는 부분이며,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다. 네가 변화를 추구한다면 쓰임 받는 과정에서 점차 온전케 될 것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네가 얻어지는 것까지 성령이 모두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네가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 너 자신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네가 추구하는 관점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 자신의 문제로, 이는 너 자신이 진리를 실행하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체험이 가장 중요하고 개인의 진입이 가장 관건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제가 당신을 위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로는 없어도 고생은 했으니 최소한 제가 천국에 들어가 생명의 열매를 먹게는 해 주셔야죠.”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나라에는 더러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더러운 사람이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네가 오랫동안 많은 사역을 했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더럽기 짝이 없다면, 네가 내 나라에 들어가려는 것은 하늘의 이치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나는 나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그 어떤 이에게도 특혜를 준 적이 없다. 이것은 아무도 깰 수 없는 하늘의 규칙이다! 너는 생명을 추구해야 한다. 오늘날 내가 온전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베드로 같은 부류의 사람이고, 자신의 성품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만이 온전케 될 수 있다. 만약 네가 자신의 생명 성품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상만 받으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것이다. 이것은 영원불변의 진리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공 여부는 사람이 가는 길에 달려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82)

베드로와 바울이 지닌 본질의 차이를 통해, 너는 마땅히 생명을 추구하지 않으면 모두 헛수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패괴 성품을 벗어 버려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고자 해야 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상, 너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하고, 개인적인 선택과 요구가 없어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해야 한다. 너는 지음 받은 사람인 이상 너를 지은 창조주께 순종해야 한다. 너는 원래부터 너 자신을 주관할 수 없고, 너의 운명을 지배할 본능도 없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이상 성결해지고 변화되기를 추구해야 한다. 너는 피조물인 이상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분수를 알아야 하며 자신의 본분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교조적인 것으로 너를 억압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네가 본분을 이행하는 경로이자,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해야 하는 것이다. 베드로와 바울의 본질을 비교해 보면 네가 어떻게 추구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와 바울이 간 길 중 하나는 온전케 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도태되는 길이다. 그들 두 사람은 두 갈래 길을 대표한다. 비록 그 두 사람 모두 성령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이 있었으며 예수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각자 맺은 열매는 전혀 달랐다. 한 사람은 참된 성과가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참된 성과가 없었다. 그 두 사람의 본질과 행한 사역, 길으로 드러난 것과 마지막 결말을 통해, 너는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 그 두 사람이 간 길은 가장 분명한 두 갈래 길이다. 바울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은 각각 두 갈래 길을 대표하는 가장 좋은 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을 전형적인 예로 삼은 것이다. 바울의 체험에서 핵심은 무엇이나? 그는 왜 얻지 못했느냐? 베드로의 체험에서 핵심은 무엇이나? 그는 어떻게 체험해서 온전케 되었느냐? 이 두 사람이 각각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비교해 보면, 너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이 온전케 되고 어떤 사람이 온전케 될 수 없는지, 온전케 되는 사람의 성품은 어떠한지, 온전케 될 수 없는 사람의 성품은 또 어떠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실질적인 문제는 베드로와 바울의 체험에서 모두 발견할 수 있다.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권세 아래로 돌아와 순종하게 한다. 그는 만유를 주관하여 만유가 모두 자신의 수중에 있게 한다. 동물, 식물, 인류, 산천, 호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그의 권세 아래로 돌아올 것이다. 하늘의 만물이든 땅의 만물이든 모두 그의 권세 아래로 돌아올 것이며, 선택의 여지 없이 모두 그의 지배에 순종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규정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병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여 만물이 다 질서를 갖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기 부류대로 나뉘며 각각 자기 위치에 있게 한다. 아무리 큰 것도 하나님을 넘어서질 수 없으며 모두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를 위해 이바지한다. 어떤 것도 감히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다른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음 받은 사람도 반드시 사람의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사람이 만물의 주인이든 만물의 관리자든 관계없이, 또 사람이 만물 가운데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작디작은 사람일 뿐이다. 그저 작디작은

사람이고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다. 피조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은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고,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의 이익과 소망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옳은 추구 방식이다. 네가 추구하는 것이 진리이고 실행하는 것이 진리이며 얻은 것이 성품의 변화라면, 너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 네가 추구하는 것이 육적인 복이고, 실행하는 것이 자신의 관념 속 진리이며, 성품에 어떤 변화도 없고 육신의 하나님께 전혀 순종하지 않은 채 여전히 막연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면, 네가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너를 지옥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것은 네가 실패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온전케 될지, 도태될지는 너 자신의 추구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성공 여부는 사람이 가는 길에 달려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공 여부는 사람이 가는 길에 달려 있다> 중에서

생명 진입[4]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83)

하나님을 믿는 것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많은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제 하나님과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또는 재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어느 정도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순종은 조건부 순종이자, 개인의 앞날을 전제로 한 순종이며,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대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그저 장래와 운명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낫다. 너의 그런 ‘믿음’은 자기 자신을 우롱하는 것이고, 자기 위안이며 자아도취다. 너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너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인해 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구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리를 찾고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실천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만약 네 본심이 정말 이러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높이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만약 네 본심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네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심지어 너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너의 말투가 부드럽고, 태도가 온화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의 일거수일투족과 표정이 적절하여 순종하는 자처럼 보이더라도, 너의 본심과 하나님을 믿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가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 겉으로 양과 같이 순종하면서 마음속에는 악의를 품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이며, 직접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단 한 명도 용서하지 않는다. 성령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들을 한 명씩 드러낼 것이다. 외식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께 버림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처벌하고 해결할 것이니 누구도 걱정하지 말라.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84)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늘날 하는 일을 꿰뚫어 보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으며, 의심하거나 판단하거나 연구하고 분석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늘의 빛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전히 어제의 빛을 소중히 여기고 새 사역을 대적한다면, 이런 사람은 순전히 나쁜 놈이고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장 새로운 빛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그저 현 상태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것들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사람 내면에 여러 가지 관념과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을 만들어 냈으며, 이런 것들이 모두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므로 사람이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의 관념이자, 자신의 상상 속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네가 너의 상상 속 하나님을 기준으로 오늘날 실제로 사역하는 하나님을 판단한다면 너의 믿음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며, 이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아무리 많이 헌신해도, 설령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심지어 순교를 해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조금 베풀어 주어 잠시 누리게 할 뿐이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실천했다고 할 수 없다. 성령은 이런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씩 도태시킬 것이다. 나이가 많은 적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모두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이다. 이런 사람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 도태될 대상이다. 하나님에 대해 조금의 순종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친절함과 사랑스러움을 조금 느낄 뿐 성령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성령의 현재 사역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얻어질 수 없고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도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 통해, 생활 속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한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성품이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진실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며, 하나님께 얻어지기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만 누린다면, 순종, 경건함, 사랑과 인내는 모두 표면적인 것에 그칠 뿐 온전케 되거나 변화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 누린다면,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한다. 설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해도 알팍한 것이다. 혹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거나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람에게 생명이 있거나 참된 인식이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연단할 때, 또는 사람에게 시련을 줄 때,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넘어진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과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쌓은 낡은 경험, 또는 성경을 원칙으로 한 각종 규례만 있을 뿐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느냐! 모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순종을 바라겠느냐? 이는 규례를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만족과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 만약 이런 것을 일컬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너는 애굽의 바로이고, 악을

행하는 자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의 이러한 섬김을 원하겠느냐? 너는 하루빨리 회개하고 네 주제를 좀 아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너에게 더 이로울 것이다. 방해나 교란을 하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살림이나 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벌을 받지 않도록 말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85)

성령 역사는 하루하루 새로워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아진다. 내일의 계시는 오늘보다 더 높으며, 한 걸음씩 계단을 오르듯 언제나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 하나님은 이런 사역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한다.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면 언제라도 도태될 수 있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 낡은 시대는 지나가고 지금은 새로운 시대다. 새 시대에는 새 사역을 한다. 특히 사람을 온전케 하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더 새로운 사역을 더 빠르게 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기 어렵다. 하나님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며 어느 단계의 사역도 영원불변한 사역으로 여기지 않고, 언제나 더 새롭고 더 높은 사역을 한다. 그의 사역은 한 단계 한 단계 더 실제적이고, 행할수록 점점 더 사람의 실제적인 요구에 부합하게 된다. 사람은 오직 이런 사역을 체험해야만 최종적인 성품 변화에 이를 수 있다. 생명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므로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 또한 점점 높아진다. 그래야만 사람이 온전케 되어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해진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은 한편으로는 사람의 관념을 깨서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더 높고 실제적인 경지에 진입하고, 또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가장 높은 영역에 진입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본성이 패역하고 고의로 대적하는 사람들은 빠르고 거센 이 단계 사역에 의해 모두 도태될 것이다.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러한 사역에서 너희는 모두 순종하기를 배우고 관념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하며 발을 내디딜 때마다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 세심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대한다면 반드시 성령께 버림받는 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단계 사역을 체험하기 전에 사람에게서는 낡은 규례와 율례가 그야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리하여 모두가 이성을 잃었고, 득의양양해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원수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마음과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위험해진다. 네가 그저 간단한 사역과 말씀에만 순종하고 더 깊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는 옛것을 지키는 사람이므로 성령 역사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얻어진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86)

하나님의 사역은 시대마다 서로 다르다. 네가 이 기간의 사역에 잘 순종했더라도 다음 기간의 사역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거나 순종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너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 단계로 올 때 네가 따라왔다면 다음 단계로 갈 때도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시종일관 변함없이 순종해야 한다. 기분이 좋을 때만 순종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순종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내가 새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따라오지 못하고 과거의 견해를 고집한다면 너의 생명이 성장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을 통해 너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네가 순종하고 받아들인다면 성령은 반드시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성령은 내가 말하는 대로 역사하므로 너희가 내 말대로 한다면 성령이 곧바로 너희에게 역사할 것이다. 나는 새 빛을 너희에게 보여 주고 너희 모두를 현재의 빛 속으로 인도한다. 네가 현재의 빛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은 즉시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누군가 인정하지 못하고 “저는 당신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네게 이제 길이 없으며 메마르고 생명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빛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부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더욱이 교회에서도 역사하는데, 누구에게 역사할지는 알 수 없다. 지금 네게 역사한다면 너는 체험할 것이고,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역사한다면 너는 빨리 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의 빛을 따를수록 생명은 더 자란다.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한 것이라면 너는 따라야 한다. 네가 체험하는 가운데 그의 체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 더 높은 것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실행하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길이요, 생명이 성장하는 경로이다. 너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함으로써 온전케 되는 길에 이를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너를 온전케 할지 모르고, 어떤 사람과 일, 사물을 통해 너로 하여금 얻게 하고 깨달음을 갖게 할지도 모른다. 네가 이 정상 궤도에 들어설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이 길에 들어서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의 앞날이 어둡고 암담하다는 뜻이다. 네가 이 정상 궤도에 들어서면 모든 일에서 계시를 얻을 수 있다.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든 네가 그의 인식에 따라 체험한다면 그것은 너의 생명이 될 것이다. 또한 너는 그 체험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남의 말을 흉내 내어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이는 체험이 없는 사람이다. 반드시 다른 사람이 얻은 빛 비춤과 깨우침에서 실행의 길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 뒤에 자신이 실제로 체험한 것과 깨달은 것을 말한다면 자신의 생명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체험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에 순종하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공과를 배워 너의 생명이 자라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실행하면 가장 빨리 성장한다.

성령은 너의 실제 체험을 통해 너를 깨우쳐 주고, 또 너의 믿음을 통해 너를 온전케 한다. 너는 진정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면 욕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극적이거나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에 순종하며, 앞에서 한 것이든 뒤에서 한 것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정직한 사람이 되어 모든 일에서 진리를 실행한다면, 이런 사람이 바로 온전케 된 사람이다. 앞서서와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간사한 사람은 모두 온전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고, 침륜의 자식이자 멸망의 자식이며,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 너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고 하나님 영의 감찰을 받을 수 없다면 이는 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고 성품 변화에 주력해야만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순종해야 하며, 아무 원망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을 제멋대로 판단하거나 단정 짓지도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다.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란 어떤 것이겠느냐? 바로 너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너의 마음가짐이 옳기 때문에, 네가 한 일이 옳든 그르든 용감하게 내놓아 하나님께 보여 드리고 형제자매에게 보여 주며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속마음과 생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실천하고 진입한다면 네 생명은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얻어진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87)

네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을 믿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조차 할 수 없다면 믿고 안 믿고는 거론할 수도 없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순종하고 너의 관념대로 따르게 한다면, 너는 가장 패역한 사람이며 불신파다. 이런 사람이 어찌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가장 패역한 사람은 일부러 하나님께 불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원수이며 적그리스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새 사역을 항상 적대적인 태도로 대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며, 기꺼이 순종하거나 자신을 낮춘 적도 없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가장 대단하다고 여기며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도’에 대해 가장 잘 나누고 다른 사람의 일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보배’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오히려 그것을 가보로 삼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함으로써 자신을 우러러보는 아둔한 이들을 가르친다. 교회에는 확실히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굴복을 모르는 영웅

세가'로, 대대로 하나님 집에 얹혀산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도'(리)를 얘기하는 것을 자신의 최고 직책으로 삼고, 한 해 또 한 해, 한 세대 또 한 세대 이어 가며 자신들의 신성불가침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누구도 감히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누구도 감히 그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지 못한다. 하나님 집에서 '거물'이 된 그들은 시대마다 권세를 믿고 제멋대로 날뛰다. 이 악마의 무리가 연합하여 나의 사역을 허물려고 하는데, 내가 어찌 이런 산 귀신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내게 절반만 순종하는 사람들도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순종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이 악한 자들은 어떻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전력을 다해도 그중 일부만 얻고서 최종적으로 온전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역을 망가뜨리려고 시도하는 천사장의 후손들은 어떻겠느냐? 그들은 더더욱 하나님께 얻어질 희망이 없지 않겠느냐? 내가 와서 정복 사역을 하는 목적은 그저 정복을 위한 정복에 그치지 않는다. 나는 의와 불의를 드러내기 위해 정복하고, 사람에게 징벌을 내릴 증거를 손에 넣기 위해 정복하며, 또 악인을 정죄하기 위해 정복하고, 더욱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 정복한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각기 부류대로 나누는데, 온전케 된 사람은 순종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루는 사역이다. 하지만 패역한 행위로 가득한 자들은 모두 징벌받고 타오르는 불길 속에 떨어져 영원히 저주받는 대상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역대로 '위세와 무력에 굴복하지 않는 대단한 영웅 세가'의 사람들은 가장 비천하고 냉대받는 '나약하고 무능한 겁쟁이 세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거스를 수 없는 성품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야만 내 마음에 맺힌 한이 풀리게 된다. 말해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생명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산물이 아니고, 성품 변화는 누구나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는 것에는 실제적인 행동과 살아 내미 있어야 한다. 겉으로만 순종한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성품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표면적인 것에만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는 것은 본래 같은 뜻이다. 하나님께만 순종할 뿐 하나님의 사역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고,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아첨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어느 정도 얻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모두 새로운 사역 가운데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변화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인정받은 사람이고, 온전케 된 사람이며, 성품이 변화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옳은 사람이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반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은 스스로를 위장하는 사람이고, 독사의 독을 지닌 사람이며, 누구보다 음험한 사람이다. 언젠가는 그 못된 패거리의 추악한 가면이 벗겨질 것이다. 지금 바로 이 사역을 하고 있지 않더냐? 악인은 어쨌든 악인이므로 결국에는 그 징벌의 날을 피할 수 없고, 선한 사람은 어쨌든 선한 사람이므로 결국 사역이 끝날 때 전부 드러날 것이다.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악인은 없고, 악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의인도 없다. 내가 사람을 억울하게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얻어진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88)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언제나 새로운 진입이 있다. 언제나 새롭고 높은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단계마다 더 심화되어야 한다. 이는 사람이 마땅히 진입해야 하는 것이다. 네가 교제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또는 한 가지 일을 처리함으로써 새로운 깨달음과 깨우침을 얻고, 낡은 규례 속에서 살지 않는다면, 뒤처짐 없이 항상 새로운 빛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면, 이것을 바로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고 한다. 겉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높아지고 날마다 새로운 것이 있으므로 사람도 날마다 새로운 진입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한 만큼 이루므로 네가 따르지 못하면 뒤처진다. 기도가 깊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고 마셔야 하며, 더 깊은 깨우침과 빛 비춤을 받고, 관념과 상상을 점차 줄여야 한다. 또 일을 판단하는 능력도 강화해야 하고, 어떤 일이 닥치든 생각과 주관 가져야 하며, 영 안의 일들을 깨달음으로써 외부의 일을 꿰뚫어 보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네가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고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글귀와 도리만 말할 뿐 실체가 없고 실행의 길이 없으면 오래 유지할 수 없다. 새 신자에게는 어찌어찌 말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새 신자에게도 실제 체험이 생기면 공급할 수 없게 된다. 그런 네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적합하겠느냐? 새로운 깨우침이 없으면 사역할 수가 없다. 새로운 깨우침이 없는 사람은 모두 체험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경험이 없다. 생명을 공급하는 이 일에서 전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폐물이고 식충이다. 사실, 이런 사람은 사역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폐물이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는커녕 도리어 교회에 불필요한 많은 번거로움을 더한다. 나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다시는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빨리 교회에서 나가 줄 것을 청한다. 그들은 새로운 사역에 대한 인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념이 겹겹이 쌓여 있다. 교회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가는 곳마다 이간질하고 소극적인 말을 퍼뜨리며, 심지어는 교회에서 못된 짓을 하고 함부로 소란을 피워 분별없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이런 산 귀신, 악령은 교회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회에서 썩 물러가라. 네가 오늘의 이러한 사역은 두렵지 않다 해도 내일의 공의로운 징벌까지 두렵지 않겠느냐? 교회에는 빌붙어 먹고 사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의 정상적인 사역을 무너뜨리려는 늑대들도 많다. 그들은 모두 악마의 우두머리가 보낸 마귀이며, 무지한 어린양들을 집어삼키려는 악한 늑대이다. 소위 ‘사람’이라는 이런 자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기생충이 되고 제물을 게걸스럽게 잡아먹는 좀 벌레가 될 것이다. 비열하고 무지하며 비루하고 비천한 이 구더기들은 언젠가 곧 징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얻어진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89)

실제에 대해 인식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덕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갖추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식한 것을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 다른 사람을 깨우쳐 주고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다면 그 길이 바로 실제이다. 너희 모두는 하나님이 환경을 마련해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자 급선무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서 실행의 길을 찾고, 이해하지 못한 문제나 어려운 점 또한 전부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 실제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노력을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면 그에 해당하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평온히 하고, 무슨 일이 닥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고, 별일이 없을 때는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만 신경 쓰면 된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어떤 깨우침과 빛 비춤이 있었는지, 어떤 반응이 생겼는지를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실제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실질적인 공급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있느냐? 너의 하루 중 하나님께 바친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육적인 것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마음을 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정상 궤도에 들어서는 첫걸음이다. 너는 네 몸과 마음, 그리고 너의 모든 참된 사랑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놓으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또한, 육적인 것이나 가정,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집의 이익을 위해야 하며,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 말씀을 원칙과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올바른 마음가짐과 관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절대적인 사람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그에게 탄마음을 품거나 거역하는 사람을 혐오한다. 또한,

하나님은 그를 믿으면서 늘 그를 누리려고만 하고 그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사람을 혐오하며, 입으로만 그를 사랑한다 말하고 마음으로는 거역하는 사람을 혐오하고, 감언이설로 기만 행위를 하는 사람을 혐오한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헌신과 순종이 없는 사람은 대역무도한 사람이고, 천성적으로 몹시 교만한 사람이다. 특히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두말할 나위 없이 교만한 사람이자, 천사장의 충실한 후계자이다.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토대로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실행할 부분을 진심으로 찾는다. 이런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네가 행하는 것이 너의 생명에 유익하고,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내면에 필요한 것과 부족한 것을 채워 생명 성품이 변화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는 일이다. 또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그의 마음을 흡족게 하고 욕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진입한 것이다.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진입하는 것은 너의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실제 행동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진입하는 것이다. 네가 이 실체에 진입할 수 있다면 진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는 실체에 진입하는 시작이다. 먼저 이 훈련을 해야 나중에 더 깊이 실체에 진입할 수 있다. 늘 언제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나 하는 생각만 하지 말고,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충성을 다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라. 네 성품이 변하기 전까지는 무엇을 생각하든 다 소용없다!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진입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생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실제'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90)

현재 시련 속에 있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지 못한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 한 마디 하겠다. 모르면 적어도 판단은 하지 말라. 언젠가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찾고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진입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실체에 진입한 사람이다. 사람은 패역으로 인해 실제 하나님에 대해 늘 관념을 가진다. 그러므로 사람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실제 하나님은 사람에게 크나큰 시련이기 때문에 네가 굳게 서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고, 실제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가 없다. 사람이 온전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하나님의 '실제'를 아는 것에 달려 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성육신 하나님이 땅에 온 '실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시련이다. 네가 여기에서 굳게 선다면, 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게다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여기에서 굳게 서지 못하고 오직 영만 믿을 뿐, 하나님의 실체는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허사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겠느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에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영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에게 순종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부 허튼소리 아니겠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의 핵심은 바로 실체의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다. 실제 하나님을 알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두 부분이 있다. 한 부분은 영의 본질을 지키는 것, 즉 영 앞에서 영의 감찰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한 부분은 성욕신한 하나님에 대해 진실로 알고 순종하는 것이다. 육신 앞에서도, 영 앞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만이 온전케 될 자격이 있다. 만약 네가 실제 하나님의 '실체'를 안다면, 즉 이 시련 속에서 굳게 선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혹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말하고 경건하게 이야기하며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라고 말한다. 이 말이 맞느냐? 그러면 네가 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도 계명을 지켰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 밝히 알아야 한다. 이는 네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 진실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와 관계된다. 네가 '실체'에 대해 알고 이 시련 속에서 쓰러지지 않는다면, 이는 너에게 굳센 증거가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위해 힘 있게 증거하는 것은 주로 네게 실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이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지, 나아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와 관계된다. 네가 정말 이러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위해 증거한다면 그것은 네가 하나님께 얻어졌음을 뜻한다.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한 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고, 판단도 비방도 하지 않으며, 관념도 다른 속셈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이 경시하는 평범한 사람에게 죽기까지 순종하고 전혀 관념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참된 증거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입하라고 요구하는 실체는 그가 하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행하며, 실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패괴를 깨닫는 것이다. 또한, 그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그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 그에게 얻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에 네가 정복되어 그에게 완전히 순종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얻게 되며, 그것을 통해 사탄에게 수치를 주고 사역을 끝마칠 것이다. 성욕신한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 관념이 없다면, 즉 네가 그 시련 속에서 굳게 설 수 있다면, 너는 잘 증거한 것이다. 언젠가 네가 실제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알게 되고 베드로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게 된다면, 너는 하나님께 얻어졌다고, 즉 온전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 네 관념에 맞지 않는 것은 너에게는 시련이다. 만약 네 관념에 맞는다면 고난을 겪을 필요도, 연단을 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사역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의 관념에 맞지 않기에 너는 관념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서 너에게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실체로 인해 모든 사람이 시련을 겪고 있다. 그의 사역은 초자연적이지 않고 실제적이다. 네가 실제의 말씀과 음성에 대해 분명히 알고 관념도 전혀 가지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역이 실제적일수록 더 참되게 그를

사랑할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께 얻어진 것이다. 하나님께 얻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의 실재를 아는 사람이자, 하나님의 실제 사역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실제’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91)

성육신 기간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은 사람의 상상처럼 판단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사람에게 그의 말씀을 삶의 원칙과 생존의 토대로 삼고 절대적으로 말씀의 본질을 실행하여 그의 마음을 만족케 하기를 요구한다. 성육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요구는 그의 말씀을 실행하라는 것이며, 또한 그의 정상적인 면과 실제에 순종하라는 것이다. 이는 모두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모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얻어진 사람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다. 성육신 하나님은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인성으로 역사한다. 그러기에 그가 취한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인간적인 모습은 사람에게 크나큰 시련이자 어려움이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면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는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정상적인 인간적 모습을 없애 버릴 수는 없다. 그는 어디까지나 하늘에 계신 ‘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의 외형을 지닌 하나님이다. 그러한데 그의 정상적인 인간적 모습을 없애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겠느냐? 그러므로 그는 어찌 됐든 육신의 입장에서 그가 하려는 사역을 해야 한다. 이 사역은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데,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행사를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 가는 대로 행한다. 그런데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또 무슨 좋은 방법이 있겠느냐? 아직까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순종’뿐이다. 이것 외에 다른 최상의 방법은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련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어찌하겠느냐?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육신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가 하고자 하는 바를 사람은 바꿀 놓을 수 없다. 하늘의 하나님조차 그의 행사에 간섭하지 않으니, 사람은 더욱 그에게 순종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가 비록 실제적이고 정상적이지만 그는 틀림없이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이다. 그는 자신의 뜻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임무를 그에게 맡겼으니 그가 어떻게 하든 너는 순종해야 할 것이다. 그는 인성을 지니고 있고 너무나 정상적이지만, 이 모든 것은 그가 특별히 예비한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어찌 두 눈을 부릅뜨고 그를 보면서 불만을 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인성으로 살기 원하면 인성으로 살고, 신성으로 살기 원하면 신성으로 산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이고, 사람은 어쨌든 사람이다. 그러니 사소하기 그지없는 일로 인해 그 본질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그를 ‘하나님’의 ‘위격’에서 밀어내서도 안 된다. 사람에게는 사람으로서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으로서의 존엄이 있다. 이는 서로 침범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자유를 줄 수 없느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조금도 용납하지 못한다 말이나? 하나님에게 너무 '각박'하게 굴지 마라. 서로 '포용'하면 모든 일이 척척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리가 생길 리 있겠느냐? 이렇게 작은 일도 용납하지 못해서야 아량이니 도량이니 하는 말을 어찌하겠으며, 어떻게 대장부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난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난처하게 하는 것이다. 언제나 자잘하기 그지없는 일을 크게 부풀려 처리하니, 침소봉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구나. 정말이지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인성으로 사역하지만, 그가 하는 것은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나 사람은 그가 하는 사역의 본질은 보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만 본다. 이렇게 큰 사역은 보지 못하고 하필이면 하나님의 평범하고 정상적인 인성만 보며 물고 늘어지니, 이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늘의 하나님은 오늘날 땅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제는 땅의 하나님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다. 겉모습이 어떤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하는 분이라면 하나님 자신이다. 너는 원하든 원치 않든 순종해야 한다. 이는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사람의 순종을 받아야 하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여기에 조금의 거짓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이 오늘날 얻으려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의 사역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도, 막연한 생각에 빠져 살아서도, 성육신 하나님을 난처하게 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안배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지, 인류에게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온 마음을 땅에 온 하나님께 바치며, 자신의 전부를 내놓는다. 그들은 자기 안위를 생각하는 법을 모르며, 성육신 하나님의 정상적인 면과 실재를 '문제시'하지도 않는다. 성육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성육신 하나님께 온전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람에게 약속과 축복을 내리는 존재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땅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늘 하늘의 하나님만 존귀하게 여기고 땅의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공평하지 않은 일이다. 하늘의 하나님은 위대하고 기묘하며, 놀라운 지혜를 지니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땅의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으며 아주 정상적인 데다 사람의 사유를 뛰어넘는 경천동지할 행사를 보여 주지도 않는다. 그는 단지 정상적이고 실제적으로 사역하고 말씀할 뿐이다. 또한, 천둥을 치며 음성을 발하지도 않고 비바람을 불러오지도 않지만,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화신이며, 확실히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하나님이다. 사람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의 상상에 부합하는

존재는 하나님으로 여겨 높이 받들고, 자신이 받아들이 수 없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존재는 비천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는 사람의 패역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원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실제'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92)

양심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느낄 수 없다. 양심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열의가 생기지 않는다. 네가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할 뿐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의가 생기지 않는다. 양심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다. 왜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하겠느냐? 이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너희의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을 기만하고 무성의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해도 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으니 어쨌든 죄만 짓지 않으면 돼.'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양심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마음 깊은 곳의 진실한 느낌을 말한다. "저는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다고 해도 저는 계속해서 따를 겁니다. 그분이 저를 원하든 원하지 않으시든, 저는 계속해서 그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꼭 그분을 얻고야 말 것입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평생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너는 이런 의지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거나 양심의 느낌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 사람의 양심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왜 예전에 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을까? 왜 사람의 양심을 감동시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사람은 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을 수긍할 수 없다면 네가 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보아라. 잠시 불타오르던 열의가 얼마 가지 못하고 사그라질 것이다. 양심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느끼면 기도할 때 타오르던 열의가 금방 사그라져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이나? 양심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일깨울 수 없다는 것이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진실로 느낄 때 너의 영이 하나님께 감동된다. 그리고 이때야 네 양심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즉, 사람은 영 안에서 하나님께 감동받고, 마음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고무받은 후에야, 다시 말해 이를 체험한 후에야 효과적으로 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 단지 하나님을 향한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랑일 뿐이다.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에 죄송하지 않을 정도’의 사랑으로는 전혀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없다.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어느 정도 얻을 때, 즉 실제 체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사랑할 만한 분이고 사랑할 만한 요소가 매우 많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때에야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은 자발적인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93)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접하고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네가 마음속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했다고 할 수 있다. 네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외 다른 것(가정, 돈, 남편, 아내, 자녀 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네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거나, 네가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추구한다면, 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다. 만약 네가 아직도 마음속으로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늘 ‘언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까? 우리 집은 언제쯤 부유해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을까?...’라는 상태에 빠져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너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이 너와 매우 가까워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고 너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내적 상태에 있다면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음을 말해 준다. 네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항상 교회의 사역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마음을 만족케 한다면 네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만약 많은 사물이 네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네 마음이 여전히 사탄에게 점령당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을 참되게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마음을 쓰게 된다. 우매하고 비이성적일 때도 있으나 하나님 집의 이익과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성품의 변화에 마음을 쓰며 마음이 완전히 올바른 것이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교회 명의를 내세우지만 실은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일한다. 이런 사람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교활하고 간사하다. 그가 한 많은 일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추구하지 않으며, 그의 마음이 여전히 사탄에게 속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얻어지려면 첫 단계로 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또한, 어떤 일을 하든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개인적인 의도는 없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목적을 위해 하는 것인가?’란 질문을 던지며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자신의 마음을 극복하고, 자신의 불순한 마음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실행 길이다. 자신의 마음을 극복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육적인 사치스러운 욕망을 내려놓고, 지위의 복과 안락을 탐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만족케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은 자발적인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94)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생기는 사랑이다.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그 사랑이 꼭 순결하고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애모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자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길이다. 사람은 하나님께 진심을 드린 후 생명 체험 속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렇게 해야 사람의 성품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식도 차츰 깊어진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생명 체험의 정상 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전제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을 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약간 사랑한다 해도 이는 자발적인 것도, 참된 것도 아니다. 사람의 욕에서 비롯된 것은 참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감정적인 작용의 산물일 뿐이다. 이는 일시적인 감동에 불과하며 오랫동안 지속되는 애모가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취향과 개인의 관념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는 자발적인 참된 사랑이 있을 수 없으며, 맹목적으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역할이나 해야 할 본분을 좀 이행하는 데에 그칠 뿐이다. 이런 사람은 성품이 바뀌기 어려운 사람이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거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순결한 것은 아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지에서 비롯되는 차이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했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자발적인 것임을 증명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사람이 정상 궤도에 들어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전제일 뿐,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분’을 완수한다거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데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피조물로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즉,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깨우침을 얻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은 자발적인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95)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자 한다면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하고 대가도 치러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깊은 공과로, 사람이 한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배우는 공과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기만 할 뿐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가슴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어 봤자 헛일이다.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일생을 헛사는 것이요, 네 일생은 가장 미친한 일생이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을 만족케 한 적이 없다면, 네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헛수고 아니겠느냐? 바꿔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하고, 겉으로 무엇을 하려고 추구할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참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찬양을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은 재미있어하지만, 진리 실행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무슨 일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일에 부딪히든 깊이 파고들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일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닥쳐 고통을 겪어야 할 때, 너는 그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자신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욕은 가장 비천한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방법을 찾고 네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네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일에서 특별히 너를 깨우칠 것이요, 네 마음도 위안을 얻을 것이다.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일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우선 자신을 내려놓고 욕을 가장 천한 것으로 여겨라. 네가 욕을 만족시킬수록 욕은 더 큰 욕심을 낼 것이다. 이번에 만족시키면 다음에 또 다른 요구를 하니,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은 욕을 더 사랑하게 된다. 욕은 항상 사치스러운 욕망을 가지고 있어 늘 네가 만족시켜 주길 바라고 그 안에서 즐기길 바란다. 먹고 입거나 화를 내거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태함 등등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 네가 욕을 만족시킬수록 욕의 욕망은 더 커지고, 나날이 방종해질 것이다. 그러다 어느 지경에 이르면 사람의 욕은 관념이 더 깊어져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을 받들며, 하나님의 사역도 의심하게 된다. 네가 욕을 만족시킬수록 욕의 연약함은 더 많아져 늘 아무도 너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리 엄하십니까? 왜 언제나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지 않으시죠?”라고 말할 것이다. 사람이 욕을 지나치게 만족시키고 지나치게 사랑하면 자신을 망치게 된다. 네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욕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더없이 적절하고 좋은 것임을 알게 될 것이며, 네 패역을 저주하고 네 불의를 심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때로 하나님이 너를 채찍질하고 징계하고, 환경을 조성해 단련하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오게 해도 너는 늘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여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너는 크게 고통스럽다고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몹시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네가 욕의 연약함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행한 것이 지나치다고 말한다면, 늘 고통스럽고 슬프다고 느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행한 모든 사역에 대해서도 모호해져 하나님이 사람의 연약함을 조금도 굽어살피지 않고, 사람의 고충을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며, 언제나 너 자신이 외롭고 쓸쓸하고 대단히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여길 것이다. 그때면 너는 원망의 말을 쏟아 낼 것이다. 네가 이렇게 욕의 연약함을 헤아릴수록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될 것이고, 결국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할 것이며, 네 내면은 패역한 것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므로 욕을 저버려야지, 헤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남편(아내), 자녀, 미래, 결혼, 가정 따위는 없어! 내 마음속엔 오직 하나님뿐이야. 나는 하나님을 만족게 해 드려야 해. 욕을 만족시키면 안 돼!’ 너는 이런 의지를 가져야 한다. 늘 이런 의지를 갖고 진리를 실행하며 자신을 내려놓는다면, 조금만 힘써 노력해도 해낼 수 있게 된다. 옛날에 어떤 농부가 길에서 얼어붙은 뱀 한 마리를 보고 주워 품 안에 넣었더니 뱀이 깨어나 농부를 물어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람의 욕은 뱀과 같아 본질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해친다. 네가 욕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했을 때가 곧 목숨을 잃는 때이다. 욕은 사탄에 속하는 것으로, 그 안에는 언제나 사치스러운 욕망이 들어 있어 항상 자신만 생각하고, 호강하길 원하며 안락한 생활을 탐내고, 초조해하지도 않은 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어느 지경까지 욕을 만족시키다 보면 중국에는 욕에 삼켜지고 만다. 다시 말해, 네가 이번에 욕을 만족시켰다면 욕은 다음에도 네가 만족시켜 주길 바란다. 욕 안에는 늘 사치스러운 욕망과 새로운 요구가 있으며, 네가 욕을 생각하는 기회를 틈타 욕을 더욱 아끼며 욕의 안락 속에서 살게 한다. 그러니 네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너 자신을 망칠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마지막에 어떤 결말일지는 욕을 어떻게 저버리느냐에 달렸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고 또 너를 선택하고 예정했다 해도 네가 지금 하나님을 만족게 하려 하지 않고, 진리를 실행하려 하지 않으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욕을 저버리려 하지 않아 결국 자신을 위협에 빠뜨린다면, 너는 극한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항상 욕을 생각한다면, 너는 천천히 사탄에게 잠식될 것이고, 생명도 영적 감동도 없다가 언젠가 내면이 완전히 어두워질 것이다. 어둠 속에서 살면 사탄에게 사로잡혀 더

이상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때 너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쓰라린 대가를 치르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 겉으로 열성적으로 행동하거나 고생할 필요도, 책을 많이 보거나 많이 뛰어다닐 필요도 없으며, 사치스러운 생각과 개인의 이익, 자신의 계획, 관념, 속셈과 같은 사람 내면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을 사랑해야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96)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성품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 사역의 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겉으로 드러나는 비정상적인 인성, 사람의 생활 방식, 생활 습관, 풍습 및 외적인 행동과 사람의 열의 등을 다스리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실행해 성품을 변화하게 하는 것은 주로 사람 내면의 마음가짐과 관념을 다스리기 위함이다. 네가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만 다스리려 한다면 그건 쉬운 일이다. 예를 들어, 네가 즐기는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은 쉽게 해낼 수 있다. 하지만 내적인 관념에 관계되는 것이면 내려놓기가 힘들다. 여기에는 욕을 저버리고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렇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진리를 실행하지 않을 때는 네 마음가짐이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일에 부딪히면 네 내면의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가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케 할 때,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내면에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을 가로막는 관념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네가 자신의 마음가짐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을 때, 네 관념이나 마음가짐에 따라 행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입장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욕을 저버렸다는 것을 증명한다. 욕을 저버리려 할 때 네 내면에서는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사탄은 사람에게 자기를 따르고 욕의 관념대로 육적인 이익을 지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사람 안에서 빛을 비추고 깨우쳐 줄 것이다. 그때는 네가 하나님을 따를지, 아니면 사탄을 따를지를 봐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리를 실행하라 할 때는 주로 사람 내면의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의 생각과 관념을 다스리려는 것이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한 깨우침과 빛 비춤을 준다. 그래서 모든 일의 이면에는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진리를 실행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실천할 때마다 큰 싸움이 벌어진다. 사람의 욕이 평온무사한 듯 보여도 사실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생사를 건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한 차례 격렬한 싸움과 이런저런 고민 끝에 겨우 승패가 나뉘니 참으로 웃지도 울지도 못할 노릇이다. 사람의 내면에 잘못된 마음가짐이 많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많은 사역이 사람의 고정 관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진리를 실행할 때면 늘 이면에 큰 싸움이 생기는 것이다. 사람은 진리를 실행할 때 뒤에서 많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만, 결국에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흡족게 하게 된다.

싸움이 있기에 사람은 고통받고 연단을 받는다. 이것이 진정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싸움이 임했을 때, 네가 참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있다. 진리를 실행하면서 내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진리를 실행할 때 사람 내면의 것이 모두 옳다면, 하나님께 온전케 될 필요가 없고, 싸움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도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내면에 하나님이 쓰기에 부적합한 구석이 많이 있고, 육적인 패역 성품도 많기 때문에 육을 저버리는 공과를 더 깊이 배울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받게 된다는 그 ‘고통’과 관련되어 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는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저는 당신을 만족케 해 드리길 원합니다. 온갖 고통을 끝까지 견뎌 당신의 마음을 흡족케 해 드리길 원합니다. 아무리 큰 좌절을 겪어도 저는 당신을 만족케 해 드리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을 만족케 해 드릴 것입니다!’ 네가 이런 의지를 갖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굳게 설 수 있다. 진리를 실행할 때마다, 연단과 시련, 하나님의 사역이 임할 때마다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는 전부 검증이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의 내면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실제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분주히 다니는 것 등도 얼마간 대가를 치르는 것이긴 하나 그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사람의 본분이자 응당 이행해야 할 책임이다. 하지만 사람 내면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지 못한다면 외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받든,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든 모두 헛수고이다! 다시 말해, 내적 변화야말로 외적 고통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적 성품이 변화되고 진리를 실행했다면 외적으로 받은 고통 역시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다. 하지만 내적 성품에 변화가 없다면 외적으로 받은 고통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녔다 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받은 고통에 하나님의 확증이 없다면 모두 허사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너의 대가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네게 변화가 있는지에 달렸고, 네가 진리를 실행하고 자신의 속셈과 관념을 저버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충성했는지에 달렸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녔다 해도, 단 한 번도 자기 속셈을 저버린 적이 없고 외적인 행위와 외적인 열정만 추구하며 늘 생명을 중요시하지 않았다면, 그런 고통은 전부 허사가 된다. 어떤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 말이 형제자매에게 도움이 안 되고 타인에게 상처를 줄 것 같아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내적으로 괴로울지언정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내면에서 싸움이 벌어지겠지만, 네가 고통을 참고 포기하길 원하고, 고통을 감내하여 하나님을 만족케 하길 원하며, 내적으로 고통받을지언정 육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흡족해할 것이다. 따라서 네 내면도 위안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치르는 대가로, 하나님은 이런 대가를 바란다. 네가 이렇게 실행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네가 아는 것이 아무리 많고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허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사탄과 하나님이 싸울 때 네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사탄에게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지에 이른 것이고, 그러면 굳게 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을 사랑해야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97)

사람에게 하는 하나님의 각 단계 사역은 겉으로 보면 마치 사람이 사람과 접촉하는 것 같고, 사람의 안배나 방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역과 일의 이면에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한 내기가 있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설 필요가 있다. 이는 욥이 시련을 받았을 때, 그 뒤에는 사탄이 하나님과 한 내기가 있었지만 욥에게 닥친 것은 사람의 행위요, 사람의 방해였던 것과 같다. 너희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이면에는 사탄이 하나님과 한 내기가 있고, 싸움이 있다. 예를 들어, 네가 형제자매에게 편견이 생겨 어떤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러자니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말하지 않자니 내적으로 괴로울 때가 있다. 이때 내면에서 싸움이 시작된다. ‘말할까, 하지 말까?’ 이것이 바로 싸움이다. 그래서 일이 임할 때는 늘 싸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네 내면에서 싸움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너의 실제적인 협력과 네가 실제로 받는 고통을 통해 네게 역사한다. 결국 너는 내면에서 그 일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화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이 역시 네가 하나님과 협력한 결과이다. 어떤 일을 하든 일정한 심혈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실제로 받는 고통 없이는 하나님을 만족케 한다는 말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것은 공허한 구호를 외치는 것에 불과하다! 공허한 구호로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있겠느냐? 사탄이 영계에서 하나님과 싸울 때,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야겠느냐? 일이 닥칠 때마다 네게는 그것이 큰 시련이자 하나님이 네 증거를 필요로 하는 때가 왔음을 알아야 한다. 겉으로 봤을 때 큰일이 아닌 것 같아도, 일단 그런 일이 닥치면 너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설 수 있겠지만, 하나님 사랑하기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네가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자요, 진리도 생명도 없는 쪽정이임을 보여 줄 것이다! 일이 닥칠 때는 언제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야 할 때이다. 지금 네게는 큰일이 닥치지 않아 별로 크게 증거한 것이 없겠지만, 일상의 사소한 부분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형제자매들이 탄복하고, 가족이 탄복하고, 주위 사람들이 탄복하게 해라. 언젠가 이방인이 와서 네 모든 행위에 탄복하며 하나님이 행한 것이 참으로 좋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면, 너 자신이 바로 증거가 될 것이다. 네게 식견이 없고 자질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너를 온전케 하면, 너는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자질이 가장 부족한 사람에게 행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탄 앞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어느 경지에 이르면 이들은 가장 기개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간증이다. 네가 큰 사역을 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고정 관념을 내려놓지 못해도 너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실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해도 너는 자신의 실제 분량과 실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하나님을 힘 있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면 너는 가족들 사이에서,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간증이 없는 것이다. 사탄 앞에서 증거하지 못하면 사탄은 너를 비웃고, 노리게 취급하고, 항상 너를 농락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큰 시련이 닥친다 해도 지금 네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앞으로의 시련이 아무리 클지라도,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굳게 서서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다면, 너는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장차 어떤 큰 시련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앞의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하며, 그저 지금의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너희는 뭔가 큰 사역을 할 수도 없지만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체험을 중요시하여 하나님을 만족게 하며, 강인하고 힘 있게 증거함으로써 사탄을 수치스럽게 해야 한다. 비록 육이 만족을 얻지 못하고 고통받겠지만 너는 하나님을 만족게 하고 사탄에게 수치를 안겨주게 될 것이다. 네가 항상 이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네 앞에 길을 열어 줄 것이다. 그러면 어느 날 큰 시련이 닥쳐 다른 사람은 다 넘어져도 너는 굳게 설 수 있다. 너는 대가를 치렀으니 하나님은 네가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도록 보호할 것이다. 네가 평소에 진리를 실행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앞으로의 시련에서 반드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네가 우매하고, 분량이 작고, 자질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너를 차별하지 않는다. 이것은 네 마음가짐이 바른지 그른지에 달려 있다. 지금 너는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소한 일도 놓치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을 만족게 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진심을 하나님께 바쳐라. 밝히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앞으로 와서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며, 하나님을 만족게 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혹여 형제자매가 너를 버리더라도 육적인 즐거움을 좇지 말고 하나님을 만족게 해라. 네가 늘 이렇게 실행한다면 큰 시련이 닥쳤을 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을 사랑해야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98)

시련은 사람의 어떤 내적 상태에 초점을 두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족게 하지 못하는 사람 내면의 패역 성품에 초점을 둔다. 사람의 내면에는 수많은 불순물과 외식하는 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시련으로 사람을 정결케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네가 지금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시련으로 온전케 될 것이다. 반면, 지금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없다면 앞으로의 시련은 네게 시험이 되어 너는 부지불식간에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는 네 뜻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너는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가지 못하고, 실제 분량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더 잘 만족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가고 싶다면, 지금 반드시 기초를 잘 다져야 하며, 매사에 진리를 실행해 하나님을 만족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네가 항상 이렇게 실행하면 내면에 토대가 생길 것이며, 하나님은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려일으키고, 믿음을 더해 줄 것이다. 언젠가 정말 시련이 닥치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매우 슬프기도 하고, 죽을 것 같은 비통함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마음은 한결갈을 뿐만 아니라 더 깊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지금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이어받는 자가 된다. 그러나 지금 실행하지 않으면, 어느 날 시련이 닥쳤을 때 네 사랑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질 것이다. 그때 시련은 시험이 되고, 너는 사탄의 시험에 빠져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 너에게 작은 시련이 왔을 때는 설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큰 시련이 닥쳤을 때도 설 수 있을 거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여기며 득의양양해한다. 하지만 그때 깊이 진입하지 않고 자기만족에 빠지면 위험해진다. 하나님이 지금은 더 큰 시련 사역을 하지 않아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시련을 주면 너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을 것이다. 네 분량이 너무 작아 큰 시련은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가 지금 발전하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으면, 시련이 임할 때 쓰러지고 만다. 늘 자신의 분량이 작다는 것을 인지해야 발전이 있다. 시련이 닥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분량이 너무 작고, 의지가 너무 약하며, 실제적인 것이 너무 적고,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 가서 그런 것들을 알아봤자 너무 늦고 만다.

네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른다면, 시련 속에서 필히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온전케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련이 닥쳤을 때 네 관념에 맞지 않으면 설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곧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성품을 사람에게 나타내면 너의 육에 무엇을 가져다주겠느냐? 하나님이 그의 공의로운 성품을 사람에게 나타내면 사람의 육은 필연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런 고통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진실한 사랑을 바칠 수도 없다. 하나님이 너를 온전케 한다면 필히 그의 모든 성품을 네게 나타낼 것이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성품을 사람에게 나타낸 적은 한 번도 없다. 하지만 말세에 하나님은 그가 예정하고 택한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성품을 나타내고, 사람을 온전케 할 때 자신의 성품을 나타냄으로써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든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래야 마지막에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고,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사랑을 완전히 바치고 싶다면, 반드시 많은 고통과 환경의 시달림을 겪어야 한다. 너를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해야 결국 마지못해 하나님께 진심을 돌려 드릴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진실한 사랑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고난과 연단 속에서 드러나며, 하나님이 사람의 사랑을 순결하게 만드는 것도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을 사랑해야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99)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본질은 종교적인 신앙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한다. 사람은 그저 로봇처럼 하나님을 따를 줄만 알 뿐, 하나님을 진실로 흠모하거나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따를 뿐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고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 사람은 그저 재난이 닥치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탄’할 뿐이다. 사람의 경외와 감탄에는 사랑이나 진실한 흠모는 조금도 들어 있지 않다. 사람은 다 체험 과정에서 진리의 구체적인 부분이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비밀들을 찾는다. 많은 사람이 그저 하나님을 따르면서 복을 받기 위해 기회만 노리고 있을 뿐,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생애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으며, 다 개인적인 타산과 추구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많은 사람이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진실한 믿음도 없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람에게 믿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이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해 하나님을 사랑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른다.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면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사랑할 하나님이라는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면은 그의 사역에서 드러난다. 사람은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그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고, 오직 실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면은 아주 많지만, 사람이 그와 실제로 접촉하지 않는다면 발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과 실제로 접촉할 수 없고, 하나님과 실제로 접촉하지 못하면 그의 사역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사랑에 너무나 많은 거짓과 상상이 섞이게 된다.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땅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실제적이다.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사람의 상상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사람이 직접 본 것도, 직접 체험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땅에 올 때 사람은 하나님의 실제 행사와 그의 사랑스러운 면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모든 성품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보다 몇천 배는 실제적이다.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사랑은 조금도 실제적이지 않으며 사람의 뜻으로 가득하다. 땅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 사랑은 모두 실제적이다. 설령 그것이 아주 미미한 사랑일지라도 실제적이다. 하나님은 실제 사역을 통해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이런 인식들을 통해 사람의 사랑을 얻는다. 베드로처럼 말이다. 그가 예수와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에 대한 그의 충성심 역시 예수와의 접촉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친히 세상에 임하여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실재를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00)

하나님은 실제와 임하는 사실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부를 온전케 하는 것은 인도하고 길을 여는 사역에 속한다. 다시 말해,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실행의 길을 찾고, 이상(異象) 부분에 대한 인식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이런 것을 깨달음으로써 실제 실행에 길이 생기고 이상을 갖추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얻고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며, 많은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깨달은 뒤에는 즉시 실제에 진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만족케 하게 된다. 하나님은 매사에 너를 인도하여 네게 실행할 길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는 한 단계, 한 단계의 사역이 모두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임을 보게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고 진실로 체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실제에 깊이 들어가고 실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사랑이요 구원이며, 다 정결하지 않은 것을 벗어 버리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없는, 사람 안의 것을 연단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으로 공급하는 한편, 실생활에서 환경을 마련해 주어 체험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신다면, 실제로 실행할 때 하나님의 많은 말씀으로 삶 속의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실제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실생활에서 길이 없을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다. 너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만 알 뿐, 조금도 분별할 줄 모르고 실행할 길도 전혀 없으며, 뭐가 뭔지 몰라 때로는 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것이라 착각하기도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아 생기는 결과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의 도움 없이 현실 속에서 모색하기만 하면 실행의 길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는

더더욱 알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의 깨우침과 인도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모색하고 구하면서 실행해야 할 것을 발견하고 성령이 역사할 기회를 찾아 하나님과 진실하게 협력하되,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실생활에서 길이 생기고 진실로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족게 하면 네 안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축복하여 즐거움이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 하나님을 만족게 한 것이 아주 영광스럽게 느껴지고, 내면이 매우 밝아지며, 마음이 환하고도 편안해질 것이다. 또한 양심이 위안을 얻고 참소받지 않으며, 형제자매를 봐도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고 하며, 이렇게 되어야 진실로 하나님을 누린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고난을 받고 진리를 실행하는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만약 네가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고만 말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참으로 많은 대가를 치렀으며 간곡하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면서 계속 사람을 구원하고 있다고만 말한다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일면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람은 실생활에서 진리를 실행함으로써 실제적인 것을 더 많이 누리게 된다. 그러고 나서 마음이 편안하고도 환해지고 내면이 매우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아주 사랑스럽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너는 자신이 치른 대가가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심혈을 기울인 뒤에는 내면이 특히 밝아져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원의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하는 것은 정결케 하기 위함이고, 시련을 주는 것은 사람에게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네가 항상 이렇게 진리를 실행한다면 하나님의 많은 사역을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앞에서 수정처럼 투명하다고 느낄 것이다. 많은 진리를 분명히 알게 되면, 이 일도 저 일도 실행하기 쉽다고 느끼고, 이 일도 저 시험도 이겨 낼 수 있다고 느끼며, 모든 일이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어 매우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데, 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이상(異象)이 있고 진리가 있으며 인식이 있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생활에서 진리를 실행해야 하고, 가슴 아파하며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만족게 하려는 마음과 고통을 감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또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네가 그런 고통을 받고 난 뒤에는 성령 역사를 얻게 된다. 실생활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해야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01)

진리를 실행할수록 진리를 갖추게 되고, 진리를 실행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며, 진리를 실행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항상 이렇게 실행한다면 하나님은 네게 그의 사랑을 조금씩 보게 할 것이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실제 사역을 행하시는 지혜가 있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나이다. 더욱이 사람을 창조하고 구원하며 온전케 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어 사람이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랑할 만한 면이 아주 많나이다.” 베드로는 예수에게 “당신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실 만한 것이 어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이겠나이까? 당신께서는 사랑스러운 면이 더 많이 있나이다. 실생활에서 일을 처리하시는 것, 행동하시는 것과 당신의 영이 제 안에서 감동시키고 저를 징계하고 책망하시는 이런 것들은 더욱 사랑할 가치가 있나이다.”라고 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체험하려면, 실생활에서 모색하고 구해야 하며 기꺼이 욕을 버리려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의지 있는 사람이 되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나태하지 않고 육적인 즐거움을 탐하지 않으며, 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번에 하나님을 만족케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니, 다음번에는 힘을 좀 쓰더라도 하나님을 만족케 해야지, 욕을 충족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체험하는 과정에서 너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고, 성육신하여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실제로 접할 수 있게 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다닐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영은 실생활에서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이 그의 사랑스러운 면을 보게 하고, 그의 징계와 채찍질, 그리고 축복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늘 이렇게 체험한다면 실생활에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게 된다. 어느 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이 된다면, 너는 가책을 받고 자신을 뒤흔치게 될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엔가 하나님이 너를 버린다고 말하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너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기초가 생긴 것이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02)

사람은 흔히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 정도까지 체험하지 못했다. 단지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고 날마다 너를 인도하니, 네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 된다고만 말할 뿐이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인식이 너무나 얕박하다. 많은 사람의 내면에는 아직 기초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에 심기만 했을 뿐, 아직 싹이 트지

않았고 열매는 더더욱 맺히지 않았다. 지금 너는 어느 정도까지 체험했느냐? 하나님이 떠밀어 이 정도까지 오게 한 지금에야 너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음을 느끼게 되었다. 언젠가 어느 정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더러 가라고 해도 떠날 수 없을 것이고, 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느낄 것이다. 남편이나 아내 또는 아들딸, 가족, 부모, 그리고 육적인 즐거움은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안 된다고 느낄 것이다.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간 것과 같다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정도까지 체험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최고조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 되고 네 생존의 토대가 되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된다. 네가 그 정도까지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누린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요 너의 사랑이 될 것이다. 그때 너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 저는 이미 당신을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저의 생명이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지만 당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참된 분량이요 실제 생명이다. 어떤 사람들은 떠밀려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가고 싶은 가지 싫든 다 가야 하기에 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한다. 너는 하나님이 곧 너의 생명이므로 네 마음에서 하나님을 거두어 간다면 생명을 빼앗긴 것과 같다고, 하나님은 곧 너의 생명이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고 느낄 정도까지 체험해야 한다. 그러면 너는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이요 하나뿐인 순결한 사랑이다. 계속 체험해 어느 날 네 생명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기도하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든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잊고자 해도 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 된 후에는 세상을 잊고 아내나 남편, 아들딸을 잊으라는 것은 괜찮아도 하나님을 잊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되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너의 참된 생명이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게 되면, 그 무엇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초월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앞에 두게 된다. 그렇게 되면 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책망과 훈계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네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실제 가운데서 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03)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생명이 되기만 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사 아니겠느냐?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다! 하나님이 어느 단계까지 사역하여 사람에게 봉사하라고 하고, 형벌하거나 죽게 하겠다고 말해도 사람이 떠나가지 않게 된다면, 사람은 하나님께 정복된 것이다. 실제 체험 속에서 굳게 설 수 있고, 입장을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 편에 서서 절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정상 관계가 있다면,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있는 것이다. 실생활에서 실행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다. 즉, 사람이 살아 내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증거이다.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다. 네가 이 정도까지 체험했다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자신에게 실제로 살아 내는 것이 있어 일거수일투족은 다른 사람의 탄복을 자아낸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겉면의 차림새는 평범하지만 매우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는 하나님의 인도와 깨우침이 있다. 또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수 있고 실재를 나눌 수 있으며 영적으로 섬기는 많은 일에 대해 알 수 있다. 대범하게 말하고, 단정하고 올바르게, 다툼을 벌이지도 방종하지도 않고,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안배에 순종하고 굳게 설 수 있다. 무슨 일을 처리하든 믿음직하고 침착하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어리지만, 겉면의 행동이 중년처럼 성숙하고 진리가 있어 모두가 탄복한다. 이런 사람은 간증이 있으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다. 다시 말해, 어느 정도까지 체험하면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외적인 성품도 안정된다. 많은 사람이 진리를 실행하지 않기에 굳게 서지 못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증거가 없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장 증오한다. 그가 예배 때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살아 내는 것은 사탄이다. 이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자 하나님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으며, 성령 역사가 전혀 없으므로 언행이 다 사탄을 대변한다. 네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주위 사람이나 일 그리고 사물에 늘 주의를 기울여 관찰한다면, 또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은 네 안에서 수시로 깨우쳐 줄 것이다. 교회에는 ‘감독관’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고 따라 배우며 모방한다. 그들은 분별력이 없고 죄를 혐오하지 않으며, 사탄에게 속하는 것들을 증오하지 않고 역겨워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의 내면은 사탄의 것들로 가득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말하고 일할 때는 분수를 알아야 하며,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상심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고, 이전에 받은 고통과 이전에 실행한 것들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며, 앞으로의 길에서 더욱 노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이상(異象)을 토대로 한 사람이고, 진보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04)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 그런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볼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으며, 그가 살아 내는 것은 진리이고, 증거하는 것 또한 진리와 하나님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헌신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글귀와 상상으로 그를 사랑하게 하지 않는다. 그는, 사람이 역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한다. 그의 사역과 말씀에서 그의 사랑스러움을 보게 한 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러나오게 한다.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증거할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이가 선동해서가 아니고 일시적인 감정의 충동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면을 보았고, 하나님께 사람이 사랑할 만한 면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행사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찬미가 우러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모의 마음이 우러나오며,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걱정이 일어나게 된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힘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증거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과 사모의 마음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또 감정적인 충동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인식에 근거해 증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기에 반드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하나님의 실재를 알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증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자발적이고 실재가 있으며 실재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지, 피동적인 것도,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사역과 경영을 위해 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빛 속에서 살고,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을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증인이며,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기(知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영원히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 아래에서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랑할 만한 분이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온 힘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하를 두루 다녀도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이 사람들은 모두 땅에서 왕권을 잡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고, 언어와 피부색은 달라도

같은 삶의 의미를 갖고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다. 또 모두 똑같은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고, 공통된 의지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하를 두루 다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전 우주를 횡단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05)

지금 하나님에 대한 너의 사랑은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이 네게 행한 것을 너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는 모두 네가 배워야 할 공과이다. 하나님이 땅에 와서 사람에게 행한 것과 보여 준 것은 모두 그를 사랑하게 하고 그를 진실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나아가 사람에게 행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사역으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시련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너희가 받게 한 고난이 없었다면, 솔직히 말해 너희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는 사역이 클수록 사람은 더욱 고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 의의가 매우 크다는 것을 더욱 의미하며, 사람은 마음으로 더욱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공과는 무엇으로 도달하게 되느냐? 만약 고난과 연단, 고통스러운 시련이 없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 긍휼만 베푼다면 네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한편으로는 시련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이 보잘것없고 비열하고 천박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마련한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더 잘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비록 고통이 너무 커서 이겨 내지 못할 때도 있고, 심지어 극도의 비통에 빠질 때도 있지만, 체험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한 사역이 실로 사랑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를 토대로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생기게 된다. 사람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만으로는 자신을 진정으로 인식할 수 없고, 사람의 본질은 더더욱 인식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거둬들인 심판과 연단을 통해야만 사람이 연단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의 연단과 심판을 토대로 이뤄진다고 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평안하거나 물질적 축복만 받았다면, 하나님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은혜의 사역을 하며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물질적 축복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은혜와 자비, 긍휼만으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사람은 체험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느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보았다. 그러나 한동안 체험한 후에는 그의 은혜와 자비,

궁홀로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고, 사람의 내면에 있는 패괴된 것들을 들춰내지 못하며, 사람의 패괴 성품을 벗겨 버릴 수 없고, 사람의 사랑과 믿음도 온전케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사역은 한 단계 사역일 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알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06)

현재 많은 이들은 알지 못해, 고난받는 것이 무가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정은 평안하지 않으며 하나님 역시 기뻐하지 않으니 앞날이 막막하다고 말이다. 어떤 이들은 몹시 괴로운 마음에 죽고 싶어 하는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자는 의지가 없고 나약하며 무능한 겁쟁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를 사랑하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사람은 그를 사랑할수록 더 큰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된다. 네가 그를 사랑하면 갖가지 고난이 네게 임하겠지만,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순조롭고 주변 환경도 평화로울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주변의 많은 상황들이 늘 감당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의 보잘것없는 분량으로 인해 연단을 받고 하나님을 만족케 하지도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높아 사람이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연단을 받고, 또한 자신의 내면에 연약한 부분이 많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지 못하는 면이 많은 것으로 인해 연단을 받는다. 하지만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연단을 통해서만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도 끝까지 가야 하며, 마지막 숨이 붙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지배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굳세고 힘 있게 증거하는 것이다. 사탄의 시험이 닥칠 때면 너는 “내 마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이미 나를 얻으셨다. 그러니 나는 너를 만족시킬 수 없다. 나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만족케 해 드릴 것이다.”라고 말하여라. 네가 하나님을 만족케 할수록 하나님은 너를 더욱 축복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믿음이 생기고 의지도 굳세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근심과 슬픔이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많은 실제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지만, 그럴 때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이 위로를 받아 편안하고 든든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많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낼 수 있고, 네가 겪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며, 찬양하고 춤추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안배한 주변의 사람과 일, 사물이 모두 적절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보든 네 뜻에 부합하지 않고 눈에 거슬릴 것이며,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압박을 느낄 것이며, 늘 하나님께 원망을 품으면서 자신이 겪는 고난이 너무 많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네가 네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기 위해 추구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실행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흡족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체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흡족케 하기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식어도 너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실제 분량이다. 너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마음이 얼마나 큰지, 시련이 임했을 때 굳게 설 수 있는지,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연약해지지 않는지, 형제자매들이 너를 버려도 네 입장을 굳게 지킬 수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사실이 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수많은 사역에서 알 수 있듯, 하나님은 사람을 지극히 사랑한다. 다만 사람이 영의 눈을 완전히 뜨지 못해 하나님의 수많은 사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수많은 사랑스러움을 밝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너무나 작을 뿐이다. 너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 왔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너의 모든 퇴로를 차단했다. 솔직히 말해, 너는 어쩔 수 없이 바른길로 끌려온 것이고, 하나님의 엄한 심판과 크나큰 구원이 너를 바른길로 인도한 것이다. 사람은 고난과 연단을 겪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깨닫게 되며, 지금까지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어느 정도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사람에게서는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묘한 사역을 더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준비한 모든 고난의 연단을 더 많이 체험해야만 생명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알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07)

지금 너희는 모두 시련과 연단을 겪고 있다. 연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느냐? 사람은 연단을 겪고 나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찬미하게 되고, 연단 속에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연단을 많이 겪을수록 육을 더 잘 저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어찌서 연단을 받아야 하겠느냐? 연단으로 거두려는 성과는 어떤 것이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연단 사역에는 어떤 의의가 있겠느냐? 네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해 어느 정도까지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연단이 아주 좋은 것이고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연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들이고, 연단 속에서 내적으로 고통받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플지라도 육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흡족케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내적으로 괴롭고 고통이 심하더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할 것이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비록 제 내면은

어둡지만 저는 당신을 흡족게 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는 제 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 안에 당신의 사랑을 더 많이 심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연단 속에서의 실행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연단이 너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맡겨야 한다.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너는 연단 속에서 결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정상적으로 바뀔 것이며, 하나님과의 교통도 점점 더 빈번해질 것이다. 네가 늘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사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시간도 많아질 것이며, 성품도 점점 변화되고 인식도 나날이 늘어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너에게 하나님의 시련이 닥칠 때 네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때 너는 옴과 베드로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너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연단을 거친 사랑이라야 약하지 않고 굳건하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시련을 주든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며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다면, 너의 사랑은 순결해질 것이고, 너의 믿음도 실질적인 믿음이 될 것이다. 그때 너는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케 된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연단을 겪어야 참된 사랑이 생기게 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08)

사람이 사탄의 권세 아래 떨어진다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과거의 이상(異象), 사랑, 의지도 없어질 것이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고통받는 것을 수치스러워하며 수없이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이는 사탄의 역사에 속하며, 사탄의 권세 아래 떨어진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얼른 기도하고 얼른 돌려세워야 한다. 그러면 사탄이 공격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람은 고통스러운 연단 속에서 가장 쉽게 사탄의 권세 아래로 떨어진다. 이런 연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느냐? 의지를 북돋워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내놓고 마지막 남은 시간을 전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하든 계속 진리를 실천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교통하기를 찾고 구해야 한다. 이럴 때, 네가 수동적으로 대응할수록 더 쉽게 소극적이 되고 더 쉽게 후퇴하게 된다.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 비록 잘하지 못하더라도 네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붓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잘했다고 하든 못했다고 하든, 어쨌든 네 마음은 옳은 것이며 독선적인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남들이 너를 오해할 때 너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이 저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거나 잘 대해 주길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저를 이해해 주거나 지지해 주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되며 양심이 평안하기만을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칭찬하고 높이 주기를 바라지 않으며, 오직 당신을 흡족게 해 드릴 수 있기만을 마음속으로 바랍니다. 저는 제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 이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비록 저는 어리석고 자질이 부족하며 눈멀었지만, 당신의 사랑스러움을 알고 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러나와 마음이 많이 편해질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체험하는 과정에서는 두 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할 수도 있고, 다섯 번 실패하고 두 번 성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체험하다 보면 실패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보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된다. 너에게 또다시 그런 일이 닥치면 신중해야 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하며, 기도에 힘써야 한다. 그리하여 그 일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기도의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네가 이 성공으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며 성령의 함께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네게 그렇게 역사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실천을 통해 체험하는 가운데 길이 생기게 된다.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네 안에는 성령의 함께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이 임했을 때 진리를 실천한다면 비록 마음은 조금 괴롭겠지만 지나고 난 뒤에는 성령이 너와 동행할 것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도 힘이 생기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할 때는 양심에 참소를 받지 않으며 평안함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되면 너는 네가 행한 것을 내놓고 보여 줄 수 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 것이 성과를 거두었음을 말해 준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연단을 겪어야 참된 사랑이 생기게 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09)

하나님이 연단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 고통받으면 사람의 생명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더 평온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과 구원도 볼 수 있다. 베드로는 수백 번의 연단을 겪었고, 욥도 여러 차례 시련을 겪었다. 너희도 하나님께 온전케 되려면 수없는 연단을 겪어야 하고 또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다. 연단은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오직 연단과 고통스러운 시련을 통해야만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우러나오게 할 수 있다. 사람은 고난 없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하며, 내면에 시련이 없고 진실한 연단을 겪지 않고서는 마음이 항상 밖에서 떠돌게 된다. 어느 정도까지 연단을 받으면 너는 자신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알게 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많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겨 낼 수 없음을 알게 되며, 자신에게 패역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련 속에서만이 자신의 실제 상태를 진정으로 인식할 수 있다. 시련은 사람을 더욱 온전케 할 수 있다.

베드로는 평생 수백 번의 연단을 받았으며, 수많은 고통의 단련을 받았다. 그런 연단은 모두 그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토대가 되었고, 그의 일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체험이 되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연단과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고초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길에 길잡이가 되어 주었고, 그에게 가장 잇기 힘든 일이 되어 주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연단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그 사랑이 불순물과 사람의 기호로 점철된다. 그런 사랑에는 사탄의 뜻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흡족게 할 수 없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다. 설령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흡족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 자신의 뜻은 전혀 없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는 없다. 설령 사람이 모든 진리를 분명히 알고 깨달았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징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비록 연단을 받기 전에 수많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도 그런 진리를 다 실천할 수는 없다. 사람은 연단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그런 진리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고, 진정으로 그런 진리에 내포된 뜻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그런 진리를 실천한다면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할 것이다. 그때의 실천에는 개인의 뜻이나 사람의 패괴, 사람의 감정이 적어진다. 그때의 실천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진리는 사람이 입으로 안다고 말하고 마음으로 원한다고 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깨닫는다고 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연단 속에서 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사람의 사랑이 순결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연단을 겪어야 참된 사랑이 생기게 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10)

하나님은 사람의 내적 상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에 맞추어 새로운 사역을 하고, 이로써 사람이 그를 알고 그에게 순종하며 그를 사랑하고 증거하게 한다. 이렇게 되려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연단을 겪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훈계와 책망을 겪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영영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진실하게 사랑하거나 증거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하는 것은 한 측면의 성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성과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연단의

사역을 하고, 이로써 사람의 의지와 사랑이 하나님께 온전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연단은 진리를 구하기 원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자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므로 어쨌든 사람과 같은 성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의 성품을 알기가 쉽지 않다. 진리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 의해 패괴된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에는 진리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진리를 실천하려는 의지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사람이 고난과 연단을 받지 않고 심판도 받지 않는다면, 사람의 의지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연단은 모든 사람에게 상당히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단 속에서 사람에게 자신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여 주고, 연단 속에서 사람에게 자신의 요구를 공개하는 한편, 연단 속에서 사람에게 더 많은 깨우침을 주고, 더 많이 실질적으로 책망하며 훈계한다. 이렇게 사실과 진리를 대조함으로써 사람이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하고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게 하며, 이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참되고 순수하게 사랑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연단의 사역을 하는 목적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모든 사역에는 그 목적과 의미가 있다. 그는 무의미한 사역을 하지 않고, 사람에게 불리한 사역도 하지 않는다. 연단은 사람을 그의 앞에서 없애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을 멸하여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연단 속에서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속셈과 낡은 관점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사람에게 연단은 실제적인 검증이자 실제적인 훈련이다. 오직 연단 속에서만이 사람의 사랑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연단을 겪어야 참된 사랑이 생기게 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11)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리를 실천하며 네 본분을 다 이행해야 하며, 그뿐만 아니라 네가 체험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책망, 징계, 심판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릴 줄만 알 뿐, 하나님이 언제 너를 징계하고 책망하는지 느끼지 못해서는 안 된다. 네가 이번 연단에서 바른 입장을 견지했더라도 거기서 그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과는 끝이 없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일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의 상상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사역을 통해 사람을 연단하면 사람은 고통을 받는다. 사람이 받는 연단이 클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난다. 반대로 받는 연단이 적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지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큰 능력도 더 적게 나타난다. 많은 연단을 받을수록, 큰 고난을 받을수록, 많은 시달림을 받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더 갖게 되며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된다. 체험하는 과정에서, 너는 큰 연단과 고통을 받고 많은 책망과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고 하나님에 대해 더 깊고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책망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은 인식이 매우 얕은 관계로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 그분을 누리게 하십니다.”라는 말밖에는 하지 못한다. 책망과 징계를 겪은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을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기묘할수록 더욱 가치와 의의가 있고, 네가 헤아릴 수 없고 너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을수록 더욱 너를 정복하고 얻을 수 있으며 온전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사람을 이렇게 연단하지 않고 이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성과도, 의미도 없을 것이다. 예전에 하나님은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택하였고 또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말세에 이 한 무리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특별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에게 큰 사역을 행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순결해지며, 하나님이 큰 사역을 행할수록 사람이 그의 지혜를 더 잘 깨닫게 되고 그에 대한 인식도 깊어진다. 하나님의 6 천 년 경륜은 말세에 끝나겠지만,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정복하면 끝이겠느냐? 그렇게 간단하겠느냐?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행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하나님이 하는 사역의 어느 한 부분도 사람은 온전히 측량할 수가 없다. 네가 온전히 측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측량할 수 없고 네 관념에 크게 어긋난다. 네 관념에 어긋날수록 하나님의 사역이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네 관념에 부합하면 의미가 없다. 지금 너는 하나님의 사역이 몹시 기묘하다고 느끼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이 기묘할수록 너는 더욱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의 행사가 아주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그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사역만을 행하여 사람을 정복하고 끝낸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이 지닌 의미를 알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지금 얼마간 연단을 받지만 이는 네 생명이 자라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너희에게 너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은 네가 연단을 조금 받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하나님의 행사를 보게 될 것이고, 결국 너는 “하나님의 행사가 실로 기묘하구나!”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네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동안 연단(봉사자 시련, 형벌시대)을 겪은 후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했다.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사를 측량할 수 없다는 뜻이며, 하나님이 하는 일은 참으로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고, 사람이 소중히 여길 만하다는 의미이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도 네가 전혀 알지 못한다면 내가 한 사역이 가치가 있겠느냐? 나는 네 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정말 쉽지 않구나. 하나님의 행사는 실로 기묘하다. 하나님은 정말 지혜롭고 사랑스러우시다!”라는 말이 나오게 할 것이다. 한동안 체험을 한 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는 네가 하나님이 네게 한 사역을 통해 무언가를 얻었음을 말해 준다. 훗날 네가 외국에 나가 전도할 때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합니까?”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행사는 너무도 기묘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너의 이 말 속에 실제 체험이 들어 있음을 느낄 것이다. 이것이 참된 증언이다. 또한 네가 하나님의 사역은 실로 지혜롭고, 너에게 한 사역이 너를 진심으로 탄복하게 하고 네 마음을 정복했으며, 그는 실로 사랑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를 사랑할 거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것이 모두 증언이다. 힘 있게 증거함으로써 사람들이 모두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그것은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말해 준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행사를 증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너의 증거를 통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찾고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든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증거야말로 참된 증거이다. 지금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너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역이 아주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길 만하며, 하나님은 참으로 보배롭고 풍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의 마음을 연단할 수도 있으며,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온전케 할 수도 있어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매우 사랑스러움을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말이 우러나온다면 그때는 너에게 증거가 있는 것이다. 네가 이 정도까지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증거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직 멀었다. 연단 속에서 사람이 연약해지는 것은 정상이다. 그러나 연단 후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지혜롭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이 말의 실재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보배로울 것이고 너의 체험도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온전케 될 사람은 모두 연단을 겪어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12)

너는 지금 무엇을 추구해야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할 수 있는지, 네가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지,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지, 이것이 네가 추구해야 하는 것들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 너는 그 사역에 대해 얼마나 알고 또 얼마나 깨달았느냐? 얼마나 체험하고 얼마나 경험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시련을 주든, 너를 책망하든 징계하든, 어쨌든 하나님은 너에게 자신의 행사와 사역을 행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너의 실제 체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할 수 있느냐? 실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낼 수 있느냐? 실제 체험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 너의 일생을 헌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려면 너의 체험과 인식, 네가 치른 대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너에게 그런 의지가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고, 더욱이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요구하는 백성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증거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내기를 갈망하며, 너의 입으로 증거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보게 해야 한다. 네가 정말로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온전케 되어 마지막에 복을 받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 너는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그를 만족케 할 것인지, 하나님의 기묘함과 지혜를 어떻게 증거하고 너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지 추구해야 한다. 이런 것이 모두 지금 네가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마음이 단지 하나님께 온전케 된 후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면, 그것으로는 부족하며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사역을 실제적으로 증거하고, 그의 요구를 실제적으로 충족시키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사역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고난을 받든, 눈물을 흘리든, 근심으로 슬퍼하든 모두 실제로 체험해야 한다. 이는 네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네가 지금 고난받고,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나? 오늘날 네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복을 받거나 나중의 앞날과 운명을 위한 것이냐? 마음가짐과 동기, 추구하는 목표를 바로잡아야지, 너 자신의 뜻에 따라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군가는 복을 받기 위해, 왕 노릇 하기 위해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흠족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실제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온전케 되기를 추구한다면 너는 이 둘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전자를 택한다면 너는 아직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나는 나의 행사를 전 우주에 공개하고, 전 우주에서 왕권을 잡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 맡긴 일은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것이지, 왕이 되어 우주 전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우주 궁창에 가득 나타내 모든 이가 보게 하고 인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는 일이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지금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증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목적이 무엇이나? 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야겠느냐? 너에게 온전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자신이 살아 낸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겠다는 원동력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너에게 이런 원동력이 있다면 그 어떤 소극적인 것, 수동적인 것, 육적인 나태함, 육적인 관념, 처세 철학, 패역한 성품, 감정 등도 모두 쉽게 버릴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온전케 될 사람은 모두 연단을 겪어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13)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사람이 연약해지거나 소극적이 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거나 실행의 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하는 것은 다 정상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믿음이 있어야 하고, 옅처럼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옅이 비록 연약하여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지만, 그는 사람이 태어나서 가지게 된 모든 것은 여호와가 베풀어 준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는 이도 여호와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어떤 시련을 겪든 그의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네가 체험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연단을 받든, 결국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가 그렇게 사역함으로써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람의 믿음과 사랑이며, 또한 사람의 의지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할 때 사람은 그것을 느낄 수도 볼 수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너의 믿음이 필요하다.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일에서 사람의 믿음이 필요하고, 네가 관념을 내려놓지 못할 때 너의 믿음이 필요하며, 네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모를 때 너의 믿음이 필요하다. 너는 이러한 주관을 갖고 굳게 서야 한다. 옅이 이 수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말씀했다. 다시 말해, 네가 믿음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네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온전케 하지만, 네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너를 온전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네가 바라는 것을 베풀어 준다. 너에게 믿음이 없으면 온전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행사를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전능은 더더욱 볼 수 없다. 네가 실제 체험 중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나타나 네 안에서 너를 깨우쳐 주고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네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다. 네가 하나님께 희망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니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그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어야 체험 속에서 그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받을 수 있고, 그의 행사를 볼 수 있다. 이런 것은 모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연단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연단이 없으면 믿음도 생기지 않는다. 믿음이란 무엇이야? 바로 사람이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의 관념과 맞지 않아 이를 수 없을 때, 갖춰야 하는 참된 믿음과 진실한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믿음이다. 사람은 고난받을 때 믿음이 필요하고, 연단받을 때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있으면 그에 따라 연단도 온다. 이 둘은 갈라놓을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든,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언제나 생명을 추구하고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알고 진리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는 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연단 속에서도 진리를 추구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계속 진리를 실행하여 그를 만족케 하고, 깊은 곳에서 그의 뜻을 구하고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다. 지난날, 너에게 왕권을 잡게 할 것이라고 했을 때는 그를 사랑하고, 너에게 공개했을 때는 그를 추구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모습을 감추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고 고난이 임하니 하나님에게 실망했느냐? 그러므로 너는 언제나 생명을 추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기를 추구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진실한 믿음이자 가장 참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다들 하나님 앞에서 각오를 다지며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 너에게 임한 연단이 네 관념에 어긋나자 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이냐? 너는 지난날 옳의 행적을 여러 번 보았다. 그것을 지금은 잊은 것이냐? 믿음 안에서만 참된 사랑이 생길 수 있다. 네가 연단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생길 것이다. 실제로 체험하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욕을 버리며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네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행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행사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온전케 되려면 반드시 고난받겠다는 각오, 믿음, 인내, 순종 등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슬픔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연단이 닥칠 때마다 너의 믿음과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온전케 되려면 열심히 뛰어다니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줄만 알아서도 안 된다. 많은 것을 갖추어야만 하나님께 온전케 된 사람이 될 수 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욕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모습을 감추었을 때 하나님을 따를 믿음을 갖고 예전의 사랑도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지배에 따르고, 차라리 자기 육체를 저주할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시련이 닥쳤을 때 고통을 참으며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할지언정 하나님을 만족게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사랑과 믿음이다. 너의 실제 분량이 어떻든, 너는 우선 고난받겠다는 각오와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욕을 버리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하며, 자신이 고난받고 개인적인 이익에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고 또 스스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족게 하지 못했더라도 지금은 스스로 통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어느 한 가지도 부족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 너를 온전케 한다. 네가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온전케 될 수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온전케 될 사람은 모두 연단을 겪어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14)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을 줄만 알아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너를 쓰는 것은 너를 연단하여 고통받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네게 하나님의 행사와 인생의 진정한 의의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며, 더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는 것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이상 하나님의 형벌도 누려야 한다. 이런 것들을 모두 체험해야 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깨우쳐 준 것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심판한 것도 체험할 수 있다면, 너는 전면적으로 체험한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심판 사역도 하고 형벌 사역도 했으며 말씀으로 너를 책망한 적도 있지만, 너를 깨우쳐 주었고 빛을 비추어 주었으며, 네가 소극적이 되어 연약해졌을 때도 너를 염려하였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역을 통해 너에게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음을 알게 한다. 만약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고난받는 것,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 또는 육체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우며 편안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모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가져야 할 목적이 아니다. 네가 이렇게 믿고 있다면 너의 관점은 바르지 않은 것이며, 너는 절대로 온전케 될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묘함과 난측함에 대해 알아야 한다. 또한 이런 인식을 통해 네 마음속에 있는 개인적인 요구와 소망, 관념을 없애야 한다. 이런 것을 없애야만 하나님이 요구한 조건을 갖추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만 생명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케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요구한 성품으로 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자격 없는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통해 그의 행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옳은 관점이자 네가 추구하는 목표여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관점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자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 나아가 하나님의 실제 행사를 보고, 하나님이 우주 전체에서 행하는 기묘한 행사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실제 사역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제 체험을 통해 그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람에 대한 그의 뜻이 무엇인지 느끼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사탄의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네 안의 불결하고 불의한 것을 벗어 버리고 너의 옳지 못한 속셈을 버리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참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를 믿지 않는다면 그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왕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흐리멍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 바로 열의가 생겨나고, 연단받는 것을 보면 바로 열의가 사라지는 이들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고, 수많은 종교 관념을 버리지 못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놓지 않고, 육적인 복이 내리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너의 육과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한다면, 이는 전부 관점이 바르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육적인 이익만 추구할 뿐, 성품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종교 신앙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는 전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겠다는 마음과 자기를 버리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고, 성품이 변화될

수도 없다.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온전케 될 사람은 모두 연단을 겪어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15)

연단 사역은 주로 사람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모든 희망을 잃었을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으며, 자기 앞날에 대해 아무런 소망도 갖지 않는 정도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연단이 끝나게 된다. 사람이 죽도록 힘든 지경에 이르러 죽음의 맛을 보기 전까지는 이 연단이 끝나지 않는다. 봉사자의 단계에서도 연단은 극한에 이르지 않았다. 욕은 극한의 연단을 받아 의지할 곳이 전혀 없었다. 사람은 반드시 그 수준까지 연단을 받아 희망도 의지할 곳도 전혀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연단이다. 봉사자일 때 언제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평온히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계속 하나님의 안배에 순종한다면, 이 길 끝에서 너는 하나님이 행한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는 욕의 시련을 겪는 동시에 베드로의 시련 또한 겪게 된다. 욕이 시련을 받을 때 굳게 서자 마지막에 여호와가 그에게 나타났다. 굳게 섰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격이 생긴 것이다. 어째서 “나는 거룩한 나라에는 나타나지만 더러운 땅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말했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네가 성결하게 되고 굳게 서야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있는 것이지, 굳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는 것이다. 연단을 받는 과정에서 떠나거나 원망하고 굳게 서지 못해 사탄의 조롱거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만약 욕처럼 시련 속에서 자신의 육체를 저주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를 중오할 수는 있어도 절대 불평하지 않으며, 입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굳게 선 것이다. 네가 어느 정도로 연단을 받아도 욕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다른 요구를 하지 않으며, 관념도 갖지 않는다면, 그때 하나님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너에게는 수많은 관념과 선입견이 있고, 사심, 잡념, 사사로운 요구, 육적인 이익이 많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을 만나면 너 자신의 관념을 가지고 평가할 것이므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많은 일이 닦혔을 때 너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아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알 수 있으며,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굳게 선 것이다. 만약 네 가정이 평안하고 육체적으로도 누릴 수 있으며 아무도 너를 핍박하지 않고 교회의 형제자매들 또한 너에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너를 연단할 수 있겠느냐? 연단 속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고, 너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 닦쳐야만 너를 온전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많은 일을

역이용하고, 또 사탄의 수많은 행위, 참소, 교란과 미혹 등 다양한 모습을 통해 네가 사탄의 추악한 몰골을 똑똑히 보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을 분별하게 하고 나아가 사탄을 증오하고 저버리게 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온전케 될 사람은 모두 연단을 겪어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16)

너는 많은 실패를 겪고 연약함을 수없이 체험했으며, 또 많은 경우에 소극적이 되는데, 이 역시 하나님이 주는 시련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고, 만사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실패하든, 연약해져서 넘어지든,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네게 시련을 주는 것이지만 네가 알지 못하면 그것이 시험이 된다. 사람은 두 가지 상태를 알아야 한다. 하나는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에게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전자는 성령의 빛 비춤을 받아 자신을 알고 증오하고 통회하게 되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갖게 되고, 굳게 마음먹고 하나님을 흠족게 하려 한다. 반면 후자는 자신을 알기는 해도 소극적이고 연약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사탄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것이 너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임을 알고 하나님께 큰 죄책감을 느끼며 앞으로는 보완하여 다시는 그렇게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마시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련이다. 고통을 받은 후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고 빛을 비추어 주고 깨우쳐 주고 양육해 줄 것이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아예 자포자기하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시험이 닥친 것이다. 욕이 겪은 시련은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한 것이었고, 사탄이 욕을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었다. 비록 하나님이 욕에게 시련을 주었지만 실제로는 사탄이 욕에게 임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욕을 시험한 것이었지만 욕은 하나님 편에 섰다. 만약 욕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면 시험에 빠졌을 것이다. 사람은 일단 시험에 빠지면 위험해진다. 연단 겪는 것을 하나님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태가 좋지 못하면 사탄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네가 이상(異象)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하면 사탄이 너를 참소하고 이상에 대해 모호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지 않으면 온전케 될 수 없다. 너는 세부적으로 체험하며 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유로 관념이나 많은 속셈이 생기는지, 또 그런 것에 대한 적절한 실행 방법이 있는지 등을 말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줄 안다면 분량이 있다는 의미다. 겉으로만 열정이 있다면 참된 분량이 아니므로 전혀 굳게 설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줄 알아야, 또 언제 어디서든 체험하고 곰곰이 생각할 수 있으며, 언젠가는 목양자들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실제 행사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다다른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이 체험할 줄 모르고,

일이 닥쳐도 처리할 줄 모르며,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줄 모르고, 영 생활을 할 줄도 모른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너의 실생활에 적용시켜야 한다.

때로 하나님은 너에게 내면에 누림을 잃고, 하나님의 함께함이 없고 어둠에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데, 이것은 일종의 연단이다. 또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문제가 생기고 실패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다. 때로 네가 거역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있기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징계하는 것이다. 성령 역사는 아주 세밀하다. 사람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까지도 아주 또렷하게 감찰하고 사람이 속으로 느끼게 한다. 네가 일을 할 때 한 번, 두 번 문제가 생기다 보면 성령 역사에 대해 차츰 알게 될 것이다. 여러 번의 징계를 통해 너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지 알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에 정확하게 반응하게 된다. 어떤 때는 네가 거역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책망이 느껴지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오는 징계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은 너를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답게 대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깨우쳐 준다. 지금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흐리멍덩하게 믿고 지나친 일을 많이 해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뚜렷한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사명을 버리고 사업하러 떠나도 징계가 임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은 더 위험하다. 그런 사람은 지금 당장 성령의 역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온전케 되기도 어렵다. 많은 사람에게서 성령 역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사람은 연단 속에서 굳게 설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따라가야 하며, 최소한 떠나지 않고 베드로의 0.1% 정도는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사용 가치가 없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며 베드로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들에게 징계하고 깨우쳐 주는 일을 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벗어 버릴 수 있게 한다. 이런 사람은 금은보석이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역을 했는데도 여전히 모래나 돌이라면 너라는 사람은 가치가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온전케 될 사람은 모두 연단을 겪어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17)

하나님이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하는 사역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기묘한데, 한 무리 사람을 온전케 하고 또한 일부 사람들을 도태시킬 것이다. 교회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어, 분명 일부 불신파나 악인들이 도태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부정적인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부 소수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 이때 모두 드러난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단계 한 단계 역사를 통해 드러나 도태될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자들은 모두 정복 사역에서 드러난 사람들이고, 온전케 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온전케 된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얻어져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정복된 사람은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사랑할 뿐이다. 정복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사랑이란 실제로 체험하여 인식을 갖게 됨으로써 생기는 사랑이다. 이런 사랑이 마음을 점유하면 사람은 자각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근간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고난도 받게 된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네가 정복되기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복하는 것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을 이룬다면 ‘봉사자’ 단계에서 사역이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루려는 바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를 정복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보다 온전케 하는 사역, 도태시키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다. 그들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또 한 무리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데, 이 두 사역은 동시에 시작된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해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복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정복된 사실이다. 그러나 연단은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연단 없이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연단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지금은 한 무리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한 무리 사람들을 얻는다. 예전에 말한 열 가지 복은 모두 온전케 되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이고, 땅에서 형상을 바꾼다는 것은 모두 온전케 되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이다. 온전케 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온전케 될 사람은 모두 연단을 겪어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18)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은 만고불변의 이치이다. 특히 오늘날 성육신 하나님이 직접 사역하는 시대는 하나님을 알아 갈 좋은 기회다. 하나님을 만족케 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런 인식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지녀야 할 이상(異象)이자 토대이다. 사람에게 이런 인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고, 공허한 도리 속에서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 흐름 속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자는 훗날 도태될 대상으로, 공밥을 먹는

사람이다. 네가 어느 단계의 사역을 체험하든 그에 따른 큰 이상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새 사역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새 사역은 사람이 생각해 낼 수 없고 사람의 사고로 이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목자의 목양이나 이상에 대한 목자의 교제 없이는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사람이 이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새 사역도 이해하지 못하고, 새 사역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무(無)로 돌아가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한다.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정확히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다. 이는 진리를 구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갖춰야 할 점이자 하나님을 알아 가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 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 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 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상을 아는 것은 성육신 하나님의 인성을 아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아는 것도 뜻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함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 가는 첫걸음이며,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가장 깊게 믿을 때까지의 과정은 하나님을 알아 가는 과정이자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는 과정이다. 네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믿기 위해 믿는 것이라면, 네 ‘믿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실체가 없고 순결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차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조금씩 성품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믿음도 점점 진실해진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토록 심혈을 기울여 두 번째로 육신을 입고 직접 사역하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알고 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사역을 마칠 때 거둘 최종의 성과이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요구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지막 증거를 위해서이며, 궁극적으로 인류가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어떻게 추구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 추구하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생기고, 참된 경외와 순종도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하거나 경외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아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에 포함되지만, 어느 측면을 알든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하고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마지막까지 따를 수 없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고정 관념에 너무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함은 사람이 알기 아주 어려우며,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나 행동 하나도 사람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꺼린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창세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많은 사역을 했고, 사람의 관념이 치유받기 힘든 많은 말씀을 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사람들의 고충이 크다는

것을 이유로 자신의 사역을 멈춘 적이 없으며, 계속 사역하고 계속 말씀해 왔다. 수많은 ‘용사’가 쓰러졌지만 그는 계속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새 사역에 기꺼이 순종하는 한 무리 또 한 무리의 사람을 끊임없이 택하고 있다. 그는 쓰러진 ‘영웅호걸’을 전혀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 반면, 그의 새 사역과 새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을 귀히 여긴다. 그런데 그의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사역은 무엇을 위한 것이겠느냐? 그는 왜 늘 사람을 도태시키기도 하고 택하기도 하겠느냐? 왜 항상 이런 방식을 택하겠느냐? 그가 사역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그로 인해 그에게 얻어지게 하는 데 있다. 그의 사역 원칙은 그의 현재 사역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사역하고, 과거 사역에는 순종하나 현재 사역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사역하지 않는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태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을 아는 공과는 하루 이틀 만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사람은 체험하고 고난받고 참되게 순종해야 한다. 먼저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없고, 또 단시간 내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모두 필요한 체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알거나 진심으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사역이 많아질수록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요소도 많아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의 고정 관념에 부합하지 않을수록 사람은 그에 대해 더 새롭고 깊게 알게 된다. 하나님의 사역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앎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율법시대에 한 것은 무엇이고, 은혜시대에 한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한 것은 또 무엇인지, 이런 이상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역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중에서

*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직역) ‘하나님을 아는’ 이 단계 사역은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19)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고,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생명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다. 네가 자신을 인식하는 것과 자신의 패괴 성품을 다스리는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사역이 무엇이고 얼마나 큰 구원이 있는지,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어떻게 보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없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체험이다. 네가 단순히 진리를 실행하고 인내할 수 있다고 해서 생명이 성장했다고 생각한다면, 생명의 진정한 함의와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근본 취지를 아직 모르는 것이다. 언젠가 너는 예배당에서, 오회파(懊悔派)에서, 생명파에서 경건한 사람을 수없이 만날 것이다. 그들의

기도에는 ‘이상’이 있고, 생명 추구에는 감동과 말씀의 인도가 있다. 또 그들은 많은 일에서 인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육체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있다. 그때가 되면 너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들이 모두 옳게 행동하고 있고, 모두가 생명의 자연스러운 표출이지만 아쉽게도 믿는 이름이 틀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어리석은 관점 아니겠느냐? 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하겠느냐?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생명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네 믿음이 어느 경지에 이르러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실재, 하나님이 하는 모든 단계의 사역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너에게 진리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알지 못한다면, 너의 그런 체험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예수 그 단계에는 어떻게 했고 이 단계에는 또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은혜시대에는 어떻게 했고 무슨 사역을 했는지, 이 단계에는 또 어떤 사역을 했는지 등에 대해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너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얼마 동안 체험해서 하나님이 행한 사역과 하나님의 모든 단계 사역의 절차를 알 수 있다면, 또 하나님 말씀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그렇게 많은 말씀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확실하게 인식한다면, 마음을 놓고 대담하게 앞길을 추구할 수 있으며 걱정하지 않고 연단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수많은 사역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봐야 한다. 바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사람을 연단하고 사람의 고정 관념을 돌려놓는다. 너희가 받은 고통과 너희가 겪은 연단, 내면에서 받은 책망, 체험한 깨우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오하기 그지없으며,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드러내 과거의 일을 알고 미래의 일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고통받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케 된다. 그때에야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온전케 되든, 연단을 받든 핵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자 오늘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상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중에서

생명 진입[5]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20)

베드로는 예수를 따를 때 예수에 대해 많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항상 자신의 시각으로 판단했다. 그는 영에 대해 조금 인식이 있기는 했지만 분명히 알지는 못하였기에, “당신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면 꼭 따를 것이고, 성령께서 증거하셨다면 인정하옵니다.”라는 말을 했다. 그는 예수가 행하는 것을 이해하지도, 명확히 알지도 못했다. 그는 한동안 예수를 따른 후 예수가 하는 사역과 말씀에 관심이 생겼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흥미가 생겼다. 베드로는 예수가 친근하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하여 그와 접촉하고 함께하기를 원했으며, 예수의 말씀을 듣고 공급과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는 동안 예수가 한 일과 말씀, 행동, 표정 등 예수의 모든 생활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겼다. 그는 예수가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예수는 겉보기에 매우 평범한 인성을 지닌 것 같았지만,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 관용이 넘쳤으며, 그가 행하는 것과 말씀하는 것은 모두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베드로는 예수에게서 그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한 번도 갖지 못했던 것을 얻었다. 그는 예수에게 위대한 외형이나 비상한 인성은 없어도 예사롭지 않은 특별한 기운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는 정확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의 행동이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다는 점을 알았다. 예수가 행하는 일이 평범한 사람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와 접촉하면서 예수의 성격도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수는 일을 행함에 있어 조급해하지 않고 침착했으며, 과장하거나 축소시켜 말씀하지도 않았다. 일상에서도 평범하지만 사람들의 선망을 자아내는 그의 성격이 표출되었다. 예수는 언행이 솔직하고 대범하며 쾌활하고 침착했지만 사역할 때는 존엄을 잃지 않았다. 베드로가 본 예수는 때로는 말씀을 아끼고 때로는 유창하고 막힘없이 말씀했다. 때로는 아주 기뻐했는데, 그럴 때면 흰 비둘기처럼 기운차고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때로는 슬퍼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럴 때면 온갖 고생을 겪은 어머니처럼 슬퍼하였다. 때로는 용맹한 전사가 적을 무찌르는 것처럼, 때로는 심지어 포효하는 사자처럼 분노하였다. 또 때로는 환히 웃었고 때로는 슬피 울며 기도하였다. 예수가 어떻게 생활하든 베드로는 그를 끝없이 존경하고 사랑했다. 베드로는 예수가 기뻐하는 모습에 즐거워했고, 예수가 우울해하는 모습에 비통해했으며, 예수가 노여워하는 모습에 전전긍긍했다. 예수의 긍휼과 용서, 사람에 대한 엄격한 요구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경외하고 사모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들은 전부 베드로가 예수와 여러 해를 함께 보내며 차츰 알게 된 것이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베드로가 ‘예수’를 알아 간 과정>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21)

베드로에게는 절정에 이른 체험이 있었다. 그때 그는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가 내면에서 여전히 그를 격려하며 그의 앞에 한 번 나타났다. 베드로가 몹시 고통스러워하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느낄 때, 예수는 그에게 알려 주었다. “너는 전에 나와 함께 땅에 있었고 나 역시 너와 함께 땅에 있었느니라. 우리는 예전에 함께 하늘에 있었지만 어쨌든 그곳은 영계에 속하느니라. 이제 나는 영계로 돌아갔고, 너는 땅에 있느니라. 나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에 너 역시 땅에 속하지 않지만 너는 땅에서 네 역할을 다해야 하느니라. 너는 종이 되었으니 네 본분을 다해야 하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에 위안을 얻었다. 당시 그는 극도의 육체적 고통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다. 너무나 후회스러웠던 그는 “저는 너무 패괴되어 하나님을 흡족게 할 수 없나이다.”라고 했다. 그러자 예수는 그의 앞에 나타나 “베드로야, 내 앞에서 세웠던 뜻을 잊었느냐? 내가 한 말들을 정말 잊었느냐? 예전에 나와 함께 세웠던 뜻을 잊었느냐?”라고 물었다. 베드로는 예수를 보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예수는 그를 위로해 주었다. “나는 땅에 속하지 않는다고 너에게 이미 알려 주었으니 너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 또한 이 땅과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니라’라고 했던 말을 잊은 것이냐?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이렇게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사람과 하나님이 같은 세상에 있을 수는 없지만, 내게는 나의 일이, 네게는 너의 일이 있느니라. 네가 네 일을 마치는 날 우리는 분명 같은 경지에 있을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에 위안을 받고 마음이 놓였다. 그는 그 고통을 마땅히 받아야 하고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부터 그는 깨우침을 받게 되었다. 예수는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특별히 베드로 앞에 나타나 그를 깨우쳐 주고 인도하며, 그에게 수많은 사역을 행하였다. 베드로가 어떤 일 때문에 가장 후회했겠느냐? 예수가 그에게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다(하지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는 다르다).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대답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다. 베드로는 예수가 한 그 말의 뜻을 알고 “주여! 저는 예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했으나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음을 시인하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예수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땅에 거하는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땅에 온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니라.”라고 말씀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저는 예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했으나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나이다.”라고 한 이 말을 늘 후회하고 통곡했으며, 예수가 부활하여 승천한 후에는 이 일로 더욱 후회하며 슬퍼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과거에 했던 사역과 자신의 현재 분량을 생각하며 자주 예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후회하고 죄스러워했다. 이러한 일들은 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었다. 그는 “언젠가

반드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겠나이다. 저의 가장 귀한 것을 당신께 바치겠나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제게는 믿음과 사랑밖에 없나이다. 제 목숨과 육체는 보잘것없나이다. 제게는 오직 믿음과 사랑밖에 없나이다. 당신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제 믿음과 사랑을 당신께 바치겠나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베드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에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느니라. 너 역시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니라.”라고 한 말씀에 특히 격려를 받았다. 후에 베드로가 매우 고통스러워하자 예수는 “베드로야, 잊었느냐?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느니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 때문에 먼저 갔을 뿐이니라. 너 역시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니라. 이를 정말 잊었느냐? 내가 너에게 두 번 말했거늘 기억 못하는 것이냐?”라고 일깨워 주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잊지 않았나이다!”라고 답하니, 예수는 다시 이렇게 말씀했다. “전에 나와 하늘에서 즐거운 만남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한동안 함께했느니라. 너도 나를 그리워하고 나도 너를 그리워하느니라. 피조물이 내 눈에 보잘것없게 보일지라도 천진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는 내가 한 약속을 잊었느냐? 너는 땅에서 내가 맡긴 사명을 받아들여야 하고, 내가 맡긴 사명을 완수해야 하느니라. 언젠가 내가 반드시 너를 내 곁으로 데려올 것이니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더 큰 격려와 깨우침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당신을 아무리 사랑해도 부족하기만 하나이다! 당신이 제게 죽으라고 하시더라도 저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겠나이다. 제 영혼을 어디로 데려가시든, 당신의 이전 약속대로 이루시든 이루지 아니하시든, 당신께서 앞으로 어찌하시든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믿겠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가 지킨 것은 믿음이요, 진정한 사랑이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베드로가 ‘예수’를 알아 간 과정>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22)

이제 너는 베드로가 간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보아야 한다. 베드로가 간 길을 분명히 보았다면 지금의 사역을 확신하게 될 것이며, 불평을 터트리거나 소극적이 되지 않고 뭔가를 바라지도 않게 될 것이다. 너는 베드로의 그때 심정을 체험해야 한다. 그는 몹시 괴로워 죽고 싶은 지경에 이르렀어도 좋은 미래나 복받기를 바라지 않았다. 또한, 그는 세상의 명예나 복, 부귀영화를 좇지 않았으며, 그저 가장 의미 있는 인생, 즉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만족했다. 그는 종종 예수께 기도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는 당신을 사랑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았나이다. 비록 입으로는 당신을 믿는다고 떠들었지만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나이다. 저는 그저 당신을 앙망하고 우러러보고 그리워했을 뿐 당신을 사랑하지도 진심으로 믿지도 않았나이다.” 그는 항상 기도하며 뜻을 세웠고, 언제나 예수의 말씀에 격려를 받으며 이를 동력으로 삼았다. 한동안 체험한 후, 예수가 베드로에게 시련을

주자 그는 예수를 더욱 사모하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이 너무도 그립고 뵈고 싶습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당신의 사랑에 보답할 수 없나이다. 저를 빨리 데려가 주소서. 언제쯤에야 제가 필요하겠나이까? 언제쯤에야 저를 데려가시겠나이까? 언제쯤에야 당신의 얼굴을 다시 뵈 수 있나이까? 저는 더 이상 육체에 살길 원하지 않으며, 더 이상 파괴되지 않고 거역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한시라도 빨리 제 모든 것을 당신께 전부 바치길 원하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나이다.” 그는 당시에 이렇게 기도했으나 예수가 그에게서 무엇을 온전케 하려는지 알지 못했다. 그가 시련을 받고 극도로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가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나서 말씀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온전케 하여 한 알의 열매로 만들 것이니라. 그것은 내가 온전케 한 후의 결정체로, 난 그것을 누릴 것이니라. 너는 정말 나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 네게 하라는 일을 하였느냐? 내가 한 말을 살아 냈느냐?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 나를 사랑했으나 나를 살아 냈느냐?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전에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일을 떠올리며 불평을 멈추었다. 다시 기도할 때는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그는 다시 기도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는 당신을 떠난 적이 있고, 당신도 저를 떠나신 적이 있나이다. 우리는 이별했던 때도 함께했을 때도 있지만 당신은 그 무엇보다 저를 사랑하셨나이다. 저는 여러 번 당신을 거역하고 여러 번 당신을 슬프게 했나이다. 이를 어찌 잊을 수 있겠나이까? 저는 당신이 제게 행하신 사역과 제게 맡기신 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당신께서 제게 행하신 사역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나이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무슨 기능을 할 수 있는지는 당신께서 더 잘 아실 것이옵니다. 저를 당신의 지배에 맡기길 원하옵고 제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길 원하옵나이다.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당신만이 아시나이다. 사탄이 이렇게 저를 우롱하고, 저 역시 당신을 거역한 적이 있으나 당신께서는 그런 이유로 저의 과오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런 것들로 저를 대하지 않으실 것이라 믿사옵니다. 저는 제 일생을 당신께 바치길 원하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른 바람이나 계획도 없사옵니다. 오직 당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 행하길 원할 뿐이옵니다. 저는 당신의 쓴잔을 마시고, 저 자신을 당신의 지배에 맡기길 원하나이다.”

너희는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 너희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이 온전케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어느 날 시련이 임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너희가 베드로의 체험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너희가 베드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베드로 역시 진실한 믿음과 사랑,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정직함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케 되었다. 너에게 정말로 베드로 같은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너도 반드시 예수께 온전케 될 것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23)

베드로는 형벌 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 “하나님, 저의 육은 패역한 것이니 저를 형벌하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당신의 형벌과 심판을 기쁨으로 여기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당신의 심판 속에서 당신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을 볼 수 있나이다. 저를 향한 당신의 심판 가운데 사람들이 당신의 공의로운 성품을 볼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하나이다. 당신의 성품이 나타나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공의로운 성품을 볼 수 있고, 또한 당신의 심판을 통해 당신을 향한 저의 사랑이 더욱 순결해지게 되어 의인의 모습에 이를 수 있으면, 이러한 심판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나이다. 그 속에는 당신의 아름다운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아직 패역한 면이 많아 당신 앞에 갈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니 저를 더 많이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열악한 환경이든 커다란 환난이든, 당신께서 무엇을 하시든 제게는 모두 귀하나이다. 당신의 사랑이 너무도 깊나이다. 저는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고 당신이 지배하시는 대로 따르겠나이다.” 이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며 알게 된 인식이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간증이다. 현재 정복된 이후 너희의 모습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제가 하나님께 정복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자 하나님이 저를 크게 높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인생이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은 바쁜 일생을 보내며 자식을 낳아 키우고 세대를 이어 가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정복되고서야 사람의 이런 삶은 아무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정복된 자가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겠느냐? 본보기와 모델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사람은 의지가 없고 발전을 추구하지 않는 반면교사이다. 설령 정복되었다고 해도 이렇게 소극적인 자는 온전케 될 수 없다. 베드로는 온전케 된 후, 즉 세상을 떠날 때가 됐을 무렵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제 수명이 몇 년 더 연장될 수 있다면 당신을 더 순수하게, 더 깊게 사랑하고 싶나이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의 때가 되었나이다. 바로 당신이 저에게 예비하신 때가 되었나이다. 저는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올라 이 증거를 해야 하나이다. 제 사랑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더 순수해지기를 바라나이다. 제가 오늘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음에 위안과 평안을 느끼나이다. 제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고 당신이 바라시는 바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기 때문이옵나이다. 당신께 제 자신을 전부 바치고 제 생명까지 바칠 수 있음에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느끼나이다.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사랑스럽나이다. 앞으로 좀 더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저는 당신을 더 사랑하겠나이다. 살아 있는 한 저는 당신을 사랑하겠나이다.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하길 원하옵나이다. 저는 불의와 죄로 인해 당신의 심판과 형벌, 시련을 받았고, 그러면서 당신의 공의로운 성품을 더 많이 보게 되었나이다. 이는 저의 복이옵니다.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으니

말이나이다. 당신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해도 저는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싶나이다. 저는 당신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고 싶나이다. 제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으니 말이옵나이다. 저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하나이다. 제가 당신으로 인해 십자가에 오르고 당신을 위해 죽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나이다. 하지만 당신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지 못하나이다. 저는 당신이 바라시는 것을 완전히 충족시켜 드릴 수 없고, 당신께 보답한 것이 너무 적음을 알고 있나이다. 살아 있는 동안 당신에게서 받은 사랑에 다 보답해 드리지 못했나이다. 제가 너무 부족하나이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 죄스러운 마음이 더 드나이다. 제 모든 잘못과 당신께 보답해 드리지 못한 모든 사랑을 그저 이 한순간으로 메울 수밖에 없나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베드로의 체험- 형벌과 심판에 대한 인식>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24)

사람은 현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해야 한다.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려면 베드로의 인식과 체험을 갖춰야 한다. 더 높고 더 깊은 것을 추구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더 깊고 순결한 사랑을 추구해야 하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생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이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다. 너는 일시적인 편안함에 만족하며 소극적이 되어 후퇴해 더 깊고, 더 세밀하고, 더 실제적인 진리를 소홀히 해서 안 되며, 자신이 적극적인 면에 자발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 너는 실제적인 사랑을 갖추어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타락해 살아가는 짐승 같은 삶에서 벗어나야 하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스스로 자신을 우롱하지 말고, 자기 삶을 장난감 삼아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얻지 못할 진리도, 서지 못할 정의도 없다. 너는 일생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느냐?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해야 하겠느냐? 이는 모두 네 일생에서 가장 큰 일이다. 너에게 이런 의지와 끈기가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기개 없는 나약한 자가 되지 말아라. 너는 의미 있는 인생과 의미 있는 진리를 체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을 그렇게 건성으로 대해선 안 된다. 일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지나가 버리는데,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이런 기회가 또 오겠느냐?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는 베드로와 같은 의지와 양심이 있어야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을 우롱하지 말아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너는 네 일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더 의미 있게 믿을 수 있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상, 어떻게 해야 더 순결하고, 더 아름답고, 더 선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 어떻게 정복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도 생각해야 한다. 온전케 될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하고, 항상 자신은 안 된다고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진리가 어찌 사람을 차별할 수

있겠느냐? 진리가 어찌 고의로 사람과 맞설 수 있겠느냐? 네가 진리를 추구한다면 진리가 어찌 너를 눌러 버릴 수 있겠느냐? 네가 정의를 위하여 굳게 선다면 정의가 어찌 너를 쓰러뜨릴 수 있겠느냐? 네게 진정으로 생명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생명이 너를 피할 수 있겠느냐? 너에게 진리가 없는 것은 진리가 너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진리를 멀리했기 때문이다. 네가 정의를 위해 굳게 서지 못하는 것은 정의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정의는 사실을 왜곡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네가 오랫동안 추구하고도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은 생명이 네게 양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가 생명에 대해 양심이 없고 생명을 쫓아냈기 때문이다. 네가 빛 속에서 살면서도 빛을 얻지 못한 것은 빛이 너를 밝게 비추지 못해서가 아니라, 네가 빛의 존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빛이 조용히 떠났기 때문이다. 네가 추구하지 않는다면 너를 가치 없는 천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네게는 살아갈 용기가 없고 흑암 세력에 반항할 의지도 없다. 너는 너무 나약하다! 그래서 사탄 세력의 포위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평탄하게 살다가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려 할 뿐이다. 정복되기를 추구하는 것은 네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자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이다. 네가 만약 정복되는 것에만 만족한다면 그건 빛의 존재를 쫓아내는 것이다. 너는 진리를 위해 고통받아야 하고, 진리를 위해 헌신해야 하며, 진리를 위해 굴욕을 참아야 하고, 더 많고 많은 진리를 얻기 위해 더 많고 많은 고난을 참아야 한다. 이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너는 가정의 화목을 누리기 위해 진리를 버리지 말고, 일시적인 향락을 위해 일생의 존엄과 인격을 잃지 말아라. 마땅히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을 추구하고 더 의미 있는 인생길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속되게 살며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도 없다면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냐? 네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진리 하나를 위해 너는 모든 육적 향락을 포기해야 하며, 약간의 향락을 위해 모든 진리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인격도 없고 존엄성도 없고 살아갈 의의도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베드로의 체험—형벌과 심판에 대한 인식>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25)

하나님이 사람을 형벌하고 심판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일이며, 나아가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다. 사람은 형벌과 심판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너희가 지금은 진심으로 탄복하지만 작은 좌절만 마주해도 견디지 못한다. 분량이 너무 작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형벌과 심판을 더 많이 겪어 더 깊이 알아야 한다. 지금 너희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이 참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고 순결한 사랑에는 더더욱 이르지 못했다. 너희는 인식이 너무 얕고 분량도 아직 부족하다. 정말 어떤 환경이 닥치면 증거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면에서의 진입이 너무 적으며,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 대부분 소극적이고 피동적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뿐, 실행할 길이 없고 목표도 명확하지 않다. 온전케 된 사람은 정상적인 인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갖춘 진리가 양심의 범위를 넘어서고 양심의 기준보다 높다. 그런 사람은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에 대해 알았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하며,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점이 많아서 사람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보았다. 온전케 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다짐한 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자발적인 사랑이고 대가를 따지지 않는 사랑이며 거래가 없는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긴다. 그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든 말든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하나님께 조건을 걸지 않고, 양심적 판단에 의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 ‘당신이 제게 베풀어 주셨으니 저도 당신께 사랑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주지 않으신다면 저도 당신께 돌려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는 식이 아니다. 온전케 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에게 이 사역을 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케 될 이런 기회와 조건, 자격을 얻은 이상,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족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베드로가 체험한 것과 같다. 그는 가장 연약해졌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당신은 제가 언제 어디서나 당신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제가 언제 어디서나 당신을 사랑하길 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이다. 하지만 저의 분량은 너무 작나이다. 저는 연약하고 힘이 없으며, 제 사랑은 너무도 유한하나이다. 당신에 대한 진심도 너무 적나이다. 당신의 사랑과 비교하면 저는 살아갈 자격도 없나이다. 저는 오로지 이 일생을 헛되이 살지 않고, 당신의 사랑에 보답하며, 더욱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칠 수 있기를 바라나이다. 피조물인 저는 당신을 만족게 할 수만 있다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며,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나이다. 비록 저는 지금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당신의 당부를 잊을 수 없고 당신의 사랑을 잊을 수 없나이다. 저는 지금 당신의 사랑에 보답할 뿐이나이다. 하나님, 제 마음은 몹시 괴롭나이다. 어떻게 해야 제 마음속 사랑을 당신께 돌려 드릴 수 있나이까? 어떻게 해야 제 능력을 다해 당신이 바라시는 바를 충족시켜 드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칠 수 있나이까? 인간의 연약함을 당신께서는 전부 아시나이다. 제가 어떻게 해야 당신의 사랑에 미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당신은 저의 분량이 작음을 아시고, 저의 사랑이 너무 적음을 아시나이다. 이런 환경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제 능력을 다할 수 있나이까? 저는 제가 당신의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드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나이다. 하지만 지금 저의 분량은 실로 너무나 작나이다. 제게 힘과 믿음을 더해 주시어 제가 당신께 더 순결한 사랑을 바칠 수 있도록, 나아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당신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형벌과 심판, 시련, 그리고 더 심한 저주까지도 겪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저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게 하셨으니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비록 지금 저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 있겠나이까? 당신의 사랑과 형벌, 심판을 통해 당신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당신의 사랑에 만족을 드릴 수 없음을 느끼나이다.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이나이다. 제가 어떻게 해야 제 모든 것을 창조주께 바칠 수 있겠나이까?’ 베드로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지만 분량이 부족했다. 그때의 베드로는 가슴이 에이는 듯 몹시 고통스러웠고,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하지만 그는 계속 기도했다. ‘하나님, 사람은 분량이 작고 양심도 연약하나이다. 저는 당신의 사랑에 보답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나이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당신의 마음을 만족케 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나이다. 저는 오로지 최선을 다해 제 모든 것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길 원하나이다. 당신이 저를 심판하시든 형벌하시든, 베풀어 주시든 거두어 가시든, 저는 아무 원망도 없나이다. 당신이 저를 형벌하고 심판하실 때 제 마음속에는 늘 원망이 있었고, 아무리 해도 순결함에 이르지 못했으며, 당신의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당신의 사랑에 보답했나이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나이다. 저는 지금 저 자신을 더욱 증오하나이다.’ 베드로는 더 순결한 사랑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다. 그는 찾고 간구하고 더욱이 자책했다. 그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으며,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을 가졌고, 자신이 증오스럽다고 느꼈다. 하지만 마음이 또 약간 슬프고 우울했으며 소극적이 되었다. 그는 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기 능력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환경에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옫의 믿음을 추구했다. 그는 옫이 당시에 그토록 큰 믿음을 가졌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옫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푸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는 것도 당연하고, 하나님이 베풀고 싶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옫은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지금 저는 양심적으로 당신의 사랑에 보답하고 그 사랑을 조금 돌려 드리는 것에만 만족할 수 없나이다. 제 생각이 너무나 패괴하여 당신을 창조주로 여기지 못하나이다. 저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할 자격이 없기에 저의 모든 것을 당신께 기꺼이 바치고, 당신이 하신 모든 일을 알고,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길 바라나이다. 당신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당신의 음성을 찬미하고,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칭송하게 하옵소서. 저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소서. 저는 당신을 위해 굳게 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데, 제가 어찌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살기를 원하겠나이까? 저는 당신께서 지으셨는데 제가 어찌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 수 있겠나이까? 저는 온전히 당신의 형벌 속에서 살지언정, 그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싶지는 않나이다. 저의 몸과 마음을 전부 당신의 심판과 형벌에 바치고 싶나이다. 이를 통해 정결케 되고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나이다. 저는 사탄을 혐오하며,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나이다. 저에 대한 심판을 통해 당신의 공의로운 성품이 나타나기를 기꺼이 원하고, 이에 아무런 원망도 없나이다.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할 수만 있다면 평생 당신의 심판과 함께하여, 이로써 당신의 공의로운 성품을 알고, 악한 자의 권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늘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여 꽤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했다. 또한 그는 양심에 참소를 받지 않았고, 더 나아가 양심의 기준을 넘어설 수 있었다. 그의 이런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며, 그의 의지는 점점 강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갈수록 커졌다. 그는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계속 구했다. 그의 기도에는 이런 말이 있다. ‘저는 당신의 사랑에 보답하기만 했을 뿐 사탄 앞에서 당신을 증거하지 못했나이다. 저는 사탄의 권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고 아직도 육으로 살고 있나이다. 저의 사랑으로 사탄을 물리쳐 수치스럽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만족케 하길 원하나이다. 또한 저의 전부를 당신께 드리고, 사탄에게는 조금도 주고 싶지 않나이다. 사탄은 당신의 원수이기 때문이나이다.’ 그는 이렇게 구할수록 더 감동받았고, 이런 일들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깊어졌으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돌려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그가 도달한 경지였다. 그는 사탄의 권세를 넘어섰고, 육적인 향락과 기호에서 벗어나 형벌이든 심판이든 더 깊게 체험하기를 바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형벌과 심판 속에서 사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저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의 우롱을 받으며 살고 싶지는 않나이다. 저는 당신의 저주 속에서 사는 것이 기쁘고, 사탄의 축복 속에서 사는 것이 괴롭나이다. 당신의 심판 속에서 살면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몹시 기쁘나이다. 당신의 형벌과 심판은 공의롭고 거룩하며, 저를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고, 더욱이 저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나이다. 저는 평생 당신의 심판 속에서 살면서 당신의 보살핌을 받을지언정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는 한순간도 살고 싶지 않나이다. 저는 당신에 의해 정결케 되기를 원하지, 고통받더라도 사탄에게 이용당하거나 우롱당하는 것은 원치 않나이다. 저 같은 피조물을 당신께서 쓰시고, 점유하시고, 심판하시고, 형벌하심은 당연하며, 심지어 저주하시는 것도 마땅하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축복하려 하실 때, 제 마음은 기쁘나이다. 그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나이다. 당신은 창조주시고 저는 피조물이나이다. 그러기에 저는 당신을 배반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도 안 되고 사탄에게 이용당해도 안 되나이다. 저는 당신의 우마가 되어야지, 사탄을 위해 살아가는 안 되나이다. 당신의 형벌 속에서 살면서 육적인 복락을 누리지 못할지언정, 당신의 은혜를 잃을지언정 저는 여전히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나이다. 비록 당신의 은혜가 저를 따르지는 않지만, 저는 당신의 형벌과 심판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나이다. 이것이 당신의 가장 좋은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이나이다. 당신은 늘 위엄과 진노로 저를 대하시지만 그래도 저는 당신을 떠날 수 없고, 당신을 아무리 사랑해도 부족하기만 하나이다. 저는 당신의 집에서 살면서 당신께 저주와 형벌을 받고 매를 맞을지언정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고, 육만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며 바쁘게 살고 싶지도 않으며, 더욱이 육을 위해 살기를 원치도 않나이다.” 베드로의 이런 사랑은 순결한 사랑이었다. 이것은 온전케 된 자의 체험이고 온전케 된 자의 최고의 경지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다. 그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귀중하게 여겼다. 이것은 그의 가장 귀한 점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사탄이 나에게 물질적 향락을 누리게 해 주어도 나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임하면 나는 그것을 은혜와 누림, 축복으로 여기노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 것이며,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면서 계속 사탄의 통제를 받고 사탄에게 좌지우지됐을 것이니라. 그러면 나는 영원히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족케 해 드리지 못하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노라.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아 내 마음이 위안을 얻지 못하고, 불처럼 타오르며 평안과 기쁨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형벌과 징계가 늘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볼 수 있으며 이를 기쁨으로 여길 것이니라.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노라. 비록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이 무자비한 형벌, 심판, 저주, 매로 바뀌었으나 그래도 나는 이런 것들을 누림으로 여길 것이니라. 이런 것이 나를 더욱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더 순결하게 사랑하도록 하기 때문이노라. 또 내가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게 하여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사탄을 위해 힘쓰지 않게 하기 때문이노라. 언젠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지 않고 내 모든 것과 모든 능력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면, 그때는 내가 매우 만족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나를 구원했으니 내 삶에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없어서는 안 되노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것이니라. 만약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나를 보살피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 것이며, 더욱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기회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나를 떠나지 않아야만 내가 늘 하나님께 정결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엄한 말씀과 공의로운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 있는 심판이 있어야만 내가 커다란 보호를 받으며 빛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노라. 내가 정결케 되고 사탄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금생의 가장 큰 복이니라.” 이것이 베드로가 체험한 최고의 경지였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베드로의 체험—형벌과 심판에 대한 인식>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26)

사람이 육으로 사는 것은 인간 지옥에서 사는 것과 같다. 심판과 형벌이 없으면 사람은 모두 사탄처럼 더러운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느냐? 베드로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보호이고 가장 큰 은혜야. 하나님이 사람을 형벌하고 심판해야만 사람이 깨어날 수 있고 육과 사탄을 증오할 수 있지. 하나님의 엄한 징계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의 권세와 자신만의 좁은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얼굴빛 속에서 살게 해. 심판과 형벌은 가장 좋은 구원이야!’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당신의 형벌과 심판이 있는 한 저는 당신께서 아직 저를 떠나지 않으신 줄로 알고 있나이다. 당신이 제게 기쁨도 평안도 주지 않고 저를 고통 속에서 살게 하시며, 수없이 채찍질하시더라도 저를 떠나지만 않으시면 제 마음이 편안할 것이나이다. 당신의 형벌과 심판은 오늘날 저에게 가장 좋은 보호이자 가장 큰 축복이 되었나이다. 당신이 제게 베푸신

은혜는 저에 대한 보호이나다. 당신은 지금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다. 이 은혜는 당신이 보여 주신 공의로운 성품이고, 형벌이요 심판이며, 더욱이 시련이고 고난의 삶이나다.' 그가 육적인 즐거움을 내려놓고 더 깊은 사랑과 더 큰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형벌과 심판 속에서 얻은 은혜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정결케 되고 성품이 변화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려면,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징계와 매가 떠나지 않게 함으로써 사탄의 지배와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빚임을,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빛이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축복이며,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좋은 보호임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육으로 살면서 정결케 되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면 점점 타락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정결케 되어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대하실 때 저는 기쁨과 위안을 얻었으며, 저를 형벌하실 때는 제 마음에 더 큰 위안과 기쁨이 있었나다. 비록 제게 연약함과 말 못 할 고충이 있고 또 눈물과 슬픔이 있지만, 당신은 제 슬픔이 저의 패역과 연약함 때문임을 아시나다. 저는 당신의 마음을 만족케 해드릴 수 없어 울고, 당신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슬퍼하고 통회하나다. 하지만 저는 그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고 온 힘을 다해 당신을 만족케 해드리기를 원하나다. 당신의 형벌은 저에 대한 보호이자 가장 좋은 구원이 되었나다. 당신의 심판은 당신의 포용과 인내를 뛰어넘나다. 당신의 형벌과 심판이 없다면 저는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누릴 수 없나다. 지금에 이르러 저는 당신의 사랑이 하늘보다 더 높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의 사랑은 긍휼과 자비일 뿐만 아니라 형벌과 심판이라는 것을 보았나다. 저는 당신의 형벌과 심판 속에서 너무도 많은 것을 얻었나다. 당신의 형벌과 심판이 없다면 아무도 정결케 될 수 없고, 아무도 창조주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나다. 저는 온갖 시련과 환난을 겪고 구사일생했지만 그로써 진정 당신을 알고 크나큰 구원을 받게 되었나다. 당신의 형벌과 심판, 징계가 저를 떠난다면 저는 어둠 속에서 살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게 될 것이나다. 사람의 육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이까? 당신의 형벌과 심판이 저를 떠나면 당신의 영이 저를 버린 것과 같고, 또 당신께서 더 이상 저와 함께하시지 않는 것과 같나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당신이 저에게 질병을 주시고 저의 자유를 빼앗아 가셔도 저는 살아갈 수 있지만, 당신의 형벌과 심판이 저를 떠난다면 살아갈 수가 없나다. 저에게 형벌과 심판이 없다면 당신의 사랑을 잃은 것이나다. 당신의 사랑은 너무도 깊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나다. 당신의 사랑을 잃으면 저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게 되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나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그런 어둠, 그런 삶을 견딜 수가 없나다. 당신이 저와 함께하시면 제가 당신을 보는 것과 같은데 어찌 당신을 떠날 수 있겠나이까?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저의 가장 큰 위안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설령 그것이 당신의 아주 작은 위안의 말씀일지라도 그리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누리고 이제는 당신을 떠날 수 없게 되었는데, 제가 어찌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당신의 사랑 때문에 슬픔의 눈물을 수없이 흘렸지만 저는 항상 이런 삶이 더 의미 있고, 저 자신을 더 충실하게 하며, 스스로를 더 변화시키고, 피조물이 갖춰야 할 진리에 더 잘 도달하게 한다고 생각하나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베드로의 체험—형벌과 심판에 대한 인식>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27)

사람은 한평생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며, 그 누구도 스스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모두가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패괴 속에서 살고 공허함 속에서 살며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 모두 육을 위해, 정욕을 위해, 사탄을 위해 그렇게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가며, 생존의 가치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사람은 또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진리를 찾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볼지라도 어떻게 해야 사탄 권세의 통제에서 벗어날지 알지 못한다. 역대로 이런 비결을 발견한 사람이나 찾아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렇기에 사람은 사탄을 혐오하고 육을 혐오한다고 해도 사람을 해치는 사탄의 권세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도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더냐? 패역한 짓을 저지르고도 참회하지 않고, 더욱이 자신을 더럽고 패역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매우 편안하게 느낀다. 너의 편안함은 너의 패괴로 인한 것 아니더냐? 그 편안한 느낌은 너의 패역에서 나온 것 아니더냐? 사람은 모두 인간 지옥에서 살고 있고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살고 있다. 곳곳에서 유령이 사람과 함께 살면서 사람의 육체를 부패시키고 있다. 네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천당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네가 머물고 있는 곳은 바로 마귀의 영역이고, 인간 지옥이자 음부이다. 사람이 정결케 되지 않으면 모두 더러운 존재에 속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사탄의 포로이다. 심판과 형벌을 겪지 않으면 사람은 더더욱 사탄의 이 흑암 권세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네가 드러낸 패괴 성품과 네가 살아 낸 패역한 행위는 네가 아직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다. 너의 마음과 생각이 정결케 되지 않고 너의 성품이 심판과 형벌을 겪지 않으면, 네 전체가 계속 사탄의 권세에 좌지우지된다. 너의 마음이 사탄에게 통제당하고 너의 생각이 사탄의 조종을 받으며 네 전체가 사탄의 손아귀에 좌지우지된다. 너는 지금 베드로의 기준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자질을 갖추었느냐? 너는 오늘날의 심판과 형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 너는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네가 지금도 알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알 수 있겠느냐? 너처럼 나태하고 나약한 사람은 결코 형벌과 심판을 알 수 없다. 네가 육적인 평안과 향락을 추구한다면 정결케 될 수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사탄에게 돌아갈 것이다. 네가 살아 낸 것이 사탄이요, 육이기 때문이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조금도 추구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정결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더 깊은 생명 체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온전케 될 수 있겠느냐? 생명을

추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온전케 될 기회가 없으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자는 모두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을 알고 성품 변화에 들어가는 일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으면서 종교를 믿는 사람처럼 종교의식에 따라 예배만 드린다면 헛수고가 아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명에 대한 일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진리의 진입과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사역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 온전케 될 수 없다. 온전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행한 사역, 특히 형벌과 심판의 의의를 알아야 한다. 왜 사람에게 이 사역을 하는지,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형벌 속에서 네가 베드로와 같은 체험과 인식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야 한다.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령 역사를 아는 것, 그리고 성품 변화를 추구한다면 온전케 될 기회가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베드로의 체험—형벌과 심판에 대한 인식>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28)

온전케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복되는 이 단계의 사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은 정복되어야 온전케 되는 사역을 체험할 수 있다. 네가 정복되는 역할만 맡는다면 그리 큰 가치가 없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도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복음이 확장될 때 너의 몫을 바칠 수가 없다. 그것은 네가 생명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추구하지 않아 실제적인 생명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사역에서 너는 봉사자가 된 적이 있고 부각물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베드로처럼 되기를 추구하지 않고 베드로가 온전케 된 길을 따라 추구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성품이 변화된 체험도 없을 것이다. 네가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너에게 간증이 있을 것이다. 그럼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한 단계 한 단계 사역에서 저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 사역을 받아들여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을 얻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었지요. 그분의 형벌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이 임하여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바로 그분의 심판과 형벌로 보호를 받고 정결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없고 하나님의 엄한 말씀이 저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을 알지도, 구원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 저는 피조물로서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공의로운 심판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이 누릴 가치가 있기에 사탄에게 파괴된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누려야 합니다.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에는 심판과 형벌도 있지만 크나큰 사랑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얻지는 못했지만 다행히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건 제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케 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가는 길이자 말하는 인식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고, 베드로의 체험을 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진리가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마지막까지 체험하면 반드시 심판을 통해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께 얻어지게 된다.

-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베드로의 체험 - 형벌과 심판에 대한 인식>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29)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는 성결한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 에덴동산에 있을 때 그들은 성결했고,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으며, 여호와께 충성하고 여호와를 배반할 줄 몰랐다. 사탄 권세의 방해를 받지 않았고 사탄의 독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장 성결한 인류였다. 그들은 에덴동산에서 살면서 더러움에 물들지도 않고 육에 점유되지도 않았으며, 여호와를 경외했다. 하지만 나중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 독사의 독소가 생기고, 여호와를 배반하는 마음이 생겼으며,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게 되었다. 처음에 그들은 성결했고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때의 그들이 바로 진정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게 되었으며, 사탄에 의해 점점 파괴되어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의 모습을 잃고 말았다. 최초의 인류에게는 여호와의 생기가 있었고, 패역이 조금도 없었으며, 마음속에 사악함이 없었다. 그때의 사람이 진정한 인류였다. 사람은 사탄에 의해 파괴된 후 짐승이 되었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하고 더러웠으며, 선함도 성결함도 사라졌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사탄 아니겠느냐? 네가 많은 사역을 체험하고도 변화되거나 정결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정복되기만 했을 뿐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이다. 왜 온전케 되지 못했다고 하겠느냐? 생명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으며, 육적인 향락과 일시적인 안락만을 탐하여 생명 성품의 변화를 이루지 못했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걸어 다니는 송장이요, 영이 없는 죽은 사람이다! 영적인 일을 알려고 하지 않고 성결해지기를 추구하지 않으며, 진리를 살아 내고자 하지 않고, 소극적인 면에서 정복된 것에만 만족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 살아가는 성결한 인류가 되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시련 속에서 굳게 설 수 없으며, 시련 속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고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오늘날의 진리는 간절히 바라고 찾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너희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 얻어질 수도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얻게 된다.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다 들었으니 나의 이 말대로 실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너희가 이 말을 실천했다면 나는 이 말을 통해 너희를 얻은 것이고, 동시에 너희도 이 말을 얻은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커다란 구원을 얻은 것이다. 너희가 정결함을 얻으면 진정한 사람에 속하게 된다. 네가 진리를 살아 내지 못하고 온전케 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라 걸어 다니는 송장이자

짐승이라고 할 수 있다. 진리가 없기에, 즉 여호와와 생기가 없기에, 너는 영이 없는 죽은 사람이다! 정복된 후에도 간증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저 아주 작은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일 뿐, 네가 영이 있는 산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 형벌과 심판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 너의 성품이 새로워지거나 변화된 것은 아니므로 너는 여전히 옛 사람이자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니, 정결케 된 사람은 아니다. 온전케 된 사람만이 가치가 있고, 이런 사람만이 진정한 인생을 얻은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베드로의 체험— 형벌과 심판에 대한 인식>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30)

지금 어떤 사람들은 쓰임 받고 싶어 하지만, 정복된 후에도 바로 쓰임 받지는 못한다. 사람을 사용할 때에도, 네가 지금의 말씀으로 살지 못한다면 너는 온전케 되지 못한 것이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도태될지 아니면 쓰임 받을지가 정해진다. 정복된 것은 그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예에 불과하다. 그것은 하나의 본보기나 모델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것을 두드러지게 하는 부각물에 불과하다. 생명 성품이 변화되어 안팎으로 다 바뀌어야 진정으로 온전케 된 사람이다. 지금 정복되는 것과 온전케 되는 것이 있는데, 네가 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나? 너는 어느 것에 이르기를 바라느냐? 너는 지금 온전케 될 조건을 갖추었느냐?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이냐? 너는 어떻게 갖추고, 어떻게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겠느냐?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서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완전히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네가 온전케 되고자 한다면 너는 성결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너는 형벌과 심판으로 정결케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이나? 네가 정결케 되기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는 형벌과 심판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는 형벌과 심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나? 지금 너에게 하는 사역은 대부분이 형벌과 심판인데, 너는 너에게 하는 이런 사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네가 체험한 형벌과 심판은 너를 정결케 하였느냐? 너를 변화시켰느냐? 네게서 성과를 거두었느냐? 오늘날, 이 많은 사역, 그러니까 저주와 심판, 폭로를 너는 귀찮다고 여기느냐, 아니면 너에게 아주 이롭다고 여기느냐? 너는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조그마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나, 아니면 평안과 즐거움을 얻었기 때문이나? 그것도 아니면 형벌과 심판으로 정결케 된 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느냐? 너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온전케 됨에 있어서 어떤 조건들을 갖추었느냐? 온전케 된 후에 보인 그의 모습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겠느냐? 베드로는 예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를 사랑한 것이냐, 그를 보지 못해서 사랑한 것이냐? 아니면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환난의 고통을 받은 뒤에 자신의 더러움과 패역, 그리고 주의 거룩함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더 순결해진 것은 형벌과 심판 때문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나? 도대체 무엇 때문이나? 너는 은혜

때문에, 지금의 작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참된 사랑이냐?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겠느냐? 마땅히 형벌과 심판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보고 난 뒤, 참된 사랑이 생기고, 더 나아가 완전히 탄복하여 하나님을 아는 데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느냐? 너는 베드로처럼 “당신을 아무리 사랑해도 부족하기만 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추구하는 것은 형벌과 심판을 통해 정복되는 것이냐, 아니면 형벌과 심판을 통해 정결케 되고 보호와 보살핌을 받는 것이냐? 네가 추구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너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냐, 아니면 가치도, 의미도 없는 인생이냐? 너는 육을 원하느냐, 진리를 원하느냐? 너는 심판을 원하느냐, 편안함을 원하느냐? 너는 이렇게 많은 사역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움을 보았다. 그러니 어떻게 추구해야겠느냐? 이 길을 대체 어떻게 가야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실행해야겠느냐? 형벌과 심판이 네게서 결실을 보았느냐? 네게 형벌과 심판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는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 네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패괴된 옛 성품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며, 더욱이 양심도 갖추지 못했다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느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심이 있겠느냐? 형벌과 심판을 받아들인 사람이겠느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관념을 고집하고, 네 사역과 진입, 하는 말, 그리고 너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다. 이런 사람이 형벌과 심판을 받은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그저 인식만 있고 그것을 살아 내지는 못한 사람이겠느냐? 지금 사람에게 요구하는, 참된 인생을 살라는 것의 조건은 무엇이냐? 베드로의 기도가 입으로만 한 것이었더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란 말이냐? 베드로는 기도할 줄만 알고 진리를 행하지는 않은 사람이었느냐? 너는 누구를 위해 추구하느냐? 형벌과 심판 속에서 보호받고 정결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형벌과 심판은 다 사람에게 이롭지 않은 것이더냐? 심판이라 하면 모두 징벌하는 것이더냐? 설마 평안, 즐거움, 물질적인 축복, 일시적인 안락만이 사람의 생명에 이롭단 말이냐? 사람이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살 뿐 심판받는 삶이 없다면 정결케 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변화되고 정결케 되려면 온전케 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느냐? 너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해야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베드로의 체험—형벌과 심판에 대한 인식>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31)

사람들은 베드로를 얘기할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그러고는 곧바로 그가 하나님을 세 번 부인한 일, 사탄을 위해 일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한 일,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일 등을 떠올린다. 지금 나는 베드로가 어떻게 나를 알게 되었고 그의 마지막 결말이 어땠는지에 중점을 두어 너희에게 얘기하겠다. 베드로는

좋은 자질을 갖췄지만, 바울과는 상황이 달랐다. 그의 부모는 나를 핍박했고, 사탄에게 점령된 악마에 속했다. 그렇기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전도했다고는 할 수 없다. 베드로는 총명하고 타고난 자질이 좋아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장성한 후에는 부모의 '원수'가 되었다. 이는 베드로가 끊임없이 나를 알고자 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그로 인해 부모와 등지게 되었다. 베드로는 무엇보다 먼저 천지 만물이 모두 전능자의 수중에 있고, 또한 모든 긍정적인 사물은 사탄의 '가공'을 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자 직접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부모의 부정적인 면으로 인해 나의 자비와 긍휼을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를 찾으려는 마음이 더욱 불타올랐다. 그는 내 말을 먹고 마시는 것을 중시했고, 더욱이 내 뜻을 찾는 것을 중시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늘 신중했기에 영은 언제나 민감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뜻에 부합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실패의 사슬에 매이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에 평소에 지난날 실패했던 사람들에게서 교훈을 얻어 자신을 다그치는 것을 중시했다. 그는 또한 역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의 믿음과 사랑을 본받는 것을 중시했다. 그런 까닭에 부정적인 면을 통해, 더 중요하게는 긍정적인 면을 통해 더 빨리 성장하였으며, 나아가 내 앞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가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기고 의식주마저도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모든 것에서 나를 만족게 하는 것을 바탕으로 내 풍요로움을 누렸음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나는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을 주었는지 모른다. 물론 베드로 또한 그 시련 속에서 모진 고초를 겪었다. 베드로는 수백 번의 시련을 겪으면서 단 한 번도 믿음을 잃고 나에 대해 실망한 적이 없었다.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고 말했을 때에도, 그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이전의 실행 원칙에 따라 실제적으로 나를 사랑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그가 나를 사랑할지라도 칭찬하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를 사탄의 손에 내버릴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하지만 육신에 실제로 임하지는 않는 이러한 말씀의 시련 속에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나에게 기도했다. '하나님, 천지 만물 중에 어떤 사람, 어떤 사물, 어떤 일이 전능자의 손에 있지 않겠나이까? 당신이 저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제 마음은 당신의 긍휼로 매우 기쁘나이다. 당신이 저를 심판하실 때, 저는 자격이 없지만, 당신의 행사가 얼마나 심오한지 더욱 느끼나이다. 이는 당신께 권병과 지혜가 가득하기 때문이나이다. 제 육체는 고통받지만, 영은 위로를 만나이다. 제가 어찌 당신의 지혜와 행사를 찬미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당신을 알고 난 후에 저를 죽게 한다 해도 어찌 기꺼이 원하지 않겠나이까? 전능자시여! 당신은 정말 저에게 보이기 싫어하시나이까? 제가 정말 당신의 심판을 받을 자격이 없나이까? 혹시 저에게 당신이 보고 싶지 않으신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나이까?' 베드로는 그런 시련 속에서 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나에게 쓰임 받는 것으로(나에게 심판 받아 사람들이 나의 위엄과 진노를 볼 수 있을지라도)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고, 시련으로 고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베드로는 내 앞에서 보인 충성심과 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모범과 본보기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본받아야

할 바가 아니냐?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 가며 베드로의 행적을 얘기하는지 너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너희는 마땅히 이것을 너희의 행동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ی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 제 6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32)

베드로는 여러 해 동안 예수를 따르면서 그에게서 사람에게 없는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다. 일 년을 따르자 예수는 베드로를 열두 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뽑았다(물론, 이것은 단지 예수의 마음속 일이니 사람은 전혀 알아차릴 수 없었음). 생활 속에서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베드로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베드로는 특히 예수가 전하는 도를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베드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 주었고, 그에게 매우 충성했으며, 그를 원망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곳곳을 다니는 예수의 충실한 동반자가 되었다. 베드로는 예수의 가르침과 온유한 말씀, 그리고 먹고 입고 자고 행하는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 두었고, 다방면으로 예수를 본받았다. 베드로는 자신의 것이 옳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지난날 자신의 모든 낡은 것들을 벗어던지고 예수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본받았다. 그때에야 베드로는 천지 만물이 모두 전능자의 수중에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자신의 선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모든 어떠함을 받아들여 본보기로 삼았다. 베드로는 삶 속에서 예수가 자신이 한 것만이 옳다고 한 적이 없고, 자신을 자랑한 적도 없으며, 도리어 사랑으로 사람을 감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여러 일에서 예수의 어떠함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의 모든 것은 베드로가 본받을 대상이 되었다. 베드로는 체험하는 과정에서 갈수록 예수의 사랑스러움을 느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저는 하늘에 계시는 전능자를 찾은 적이 있는데, 천지 만물의 기묘함을 보고서야 전능자의 사랑스러움을 크게 느끼게 되었나이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참된 사랑이 있었던 적은 없었고, 제 눈으로 전능자의 사랑스러움을 본 적도 없었나이다. 오늘날, 저는 저 자신이 전능자의 눈에 들어서야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이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것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나이다. 저는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한없는 사랑스러움을 찾아냈는데, 어찌 오늘의 이 경지에만 국한된 것이겠나이까?” 세월이 흐름에 따라 베드로에게서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요소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베드로는 예수에게 지극히 순종했다. 물론 베드로 또한 적지 않은 좌절을 겪었다. 예수가 베드로를 데리고 곳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는 늘 겸손하게 예수의 설교를 들었으며, 여러 해 동안 따라다녔다고 교만한 적이 없었다. 베드로는 예수에게서 그가 온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된 후로, 늘 슬퍼하며 혼자 몰래 울었다. 하지만 ‘불행’의 날은 결국 오고야 말았다. 베드로는 예수가 잡혀간 뒤에 혼자 배 위에서 울었고, 그 일로 인해 절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으므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베드로는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아 계속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에게 “당신은 가신 다음에도 다시 저희 가운데 오셔서 보살펴 주실 수 있나이까? 저희가 다시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겠나이까?”라고 물었던 적이 있었다. 이 말은 너무 유치하고 사람의 관념도 잔뜩 묻어 있었지만, 예수는 베드로의 괴로운 심정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여전히 사랑으로 베드로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걸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네 말이 경우에 맞지 않지만, 아버지께서는 내게 죽은 뒤에 부활하여 40 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을 약속해 주신 적이 있느니라. 너는 내 영이 언제나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제서야 베드로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늘 뭔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졌다. 그리하여 예수는 부활 후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수는 베드로의 관념이 남아 있지 않게 하려고 베드로가 차려 준 풍성한 음식을 거절하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를 깊이 알게 되었고,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 예수는 부활한 뒤에 종종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40 일이 지나 승천한 후에도 베드로에게 세 번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매번 성령의 사역이 곧 끝나고 새로운 사역이 시작될 때 나타났다.

베드로는 한평생 고기를 잡으며 살았고, 더욱이 전도의 생애를 보냈다. 베드로는 말년에 베드로전후서를 썼고,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도 여러 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 역시 그에게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베드로는 자신의 밀천으로 사람들을 훈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생명에 알맞게 공급해 주었다. 베드로는 일평생 예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으로 격려를 받아 왔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를 때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모든 일에서 예수를 본받겠다고 뜻을 세웠고, 예수 역시 베드로에게 응답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53 세가 되던 해(예수와 헤어진 지 20 여 년 되던 해)에 예수는 그에게 나타나 그의 뜻을 이루어 주겠다고 했다. 베드로는 그 후 7 년 동안 자신을 알아 가는 삶을 살다가 7 년 후의 어느 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평범치 않은 일생을 마감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의 비밀 해석 · 베드로의 인생에 관하여>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33)

흑암의 권세란 무엇이냐? 흑암의 권세란 사람을 미혹하고 패괴시키고 결박하고 통제하는 사탄의 권세를 가리킨다. 사탄의 권세는 죽음의 기운을 지닌 권세이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사람은 모두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을 믿게 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흑암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여 너의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너는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게 되고, 따라서 마음을 완전히 드리려고 할 것이다. 바로 그때 너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고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기만하고 성의 없이 대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모두 사탄의 권세, 즉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살게 된다. 불신자들은 모두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부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사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는 사람은 아니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만 할 뿐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낡은 규례와 죽은 글귀에 빠져서 살고, 막연하고 어두운 삶 속에서 살게 될 뿐, 하나님께 완전히 정결케 되지도, 얻어지지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산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라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므로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 역사를 얻지 못한 사람은 모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일생 중 대부분의 시간을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산다면 삶의 의미를 잃은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였을 뿐 하나님의 요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으며,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유를 얻지 못하고 늘 어떤 일로 속박을 받으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결박되어 죽음의 분위기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다. 자신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본분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 준 사명에 충성하지 않으며, 교회에서 역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다. 의도적으로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형제자매들 간의 관계를 끊어 놓거나 당을 짓는 자들은 더더욱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자, 사탄에게 결박된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이고 늘 지나친 욕망을 품으며, 이익만을 얻으려 하고 성품의 변화는 전혀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다. 진리 실행에서 언제나 참답지 못하고 건성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기를 추구하지도 않고 그저 욕을 만족시키는 자 역시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살며 죽음이 드리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해 사역할 때 교활하고 간사한 수작을 부리고, 하나님을 무성의로 대하거나 기만하고, 자신만을 위해 생각하는 자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자, 성품 변화를 중요시하지 않는 자도 모두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34)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다면 먼저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네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지금 너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일들을 하고 있느냐? 네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했느냐? 네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네게 요구하는 것이 맞느냐? 진리에 부합하는 것이냐?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한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필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만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람됨이 솔직하지 못하고 앞에서 하는 행동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며, 겉으로는 겸손하고 인내하며 사랑이 넘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이 음험하고 교활하며 하나님께 조금의 충성심도 없는 사람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전형적인 예이자 독사의 부류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자신을 위해 계책을 세우고, 독선적이고, 잘난 척하고,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자는 사탄을 사랑하고 진리에 반하는 사람이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전히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며, 언제나 자신과 가정의 이익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 헌신하지 못하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은 자는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풍부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서 사람은 그의 빛 속에서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여기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부담을 자신의 부담으로 여기지 못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빛 비춤이 없으며, 그로 인해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에서 진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사탄과 더러움에 물든 자이며 흑암 권세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다. 만약 네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다. 너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고 싶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면 성령이 역사할 기회가 생긴다. 그러나 네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산다면 성령이 역사할 기회가 없다.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하고, 빛 비추며, 믿음을 더해 주는 것은 모두 순간적이다. 사람이 마음을 쓰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성령 역사는 바로 사라지고 만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면

성령의 함께함과 성령의 역사를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지 않으면 사탄에게 묶여 살게 될 것이다. 사람이 패괴 성품에 빠져 살면 성령의 함께함과 역사는 없다. 네가 하나님 말씀의 범주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요구한 상태 가운데서 살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게 역사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이 요구한 범주 안에서 살지 않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다면, 너는 분명 사탄의 패괴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의 토대와 삶 속의 실체가 되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행한다면 하나님은 네게 역사할 것이다. 그때면 너는 하나님의 축복과 얼굴빛 속에서 살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찾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35)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영적 상태에 있게 된다. 올바른 영적 상태 가운데서 사는 것은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전제 조건이다. 올바른 상태가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론할 여지도 없다. 사람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나의 말에 기반해야 한다. 내 말에 따라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흑암 권세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올바른 영적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실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과 실제 속에서 사는 사람은 진리에 깊이 진입하고 사역에 더 깊이 진입하면서 조금씩 변화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얻어지는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은 점차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념이나 패역 행위도 없어질뿐더러 과거의 관념과 패역을 더욱 증오하게 되며,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우러날 것이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육적인 것과 패역한 것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는 사람의 관념과 처세 철학, 그리고 자신의 속셈과 타산뿐이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고, 사람의 내면이 그의 말씀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유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말씀에서 자신이 추구해야 할 것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달려가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응당 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져야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지 못한다면 사람은 그저 사탄에게 점령당한 구더기에 불과하다! 너 스스로 가늠해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느냐? 너는 어떤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어떤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점유되지 않았다면, 너의 마음은 무엇에 의해 점유되었느냐? 매일의 삶 속에서 너는 사탄에게 통제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점유되고 있느냐? 네 기도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이뤄진 것이냐? 너는 하나님 말씀에서 깨우침을 받아 부정적인 상태에서 나올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토대로 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진입해야 할 부분이다. 만약 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너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며 순전히 방해만 하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가 몇 번이나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또 몇 번이나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네게 요구한 것 중, 어떤 것들이 네게서 이뤄졌느냐? 어떤 것들이 네게서 허사로 돌아갔느냐? 너는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온 힘을 다해 협력해야 한다. 어째서 사람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말하겠느냐? 정상 궤도에 진입한 사람은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데, 이것은 오랜 시간을 들여 진입해야 할 공과이다. 인류는 줄곧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살면서 수천 년이나 사탄에게 결박당해 왔기 때문에 이 진입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다. 오늘 이 일을 언급하는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무엇이 흑암 권세에 속하는 것인지, 또 무엇이 빛 속에서 사는 것인지에 대해 분별하면 진입하기가 쉽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전에 반드시 사탄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조금씩 벗어날 길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사람 자신의 몫이다. 모든 것을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면에서 진입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36)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급소를 찔러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였다. 그는 우리의 관념과 상상, 패괴 성품을 드러내셨다. 일언일행, 일거수일투족부터 모든 생각까지, 우리의 본성과 본질은 그의 말씀을 통해 드러났으며, 이에 우리는 겁에 질려 전전긍긍하고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몰라 했다. 그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속셈, 목적,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던 패괴 성품까지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 우리는 만신창이가 된 기분이 들었고, 철저히 인정했다. 그는 그를 대적한 우리를 심판하고, 그를 모독하고 정죄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림으로써, 그의 눈에 우리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살아 있는 사탄임을 느끼게 해 주셨다. 우리의 희망은 깨졌고, 우리는 더 이상 그에게 감히 그 어떤 지나친 요구나 피함도 생각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우리의 꿈은 하룻밤 사이에 깡그리 사라져 버렸다. 이것은 우리 중 누구도 상상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실이었다.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균형을 잃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계속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 우리의 신앙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았고, 우리는 한 번도 예수와 '만나거나 알고 지내지' 못한 것 같았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미망에 빠지고 방황했다.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했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건잡을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다. 우리는 그것을 쫓아 내려고 시도했고, 또 다른 출구를 찾아보려 했으며, 더더욱 우리의 구주 예수를 계속 기다려 보고, 그에게 속마음을 하소연하고자 했다. 때로 우리의 겉모습은 자연스럽고 의연해 보였으나 마음은 전혀 없는 실의에 빠져 있었다. 때로 우리의 겉모습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 보였지만, 마음은 폭풍우가 치듯 몹시 괴로웠다. 그의 심판과 형벌은 우리의 모든 꿈과 희망을 앗아 갔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 이상 헛된 기대를 품지 못하게 되었고,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주라는 것도 믿고 싶지 않았다. 그의 심판과 형벌로 그와 우리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으며, 심지어 그것을 넘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한 그의 심판과 형벌로 우리는 난생처음 이렇게 심한 좌절과 굴욕을 맛보았다. 그의 심판과 형벌로 진정 하나님의 거스를 수 없는 성품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비천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느끼게 되었다. 그의 심판과 형벌로 인해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교만함과 자만심을 깨닫게 되었으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일 선상에 설 수도, 함께 논할 수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의 심판과 형벌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이 패괴 성품으로 살지 않고, 한시바빠 이러한 본성과 본질에서 벗어나, 더는 그의 증오와 역겨움을 불러오지 않기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의 심판과 형벌로 인해 우리는 그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더 이상 그의 지배와 안배에 거역하지 않게 되었다. 그의 심판과 형벌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의 희망을 주었고, 우리는 기꺼이 그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정복 사역에서 나오게 되었다. 지옥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오게 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셨다! 그는 사탄을 이기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37)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어 정상 인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야말로 온전케 된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네가 예언이나 비밀을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드러내고 살아 내는 것에 사람의 면모가 보이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창조된 후 사탄에 의해 패괴되어 '죽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네가 변화되면 죽은 사람과 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을 되살려 사람을 소생시킨다. 영이 소생하면 사람은 살아난다. 죽은 사람이란 영이 없는 시체,

영이 이미 죽어 버린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영이 살아나면 사람은 살아나게 된다. 예전에 이야기했던 거룩한 자란 바로 살아난 사람,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음에도 사탄을 이긴 사람을 가리킨다. 중국의 선민들은 큰 붉은 용의 잔인무도한 박해와 기만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심각한 해를 입고, 살아갈 용기조차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을 깨우려면 사람의 본질적인 면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해 조금씩 사람의 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언젠가 사람이 살아나면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평탄 대로처럼 순탄해질 것이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못했기에 살아 내는 것에 짙은 죽음의 기운이 묻어난다. 사람에게는 죽음의 기운이 드리워져 있고, 결핍된 것이 너무나 많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나 행동거지에서도 죽음이 묻어나며, 대부분 죽음을 살아 내고 있다. 지금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이 사역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사람들이 아직 완전히 살아나지 못했고, 너희 중에는 죽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이 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방에 신속히 복음을 확장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으며, 산 사람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이 죽은 사람이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음의 그늘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면서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복음을 확장하는 사역을 해낼 수 있겠느냐?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사탄에게 점령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형벌을 겪지 않고서는 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산 사람이 될 수 없다. 이처럼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산 사람의 증거이지 죽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다. 그는 산 사람이 그를 위해 사역하기를 원하지 죽은 사람이 사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죽은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람이며, 영 안이 무감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한, 진리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며,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다. 죽은 사람들은 진리와 대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비천하고 비열하고 악독하고 야만적이고 교활하고 음험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낼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 있어도 산송장으로, 숨만 쉬는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흠족하게 할 수 없고, 나아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도 없다. 그저 하나님을 속이고 모독하고 배반할 뿐이다. 죽은 사람은 언제나 사탄의 본성을 드러내며 살아간다. 산 사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요구한 모든 진리를 실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으며, 진정으로 산 사람이 될 수 있다. 산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겪은 사람이다. 또한

자신을 바치며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평생 헌신하는 사람이다. 산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사탄에게 수치를 줄 수 있고, 산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진정한 사람이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살아 있었다. 그러나 사탄에 의해 패괴되어 죽음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람은 영이 없는 죽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으며, 사탄의 도구, 사탄의 포로로 전락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은 증거를 잃게 되었고, 유일하게 그의 숨결을 불어넣어 준 인류를 잃게 되었다. 하나님이 자신의 증거를 되찾고 직접 그의 손으로 만들었으나 사탄에게 끌려간 사람을 빼앗아 오려면, 사람을 부활시켜 산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며, 모든 사람을 되찾아 그의 빛 속에서 살게 해야 한다. 죽은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이며, 극도로 무감각해진 사람이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며,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오직 대적과 패역만 존재할 뿐 충성심은 찾아볼 수도 없다. 반면 산 사람은 영이 소생한 사람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며, 진리와 간증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는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볼 수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다. 또한, 하나님의 성육신, 즉 하나님의 현현을 믿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살아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 이는 그 사람의 본성이 구제 가능한지에 달려 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실행하지 못한다. 진리를 전혀 살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의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도 한다.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는커녕 교회의 돈을 훔쳐 쓰고, 하나님 집의 밥을 공짜로 축낸다. 이런 사람은 모두 구제 불능의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의 사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만, 일부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깊이 패괴되어 죽은 사람, 구제 불능의 사람, 완전히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 본성이 지나치게 악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소수의 사람들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거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복 사역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성품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실제적이면서도 정상적인 사역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이 없었다면, 이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사탄과 죽음에 속했을 것이고, 여전히 죽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이들이 기꺼이 하나님과 협력하기 때문이다.

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덕에 하나님께 얻어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게 된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 때문에 하나님께 혐오받고 버림받아 그의 징벌과 저주 속에서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성품이다. 사람은 스스로 구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받아 빛 속에서 살게 되고, 또 자신의 간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징벌 속에 떨어진다. 사람은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갈망과 충성심 덕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공의롭기에 산 사람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죽은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려 영원히 죽음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빛 속에 남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은 산 사람을 그의 나라에 데리고 가 그의 축복 안에서 영원히 그와 함께하게 하지만,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 속으로 내친다. 죽은 사람은 멸망의 대상이며, 영원히 사탄에게 귀속되는 대상이다. 하나님은 절대 그 누구도 억울하게 대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어쩌면 너는 성육신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확신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육신이 직접 사람의 결말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종착지를 안내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육신과 영이 본디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의 육신이 잘못된 일을 할 리 없고, 그의 영이 잘못된 일을 할 리는 더욱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 명도 더하거나 빼는 일 없이 살아난 사람을 전부 그의 나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나 살아나지 못한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탄의 동굴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너는 살아난 사람인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38)

성령이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가는 길은 사람의 마음을 모든 사람과 일, 사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고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것임을 믿게 된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성령이 어떤 길로 가는지 모른다면, 이런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느냐? 정상인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있는 정상인의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성령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일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너는 기초조차 다져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달성하지 못한 것인데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정상 궤도에 들어섰다는 것은 성령의 현재 역사의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는 말, 즉 성령이 가는 길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지금 성령이 가는 길이 곧 하나님의 현재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는 길에 들어서려면 성육신한 하나님의 현재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한다. 그가 하는 것은 말씀 사역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그의 말씀에서 시작되고, 그의 말씀, 곧 그의 현재 말씀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성육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든 알아 가는 것이든 모두 그의 말씀에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기초로 하나님을 알아 가고 하나님을 만족게 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과 점차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협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백성으로 굳게 서서 증거하는 실행이다. 하나님의 현재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할 때,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는 길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정상 궤도에 들어설 수 있다. 예전에는 은혜와 평안, 기쁨을 구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얻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육신 하나님 말씀의 실재를 갖추지 못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도태될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영 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실행해야 한다. 이것을 기초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너는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어떻게 백성의 증거로 굳게 설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냐?

일상생활 속에서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인지를 알고 싶다면 다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라.

1. 너는 하나님 자신의 증거를 믿느냐?
2. 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임을 믿느냐?
3.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나?
4. 너는 하나님이 맡겨 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맡겨 준 일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냐?
5. 너의 행동은 모두 하나님을 만족게 하고 충성을 다하기 위한 것이냐?

이상의 문제를 통해 현 단계에서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맡긴 사명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가는 길을 따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성령이 가는 길에 대해 밝히 알고 있느냐? 지금 너는 성령이 가는 길을 따라 행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냐? 성령의 최신 빛을 따르기 원하느냐? 하나님께 얻어지기를 바라느냐?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꺼내자마자 네 내면에 하나님께 협력하고 하나님을 만족게 하겠다는 다짐이 선다면, 네 마음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네게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다짐도 추구하는 목표도 없다면, 그것은 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지 못했음을 뜻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품이 변화된 사람은 모두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진입한 사람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39)

생명 성품 변화를 추구하는 실행 길은 아주 간단하다. 네가 실제 체험 가운데서 성령의 현재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수 있다면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 네가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따르고 추구한다면, 바로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네 성품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사람의 성품은 성령의 현재 말씀에 따라 변화된다. 네가 늘 과거의 낡은 체험과 규례를 고수한다면 네 성품은 변화되지 못한다. 성령이 오늘날 한 말씀이 모든 사람을 정상 인성의 삶으로 진입하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전히 외적인 것에만 치중할 뿐, 실제에 대해 어리벙벙하고 참답게 대하지 않는다면, 너는 성령 역사를 따르지 못한 사람이자, 성령이 인도하는 길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이다. 네 성품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여부는 네가 성령의 현재 말씀을 따를 수 있는지, 네게 참된 인식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는 너희가 과거에 이해한 것과는 다르다. 과거에 이해했던 성품 변화는 남을 쉽게 판단하던 네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더 이상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그저 한 가지 측면의 변화일 뿐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다. 사람은 성품을 스스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 고난과 연단, 또는 책망과 훈계, 징계를 겪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무성의하게 대하거나 기만하지 않게 된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 말씀의 연단을 받아야 성품에 다소 변화가 보인다. 하나님 말씀의 폭로와 심판, 징계와 책망을 겪은 사람만이 감히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침착하며 진중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현재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을지라도 관념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말한 성품 변화란 주로 자신을 저버리는 것이었다. 즉, 육신이 고난받고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며 육적인 취향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도 성품 변화의 일면이다. 지금은 모두 성품 변화의 실제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현재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새 사역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갖는 것임을 알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태까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벗어던져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품 변화의 참된 모습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품이 변화된 사람은 모두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한 사람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40)

생명 진입을 추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예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뤄진다고 했지만, 사람은 사실을 보지 못했다. 오늘날 네가 이 단계에 진입해 체험하면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의 시련을 위해 기초를 닦는 일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든 너는 그의 말씀에 진입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형벌하겠다고 말씀하면 형벌을 받으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면 시련을 받으면 된다. 늘 하나님의 최신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너는 온전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진입할수록 더 빨리 온전케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진입하라고 거듭 교제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추구하고 체험하며, 하나님 말씀의 실제 속으로 진입해야만 성령이 너에게서 역사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 방식에서 너희는 모두 경기 참가자인 셈이다. 마지막이 되면 너희가 겪은 고난이 가볍든 무겁든 모두 ‘기념품’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온전케 되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진입해야 한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성령의 일방적인 사역이 아니다. 반드시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 즉, 모든 사람이 의식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든 너는 오직 그의 말씀 속으로 진입하는 것에만 집중하여라. 그러면 생명에 더욱 도움이 된다. 모든 것은 너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하면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이 단계 역사에서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것이며,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다짐을 하게 될 것이다. 형벌 시대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이 사역의 방식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연단을 받지 못했으며, 형벌 시대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조금의 의심도 품지 않고 정말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없이 확실하니 사람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한동안 몸부림치면서 앞날과 운명에 대한 기대를 다 내려놓게 되었다. 그 결과 헤치고 나오니 성품에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형벌을 겪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 사역이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 사랑의 정복이자 구원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으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는 것은 전부 증오가 아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형벌 시대에 연단을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형벌 시대에 진입한 사람들은 비록 연단을 받았지만, 성령이 그들 안에서 은밀히 역사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명 성품이 변화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아주 적극적이고 종일 즐거워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의 연단을 받지 못해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결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성령이 네게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하려면 실행법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이행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생명 성품에 변화가 생기고 이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다. 이렇게 온전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다. 새로운 빛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한다. 한 번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것으로는 절대 안 되므로 반드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한 번 감동받으면 마음의 의지가 불타오르며 추구하고자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 한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을 감동시켜 주기를 원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었다. 생명 성품이 변화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는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불결한 것들(독선, 오만, 관념 등)을 벗어던져야 한다. 그저 적극적으로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반드시 부정적인 것에 관련된 것들도 벗어 버려야 한다. 즉,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한편, 부정적인 것과 관련된 불결한 것들을 전부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너에게 어떤 불결한 것들이 남아 있는지 시시각각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라. 사람의 종교 관념, 속셈, 기대, 독선, 교만 등은 모두 불결한 것에 속한다. 하나님이 폭로하는 모든 말씀에 대조하여 자신에게 어떤 종교 관념이 있는지 살펴보고 참으로 인식해야 그러한 것을 벗어 버릴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바로 성령의 현재 역사의 빛을 따를 때이니 다른 것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종교 관념이 튀어나올 때 그것을 어떻게 벗어 버리겠느냐? 너는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종교인이라면 마음속에 있는 종교적인 관념이나 전통적인 신학 이론들이 나와 방해할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은 네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는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들이다. 성령의 현재 말씀만 추구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없다. 성령의 현재의 빛을 추구하는 한편, 자신에게 어떠한 관념과 속셈이 있는지, 무엇이 사람의 독선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인지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것은 네가 알아야만 벗어 버릴 수 있다. 과거의 모든 행실을 저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의 오늘날 말씀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성품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뤄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역은 물론 사람의 실행도 있어야 한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것도 없어서는 안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품이 변화된 사람은 모두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진입한 사람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41)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할 수 있겠느냐? 생명 진입과 성품 변화, 진리에 깊이 진입하기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온전케 되고 하나님께 얻어지는 길이다. 너희는 모두 하나님이 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사명은 어떤 것이겠느냐? 그것은 다음 단계의 사역과 관계가 있다. 다음 단계에는 전 우주에서 더 큰 사역을 전개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너희는 생명 성품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면 향후 하나님 역사의 영광스러운 증거가 될 것이며, 다음 사역의 표본이 될 것이다. 오늘날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모두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네가 이것을 목표로 추구한다면 성령이 함께할 것이다. 추구하는 목표가 높을수록 더 온전케 될 것이며, 진리를 추구할수록 성령이 더욱 많이 역사할 것이고, 추구하는 힘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성령은 사람 내면의 상태에 따라 온전케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거나 온전케 되기를 원치 않으며, 그저 육적으로 평안하고 재앙만 없으면 된다고 말한다. 또 하나님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고 무저갱에 내려가려는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은 그런 것도 이루어 준다. 하나님은 네가 추구하는 것에 맞춰 이뤄 줄 것이다. 지금 너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느냐? 지금 네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얻어지기 위함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너는 늘 이렇게 스스로를 가늠해 봐야 한다. 네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온 마음으로 추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이는 성령이 가는 길이다. 성령이 인도하는 길은 추구해야 들어설 수 있다. 네가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얻어지기를 갈망할수록 성령은 네 내면에서 더 많이 역사할 것이고, 네가 추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물러날수록 성령은 역사할 기회가 없기에 차츰 네게서 떠나갈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 얻어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얻어지며 쓰임 받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우주 만유에게 하나님의 행사가 너희에게 나타났다는 것과 만물 가운데서 너희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게 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에서 너희로 인해 증거와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가장 복받은 세대임이 증명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성품이 변화된 사람은 모두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진입한 사람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42)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수록 부담을 갖게 되고, 부담을 가질수록 체험은 더욱 풍성해진다.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하나님은 이 부담을 너에게 더해 주며, 너에게 맡겨 준 일에서 너를 깨우쳐 줄 것이다. 하나님이 네게 이 부담을 더해 줄 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면 이 방면의 진리를 중요시하게 될 것이다. 만약 네가 형제자매들의 생명 상태에 부담을 갖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이 네게 준 부담이다. 그러면 네가 평소에 기도할 때 늘 이 부담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네게 더해지면, 하나님이 하려는 것이 바로 네가 원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담을 너의 부담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말씀을 먹고 마셔도 이런 부분을 중심에 둘 것이다. 너는 속으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형제자매들이 자유를 얻고 영 안에서 누리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너는 교제할 때도 이러한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도 주로 이 방면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부담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요구를 알게 된다. 그러면 실행의 길이 더 잘 보인다. 이는 너의 부담으로 생긴 성령의 깨우침이자 빛 비춤이며, 너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이다. 어째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느냐? 만약 네게 부담이 없다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에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을 것이다. 반면, 부담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하나님 말씀의 본질과 길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응당 하나님께 더 많은 부담을 달라고, 더 큰 사명을 맡겨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실행 길이 더 있게 되고,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찾아내고, 나아가 성령의 감동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훈련하며, 하나님이 준 부담과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 네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맡긴 사명에 부담을 가질수록 하나님께 더 잘 온전케 될 수 있다. 혹자는 일어나서 협력하며 섬기라 해도 싫어하는데, 그런 자는 게으르고 안락을 탐하는 사람이다. 네가 일어나 협력하며 섬길수록 더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된다. 따라서 부담이 많아지면 체험도 많아지고, 온전케 될 기회 또한 많아진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케 될 기회도 많아진다. 지금 이런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있다. 성령이 너를 갑절로 감동시킬수록 너는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할 때가 많아지고, 하나님께 더 많이 온전케 되고 얻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 현재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못하고, 태만하게 굴며 자신의 육체만을 생각하는데, 그런 자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눈먼 사람이다. 네가 이 일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부담도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헤아릴수록 하나님이 네게 더 많은 부담을 더해 줄 것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그러한 고난을 받는 것도, 대가를 치르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 결과 하나님께 온전케 될 기회를 놓치게 되니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는 일이 아니겠느냐? 만약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대한 참된 부담을 느낄 것이다. 사실, 교회에 대해 부담을 갖는다고 하기보다는 너 자신의 생명에 부담을 갖는다고 말하는 게 옳다. 교회에 대해 부담을 갖는 것은 그런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 부담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생명 진입에 대해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사람이다. 분명히 이해했느냐? 네가 속한 교회가 엉망진창인데도 전혀 애타하지 않고, 형제자매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 못하는데도 본체만체한다면 이는 부담이 없는 모습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지금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해야지, 그의 공의로운 성품이 만민에게 드러난 후에 생각하려 해선 안 된다. 그때가 되면 너무 늦지 않겠느냐? 지금은 하나님께 온전케 될 좋은 기회다. 만약 네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처럼 평생의 한으로 남아 후회하며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만민에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형벌하지 않아도 후회로 인해 너 스스로 자신을 형벌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못 믿겠거든 기다려 보아라. 어떤 자들은 바로 이 말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너는 이 말을 위한 희생양이 되고 싶으냐?

만약 네가 하나님께 온전케 될 기회를 찾지 않고, 온전케 되기 위해 앞다투어 추구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온전케 될 가장 좋은 기회이자, 최적의 시기이다. 이때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남으로 기회를 놓치고 나면 늦고 만다. 네 의지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죽도록 애써도 온전케 될 수 없다.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협력해라. 이 기회를 놓친다면 나중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를 수 없다. 어떤 이는 입으로 “하나님, 저는 당신의 부담을 생각하고, 당신의 마음을 만족케 하고 싶습니다.”라고 외치지만 실행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그런 부담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다. 길이 있으면 단계별로 한 걸음씩 체험하게 된다. 그렇게 부담을 가진 부분이 온전케 되면 또 다른 부담이 더해지고, 생명 체험이 깊어짐에 따라 너의 부담 또한 더 커질 것이다. 어떤 이들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을 때만 부담을 지려고 하는데, 얼마간 지나서 실행할 길이 없으면 부담도 사라진다. 너의 부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만 해서 완전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많은 진리를 깨닫고 분별력을 갖춰야 하며, 진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더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만 부담이 생겨난다. 그런 부담이 생겨야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부담만 가지고 진리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해도 안 된다. 반드시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실행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자기가 먼저 실제에 진입해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 주고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온전케 되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43)

현시점에서 하나님이 하는 일은 모든 사람을 정상 궤도로 진입하게 하는 것이다. 누구나 정상적인 영 생활을 유지하고, 참된 체험을 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준 사명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나라의 훈련에 들어가는 목적은 너희의 모든 언행과 마음,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시켜 너희가 하나님의 감동을 더 많이 받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서고,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섰다면, 정상 궤도에 들어선 것이다. 너의 생각, 불순한 의도가 바로잡히면 육적인 것을 위하던 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바뀌고, 불순한 의도가 생겨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게 된다. 이 정도의 변화가 있으면 생명 체험의 정상 궤도에 들어선 것이다. 네가 기도 훈련을 통해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면 기도했을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따라 온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따르고, 매번 기도를 하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평온히 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고 마실 때 현재 하나님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협력하며 어떻게

진입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신 것이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입의 길을 찾을 수 있고 현재 하나님 역사의 동향과 성령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다면, 이는 곧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셨어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말씀에서 실행의 길을 찾지 못했다면, 너는 아직 말씀을 먹고 마실 줄 모른다는 의미이며, 먹고 마시는 방법과 원칙을 찾지 못했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현시점에서 하는 사역을 파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는 사명을 받을 수가 없다. 현재 하나님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지금 진입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다. 너희는 이러한 것을 알아차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효과가 있다면 영 생활도 정상이 된다. 어려운 상황이나 육의 질병, 또는 형제자매들이 너를 멀리하거나 너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는 등의 어떤 시련이 임해도 너는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며, 정상적으로 기도하고,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네가 이러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정상 궤도에 진입했음을 뜻한다. 어떤 이는 너무 약하고 의지가 없어 작은 일만 생겨도 훌쩍거리며 소극적이 된다. 진리를 추구하려면 의지와 각오가 필요하다. 이번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지 못했다면 스스로를 증오하며, 다음에는 꼭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이번에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지 못했으니 다음에 같은 일이 오면 반드시 육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그래야 옳은 것이다. 어떤 이는 자신의 생각이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조차 모르는데, 그런 자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신의 마음을 극복하고 육을 버리려면 무엇보다 먼저 네 마음가짐이 올바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자신의 마음을 극복할 수 있다.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올바른지도 모른다면 자신의 마음을 극복하고 육을 버릴 수 있겠느냐? 설령 버린다 할지라도 무분별하게 할 것이다. 너는 자신의 바르지 못한 마음을 내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육을 버리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가짐과 생각이 바르지 못하다는 걸 깨달았다면 얼른 뉘우치고 옳은 길로 가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이 측면에서 돌파하고 훈련하여 진입해야 한다. 네 마음가짐이 올바른지는 너 스스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바르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쓸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극복하는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이 관건이며, 성령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는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핵심이므로 이것을 잡아야 제대로 진입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알기까지 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말은 명실상부한 것이다. 마지막까지 체험했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너는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오늘날 성육신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정죄받을 것이다. 그들은 현대판 바리새인이다. 오늘날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기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을지라도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치를 들고 있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외식하는 자들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온전케 되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44)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깨달은 후에 실행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온전케 되려면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자질이 부족한데, 그렇다면 대가를 치르고 주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자질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실행할수록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길에 더 빨리 들어설 수 있다. 너는 기도를 통해 기도로 온전케 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찾아내고 하나님 말씀의 실재를 살아 내어 온전케 될 수 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아가 자신의 치명적인 단점과 약점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차츰 온전케 되어야 할 것이다. 온전케 되는 길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찾아내고, 하나님 말씀의 체험에 진입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마음을 기초로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고 육을 버리며, 형제자매들과의 빈번한 교제를 통해 너의 체험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단체 생활에서든 개인 생활에서든, 대예배에서든 소예배에서든, 모두 체험하고 훈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다 온전케 되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더 키우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탄의 패괴 성품과 불순한 의도를 벗어 버리고 정상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 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즉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사탄이 패괴시킨 부분은 점점 적어진다. 그러면 너는 실제 체험을 통해 차츰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 그러므로 온전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온전케 되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45)

지금 하나님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고자 한다. 바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확신을 갖는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이들은 마음속에 참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며, 온전케 될 대상이자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도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은 온전케 될 수 없다. 늘 성육신 하나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을 품으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자 사탄에게 속한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없다.

네가 온전케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온전케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온 힘을 다해 진리를 추구하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감찰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네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감찰을 받은 것이냐? 네 마음가짐이 옳으냐? 네 마음가짐이 옳다면 하나님은 너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네 마음가짐이 옳지 않다면 이는 네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사랑하고 사탄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야 한다. 기도할 때 나, 이 사람은 네 눈앞에 없지만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 네가 기도하는 대상은 나, 이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다. 네가 이 육신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네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느냐? 네가 이 사람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을 믿는 것이다. 너에게 이 사람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경외하라는 것과 같으니 하나님의 영을 믿는 것이 곧 이 사람을 믿는 것이요, 이 사람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을 믿는 것이다. 너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바로 네 눈앞에 있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을 향한 기도이다. 지금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한 일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한다. 네가 하나님의 육신을 속일 순 있어도 하나님의 영을 속일 수는 없다. 하나님의 감찰을 통과할 수 없는 일은 모두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마땅히 내던져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 그러므로 너는 기도할 때든, 형제자매와 대화하고 교제할 때든,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고 일을 처리할 때든 마땅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 네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때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마음가짐이 바르고 하나님 집의 사역을 위해 일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한 일을 열납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진심을 다해 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구하고 하나님의 감찰을 구해라.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기도가 결실을 볼 것이다. 예를 들어, 예배에서 기도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거짓을 고하지 않고 네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다면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하나님께 맹세해라. “천지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당신께 맹세합니다. 당신의 영이 언제나 제 모든 행동을 감찰하고, 언제나 저를 돌보며 보호해 주십시오! 저의 모든 행동이 당신 앞에서 굳게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거나 배반한다면 제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저주하사 금세에도 내세에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십시오!”

너에게는 이렇게 맹세할 용기가 있느냐? 이렇게 맹세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용기가 부족하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이다. 너희에게는 이러한 의지가 있느냐? 진실로 이런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맹세해야 한다. 이러한 의지를 갖추고 하나님께 맹세하면 하나님은 네가 품은 의지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맹세하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네가 기도하고 실행한 것에 따라 네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정할 것이다. 지금은 너희를 온전케 하는 과정에 있다. 네가 진정으로 온전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야 한다. 만약 네가 대역무도한 일을 저지르거나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하나님은 네가 맹세한 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그때 네가 침륜되든 형벌을 받든 그것은 모두 네가 자초한 일이다. 맹세를 했다면 그 맹세대로 실천해야 한다. 맹세하고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너는 침륜의 대상이다. 네가 말했으니 하나님은 네 맹세대로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어떤 이는 기도를 마친 뒤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말한다. “큰일 났어! 이제는 방탕한 생활을 할 기회도, 나쁜 일을 할 기회도, 세상을 탐하고 연연해할 기회도 다 사라져 버렸다고!” 이런 사람은 아직도 세상과 죄를 사랑하고 있으니 앞으로 틀림없이 침륜의 대상이 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온전케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46)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네가 한 일을 하나님의 영 앞에는 내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육신 앞에는 내놓을 수 없다면 이는 아직 하나님의 영의 감찰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더냐? 하나님이 증거한 사람은 또 누구더냐? 그들은 하나가 아니더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 증거한 사람은 사람이라며 둘을 다른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 아니겠느냐?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누구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냐? 성육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영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입은 육신은 하나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육신으로 실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너를 잘 대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 너를 잘 대해 주겠느냐? 네가 어리석은 것 아니겠느냐? 오늘날, 하나님의 감찰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성육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케 될 수 없다. 네가 자신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지 보아라. 네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다면 그것은 네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악을 행하는 자가 온전케 될 수 있겠느냐? 너의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 모든 마음가짐과 반응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평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등의 영 생활, 나아가 협력하며 섬기는 일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실행해야 너의 생명이 자라는데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감찰을 받는 과정은 사람이 정결케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감찰을 받을수록 너는 더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더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방종함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고 살 수 있다. 또 하나님의 감찰을 받을수록 사탄을 부끄럽게 할 수 있고 욕을 저버릴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감찰을 받는 것은 사람이 실행해야 할 길이라고 한다. 무슨 일을 하든,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나눌 때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으려고 해야 한다.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더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을 수 있다면 너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일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온전케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47)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반역자다. 그는 내면에 너무 큰 야심을 품고 있고, 패역한 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기 싫어한다. 이런 자들은 온전케 되기 어렵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먹고 마시거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관념에 부합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은 가장 극명한 패역과 대적이 아니겠느냐?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파다. 하나님의 감찰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사람을 저주하고 형벌을 내리며 버리고 떠난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떠날 것이다. 또한, 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너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믿지 못하겠다면 시험해 보아라! 오늘 내가 너에게 실행의 길을 알려 주었지만, 실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너에게 달렸다. 믿지 못하겠으면 실행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는지 지켜보아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성령은 너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상은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은 너에게 더 많이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온전케 될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된다. 하나님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사람을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깨우침과 함께함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 너의 실제이자 생명 공급이 되게 한다면 이는 하나님 뜻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네게 하는 모든 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니, 하나님은 네게 축복을 내리고 네 소유를 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역시 너에게 역사하지 않을 것이며, 그저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작은 은혜를 베풀거나 물질적인 축복을 내리거나 너의 가정에 평안을 좀 베풀어

주는 데 그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너의 실제로 삼아 하나님을 흠족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얻어 온전케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네 추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은혜시대 사람이 추구하던 것들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 지금은 추구하는 기준이 더 높아져 더 실제적이고 높은 것, 사람의 내면이 필요로 하는 바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역대에 사람들에게 지금과 같은 사역을 한 적이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말을 한 적도 없으며, 이렇게 높은 요구를 한 적도 없다. 오늘날 너희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 사람들에게 있음을 뜻한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케 되길 원한다면 너는 이것을 중점 삼아 추구해라. 네가 열심히 뛰어다니든, 헌신하든, 역할을 수행하든, 하나님이 주는 사명을 받든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또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누군가 자신은 육적인 평안함과 즐거움만을 추구할 뿐,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것이나 생명 진입은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가장 눈먼 자다. 생명의 실체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내세의 영생과 금세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자도 가장 눈먼 자다. 그러므로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하나님께 얻어지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일은 사람의 서로 다른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다. 사람은 생명이 자랄수록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된다. 네가 한동안 추구하는 것이 없었다면 그것은 성령이 너를 떠났다는 의미이다.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이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는 항상 추구하는 것이 있고 갈급한 마음이 있으며 결코 현 상태에 안주하지 않는다. 성령은 각 단계마다 역사할 때 너에게서 얻고자 하는 결실이 있다. 그러나 네가 현 상태에 안주하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면 성령은 바로 너를 떠날 것이다.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감찰과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되겠느냐?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에 늘 허기를 느껴 항상 찾고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한다면 성령은 늘 그런 사람에게 역사할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일수록 더 실제적인 것을 교제할 수 있고, 진리 추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생명이 더 빨리 자라며 더 풍부하게 체험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 집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온전케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48)

성령은 각 사람에게서 가야 할 길이 있고, 모두에게 온전케 될 기회를 준다. 부정적인 것을 통해 네가 자신의 패괴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에서 벗어남으로써

실행의 길을 찾게 한다. 이러한 것 전부가 너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또한, 긍정적인 것들을 통해 네 안에서 계속 인도하고 빛을 비춰 줌으로써 네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게 하며, 식견을 넓히고 분별력을 키우게 한다. 상태가 좋을 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게 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자기 상태에 결부시킬 수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네 안에서 깨우침과 빛 비춤을 주고 네가 긍정적인 면에서 깨닫게 한다. 이는 긍정적인 부분에서 너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상태일 때 너는 연약하고 소극적으로 변하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네게 빛을 비춰 주어 실행의 길을 찾게 한다. 네가 거기에서 벗어나면 부정적인 부분에서 온전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도,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도 사람을 온전케 한다. 그 결과는 네가 체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자 하는 사람인지에 달려 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자 한다면 부정적인 부분에서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더욱 실질적인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고, 자신의 실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시련을 겪지 않으면 이런 것을 알 수 없다. 시련을 겪지 않으면 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너는 예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사였고 보호였음을 깨닫게 된다. 시련에 직면하는 순간 사랑과 믿음이 사라지고, 기도가 부족해지며, 찬양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시련 속에서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하나님은 다양한 환경으로 사람의 패괴 성품을 다루며, 또 다양한 일을 통해 사람을 드러낸다. 사람을 책망하는 한편 사람을 드러내고 폭로하며 사람 마음속 깊은 곳의 ‘비밀’을 모조리 파헤치고 밝힌다. 수많은 내적 상태를 폭로함으로써 사람이 자신의 본성을 보게 한다. 하나님은 폭로를 통해, 또한 책망, 연단, 형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이 매우 실제적임을 알게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실행을 중시하는 사람만이 온전케 될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49)

너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것,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 하나님을 얻는 것일 수도 있고, 90 년대의 베드로 품격, 욥보다 큰 믿음일 수도 있다. 또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 받아 보좌 앞에 서거나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를 위해 굳건하고 힘 있게 증거하는 것일 수도 있다. 너희가 무엇을 추구하든 결국 다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 네가 의인이 되고자 하든, 베드로의 품격과 욥의 믿음을 추구하든,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자 하든, 다 사람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즉, 네가 어떻게 추구하든 모두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하며 실제 체험을 통해 실행의 길을 찾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패역한 성품을 벗어 버리고,

정상적인 내적 상태에 이르며,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고 옳은 사람이 되어 올바른 동기로 매사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체험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생명이 자라나기 위함이다. 네가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실질적인 일, 즉 주위에 임하는 사람, 일, 사물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다. 의인의 길을 가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은 트랙을 달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것은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이다. 지금 네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것이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고, 네게 행한 하나님의 사역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실재와 위대함을 깨닫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낮춤과 감춤, 하나님이 네게 행한 수많은 사역을 깨닫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더럽고 패괴된 사람들에게 사역하며 이들을 온전케 한다. 또한 성육신하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목양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극도로 패괴된 사람들에게 크나큰 구원 사역과 정복 사역을 행한다는 것이다. 그는 큰 붉은 용의 심장부에 와서 가장 패괴된 사람들을 구원하고 새롭게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극심한 고통은 성육신하여 받는 고통에 그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크나큰 수모를 받은 것, 바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감추어 평범한 인간이 된 것이다. 그는 육신을 입고 육신의 형상을 취함으로써 사람에게 그가 정상 인성의 생활을 하고, 정상 인성에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는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음을 충분히 증명한다. 하나님의 영은 육신에 실체화되었다. 그의 영은 더없이 높고 위대하지만 그는 평범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의 형상을 취하여 그의 영이 하는 사역을 한다. 너희 각자의 자질, 식견, 이성, 인간성, 삶을 놓고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를 위해 이토록 큰 고통을 받게 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높고 크다. 하나님은 더할 수 없이 높고, 사람은 비천하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역한다. 성육신하여 사람에게 공급하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함께 생활하기까지 한다. 자신을 한없이 낮춘 하나님은 사랑스럽기 그지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언급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크게 찬미할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실행을 중시하는 사람만이 온전케 될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50)

오늘날의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쳐 추구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족케 하려고만 할 뿐 그를 조금도 알지 못한다. 성령의 내적 깨우침과 빛 비춤을 간과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밀거름으로 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체험하다 보면 열의는 곧 사그라진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사람은 예전에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 소극적이고, 연약하고, 눈물을 흘리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이 다반사였을지라도 지금은 체험하면

할수록 상태가 좋아질 것이다. 책망과 깨뜨림, 시련과 연단을 겪고 나면 크게 성장하게 되고, 그런 소극적인 상태가 적어지며, 생명 성품에도 변화가 조금 생긴다. 또 연단을 많이 겪게 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데에는 법칙이 있다. 즉, 취할 만한 부분을 통해 깨우침을 줌으로써 실행의 길을 열어 주고, 모든 부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영이 해방되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데, 이로써 사탄의 패괴 성품에서 벗어나게 한다. 네가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을 알려고 하며, 진리를 실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또한, 네가 연약해지거나 소극적이 될 때 너를 더 깊이 깨우쳐 스스로를 더 잘 알게끔 하고, 자신을 더욱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신이 실행해야 할 것을 더 잘 실행하게끔 할 것이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된다. 평소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실행을 중시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 설령 소극적인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양심이나 하나님 말씀의 깨우침으로 바로 돌려세울 수 있다. 사람의 성품은 모두 자신의 실제 상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깨달을 때 변화한다. 자신을 알고자 하는 사람, 자기 속내를 다 털어놓는 사람은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깊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이자 사람이 얻은 것으로, 사람 자신이 거둔 성과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쁨이 잡히고, 이상(異象)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육신, 말씀, 사역에 대해 확신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말씀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방해하든, 자신의 주관에 세우고 굳게 서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또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더욱 잘 실행한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증거하겠다는 의지를 다질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실행을 중시하는 사람만이 온전케 될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51)

분별과 순종을 중시하고, 통찰력을 중시해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일이 닥칠 때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빛을 비추어 주고 깨우침을 준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예민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의 영을 소생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왜 항상 사람이 무감각하고 어리석다고 말씀하겠느냐? 이는 사람의 영이 죽어서 영적인 일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며, 또한 사람의 영을 되살리기 위함이다. 영적인 일을 꿰뚫어 보고,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면, 이는 사람의 영이 소생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또다시 어떤 일에 직면할 때 즉시 반응할 수 있고, 설교를 듣거나 일이 일어났을 때도 반응이 빠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영적으로 예민해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외적인 일에는 생각이 잘 돌아가지만, 실제에 진입하는

것이나 영적인 세부 내용을 언급하면 무감각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며, 꼭 집어서 이야기해야 이해한다. 이는 모두 영이 무감각하고 어리석으며, 영적인 일에 대한 체험이 부족한 모습이다. 영적으로 예민하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분명하게 짚은 말씀을 들으면 재빨리 적어 두고, 실행 원칙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체험하면서 자신을 변화시킨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다. 그가 이렇게 빨리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자신의 내적 상태에 대조하면서 자신을 반성할 수 있고, 설교 교제 내용을 듣거나 깨우침과 빛 비춤이 있는 말을 들으면 그것을 바로 받아들인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덥석 받아먹는 것처럼 말이다. 굶주리지 않은 사람은 음식을 주어도 반응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닥쳐도 곧바로 하나님의 요구를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지난번에 하나님이 이 일에서 인도해 주었는데 오늘 또 유사한 일이 일어나면 너는 당연히 어떻게 실행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이렇게 실행하고 체험하다 보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고 영 안의 어떤 상태에 대해 말씀하는 것인지를 알고, 핵심을 파악해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체험할 줄 아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실행 측면에 공을 들이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진리를 실행할 마음이 있더라도 섬김이나 삶에 관련된 구체적인 진리를 분명히 알지 못해 일이 닥칠 때마다 멍하니 있는다면,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 늘 교제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분별력도 생긴다. 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분별력도 없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을 접하고 어떤 사람을 내쳐야 하는지 등의 일들은 늘 교제해야 한다.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다 보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많은 일을 꿰뚫어 보게 되며,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 성령의 징계가 무엇인지,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책망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 환경의 마련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의 내적 깨우침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분별력이 없는 것이다. 무엇이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무엇이 패역한 성품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자신의 패역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등의 일들을 다 체험하고 이해하게 되면 기쁨이 다져진다. 그러면 일이 닥쳤을 때 합당한 진리로 대조하고, 합당한 이상을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으며, 매사에 원칙을 지키고,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네 삶에 하나님의 깨우침과 축복이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를 추구하는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며, 그를 살아 내고, 그를 증거하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또 그는 진심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자신의 실제 상태를 아는 것과 자신의 실행, 인식을 중시하면 일이 닥쳤을 때 깨우침과 실제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범사에 실행할 길이 생기고, 분별력을 갖추게 된다. 진리를 갖춘 사람은 미혹되지 않으며, 방해되는 일이나 무리한 일을 하지도 않는다. 진리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고, 진리로 말미암아 더 많은 깨달음과 실행의 길을 얻으며, 성령 역사를 얻을 기회, 온전케 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실행을 중시하는 사람만이 온전케 될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52)

온전케 되는 것에는 조건이 있다. 너의 의지, 끈기, 양심 또 너의 추구를 통해 생명 체험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네가 진입해야 하는 것이고, 온전케 되는 길에 필요한 요건이다. 누구나 온전케 하는 사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는 누구나 온전케 될 수 있다. 모두에게 온전케 될 기회와 조건이 주어지며, 여기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 온전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주로 사람의 추구에 달려 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 진리를 살아 낼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온전케 될 수 있다. 하지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이 없다. 다시 말해, 온전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온전케 하는 사역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일 뿐, 사탄과 싸우는 사역이 아니다. 반면 정복 사역은 단지 사탄과 싸우기 위한 것이다. 즉, 사람을 정복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다. 이것이 주요한 사역이며, 전례 없는 가장 새로운 사역이다. 이번 사역의 주된 목적은 모든 사람을 정복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사역은 새로운 사역이 아니다. 육신의 사역 기간 동안 모든 사역의 목적은 주로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혜시대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전 인류를 구속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었다. 사람을 얻는 것은 육신으로 거할 때 추가적으로 했던 사역이며,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했던 사역이다. 예수가 사역하러 온 주요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죽음의 속박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것, 즉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었다. 베드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야 점차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물론 예수가 사역하는 시기에 그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 하나였으나 그때는 온전케 되지 않았다. 그는 예수가 사역을 끝낸 후에 조금씩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온전케 된 것이다.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온 것은 단기간 내에 핵심적인 사역을 완성하는 것일 뿐, 오랜 시간 사람과 함께 살면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는다. 그는 사람이 완전히 온전케 된 뒤에 사역을 끝내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그가 성육신한 목적도 의의도 아니다. 그는 단지 사람을 구원하는 단기적인 사역을 할 뿐이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기나긴 사역을 하지는 않는다.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은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지만,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람을 그만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사역은 하나님의 영이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육신으로 사역하는 기간에 말씀한 진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또한 따로 사도를 일으켜 오랜 시간 목양을 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을 온전케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성육신 하나님은 이 사역을 하지 않는다. 그는 생명의 도를 말씀하여 사람이 깨닫게 하고 사람에게 진리를

공급할 뿐이지 사람이 진리를 실천하는 동안 계속 동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그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이 진리를 완전히 깨닫고 진리를 완전히 얻는 날까지 사람과 함께하지는 않는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을 때, 온전케 되는 정상 궤도에 올랐을 때는 육신으로 하는 그의 사역이 끝나는 때이다. 물론 이때는 그가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고 세상을 이긴 때이다. 이때에 그는 사람이 진리에 진입했는지, 사람의 생명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그의 육신이 관여할 일도 아니고, 성육신한 하나님이 해야 하는 사역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사역만 완수하고 육신의 사역을 끝낸다. 그러므로 성육신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 할 수 없는 사역을 할 뿐이며, 장기적인 사역이 아니라 단기간의 구원 사역을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온전케 된 사람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53)

너희에게 하는 이런 사역은 사역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을 정복한 후에는 한 무리를 온전케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많은 사역도 너희를 온전케 하기 위해 예비하는 것이다.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온전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에게 정복의 사역만 하고 끝이 난다면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얻을 수 없지 않겠느냐? 지금의 사역은 앞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 길을 개척하는 것이다. 나는 정복하는 사역만 하지만 내가 말하는 생명의 도는 앞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 예비하는 것이다. 정복 이후 사역의 중심은 바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며, 정복 역시 온전케 하기 위해 기초를 닦는 것이다. 사람은 정복된 후에야 온전케 될 수 있다. 지금은 정복에 초점을 맞추고, 이후에는 진리를 구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을 온전케 할 것이다. 온전케 되는 것은 사람의 적극적인 진입, 즉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 길을 가면서 어느 정도로 체험했는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순결한지, 진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실천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으로서의 상식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조건이다. 정복된 후 온전케 될 수 없는 사람은 봉사만 하는 존재이며, 결국에는 유향불 못에 떨어지고 무저갱에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성품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사탄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온전케 될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사용 가치가 없는 폐기물이자 도구에 불과하며 불의 시련을 통과할 수 없다! 지금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신을 얼마나 중오하느냐? 사탄을 도대체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 너희의 의지는 굳건해졌느냐? 사람으로서의 규칙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삶이 변화되었느냐? 새로운 삶이 생겼느냐? 인생관에 변화가 있느냐? 만약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설령 네가 물러가지 않는다 해도 정복만 되었을 뿐 온전케 될 수는 없다. 이후에 너를 검증할 때, 네가 진리를 갖추지 못했고, 인간성도 비정상적인 데다가 짐승처럼 미천하다면 너는 정복만 되었을 뿐이고 정복 대상에 불과하다. 이는 마치

주인에게 채찍질을 당해 주인을 보면 두려워 감히 성질을 부리지 못하는 나귀와 같은 것이다. 네가 바로 그 정복된 나귀이다. 만약 사람이 적극적인 면이 없이 소극적으로 두려움만 갖거나, 모든 일에서 우유부단하고 어떤 일도 꿰뚫어 보지 못하거나, 또는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언제나 실행 길이 없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더욱 없거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이는 네가 아무 가치 없이 사는, 그저 정복된 나귀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정복되었다는 것은 그저 네가 큰 붉은 용을 저버릴 수 있고, 그것의 권세에 굴복하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아무런 원망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안배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뜻일 뿐이다. 적극적인 면에서는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다면 네가 하나님께 얻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너는 그저 정복된 나귀에 불과하다. 너에게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며, 인간성도 결핍하다면 너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하고 이방의 짐승이나 산송장보다 백배는 우월해야 한다. 그 정도가 된 사람이어야 온전케 될 자격이 있다. 인간성과 양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에 합당하다. 너희가 온전케 되면 그때야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온전케 된 사람이야말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만이 더 힘 있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온전케 된 사람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54)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느냐?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 심판과 형벌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네가 이해한 것을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네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고 너에게 성령의 깨우침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은 온전케 될 수 없다. 다만 작은 은혜를 받아 잠시 누릴 수 있을 뿐 장기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서는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육적인 평안과 즐거움에 만족하고, 재앙도 화도 없는 안락한 생활에 만족하며, 온 가족이 화목하게 같이 살며 싸우거나 다투지 않는 것에 만족한다. 또 이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긴다. 사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무 속된 생각이다. 설령 네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날마다 기도하여 영적으로 큰 누림이 있고 아주 평안할지라도 네가 결국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전혀 말하지 못하고 전혀 체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먹고 마시든 영적인 평안과 즐거움만 느낄 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없이 달콤하여 아무리 누려도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실체가 전혀 없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살아 낼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거나 기도하는 것은 종교적 신앙이다. 이런 사람은 온전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얻어질 수도 없다. 하나님께 얻어지는 사람은 모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얻는 것은 사람의 육체나 사람의 부속물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얻어지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말의 본질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육체는 모두 육에 속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를 얻어 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다. 사람의 육체는 언젠가는 반드시 썩을 것이기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다. 만일 사람의 육체를 얻어 사람의 육체만 이 흐름 속에 있게 한다면, 명목상으로는 사람이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사탄에게 속해 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게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받아들여 사람의 것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람 내면에 만들어지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들여 진리를 살아 내게 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케 된 사람이자, 하나님께 얻어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베푸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1.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는다.
2.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할 수 있다.
3.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빛 비춤 아래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는다.
4.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베드로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자격이 있고, 베드로와 같은 영광이 있다.
5. 세상 모든 사람이 사모하고 탄복하며 부러워한다.
6. 죽음의 모든 제약을 이겨 냄으로써 사탄에게 역사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하나님께 점유되어 새롭고 활기찬 영 안에서 살면서 염증을 느끼지 않는다.
7. 하나님 영광의 날의 도래를 본 것처럼 일생 동안 언제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흥분과 감격을 품고 산다.
8.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얼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룩한 자와 같다.
9.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된다.

10. 모습을 바꾸어 하나님과 함께 셋째 하늘로 올라가며 육체를 초월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하나님께 온전케 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얻어진 사람이다. 너는 지금 무언가를 얻었느냐? 하나님은 너를 얼마만큼 온전케 하였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케 할 때 아무렇게나 온전케 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고 또한 사람이 볼 수 있는 뚜렷한 효과도 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모습을 바꾸는 일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현재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것이다. 너희에게 임하는 모든 사람, 일과 사물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너희들 안에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해야 하는 것이다. 먼저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더 크고 많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추구해야 하고, 너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이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추구할수록,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일에서 하나님 말씀의 어떠함에 진입하고,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하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그저 죄를 짓지 않고 관념과 처세 철학, 사람의 뜻이 없는 그런 소극적인 내적 상태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모든 일을 통해 너를 온전케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에서도 온전케 하여 더 풍성히 얻게 할 수 있다. 날마다 온전케 될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 얻어질 때가 있다. 이렇게 얼마 동안 체험하면 너는 크게 변화할 것인데,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지금은 자연스럽게 꿰뚫어 보게 될 것이다. 또 사람이 가르쳐 줄 필요 없이 너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너에게 깨우침을 줄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모든 일에서 깨우침을 얻게 되고, 모든 체험에서 세부적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너를 인도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온전케 된 사람에 대한 약속>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55)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온전케 되는 것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체험은 너무 단편적이고 적은 부분만 포함하기 때문에 사람을 매우 좁은 범위 안에 가둘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영적으로 필요한 영양이 많이 부족해진다. 너희는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일에서 체험할 줄 알아야 하고, 너희에게 임하는 모든 일에서 깨우침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너에게 어떤 일이 임할 때마다 너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이로움을 얻어야 하고, 소극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찌 되었든 너는 하나님 편에 서서 문제를 보아야 하며, 사람의 관점에서 분석하거나 연구해서는 안 된다(이것은 체험상의 편차다). 이 방법에 따라

체험한다면 너의 마음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책임감으로 가득 차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빛 속에서 살면서, 실행할 때 쉽게 편차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앞날이 매우 밝다. 하나님께 온전케 될 기회는 매우 많다. 다만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얻어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너희는 의지만 있어서는 안 되며 많은 인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실행할 때마다 편차가 생기게 된다. 하나님은 너희 모두를 온전케하기를 원한다.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인 지 이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만 국한되어 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육적인 평안을 얻기만 바랄 뿐 더 많고 더 높은 깨우침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아직도 늘 길으로 돌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록 사람의 사역, 사람의 섬김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불순물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으나, 사람 내면의 본질과 사람의 뒤떨어진 사상을 볼 때 여전히 육적인 평안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조건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의 삶은 아직도 속되고 부패하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것을 전혀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고,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해 믿는 것처럼 대충대충, 건성으로 대하며 그날그날 되는대로 살아갈 뿐이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하고자 노력하여 더 많고 더 풍성한 것을 얻음으로써 오늘날 하나님 집에서 더 부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만일 네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자 하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깨우침 받기를 추구하고 허송세월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온전케 될 자격과 조건을 가질 수 있다. 너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이나? 너는 정말 모든 일을 참답게 대하는 사람이나? 너는 베드로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는 예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가 있느냐? 너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보았느냐? 네가 믿는 이는 진정 예수 맞느냐? 너는 지금의 실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신에 거하는 지금의 실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았느냐?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그가 행한 이적과 기사들이 공인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믿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진정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너는 예수의 이름만 믿을 뿐 예수의 영은 결코 믿지 않는다. 너는 예수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 털끝만큼의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너무 유치하다. 너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 왔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는 네가 여러 해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밥’을 헛되이 먹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은 내가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숭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어찌

온전케 될 수 있겠느냐? 낮 뜨겁지 않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면목이 있느냐? 너희는 내가 한 말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온전케 된 사람에 대한 약속> 중에서

생명 진입[6]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56)

진리를 추구해야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 사람은 반드시 이 점을 이해하고 꿰뚫어 보아야 한다. 진리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면 실수가 생기기 쉬우며,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 생명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매사에 진리를 구하고, 어떤 일에서든 어떻게 해야 진리에 부합하는지, 어떤 불순물들이 진리에 위배되는지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반드시 꿰뚫어 보아야 할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의미 있는 일이라면 해도 되지만, 의미 없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들은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하거나, 어느 순간까지 하다가 포기해야 할 시점이 오면 결단을 내리고 빨리 내려놓아야 한다. 이는 일 처리를 할 때 지녀야 할 원칙이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구하고 실행하는 것은 어째서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마치 물을 거슬러 배를 모는 것과 같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바로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악행과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은 꼭 바람을 타며 노를 젓는 것처럼 어째서 더없이 수월합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라고 묻는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탄의 본성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주된 자리를 차지했으며, 이는 반동 세력에 속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는 것은 수월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은 어렵기 마련이다. 이는 전부 본성의 본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진리를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진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후에 진리에 부합하는 일을 하면 힘이 나고 정상적으로 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가볍고 기분 좋게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부정적인 일들을 하면 몹시 힘들게 느껴질 것이다. 이는 네 마음속에서 진리가 주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네가 인생의 진리를 진실로 깨닫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공명정대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증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등의 진리를 모두 이해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요, 거짓 리더, 거짓 일꾼,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설령 사탄이 너를 미혹하고, 악인이 너를 꼬드킨다고 할지라도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며, 누가 어떻게 꺾박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람이 진리를 얻고 진리가 생명이 되면, 사악한 것을 증오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물에 마음속으로 반감을 느끼게 되어 악행을 저지르기가 쉽지 않다. 생명 성품이 변화되었고, 이미 하나님께 온전케 되었기 때문이다.

네 안에 정말 진리가 있으면 자연히 바른길로 가게 되고, 진리가 없으면 쉽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네 내면에 있는 교만함이 어떻게든 너를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것과 같다. 너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교만한 본성의 지배를 받은 것이다. 교만함은 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게 하며, 너 자신을 추켜세우고 모든 일에서 스스로를 뽐내게 한다. 마지막에는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를 증거하고, 자신의 뜻과 생각, 관념에서 나온 것들을 진리로 여겨 받들게 한다. 교만한 본성이 사람을 지배하여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지르게 했는지 보아라! 사람의 악행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먼저 사람의 본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성품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자신의 패괴를 발견하며, 교만함의 비열함과 추함을 알게 되면, 역겹고 메스꺼워지며 마음이 괴로워진다. 또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흠족게 하는 일을 하여 마음이 편안해지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여 기쁨을 느끼며, 의식적으로 자신을 폭로하고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밝혀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 성품 변화를 추구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인식하고 진리에 진입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진리를 깨달아야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야 일을 꿰뚫어 볼 수 있다. 꿰뚫어 보아야 욕을 저버리고 조금씩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들어설 수 있다. 이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의지가 어떠한지에 달려 있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반년~1 년쯤 추구하면 정상 궤도에 들어서기 시작하고, 3 년~5 년이 지나면 성과를 볼 수 있으며, 스스로 생명이 성장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10 년을 믿어도 변화될 수 없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지난날 세상에서 지내던 때와 다를 게 없다고,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진리가 없으면 삶이 공허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글귀들을 말할 수는 있어도 마음에 위안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 깨달으며, 하나님을 만족게 하기 위해 일을 한다면, 마음속으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생이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이라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얼마간 만족게 할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느낄 것이다. 사람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만족게 하고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면, 자신을 저버리고 자기 뜻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다면, 이런 일들을 모두 의식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확한 진리 실행이요, 진정한 진리 실행이다. 이는 지난날, 오직 상상에만 의존하고 이치나 규례만을 지키던 것과는 다르다. 사실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이치나 규례를 지키는 것이 가장 힘들며, 목표 없이 맹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 진리가 있어야 자유도 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진리가 있으면 일 처리가 쉽고 즐거워진다. 이런 상태의 사람은 진리를 갖춘 사람이며, 성품이 변화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진리를 추구해야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57)

진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든 자세히 살피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근거해 그 일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에 완전히 부합할 수 있는지 알면, 스스로의 뜻에서 나온 것들을 버릴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는지

알았다면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가 매우 수월하고 쉬워진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 일을 할 때 다음과 같다. 사람들에게 정말로 네 성품 변화를 보여 줄 수 있고, 네가 확실히 선행을 갖추고 일 처리에 원칙이 있으며 모든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확실히 사람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람에게서 효과를 낸 것이다. 사람이 진실로 진리를 알게 되면 자신의 다양한 내적 상태를 전부 분별할 수 있고, 복잡한 일들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며, 자신이 어떻게 해야 적절한지 알게 된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신의 내적 상태를 분별할 수 없다. 너는 자신을 저버리려고 해도 어떻게 저버려야 할지, 또는 무엇을 저버려야 할지 알지 못하며,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너는 자신의 뜻이 진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 어쩌면 그것을 성령의 깨우침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어떻게 해도 내려놓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사람에게 진리가 없을 때는 자신의 뜻에서 비롯된 것, 사람의 불순물, 호의, 어리석은 사랑, 행위를 옳은 것으로 보고 진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기기 쉽다. 그러니 그것들을 어떻게 저버릴 수 있겠느냐? 네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 실행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갈피를 잡지도 못한다. 그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하니,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을 치우치고 그릇되게 행하게 된다. 어떤 것은 규례를 지키는 것이고 어떤 것은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어떤 것은 바로 사탄에게서 나온 교란이다. 사람에게 진리가 없으면 일을 할 때 이렇다. 비틀비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올바르게 행했다가 그릇되게 행했다가 하며, 정확도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다. 진리가 없으면 일을 판단하는 것도 엉터리가 된다. 그러니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진리를 깨닫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은 진리 이해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진리 또한 한계가 있기에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에 대한 인식이 한정적이다. 어느 정도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 봤자 눈에 띄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고, 악행을 하지 않으며, 모두에게 해가 되는 일을 행하지 않는 데 그칠 뿐이다. 자신의 뜻이나 불순물을 전부 없애고 싶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에게서는 정상적인 사유가 있고 사람의 생각 중 일부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한 측면의 깨달음에 속하므로 자신의 뜻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핵심은, 하나님 말씀과 진리, 성령의 깨우침에 위배되는, 자신의 뜻에서 비롯된 것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인식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진리를 알아야만 분별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진리를 추구해야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58)

자신을 알려면 반드시 자신에게서 드러나는 패괴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 성품, 본성과 본질을 알아야 하며,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드러내는 모든 면면을 알아야 한다. 집에서나

외부에서, 예배할 때나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또는 어떤 일이 임했을 때, 네가 품은 마음과 관점, 그리고 각각의 일을 대하는 태도 등에서 자신을 알아 가야 한다. 자기 자신을 더 깊게 알아 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그래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의 심판을 받아들일 때, 고생스럽지 않을까 또는 고통스럽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아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지 않을까 겁낼 필요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말씀, 우리의 패괴된 본질을 폭로하는 말씀을 많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비추어 보되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스스로에게 비추어 보아라.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든 적지 않게 존재하므로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해 볼 수 있다. 믿지 못하겠으면 체험해 보아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그것을 스스로에게 비추어 보지 못하며, 그 말씀들은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람을 음녀, 기생이라고 폭로했는데, 이를 두고 어떤 자매들은 자신은 남편에게 충실하니 그 말씀은 자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자매들은 자신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음란한 짓도 한 적이 없으며, 그 말씀은 자신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편, 어떤 형제들은 그 말씀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니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 듣기 불편하다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도 틀린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겠느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스스로를 돌이켜보지 못한다. 여기에서 ‘기생’, ‘음녀’란 사람의 음란함과 패괴함을 가리키는 말이다. 네가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사람에게는 모두 음란함과 패괴함이 있는데, 이 말이 어찌 너와 무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폭로한 것은 사람의 패괴 성품이며, 남녀를 막론하고 패괴된 정도는 모두 동일하다. 이것이 사실 아니더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듣기 좋든 나쁘든, 괴롭게 느껴지든 달콤하게 느껴지든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이다. 이것은 어떤 태도겠느냐? 경건한 태도겠느냐, 인내하는 태도겠느냐, 아니면 고통을 감내하려는 태도겠느냐? 내가 알려 주겠다. 전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확신해야 한다. 그의 말씀이 진리인 이상,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이성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것을 알 수 있든 없든, 인정할 수 있든 없든,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은 그에 상응하는 내적 상태를 겨냥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표면적인 현상을 다루는 것도, 더욱이 외적인 규례나 사람의 단순한 행위에 대해 폭로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네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람의 단순한 행위나 표면적인 현상을 폭로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너는 영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며,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오하다. 어떤 점이 심오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폭로하는 것은 사람의 패괴된 성품과 사람의 생명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본질적인 것이다. 이는 본질적인 것이지

표면적인 현상도 더욱이 외적인 행위도 아니다. 표면적인 현상만 보면 모든 사람이 훌륭한 것 같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악령이고 어떤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네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현상이나 표면적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과 맞춰 봐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 · 진리 추구의 중요성과 진리를 추구하는 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59)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알아 가야겠느냐? 본성을 알아 간다는 것은 사실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것, 즉 네 생명 안에 있는 것, 네가 살면서 따랐던 그런 사탄의 논리와 사탄의 관점을 해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네가 기대어 살아가던 그 사탄의 생명을 해부하는 것이다.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파내야만 본성을 알 수 있다. 그것들을 어떻게 파내야겠느냐? 한두 가지 일만 통해서는 파헤치거나 해부하지 못한다. 많은 경우 일을 다 하고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3 년, 5 년이 지난 후에야 약간의 깨달음과 인식을 얻을 것이다. 반드시 많은 일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며 깊이 파헤쳐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끊임없이 깊어짐에 따라 다시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할 때 점차 본성과 본질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 측면을 통해야만 본성을 알 수 있다. 먼저, 네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음식이나 옷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부러워하는지, 어떤 것을 숭배하고 추구하는지, 마음속으로 어떤 것을 중요시하는지, 어떤 부류의 사람과 접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네 마음속 우상은 어떤 사람인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 언행에 기품이 있는 사람, 또는 가볍고 능청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 겉으로 잘 꾸미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는 좋아하는 사람 측면에서 본 것이다. 좋아하는 사물 측면에서 보면, 자기에게 익숙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남들이 좋게 보는 일, 동조해 주고 칭찬해 주는 일을 하기 좋아할 것이다. 사람의 본성 안에는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 즉, 사람은 남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것, 화려한 것, 사치스러운 것, 특히 남들의 동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일, 사물을 좋아한다. 사람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 높고 크고 눈부시고 화려하고 고귀한 것들이며, 사람은 모두 이런 것들을 숭배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사람에게는 진리가 전혀 없고, 진정한 사람의 면모 또한 없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숭배는 어떤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좋아한다. ... 네가 좋아하는 것, 중요시하는 것, 숭배하는 것, 부러워하는 것, 매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너 자신의 본성을 대표하며, 네 본성 안에 불의를 좋아하는 성분이 있음을 보여 준다. 심각한 사람은 본성이 극도로 사악하여 구제 불능일 정도이다. 이렇게 자신의 본성을 해부하고, 삶 속에서 네가 좋아하는 것, 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아라. 네가 일시적으로 누구에게 잘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네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야말로 네 본성 안에 있는 것이다. 네 뼈를 부러뜨릴지라도

너는 그것을 좋아하여 절대 버리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가장 바꾸기 어려운 점이다. 결혼 상대를 찾는 일을 예로 들어 보겠다. 누군가 어떤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누가 그녀의 다리를 부러뜨린다 할지라도 그녀는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할 것이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와 결혼하려고 할 것이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사람의 뱃속 깊이 박혀 있는 것은 누구도 바꿔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육체가 죽어도 그의 영혼이 좋아하는 것은 여전히 똑같다. 이것이 바로 본성 안에 있는 것으로, 사람의 본질을 대표한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는 불의한 것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확실히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어떤 자는 심하게 좋아하지만 어떤 자는 그렇지 않으며, 어떤 이는 자체가 가능하지만 어떤 이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어두운 것에 빠져든다면, 이는 그에게 생명이 조금도 없음을 의미한다. 사람이 그런 것들에 점령되거나 통제되지 않는다면, 이는 성품에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으며, 얼마간 분량을 갖췄다는 의미이다. 약간의 진리를 이해하고는 자신에게 생명이 있다고,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아직 이른 얘기다. 성품 변화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본성을 알기가 쉽겠느냐? 설령 얼마간 알 수 있다고 해도 변화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모두 사람이 직면한 어려움이다. 언젠가 주변의 사람과 일, 사물이 어떻게 변해도,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네 내면에서 진리가 주된 작용을 하고 뿌리내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과 취향, 체험, 생존을 인도해야 네게 진정한 변화가 생길 것이다. 현재 말하는 소위 변화란 사람이 얼마간 협력하고 열정과 믿음을 갖는 것을 뜻하지만, 그것을 변화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런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그저 사람의 취향에 불과하다.

사람의 본성적인 취향을 파헤쳐야 할 뿐만 아니라 본성에 속하는 다른 부분들도 파헤쳐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일을 바라보는 관점, 살아가는 방식과 목표, 살아가는 가치관과 인생관, 진리와 관계된 모든 일들에 대한 관점과 생각 등은 모두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놓인 것들로, 성품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럼 파괴된 인류의 인생관은 어떤 것이겠느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하늘과 땅이 그를 멸망시킨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 더 분명히 말하자면, 욕을 위해, 먹을 것을 위해 살아간다. 이것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조금의 가치도, 나아가 어떤 의미도 없다. 인생관은 네가 세상에서 생존하면서 무엇에 의존해 살아가는지, 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한 것이며, 이는 전부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들이다. 너는 사람의 본성을 해부함으로써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며, 전부 마귀이고,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의 본성을 해부해야 진실로 사람의 본질과 파괴를 알 수 있고, 사람이 대체 무엇에 속하는지, 사람에게 진정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사람은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의 면모를 살아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진정으로 사람의 본성을 해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진실한 체험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60)

본성 안에는 어떤 것이 있겠느냐? 너는 단순히 사람의 패괴, 패역, 결점, 문제점, 관념, 속셈을 인식할 뿐, 본성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지는 못한다. 표면적인 것들만 알고 근원은 알지 못한다면, 이는 본성을 아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는 표면적인 것을 본성으로 여기며, “보십시오. 저는 본성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교만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본성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한다. 본성 안에 교만함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도리상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신의 본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무엇이나? 어떻게 인식해야겠느냐? 몇 가지 측면에서 인식해야겠느냐? 이 밖에, 구체적으로 사람이 드러내는 것에서 어떻게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겠느냐? 첫째, 사람의 기호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춤을 매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가수나 배우를 매우 좋아하며,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인물을 무척 동경한다. 이를 통해 그들의 본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 가수를 몹시 동경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 마디, 미소 하나에 매우 큰 관심을 두고, 모든 신경을 집중하며, 심지어 그 가수가 무엇을 입고 쓰는지까지 전부 사진을 찍고 따라 한다. 이 정도로 동경한다는 것은 그의 본성이 어떻다는 의미겠느냐? 그의 마음에는 오직 그러한 것들만 있을 뿐 하나님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은 전부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들이다.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점령하였으며, 그는 자신의 마음을 모두 그런 것들에 주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사람이 무언가를 어느 수준까지 좋아하게 되면 그것이 그의 생명이 되어 마음을 점령할 수 있다. 이는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임을 충분히 증명한다.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며, 마귀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의 본성은 마귀를 사랑하고 숭배하며,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사람의 본성을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더없이 정확하다. 사람의 본성은 이렇게 해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바울을 매우 숭배한다. 밖에서 강연하고 사역하는 것을 좋아하며 모임을 가지기 좋아한다. 연설하기 좋아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따르고 자신을 숭배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을 둘러싸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 마음속에 자신의 자리가 있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모두 그의 형상에 관심 갖는 것을 좋아한다. 이러한 모습들에서 그의 본성을 파헤쳐 보자. 그의 본성은 무엇이었느냐? 그가 정말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조금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또한 그가 추구하는 것은 높은 지위에 서는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점유하고 싶어 하며 그들 마음속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사탄의 형상이다. 그의 본성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바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의 본성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61)

모든 인류는 사탄에게 패괴되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사탄에게 패괴된 사람들 중 어떤 이는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진리를 얻어 성품 변화를 이룰 수 있다. 반면 진리를 구하는 데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단순히 글귀를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좋은 글귀를 들으면 지키고, 글귀를 깨달은 후에는 본분을 어느 정도 이행할 수 있다. 누가 어떤 일을 시키면 하고, 인성 역시 그리 나쁘지 않으며, 얼마간 헌신하고 버리고 고통을 겪는 것도 모두 할 수 있다. 다만 진리에 있어 참답게 대하지 않으며, 죄만 짓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여겨 언제나 진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 이런 사람도 마지막에 굳게 서면 살아남을 수 있지만, 성품 변화는 이룰 수 없다. 패괴가 정결케 되고 생명 성품이 변화되려면 반드시 진리를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 무엇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냐? 네게 어떤 패괴 성품이 있든, 네 본성에 큰 붉은 용의 어떤 독소가 있든,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드러내면 인정하고 순종하며,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이유도 대지 말고 선택도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도, 그 말씀이 아무리 마음을 찢어도, 어떤 어휘를 사용해도, 그것이 진리라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사실과 진상에 부합한다면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얼마나 이해했든 순종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성령의 깨우침으로 인한 빛을 교제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어느 수준까지 추구하면 진리를 얻어 성품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인성이 괜찮을지라도 진리를 참답게 대하지 못하고 건성이다. 이런 사람도 좋은 일을 얼마간 행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자신을 버릴 수도 있지만 성품 변화를 이루지는 못한다. 베드로와 사도들, 또는 형제자매들의 인성을 비교해 보면 그리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눈에 띄는 점은, 진리를 추구하는 데 특히 열심이였으며, 예수가 어떻게 말씀하든 모두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예수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자 베드로는 “저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사랑할 뿐, 땅에 계신 주님은 사랑하지 않나이다!”라고 사실대로 말했지만, 나중에 ‘그게 아니구나. 땅에 계신 하나님이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에 계신 하나님은 모두 같은 한 분의 하나님 아니겠는가?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실제적이지 않다. 땅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내 사랑이 실제적이 될 것이다!’라고 깨달았다. 예수의 질문 속에서 그 말의 참뜻을 계속 생각해 깨달은 것이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려면 반드시 땅에 계시는, 성육신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막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실제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눈에 보이는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진리이다. 그는 예수의 말 속에서 진리를 얻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오직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만 집중했고, 마지막에는 실제 하나님, 땅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베드로는 진리를 추구할 때 지극히 참답게

대했다. 예수가 말씀으로 짊어 줄 때마다 마음으로 생각했고, 반년, 1년, 심지어는 몇 년을 생각한 후에 성령이 깨우쳐 주면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 그렇게 진리에 진입했으며, 그의 생명 성품은 진리에 진입하면서 더 새롭게 변화되었다.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영원히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글귀는 수만 번 되뇌어도 글귀일 뿐이다. “그리스도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라는 말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을 만 번 되뇌어 봤자 아무 소용없다. 너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 어째서 그리스도를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겠느냐? 체험으로 인한 인식을 말할 수 있겠느냐? 너는 진리, 길, 생명의 실체에 진입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체험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글귀만 말해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입해야 너 자신을 알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는 스스로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진리가 있어야 분별을 할 수 있고, 진리 없이는 분별도 불가능하다. 진리가 있어야 일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진리가 없으면 일을 꿰뚫어 볼 수 없다. 진리가 있어야 자신을 알 수 있고, 진리가 없으면 자신을 알 수 없다. 진리가 있어야 성품이 변화될 수 있고, 진리가 없으면 성품도 변화되지 않는다. 진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고,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없다. 또 진리가 있어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으며, 진리 없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또한 종교의식의 수행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얻는 것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62)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진정으로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문자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 엄지를 치켜세우며 칭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 비춤을 얻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며 하나님이 하는 그 말씀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말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거두고자 하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표면적인 의미를 그럴싸하게 해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할 수 없다. 표면적인 해석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의 상상과 생각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겠느냐?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고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하는 한 마디 말씀마다 그저 두리몽실한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틀림없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 또한 분명 말씀에서 밝혔거나 다른 방식으로 언급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는 방식을 사람은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심오하여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측량하기 힘들다. 사람은 각 부분의 진리에 공을 들여야 완전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남은 세부적인 부분은 체험 과정에서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 구체적인 내적 상태를 깨달음으로써 부족한 점을 완전히 보완할 수 있다.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구체적인 내용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여 성령의 깨우침을 얻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함의를 이해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주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너의 생각과 상상을 바탕으로 해석한다면, 표면적인 의미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석해도 내면적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떼어 내 왜곡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진리는 문자적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것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성령의 깨우침을 얻을 필요가 없이 어느 정도의 지식만 갖추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면 지식이 없는 사람은 곤란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머리로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성령의 깨우침이 있어야 하며,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참된 인식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진리를 얻는 과정이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63)

사람의 본성을 알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살피는 것이다. 마귀에 속한 사람은 모두 스스로를 위해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주로 ‘하늘은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는 자를 멸한다’와 같은 사탄의 말을 인생관이나 좌우명으로 여기며, 세상의 마왕, 위인, 철학자들의 말을 생명으로 삼는다. 특히 중국인들이 ‘성인’으로 떠받드는 공자의 말 중에서 대부분은 이미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이것 외에도 불교나 도교의 명언, 유명인 입에서 나온 전형적인 격언들은 모두 사탄 철학, 사탄 본성의 정수이자 사탄 본성에 대한 최고의 설명이고 해석이다. 인류의 마음에 주입된 이러한 독소는 모두 사탄에게서 온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하나도 없다. 그 궤변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긍정적인 사물의 실체는 하나님에게서 오고, 사람을 해하는 모든 부정적인 사물은 다 사탄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통해 그 사람의 본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알 수 있다. 사탄은 국가 정부, 유명인사와 위인들의 교육과 가르침을 통해 사람을 패괴시키며, 그들의 허튼소리는 사람의 생명 본성이 되었다. ‘하늘은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는 자를 멸한다’는 말은 사탄의 명언으로, 이미 모든 이의 내면에 침투해 생명이 되었다. 이밖에 처세 철학에 관한 말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탄은 각국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이용해 사람을 교육함으로써 끔찍한 재난의 망망대해로 빠뜨리며, 사람은 결국 사탄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멸망당하고 만다. 사회에서 수십 년간

분투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당신은 그 나이까지 세상에서 살면서 엄청난 성공을 이뤘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만들어 준 명언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 공직에 있으면서 뇌물 준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과 아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말이 그 사람의 본성을 대변하지 않겠느냐? 공직에 오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그의 본성이 되었고, 관직에 머무는 것은 그의 생명이 되었다. 사람의 삶과 행위, 사람됨에는 아직도 사탄의 독소가 많이 들어 있고, 진리는 거의 들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사람의 처세 철학, 일 처리 방식, 사람의 좌우명에는 모두 큰 붉은 용의 독소가 가득하며, 이것들은 모두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 사람의 뱃속과 핏속에 흐르는 것은 모두 사탄의 것이다. 공직에 있는 자, 권세를 잡은 자, 성공한 자에게는 모두 그들만의 성공의 길, 성공 비법이 있다. 그 비법이 곧 그의 본성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들이 세상에서 큰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숨겨진 음모와 간계를 아무도 꿰뚫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의 본성이 매우 음험하고 악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는 사탄에 의해 심하게 파괴되었고, 모든 사람의 혈관에 흐르는 것은 사탄의 독액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의 본성이 파괴되고 사악하고 불온적인 것이며, 사탄의 철학으로 점철되고 뱃속까지 물들어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본성임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시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본성을 이렇게 해부한다면 사람은 모두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64)

자신을 반성하고 알아 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자신이 잘했거나 옳게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있거나 자랑할 만하다고 여기는 부분일수록, 더 깊이 파 보며 자신에 대해 알아 가야 한다. 그 안에 대체 어떤 불순물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보아야 한다. 바울을 예로 들어 보겠다. 바울은 문화적 소양이 무척 높았으며, 전도하고 사역을 할 때도 많은 고난을 겪었다. 이에 수많은 사람이 그를 매우 우러러보았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역을 한 후, 자신을 위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여겼으며, 잘못된 길에 올라 점점 더 멀리 갔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 당시에 그가 스스로를 반성하고 해부할 수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바울은 예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는 데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관념과 상상만을 믿었다. 좋은 행실과 행위만 있으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결과 그의 관념과 상상이 그의 마음과 영혼을 가렸고, 그의 본모습을 숨겼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드러내기 전까지 사람들은 계속 바울을 자신들의 목표, 본보기로 삼았으며, 바울이야말로 자신들이 동경하고 추구하고 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여겼다. 바울의 일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이에게 한 가지 경고를 준다. 스스로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여겨질 때, 혹은 자신이 어떤 방면에 매우 은사가 있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혹은 스스로가 변화할 필요도, 책망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반성하고 인식해야 한다. 이는 아주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분명 그 부분은 더 파고들거나 신경 쓰지도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부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기 마음이 매우 선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여태껏 남을 미워한 적도, 해친 적도 없고, 형제자매들 집에 일이 생기면 언제나 가서 도우며, 다른 사람에게 일이 생겼는데 해결해 주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 그는 선한 마음을 많이 지니고 있으며, 온 힘을 다해 모든 사람을 돕는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도와준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자신의 생명에 지장을 주고도 득의양양해하며, 자신이 한 모든 일에 더없이 만족한다. 또 그것을 뿌듯하게 여기며, 자신이 한 모든 일이 분명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야말로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타고난 선의를 밀천으로 삼았고, 그것이 그의 밀천이 되자 아주 당연하게 그것을 진리로 여겼다. 그러나 사실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인간의 선으로, 그는 진리를 전혀 구하지 않았다. 그가 행한 그 모든 일은 다 헛수고에 불과하다. 그는 그 일들을 전부 다른 사람 앞에서 했지, 하나님 앞에서 하지는 않았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요구와 진리대로 실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행한 그 모든 일은 진리를 실행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선의와 선한 행위를 통해 남을 돕는 것이었다. 종합해 보자면, 그는 그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행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사람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보기에 정죄받을 것, 기억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자신의 잘못된 관점을 알아야 자신을 알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65)

성품 변화를 이루는 관건은 자신의 본성을 아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낸 것에 근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자신의 추악한 본성과 본성에 있는 각종 사탄의 독소, 무지몽매함, 그리고 약점과 소극적인 부분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철저히 깨달은 후에 진실로 스스로를 증오하고 욕을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실천하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결심을 하게 됐다면 베드로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성령의 깨우침과 인도가 아니었다면 이 길은 가기 힘들었을 것이다. 사람은 진리가 없고 자신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걸은 온전케 되는 길을 가려면 의지와 믿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며, 또한 성령 역사에 순종해야 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선 안 된다. 이는 핵심적인 몇 가지 부분으로, 하나라도 어겨선 안 될 것이다. 체험 속에서 자신을 알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성령 역사 없이는 진입하기 어렵다. 베드로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자신을 알고

성품 변화를 이루는 데 집중해야 한다. 바울의 길은 생명을 추구하지 않으며, 자신을 알아가는 데 집중하지 않고 사역과 사역의 영향력에 특히 초점을 맞춘다. 그의 속셈은 사역하면서 겪는 고난을 대가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었다. 그 속셈은 그릇되었다. 그는 생명을 중시하지도, 성품 변화를 중시하지도 않고 오직 상을 받는 것에만 집중했다. 추구하는 목표가 틀렸으니 당연히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는 그의 교만한 본성의 소치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그에게는 진리가 전혀 없었고, 양심이나 이성 따위도 없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주로 그들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목적은 바로 사람에게서 성품 변화의 성과를 거둬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데 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사역하는 목적이다. 바울의 추구 방법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충돌하며,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다. 반면 베드로의 추구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이루려는 성과이기도 했다. 그래서 베드로의 길은 하나님께 축복과 인정을 받는다. 하지만 바울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에 하나님께 증오와 저주를 받는다. 베드로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만약 정말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이루려는지, 마지막에 어떤 성과를 거두려는지 알 수 있다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의 길에 대해 잘 모른 채 단순히 그 길을 걷겠다는 바람만 갖고 있다면 그 길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즉, 수많은 글귀를 알고 있어도 결국에는 실제로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얇은 진입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성과를 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 · 자신을 알려면 사람의 본성을 알아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66)

지금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너무도 얕다. 자신의 본성 안에 있는 것들을 전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있는 일부 패괴 상태나, 어떤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부족한 점들이 있는지 등만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해 안다고 여긴다. 또한, 일부 규례를 지키고 몇 가지 잘못을 절대 범하지 않으며 몇 가지 과오를 범하지 않는 정도에 이르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실체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 이는 완전히 사람의 상상에 불과하다. 네가 이런 것들을 지킨다고 정말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정말 성품이 변화되겠느냐? 정말 사람의 면모를 살아 내게 되겠느냐? 정말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있겠느냐? 단언하건대 절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높은 기준이 있어야 하고, 진리를 얻어야 하며, 생명 성품에 얼마간 변화가 생겨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얕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생명 성품도 결코 변화될 수 없기에 반드시 스스로를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알아야 한다. 바로 자신의 본성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본성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그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 한다. 그 외에 그러한 것들을 증오할 수 있고, 자신의 추한 영혼과 사악한 본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진실로 자신의 본모습을 본다면 자신을 증오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증오하게 됐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 욕을 버릴 수 있고, 진리를 실행할 힘을 갖게 되며,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왜 많은 사람이 일을 할 때 육적인 기호를 따르겠느냐? 그 이유는 그가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고 정당하며 어떤 문제도 없고, 심지어는 완전히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가 자신의 본성이 어떤지, 얼마나 추하고 비열하며 가련한지 정말로 알게 되면, 그 뒤로는 건방지고 교만하게 굴지 않을 것이며, 예전처럼 기고만장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겠어. 그러지 않으면 나 같은 인간은 정말 사람의 기준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살 염치도 없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가 정말로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여기고,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때, 수월하게 진리를 실천하게 되고, 비로소 조금이나마 사람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사람은 진실로 자신을 증오해야 욕을 버릴 수 있다. 자신을 증오하지 않는다면 욕을 버리지 못한다. 진실로 자신을 증오하려면 갖추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자신의 본성을 아는 것이다. 둘째, 자신이 딱할 정도로 가진 게 없고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의 가없고 더러운 영혼을 보는 것이다. 진실로 자신의 본모습을 꿰뚫어 보는 성과를 얻었다면 진실로 자신을 인식한 것이며, 스스로에 대해 확실히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을 증오하고, 나아가 자신을 저주하며, 사람이 사탄에 의해 너무나 깊이 파괴되어 사람의 면모를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느 날 정말 죽음의 위협이 닥치면 그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벌이구나.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나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하지!’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때의 그는 불평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자신이 딱할 정도로 가진 게 없고 너무나도 더럽고 파괴되었으니 마땅히 하나님께 멸망되어야 한다고, 그런 영혼은 땅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여길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고, 더욱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만약 스스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추구했으며, 그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고 고난을 겪었는데, 하나님은 결국 내게 죽음을 내리시는구나.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왜 내게 죽음을 내리시는 걸까? 나 같은 사람마저 죽어야 한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인류는 끝장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는 첫째로 하나님께 관념을 가지고 있고, 둘째로, 원망을 하며, 순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바울처럼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때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67)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며 베드로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진리를 추구하는 길, 즉 진정으로 자신을 알고 성품 변화를 이루는 길을 간다는 뜻이다. 오직 베드로의 길을 가야만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베드로의 길을 가야 할지, 어떤 실행 방법이 있는지 등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먼저, 자신의 불순한 의도나 그릇된 추구, 나아가 가정이나 육적인 것들까지 전부 내려놓고 온 몸과 마음을 몰입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몰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에 집중하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실행법이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난 후 이렇게 실행했다. 또, 이렇게 실행해야만 최고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많은 진리를 깨달아 얻는 것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론적인 이해를 중요시하지 않았고, 나아가 신학적 지식을 얻는 데에도 중점을 두지 않았다. 그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스러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람의 각종 패괴된 모습과 본성, 진정으로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여 하나님을 만족케 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실행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협력 방법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준 시련을 수백 번 겪으면서 사람을 심판하고 폭로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엄격히 자신에게 비추어 보며 성찰했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찾았다. 베드로는 예수가 그에게 한 모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좋은 결실을 맺었다. 그는 이렇게 실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을 알게 되었는데, 사람의 각종 패괴된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의 본질과 본성, 각종 부족한 점까지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자신을 아는 것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알게 되었다. 또 한편,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서 나타낸 공의 성품, 소유와 어떠함을 통해, 하나님이 사역하는 뜻과 인류에 대한 요구를 나타내는 말씀을 통해 완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이해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사랑스러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요구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깨달았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지만, 베드로에게서 이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다. 이는 매우 귀한 것이었다. 베드로가 겪은 수백 번의 시련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가운데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 밖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주목했으며, 사람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만족케 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그러한 면에서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밝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의 진입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자신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고 진리라면 마음에 새겨 수시로 묵상하고 깨달았다. 베드로는 예수가 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매우 중시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마지막에 확실히 결실을 얻었다. 즉, 그는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었으며, 정확하게 진리를 실행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행할 수 있었다. 또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고, 자신의 개인적인 주장이나 상상을 버릴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진입했다. 베드로의 섬김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것들을 해냈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본분 이행에서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고 말과 일 처리에 다 원칙이 있으며 각 측면의 진리에서 모두 실체에 진입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케 된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은 그 사람에게서 완벽한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명이 된 것이다. 그는 진리를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므로 이후 그의 육적인 본성, 다시 말해 그가 갖고 있던 기존의 생존 토대는 흔들리고 무너질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은 후에야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 사역의 이상(異象)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사람에 대한 폭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한 참된 인생의 기준이 생명이 되어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된 사람이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 삶을 얻고 새사람이 된 자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걸은 진리 추구의 길이자 온전케 되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가 생명이 된 자야말로 진리를 얻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 · 어떻게 베드로의 길을 갈 것인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68)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여 진리를 얻기 전까지는 사탄의 본성이 사람의 내면에서 주도권을 잡고 사람을 지배한다. 그 본성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 너는 왜 이기적으로 구는지, 왜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 하는지, 왜 그렇게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왜 그 불의한 것과 악한 것들을 좋아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것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너는 왜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좋아하는지 등이 있다. 너희는 그것이 주로 내면에 사탄의 독소가 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 사탄의 독소가 무엇인지는 말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물으면 그는 “하늘은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는 자를 멸한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말은 문제의 근원을 보여 준다. 사탄의 논리는 이미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이것도 위하고 저것도 위하는 것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사람은 하늘이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는 자를 멸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 떠나 먼 타향까지 와서 관리가 된 것은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처럼 말이다. “하늘은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는 자를 멸한다”라는 이 말은 사람의 생명이자 철학으로, 사람의 본성을 대변하기도 한다. 사탄의 이 말이 바로 사탄의 독소이며, 사람의 내면에서 사람의 본성이 되었다. 이 말은 사탄의 본성을 드러내고, 사탄의 본성을 완전히 대변한다. 이 독소는 사람의 생명이 되고, 생존의 토대가 되었으며, 파괴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독소의 지배를 받으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다. 사탄이 하는 모든 일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을 뛰어넘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자신이 권세를 잡으려 하며, 하나님이 지은 만물을 점령하려 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성이 곧 사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실, 사람의 많은 좌우명들은 사람의 본성을 대변하고 보여 주고 있다. 사람이 자신의 모든 언행을 어떻게 위장하든 본성을 감추지는 못한다. 어떤 이는 단 한 번도 솔직한 말을 한 적이 없고 위장에도 능하지만, 그와 함께 오래 지내다 보면 그의 본성이 너무나도 간사하여 정직한 면이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는 단 한 번도 솔직한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는 간사한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의 본성이자 그의 본성과 본질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이고 증거이다. 그 사람의 처세 철학은 누구에게도 솔직한 말을 하지 않고 누구도 믿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사탄 본성에는 수많은 철학이 들어 있다. 어떨 때는 스스로도 의식하거나 알지 못하지만, 너는 매분 매초 그것으로 살아가며, 그것이 옳고, 일리가 있고, 아무 문제 없다고까지 생각한다. 이는 사탄의 철학이 이미 사람의 본성이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말해 준다. 사람은 완전히 사탄의 철학으로 살아가며, 거기에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사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사탄 철학으로 살아간다고, 사탄의 본성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 · 어떻게 베드로의 길을 갈 것인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69)

사람이 자신의 본성에 대해 인식한 것은 너무 얕아 하나님이 심판하고 폭로한 말씀과 늘 차이가 아주 크다. 이는 하나님이 폭로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본성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 충분히 깊지 않은 까닭이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 근원적이고 본질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행실이나 겉으로 드러낸 것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공을 들인다. 비록 가끔 자신에 대한 인식을 말하더라도 그 인식은 그다지 깊지 못하다.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했거나 자신에게서 어떤 측면의 파괴 성품이 드러났으니 자신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고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이 폭로한 것은 사람의 본성과 본질인데, 사람이 인식한 것은 사람의 행실이나 말하는 방식의 잘못이나 결점이다. 그래서 사람은 진리를 실행하기 상당히 힘들어한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은 그저 조심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으로, 본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이렇게 인식한다면 진리를 실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진리를 진리로 여기지 않고 진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진리를 실행할 때 건성으로

규례만 지킬 뿐이다. 사람은 자신의 본성이 그다지 나쁘지 않아 멸망하거나 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어쩌다 한 번 거짓말을 하는 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고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기준에 따르면, 아직 멀었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실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진리를 실행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변화가 본성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행실이 사람의 옛 모습이나 본성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수 없으며, 오직 사람이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야만 실행에 깊이가 생기고 규례를 지키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사람의 진리 실행은 기준치에 이르지 못하고, 진리가 요구하는 바에 완벽하게 도달하지도 못한다. 사람은 그저 진리의 일부만 실행하고, 어떤 상태나 환경 속에서만 실행할 뿐,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고 모든 배경 속에서 진리를 실행하지는 못한다. 가끔 즐겁고 내적 상태가 좋을 때, 또는 함께 교제하며 내면이 비교적 자유로울 때, 일시적으로 진리에 부합하는 일을 해낼 수 있지만, 소극적인 사람, 추구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실행에 부족한 점이 있고, 그다지 적절하게 해내지 못한다. 이는 사람이 진리를 실행할 때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한때의 감정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아 실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내적 상태나 본성을 파악하지 못해 때때로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너는 자신의 일부 상태에 대해서만 알 뿐, 자신의 본성을 파악하지 못했기에 네가 나중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알지 못한다. 즉, 굳게 설 수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없다. 때로 어떤 상태에서는 진리를 실행할 수 있고 얼마간 변화도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환경에 처하면 실행해 내지 못한다. 이는 네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어떤 때는 진리를 실행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실행해 내지 못하고, 어떤 때는 깨닫지만 어떤 때는 흐리멍덩하며, 이번에는 나쁜 일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할 수도 있다. 이는 내면에 파괴된 것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진실로 스스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파괴된 것을 없애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자신의 파괴 성품을 똑똑히 알지 못한다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또 할 수 있다. 이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 네가 자신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증오할 수 있다면, 스스로를 통제하고 저버리고 진리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본성 인식과 진리 실행>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70)

진리를 밝히 교제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하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실행하고 성품 변화를 이루게 하는 데 있다. 만약 네가 진리를 이해했지만 실행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교제하고 이해하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또 네가 진리를 이해했지만 실행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얻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반면 네가 이해한 진리를 실행한다면 더 많고 깊은 진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고, 또한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 인도를 얻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성령이 한 번도 깨우쳐 주지 않았으면서 원망할 줄만 알 뿐, 자신이 결코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늘 상태가 비정상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는 진리 실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리는 사람의 패괴 성품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사람이 지닌 어떤 문제든 모두 해결 가능하며, 관건은 그 사람이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너희에게 존재하는 결점은 모두 암 같은 불치병이 아니다. 너희가 진리를 실행한다면 그 결점들은 바뀔 수 있다. 이는 네가 진리대로 실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네가 진리 추구의 길을 간다면 분명히 성공하겠지만, 잘못된 길을 간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집의 사역에 이로운지,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그 결과 하나님이 증오하는 많은 일을 저지른다. 만약 그가 모든 일을 진리대로 행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아니겠느냐? 한편 어떤 사람은 진리를 알지만 실행하지 않으면서, 진리는 겨우 이런 것이라고, 자신의 뜻이나 패괴를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는 우스운 사람 아니겠느냐? 터무니없는 사람 아니겠느냐? 헛똑똑이 아니겠느냐? 사람이 진리대로 실행한다면 패괴 성품이 변화되겠지만, 타고난 개성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아무도 성품 변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온종일 자신이 만들어 낸 걱정거리 속에 파묻혀 눈앞의 진리를 알아보거나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작태냐. 복이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니 타고난 불운아 아니겠느냐! 길은 있다. 네 실행 여부에 달렸다. 네가 실행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네 약점과 치명적인 단점은 모두 변화될 것이다. 단, 언제나 조심하고 신중하며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대충대충, 덤벼거리면 제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실행할 길이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71)

네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한 의도, 말씀으로 이루려는 목적과 효과를 모르고, 사람에게서 무엇을 이루려는지, 무엇을 온전케 하려는지를 모른다면 이는 네가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 왜 그런 어조로 말씀했는지, 구구절절 왜 그리도 간절한지, 왜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이는 네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너는 하나님이 말씀한 배경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진리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한 마디 한 마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네가 이해한 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내 자신의 실체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진리를 아는 것이다. 너는 글귀만 조금 알고는 자신이 진리를 깨달았고 실체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또한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그렇게 되려고 노력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정직한 자가 되라고 요구하는지, 왜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는지는 모른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모두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진리를 갈망하고, 구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선포한다. 글귀를 중시하고 공리공론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진리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를 우롱하는 자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관점이 옳지 않으며, 목이 비뚤어진 사람이 시계를 보듯 관점이 바르지 않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만 한다. 하나님이 복을 얻는 것이나 종착지에 대해 한 말씀이 자신의 관념에 맞지 않으면 소극적이 되고 추구하지 않는다. 이는 그가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진실로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관념과 상상에 맞는 진리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열정이 있고, 갖은 방법을 다하여 좋은 일을 하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것은 모두 앞으로 좋은 종착지를 얻기 위해서다. 이런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고, 남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기도 하지만, 진리의 실체에 진입하거나 진리를 얻기가 쉽지 않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형식적으로 먹고 마시고, 글귀를 조금 알고는 진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어리석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 보았다고 해도 꼭 진리를 깨닫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셨는데도 진리를 얻지 못했다면, 네가 얻은 것은 글귀와 도리이다. 너는 진리를 얻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너는 말씀을 다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글귀와 도리만을 얻었을 뿐이다. 너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몹시 심오하다. 네가 여러 해 동안 체험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사람이 평생 체험하기에도 부족하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의도와 근원, 그리고 그것으로 얻으려는 효과와 이루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 차례 읽어 많은 글귀를 외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는 조금의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전처럼 소원하다. 또 하나님에 대해 예전처럼 거리감이 있고 의구심을 가지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밖에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께 이유를 따지고 관념을 가지며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심지어는 모독할 수도 있다. 이것을 어찌 진리를 얻었다고 하겠느냐?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진리 실체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72)

매일 직면하는 일 중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네 의지를 흔들 수 있고, 네 마음을 차지할 수 있고, 네가 본분을 이행하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모두 진지하게 대하고 자세히 성찰해야 하며, 진리를 구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체험에 해당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이 되면 바로 본분을 팽개치며, 좌절을 겪을 때마다 일어서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모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우매하고 완고한 사람이며, 평생 믿어도 진리를 얻을 수 없다. 이렇듯 우매하고 완고한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따를 수 있겠느냐? 똑같은 일이 너에게 열 번 닥쳤는데 네가 열 번 가운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면,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 진정 자질을 갖추고 영이 통하는 사람은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은 열 번 일에 직면해도 그중 여덟 번은 얼마간의 계시와 교훈, 깨우침을 얻고, 조금 발전할 것이다. 영이 통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은 열 번 일에 직면해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생명에 이로운 것을 얻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며 자신의 본성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 그러면 끝장이다. 일이 닥칠 때마다 넘어지고, 넘어질 때마다 누군가가 붙잡아 주고 달래 줘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일어서지 못한다. 일이 닥칠 때마다 넘어지고 타락할 위험에 빠지니 이러면 끝장 아니겠느냐? 이런 쓸모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여지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함에 있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는데, 사람의 의지와 뜻, 진리와 정의를 갈망하는 마음, 이 부분을 구원한다. 사람에게 뜻이 있다는 것은 마음속에 정의와 아름다운 것, 진리를 갈망하는 양심적인 부분이 있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구원하고, 이 부분을 통해 사람의 패괴 성품을 변화시킴으로써 진리를 깨닫고 얻게 하며, 사람의 패괴를 정결케 하고 생명 성품이 변화되게 한다. 네게 이런 것들이 없다면 너란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네 내면에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와 광명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고, 사악한 일을 마주했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와 고난을 감내하려는 뜻이 없다면, 또한 양심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무더져서 진리와 부딪힌 일에 민감하지 않고 어떤 일도 분별하지 못하며, 어떤 일에 부딪혀도 혼자 처리하고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면, 구원할 방법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취할 부분도, 역사할 가치도 없다. 그의 양심은 마비되고, 머리는 흐려졌으며, 마음속 깊이 진리를 사랑하지도, 정의를 갈망하지도 않으니, 하나님이 아무리 분명하고 명백하게 진리를 말씀해도 죽은 사람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 끝장 아니겠느냐? 예를 들면,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은 인공호흡으로 살릴 수 있지만 이미 숨이 넘어가 영혼이 몸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인공호흡을 해 본들 헛수고에 불과하다. 네가 어떤 일을 마주할 때마다 위축되고 회피하면 간증이 없다. 그러면 너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으며, 완전히 끝장이다. 일이 닥쳤을 때는 침착해야 하고, 정확히 대해야 하며, 또 선택이 필요하다. 너희는 진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네가 평소 깨달은 일부 진리들은 무엇에 쓰는 것이냐? 네 배를 채우라는 것도, 입으로만 떠들라는 것도, 그것들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다. 네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베드로를 왜 열매라고 하느냐? 그가 가치 있는 것, 온전케 될 만한 것들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는 진리를 구하려는 뜻과 강한 의지, 이성을 지니고 있었고,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다. 또한 그는 마음속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일이 닥쳤을 때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장점이다. 너에게 이런 장점이 하나도 없다면 문제가 된다. 네가 체험을 할 줄 모르고, 체험한 것도 없으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 이유는 바로 너 자신이 진입할 줄 몰라 일이 생기면 정신이 멍해지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소극적이 되고, 도망가려고 하고, 아무리 해도 올바르게 그 일을 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어리석은 사람은 구제 불능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73)

너는 무슨 일을 하든 가장 먼저 왜 그 일을 하는지, 어떤 속셈에 이끌려 그 일을 하는지, 그 일을 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 일은 어떤 성질에 속하는지, 긍정적인 것에 속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것에 속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는 원칙을 갖고 일을 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만약 그 일이 본분 이행에 속한다면, 너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이 본분을 대충대충 하지 않고 잘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가야 한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바로 그 일에서 진리와 실행의 길, 하나님의 뜻,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는지를 구하는 것이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그것은 종교의식이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진리에 따라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막상 일을 할 때는 자기 뜻대로 행동한다면, 너의 감사는 외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너는 본분을 이행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이 본분을 어떻게 이행해야 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통해 일하는 원칙과 진리를 구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지금 일이 닥쳤을 때 앞뒤 가리지 않고 이 일도 저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고, 전부 자신의 뜻대로 행한다. 또 자신의 행실이 적절한지, 또는 진리에 부합하는지 따져보지 않은 채 목을 꼴꼴이 세우고 자신의 뜻대로만 한다. 평소에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만,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없다. 어떤 이들은 “저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합니다. 예전에 종교의식에 익숙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요. 그분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전혀 없고 자기 자신만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할 때 결코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없다.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다.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뜻은 흔히 사람이 보기에 아주 훌륭하고 옳으며 진리에 그다지 어긋나 보이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은 그

일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드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기 위해 그의 요구에 따라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이런 진실된 상태도 아니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바람도 없다. 이것이 실행에 있어서 가장 큰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느냐?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믿는다면 무슨 결실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의의를 또 어디에서 구현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 ·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진리를 실행하기 위해서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74)

네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매우 흡족해하지 않았다. 너는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아시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반감을 느끼실까? 싫어하지는 않으실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는 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누군가 일깨워 주었다고 해도 너는 그 일이 별것 아니라고, 원칙에 어긋나거나 죄를 지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결과, 그 일로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 진노를 사게 됐으며, 심지어는 하나님께 증오까지 받게 되었다. 만약 네가 미리 구하고 알아보며 그 일을 꿰뚫어 본 후에 행했다면 확실하지 않았겠느냐? 때로 사람의 내적 상태가 좋지 않아도,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알아보고 구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사람이 진리를 실행할 때 실수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네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진리에 부합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진리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성품은 변화될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면, 다른 이와 교제해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들도 그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그렇게 실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재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실수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지녔고 진리대로 실행했으나, 다만 제대로 깨닫지 못해 실행에 약간의 실수가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용서받을 여지가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 오직 자신의 두 손으로만 행하고, 자신의 머리로만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다고 상상할 뿐,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지, 하나님이 미더워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를 실행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 듣고 “올바르고 적절하게 행했구나. 계속 그렇게 하여라.”라고 말씀할지 생각해 보는 일은 거의 없다. 너는 모든 일을 이렇게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겠느냐? 모든 일을 세밀하고 참답게 대할 수 있겠느냐? 또는 그 일을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지는 않을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이 네 뜻대로 행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등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구할수록 그 일을 할 때 실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곧 내가 진정으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너는 진리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리에서 벗어난 일을 한다면 이는 믿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이들은 하나님 집에서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고 보수를 받으면 바로 떠나는 인부와 같을 뿐,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예전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이는 내가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돌아보고 해내야 할 부분이며, 네 일 처리의 원칙이자 범위가 되어야 한다. 일을 할 때 진리에 부합하는지 가늠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리에 부합할 경우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도 맞기 때문이다. 네게 일의 옳고 그름을 해야리라는 것도, 그 일이 모두의 입맛에 맞는지, 너 자신의 욕망에 부합하는지 생각하라는 것도 아니다. 그 일이 진리에 부합하는지, 교회의 사역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해야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네가 하는 일은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맞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네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행동한다면, 단언컨대 전부 그르칠 것이다. 사람의 뜻은 진리가 아니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진리대로 실행해야지, 너 자신의 뜻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본분 이행을 핑계로 자신의 사적인 일을 하다가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형제자매들에게 질책을 받는데, 질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그 일이 사적인 일에 속하며, 교회 사역과는 관련이 없다고, 교회의 재산이나 인력을 쓰지도 않았으니 진리의 범위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하나님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네가 보기에 어떤 일들은 사적인 일 같고, 어떤 원칙이나 진리와의 무관한 듯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네 개인적인 욕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너는 일을 할 때 하나님 집의 사역과 하나님 집이 받을 영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다. 이것은 성도의 체통과 인성에 관련된 문제이다. 네가 하는 일이 교회의 이익이나 진리와 무관할지라도 본분 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사적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든 네 개인적인 일을 하든, 너는 항상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인성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할 일인지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 일에서 진리를 구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또 이렇듯 모든 일과 진리를 진지하게 대해야 성품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자신이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진리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좋을 대로 움직이며, 자신에게 이로운 대로 행동하는 등 하나님 집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성도의 체통에 어울리는지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다 결국 일을 마치고 나면 내면이 어두워져서 견디기 힘들어하지만, 그런데도 어찌다 그렇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 이는 마땅한 응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일을 했다면 너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늘 자신의 뜻대로 행동한다면, 늘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다. 그런 사람은 일을 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만약 뉘우치지 않는다면 징벌이 가까울 것이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 ·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진리를 실행하기 위해서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75)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모두 생명 진입과 관계가 있다. 네가 이행하는 본분이 규칙적인 것이든 규칙적이지 않은 것이든, 또는 지루한 것이든 활기찬 것이든, 너는 생명 진입을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비교적 단조로운 본분을 이행해서 매일 똑같은 일을 한다. 하지만 사람이 본분 이행 과정에서 드러내는 내적 상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때로 기분이 좋을 때 사람은 본분을 좀 더 열심히, 잘 이행한다. 하지만 어떨 때는 무엇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사탄의 패괴 성품이 마음속에서 수작을 부려 바르지 못한 관점을 갖게 되고 상태가 안 좋아지며 기분이 나빠져 본분 이행을 건성으로 하게 된다. 사람 내면의 상태는 언제든 변한다. 그러나 어떻게 변하든 네가 마음 가는 대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분이 좋을 때는 잘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못한다면 그런 일 처리에 원칙이 있겠느냐? 올바르게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기분이 어떻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기분을 다스려야 하고, 진리를 구해 원칙대로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분에 좌우되거나 통제되지 않을 수 있다. 본분을 이행할 때는 언제나 자신이 원칙대로 일하고 있는지, 이렇게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올바른지, 건성으로 대충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잔피를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반성하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기가 쉬워진다. 너는 본분을 이행할 때 어떤 일이 임하든, 소극적이고 연약해지든 아니면 책망받아 기분이 좋지 않든, 늘 올바르게 대해야 하며, 진리를 찾고 구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실행의 길이 생긴다.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기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소극적이고 연약해졌더라도 매사에 진리를 실행하고, 작은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네게 동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너를 좋아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며, 진정으로 좋은 사람, 올바르게 본분을 이행한 사람으로, 진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본분을 이행하면서 정결케 되고 진실로 변화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눈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오직 정직한 사람만이 진리 실행을 견지해 원칙 있게 일 처리할 수 있으며, 올바르게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 일 처리에 원칙이 있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 본분 이행에 조금도 빈틈이 없고 건성으로 넘어가지 않으며, 요란하게 스스로를 드러내 남들의 존경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똑같이 매일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책임감 있게 해낸다. 설령 본분 이행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 닥쳐 압박과 방해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고 기도한다. “그 어떤

큰일이 닥칠지라도, 설령 하늘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살아가게 해 주시는 한, 저는 제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것입니다. 제게 하루를 살라 하시면 하루 동안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본분과 목숨에 떳떳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 일단 한쪽에 제쳐 두겠습니다.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과 일, 사물, 환경의 영향도 받지 않고, 어떤 기분이나 외부 환경에도 통제되지 않으며, 본분을 가장 앞자리에 두는 자, 하나님이 준 사명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께 충성심을 지닌 사람이요,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는 생명 진입을 한 사람이고, 진리의 실체에 진입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살아내는 가장 실제적이고 참된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 · 생명 진입은 본분 이행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76)

본분을 이행하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 진리를 찾고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관념, 상상이나 바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바쁘고, 폐괴된 성품에 지배받아 행동한다. 그래서 주어진 본분을 이행하고도 진리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무엇에 의지해 본분을 이행한 것이냐? 진리를 따르거나 하나님께 의지해 본분을 이행한 것이 아니다. 그나마 알고 있던 약간의 진리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은사, 능력, 습득한 지식, 재능과 자신의 의지나 선의를 바탕으로 본분을 이행한 것이다. 이는 성질이 다르지 않느냐? 천연적인 것과 상상, 관념, 지식, 학문을 바탕으로 본분을 이행해도 원칙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도 있다. 겉으로 보기에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은 것 같지만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네가 본분을 이행하는 내내 진리 대신 자신의 관념 상상이나 의견을 고수하고, 진리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봉사자가 되는 것이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2~23) 하나님은 왜 힘쓰고 봉사하는 이 자들을 가리켜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겠느냐?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 사람들이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그 동기와 근원, 속셈, 생각은 전부 사욕에서 비롯되었으며 자신의 뜻과 개인의 이익에 뿌리를 두고, 자신의 체면과 지위, 허영, 앞날에 대한 생각, 타산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마음속에 진리가 없고, 진리의 원칙에 따라 일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지금 너희가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느냐? (진리를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요구대로 본분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느냐? 일을 할 때 네가 품은 마음과 생각이 진리에 부합하는지, 사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집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만약 진리에 부합한다면 자신의 생각대로 행해도 된다. 그러나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얼른 뉘우치고 그 길을 버려야 한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므로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계속 걸어간다면 악행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본분을 이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77)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할 때는 기본적인 원칙, 또한 최고의 원칙이 있다. 바로 그가 피조물을 어떻게 대하든 전부 자신의 경륜에 근거하고 자신의 필요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그는 누구의 자문도 필요치 않고 누구의 동의도 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자신이 해야 하는 대로 행하고 대해야 하는 대로 피조물을 대한다. 그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대하든 모두 원칙에 부합하고, 창조주가 일하는 원칙에 부합한다. 피조물은 마땅히 거기에 순종해야지, 어떠한 선택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무엇을 보여 주느냐? 바로 창조주는 영원히 창조주라는 사실이다. 그에게는 모든 피조물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주재할 권력과 자격이 있으며, 거기에 이유는 필요치 않다. 이것이 바로 그의 권병이다. 피조물 중 그 누구도 창조주에게 이래라저래라 하거나 창조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또한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의 주재와 지배, 안배에 따를지를 선택할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창조주의 주재와 안배에 어떤 식으로 따를지 선택할 자격이 있는 피조물 역시 단 하나도 없다. 이것이 최고의 진리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든 피조물인 인류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창조주가 행한 이 사실을 찾고 순종하고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최종적인 결과는 창조주가 자신의 경륜을 이루고 자신의 사역을 성취하여 그의 경륜이 아무 방해 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피조물은 창조주의 주재와 안배를 받아들이고 창조주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함으로써 그 가운데서 진리를 얻고 창조주의 뜻을 깨달으며 창조주의 성품을 알게 된다. 너희에게 또 하나 알려 줄 것이 있다. 창조주가 무엇을 하고 어떠한 태도를 보이든, 큰 행사를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어쨌든 그는 창조주라는 것이다. 반면 피조물인 인류는 무엇을 하든, 얼마나 큰 재능과 은사가 있든 결국엔 피조물이다. 피조물인 인류는 창조주의 은혜와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든, 창조주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얼마나 많이 받았든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자신이 고급 피조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를 베풀고 은사를 주고, 일찍이 은총과 특별한 재능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의 밀천이 아니다. 네가 피조물이라면 영원히 피조물이다. 너는 영원히 ‘나는 하나님 품속의 아기니까 하나님은 내 뺨을 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나를 사랑으로 대하실 거고,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또 가만히 나를 어루만지시고, 작고 낮은 소리로 따뜻하게 위로하며 격려해 주실 거야.’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바깥 말해, 창조주의 눈에 너는

다른 피조물과 같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너를 쓸 수 있고, 또 마음대로 너를 지배할 수도 있으며, 마음대로 너를 각종 사람, 일, 사물 속에 배치해 하나하나의 역할을 이행하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인식이고 이성이다. 이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차 정상화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 가장 올바른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바로잡고 똑바로 세울 수 있으며 자신의 본분 역시 잘 지킬 수 있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진리를 구해야 하나님의 행사를 알 수 있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78)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한다. 어떤 자는 “저는 성육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가야 하나요?”라고 말한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성품의 발현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 등을 볼 수 있다. 말씀은 사람을 통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직접 선포한 것으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말씀과 마음의 소리를 선포한 것이다. 왜 마음의 소리라 하겠느냐? 마음 깊은 곳에서 선포되어 나온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 생각과 함께 인류에 대한 사랑과 구원, 기대 등을 선포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중 어떤 말씀은 엄격하고, 어떤 말씀은 따뜻하고, 어떤 말씀은 자상하며, 어떤 말씀은 사람의 뜻에 맞지 않게 폭로한다. 만약 폭로하는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매우 엄격하다고 느낄 것이고, 따뜻한 말씀만 보면 큰 권병이 없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말씀의 일부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여러 입장에서 말씀을 봐야 한다. 때로 하나님이 따뜻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입장에서 말씀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 그러다 엄격한 입장에서 말씀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은 거스를 수 없음을 보게 된다. 그리고 사람이 더럽기 짝이 없어 하나님 얼굴을 볼 자격도, 그 앞에 올 자격도 없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사역 방식과 의의에서 하나님 지혜의 일면을 보게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접할 때 자신의 인식과 맞을 것이다. 만약 그에게 도리상의 인식만 있다면 하나님을 접했을 때 자신의 인식과 맞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의 진리는 가장 심오한 비밀이어서 측량하기가 쉽지 않다. 성육신의 비밀과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종합해서 각각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 부분의 진리에 대해 다 같이 많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교제하면 성령의 깨우침으로 알게 될 수도 있다. 사람은 하나님을 접할 기회가 없으므로 이렇게 조금씩 체험해서 찾고 진입하여 하나님을 진실로 알아 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어떻게 성육신 하나님을 알 것인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79)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희로애락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희로애락과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공의와 공휼, 그가 좋아하는 것과 증오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네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그의 뜻을 어느 정도 깨달았다면, 진실로 그를 믿고 사랑하고 경배하며 그에게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는 그저 따르는 자일 뿐이다. 즉, 따라다니며 심부름이나 하고 시류에 영합하는 자라는 의미이다. 그러니 진실한 순종이나 경배는 말할 여지도 없다. 진실한 경배는 어떻게 생겨나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경외하지 않는 자는 없다. 모두 엎드려 경배를 한다. 오늘날, 성육신한 하나님이 사역하는 기간에 성육신 하나님의 성품, 소유, 어떠함에 인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더 경외한다. 일반적으로 인식이 없는 사람일수록 건성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사람으로 대하는 법이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보았다면 두려움에 전전긍긍할 것이다. 요한은 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라고 말했겠느냐? 마음속에 아주 깊은 인식은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그리스도의 본질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범하고 정상적인 겉모습만 보고 그의 본질은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평범한 사람으로 대하고 거만한 태도를 취하기 쉽다. 이렇게 되면 그를 기만하고 대적하고 거역하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자기가 옳다고 여기며 그의 말씀과 사역을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하고, 하나님께 관념을 갖거나 정죄하거나 모독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리스도의 본질과 신성을 알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을 알아 가는 중요한 측면이자, 실제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진입하여 도달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 · 어떻게 성육신 하나님을 알 것인가> 중에서

제 11 절 종착지와 결말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80)

번개 속에서 모든 동물이 본모습을 드러냈다. 나의 빛을 받아 사람도 원래의 거룩함을 회복했다. 파괴된 옛 세상아! 드디어 더러운 물에서 무너지고, 물에 잠겨 진흙이 되었구나! 내가 창조한 모든 인류야! 드디어 빛 속에서 다시 소생하여 생존의 기반을 얻었으니 더 이상 진흙탕 속에서 발버둥 치지 않을 것이다! 내 손안에 있는 만물아! 어찌 내 말로 인해 새롭게 바뀌지 않겠느냐? 어찌 빛 속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땅은 더 이상 적막하지 않고, 하늘은 더 이상 처량하지 않다. 하늘과 땅은 더 이상 간격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영원히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환희 속에서, 그리고 환호 속에서 나의 공의와 거룩함은 전 우주 위아래에 두루 미치고, 사람들 사이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 하늘의 성은 즐겁게 웃고, 땅의 나라는 기뻐서 춤추고 있다. 이 순간, 어느 누가 경축하지 않겠느냐? 어느 누가 눈물 흘리지 않겠느냐? 땅은 본래 하늘에 속하고, 하늘은 땅과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고리다. 사람의 거룩함과 거듭남으로 인해 하늘은 더 이상 땅에게 자신을 감추지 않고, 땅은 더 이상 하늘을 향해 침묵하지 않는다. 사람은 얼굴에 안도의 미소를 띠고, 마음에 끝없는 감미로움을 품고 있으니, 사람과 사람은 언쟁을 하지도, 몸싸움을 하지도 않는다. 어느 누가 내 빛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지 않겠느냐? 나의 날에 어느 누가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모든 사람이 내게 경외의 눈빛을 보내고, 마음속으로 몰래 내게 부르짖는다. 나도 사람의 모든 행동을 감찰한 바 있다. 정결케 된 사람 가운데 나를 거역한 자나 나를 판단한 자는 없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나의 성품이 관통되어 있었다. 모두가 나를 알아 가고 있고, 내게 다가오고 있으며, 나를 앙망하고 있다. 나는 사람의 영 안에 굳게 섰고, 사람의 눈에 지고지상이 되었고, 사람의 핏속에 흐르고 있다. 땅 곳곳에 사람이 뿜어내는 희열의 기운이 넘쳐흐르고, 신선한 공기가 충만한 가운데 이제는 짙은 안개가 아닌 찬란한 햇빛이 온 땅을 덮고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제 18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81)

하나님나라는 사람들 가운데서 확장되고, 사람들 가운데서 형성되고 세워진다. 어떤 세력도 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다. 오늘날 하나님나라의 백성 중에 인간 세상의 일원이 아닌 자가 누가 있더냐? 누가 사람들과 다른 상태에 있더냐? 내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떠하겠느냐? 너희는 인간 세상의 모습을 직접 보았으면서 아직도 세상에 오래 머물 생각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나? 나는 지금 백성 가운데서 다니고 있고 백성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다. 오늘날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에게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반드시 내 나라에 남을 것이다. 나를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반드시 나의 나라에서 권세를 잡을 것이다. 나를 추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반드시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의 복을 누릴 것이다. 자신을 저버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반드시 나에게 점유되어 내 나라의 풍성함을 이어받을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닌 자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는 자를 열납할 것이며, 내게 바치는 자에게는 누릴 것을 줄 것이다. 또 나의 말을 누리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니 반드시 내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며, 나의 집에서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풍성함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한 축복을 너희는 받은 적이 있느냐? 너희를 위한 약속을 너희는 추구한 적이 있느냐? 너희는 반드시 내 빛의 인도를 받아 어둠 세력의 압제를 깨뜨릴 것이고, 반드시 어둠 속에서도 빛의 인도를 잃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만물의 주인이 될 것이다. 또한, 사탄 앞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반드시 큰 붉은 용의 나라가 무너질 때 만인 가운데 우뚝 서서 내 승리의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는 시님(원문: 秦國) 땅에서 반드시 흔들림 없이 굳셀 것이다. 받은 고난으로 인해 내가 주는 복을 받을 것이며, 반드시 온 우주 아래에서 나의 영광을 빛나게 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ی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 제 19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82)

나의 말이 완전해져 감에 따라 하나님나라도 땅에서 차츰 모습을 갖춘다. 사람도 서서히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고 땅에서 내 마음의 하나님나라를 세운다. 하나님나라에서 모든 백성이 정상인의 삶을 회복한다. 더는 얼음처럼 차가운 겨울이 아니고 사철이 봄 같은 세상이다.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쓸쓸함을 가까이하지 않고, 세상의 냉혹함을 인내하지 않는다. 사람 간의 다툼, 나라 간의 전쟁이 사라지고, 살육이 멈춘다. 살육으로 인한 피도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온 땅에 기쁨이 가득하고, 곳곳에 세상의 따뜻함이 넘친다. 나는 온 땅을 누비고, 보좌에서 즐기며, 수많은 별 사이에서 생활한다. 천사는 나에게 새 노래와 춤을 바치며, 더 이상 스스로의 '나약함' 때문에 눈물로 얼굴을 적시지 않는다. 내게 더는 천사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나에게 고충을 토로하는 사람도 없다. 너희가 오늘은 내 앞에서, 내일은 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내가 사람에게 배푸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니더냐? 오늘 치른 대가로 내일의 복을 얻게 되고 나의 영광 안에서 살게 될 것인데, 너희는 여전히 내 영의 본질을 가까이하고 싶지 않단 말이나? 아직도 스스로를 잔인하게 죽이고 싶단 말이나?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는 약속을 원한다. 그것이 잠깐일지라도 말이다. 아무도 내일의 약속을 원하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 영원할지라도 말이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내가 멸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람이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 제 20 편>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83)

사람은 나의 빛 속에서 다시 광명을 보고, 나의 말 속에서 누릴 것을 얻는다. 나는 동방에서 왔고 동방에서 빛을 발한다. 내가 영광의 빛을 발할 때 만국이 밝게 비취고, 모든 것이 비취어 어둠에 남겨지는 것이라곤 없다. 하나님나라에서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더없이 행복하다. 물은 백성들의 행복한 삶에 덩실덩실 춤을 추고, 산들은 백성들과 함께 나의 풍성함을 누린다. 모든 사람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분발하며, 나의 나라에서 충성을 다한다. 하나님나라에서는 더 이상 패역과 대적을 찾아볼 수 없다. 하늘과 땅은 서로 의지하고, 사람과 나는 서로에게 애뜻하며, 오손도손 정답게 살면서 서로에게 기댄다.... 이때 나는 본격적으로 하늘에서의 삶을 시작한다. 사탄의 방해는 자취를 감추었고,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나의 선민은 온 우주 아래 나의 영광의 빛 속에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는 사람과 사람 간의 삶이 아닌 백성과 하나님 간의 삶이다. 모든 이가 사탄에 의해 패괴되어 인간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다 오늘날 나의 빛 속에서 살게 되었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랴? 어찌 이 아름다운 순간을 쉬이 흘려보낼 수 있으랴? 백성들아! 어서 마음속의 그 노래를 부르며 나를 위해 신나게 춤추어라! 어서 그 참된 마음을 나에게 바치라! 어서 나를 위해 신명나게 북을 치며 연주하라! 나는 온 우주 위에서 기쁨을 드러낸다! 나는 백성들 가운데서 내 영광의 얼굴을 보인다! 나는 크게 외칠 것이다! 나는 온 우주를 초월할 것이다! 나는 백성들 가운데서 왕이 되었다! 나는 백성 가운데서 높임을 받았다! 나는 푸른 하늘 위를 거닐고, 백성들은 나와 함께한다. 나는 백성들 가운데서 다니고, 나의 백성은 나를 옹위한다! 백성들의 마음은 즐겁기 그지없고, 힘찬 노랫소리는 온 우주를 뒤흔들고 하늘에 울려 퍼진다! 온 우주 아래를 뒤덮던 짙은 안개가 자취를 감추었고, 진흙이 사라졌으며, 더 이상 더러운 물이 흐르지 않는다! 온 우주의 성결한 백성들아! 사열하는 내 앞에서 원래의 모습을 드러냈구나. 온몸에 더러움을 잔뜩 묻힌 사람이 아니라 백옥같이 흰 성결한 자이니 모두가 나의 사랑이고 기쁨이다! 만물이 생기를 되찾고, 모든 성결한 자가 다시 하늘 위에서 나를 섬기며, 나의 따스한 품에 안긴다. 이들은 더 이상 슬피 울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 바치고, 내 집으로 돌아와 고국에서 영원토록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어찌 슬픔이 있을 수 있겠느냐! 어찌 눈물 짓겠느냐! 어찌 육체가 있을 수 있겠느냐! 땅은 사라져도 하늘은 영원하다. 나는 만민에게 나타나고, 만민은 나를 찬미한다. 이런 삶과 아름다운 모습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나라의 삶이라.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 백성들아! 환호하라!>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84)

나는 너희들 가운데서 많은 사역을 했고, 물론 이런저런 말들도 했다. 하지만 늘 나의 말과 사역이 내가 말세에 사역하는 목적을 완전히 실현하지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말세에 행하는 사역은 어떤 사람들이나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고유한

성품을 나타내는 데 그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거나 일이 바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은 나의 성품을 통해 나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발걸음을 옮겨 나의 새로운 계획과 마지막 사역에 들어감으로써 내 사역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자 한다. 그리하여 나를 본 모든 사람이 내가 살아 있음에 가슴을 치며 끝없이 통곡하게 할 것이다. 나는 인간 세상에 인류의 마지막 날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내 모든 성품을 인류에게 널리 알려 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모두 ‘마음껏 감상하게’ 하고, 내가 정말로 인간 세상에, 만물이 번식하는 땅에 왔음을 보여 줄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며, 인류를 창조한 후 처음 하는 ‘고백’이다. 나는 너희 모두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두길 바란다. 나의 채찍이 다시 한 번 인류에게, 나를 적대시하는 모든 인류에게 다가왔으니 말이다.

나는 하늘과 함께 내가 하려는 사역을 시작했다. 그리하여 인파 속을 헤치며 나아가기도 하고, 하늘과 땅 사이를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사람은 나의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인 적도 없다. 그래서 나의 계획은 계속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너희의 감각 기관이 너무 무감각한 탓에 내 사역의 절차를 전혀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너희도 언젠가는 내 의도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오늘날, 나는 너희와 함께 생활하고, 너희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 나는 인류가 나에게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고, 더욱이 이런 가슴 아픈 일에서 더 많은 실례를 들어 너희를 수치스럽게 하고 싶지도 않다. 나는 다만 너희가 자신이 행한 일을 모두 기억해 두었다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대조해 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너희들 중 누구에게도 누명을 씌우고 싶지 않다. 나는 언제나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광명정대하게 일하기 때문이다. 물론 너희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기를, 하늘과 땅, 양심에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이 내가 유일하게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다. 하늘에 사무치는 큰 죄를 짓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고, 좋은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많다. 또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원래보다 더 심해져 지금껏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았던 추악한 몰골을 철저히 드러내 놓고 나의 성품을 시험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나는 그 누구의 행위도 개의치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며,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 나는 어떤 소식을 파악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도 하며 흥미 있는 일들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원래 계획대로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사역을 한다. 1 분 1 초의 어긋남도 없이 아주 쉽고 간결하게 한다. 그러나 나는 매 단계 사역을 할 때마다 사람들 중 일부를 내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아첨하는 모습을 몹시 혐오하고, 가식적인 노예의 면상도 극도로 증오하기 때문이다. 고의든 아니든 내가 역겨워하는 자들은 당연히 나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내가 혐오하는 자들을 모두 내게서 멀리 내칠 것이다. 물론 나의 집에 계속 남아 있는 악인들도 마찬가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람을 징벌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나는 혐오스러운 자들을 나의 집에서 급히 몰아내지는 않는다.
내게는 나 자신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너는 종착지를 위해 충분한 선행을 예비해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85)

지금은 내가 사람을 만드는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결말을 확정할 때이다. 나는 모든 사람의 말과 행위, 그리고 그가 따라온 과정과 원래 지니고 있는 속성, 혹은 그의 최종적인 태도를 하나하나 나의 기록부에 적어 놓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내 손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모두 나의 배정에 따라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것이다. 나는 사람의 종착지를 정할 때, 그의 나이나 관록, 또는 그가 겪은 고난의 양을 보지 않는다. 그가 얼마나 가련한지에 따라 종착지를 정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그에게 진리가 있는지 여부만 볼 뿐, 그 외에 다른 선택 기준은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징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징벌받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징벌받는 것이고, 그들 스스로 저지른 갖가지 악행으로 인해 쫓겨나 버리는 것이다. 나의 계획은 시종일관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저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말하는 대상이 점점 줄어들고, 진정으로 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 뿐이다. 하지만 나는 내 계획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며, 반대로 사람의 믿음과 사랑이 계속 변하고 줄어들고 있다고 말한다. 나에게 빌붙어 아부하던 모든 사람이 내게 냉담해져 결국에는 나를 문밖으로 쫓아내게 될 수도 있다고 말이다. 너희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미온적이던 데서 반감과 혐오로 바뀌어 결국에는 너희를 징벌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를 징벌하는 날이 되면 나는 여전히 너희를 볼 수 있지만 너희는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 속에서 사는 것이 무료하고 답답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생활 환경을 선택했다. 그리하여 너희의 악한 말에 상처받지 않고 더럽기 짝이 없는 너희의 행위를 멀리함으로써 너희가 계속 나를 속이거나 건성으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떠나기 전까지 나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권할 것이다.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고, 모두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모두에게 이로운 일과 자신의 종착지에 도움 되는 일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너 자신이 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너는 종착지를 위해 충분한 선행을 예비해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86)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자에게 공휼을 베풀다. 악인들이 받는 징벌 또한 내 공의로운 성품의 증거이자, 나아가 내 진노의 증거가 된다. 재난이 닥칠 때, 나를 대적한 모든 자는 기근에 빠지고 전염병에 걸려 슬피 울 것이며, 오랜 세월 나를 따랐지만 온갖 악을 저지른 자들 역시 죄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천만년 이래

보기 드문 재난 속에 떨어져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따르면서 나에게 일편단심 충성한 사람들은 오히려 기쁘게 손뼉 치며 나의 큰 능력을 찬양할 것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쾌한 마음으로 내가 인간 세상에 한 번도 베푼 적 없는 즐거움 속에서 살 것이다. 나는 사람의 선행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악행을 극도로 증오하기 때문이다. 나는 인류를 오늘날까지 이끌어 오면서 나와 한마음 한뜻인 사람들을 얻기를 기대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와 한마음 한뜻이 아니었던 자들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속으로 미워했다. 그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걸 보며 통쾌해할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오늘, 마침내 나의 날이 왔으니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마지막 사역은 사람을 징벌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종착지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모든 사람이 나의 행사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옳음을 보여 주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내 성품의 발현임을 보여 주며, 나아가 대자연이 인류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에게 양분을 공급하고 있음을 보여 줄 것이다.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면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재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구도 다시는 아름다운 해와 달과 푸르른 세상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인류는 음산하고 차디찬 암흑의 밤과 저항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인류의 유일한 구원(원문: 救贖)이자 희망이며, 나아가 전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의지처다. 사람들이 모두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라도 나를 잃으면 인류는 즉시 정체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며, 오직 멸망의 재앙을 당하고 온갖 유령에게 짓밟힐 것이다. 나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사역을 행했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조금의 선행으로 나에게 보답하는 것뿐이다. 나에게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적을지라도 나는 인간 세상에서의 여정을 끝내고 다음 단계에 전개할 사역을 행할 것이다.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오랫동안 바쁘게 일한 결과가 이미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선행이다. 요컨대, 나는 너희가 자신의 종착지를 위해 충분한 선행을 예비하길 바란다. 그래야만 나를 만족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 엄습할 재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재난은 내가 일으키며 또 당연히 내가 지배한다. 너희가 내 앞에서 선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재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모든 행위가 온전히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다 공허하고, 두려움이나 강인함만 드러낼 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에 대해 좋다거나 나쁘다는 평가만 내린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은 너희 개개인의 모든 행위와 태도이다. 그것으로 너희의 결말을 정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밝혀 둘 것이 있다. 환난 가운데서 나에게 대한 충성심이 조금도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공활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나의 공활은 여기까지이고, 또 나는 나를 배반했던 자를 좋아하지 않으며 친구의 이익을 팔아먹은 자와 왕래하는 것은 더더욱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의 성품이다.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다.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누구든 내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하는 사람은 두 번 다시 나의 관용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너는 종착지를 위해 충분한 선행을 예비해야 한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87)

광활한 이 세상에는 상전벽해의 변화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만물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재하는 그분 말고는 아무도 이 인류를 인도하거나 이끌 수 없다. 또한 그분 말고는 이 인류를 위해서 무언가를 수고하고 예비하는 그 어떤 ‘능력자’도 없으며, 인류가 불공평한 세상에서 벗어나 광명의 종착지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은 인류의 앞날을 위해 탄식하고, 인류의 타락에 마음 아파하며, 인류가 몰락과 절망의 길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사실에 슬퍼한다.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한 자를 찾아간 인류가 어디로 가게 될지 생각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노를 느낄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찾는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살피는 사람은 더더욱 없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를 떠나 자신의 길을 간다. 하나님의 은총과 보살핌을 외면하고, 그의 진리를 회피하면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에게 자신을 팔아넘기고자 한다. 계속 이렇게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어느 누가 또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끊임없이 일깨우고 권면하는 것은 그의 손에 전례 없는 재난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사람의 육과 영혼이 감내하기 어려운 재난으로, 사람의 육뿐 아니라 영혼까지 징벌을 받게 된다. 너는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의 일깨움과 권면이 무위로 그칠 때 그가 얼마나 노할지 알아야 한다. 이는 그 어떤 피조물도 경험하거나 들어 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재난이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단 한 차례만 인류를 창조하고, 단 한 차례만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이번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지, 이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은 사람 생명의 근원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88)

사람은 지금의 사역이나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훗날 인류가 어떤 종착지에 들어갈지는 알지 못한다. 피조물로서 너희는 마땅히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 따라야 하며, 내가 가라고 알려 주는 대로 가야 한다. 너는 자기 자신을 다룰 수도 주관할 수도 없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배에 따라야 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사역을 하면서 미리 사람에게 어떤 결말이나

아름다운 종착지를 줌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끌어 자신을 따르게 하는 식으로 사람과 거래를 한다면, 그것은 정복이라고 할 수 없고, 사람의 생명을 만든다고도 할 수 없다. 어떤 결말로 사람을 통제하여 마음을 얻는 것은 결코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해서는 사람을 얻을 수 없다. 이는 종착지로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다.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는 훗날의 결말과 마지막 종착지, 그리고 좋은 미래 등이다. 사람을 정복하는 사역을 하면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망을 주거나 사람을 정복하기도 전에 먼저 적당한 종착지를 주어 추구하게 한다면, 사람을 정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복 사역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정복 사역은 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빼앗고, 사람의 패역 성품을 심판하고 형벌함으로써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사람과 거래를 함으로써, 즉 사람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풀으로써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고 미래를 빼앗아 충성심을 살펴봄으로써 성과를 낸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정복 사역의 본질이다. 만약 처음부터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망을 준 후 형벌과 심판의 사역을 행한다면, 사람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형벌과 심판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창조주에게 무조건 순종하거나 경배하도록 할 수 없다. 사람은 맹목적으로 어리석게 순종하거나 무언가를 받아 내려고만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정복 사역은 사람을 얻지도,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지도 못하며, 이런 피조물은 조건만 내세울 뿐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한다. 이는 정복이 아니라 공홀과 복을 베푸는 것이다. 사람에게 존재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언제나 운명과 앞날을 마음에 둔 채 그것을 우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과 앞날을 위해 하나님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사심과 탐욕,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을 정복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에 처음 사람을 정복할 때는 반드시 먼저 사람의 야심과 가장 치명적인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고, 인생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생존의 의미를 바꿔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결해진다.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이 정복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결코 정복만을 위한 정복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한 정복이고, 그의 영광을 위한 정복이며, 사람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 주기 위한 정복이다. 오직 정복만을 위한 정복이라면 정복 사역은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을 정복하기만 한 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사람의 생사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는 인류를 경영하는 것도, 인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사람을 정복한 뒤에 그들을 얻고 마지막에 인류의 아름다운 종착지로 인도하는 것만이 모든 구원 사역의 중심이며,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의 달성이다. 즉, 사람을 인류의 아름다운 종착지로 인도해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피조물이 응당 가져야 할 미래이자 창조주가 해야 할 사역이라는 것이다. 사람이 사역을 한다면 너무 제한적이어서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만 온전케 할 수 있을 뿐, 영원한 종착지로 이끌어 갈

수는 없다. 사람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으며, 사람의 미래와 훗날의 종착지를 보장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사람이 하는 사역과 다르다. 그는 사람을 창조한 이상 사람을 인도할 것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이상 철저히 구원해 완전히 얻을 것이다. 또한 사람을 인도하는 이상 적합한 종착지로 이끌어 갈 것이고, 사람을 창조하고 경영하는 이상 사람의 운명과 앞날을 책임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창조주가 하는 사역이다. 정복 사역은 사람의 미래를 없앴으로써 이뤄지지만, 마지막이 되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예비해 놓은 적합한 종착지로 인도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기에 사람은 종착지를 얻을 수 있고 운명도 보장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한 적합한 종착지란 하나님이 과거에 없애 버린 사람의 미래와 소망이 아니다. 이것은 별개의 개념이다. 사람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육적인 사치스러운 욕망이지, 사람이 가져야 할 종착지가 아니다. 반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예비한 종착지는 사람이 정결케 된 다음에 받아야 할 축복과 약속이다. 이는 하나님이 창세 후에 사람을 위해 예비해 놓은 것으로, 사람의 선택이나 관념, 상상, 욕이 섞여 있지 않다. 또한, 이 종착지는 어느 한 사람을 위해 예비한 것이 아닌, 모든 인류의 안식의 땅이다. 그러므로 이 종착지는 인류에게 가장 적합한 종착지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람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사람을 아름다운 종착지로 이끌어 간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89)

창조주는 피조물을 주관한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하든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가 하는 대로 따라야 하고, 그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에 그가 사역하는 목적이 이뤄진다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나는 왜 너를 모압의 후손이나 큰 붉은 용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선민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으며, 오직 피조물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느냐? 사람의 원래 호칭과 신분이 바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사역의 시대와 단계의 차이로 서로 다른 호칭이 생겨났을 뿐, 사실 사람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피조물이다. 모든 피조물은—가장 패괴된 자든 가장 성결한 자든—다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하나님은 정복 사역을 하면서 앞날과 운명, 종착지로 너를 통제하지 않으며, 사실 그런 사역을 할 필요도 없다. 정복 사역의 목적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 창조주를 경배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아름다운 종착지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의 운명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너는 너 자신을 주관할 수 없다. 자신을 위해 아무리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바쁘게 지낼지라도 사람은 스스로를 주관하지 못한다. 네가 너 자신의 미래를 알고 네 운명을 주관할 수 있다면, 너를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요컨대,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든 모두 인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만든 천지 만물 역시 모두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인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달, 해, 별을 창조했고, 사람을 위해 동물과 식물을 지었으며, 사람을 위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사람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형벌하고 심판하든 그것은 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설사 사람의 육적인 소망을 빼앗는다 해도 그것 역시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며,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은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이다. 사람의 종착지가 모두 창조주의 손안에 있거늘, 사람이 어찌 스스로를 주관할 수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람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사람을 아름다운 종착지로 이끌어 간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90)

정복 사역이 끝나면 인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도된다. 물론 그때도 여전히 땅에서 살겠지만 그 삶은 지금과 크게 다를 것이다. 그때의 삶은 온 인류가 정복된 후에 얻는 삶이자 인류가 땅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인류가 새롭고 아름다운, 또 다른 경지로 들어갔음을 뜻하며, 하나님과 사람이 땅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토록 아름다운 삶의 전제는 반드시 사람이 모두 정결케 되고 정복된 후 창조주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복 사역은 인류가 아름다운 종착지에 들어가기 전에 행하는 마지막 단계의 사역이라고 한다. 인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은 훗날 땅에서 맞이할 삶이자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사람이 동경하는 삶이자 유사 이래 누구도 누리지 못한 삶이다. 또한 이것은 6 천 년 경영 사역의 최종적인 성과이자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이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마지막 단계 사역이 끝나고 사람이 완전히 정복되면, 즉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면 인류는 이후의 종착지에 들어가게 된다. 사람이 연단을 겪고 나면 죄성이 없어지는데, 이는 하나님이 사탄을 물리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 어떤 적대 세력도 소란을 피우거나 사람의 육을 공격하지 못하기에 사람은 자유로워지고 성결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다. 흑암의 적대 세력을 결박해 놓아야만 사람이 어딜 가든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되어야 사람의 패역과 대적도 사라진다. 사탄이 결박당하기만 하면 사람은 좋아진다. 지금은 사탄이 땅의 곳곳에서 교란하고 있고, 모든 경영 사역도 아직 끝나지 않아 이런 상태지만, 사탄을 물리치면 사람은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얻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나오면 공의로운 해를 볼 수 있다. 정상인이 누려야 할 삶을 전부 회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먹고 입을 줄 알며, 정상적으로 거주하는 것 등등 정상인이 갖추어야 할 것들을 전부 회복하게 될 것이다. 처음 인류가 창조된 후, 뱀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은 그런 정상적인 삶이 있어야 했다. 마땅히 먹고 입는 땅에서의 정상인의 삶을 살아야 했다. 하지만 인류가 타락한 후 그런 삶은 물거품이 되었고, 나아가 오늘날의 사람들은 감히 그런 일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사실 사람이 동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런 종착지가 없다면 인류는 끝없이 땅에서 타락한 삶을 살 것이다. 또한 그 아름다운 삶이 없다면, 사탄의 운명도, 사탄이 땅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시대도 끝났다고 할 수 없다. 반드시 사람을 흑암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게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탄을 물리친 증거이다. 이렇게 사탄의 방해 없이 하나님이 인류를 주관하고 인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통제해야만 사탄을 물리쳤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대부분 아직도 더럽고 고통스러운 환난의 삶을 사는데, 이러면 사탄을 물리쳤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은 여전히 고통과 인생의 고통,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앎도 보잘것없다. 사람의 모든 고통은 사탄이 초래한 것이고, 인생의 모든 고난 또한 사탄이 가져온 것이다. 사탄이 결박되어야 사람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사탄을 결박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고 얻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사람을 전리품으로 삼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람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사람을 아름다운 종착지로 이끌어 간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91)

오늘날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고 온전케 되는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 정상인의 삶이 없을 때, 그리고 사탄이 결박되지 않았을 때의 목표이다. 본질적으로 말해서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거나 온전케 되거나 크게 쓰임 받기를 추구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역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정상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사람이 오늘날 이기는 자가 되거나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 정상인의 삶이 있기 전의 목표로, 그 주된 목적은 정결함을 얻고 진리를 행하여 창조주를 경배하는 데 있다. 이 땅에서 정상인의 삶, 고통과 환난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되거나 온전케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추구 목표이다. 이 추구 목표를 통해 진리를 행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한다. 사람을 온전케 하고 얻는 것은 목표이고, 이기는 자가 되거나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는 것은 그저 과정일 뿐이다. 장차 모든 인류가 아름다운 종착지에 들어가면 그때는 더 이상 이기는 자나 온전케 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며, 그저 모든 피조물이 각자의 책임을 다하게 될 것이다. 지금 사람에게 그런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이유는 단지 더 뚜렷한 목표를 갖고 더 실제적으로 추구하도록 범위를 정해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막연하게 영생에 들어가기를 추구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더 가련하지 않느냐? 목표도 원칙도 없이 추구하는 것은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구하면 결국 결실을 맺을 수 없을 것이고, 언제나처럼 사탄의 권세하에 살면서 벗어나지 못할 텐데, 굳이 그렇게 목표도 없이 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인류가 영원한 종착지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창조주를 경배할 것이다. 그때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므로 더 이상 어떤 목표도 추구하지 않게 되며, 더욱이 사탄의 포위 공격을 당할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때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각자의 본분을 이행하고, 형벌과 심판이 없더라도 말은바 본분을 이행할 것이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신분과 지위로 불리게

된다. 맡은 역할만 다를 뿐 더 이상 높고 낮음의 구분은 없다. 그렇지만 사람은 인류에게 적합한 종착지에서 질서 있게 살며, 창조주를 경배하기 위해 각자의 본분을 이행할 것이다. 이런 인류가 바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인류이다. 그때 사람이 얻게 될 삶은 하나님이 빛 비추고 보살피 주고 보호해 주는 삶이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살고, 인류는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것이며, 인류 전체가 정상 궤도에 들어설 것이다. 6 천 년 경륜을 통해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면, 즉 하나님이 땅에서 창조한 인류가 원래 모습을 되찾으면 하나님의 원래 뜻이 이뤄진다. 처음 인류는 사탄에 의해 파괴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았지만, 사탄에 의해 파괴된 후에는 정상적인 삶을 잃어버렸다. 이에 하나님은 경영 사역을 시작했고, 사탄과의 전쟁을 통해 사람의 정상적인 삶을 회복시키기 시작했다. 6 천 년 경영 사역이 끝나면 비로소 땅에서의 인류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인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사람을 만든 목적과 사람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므로 땅에 인류의 정상적인 삶이 있으면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거나 온전케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 모든 사람이 성결해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말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과 온전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탄과 싸우면서 사람에게 추구하라고 준 목표로, 이 목표는 사람이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한 가지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추구하게 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친다. 또한, 너에게 이기는 자, 온전케 된 자, 쓰임 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모두 너의 증거로 사탄을 수치당하게 하라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사람이 땅에서 정상인의 삶을 살고 성결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기는 자가 되고자 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모두 똑같은 피조물 아니겠느냐? 이기는 자가 되거나 온전케 된 자가 되라는 것은 다 사탄과 사람의 더러움을 겨냥해 하는 말이다. 이긴 자라면 사탄과 적대 세력을 이긴 사람 아니겠느냐? 온전케 되었다면 너의 무엇이 온전케 되었겠느냐? 사탄의 파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 아니겠느냐? 이 역시 더러운 것들과 사탄을 두고 한 말이지, 결코 하나님을 두고 한 말은 아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람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사람을 아름다운 종착지로 이끌어 간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92)

인류가 땅에서 진정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되고 사탄의 모든 세력이 결박되면, 땅에서 사는 사람의 삶은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고 아주 편해질 것이다. 지금은 인간관계니 사회관계니 복잡한 가정 관계니 등으로 사람이 너무나 번거롭고 고통스럽다! 그 속에서 사니 너무 괴로운 것이다! 사람이 정복되면 마음과 생각이 바뀌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온 우주 아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두 정복된 후, 그러니까 사탄이 패배되면, 또한 사탄, 즉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면, 사람은 땅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육적인 관계도, 육체의 복잡한 일들도 없어진다면 사람의 삶은 훨씬 편해질 것이다. 사람의 육적인 관계는 너무나 복잡하다.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네가 형제자매와 동등한 관계이고, 가족들과도 동등한 관계라면 아무런 고민도 없을 것이다. 누구를 걱정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고 살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다. 그러면 사람의 고통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천사와 같다. 물론 여전히 육체이지만, 천사와 거의 비슷하다. 이것은 마지막 약속,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람에게 베푸는 약속이다. 사람은 지금 형벌과 심판을 체험하고 있다. 너는 이런 체험이 모두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느냐? 형벌과 심판의 사역을 헛되이 할 수 있겠느냐? 예전에 나는 사람을 형벌하고 심판하는 것은 사람을 무저갱에 넣는 것이라고 했다. 즉, 사람의 운명과 앞날을 거두어 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러 사람을 무저갱에 밀어 넣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패역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되며, 모두가 성결해지면 전부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 사람의 내면에 있는 제거해야 할 것들을 모두 제거하여 사람이 힘 있게 증거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 설령 사람 내면에 원래 있던 것들이 완전히 정결케 되지 않고 조금 남아 있을지라도 사탄을 물리치고 나면 방해도 함께 사라진다. 그때 사람은 완전히 정결케 될 것이다. 사람은 그런 삶을 체험한 적이 없다. 사탄을 물리치면 모든 것, 사람 내면의 보잘것없는 사소한 일까지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번에 성육신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사역은 모두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복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치고, 너희를 온전케 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친다. 너희가 힘 있게 증거하면 그것은 사탄을 물리쳤다는 표징이 된다. 먼저 사람을 정복하고 마지막에 완전히 온전케 하는 이유는 다 사탄을 물리치기 위함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탄을 물리치는 동시에 온 인류가 이 공허한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하기 위함이다. 우주 전체의 사역이든 중국에서 하는 사역이든 그 목적은 사탄을 물리침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해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데 있다. 성육신 하나님, 그 정상적인 육신은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 존재한다. 즉,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하의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류를 정복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사탄을 물리치기 위함이다. 전체 경영 사역의 핵심은 사탄을 물리쳐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것이다. 어째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늘 너희에게 증거하라고 하겠느냐? 누구에게 증거하라는 것이겠느냐? 사탄 아니겠느냐? 이 증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사역의 결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증거하는 것은 사탄을 물리치는 사역과 관계된다. 사탄과 싸우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증거하라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탄을 물리치려 하기에 사람을 구원하는 동시에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해 사탄 앞에서 증거하라고 하고, 또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며 사탄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자 사탄을 물리치는 도구라고 한다. 따라서 전체 경영 사역의 핵심은 사람이며, 사탄은 그저 멸해 버릴 대상이요, 원수에 불과하다. 어찌면 너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너의 성품이 변화된 것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하게 된 것이다. 그 증거는

사람이 아닌 사탄을 상대로 한다. 사람은 증거를 누릴 자격이 없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라는 사역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싸우는 대상은 사탄이고, 사람은 그저 구원받는 대상에 불과하다. 사람은 사탄의 패괴 성품을 갖고 있고, 또 이 사역을 꿰뚫어 볼 수 없는데, 그것은 모두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은 것이다. 지금의 주된 목표는 사탄을 물리치는 것, 다시 말해, 인류를 완전히 정복해 사탄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최후의 증거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네 눈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겠지만, 사실 사역은 이미 이루어졌다. 사람은 어떻게든 이루어진 사역을 보려고 하지만 나는 보여 주지 않고 이루었다. 사탄이 굴복했고, 완전히 패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지혜와 능력, 권병으로 사탄과 싸워 이겼다. 이것을 증거해야 한다. 비록 사람에게 눈에 띄게 보여지는 것이 없고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겠지만, 나는 이미 사탄을 물리쳤다. 이 모든 사역은 사탄을 겨냥해 말한 것이고, 사탄과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미 성공한 일이다. 이는 모든 사역의 한 가지 실상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람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사람을 아름다운 종착지로 이끌어 간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93)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 자에게는 모두 온전케 될 기회가 있다. 장차 너희 모두 그 종착지에 들어갈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네가 온전케 되기를 바라지 않고 아름다운 경지로 들어가는 것도 원치 않는다면, 그것은 너 자신의 일이다.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 사람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정직하게 역할을 다하는 사람은 모두 온전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본분에 충실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자, 특히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이 있으나 실행하지 않는 자들은 온전케 될 수 없다. 충성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온전케 될 것이다. 조금 우매해도 괜찮다. 추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온전케 될 수 있으니, 이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 측면으로 추구하기를 원하는 한, 온전케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중 그 누구도 버리거나 도태시키고 싶지 않다. 사람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를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자신을 도태시키는 것이다. 네가 분발하지 않는다면, 즉 게으름을 피우거나 본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충성하지 않는다면, 혹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늘 자기 멋대로 하며, 나쁜 짓을 저지르고, 명예와 이익을 다투며, 부적절한 남녀 관계를 맺는다면 너는 그 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사람에게 동정받을 가치도 없다! 나는 너희가 모두 온전케 되길 바란다. 아니, 최소한 정복이라도 되어 이 단계 사역이 순조롭게 완성되길 바란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온전케 되어 마지막에 하나님께 얻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정결케 되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너희보고 뒤떨어졌다고 한 것도, 자질이 부족하다고 한 것도 모두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너희를 버린다거나 너희에게 희망을 잃었다는 뜻은 아니며, 너희를 구원하기 싫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오늘날 내가 온 것은 바로 너희를 구원하는 사역, 즉 구원을 이어 가는 사역을 하기 위함이다. 누구에게나 온전케 될 기회는 있다. 원하고 추구하기만 하면 모두 성과를 얻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네 자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훌륭하면 훌륭한 대로 그에 맞춰 너에게 요구한다. 네가 무지하고 글을 모르면 그런 조건에 맞춰 요구할 것이며, 네가 글을 알면 그 기준에 맞춰 요구할 것이다. 또 네가 나이가 많으면 나이에 맞게 요구하고, 네가 접대할 수 있다면 그 상황에 맞춰 요구할 것이다. 네가 접대는 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돌보거나 다른 업무적인 사역을 하는 등 한 부분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또 그 역할에 맞춰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너는 오직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이는 네가 이르러야 할 세 가지로, 최고의 실천이다.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이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몇 가지이다. 여기에 이른 사람은 온전케 될 수 있다. 하지만 너는 우선 진심으로 추구하고 능동적으로 향상하려고 노력해야지, 이 일을 소극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나는 누구나 온전케 될 기회가 있고 온전케 될 수 있다고 했으니 이 말에 책임을 질 것이다. 하지만 네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아 이 세 가지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 도태될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따라오기를, 모든 사람에게 성령 역사와 성령의 깨우침이 있기를, 또 모든 사람이 끝까지 순종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너희 모두가 이행해야 할 본분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본분을 이행할 때, 너희는 모두 온전케 될 것이며 힘 있는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사탄과 싸워 이기고 약속을 받을 사람들이며, 장차 살아남아 아름다운 종착지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사람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사람을 아름다운 종착지로 이끌어 간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94)

처음에 하나님은 안식 가운데 있었다. 그때 땅에는 인류도 만물도 없었으며, 하나님은 그 어떤 사역도 행하지 않았다. 인류가 생겨나고 또 패괴된 뒤에야 하나님은 경영 사역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안식하지 않고 인류 가운데서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다. 하나님은 인류의 패괴로 인해 안식을 잃었고, 또 천사장의 배반으로 인해 안식을 잃었다. 사탄을 물리치지 않고 패괴된 인류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사람에게 안식이 없으면 하나님께도 없다. 하나님이 다시 안식에 들어갈 때, 사람 역시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안식에 들어간 삶이란 전쟁도 더러움도 없고 불의도 남아 있지 않은 삶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사탄(적대 세력)의 방해도 사탄의 패괴도 없으며,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의 침범도 없이 만물이 각기 부류대로 나뉘어 창조주를 경배하고, 하늘과 땅 모두 평온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안식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갈 때 땅에는 더 이상 불의한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적대 세력의

침범도 없을 것이다. 인류 또한 새로운 경지에 들어가 더 이상은 사탄에 의해 패괴된 인류가 아니라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다가 다시 구원받은 인류가 될 것이다. 인류가 안식하는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인류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에 안식을 잃은 것이지 처음부터 안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안식에 들어간다고 해서 만물의 활동과 만사의 발전이 멈추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이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거나 사람이 더 이상 삶을 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안식에 들어간다 함은 바로 사탄이 파멸되고, 사탄과 한통속인 악인들이 모두 징벌받아 멸절되며,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든 세력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간다 함은 더 이상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행하지 않음을 뜻하고, 인류가 안식에 들어간다 함은 전 인류가 하나님의 빛과 축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사탄에 의해 패괴되는 일도, 불의한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모두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땅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안식에 들어간다 함은 인류가 구원받고 사탄이 멸망하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모두 끝나 더 이상 사람에게 사역하지 않고, 사람 또한 더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바쁜 나날을 보내지 않을 것이고, 사람 또한 더 이상 바쁘게 뛰어다니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사람도 저마다의 자리로 돌아가니, 이것이 바로 전체 경영이 끝난 뒤 하나님과 사람에게 있을 종착지이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종착지가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이 가야 할 곳이 있다. 하나님은 안식하면서도 전 인류가 땅에서 살아가도록 계속 인도할 것이며, 사람은 하나님의 빛 속에서 하늘의 유일한 참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서 살지 않고, 사람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종착지에서 살지는 못한다. 하나님과 사람은 같은 경지에서 살지 못하며, 각자의 생활 방식이 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인도하는 분이고, 인류는 하나님 경영 사역의 결정체이자 인도받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본질과 같지 않다. ‘안식’의 본뜻은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간다 함은 하나님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 더는 땅에서 살지 않고, 더는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과 동고동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사람이 안식에 들어간다 함은 사람이 진정한 피조물이 되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편,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더는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대적하지도 않고, 처음 아담과 하와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간 하나님과 사람의 삶과 종착지이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에서 사탄이 패배하는 것은 필연적인 흐름이다. 그러니 경영 사역을 끝낸 하나님과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 또한 필연적 흐름이다. 사람이 안식하는 곳은 땅이고, 하나님이 안식하는 곳은 하늘이다. 사람은 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땅이 아닌 하늘에서 살아남은 인류를 인도하며 안식을 취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영이고 사람은 여전히 육신이며 하나님과 사람이 안식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하나님은 안식하는 중에 사람 가운데 와서 나타날 것이고, 사람은 안식하는 중에 하나님께 인도되어 천상을 둘러보고 천상에서의 삶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면, 사탄은

물론이고 악인들까지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땅에서 하나님을 핍박했던 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거역했던 하나님의 원수들은 말세에 일어난 대재난으로 파멸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 악한 자들이 철저히 멸망한 뒤에 사람에게 대한 사탄의 방해가 없어야 인류가 철저히 구원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 또한 완전히 끝난 것이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95)

만물의 결말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역과 인류의 발전이 끝나간다는 의미이다. 즉, 사탄에 의해 패괴된 인류의 발전은 이미 끝에 이르렀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이어 오던 생육도 끝이 났다는 말이다. 또한 사탄에 의해 패괴된 현 인류는 더 이상 계속 발전할 수 없음도 뜻한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패괴된 존재가 아니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 의해 패괴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 오면 에덴동산에서 내쫓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일단락을 짓게 된다. 그 후의 인류도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겠지만, 그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인류가 아니라 구원받고 정결케 된 인류일 것이다. 그들은 심판과 형벌을 받은 인류이자 거룩한 인류이므로 처음의 인류와는 같지 않고, 태초의 아담과 하와와도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사탄에게 패괴된 모든 사람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이고, 마지막에 심판과 형벌을 받으며 굳게 선 인류이며, 패괴된 인류 가운데서 살아남은 마지막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오직 이 무리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최후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말세에 심판과 형벌을 하는 사역, 즉 정결케 하는 마지막 사역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최후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정결케 되는 마지막 단계의 사역을 거친 후에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다. 마지막에 얻어지는 그들은 최후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형벌과 심판 사역은 본질이 인류를 정결케 하고 마지막 안식의 날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전 인류는 각기 부류대로 나뉘 수도,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 사역은 인류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정결케 하는 사역만이 인류의 불의를 정결케 할 수 있고, 형벌과 심판의 사역만이 인류의 패역한 것들을 모두 드러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원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 낼 수 있다. 사역이 끝나면 살아남는 사람들은 모두 정결케 되어 더 높은 경지에 들어갈 것이며, 땅에서 제 2의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릴 것이다. 다시 말해, 안식의 날을 맞아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이다. 반면, 살아남지 못하는 자들은 형벌과 심판을 거쳐 본모습이 철저히 드러난 후 모두 멸망하여 사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땅에서 생존하지 않을 것이다. 이후의 인류 중에는 이 부류의 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 안식처에 들어갈 자격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안식의 날을

맞이할 자격도 없다. 그들은 의인이 아니라 징벌받을 대상이자 악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구속받은 바 있고 심판과 형벌도 받았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 힘을 쓴 적도 있지만, 마지막 날이 이르면 자신의 악과 패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채 도태되고 멸망하여 더 이상 이후의 세상과 인류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든 육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든, 악을 행했거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거룩한 인류가 안식에 들어갈 때 모두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 악을 행한 영혼과 악을 행한 사람들, 의인의 영혼과 의를 행한 사람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결국 악한 자는 멸망하고 의인은 모두 살아남을 것이다. 사람이든 영혼이든 구원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마지막 시대의 사역만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는지에 근거해 결정된다. 지난 시대의 사람이 악을 행했고 또 구제 불능이었다면 틀림없이 징벌받을 대상이고, 이 시대에서 악을 행하고 또 구제 불능이라면, 그 역시 반드시 징벌받을 대상이다. 각 부류의 사람을 구분할 때는 시대가 아닌 선과 악에 근거한다. 사람을 선과 악으로 구분했다고 해서 곧바로 징벌하거나 상을 주는 것은 아니다. 상선벌악(賞善罰惡)의 사역은 말세 정복 사역이 끝난 뒤 행하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선과 악으로 사람을 구분해 왔다. 단지 사역이 끝난 후에 의인에게 상을 주고 악인에게 벌을 줄 뿐, 마지막 사역이 끝날 때 악인과 의인을 구분한 다음 바로 상선벌악의 사역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최후의 상선벌악 사역은 오직 전 인류를 철저히 정결케 하여 온전하고 거룩한 인류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단계 사역은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서 전체 경영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 속한다. 악한 자를 멸하지 않고 남겨 둔다면, 전 인류는 계속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또한 더 아름다운 경지로 전 인류를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완전히 끝난 사역이라고 할 수 없다. 사역이 끝날 때 전 인류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편히 안식하며 지낼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96)

사람은 여전히 육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며, 육적인 즐거움과 세상, 재물, 그리고 파괴된 성품을 버리지 못한 채 대부분 건성으로 추구하고 있다. 사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꿰뚫어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더더욱 믿지 못한다. 육적인 것이 너무 많은 그들은 심하게 파괴되어 진리를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성육신 또한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 즉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을 믿지 않는 자,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믿지 않고 볼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는 모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진리는 고사하고 인성이나 이성조차 갖추지 못한 자들이다. 그들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을 미덥지 못한 존재로 보며,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은 가장 미쁜 존재, 가장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존재로 여긴다. 그들이 찾는 것은 자극이지, 실제적인 진리나 인생의 참뜻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은 더더욱 아니다. 그들의 욕망을 가장 잘 충족시켜 주는 것이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추구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까닭은 단지 스스로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함이지, 진리를 찾고 구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러니 그들은 모두 악을 행하는 자 아니겠느냐? 그들은 더없이 자신만만해하며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같이 '좋은 사람들'을 멸하리라고는 결코 믿지 않는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 '충성'을 다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남기는 건 물론, 큰 상까지 내려 줄 것이라고 여긴다. 그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욕망이 어그러지면 그 즉시 하나님께 반격을 개시하거나 노발대발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소인배'들이지 진리를 추구하는 '정인군자'가 아니다. 이런 부류가 바로 소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악한 자들이다. 진리를 찾고 구하지 않는 자는 진리를 믿지 못하며, 이후 인류에게 닥칠 결말에 대해서는 더욱 꿰뚫어 보지 못한다. 그들은 앞으로 인류가 맞이할 종착지는 물론이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떤 사역과 말씀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를지라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진리를 찾고 구하지 않으며, 내가 요구하는 진리도 실행하지 않는다. 자신이 멸망하리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바로 멸망을 맞이할 대상이다. 그들은 스스로가 껍이나 딱딱하다고, 자신은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또 자신의 악행을 진리로 삼으며 귀하게 여긴다. 이런 악인은 모두 자신만만해서 진리를 이치로 삼고 자신의 악행을 오히려 진리로 여기니, 결국에는 자신의 쫓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자신을 지나치게 믿고 교만한 사람일수록 진리를 얻기가 더 힘들고,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대적하게 된다. 이런 자들은 모두 징벌받을 대상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97)

인류가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류의 사람이 징벌을 받을지 아니면 상을 받을지는 그들이 진리를 찾고 구하는지, 하나님을 아는지, 볼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봉사한 적은 있지만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은 모두 진리가 없는 자들이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악을 행한 자들은 의심할 바 없이 징벌받을 대상이고, 또한 그 악행에 따라 징벌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믿고 순종하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막연한 하나님만을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을뿐더러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정복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한 육신에 거하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다면, 그렇게 '막연하게 믿는 자들'은 필히 멸망을 맞이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입으로는 성육신 하나님을 인정하나 그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처럼 말이다. 그들은 결국 다 도태되고 멸망될 대상이다. 또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말하면서 그가 선포한 진리도 먹고 마시지만, 보이지 않는 막연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는 더더욱 멸망될 대상이다. 그들은 사역이 끝난 뒤에 안식 가운데 남지 못할 것이며, 그들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도 안식 가운데 남지 못할 것이다. 마귀의 부류에 속하는 자들은 모두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들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은 찾아볼 수도 없다. 이런 부류는 모두 멸망될 대상이다. 너에게 진리가 있는지,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등은 너의 본질에 의한 것이지, 결코 외모나 우발적인 언행에 의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멸망 여부는 다 그들의 본질에 의해 결정된다. 그들이 행한 일과 진리를 추구하면서 드러낸 본질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 똑같이 사역하면서 똑같이 많은 일을 했더라도 인성의 본질이 선하고 진리가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대상이고, 인성의 본질이 악하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멸망될 대상이다. 인류의 종착지를 염두에 둔 하나님의 사역이나 말씀은 모두 그 본질에 따라 적절하게 행해지므로 한 치의 오류도 털끝만큼의 실수도 존재할 수 없다. 오직 사람이 하는 일에만 사람의 감정이나 뜻이 섞이는 법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가장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어떤 피조물도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 지금 많은 사람이 훗날 인류의 종착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가 한 말을 믿지도 않는다. 믿지 않거나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마귀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98)

지금 추구하지 않는 자와 추구하는 자는 종착지가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다. 진리를 알고 실행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 속하지만, 참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마귀이자 원수이며, 천사장의 후예이자 멸망될 대상이다. 막연한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신자 또한 마귀 아니겠느냐? 사람의 양심이 올바르게라도 참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두 마귀이고, 그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참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수많은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멸망될 대상이다. 세상을 버리려 하지 않고, 부모나 육적인 즐거움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자 멸망될 대상이다. 성육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전부가 마귀로서 훗날 더더욱 멸망될 대상이다. 믿으면서도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자들 또한 모두 멸망될 대상이다. 살아남는 사람은 전부 연단의 고통을 겪고 굳게 선 사람이고, 진정으로 시련을 겪은 사람이다. 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모두 원수이다. 즉, 이 흐름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하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적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사탄은 누구이고 마귀는 누구이며 하나님의 원수는 또 누구더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그 무리들 아니더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아니냐?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나 진리가 없는 자들 아니더냐? 복만 받으려 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 아니더냐? 내가 오늘날에도 이 마귀들과 손잡고 그들을 양심과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 아니겠느냐? 마귀와 한통속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오늘날에 이르렀는데도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한결같이 사랑과 공허만 강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생각은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이런 부류가 맞이하는 결말은 더욱 비참할 것이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원수이다. 내가 원수에게도 양심과 사랑을 베푼다면 정의감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증오하고 반대하는 자와 내가 오히려 마음이 통해 그들을 사랑이나 사적인 감정으로 대한다면 패역 아니겠느냐? 고의로 대적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자에게 진리가 있겠느냐? 원수를 양심으로 대하고 또 마귀를 사랑으로 대하며 사탄에게도 공허를 베풀려고 한다면, 고의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만 믿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성육신한 것을 믿지 않는 자들, 입으로는 성육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전부 적그리스도이며, 멸망될 대상이다. 사람이 다른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에 근거하기에 선행을 하면 의인, 악행을 하면 악인이라고 본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가늠하는 기준은 사람의 본질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의 여부에 근거한다. 행위의 좋고 나쁨과 말의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러지 않는 자는 원수이자 악인이다. 선행으로 훗날 아름다운 종착지를 얻으려 하는 자도 있고, 듣기 좋은 말로 장차 아름다운 종착지를 사려는 사람도 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를 보거나 말을 듣고서 그의 결말을 정한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이 기회에 속임수를 써서 일시적인 은혜를 받고자 한다. 남아서 이후의 안식에 들어갈 사람은 모두 고난의 날을 겪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람의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한 사람들이다. 봉사할 기회를 이용해 진리 실행을 면해 보려는 자들은 전부 살아남지 못할 자들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결말을 안배할 때는 적합한 기준에 따르지, 언행이나 한 시기의 행위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 적이 있다고 해서 그의 모든 악행에 관용을 베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한동안 헌신했다고 해서 죽음을 면케 해 주는 것도 아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악으로 말미암은 보응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악행을 숨김으로써 멸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람이 진실로 자신의 본분을 이행한다면, 복을 받든 화를 입든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영원히 충성할 것이다. 복을 받을 희망이 보일 때는 하나님께 충성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충성심을 잃어버리는 자, 즉 한동안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봉사한 적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자신이 해야 할 본분을 이행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멸망될 대상이다. 요컨대 악인은 영원까지 살아남을 수 없고,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의인이야말로 안식의 주인이다. 인류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사람은 정상 인성을 갖고 살게 되므로 저마다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할 것이다. 사람은 패역과 패괴 성품을 완전히 벗어 버린 채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며,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일도 없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나라의 삶이며, 또한 안식하는 삶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99)

전혀 믿지 않는 자녀나 친족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다 사심이 너무 많고 선심을 쓰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녀나 친족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 상관 않고 오직 사랑만을 강조한다. 아내나 부모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오는 사람도 있는데, 성령의 동의나 역사 여부 등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한결같이 하나님을 위해 '인재를 영입한다'.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푼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 불신과들이 마지못해 따를지라도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와 시련, 성육신 하나님의 온전케 함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름만 걸어 놓고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한 순간부터 성령은 함께하지 않았다. 그들의 조건과 실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들은 만들어질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성령 역시 그들에게 지나치게 공을 들일 마음이 없으므로 어떤 깨우침이나 인도 없이 그저 그들 마음대로 따르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마지막에 결말을 드러낼 뿐이다. 사람의 열의와 뜻은 모두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므로 성령의 역사를 이뤄지게 할 수 없다. 어찌 됐든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필요로 한다. 사람이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겠느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이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나? 자녀는 무엇을 위해 부모에게 효도하느냐? 부모는 또 무엇을 위해 자녀를 사랑하느냐? 사람의 본심은 어디에 있느냐? 모두 자신의 타산과 욕심을 충족시키는 데 있지 않느냐? 진정 하나님의 경륜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역에 있느냐? 피조물의 본분 이행에 있느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역사를 얻을 수 없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는 멸망의 대상이다. 사람이 아무리 그들을 사랑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대신하지 못한다. 사람의 열의와 사랑은 사람의 뜻을 상징할 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지도 못한다. 사람이 이름만 걸고 있는 자들과 거짓으로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최고의 사랑과 긍휼을 베푼다 한들 그들은 하나님의 동정도, 성령의 역사도 얻을 수 없다. 진심으로 따른다면 자질이 떨어져 많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성령의 역사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자질이 아무리 좋아도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면 결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자는 구원받을 여지가 조금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때때로 설교를 듣거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미할지라도 최후의 안식에서 살아남지는 못한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추구하는지 여부는 사람들의 평가와 그에 대한 주변인들의 관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함께하는지, 일정 기간 성령 역사로

인해 그의 성품이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등에 달려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성품이 점점 변화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관점에 대한 인식 또한 갈수록 순수해질 것이다. 따른 시간이 길든 짧든, 변화가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가 없다면 성령의 역사 또한 없는 것이다. 이런 자는 힘을 쓰더라도 복을 받으려는 속셈을 품고 있다. 가끔 힘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성품의 변화를 대신하지는 못하므로 결국에는 멸망의 대상이다. 하나님나라에는 힘쓰는 자가 필요하지 않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온전케 된 사람을 보살피는 일 또한 없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주를 믿으면 온 가족이 복을 받는다’는 옛말은 은혜시대나 적용되는 것일 뿐, 사람의 종착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단지 은혜시대 그 단계에만 적용될 뿐이다. 이 말의 함의는 그저 사람이 누릴 평안과 물질적 축복을 겨냥해 말한 것이다. 그것은 한 사람이 주를 믿는다고 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아니고, 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해서 온 가족이 덩달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도 아니다. 사람이 복을 받거나 화를 입는 것은 모두 자신의 본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자신의 공통적 본질에 근거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나라에는 아예 이런 견해나 규정이 없다. 누군가 마지막에 살아남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했기 때문이고, 살아남아 안식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적합한 종착지가 있다. 그 종착지는 본인의 본질에 근거해 정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자녀의 악행을 부모에게 더할 수 없고, 자녀의 의를 부모가 공유할 수도 없다. 또한 부모의 악행을 자녀에게 더할 수도 없고, 부모의 의를 자녀가 공유할 수도 없다. 저마다 자신의 죄를 감당하고 각자의 복을 누릴 뿐, 그 누구도 다른 이를 대신하지 못한다. 이것이 공의이다. 사람은 부모가 복을 받으면 자녀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악을 행하면 부모도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람의 생각이자 일 처리 방법일 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행한 일의 본질에 따라 합당한 결말을 맞이한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 징벌받을 수 없다. 이것은 절대적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를 대신해 의를 행할 수 없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해도 부모를 대신해 의를 행하지는 못한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라는 말의 참뜻이다. 그 누구도 자녀를 넘치게 사랑한다고 해서 악을 행한 자녀를 데리고 안식에 들어갈 수는 없다. 또한 그 누구도 자신이 의를 행한다고 해서 그의 아내(또는 남편)를 데리고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것은 행정의 규정이므로 그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어디까지나 악을 행하는 자이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살아남을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마지막에 멸망될 대상이다. 거룩한 자는 거룩할 뿐 더럽지 않다. 더러운 자는 더러울 뿐 거룩한 부분이 전혀 없다. 설령 악을 행하는 자의 자녀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의인의 부모가 악을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악인은 다 멸망할 것이고 의인은 다 살아남을 것이다.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 믿는 자녀와 믿지 않는 부모는 서로 맞지 않는 두 부류로서 본래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혈육의 정이 있겠지만, 안식에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 혈육의 정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분을 이행하는 자와 그러지 않는 자는 본래 원수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는 본래 적대되며, 안식에 들어가는 자와 멸망하는 자는 서로 합할 수 없는 두 부류의 피조물이다. 본분을 이행하는 피조물은 영원토록 살아남겠지만, 그러지 않는 피조물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네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너의 본분을 이행하기 위함이나? 네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본분을 이행하기 위함이나? 믿지 않는 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본분을 이행하기 위함이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관점은 정말 올바른 것이냐? 너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느냐? 너는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냐?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자신의 온 힘을 다하지 못하는 자는 모두 멸망의 대상이다. 지금 사람과 사람 간에는 육적인 관계와 혈연관계가 존재하지만, 나중에는 전부 깨질 것이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본래 합하지 않고 서로 적대된다. 안식을 얻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패역한 자들이 모두 멸망하면 땅에는 더 이상 가정이 존재하지 않을 텐데, 부모가 어디에 있고 자녀가 어디에 있으며, 부부 관계는 또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육적인 관계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본래 합할 수 없으므로 단절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00)

본디 인류에게는 가정이 없었다. 남자와 여자, 두 부류의 사람만 있었을 뿐 국가도, 나아가 가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패괴로 말미암아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가족 집단을 이루다가 국가와 민족으로 발전했으며, 이 국가와 민족은 또 하나하나의 작은 가정으로 구성되었다. 그리하여 각 부류의 사람은 언어와 경계(境界)에 따라 서로 다른 종족에 귀속되었다. 사실, 세상에 종족이 아무리 많더라도 인류의 조상은 결국 하나이다. 처음에 사람은 오직 남자와 여자의 두 부류만 있었다. 하지만 사역의 진전과 역사(歷史)의 발전, 지형의 변화로 인해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조금씩 더 많은 부류로 파생됐다. 요컨대 인류의 종족이 얼마나 많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지은 것이다. 어느 종족의 사람이든 모두 피조물이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손으로 빚은 것은 아니지만 모두 하나님이 친히 만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며, 어느 부류든 다 피조물에 속한다. 창조된 인류이기에 그들에게 상응하는 종착지가 있으며, 그 종착지는 인류를 안배하는 규정에 따라 구분된다. 다시 말해, 악을 행하는 자도 의를 행하는 자도 결국은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피조물은 마지막에 멸망될 대상이고, 의를 행하는 피조물은 살아남을 대상이다. 이는 두 부류의 피조물에 대한 가장 적합한 안배이다. 악을 행하는 자가 패역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지음 받았지만 사탄에 의해 사로잡혀 구제불능이 된 대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의를 행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지음 받았지만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구원받게 된 대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피조물로, 그들은 구제불능의 피조물이자 사탄에게 철저히 사로잡힌 피조물이다. 악을 행하는 자 역시 사람이고 극도로 파괴되고 구제불능의 사람이다. 똑같은 피조물로서 의를 행하는 사람 또한 파괴된 자이지만 파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자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움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아 파괴된 성품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며, 궁극적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다. 사탄에 의해 파괴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아니다. 사역이 끝나면 멸망하는 피조물도 있고, 살아남는 피조물도 있을 것이다. 이는 경영 사역의 필연적인 추세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 살아남을 수 없고, 끝까지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틀림없이 살아남을 것이다.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인 만큼, 어떤 자는 남겨지고 어떤 자는 도태될 것이다. 이것은 각 부류의 사람이 맞이하는 서로 다른 결말로서 피조물에 대한 가장 적합한 안배이다. 인류에 대한 마지막 안배는 가정과 민족, 그리고 국경을 부수고 나누는 것이다. 사람은 어쨌든 같은 조상을 두고 있는 피조물이기에 가정의 구분도, 국경의 구분도 없다. 요컨대 악을 행하는 피조물은 멸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피조물은 살아남는다. 그리하여 나중에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가정과 국가는 물론, 민족까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인류가 바로 가장 거룩한 인류이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은 까닭은 사람이 땅에서 만물을 관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즉, 사람은 본래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사람이 땅에서 생존하고 땅의 만물을 관리하는 것은 여호와가 사람을 지은 이유였다. 처음에 사람은 파괴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괴된 사람은 더 이상 만물의 관리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은 사람의 이러한 역할과 처음에 지녔던 이성, 그리고 순종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안식 중에 있는 인류의 모습이 바로 구원 사역의 성과를 보여 주는 증거라 하겠다. 더 이상 에덴동산의 삶과 같지는 않겠지만 그 본질은 똑같다. 단지 더 이상 파괴된 인류가 아니라 파괴되었다가 구원받은 인류일 뿐이다. 구원받은 이 인류는 마지막(사역이 끝난 뒤를 가리킴)에 안식에 들어갈 것이며, 마찬가지로 징벌의 대상들 또한 마지막이 되면 철저히 결말이 드러나 사역이 끝난 후에 멸망될 것이다. 다시 말해, 사역이 끝나면 악을 행한 자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드러난다는 뜻이다. 각 부류의 사람(악을 행하는 자든 구원을 얻는 자든)을 드러내는 이 사역은 모든 사람에게서 동시에 이루어지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도태되면 살아남은 사람 또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각 부류 사람의 결말은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지, 먼저 한 무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안식에 들어가게 한 뒤에 악인들을 한곳에 두었다가 조금씩 심판하거나 징벌하는 것이 아니다.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 악인이 멸망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안식에 들어갈 때 전 우주의 사역이 끝난다. 복을 받고 화를 입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 복을 받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고, 화를 입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한다. 이 두 단계 사역은 동시에 완성된다. 거역하는 자가 있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악행으로 화를 입는 것이 드러난다. 악을 행하는 자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해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적합한 종착지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사역의 절차이다. 이 상선벌악의 사역을 행하지 않으면 피조물은 영원히 각자의 종착지에 들어가지 못한다. 인류가 안식에 들어간 후 악을 행한 자가 모두 멸망하면, 전 인류는 정상 궤도에 진입하게 되고, 각 부류의 사람은 모두 마땅히 해야 할 역할에 따라 각기 부류대로 나뉜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안식이자 인류 발전의 필연적 추세이다. 인류가 안식에 들어가야 비로소 마지막 대업이 이루어지고 사역이 끝나게 된다. 이 사역이 전 인류의 부패한 육적인 삶을 끝내고 파괴된 인류의 삶을 끝내면, 인류는 그때부터 새로운 경지에 들어갈 것이다. 사람은 육신에서 살겠지만, 그 삶의 본질은 파괴된 인류의 삶과 크게 다르고, 생존의 의의 또한 파괴된 인류의 생존 의의와 다르다. 이는 새로운 사람의 삶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인류의 삶이자 인성과 이성을 회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정복된 뒤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기도 하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 적이 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검증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자들로서, 그들의 삶은 가장 의의 있는 삶이다. 그들은 지난날 하나님을 위해 사탄 앞에서 증거한,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반면, 멸망하는 자들은 모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들을 멸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걸맞은 종착지이다. 사람이 장차 아름다운 경지에 들어가면 사람이 상상하는 부부 관계나 부녀 관계, 모자 관계 등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은 모두 각기 부류대로 나뉘고 가정도 깨졌을 것이다. 사탄은 철저히 패배하여 더 이상 인류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고, 사람에게도 더 이상 사탄의 파괴 성품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패역한 자들은 모두 멸망하고 순종하는 사람만 살아남기에 온 가족이 살아남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도 육적인 관계가 있겠느냐? 그때면 과거의 육적인 삶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육적인 관계가 있겠느냐? 사탄의 파괴 성품이 없으면 사람의 삶 역시 더는 이전의 낡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일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잃고 자녀는 부모를 잃을 것이며, 남편은 아내를 잃고 아내는 남편을 잃을 것이다. 지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육적인 관계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면 육적인 관계는 없어진다. 그런 인류야말로 공의와 거룩함이 있는 인류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류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01)

하나님은 창조한 인류를 땅에 두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였으며, 또한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었다. 마지막에 그는 인류를 정복하고 철저히 구원하며 사람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역, 즉 사람의 원래 형상과 모습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행한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세우고 사람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킨다 함은 땅에서의 권병과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의 권병을 회복함을 의미한다. 사람은 사탄에 의해 패괴된 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피조물로서의 기능을 잃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수가 되었다. 사람이 모두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면서 사탄의 지배를 받기에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서 사역할 수 없었고, 피조물의 경외는 더더욱 받지 못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으므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을 경배하며 사탄을 마음속 우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리를 잃게 되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지은 의의를 잃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의의를 되찾으려면 반드시 사람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키고, 패괴 성품을 없애야 한다. 또한 사람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되찾아 오려면 필히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을 조금씩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 마지막에 패역한 자식들을 철저히 멸하는 까닭도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잘 경배하고 땅에서 더욱 잘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지은 이상 사람이 그를 경배하게 할 것이고, 사람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이상 불순물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도록 철저히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권병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그를 경배하고 순종하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의 원수가 모두 그의 권병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 남기며,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가 세우려는 나라는 그 자신의 나라이며, 그가 원하는 인류는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완전히 순종하며 그의 영광을 가진 인류이다. 패괴된 인류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가 사람을 지은 의의는 사라지고,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가졌던 권병은 없어질 것이며, 땅에는 더 이상 그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님을 거역한 원수들을 멸하지 않는다면 그는 완전한 영광을 얻을 수 없고, 땅에 그의 나라를 세우지도 못할 것이다. 인류 가운데의 패역자들을 철저히 멸하고 온전케 된 자들을 모두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그의 사역이 완성되고 그의 대업이 이루어졌다는 표징이다. 인류가 처음의 모습을 회복하고, 각자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며, 자신의 본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모든 안배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땅에서 그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얻고 그를 경배하는 나라를 세우게 된다. 또한 하나님이 땅에서 영원히 승리하고 그를 적대하던 자들이 영원히 멸망하면, 그는 처음에 사람과 만물을 지은 뜻을 회복하고, 땅에서 가졌던 권병과 만물 가운데서 가졌던 권병, 그리고 원수 가운데서 가졌던 권병도 회복하게 된다. 이것은 그가 완전히 승리했다는 표징이다. 그때부터 인류는 안식에 들어가 정상 궤도의 삶을 살 것이며, 하나님 또한 사람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땅의 더러움과 패역, 애곡 소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땅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며,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 그리고 그가 지은 만물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02)

하나님나라시대에는 사람을 완전히 온전케 할 것이다. 사람은 정복 사역 후에 연단과 환난으로 들어가게 된다. 환난 속에서 이겨 내고 굳게 서는 자는 최종적으로 온전케 되는 사람이다. 그들이 곧 이긴 자이다.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요구는 바로 그 연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연단은 마지막 사역이고, 전체 경영 사역이 끝나기 전에 받게 되는 마지막 연단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그 마지막 검증과 마지막 연단을 받아야 한다. 환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 역사도, 하나님의 인도도 없지만, 진정으로 정복된 자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모두 굳게 설 수 있다. 그들은 모두 인간성이 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 이긴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든 이상을 잃지 않으며, 변함없이 진리를 실행하면서 증거를 잃지도 않는다. 그들이 바로 마지막에 대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혼란을 틈타 묻어가려는 자들은 지금은 그럭저럭 버티며 빌붙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도 마지막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마지막 검증을 피할 수 없다. 이 환난은 이기는 자에게는 크나큰 연단이지만, 혼란을 틈타 묻어가려는 자에게는 철저히 도태되는 사역이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시련을 주든 하나님에 대한 충정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일단 하나님의 사역이 자기 육에 불리해지면 즉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간다. 이런 자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굳게 설 수 없는 자들이고, 복만 받으려 할 뿐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자신을 바칠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이다. 이런 부류의 소인배들은 사역이 끝날 때 모두 ‘쫓겨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금도 인정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인간성이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들은 편안한 환경에 있거나 취할 이익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고분고분 순종하지만, 일단 자신의 욕망이 좌절되거나 결국 깨지게 되면 즉시 일어나 반항한다. 심지어는 만면에 웃음이 가득하던 ‘착한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험상궂은 망나니로 돌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난날의 은인을 철천지원수로 대하기도 한다.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 악마들을 경계 밖으로 몰아내지 않는다면 마음속의 우환이 되지 않겠느냐?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은 정복 사역이 끝난다고 해서 대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정복 사역이 일단락되었더라도 사람을 정결케 하는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람을 완전히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모두 온전케 하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위선자들을 모두 제거해야 비로소 사역이 종결된다. 마지막 단계의 사역에서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없는 자는 완전히 도태되는 자이다. 도태되는 자는 모두 마귀와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족케 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지금 따르고 있다 할지라도 이후에도 남아 있을 사람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에서 ‘따른다’에 내포된 뜻은 환난 속에서도 굳게 선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지금은

따르는 것을 상당히 쉬운 일로 여기지만, 사역이 끝날 무렵이면 따르는 것에 내포된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정복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따르고 있다고 해서 네가 온전케 되는 대상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시련을 이겨 내지 못하는 자, 환난 속에서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절대 서지 못한다. 그들은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는 모두 공사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떤 시련도 이겨 낼 수 없다. 그들은 조만간에 모두 쫓겨나겠지만, 이기는 자는 하나님나라에 남을 것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인지는 공사의 검증, 즉 시련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함부로 내버리지 않는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람들은 진심으로 탄복하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일과 인정하지 않는 사역은 하지도 않는다. 믿음이 참된지 거짓된지는 모두 사실로 입증된다. 이는 사람이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밀은 가라지가 될 수 없고, 가라지는 밀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모두 하나님나라에 남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섭섭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긴 자는 각자의 기능과 증거한 것에 따라 하나님나라에서 제사장이 되거나 따르는 사람이 된다. 환난 속에서 이긴 자는 하나님나라의 제사장 그룹에 속할 것이다. 제사장 그룹이 형성될 때는 전 우주의 복음 사역이 모두 끝날 때이다. 그때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분을 이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제사장 그룹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있으며, 나머지는 아들들과 백성들이다. 이는 아무렇게나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한 것을 근거로 구분하는 것이다. 일단 사람의 지위가 정해지면 하나님의 사역도 멈춘다. 사람이 모두 각기 부류대로 나뉘어 원래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업이 이루어졌다는 표시이자, 하나님이 사역하고 사람이 실행한 최종 결과이며, 하나님 사역의 이상과 사람의 협력이 낳은 결정체이다. 마지막에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안식하고, 하나님도 처소로 돌아가 안식할 것이다. 이것이 6 천 년 동안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한 최종 성과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실행>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03)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늘 부정적인 것을 퍼뜨리는 사람은 사탄의 종이자 교회를 교란하는 자이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전부 출교되고 도태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사역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수치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언행이 불신자처럼 제멋대로이고 절제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방인보다 더

사악한 사람이며, 전형적인 악마이다. 교회에서 독설과 악담을 퍼뜨리는 자나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이간질하며 당을 짓는 자는 마땅히 출교시켜야 하겠지만, 사역의 시대가 다르므로 그들에게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도태될 대상이기 때문이다. 사탄에 의해 패괴된 사람은 모두 패괴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그저 성품이 패괴된 것에 그치는 데 반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들은 사탄의 패괴 성품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본성 자체가 이미 극도로 악독해진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은 언행에서만 사탄의 패괴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영락없는 사탄 마귀이다. 그들이 하는 짓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며, 형제자매들의 생명 진입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파괴하는 것이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은 언젠가 모두 쫓겨날 것이다. 그런 사탄의 종들에게는 가차 없이 내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는 다 사탄과 손을 잡은 자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조심스럽고 신중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요구에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해야지, 자신의 성미대로 행하거나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성도의 품위에 맞지 않는 일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도처에서 위세를 부리거나 거들먹거리며 다른 사람들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가장 패역한 행위이다. 집안에 가법이 있고 나라에도 국법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집은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더욱 행정이 있지 않겠느냐? 사람은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행정은 사람이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며, 사람을 치는 하나님이다. 설마 사람이 이런 것들을 모른단 말이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고>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04)

교회마다 교회를 교란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다 사탄이 위장하여 하나님 집에 들어온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특히 외식에 능해서 내 앞에서는 더없이 공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굽히는데, 꼭 마치 능글맞은 개 같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지만, 형제자매들 앞에서는 또 추한 모습을 드러낸다.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을 보면 공격하거나 배척하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면 아첨하고 치켜세우며, 교회 안에서 제멋대로 날뛰다. 거의 모든 교회에 다 이런 '불량배'와 '앞잡이'들이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그들은 함께 모여 몰래 못된 짓을 하고, 서로 눈짓하면서 아무도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다. 그중에서 독액이 많은 자가 '우두머리'가 되고, 신망이 두터운 자가 깃발을 날린다. 그들은 교회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마구 날뛰면서 부정적인 것과 죽음을 퍼뜨리며, 아무도 감히 그들을

제지하지 못한다. 그들은 사탄의 성품으로 가득하다. 그들이 그렇게 교란을 하면 교회에는 죽음의 분위기가 드리운다. 교회에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버림받아 자신의 능력을 다하지 못하고, 반대로 교회를 교란하며 죽음의 기운을 퍼뜨리는 자들은 교회에서 마구 날뛰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른다. 그런 교회는 그야말로 사탄이 권세 잡고 마귀가 왕 노릇 하는 곳이다. 만약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왕들을 내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망가지고 말 것이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향후 마땅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조차 찾고 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제거될 것이다. 만약 어떤 교회에 진리를 실행하려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 교회를 철저히 차단해 다른 교회와의 왕래를 끊어 버려야 한다. 이것이 사망을 묻어 버리고 사탄을 내치는 것이다. 어떤 교회에 불량배들이 존재하고 또한 분별력이 전혀 없는 ‘작은 파리들’까지 따르고 있는 경우, 교회의 사람들이 진리를 보고도 불량배들의 속박과 통제를 끊어 버리지 못한다면, 최종 결과는 그런 멍텅구리들도 다 도태되는 것이다. 작은 파리들은 큰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지만 누구보다 간사하고 교활한 자들이다. 이런 유형에 속하는 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태시킬 것이다! 사탄에 속하는 자는 사탄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속하는 자는 필히 진리를 구할 것이다. 이는 사람의 본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모조리 멸망케 하라!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모두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여라. 하나님은 공의로우니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네가 마귀라면 진리를 실행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고>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05)

진취적이지 않은 자는 늘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부정적이고 게을러지기를 바란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질투하며,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이들을 늘 미혹하려 한다. 그런 자들이 퍼뜨리는 것은 너를 타락시키고 뒷걸음치게 하며,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게 하고, 내면이 어두워지게 한다.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욕을 사랑하게 하며, 자신과 타협하게 한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무성의하게 대하는 자는 자신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이다. 그런 자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인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이 진리를 행하지 않을뿐더러 다른 사람까지 진리를 행하지 못하게 한다. 또 그는 죄를 사랑하고 자신을 중오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는 것과 진리를 갈망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런 자에게 미혹된 사람은 광명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빠져,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확실히 깨닫지 못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진다.

그는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진리 실행까지 방해하면서 분별없는 자들을 전부 자기 앞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 그의 마음속 우상을 믿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사탄을 믿고 있는지를 봐야 할 것이다. 네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우상임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네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은 모독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니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신물이 날 정도로 들었으니 더는 듣고 싶지 않다. 너희가 믿는 것은 모두 너희 마음속 우상이나 너희 가운데 있는 불량배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죽음의 말을 들으면 만면에 웃음꽃을 피우는 자들은 모두 사탄의 자손이자 도태될 대상이다. 교회에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사람을 미혹시키는 일이 생기면 그들은 꼭 사탄의 편에 선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사탄의 종이라 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그들에게 분별력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매번 진리가 아닌 쪽에 서고, 비상시에 단 한 번도 진리의 편에 선 적이 없으며, 진리를 위해 일어나서 변론한 적도 없다. 그들에게 정녕 분별력이 없는 것이냐? 그들은 어째서 꼭 사탄의 편에 서는 것이냐? 어째서 단 한 번도 진리를 위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이냐? 정말 그들의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인한 일이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니,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느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죄악을 좋아하는 사람임을 말해 주지 않느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사탄의 충실한 후손임을 말해 주지 않느냐? 어째서 그들은 늘 사탄의 편에 서서 사탄과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냐? 그들의 언행과 표정은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증오하는 사람임을 충분히 증명한다. 그들이 사탄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사탄이 자신을 위해 평생 분투하는 그 작은 마귀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전부 눈앞에 훤히 드러난 사실이 아니냐? 네가 진정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째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눈에 담지 않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가 약간의 눈짓만 해도 즉시 따르는 것이냐? 이는 어떤 문제이나? 나는 너에게 분별력이 있는지, 네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너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네가 불량배인지 아니면 우두머리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너의 세력이 커 봤자 그것은 사탄의 힘을 빌린 것에 불과하고, 너의 명성이 높아 봤자 그것은 네 주변에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일 뿐이다. 네가 지금까지 출교되지 않은 이유는 지금은 출교 사역을 하는 때가 아니라 도태 사역을 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너를 출교시키는 것은 아직 급하지 않다. 너를 도태시키고 징벌할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릴 뿐이다. 누구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는 도태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고>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06)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자 기꺼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설 수 있는 자 역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며, 진정으로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간교한 짓을 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모두 진리가 없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사탄의 종이자 사탄의 화신이다. 그런 사람은 몹시 악독하다. 분별력이 없으면서도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는 자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진리를 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더 전형적인 사탄의 상징이자, 구체 불능이다. 그들도 물론 도태될 대상에 속한다. 하나님의 집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과 고의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남겨 두지 않는다. 단, 지금은 사람을 출교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마지막에 드러내고 도태시킬 것이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을 들이지 않겠다. 사탄이라면 진리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진리의 편에 설 것이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의 도를 들을 자격도, 진리를 증거할 자격도 없다. 진리는 결코 그들을 향해 말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사람에게 말한 것이다. 모든 사람의 결말이 드러나기 전까지, 교회를 교란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는 유보하겠다. 사역이 끝날 때 그들을 하나하나 드러낸 후 도태시킬 것이다. 진리를 공급하는 기간에는 일단 그들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진리를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 준 후에는 사람을 도태시킬 것이다. 그때가 곧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때이다.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자신들의 잔꾀로 인해 악인의 손에 멸망할 것이고, 악인에게 속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렇게 처리해야 한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지 않았으며 악인을 따르고 악인의 편에 서서 악인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악인들이 퍼뜨리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진리를 등지고 악인을 따라갔다. 진리를 행하지 않고 멸망의 가증한 짓을 하는 자들은 전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들 중에는 ‘왕’ 행세를 하는 자가 있고 부화뇌동하는 자가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은 모두 같지 않느냐? 그들이 무슨 핑계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또 무슨 핑계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악행이 그들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더냐? 그들의 패역이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더냐? 진리를 행하는 자는 최종적으로 진리로 인해 구원받고 온전케 될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 진리로 인해 자멸할 것이다. 이는 진리를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결말이다. 나는 진리를 행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죄를 짓기 전에 되도록 빨리 교회를 떠나라고 권한다. 나중에 후회해도 그때는 늦다. 특히 당을 짓고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 교회의 불량배들은 더 빨리 떠나야 할 것이다. 사악한 이리의 본성을 지닌 자들은 바뀌지 않으니, 더 이상 형제자매들의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교회를 떠나는 편이 낫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도록 말이다. 부화뇌동하는 자들도 지금 이 기회에 반성하고 악인과 함께 나갈 것인지, 남아서 성실히 따를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너희에게 한 번 더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 나는 너희의 대답을 기다릴 것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07)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이치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무지와 그릇됨, 패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는 가장 이해하기 쉽고 제일 기본적인 진리조차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결말을 정하기 전에 너희에게 어떤 일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 일들은 너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너희는 내 말이 특정인이나 특정 부류를 위한 것이 아닌, 전 인류에게 선포하는 진리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진리의 관점에서 나의 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성의를 다하고 한결같은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와 내가 말한 모든 진리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내가 한 모든 말을 멸시하는 태도로 대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삶 속에서 진리와 무관한 일들을 너무도 많이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사악하고 추한 것의 노예가 되지 말고, 진리를 짓밟거나 하나님 집의 곳곳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며, 진리의 종이 되라고 특별히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훈언이다.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자 한다.

첫째, 너희는 자신의 운명을 위해 마땅히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스스로를 하나님 집의 일원이라고 시인한 만큼 어디서나 하나님을 안심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흠족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일을 처리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 진리에 부합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집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둘째, 너희는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는 신실한 본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한 일은 사람이 흠잡을 수도, 의심할 수도 없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정직하게 대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정직하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지 않고, 다 털어놓으며, 사실을 숨기지 않고,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을 속이지 않으며,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정직하다는 것은 일을 하거나 말을 함에 있어 무언가를 보태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고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이 매우 쉬워 보이지만 너희에게는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다. 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정직한 말을 하거나 정직하게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별도로 처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물론 나는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너무도 ‘영악’하고, 소인의 마음으로 군자의 생각을 헤아리는 것에 능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의 사역도 한결 쉬워졌다. 너희는 저마다 탄마음을 품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니 좋다!

나는 너희 한 명 한 명을 모두 재난 속에 두어 불의 ‘가르침’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나면 너희는 ‘확고부동’하게 내 말을 믿을 것이다. 결국, 나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간교하구나!’라며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울 것이다. 그때 너희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지금처럼 거들먹거리고 득의양양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처럼 ‘짐작할 수 없는’ 모습은 더욱 아닐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착실하게 굴며 매우 ‘얌전’하지만, 영 앞에서는 매우 흉포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자들을 정직한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겠느냐? 만약 네가 위선자이고 ‘사교’에 매우 능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우롱하는 자일 것이다. 만약 네가 말에 변명이 많고 쓸데없이 설명을 늘어놓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진리를 행하려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네게 밝히기 힘든 사적인 일이 많다면, 자신의 비밀, 즉 자신의 어려운 점을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광명의 길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너는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며, 흑암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람일 것이다. 만약 네가 진리의 도를 찾는 것을 좋아한다면 늘 빛 속에서 사는 사람일 것이다. 만약 네가 하나님 집에서 봉사자가 되기를 바라며, 토색하지 않고 묵묵히 근면 성실하게 공헌하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충성된 성도라 할 것이다. 너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정직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네가 솔직하다면, 너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면, 하나님을 위해 목숨 바쳐 군계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족게 하려고만 할 뿐 자신을 위하거나 무언가를 달라고 할 줄 모를 만큼 정직하다면, 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빛 속에서 윤택함을 얻고 하나님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라고 할 것이다. 너는 자신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진정한 충성심이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은 이력이 있는지,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심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네게는 아직도 패역과 기만, 탐욕, 원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적이 없고, 빛 속에서 살아 본 적도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의 운명이 어떨지, 그 핵심은 그 사람에게 정직하고 뜨거운 마음이 있는지, 순수한 영혼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정직하지 않고 마음이 악독하며, 더러운 영혼의 소유자라면, 너는 징벌을 받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말로는 자신이 정직하다고 하나 진리에 부합하는 일을 한 적도 없고 진실한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러고도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고 기다린단 말이나? 그러고도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겨지길 원한단 말이나? 그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생각이 아니겠느냐? 네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만한다면, 너같이 깨끗지 않은 자를 하나님의 집에서 용납하겠느냐?

세 번째로 알려 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생애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속이는 짓을 했다는 것이다. 그중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도 있다. 많은 것이 행정을 거스르는 일이자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운명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은 그런 일이 어떤 것이냐고 물을 것이다. 너희는 본성이 오만 방자하며 사실 앞에서 복종하기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너희가 반성한 후에 차차 알려 주겠다. 그래도 행정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입을 단속하지 못하고 함부로 지껄이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게 되어 어둠 속에 떨어질 것이며, 성령의 함께함과 빛을 잃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일을 할 때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네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된다. 너의 말과 행동에는 원칙이 없지만, 하나님의 행사와 말씀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네가 보응을 받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득죄했기 때문이다.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거슬렀다면 너는 분명히 지옥의 자식일 것이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지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몇 번 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알고 있느냐? 하나님 눈에 너는 이미 속죄 제물이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네가 하나님의 행정을 거스른 것이 한 번이 아닌 데다가 회개하려는 태도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벌하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은 하나님을 따를 때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얼마간 하긴 했어도, 나중에 책망과 인도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패괴를 발견하고 실제의 정상 궤도에 들어서 지금까지 착실히 행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마지막에 살아남을 사람들이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사람은 정직한 자다. 네가 정직한 데다가 원칙 있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일을 함에 있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너의 ‘믿음’은 합격일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행정을 거스르기 쉽다. 많은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행정을 알지 못할뿐더러 하나님 말씀에 내포된 뜻은 더욱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좋은 마음이 종종 하나님의 경영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심한 자는 하나님 집의 문밖으로 쫓겨나 하나님을 따를 기회를 잃고 지옥에 떨어져 하나님의 집과는 무관하게 된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집의 사역을 무지한 호의로 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 진노를 유발한 사람들이다. 사람은 다 양반 나리를 받들던 수작을 하나님 집에서도 부리며 자기 뜻대로 휘두를 망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양이 아니라 사자 같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처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데,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이다. 너는 수많은 진리를 깨달아야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 갈 수 있다. 그러한 앎은 글귀나 도리가 아니라 너와 하나님이 서로의 마음을 알게 해 주는 보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너의 삶에 실체가 결여되고 진리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열심히 가득한 너의 섬김은 하나님의 혐오와 증오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일이 신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훈언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은 다 너희에게 가장 결여된 것이다. 내가 지금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내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이며, 사람의 결말을 정하기 위해서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더 이상 부질없는 일을 하고 싶지 않으며,

쓸모없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싶지도 않다. 무슨 꿈꿨는지 알 수 없는 자들을 이끌 생각은 더더욱 없다. 어느 날, 너희는 내 말에 담긴 고심과 인류에 대한 공헌을 이해할지도 모른다. 혹은 어느 날, 도리를 깨달아 스스로의 결말을 규정할지도 모른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훈언 3 책>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08)

나는 너희에게 수없이 경고했고, 너희를 정복하기 위한 진리 또한 많이 베풀었다. 오늘날 너희는 스스로가 예전에 비해 상당히 풍요로워졌다고 느끼고, 사람됨의 도리도 많이 깨달았으며, 신실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 상식도 많이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여러 해에 걸쳐 거둔 성과이다. 나는 너희의 성과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오랫동안 나에게 저질렀던 온갖 패역과 배반 역시 부인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겠다. 너희 가운데 성인(聖人)이 한 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예외 없이 모두 사탄에 의해 패괴된 사람이자 그리스도의 원수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너희의 과오와 패역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니 내가 너희 앞에서 항상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나 또한 너희와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으나 너희의 미래와 종착지를 위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잔소리하겠다. 너희가 너그럽게 이해해 주기 바란다. 또한, 나의 모든 말을 다 그대로 믿고, 내 말에서 나의 깊은 뜻을 깨닫기를 바란다. 의심하지도 말고, 내 말을 손 가는 대로 집었다 함부로 버리지도 말라. 이는 내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내 말을 판단하지 말고, 내 말을 오만불손한 태도로 대하지도 말라. 내가 늘 너희를 시험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한 말이 정확하지 않다고도 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내가 참아 줄 수 없다. 너희는 나와 내 말을 대할 때 항상 그렇게 걱정이 태산이고 보고도 못 본 척한다. 따라서 나는 너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엄숙히 고하겠다. 내 말을 철학과 연결 짓지 말고, 사기꾼의 거짓말과 연결 짓지도 말라. 또한, 업신여기는 눈빛으로 나의 말을 대하지 말라. 앞으로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해 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인자하게 너희에게 말을 해 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또한 앞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차근차근 타이를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지난날의 아름다운 순간을 그리워할 수도 있고, 혹은 대성통곡할 수도 있다. 모두가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도 있고, 혹은 진리와 생명의 공급이 전혀 없는 캄캄한 밤 속에서 살 수도 있다. 한 가닥의 희망도 없이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도 있고, 혹은 뼈저리게 뉘우치다 못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다.... 너희 중 누구도 이런 가능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너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란하고 사악한 세상에 한데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과 영, 혼, 육에는 생명과 진리와 완전 무관한 것들이 가득 뒤섞여 있다. 게다가 그런 것들은 생명, 진리와 어긋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도 너희가 광명의 길을 찾는 것이다. 나의 유일한 바램은 너희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자신의 종착지만 지나치게 신경 쓰면서 오히려 자신의 행위와 과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09)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 온 사람은 모두 아름다운 종착지에 이르길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는 행운이 갑작스레 찾아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의 한 자리에 무사히 안착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하늘에서 떨어질 행운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천국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의 너희는 모두 자신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지막 날에 닥칠 재난과 악한 자를 벌하는 전능자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좋은 꿈을 꾸고, 좋은 일을 원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걸작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 패괴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인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지나친 욕망과 복을 받으려는 절박한 마음을 버리도록 할 것이다. 너희의 과오가 아주 많고, 패역의 사실이 켜켜이 쌓여 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너희가 그리는 행복한 미래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만약 네가 아무 제한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계속해서 단잠을 자고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편이 좋겠다. 너의 꿈은 한낱 공허한 꿈에 불과하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너를 위해 선례를 깨뜨릴 리가 없다. 꿈을 이룰 생각밖에 없다면, 영원히 꿈을 꾸지 말고 진리와 사실을 직시하여라. 이것이 너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다. 그럼 그 방법은 어떤 구체적인 단계로 이루어질까?

첫째, 너의 모든 과오를 성찰하고,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너의 모든 행위와 생각을 반성하고 살피라.

이는 손쉽게 해낼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오와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예외이다. 이런 사람은 아예 ‘생각’이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직하며, 행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고, 자신의 과오를 쉽게 찾아내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을 한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이 조건은 충족시키기 쉽지만 너희에 대한 나의 유일한 요구 사항은 아니다. 어쨌거나 나의 요구를 몰래 비웃지 말고, 이 요구를 무시하거나 알아보지 말기를 바란다. 무심하게 대하지 말고 진지하게 대하여라.

둘째, 너의 과오와 패역 하나하나를 그에 상응하는 진리를 찾아 해결하여라. 진리를 실행하여 너의 과오, 패역한 생각과 행동을 대체하여라.

셋째, 꾀를 부리지 않는 착실한 사람이 되어라. 간사한 사람이 되지 말라(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임).

네가 이 세 가지를 모두 해냈다면 몹시 운이 좋은 것이다. 그런 네가 바로 꿈을 이루고 행운을 얻은 사람이다. 너희가 하찮게 보이는 이 세 가지 요구를 진지하게 대할 수도 있고,

무책임하게 대할 수도 있다. 여하튼 나의 목적은 너희의 꿈과 이상(理想)을 실현시키는 것이지 너희를 비웃는 것도, 놀리는 것도 아니다.

나의 요구는 몹시 간단하나 내가 너희에게 알려 준 일은 $1+1=2$ 처럼 단순하지 않다. 너희가 입으로만 떠들거나, 장광설이나 공리공론을 늘어놓는다면, 너희의 청사진과 기대는 영원히 백지상태로 남을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아무런 성과 없이 헛수고한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나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자들 모두에게 ‘상’ 대신 ‘벌’만 내리고, 동정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어쨌거나 오랫동안 나를 따른 노고는 있으니 봉사자가 되어 하나님 집에서 밥벌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너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것으로 보인다. 너희가 줄곧 손해를 보지 않고 실속만 차리겠다는 원칙을 지켜 왔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정식으로 알려 주겠다. 네가 고생 끝에 큰 공을 세웠든, 대단한 관록을 가지게 되었든, 나의 곁을 따랐든, 명망이 자자하든, 태도가 나아졌든 관계없이, 네가 나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면 영원히 나에게 칭찬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래도 너희가 서둘러 온갖 생각을 지우고 나의 요구를 진지하게 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모든 사람을 잿더미로 만들어 나의 사역을 끝낼 것이다. 그러면 기껏해야 나의 오랜 사역과 고난이 무(無)로 돌아갈 뿐이다. 나는 나의 원수와 사악한 기운을 풍기며 사탄의 본모습을 가진 자들을 나의 나라, 다음 시대로 데려갈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과오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10)

내가 바라는 것은 상당히 많다. 너희가 적절한 처신을 하고, 품행이 바르고, 충심으로 본분을 이행하기 바란다. 또한 진리와 인성을 갖추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너희의 부족함, 패괴, 패역 때문에 이런 바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너희와 매년 나눈 대화로 너희의 관심을 충분히 끌지 못했다면 내가 말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이로 인한 결과가 어떨지는 너희도 잘 알 것이다. 나는 보통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무언가를 행할 것이다. 누군가는 혀가 썩어 떨어져 나갈 것이고, 누군가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누군가는 실성하여 온갖 추태를 부릴 것이고, 누군가는 내가 빚은 고통을 잔뜩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흐뭇하고, 즐겁고,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다. 줄곧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보응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 네가 나와 맞서고자 하고 나를 판단하려 한다면, 나 또한 네 입을 썩게 만들 것이다. 그럼 나도 더할 나위 없이 통쾌할 것이다. 어쨌거나 네가 한 일은 진리가 아니고 생명과도 무관하지만, 내가 행한 일은 모두 진리이며 또한 내가 일을 하는 원칙과 내가 정한 행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이 덕을 많이 쌓고, 악을 적게 행하며, 여유가 있을 때 나의 요구에 공을 들이기를 바란다. 그럼 나는

기쁘기 그지없을 것이다. 너희가 욕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들이는 노력의 천분의 일이라도 진리에 기울인다면(바친다고도 할 수 있음) 자주 과오를 범함으로 입이 썩어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 아니냐?

과오가 많을수록 네가 좋은 종착지에 이를 기회는 줄어든다. 반대로 과오가 적을수록 하나님께 칭찬받을 기회는 늘어난다. 내가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과오를 범하면, 용서받을 기회를 너 스스로 완전히 날려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의 종착지는 위가 아닌 아래가 될 것이다. 믿지 못하겠다면 과감하게 잘못을 범하여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보아라. 네가 성실하게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이라면 과오를 용서받을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거역하는 횃수도 분명 점점 줄어들 것이다. 네가 진리를 실행하기 몹시 꺼리는 사람이라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과오가 분명 늘어날 것이고, 거역하는 횃수도 늘어날 것이다. 극에 달할 때는 바로 네가 철저히 멸망되는 순간이고, 또한 복을 받고자 하는 너의 아름다운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다. 자신의 과오를 미성숙하거나 우매한 사람의 실수로만 간주하지 말라. 네가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것을 자질이 부족하여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말로 변명하지 말라. 더욱이 너의 모든 과오를 단순히 잘 몰라서 한 행동으로 간주하지 말라. 만약 네가 스스로를 잘 용서하고 스스로에게 너그럽게 대한다면, 나는 너를 영원히 진리를 얻지 못하는 나약한 자라고 할 것이다. 또한 너의 과오가 끊임없이 너를 얹매어 영원히 진리의 요구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사탄의 충실한 동반자가 되게끔 할 것이다. 나의 충고는 변함없다. 즉, 종착지에만 신경 쓰고 너의 숨겨진 과오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과오를 중시해야 한다. 종착지만 생각하면서 너의 모든 과오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과오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11)

오늘 나의 이러한 경고는 너희의 생존을 위한 것이자 나의 사역을 순조롭게 펼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온 우주의 시작 사역을 더 적절하고 완벽하게 행하는 한편, 열국과 열방 사람에게 나의 말과 권병, 위엄, 심판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하는 나의 사역은 우주 전체에서 전개되는 사역의 시작이다. 지금을 말세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말세’란 한 시대를 의미하는 대명사임을 알아야 한다. 말세란 율법시대나 은혜시대처럼 한 시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마지막 때의 몇 년, 몇 달 정도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말세’는 은혜시대나 율법시대와 다르다. 말세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에서 사역한다. 이 사역은 이스라엘 밖의 각 나라와 족속의 사람을 정복하여 내 보좌 앞에 오게 함으로써 전 우주 아래의 나의 영광을 우주 궁창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즉,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인데, 땅의 모든 피조물이 나의 영광을 만방에 알리고 후세에 길이 전할 수 있게 하며, 하늘 위아래의 모든 피조물이 땅에서 얻은 내 모든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다. 말세에는 정복 사역을 한다. 백성들을 이끌고 땅의 삶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땅에서 수천 년간 겪어 온 고난의 삶을 끝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세의 사역은 이스라엘에서 했던 사역처럼 수천 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유대에서 몇 년간 사역한 후 두 번째로 성육신하기 전까지 2 천 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과도 같지 않다. 말세의 사람은 단지 말세에 육신으로 다시 나타난 구속주를 접하고, 하나님이 친히 한 사역과 말씀을 받아들였다. 말세는 예수가 유대에서 은혜시대의 사역을 전개했을 때처럼 짧은 기간으로, 2 천 년 동안 지속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말세는 전체 시대를 끝내고, 6 천 년 경륜을 마무리하며, 고난으로 점철된 인류의 인생 여정을 끝내는 때이기 때문이다. 말세는 인류 전체를 다음 시대로 인도하거나 인류의 삶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때가 아니다. 말세가 그런 것이라면 나의 경륜과 사람의 생존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만약 인류가 계속 이대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그 악마에게 모조리 잡아먹힐 것이고, 나에게 속한 영혼들도 결국에는 악마의 손에 파멸될 것이다. 나의 사역은 6 천 년뿐이며, 내가 그 악한 자에게 인류를 지배하도록 허락한 시간 역시 6 천 년뿐이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 말세에 나는 사탄을 크게 이겨 나의 모든 영광을 되찾아 올 것이며, 내게 속한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거두어들임으로써 슬픔에 빠진 영혼들을 고해에서 구해 내고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끝낼 것이다. 그 후로는 다시 땅에 성육신하지 않을 것이고, 만유를 주재하는 나의 영도 땅에서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만 땅에서 인류를 다시 창조할 것인데, 그들은 거룩한 인류이자 땅에 있는 내 신실한 성읍이다. 하지만 너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는 세상을 전부 멸하거나 인류를 전부 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완전히 정복된, 나를 사랑하는 3 분의 1의 사람들을 남겨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고,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키운 많은 소와 양, 땅의 모든 부요함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런 인류는 장차 나와 함께 영존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처럼 더럽기 그지없는 인류가 아니라 내게 얻어진 모든 사람의 집합체이다. 그들은 사탄의 파괴와 방해, 공격을 받지 않는 인류이며, 내가 사탄을 물리친 후 이 땅에서 유일하게 생존할 인류이다. 그들이 바로 오늘날 정복되고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말세에 정복되는 자들은 살아남아 영원한 복을 받을 인류이며, 내가 사탄을 물리쳤다는 유일한 증거이자 전리품이다. 그 ‘전리품’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내게 구원받은 사람들로, 나의 6 천 년 경륜의 유일한 결정체이자 커다란 열매이다. 그들은 각 나라와 각 교파, 전 우주 아래의 각 나라와 각 지역에서 온 자들로서, 민족도 언어도, 풍속도 피부색도 전부 다르다. 그들은 온 땅의 각 나라 각 교파, 나아가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마지막에 한데 모여 완전한 인류를 이루고, 사탄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집합체를 이룰 것이다. 나의 구원과 정복을 거치지 않은 인류는 모두 바닷속에 조용히 가라앉을 것이며, 내 불길에 영원히 불사름 당할 것이다. 나는 극도로 더러운 옛 인류를 멸할 것이다. 마치 애굽에서 어린양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문 인방에 어린양의 피로 표시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 두고,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의 소와 양은 전부 멸했던 것처럼 말이다. 나에게 정복된 내 가족 중의 사람 역시 내 어린양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내게 구속함을 받은, 나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냐? 이런

사람에게는 항상 나의 영광이 따르지 않더냐? 내 어린양의 살이 없는 사람들은 벌써 바닷속에 조용히 가라앉지 않았더냐? 오늘날 너희는 나를 대적하고 있다. 지금 나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말하고 있지만, 너희 마음의 강박함이 내 분노를 쌓고 있다. 너희는 자신의 육체가 받을 고통을 쌓고, 자신의 죄악으로 받을 심판을 쌓으며, 자신의 불의로 받을 내 분노를 더 많이 쌓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그 누가 내 분노의 날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누가 불의를 저지르고도 사람을 형벌하는 내 두 눈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누가 죄악을 저지르고도 나 전능자의 두 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누가 나를 대적하고도 나 전능자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는 이방 족속의 자손인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율법시대와 은혜시대에 했던 모든 말을 능가하지만 너희는 그 애굽 백성들보다 더 강박하다. 내가 편안히 사역할 때 너희는 나의 분노를 쌓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어찌 나 전능자의 날을 무사히 피할 수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육에 속한 자는 누구도 그 분노의 날을 피할 수 없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12)

너는 무엇이 심판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이해했느냐? 만일 이해했다면 고분고분 심판받기를 권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기회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 이끌려 그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없을 것이다. 심판받기만 하고 끝까지 정결케 되지 못하는 자들, 즉 심판 사역에서 도망간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혐오받고 버림받을 것이다. 그들의 죄상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무겁고 더 많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하나님의 반역자이기 때문이다. 봉사할 자격조차 없는 그들은 더 무거운 징벌, 게다가 영원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입으로는 그에게 충성한다고 하면서 그를 배반하는 어떠한 변절자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다 징벌받는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성품의 발현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고 드러내는 목적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심판 기간 동안 많은 악행을 쌓은 사람을 악령이 득실거리는 곳에 두어 악령이 마음대로 그 육체를 훼손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육체에서는 시체 냄새가 진동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다. 하나님은 충성하지 않은 거짓 신자와 거짓 사도 그리고 거짓 일꾼들의 각종 죄상을 일일이 그들의 기록 책에 적어 두었다가 적합한 때에 그들을 더러운 귀신들 속에 던질 것이다. 더러운 귀신들이 마음대로 그들의 온몸을 더럽혀 영원히 환생하지 못하고 다시는 빛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한동안 봉사했지만 끝까지 충성하지 않고 외식한 자들을 악인들 가운데 두어, 악인들과 한 패거리인 오합지졸이 되게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그들을 멸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적이 없거나 작은 힘도 바친 적이 없는 자들을 한쪽에 내버려 두고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시대를 바꿀 때 모두 멸해 버릴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땅에서 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고 마지못해 건성으로 대한 자들은 백성들을 위해 힘을 쓴 사람들 속에 넣어 둘 것이다. 이들 중 적은 수만이 살아남을 것이며, 대부분은 봉사조차 제대로 못 한 자들과 함께 멸망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와 한마음 한뜻이 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들들 그리고 그가 제사장으로서 예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어갈 것이다. 이들은 다 하나님이 사역해서 얻은 결정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눈 부류에 속하지 못한 자들은 다 이방인의 행렬에 들게 된다. 그들의 결말이 어떨지는 너희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내가 할 말은 다 했으니, 어떤 길을 택할지는 너희들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도 기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공의 성품은 누구에게나 무정하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그리스도는 진리로 심판의 사역을 한다> 중에서

제 2 장 하나님 알아 가기

하나님 알아가기[1]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어 온 자신의 생애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었는지, 각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진정으로 알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한 사역과 너의 모든 행위에 대해 내린 정의를 정말 알고 있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너의 곁에서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며, 너의 운명을 주재하고,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에 대해 너는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 너는 그가 날마다 너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느냐? 일을 하는 그의 원칙과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가 어떻게 너를 인도하고 너에게 공급하며, 어떤 방식으로 너를 이끄는지 아느냐? 그가 너에게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이고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가 어떤 태도로 너의 여러 가지 모습을 대하는지 아느냐? 네가 그에게 사랑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느냐? 그의 희로애락의 이유와 그 뒤에 있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의 본질을 아느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느냐? 이러한 문제들은 네가 이해한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것이 아니더냐? 너는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체험과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 적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을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적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 속에서 사람의 패역과 사탄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느냐? 너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와 깨우침으로 새로운 인생관을 갖기 시작했느냐?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시련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너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구원을 느꼈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하는지 모른다면 너는 한 번도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한 적도, 하나님을 이해한 적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너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너는 틀림없이 순종과 헤아림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다. 최소한 너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한 적도,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린 적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겪은 적이 없다면, 너는 분명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고, 사람의 패역이 무엇인지는 더더욱 모를 것이다. 네가 지금껏 진실로 올바른 인생관을 가진 적이 없고, 올바른 인생 목표도 없으며, 여전히 향후 인생길에 대해 막막해하고 방황하며 심지어 주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너는 분명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를 받은 적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너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서 진정으로 공급(원문: 供應與補給)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네가 아직 하나님이 주는 시련을 겪지 못했다면, 말할 필요도 없이 너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고, 너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대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것이며, 사람을 경영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더더욱 모를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어떤 체험도 하지 못하고 깨달음도 얻지 못했다면, 그는 틀림없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실제 내용이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역시 전무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리가 없음은 뻔한 일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은 모두 인류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난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때, 실천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목적과 근원, 배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알고 체득하게 된다. 사람에게 있어 이것들은 모두 진리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기 위해 반드시 체험하고 깨닫고 얻어야 하는 것들이다. 사람은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깨닫고 얻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차츰 이해하게 되고, 동시에 또 서로 다른 정도의 인식을 갖게 된다. 이 이해와 인식은 상상해 내거나 지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이 깨닫고 체험하고 느끼고 실증한 것이다. 사람에게 이런 깨달음과 체험, 느낌, 실증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내용이 생기게 된다. 이때의 인식이야말로 실제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체험, 느낌과 실증을 통해 하나님을 진실로 이해하고 알아 가는 이 과정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진정한 사귄다. 사람은 이러한 사귄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본질에 대해 알고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점차 알고 이해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실제적으로 확신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게 되며,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본질적으로 확정하고 알게 된다. 사람은 이러한 사귄 속에서 점차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더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지 않고, 더는 자기 멋대로 추측하지 않으며, 더는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더는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항변은 갈수록 적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반발심과 패역 또한 점점 줄어든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헤아림과 순종은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점점 실제에 가까워지고 깊어진다. 사람은 이러한 사귄을 통해 진리의 공급과 생명의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얻게 된다. 또한 이러한 사귄 속에서 성품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게 되며, 동시에 피조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게 된다. 이러한 사귄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믿음은 더 이상 백지도, 구두 약속도 아니며, 맹목적인 추종과 숭배도 아니다. 이러한 사귄이 있어야만 사람은 생명이 나날이 자라고, 성품도 점차 변화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믿음이 막연한 신앙에서 점차 참된 순종과 헤아림, 나아가 참된 경외에 이르게 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 또한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에서 점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사قم이 있어야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며 인식하게 된다.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진정한 사ق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론과 글귀에 머물러 있다. 다시 말해,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원점에 머물러 있고, 전설과 봉건 미신의 색채를 띤 전통적인 참배의 기초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원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으며, 하나님의 지위와 신분에 대한 확신을 제외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막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할진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진정한 경외심은 또 얼마나 되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확신하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너의 인식과 경외를 대체하지 못한다. 네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얼마나 누렸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너의 인식을 대체하지 못한다. 또한, 네가 얼마나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봉헌하고 헌신하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너의 인식을 대체하지 못한다. 어찌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숙독하고 막힘없이 술술 외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너의 인식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사람은 아무리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따르더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귄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체험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텅 빈 공백이나 끝없는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 설령 네가 한때 하나님과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적이 있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댄 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너의 인식은 여전히 비어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너의 경외 또한 공허한 구호나 이상(理想)에 불과하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

많은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을 마음에 새기며 귀한 보물로 여긴다. 또한,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고 도움을 준다. 그들은 이런 행동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들은 또 이런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온전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한 적이 없으며, 하나님이 폭로한 말씀에 자신을 비취 본 적도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숭상과 신임을 편취하고, 개인적인 경영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취하고 도둑질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기회를 이용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역사하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망상한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를 찾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자신을 돕고 공급하지 못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 생기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점점 더 깊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추측이 점점 더 심해졌으며, 하나님에 대한 상상은 갈수록 과장되어 갔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이론적 공급과 인도하에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식은 죽 먹기인 것처럼, 그들의 인생 목표와 사명을 찾은 것처럼, 새 삶을 얻은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랑하게 외우는 과정에서 진리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 가는 길을 찾은 듯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대면하는 듯했고,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고심을 끊임없이 깨닫고 있는 듯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경영을 깨닫고,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도 알게 된 듯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확신한 듯했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더욱 깨달은 듯했으며, 하나님의 위대함과 비범함을 더욱 느낀 듯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표면적인 인식에 심취되어 있으면서, 마치 그들의 믿음이 증가하고, 고난받겠다는 다짐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진 듯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기 전에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생각은 다 그들의 일방적인 상상과 추측에서 비롯되었음을 그들이 어찌 알겠느냐?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어떤 검증도 견뎌 내지 못하고, 그들이 말하는 영적인 것과 분량은 하나님이 준 시련과 검증을 전혀 감당해 내지 못한다. 그들의 의지는 모래 위에 지어진 공중누각에 불과하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상상해 낸 성과에 불과하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공을 들인’ 이 사람들은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순종인지, 무엇이 참된 헤아림이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인지 전혀 모른다. 그들은 이론, 상상, 지식, 은사, 전통과 미신, 심지어 사람의 도덕관까지 모두 가져다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밀천과 무기, 심지어 토대로 삼는다. 그러면서 또 그러한 밀천과 무기를 하나님을 알아 가는 비법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는 검증과 시련, 형벌과 심판을 맞이하고 대처하는 비법으로 삼는다. 결국 그들이 얻는 것은 여전히 종교적 색채와 봉건 미신, 전설과 기괴함, 비밀스러움으로 가득 찬 하나님에 대한 정론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정의는 하늘과 하느님(원문: 老天爺)만 믿는 사람들과 짝어 낸 듯 똑같다. 반면에, 하나님의 실재,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등 진실한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은 그들의 인식과 어긋나고, 그 어떤 관계도 연관도 없으며, 심지어 완전히 상반된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공급과 자양’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 진정한 원인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알고 지낸 적이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접하고’ 사귄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며 경배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대하는 이러한 관점과 태도로 인해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을 갈 수 없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은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임을 뜻하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

오랜 세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의 공급을 누린 사람과 우상을 숭배하고 공양하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 본질적으로 같은 정의를 내렸다면,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실재를 얻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 원인을 따져 보면, 그는 하나님 말씀의 실재에 전혀 진입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속의 실재와 진리,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그와 아무 관계도 없다. 다시 말해,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문자적 의미에 아무리 공을 들인다 한들 쓸모없다. 그가 추구하는 것이 글귀이므로 그가 얻는 것 또한 필연적으로 글귀이다. 하나님이 한 말씀은 겉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쉽든 심오하든, 전부 사람의 생명 진입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진리이며, 사람의 심령과 육체가 생존해 나가기 위한 생수의 근원이다. 그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일상적인 처세 법칙과 신조를 공급하며,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과 목표, 방향을 공급한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갖춰야 할 모든 진리를 공급하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해야 하는지에 관한 모든 진리를 공급한다. 그는 사람이 살아 나가기 위한 보장이자 일용할 양식이며, 사람을 굳세어지고 우뚝 설 수 있게 하는 견고한 방패이다. 그에게는 창조된 인류를 정상 인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진리의 실재가 가득하고, 인류를 패괴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탄의 울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진리가 가득하며, 창조된 인류에 대한 창조주의 간곡한 가르침과 권면, 격려와 위로가 가득하다. 그는 사람이 모든 긍정적인 사물을 알도록 인도하고 깨우치는 길잡이 등불이자, 사람이 모든 정의와 아름답고 선한 것을 구현하고 가질 수 있게 하는 보장이며,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을 가늠하는 준척이자, 사람을 구원과 광명의 길로 이끄는 등대이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실재 체험 속에서만 비로소 진리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정상 인성이란 무엇인지, 의미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피조물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순종이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참된 믿음과 경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천지 만물의 주재자가 누구인지, 만물을 주재하는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만물을 주재하고 인도하며 공급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만물을 주재하는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나타나며 사역하는지를 알고 이해하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경험과 체험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참된 인식과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확실한 산송장이고 의심할 나위 없는 걸쭉데기로, 창조주와 관련된 모든 인식은 그와 어떤 관계도 없다. 하나님이 보기에 그런 사람은 지금껏 하나님을

믿거나 따르는 적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도, 더 나아가 진정한 피조물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

진정한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창조주가 누구인지, 사람이 왜 창조되었는지, 피조물의 직책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창조주를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창조주의 뜻과 마음의 소리와 요구를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해야하려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는 창조주의 도를 행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어떻게 악에서 떠날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의미하는 것도, 숨고 멀리하고 숭상하고 미신하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니라, 양모하고 숭경하고 신뢰하고 이해하고 헤아리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이며, 조건도 불평도 없이 경배하고 보답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으면 진정한 양모도, 신뢰도, 이해도, 헤아림도, 순종도 없으며, 단지 두려움과 불안, 의심, 오해, 회피, 그리고 멀리함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으면 진정한 헌신과 보답도 없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으면 진정한 경배와 복종도 없으며, 맹목적으로 숭상하고 미신할 뿐이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를 행할 수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악한 일을 멀리할 수도 없다. 반면, 사람이 종사하는 모든 활동과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대적, 꾀방과 논란으로 가득할 것이며, 또한 진리를 위배하고 하나님 말씀의 참뜻에 어긋난 악행으로 가득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면, 진실로 따르고 의지할 수 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진실로 이해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려야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해야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해야 조건도, 불평도 없이 보답할 수 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이해하고 헤아리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보답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알 수 있고, 창조주의 신분을 알 수 있다. 진정으로 창조주를 알아야 진정으로 경배하고 복종할 수 있으며, 진실로 창조주께 경배하고 복종해야 진정 악행에서 벗어나고 악에서 떠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전 과정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의 모든 내용이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사이에는 매우 밀접하면서도 갈라놓을 수 없는 연관성이 있으며, 이 둘의 관계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악에서 떠나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해야 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진실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진입해 하나님의 채찍질과 징계, 형벌과 심판을 겪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마주해야 하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사람, 일, 사물과 각종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려면 반드시 먼저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 고통을 감내하려는 의지, 악한 일을 멀리하려는 결심과 용기, 그리고 참된 피조물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 너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가게 되고, 네 마음은 점점 더 순결해질 것이다. 또한, 너의 인생과 삶의 가치는 하나님에 대한 너의 인식과 함께 점점 더 의미를 갖게 되고, 점점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 너는 창조주가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님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창조주가 너를 피해 숨거나 얼굴을 가린 적이 없고, 너에게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더 이상 네가 밤낮으로 그러도 느낄 수 없었던 그분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분명히 너의 곁을 지키고 있고, 너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있으며, 네 운명을 주관하고 있다. 그는 아득한 하늘 끝이나 구름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변에서 너의 모든 것을 주재하고 있다. 그는 너의 모든 것이자 너의 유일한 분이다. 이러한 하나님은 너에게 사모의 마음이 들게 하고, 그리워하게 하며, 가까이하게 하고, 앙모하게 하며, 잃을까 두려워하게 하고, 더는 포기하려고도 거역하려고도 하지 않게 하며, 멀리 떠나거나 숨으려고도 하지 않게 한다. 너는 오직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에게 순종하며, 그가 네게 준 모든 것에 보답하고 그의 권세 아래에 돌아와 복종하기만을 원하게 된다. 너는 더 이상 너에 대한 그의 인도와 공급, 보살핌과 보호를 거절하지 않고, 너에 대한 그의 주재와 안배에 저항하지 않게 된다. 너는 오로지 그의 곁을 따르고 그와 함께하기를 바라며, 그를 너의 유일한 생명이자 유일한 주, 유일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게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이다>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

사람의 생각은 진리를 대신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며 대가를 치르고 외적 행위가 아주 좋아 사람에게서 존경을 받고 감탄을 자아내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외적 행위가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한다고 확정할 수 있느냐? 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 흔히 그가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길을 가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있다고 여기느냐? 왜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냐?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만족게 하는 것이란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진리의 실체가 있는 것이란 어떤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종종 겉으로 보았을 때 영적이고 고상해 보이는 사람, 이미지가 꽤 좋은 사람에게 미혹된다. 사람들은 글귀 도리를 말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사람들의 일을 하는 본질과 원칙, 일을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또 그런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있는지 살펴보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의 인성 본질을 전혀 분별하지 않는다. 그 대신 처음에는 낮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탄복하고 우러러보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는다. 게다가 일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숭상하는 우상,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정과 직장을 내려놓고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만족게 하는 사람, 참으로 좋은 결말과 좋은 종착지가 있을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에게 존재하는 이런 ‘생각’은 어떤 원인으로 초래된 것이냐? 이 일의 본질은 무엇이나? 이 일로 초래된 결과는 무엇이나? 먼저 이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앞에서 언급한 사람의 관점과 실행법, 사람이 스스로 취한 실행 원칙, 그리고 사람들이 평소에 중시하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요구와 무관하다. 사람이 중요시하는 것이 깊은 얕든, 글귀의 이치이든 실제이든,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람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다. 그 원인을 따져 보면, 사람이 진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실행 원칙을 찾아 실행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도리어 지름길로 가면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는 좋은 행위와 방법을 종합해 그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아 추구하고, 진리로 삼아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직접적으로 초래되는 결과는 바로 사람이 인위적인 좋은 행위로 진리 실행을 대체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에게는 진리에 대항하는 밀천, 하나님과 이치를 따지며 맞서는 밀천이 생기게 된다. 그와 동시에 사람은 서슴없이 하나님을 한쪽에 체쳐 놓고 자신의 마음속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다. 사람에게 이런 미련한 행위와 우매한 사고방식, 혹은 단편적인 사고방식과 실행법이 생기게 된 근본 원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을 오늘 알려 주겠다. 그 원인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어도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 데에 있다.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혐오하는지,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무엇을 버리려고 하는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사람에게 요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지를 안다면, 사람에게 자신만의 생각이 있을 수 있겠느냐? 또 멋대로 다른 사람을 숭상할 수 있겠느냐? 또 일반 사람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사람의

견해는 다소 이성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패괴된 사람을 함부로 자신의 우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는 길에서 제멋대로 몇 가지 간단한 규례나 원칙을 지키는 것을 진리 실행으로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으로 맺게 될 결실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7)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의 결말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고 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 자신의 결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사람의 결말을 어떻게 정하는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한 사람의 결말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까? 어떤 기준으로 한 사람의 결말을 정할까? 사람의 결말이 아직 정해지기 전, 하나님은 어떤 사역들을 하여 사람의 결말을 드러낼까? 이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방금 말했다시피, 일부 사람들은 사람의 결말이 무엇인지,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나뉘는지, 사람마다 각각 어떤 결말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서는 사람의 결말을 어떻게 정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한 사람의 결말을 정하는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랫동안 연구를 해 왔다. 하지만 결국 아무 결과도 찾지 못했다. 사실 하나님 말씀에는 아주 조금만 언급되어 있을 뿐 내용이 많지 않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람의 결말이 드러나기 전까진 그 누구에게도 최후의 결과를 알려 주기를 원치 않고, 사람의 종착지가 어떤지 미리 알려 주는 것도 원치 않는다. 사람에게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서 너희에게 알려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 사람의 결말을 정하고 어떤 사역 원칙으로 사람의 결말을 정하고 드러내는지, 어떤 기준으로 한 사람이 살아남을지를 정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너희도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내용이 아니냐? 그럼 사람의 관념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의 결말을 어떻게 정하느냐? 조금 전에 너희가 일부를 얘기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흠족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배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너희가 이런 진리들을 실천하고, 스스로 원칙이라 생각하는 것에 따라 실천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느냐? 너희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흠족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나는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저 하나님 말씀의 일부, 설교의 일부, 그리고 자신이 숭상하는 일부 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따라서 적용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강요할 뿐이다. 마지막 결과가 어떠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며 계속 이를 고수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난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실천해 왔어. 그동안 많은 진리를 깨달았고, 지난날 몰랐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됐지. 특히 사상과 관점, 인생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흡족게 해 드렸고 얻은 것도 적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것을 수확이라고,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에게서 맺는 최종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너희 모든 사람이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한 이런 기준들을 종합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해 드리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확신에 차 대답한다. “물론이죠!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고, 상부의 설교에 따라 실천하며, 계속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지금껏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흡족게 해 드리고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해했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달았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옳바르다면, 결과도 틀림없이 옳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어떠하냐? 옳바르냐?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는 이런 일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본분을 이행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의 요구대로 행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요구 기준에 다다랐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선 그런 걸 저한테 알려 주신 적도, 명확하게 지시하신 적도 없으시거든요. 저는 그저 쉬지 않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흡족해하실 것이고, 더 이상 다른 요구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옳바르냐? 내가 봤을 때, 너희의 그런 실천과 생각, 관점에는 상상이 섞여 있고 다소 맹목적이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낙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맹목적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살아남을 가망이 불투명하고 희박하다는 말인가요? 저희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 아닌가요?”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말하려는 것과 내가 하려는 것으로 너희에게 찬물을 끼얹는 느낌을 주려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혐오하고 무엇을 증오하는지, 어떤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해 버리는 대상인지 더 확실히 알게 하는 것이다. 너희 모두의 모든 행위와 생각이 하나님의 요구 기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주제들에 관한 교제가 참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너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많은 도를 들었지만 이런 부분이 가장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모든 진리를 다 기록해 두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 두며 준비를 해 둔다. 실천할 때가 되면 그 진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흡족게 해 드릴 수 있도록, 수시로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혹은 눈앞에 연이어 놓인 난관들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받도록, 아니면 그 진리들이 너희의 삶에 함께하도록 말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가 어떻게 행하든 마냥 행하기만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내가 행할 때 그 행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너의 행함과 생각과 이루려는 결실과 목표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것들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으로 맺게 될 결실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8)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너희가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할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날마다 이 말을 몇 번이나 되새겨 보는지 모른다. 왜 이렇게 말할까? 그것은 사람을 대할 때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어 온 누군가의 체험이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 말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맞는지 가늠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떤 말일까? 너희 모두 잔뜩 기대하고 있지만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아마 크게 실망할지도 모른다. 어떤 이들은 이미 오랜 시간 입에 달고 살 듯했던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껏 이 말을 입이 아닌 마음속에 담아 두고 있었다. 이 말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이다. 아주 간단한 말 아니냐? 간단하지만, 이 말을 진정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무게 있고, 실천할 가치가 있는, 진리 실체가 있는 생명의 언어이자 하나님을 흡족게 해 드리길 원하는 사람이 평생 추구해야 할 목표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일생 동안 행해야 할 도라고 여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이 너희에게는 진리가 아니냐? 이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 생각하고 되새겨 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되려 의심을 품을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할까? 정말 중요할까? 이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은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를 요약하는 건 너무 간단한 것 아닐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귀결시키는 건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 중 대다수는 아마 이 말의 깊은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 말을 적어 두긴 하겠지만 마음속에 새겨 둘 생각은 없다. 그저 노트에 적어 두고, 한가할 때 펼쳐 되새겨 볼 뿐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은 기억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여기고, 적용할 생각은 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내가 왜 이 말을 하겠느냐? 너희의 관점과 생각이 어떠하든,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결말을 정하는 것과 큰 관련이 있기에 나는 반드시 말해 줘야 한다. 너희가 지금 이 말에 대해 어떻게 깨닫고 대하든, 나는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사람이 이 말을 실천하고 체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라는 기준에 이룬다면, 틀림없이 살아남을 것이고, 좋은 결말을 맞을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너의 결말은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너희를 가늠하는지 실상을 우선 알려 주려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으로 맺게 될 결실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9)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련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지 검증한다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던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고 진리를 알려 주었다. 이 진리들은 사람이 지키고 행해야 할 도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게 하는 도이다. 또한 사람이 삶 속에서, 인생 역정 속에서 실천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이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된 것으로 사람은 마땅히 이를 지켜야 하고, 지키면 생명을 얻게 된다. 만약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삶 속에서 살아 내지 못한다면 그는 진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흠족게 하지 못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흠족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은 결말이 없어진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사람의 결말을 정할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의 결말을 정할까? 너희는 내가 말해 주지 않으면 잘 모를 테지만, 많은 사람이 이미 관련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과정을 말하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즉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크고 작은 시련을 주었다.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버림받는 시련을 겪었고, 어떤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 처하는 시련을 겪었으며, 어떤 사람은 잡혀가거나 고문을 받는 시련을 겪었다. 또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해야 하는 시련을 겪었고, 어떤 사람은 지위와 재물의 시련에 맞닥뜨렸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시련이 닥쳤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할까? 그는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려 주고자 하는 핵심이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인지를 보려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네게 시련을 주어 어떤 환경에 처하게 할 때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인지 검증하려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관리하는 본분이 주어졌다고 하자. 그 본분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재물을 접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마련한 것이 아니냐?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너에게 닥치는 일은 다 하나님이 마련한 것이다. 너에게 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네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실천하는지,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은밀히 관찰하며 지켜볼 것이다. 하나님은 그 결과에 가장 관심을 기울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통해 네가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렀는지 가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이 닥쳤을 때 사람은 흔히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하나님의 요구 기준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보려는 것이 무엇이고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대신 이런 생각만 한다. ‘나한테 이런 일이 주어졌으니 소홀히 하지 말고 신중을 기해야지! 이건 하나님의 제물이니까 손을 대선 안 돼.’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고선 책임을 다했다고 여긴다. 이 시련의 결과에 대해 하나님은 만족했을까, 아니면 만족하지 못했을까? 너희가 말해 보아라.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재물을 접하는 일이 주어졌을 때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 틀림없이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근접했지만 아주 적절하지는 않다.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외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일이 닥쳤을 때 먼저 그것을 하나님이 마련한 환경,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책임이나 사명으로 여기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일이 닥쳤을 때 너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준 시련으로 여겨야 한다. 일이 닥쳤을 때 네 마음속엔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에게서 온 일이니 어떻게 해야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지 않을지 생각해야 한다. 방금 우리는 제물 보관에 대해 말했다. 제물과 관련 있고 또 너의 본분 및 책임과도 관련 있는 일이다. 그 책임은 마땅히 해내야 한다. 그러나 이 일이 주어지면서 시험도 따르지 않을까? 당연히 시험이 있다! 시험은 어디에서 오느냐? 사탄에게서 비롯되기도 하고 사람의 사악하고 패괴된 성품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시험이 있다는 것은 이 일이 사람이 굳게 서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말이다. 굳게 서는 것 역시 너의 책임과 본분이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런 작은 일을 굳이 큰 문제로 여길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려면 우리 곁이나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일단 우리의 입장에서 중요한 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시하지 말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검증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태도는 어떠하냐? 너에게 이런 태도가 있다면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해 준다. 너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너에게 하나님을 흠족게 해 드리고 싶다는 이런 소망이 있다면, 네가 실천해 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다’라는 이 기준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 일이나 평소 사람들이 아예 언급하지 않는 일은 작은 일로 여기고 진리의 실천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닥치면 가볍게 생각해 그냥 흘려보낸다. 사실 이런 일이 닥쳤을 때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하는지를 배워야 할 때이다. 또한 너는 이런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더더욱 잘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너의 곁에서 너의 언행을 관찰하고 행동과 생각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저는 왜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네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는 도를 가장 중요한 도로 삼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사람의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에 기반해 사람에게 행하는 미묘한 사역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너는 정말 부주의한 사람이구나! 무엇이 큰일이고 무엇이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과 관련된 일에는 크고 작음의 구분이 없다. 이 말을 너희는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네.) 사람이 보기에 매일 닥치는 일 중에 어떤 일은 아주 크고 어떤 일은 아주 작다. 흔히 사람들은 큰일을 아주 중요한 일로 간주하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막상 큰일이 주어져도 사람의 분량이 작고 자질이 부족한 탓에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고, 아무런 깨달음도 얻지 못하며, 가치

있는 실제적 인식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가 하면 작은 일은 무시하면서 조금씩 흘려보낸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검증받고 시련받을 무수히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너를 위해 마련한 사람과 일, 사물과 환경을 소홀히 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이 너를 온전케 하고 인도하려는 것을 네가 날마다, 더 나아가 매 순간 저버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환경을 마련해 너를 은밀히 관찰하고 네 마음과 모든 생각을 감찰한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려고 하는지를 본다. 만일 네가 경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한 번도 참답게 대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너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 마련한 환경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너에게 주어진 사람과 일이 진리나 하나님의 뜻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너에게 이렇게 여러 차례 환경과 시련을 주었음에도 너에게서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에게 수차례의 시련이 주어졌음에도 네 마음이 하나님을 크게 높이지 않고 하나님이 마련한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하나님이 준 시련이나 검증으로도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려 준 기회를 지속적으로 밀어내고 흘려보낸다면 그것은 엄청난 패역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슬퍼하겠느냐? (슬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또 크게 놀랄 것이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늘 슬퍼하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않으신다고? 그럼 하나님은 언제 슬퍼하시는 거지?’ 어쨌든 하나님은 이 일에서는 슬퍼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서 언급했던 사람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 사람이 하나님이 주는 시련과 하나님의 검증을 밀어내고 도피하려 할 때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태도만을 취한다. 어떤 태도일까?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이런 사람을 증오하고 버린다. ‘증오와 버림’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돼 있다.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할까? ‘증오’에는 극도로 혐오하고 미워한다는 의미가 있다. ‘버림’은 어떤 의미일까? 내게 있어서는 ‘포기한다’는 뜻이다. ‘포기’가 어떤 뜻인지 너희는 다 알고 있겠지? 결론적으로 ‘증오와 버림’이란 하나님이 위에서 말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에게 취하는 마지막 반응이자 태도로, 사람에게 크게 혐오감과 반감을 가져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도를 전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내린 최종 결단이다. 이제 너희는 내가 한 말의 중요성을 깨달았느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의 결말을 정하는지 알겠느냐? (날마다 다른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방식으로 정하십니다.) ‘다른 환경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고 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출발점은 무엇일까?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 각기 다른 시간과 지점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시련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시련하는 것일까? 사람에게 닥치는 모든 일에서, 네가 듣고 보고 직접 겪는 모든 일에서 네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인지를 보려고 시련하는 것이다. 이런 시련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을 몇 년간 믿어 왔는데 왜 제게는 시련이 닥치지 않은 걸까요?” 시련이 닥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마련한 환경을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시련에 대해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에게도 시련이 몇 번 닥쳤지만 정확한 실천의 길을 몰랐었습니다. 실천했다 하더라도 제가 과연 그 시련 가운데 굳게 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태인 사람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가늠하는 기준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내가 앞서 언급했던 그 말이다. 즉, 내가 행하고 생각하고 드러낸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인지를 확정한다. 이것이 쉬운 일이나? 말로야 쉽겠지만 실천하기도 쉬울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온전케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에서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할 줄 모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 형벌과 심판을 겪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체가 있게 됩니다.) 너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은 쉽게 해낼 수 있으리라 느낄 것이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지금 너희는 많은 도를 듣고 진리 실제로 많은 양육을 받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는지 이론과 의식상으론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기’를 실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쉽게 해낼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왜 실제로 해내지 못할까? 바로 사람의 본성과 본질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한 원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으로 맺게 될 결실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0)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과 마주하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 욕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왜 이 일을 언급하겠느냐?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사실을 설명하기 전에 너희에게 하나 묻겠다. 욕은 하나님을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무엇 때문일까? (깊이 패괴되었기 때문이다.) ‘깊이 패괴되었다’는 것은 문제의 표면적인 현상일 뿐 나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너희들은 평소 ‘깊이 패괴되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 ‘하나님에 대해 충성심이 없다’, ‘순종하지 않는다’,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다’와 같은 도리와 글귀를 곧잘 말한다. 이런 실속 없는 말들을 입에 달고 살면서 그것으로 모든 문제의 본질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실천법이다. 다른 성질의 문제들을 똑같은 답으로 해석하는 것은 진리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나는 그런 답을 듣길 원치 않는다. 잘 생각해 보아라! 이 일에 대해 너희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만 나는 여기서 날마다 보고 느낀다. 그래서 너희는 행하고 있고 나는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너희가 행하고 있을 때 너희는 이 일의 본질을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거기에서 이 일의 본질을 볼 수 있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본질은 무엇일까? 왜 지금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악에서 떠나지 못할까? 너희의 답은 이 문제의 본질을 전혀 해석할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 그것은 여기에 너희가 모르는 근본 원인이 하나 있기 때문이다. 이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너희가 무척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럼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려 주겠다.

하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을 무엇으로 여겼을까?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은 사람을 가족으로 여겼고 그의 사역 대상으로 여겼으며 정복하고 구원하고 온전케 할 대상으로 여겼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에 대해 가졌던 태도다. 그러나 당시 사람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했을까? 사람은 하나님을 생소하게 느끼며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에 대해 갈피를 못 잡는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랐고,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대하고 행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있었을까?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관점도 없었다. 사람의 관점이란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상상을 말한다.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이면 받아들이고 부합하지 않는 것이면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극력 저항하고 반대했다. 이것이 처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였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족으로 여겼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낯선 사람으로 대했다. 그러나 일정 기간 하나님이 사역한 후,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참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이때 사람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여겼느냐? 생명줄로 여겼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약속을 받기를 원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으로 여겼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정복할 대상으로 여겼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검증하고 시련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대상이었다. 사람은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가 사람을 정복하고 구원할 수 있음을 보았고, 하나님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는 종착지를 얻을 기회가 있음을 보았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은 조금이나마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다.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표면적인 도리상의 인식도 조금 생기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해 점차 '익숙'해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한 도, 선포한 진리, 행한 사역에 대해서도 서서히 '익숙'해졌다. 그런 이유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낯설지 않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진리의 도를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사역도 무수히 많이 체험했다. 하지만 수많은 요인,

그리고 상황의 방해와 저지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은 진리를 실천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흠족게 하지 못했다. 사람은 점점 태만해지고 믿음을 잃어 갔으며 점차 자신의 결말이 불확실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사치스러운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며 발전하려고도 하지 않게 되었다. 그저 마지못해 따르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가고 있을 뿐이다. 지금 사람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 하나님은 단지 진리와 그의 도를 사람에게 부어 준 뒤 여러 환경을 마련하고 각종 방식으로 사람을 시련하려고 한다. 그 목적은 말씀과 진리와 그가 행하는 사역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이루는 것이다. 내 눈에 비친 많은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와 글귀와 규례로만 삼아 지킬 뿐, 일을 처리하고 말하거나 또는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도를 자신이 지켜야 할 도로 여기지 않는다. 특히 크나큰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방향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나는 전혀 보지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극도의 반감과 혐오감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차례, 심지어 수백 차례 시련을 준 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겠다!'라는 결심을 드러내는 그 어떤 명확한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이런 결심과 태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전처럼 사람에게 공훈과 관용, 포용과 인내를 베푸는 대신 극도의 실망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실망'은 누가 초래한 것이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각자에게 달려 있다. 이토록 오랫동안 행한 사역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적지 않은 요구를 했고 사람에게 많은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실천했고 하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목표에 따라 명확하게 실천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한 마디로 종합한 말로 방금 우리가 언급했던, 사람이 왜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즉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지 못하는지에 대해 해석해 보겠다. 이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대상이자 사역할 대상으로 여겼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원수이자 대립적인 상대로 여겼다는 말이다. 지금 이 사실에 대해 분명히 깨달았느냐? 사람의 태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태도가 무엇인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분명하다.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길을 찾는 것, 하나님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과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냈다. 하지만 너희가 도를 얼마나 많이 들었든지 상관없이, 너희가 스스로 종합한 내용들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도를 의식 있게 행한 것이 아니다. 그 내용들은 그저 너희가 어떤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경로일 뿐이다. 너희는 그런 목적들을 위해 억지로 규례들을 지키는데, 바로 그런 규례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와 더욱 멀어지고 또다시 하나님과 대립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얘기하는 주제가 다소 무겁기는 하지만 어쨌든 나는 너희가 앞으로의 체험과 시간 속에서 방금 내가 말한 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기처럼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공기처럼 생각해 필요할 땐 존재한다 느끼고 불필요할 땐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끼지 말기를 바란다. 네가 잠재의식 속에서 그렇게 인식할 때는 이미 하나님을 노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는 하나님을 공기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흡족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범위와 원칙 기준에 맞게 실천했지 제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실천 방식은 맞다! 하지만 일이 닳쳤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일이 닳치면 어떻게 실천했느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여기지만, 막상 일이 닳치면 하나님은 공기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불쑥 드러내며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 한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이 존재해야 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긴다. 자신의 뜻대로 실행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하나님의 도를 찾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과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은 위험한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 “제가 위험한 경계에 있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믿어 왔으니 하나님은 저를 버리실 수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차마 버리지 못하실 테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오십 년간 주님을 믿었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저는 가장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가장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오십 년간 저는 가정과 직장,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돈, 지위, 향락과 가족의 단란함 같은 것도 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맛있는 음식도 먹지 않고, 재미있는 것도 즐긴 적이 없으며 좋은 곳에도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일반 사람이라면 견딜 수 없는 고통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너희에게 실정을 알려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 돌을 들어 제 발등을 찌는 존재들이다. 자신의 상상으로 자기 눈을 가렸기 때문이다. 그 상상과 규정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기준을 대체했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케 될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으로 맺게 될 결실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1)

하나님이 사람의 결말을 정하는 방법과 기준

그 어떤 생각과 결정이 있기 전에 너는 우선 너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어떠하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정해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람의 결말을 시간을 기준으로 정한 적도, 받은 고통의

양에 따라 정한 적도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의 결말을 정할까? 시간을 기준으로 사람의 결말을 정하는 방법은 사람의 관념에 가장 부합한다. 또한 현금을 많이 내고 헌신도 많이 하고 대가도 많이 치르고 고난도 많이 받는 등 너희가 종종 보게 되는 사람들은 다 너희의 관념으로 볼 땐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보여 주고 살아 내는 것은 바로 사람의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의 결말을 정하는 기준인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 너희의 관념 속에 있는 기준들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다. 결론적으로 말해,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면 모두 사람이 상상해 낸 것이고, 사람의 관념이다. 네가 계속 너의 관념과 상상을 고집한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느냐? 그 결과는 아주 분명하다. 하나님은 너를 혐오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 원인은 네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알려고 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경험 많은 티를 내고,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며 논쟁하려고만 들기 때문이다. 너의 그런 행위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며,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고 구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네가 이런 관점을 버리고 지난날의 잘못된 관점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요구에 따른다면 아주 좋겠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를 행하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의 상상, 관점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으면 참으로 좋겠다. 매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알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흡족게 한다면 그야말로 너무나 좋겠다! 이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에 곧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런저런 사상과 관점을 기준으로 사람의 결말을 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사람의 결말을 정할까?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사람의 결말을 정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는 사람이 시련을 받는 횟수이고, 둘째는 시련을 통한 결과이다.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사람의 결말을 정한다. 이제 이 두 가지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자.

첫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 시련이 닥칠 때[주: 이 시련 역시 네 입장에서는 아주 사소하고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이 마련한 환경임을 분명히 알게 해 줄 것이다. 너의 분량이 작다면 하나님은 네 분량에 맞고, 네가 깨닫고 감당할 수 있는 시련들을 마련하여 너를 검증한다. 너의 무엇을 검증하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너의 태도를 검증한다. 이 태도가 중요한 것일까? 당연히 중요하다! 그것도 특별히 중요하다! 이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의 태도는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공을 들여 사람에게 이런 사역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너의 태도를 보려고 하고, 네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있는지 보려고 한다. 그러므로 당시 네가 깨달은 진리가 많은 적든 하나님이 주는

시련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깨닫는 진리가 많아짐에 따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에게 알맞은 시련을 마련할 것이다. 너에게 또다시 시련이 임할 때, 하나님은 그때의 네 관점과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발전이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왜 자꾸 사람의 태도를 보려고 하시죠? 사람이 이렇게 진리를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태도까지 봐서 뭐 합니까?”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한다는 건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곁에서 사람의 말과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하나 다 살펴본다. 하나님은 사람의 선행, 사람의 잘못과 과오, 더 나아가 사람의 패역과 배반 등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일일이 기록하여 사람의 결말을 정하는 증거로 삼는다. 하나님의 사역이 점차 깊어질수록 네가 들은 진리도 점점 많아지고, 네가 받아들인 긍정적인 사물과 긍정적인 정보와 진리의 실재도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도 높아질 것이며, 하나님은 너에게 더 큰 시련을 마련할 것이다. 이는 그 기간 하나님에 대한 너의 태도에 발전이 있었는지 검증하기 위함이다. 물론 그때 하나님은 너의 관점과 네가 깨달은 진리 실체가 서로 부합되기를 요구한다.

너의 분량이 점차 커짐에 따라 너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기준도 점차 높아질 것이다. 네가 어릴 때 하나님은 매우 낮은 기준을 설정해 주지만, 너의 분량이 좀 커졌을 때는 그에 상응해 조금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너에게 더 큰 시련이 임하게 할 것이다. 더 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과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더 깊어진 네 인식과 진실한 경외심이다. 그때 하나님이 네게 요구하는 바는 네 분량이 작을 때의 요구보다 더 높고 ‘가혹’할 것이다[주: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혹하겠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정당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련을 주는 기간, 하나님이 이루려는 건 어떤 걸까?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끊임없이 요구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마음을 어떻게 드려요? 저는 본분도 이행하고, 가정과 직장도 내려놓았고, 헌신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이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표현 아닌가요? 거기다 더 어떻게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까? 설마 이런 방식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란 말인가요? 하나님은 대체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시는 건가요?” 그 요구는 매우 간단하다. 사실, 각 단계의 시련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도는 다르나 이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시련을 줄 때, 하나님은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나 사탄에게로 향하고 있는지를 본다. 하나님이 너에게 시련을 줄 때, 네가 하나님과 대립하는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입장에 서 있는지를 본다. 네 마음이 하나님 편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다. 네가 어릴 때 네 믿음은 시련 가운데 한없이 나약하다. 깨달은 진리가 많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지만 네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게 하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고자 한다면, 이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네가 들은 도와 깨달은 진리가 점점 많아지면, 너의 분량도 점차 성장하게 된다. 그때 너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기준은 네가 어릴 때 요구했던 기준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일 것이다. 사람이 마음을 점차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마음이 점차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더 생기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면 그 사람에게 여러 차례 시련을 준다. 시련들을 주는 기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의 어떤 태도도 보지 못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천과 태도를 보지 못하고, 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태도와 결심도 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 차례 시련을 준 뒤 그 사람에 대한 인내심을 접고, 더 이상 관용도 베풀지 않으며 시련도 주지 않을 것이다. 또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사역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의 결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의 결말은 결말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는 어떤 악행을 저지른 게 아닐 수도 있고, 방해와 교란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감추고, 하나님에 대해 명확한 태도와 관점을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 입장에선 그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기를 추구하고 있는지 명확히 볼 수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이상 인내해 주지도,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해 주지도, 공활을 베풀어 주지도 않고,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사역도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생애가 이미 끝난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여러 번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이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 사람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겉으로는 열정적으로 뛰어다녔고 책도 많이 보고 일도 많이 했다. 필기 노트도 열권이 넘고, 글귀와 이치도 많이 이해했다. 하지만 발전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나 명확한 태도도 전혀 볼 수 없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늘 베일에 싸여 있고 봉쇄되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해 봉쇄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진실한 마음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경외심도 보지 못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행했는지는 더더욱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도 얻지 못했는데 이후라고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얻지 못할 대상에게 하나님이 강요를 하겠느냐? 강요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어떠하겠느냐? (혐오하여 포기하시고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상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혐오하여 포기한다. 너희는 그 말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기억했구나. 아주 잘 알아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하나님을 따를 때 어리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도 몰라 인위적이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시련이 닥쳐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에 대해 아주 무감각하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시련 속에서 굳게 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기한을 주어 그 기한 내에 하나님이 주는 시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런 다음 자신의 관점을 밝힐 수 있도록 한다. 하나님은 그 단계에 있는 사람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자신의 관점들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려 혼쾌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일부 기본적인 진리들은 실천하면서도 큰 시련이 닥치면 이내 도망가고 포기하려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여전히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다. 그 결과는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 달렸다. 사람이 적극적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느냐? 포기한다.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기 전에 네가 이미 스스로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이 너를 포기했다고 탓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으로 맺게 될 결실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2)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드물고, 하나님의 마음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도 너무도 적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거나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 갈피를 못 잡고 당황해 추측하거나 아무 대답이나 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태도이냐? 이는 하나의 사실을 증명한다. 즉,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있는 듯 없는 듯한 공기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이렇게 말할까? 그것은 너희가 일이 닥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 왜 모를까? 지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태도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구해 본 적이 있느냐? 교제해 본 적이 있느냐? 없다! 이것은 하나의 사실을 실증한다. 즉, 네가 믿는 하나님과 진정한 하나님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뜻만 되새기고 리더의 뜻만 되새기며, 하나님 말씀 겉면의 도리적인 뜻만 되새길 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거나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상황의 본질은 아주 심각하다! 오랜 세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을 보아 왔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어 왔느냐?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기처럼 대하며 믿어 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답이 없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느끼지도 의식하지도 못했고, 분명한 깨달음과 인식은 더 말할 나위도 없으며, 잠재의식상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대하며 믿어 왔다. 즉,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도 하지 못한다고 여기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도 생각할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또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대하며 믿어 왔다. 그들은 하나님에겐 희로애락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석상 같아서 어떤 일에도 태도나 관점이나 생각이 없고, 사람의 뜻에 지배당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위대한 존재로 여겼다가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다가 하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공호와 관용과 사랑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마땅히 공화를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머리로 ‘하나님’을 상상해 낸다. 그렇게 상상해 낸 ‘하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자신들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이런 상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렀으면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고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우니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슬러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의 잘못, 과오, 패역은 일시적으로 드러난 성품이니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관용을 베풀고 인내할 것이고,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므로 여전히 구원받을 가망이 많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믿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입장에선 사람에 대해 부정하는 태도를 취한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동안 하나님 말씀 책을 보배처럼 여기면서 날마다 보고 읽었겠지만, 막상 진정한 하나님은 한쪽에 방치해 두고 그를 공기처럼, 사람처럼 여겼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목석처럼 대했기 때문이다. 내가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내 눈으로 본 바에 의하면 일이 닥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너희의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는 것과 내면에서 나오는 것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무관했기 때문이다. 너는 그저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자신의 관점이 무엇인지만 안다.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억지로 하나님께 씌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관점을 준칙으로 여겨 고수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너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으로 맺게 될 결실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3)

하나님의 태도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각종 오해를 버려라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는 악인의 악행을 보면 증오할까? (네.) 그는 우매한 사람의 잘못을 보면 어떤 태도를 취할까? (슬퍼하십니다.) 그는 사람이 제물을 훔쳐 먹는 것을 보면 어떤 태도를 취할까? (증오하십니다.) 다들 잘 알고 있다. 그렇지? 사람이 하나님을 흐리멍덩히 믿으면서 진리를 전혀 추구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 너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렇지? ‘호리명당한’ 태도는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거스른 것이 아니니 사람은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 (상대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바로 이런 자를 경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 차갑게 무시하는 태도를 취한다. 한쪽에 내버려 두는 것이다. 즉, 깨우침과 빛 비춤, 채찍질과 징계 등 그 어떤 사역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열외로 취급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거슬러 노하게 하고 자신의 행정을 거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 극도로 혐오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거슬러 노하게 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 극도로 노한다! ‘노’는 일종의 정서이고 심정일 뿐 명확한 태도를 뜻하지는 않지만 이런 정서와 심정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결말을 가져다줄 것이다. 하나님이 극도로 혐오하는 결말이다! 그렇다면 ‘극도로 혐오’하여 초래되는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단 상대하지 않고 한쪽에 내버려 두었다가 ‘추수 후’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그 뜻은 무엇이겠느냐? 그런 사람에게 결말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 부류 사람들에게 결말을 줄 생각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런 자들을 상대하지 않는 것은 매우 정상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느냐? 자신이 저지른 악행과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나쁜 결과를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이 이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명확히 알려 주겠다. 어떤 환상도 가지지 말고, 더 이상 그 어떤 요행심도 품지 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용을 끝없이 베풀지 않을 것이고, 사람의 과오와 패역을 한없이 참아 주지도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도 그 부류의 사람들을 몇몇 만나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큰 감동을 받아 눈물 흘리며 통곡하더군요. 평소에도 무척 즐거워하는 걸 봐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눈물 흘리며 통곡한다고 해서 꼭 하나님께 감동받거나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고는 더더욱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을 거슬러 노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겠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태시키고 포기하려고 작정했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의 결말은 없어진 것이다. 그가 기도하며 스스로 얼마나 만족스러워하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크든 그런 것은 이미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미 그를 혐오하여 포기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앞으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중요하지 않다. 그가 하나님을 거슬러 노하게 한 그 순간 그의 결말은 이미 정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만약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남겨 두었다가 벌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태도이다.

하나님의 본질에는 사랑이라는 요소가 있어 모든 사람에게 공화를 베푼다. 하지만 사람은 그의 본질에 존엄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잊어버린다. 그에게 사랑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그를 제멋대로 거슬러도 아무 느낌과 반응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에게 공화가

있다고 해서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원칙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 있고 진실로 존재하는 분이시, 사람이 상상해 낸 목석이나 어떤 물체가 아니다. 그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마땅히 매 순간 그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태도를 중시하며, 그의 느낌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상상으로 하나님을 규정해서는 안 되고,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강요하여 사람의 방식과 상상대로 사람을 대해 달라고 해서도 안 된다. 네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거슬러 노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노를 시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존엄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심각성을 알았다면 너희 모두 조심스럽게 행하고, 말하며, 하나님을 대할 때 부디 신중하고 또 신중하며 조심하고 또 조심하기를 권고한다! 하나님의 태도가 어떤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말하지도, 일을 하지도 말며, 함부로 딱지를 붙이지 말고, 함부로 결론짓는 일은 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 기다리면서 구해야 한다. 이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행실이다. 네가 우선 이렇게 행할 수 있고 이런 태도를 갖출 수 있다면, 하나님은 네가 무지몽매하고 사리를 모른다고 탓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너의 태도로 인하여 너를 기억하고 인도해 깨우쳐 주거나 혹은 어리고 무지한 너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와 반대라면,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며 정의를 내리는 너의 오만불손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정죄하고 징계할 것이다. 나아가 너에게 벌을 주거나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 결론은 아마 너의 결말과 관련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너희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것을 대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일해서도 안 된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봐야 한다. 단순한 일일지라도 마음속으로 많이 되새겨 보고 많이 생각해 봐야 한다. 네가 정말 언제 어디서나 매사에 이런 원칙에 따라 실천하고, 특히 네가 모르는 일에서도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인도하며 실천의 길을 열어 줄 것이다. 사람이 어떤 행실을 보이든 하나님 쪽에서는 모든 걸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고 있을 것이며, 너의 행실에 따라 정확하고 합당한 평가를 내려 줄 것이다. 네가 마지막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은 너의 모든 행위를 종합하여 너의 결말을 정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 사람들은 모두 진심으로 탄복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 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행한 모든 것과 마음속으로 생각한 모든 것이 너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으로 맺게 될 결실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4)

사람의 결말은 누가 정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너희의 태도이다. 이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이 태도는 너희가 최종적으로 멸망에 이를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예비한 아름다운 종착지에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한다.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하나님은 이미 20 년 넘게 사역하였다. 20 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너희는 자신의 행실에 대해 다소 모호하겠지만,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모든 사람의 행실을 확실하고 진실하게 기록해 놓았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자신이 전하는 도를 듣기 시작해서부터 점점 더 많은 진리를 깨닫고 본분을 이행하기까지, 사람이 이 기간에 보였던 각종 행실을 다 기록해 두었다. 본분을 이행하는 동안 여러 가지 환경이나 시련이 닥치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여러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등을 하나님은 기록부에 다 기록해 두었다.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는 아마 무척 흐릿하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혀 흐릿하지 않고 매우 분명하다. 모든 사람의 결말, 모든 사람의 운명 및 앞날과 관련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심혈이 들어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는 조금도 등한시하지 않고 한 치의 소홀함도 용납하지 않는다. 사람을 위해 이런 기록부를 작성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른 노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해 두고 있다. 이 기간 하나님을 대하는 너의 태도가 어떠했는지가 바로 너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는 무척 진실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너희는 하나님이 매우 공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 또 다른 상상을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결말을 하나님이 정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스스로 정하는 건지 말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누가 정한다고? (하나님이요.) 여전히 모르는구나! 홍콩의 형제자매들이 먼저 말해 보아라. 누가 정하느냐? (사람이 스스로 정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정한다고? 그 말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나? 한국의 형제자매들이 말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행위와 가는 길에 근거해 사람의 결말을 정하십니다.) 객관적인 대답이었다. 너희에게 알려 줘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하는 기간 사람에게 기준을 하나 정해 주었다. 그 기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 사람의 결말을 가늠한다. 네가 하나님의 이 기준에 따라 행한다면 좋은 결말을 얻을 것이다. 반대로 이 기준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결말을 누가 정하는지 말해 보아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 맞느냐?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구원 사역을 하며 아름다운 종착지를 예비해 준다. 사람은 하나님이 사역하는 대상으로, 위에서 말한 결말과 종착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비해 주는 것들이다. 사역 대상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역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진다. 사람은 구원받는 대상이다. 구원받는 대상이란 게 수동적이긴 하지만 이 대상의 태도가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너는 기준도 모르고 목표도 없다. 기준과 목표가 있더라도 네가 협력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너는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결말은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제 대체 누가 결말을 정하는 건지 알았겠지?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5)

사람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기 좋아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한 주제를 교체할 때, 너희는 어떤 사실 하나를 발견하지 못했느냐? 지금 하나님의 태도가 바뀐 것을 발견하지 못했느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고정불변한 것이냐?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인내하고, 계속 사랑과 긍휼을 사람에게 무제한으로 베풀어 주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 ...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의 상징으로 규정해 버린다. ‘하나님께는 사랑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하든, 어떻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대하든, 어떻게 거역하든 다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람을 포용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거야. 어리고 무지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의 패역도 긍휼히 여기실 거야.’ 정말 그러할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내를 한 차례 혹은 몇 차례 느끼고 난 후 그 경험을 하나님을 알게 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한 번으로 인해 하나님은 영원히 자신을 인내해 주고 긍휼히 여겨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내가 자신을 대하는 하나님 태도의 기준이라고 평생토록 여긴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한 번 관용을 베푸는 것을 가지고 영원히 관용을 베풀어 줄 거라고 규정지어 버린다. 게다가 그 관용이란 기한도 조건도 없고, 나아가 아무 원칙도 없는 관용이다. 이런 인식법이 맞느냐?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너희는 어리벉벉해지는데, 너희의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얘기를 적지 않게 들었다. 하지만 너희 머릿속에는 이런 내용들과 이런 측면의 진리들이 그저 이론과 글자로만 기억되어 있을 뿐, 지금까지 아무도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느끼거나 보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 모두 흐리멍덩하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오만불손하고 무시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이런 태도로 어떤 상황이 초래되었느냐? 너희는 늘 하나님을 규정하게 되었다. 조금만 알아도 아주 만족스러워하며 하나님의 전부를 얻었다고 생각하곤 하나님을 그곳에 규정지어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면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더 이상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더 이상 그 어떤 관용과 인내도 베풀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극도의 혐오감과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은 속으로 이 말에 반발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저의 하나님이 아니고, 더 이상 제가 따르려고 했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 될 자격이 없고 저는 당신을 계속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저에게 긍휼과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한없이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인내해 주시면서 사랑과 인내와 관용이 있는 분이심을 보여 주셔야 저는

당신을 따를 것이고, 끝까지 따라갈 자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내와 긍휼이 있어야 저의 패역과 과오가 한없이 용서받고 죄 사함 받을 수 있으며, 그래야 제가 언제 어디서 죄를 지어도 언제든지 죄를 자백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언제 어디서 당신을 거슬러 노하게 해도 당신은 저에 대해 그 어떤 견해를 가지거나 규정을 내려선 안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마음속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이렇게 주관적이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죄를 사해 주는 도구나 아름다운 종착지를 가져다주는 이용 대상으로 생각할 때, 너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생생히 살아 있는 하나님을 네 대립 면에 놓고 원수로 삼은 것이다. 이것이 내 눈에 비친 모습이다. 네가 아무리 말끝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진리를 추구합니다”, “저는 성품이 변화되고 싶습니다”, “저는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흠족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본분을 잘 이행하고 싶습니다” 등등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번지르르 그럴듯한 이론을 많이 갖추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지금껏 많은 사람이 자신이 익힌 규례나 도리, 학설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을 배웠고, 그렇게 자연스레 하나님을 자신과 대립하는 편에 놓아두게 되었다. 글귀와 도리는 익혔지만 진정으로 진리의 실제에는 진입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알며,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참 슬픈 일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으로 맺게 될 결실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6)

하나님이 사역하는 기간 도망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도에 대해 확신했으면서도 여러 이유로 인해 아무 말 없이 떠나 버리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 그들은 작별 인사도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마음대로 떠나 버린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 두고, 먼저 그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살펴보자. 하나님의 태도는 아주 분명하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떠난 그 순간부터 그의 하나님을 믿는 생애는 이미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사람이 스스로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마침표를 찍어 준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건 이미 하나님을 원치 않아 저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를 원하겠느냐? 또한 이런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작정했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 노하게 만든 것이다. 물론 그 사람은 길길이 날뛰면서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며 욕하지 않았고, 과격하거나 악랄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밖에서 놀 만큼 놀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때 다시 돌아올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다시 돌아올 거야.’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제가 밖에서 상처 입거나, 바깥세상의 어둡고 사악한 면을 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싶지 않게 되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속으로 계산해 놓았고, 자신을 위한 퇴로를 남겨 두었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 자신들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혼자만의 바람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자신들이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철저히 포기했고, 속으로 이미 그의 결말을 정해 두었다. 어떤 결말일까? 그 사람을 쥐들과 같이 분류해 두었다가 그 쥐들과 함께 멸망당하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종종 보게 된다. 누군가 하나님을 저버렸는데 징벌을 받지 않는 상황 말이다. 하나님은 원칙 있게 일을 한다. 어떤 일들은 사람이 볼 수 있지만,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마음속으로만 정해 뒀기에 사람은 그 결과를 보지 못한다. 사람의 눈에 보인다고 해서 진실한 일면이라고 할 수는 없다. 네가 보지 못한 일면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생각과 결정이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기간 도망친 사람은 참도를 배반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심한 징벌을 내릴까?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크게 노할까? 먼저 하나님의 성품은 위엄과 진노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는 아무에게나 죽임을 당하는 온순한 양이 아니고,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꼭두각시는 더더욱 아니며, 사람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공기도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거슬러 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거슬러 노하게 한다’는 것은 아마 한 마디 말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생각 때문일 수도 있으며, 어떤 악랄한 행위 때문일 수도 있다. 또는 어떤 아주 온화한 행위, 사람의 관점에서나 사람의 도덕 윤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넘어갈 수 있는 행위 때문일 수도 있다. 어떤 학설이나 이론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네가 일단 하나님을 거슬러 노하게 하면 너의 기회는 사라져 버리고, 그에 따라 너의 마지막 날도 다가오게 된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네가 만약 하나님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걸핏하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될 것이다. 만약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행해야 할지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일단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는 도는 네가 많은 진리를 깨닫고 시련을 겪고 징계를 경험해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네 마음속 태도와 네가 드러내는 본질이다. 사람의 본질과 사람의 주관적인 태도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시하는 태도와 진리를 혐오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 노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기에 그들은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이미 왔다는 소식도 들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도 체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혹된 상황이나 흐릿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강요당해 떠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의식과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택한 것이다. 그들은 방향을 잃거나 버려지게 되어 떠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기에 그들은 양 떼에서 잃어버린 어린양이 아니고, 방향을 잃은 탕자는 더더욱 아니다. 그들은 제멋대로 거리낌 없이 떠난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런 상태와 상황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 노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 노하게 한’ 것이 그들에게 수습할 수 없는 결말을 가져다준 것이다. 이런 결말이 무섭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을 거라고 여기고, 자신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그가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징벌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거기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거슬러 노하게 만들었다. 이는 더욱 무서운 일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오만불손한 태도가 이미 하나님의 행정을 거슬렀는데,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겠느냐? 사람이 참도를 확신한 후 의식이 또렷하고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해 떠난다면, 하나님은 그가 구원받는 길을 막아 버린다.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대문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게는 닫힌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처리하는 원칙이다. 그 사람이 다시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문을 열어 주지 않을 것이며, 그는 영원히 문밖에 버려질 것이다. 너희 중 일부는 아마 성경 속 모세 이야기를 읽어 보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뒤 250 명의 족장들은 모세의 여러 행실과 각종 이유 때문에 불복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그들은 누구에게 불복한 것이냐? 그들은 모세에게 불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배에 불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행사에 불복한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이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은 사람이 보기에 매우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다! 최소한 글자 자체로 표현된 뜻은 심각하지 않고, 법적으로도 별일이 아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반항하는 말이나 단어가 없고, 모독의 뜻도 없다. 그저 평범한 말에 불과하다. 그런데 왜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큰 노를 불러일으켰을까? 그들의 이 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겨냥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한 몇 마디 말에 나타난 성품과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거슬러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렀다. 그들의 최종 결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다. 일찍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는 사람의 관점과 태도는 무엇이고, 왜 그의 관점과 태도는 하나님의 이런 처분을 초래한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배반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한 것이다. 성경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라고 한 것과 같다. 이제는 이 일에 대해 잘 알았겠지?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7)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님은 살아 있는 하나님이다. 어떤 일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각기 다른 행실을 보인다. 하나님은 사람의 각기 다른 행실에 따라 다른 태도를 취하는데, 이는 그가 목적도 아니고 공기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태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태도를 알아 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쉽게 규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쉽게 거스르지 않을 것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 줄 것이다. 이로써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더 이상 자신이 알고 있는 글귀의 이치나 이론을 하나님께 쫓아가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사역을 보지 못하고 짐작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의 행위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있다. 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부분이다. 만약 네가 속으로 늘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해 보자.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을 거야.' 네가 한편으론 이런 관점을 가진 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또 한편으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거슬러 노하게 할 것이다. 너는 이미 위험한 경계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으면서도 진리 실재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더더욱 모르며, 생명과 분량이 전혀 자라지 않는 사람, 얕디얕은 수준의 도리밖에 지키지 않는 사람 말이다. 그렇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그들은 지금껏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직시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면 기뻐하겠느냐? 마음에 위로가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추구하고 하나님을 대하는지, 사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공기처럼 여겨 뒷전에 미뤄 두지 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있고 확실히 존재하는 하나님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는 셋째 하늘에서 할 일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시시각각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언행을 감찰하고 있으며, 너의 행실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감찰하고 있다. 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 원하든 원치 않든 너의 모든 행위와 마음과 생각은 다 하나님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고 있다. 너의 일거수일투족으로 인해, 너의 태도로 인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에 대한 견해를 바꾸고

있고, 너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일부 사람들에게 충고하고자 한다. 자신을 하나님 손안의 귀염둥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매우 총애하고 하나님에겐 네가 없으면 안 된다고 착각하지 말고, 너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고정불변이라고 착각하지도 말아라. 꿈꾸지 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의롭게 대한다. 그는 아주 신중하고 엄숙하게 정복 사역과 구원 사역을 행한다. 이것이 그의 경영이다. 그는 모든 사람을 엄격하고 진지한 태도로 대한다. 사람을 애완동물처럼 어르고 달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총애나 지나친 애정이 아니다. 사람에 대한 공호와 관용은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방임이 아니다. 반대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끼고, 가엾게 여기며,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공호와 관용에는 그의 기대가 깃들여 있으며, 그의 공호와 관용은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밑천이다. 하나님은 살아 있는 분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다. 사람에 대한 그의 태도에는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은 바뀔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규례가 아니다. 인류에 대한 그의 마음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점차 바뀌고 달라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아마 너는 이 일을 그리 심각하지 않게 여기면서 너의 고정 관념으로 하나님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상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일은 너의 관념과 정반대이다. 네가 자신의 관념으로 하나님을 가늠하는 순간, 너는 이미 하나님을 거슬러 노하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네 상상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너의 말처럼 일을 대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신중하게 대하라고 일깨워 주고자 한다. 또한 범사에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원칙에 따라 실천하는 법을 배우라고 일깨워 주고자 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태도에 관한 일을 대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올바라야 하고, 분별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성실히 구해야 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장난감처럼 여겨 함부로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리거나 오만불손한 태도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고 너의 결말을 정하는 과정에서 너에게 공호와 관용을 베푸든, 심판과 형벌을 주든 결론적으로 너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너의 태도와 인식에 달려 있다. 네가 하나님의 어떤 면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죽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살아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기억했겠지? 내가 한 말들은 사실이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너희의 내적 상태와 분량을 감안해 나는 더 높은 요구로 너희의 적극성을 꺾고 싶지 않다. 그런 식으로 너희 마음을 처량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에 대해 큰 실망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 반대로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로 앞을 향해 나아가기 바란다. 하나님을 믿는 일을 흐리멍덩하게 대하지 말고, 가장 큰 일로 여겨 마음속에 담아 두고, 실제와 연결 짓고 실생활과 연결 짓기를 바란다. 입에만 달고 있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일은 목숨과 결부된 일이고, 너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일을 우스갯소리나 아이들 장난으로 여기지 마라!

오늘 너희와 나눈 말을 통해 너희가 뭐라도 깨닫고 얻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한 말에 대해 또 궁금한 것이 있느냐?

이런 주제는 다소 새롭기도 하고, 너희의 관점이나 너희가 평소 추구하고 중시하던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교제하고 나면 내가 한 말들에 대해 너희에게 공통의 인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주제들은 아주 새롭고 너희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말들이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오늘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은 너희에게 겁을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너희를 책망하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어쨌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태도도 알지 못한다. 그뿐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 그렇게 열성적으로 관심을 갖지도 않는다. 무턱대고 믿다 보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흐리멍덩하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해 너희가 알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즉,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각 부류의 사람에 대한 그의 태도는 어떤지,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의 요구와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그가 요구한 기준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말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너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판단의 기준이 생겨 자신이 이 길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아직 얻지 못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아직 발을 들여놓지 않은 영역은 무엇인지 알게 하려는 것이다. 평소 너희가 교제할 땐 일부 사람들이 늘 말해 오던 주제만 다루다 보니 교제의 범위가 매우 좁고 내용도 너무 얇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범위 기준과 거리가 멀고 차이도 난다. 계속 이대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도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기존 말씀을 그저 숭상할 대상으로 삼고, 의식과 규례로만 삼게 될 뿐이다. 그게 다이다! 사실 너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전혀 없고, 또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희 마음을 얻은 적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 가는 일이 매우 어렵다고 여긴다. 그것도 솔직한 말이다. 확실히 좀 어렵다! 본분을 이행할 때 사람에게 외적인 일을 하라고 하거나 열심히 일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아주 쉽다고 여길 것이다. 이는 다 인류의 능력 범위 안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관련된 영역은 사람에게 있어 분명 어려움이 있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실체에 진입하는 일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네가 첫걸음을 떼고 진입하기 시작하면 어려움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으로 맺게 될 결실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8)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작이다

방금 누가 “저희는 하나님에 대해 읍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요?”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선 전에도 살짝 언급한 적이 있다. 그렇지?

사실 우리는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다. 당시 옳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했고,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주재자로 여겼다. 그는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고 창조주로 여겨 경배했다. 그런데 지금의 사람은 왜 하나님을 이렇게도 대적할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까? 첫 번째 원인은, 지금의 사람은 사탄에 의해 심히 패괴되었고, 사탄의 본성이 깊이 뿌리박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서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으로 결정된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의 대립 상대로 여기고 사람의 원수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은 이처럼 간단하다. 이것도 조금 전 교제할 때 언급하지 않았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이 원인이 맞지 않느냐? 설령 네가 하나님에 대해 인식이 좀 있을지라도 너의 인식은 어떤 것이냐? 모두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알려 준 것 아니냐? 너는 고작 이런 것과 관련된 이론과 도리만 알 뿐이다. 하나님의 진실한 일면에 대해 깨달은 것이 있느냐? 주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느냐? 실제적인 인식과 체험이 있느냐? 하나님이 알려 주지 않는다면 알 수 있겠느냐? 이론을 알았다고 해서 진실한 인식을 갖추고 있음을 뜻하는 건 아니다. 결론적으로 네가 어떻게 알게 되었든, 얼마나 알고 있든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기 전까진 하나님은 너의 원수인 것이다. 또한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기 전까진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대립되는 지점에 서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네가 사탄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너는 아마 하루 세끼 시중들며, 차를 대접하고 물을 떠다 드리며, 그의 생활을 돌볼 것이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 같기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일이 생기면 사람의 관점은 늘 하나님과 어긋나고, 사람은 늘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사람이 겉으로는 그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그와 마음이 잘 맞음을 뜻하진 않는다. 일단 일이 생기면 사람은 거역하는 본색을 드러낸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대치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대치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대립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적대시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과 대립되는 지점에 놓고 대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주관적인 의지와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과 대립되는 이런 본질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온 모든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대하거나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대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추측과 의심이다. 그런 다음 사람은 재빨리 저항하는 태도를 취하여 하나님과 대립할 것이다. 이어서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하나님을 ‘논박’하거나 하나님과 겨루려 들 것이다. 심지어 이런 하나님을 따를 가치가 있는지 의심하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이 선택을 끝까지 고수할 것이다. 가령 하나님에 관한 어떤 유언비어나 비방을 들었을 때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 ‘그 유언비어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존재하는지, 아닌지 모르니 조용히 지켜봐야지.’라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런 다음 ‘이 일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네. 이 유언비어는 진짜일까?’라고 생각해 본다. 물론 겉으로는 아무런 태도도 취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태도와 관점은 어떤 본질을 지니고 있느냐? 배반이 아니냐? 이 일이 닥치기 전까진 그 사람의 관점이 보이지 않으니 그는 하나님과 대립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하지만 막상 일이 닥치면 그 사람은 즉시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대립한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사람은 하나님에게 대립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하나님이 사람을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따를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든,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되었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어떻게 억제하든,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스스로에게 요구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한다. 이것은 사람의 본질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 네가 그를 하나님으로 대하고 정말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그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겠느냐? 마음속에 그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겠지? 이 세상 풍조가 이렇게 사악하고, 이 인류가 이렇게 사악한데 너는 왜 그들에 대해서는 관념을 가지지 않는 것이냐? 너 스스로가 그렇게 나쁜데 왜 관념을 가지지 않느냐? 몇 마디 유언비어나 비방으로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큰 관념과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갖는데, 너의 분량이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다. 모기나 역겨운 파리 몇 마리가 ‘앵앵거렸을’ 뿐인데 미혹되었단 말이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느냐? 사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아주 분명하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차갑게 무시해 버린다. 아예 상대하지 않는다. 이 무지한 자들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는 그를 필사적으로 적대하려고 하고, 그의 마음에 합하는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얻을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또 일부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계속 이렇게 너희에게 상처 주는 것을 원하느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내 말은 사실이다! 내가 계속 이렇게 너희에게 상처를 주고 늘 너희의 흉터를 들춰내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애초에 너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애써 지키고 보호하는 위대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상상해 낸 것으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밝히는 편이 좋겠다. 그러면 ‘진상이 환히 드러나지’ 않겠느냐? 참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해 낼 수 있는 분이 아니니 너희 모두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 가는 데에 유익하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으로 맺게 될 결실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9)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른 시간이 얼마나 되었든 그들의 생각과 관점은 바뀐 적이 없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의 처세 원칙과 방식을 지키고 있고, 이방인과 같은 생존 법칙과 신념을 지키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은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려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취미로만 믿을 뿐이고, 하나님을 정신적 의지처로만 여길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은 알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 다시 말해, 진정한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들은 관심을 가지려고도,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늘 ‘하나님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강렬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고, 자신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입으로만 인정하면서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그 어떤 실제적인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현명한 것이라고 여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으로 여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방인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나요? 본분을 이행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말을 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다 외적 행실이지 사람의 본질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행실을 보지 않고 사람의 내적 본질만 본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이런 정의를 내리게 된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왜 저렇게 하시죠? 난 이 일을 납득할 수 없고 저 일도 납득할 수 없어요. 이 일은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말에 나는 이같이 답할 것이다. “너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 일이 너와 상관이 있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네가 하나님에 대해 흠잡을 자격이 있느냐? 네가 그를 믿기라도 하느냐? 그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느냐? 너의 믿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그의 행사가 너와 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 마음속에서 너의 위치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네가 하나님과 대화할 자격이 있겠느냐?”

훈계의 말씀

너희는 이 말을 듣고 무척 괴롭지 않으냐? 듣기 싫거나 받아들이기 싫을지라도 이는 다 사실이다. 이 단계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태도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알아 가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너 자신이다. 너희는 내 말이 듣기 거북하다고 탓하지 말고, 내 말이 너희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다고 탓하지도 마라.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사실이지 너희에게 타격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든 모두 너희가 올바른 길을 가기 바라고, 너희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기를 바라는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의 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명확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너희가 흐리멍덩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온전케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의 결말을 정하는지를 너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말이다. 언젠가 네가 따라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나는 이미 내게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는 이미 많은 말을 분명히 해 주었기 때문이다. 네가 자신의 결말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전적으로 너에게 달렸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태도로 사람들의 결말을 대하고 있다. 그에게는 자신만의 가늠 방식이 있고, 자신만의 요구 기준이 있다. 그 가늠 기준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 이유로 어떤 이들의 걱정은 불필요한 것이다. 이제 안심이 되겠지?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으로 맺게 될 결실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0)

실제로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지 감추어져 있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의도적으로 어느 누군가를 피한 적도 없고, 스스로를 숨긴 적도 없다.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공개되어 있고, 숨김없이 모든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다.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마주한다. 또한 그의 사역은 모든 사람에게 행해진다. 그는 이런 사역들을 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그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고, 자신의 본질과 소유와 어떠함으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인도하며 공급하고 있다. 좋은 환경이든 열악한 환경이든, 각 시대와 각 단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고, 그의 소유와 어떠함 역시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다. 그의 생명이 쉽 없이 사람에게 공급되고 사람을 붙들어 주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은 감추어져 있다. 왜 이렇게 말할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이해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일단 이런 자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깨달았다고 한다면 바로 그의 결말이 임박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 심판받고 정죄받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런 부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의식적인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만 몰두하고,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 자기 마음속으로 상상한 하나님과 관념 속의 하나님,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만 믿는다. 이들은 참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해하려 들지도 않는다. 또한 그에게 등을 돌리고 가까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보기 좋게 꾸미고 포장한다. 이러면서 자신의 믿음이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자신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참된 하나님 자신은 이들과 무관하며, 이들을 인도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존재하는 관념과 상상,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내린 규정들이다. 일단 이들이 참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참된 성품과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들의 행위와 믿음과 추구하는 것이 정죄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아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깨닫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차라리 하나님이 허구적이고 공허하며 막연한 존재이기를 바란다. 차라리 하나님이 그들이 상상한 바와 똑같아서 그들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끝없이 채워 줄 수 있는 존재이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도록 하고, 축복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도록 하며, 역경이 닥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담대함을 주고, 버팀목이 되어 주도록 말이다.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은혜와 축복의 범위에만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역시 상상과 글귀상의 말에만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 자신을 분명히 보고 싶어 하며, 하나님의 성품, 소유와 어떠함을 확실히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 사람들은 진리의 실재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정복되고 구원받고 온전케 되기를 바란다. 이 사람들은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마련해 준 환경과 하나님이 배정한 사람과 일, 사물들을 체험하며, 진심으로 기도하고 구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참된 성품과 본질을 가장 이해하고 싶어 한다. 그리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체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참된 일면을 볼 수 있도록 말이다. 또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확실히 거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생겨 그들이 더 이상 상상과 관념 속에서, 막연한 상태에서 살지 않게 될 수 있도록 말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간절히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은 사람의 체험 과정에서 언제나 필요하고, 사람에게 평생토록 생명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이들이 일단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더 잘 협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고, 자신의 본분을 잘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두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보이는 태도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생각이 없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싶고 하나님 자신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느끼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차라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패권을 다투고,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심지어 부인까지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참된 하나님 자신이 자신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자신의 상상과 야심을 충족시키길 원할 뿐이다. 그래서 이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집과 생업까지 버릴지라도 악행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저지른다. 심지어 제물을 훔쳐 먹는 자들, 제물을 함부로 쓰는 자들도 있다. 또 어떤 자들은 뒤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어떤 자들은 지위를 이용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거하고 높이며 사람이나 지위를 두고 하나님과 쟁탈전을 벌이기도 한다. 이들은 여러 가지 방식과 수단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구슬려 사람을 통제할 생각만 한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고의로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도록 만들어 자신을 하나님으로 대하게 한다. 이런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저는 패괴된 사람입니다. 저 역시 패괴되어 교만하니 저를 우러러보지 마세요. 제가 일을 잘했다 해도 그것은 다 하나님이 저를 높여 주셨기 때문이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왜 그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 사람들 마음속 자신의 지위를 잃을까 무척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높인 적도, 증거한 적도 없다. 그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껏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이라는 주제에 나오는 단어들은 간단해 보이지만 각자가 받는 의미는 서로 다른 것이다. 겉핥다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죄일 것이고, 진리와 실재를 추구하고 자주 하나님 앞으로 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은 말이다. 그러기에 너희 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머리가 멍해지면서 반발심이 잔뜩 생겨난다. 괴로운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주제라고 느낀다. 그 이유는 이는 그들에게 무척 유익한 주제로, 그의 생명 체험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자, 핵심 중의 핵심이며, 하나님을 믿는 근간이고, 사람이 떠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주제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며, 낯설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다. 하지만 어쨌든 이 주제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새겨들고,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 네가 이 주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취급하며, 어떻게 깨닫든지 간에 결코 이 주제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1)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면서부터 사역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간단한 사역이었다. 간단한 사역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이 심화되었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체적 사역을 다량으로 행하고 수많은 말씀을 선포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본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게 감춰져 있다. 그는 두 차례 성육신했지만 성경의 기록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참모습을 본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알기로 하나님의 참모습을 본 사람이 있느냐? 없다. 하나님의 참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즉, 하나님의 진실한

면모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참모습이나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에게 감춰져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열납한 의인 욥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참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의도적으로 자신의 참모습을 감춘 이유는 무엇일까? 혹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놀랄 것을 염려하신 겁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참모습을 감추시는 이유는 사람은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데에 반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분을 볼 수 없는데, 보면 바로 죽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자들은 이렇게도 말한다. “하나님은 사역을 경영하시느라 매일 바쁘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낼 여력이 없으실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은 인류에게 그의 참모습을 보여 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결론이다. 여기에서 ‘사람에게 감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취한 일이다. 즉, 하나님은 일부러 사람이 그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너희는 다 알아들었겠지? 이렇듯 하나님은 지금껏 사람에게 그의 본체를 나타낸 적이 없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본체가 존재한다고 여기느냐? (네.) 이는 분명하다! 하나님 본체는 의심의 여지 없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본체가 얼마나 거대하고,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이것이 인류가 탐구해야 할 문제일까? 아니다! 이에 대한 답은 ‘아니오’이다. 하나님의 본체와 관련된 주제는 우리가 탐구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탐구해야 할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 주제로 돌아가 보자. 하나님은 왜 지금껏 인류에게 그의 본체를 나타내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왜 의도적으로 인류에게 그의 본체를 감췄을까? 이유는 단 하나다. 창조된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해 왔지만,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과 본질에 대해 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인류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인류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적대적인 인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껏 인류에게 그의 본체를 나타내지 않고 의도적으로 감춘 유일한 이유이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았겠지?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2)

하나님은 경영을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최선을 다해 그의 사역을 하고 있다. 그는 비록 자신의 본체는 감추어 왔지만, 계속 인류와 함께하면서 인류에게 사역하고 그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본질로 온 인류를 인도하고 있고, 그의 큰 능력과 지혜와 권병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역하고 있다. 그렇게 율법시대가 있었고, 은혜시대가 있었으며, 지금의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가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본체는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소유와 어떠함, 그리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남김없이 사람에게 나타내 사람이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류는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인류가 접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은 완전한 하나님 자신의 발현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위치에 서서 사역하더라도, 그는 그의 참된 신분으로 사람을 대하고, 자신이 해야 할 사역과 말씀을 한다. 셋째 하늘의 높이에서든, 육신의 위치에서든, 심지어 보통 사람의 위치에서든, 어떤 위치에서 말씀하든 하나님은 마음과 뜻을 다하고, 어떠한 거짓도, 숨김도 없다. 그는 사역하는 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의 성품, 소유와 어떠함을 나타낸다. 조금도 남김없이 말이다! 그는 자신의 생명과 소유와 어떠함으로 인류를 인도한다. 이렇듯 인류는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율법시대, 즉 인류의 요람시대를 지나왔다.

율법시대 이후에 하나님은 처음으로 성육신했으며, 그때 성육신 하나님은 장장 33 년 반이란 시간을 보냈다. 이 33 년 반이라는 시간은 사람에게 긴 편일까? (길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30 년을 넘는다. 그래서 33 년 반은 사람에게 아주 긴 시간은 아니다. 하지만 성육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33 년 반은 무척 긴 시간이다. 그는 사람, 즉 평범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맡았다. 이는 그가 보통 사람이 맡을 수 없는 일을 맡아야 함과 동시에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함을 의미한다. 은혜시대에 사역을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예수는 수많은 고통을 겪었다. 물론 지금의 사람들은 이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성경에 세부적인 사실이 얼마나 기록되었든 간에, 어쨌든 그 당시 하나님의 사역에는 위험과 고난이 가득했다. 패괴된 사람에게 33 년 반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고 고통을 좀 받는 건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아무 오점도 없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견뎌 내야 했고, 죄인과 함께 먹고 지내며 생활해야 했다. 이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다. 그는 창조주이고 만물의 주재자이자 모든 것의 주재자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 와서 패괴된 인류의 유린과 괴롭힘을 당해야 했다. 그의 사역을 완수하고 인류를 고통의 세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는 사람에게 정죄당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그가 받은 그 모든 고난은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이다. 그가 받은 고난은 무엇을 의미할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을 의미한다. 인류를 구원하고 사람의 죄를 속량하고 이 단계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받은 모든 굴욕과 대가를 의미한다. 또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속량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피의 대가이고 생명의 대가이며, 그 어떠한 피조물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에게 하나님의 본질과 소유와 어떠함이 있기에 그는 그 고통을 감당하고 이런 일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어떠한 피조물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시대에 하나님이 행한 사역과 하나님이 나타낸 성품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낸 소유와 어떠함이 있지 않느냐? 인류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시대 사람은 하나님의 본체를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속죄 제물을 얻었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 구속되었다. 은혜시대에 하나님이 행한 사역에 대해

사람은 낯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기에 하나님이 나타낸 성품과 뜻에 대해 낯설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사람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하나님이 각 시기에 행한 사역의 내용 혹은 그 사역들을 행하면서 생겨난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 알 뿐이다. 이 내용과 이야기들은 기껏해야 하나님과 관련한 정보나 전설에 불과할 뿐 하나님의 성품이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대해 깊은 이해와 인식이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은혜시대의 사람은 성육신 하나님과 무척 친밀하게 접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율법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대한 인식은 거의 전무했다.

하나님나라시대에 하나님은 또다시 성육신했다. 이 방식은 첫 번째 성육신과 같다. 이 사역 기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남김없이 선포하고, 해야 할 사역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소유와 어떠함을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사람의 패역과 무지를 끊임없이 인내하고 관용하고 있다. 이 사역 기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고,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기에 처음 인류가 생기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품, 소유와 어떠함, 뜻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의도적으로 그의 본질과 성품과 뜻을 감춘 적이 없다. 그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이해는 형편없을 정도로 적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의 본체를 감추고 동시에 매 순간 사람과 함께하면서 사람에게 그의 뜻과 성품과 본질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본체는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이 눈이 멀고 패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타남을 전혀 보지 못할 뿐이다. 만일 지금의 이런 상황대로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을 아는 일이 과연 쉬울까? 대답하기 무척 어려운 문제다. 그렇지 않느냐? 쉽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못하고 흐릿하기 때문이다. 어렵다는 대답도 옳지 않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참된 사귀를 가졌던 경험이 있다. 어쨌든 하나님과 어느 정도 마음의 감응이 있고, 하나님과 마음의 부딪힘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다소나마 감성적인 인식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 가는 일에서도 조금이나마 성과를 얻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르면서 사람이 얻은 것은 무척 많다. 하지만 사람의 자질이 부족하고, 우매하며, 패역하고, 마음에 온갖 속셈을 품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사람이 잃은 것도 너무 많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것이 적으냐? 하나님은 그의 본체를 감추기는 했지만 그의 소유와 어떠함과 생명을 전부 사람에게 공급해 주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 지금의 이런 상태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이라는 주제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적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울인 심혈을 헛되지 않게 하고, 사람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는 영역에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진정한 자리를 회복할 수도 있다. 즉, 하나님이 ‘공정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3)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당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5~17)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당부’와 관련된 말씀에서 너희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 말씀에서 너희는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왜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당부’와 관련 있는 이 말씀을 골랐을까? 너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아담의 그림이 떠오르느냐? 상상해 보아라. 너희가 그 입장이라면 너희 마음속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 장면은 너희에게 어떤 느낌을 주느냐? 이걸 감동적이고 따뜻한 장면이다. 이 장면 속에는 하나님과 사람만 있는데, 양자의 친밀한 관계는 사람의 부러움을 자아낸다. 하나님의 차고도 넘치는 사랑이 아무 대가 없이 주어져 사람을 에워싸고 있다. 사람은 순진무구하고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염려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다. 사람의 모든 언행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이후 사람에게 한 첫 번째 당부라고 할 수 있다. 이 당부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인류에 대한 그의 걱정이 담겨 있다. 이는 하나님의 첫 번째 당부이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걱정인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한 그 순간부터 인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 책임은 무엇일까? 사람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이다. 그는 사람이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바랐는데, 이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바람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그런 바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단순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사람을 염려하기 시작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만물 중 오직 아담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생명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런 당부를 한 것이다. 이 당부에는 사람이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담겨 있었고, 하나님은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다.

이 단순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이 있지 않느냐?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염려를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절실히 와닿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내 말을 듣고도 너희는 이 말씀이 단순하게 느껴지느냐? 단순하게 느껴지지 않겠지? 그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느냐? 만일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이 몇 마디 말씀을 했다면 너는 어떤 느낌을 받았겠느냐? 만일 네가 인성이 없는 사람으로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면 아무 느낌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 네가 양심과 인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느낌을 받을 것이다. 너는 파스함을 느낄 것이고 하나님의 염려를 느낄 것이며,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것이고, 행복을 느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을 때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까?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네 마음은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사실, 하나님은 이 단계 사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지금의 사람 중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는 내가 방금 언급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느냐? 너희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진실하며 현실적인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 진실로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4)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창 2:18~20)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창 2:22~23)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다’와 관련된 구절에는 한 가지 핵심적인 말씀이 있다.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각 생물에게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닌 아담이다. 이 말은 한 가지 사실을 알려 준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에게 지혜를 주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뒤 아담이 학교에 다닌 적이 있었느냐? 글자를 알았느냐? 하나님이 각종 생물을 창조한 뒤에 아담은 각종 생물을 보고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았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생물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 주었느냐? 물론 각종 생물의 이름을 짓는 법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이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아담은 어떻게 각종 생물들에게 어떤 이름을 어떤 식으로 지어 주어야 할지를 알았을까? 이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아담에게 어떤 것을 더해 주었느냐 하는 질문과 관련이 있는데, 위의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었음을 증명해 준다. 이것이 핵심이다. 너희는 새겨들어야 한다! 또 한 가지 핵심이 있는데 이 역시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담이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 생물들의 이름을 확정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여기에도 내가 꼭 설명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으며, 그의 지혜와 능력, 소유와 어떠함도 주었다. 하나님에게서 이런 것들을 받은 사람은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사고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이 생각하고 행한 것들이 하나님 보기에 좋으면 하나님은 열납하고 간섭하지 않는다. 사람이 일을 올바르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볼 때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각 생물의 이름을 고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아담이 부른 대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어 그 생물의 이름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다른 의견이 있었을까? 없었다. 이것은 분명하다! 여기에서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었고, 사람은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일을 했다. 하나님이 보기에 사람이 긍정적인 일을 행했다면, 그 일은 하나님 편에서 긍정되고 인정받고 열납된다. 하나님은 아무런 평가나 비판도 하지 않는다. 이는 어떠한 인류도, 어떠한 악령이나 사탄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나타낸 성품을 보았느냐? 사람이라면, 패괴된 사람 혹은 사탄이라면, 다른 사람이 자신 앞에서 자신을 대표해 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을까? 절대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나 세력과 그 지위를 놓고 다투지 않겠느냐? 반드시 다투는 것이다! 이때 패괴된 사람 혹은 사탄이 아담과 함께 있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아담이 한 일을 부인했을 것이다. 자신에게 독립적인 사고 능력이 있고 독창적인 견해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아담이 한 모든 일을 부정했을 것이다. “네가 ‘이것’이라고 부르겠다면 난 절대 그렇게 부르지 않고 ‘저것’이라고 부를 거야. 네가 ‘장 씨’라고 부르면, 난 ‘이 씨’라고 부를 거야. 반드시 내 우수함을 보여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다. 이것은 무슨 본성이냐? 교만이 아니냐? 반면 하나님은 어떠하냐? 이런 성품이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한 일에 대해 이상한 행동, 반대하는 행동을 보였느냐? 분명히 말하건대 없었다! 하나님이 나타낸 성품에는 고집이나 교만이나 독선이 없다. 이 점을 위의 대목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아주 사소한 일이긴 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나타내고 드러냈는지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방금 해석한 내용들에 대해 너희는 인정하느냐? 아담이 한 일에 대해 하나님은 대놓고 “잘했다. 옳다. 찬성이다!”라는 말씀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했다. 그는 아담이 한 일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했다. 이는 창세 이후 인류가 하나님의 당부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행한 첫 번째 일로, 하나님을 대신해 행한 일이자 하나님을 대표해 행한 일이다.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지혜에서 비롯된 일로, 좋고 긍정적인 것이었다. 그때 아담이 한 일은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선명히 나타내 보인 일이었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이었다. 여기에서 나는 너희에게 알려 주고 싶은 것이 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부 소유와 어떠함과 지혜를 더해 준 것은 사람이 그를 선명히 나타내는 생명체가 되게 하려 함이었다. 또한 그러한 생명체가 하나님을 대표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일이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5)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창 3:20~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신분으로 아담, 하와와 함께 있었느냐?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떤 신분으로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신분으로 나타났느냐? 홍콩의 형제자매들이 대답해 보아라. (부모의 신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한국의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이 어떤 신분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느냐? (가장의 신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대만의 형제자매들이 말해 보아라. (아담과 하와의 가족의 신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가족의 신분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 가장의 신분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 어떤 이는 부모의 신분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모두 아주 적절한 대답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창조하여 그들을 동반자로 삼았고, 그들의 유일한 가족이 되어 그들의 생활을 돌보고 의식주를 돌보았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부모 신분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이 행한 그 일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지고지상함도 보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신묘막측함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진노와 위엄은 더더욱 보지 못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낮춤과 자비, 그리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근심과 책임과 보호만 보았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대하는 태도와 방식은 흡사 자식을 두고 걱정하는 부모와 같았다. 또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볼 수도 만질 수도 있는 진실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대한 지위를 가진 자라 자처하지 않고 가족으로 직접 인류에게 옷을 지어 입혔다. 이 가죽옷으로 치부를 감추든 추위를 막든 어쨌든

하나님은 손수 그 일을 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생각이나 이적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옷을 지어 사람의 몸을 가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을 실제로 한 것이다. 이 일은 단순히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언급할 가치도 없다. 하지만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상상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실함과 사랑스러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낮춤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기며 안하무인이었던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실함과 낮춤 앞에 부끄러움을 느껴 한없이 높이 쳐들었던 머리를 떨구었다.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함과 낮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더한층 느끼게 되었다. 마음속 ‘위대한’ 하나님, ‘사랑스러운’ 하나님, ‘무소불능한’ 하나님은 반대로 아주 미미하고 추하고 연약하게 느껴졌다.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이 일을 듣고 나서, 너는 하나님이 행한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겠느냐? 어떤 이들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정반대다. 그는 하나님이 진실하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실함과 사랑스러움에 감동받는다. 하나님의 진실한 면을 볼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존재함을 더욱 느끼게 되고,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비중과 늘 사람 곁에 있는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

여기까지 말했으면 현재와 연결시켜 봐야 한다. 하나님은 처음에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위해 이처럼 소소한 일을 했고, 사람이 지금껏 감히 상상하지도, 예상치도 못한 일까지 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지금의 사람에게 할 수 없을까?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본질은 꾸며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도 꾸며 낸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본질은 진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른 누군가가 더해 준 것도 아니고, 시간이나 장소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행한 일에서, 사람이 하찮거나 아주 사소하게 여기는 일, 심지어 하나님이 절대 할 리 없다고 여기는 아주 미미한 일들에서 진정 하나님의 진실함과 사랑스러움이 비로소 나타난다. 하나님은 위선적이지 않다. 그의 성품과 본질 속에는 과장, 가식, 거만, 교만이 없다. 그는 지금껏 큰소리친 적이 없다. 그는 신실하고 진실한 태도로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돌보고 인도하고 있다. 사람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든, 얼마나 느낄 수 있든, 얼마나 볼 수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확실하게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본질을 사람이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영향을 줄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영향을 줄까? 나는 네가 하나님의 진실한 면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을 더 실감하길 바란다. 그와 동시에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추측도, 의심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묵묵히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진실함과 신실함과 사랑으로 모든 일을 묵묵히 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어떠한 주저함이나 후회도 없었고,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보답받거나 얻으려 한

적도 없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유일한 목적은 사람의 진실한 믿음과 사랑을 얻기 위함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6)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창 6:9~14)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 수 한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대로 다 준행하였더라”(창 6:18~22)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지 않느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지금 사람들의 이해에 의하면 그 당시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 ‘의인’은 완전한 자여야 한다. 완전한 자란 사람의 눈에 완전한 자인지, 하나님의 눈에 완전한 자인지, 너희는 아느냐? ‘완전한 자’란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눈에 완전한 자이지 사람의 눈에 완전한 자가 아니다. 이걸 분명하다! 사람은 눈이 멀어 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 땅을 감찰하고 모든 사람을 감찰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노아가 완전한 자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할 계획은 노아를 부른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다.

.....

노아가 부름을 받은 일은 단순한 사실이지만, 이 기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본질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는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는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본질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무척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하나님이 보기에 어떤 사람일까? 분명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의 명령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동시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다해야 할 책임과 본분으로 여겨 완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할까? 아니다. 당시 노아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역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적었다. 성경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과연 노아가 하나님의 본체를 본 적이 있을까? 분명히 말하지만 본 적이 전혀 없었다! 당시 사람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 말을 하고 일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었다. 하나님의 본체가 직접 사람에게 나타난 적은 없었다. 이 성경 말씀에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노아라는 사람이 해야 할 일과 노아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본질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세밀하게 계획된 것이다. 어느 사건 혹은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에게는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 그는 이 기준에 따라 계획하고 처리할지 혹은 어떤 식으로 이 일과 현상을 대할지를 결정한다. 그는 모든 일에 무관심하거나 아무 느낌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멸하려고 한 대상이 사람뿐이라고 했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혈육 있는 생물을 멸하겠다고 하였다. 왜 멸하려고 했을까?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 즉, 하나님이 인류의 패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더러움과 강포, 패역을 대할 때 그의 인내에는 한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한도는 어디까지일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여기에서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는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적이 있는 사람, 말로 하나님을 인정할 뿐 아니라 찬미하기까지 하는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살아 있는 존재, 이들의 행위가 심히 패괴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계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류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패괴함을 어느 정도까지 인내한다는 것이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 바른길을 가지 않는 지경에 이르면, 하나님은 인내하지 않는다. 인류가 그저 도덕이 부패하고 사악으로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재하고 사람에게 광명과 바른길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면, 하나님은 인내하지 않는다. 인류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오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면, 하나님은 인내하지 않는다. 인류의 패괴가 일단 이런 정도에까지 이르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내 대신 무엇이 임하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노와 징벌이 임하게 된다. 이는 하나님 성품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기에 의인이 있을까? 하나님이 보기에 완전한 자가 있을까? 하나님의 눈에 이 시대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한 시대가 아니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온전케

하려는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인류 이외에 혈육 있는 자는 모두 하나님 인내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매일 너희 주변에서 발생하는,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직접 경험하는 모든 일들엔 강포가 가득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기에 이와 같은 세상과 시대는 끝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의 시대적 배경과 노아가 살았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완전히 다르지만, 인류의 패괴를 보는 하나님의 심정이나 분노는 그때와 같다.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사역 때문이다. 하지만 각종 상황과 조건을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기에 일찍 멸했어야 했다. 홍수로 세상을 멸했던 그 시대의 상황과 비교하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하지만 다른 점은 무엇일까? 이 역시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부분으로, 너희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홍수로 세상을 멸할 때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 방주를 짓게 할 수 있었다. 이로써 홍수로 세상을 멸하기에 앞서 필요한 일을 예비한 것이다.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불러 하나님을 위해 일련의 일을 하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부를 만한 사람이 없다. 왜 그럴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내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 말하면 모두들 면목도 없고 괴로울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한다.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자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하신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큰 재난이 닥칠 거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양식과 재난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아주 잘 협력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취한 행동은 노아와 비견할 만하지 않나요? 설마 우리의 이런 행동이 진실한 순종이 아니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게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말씀대로 행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상심하시는 건가요? 왜 부를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이런 사람들과 노아의 행위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날 우리가 재난용 식품을 준비한 건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은 의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습니다.) 정답에 가까운 대답이었다. 노아가 한 일과 지금 사람들이 한 일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대로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는지 몰랐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하여 그가 해야 할 일을 지시했을 뿐 많은 설명은 하지 않았다. 노아는 명대로 행했지 사사로이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았고 두 마음을 품지도 않았다. 그는 순진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가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졌던 신념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준 사명을 대함에 있어 그토록 명쾌하고 단순했다. 노아의 본질, 즉 그 행위의 본질은 순종이다. 의심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으며 개인적 이익이나 이해득실을 고려하지도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떨한다고 말씀하자 그게 언제나고 묻지 않았고, 상세한 내용도 묻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왜 세상을 멸하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명대로 행했을 뿐이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지으라고 명한 대로 그는 일일이 행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하나님을 흡족게 해 드려야겠다는 태도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 노아는 자신이 재난을 피하기 위해 그랬던 것이냐?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 얼마 후 세상을 멸할 것인지 물어보았느냐? 그러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방주를 짓는 데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하나님께 물어보았느냐? 아니면 노아 스스로 알고 있었느냐? 노아도 몰랐다. 그는 단순히 순종하고 명령대로 행했다. 하지만 지금의 사람들은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간의 조짐이라도 보이면 불안해하면서 성급한 행동을 취한다.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모든 대가를 치러 가며 살아남기 위해 먹고 마시고 쓸 것들을 준비한다. 심지어 재난이 닥쳤을 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로드맵까지도 잘 예비해 둔다. 정말 재미있는 점은 사람의 두뇌는 중요한 시기가 되면 엄청난 ‘효용 가치’를 발휘한다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뒷일을 잘 예비해 놓는다. 그 행동은 ‘완벽’이라는 단어로 묘사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고 이해하려는 사람도 없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사람과 노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노아 이야기의 기록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의 일부 성품을 보았겠지? 인류의 패괴와 더러움과 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점에 달하면 그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새로운 경영과 계획을 시작하고 자신이 하려는 일을 하여 그의 행사와 다른 측면의 성품을 나타낸다. 그의 ‘행함’은 그의 거스를 수 없음을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고, 그에게 권병과 진노가 가득함을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며, 그가 인류를 멸할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다. 그것은 그의 성품과 그의 거룩한 본질이 더 이상 패괴된 인류가 그의 앞에서 사는 것을, 그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것을 용납하거나 인내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온 인류가 그와 적대적이고 온 땅에 그가 구원할 만한 대상이 하나도 없을 때, 그는 이런 인류를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주저 없이 멸할 계획을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는 필연적인 결과이자 하나님의 권세하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응당 감내해야 하는 결과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의 계획을 완성하고, 그가 구원하고자 하는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그를 아예 따르지 않거나 본래 그와 적대적이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고 그에게 대항하는지, 혹은 인류가 어떻게 그를 비방하는지는 안중에도 없다. 그는 오로지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경륜 속에서 그가 구원할 대상이 그에 의해 온전케 되었는지, 그가 흡족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런가 하면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끔 소소한 ‘징계’를 내려 그의

진노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해일, 지진, 화산 폭발 등과 같은 징계이다. 그와 동시에 그는 그를 잘 따르고 곧 구원받을 사람을 힘써 보살핀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가 온전케 하려는 인류에 대해 엄청난 인내와 관용을 베풀고, 최대한도로 기다린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를 따르지 않고 그와 적대적인 사탄의 부류를 극도로 증오하고 혐오한다. 그는 사탄의 부류가 그를 따르는지, 그를 경배할 수 있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는 사탄의 부류에 대해 인내하는 동시에 증오한다. 또한 사탄 부류의 결말을 정하는 동시에 그의 경륜의 시기가 다가오기를 기다린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7)

홍수 후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린 축복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찌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채 먹지 말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창 9:1~6)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 방주를 지은 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날들을 보냈고, 그의 여덟 식구는 살아남았다. 노아의 여덟 식구 이외의 인류는 모두 멸망되었고, 땅의 생물들도 모두 멸망되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축복을 내렸다.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였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베풀어 주려는 것이자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명령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고 약속이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상을 주는 방식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보기에 노아가 완전한 자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었고,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든 상관없었다. 결국,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했으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리하여 홍수로 세상이 멸망된 뒤에도 하나님을 위해 인류와 각종 생물이 보존될 수 있게 하였고, 하나님의 다음 단계 경륜을 위해赫赫한 공헌을 하게 되었다. 바로 노아의 이 모든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린 것이다. 어쩌면 지금의 사람에게 있어 노아의 행위는 언급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노아도 한 일은 없잖아. 하나님이 노아를 남기겠다고 결정하셨으니 그는 당연히 남을 수 있었겠지.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그의 공로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려고 하셨던 거지. 사람은 피동적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기에 위대한 사람이든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과 받은 사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순조롭게 완수될 수 있도록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하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이런 행위를 아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이런 정과 마음을 귀하게 여긴다. 이것이 하나님의 태도다. 그러니 하나님이 왜 노아를 축복했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이런 행위와 순종을 아끼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노아를 축복한 것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을 흠족게 해 드리면 하나님은 당연히 사람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이렇게 말해도 될까?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왜 안 되는 것이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도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 준 사명을 받아들였을 때, 사람의 행위의 좋고 나쁨, 순종했는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흠족게 해 드렸는지, 그리고 그가 행한 것이 합격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 하나님은 한 가지 기준이 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이 어떻게 행하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오해이다. 하나님은 일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의 발전 과정 속에서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사람의 마음에 순종함이 있는지, 헤아림이 있는지, 하나님을 흠족게 하려는 염원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당시의 노아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치보다 많이 알고 있었을까? 하나님에 관한 개념이나 앎, 이런 진리에 대해 너희보다 더 많은 양육과 목양을 받았을까? 그렇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다. 현대인의 의식과 사상 속, 심지어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하나님에 관한 개념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다. 반면 노아의 마음과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노아는 이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순종에는 불순물이 없어 검증을 견뎌 낼 수 있었다. 그의 마음은 순결했고 하나님께 활짝 열려 있었다. 그는 하나님이 준 사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수많은 이치상의 인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르라고 자신을 설득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많은 사실들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노아와 현대인들의 본질적인 차이다. 또한 하나님 보기에 완전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해석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사람을 원하고 인정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대상이다. 여기에서 너희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과 본질을 본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그를 조금이라도 등한시하고 의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 어떤 추측이나

시험도 용납하지 않는다. 현대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한다고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하는 것과 파괴된 본질,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태도가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 것과 같은 축복을 받기 매우 어려운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8)

하나님이 무지개를 사람과 맺은 언약의 증거로 삼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창 9:11~13)

이어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사람과 맺은 언약의 증거로 삼다’라는 성경 말씀을 살펴보자.

많은 사람이 무지개가 무엇인지 알고 무지개와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 보았다. 성경에 나온 무지개와 관련한 이야기를 어떤 이들은 믿고, 어떤 이들은 전설로 간주하며, 또 어떤 이들은 아예 믿지 않는다. 어쨌든 무지개와 관련해 전후로 발생한 일들은 모두 하나님이 행했던 일이자 하나님이 인류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 일들은 있는 그대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 물론 기록 속에 당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도 알려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기 전후의 생각이 말씀의 행간에 드러나 있다. 말씀의 한 글자 한 글자를 통해 당시 하나님의 생각이 모두 생생하게 표현된 듯하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류가 가장 관심을 갖고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이해는 사람의 생명 진입에 있어서 절대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일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는, 하나님이 보기에 매우 좋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한 인류였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후 홍수로 멸망했다. 이런 한 인류가 순식간에 소멸되었을 때 하나님은 마음 아프지 않았을까? 당연히 마음이 아팠다! 그가 마음 아파하는 모습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성경에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느냐?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간단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그는 그때 세상을 멸한 것이 무척 마음 아팠던 것이다.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참으로

괴로워했다는 것이다. 우리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홍수로 세상을 멸한 뒤 원래 생기로 충만했던 땅이 어떻게 변해 버렸을까? 인류로 가득했던 땅이 어떻게 변해 버렸을까? 사람의 그림자도 없고 생물도 없이 도처에 물만 있는데, 물 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그런 광경이 과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본의였을까? 분명 아니다! 하나님의 본의는 곳곳에 활기가 넘치고, 그가 창조한 인류가 그를 경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노아 한 사람만이 그를 경배하고 그의 부름을 받아 그가 준 사명을 완수하는 것, 이걸 적어도 하나님의 본의가 아니었다. 인류가 사라지자 하나님이 보게 된 것은 그가 애초에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닌, 정반대의 광경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성품을 나타냄과 동시에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면서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어떤 결정이었을까? 구름 속의 무지개[주: 우리 눈에 보이는 무지개]로 사람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와 동시에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찍이 홍수로 세상을 멸했었던 적이 있다고 알려 주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했는지 영원히 기억하게 했다.

그렇게 세상을 멸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했을까? 분명 하나님이 원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세상을 멸한 뒤 땅의 참상을 조금은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하나님의 눈에 비친 장면이 어땠을지,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다. 지금이나 당시의 그 누구도 하나님이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 즉 홍수로 멸망한 뒤의 세상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상상할 수도, 느낄 수도 없다. 인류의 패역으로 인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했지만 그때 홍수로 세상을 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이 사실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느낄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세운 언약, 즉 맹세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있음을 사람에게 기억하라고 알려 준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앞으로 영원히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을 사람에게 알려 준 것이다. 그 ‘언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인류를 멸했을 때 마음이 아팠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언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류를 멸하고 인류가 사라진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인류가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들이지는 하지만 사람의 언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 이런 언어로 하나님의 심정과 느낌을 묘사하게 되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그리 잘못되지도, 지나치지도 않은 것 같다. 최소한 당시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지 너희가 아주 생생하고 적절하게 이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제 너희가 다시 무지개를 보면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 최소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함으로 인해 느꼈던 아픔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류를 증오했지만 자신이 친히 창조한 인류를 멸할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팠음을, 차마 버릴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었음을, 견디기 힘들었음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유일하게 그에게 위안이 되었던 것은 노아의 여덟 식구였다. 노아의 협력으로 그가 만유를 창조할 때 기울인 심혈이 그나마 헛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는 하나님이 상심한 와중에 유일하게 그의 상처를 메워 준 일이었다. 그런

뒤로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노아 가족에게 걸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랐다. 또한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광경을 보지 않기를 바랐고, 그들이 멸망되지 않기를 바랐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성품의 어떤 부분을 알아야 할까? 하나님이 인류를 증오한 것은 인류가 하나님을 적대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근심과 긍휼은 시종 변하지 않았다. 그는 인류를 멸했지만 그의 이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인류가 심히 패괴되어 하나님을 극도로 거역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본질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원칙대로 인류를 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로 인해 여전히 인류를 불쌍히 여긴다. 심지어 인류가 계속 생존해 가게 하려고 각종 방식으로 인류를 되돌리려 한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대립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고 깨우쳐 주고 공급하고 도움을 주고 관용을 베풀어도,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감사히 여기지 않으며 등을 돌려 버린다. 하나님은 상심했을 때에도 여전히 사람에게 최대한도의 관용을 베풀면서 사람이 돌이키기를 기다린다. 그러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그는 아무런 주저함 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류를 멸하겠다고 계획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멸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한이 있고 과정이 있었다. 이 과정은 인류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최후의 기회였다. 그러니 인류를 멸하기 전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은 대대적으로 깨우쳐 주고 권면하는 사역을 했다. 하나님은 아무리 상심하고 괴로워도 인류를 끊임없이 염려하고 보살피고 크게 긍휼을 베풀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우리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함을 분명히 보았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이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짓이나 가식, 기만, 불순물이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지금껏 그 어떤 거짓된 수단이나 허상으로 인류에게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보인 적이 없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껏 거짓 증거로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보여 자신의 사랑스러움과 거룩함을 과시한 적도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런 측면들의 성품은 사람이 사랑할 만하지 않느냐? 사람이 경배할 만하지 않느냐? 사람이 귀하게 여길 만하지 않느냐? 여기까지 말을 했는데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이런 말을 듣고 난 후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속 빈 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이 빈말에 불과하느냐?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지고지상함, 위대함, 거룩함, 관용, 사랑 등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본질의 면면은 매번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구체화되었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현되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서 구체화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구현되었다. 네가 일찍이 그 느낌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세심히 보살피고 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지혜와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따스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영을 일깨운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9)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한 후, 인류가 패괴된 이후든 인류가 그를 따랐던 때든 상관없이 인류를 자신의 절친한 대상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인류가 말하는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여겼지,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 스스로는 창조주이고 인류는 피조물이라고 한 이 말씀은 계급이 나뉘어 있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인류를 위해 한 모든 행사는 이런 관계를 한참이나 넘어서 있다. 인류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염려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인류에게 공급하는 일까지, 그의 마음은 이런 것들을 가윗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공로가 큰 일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 그는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에게 공급하며 베푸는 모든 것이 인류에게 엄청난 공헌을 한 일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본질과 소유와 어떠함으로 조용하고 묵묵히 인류에게 공급하고 있을 뿐이다. 사람이 그에게서 얼마나 많은 공급과 도움을 받았든지 그는 사람에게 공을 요구할 생각이나 행동이 전혀 없다. 이는 하나님의 본질로 인한 것이자 진실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나 다른 서적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그래서 사람의 감사와 찬미를 받아 내려고 인류를 향해 하나님 자신이 왜 이렇게 행했고, 왜 이렇게 인류를 보살피는지 설명하거나 표현한 부분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 그는 상심하거나 극심한 아픔을 느낄 때에도 인류에 대한 책임과 염려를 잊지 않고 그런 ‘상심’과 ‘아픔’을 홀로 묵묵히 감내한다. 오히려 그는 예전과 다름없이 이렇게 인류에게 공급한다. 비록 인류가 자주 하나님을 찬미하고 증거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잘 대해 준 것을 가지고 사람의 은혜에 대한 감사나 보답을 받으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과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 쪽에서 이 축복은 조금의 아낌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 흔히 사람의 상상을 넘어서고, 사람이 한 행위와 사람이 들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지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받은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느냐? 정확히 말하자면, 없다! 노아를 포함해 인류가 당시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왜 그런 언약을 세웠는지 느낄 수 있느냐? 느낄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미처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거나 지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독립적이어서 사람의 관심과 이해와 헤아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픔도 희로애락도 없고, 괴로워하지도 근심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눈물도 흘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감정적인 표현도 필요치 않고, 그 어떤 감정적인 위로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와 반대로 ‘연약하고 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안과 공급과 격려가 필요하며, 나아가 언제 어디서든 감정적인 위로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다. 즉, 사람은 ‘약자’이니 하나님의 지극한 보호가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돌봄’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에게서 자신이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다. 반대로 하나님은 ‘강자’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의 수호자이자 축복자가 되어야 하고,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통력이 굉장해서’ 사람에게서 더 이상 무엇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낸 모든 것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과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실을 훤히 알고 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모든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고,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인도해 빛을 비춰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한 이 모든 것과 들인 모든 대가에 대해, 성경이나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분명히 요구하는 말씀을 찾을 수 있을까? 없다! 반대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끊임없이 인도하고 공급하며 도움을 준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예비한 아름다운 종착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그의 소유와 어떠함, 은혜와 긍휼과 모든 상을 아낌없이 베풀어 준다. 하지만 지금껏 그가 받은 슬픔과 아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사람에게 드러내 보인 적은 없다. 또한 아무도 그를 이해해 주지 않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쪽에서 원망한 적도 없다. 그는 묵묵히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사람이 깨달을 그날을 기다릴 뿐이다.

여기에서 나는 왜 이런 말들을 할까? 이 말들에서 너희는 또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는 사람이 가장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인이나 좋은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나, 사람들의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심 없음이다. 사심 없음이라 하면 너는 자신도 매우 사심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네 자녀에 대해 한 번도 대가를 바라거나 셈을 따진 적도 없었고, 부모를 대할 때도 사심 없는 마음으로 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너는 최소한 ‘사심 없음’이라는 말에 대해 어떤 개념은 갖고 있을 것이다. ‘사심 없음’은

긍정적이고, 사심 없는 사람이 되는 건 무척 훌륭하다고 여긴다. 만일 너 자신이 사심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스스로를 아주 위대하다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만물 속에서나 사람, 일, 사물 속에서나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심 없음을 본 사람은 없다. 무엇 때문일까?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사람은 물질세계에서 살고 있어서 하나님을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공급하고 사랑을 주고 염려하는지 영원히 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 네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 네가 보는 것은 너와 혈연관계에 있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너를 몹시 아끼는 그 사람이다. 네가 본 것은 너에게 육적으로 유리한 것들이고, 네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네가 좋아하는 사람과 물질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사심 없음이다. 바로 이렇게 ‘사심 없는’ 사람이 오히려 그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사람의 ‘사심 없음’은 오히려 이기적이고 비열하다. 사람이 생각하는 ‘사심 없음’은 실제적이지 않은 공허한 것이고 불순물이 들어 있다. 하나님과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 사람의 ‘사심 없음’은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다. 반면 하나님의 ‘사심 없음’은 하나님의 본질이 진실로 나타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심 없음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끊임없는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너희는 오늘 내가 말하는 이 주제에 대해 깊이 느끼지 못하고 그저 머리를 끄덕여 인정하는 수준에 그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네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 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네가 느낄 수 있는 사람과 일과 사물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사심 없음만이 진정한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오직 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무조건적이고 흠결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의 소위 사심 없음도 진실이 아닌 거짓되고 표면적인 것이다. 그것은 목적과 속셈이 있고 거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검증을 이겨 낼 수 없는 것이다. 추하고 비열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 너희는 이 말을 인정하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0)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창 9:11~13)

노아 이야기의 결말인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평소와 다른 이례적인’ 방식으로 당시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음을 보았다. 이 방식은 무척 특별했다.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세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한 것을 일단락 짓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겉으로 봤을 때 ‘언약을 세운’ 일은 아주 평범한 일이다. 그것은 단지 문자의 형식으로 양측을 구속하는 일로, 일을 행할 때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양측의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형식상 아주 일반적인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한 출발점과 의미에 입각해서 보면,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각이 진실하게 나타난 것이다. 만일 네가 이 말을 내버려 두고 상관하지 않는다면, 내가 일의 진상을 알려 주지 않는다면, 인류는 정말로 영원히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할 것이다. 너의 상상 속 언약을 세우던 하나님은 웃고 있었을 수도 있고, 엄숙한 표정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의 상상 속 하나님이 가장 일반적인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아픔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고독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신뢰하거나 신뢰할 만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아픔을 토로할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이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간단한 일을 행하여 지난 인류와 작별했고, 과거의 일을 해결했으며,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일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그는 그때의 슬픔과 아픔을 마음 깊은 곳에 꼭꼭 숨겨 두었다. 하나님은 그가 토로할 만한 상대가 되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과 언약을 세워 사람에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무지개가 나타날 때 과거에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음을 상기하게 했고,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하나님은 이토록 마음이 아픈 상황에서도 사람을 잊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사람을 염려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심 없음이 아닐까? 반면 사람은 고통스러울 때 무엇을 생각할까? 이때가 바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이럴 때 사람은 늘 하나님을 끌어당겨 와 위안을 받으려고 한다. 언제든 하나님은 사람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되고, 사람을 곤경에서 벗어나 빛 속에서 살게 해야 한다고 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안정제나 위로제에 불과하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프고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떤 피조물이나 사람이 그와 함께하고 그를 위로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선 분명 지나친 바람이다.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감정을 헤아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누군가 자신을 위로해 줘야 한다고 요구한 적이 없고, 위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적도 없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할 뿐이다. 하나님이 약간의 고통을 받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할 때, 하나님이 모든 일에 기울인 심혈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될 때, 너는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심 없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무지개로 사람과 언약을 세웠지만 왜 그렇게 했고 왜 언약을 맺었는지 누구에게도 알려 준 적이 없다. 즉, 그의 진정한 생각을 누구에게도 알려 준 적이 없다. 그가 직접 창조한 인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또한 그가 인류를 멸할 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의 느낌을 사람에게 알려 주더라도 사람은 그 '신임'을 감당할 수 없다. 그는 마음이 아픈 와중에도 여전히 그의 다음 단계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하나님은 늘 가장 좋은 부분과 가장 아름다운 것을 사람에게 베풀어 준다. 그러면서 자신은 묵묵히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고 기다린다. 하나님이 인내하는 것은 그가 냉혹해서도 아니고, 무감각해서도 아니며,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나약함의 표현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본질이 본래 사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본질과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자 진정한 창조주인 하나님의 신분이 진실로 체현된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하나님 알아가기[2]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1)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해서부터 인류와 접하기 시작했고, 인류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으며, 인류에게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즉, 하나님은 인류와 접하면서부터 인류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소유와 어떠함과 본질을 공개한 것이다. 과거의 사람이나 오늘날의 사람이 볼 수 있든 없든, 이해할 수 있든 없든, 요컨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면서 자신의 성품과 본질을 나타낸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 소유와 어떠함은 하나님이 인류와 접하고 사역하면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고, 표출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사람에게 뭔가를 숨기거나 감춘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내보였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인류가 그를 알고 그의 성품과 본질을 이해하길 바라지, 인류가 그의 성품과 본질을 영원한 비밀로 삼거나 하나님을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로 여기길 바라지 않는다. 인류는 하나님을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인류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빛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과 나타내는 성품은 그의 뜻을 대변하고, 그의 본질을 대변한다. 하나님이 사람과 접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성품을 나타냈든지, 또 사람이 본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과 본질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 인류가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깨달을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뜻, 즉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요구하였는데, 이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요구는 하나님의 본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어떤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이 있는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할 때 나타낸다. 거기에는 그 어떤 거짓이나 위장도, 숨김이나 포장도 없다. 그런데도 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늘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냐? 왜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타내고 보여 주는 것이 다 하나님 자신의 소유와 어떠함이고 다 하나님 자신의 진실한 성품의 구석구석 면면인데, 왜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이냐? 왜 사람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창세 이래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막 창조한 사람에게 무엇을 하든, 사람은 그저 하나님을 동반자이자 의지할 대상으로 삼았을 뿐, 하나님을 제대로 알거나 이해하지 못했다. 즉,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 사람에게 ‘동반자’로 보이는 이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또한

그가 만물을 주재하는 분이라는 사실 역시 알지 못했다. 한마디로 말해, 그 당시의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으며, 하나님이 어디서 왔는지는커녕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조차 몰랐다. 물론 하나님도 그 당시에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행한 일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인류가 창조된 직후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율법시대 사역의 준비 단계부터 사람에게 일부 사역을 했으며, 사람에게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제사 드리는 법,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알려 주었다. 그제야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간단한 개념이 생겼고,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분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에 대해 얼마만큼 많이 알고, 얼마만큼 깊게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 절차에 맞춰서 사역의 진행 상황에 따라 사람에게 다양한 요구를 한 것이다. 여기에서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아주 진실하지 않으냐?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합리적이지 않으냐? 그는 인류가 창조된 초기에는 사람에게 정복 사역을 하지 않았고, 온전케 하는 사역도 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에게 대한 그의 요구는 아주 낮았다. 사람이 무엇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심지어 그를 거스르는 일을 해도 그는 모두 용서하고, 따져 묻지 않았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떤 요구 기준을 두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때의 요구 기준이 아주 낮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위대하지 않다거나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이 허언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을 알려면 길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인류를 경영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발걸음을 따르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참모습이 인류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겠느냐? 사람은 그러지 않을 것이며, 그럴 엄두를 내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알게 됐다면 그것은 이미 진정한 하나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참모습을 본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르게 되는 결과이다.

하나님의 사역과 계획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 그에 따라 하나님은 무지개를 증거로 삼아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세운 후, 자신과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땅에서 자신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점점 더 간절히 원했다. 특히, 땅에서 흑암 세력과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을 증거할 수 있는 한 무리의 사람을 얻기 원했다. 그러한 한 무리의 사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바라던 것이자 창세 이래 줄곧 기대해 마지않던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든 사람과 언약을 세우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마음도, 계획과 소원도 변하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것, 창세전부터 오래도록 바라던 것은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사람, 즉 그의 성품을 알고, 그의 뜻을 이해하고, 그를 경배할 수 있는 한 무리의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그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며, 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창 17:15~17)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는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창 17:21~22)

하나님이 하고자 결정한 사역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방금 다 들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한 후에 택한 인물로,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그가 100 세, 그의 아내 사라는 90 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려고 했느냐? 바로 성경에서 언급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라는 약속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의 당시 상황은 어떠했느냐? 성경에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생산하리요”라는 기록이 있다. 다시 말해, 이 노부부의 나이에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는 땅에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라고 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한 약속을 단지 농담으로 여긴 것이다. 사람이 보기에 그것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라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아주 웃긴 일이었는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면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다니. 게다가 내게 아이를 낳아 기르라며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다니,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에 엎드려 웃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불가능해.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농담하시는 거야. 이게 진짜일 리 없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여기지 않았다.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의인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를 의인이라고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면 다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참으로 교조적이구나! 이 일은 너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쉽게 정의하지 않는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다. 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이 일에서 보여 준 태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 막연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의 믿음이 크냐? 크지 않다! 아브라함의 웃음과 그의 마음속 생각이 아브라함 본인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를 의인으로 여기는 것은 순전히 상상에 불과하고, 아무렇게나 끼워 맞추는 것으로, 무책임한 평가인 것이다. 아브라함의 웃음과 몸짓을 하나님이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알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신이 정한 일을 바꾸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기로 마음먹고 계획했을 때,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든, 하나님은 어떤 영향도, 방해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며, 사람의 태도 때문에, 심지어 무지한 태도일지라도 자신의 계획을 함부로 바꾸거나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17 장 21~22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라고 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했는지 하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믿음이 얼마나 커야 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야 하는지 요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하나님이 행한 일과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택하기로 뜻을 정했는지, 어떤 원칙에 따라 일을 하는지에 대해 사람에게 완전히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사람의 분량이 그 정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이 볼 때는 모두 정상이었다.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지도 훈계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라는 말씀만 남겼다. 하나님이 보기에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 따라 점차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눈에 자신이 이루고자 계획한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예비하고 바로 떠났다. 사람이 뭘 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계획하든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절차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발전되어 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 원칙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떻게 인식하든 간섭하지 않지만, 사람이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졌다.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봤듯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시간에 이삭을 태어나게 했다. 실제로 사람의 행위와 태도가 하나님의 사역을 막았느냐?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보잘것없는 믿음이나 관념, 상상이 하나님의 사역에 영향을 준 것이 있느냐? 없다! 전혀 없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어떤 일에도, 그 어떤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는다. 그가 하고자 뜻을 정한 모든 일은 그의 계획에 따라 제때에 완성되고 이루어지며, 그의 사역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우매함과 무지함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과 관념조차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역을 거침없이 해 나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며, 전능함의 발현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3)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창 22:2~3)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창 22:9~10)

하나님은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지 않고, 사람의 진심만을 원한다

창세기 22 장 2 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였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했다. 즉,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를 — 그가 사랑하는 이삭을 — 번제로 바치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행한 이 일은 지금에 와서 봐도 여전히 사람의 관념과는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다! 하나님이 이때 행한 일은 사람의 관념에 매우 맞지 않는 것이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사람은 이런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믿지 못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들을 주셨다가 아들을 얻은 후에는 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이 대체 뭘 하시려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다. 그러고는 또 그에게 조건 없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 이것은 지나친 것이냐? 제 3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너무 지나칠 뿐만 아니라 조금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 본인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다른 생각이나 자그마한 추측은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 이삭을 바칠 준비를 하였다. 여기서 너는 어떤 일에서 아브라함이 기꺼이 아들을 바치려고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느냐? 원문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같이 기록되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창 22:3),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창 22:9~10).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보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때부터,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정말로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전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았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리석었고 무지했으며 하나님을 오해했다 할지라도, 이때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진짜였으며 진실했다.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이삭을 – 그의 아들을 – 하나님께 돌려 드리려고 하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순종을 보았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한 것이었다.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이 행하는 많은 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기이하게 여겨질 때도 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할 때, 이 ‘지배’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으며, 또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시련이자 하나님의 검증인 것이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것이다. 이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에 – 이삭을 바치라는 것에 –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인류에 대해, 즉 자신이 선택한 아브라함이란 사람에 대해 참으로 안심하였고, 그를 진정으로 인정하였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그 사람이 자신의 약속과 앞으로의 경륜을 맡아서 실행해 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주된 인물이라고 확신하였다. 비록 그 일이 시련이고 검증일 뿐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위안을 받았고, 사람이 그에게 바친 사랑을 느꼈으며, 또한 사상 처음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던 그 찰나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애초에 이삭의 생명을 가져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바로 저지했다. 하나님이 보기에, 아브라함의 복종은 이미 시험을 이긴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가 보인 행동으로 이미 충분했으며, 자신이 하고자 한 일에서 이미 결과를 얻었다. 그 결과에 하나님은 만족스러워하지 않았느냐? 그 결과에 하나님은 만족하였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한 것이며 하나님이 보고자 기대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냐? 비록 하나님이 다양한 배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각 사람을 검증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자신이 원했던 것을 보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진심인 것을 보았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조건적인 것이었고, 이 ‘무조건’이 바로 하나님이 원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 ‘나는 이미 이것을 바쳤어. 나는 이미 그것을 포기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만족을 못 하시는 걸까? 왜 계속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지? 왜 계속해서 나를 검증하시지?’ 이것은 한 가지 사실을 설명해 준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보지 못했고, 너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너에게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여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들었던 것과 같은 그런 진심과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보지 못했고, 너에게서 위안을 얻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에 대한 하나님의 시련이 계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4)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창 22:16~18)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원본 그대로의 기록이다. 말씀은 아주 간결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아주 풍성하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유와 배경,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내용이 담겨 있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할 때의 기쁨과 벅찬 심정이 담겨져 있으며,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얻기를 희망한다’는 간절한 마음도 담겨져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며 공활히 여긴다는 것을 보았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얻기 위해 치른 대가와 고심을 보았다. 더욱이 이번 경륜 사역의 뒤에서 하나님이 혼자 감당하고 있는 슬픔과 아픔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는 이 말씀에서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뜻깊은 말씀이자, 후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와 크나큰 영향력을 주는 말씀이다.

사람은 진심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여기에서 보게 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크지 않느냐? 어느 정도로 크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그의 외아들을 — 그가 사랑하는 외아들을 — 하나님께 돌려 드리려고[주: 여기서 ‘바치다’라는 말 대신 하나님께 ‘돌려 드린다’로 말해야 한다.]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복을 내렸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복은 무엇이나? 바로 그의 자손을 많아지게 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많아지게 한다는 것이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배경하에서 나온 것이냐?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느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조금의 원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구대로, 명령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그러한 복을 약속한 것이다. 그 약속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의 하나님의 마음과 관련된다. 그 중요한 말씀을 너희는 보았느냐? 아마 너희는 주의 깊게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하였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할 때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맹세했다는 것이다. 사람은 보통 어디를 가리켜 맹세하느냐? 다 하늘을 가리킨다. 즉, 하나님을 향해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키며 맹세했다는 이 ‘현상’에 대해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정확한 해석을 해 주면 너희는 곧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마주하면서 다시 한번 외로움을 느꼈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 혹은 ‘무의식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을 취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자기 자신에게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이 행동으로부터 너는 너 자신을 연상해 볼 수 있다. 내가 가슴에 손을 대고 자신에게 말할 때, 너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뚜렷하게 알고 있지 않느냐? 너의 태도는 아주 진지하지 않겠느냐? 너는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보여진 것같이,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의 태도가 아주 진지하고 진실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며 약속을 주었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에게 ‘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는 내 말에 순종했으며, 내가 택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는 이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선민들이 나오게 하고, 그다음 그 선민들을 이끌어 그의 사역에 발맞춰 함께 나아가게 하기로 뜻을 정한 것이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경영 사역을 담당하게 하려 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선포하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하며, 그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바램을 실현시키고자 했다. 이것은 복받은 일이 아니냐? 인류에게 있어서 이보다 큰 복은 없으니,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은 그의 자손이 많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그의 경영, 그의 당부와 사역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자신을 가리키며 맹세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정한 과정은 매우 진실하지 않느냐? 아주 실제적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심혈을 기울이고, 그의 소유와 어떠함, 그의 모든 것, 더 나아가 그의 생명까지

그들에게 베풀어 주기로 정한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서부터 그의 행사를 보여, 사람들에게 그의 지혜와 그의 권병과 능력을 보게 하리라 뜻을 정한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5)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창 22:16~18)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는 축복의 말씀만 들었을 뿐이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 수 있었겠느냐? 알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키며 맹세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슬펐다. 그가 하고자 하는 것, 그가 계획한 것에 대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그때,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그와 마음을 나누며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며, 더욱이 그가 하고자 하는 사역에 협력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얻었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얻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인식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렸을지라도, 마음은 여전히 만족을 얻지 못했다. 그가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의 경영이 비로소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얻고자 하는 사람, 그가 보고자 하는 사람, 그가 기뻐하는 사람이 아주 멀리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때는 하나님 자신 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얻고자 하며, 무엇을 바라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음이 아주 흥분된 동시에 무겁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다음 사역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준 일을 통해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 하나로 하나님은 그에게 이처럼 큰 복을 내렸다. 비록 표면적으로 볼 때 이 일은 아주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를 귀히 여기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진심을 보이는 자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같은 진심을 어느 정도로 소중히 여기느냐? 아마 너희는 그 정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란 후,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조금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수행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 아브라함의 그 진심에 하나님은 감동하였으며, 그것을 귀히 여겼다.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겼느냐? 귀하게 여긴 이유는 무엇이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세상이 놀랄 만한 일’을 해낸 것이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전에 없던 만족감을 느꼈으며,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얻은 기쁨을 느꼈다. 그런 ‘만족감’과 ‘기쁨’은 하나님이 손수 만든 피조물로부터 온 것이었다. 하나님이 보기에 이는 인류가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께 드린 가장 진귀한 첫 번째 ‘제물’이었다. 이 ‘제물’은 하나님이 그토록 힘들게 기다렸던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 ‘제물’을 창조된 인류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물로 간주하였다. 또한 그것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기율인 심혈로 얻게 된 첫 번째 성과를 보았고, 인류에게서 희망도 보았다. 그 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더 나와 그와 함께하며, 그를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그를 해아리기를 바랐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계속 살아가기를 희망하였다. 그는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그와 함께하고, 그의 경영에 계속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든, 그것은 단지 바람일 뿐이고 생각일 뿐이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기준에 – 하나님을 알고 증거하고 하나님과 동심합의하는 것에 – 훨씬 못 미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일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심과 순종을 보게 되었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한 것도 보게 되었다. 비록 하나님이 그의 진심과 순종을 열납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기(知己)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했으며,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 되기에도 부족했다. 또한 하나님과 동심합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외롭고 조급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외롭고 조급할수록 최대한 빨리 그의 경영을 계속해 나가려고 했고, 한 무리를 선정하고 얻어 그의 경륜을 이루고 그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은 바뀐 적이 없다. 처음 인류를 창조한 후 하나님은 이긴 자들, 즉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깨닫고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와 그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얼마나 험난하든, 하나님이 희망하는 목표가 얼마나 멀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변한 적이 없고, 그것을 포기한 적도 없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낄 수 있느냐? 아마도 그렇게 실감 나지 않을 것이다. 천천히 느껴 보거라!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6)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려고 하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오십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창 18:26)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사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 멸하지 아니하리라”(창 18:29)

“아브라함이 가로되 ... 거기서 삼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 멸하지 아니하리라”(창 18:30)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 거기서 이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 멸하지 아니하리라”(창 18:31)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 거기서 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 멸하지 아니하리라”(창 18:32)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명령대로 따르는 사람만 보살핀다

이 단락의 내용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숫자다. 우선, 여호와께 성안에 의인 50 명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라고 하였다. 즉,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50 명의 의인이 있었느냐? 없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만일 40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었다. 하나님은 그래도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시 아브라함이 30 명이면 어찌 되는지 물었다. 하나님은 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 20 명이 있으면? 역시 멸하지 않는다고 했다. 10 명이면? 역시 멸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성안에 의인이 10 명이라도 있었느냐? 10 명은 없었지만 한 명은 있었다. 그 한 명의 의인이 누구냐? 그 사람은 롯이었다. 당시 성안에는 의인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숫자에 대해 까다롭고 엄격하게 말씀했느냐?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삼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라고 질문하며 “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라고 하기까지 했다. 하나님은 “내가 십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했다. 이 10 은 아주 안타까운 숫자였다. 그러나 사실 소돔 성안에는 의인이 10 명조차도 없었다. 이로써 그 성안 사람들의 죄악과 사악함은 이미 하나님이 보기에 멸해야만 할 정도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의인이 50 명 있어도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런 숫자는 하나님께 있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성에 의인이 한 명밖에 없더라도, 하나님은 성을 멸할 때 그 의인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고자 했든 안 했든, 그 성에 의인이 몇 명 있었든, 그 죄악의 성은 하나님이 보기에 저주받아야 할 곳이었고, 마땅히 멸망되어 하나님 눈앞에서 사라져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의인은 마땅히 살아남아야 할 대상이었다.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가 어느 시대까지 발전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는 사악한 것을 증오하며, 그의 눈에 보이는 의인을 보살핀다. 하나님의 명확한 이 태도는 하나님 본질의 진정한 발현이다. 성안에는 의인이 한 명뿐이었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최종적인 결과는 바로 그 성은 반드시 멸망되고야 만다는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그 시대에 하나님은 성안에 의인이 50 명 있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의인이 10 명 있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인해 인류를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결정이나 그들을 인도하는 사역을 할 수도 있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로운 행동을 아주 중히 여기고, 그를 경배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며, 그의 앞에 선행을 쌓은 자들을 귀하게 여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에게 진리를 교체하거나 하나님의 도에 대해 얘기해 주는 것을 성경에서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알려 주는 말씀뿐이었다. 누군가는 그대로 하고 누군가는 하지 않았으며, 누군가는 그 말씀을 믿었고 누군가는 믿지 않았다. 단지 이런 것뿐이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의인은 — 하나님 눈의 의인은 —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종들이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된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의인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기에 그 ‘의인’이 하나님의 지기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절대 아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지기, 증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사람이라 불렀느냐? 우리가 본 성경의 그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여러 차례 사람을 ‘나의 종’이라 칭하였다. 즉, 그 시대의 의인들이 하나님께는 자신의 종으로 보였던 것이며,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 호칭을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왜 그렇게 불렀을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호칭을 붙여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분명히 있다.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든, ‘완전한 자’나 ‘정직한 자’라고 칭하든 혹은 ‘종’이라고 부르든, 하나님께는 기준이 있다. 그가 사람을 ‘종’이라고 부를 때는 그 사람이 그의 사자를 맞이할 수 있고, 그의 명령을 따를 수 있고, 그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행할 수 있는 자라고 확정했기 때문이다.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에게 행하라고 명령한 일들이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땅에서 행하라고 한 것을 하나님의 도라고 칭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바가 그저 간단한 일들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단발성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행하라고 간단하게 지시한 것이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하나님은 계획에 따라 그의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때는 여러 조건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고, 시기도 아직 무르익지 않아 인류가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도를

선포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한 ‘의인’은 30 명이든 20 명이든, 하나님이 보기엔 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종에게 임했을 때 그 종은 나가서 영접할 수 있고, 그의 지시를 청종하며, 그의 말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눈의 종이 된 자가 해야 하고 달성해야 할 것이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칭하는 데는 기준이 있다. 그들을 ‘종’이라 칭하는 이유는 결코 지금의 너희들처럼 도를 많이 들어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직한 인성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했을 때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어 ‘종’의 또 다른 의미는 땅에서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는 아닐지라도,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집행하는 자요 시행하는 자들이다. 이것으로 그 종이나 의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땅에서 사역을 펼치려면 그와 협력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종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하나님의 사자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담당하는,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임무’는 하나님께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한 종들이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행하고자 하는 사역은 멈추게 될 것이다.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바램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7)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려고 하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오십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창 18:26)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사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 멸하지 아니하리라”(창 18:29)

“아브라함이 가로되 ... 거기서 삼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 멸하지 아니하리라”(창 18:30)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 거기서 이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 멸하지 아니하리라”(창 18:31)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 거기서 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 멸하지 아니하리라”(창 18:32)

하나님은 그가 보살피는 자에게는 크게 긍휼을 베풀고, 혐오하여 포기하는 자에게는 크게 노한다

성경 기록을 볼 때, 소돔 성에 하나님의 종이 10 명이라도 있었느냐? 없었다! 하나님께 그 성은 남겨 둘 가치가 있었느냐? 성에서는 롯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했다. 이는 그 성에 하나님의 종이 한 사람뿐이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롯만 구원하고 소돔 성을 멸한 것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보기에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매우 원칙 있게 일을 한다는 것이다. 결정 하나를 내리기 전에 장기간의 감찰과 생각의 과정을 거치며, 때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결정이나 판단도 단호하게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소돔 성을 멸하는 그 결정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일찍이 성안에는 의인이 40 명도, 30 명도, 20 명도 없으며, 10 명조차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안의 의인은 롯 한 명뿐이었다. 성에서 일어나는 일, 성안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은 감찰하고 있었으며,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결정은 잘못될 리가 없었다. 그에 비하면, 하나님의 전능 앞에서 사람은 매우 무감각하며, 더없이 우매하고 무지하며, 근시안적인 존재라는 것이 더 두드러진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에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현되어 왔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숫자는 아주 간단하며 어떤 문제도 설명하지 않지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은 의인이 50 명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용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이 부분의 성품을 보았느냐? 더 나아가 의인이 10 명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의인 10 명으로 인해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하나님의 관용과 사랑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 의인들에게 긍휼과 관용을 베풀고, 그들을 염려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용이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결과는 무엇이나? 아브라함이 “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멸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였다. 그 후,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성에는 그가 말한 의인이 10 명도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 성을 멸하기로 뜻을 정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였느냐? 그 성에 의인이 10 명도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성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으며, 반드시 그 성을 멸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노가 아니냐? 그 ‘노’는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지 않느냐? 그 성품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의 발현이 아니냐?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본질의 발현이 아니냐? 하나님은 의인이 10 명도 없다는 것이 확정되면 반드시 그 성을 멸할 것이며, 게다가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을 엄하게 벌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또한 그들이 너무 더럽고 패괴되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이 대화들을 분석할까? 이 간단한 몇 구절에 크게 긍휼을 베풀고 크게 노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의인을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관용으로 대하고 염려하는 동시에, 그 성안의 모든 패괴된 자들을 마음속 깊이 증오하였다. 이것이 크게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 크게 노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 성을 멸하였느냐? 불로 멸하였다. 하나님은 왜 불태우는 방법으로 그 성을 멸했을까? 내가 어떤 물건이 불에 타는 것을 볼 때, 혹은 내가 어떤 것을 불태워 버리려고 할 때, 너는 그 물건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왜 그것을 불태우느냐? 더는 필요 없고, 더 이상 그 물건을 보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느냐? 그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불로 태우는 방식에는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고, 증오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불로 소돔 성을 멸할 때 바로 이런 심정이었다. 불태우는 방식은 하나님의 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은 확실히 존재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노할 때에도 사람에게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의 면을 보여 준다.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크게 긍휼을 베풀다. 사람이 심히 패괴되고 하나님을 매우 적대시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은 크게 노한다. 그리고 그 노는 어느 정도로 분출될까? 그 사람의 대적과 악행이 더 이상 하나님께 보이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눈앞에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노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노가 사라지게 된다. 즉,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의 몸과 생각이 외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싶은지 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노는 끝없이 분출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이 크게 노할 때, 하나님의 노는 건잡을 수 없이 계속 분출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영원히 더 이상의 긍휼도 관용도 베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 성품의 일면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성 하나를 멸하려고 했을 때, 그 일이 사람에게는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 성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눈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고 남아 있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는 것은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돔 성을 멸하기 전후에 발생한 일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보았다. 그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에 대해서는 관용과 긍휼을 베풀며, 악한 것과 죄에 속한 것, 사악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노하며, 그 노가 끊이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 성품의 가장 주된 부분이자 가장 두드러지고, 더욱이 하나님이 시종 나타내고 있는 주요 2 가지 측면이다. 즉, 크게 긍휼을 베풀고 크게 노하는 것이다. 너희들 대다수는 하나님의 긍휼은 어느 정도 느낀 적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노를 체험한 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일찍이 크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중 그 어떤 사람이나 일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크게 노한 경우는 아주 드물고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노는 조만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왜 그런 것이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노를 표출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크게 노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혐오하고 버렸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존재를 중오하며 더 이상 그 사람의 존재를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노가 임하면, 그 사람이 소멸됨을 의미한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직 그 정도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크게 노하면, 너희 중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이 이 시대에 너희 모든 사람에게 크게 공휼을 베풀어 주었을 뿐, 아직 크게 노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노가 임하기를 구해도 된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노와 거스를 수 없는 성품이 정말 존재하는지를 체험해 보면 된다. 너희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8)

말세의 사람은 하나님의 노를 말씀에서만 보았을 뿐, 진정으로 체험하지는 못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이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휼과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마지막 단계에서 위엄과 진노를 지니고서 심판과 형벌의 사역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단지 말씀으로 그의 사역을 이룬다. 말씀으로 가르치며, 말씀으로 공급하며 양육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노는 줄곧 감춰져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노의 성품을 느낀 것 외에, 직접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즉, 심판과 형벌의 사역에서 사람은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노를 통해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느꼈지만, 하나님의 노는 어디까지나 말씀 안에 제한되어 있을 뿐이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꾸짖고 드러내고 심판하고 형벌하며 심지어 정죄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사람에게 크게 노한 적은 없다. 말씀 밖에서는 사람에게 노한 적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사람들이 체험한 공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의 발현이지만, 사람이 체험하게 된 하나님의 진노는 그저 하나님 말씀의 어조와 분위기에서 느끼게 된 효과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노를 진짜 체험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휼과 자비를 보았고, 하나님의 거스를 수 없는 모습도 보았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공휼과 관용을 체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행위가 얼마나 조악하든 혹은 성품이 얼마나 패괴되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줄곧 인내하고 있다. 그가 인내하는 목적은 그가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그의 말씀과 그가 기울인 심혈로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결과를 기다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사람에게 다양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바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18~19 년, 심지어는 20~30 년이 걸려야 진정한 어른으로 성숙될 수 있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과정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그러한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크게 공황을 베풀고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역 기간에 극소수의 사람은 죽임을 당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징벌을 받기도 했다. 그러한 사례들로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더욱 잘 입증되었으며, 하나님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관용과 인내는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도 충분히 입증되었다. 물론 그러한 전형적인 사례에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부 성품은 하나님의 전체 경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실, 마지막 단계의 사역에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기간에 계속 인내하고 있다. 그는 그의 인내와 생명을 대가로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이것을 너희는 보았느냐?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계획을 망치지 않는다. 그는 노할 수도 있고 공황을 베풀 수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된 2 가지 성품의 발현이다. 매우 뚜렷하지 않느냐? 즉, 하나님은 사람에게 옳은 것과 틀린 것,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못한 것,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 준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증오하는지 하나님의 성품에서 다 직접적으로 구현되어 나온다. 또한 하나님은 사역을 통해서도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여 준다. 아주 모호하거나 두리몽실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진실하며 매우 실제로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 준다. 이런 분이 바로 참된 하나님 자신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39)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에게 감춰진 적이 없고, 다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창세 이래,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은 함께했으며, 사람에게 감춰진 적이 없이 전부 공개되었고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으며, 사람이 점점 더 심하게 패괴됨에 따라 사람과 하나님의 거리도 점차 멀어졌다. 서서히, 사람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된 ‘소식’을 전부 다 잃게 되었다. 나아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조차 모르게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으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사람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고, 사람은 늘 하나님을 피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떨어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간 것도 아니다. 자기가 간직한 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보여 드리지도 않은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저의 마음을 감찰하소서. 당신은 제 마음을 아십니다.”라고 늘 기도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감찰을 받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어기면 벌을 받겠다고 맹세할지라도 말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라고 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앞날과 운명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께 어떤 맹세를 하고 다짐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기에 너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다. 너는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살피는 것만 허락했지, 너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너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지도 않았으며,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하고는 각종 간사한 속셈은 다 감춘 것이다. 너는 자신의 의도와 타산, 계획을 전부 숨기고, 앞날과 운명을 하나님이 빼앗아 갈까 두려워 자기 손안에 꼭 쥐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진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하나님이라 사람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볼 수 있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며,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았다. 하나님은 단지 살피볼 권리만 있지 다스릴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주관적인 의식 안에 자신을 하나님의 지배에 맡길 생각이나 계획이 없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폐쇄적이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갖은 방법을 다해 마음을 감추고, 감언이설로 허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신임을 얻으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진실한 모습은 감추어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는 목적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고, 자신이 간수하고 싶은 것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생각하든 다 자신이 계획하고 타산하며 결정하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의 '참여'와 간섭이 필요치 않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도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이나 당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대할 때는 자신의 속셈과 이익, 그리고 그 당시의 자신의 상태와 처한 환경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다. 사람은 늘 자신의 지식과 식견을 바탕으로, 자신의 머리로 자기가 나아갈 길을 판단하고 선택하며, 하나님이 간섭하고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본 사람의 마음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는 인류뿐이었다. 즉, 모든 생물 가운데서,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는 인류밖에 없다.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며, 언어가 있고 생각과 자유 의지가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맡겨 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바람을 모두 사람에게 두었다. 그는 사람을 그와 동심합의하고 그와 동행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게 하려고 하였다. 하나님은 자신의 경영을 시작한 후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하여 그 마음을 정결케 하고 채워 주어 하나님이 흡족해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이러한 결과를 줄곧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0)

성경 및 하나님이 욥을 평가한 말씀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욥 1:1)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욥 1:5)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욥 1:8)

여기의 몇 구절에서 너희가 발견한 핵심은 어떤 것이냐? 이 짧은 세 구절은 모두 욥과 관련된 것이다. 내용은 짧지만,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또한, 욥의 일상 속의 행위와 그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괜히 생긴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 주고 있다. 이 세 구절 성경 말씀은 욥에 대한 사람의 평가(욥 1:1)는 물론이고,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욥 1:8) 역시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한 모든 것들(욥 1:5)로 말미암아 생겼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우선 첫 번째 구절을 보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은 성경 기록 중 욥을 평가한 첫 번째 말이다. 이것은 욥에 대한 욥기 저자의 평가로서, 당연히 욥에 대한 사람의 평가를 의미한다. 그 평가는 이렇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다음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욥 1:8). 이 두 평가 중 하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욥의 행위와 모습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칭찬까지 얻었음을 말해 준다. 즉, 욥이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늘 자신의 행위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았으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 비친 그는 땅에서 유일하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욥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구체적인 모습

이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구체적인 모습들을 살펴보자. 위와 아래 이 두 성경 구절을 제외하고, 1 장 5 절을 보자. 이것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구체적인 사례이다. 이 사례는 평소 생활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는지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 늘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이 잔치를 열 때,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염려하였다. 그래서 욥은 이 일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원문에는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라고 묘사되어 있다. 욥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경외심이 결코 외부적인 행동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경외심은 일상생활 속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는 스스로 악한 일을 멀리했을 뿐만 아니라, 늘 아들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는 욥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매우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배반할까 걱정했음을 말해 준다. 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경외심은 진실했으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욥은 어쩌다가 한 번씩 그랬느냐, 아니면 항상 그랬느냐? 원문 마지막 구절에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욥이 가끔, 혹은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을 때 들여다본 것이 아니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또 욥이 항상 아들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항상’이란 하루 이틀이나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태도는 일시적인 것도, 단지 인식상에만 머문 것도, 그저 입으로만 떠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가 그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했으며, 삶의 근본으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뜻한다. 욥이 항상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할까 항상 두려워했으며, 자신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죄를 범할까 걱정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이 도가 그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말해 준다. 욥이 항상 이렇게 행한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악행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범할까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족케 하지 못할까 두려워했다. 아울러 그는 자녀들을 위해 걱정하며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할까 두려워했다. 이런 것들은 욥의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모습이었다. 이런 정상적인 모습들이 바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는 것이 빈말이 아님을 입증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삶을 실제로 살았음을 입증한다. 즉,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는 말로 욥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행동을 우리에게 알려 준 것이다. 욥이 항상 그렇게 행함으로 그의 행동과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은 늘 그의 마음과 행동을 열납하지 않았느냐? 욥은 어떤 상황과 배경에서 항상 그렇게 했느냐? 혹자는 하나님이 항상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혹자는 욥이 악에서 멀리 떠나고자 하는 사람이었기에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또 혹자는 욥이 자신의 재산은 쉽게 얻은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베풀어 준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면 재산을 잃게 될까 두려워 그렇게 했다고 말한다. 이 다양한 견해들은 다 사실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욥을 열납하고 귀하게 여긴 이유는 그가 ‘항상 이러하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욱이 욥이 사탄에게 넘겨져 시험받았을 때,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탄 앞에서 보인 그의 모습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1)

사탄이 욥을 처음으로 시험하다(가축은 약탈당하고, 자녀는 화를 입다)

1)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욥 1:8)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욥 1:12)

2) 사탄의 대답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 하셨습니다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욥 1:9~11)

하나님이 욥에 대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한 이유는 욥의 믿음을 완전케 하기 위함이었다

욥기 1 장 8 절은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였느냐? 원문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하나님은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했다. 하나님과 사탄의 이 대화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사탄을 이용해서 욥을 시험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바로 욥을 사탄에게 넘기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감찰과 평가가 완전히 정확함을 실증할 수 있고, 욥의 증거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수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과 경외심을 완전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즉시, ‘단도직입적’으로 사탄에게 질문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들어 있다. 사탄이 곳곳을 떠돌며 하나님의 종 욥을 늘 감시하고, 늘 시험하고 공격하며, 어떤 방법으로든 그를 무너뜨려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과 경외심이 굳게 서지 못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든 욥을 해할 기회를 노리는 사탄이 욥에게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여 하나님의 손에서 그를 빼앗아가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욥의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은 그의 순전함과 정직함을 보았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것도 보았다. 하나님은 질문의 방식으로 사탄에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여서, 절대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따를 리가 없음을 알려 준 것이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들은 사탄은 점점 더 화가 났으며 그럴수록 욥을 빼앗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렬해졌다. 사탄은 사람이 ‘순전하고 정직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탄은 순전하고 정직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를 증오하기 때문이다. 이는 욥기 1 장 9~11 절에 기록된 바와 같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욱하리이다”. 하나님은 사탄의 악독한 본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사탄이 이미 오래전부터 욥을 해하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사탄에게 다시 한번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을 알려 줌으로써, 사탄이 순순히 따르도록 – 욥을 공격하고 시험하려던 본래의 진면목을 드러내도록 – 하고자 했다. 즉, 하나님은 의식적으로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탄이 욥의 ‘순전함과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모습’으로 인해 증오하고 분노하여 욥을 공격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의 모습을 통해 사탄을 부끄럽게 하는 동시에, 사탄이 철저히 수치를 당하고 실패하도록 하고자 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 더는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임을 의심하거나 참소하지 못하게 될 터였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련과 사탄으로부터 온 시험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는 시련을 감당할 수 있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 낼 수 있는 유일한 책임자는 욥이었다. 이 대화를 끝으로, 사탄은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하였다.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이었는데, 그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욥의 재산이었다. 사탄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라고 욥을 참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의 소유물을 빼앗아가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한 의도였다. 다만 하나님은 사탄에게 한 가지 요구를 했는데, 욥기 1 장 12 절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욥에 대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할 때 욥을 사탄에게 넘기면서 제시한 조건이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선을 그음으로써 사탄에게 욥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다. 하나님은 욥의 순전함과 정직함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자신 앞에서 보여 준 욥의 정직함과 순전함은 검증을 통과할 수 있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믿었다. 그래서 욥에 대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에게 범위를 제한하였다. 욥의 재산은 빼앗아 가도 되지만, 그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이때, 하나님은 욥을 완전히 사탄의 손에 넘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시험하든 상관하지 않았지만, 욥 본인을 해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즉,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리서는 안 되었다.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사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사탄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 서둘러 가서 각종 수단을 다 동원해 욥을 시험하였다. 욥은 바로 가득하던 소와 양을 잃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준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는 시련이 이렇게 욥에게 임했던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욥이 받았던 시험의 유래를 알고 있지만, 그 ‘당사자’인 욥은 그 일을 알고 있었겠느냐? 욥은 평범한 사람으로, 배후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지 못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이 주는 시련이 자신에게 임했다는 느낌만 들었을 뿐이다. 그는 영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으며, 그 시련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욥은 어떤 일이 임하더라도 항상 그의 순전함과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를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일들을 대하는 욥의 태도와 반응을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보았다. 하나님이 본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경외심을 보았다. 시험을 받기 전부터 시험을 받을 때까지, 욥의 마음은 줄곧 하나님께 열려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욥은 자신의 순전함과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를 버리지도, 등지지도 않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어 가장 기쁘고 위안이 되는 부분이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2)

욥의 반응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 가올찌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 하고”(욥 1:20~21)

욥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자발적으로 돌려 드린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끝나자 사탄은 물러갔고, 곧이어 욥은 갑작스러운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먼저 소와 나귀를 빼앗기고, 종들이 살해당했다. 이어서 양 떼들과 종들이 불에 타 죽었다. 그 후에 낙타를 약탈당하고, 종들이 죽임을 당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자녀들도 목숨을 잃었다. 이것은 욥이 처음으로 받은 시험이었고 이러한 일련의 공격에 그는 고통을 받았다. 이 공격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욥의 재산과 자녀들만 목표로 삼았으며, 욥 본인에게는 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욥은 거액의 재산을 가진 엄청난 부자에서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이런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충격은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고, 정면으로 직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욥은 비범한 일면을 보여 주었다. 성경에는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욥이 재산과 자녀를 잃고 난 후에 보인 첫 번째 반응이었다. 우선, 욥은 놀라지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으며, 분노와 증오는 더더욱 없었다. 여기에서 욥이 마음속으로 이 모든 재앙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니며, 보응이나 징벌이 임한 것도 아니라, 여호와가 주는 시련이 자신에게 임한 것이고, 여호와가 자신의 재산과 자녀를 거두어 간 것임을 확신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욥의 마음은 매우 차분했으며, 정신도 매우 맑았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인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매우 이성적이고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닥친 재앙에 대해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보통 때와 다른 냉정함을 보여 주었다. 즉,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던 것이다. ‘겹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가 별거승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의미하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그가 별거승이로 세상에 왔고 지금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며, 갓난아기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욥이 자신에게 닥친 그 모든 일을 대한 태도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여호와에 대한 그의 믿음은 믿음의 차원을 넘어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경외와 순종이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린 복에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간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으며, 더욱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자발적으로 돌려 드릴 수 있었다.

욥이 보여 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순종은 인류의 모범이다. 그의 순전함과 정직함은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최고 수준의 인성이었다. 욥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그는 자신의 체험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거두어 가도 전혀 원망하는 바가 없었으며, 게다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이 자신의 육체를 당장 거두어 가더라도 그 어떤 원망도 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욥의 이러한 모든 반응은 그의 순전하고 정직한 인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욥은 순수하고 정직하며 선하기 때문에 자신이 체험하고 느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굳게 믿으며 흔들리지 않았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욥은 하나님의 인도와 만물을 통해 보게 된 하나님의 행사에 따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생각과 행실, 태도와 일처리 원칙을 자신에게 요구하고 규범화했다. 오랜 시간 그렇게 하면서 욥은 자신의 체험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하고 실제적인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 아울러, 악에서 떠나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욥이 고수한 ‘순전함’의 유래이다. 욥은 정직하고 단순하며 착한 인성을 갖췄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악에서 떠난 실제 체험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욥은 사탄의 이 같은 공격 속에서도 굳게 설 수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이 주는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만족스러운 답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처음의 시험에서 욥은 아주 ‘단순’하게 반응했었지만, 후세 사람들은 평생의 심혈을 기울여도 욥이 해냈던 그 ‘단순’한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욥이 보여 준 그 모습도 갖출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지금 욥의 그 ‘단순’한 반응을 보고, 오늘날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표명한 ‘절대 순종, 죽기까지 충성’이라는 구호나 결심을 그것에 비교해 보면, 너희는 매우 부끄럽지 않느냐?

너는 성경에 기록된 욥의 집에 닥친 이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느냐? 매우 놀라지 않았느냐? 욥이 맞닥뜨린 시련은 ‘끔찍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글로 묘사된 내용만 봐도 욥에게 시련이 임했을 때의 장면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물며 실제 현장은 어떠했겠느냐? 이로써 욥에게 임한 것은 ‘연습’이 아니라 ‘실제 총탄을 든 정규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게 임한 그 시련은 도대체 누가 직접 한 것이냐? 물론 사탄이 한 것이다. 사탄이 직접 한 것은 맞으나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어떤 방식으로 욥을 시험하라고 했느냐? 말씀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조건을 하나 제시했을 뿐이다. 그러나 욥에게 그런 시험이 임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욥에게 닥친 시험을 통해 사탄의 사악함과 추함과 악독함, 그리고 사탄이 사람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여기에서 이번 시험의 잔인함 정도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을 해치는 사탄의 악독한 본성과 추한 몰골이 이때 낱낱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사탄은 이러한 기회, 하나님이 허락한 이러한 기회를 빌미로, 욥에게 가차 없이 미친 듯이 해를 가했다. 그 해치는 수단과 잔인함의 정도는 지금의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전혀 견뎌 내지도 못할 정도였다. 욥이 사탄의 시험을 당하며 그 시험 속에서 굳게 섰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준 시련 속에서 자신의 순전함과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를 지키기 위해 사탄과 대결을 벌였다고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 대결에서 욥은 가득했던 소와 양을 잃었고 재산 전부와 자녀까지 잃었다. 하지만 그의 순전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버리지 않았다. 즉, 그는 사탄과의 대결에서 재산과 자녀를 잃을지언정 그의

순전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지키고, 사람됨의 근본을 지키려고 하였다. 성경에는 욥이 재산을 잃는 전 과정과 욥의 반응과 태도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 간단명료한 묘사에 욥이 그 시험에 아주 ‘쉽게’ 직면했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실제 장면과 사탄의 악독한 본성을 결부시켜 보면, 이 몇 마디로 묘사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 장면은 이보다 훨씬 더 처참하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인류를 대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을 대하는 잔인함과 증오의 정도이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몸에 손대지 말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사탄은 분명 사정없이 욥을 사지로 몰았을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지 않으며, 하나님 눈의 의인이나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사탄을 멀리하고 저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모든 분노와 증오를 사정없이 욥에게 쏟은 것이다. 이것으로 욥이 육체와 마음, 외적 내적으로 받은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당시의 장면을 볼 수 없고, 그저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욥이 고통받았을 당시의 심정을 미미하게 느낄 수 있을 뿐이다.

욥이 지킨 순전함에 사탄은 수치를 당하고 황급히 도망갔다

욥이 이러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였을까? 하나님은 감찰하고 살펴보았으며, 또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은 감찰하고 살펴보면서 심정이 어땠을까? 당연히 몹시 마음 아팠다.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허락한 것을 후회했을까?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탄에게 하나님 앞에 있는 욥이 의롭다는 것을 확인할 기회를 주었을 뿐이다. 또한, 사탄에게 그것의 사악함과 비루함을 드러낼 기회를 준 것이다. 더욱이 욥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사탄, 나아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궁극적으로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틀림없이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느냐? 사실, 욥이 사탄을 이긴 것이 아니냐? 여기에 욥이 한 가장 멋진 말이 있다. 그 말이 바로 욥이 사탄을 이겼다는 증거이다. 그가 말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 가올찌라”.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욥의 태도이다. 이어서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라고 말했다. 욥에게서 나온 이런 말들로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며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하나님의 칭찬은 틀리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칭찬한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욥의 증언이다. 바로 이처럼 평범한 말 한 마디에 사탄은 간담이 서늘해졌고, 수치를 당해 황급히 도망가게 되었으며, 속수무책이 되었다. 욥의 이 한 마디에서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의 행사가 얼마나 놀랍고

위력이 있는지 보게 되었으며,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가 권세 잡고 있는 사람의 비범한 매력도 보게 되었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를 지키기 위해 발산되는 강력한 생명력도 보게 되었다. 첫 번째 대결에서 사탄은 이렇게 패했다. 사탄은 이 사건으로 ‘시야를 넓히게’ 되었지만 욥에 대해 손을 놓을 생각은 없었다. 사탄의 악독한 본성 역시 이로 인해 변하지는 않았다. 사탄은 계속해서 욥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기 위해 또 하나님 앞에 오게 되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3)

사탄이 다시 욥을 시험하다(온몸에 악창이 나다)

1)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욥 2:3)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찌니라”(욥 2:6)

2) 사탄의 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찌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욱하리이다”(욥 2:4~5)

3) 욥은 시련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욱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욥 2:9~10)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남아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욥 3:3)

욥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를 귀하게 여겼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욥 2:3). 이 대화에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사탄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 시련에서 보인 욥의 반응과 모습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평가는 사탄의 시험을 당하기 전의 평가와 똑같았다. 즉, 시험이 임하기 전에 욥은 하나님 눈에 순전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족을 지켜 주었으며, 그에게 복을 내린 것이었다. 욥은 하나님 눈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시험을 겪은 후, 욥은 재산과 자녀를 잃었다고 해서 입으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호와와의 이름을 찬송하였다. 욥의 실제적인 행동에 하나님은 갈채를 보냈으며, 만점을 부여했다. 욥의 눈에는 모든 재산이든 자녀든 하나님을 버릴 만큼 중요한 존재가 되지 못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그 어떤 재산이나 자녀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욥이 처음의 시험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욥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에 대한 욥의 애정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었다는 것을 보았다. 이번 시련이 욥에게는 단지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게 되는 경험을 한 것일 뿐이었다.

욥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의 마음을 씻는 진실한 체험이었으며, 그의 인생을 충실하게 하는 생명의 세례였다. 더욱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순종과 경외심을 검증하는 한 차례의 풍성한 잔치였다. 이번의 시험으로 욥은 부자의 신분에서 무일푼의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으며, 동시에 사탄으로부터 해를 입었다. 욥은 자신이 무일푼이 되었다고 해서 사탄을 증오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탄의 졸렬한 행위로 인해 사탄의 추함과 비열함을 보았으며, 사탄이 하나님께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를 영원히 지키겠다고 더욱 굳게 마음먹는 계기가 되었다. 욥은 맹세했다. ‘재산, 자녀, 가족 같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를 저버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절대 사탄의 노예나 재산의 노예, 그 어떤 사람의 노예도 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욥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소리였다. 시험을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역시 욥은 얻은 것이 있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에게 준 시련에서도 얻은 바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의 인생에서 욥은 여호와와의 행사를 보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 준 복을 받았다. 하지만 그러한 복은 욥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고, 더 빳진 마음이 들게 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없는데도 이와 같은 큰 복을 받아 참으로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욥은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랐다. 아울러,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랐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순종과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의 순종을 검증하고 그의 믿음을 정결케 해 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욥은 이번에 시련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이런 기회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기에 전혀 태만하게 대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욥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소원이 실현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기회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순종과 경외심이 검증받을 수 있고, 아울러 정결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며, 이로부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욥은 이와 같은 믿음과 추구가 있었기에 이번 시련에서 더욱 순전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이 내려 준 복과 은혜에 더욱 감사했으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행사를 더욱 찬양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앙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위대함과 거룩함을 더 간절히 사모했다. 이때의 욥이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을지라도, 욥의 경험과 체험을 놓고 봤을 때 욥의 믿음과 인식은 엄청난 진보와 발전이 있게 되었다. 그의 믿음은 커졌고, 그의 순종은 목표에 도달했으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한층 더 깊어졌다. 비록 이번 시련으로 욥의 마음과 생명이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되었지만 욥은 이로 인해 만족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늦추지도 않았다. 욥은 이번 시련에서 자신이 얻은 수확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고, 또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부분들을 성찰해 보았다. 아울러, 그는 묵묵히 기도하며 다음 시련을 기다렸다. 욥은 자신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시련을 통해 승화되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4)

사탄이 다시 욥을 시험하다(온몸에 악창이 나다)

1)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욥 2:3)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찌니라”(욥 2:6)

2) 사탄의 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찌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욱하리이다”(욥 2:4~5)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진정으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염려를 느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에게 질문을 하자, 사탄은 속으로 기뻐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 눈에 완전한 사람을 공격할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탄에게는 이 얼마나 얻기 힘든 기회인가! 사탄은 이 기회를 틈타 욱의 믿음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했다. 그렇게 하여 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더 이상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하지 않게 하고 싶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은 언제든지 욱을 자기 수중에서 멋대로 우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자신의 사악한 의도를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을지라도 그의 악독한 본성은 억제할 수 없었다. 그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탄의 대답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울찌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욱하리이다”(욱 2:4~5). 사탄의 이 말에서 사람은 자연히 사탄의 악독함에 대해 실제적인 인식과 느낌을 갖게 된다. 사탄의 이런 황당무계한 논리를 듣게 되면, 진리를 사랑하고 사악함을 증오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비열함과 파렴치함을 증오할 것이다. 또한 사탄의 그릇된 논리에 염증과 역겨움을 느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욱을 위해 기도와 축원을 올릴 것이다. 정직한 자가 더 순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가 영원히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빛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서 살기를 바랄 것이다. 또한, 욱의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을 영원히 편달하고 격려하기를 바랄 것이다. 비록 사람들이 사탄의 이러한 말 속에서 사탄의 악독한 속셈을 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주 흔쾌히 사탄의 ‘간청’을 들어주었다. 다만 사탄에게 또 한 가지 조건을 붙였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찌니라”(욱 2:6). 사탄이 이번에는 손을 뻗어 욱의 뼈와 살을 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찌니라”라고 말씀했다. 이 말씀의 뜻은 욱의 육체를 사탄의 손에 붙이지만 그의 생명은 보존해야 하며, 그의 생명을 앗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외에는 어떠한 방식과 수단으로 욱을 대해도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후, 사탄은 허둥지둥 욱의 앞에 이르러 손을 뻗어 그의 살가죽을 찢으며, 그의 온몸에 악창이 나게 했다. 욱은 살가죽의 통증을 느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기묘함과 거룩함을 찬양했다. 그 모습에 화가 난 사탄은 더 길길이 날뛰었다. 사탄은 사람을 해치는 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손을 뻗어 악창이 난 욱의 살을 움켜쥐어 굵아 터지게 했다. 그 순간 욱은 피와 살에 너무나 큰 통증을 느껴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온몸의 피부와 살을 문질렀다. 마치 그러면 육체의 통증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듯이 말이다. 욱은 하나님이 곁에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더 강해지려고 애를 썼다. 그리하여 또 한 번 무릎 꿇고 엎드렸다.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고통을 살피시나이다. 당신께서 어이하야 사람의 나약함까지 생각해 주시나이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탄은 욱이 통증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보았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 이에 사탄은 급하게 손을 뻗어 욱의 뼈를 찢다. 욱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었던 것이다. 순식간에, 욱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느꼈다. 마치 살가죽이 뼈에서 벗겨지는 것 같았고, 또 뼈가 조금씩 부서지는 것 같았다. 수많은 화살이 심장을 뚫는 것 같은 통증에 그는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읍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극한에 달했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으며, 몸의 살가죽을 뜯어내 통증을 덜어 내고 싶었다. 그러나 읍은 참고 소리를 내지 않았으며, 몸의 살가죽을 뜯어내지도 않았다. 읍은 사탄에게 자신의 나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읍은 또다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하지만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 읍은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그의 앞에, 그의 뒤에, 그의 좌우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아파할 때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으며, 그때는 얼굴을 가리고 자신을 숨겼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의미는 고통받게 하고자 함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때 읍은 눈물을 흘렸다. 읍은 몸의 통증은 억지로 참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다. ‘인간은 너무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너무 연약하고 무기력하며 여리고 무지합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어찌하여 이처럼 생각해 주고 긍휼히 여기시나이까? 당신께서 저를 치시고 오히려 당신이 고통스러워하시나이다.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어 당신께서 생각해 주고 마음에 두시나이까?’ 읍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바라보기만 할 뿐.... 사탄은 수를 다 썼어도 성과가 없자 조용히 물러났다. 그러나 읍에 대한 하나님의 시련은 결코 이로 인해 끝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읍에게서 나타낼 큰 능력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읍의 이야기는 사탄의 퇴각으로 인해 끝난 것이 아니었다. 더 멋진 장면은 각 인물의 출현에 따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5)

읍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또 다른 모습은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 것이다

읍이 사탄의 온갖 학대를 받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그의 아내가 나서서 사람이 볼 수 있는 사탄의 역할을 하며 읍을 공격했다. 성경 말씀은 이와 같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읍 2:9). 이것은 사탄이 사람의 모습으로 한 말이었다. 이 말은 공격과 참소의 의미를 띠고 있었고, 유혹과 시험과 훼방의 의미도 띠고 있었다. 사탄은 읍의 육체를 공격해도 소용이 없자 직접 읍의 순전함을 공격하였다. 이를 통해, 읍이 그의 순전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하여 계속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사탄은 또한 이러한 말을 빌려 읍을 유혹하고자 하였다. ‘여호와와 이름을 버린다면 그 모든 고통을 참지 않아도 되고 그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니라.’ 아내의 권고를 듣고 읍은 이렇게 질책하며 말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욥 2:10). 이 말은 욥이 오랫동안 쌓아 온 인식이다. 다만 욥이 이 말을 인식한 것에 대한 진실성이 이때 입증되었을 뿐이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권고하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했다. 그 의미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대하는데 어찌해서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느냐? 당신이 그렇게 살아서 뭐 하나?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도 불공평한데 당신은 계속 여호와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라고 말하더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왜 당신에게 화를 입게 하느냐? 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버려라. 다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지 마라. 그렇게 하면 당신의 재앙은 사라지리라.’라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이 보고자 했던 욥의 증거가 또다시 나왔다. 이런 증거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며, 우리가 성경의 그 어떤 이야기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욥이 이러한 말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보았다. 단지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욥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실증하고자 했던 것이다. 아내의 그런 권고를 듣고도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이 말은 매우 무게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는 이 말이 매우 무게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딱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칭찬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원하고 듣고 싶어 했던 말이며 보고 싶어 했던 결과였다는 것이다. 이 역시 욥이 증거한 것 중의 정수에 해당한다. 여기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욥의 귀함은 바로 그가 시험을 받고 온몸에 악창이 났을 때, 즉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의 아내와 친족들의 권고에도 여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그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시험이나 아무리 큰 환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설사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를 버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그의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하나님의 자리가 가장 크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욥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볼 수 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욥은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일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다. 그의 마음과 입은 일치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본 참된 욥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이 욥을 귀하게 여겨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6)

욥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오해

욥이 겪은 고통스러운 일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직접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욥이 고통받은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욥은 자신이 평소에 마음속에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 평소의 행동 원칙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전부 드러냈다. 그것은 다 진실한 것이었다. 만일 욥에게 시험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시련을 주기 전에,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라는 말을 했다면, 너는 욥이 매우 위선적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많은 재산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와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만일 욥이 시련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라는 말을 했다면, 너는 욥이 큰소리치기 좋아한다고 말할 것이다. 또한 그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임하면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버릴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욥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 하고, 자신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하며, 임할까 봐 두려워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차마 볼 수 없었던 그런 지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의 순전함을 지킬 수 있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욥의 그때의 반응에, 공리공론을 즐기며 글귀만 늘어놓기 좋아하던 자들은 모두 입을 닫았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에게서 오는 시련을 받아들이는 적이 없던 자들은 욥이 지켜 낸 순전함에 의해 정죄받았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를 지킬 수 있다’고 믿지 않았던 자들도 욥의 증거로 인해 심판을 받았다. 욥이 시련 속에서 보여 준 행동과 그의 말을 두고 혹자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혹자는 질투를 하며, 혹자는 의혹을 품는다. 심지어 무시하는 태도로 욥의 증거에 대해 코웃음 치는 자도 있었다. 그들은 욥이 시련 속에서 받았던 고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욥이 했던 말도 들었고, 시련이 임했을 때 그가 보여 준 인간성의 ‘나약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나약함’은 그들이 생각하는 욥의 이른바 순전함 중의 순전하지 않은 부분인 동시에, ‘하나님 안중의 순전한 자’의 흠집이 되어 버린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순전한 자는 완벽한 사람, 즉 흠도 없고 오점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라면 나약함이 없고, 고통도 느끼지 못하며, 또한 아파하고 슬퍼하는 정서도 없고, 증오도 없으며, 과격한 행동도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욥이 진정으로 순전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욥이 시련 속에서 보여 준 많은 행동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산과 자녀를 잃었을 때, 욥은 사람들의 상상처럼 재산과 자녀를 잃었다고 대성통곡한 것이 아니다. 그의 이러한 ‘예상을 벗어난 행동’은 사람들에게 그를 냉혈 인간으로 보이게 했던 것이다. 그에게서는 눈물도 혈육의 정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처음에 욥이 사람들에게 남긴 ‘나쁜 인상’이었다. 이어지는 욥의 일련의 행동들은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었다. 사람들은 ‘겉옷을 찢는’ 행동을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행동으로 보았으며, ‘머리털을 미는’

행동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욥이 말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라는 이 말 외에 사람들은 욥에게서 하나님이 칭찬한 그 어떤 의로움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욥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그저 이해되지 않아 하거나 오해하거나 의심하거나 정죄하거나 도리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은 욥에 대해 위와 같은 인상을 받은 데다가 욥의 의로움에 한층 더 의구심을 품었다. 욥이 했던 것과 성경에 기록된 그의 행동은 천지를 놀라게 하고 귀신도 울릴 만큼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는 사람의 상상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그는 ‘장거’를 이룩하기는커녕, 고작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던 것이다. 이 행동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욥의 의로움에 의혹을 품게 하고, 심지어는 부정하는 태도를 갖게 하였다. 욥은 몸을 긁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맹세한 적이 없었고,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인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사람들은 욥에게서 그의 나약한 모습만 보았을 뿐, 다른 것은 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욥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그 말에서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했거나 일치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으며, 욥의 말에서 그의 의로움을 볼 수 없었다. 시련의 고통을 겪고 있던 욥이 사람들에게 준 인상은 대체로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 이면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지 못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경외심과 그가 어떤 원칙으로 ‘악에서 떠나는’ 도를 지키고 있는지를 보지 못했다. 그의 비굴하지도 않고 거만하지도 않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의 순전함과 정직함이 그저 빈말일 뿐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경외심 역시 그저 전설에 불과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의 ‘나약함’에 대해서는 인상이 깊었다. 또한 그 ‘나약함’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의했던 순전하고 정직한 자를 ‘다시 보게’ 되었으며, 심지어 ‘새롭게 이해’하기까지 했다.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때, 내가 말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과 ‘새로운 이해’가 여기에서 입증되었다.

아무도 욥이 고통받은 정도를 상상하거나 느낄 수 없지만, 욥은 ‘대역무도’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몸의 고통을 줄여 보고자 성경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을 뿐이다.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다라면, 남아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다라면,”(욥 3:3). 아무도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 너희가 보기에 이 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뜻이 있느냐? 이 말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뜻이 있느냐? 나는 너희 대부분이 욥의 이 말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 너희는 욥이 순전하고 정직한 자라면 그 어떤 나약함을 보여서도 안 되고 슬퍼해서도 안 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탄의 모든 공격에 직면해야 하고,

심지어 웃으면서 사탄의 시험을 마주해야 한다고 여길 것이다. 사탄이 욥의 육체에 어떤 고통을 가해도 욥은 마땅히 아무런 반응도 없어야 하고, 자신이 느꼈던 어떤 것도 표현하지 말아야 하며, 심지어 하나님께 더 강력한 시련을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여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강직한 자가 마땅히 보여 주고 갖춰야 할 것이라고 여길 것이다. 욥은 극도의 고통 속에서 그저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을 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뜻은 더욱 없었다. 이것은 말하기는 쉬워도 진짜로 행하기는 아주 어렵다. 예부터 지금까지 욥과 같은 시험을 받아 본 자가 없을뿐더러, 욥과 같은 상황을 겪어 본 자도 없기 때문이다. 왜 욥과 같은 시험을 받은 자가 아무도 없겠느냐? 이는 하나님이 보기에 이러한 책임과 사명을 짊어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며, 욥이 해낸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욥처럼 이러한 고통이 임했을 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 욥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욥의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냐? 의인인 자, 이처럼 하나님을 증거한 자, 사탄으로 하여금 머리를 감싸고 도망쳐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지 못하게 한 자를 칭찬한다고 해서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설마 너희의 요구 기준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냐? 너희는 시련이 닥쳤을 때 욥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말이나? 하나님도 칭찬했는데 너희가 무슨 이견이 있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7)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보고 사람은 겉면을 본다고 나는 늘 말해 왔다.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살핌으로 사람의 본질을 아는 반면,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본질을 정의한다.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을 때, 욥의 세 친구 및 모든 영적 인물들은 그 행동에 놀라 어리둥절해졌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왔기에 생일을 비롯해 생명과 육체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저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해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신성불가침한 것이자 영원히 바뀌지 않는 진리이다. 그런데 욥은 그 ‘관례를 위반’하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보통 사람들이 볼 때 금기를 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해와 동정은 물론,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욥의 ‘의로움’에 의심을 품었다. 이는 그들이 욥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방종’해져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살아생전에 그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살핌에 감사하기는커녕 자신이 태어난 날이 멸망했으면 하고 저주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사람들이 욥을 정죄하는 증거가 된 셈이다. 그러나 그때 욥의 진짜 마음이

도대체 어떠했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또 욥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 실상과 이유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고, 또한 욥 자신만이 알고 있다.

사탄이 손을 뻗어 욥의 뼈를 쳤을 때, 욥은 마수에 걸린 것이었다. 그는 벗어날 수도 저항할 힘도 없었으며, 그의 몸과 영혼은 극한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그 ‘극한의 고통’을 통해, 욥은 육으로 사는 사람의 보잘것없음과 무력감, 유약함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동시에 욥은 하나님이 왜 인류를 염려하고 보살피는지, 하나님의 그 심정을 느끼고 이해하게 되었다. 마수에 걸려든 욥은 평범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도 무력하고 나약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숨은 것처럼 느껴졌다. 이는 하나님이 욥을 완전히 사탄의 손에 넘긴 한편, 욥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욥의 상처로 말미암아 괴로워했다.... 욥은 하나님의 아픔을 느꼈고, 또한 아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것도 원치 않았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이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도 않았다. 이때의 욥은 육체 껍데기에서 벗어나 더 이상 육체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의 아픔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욥은 할 수 없었다. 그는 육체의 고통을 참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걱정시켜 드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오는 고통까지도 참아 내야 했다. 하나는 육체에서 오고 하나는 마음에서 오는 이중의 아픔에 욥은 가슴이 찢어지고 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으며, 참으로 속절없고 무기력한, 육체를 가진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강렬해졌으며, 사탄을 증오하는 마음 역시 그에 따라 더 심해졌다. 그때의 욥은 차라리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를 바랄지언정, 하나님이 자신으로 인해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육체를 심히 증오하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태어난 날도 싫어지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싫어졌다. 욥은 자신의 생일과 자신의 출생에 관련된 모든 것을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던 것이다.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남아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취지 말았었더라면,”(욥 3:3~4). 욥의 말속에는 자신에 대한 증오가 담겨 있었다.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남아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또한 그 말에서 하나님이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 때문에 자책하고 죄스러워하는 심정도 묻어났다. “그 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취지 말았었더라면,”. 이 두 마디는 그 당시 욥이 자신의 심정을 최대한으로 표현한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의 순전함과 정직함을 완전하게 보여 주고 있다. 그때, 또 한편으로는 욥이

원했던 대로 욥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진정으로 승화되었다. 물론 이 ‘승화’는 하나님이 예정했던 결과였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8)

욥은 사탄을 이겨 하나님 눈에 진정한 사람이 되었다

욥은 처음의 시련에서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로 인해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 냈고, 재산과 자녀 그리고 몸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는 시련을 이겨 냈다. 다시 말해, 욥은 하나님이 그의 소유를 거두어 간 것에도 순종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감사와 찬양까지 드릴 수 있었다. 이것이 욥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에서 보여 준 것이며, 또한 욥이 하나님의 첫 번째 시련에서 증거한 것이다. 두 번째의 시련에서 사탄은 손을 뻗어 욥에게 갇은 해를 가했다. 욥은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한 고통을 겪었을지라도 그의 증거는 오히려 사람을 놀라게 했다. 그는 그의 강인함과 믿음,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경외심으로 또 한 번 사탄을 물리쳤다. 그리고 그가 보여 준 것과 증거한 것 역시 또 한 번 하나님께 인정받고 열납되었다. 이번 시험에서 욥은 자신의 실제 행동을 통해 사탄에게 선포했다. 육체의 고통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순종을 변하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경외심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선포한 것이다. 또한 죽음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며, 자신의 순전함과 정직함을 버리는 일 또한 없을 것이라고 선포한 것이다. 욥의 의연함을 본 사탄은 겁이 났다. 욥의 믿음으로 사탄은 두렵고 간담이 서늘해졌으며, 사탄과 사생결단하겠다는 욥의 기세를 보고 침통해졌다. 욥의 순전함과 정직함에 사탄은 속수무책이 되었다. 그래서 사탄은 욥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는 짓을 그만두었다. 이것은 욥이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사망을 이겨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욥은 그 두 차례의 시련 속에서 굳게 섰으며, 그의 순전함과 정직함을 실제로 살아 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그의 생존 법칙의 범위 역시 확장될 수 있었다. 그 두 번의 시련을 겪은 후, 욥은 인생에 더욱 풍부한 경험이 생겼다. 이 ‘경험’으로 인해 그는 더 성숙해지고 원숙해졌으며, 더 강인해지고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자신이 지키고 있는 순전함의 정확성과 가치를 확신하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준 시련으로 욥은 사람을 염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게 되었으며, 하나님 사랑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로부터 욥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하나님에 대한 헤아림과 사랑이 더 추가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준 시련에 욥은 천 리 밖으로 밀려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욥은 육체의 고통이 극한에 달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보살핌을 느끼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게 되었다. 그런 모습은 욥이 일찍이 계획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헤아림과 사랑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연스러운 발현이었다. 욥의 그 ‘자연스러운 발현’은 하나님에 대한 헤아림과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해, 욥은 자신을 미워했고, 하나님이 고통받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헤아림과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잊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그때의 욥은 오랜 세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데서 헤아리고 사랑하는 경지로 자신을 승화시켰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순종과 경외심을 헤아림과 사랑으로 승화시켰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상처 주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이 슬퍼하거나 상심하는 것은 물론, 괴로워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눈에 욥은 여전히 변함없는 욥이었지만, 그의 믿음과 순종,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은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었다. 그때의 욥은 하나님이 기대했던 완전함에 이르렀으며, 하나님 눈에 명실공히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었다. 욥은 자신의 의로운 행동으로 사탄을 이겼고,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섰으며, 온전하게 되었고, 자신의 생명 가치를 승화시켰으며, 초월하게 되었다. 또한, 더 이상 사탄에게 공격받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는 사람의 첫 사례가 되었다. 욥은 의로움으로 인해 사탄에게 참소당하고 시험당했으며, 의로움으로 인해 사탄의 손에 넘겨졌고, 또한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기고 사탄을 물리쳤으며 굳게 섰다. 그로부터 욥은 더 이상 사탄에게 넘겨지지 않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으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빛 속에서 살고, 사탄의 감시와 해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눈에 진정한 사람이 되었고, 자유로워졌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49)

욥의 일상생활에서 욥의 순전함과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음을 보았다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 얘기하려면,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라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먼저 욥의 순전함과 정직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고 정직하다’를 너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욥이 아주 완벽하고 강직하다고 생각하느냐? 물론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과 이해이다. 욥이라는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실생활을 떠나서는 안 된다. 단지 문자적으로, 책에서, 그리고 이치적으로는 그 어떤 답도 찾을 수 없다. 먼저 욥의 일상생활이 어땠는지 살펴보자. 즉, 그의 삶에서 보편적인 모습은 어땠는지 보자. 이것들을 통해 욥의 삶의 원칙과 인생 목표를 알아보고, 또 욥의 인성과 품격, 그가 추구한 것이 어땠는지 알아보자. 성경의 욥기 1 장 3 절의 마지막 구절을 보도록 하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 구절은 그 당시 욥의 지위와 신분이 아주 높았음을 말해 준다. 여기에서 그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인 이유가 많은 재산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인지는 알려 주지 않았다. 어쨌든, 욥의 지위와 신분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성경에서 사람들이 받게 되는 욥에 대한 첫인상이다. 즉, 욥은 순전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고, 엄청난 재산과 고귀한 지위를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 환경과 조건을 가진 정상인이라면, 그가 평소에 먹고 마시는 것, 생활의 질, 개인 생활의 각 부분은 절대다수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다음 성경 구절들을 계속 봐야 한다. “그 아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욥 1:4~5). 이 구절에는 2 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는 욥의 자녀들이 자주 잔치를 베풀어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일은 욥이 항상 번제를 드렸는데, 이는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늘 걱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2 가지 일은 두 부류 사람의 서로 다른 삶의 내용에 대한 기록이다. 하나는 욥의 자녀들이 생활이 풍족하여 늘 잔치를 베풀며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호사스러운 생활에 빠져 있었으며, 풍부한 물질이 가져다주는 높은 질의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나날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늘 죄를 짓고, 늘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를 성결케 하지 않고, 이를 위해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이것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죄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더욱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물론 욥의 자녀들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중점은 이러한 일들이 임했을 때 욥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 성경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한 가지 일이다. 이 일은 욥이라는 사람의 인성과 본질, 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 때 욥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 욥의 자녀들만 항상 함께 먹고 마셨던 것이다. 즉, 욥은 잔치를 베풀지도, 자녀들과 함께 즐기지도 않았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는 부유하고, 각종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호사를 부리지 않았다. 그는 부유하다고 해서 질 높은 생활 환경에 빠져 살지 않았고, 육체적 쾌락을 탐하지도 않았으며, 번제를 드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더욱이 부유하다고 해서 마음으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었다. 여기서 욥은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이 준 복으로 인해 탐욕스러워지거나 향락에 빠지지 않았고, 생활의 품격을 중시하지도 않았으며, 일을 함에 겸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사람됨에서 그가 허세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고 신중했으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했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그는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욥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를 바랐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욥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했고, 그의 마음속 하나님의 자리도 대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가 일상에서 행한 것이 자녀들을 위한 것이든 자신을 위한 것이든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것과 관련이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경외심은 단지 입술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실행에 옮겨졌으며, 일상생활의 구석구석에서 드러났다. 욥의 이와 같은 실제 모습에서 우리는 욥의 정직함을 보았으며, 정의를 사랑하고 긍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의 본질을 보았다. 그가 항상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했다’는 것은 자녀들의 행동을 지지하지도 칭찬하지도 않았으며, 도리어 싫어하고 그들을 정죄했다는 뜻이다. 그는 자녀들의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라고 하였던 것이다. 욥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욥의 인성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욥은 항상 죄를 일삼으며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그들을 멀리하고 피했다는 것이다. 비록 그들이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는 혈연관계에 연연해 사람됨의 원칙을 버리지 않았다. 또한, 정에 이끌려 그들의 죄에 관용을 베푸는 일도 없었다. 대신, 그들이 죄를 자백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들이 향락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경고하였다. 욥이 사람을 대하는 원칙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원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는 하나님이 열납하는 것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악행을 저지르거나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들은 혐오했다. 그의 애증은 그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드러났다. 이것이 곧 하나님 눈에 보인 욥의 정직함이었다. 물론 이 역시 우리가 알아야 할, 욥이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사물을 대할 때 보인 진정한 인성과 살아 낸 모습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0)

시련 속에서 보여진 욥의 인성(시련 속에서 보인 욥의 순전함과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남에 대해 알아보다)

욥은 재산을 약탈당하고, 자녀들이 목숨을 잃고, 종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욥 1:20). 이 구절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욥이 이 소식을 듣고 난 후 놀라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으며, 소식을 알리러 온 종을 꾸짖지도 않았다. 더욱이 현장에 가서 조사하지도 않았고, 어떤 상황인지 사실 확인을 해서 일의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잃은 재산을 아까워하거나 그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자녀와 가족들을 잃은 것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일도 없었다. 오히려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욥의 이러한 행동은 일반

사람들의 행동과 달랐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안겨 주었으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부터 그가 ‘냉혈 인간’이라는 비난을 사게 되었다.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져 아무것도 없게 될 때, 일반 사람들은 괴로움이나 절망감을 느낄 것이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에게 재산은 사람이 일생 동안 흘린 피땀이며, 사람이 생존을 위해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희망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재산이 사라졌다는 것은 자신의 피땀 흘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희망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미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정상인들이 재산을 대하는 태도이고, 재산과 사람의 밀접한 관계이다. 또한 사람이 재산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다수의 사람은 욥이 재산을 대하는 이러한 냉담한 태도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오늘 욥의 마음을 해석함으로써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풀어 가도록 하자!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욥에게 풍부한 재산을 주었으니 욥은 재산을 잃고 하나님께 죄송한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그는 하나님이 준 재산을 제대로 간수하지도 못했고, 보살피지도 못했으며, 지키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산이 약탈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욥의 첫 번째 반응은 마땅히 현장으로 달려가 각종 물건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다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어야 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물론 그가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는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욥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모든 것은 다 본인이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받은 복을 밀천으로 삼는 대신 자기가 지켜야 할 도를 전심전력으로 지키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았던 것이다. 욥은 하나님이 베풀어 준 복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지만, 더 많은 복을 탐하거나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재산을 대하는 태도였다. 욥은 복받기 위해 무엇을 하지는 않았으며, 복이 없거나 복을 잃었다고 걱정하거나 상심하지도 않았다. 그는 하나님이 베풀어 준 복으로 말미암아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모든 것을 망각하는 일이 없었고, 항상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일도 없었다. 재산을 대하는 욥의 태도를 통해, 사람들은 욥의 참된 인성을 볼 수 있다. 첫째, 욥은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물질생활에 대한 요구 기준이 아주 낮았다. 둘째,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갈까 걱정한 적도 없고 두려워한 적도 없다. 이것은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태도이다. 즉, 하나님이 언제 거두어 가든 혹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든 가지 않든, 어떤 요구도 원망도 없었다. 그는 이유도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안배에 순종하기만을 바랐다. 셋째, 욥은 본인의 재산은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생각했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이다. 즉, 욥의 확신을 가리킨다. 욥에 대한 이상의 3 가지 개괄을 통해 욥의 인성과 그가 평소에 진실로 추구한 것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지 않았느냐?

욥이 재산을 잃었을 때 것처럼 냉정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욥의 그러한 인성과 그의 추구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욥은 평소에도 그렇게 추구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시련 속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량과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욥이 한 이 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그가 갑작스러운 생각이 떠올라 만들어 낸 말도 아니다. 이는 그가 오랜 인생의 경험에서 보고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바라기만 하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며 원망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욥의 순종은 아주 실제적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만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사실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욥은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지 않느냐?

욥의 이성

욥은 실제 체험이 있었고 정직하고 성실한 인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재산과 자녀를 잃었을 때 가장 이성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의 이러한 이성적인 선택은 그가 평소에 추구했던 것과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인식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욥은 정직했기 때문에 만물은 다 여호와가 주재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으며, 그 믿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또 순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경외할 수 있었으며, 그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실제적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 것이다. 그의 온전함은 그를 지혜롭게 만들었으며, 그를 가장 이성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성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문자적 해석은 이성과 생각이 논리에 맞아서 터무니없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적절한 언행과 판단, 적절한 규범을 가진 도덕적 기준이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욥의 ‘이성적’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될 말이 아니다. 여기서 욥이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인성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행동과 관계가 있다. 욥은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재를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주재에 순종할 수도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욥은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인식을 통해, 욥은 자신에게 임한 일을 더욱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정의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것들을 더욱 정확하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었다. 즉, 그의 언행과 일 처리 원칙과 방침은 맹목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았고, 매우 규범적이고 명확하며 아주 구체적이었다. 그는 어떤 일이 임하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고, 각종 복잡한 사건의 관계들을 어떻게 균형 잡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알았다. 또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를 어떻게 지켜 나가야 할지도 알았으며, 더욱이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줄 때와 거두어 갈 때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았다. 이것이 바로 욥의 ‘이성’인 것이다. 이러한 이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욥은

재산과 자녀를 잃었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1)

욥의 진정한 모습: 진실하고 순박하며 위선적이지 않음

욥기 2 장 7~8 절을 보자.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것은 욥이 몸에 악창이 난 후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때, 욥은 재 가운데 앉아 몸의 통증을 견디고 있었다. 그러나 그를 치료해 주는 이가 없었고, 그의 육체적 고통을 덜어 주고자 하는 이도 없었다. 그는 혼자서 기와 조각으로 악창이 난 상처를 긁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욥이 고통받던 기간 중 한 장면에 불과해 욥의 인성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 욥은 이 기간에 그 어떤 말로도 이때의 심정과 생각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욥의 행동과 반응은 그의 인성을 진정으로 보여 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앞의 1 장의 기록에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라는 구절을 보았다. 그리고 2 장의 이 구절에서는 이 동방 사람 중 가장 큰 자가 뜻밖에도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앞뒤의 2 가지 묘사는 아주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지 않느냐? 이 대비를 통해, 우리는 욥의 본모습을 보게 되었다. 욥은 신분과 지위가 대단했지만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보는지 신경도 쓰지 않았으며, 자신의 행동이 자기 신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았다. 그는 지위의 복을 탐하지 않았고, 지위와 신분이 그에게 가져다주는 후광을 즐기지도 않았다. 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가치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만 신경 썼을 뿐이다. 욥의 진정한 모습이 바로 욥의 본질이었다. 그는 명리를 좋아하지 않았고, 명리를 위해 살지 않았다. 그는 진실하고 순박하며 위선적이지 않았다.

애증이 분명한 욥

욥이 아내와 나눈 대화에서 욥의 또 다른 면의 인성이 모두에게 보여졌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욥 2:9~10). 욥의 아내는 욥이 그런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고 욥에게 권고함으로써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호의’는 욥의 칭찬을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욥을 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과 순종을 부인하는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욥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용납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럴진대,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것은 어떻겠느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말을 내뱉는 것을 보고 그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욥은 아내를 ‘어리석은 여자’라고 한 것이다. 욥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에는 분노와 증오가 담겨 있었고, 책망과 질책도 담겨 있었다. 이것은 애증이 분명한 욥의 인성의 자연스러운 발현이자, 그의 정직한 인성이 사실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욥은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정의감이 있었기에 사악한 풍조와 추세를 증오했으며, 그릇된 사실과 황당무계하고 터무니없는 말들을 증오했고 정죄하고 밀어냈다. 또한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자신의 정확한 원칙과 입장을 고수할 수 있었다.

욥의 선함과 성실함

욥의 다양한 행동에서 욥의 인성을 볼 수 있다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일에서는 또 욥의 어떤 인성을 볼 수 있을까? 이것이 다음으로 내가 이야기할 주제이다.

앞에서 나는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원인에 대해 얘기한 바 있다. 그 일에서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만일 욥이 마음이 강박하고 사랑도 없고, 아주 냉혹하고 무정하며, 인간성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인해 자신의 생일을 증오했겠느냐? 다시 말해, 욥의 마음이 강박하고 인간성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으로 인해 마음 아파했겠느냐? 하나님이 자신으로 인해 마음 아파한 것 때문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겠느냐?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당연한 답이다. 욥은 마음씨가 착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에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욥은 마음이 착했기에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아픔을 느꼈기에 자신의 생일을 증오했기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욥이 시련 속에서 보여 준 모든 행동은 사람이 배울 만한 본보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일만큼은 사람들에게 욥의 순전함과 정직함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거나 다양한 평가를 내놓게 만들었다. 사실, 욥의 이 행동이야말로 욥의 인성과 본질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의 인성과 본질에는 숨기거나 과장된 것이 없었으며, 사람에게 의해 가공된 것도 없었다. 그의 이 행동들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선함과 성실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넘치는 샘물같이 맑고 투명한 사람이었다.

욥이란 사람의 면면을 알고 난 후에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욥의 인성과 본질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하나님이 ‘순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한 말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진일보한 실제적인 앎과 깨달음이 있으리라 믿는다. 또 그러한 앎과 깨달음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을 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2)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넘긴 것과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와 관계

비록 이때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욥의 순전함과 정직함을 인정하고, 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을 인정했을지라도, 욥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된 것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은 욥의 인성과 그가 추구하는 바를 부러워하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욥이 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이처럼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사탄에게 넘겨서 그런 고통을 받게 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의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질문이라는 것이다. 이 질문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곤혹스러움을 느끼게 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그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다 평범하지 않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에게서 하는 일들은 다 그의 경영과 관련되며, 인류의 구원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이 욥에게 행한 일도 예외는 아니다. 욥이 하나님 눈의 순전하고 정직한 자임에도 말이다. 즉,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무엇을 대가로 삼고 무엇을 목표로 하든지 간에, 그가 하는 사역의 근본 취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근본 취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요구, 그리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이 보기에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절차에 따라 사람 마음에 심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명확하게 알며,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의 근본 취지 중 하나이다. 또 한편으로 사탄은 하나님 사역의 부각물이자 봉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사탄에게 넘겨진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사탄의 시험과 공격 속에서 사탄의 사악함과 추함과 비열함을 보게 함으로써 사탄을 증오하고 부정적인 것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은 점차 사탄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사탄의 참소, 교란과 공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순종,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심에 기대어 사탄의 공격과 참소를 완전히 이기면, 사람은 완전히 사탄의 권세에서 구출된다. 사람이 구출됐다는 것은 사탄이 패했다는 선언이며, 그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의 먹이도, 사탄이 삼키려고 하는 대상도 아닌 사탄이 포기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람은 정직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탄과 철저히 결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사탄에게 수치를 주고, 사탄의 간담을 서늘케 하며, 또한 사탄에게 완전한 실패를 안겨 준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경외심으로 사탄을 물리쳐, 사탄으로 하여금 그에 대해 확실히 손을 놓게 만든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최종 목표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완전히 하나님께 얻어지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탄으로부터 오는 크고 작은 시험과 공격에 직면해야 한다. 그리고 완전히 사탄을 이기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준 시련과 사탄의 무수한 시험과 공격을 겪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요구를 아는 자요,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고 사탄의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를 포기하지 않은 자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정직하고, 선하고, 애증이 분명하고, 정의감이 있고, 이성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사탄의 속박, 염탐, 참소, 상해 등이 없으며,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를 얻은 자이고, 완전히 해방받은 자이다. 욥이 바로 이러한 자유인이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넘긴 의미이기도 하다.

욥은 사탄의 상해를 겪었지만 영원히 자유로운 해방을 얻었다. 그는 영원히 사탄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상해와 참소를 받지 않으며, 어떤 우려도 걱정도 근심도 없이 하나님의 얼굴빛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복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이 권리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아무도 파괴할 수 없으며, 아무도 차지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권리는 욥이 자신의 믿음과 의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경외심으로 바꾼 것이다. 그는 목숨을 대가로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삶을 얻었으며, 진정한 피조물로서 천경지위(天經地緯)로 땅에서 그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창조주를 경배할 자격과 권리를 얻었다. 이 역시 욥이 시험을 겪어 얻은 가장 큰 성과이다.

구원받기 전의 사람의 삶은 항상 사탄의 방해를 받으며, 심지어 그 삶은 사탄에게 통제받는 삶이다. 즉,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는 사탄에게 구금된 자이고, 자유가 없는 자이며,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자격과 권리가 없는 자이며, 사탄에게 쫓기고 심한 공격을 받는 자이다. 이러한 사람은 행복을 논할 수도 없고, 정상적인 생존 자격은 물론이고 존엄성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할 수도 없다.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 사탄과 싸워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과 경외심을 무기로 사탄과 결사전을 벌여 철저히 물리쳐야 한다. 그리하여 사탄이 너를 보면 도망가고 너를 보면 간담이 서늘해지게 해야 한다. 그러면 사탄이 너에 대한 공격과 참소를 완전히 포기할 것이다. 그때 너는 구원받아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네가 사탄과 철저히 결별할 결심만 하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유리한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면, 너는 여전히 아주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너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괴롭힘으로 인해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굳게 서지도 못하고, 사탄의 참소와 공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가 구원받을 희망은 요원해진다. 최종, 즉 하나님의 사역이 마지막을 고하게 될 때에도 네가 여전히 사탄에게 꼭 잡혀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는 영원히 기회도 희망도 없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러한 사람은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3)

하나님의 검증을 받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 하나님께 온전히 얻어지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공급해 주고 붙들어 주는 사역을 하는 기간에 그의 뜻과 요구를 모두 알려 주었다. 또한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보여 주었다. 그 목적은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갖추게 하고자 함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기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진리를 얻게 하고자 함이다. 그러한 진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예리한 무기이다. 사람이 이러한 장비를 갖추려면 하나님의 검증에 직면해야 한다. 하나님의 검증은 여러 가지 방식과 경로가 있지만, 모든 경로와 방식에는 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탄과 싸울 예리한 무기를 준 다음, 사람을 사탄의 손에 넘겨 사탄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분량을 ‘검증’하게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사탄이 설치한 진영에서 벗어나고, 사탄의 포위 공격에서 살아 나오게 되면 이 검증을 통과한 것이다. 만일 사탄의 진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탄에게 항복하게 되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부분을 검증하든지 간에, 검증의 기준은 사람이 사탄의 공격에서 굳게 설 수 있는지의 여부, 사탄의 울무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기를 버리고 사탄에게 굴복하는지의 여부이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하나님이 준 무기를 들고 사탄의 결박을 끊고 사탄에게 사람에 대해 완전히 마음을 접고 포기하게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사탄이 사람을 단념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두고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그 사람을 참소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더 이상 제멋대로 그 사람을 해치거나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얻어진 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얻는 전 과정이다.

옴의 증거가 후세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와 계시

사람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완전히 얻는 전 과정을 깨달은 동시에, 하나님이 옴을 사탄에게 넘긴 목적과 의미도 알게 되었다. 또 더 이상 옴이 받았던 고난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었고 옴이 받은 고통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다. 사람은 더 이상 옴과 같은 시험이 올까 걱정하지 않게 되었으며, 더 이상 하나님이 주는 시련에 반발하고 저항하지 않게 되었다. 옴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옴이 사탄을 이긴 증거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도움과 격려가 되었다. 옴에게서 사람들은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사람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경외심에 의지하면 사탄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보았다.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결심과 믿음만 있다면, 사탄에게 실패와 수치를 안겨 줄 수 있다는 것도 보았다. 또한 목숨을 버릴지언정 굳게 서겠다는 결심과 의지만 있다면, 사탄은 소문만 듣고도 간담이 서늘해져서 황급히 도망간다는 것을 보았다. 욥의 증거는 후세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었다. 이 경고는 사탄을 이기지 못하면 영원히 사탄의 참소와 방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또한 영원히 사탄의 공격과 상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욥의 증거는 또 후세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었다. 이 계시를 통해,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야만 하나님을 힘 있게 증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 있게 증거해야만 영원히 사탄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에서 살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욥의 인성과 품격, 그가 인생에서 추구한 것은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다. 욥이 일생 동안 살아 낸 것과 그가 시련 속에서 보여 준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를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소중한 자산인 것이다.

욥의 증거에서 하나님이 위안을 받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욥은 사랑스러운 자라고 말하면, 너희는 아마도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또한, 내가 왜 이러한 일들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마음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언젠가 너희가 욥과 같은 혹은 비슷한 시련을 겪게 될 때, 너희가 환난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해 마련해 놓은 시련을 겪게 될 때, 시험 속에서 사탄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치욕과 고통을 이겨 내게 될 때, 너는 내가 한 이 말들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욥과 비교했을 때 너 자신이 그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욥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얼마나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욥이 말한 그 멋진 말들이 파괴된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욥이 해낼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해내기 힘든 일인지 알게 될 것이다. 네가 해내기 어렵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걱정스러워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하나님이 인류에게 한 것과 인류를 위해 바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교제했으니 너희들은 욥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욥은 진정으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맞느냐?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분명히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욥이 했던 그런 일들은 사탄을 포함한 그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일들은 욥이 사탄을 이긴 가장 유력한 증거이다. 이 증거는 욥에게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얻은 첫 번째 증언이다. 그러므로 욥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서 희망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마음 역시 욥으로부터 위안을 받았다. 창세부터 욥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처음으로 무엇이 위안인지, 무엇이 사람으로부터 위안을 받는다는 것인지 진정 느끼게 되었다. 하나님은 무엇이 진정으로 그를 증거하는 것인지를 보았고 또 그것을 얻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4)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욥 9:11)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뵈올 수 없구나”(욥 23:8~9)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욥 42:2~6)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주재를 믿었다

너희는 이런 구절들에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보았느냐?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있느냐? 먼저 우리는 욥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주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보자. 다음 구절로 이상의 2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욥 42:5~6). 이 구절로부터 욥은 전해지는 말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지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 후 그는 삶 속에서,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을 갔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지금의 사람들과 같지 않느냐? 욥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다. 다른 말로, 욥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어떤 모습인지, 무엇을 하시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관적인 요인이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가 하나님을 따를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고, 그와 말을 나눴던 적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와 얘기를 나눈 적도 없고 그에게 어떤

명령을 한 적도 없었음에도 욥은 만물을 통해서, 자신이 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재를 보았다. 그것을 계기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삶을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을 따르게 된 원인과 과정이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든지, 어떻게 자신의 순전함을 지켰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 다음의 이 구절을 읽어 보자.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욥 9:11).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욥은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꼈을 수도 있고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이 그의 앞을 지나가거나 일을 행하거나 사람을 인도한다고 상상하기는 했지만 전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주의하지 않을 때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 임했는지, 어디에 임했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은 모습을 감춘 존재인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흔들린 적이 없다

다음 구절에 또 욥의 이런 말이 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뵈을 수 없구나”(욥 23:8~9). 이 기록을 보면, 욥의 체험에서 하나님은 시종일관 욥에게 보이지 않았고, 그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난 적이 없으며, 그에게 공개적으로 무슨 말씀을 한 적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했다. 그는 늘 하나님이 그의 앞을 지나가거나 그의 우편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의 곁에서 그의 모든 것을 주재하고 계신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을 전혀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도 욥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데, 이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왜 할 수 없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도 않았고 나타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욥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를 지키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너는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욥의 순전함과 정직함,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의로움은 하나님이 과장한 것이 아니라 진짜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를 대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에게 말씀하지도 않았고. 하지만 그는 의연하게 자신의 순전함과 정직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주재를 믿었다. 게다가 하나님께 죄지을까 두려워 항상 번제를 드리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하였다. 욥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 사실로 볼 때, 욥이 얼마나 긍정적인 것을 좋아했는지, 욥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고 얼마나 실제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믿음을 잃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보이지 않는 사역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했으며, 하나님의 주재와 능력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는 만물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주재를 보았고,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복과 은혜를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비록 하나님이 예전과 다름없이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욕의 믿음은 흔들린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어떤 사람도 얻지 못한 성과, 곧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았던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5)

욕은 화복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였다

성경에 기록된 욕의 이야기에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언급할 중점이다. 욕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다.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했느냐? 바로 앞에서 말한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라는 태도였다. 이 ‘찬송’에는 조건도 배경도 그 어떤 이유도 없었다. 여기서 욕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주관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결심하고 계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다 열어 놓았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대립되지 않았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 달라고, 무엇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 또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면 무언가 얻을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도 하지 않았다. 욕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뭘 얻어 내려고 하지도 않았다. 욕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던 이유는 만물을 주재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가 복을 받거나 화를 당한 것으로 인해 그렇게 한 것은 전혀 아니다. 욕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든 화를 입든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병은 변함없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재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이 화를 입는 것 역시 하나님의 주재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큰 능력과 권병으로 사람의 모든 것을 주재하고 안배한다. 사람에게 수시로 임하는 화복은 모두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병의 발현이며,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받아야 마땅하다. 이것이 욕이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깨달은 것이다. 하나님은 욕의 모든 생각을 듣고 모든 행실을 보았다. 또한 그의 생각과 행실을 중히 여겼으며, 욕의 그러한 인식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한 마음도 귀하게 여겼다. 그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언제 어디서나 그에게 임하는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욕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바가 없었다. 욕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안배를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직면하고,

순종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욥이 생각하는 자신의 책임이자,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다. 욥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다. 욥은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거나, 무엇을 명령하거나, 무엇을 가르쳐 주거나, 무엇을 알려 주는 말씀을 들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의 말로 하자면, 그에게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떤 깨우침이나 인도,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그가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을 그런 태도로 대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었다. 하나님이 보기에 욥의 그러한 행동은 아주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 그의 증거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이었다. 욥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고,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는 말씀을 들은 적도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오한 이론만 떠들어 대며 큰소리치고, 번제만 중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인식도 없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들보다는 욥의 마음이나 사람됨이 하나님에겐 훨씬 소중했다. 욥은 마음이 순결하고 하나님께 숨기지 않았고, 그의 인성은 정직하고 선했으며, 또한 정의와 긍정적인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성을 갖추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권병과 큰 능력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다. 그가 화복을 따지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므로 사람이 걱정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무지하며 이성이 없는 행동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태도이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욥의 이러한 인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다. 지금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욥의 이론적 인식이 너희보다 더 많으냐? 하나님이 그 당시에 행한 사역과 말씀은 매우 적었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욥이 그러한 성과를 이룬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한 적이 없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 그러한 태도를 갖춘 것은 전적으로 그의 인성과 그의 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의 인성과 그의 추구는 지금 사람들이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은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자가 세상에 없다'고 말씀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미 그에 대해 이러한 평가와 결론을 내렸는데, 하물며 지금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6)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서 나타내는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욥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사역을 직접 체험해 보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의 경외심과 시련 속에서 한 증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았고, 기뻐했으며,

칭찬했다. 사람들 역시 부러워했고, 경탄했으며, 더욱이 칭찬이 자자했다. 그의 일생은 위대하지 않고 평범했다.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 평범한 수십 년의 세월 속에서 그는 보통 사람이 얻지 못한 하나님의 도를 알았다는 것이다. 또한, 보통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주재를 느끼고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는 그 어떤 보통 사람보다 총명한 것도 아니고, 막강한 생명력을 지닌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갖추지 못한 정직함과 선함과 올곧음, 그리고 공평과 공의를 사랑하고 긍정적인 것을 사랑하는 인성과 품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애증이 분명하고 정의감이 있었으며, 강한 의지와 섬세한 마음의 소유자였다. 그러므로 그는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이 행한 모든 평범치 않은 일들을 보았던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 공의로움을 보았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총과 보호를 보았으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존귀함과 권병을 보았다. 욥이 일반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속했으며, 그의 마음이 창조주에게 끌렸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욥의 추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추구했으며,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악에서 떠나는 자가 되고자 추구했기 때문이다. 욥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들을 갖추고 추구했던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방식을 깨달았으며,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지혜도 깨달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지만 사람에게 복을 주고 사람에게서 거두어 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았다. 그가 지나온 세월은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의 아주 평범한 일상은 그가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결코 영향을 주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을 가는 데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의 눈에 하나님의 행사는 만물의 운행 법칙 가운데 충만했으며, 하나님의 주재 역시 사람의 삶 속 어디서든 볼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행사의 무소부재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평범한 날들 속에서, 삶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비범하고 오묘한 행사를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기묘한 안배를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음’과 ‘침묵’은 욥이 하나님의 행사를 체험하는 데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욥의 일생은 평범한 삶 속에서 만물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를 체험하는 것이었다. 또한 욥은 평범한 날들 속에서, 만물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지만 만물의 운행 법칙을 주재하면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욥과 같은 인성을 갖추고 욥처럼 추구하면, 욥과 같은 경험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욥처럼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욥에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될 수

있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고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람이 만물 가운데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행사와 주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병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또한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병으로 사람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을 갈 수 있음을 말해 준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을 읍같이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었다면, 이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논리적 추론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물의 법칙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은 읍만 가지고 있는 특허처럼 보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을 언급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는 읍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에 ‘읍’이란 이름이 붙어 있어 그 일이 다른 사람과는 무관한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주 명확하다. 읍만이 정직하고 선하고 올곧고, 공평과 공의를 좋아하고, 긍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인성과 품격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읍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을 갈 수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마 너희도 깨달았을 것이다. 즉, 모든 사람들은 정직함과 선함과 올곧음, 그리고 공평과 공의와 긍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인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악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사지도 못하고, 시련에서 굳게 설 수도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읍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사탄의 속박과 굴레에 묶여 있으며, 모두 사탄이 참소하고 공격하고 해치고 삼키려는 대상이 된 것이다. 그들은 자유를 얻지 못한 자들이고, 사탄에 의해 구금된 죄수들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7)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적이 되었는데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겠는가

지금 사람들이 읍과 같은 인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사람의 본성과 본질,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느냐? 악에서 떠난 사람이 맞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표현으로 개괄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원수’란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만 그 안에 내포된 실제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표현에는 본질적인 면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원수로 여긴다는 것이다. 우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목적과 야심도 들어 있지 않고 어떤 저의도 없는 초심을 가졌던 자가 누가 있느냐? 설사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존재함을 보았을지라도, 여전히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생명 체험 과정에서 늘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가정도 직장도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 그동안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한번 계산해 보고 따져 봐야겠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을 들이며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동안 내가 한 것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해 주실까? 하나님은 나의 선행을 기억해 주실까? 나의 결말은 도대체 어떨까? 복은 받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은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계산하고, 저의와 야심을 품고, 또한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어 내려고 한다.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상대로 계산하고, 자신의 결말을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치를 따지며 논쟁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며 하나님께 구두 증거를 구걸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거래를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얻어 내려고만 한다. 심지어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동시에, 또 끊임없이 하나님과 논쟁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시련이 임하거나 어떤 환경에 처하면 늘 나약해지고 일을 태만히 하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화수분이나 만물 상자로 삼고,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큰 채권자로 간주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약속을 얻어 내는 것이 생득적 권리이자 책무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사람을 보호하고 보살피며 사람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 할 책임이라 여긴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이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이기도 하다. 사람의 본성과 본질로부터 사람의 주관적인 추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과는 아예 관련시킬 수도 없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고, 그래야 한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이러한 상태를 볼 때, 사람의 본질은 뻔한 것이다. 이 본질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씨가 악독하고 음험하고 간사하며, 공평과 공의를 좋아하지 않고 긍정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게다가 비열하고 탐욕스럽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태껏 사람의 진심을 보지 못했으며, 사람의 경배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든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행하든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급하든지 간에, 사람은 봐도 못 본 척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사람은 시종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이 주관하고 자신이 결정하려고 한다. 그 뜻인즉,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을 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고 싶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사람들의 상태다. 다시 욥의 경우를 보자. 우선 그가 하나님과 거래를 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를 지키면서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느냐?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라도 이후의 결말에 대해 말씀한 적이 있느냐? 그때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결말에 대한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욥은 그러한 배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그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양자의 차이가 너무 크다. 같은 레벨의 사람이 아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을지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는 하나님과 한 번도 거래를 한 적이 없었으며, 하나님께 그 어떤 지나친 기대나 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여겼다. 이것은 욥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를 지키는 삶을 사는 과정에서 보고 얻게 된 성과이다. 또한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성과도 얻었다. 이 두 구절은 그가 살며 체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보고 깨달은 것이다. 또 이 두 구절은 사탄의 시험을 이긴 가장 유력한 무기였으며,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설 수 있었던 초석이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나눈 얘기로 볼 때, 너희는 욥이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느냐?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느냐? 너희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당하게 될까 봐 두려우냐? 너희는 하나님께 욥 같은 시련을 달라고 기도할 마음이 있느냐?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감히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것으로 너희들의 믿음은 보잘것없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욥과 비교하면 너희들의 믿음은 정말 언급할 가치도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적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지도 못하고, 사탄의 공격과 참소와 시험을 이기지도 못한다.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겠느냐? 욥의 이야기에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이 구원받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고 나니, 이제는 욥과 같은 시련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겼느냐? 이제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을 가야겠다고 다짐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8)

하나님이 주는 시련에 대해 그 어떤 걱정도 하지 마라

욥의 시련이 끝나고 욥에게서 증거를 얻은 다음, 하나님은 욥과 같은 사람들을 한 무리 혹은 더 많이 얻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사탄이 하나님과 내기를 걸며 욥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해쳤던 그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하나님은 사탄이 나약하고 무지하고 우매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욥에게 했던 그 한 번의 시험으로 이미 충분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사탄이 제멋대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이 보기엔 욥 한 사람이 사탄의 시험과 상해를 받은 것으로 이미 충분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사탄이 그러한 짓을 하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생명과 그들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재하고 주관하며, 사탄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을 함부로 지배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은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나약함을 생각해 주고, 사람의 우매함과 무지함을 잘 알고 있다. 사람이 완전하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늘 사탄에게 우롱당하고 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으며, 사람이 늘 고난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니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것을 주재하고 안배하는 것은 천경지위(天經地緯)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고, 만유를 주재하는 하나님의 권병이다! 하나님은 사탄이 제멋대로 사람을 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마음대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한, 사탄이 온갖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류를 주재하는 데에 사탄이 끼어드는 것은 더더욱 용납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만유를 주재하는 법칙을 사탄이 짓밟고 깨트리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이처럼 큰 사역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사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6 천 년 경륜의 사역의 핵심이자 결정체이다. 또한, 하나님이 6 천 년 사역에 기울인 심혈의 대가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사탄에게 넘기겠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시련이 임할까 봐 늘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사탄의 굴레에 묶여 살고, 사탄의 공격과 상해의 위험 속에서 살면서도 두려운 줄 모르고 걱정하지도 않는다. 이는 어찌 된 일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믿음은 그저 보이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배려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시련,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하나님의 위엄과 진노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조금 느낄 뿐, 하나님의 고심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시련을 언급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아마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저의를 품고 있어 사람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도, 오히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극력 반발하고 저항한다. 이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의해 ‘잘못 인도’될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빼앗길지도 모르며, 심지어 목숨도 위태로워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탄의 진영에 있으면서도 사탄이 사람을 해칠까 걱정한 적이 없었고, 사탄에게 해를 입으면서도 사탄에게 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 반면, 사람은 말끝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겠다고 외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람을 사탄의 마수에서 구원하리라는 것을 믿은 적도 없었다. 사람이 읊처럼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면, 사람의 결말은 읊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주재를 받아들이고 순종한다고 해서 사람에게 무슨 손해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권고하는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너의 신변에 임하는 모든 일들을 신중히 대하라. 경솔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혈기와 천연적인 본능, 혹은 상상과 생각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너를 위해 마련한 사람이나 일, 사물들을 대하지 마라.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구하라. 명심했겠지?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59)

시련을 겪은 후의 욥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욥 42:7~9)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욥 42:10)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 하게 하시니 그가 양 일만 사천과 약대 육천과 소 일천 겨리와 암나귀 일천을 두었고”(욥 42:12)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욥 42:17)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귀하게 여기고 우매한 자를 천하게 여긴다

욥기 42 장 7 절에서 9 절에 하나님은 욥을 그의 종이라고 언급했다. 욥에게 사용했던 ‘종’이라는 이 호칭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차지하는 욥의 비중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그에 대해 더 높은 호칭으로 부르지 않았을지라도, 이 호칭은 결코 욥이 하나님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기서의 ‘종’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애칭’이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내 종 욥’이라고 언급한 표현으로부터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종’이라는 단어의 함의를 언급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 구절에서 ‘종’이라는 단어에 대해 내린 정의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먼저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욥을 시련한 후, 욥의 행동과 말을 열납했음을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린 것이며, 처음으로 욥의 행동과 말이 정확하고 옳았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은 엘리바스 등 친구들의 정확하지 않은 그릇된 논쟁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노한 것이다. 그들도 욥처럼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생활했지만, 욥이 하나님에 대해 그토록 정확한 인식을 가졌던 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엉뚱하게 추측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염증을 느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욥의 행동과 말을 열납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분노를 느꼈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엘리바스 등 친구들에게 그들이 속죄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이 우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번제를 드려 과오를 만회해야만 했던 것이다. 보통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번제는 욥에게 드리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 번제가 다른 것과 차별화된 부분이다. 욥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납되었다. 동시에, 욥의 친구들은 욥이 시험을 받던 기간에 다 드러났다. 그들은 우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죄받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했다. 이 ‘징벌’이 바로 욥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노를 풀어 주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자 함이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욥의 순전함을 정죄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열납하지 않으나 욥의 행동은 흔쾌히 열납하고 기뻐한다는 것을 알려 주고자 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사람은 하나님께 열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고, 우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우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 눈에 천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려 주고자 한 것이다. 이 두 측면은 하나님이 두 부류 사람에 대해 내린 정의이고, 이 두 부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이다. 또한 이 두 부류 사람의 값어치와 지위에 대한 해석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욥을 종이라 불렀을지라도 이 ‘종’이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에게서 권병을 받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과오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또한,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높고 존귀한 사람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한 ‘종’의 진정한 함의이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특별한 영광’을 얻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종’이라 불리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 2 가지 완전히 다른 태도는 이 두 부류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하나님께 열납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보이는 것이다. 반면, 우매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에서 떠날 수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며, 늘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으며, 하나님께 천하게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욥에게 권병을 주다

욥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다. 욥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들의 우매함대로 그들에게 갚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들을 벌하지 않고 그들에게 어떤 응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종인 욥이 그들을 위해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열납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한 것이다. 여기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축복할 때 그에게 많은 것을 내려 주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또 그에게 권병을 주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자격이 있게 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몇 사람의 과오를 기억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준 권병이다. ‘욥의 기도로 타인이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그 우매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 것이다. 물론 이 역시 엘리바스 등 친구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징벌이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0)

욥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더 이상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욥은 어떤 말을 했느냐?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말이다. 또한 욥기에 기록된 그 많은 분량의 말들이다. 그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말들을 보면, 욥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원망도 의심도 없었으며, 오직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기다림은 바로 그의 순종하는 태도였다. 그의 태도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한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열납하였다. 그가 시련을 겪을 때,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의 곁에 있었다. 하나님이 곁에 있다고 해서 그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보고자 한 것을 보았고, 듣고자 한 것을 들었다. 욥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 이르렀고, 그의 모든 말은 하나님 귀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은 다 들었고 보았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때, 그 시기 하나님에 대한 욥의 앎과 마음속의 생각은 사실 지금 사람들처럼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당시의 배경에 따라 그가 말한 것을 인정해 주었다. 그것은 욥의 마음속 생각과 모든 행실, 그리고 그가 보여 준 것과 드러낸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요구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욥이 시련을 겪는 동안, 그의 마음속 생각과 다짐을 통해 하나님은 결과를 보게 된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보기에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뒤이어 하나님은 시련을 거두어 갔다. 그 후 욥은 고통 속에서 벗어났으며, 욥의 시련은 그때부터 사라져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욥은 이미 시련을 겪었고 또한 시련 속에서도 굳게 서고 사탄을 완전히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당한 복을 그에게 내린 것이다. 욥기 42 장 10 절과 12 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욥은 또 한 번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많이 받았다. 이때, 사탄은 물러가 더 이상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욥은 더 이상 사탄의 방해와 공격을 받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준 것 역시 더 이상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았다.

욥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여생을 보냈다

비록 그때의 복은 소와 양, 낙타, 재산 등에 국한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욥에게 주고자 했던 복은 그런 것만이 아니었다. 그 당시,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영원한 약속을 주려 한다는 기록이 있느냐? 욥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결말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또 그 복은 결말과 연관되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욥의 비중과 지위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에는 매우 적당한 선이 있었다. 그는 결말에 대해 선포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결말을 선포할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때, 즉 사역을 끝내는 단계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만 좀 주었을 뿐 사람의 결말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욥은 여생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보냈다. 이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점이다. 같은 점은 그도 정상인처럼 늙어 가고 어느 날 세상과 이별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욥 42:17). 여기서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는 무슨 의미이냐? 하나님은 결말을 선포하지 않은 그 시대에 욥에게도 수명을 정해 주었으며, 그 수명이 다 찬 후 욥은 자연스럽게 세상과 이별했다. 그가 두 번째로 복을 받은 후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그 어떤 고통도 주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기에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필연적인 것이었으며, 아주 정상적인 일이었다. 무슨 선고도 아니었고, 정죄도 아니었다. 욥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가 죽고 난 후에 어떤 결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고, 그 어떤 평가도 없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일할 때 매우 적당한 선이 있다. 그가 하는 말씀과 일의 내용과 원칙은 그의 사역 단계와 사역 시기를 근거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욥의 결말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 마음속에 정해져 있지 않았을까? 확실히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싶지도 않았고 알려 줄 생각도 없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는 욥이 기한이 차서 죽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욥의 일생이다.

욥이 살아 낸 삶의 가치

욥의 일생은 가치가 있는 삶이 아니냐? 그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왜 그의 삶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느냐? 사람 쪽에서 볼 때, 그의 가치는 무엇이냐?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인류를 대표해 사탄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힘 있게 증거했다. 또한 그는 피조물이 해야 할 본분을 다 이행했고,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 인류에게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탄을

완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볼 때, 욥의 삶의 가치는 그가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행사를 증거하고 찬양하여 하나님께 위안을 안겨 드리고 기쁨을 얻게 한 것에 있다. 하나님이 보기에, 그의 삶의 가치는 또한 욥이 살아생전에 겪은 그 시련에서 사탄을 이겼고, 사탄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힘 있게 증거한 데에 있다. 그리고 인류 중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하였고, 하나님께 위안을 안겨 드렸으며, 절박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 결과를 보게 하고 희망을 보게 한 데에 있다. 그의 증거는 하나님의 인류 경영 사역에서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고 사탄을 부끄럽게 한 선례를 남긴 것이다. 이러한 것이 욥의 삶의 가치가 아니냐? 그는 하나님께 마음의 위안을 얻게 하고 영광받은 기쁨을 미리 맛보게 했으며,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서 완벽한 시작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욥의 이름은 이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얻은 상징이 되었으며, 인류가 사탄을 이긴 표징이 되었다. 욥이 일생 동안 살아 낸 것과 그가 사탄을 이긴 위업은 하나님께 영원히 소중한 것으로 남을 것이다. 그의 순전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후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는 완전무결하고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1)

율법시대의 조문

십계명

제단을 쌓는 원칙

종을 대하는 것에 관한 규례

도둑질과 배상에 관한 규례

안식년과 3 개 절기 지키기

안식일에 관한 규례

제사에 관한 규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 관한 규례(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준수하라고 지시함)

제사장이 드리는 번제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

제사장이 드리는 속건제

제사장이 드리는 화목제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규례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부녀의 산후 정결 규례

문둥병 검사 기준

문둥병자의 치유 규례

병균에 감염된 방을 정결케 하는 규례

유출병 등 질병에 관한 규례

매년 지켜야 할 속죄일

소와 양을 잡는 규례

좃아서는 안 될 이방인의 악습(근친결혼 금지 등)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자는 처 죽일 것

간음죄 처벌 규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일상에서 지켜야 할 행동과 사람됨의 규례, 성물을 먹는 규례, 생축으로 제사드리는 규례 등)

지켜야 할 절기(안식일, 유월절, 오순절, 속죄일 등)

기타 규례(등불 관리, 희년, 토지 무르기, 서원, 십일조 등)

율법시대의 규례는 하나님이 전 인류를 인도한 확실한 증거다

율법시대의 이러한 규례나 원칙을 다 보았느냐? 이러한 규례는 광범위하지 않느냐? 우선 십계명이 있다. 그다음 제단을 쌓는 등의 조문들이 있다. 그리고 안식일과 3 개의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규례가 있고, 그다음은 제사를 드리는 것에 관한 규례이다. 제사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등이 있다. 그다음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 관한 규례이다. 제사장이 드리는 번제,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 등을 포함한 각종 제사가 있다. 여덟 번째는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한 규례이다. 그 뒤로는 사람이 생활하면서 준수해야 할 규례들이다. 여기에는 사람의 생활에 관련된 여러 측면의 규정이 있다. 예를 들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규례, 부녀의 산후 정결 규례, 문둥병 환자의 치유 규례 등이 있다. 이러한 규례들을 보면 하나님은 질병에 관한 것까지도 다 말씀했으며, 심지어 소와 양을 잡는 규례까지도 말씀했다. 소와 양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니 하나님이 규정한 대로 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일리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알려 준 규정대로 행하면 틀림이 없고, 사람에게도 분명히 유익하다!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할 일부 절기, 규례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안식일, 유월절 등에 대해서도 알려 주었다. 마지막 조항을 보자. 기타 규례에 등불 관리, 희년, 토지 무르기, 서원, 십일조 등이 있다. 이 모든 조문들은 관련되는 범위가 넓지 않으나? 우선,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관련된다. 그리고 도둑질, 배상, 안식일을 지키는 등등 생활 속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다 관련된다. 즉, 하나님은 경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사람을 위해 많은 규례를 정하여 지키게 하였다. 이러한 규례들은 인류로 하여금 땅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상적인 인류의 생활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하는지, 어떻게 제단을 세워야 하는지를 알려 주었고, 그다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 주었다. 또 사람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정해 주고,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주의하고 지켜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반드시 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정해 주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 주었으며, 이러한 조문과 규례, 원칙들을 통해 사람의 행동을 규범화하고, 사람의 생활을 이끌어 주며,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 또한, 사람을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인도해 주었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창조한 만물 가운데서 질서 있고 규칙적이며 절제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하나님은 먼저 이러한 간단한 규례와 원칙으로 사람에게 일부 범위를 정해 주었다. 또한 이를 통해 사람들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인류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6 천 년 경륜의 시작 부분에 속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이러한 규례와 규정에 포함된 내용들은 아주 광범위하며, 하나님이 율법시대에 인류를 인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이것은 율법시대를 맞을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는 율법시대에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기록한 것이자, 하나님이 전 인류를 이끌고 인도한 확실한 증거이다.

인류는 영원히 하나님의 가르침과 공급을 떠날 수 없다

이러한 규례에서 사역과 경영, 그리고 인류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엄숙하고 진지하며 신중하고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절차에 따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역을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인류에게 펼쳤다. 그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사람에게 알려 주었다. 이를 통해 사람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떠날 수 없음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이 사람들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았다. 다음 시대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최초의 율법시대에 이러한 간단한 사역을 행했던 것이다. 하나님이 보기에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과 인류에 대해 가졌던 개념은 아주 모호하고 불분명했다. 설사 머릿속에 일부 생각과 타산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확실하거나 정확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인류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공급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최초의 인류는 아무것도 몰랐기에 하나님은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인류의 생존 원칙과 생활에 필요한 규례들로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 주어야 했다. 이런 말씀의 규정들과 규례들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점진적으로 알아 가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 점차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거둔 다음에야 하나님이 그 이후의 사역을 점차적으로 행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율법시대의 이러한 규례들과 하나님이 행한 사역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의 기초 중의 기초이고, 하나님 경륜의 시작 단계 사역인 것이다. 비록 율법시대의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혹은 그의 후손에게 말씀을 한 적이 있을지라도, 그때의 지시와 가르침은 이렇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한 조항씩 사람들에게 반포된 것이 아니며, 성문화된 규정도 규례로 정해진 것도 없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그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단계에 와서야 율법시대의 규례들을 말씀할 수 있었고, 율법시대의 규례들을 실행하라고 할 수 있었다. 그 과정은 필수적이고, 그 결과 역시 필연적이었다. 그러한 간단한 규례와 조문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경영 사역의 절차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경륜에서 나타난 지혜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는 자, 자신과 한마음으로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자를 얻기 위해 어떤 내용과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속해야 하며, 또 어떤 방식으로 끝을 맺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또한 그는 사람 안에 무엇이 갖추어져 있고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 알고 있으며, 사람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어야 하고 어떻게 사람을 인도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지도 알고 있다. 사람은 꼭두각시와 같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무의식중에 하나님의 경영 사역의 절차에 따라 한 걸음씩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든 모호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아주 확실하고 명확하게 계획되어 있다. 그는 그의 절차에 따라, 그의 계획에 따라, 얕은 데서 깊은 데로 점차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역을 펼쳐 나간다. 이후의 사역이 사전에 사람에게 예시되지 않았지만, 그 이어지는 사역 역시 엄격하게 그의 계획에 따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전개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이 구현된 것이자 하나님의 권병이다. 그가 그의 경륜에 따라 어떤 사역을 펼치든 그의 성품과 본질은 모두 그 자신을 대표한다. 이는 조금도 틀림이 없다. 어떤 시대에 어떤 단계의 사역을 하든지, 그가 사람을 사랑하고 증오하는 원칙 그리고 그의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이 율법시대의 사역에서 정한 규례와 원칙들은 아주 쉽고 단순해 보인다. 게다가 이해하기도 쉽고 행하기도 쉬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이 담겨 있다. 겉보기에 단순한 이런 규례에서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과 염려가 묻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매우 섬세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본질도 나타나고, 이를 통해 사람은 하나님이 만유를 주재하고, 만유가 전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아무리 많은 지식, 아무리 많은 이치와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볼 때 그런 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를 대체할 수 없다. 인류는 영원히 하나님의 인도를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이 친히 이끄는 사역도 떠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류의 불가분의 관계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이 계명이든 규례든, 또는 너에게 진리를 공급해 그의 뜻을 깨닫게 하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그의 목적은 사람을 아름다운 내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는 이런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 본질의 한 측면이 발현된 것이며, 그의 성품과 지혜의 한 측면이 발현된 것이다. 또한 이는 그의 경륜에 없어서는 안 될 절차로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에 개의치 않으며, 또한 사람이 그에 대해 어떠한 관념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그 어떤 사람이나 일, 사물의 통제도 받지 않고 오로지 그의 경륜에 따라 그의 사역을 행하고 있고, 그의 경영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2)

오늘 우리는 먼저 인류 창조 이후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리하고, 창세부터 은혜시대가 정식으로 시작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사역들을 행하였는지 간단하게 훑어보면서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찾아보기로 하자. 이를 토대로 하나님의 경륜 절차를 즉 훑어보면서 하나님의 경영 사역이 생기게 된 배경, 기원과 발전 과정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하나님이 경영 사역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 즉 하나님의 경영 사역의 핵심과 근본 취지도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이러한 내용을 알려면, 우리는 아득하고 고요한, 인류가 없던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하나님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을 때 첫 번째로 가졌던 생각은 바로 살아 있는 사람, 즉 살아 숨 쉬는 사람을 창조하여 그와 함께 생활하고, 그의 동반자가 되어 주며, 그의 곁에 함께하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 살아 있는 사람은 그의 말과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와 대화할 수도 있는 존재여야 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처음으로 친히 흠을 취해 마음속으로 그리던 첫 번째 살아 있는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살아 있는 존재에게 아담이란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렇게 살아 숨 쉬는 사람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 그는 처음으로 가족과 동반자가 생긴 즐거움을 느꼈고, 처음으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으며, 또 처음으로 염려하는 마음도 느끼게 되었다. 그 살아 숨 쉬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었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위안을 느끼게 해 준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생각이나 말씀이 아닌, 손으로 친히 행한 일이었다. 그런 생명체, 살아 숨 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빠와 살이 있고 형상을 갖춘 데다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전에 경험해 본 적 없었던 즐거움을 처음으로 느꼈고, 진정으로 자신의 책임감을 느꼈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그 생명체에 대한 염려가 생겼다. 그러면서 또한 그 살아 있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감화를 받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그 생명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또 처음으로 그런 사람을 더 많이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는 하나님에게 첫 번째 생각이 들면서부터 생긴 일련의 일들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다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가 처음으로 행한 그런 일들로 인해 당시에 즐거움을 느꼈든, 책임감을 느꼈든, 아니면 사람에 대한 염려를 느꼈든, 그와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사람은 없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처음으로 전례 없던 외로움과 슬픔을 진정으로 느꼈다. 그는 사람이 그의 사랑과 염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의 마음을 받아 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여전히 슬프고 고통스러웠다. 그가 사람을 위해 일련의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전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기쁜 와중에도, 사람이 그에게 가져다준 즐거움과 위안은 어느새 여태껏 단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했던 슬픔과 외로움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당시 하나님의 심정과 생각이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의 마음은 즐거움에서 슬픔으로, 슬픔에서 아픔으로 변했으며, 아울러 초조함까지 어려 있었다. 그에게는 그런 사람, 그런 인류가 더 이상 그의 말씀을 대답 없이 듣기만 하는 사람, 그가 일할 때 어떻게 그와 협력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 더욱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도 전혀 무관심한 그런 인류가 아니라, 가능한 한 일찍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뜻을 깨달아 그를 따르는 사람, 그와 한마음 한뜻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 행한 일련의 일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지금의 인류에게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

하나님은 만물과 인류를 창조한 후에도 결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한시라도 지체할세라 그의 경영을 전개해 나갔고, 또한 한시라도 빨리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기뻐하는 자를 얻으려고 했다.

이어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홍수로 세상을 멸한 일을 보았다. 홍수로 세상을 멸한 기록에는 노아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 노아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역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이 땅에서 그의 분부대로 한 가지 일을 하게 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자, 하나님은 처음으로 홍수로 세상을 멸해 버렸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할 때 인류 창조 이후 처음으로

인류를 그렇게 극도로 증오했다. 그리하여 그는 그런 인류를 홍수로 멸하기로 처음으로 단호한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홍수로 세상을 멸한 후, 하나님은 또 처음으로 인류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 언약은 무지개를 증거로 삼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와 세운 첫 번째 언약이기 때문에 그 무지개 또한 하나님이 사람과 세운 언약의 첫 번째 증거가 되었다. 그 증거는 실물로 존재하며, 그 실물이 바로 무지개인 것이다. 바로 이 무지개의 존재로 인해 하나님은 항상 윗 세대의 인류를 잃은 아픔을 느끼고, 또한 이 무지개의 존재는 과거에 윗 세대 인류에게 발생했던 일을 하나님께 계속 귀뜸해 주고 있다.... 하나님은 발걸음을 늦추려 하지 않고 한시라도 지체할세라 계속해서 그다음 단계의 경영을 진행해 나갔다.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사역을 행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첫 번째 책임자로 택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처음으로 택한 책임자였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류 구원 사역을 그 사람에게서 시작하고, 그 사람의 후손 가운데서 자신의 사역을 전개해 나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한 일이다. 뒤이어 하나님은 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스라엘의 선민 가운데서 그의 율법시대 사역을 전개해 나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또 처음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조례와 법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사람이 어떻게 제물을 바쳐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절기 혹은 일하는 원칙들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그렇게 구체적이고 규범적으로 정해 주었다. 이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최초로 일상의 규례와 원칙을 그렇게 상세하고 규범적으로 정해 준 것이었다.

‘최초’,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그러한 사역을 한 적이 없었고, 그 사역이 전대미문의 사역임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비록 과거에 인류와 각종 생물과 생명체를 창조한 적은 있을지라도 그런 사역을 한 적은 없었다. 그 사역들은 다 사람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사역으로, 모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 경영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 또 처음으로 율법 아래 있으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 내고 의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욥을 선정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탄에게 사람을 시험하도록 허락한 사례이자, 처음으로 사탄과 내기를 하여, 사탄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사탄에게 치욕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드디어 처음으로 얻은 사례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이후 처음으로 얻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얻은 후, 더욱 절실하게 그의 경영을 계속하고, 그가 하려고 했던 다음 단계 사역을 행하며, 다음 단계 사역에 적합한 사람과 사역 장소를 예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여기까지 교제하고 나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진실로 이해하게 된 것이 있느냐? 하나님은 인류를 경영하고 구원하는 이번 사업을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할 때 그저 생각으로만 하는 것도, 말로만 하는 것도, 더욱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도 아니라, 계획과 목적, 기준을 갖고 그의 뜻을 담아 이 모든 일을 한다. 이로써 하나님의 이번 인류 구원 사역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얼마나 중대한 의의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사역이 얼마나 어렵든, 이 사역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얼마나 크든, 인류가 얼마나 나약하든, 인류의 패역이 얼마나 깊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쁘게 움직이며 자신의 심혈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역을 경영하고 있다. 또한 모든 것을 안배하고, 그가 만들려는 모든 사람과 행하려는 모든 사역을 주재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례 없던 일이다. 하나님은 처음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이토록 큰 대가를 치르면서 인류를 경영하고 구원하는 큰 사업을 벌인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기울인 심혈과 지불한 대가, 자신의 소유와 어떠한, 자신의 지혜와 전능, 자신의 모든 성품을 남김없이 인류에게 조금씩 나타내고, 조금씩 공개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고 공개하는 것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전 우주에서 하나님이 경영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 이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웠던 적이 없었고,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그가 경영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인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인류를 그 무엇보다도 중히 여긴다. 비록 그가 그런 인류를 위해 많은 대가를 치렀고, 또 그런 인류가 그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그를 거역할지라도, 그는 그 어떤 원망도 후회도 없이 여전히 사람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며 그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사람이 언젠가는 그의 말씀의 부르심에 깨어나고, 그의 말씀에 감동을 느끼며, 그가 바로 창조주임을 알게 되어 그의 곁으로 돌아올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님이 행한 이 모든 것이 아주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느낀 듯하다. 하지만 사람의 느낌이나 일부 인식은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영원히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시 하나님이 왜 인류를 창조하였는지, 또 어떤 배경하에서 그가 바라는 인류를 얻고자 했는지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 주어 누구나 다 확실히 알게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단계별 시기별 사역은 모두 그의 전체적인 경영 사역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각 단계 사역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경륜 사역의 유래를 깨달은 셈이며, 또한 이를 토대로 하나님에 대한 앎도 함께 깊어질 것이다. 앞에서 내가 언급했던, 하나님이 창세 초기에 했던 모든 일들은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그저 ‘정보’에 불과하고, 사람의 진리 추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네가 체험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말한 것들이 한두 개의 정보에 불과하거나 약간의 비밀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될 것이다. 너의 생명이 자랐을 때, 너의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자리가 생겼을 때,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너의 이해가 좀 더 분명해지고 깊어졌을 때, 너는 내가 오늘 한 이 말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진정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는 어느 정도로 깨달았든 상관없이, 이 일들을 이해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일과 사역을 생각으로 하든 몸소 하든, 처음으로 하든 마지막으로 하든,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그의 목적과 생각이 들어 있으며, 그러한 생각과 목적이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이다.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말씀하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며, 나아가 하나님을 따르고 진리와 성품 변화를 추구하는 데 더욱 확신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이해와 믿음, 이 두 가지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3)

사람이 이해하고 인식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이라면, 사람이 얻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생명이다. 하나님에게서 온 이 생명이 네 내면에 만들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너의 경외심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거둘 수 있는 성과이다. 네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대해 알고 싶지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면, 심지어 그러한 일들을 따져 볼 생각도, 중요시할 생각도 없다면 내가 분명히 말해 주겠다. 네가 지금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믿는 것을 추구한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으며, 진정한 구원은 더더욱 받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결과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열지 못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새겨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믿음도 생기게 된다.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새겨보는 과정에서 점차 조금씩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과 했던 거래, 하나님께 했던 요구, 혹은 자신의 분에 넘치는 욕망이 얼마나 부끄럽고 비열한 것인지를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을 때, 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인지 보게 될 것이며, 네가 그동안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했던 경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경지에는 기만도 간사함도 없고, 어둠도 사악함도 없으며, 오직 진실함과 신실함, 광명과 정직함, 그리고 공의로움과 선함만 있을 뿐이며, 사랑과 배려, 긍휼과 관용이 충만하여, 너에게 사는 것의 행복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네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 주는 것들이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으로 가득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권병으로 충만하다. 거기에서 너는 하나님의 다양한 측면의 소유와 어떠함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왜 기뻐하는지, 왜 근심하는지, 왜 슬퍼하는지, 왜 노하는지 등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네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만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와야만 너는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볼 수 있으며 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볼 수 있다. 그때가 되면 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이 얼마나 사랑할 만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이에 반해 네 주위의 사람과 일, 사물, 심지어 너의 가족, 너의 반려자, 네가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언급할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으며 비천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너는 그 어떤 물질적인 것에도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것들을 위해 더 이상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또한, 너는 자신을 낮춘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높고 큼과 지고지상함을 보게 되고, 더욱이 네가 예전에 별것 아닌 일로만 생각했던 하나님의 행사에서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하나님의 관용, 너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와 포용과 배려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는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주변 사람과 주변에서 일어난 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너에 대한 사랑과 이른바 ‘보호’ 혹은 너에 대한 걱정 모두 언급할 가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최고의 사랑이자 최고의 보물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나는 일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라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고, 하나님의 본질은 참으로 거룩하며, 하나님께는 간사함도, 사악함도, 질투도, 분쟁도 없고, 오로지 공의와 진실함만 있으며,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어떠함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동경해야 한다고 말이다. 사람이 여기까지 이를 수 있는 토대는 무엇이나?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대한 이해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알아 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평생토록 배워야 하는 공과이자, 성품 변화와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는 모든 이가 평생 추구해야 하는 목표인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4)

하나님의 더 많은 소유와 어떠함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구약이나 율법시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하나님 사역의 발걸음을 따라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율법시대를 끝내고 은혜시대를 시작하자, 우리의 발걸음도 그에 따라 은혜시대, 즉 은혜와 구속으로 충만한 시대로 들어갔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또 한 번 처음으로 매우 중요한 일을 행하였다. 새 시대의 그 사역은 하나님께 있어서나 인류에게 있어서나 모두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새로운 시작점은 하나님이 또 처음으로 한 새 사역이며, 그 새 사역은 바로 사람도, 만물도 예상하지 못했던 미증유의 일을 한 것이었다. 그것은 오늘날의 사람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일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류의 일원이 되어 처음으로 사람의 형상과 신분을 지니고 그의 새 사역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 새 사역은

그가 이미 율법시대의 사역을 끝냈음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더 이상 율법 아래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율법의 형식으로, 율법의 원칙과 규례에 맞춰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즉, 율법을 위주로 하는 모든 사역은 영원히 멈추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새 사역, 새 일을 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또 새로운 시작점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다음 시대로 인도해야만 했다.

그 일이 사람에게 희소식이 될지 흉보가 될지는 사람의 본질에 달렸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희소식이 아니라 흉보라고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새 사역을 할 때, 율법의 조문과 규례만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흔히 지난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사역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흉보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첫 번째 성육신은 순수하고 마음이 열린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었다. 인류가 생긴 이래, 하나님이 처음으로 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 생활했으며, 사람에게서 태어난 인자의 방식과 형상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살면서 사역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처음으로 사람의 고정 관념을 깨뜨렸고, 또 모든 사람의 상상을 넘어섰으며, 아울러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실익’을 안겨 주었다. 하나님은 구시대를 종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의 오래된 사역 방식과 사역 ‘스타일’을 버렸다. 더 이상 그의 사자를 통해 그의 뜻을 전달하게 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구름 속에 ‘숨어’ ‘우렛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군림하며 사람에게 나타나거나 말씀하지 않았다. 그 대신 ‘예전과 완전히 다르게’ 사람이 생각지 못한 방식,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 즉 말씀이 육신 되어 인자의 모습으로 그의 그 시대 사역을 펼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에 인류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하고 난감해했다. 하나님이 또 한 번 전례 없던 새 사역을 행했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5)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마 12:1)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마 12:6~8)

우선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라는 구절을 보자.

왜 이 구절을 골랐겠느냐? 이 부분이 하나님의 성품과 어떤 연관이 있겠느냐? 우리는 이 구절에서 먼저 이날이 안식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는 안식일임에도 밖으로 나갔고, 게다가 제자들을 이끌고 밀밭을 지나갔다. 더욱 ‘대역무도’한 것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이다. 율법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는 안식일에 마음대로 외출하지 말고 마음대로 활동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매우 많았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런 행동은 오랫동안 율법 아래에서 생활한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고, 심지어 많은 비난을 야기했다. 사람이 왜 이해하지 못했는지, 어떻게 예수의 행동을 비판했는지는 잠시 차치해 두고, 우선 예수가 왜 하필 안식일을 택해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자. 그리고 그가 이 일을 통해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자들에게 알려 주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자. 이것이 바로 이 구절과 하나님 성품의 관계에 대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세상에 온 예수는 자신의 실제 행동으로 인류에게 하나님이 이미 율법시대에서 나와 새 사역을 시작했으며, 이 새 사역에서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안식일에서 벗어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 사역에 대한 일종의 맛보기에 불과했다. 진짜 큰 사역은 뒤에서 계속될 터였다. 예수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는 이미 율법시대의 ‘속박’에서 벗어나 율법시대에 정한 규례와 원칙을 깨뜨린 상태였다. 그에게서는 율법과 관련된 그 어떤 행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그것들을 전부 버리고 지키지 않았으며, 사람에게 지키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예수가 밀밭을 지나간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밖에서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이 행동은 사람의 고정 관념을 깬으며, 사람에게 그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살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며 완전히 새로운 형상과 새로운 사역 방식으로 사람들 앞에,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음을 알려 주었다. 또한, 그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새 사역을 가져왔으며, 그 새 사역은 율법과 안식일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하나님은 새 사역을 할 때, 더 이상 옛것에 연연하지 않았고, 율법시대의 규례에 신경 쓰지 않았으며, 지난 시대에 했던 사역에 영향받지도 않았다. 그는 안식일에도 변함없이 사역했으며, 게다가 그의 제자들은 배고프면 이삭을 잘라 먹어도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기에 아주 정상적인 것이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많은 사역과 말씀들을 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며, 그 새로운 시작 앞에서 이전에 했던 옛 사역을 더 이상 언급하지도, 지속시키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새 사역을 하고자 할 때, 즉 그가 사람을 새로운 사역 절차로 인도하고자 할 때, 다시 말해 그의 사역이 더 높은 단계로 진입할 때, 사람이 지난날의 말이나 규례를 계속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도 칭찬하지도 않는다. 그는 이미 새 사역을 가져왔고, 새로운 사역 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는 새 사역을 가져올 때, 완전히 새로운 형상과 각도, 방식으로 사람에게 나타나고, 사람에게 그의 다양한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을 보여 준다. 이것은 그가 새 사역을 하는 목적 중 하나이다. 하나님은 옛것을 지키지 않고 옛길을

가지 않는다. 그의 사역과 말씀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과는 달리 이런저런 금기가 없다. 하나님은 아무런 매임도 없이 완전히 자유롭고, 그 어떤 금기도 없고 속박도 받지 않으며, 그가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전부 자유와 해방이다. 그는 생생하게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고, 진실로,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지, 목각 인형도, 흙으로 빚은 인형도 아니다. 그는 사람이 모시고 절하는 우상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는 생생하게 살아 있는 존재이며, 그의 사역과 말씀이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전부 다 생명과 광명, 자유와 해방이다. 그에게 진리와 생명, 길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을 한다.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인류가 그의 새 사역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평가하든, 그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역을 한다. 그는 그 어떤 사람의 관념에도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이 그의 사역과 말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에도 개의치 않는다. 심지어 사람이 그의 새 사역을 극력 반대하고 대적해도 개의치 않는다. 피조물 중 그 누구도 사람의 이치나 상상, 지식, 혹은 사람의 도덕관념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평가하고, 규정하고, 헐뜯고, 방해하고, 파괴할 생각은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일하고 사역하는 데는 어떤 금기도 없고, 그 어떤 사람, 일, 사물의 속박도 받지 않으며, 그 어떤 적대 세력의 방해도 받지 않는다. 그의 새 사역에 있어, 그는 바로 영원히 승리하는 왕이며, 모든 적대 세력과 인류에게서 온 각종 사설이나 그릇된 말들은 다 그의 발등상 아래에 뭉개진다. 그가 어느 단계의 새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의 사역은 반드시 사람들 가운데서 전개되고, 사람들 가운데서 확장되며, 또한 전 우주에서 막힘없이 행해지고 대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이자,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떳떳하게 안식일에 나가 사역할 수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규례도, 사람에게서 온 그 어떤 지식과 학설도 없었고, 그가 가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새 사역과 하나님의 도였으며, 그가 행한 사역은 모두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고, 사람을 빛 속에서 살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도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상과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은 매일 사탄의 속박과 각종 복잡한 규율에 묶여 오늘은 이것을 금기시하고, 내일은 저것을 금기시하며, 자유라곤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마치 칼을 쓰고 죄사슬에 묶인 죄수 같아 즐거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금기’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속박을 의미하고 굴레를 의미하며 사악함을 의미한다! 사람은 일단 우상을 섬기게 되면, 다시 말해 거짓 신이나 악령을 섬기게 되면 금기가 뒤따라온다.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며, 오늘은 외출하면 안 되고 내일은 취사하면 안 되며 모레는 이사하면 안 된다. 관혼상제 때마다 항상 택일해야 하고, 심지어 아이 낳는 것도 날을 가려서 낳아야 한다. 이것들을 뭐라 하느냐? 이것들이 바로 금기이자, 사람에게 대한 속박이며, 사탄과 악령이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의 마음과 육을 움아매는 족쇄이다. 하나님에게 이러한 금기가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할 때, 너는 먼저 하나님께 어떠한 금기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에는 원칙이 있지만, 어떠한 금기도 없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진리, 길, 생명이기 때문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마 12:6~8). 여기에서 ‘성전’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통속적으로 말하자면, ‘성전’은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을 가리킨다. 율법시대에 ‘성전’은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였다. “성전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라고 한 예수의 말씀에서 ‘이’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는 성육신한 예수를 가리킴이 분명하다. 예수만이 성전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 주느냐? 사람에게 성전에서 나와야 한다고 알려 준다. 하나님이 이미 성전에서 나와 거기서 사역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마땅히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고, 하나님의 새 사역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겼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성전이란 장소를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고 알려 준 것이다. 하나님은 지고지상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한 것이다. 예수가 봤을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형식만 차렸을 뿐이었다. 예수는 그 형식을 ‘우상 숭배’로 정한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크고 높게 생각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전만 있을 뿐 하나님은 없었다. 그들은 성전이 없으면 삶터도, 경배할 곳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다고 여겼다. ‘삶터’란 그들이 여호와를 경배한다는 명목으로 성전에 머무르면서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또한, ‘제사를 드리는 일’이란 성전 안에서 섬긴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떳떳하지 못한 수작들을 은폐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당시에 사람이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했던 원인이다. 그들이 성전을 눈가림으로, 제사를 핑계로 삼아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이런 말씀으로 사람들을 일깨워 준 것이다. 이 말씀은 현재에 적용해도 효과가 있고, 현재 상황과도 아주 잘 맞아떨어진다. 비록 오늘날의 사람과 율법시대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역은 서로 다르지만, 사람의 본성과 본질은 같다. 사람은 지금과 같은 사역의 배경하에서도 여전히 ‘성전을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는 것’과 비슷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은 본분 이행을 직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큰 붉은 용과 싸우는 것을 인권 보호로, 자유와 민주 쟁취를 위한 정치 운동으로 여기며, 약간의 기술을 요하는 본분을 자신의 사업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을 종교적 교리로 간주하여 지키는 등등의 행동을 한다. 사람의 이러한 행동들이 ‘성전을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는 것’과 성격이 같지 않느냐? 다만 2 천 년 전의 사람은 형체가 있는 성전에서 개인의 경영을 했지만, 오늘날의 사람은 형체가 없는 성전에서 자신의 경영을 할 뿐이다. 규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규례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지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위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며, 사업에 열중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다. 나는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들을 보면서,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높다고 칭송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크게 본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일단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를 찾거나, 자신의 경영과 사업을 할 기회가 생기면, 하나님을 멀리 버려두고 자신이 열중하는 사업에만 몰두하며, 하나님이 맡긴 소임과 하나님의 뜻을 일찌감치 새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사람의 이러한 모습이 2 천 년 전 성전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영을 했던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7)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는 이 말씀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든 것은 다 비물질적임을 알려 준다. 비록 하나님이 네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공급해 줄 수 있지만, 너의 물질적 필요가 충족되었다고 해서, 그 물질들이 너에게 가져다주는 만족감이 너의 진리 추구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 말할 것도 없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교제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은 모두 진리의 내용이므로 그 어떤 값나가는 물질로도 절대 저울질할 수 없고, 그 가치 또한 돈으로 가늠할 수 없다. 그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 이러한 비물질적 진리는 네가 귀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은 너희가 천천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내 말의 요지는,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하나님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나 다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 어떤 물질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 주겠다. 너는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 음식은 좋을 수도 있고 별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배만 채우면 배고플 때의 괴로움이 없어지고 사라진다. 그러면 너는 그 자리에 앉아서도 안정을 되찾게 되고, 너의 몸도 함께 편해진다. 사람의 배고픔은 음식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네가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여겨질 때 네 마음속의 그 공허한 느낌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느냐? 음식물이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또는 네가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느끼는 그런 마음의 허기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성품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며 하나님의 성품 또한 알지 못한다면, 마음이 매우 급하지 않겠느냐? 마음속으로 기갈을 느끼지 않겠느냐? 너는 그러한 느낌 때문에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한 마음의 허기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느냐?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거리 구경을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을 찾아 얘기를 나누며, 어떤 사람들은 한잠 폭 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거나 혹은 본분 이행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 더 애를 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너희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 깊이 느낀 바가 있을 것이다. 네가 마음은 있으나 힘이 따라 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진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우쳐 주기를 갈망할 때,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그때 네게 필요한 것은 배부른 한 끼 식사도, 따뜻한 말 몇 마디도, 일시적인 육적 안락과 만족도 아니라,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알려 주는 것이며, 무엇이 진리인지를 확실하게 깨우쳐 주는 것이다. 아주 조금일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나면, 너의 마음은 밥 한 끼를 배불리 먹은 것보다 더 만족을 느끼지 않겠느냐? 네 마음이 만족을 느낄 때, 너의 마음은 물론, 너의 존재인 진정한 안식을 얻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비유하고 분석해 봤으니, 이제 너희는 내가 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는 말씀을 보라고 했는지 이해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하나님의 모든 것이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물과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보다 크다는 의미이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안식을 얻을 수 없다. 너희는 이후의 체험 과정에서 내가 오늘 왜 너희에게 이 구절을 보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은 다 진리이고 생명이다. 사람에게 ‘진리’란 사람의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자, 사람이 한시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한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비록 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진리가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진리는 네 마음이 안식을 얻을 수 있게 해 주는 유일한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8)

너희는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내적 상태와 결부시킬 수 있느냐? 너는 실생활에서 먼저 자신이 경험한 사람, 일, 사물이 어떤 진리와 관련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한 진리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결부시킬 수 있다. 너에게 임한 일이 어느 측면의 진리와 관련되는지도 모른 채 곧장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그것은 비교적 맹목적인 행동에 속하며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선 너에게 닥친 일들이 어떤 유형의 일인지, 어느 측면의 진리와 관련되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네 체험에 상응하는 진리를 찾은 다음에 그 상응하는 진리에서 자신이 실행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너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진리를 구하고 실행하는 것은 어떤 규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어떤 공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공식 같은 것이 아니며, 규칙도 아니다. 진리는 죽은 것이 아니고, 생명이며, 살아 있는 것이다. 또한 피조물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칙이자, 사람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법칙이다. 너는 체험 과정에서 이러한 것을 많이 체득해야 한다. 너는 어느 정도까지 체험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고 진리를 떠날 수 없다.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현된 것이고, 진리와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자체가 바로 진리이다. 다만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이 나타내는 것을 진실되게 구현한 것일 뿐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전부 구체화하고 명문화했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게 하고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증오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더욱 직설적으로 알려 준다. 하나님이 선포한 이런 진리의 이면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회로애락과 하나님의 본질을 보게 된다.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 성품의 발현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체험을 통해서도 그 효과에 도달해야 한다. 사람이 실생활 밖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설사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간의 인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도리와 문자적 의미에 국한될 뿐, 진정한 하나님 자신과는 거리가 있다.

현재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내용의 범위는 모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그리고 예전에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하나님이 일찍이 나타냈던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을 인식함으로써 더 광범위하고 더 깊이 있게, 더 다양한 측면에서, 다원적으로 하나님의 면면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오직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면면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하나님이 한 말씀과 행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알 수 있고 게다가 더 전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사람에게 익숙한 성경의 사례나 이야기들을 통해 사람이 좀 더 쉽게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현재 하나님이 선포한 심판과 형벌의 말씀, 진리들을 한 글자, 한 구절씩 분석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면, 너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 속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죽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면, 사람은 지루하거나 재미없다고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언어로 당시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구체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당시 심정, 즉 정서 혹은 마음과 생각까지 전부 사람에게 알려 주는 셈이다. 이러한 것을 사람에게 알려 주는 목적은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이 공식도, 전설도 아니고, 사람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것이며, 사람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임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거울로 삼아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더 광범위하게 알고,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보며, 또한 하나님이 나타낸 이러한 성품들을 통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과 인류에 대한 염려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니 말이다.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전부 느꼈으리라 믿는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69)

은혜시대에 예수가 했던 사역에서, 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의 소유와 어떠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소유와 어떠함은 모두 육신을 통해 나타나며, 또한 인성을 통해 사람이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사람은 인자에게서 하나님이 육신에 거하며 인성을 지니고 사는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이 육신에 거하며 신성을 나타내는 모습도 보았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발현된 모습을 통해 사람은 실제적인 하나님을 보았으며, 하나님에 대해 다양한 개념을 갖게 되었다. 반면, 창세 이후부터 율법시대가 끝나는 시점까지, 즉 은혜시대 이전에 사람이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은 모두 하나님 신성의 일면이었다. 즉, 하나님이 비물질적인 세계에서 행하고 말씀한 것, 사람이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참모습에서 발현된 것들이었다. 그러한 것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무 높고 큰 분이라 가까이할 수 없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남겨 준 인상은 대부분이 홀연히 나타났다 사라지는 존재였다. 심지어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마음도 사람에게 너무 신묘막측해서 도저히 종잡을 수도, 알 방법도 없다는 느낌을 주었으며, 묵상하거나 체험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는 느낌을 주었다.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아주 요원해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을 정도였다. 그는 마치 하늘 끝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알거나 혹은 하나님의 어느 한 가지 생각을 안다는 것은 사람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이자 더욱이 아주 요원한 일이었다. 율법시대에 하나님은 일부 구체적인 사역을 하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구체적인 성품을 나타냄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체험하거나 볼 수 있는 분명한 인식을 갖게 했지만, 그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비물질세계에서 나타낸 소유와 어떠함이었다. 사람이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성 측면의 소유와 어떠함이었다. 그러한 소유와 어떠함은 사람에게 구체적인 개념을 줄 수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상이 여전히 ‘가까이하기 어렵고, 홀연히 나타났다 사라지는 영체’라는 범위에 머물게 했다. 하나님이 물질세계의 구체적인 물건이나 형상으로 사람에게 보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여전히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었다. 사람은 항상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정하여 하나님을 물질화, 인간화하려는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생김새는 어떤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기호와 성격은 어떤지 등등이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사람의 필요 또한 잘 알고 있다. 물론,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은혜시대의 사역을 행한 것이다. 그 방식은 인성으로도 사역하고,

신성으로도 사역하는 것이었다. 예수가 사역한 기간에 사람은 하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아주 많이 보았다. 예를 들면, 그가 춤을 추고, 혼인 잔치에 참석하고,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고, 혹은 어떤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등의 모습이었다. 이와 함께 예수는 신성을 대표하는 사역도 많이 행하였다. 물론, 이러한 사역은 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발현된 것이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의 신성이 정상적인 육신에 실체화됨으로써 사람은 그를 보거나 만질 수 있었고, 또한 더 이상 하나님을 홀연히 나타났다 사라지는 존재, 가까이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반면에 사람은 인자의 일거수일투족, 인자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었다. 성육신한 인자는 인성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고, 아울러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람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영계의 하나님을 사람에게 보여 주었다. 사람이 본 것은 형상을 지니고 뼈와 살이 있는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러므로 성육신한 인자는 하나님 자신의 신분, 지위, 형상, 성품, 소유와 어떠함 등등을 구체화하고 인간화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인자의 겉모습은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인자의 본질과 소유와 어떠함은 하나님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완벽히 대변할 수 있었다. 단지 발현되는 형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인자의 인성이든 아니면 신성이든, 그가 하나님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대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단지 하나님이 그 기간에 육신의 방식으로 사역하고, 육신의 위치에서 말씀했으며, 인자의 신분으로, 인자의 위치에서 인류를 마주했을 뿐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실제로 말씀하고 사역하는 것을 접하고 체험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을 지극히 낮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높고 큼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진실함과 실제에 대해 초보적으로 알게 되었고, 초보적인 정의도 내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예수가 행한 사역과 그의 사역 방식, 말씀할 때의 위치는 영계에 있는 하나님의 참모습과 다소 다를지라도, 그의 모든 것은 사람이 본 적 없는 하나님 자신을 한 치 오차도 없이 대변하였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든, 어떤 위치에서 말씀하고 어떤 형상으로 사람을 마주하든, 하나님이 대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일 뿐이다. 그는 그 어떤 사람, 패괴된 인류 중의 그 어떤 사람도 대표할 리 없다. 하나님 자신은 곧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70)

길 잃은 양의 비유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마 18:12~14)

이것은 비유이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주느냐? 여기에서 비유의 표현 방식은 인류 언어에 있는 수사법의 일종으로, 인류의 지식 범주 안의 것이다. 만일 율법시대에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했다면, 사람은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신분에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은혜시대에 인자가 한 것이라 사람에게서는 아주 편하고 따뜻하며, 친근하게 느껴졌다. 성육신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 인성에서 아주 적절한 비유로 그의 마음의 소리를 표현했다. 이 마음의 소리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대변하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고자 했던 사역을 대변하며, 또한 하나님 자신이 은혜시대에 사람을 대한 태도를 대변했다.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이 태도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양으로 비유했다. 만일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그는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 찾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그때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에게 행한 사역의 한 가지 원칙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유로 당시 사역에 대한 결심과 태도를 묘사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한 하나님의 ‘우월함’이다. 즉, 그는 사람의 지식을 이용해서 인간적인 언어로 사람에게 말씀하고, 그의 뜻을 표현할 수 있다. 심오해서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신적 언어를 인간적인 언어와 방식으로 사람에게 해석하거나 ‘번역’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그의 뜻과 그가 하려는 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그는 또 사람의 위치에 서서, 사람의 언어로, 그리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 나아가 사람의 언어와 지식으로 말씀하고 사역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을 친근하고 가깝게 대할 수 있는 존재로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일하는 데에 금기가 있느냐?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 사람의 언어나 사람의 대화 방식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씀과 사역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자신의 뜻도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상상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유를 이용했으며, 사람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진심을 느끼고, 그 기간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보았다. 이 비유는 율법 아래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을 꿈속에서 깨어나게 했고, 또한 대대로 은혜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격려하였다. 사람은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고, 사람이 하나님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해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마지막 구절을 보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라는 예수의 말씀은 그 자신이 말한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말씀한 것이냐? 겉으로는 예수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라고 말했던 것이다. 당시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은 그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낸 사람일 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예수는 사람에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히 느끼게 하고, 또한 이 말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 반드시 이 말을 보충해야 했던 것이다. 비록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고, 예수의 낮춤과 감춤을 드러낸 말이었다. 하나님은 성육신하든, 영계에서 사역하든, 사람의 속마음과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사람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보충했던 것이다. 이 말은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던 문제, 즉 인자가 하는 말씀에 반신반의하는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다시 말해, 예수는 말씀을 하면서 반드시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라는 전제를 추가해야만 말씀이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사람이 그의 말씀의 정확성을 믿도록 할 수 있었으며, 말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평범한 인자가 되었을 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어색했는지, 인자의 처지가 얼마나 난감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의 지위가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도 알 수 있다. 그의 이 말씀은 사실 사람에게 ‘절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 말은 내 뜻이 아닌, 너희 마음속에 자리한 그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 것이니라’라는 메시지를 전해 준 것이었다. 이 말씀이 사람에게 주는 풍자적 의미가 크지 않느냐? 그는 성육신으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본체에 없는 유리한 조건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사람에게 의심받고 버림받는 것을 참아야 했으며, 또한 사람의 무감각과 둔감함을 감내해야 했다. 인자의 사역 과정은 사람에게 버림받는 경험을 하는 과정이자, 사람의 대항을 경험하는 과정이고, 더욱이 몸소 실천하면서 자신의 소유와 어떠함과 본질로 끊임없이 사람의 신뢰를 얻고 사람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탄과 실제로 전쟁을 했다고보다는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이 되어 그를 따르는 자들과 대결을 펼쳤다고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 대결을 통해 인자는 그의 낮춤, 그의 소유와 어떠함, 그리고 그의 사랑과 지혜로써 그의 사역을 완성하였고, 그가 얻고자 한 사람을 얻었으며, 그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신분과 지위를 얻어 그의 보좌로 ‘돌아갔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71)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번 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할찌니라”(마 18:21~22)

주의 사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마 22:37~39)

이 두 구절 중 하나는 용서를 얘기하고, 다른 하나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은혜시대에 예수가 사역할 내용을 두드러지게 보여 준다.

하나님은 성육신할 때, 한 단계의 사역과 함께 그 시대에 나타내고자 하는 성품과 구체적인 사역 항목도 가지고 온다. 해당 시기에 인자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행하고자 하는 사역의 범위를 둘러싸고 이뤄지며, 그보다 넘쳐 나거나 부족하게 행하지 않는다. 그의 모든 말씀과 사역은 해당 시대와 관련이 있다. 사람의 방식이나 언어로 표현하든 신적 언어로 표현하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위치에서 표현하든 그의 목적은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에게 대한 그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다. 그는 여러 방식으로, 그리고 서로 다른 위치에서 그의 뜻과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을 사람이 알고 이해하게 한다. 그래서 은혜시대에 예수가 자신이 설명하려는 바를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아울러 더 많은 경우에 그는 평범한 길 안내자의 위치에서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며, 사람이 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러한 사역 방식은 은혜시대 이전의 율법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사람과 훨씬 친근해지고 사람에게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며, 형식과 방식 면에서 훨씬 더 실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람을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비유가 이 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한 숫자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당시에 이렇게 비유한 의도가 무엇인지 보여 준다. 그의 목적은 사람이 다른 이를 용서할 때 한두 번도 아니고 일곱 번도 아니고,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기서 ‘일흔 번씩 일곱 번’은 어떤 개념이겠느냐? 바로 다른 이를 용서하는 일을 자신의 책임, 필수 과제이자 ‘도’로 삼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비유에 불과했지만, 이 표현은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비유를 통해 사람은 예수의 뜻을 깊이 깨달았으며, 이 말에서 자신이 실행해야 할 길을 찾고, 실행의 원칙과 기준을 얻었다. 또한, 이 비유로 사람은 이해와 관용을 베푸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조건 없이, 횡수의 제한 없이 다른 이를 용서하라는, 용서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확실한 이해를 얻었다. 예수는 어떤 생각을 하며 이런 말씀을 했겠느냐? 그가 정말로 일흔 번씩 일곱 번이란 숫자를 생각했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는 데에 횡수가 정해져 있겠느냐? 많은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횡수’에 흥미를 느끼며, 이 횡수의 기원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싶어 한다. 왜 예수의 입에서 이러한 숫자가 나왔는지 궁금해하며, 이 숫자에 분명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이 숫자는 하나님이 인성으로 말씀한 비유에 불과하다. 설사 어떤 숨은 의미나 함의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람에게 대한 예수의 요구를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지 않았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말씀은 완전한 신성에서

비롯되었기에, 그 말씀을 할 때의 위치와 배경을 사람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 또한 사람이 볼 수 없는 영계에서 선포된 것이라 육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꿰뚫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육신한 후에는 영계에서 벗어나 인성의 각도에서 사람과 대화하게 되었다. 그는 사람의 관념 속 상상이나 사람이 삶 속에서 보고 접하는 일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과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또는 인류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 그의 신적 성품과 마음, 그의 태도를 전했다. 그리하여 사람이 이해 가능하고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과 요구 기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성으로 사역하는 방식과 원칙이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 방식과 원칙이 대부분의 경우 인성을 통해 이루어지긴 했지만, 오히려 신성으로 직접 사역해서는 얻기 힘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인성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은 그 내용이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목표 지향적이다. 방식도 훨씬 유연하고, 형식 면에서도 율법시대를 뛰어넘는다.

이어서 주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은 직접 신성으로 선포한 것이더냐? 결코 그렇지 않다! 이는 인자가 인성으로 한 말씀이다. 사람만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생명을 보살피듯 보살핀다’는 말을 할 수 있으며, 오직 사람만이 이런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한 적이 없으며, 적어도 하나님의 신성에는 이러한 언어가 없다. 하나님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신조로 삼아 인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규범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라는 데 있다. 너희는 하나님이 “나는 인류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느냐?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과 소유와 어떠함 안에 들어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대하는 방식과 태도는 그의 성품의 자연스러운 표출이자 발현이다. 그래서 그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 일부러 무언가를 하거나 특정 방식과 도덕규범을 따르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는 원래부터 이런 본질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서 너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인성으로 사역할 때, 인간적인 형식으로 많은 말씀과 진리, 방식을 전하였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 소유와 어떠함, 뜻도 함께 전하여 사람이 이해하고 알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신분과 지위를 대표하는 본질, 그리고 소유와 어떠함을 더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 성육신한 인자는 최대한 정확하게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성품과 본질을 나타냈다. 인자의 인성은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과 사귀고 소통하는 데에 있어 방해물이나 장애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류와 창조주를 연결하는 유일한 경로이자 다리가 되었다. 이쯤에서 너희는 은혜시대에 예수가 행한 사역의 성격과 방식 중 일부는 지금 이 단계의 사역과 유사한 부분이 아주 많다는 느낌이 들지 않느냐? 지금 단계의 사역에서도 많은 인간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했다. 또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말하는 것이나 인류의

지식적인 측면의 언어와 방식을 많이 이용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표현했다. 하나님이 일단 성육신하고 나면 인간적인 위치에서 말씀하든 신적인 위치에서 말씀하든, 많은 말이나 표현 방식에 있어 사람의 말이나 방식을 매개체로 사용한다. 즉, 하나님이 성육신한 때는 바로 네가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면면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했을 때 성장 과정에서 인성으로 사람의 지식, 상식, 언어 혹은 표현법을 이해하고 배우며 파악하게 된다. 피조물인 인류에게서 비롯된 이러한 것들은 성육신 하나님께 갖춰져, 그가 육신에서 하나님의 성품 혹은 신성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의 위치에 서서 사람의 언어로 더 적절하고 현실적이며 정확하게 사역할 수 있게 되고, 이에 사람은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사역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더 실제적이지 않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성육신했을 때, 하나님의 육신이 그가 하려는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이 장차 실제적으로 발현될 때이다. 그리고 그때는 인자가 본격적으로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다. 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세대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사자(使者)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던 사역을 곧 그만두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육신 가운데서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과 사역을 할 것임을 의미한다. 아울러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인류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음을, 하나님의 경영 사역이 새로운 영역에 들어섰고, 곧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전 인류에게 다가올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72)

성경을 읽어 본 사람은 모두 예수가 강생했을 때 일어난 많은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사건이 바로 마왕에게 쫓긴 것으로, 온 성안에 있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들까지 전부 살해당한 일이다. 이를 보면 하나님이 성육신해서 사람들 가운데 왔을 때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경영을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성육신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사역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는지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육신이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느냐?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새 사역을 사람들 가운데 전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적어도 기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예수가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며 직분 이행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없이 즐거웠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준비한 끝에 드디어 정상인의 육신을 입고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의 형상으로 그의 새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침내 사람의 신분으로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마침내 사람의 언어와 방식으로 사람들과

대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람의 언어를 이용해 공급하고 인도하며 도와줄 수 있게 되었다. 또 사람들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람의 방식으로, 나아가 사람의 시각으로 인류와 사물, 모든 것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보기에 이 모든 것들은 육신 사역의 첫 전투에서 승리한 것과 같았으며,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처음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함에 위안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났기에, 하나님이 느낀 위안은 실로 참된 것이었다. 인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단계의 사역을 이룰 때, 하나님이 기쁨과 위안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인류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때이자 구원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때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바로 그의 새 사역이 전개되고, 그의 경륜이 앞으로 나아가는 때이며, 더욱이 그의 뜻이 완전한 성취에 가까워지는 때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것은 인류에게 행운이자 더없이 좋은 일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희소식이었다. 하나님이 새로운 단계의 사역을 펼칠 때는 하나님께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 이 새로운 사역과 시작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개되고 실현될 때는 이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고 이루어진 때이며, 하나님이 최종 효과와 성과를 거둔 때이다. 또한 하나님이 그 성과에 만족해하는 때이기도 하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히 즐거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미 그가 찾고자 하는 사람을 보았고 확정하고 얻었으며, 그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를 만족게 할 수 있는 자들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위안을 얻었고, 슬픔을 내려놓았으며, 즐거움을 느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육신이 사람들 가운데서 새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그가 하고자 하는 사역을 막힘없이 행하기 시작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느꼈을 때, 이미 결말을 보았으며, 이 결말로 인해 만족스럽고 즐거웠다. 하나님이 그 즐거움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겠느냐? 상상이 되느냐? 하나님이 눈물을 흘려도 되겠느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손뼉을 쳐도 되겠느냐? 하나님이 춤을 출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노래를 불러도 되겠느냐? 그 노래는 어떤 노래여야겠느냐? 하나님은 당연히 마음속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하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며, 그 노래를 사람들과 자기 자신, 그리고 만물에게 들려줄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고, 이는 아주 정상적인 일이다. 하나님은 희로애락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다양한 심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리이며,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니,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고정된 생각을 가지거나 하나님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즐거움과 심정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즐거워해서도, 울거나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되며, 그 어떤 감정도 표현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최근 두 차례의 교제를 통해,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어느 정도 자유와 해방을 허락할 것이라 믿는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나중에 너희가 하나님이 슬퍼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진정 그 슬픔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진정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면, 최소한 하나님이 왜 즐거워하고 슬퍼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슬픔으로 인해 슬퍼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을 때, 너의 마음은 하나님께 완전히 얻어질 것이며, 너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너는 사람의 상상과 관념, 혹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속박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너의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 있는 존재가 되며, 너의 생명이 된 하나님이자 너의 모든 것을 주재하는 주인이 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러한 바람이 있느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73)

예수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마 13:1~9)

가라지 비유(마 13:24~30)

겨자씨 비유(마 13:31~32)

누룩 비유(마 13:33)

가라지 비유 설명(마 13:36~43)

보화를 감추는 비유(마 13:44)

진주를 찾는 비유(마 13:45~46)

그물을 치는 비유(마 13:47~50)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이다. 이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인데, 씨를 뿌리는 것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두 번째는 가라지의 비유이다. 농작물을 심어 본 자나 성인이라면 가라지가 무엇인지 다 알 것이다.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이다. 겨자가 무엇인지는 너희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보도록 해라.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이다. 많은 사람이 누룩은 일상생활에서 발효에 쓰인다는 사실을 안다. 그 아래의 여섯 번째는 보화를 감추는 비유이고, 일곱 번째는 진주를 찾는 비유, 여덟 번째는 그물을 치는 비유이다. 이 모든 비유의 소재는 사람의 생활에서 취했으며, 모두 사람의 실생활에서 유래했다. 이러한 비유는 사람에게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정상인이 되어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생활상의 언어와 인간적인 언어로 사람과 소통하며,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는 장면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사람들 가운데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사람의 다양한 생활 방식을 직접 보고 겪었으며, 이 생활 체험들은 신적 언어를 인간적인 언어로 전환하는 교재가 되어 주었다. 물론, 생활 속에서

보고 들은 것들은 인자의 인성 경험을 풍부하게 해 주기도 했다. 그는 사람에게 진리와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고자 할 때, 위의 몇 가지 비유와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람에 대한 요구를 알려 주었다. 이러한 비유는 다 사람의 생활과 관련이 있으며, 이와 동떨어진 것은 한 가지도 없다. 예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서 농부가 씨 뿌리는 모습을 보았고, 가라지와 누룩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또한, 그는 사람이 보화를 좋아하는 것을 알았기에 보화를 감추는 비유와 보물을 찾는 비유를 사용하였다. 이 밖에도 예수는 평소 고기 잡는 사람들이 그물을 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했다. 예수는 이렇게 인류의 생활과 관련된 행위들을 직접 보았고, 또 그러한 생활을 체험했으며, 모든 정상인처럼 하루 세끼 먹으며 일하고 쉬는 등 평범한 사람의 삶을 체험하고, 타인의 생활도 직접 목격했다. 이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하고 보며 예수가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삶을 살지, 더 자유롭고 편하게 살아갈지 같은 것이 아니었다. 인류의 실제 생활을 경험하며 예수는 삶의 고단함을 보았고, 사탄에 의해 파괴된 인류가 사탄의 권세와 죄 가운데서 힘겹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친히 인류의 생활을 경험하는 동시에, 파괴 속에서 살아가는 인류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몸소 느꼈다. 또한,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류가 사탄과 죄악에 의해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참상을 보고 느꼈다. 예수는 이러한 것들을 신성으로 보았느냐, 아니면 인성으로 보았느냐? 예수의 인성은 매우 실제적으로 존재했기에 그는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볼 수 있었다. 물론 그의 본질, 즉 신성으로도 보았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자신,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직접 본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본 예수는, 그때 성육신으로 담당하는 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앞으로 육신에서 담당할 책임이 얼마나 중차대한지, 그가 직면할 고통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서 무기력한 인류를 볼 때마다, 율법 아래에서 불쌍히 살며 힘없이 발버둥 치는 인류를 볼 때마다 그마음은 점점 아파 왔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싶은 마음은 더 절박해졌다. 자신이 어떤 곤경에 처하든, 앞으로 어떠한 고통을 받게 되든,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속하겠다는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 과정에서 예수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담당할 사명이 무엇인지 갈수록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담당할 사역, 즉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인류를 대신해 속죄하는 사역을 한시바삐 완성하고 싶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가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도 속죄 제물로 말미암아 더는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계속 앞으로 진행시키려는 것이었다. 예수는 인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쳐 희생하길 원했으며, 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진심으로 바랐다고 할 수 있다. 그것도 하루빨리 그 사역을 완성하고 싶어 했다. 인류의 삶의 참상을 본 그는 1분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더 빨리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싶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을 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게 될지, 얼마나 큰 굴욕을 참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자신을 바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 제물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새 사역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며, 죄 속에서 살아가고 생존하던

인류의 처지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라는 신념뿐이었다. 그의 신념과 그가 하고자 한 일은 다 인류의 구원과 관계가 있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다음 단계의 사역을 순조롭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예수의 마음이었다.

그는 육신에서 사는 성육신 하나님으로서 정상 인성이 있었고, 정상인이 지닌 감정과 이성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즐거움이 무엇이고 고통이 무엇인지 알았다. 인류의 삶을 보았을 때, 그는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공급하거나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죄 가운데서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낼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 오직 그 자신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 있는 육신의 형상이 되어야만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는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류의 삶을 목격하고 체험한 후, 인류를 죄 가운데서 해매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아주 강렬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 소망을 위해, 그는 자신이 하루빨리 십자가로 나아가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예수가 인류와 함께 생활할 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류의 참상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가졌던 생각이다. 인류에 대한 성육신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과 드러난 성품은 평범한 사람이 갖추고 있는 것이더냐? 평범한 사람이 이러한 환경에서 살면 무엇을 보겠느냐? 무엇을 생각하겠느냐? 평범한 사람이 이 모든 것에 맞닥뜨리면, 높은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분명 그러지 못할 것이다! 비록 성육신 하나님이 겉으로는 사람과 다르지 않고, 또 사람의 지식을 배우고 사람의 언어를 쓰며, 심지어는 사람의 방식과 화법을 빌려 그의 뜻을 표현할 때가 있다고 해도, 그가 인류를 대하고 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패괴된 인류와 결코 같지 않다. 게다가 그가 서 있는 위치와 차원은 패괴된 인류 중 누구도 닿을 수 없다. 하나님은 진리이므로 그가 입고 있는 육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갖추고 있으며, 그의 생각과 인성이 나타내는 것 역시 전부 진리이다. 패괴된 인류에게 있어, 하나님의 육신이 선포하는 것은 다 진리의 공급이자 생명의 공급이며, 이는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공급이다. 패괴된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관련된 몇몇 사람만을 마음에 수용할 수 있고, 관심을 갖고 걱정하는 이도 단지 몇몇에 지나지 않는다. 재난이 닥치면 먼저 자기 집의 아이들과 배우자, 부모만을 생각한다. 비교적 ‘넓은 사랑’을 가진 사람도 고작 어느 친척이나 친한 친구를 생각할 뿐이다. 이보다 더 많은 이를 떠올릴 수 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람의 위치와 차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은 육신은 패괴된 인류와 완전히 다르다. 그 육신이 아무리 평범하고 정상적이며 보잘것없어 보여도, 심지어 사람에게 아무리 멸시를 당해도, 그의 마음과 인류에 대한 태도는 그 어떤 사람도 갖출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다. 그는 언제나 신성의 위치에서, 창조주의 차원에서 인류를 관찰하고, 하나님의 본질과 마음으로 인류를 대한다. 그는 절대 평범한 사람의 차원이나 패괴된 사람의 관점으로 인류를 대하지 않는다.

사람은 사람의 안목으로, 사람의 지식과 규칙, 학설 등을 평가 기준으로 인류를 바라본다. 이런 것은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고 패괴된 인류가 이를 수 있는 범주이다. 반면, 하나님이 인류를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각과 본질, 소유와 어떠함을 평가 기준으로 삼으며, 이 범주는 사람이 볼 수 없는 범주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입은 육신과 패괴된 인류의 확연히 다른 점이다. 이 차이는 각자의 본질로 말미암아 결정된 것이고, 본질의 차이는 각자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사물을 대하는 관점과 차원을 결정한다. 너희는 예수에게서 하나님 자신의 선포와 발현을 보지 못했느냐? 예수가 행하고 말쑥한 것들은 다 그의 직분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 자신의 경영 사역과 관련이 있으며, 모두 하나님 본질의 선포와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설사 그에게서 얼마간 인성적인 면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의 신적 본질과 발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 인성적인 면이 정말 인성의 발현이겠느냐? 패괴된 인류가 드러내는 인성은 그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예수는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다. 그가 진짜 패괴된 인류의 평범한 일원이라면, 신성의 위치에서 인류의 죄악된 삶을 대하겠느냐? 단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이다. 패괴된 사람은 모두 죄 가운데 살고 있어서 죄를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누구나 그렇다. 마치 돼지가 진흙탕 속에서 살면서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는 것과 같다. 돼지는 더럽다고 여기지 않고, 잘 먹고 편히 잔다. 돼지우리를 깨끗이 청소해 주면, 돼지는 오히려 불편해하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돼지는 또 그 진흙탕 속에서 뒹굴며 더없이 자유롭게 살 것이다. 돼지 자체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볼 때,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겨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더러운 동물이다. 그래서 아무도 돼지를 집 안에 두고 기르지 않는다. 사람이 돼지를 보고 대할 때의 느낌과 돼지가 자신에게 가지는 느낌은 영원히 같을 수 없다. 그것은 사람과 돼지가 같은 부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육신한 인자와 패괴된 사람 역시 같은 부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은 육신만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류와 모든 것을 대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74)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육신이 받은 고난은 어떤 것이었겠느냐? 진정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자가 있겠느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의 본질을 몰라 항상 그를 사람처럼 대함으로써 서글프고 억울하게 만들었으니 그 고통이 실로 너무 크다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은 무고하고 죄가 없음에도 사람과 똑같이 고통받고, 사람과 함께 박해와 비방, 수모를 당하며, 아울러 그를 따르는 자들의 오해와 패역도 참아 내야 했으니 그 고통은 정말이지 헤아릴 수도 없다고 말한다. 아무래도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사실, 너희가 말하는 이러한 고통은 하나님께 있어서 진정한 고통이라고 할 수 없다. 그에게는 그보다 더한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에게 진정한 고통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입은 육신에 무엇이 진정한 고통이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 고통이라고 할 수도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고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은 종종 하나님이 마치 아주 큰 억울함을 당한 것처럼 생각한다. 또한, 하나님이 성육신한 기간에 인류에게 본체를 나타내 자신의 위대함을 보이지 못하고, 늘 이렇게 자신을 낮춰 보잘것없는 육신에 은밀히 거하니 매우 괴로우리라 생각한다. 사람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깊은 동정심을 보인다. 심지어는 종종 이를 소소하게 찬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상,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고통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느끼는 고통과 다르고 거리가 멀다. 너희에게 사실을 말해 주겠다. 하나님의 영이든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든, 하나님에게 있어 위에서 말한 것들은 다 진정한 고통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은 고통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단지 성육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받은 고통을 말해 보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평범한 정상인이 되었을 때, 그는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생활한다. 그럼 사람의 생존 방식, 법칙, 이념을 보고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는 그러한 생존 방식과 법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혐오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왜 혐오하겠느냐? 인류의 생존 방식, 법칙은 무엇이더냐? 어떤 원칙을 바탕으로 세워졌더냐? 무엇을 근거로 삼았더냐? 인류의 생존 방식, 생존 법칙 등 모든 것은 사탄의 논리와 지식, 철학을 바탕으로 생겨났다. 이러한 생존 법칙 아래 있는 인류에게는 인성도, 진리도 없으며, 전부 진리에 위배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이다. 이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자. 하나님의 본질은 사탄의 논리, 지식, 철학과 정반대이다. 그의 본질에는 공의, 진리, 거룩함 등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체가 충만하다. 이러한 본질을 갖춘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살아가니 그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고통으로 가득하지 않겠느냐? 고통스러운 심정일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거나 느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가 보고 듣고 접하고 체험하며 대면한 것들은 모두 인류의 패괴와 사악함, 진리에 대한 거역과 대적이다. 사람에게서 오는 모든 것이 그에게는 고통의 근원이 된다. 즉, 그는 패괴된 인류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인류의 패괴가 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했을 때, 그와 공통된 언어를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었겠느냐? 인류 가운데서는 찾지 못했다.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고 교류할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으냐? 게다가 사람이 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은 모두 죄, 그리고 사악한 시류와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대할 때, 가슴이 미어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일을 대하는데 마음이 즐거울 수 있겠느냐? 위안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와 함께 생활하는 자들은 패역과 사악으로 가득 찬 인류인데, 그의 마음이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느냐? 이러한 고통이 대체 얼마나 큰지, 누가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있느냐? 누가 신경을 쓴 적이 있느냐? 누가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고통은 더욱 체험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의 냉대와 무감각은 하나님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

어떤 이들은 늘 그리스도의 처지를 동정한다. 성경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는 말이 있어 사람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은 가장 큰 고통이자 그리스도가 받은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말 그러하더냐? 하나님은 이를 고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단 한 번도 육신이 받은 고통 때문에 불평이나 억울함을 토로한 적이 없으며, 사람에게 무언가 보답하고 갚으라고 한 적도 없다. 사람의 모든 것, 즉 패괴된 삶과 사악함, 사탄에게 통제받고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죄 가운데 살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는 모습을 목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이 모든 죄악을 용납할 수 없었고 인류에 대한 혐오는 날로 커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을 참아야만 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은 크나큰 고통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 하나님의 희로애락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발현되지 못했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자가 없었다. 또한, 그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위로해 보려고 하는 자도 없었다. 그는 하루 또 하루, 한 해 또 한 해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의 고통을 받아야 했다. 여기서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인류에게 지불한 것에 대해 어떤 보답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본질 때문에 인류의 사악함과 패괴와 죄악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고, 게다가 극도로 혐오하고 증오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육신은 이로 인해 끊임없는 고통을 받는다. 이러한 것들을 너희는 보았느냐? 분명 너희 중 그 누구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너희는 누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천천히 체험해 보아라!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75)

예수가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삽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오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 두 바구니에 찼더라”(요 6:8~13)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어떤 개념이냐? 보통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몇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느냐? 일반인의 식사량으로 계산해 본다면, 기껏해야 두 사람이

먹기 충분한 양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사람에게 주는 기본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이 기록에서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몇 사람에게 나눠 주었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오천쯤 되더라”.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에 비해 오천이라는 수는 너무 많지 않느냐? 수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이 봤을 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두 숫자의 차이는 너무 커서, 한 사람당 한 입만 먹는다 쳐도 오천 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는 이적과 기사를 하나 행하였다. 그는 오천 명을 배불리 먹였을 뿐만 아니라 여분까지 있게 하였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 두 바구니에 찼더라”라는 성경 기록처럼 말이다. 이 이적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의 신분과 지위를 보았고,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며 전능하다는 사실을 목도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배불리 먹였는데, 만일 음식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일 수 없었을까? 당연히 가능했다! 이것은 이적과 기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그 기묘함을 측량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대단한 일도 아니다. 하나님께 평범한 일이라면 왜 여기서 굳이 설명하고 있겠느냐? 그것은 이 기적의 뒤에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예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 오천 명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보자. 그들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더냐? 성경을 보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겠느냐? 분명 알지 못했을 것이다! 최소한 그들은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일부는 그의 이름만 알고 있었고, 일부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거나 들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소문으로 알게 된 예수에 대해 단지 호기심이 생겼을 뿐, 그를 따른다고 할 수는 없었고, 더욱이 잘 안다고 할 수도 없었다. 예수가 이 오천 명을 보았을 때, 그들은 배가 고파서 그저 배부르게 먹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는 그들의 바람을 충족시켜 주었다. 그들의 바람을 충족시켜 주면서 예수는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 배만 채우려 하는 자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어떠했겠느냐? 여기서 예수의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의 성품 및 본질과 관련된다. 한 끼 배불리 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오천 명의 굶주린 사람들 앞에서, 예수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한 오천 명 앞에서, 예수는 그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은혜를 내려 주고 싶었을 뿐, 결코 이 오천 명이 그를 따르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예수는 그들이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좇아 왔으며, 원하는 것은 배를 채우는 것뿐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 오천 명을 배불리 먹였다. 재미있는 구경거리나 기적을 보기 좋아하는 오천 명의 눈을 열어 성육신 하나님이 이를 수 있는 일을 직접 보게 한 것이다. 예수는 실제 사건으로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오천 명이 그저 배불리 먹기만 바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상대로 어떤 말씀도, 설교도 하지 않았으며, 그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기만 했다. 그는 결코 그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처럼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그의 주재하에 있다. 하나님은 그의 시야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면, 필요하다 느낄 경우 누구든 그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에 대해 아는 바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떡과 물고기를 다 먹고 나서도 예수에 대해 특별한 인상을 받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며 그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었다. 혹자는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 데는 원칙이 있어, 믿지 않는 사람은 보살피 주지도 지켜 주지도 않으며, 은혜를 내려 주는 일은 더더욱 없다고 말한다. 정말 그렇겠느냐? 하나님은 그가 만든 살아 있는 피조물이기만 하면 누구든 관리하고 보살피 주며, 다양한 방식으로 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안배하며 주재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이다.

떡과 물고기를 먹은 오천 명은 예수를 따를 생각이 없었지만, 예수는 그들과 따지지 않았다. 배불리 먹고 난 후,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너희는 아느냐? 예수가 그들에게 어떤 설교라도 했느냐? 이 일이 있는 후에 예수는 어디로 갔느냐? 성경에는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을 했다는 기록이 없다. 예수는 기적을 행한 후 조용히 그곳을 떠났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들에게 뭔가 요구라도 했느냐? 그들을 증오했느냐? 그런 일은 없었다. 예수는 절대 자신을 따를 가능성이 없는 자들을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때, 그는 인류의 타락함을 보았고, 인류가 그를 저버렸다고 느껴 마음이 아팠다. 또한, 그 사람들을 보거나 그들과 함께할 때 느낀 인류의 우둔함과 무지함은 그의 마음을 아주 슬프고 힘들게 했다. 그래서 그는 빨리 그 사람들을 떠나고 싶어 했다.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고, 그들을 더 상대하는 것도, 나아가 그들에게 정성을 쏟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예수는 그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아주 명확했다. 그는 다만 그들을 선대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재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대하는 그의 태도이다. 즉, 모든 피조물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그들을 키워 주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였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발현하여 그 사람들을 선대하였으며, 인자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 주었다.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대하든, 어떠한 결과가 생기든 그는 창조주의 신분으로 모든 피조물을 대했으며, 그에게서 발현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이었다. 예수는 조용히 일을 하고 나서 또 조용히 떠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측면의 성품이겠느냐?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에게는 사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할 수 없다! 본질을 보았을 때, 예수가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인 오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모두가 하나님께 적대적인 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들은 절대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아니며, 그들의 본질은 확실히

하나님께 적대적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적대감을 자신의 방식으로 녹여 버렸다. 이 방식이 바로 '선대'다. 즉, 예수가 그들을 죄인으로 봤을지라도, 하나님 눈에 그들은 여전히 피조물이었다. 그래서 그는 죄인들을 선대해 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용이다. 이 관용은 하나님 자신의 신분과 본질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이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76)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태도를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을 때,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과 염려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너는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류에게 들인 정성과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너는 두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표현이 무엇이겠느냐? 누군가는 사심 없는 마음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박애라고 한다. 이 두 표현 중 '박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데에 가장 적합하지 못하다. 이 말은 보통 가슴이 넓고 정이 많은 사람을 묘사하는 데 쓰인다. 나는 이 표현을 아주 혐오한다. 이 표현은 대상도 가리지 않고 원칙 없이 무턱대고 베푼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어리석고 멍청한 자들의 흘러넘치는 감정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한다면, 피치 못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뜻이 들어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더 적절한 표현이 두 가지 있다고 본다.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첫 번째 표현은 '더없이 크다'이다. 이 표현에는 시적인 느낌이 있지 않느냐? 두 번째 표현은 '광대하다'이다. 내가 이 두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데는 실제적 의미가 담겨 있다. '더없이 크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실물의 부피나 용량을 묘사하는데, 이 실물은 아무리 커도 사람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추상적이지 않고 분명 존재하기에,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확실하고 실제적인 개념을 줄 수 있다. 이차원적으로 보나 삼차원적으로 보나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기에 상상할 필요가 없다. '더없이 크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는 해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준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허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재하에 있는 만물이 함께 누리고, 또 모든 피조물이 다방면적으로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만물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양분을 얻어 살아가고, 만물의 생존이 하나님 사랑의 면면을 나타내며, 시시각각 누리는 그 사랑을 헤아리고 증거하기 때문이다. 반면 측량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에게 자양분을 주고 공급하는 비밀을 사람이 가늠하기 어렵고, 하나님이 만물을 대하는 마음, 특히 인류를 대하는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창조주가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창조주가 친히 만든 인류에게 얼마나 깊은 사랑을 쏟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없이 크다’라고 묘사하는 목적은 사람이 크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해하며, ‘창조주’라는 말의 실제적 함의를 더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피조물’이라는 호칭의 진정한 의미까지 깊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광대하다’라는 표현은 보통 무엇을 묘사하느냐? 큰 바다, 우주 등을 묘사한다. 예를 들면, 광대한 우주, 광대한 바다 등이 있다. 사람은 우주의 광활함과 심오함에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 끝없이 상상하고 우러러보지만, 그 오묘함과 심오함에 대해 바라만 볼 뿐 닿을 수는 없다. 바다를 생각할 때, 너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의 광활함을 떠올리고, 그 신비함과 포용력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광대하다’라고 묘사한다. 그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의 소중함과 깊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사랑의 능력이 무한하고 광대함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또한, 하나님 사랑의 신성함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드러나는 존엄과 거스를 수 없음을 느끼게 하는 데 있다. 이제 너희는 내가 ‘광대하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더없이 크다’와 ‘광대하다’라는 두 가지 표현으로 묘사해도 손색이 없지 않겠느냐? 전혀 손색이 없다! 인류의 언어 가운데 오직 이 두 표현만이 가장 적절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묘사에 비교적 근접하다.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했다면, 이 두 표현을 사용했겠느냐? 분명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너희가 이해하고 체험한 것은 아직 입체적인 공간의 차원에는 오르지 못하고 단지 평면적인 범위 안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라고 하면, 표현이 궁색해지고 심지어는 알맞은 말도 찾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오늘 말한 두 표현에 대해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예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너희가 체험하고 이해한 것이 너무 얇고, 범위도 좁다는 것을 말해 줄 뿐이다. 내가 전에 하나님께는 사심이 없다고 말했더니 너희는 그것만 기억했구나. 설마 하나님의 사랑을 ‘사심 없는 마음’이라고밖에 묘사할 수 없겠느냐? 이는 너무 협소한 범위 아니겠느냐? 너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야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77)

나사로의 부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요 11:43~44)

너희는 이 구절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예수가 행한 이 이적과 기사는 위에 언급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 죽은 자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이적과 기사는 없기 때문이다. 예수가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은 그 시대에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 하나님은 성육신했기에 사람은 그의 겉모습과 실제적이고 미미한 면만 보았다. 설령 예수의 성격을 좀 알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의 본질은 도대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누가 알 수 있었겠느냐? 이는 전부 사람이 알 수 없는 일들이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사로의 사건을 증명하고 사실의 진상을 알고자 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는 하나님에게 식은 죽 먹기만큼 쉬운 일이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특정한 행사를 통해 자신의 신분과 본질을 증명할 수 있지만, 두서없이 일하는 법은 없으며, 매사에 계획과 절차가 있다. 그저 합당한 시기와 기회를 찾아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함으로써 사람에게 보여 주고, 그것을 통해 그의 권병과 신분을 증명할 뿐이다. 그렇다면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성경 구절을 보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 나오는데...” 예수는 이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한마디만 했을 뿐이다. 그러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다.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한마디로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때 예수는 제단을 쌓지도 않았고 다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마디만 했을 뿐이다. 이것을 이적과 기사라고 해야겠느냐, 아니면 명령이라고 해야겠느냐? 그것도 아니면 술법이라고 해야겠느냐? 겉으로 보면 이적과 기사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지금 시대에 적용해도 이적과 기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 혼을 부르는 술법이라고는 할 수 없고, 사악한 요술이라고는 더더욱 말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해서, 이 이적과 기사는 창조주의 권병이 드러낸 매우 평이하고 작은 부분일 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병이자 능력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권병이 있고, 그 영이 육을 떠나 저승으로도, 혹은 마땅히 가야 할 다른 곳으로도 가게 할 수 있다. 사람이 언제 죽고, 죽은 뒤에 어디로 가야 할지는 다 하나님이 결정한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며, 사람과 일, 사물이나 공간적, 지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가 하고 싶은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만물과 생령은 다 그의 주재하에 있기 때문이다. 만물 또한 그의 말씀과 권병으로 인해 생겨나고 살아가며 또한 소멸한다.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 역시 그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창조주만이 지닌 권병이다.

예수가 나사로를 부활시킨 목적은, 바로 사람의 생사를 포함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사람과 사탄에게 증명해 보이고, 알려 주고자 함이었다. 또한 하나님은 성육신해서도 변함없이 사람이 볼 수 있는 물질세계와 볼 수 없는 영계까지 주관한다는 것을, 사람의 모든 것은 결코 사탄의 주관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 주고자 함이었다. 이는 하나님이 지닌 권병의 표출이자 발현이며, 또한 하나님이 인류의 생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만물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예수가 나사로를 부활시킨’ 방식은 창조주가 인류에게 분명하게 알려 주고 가르쳐 주는 방식이자, 그의 능력과 권병으로 인류에게 가르쳐 주고 공급해 주는 구체적인 행위이다. 또한, 비언어적 형태로 인류에게 창조주가

만물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방식이자, 창조주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그의 실제 행사를 통해 알려 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무언의 방식으로 인류에게 준 가르침은 영구적이고 영원불멸한 것이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인류의 마음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놀라움과 깨달음을 가져다주었다. ‘나사로의 부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이 사건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아주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이 일을 잘 아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사를 주관한다’는 깨달음과 이상(異象)을 확고히 해 주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러한 권병이 있을지라도, ‘나사로의 부활’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인류의 생사를 주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을지라도, 이는 결코 그의 주된 사역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의미 없는 일을 행한 적이 없다. 그가 한 모든 일은 더없이 가치 있는 최고의 보물들이었다. 그는 절대 ‘사람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것’을 유일하고 주된 사역 목표나 항목으로 삼지 않는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나사로의 부활은 하나님의 권병을 나타내기에 충분했고, 예수의 신분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므로 예수는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반복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자신의 원칙에 따라 일을 한다.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본업에 힘쓴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 취지를 벗어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현 단계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무엇을 이뤄야 하는지를 알고 있으며, 엄격하게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일을 한다. 만일 패괴된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갖춘다면, 어떻게든 자신의 힘을 알리려고 능력을 과시할 것이고,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어 다른 이를 통제하고 집어삼키려는 목적을 이루려 할 것이다. 이는 사탄에게서 비롯된 사악함으로, 패괴라고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성품도, 본질도 없다. 그가 일하는 목적은 과시가 아니라 사람을 더 많이 깨우치고 이끌어 주는 데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이러한 사례는 아주 적다. 사례가 적다고 해서 예수의 능력이 유한하거나 그가 행할 수 없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았을 뿐이다. 나사로를 부활시킨 일은 아주 실제적인 의미가 있으며, 성육신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기적을 보이거나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에게 가르침과 공급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역을 더 많이 행하였다. 나사로의 부활과 같은 일은 예수가 직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인 아주 작은 단편적 사건일 뿐이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본질 속에 ‘과시’라는 요소는 없다. 그러므로 예수가 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지 않은 것은 일부러 자제하거나 환경적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며,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 예수는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한마디 말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한마디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룸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이루었다. 즉, 명령의 말씀에 의해, 권병의 말씀에 의해 만물이 그렇게 생겨났고 일들도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한 말씀처럼 하나님 자신의 권병과 창조주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나사로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이다. 이는 하나님에게서 온 권병이며, 그 권병은 하나님이 입은 육신에서 나타나고 육신에 실체화한 것이다. 이러한 권병과 능력은 창조주에게 속하며, 창조주가 실체화한 인자에게 속한다. 이 역시 하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실을 통해 사람을 가르쳐 알게 한 내용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78)

예수에 대한 바리새인의 판단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막 3:21~22)

예수가 바리새인을 꾸짖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만은 절대 사함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람이 말로써 인자를 거스르는 것은 사함 받을 수 있으나 말로써 성령을 거스르는 것만은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절대 사함 받을 수 없느니라”(마 12:31~32, 중국어성경 직역)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고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가식적으로 길게 기도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벌을 받으리라)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으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게 되면 너희보다 배나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도다”(마 23:13~15, 중국어성경 직역)

위의 두 부분의 말씀에는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예수에 대한 바리새인의 판단’이라는 첫 번째 내용을 보자.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은 예수와 그가 행한 일에 대해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막 3:21~22)라고 평가했다. 예수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판단은 다른 사람을 따라 말하거나 터무니없이 상상해 낸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행사를 직접 보고 듣고 내린 결론이다. 비록 그들이 정의를 견지한다는 간판을 내걸어 그 결론에 근거와 이유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졌을지라도, 예수를 판단하는 그들의 위세는 그들 스스로도 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고만장했다. 예수를 증오하는 그들의 광기 어린 기세는 그들의 야심과 그들이 지닌

사악한 사탄의 몰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악독한 본성을 드러냈다. 그들이 예수를 판단한 그런 말들은 바로 그들의 야심과 질투, 그리고 진리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추하고 악독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예수가 행한 일의 근원, 예수의 말씀과 행사의 본질을 살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한시라도 지체할세라, 미친 듯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예수의 모든 행사를 공격하고 비방했다. 심지어 예수의 그 영, 즉 성령이자 하나님의 영을 함부로 비방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입에서 나온 ‘그가 미쳤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바알세불과 귀신의 왕이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의 사역을 미쳤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바알세불과 귀신의 왕이라고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모독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본질은 사탄, 악마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본질과 완전히 같다. 그들은 패괴된 인류를 대변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사탄의 화신을 대변했다. 그들은 인류 가운데 있는 사탄의 출구이자 사탄의 공범자이며 심부름꾼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비방하는 본질은 하나님과 지위를 다투고 하나님과 맞서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본질,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들의 태도, 그들 입으로 말한 것과 마음속으로 생각한 모든 것들은 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고 노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 그들의 행위를 성령 모독죄로 정했다. 그 죄는 다음 성경 구절과 같이 금세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사함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만은 절대 사함 받을 수 없느니라”, “말로써 성령을 거스르는 것만은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절대 사함 받을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한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절대 사함 받을 수 없느니라”라는 구절에 내포된 실제 의미에 대해 말해 보자. 즉,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절대 사함 받을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실현하는지 그 비밀을 밝혀 보자.

우리가 나눈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 있고, 사람과 일, 사물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와 관련 있다. 위의 두 성경 구절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 두 구절에서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혹자는 하나님의 노를 보았다고 말한다. 혹자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면 사함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았다고 말한다. 사람은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의 분노와 거스를 수 없는 성품을 보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 이 두 구절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태도와 처리 방식이 담겨 있다. 이 태도와 처리 방식이 바로 “말로써 성령을 거스르는 것만은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절대 사함 받을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즉 하나님을 노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결론을 하나 내놓았고, 그 결론이 바로 하나님이 준 결과이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만은 절대 사함 받을 수 없느니라”(마 12:31, 중국어성경 직역),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마 23:13, 중국어성경 직역). 그러나 예수가 이런 말씀을 한 후,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를 미쳤다고 말한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있느냐? 그들이 무슨 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느냐? 단언하건대 없다. 여기서 ‘없다’라고 한 것은 기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상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결말이 없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없다’라는 말은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태도와 원칙을 설명해 준다. 하나님은 그를 모독한 자, 그를 대적한 자, 심지어 그를 비방한 자, 그리고 고의로 그를 공격하고 훼방하고 경멸한 자들을 대함에 있어, 못 본 척, 못 들은 척한 것이 아니라 매우 분명한 태도를 취했다. 하나님은 그들을 증오했고, 마음속으로 그들을 정죄했으며, 나아가 공개적으로 그들의 결말을 선포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를 모독하는 자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한 것이다. 또한, 그가 장차 그런 자들의 결말을 어떻게 결정지을지에 대해서도 알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마친 후, 실제로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사람이 볼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사람은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나 결정의 원칙을 이해하기도 매우 어렵다. 즉,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태도를 거의 볼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원칙과 관련된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실제로 닥치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다시 말해, 죄를 선포하거나 결말을 정하지 않고 실제로 닥치는 일을 통해 직접 벌하거나 악행에 대한 보응을 주는 것이다. 실제로 닥치는 일을 통해 주는 그러한 벌은 사람의 육체를 대상으로 하며,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자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저주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 그들이 받는 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결말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벌이나 죽임을 당하는 결말보다 훨씬 더 엄중하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지 않고, 그들에게 더는 긍휼과 관용을 베풀지 않으며, 그 어떤 기회도 주지 않겠다고 뜻을 결정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방임하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방임’의 의미는 무엇이나? 이 단어 자체의 의미는 우선 한쪽으로 제쳐 놓고 상대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있어 ‘방임’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그 사람의 목숨을 비롯한 모든 것을 사탄이 처리하도록 넘겨주어 하나님이 더 이상 책임지거나 관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자가 미치거나, 실성하거나, 멍청해지거나, 살거나, 죽거나 혹은 지옥으로 떨어져 벌을 받아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다는 의미다. 이는 그 피조물이 창조주와 완전히 무관한 존재가 됨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그러한 자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뜻을 정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봉사자로 쓸 수도 있고, 부각물로 쓸 수도 있으며, 또는 그런 사람에게 특별한 처리 방식이나 대응 방식을 취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바울처럼 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부류에 대해 정한 처리 원칙이자 태도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모독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 노하게 하고,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는 한계를 건드릴 경우 그 결과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가장 심각한 결과는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영원히 사탄에게 넘겨주어 영원토록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그 사람이 사탄의 먹잇감이자 노리개가 되어 더 이상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너희는 욥이 사탄에게 시험당할 때의 참상이 어떠했는지 상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게 한 상황에서도 욥은 매우 큰 고통을 겪었다. 하물며 완전히 사탄에게 넘겨져 장악된 자, 하나님의 보살핌과 긍휼, 창조주의 주재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창조주를 경배할 권리와 하나님의 주재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 될 권리를 빼앗겨 창조주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긴 자가 받게 될 사탄의 박해는 더더욱 상상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욥에 대한 사탄의 박해는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의 목숨마저 사탄에게 넘겨준다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소나 나귀로 환생하고, 어떤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나 악령에 사로잡히거나 빙의되는 등의 경우처럼 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 사탄에게 넘겨진 후, 일부 사람들이 맞게 될 결말과 말로이다. 외적으로 볼 때, 당시 예수를 비방하고 훼방하고 정죄하고 모독했던 자들은 어떤 결과도 감당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모두 처리하는 태도가 있다. 하나님이 각 부류 사람의 결말에 대해 모두 명확한 말씀으로 알려 주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기보다는 직접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말씀이 없다고 해서 결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어쩌면 그런 경우의 결말이 더 심각할지도 모른다.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이들에게는 말씀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태도를 밝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사실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그를 더 이상 상대하고 싶어 하지도,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 사람의 모든 행동, 본성과 본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고, 그를 직접 사탄에게 넘겨주며, 그의 영, 혼, 육을 모두 사탄에게 넘겨주어 사탄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싶을 뿐이다. 그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와 혐오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누군가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더는 그를 보고 싶어 하지 않게 만들고, 그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를 직접 처리하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가 되고, 사탄이 통제하고 삼키고 마음대로 처분하도록 사탄에게 넘겨줄 정도가 된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끝난 것이다. 그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영원히 잃고, 피조물로서의 자격도 다한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한 벌이 아니겠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79)

예수가 부활한 후 제자들에게 한 말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요 20:26~29)

“또 두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요 21:16~17)

이 기록은 예수가 부활한 뒤 제자들에게 했던 일과 말씀이다. 우선, 부활한 후의 예수와 이전의 예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그는 여전히 이전의 예수였느냐? 성경에서는 부활한 후의 예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 이때의 예수는 더 이상 육신이 아닌 영체였다. 육신의 제약을 초월했기에 문이 닫혔어도 사람들 가운데 올 수 있었고, 모든 사람이 그를 보게 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한 후의 예수와 육신에서 살았던 예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비록 이때의 영체와 이전의 예수 사이에 형상의 차이는 없었지만, 이때의 예수는 사람에게 낯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죽음에서 부활해 영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영체는 이전의 육신보다 훨씬 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고, 의문스러운 존재였다. 동시에 사람은 예수에 대해 더 큰 거리감을 느꼈고, 신비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라 여겼다. 이런 인식과 느낌은 사람을 모두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던 과거 시대로 데려갔다. 그러므로 부활한 후의 예수가 해야 했던 첫 번째 일은 바로 많은 사람이 자신을 보게 하고, 또 그의 존재와 죽음에서 부활한 사실을 입증하며, 이와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를 그가 육신으로 사역하던 시기의,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리스도와 사람과의 관계로 회복시켜 놓는 것이었다. 그래야 사람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과 예수가 인류를 구속한 사역에 대해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을 터였다. 한편, 부활한 예수가 사람이 보고 만질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났다는 이 사실은, 사람을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은혜시대에 자리 잡게 하였다. 이로부터 사람은 예수가 ‘사라지거나’ 혹은 ‘말없이 떠났다고’ 해서 지난 시대, 즉 율법시대로 퇴보하지 않고, 예수의 가르침과 사역에 따라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은혜시대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으며, 율법 아래 있던 인류도 이때부터 정식으로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원에 진입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한 예수가 사람 앞에 나타난 사건이 지닌 다양한 의미이다.

그는 영체였는데 어떻게 사람이 보고 만질 수 있었겠느냐? 이는 예수가 사람 앞에 나타난 의의와 관련이 있다. 이 구절을 통해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보통 영체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 게다가 예수가 부활했을 때는 그가 맡은 사역을 이미 완수한 후였다. 이론적으로 볼 때, 예수가 원래의 형상으로 다시 사람들 가운데 와 그들을 만날 필요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예수의 영체가 도마와 같은 사람에게 나타남으로써, 그 현현이 더욱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사람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는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자신의 손을 만지게 하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했다. 이는 예수가 부활한 후에 말하거나 행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하려고 했던 일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도마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겠느냐? 바로 부활한 후의 예수는 본질이 변하지 않은 원래의 예수라는 사실이다. 예수에 대한 도마의 의심은 그때에야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기간에도 줄곧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예수는 단지 죽음에서 부활하고 영계로부터 다시 돌아왔을 뿐이다. 그는 원래의 형상과 성품, 그리고 육신에 거할 때 얻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마에게 자신의 옆구리를 만져 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는 부활한 자신의 영체를 보게 하고, 그 영체의 존재를 만지고 느끼게 해서 도마가 의심을 완전히 내려놓게 했다. 도마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의심하며 믿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한 도마의 믿음은 직접 보고 만져 봐야 하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다. 예수는 이러한 자들의 믿음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만을 믿을 뿐, 하나님이 보낸 성육신한 그리스도는 전혀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믿게 하기 위해, 예수는 도마에게 손을 뻗어 그의 옆구리를 만져 보게 한 것이다. 예수의 부활 전과 부활 후, 도마의 의심에 변화가 있었느냐? 그는 줄곧 의심하고 있었다. 예수의 영체가 친히 나타나 직접 몸에 난 못 자국을 만져 보게 하는 것 말고는, 도마의 의심을 해결하거나 내려놓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예수는 도마에게 자신의 옆구리를 만져 못 자국을 느껴 보게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도마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고, 예수가 부활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또한, 도마는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이 입은 육신임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 그때 도마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와 만나 함께하며 그를 따르고 알아 갈 기회와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케 될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말았다. 예수의 현현과 이 말씀은 의심 많은 자들의 믿음에 결론을 내렸고 심판을 행했다. 그는 의심 많은 자들과, 하늘의 하나님만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의 실제 말씀과 행사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 주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의심을 품은 채 따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게 되는 날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이 대성공을 거둔 날일 것이며, 그날은 당연히 그들의 의심이 심판받는 날일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고, 완고한 의심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강박함으로 인해 그들의 바램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단지 그림 속 떡으로 허기를 채우려는 헛수고에 불과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이야말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진정한 자세이기 때문에, 설령 예수의 몸에 난 못 자국을 만졌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였다. 그래서 그들의 결말은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로 묘사할 수밖에 없다. 예수가 도마에게 한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아주 명확한 사실을 알려 주었다. 즉, 부활한 예수는 당시 33년 반 동안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한 바로 그 예수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부활했어도 그의 모든 면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몸에 못 자국이 생기고 부활하여 무덤에서 나왔지만, 그의 성품이나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에 대한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사람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며 죄와 고난과 죽음을 이겼음을 알려 주었다. 그의 못 자국이 바로 사탄을 이긴 증거이며, 속죄 제물이 되어 전 인류를 성공적으로 구속했다는 증거였다. 그는 사람에게 그가 이미 인류의 죄를 짊어졌으며, 구속 사역을 완수했음을 알려 주었다. 돌아와서 제자들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현현으로 “나는 아직 살아 있다.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 나는 오늘 실제로 너희 앞에서 있기에 너희가 보고 만질 수 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예수는 또 도마의 일을 통해 후세 사람들에게 훈계하고자 했다. 즉, 예수를 믿으면서 그를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진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예수를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사람은 복 있는 자임을 알려 준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도마에게 나타난 사건은 은혜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예수의 현현과 그가 도마에게 한 말씀이 후세 사람들에게 준 영향은 매우 크며, 그 의미도 영구적이다. 도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의심이 많고 음흉하고 간교하여 하나님이 이를 수 있는 일들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전능과 주재를 믿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그들의 의심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그들이 의심 많고 간교한 사람임을 깨닫고 인식하고 인정하며, 나아가 예수의 존재와 부활을 진실로 믿도록 기회를 주었다. 도마의 사건은 후세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이자 메시지로, 도마처럼 의심을 품으면 어둠 속에 빠지게 되니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더 많은 사람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도마처럼 주의 옆구리를 만져 보고 못 자국을 느껴 봐야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검증하거나 가늠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떠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에게 도마처럼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순수하고 정직한 자가 되라고 요구했으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로지 믿고 따르는 자는 복되다고 했다. 이는 사람에 대한 예수의 아주 작은 요구였고,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주는 훈계였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80)

“또 두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네 양을 치라 하시고 세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요 21:16~17)

대화를 보면, 예수는 베드로에게 반복적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다. 이 질문은 예수가 부활한 후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즉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요구한 더 높은 기준을 보여 준다. 다그치고 캐묻는 이 말쑥은 질문이자, 나아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 대한 요구와 기대였다. 그는 이런 식의 질문을 통해 사람이 반성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했다.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요구는 무엇인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말이다. 예수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물어보았으나, 실은 베드로에 대한 질문을 빌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더 많은 자들에게 질문하고 싶었다. 다만 베드로가 복이 있었기에 그 부류 사람의 대표로 예수가 친히 하는 질문을 받았을 뿐이다.

예수가 부활한 후에 도마에게 했던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에 비해 베드로에게 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세 번의 질문에서는 그의 엄격한 태도와 당시의 절박한 마음이 훨씬 더 잘 느껴진다. 예수는 본성이 간사하고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못 자국을 만지게 함으로써 그가 곧 부활한 인자임을 믿게 했고, 그의 신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했다. 예수는 도마를 엄하게 꾸짖지 않았고, 그에 대해 명확한 말로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지만, 실제 행동을 통해 자신이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자들에 대한 예수의 태도와 결정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예수가 한 이 말씀에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요구나 기대가 보이지 않는다. 도마와 같은 부류의 사람은 참된 믿음이 전혀 없는 자들이기에, 그들에 대한 예수의 요구 역시 그 정도에 그쳤던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이에게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 주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못 자국을 만져 보라고 하지 않았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도 하지 않았으며, 같은 질문만 반복했다. 사람을 깊이 반성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예수의 질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자책감과 당황스러움을 느끼면서도 예수의 애타고 슬픈 마음을 더 잘 알게 된다.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한편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염려와 보살핌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순수하고 정직한 자들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곡한 가르침과 엄격한 요구를 깨닫게 된다. 예수의 간단한 질문을 통해, 사람은 주님이 기대하는 바는 단순히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느끼게 되었다. 여기서 사랑이란 바로 헤아림과 순종이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며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사랑이란 하나님께 위안을 드리고, 하나님이 증거와 안식을 누리도록 하며,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의 책임과 의무이자 본분이며, 또 사람이 평생 행해야 할 도이다. 이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와 모든 온전케 되는 사람에게 던지는 예수의 요구와 당부였다. 바로 이 세 번의 질문이 베드로가 인생 여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를 인도하고 격려해 주었다. 또한, 예수가 떠날 때 했던 질문은 베드로가 온전케 되는 길로 가게 해 주는 한편, 주를 사랑함으로써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께 순종하고 위안을 드리며, 주를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일생과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바치게 해 주었다.

은혜시대에 하나님은 주로 두 유형의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했다. 첫 번째는 그를 믿고 따르며, 계명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며, 은혜시대의 도를 지킬 수 있는 자들이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한 후에 먼저 가장 의미 있는 이 두 가지 일을 했다. 하나는 도마에게, 또 하나는 베드로에게 말이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무엇을 대변하느냐?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대변하지 않느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성을 대변하지 않느냐? 도마에게 행한 사역은 사람들에게 의심 많은 자가 되지 말고, 오로지 믿으라고 훈계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베드로에게 행한 사역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함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요구하고 추구할 목표를 분명하게 알려 주었다.

부활한 예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말씀했으며, 그들에게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사람에 대한 자신의 마음과 기대를 남겼다. 즉,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지냈던 기간이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여 영체가 된 다음이든, 인류에 대한 그의 염려와 요구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제자들을 염려했으며, 모든 사람의 상태를 훤히 알고 있었고, 각자의 부족한 부분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체가 된 후에도 당연히 육신에 거할 때처럼 각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 사람이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육신으로 있는 동안 사람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저 부활한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성육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100% 확신시켰을 뿐이다. 그의 현현과 죽음에서 부활한 사실은 사람이 평생 추구하는 최대의 이상과 원동력이 되었다.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은혜시대의 사역이 인류 가운데 완벽히 실현되게 했다. 이에 따라, 은혜시대 예수의 구원 복음은 점차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갔다. 예수가 부활한 후에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것에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만일 네가 당시의 도마나 베드로이고, 일생 중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만났다면, 그 일이 너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겠느냐? 그 사건을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 가장 크고 좋은 이상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평생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흠족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평생의 에너지를 가장 큰 이 이상을 전파하는 데 쏟을 수 있겠느냐? 예수의 구원을 전파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 일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도마와 베드로의 사례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해 확실히 알게 했다. 하나님은 성육신한 후, 친히 인간 세상에서 인류의 삶을 겪었다. 그렇게 인류의 타락과 삶의 실상을 보고 난 후,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기댈 곳 없는 인류의 슬픔과 가련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인성과 육신의 본능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처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그리하여 그를 따르는 자들을 더 염려하게 됐다. 너희는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마음에 두고 염려한다’는 표현으로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를 걱정하고 관심을 보이던 모습을 묘사할 수 있다. 비록 이 표현이 인류의 언어에서 온 아주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그의 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묘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항상 마음에 두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 너희는 체험하는 과정에서 천천히 느끼고 음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려면 성품 변화 추구를 바탕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 가야 한다. 예수의 현현은 인성을 지니고 있을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품었던 ‘항상 마음에 두고 염려하는’ 심정을 자신의 영체, 즉 신성에 실체화하고 옮긴 것이다. 그의 현현으로 인해, 사람들은 또 한 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와 보살핌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다. 동시에, 하나님은 시대를 개척하고 열어 나가며, 또 시대를 종식하는 분임이 강력하게 입증되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나타남으로써 모든 사람의 믿음을 견고히 했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확증을 주었으며, 새 시대 사역의 국면을 열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81)

예수가 부활한 후 떡을 먹으며 사람에게 성경을 풀어 주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눅 24:30~32)

제자들이 예수께 구운 생선을 드리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쁘므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눅 24:36~43)

이어서 위의 구절을 보자. 첫 번째 구절은 예수가 부활한 후 떡을 먹은 것과 성경을 풀어 준 것에 관한 기록이다. 두 번째 구절은 예수가 구운 생선을 먹은 것에 관한 기록이다. 이 두 구절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예수가 떡과 구운 생선을 먹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희는 어떤 장면을 연상했느냐? 예수가 너희 앞에 서서 떡을 먹는다면 너희는 어떤 느낌이 들겠느냐? 혹은 예수와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사람과 함께 생선과 떡을 먹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주님과 아주 가깝고 주님이 친근하게 느껴졌다면 그 느낌은 맞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부활한 후 사람들과 마주 앉아 떡과 생선을 먹음으로써 얻으려던 효과였다. 만일 예수가 부활한 후 사람과 대화만 나뉘, 사람이 그의 뼈와 살을 느끼지 못하고 멀리 있어 닿을 수 없는 혼 같은 존재로 느낀다면 어떠했겠느냐? 사람이 실망하지 않았겠느냐? 사람이 실망감을 느끼면 버려진 기분이 들지 않았겠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감을 느끼지 않았겠느냐? 그 거리감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겠느냐? 사람은 틀림없이 두려워 감히 가까이하지 못하고, 경원시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는 단절되고, 은혜시대 이전의 관계, 사람과 하늘의 하나님의 관계로 돌아가게 됐을 것이다. 사람이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영체는 하나님에 대한 친근감을 사라지게 한다.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에 거할 때 쌓아 놓은 사람과의 거리감 없는 친근한 관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사람은 영체가 두려워 피하려 들거나 말없이 바라만 볼 뿐, 감히 다가서지 못하고 대화를 나누지도 못할 것이다. 그를 따르고 의지하고 양망하지 못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를 피하고 멀리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사람이 그를 알고 그에게 다가오며, 그와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예를 들어 너의 가족과 자녀가 너를 만나도 알아보지도, 다가오지도 않고 늘 너를 피할 때, 그들을 위해 네가 행한 모든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너는 어떤 심정이겠느냐?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 마음이 찢어질 듯 슬프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피할 때 하나님이 느끼는 심정이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한 뒤에도 여전히 뼈와 살이 있는 형상으로 사람에게 나타났고, 사람과 함께 먹고 마셨다. 사람을 가장 가까운 존재로 여기는 하나님은 사람 역시 하나님을 가장 친한 존재로 여겨 주길 바랐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람을 얻고,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할 수 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부활한 예수와 떡을 먹으며 사람에게 성경을 풀어 준 부분과 제자들이 예수에게 구운 생선을 드린 구절을 고른 이유를 알겠느냐?

예수는 부활한 후, 그야말로 각별히 마음을 쓰면서 일련의 일들을 하고 말씀들을 했다. 거기에는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 있고, 육신에 거하던 기간에 사람과 쌓은 친밀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세심한 보호도 담겨 있다. 그리고 육신에 거하던 기간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했던 생활에 대한 그리움과 기대도 녹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그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것을 원치 않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더구나 사람이 부활한 예수는 영계로, 사람이 영원히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더 이상 사람에게 친근했던 주님이 아니고,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치도 않았다. 그는 사람에게 지위의 차이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싶어 하면서도 경원시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그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그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몹시 어려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가 사람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영체로 나타난다면, 또 한 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생길 터였다. 더군다나 사람은 부활한 그리스도가 너무 높고 큰 존재이고 자신들과 같은 부류가 아니므로 더 이상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은 죄가 있고 더러우니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없다고 오해할 터였다. 사람의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 예수는 육신에 거할 때 늘 했던 일들을 행했다. 예를 들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라는 성경 기록과 같은 것을 말이다. 또한,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주기도 했다. 예수가 행한 이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은 주님이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원래의 예수라고 느꼈다. 비록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부활했고, 사람을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왔으며, 그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았다고 느낀 것이다. 사람들 눈앞에 서 있는 인자는 여전히 원래의 예수였다. 그의 행동과 말씀은 사람에게 참으로 친숙하게 느껴졌다. 그는 변함없이 자비와 은혜와 포용으로 충만했으며, 여전히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사람을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예수였다. 그는 예전처럼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함께 성경을 얘기하기도 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예전처럼 피와 살이 있어 사람이 만질 수도 볼 수도 있었다. 사람은 이러한 인자를 아주 친근하고 편하게 느꼈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 또한 느낄 수 있었다. 동시에 사람은 자신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인자를 마음 놓고 의지하고, 확신에 차서 양망하기 시작했으며, 망설임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은혜와 축복,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 그리고 그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기 위해 기도했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82)

예수가 육신으로 사역하던 기간에, 그를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은 그의 신분과 말씀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를 따르던 자들은 그저 관망했을 뿐이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다. 이 기간에 사람들은 예수가 육신에 거하는 동안 했던 말씀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고, 나아가 그것을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예수가 무덤에서 나와 사람들에게 나타나자, 그를 직접 보거나 부활 소식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은 부인하던 마음이 점차 반신반의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다 부활한 예수가 도마에게 그의 옆구리를 만져 보라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떡과 구운 생선을 먹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예수가 성육신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때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뼈와 살이 있는 영체는 모두에게 마치 꿈에서 깬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눈앞에 서 계신 이 인자가 바로 영원부터 계셨던 그분이구나. 형제도, 뼈와 살도 있는 이분은 오랜 시간 사람과 함께 먹고 생활하셨구나....’라고 말이다. 이때 그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더없이 참되고 아름답고 오묘한 느낌을 주었고, 또 지극한 기쁨과 행복, 충만한 감동을 주었다. 예수가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그가 지극히 낮췄음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으며, 그의 친근함과 사람에 대한 염려, 애뜻함을 느끼게 되었다. 예수와의 짧은 만남은 그를 본 사람들에게 마치 딴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상실감과 막연함, 당황스러움과 불안감, 초조함, 크나큰 그리움, 무감각이 들어 있던 사람의 마음이 위안을 얻은 것이다. 사람은 더 이상 의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 이제는 희망과 의지처가 생겼고, 눈앞에 서 있는 인자가 바로 영원하고 든든한 요새요, 견고한 망대요, 피난처임을 느꼈기 때문이다.

예수는 부활했지만, 그의 마음과 사역은 사람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현현을 통해 사람에게 그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든 언제 어디서나 사람의 곁에 있으며, 사람과 동행하고 함께한다고 알려 주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사람에게 공급하고 사람을 목양하며, 사람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있게 하고, 더 이상은 의지할 곳이 없다고 느끼지 않게 한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또 예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염려해 주고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람의 영원한 의지처이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의 가족이며, 그를 의지하면 더 이상 외롭지도 무기력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그를 받아들여 자신의 속죄 제물로 삼은 자는 더 이상 죄의 속박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싶었다. 예수가 부활한 후에 했던 이러한 사역들이 사람에게에는 소소한 일처럼 보이겠지만, 내가 보기에겐 전부 참으로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더없이 중요한 일들이었다.

예수가 육신으로 사역했던 기간은 어려움과 고난이 가득했지만, 그는 뼈와 살이 있는 영체로 나타남으로써 성육신하여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었다. 그는 성육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직분을 시작했고, 또 성육신의 형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 자신의 직분을 마무리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은혜시대를 가져왔으며 그 시대를 시작했다. 또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은혜시대의 사역을 펼쳤으며, 은혜시대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의 사역은 확실히 시작과 끝이 있고, 절차와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 기묘한 행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가득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관통하는 일관된 맥락은 바로 사람에 대한 보살핌과 하나님의 떨쳐 버릴 수 없는 염려의 마음이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예수가 부활한 후에 행한 모든 일에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기대와 염려, 세심한 관심과 보호가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너희는 이런 것들을 보았느냐? 이런 것들을 볼 때, 너희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더냐? 만일 너희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예수가 부활한 후에 너희 앞에

나타나고, 형상이 있어 너희가 그를 볼 수 있었다면, 그가 너희 앞에 앉아 떡과 생선을 먹으며 성경을 풀어 주고 너희와 얘기를 나누었다면, 너희는 어떤 느낌을 받았겠느냐? 기쁘지 않았겠느냐? 가책을 느끼지 않았겠느냐? 전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피하려는 마음, 반발심, 그리고 의심들이 다 사라지지 않았겠느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좀 더 정상적으로 바뀌지 않았겠느냐?

너희는 이 짧은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을 통해 하나님 성품의 어떤 작은 흠이라도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불순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더냐?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에 어떤 간사함이나 사악함이 있더냐? 단언컨대, 없다! 그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희로애락이 전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의 발현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가 이 말씀들을 보고 깨달은 것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성품 변화를 추구하는 데 유익과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 말씀들이 너희에게서 갈수록 좋은 성과를 거둬 너희가 추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과도 가까워지길 바란다. 더 이상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싫증 내지 말고, 진리와 성품 변화를 추구하는 일이 귀찮고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의 발현과 거룩한 본질이 너희에게 동기 부여가 되어 광명과 정의를 갈망하게 되기를,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고자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얻어지는 사람, 진정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하나님 알아가기[3]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83)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유를 창조하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창 1:3~5)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창 1:6~7)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창 1:9~11)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취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창 1:14~15)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20~21)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24~25)

첫째 날, 인류의 낮과 밤이 하나님의 권병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세워지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창 1:3~5). 이 단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면서 행한 첫 번째 일이자 하나님이 보낸,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었던 첫 번째 하루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평범하지 않은 하루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위해 빛을 예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다. 이날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씀과 권병은 공존한다. 그의 권병은 만물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의 능력은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 가운데서 펼쳐졌다. 이날부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권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운행되기 시작했다.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빛’이 생겼다. 하나님은 어떠한 공사도 벌이지 않았지만, ‘빛’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겼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에 의해 낮이라 명명된 ‘빛’이다. 하나님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자신의 본질과 가치를 바꾼 적이 없고, 또한 사라진 적도 없다. 그것의 존재는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창조주의 존재를 알리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창조주의 신분과 지위를 입증하고 있다. 그것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자로 볼 수 있는 빛이다. 이로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텅 빈 이 세계에 첫 번째 물질이 생겨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이며, 하나님의 권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만물이 만들어지는 제 1 막에 출현하였다. 이어서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변화하고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명명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였다. 이로부터 하나님이 만들고자 한 세계의 첫 번째 저녁과 첫 번째 아침이 생겼으며, 하나님은 이날을 첫째 날이라 칭하였다. 이날은 창조주가 만물을 창조한 첫째 날이며, 또한 만물 창조의 시작이고, 창조주의 권병과 능력이 그가 만든 이 세계에 첫 번째로 나타난 날이다.

이 단락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병을 보여 주고, 하나님 말씀의 권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준다. 하나님만이 그러한 능력을 지녔으므로, 하나님만이 그러한 권병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이 그러한 권병을 지녔기에 하나님만이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 누가, 그 어떤 것이 그러한 권병과 능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너희 마음속에 이에 대한 답이 있느냐? 하나님 외에 피조물이나 비피조물이 그러한 권병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는 어떤 책이나 간행물에서 이러한 사례를 본 적이 있느냐? 유사 이래로 누가 만물을 창조했다는 기록이 있느냐? 그것은 책이나 어떠한 기록에도 없으며, 성경에서도 물론 그것은 유일한 기록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상 창조에 관한, 위세가 드높고 권병과 위력을 지닌 일부 말씀인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권병을 대변하며,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신분을 대변한다. 그러한 권병과 능력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신분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 자신만이 지닌 권병과 능력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 권병과 능력은 그 어떤 피조물과 비피조물도 갖추지 못한 것이며 대체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만의 특징이 아니냐? 너희는 이것을 보았느냐?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 아주 빠르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권병과 유일무이한 능력을 가졌고, 지극히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상의 교제를 통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84)

둘째 날, 하나님이 권병으로 물을 지배하고 궁창을 창조함으로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공간이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창 1:6~7).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라고 말씀한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성경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일을 하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이 단락의 마지막 말씀이다. “그대로 되니라”.

짧은 이 두 구절에 기세가 웅장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인류의 생존 공간을 창조하였는지, 이 놀라운 위업, 멋진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이 장면에서 물과 궁창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것들은 하나님 말씀의 권병으로 말미암아 갈라졌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위와 아래로 나뉘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한 궁창이 아래쪽 물 위를 덮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위쪽 물까지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창조주가 물을 움직이고 물을 다스리고 궁창을 창조할 때의 장관이나 그가 보여 주는 권병의 위력은 놀랍고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과 권병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의 위업이 달성되었다. 이것이 창조주 권병의 위력이 아니겠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행사를 해석해 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궁창이 생겼고, 아울러 이 공간에는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이 변화는 일반적 의미의 변화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일종의 교체로서, 그것은 창조주의 생각으로 생겨난 것이다. 창조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인해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고, 그때부터 그것은 창조주를 위해 존재하고 세워지며, 창조주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하며 새로워진다. 이 단락에서 기록한 것은 창조주가 행한 천지 창조의 두 번째 사건으로서, 창조주의 권병과 능력이 또 한 번 발현된 것이자 창조주의 위대한 행사이다. 이날은 창조주가 천지를 창조하며 보낸 둘째 날이자, 창조주가 보낸 또 하나의 멋진 하루였다. 그가 빛 속을 거닐며 궁창을 가져오고 모든 물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날 속에서 그의 행사, 그의 권병과 능력이 행해졌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이전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었느냐? 물론 없었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고 말씀한 후에는 어떠했느냐? 하나님이 원하던 것이 나타나 물 가운데 궁창이 생겼고, 물 또한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아래로 나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물 가운데에 신선하고 새로운 두 가지 사물이 출현하였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새로운

사물의 출현에 대해 너희는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창조주 능력의 대단함을 느꼈느냐? 창조주의 유일무이하고 비범한 기개를 느꼈느냐? 그러한 기개, 그러한 능력의 대단함은 하나님의 권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권병은 하나님 자신의 대언이자, 하나님 자신만이 갖고 있는 특징인 것이다.

이 단락의 말씀에서 너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유일무이함을 감명 깊게 느끼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직 너무 부족한데, 창조주의 권병과 능력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유일무이함은 그의 본질이 그 어떤 피조물의 본질과도 다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의 권병과 능력이 비범하고 무한하여 모든 것을 초월하며 모든 것의 위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의 권병과 소유와 어떠함이 생명과 기적을 만들 수 있고, 멋지고 특별한 매 순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가 자신이 창조한 생명을 주관하며, 자신이 만든 기적과 일분일초의 매 순간을 주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85)

셋째 날, 땅과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겼으며 하나님의 권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생기로 가득 찼다

창세기 1 장 9 절에서 11 절 말씀의 첫 구절을 보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하나님은 “천하의 물이 한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라고만 했을 뿐인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느냐? 빛과 궁창 이외에 그 공간에 또 무엇이 생겼느냐? 성경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바로 그 공간에 또 육지가 생기고 바다가 생긴 것, 다시 말해 물과 육지가 나뉜 것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사물의 출현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 한 마디에 ‘그대로 되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던 기간에 바쁘게 보냈다고 기록된 것이 있더냐? 하나님이 손을 댔다고 기록된 것이 있더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 것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새로운 사물이 생겨나게 했을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었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는 것이다.

.....

계속해서 이 단락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 보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겨났다. 순식간에, 형태가 각각인 여럿 작은 생명들이 흙 속에서 꼬물꼬물 올라와 고개를 내밀었다. 그들은 몸에 묻은 흙을 채 털어 내기도 전에 너도나도 손을 들어 인사를 건네고, 서둘러 이 세상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다. 그들은 창조주가 부여해 준 생명에 감사를 표하고, 그들 모두가 만물의

일원임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 또한 그들은 창조주의 권병을 나타내기 위해 그들 각자의 생명을 바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땅에는 풀들이 파릇파릇 돋아났고, 사람들에게 제공될 각종 채소가 흙을 뚫고 무럭무럭 자라났으며, 산과 들판에는 나무가 무성하고 숲이 울창하였다....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이 밋밋하던 세상이 순식간에 풀, 채소와 나무 등 각종 식물들로 둘러싸여 초록빛을 한가득 머금게 되었다.... 공기는 풀꽃 향기로 그윽하고, 흙내음이 물씬 풍기며, 각종 식물들은 공기를 통해 숨을 쉬면서 자신들의 성장 과정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에 따라 모든 식물들은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싹트고 자라서 꽃피고 열매 맺고 번식하는 일련의 생명 여정을 시작하였다. 각자 생명의 궤적을 지키며, 만물 중에서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모두 창조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고, 창조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 또한 창조주에게서 계속 자양분을 공급받을 것이고, 창조주의 권병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 곳곳에서 강인하게 살아갈 것이며, 창조주가 부여해 준 생명력을 영원히 세상에 나타낼 것이다....

창조주의 생명은 비범하고 그의 생각은 비범하며 그의 권병은 비범하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이 있자 최후의 결과는 늘 ‘그대로 되었다’. 확실히 하나님은 일을 할 때 손댈 필요 없이, 그의 생각으로 지휘하고 말씀으로 명령했을 뿐인데, 일은 곧 그대로 되었다. 그날 하나님은 물을 한곳으로 모아 물이 드러나게 한 다음, 물에 풀이 자라나게 하였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도 자라게 하였으며, 그것들을 각기 종류대로 분류하고 열매마다 씨를 품게 하였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져 계속해서 이 새로운 세상에 나타났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은 그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그림의 내용을 말씀으로 표현할 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그의 권병을 어떻게 행하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단계씩 이루어졌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병으로 말미암아 한 단계씩 변화되었다. 그 모든 변화와 발전은 창조주의 권병을 나타내고, 또한 창조주 생명력의 비범함과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단순한 구상도, 공허한 그림도 아니며, 생명력과 엄청난 능력을 지닌 권병이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고, 소멸하게 하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은 다 그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며, 동시에 그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물이 아직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이미 완전한 구상과 아주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져 있었다. 비록 셋째 날 땅에 각종 식물들이 자라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발걸음을 멈출 이유가 없었다. 그는 계속 말씀으로 자신이 창조하고자 하는 모든 종류의 새로운 사물을 만들었다. 그는 말씀하고 명령하고 그의 권병을 행하고 그의 능력을

보이고자 하였으며, 자신이 만들고자 한 만물과 인류를 위해 구상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있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86)

넷째 날, 하나님이 또 한 번 권병을 행하자 인류의 절기*와 날짜와 연도가 탄생되었다

창조주는 말씀으로 자신의 계획을 이루면서 그렇게 자신이 계획했던 처음 3 일을 보냈다. 그 3 일 동안, 그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기진맥진하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계획했던 첫 3 일을 멋지게 보냈고, 상전벽해처럼 변화무쌍하게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었다.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의 눈앞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만 봉인되어 있던 아름다운 그림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조금씩 펼쳐졌다. 모든 새로운 사물의 출현은 마치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과도 같았다. 창조주는 그의 생각 속에 있던 것이 막 현실이 된 그 광경을 흐뭇하게 감상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창조주의 그 새로운 페이지의 계획은 또 무엇이었을까? 그는 또 무슨 말씀을 하였을까? 그의 권병은 또 어떻게 행사되었을까? 아울러, 또 어떤 새로운 사물이 이 새로운 세상에 왔을까? 창조주의 인도에 따라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넷째 날에 머무는데, 이 하루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물론 창조주에게 있어 그것은 틀림없이 또 하나의 멋진 하루이자 현 인류에게도 역시 대단히 중요한 하루이며,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루였다. 그날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중요하며, 또 헤아릴 수 없는 그 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먼저 창조주의 말씀을 들어 보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취라 하시고”(창 1:14~15). 이것은 하나님이 물과 그 위의 식물을 만든 후에, 또 하나의 피조물에서 보여진 하나님 권병의 행사이다. 이런 일이 하나님께는 마찬가지로 아주 쉬운 일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면 책임지고, 책임지는 이상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이 하늘 궁창에 광명체가 있으라고 명령하니, 그 광명체는 하늘에서 빛을 발해 땅을 비추었을 뿐만 아니라 낮과 밤, 절기와 날짜와 연도를 구분하는 기호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지정 방식대로 이루어졌다.

‘하늘 궁창의 광명체’는 상공에서 빛을 발하는 물체로서, 그것은 하늘도 비추고 땅과 바다도 비춘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한 리듬과 빈도로 회전하며, 땅을 비추어 서로 다른 시간대가 형성되게 한다. 이와 같이, 지구 동서쪽의 낮과 밤은 이 광명체의 회전 주기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낮과 밤에 대한 표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서로 다른 회전 주기로 인류의 절기와 각종 날짜에 대한 표가 되기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명한 춘하추동의 사계절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인류에게 절기와 날짜와 연도를 나타내는 규칙적이고 정확한 기호가 된다. 인류는 경작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만든 광명체가 구분해 주는 절기, 날짜, 연도를 알아보고 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실 인류가 오늘날 알고 있는 절기, 날짜, 연도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넷째 날부터 있었고, 인류가 경험하는 춘하추동의 교체 주기 역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넷째 날에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이 만든 광명체로 인해 사람들은 낮과 밤을 규칙적이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구분하고 날짜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고, 절기와 연도를 아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달이 둥글어지는 날, 즉 달이 차서 한 달이 되는 날에 사람들은 광명체가 비추는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알게 되고, 달이 이지러지는 날, 즉 한 달의 절반이 되는 날이면 사람들은 새로운 절기의 시작을 알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며칠이 하나의 절기를 이루고, 몇 개의 절기가 하나의 계절을 이루며, 몇 개의 계절이 한 해를 이루는지 매우 규칙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인류는 광명체의 운행으로 표시되는 절기, 날짜, 연도를 매우 쉽게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인류와 만물은 자연스럽게 광명체의 운행으로 만들어지는 낮과 밤의 교체, 사계절이 바뀌는 규칙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 이 역시도 창조주가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든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창조주가 그 일을 통해 이룬 목표와 의의도 그의 권병과 능력을 떠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든 광명체와 그 광명체들이 장차 인류에게 가져다줄 가치 역시 창조주가 행한 권병의 또 하나의 걸작인 것이다.

인류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신세계에서, 창조주는 이미 자신이 곧 만들 새 생명을 위해 ‘저녁과 아침’, ‘공기’, ‘땅과 바다’, ‘풀과 채소, 그리고 각종 나무’, ‘광명체와 절기, 날짜, 연도’를 예비하였다. 창조주의 권병과 능력은 그가 창조한 모든 새로운 사물 가운데서 발현되었고, 그의 말씀과 사실은 오차도 간격도 전혀 없이 병행된다. 그 모든 새로운 사물의 출현과 탄생은 다 창조주의 권병과 능력을 증명하고 있다. 즉, 말씀하면 반드시 책임지고, 책임지는 이상 반드시 이루며,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영원까지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바뀐 적이 없으며,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지금 다시 성경의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매우 새롭게 느껴지지 않느냐? 너희는 새로운 내용을 보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창조주의 행사가 너희의 마음을 움직여 그의 권병과 능력을 알도록 인도하고 또한 너희에게 창조주를 알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이며, 그의 행사와 권병이 이런 말씀과 생명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사람들은 창조주의 권병이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창조주의 지고지상함을 보게 되었으며, 창조주의 권병과 능력의 뛰어남을 보게 되었다.

창조주는 권병과 능력으로 하나 또 하나의 기적을 창조하고 있고, 사람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 권병으로 행한 창조주의 하나하나의 놀라운 행사를

주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비범한 능력은 인류에게 계속 놀라움과 기쁨을 선사하여 사람들이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를 정도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묘함에 감탄하고, 갈채를 보내게 만들었다. 더욱이 사람들을 감동시켜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움의 정이 생기게 했다. 창조주의 권병과 행사는 사람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고,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였으며, 더욱이 사람의 마음을 흡족게 하였다. 그의 모든 생각, 모든 음성, 발현된 그의 모든 권병은 다 만물 가운데의 걸작으로서, 창조된 인류가 가장 깊이 알고 인식할 가치가 있는 놀라운 위업인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87)

다섯째 날, 다양한 형태의 생명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창조주의 권병을 보여 주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20~21).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날 하나님은 각종 수중 생물들을 만들고, 땅 위에는 각종 새들을 만들었다. 즉, 어류와 날짐승들을 만들고, 아울러 하나님이 그들을 각기 종류대로 되게 하니, 땅 위와 하늘과 물속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풍요로워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자, 순식간에 형태가 각기 다른 살아 숨 쉬는 생명들이 창조주의 말씀 속에서 생생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짹짹 뛰면서 기쁨에 차 환호하며 이 세상에 왔다.... 물속에서 각종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각양각색의 패류들이 갯벌에서 자라며, 비늘 달린 생물, 갑각류, 그리고 각종 연체 생물들이 물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하듯 자라났다. 그들은 크고 작고 길고 짧은 것들로 어우러져 크기도 다양했다. 또한 각종 해조류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앞다투어 자라났으며, 수중 생물들의 움직임에 따라 하늘거리며 몸을 흔들었다. 그들은 마치 그 고요한 물에 다그치듯 말하는 것 같았다. “힘차게 흘러라! 네 친구들과 함께. 이제 너는 외롭지 않아!” 하나님이 만든 수중 생물들이 물속에 나타난 그 순간부터, 그 살아 숨 쉬는 생명들은 오랜 세월 침묵하던 바다에 생기를 불어넣고 신기원도 열어 주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서로 의지하고 함께하면서 서로를 구분 짓지 않았다. 물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위해 존재하며, 자신이 품고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하고, 그 각각의 생명들 또한 물이 공급해주는 자양분으로 말미암아 물을 위해 존재한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각자의 생명을 바치며,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창조주의 창조의 오묘함과 위대함을 증거하고, 창조주의 권병에 깃든 초월할 수 없는 능력을 증거하고 있다....

바다가 더 이상 고요하지 않게 되었고, 공기 중에도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다. 크고 작은 새들이 땅에서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그들이 수중 생물과 다른 점은 깃털이 가득 나 있고, 두 날개가 있으며, 자세가 우아하고 몸놀림이 가볍다는 것이다. 새들은 두 날개를 펴덕이며 의기양양하게 창조주가 자신들에게 부여한 화려한 겉모습, 특별한 능력과 재주를 한껏 과시하고 있다. 그들은 자유롭고 능숙하게 하늘과 땅 사이를 날아다니고, 들판과 숲속을 누비고 있다.... 새들은 하늘의 총아이자 만물의 총아이다. 그들은 곧 하늘과 땅을 이어 주는 연결 고리가 되어 만물에게 소식을 전할 것이다.... 그들은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고 날아다니며 행하니 비어 있던 세상에 기쁨과 웃음소리를 채워 넣었고, 생기와 활력도 불어넣었다.... 그들은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마음의 소리로, 창조주가 자신들에게 부여해 준 생명을 찬미한다. 그들은 즐거운 춤사위로 창조주의 완벽하고 놀라운 창조를 사랑하며, 창조주로부터 받은 특별한 생명으로 창조주의 권병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들의 일생을 바친다....

수중 생물이든 공중을 날아다니는 생물이든, 다 창조주의 지시에 따라 구조가 다른 생명체로 살며, 또 창조주의 지시에 따라 무리 지어 그들 각자의 부류 속에서 살아간다. 그 규칙과 법칙은 그 어떤 피조물도 바꿀 수 없다. 그들은 감히 창조주가 정해 준 영역을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하며, 또한 그 범위를 벗어날 수도 없다. 그들은 창조주가 정해 준 숙명 속에서 대를 이어 번식하며, 창조주가 그들에게 정해 준 생명의 궤적과 법칙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또 창조주의 무언의 명령과 창조주가 그들에게 준 천상의 법칙과 계율을 오늘날까지 자발적으로 지키고 있다. 그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창조주와 대화하고, 창조주의 뜻을 깨닫고,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한다.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의 권병을 초월한 적이 없다. 창조주는 생각으로 그들을 주재하고 주관하고 있다. 말씀은 하지 않더라도, 창조주만이 갖고 있는 권병으로 이 인류와 다른, 말하지 못하는 만물을 소리 없이 주관하고 있다.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권병이 행해짐으로 사람은 창조주의 유일무이한 권병을 새롭게 알게 되고, 새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나는 새날에 행한 창조주의 권병으로 그의 유일무이함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하겠다.

계속해서 이 단락의 마지막 구절을 보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너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하나님이 보기에 그가 창조한 만물은 이미 그의 말씀으로 인해 세워지고 이루어졌으며, 모든 것이 점차 변화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각종 사물과 성취한 갖가지 일들에 대해 아주 흡족해하지 않았느냐? 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이다. 여기서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은 그가 계획한 일과 정해 놓은 일, 그리고 그의 목표를 성취할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다 마친 후 후회한 적이 있느냐? 그 답 역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이다. 즉, 하나님은 후회는커녕 아주 흡족해했다. 후회하지 않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또한 완벽하다는 것과, 그의 권병이 완벽한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근원임을 의미한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처럼 보기에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완벽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한 번으로써 영원히 이를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더 좋은 것만 있을 뿐 가장 좋은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일은 영원히 완벽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 자신이 행하고 이룬 모든 일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을 때,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정불변의 법칙이 생겼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을’ 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그 한 번으로써 영원히 형태가 고정되고 유형이 구분되며 위치와 용도와 기능이 정해졌다. 동시에, 만물 가운데 맡은 역할과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하는 기간 가야 할 여정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 정해져 영원히 바꿀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창조주가 만물에게 정해 준 ‘천상의 법칙’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워낙 단순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나 중시하지 않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내린 천상의 규칙, 천상의 법칙이다. 이 말씀에서 창조주의 권병이 또 한 번 더 실제적이고, 더 깊이 있게 구현되었다. 창조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얻고자 한 모든 것을 얻었고, 그가 이루고자 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만든 모든 것을 그의 수중에서 주관할 수 있고, 그의 권병 아래 질서 정연하게 주재할 수 있었다. 동시에 만물도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소멸되며, 그의 권병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한 법칙 안에서 생존한다.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법칙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 법칙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존재하고, 지속되고, 운행될 것이다. 창조주가 그 법칙을 폐기하는 그날까지 말이다! 창조주의 유일무이한 권병은 그가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그의 명대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에서 묻어날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주재하며 만물에게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에서도 구현되고 있다. 또한 창조주가 자신이 창조하려 계획한 만물이 완벽한 형식, 완벽한 생명 구조, 완벽한 역할을 가지고 그가 만든 세계에 한 번으로써 영원히 나타나 존재할 수 있게 하는 데서도 창조주의 유일무이한 권병은 구현되고 있다. 또 창조주의 모든 생각이 그 어떤 조건의 제한이나 시간, 공간, 지리적인 제한도 받지 않는 데서도 구현된다. 창조주의 유일무이한 신분은 그의 권병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권병은 영원히 그의 유일무이한 신분의 대언과 상징으로서, 영원히 그의 신분과 공존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88)

여섯째 날, 창조주가 말씀하니 그의 생각 속 각종 생물들이 속속 등장하였다

부지불식간에, 창조주가 만물을 창조하는 사역이 벌써 닷새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곧이어 그 여섯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날은 또 하나의 시작이자 또 하나의

평범하지 않은 날이었다. 새날이 왔을 때, 창조주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 또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생기고 만들어졌을까? 들으라. 이것은 창조주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24~25). 이들 생물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느냐?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말하자면, 이날 땅 위에는 각종 생물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모두 그 종류대로 분류되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앞의 다섯 날과 마찬가지로, 창조주가 여섯째 날에도 똑같은 어조로 그가 원하는 생물이 생겨나라 명하니 그들이 땅 위에 나타났으며, 각기 종류대로 되었다. 창조주의 권병이 행사되자, 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여섯째 날에 창조주가 만들고자 계획한 모든 생물들이 예정대로 생겨났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는 창조주의 이 말씀이 있자, 물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땅 위는 순식간에 각종 생물들이 내뿜는 기운으로 가득 찼다.... 초록 풀빛을 잔뜩 머금은 들판에는 튼실하게 살찐 소들이 꼬리를 흔들며 속속 등장하고, 양들이 메에 하는 울음소리와 함께 무리를 짓고, 말들이 울부짖으며 질주해 왔다.... 순식간에, 고요하던 광활한 들판이 시끌벅적해졌다.... 각종 가축들의 출현으로 조용하기만 하던 초원에 아름다운 볼거리가 더해졌고 더없는 활기가 넘쳤다.... 그들은 초원을 벗 삼고, 초원의 주인이 되어 서로 의지하며 살 것이고, 들판의 파수꾼이 될 것이다. 들판 역시 그들의 영원한 서식지가 되어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그들이 영원히 생존하게끔 자양분을 공급해 줄 것이다....

이들 가축들과 같은 날에 태어난 각종 곤충들도 창조주의 말씀에 따라 잇따라 나타났다. 비록 그들이 피조물 중 가장 작은 생명체일지라도 그들의 생명력 역시 창조주의 오묘한 창조에서 온 것이다. 그들은 결코 늦게 온 것이 아니다.... 작은 날개를 파닥거리는 것도 있고, 천천히 기어 다니는 것도 있으며, 또 어떤 것은 폴짝폴짝 뛰어다니기도 한다. 비틀거리며 걷는 것도 있고, 힘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재빠르게 뒷걸음질 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옆으로 걷고, 어떤 것은 위로 뛰어오른다.... 그들은 각자 바쁘게 자신의 집을 찾고 있는 중이다. 어떤 것은 풀숲에 들어가고, 어떤 것은 땅에 굴을 파느라 분주하고, 어떤 것은 큰 나무에 날아올라 숲속에 몸을 감춘다.... 몸집은 작아도 그들 모두 배고픔을 참지 못하니, 각자 집을 마련하고는 배를 채울 먹이를 급하게 찾아 나선다. 어떤 것은 여린 풀잎에 기어 올라 먹고, 어떤 것은 흙을 물어 한 입씩 삼키는데,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정말 즐거워한다(흙은 오히려 그들의 맛있는 먹이가 되었음). 어떤 것은 숲속에 숨어서도 결코 쉬지 않는데, 나무 위 진초록 잎사귀의 진액은 그들 입맛에 맞는 아주 좋은 음식이 되었다.... 배를 실컷 채운 후에도 그들의 활동은 계속된다. 그들은 작지만 에너지도 활력도 아주 넘쳐 난다. 그러므로 그들은 만물 가운데 가장 많이 활동하고

가장 부지런한 피조물이다. 그들은 게으름 피우거나 편안함을 탐하는 일이 없다. 그들은 배를 채운 후에도 여전히 앞으로 살날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그들의 내일과 생존을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다.... 그들은 다양한 선율과 다채로운 박자의 노래들을 조용히 흥얼거리며 스스로에게 힘찬 기운을 북돋아 준다. 또한 온 풀숲, 숲속, 모든 토양에도 즐거움을 선사하며, 언제나 특별한 하루, 남다른 한 해를 만들어 준다.... 그들은 각자의 언어와 각자의 방식으로 땅 위의 각종 생물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또한 각자 특별한 생존의 궤적으로 다른 만물에게 이정표가 되어 주며 족적을 남긴다.... 그들은 흙과 풀과 숲과 매우 친밀하여 이들에게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기도 하고, 창조주가 각각의 생물에게 한 당부와 안부를 전해 주기도 한다....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만물을 두루 살피고 있던 그 시각, 그의 두 눈은 숲에, 큰 산 사이에 머물렀으나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말씀이 있고 난 후, 무성한 숲속에, 그리고 산속에는 이전의 피조물과는 다른 부류의 피조물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한 ‘짐승’이다. 그들은 예사롭지 않은 얼굴을 하고서 머리와 꼬리를 흔들며 어슬렁어슬렁 걸어온다. 보라. 털이 난 것이 있는가 하면 딱딱한 껍질이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이를 드러내고 어떤 것은 입을 벌리고 있다. 또 목이 긴 것이 있는가 하면 꼬리가 짧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두 눈에 살기를 띠고 있고, 어떤 것은 두려워하는 눈빛을 띠고 있다. 몸을 굽히고 풀을 뜯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입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한다. 두 발로 뛰어다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네 발로 움직이는 것이 있고, 또 나무에 기어올라가 멀리 바라보는 것도 있다. 어떤 것은 숲속에 숨어 기다리고 있고, 어떤 것은 설만한 동굴을 찾아가 하면 어떤 것은 또 평원을 내달리며 장난치고, 어떤 것은 수풀을 헤치며 다닌다. 포효하는 것도, 으르렁대는 것도 있고, 미친 듯이 짖어 대는 것도, 울부짖는 것도 있다. 그들이 내는 소리는 높은 것도, 나지막한 것도 있고, 우렁찬 것도, 맑고 청아한 것도 있다. 어떤 것은 무섭게 생겼고, 어떤 것은 예쁘장하고, 어떤 것은 역겹게 생겼는가 하면 어떤 것은 아름다워 호감 가게 생겼고, 어떤 것은 그 생김새가 공포감을 주고, 어떤 것은 귀여움이 철철 넘친다. 그들이 하나하나 속속 걸어 나온다. 보라. 그들 모두 의기양양하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며, 누구를 상대하려 하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눈길 한번 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각자 창조주가 자신들에게 부여한 특별한 생명을 받아, 거친 야수성과 난폭성을 지니고 숲과 산속에 나타났다. 그들이 그렇게 ‘안하무인’ 격으로 기세가 등등해도 그들이 산과 숲의 진정한 주인인 것을 어찌겠느냐? 창조주가 그들에게 나타나라 명령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숲과 산을 ‘강점’했다. 창조주가 이미 그들의 경계를 정하고 그들의 생존 범위를 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산과 숲의 진정한 제왕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것처럼 야수성을 지니고 ‘기고만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야수’로 불리는 까닭은, 만물 가운데 그들만이 진정으로 야수성과 난폭성을 지니고 있는 길들이기 어려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길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육될 수 없고, 인류와 화목하게 살 수 없으며, 인류를 위해 일할 수 없다. 그들이 사육될 수 없고 인류를 위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인류를 멀리해야 하고, 인류도 그들을 가까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이 인류를 멀리하고 인류가 그들과 가까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창조주가 부여한 책임, 즉 산과 숲을 지키는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야수성으로 산과 숲을 지키며, 야수성으로 번식을 위한 최적의 보장을 받게 된다. 아울러, 그들의 야수성은 또 만물의 균형을 보장하고 유지하게 만들 것이다. 그들의 출현은 산과 숲에 의지처를 제공했으며, 적적하고 쓸쓸하던 산과 숲에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하였다. 그때부터 산과 숲은 그들의 영원한 서식지가 되었고, 그들은 영원히 자신들의 집을 잃지 않게 되었다. 산과 숲은 그들을 위해 생기고 존재하며, 그들은 장차 산과 숲을 지키기 위해 맡은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창조주가 자신들에게 당부한 것, 그들의 영토를 지키고 그들의 야수성을 유지함으로 창조주가 정한 만물의 균형을 유지하고, 창조주의 권병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89)

창조주 권병 아래의 만물은 다 완전무결하다

새와 어류, 나무와 화초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 그리고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짐짐승, 곤충, 들짐승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만든 만물은 하나님이 보기에 다 좋았던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이 보기에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였다. 창조주는 그의 계획에 따라 하고자 한 사역을 순서대로 하나씩 이루었다. 그가 창조하고자 한 것들이 한 가지씩 나타났고, 나타난 것마다 모두 창조주 권병의 구현이자 그의 권병이 가져온 결정체였다. 이 결정체는 모든 피조물들로 창조주의 은혜와 공급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가 나타남으로 이 세계는 점차 하나님이 만든 만물로 풍요로워졌다. 혼돈하고 캄캄했던 세계가 맑고 깨끗하게 변화되었고, 적막하던 세계가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세계로 변화되었다. 창조된 만물은 큰 것에서 작은 것까지, 작은 것에서 미세한 것까지, 창조주의 권병과 능력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또한 모든 피조물은 그것만이 갖는 정해진 존재의 필요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 형식이나 구조가 어떻게 다르든지 간에, 창조주의 창조에서 온 것이면, 그것은 모두 창조주의 권병 아래에 생존하게 된다. 간혹 사람은 못생긴 곤충을 보면 “왜 이리도 못생겼어? 하나님이 절대 이렇게 못생긴 것을 만드셨을 리 없으니 이건 절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야.”라고 한다. 그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관점이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 곤충은 유난히 못생기긴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 분명히 이것만의 특별한 쓰임새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그가 만들려는 모든 생물들이 다양한 생김새를 가지고 각양각색의 기능과 용도가 있도록 다 생각해 두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든 만물은 천편일률적이지 않으며, 외형부터 내면의 구조까지, 생활 습관부터 각자 차지하고 있는 위치까지 다 다르다. 소는 소의

생김새가 있고, 나귀는 나귀의 생김새가 있으며, 사슴은 사슴의 생김새가 있고, 코끼리는 코끼리의 생김새가 있다. 누가 제일 예쁘고 누가 제일 못생겼다고 하겠느냐? 누가 가장 쓸모가 있고, 누가 가장 불필요한 존재라고 하겠느냐? 어떤 이는 코끼리의 모습을 좋아하지만 코끼리를 이용해 밭을 가는 자는 없다. 어떤 사람은 만물 가운데 가장 위엄 있게 생겼으며 사자, 호랑이의 모습을 좋아한다. 하지만 그 사자와 호랑이를 애완동물로 키울 수 있느냐? 요컨대, 만물을 대함에 있어, 사람은 창조주의 권병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즉, 창조주가 만물에게 정해 준 규칙에 순응하는 이런 태도야말로 가장 현명한 것이다. 또한, 창조주의 초심을 찾고 순종하는 태도야말로 창조주의 권병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에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때에 이르러, 창조주 권병 아래의 만물은 창조주의 주재에 새 악장을 연주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창조주의 새날의 사역에 눈부신 서막을 열 것이며, 창조주도 그 순간 자신의 경영 사역에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만물은 창조주가 정한 ‘봄에 싹트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하는’ 이 법칙과 창조주의 경륜에 따라 서로 함께 호응할 것이다. 그들은 각자 새로운 날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생명 여정을 맞이할 것이고, 또한 창조주 권병의 주재 아래에서의 하루하루를 맞이하기 위해 쉼 없이 성장하고 번성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90)

피조물과 비피조물 모두 창조주의 신분을 대체할 수 없다

만물을 창조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방식으로 만유를 창조했든, 그가 어떤 이유로 만유를 창조했든 간에, 어쨌든 만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고, 세워지고,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유일무이한 권병이다. 인류가 이 세상에 아직 출현하지 않았을 때, 창조주는 그의 능력과 권병으로 인류를 위해 만유를 창조했고, 그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인류를 위해 적합한 생존 환경을 예비했다. 그가 행한 이 모든 일은 다 장래에 자신의 생기를 얻게 될 인류를 위해 예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류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권병은 인류와는 다른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나타났는데, 크게는 천체, 광명체, 바다, 육지가 있고, 작게는 날짐승과 길짐승 및 각종 곤충과 미생물이 있다. 또한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각종 균류까지 그 어느 것도 창조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 어느 것 하나 창조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번식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또 어느 것 하나 창조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의 주재 아래 살지 않는 것이 없다. 그들은 비록 창조주의 생기를 얻지 못했지만, 다양한 형식과 구조로 창조주가 그들에게 부여한 생명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은 창조주가 인류에게 부여한 언어 능력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 각자는 창조주에게서 인류의 언어와는 또 다른, 생명의 표현 방식을 얻었다. 창조주의 권병은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사물에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어 그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살아 있는 존재에게 번식 능력을 주어 영원히 자취를 감추지 않고 창조주가 부여해 준 생존 법칙과 규칙을 대를 이어 전하게 할 수 있다. 창조주가 권병을 행하는 방식은 거시적, 미시적인 것에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형식에도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하늘의 운행을 주관하고 만물의 존망을 주재하며, 만물을 움직여 자신을 위해 봉사하게 할 수 있다. 그는 산천과 호수의 운행을 주관하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도 주재하며, 만물이 필요로 하는 바를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이외의 만물 가운데서 나타나는 창조주의 유일무이한 권병이다. 이는 한 번의 생이나 하나의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멈추지 않고 쉬지 않는다. 또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를 바꾸거나 파괴할 수 없고, 더하거나 제할 수 없다. 창조주의 신분은 아무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의 권병을 대체할 수 없고, 그 어떤 비피조물도 그 권병에 이를 수 없다. 예컨대,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 못했고, 창조주의 권병은 더더욱 갖지 못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병이 없는 까닭은 그들이 창조주의 본질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피조물 가운데, 예컨대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신해 어떤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대표할 수는 없다. 인류에게는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권병은 갖지 못했다. 하나님처럼 만유를 창조하고 주관하고 주재하는 권병은 갖지 못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일무이함은 그 어떤 비피조물도 대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 역시 그 어떤 비피조물도 대체할 수 없다. 성경에서 만물을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느냐? 하나님은 왜 그의 사자와 천사를 보내 만물을 창조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병을 행할 능력이 없다.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창조주의 주재 아래 있고, 창조주의 권병 아래 있으며, 창조주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자 주재자이다. 신분의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함, 능력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그들 가운데 그 어떤 자도 창조주의 권병을 초월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창조주의 신분을 대체할 수 없으며,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없고, 영원히 창조주가 될 수도 없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며 사실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91)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과 언약을 세우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창 9:11~13)

만물을 창조한 후, 창조주의 권병이 ‘무지개 언약’으로 또 한 번 입증되고, 나타나다

창조주의 권병은 언제나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고 행사된다. 그는 만물의 운명을 주재할 뿐 아니라, 그가 친히 빚은 인류, 즉 다른 구조와 형식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특별한 피조물 역시 주재하고 있다. 만물을 창조한 후에도 창조주는 그의 권병과 능력을 나타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인류가 그의 손에 탄생된 순간부터 자신이 만물과 전 인류의 운명을 주재하는 권병을 본격적으로 행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인류를 경영하고 주재하기로 하였고, 인류를 구원하고 진정으로 인류를 얻고자 하였는데, 바로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류를 얻고자 한 것이다. 그는 그러한 인류가 그의 권병 아래 살아가며, 그의 권병을 알고 그의 권병에 순종하도록 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말씀으로 그의 권병을 나타내고, 그의 권병으로 자신의 말씀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권병은 어디서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유일무이함과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권병을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친숙한 일부 특별 사례들만을 뽑아 보았다.

창세기 9 장 11 절에서 13 절 말씀은 위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기록과 관련된 말씀과는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 유사한 부분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이 하고자 한 일을 행한 것이다. 다른 부분이라면 이 단락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라는 점이다. 이 대화는 사람과 언약을 세우고 사람에게 언약에 대해 알려 주는 내용이다. 이때 하나님 권병의 행사는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이루어졌다. 즉, 인류가 창조되기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일종의 지시이자 명령이었으며, 그가 만들고자 하는 피조물을 향한 선포였다.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대상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그의 말씀은 사람과의 대화이자, 인류에게 하는 당부이자 훈계이고, 그가 만물에게 하달하는 권병을 지닌 명령이기도 했다.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여기에는 홍수로 세상을 멸한 후,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 주고, 또한 이를 위해 하나님이 증거를 세운다고 하였다. 그 증거는 무엇이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것은 창조주가 인류에게 한 원래의 말씀이다. 그가 말씀함과 동시에 무지개가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너희 모두 무지개를 본 적이 있을 텐데, 무지개를 보았을 때 그 무지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았느냐? 과학으로는 이 사실을 논증할 방법이 없다. 과학으로는 그 근원을 찾지 못했으며, 행방도 찾지 못했다. 이는 창조주가 사람과 세운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는 필요 없다. 이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말씀이 있고 난 후 권병이 지속되는 결과인 것이다. 창조주는 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사람과 세운 언약과 약속을 지켜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무지개를 출현시켜 하나님이 세운 언약의 증거로 삼은 것은 창조주에게나

창조된 인류에게 있어,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천상의 규율이자 법칙인 것이다. 변함없이 지속되는 이 법칙은 창조주가 만물을 창조하고 난 후 그의 권병이 또 한 번 진정으로 구현된 것이며, 창조주의 권병과 능력은 무한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지개’를 그 언약의 증거로 삼은 것은 창조주 권병의 지속이자 연장선인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으로 행한 일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과 세운 언약의 증거이다. 이는 그가 무엇을 이루고자 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고 성취하겠다고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람에게 알려 준다. 하나님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이런 말씀이 있고 난 몇천 년 후인 오늘날에도 인류는 하나님이 말씀한 무지개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 이 일은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변함이 없다. 그 누구도 그 무지개를 없애지게 할 수 없고, 그것의 규칙을 바꿀 수도 없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병이다. “하나님은 말씀하면 반드시 책임지고, 책임지는 이상 반드시 이루며,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영원까지 지속된다.” 이 말은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구현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의 확실한 증거이자 특징이다. 이러한 증거와 특징은 그 어떤 피조물도 갖추지 못한 것이고, 그 어떤 피조물에게서도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어떤 비피조물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와 특징은 유일무이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창조주 고유의 신분과 본질을 피조물과 구분시켜 준다. 아울러, 그것은 하나님 자신 이외의 모든 피조물과 비피조물이 영원히 초월할 수 없는 증거이자 특징인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사람과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그는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 줌과 동시에 그의 뜻도 알려 주었다. 이를 위해 그는 고유한 방식으로, 특별한 증거를 사용해서 사람과 언약을 세우고, 그 증거로 그가 사람과 세운 언약에 확신을 준 것이다. 이 ‘언약’을 세웠다는 건 큰 사건이 아니냐? 얼마나 큰 사건일까? ‘언약’의 특별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아니며, 단체와 단체 간의 언약도, 한 국가와 또 다른 국가 간에 세운 언약도 아니다. 이건 창조주가 인류 전체와 세운 언약이다. 이 ‘언약’의 유효 기간은 창조주가 만물을 폐기하는 그날까지이며, 이 ‘언약’의 시행자는 창조주이고, 그것의 수호자 역시 창조주이다. 요컨대, 인류와 세운 ‘무지개 언약’의 모든 것은 창조주와 사람의 대화에 따라 응하고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권병에 순종하고, 따르고, 신뢰하며, 그 권병을 깨닫고, 묵도하고, 칭송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유일무이한 하나님 이외에 이러한 언약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매번 나타나는 무지개는 인류에게 창조주가 사람과 세운 ‘언약’을 알려 주고 상기시켜 준다. 창조주가 인류와 세운 언약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것이 인류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무지개’와 ‘언약’ 자체가 아니라, 창조주의 영원불변의 권병인 것이다. 무지개의 출현이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은 창조주가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놀랍고도 오묘한 행사이며,

창조주의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변치 않는 권병의 생생한 구현이다. 이런 것들은 창조주의 또 다른 면에서 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권병의 구현이 아니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92)

하나님의 축복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버가 될찌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좇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좇아 나리라”(창 17:4~6)

“아브라함은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땅의 만국은 필히 그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로 그의 자식과 권속들에게 나 여호와와 도를 지킬 것을 명함으로 의와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로써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이라”(창 18:18~19, 중국어성경 직역)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창 22:16~18)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 하게 하시니 그가 양 일만 사천과 약대 육천과 소 일천 겨리와 암나귀 일천을 두었고”(욥 42:12)

창조주만의 말씀 방식과 특징은 창조주의 유일무이한 신분과 권병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얻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고, 그의 방식대로 사람에게 복을 내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얼마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는 사람의 생각과 행위에 따라 분배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을 설명할까? 사람에게 그 안에서 무엇을 보게 할까? 여기서 우리는 잠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는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접어 두자. 하나님의 권병을 알아 가는 것을 목표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살펴보자. 즉, 하나님의 권병을 알아 가는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자.

이상 네 단락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준 축복에 관한 기록이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욥과 같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대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내리는 이유와 그 복의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어조, 말씀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서 있는 위치와 높이를 통해, 사람은 복을 내리는 자와 받는 자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어조와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는 창조주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만의 것이다. 그는 권병과 위력은 물론 창조주의 존귀함과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의 위엄을 지니고 있다.

먼저 창세기 17 장 4~6 절 말씀을 보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버가 될찌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좇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좇아 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축복이다. 하나님이 그를 열국의 아버가 되게 하고, 그의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였다. 또한 나라들이 그를 좇아 일어나고 열왕이 그를 좇아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였다. 너는 이 몇 마디 말씀에서 하나님의 권병을 보지 못했느냐? 너는 하나님의 권병을 어떻게 보았느냐? 너는 하나님 권병의 어떠한 본질을 보았느냐? 이 구절들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권병과 신분이 하나님의 어휘 사용에서 확연히 나타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 될찌라 ... 내가 너로 ... 하리니” 이 중에서 ‘너는 ... 될찌라’, ‘내가 ... 하리니’ 등의 표현에서 하나님 신분과 권병이 나타나는 확고한 어휘 사용을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창조주의 신실함이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모두 창조주의 신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전용 어휘이자 관용어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축복하기를, 후손이 번성하고 나라들이 그를 좇아 일어나고 열왕이 그를 좇아 일어난다고 했다면, 이는 확실히 하나의 바람일 뿐이지 약속이나 축복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감히 “나는 반드시 너로 하여금 어떠한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어떠한게 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 사람은 자신에게 이러한 결정권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설사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빈말일 뿐이고 헛소리일 뿐이며, 사람의 욕망과 야심이 그렇게 만든 것일 뿐이다. 사람의 욕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감히 이렇게 큰소리칠 수 있겠느냐? 사람은 누구나 좋은 소망을 갖기 마련이어서, 후손들이 모두 출세하고 남보다 뛰어나기를 바란다. ‘만일 황제가 되는 후손이 있을 수 있다면, 그건 크나큰 행운이야! 성장(省長)만 될 수 있어도 괜찮아. 어쨌든 높은 사람이면 돼!’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바람이다. 하지만 사람은 그저 후손을 위해 축원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다른 어떤 누군가의 약속을 이루어 줄 수는 없다. 인간에게 거기까지 가능하게 하는 권력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도 잘 안다. 자신의 일도 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운명을 주관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는 그런 권병이 있어서 사람과 약속한 것, 사람에게 축복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며, 하나님께 있어 사람의 후손을 번성케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그가 누군가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는 것은 단 한 마디로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기에 그는 한 번도 이

때문에 수고한 적이 없다. 또한 이 때문에 머리를 쓰거나 고민해 본 적도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권병이다.

창세기 18 장 18 절 “아브라함은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땅의 만국은 필히 그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니라(중국어성경 직역)”라는 말씀을 보고 난 후, 너희는 하나님의 권병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창조주의 비범함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창조주의 지고지상함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은 아주 확실하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 필승을 자신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그런 확신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이 지닌 권병을 입증하는 것이자 그의 말씀이 이뤄지도록 하는 일종의 명령이다. 여기에 너희가 주목해야 할 어휘가 두 가지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땅의 만국은 필히 그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니라(중국어성경 직역)”라고 한 말씀에 모호한 부분이 있느냐? 걱정의 요소가 있느냐? 두려움의 요소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인류에게서 자주 드러나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요소이다. 하나님 말씀 속의 ‘반드시’와 ‘필히’라는 이 두 어휘 때문이라도, 사람의 그런 요소는 창조주와는 조금이라도 연관된 적이 없다. 그 누구도 타인을 축복할 때 이런 어휘를 감히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그 누구도 감히 단정적으로 타인에게 강대한 나라를 주겠다는 복을 내리지 못하며, 천하 만민이 필히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란 약속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이 확실할수록 그 말씀은 무엇을 증명할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병이 이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란 걸 증명한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선 매우 확실해 조금도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말씀에 따라 이 모든 일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그 어떤 세력도 이 일의 이룩을 바꾸거나 저지하거나 파괴하거나 교란시킬 수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이룩과 성취를 멈추게 하거나 영향을 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가 하는 말씀의 위력이며, 부인할 수 없는 창조주의 권병인 것이다! 네가 이 말씀을 다 읽었을 때, 마음속에 의혹이 일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위엄, 권병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위력과 권병, 그리고 일이 성취되리란 필연성은 그 어떤 피조물과 비피조물도 이를 수 없고 초월할 수 없는 것이다. 창조주만이 이러한 어조와 말투로 인류와 대화할 수 있다. 사실을 통해 그의 약속이 빈말이나 허풍이 아니며,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이 초월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권병의 발현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93)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버가 될찌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좇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좇아 나리라”(창 17:4~6)

“아브라함은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땅의 만국은 필히 그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로 그의 자식과 권속들에게 나 여호와와 의 도를 지킬 것을 명함으로 의와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로써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이라”(창 18:18~19, 중국어성경 직역)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창 22:16~18)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 하게 하시니 그가 양 일만 사천과 약대 육천과 소 일천 겨리와 암나귀 일천을 두었고”(욥 42:12)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보고 너는 하나님 말씀의 위력과 권병을 느꼈을 것이다. 만일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다면, 너는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느냐? 너무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가 허풍을 떤다고 느끼지 않겠느냐? 자신을 과시한다고 느끼지 않겠느냐?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권병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없다. 그가 이렇게 확신에 차 약속했다면, 그건 단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지껄인 것에 불과하다. 만일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건 교만하고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이며, 전형적인 천사장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틀림없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면, 네가 그 안에서 교만함 느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처럼 느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권병이며 사실이다. 그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기 전, 그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마음먹었다면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다. 그 약속은 이미 결정된 사실이자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점차 실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나님께 교만한 성품이 있음을 뜻하진 않는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있고,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병을 가지고 있고,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능력 범위 안의 일이기 때문이다.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이 나타나고 발현된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과 권병이 완벽하게 구현된 것이며, 창조주 신분에 가장 적합하고 합당한 증거인 것이다. 말씀을 하는 이러한 방식, 어조, 어휘는 바로 창조주 신분의 상징이며, 하나님 자신의 신분에 완전히 부합되는 표현이다. 여기에는 어떤 거짓도 불순함도 없으며, 온전히 창조주의 본질과 권병이 완벽히 나타나 있다. 하지만

피조물에게는 이러한 권병도 없고 이러한 본질은 물론 하나님이 부여한 능력도 없다. 만일 사람이 이런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건 의심할 여지 없이 패괴 성품의 분출이자, 꿈틀거리는 교만과 야심이며,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미혹하고 유인하는 전형적인 마귀와 사탄의 악독한 본심이 드러난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언어적 노출을 어떻게 보겠느냐?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과 자리를 다투고 하나님을 사칭하며,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어 한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어조를 흉내 내는 너의 속내는 사람들 마음속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원래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인류를 빼앗으려는 것이다. 이것은 영락없는 사탄이고, 천사장의 후예가 하는 행위이며, 하늘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너희 중에는 하나님을 모방하여 어떤 방식으로 말을 했던 자가 없느냐? 사람을 오도하고 미혹시킬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권병과 위력을 가지고 말하고 일하며, 자신의 본질과 신분은 남다르며, 심지어 어조가 하나님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했던 자가 없느냐? 너희는 이런 일들을 한 적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투를 모방해서 말하고, 소위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한다는 손짓을 하며, 하나님의 위력과 권병을 가진 척 가장한 적이 없느냐? 이런 건 너희들 대다수가 걸핏하면 저지르거나, 아니면 하려고 마음먹은 행위들이 아니냐? 이제 너희는 창조주의 권병을 진정으로 보고 느끼고 알게 되었는데, 과거 너희가 행하고 드러냈던 행동들을 돌이켜 보면 역겹지 않느냐? 너희의 비열하고 파렴치했던 모습을 알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류의 성품과 본질을 해부해 보면,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지옥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일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굴욕을 자초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는 이 성질의 심각성을 알고 있느냐?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자 하는 속내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 마음속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고,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신이 사람을 통제하고 차지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는 모두 이러한 욕망과 야심이 있다. 사람은 모두 이렇게 사탄의 패괴 본질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사탄의 본성 속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의 권병과 관련된 주제를 교제했는데, 너희에겐 아직도 하나님을 사칭하고 하나님을 모방하고 싶은 욕망과 야심이 있느냐? 아직도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느냐? 아직도 하나님이 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느냐? 하나님의 권병은 사람이 능히 모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는 사람이 사칭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어조를 흉내 낼 순 있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모방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사칭할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만물을 주재하고 주관하는 일은 영원히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보기에 너는 영원토록 아주 하찮은 피조물일 뿐이다. 네 능력과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고, 네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졌어도, 너의 모든 것은 창조주의 권세 아래 있다. 네가 몇 마디 모진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너에게 창조주의 본질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네가 창조주의 권병을 가졌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며, 외부로부터 더해진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본질이다. 그러므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영원히 변할 수 없다. 창조된 인류의 일원으로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본위를 지켜야 하며, 성실한 사람이 되어 분수에 맞게 창조주가 맡긴 사명을 지켜야 한다. 도가 넘치는 일을 해선 안 되고, 자신의 ‘능력 범위’ 밖의 일을 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이 증오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위인이나 초인, 고귀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되려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은 사람에게 있어선 안 되는 ‘소망’이다. 위인이나 초인이 되고자 하는 건 허무맹랑한 일이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건 더더욱 파렴치한 일이자 혐오감을 불러오는 일이며 버림받아 마땅한 일이다. 반대로 진정한 피조물이 되는 것이야말로 귀한 것이고, 피조물이 가장 지켜야 할 바이며,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표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94)

창조주의 권병은 시간, 공간, 지리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창세기 22 장 17 절에서 18 절을 보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차례 축복하며 그의 자손을 크게 성하게 하리라고 했다. 그 정도가 얼마나 된다고 했느냐? 성경 구절처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그저 형상적인 언어일 뿐이다. 하지만 이 형상적인 언어를 통해 하나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줄 후손이 한둘이 아니고 수천수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나라를 이룰 정도가 된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나라의 아버가 되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 정도까지 많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일이나, 하나님에게 달린 일이나? 자신의 후손이 얼마가 될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느냐?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느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후손이 몇 명일지조차도 사람은 결정할 수 없다. 누가 자신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하지만 아쉽게도 세상일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되든, 재능이 얼마나 뛰어나든 상관없이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예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대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네게 적게 주었는데 네가 너무 많이 받게 되는 법은 없다. 하나님이 네게 많이 준다면, 네가 많다고 탓해서도 안 된다. 그렇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주재 아래에 있으며,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네 씨로 크게 성하게 하리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다. 이 언약은 ‘무지개 언약’처럼 영원히 이뤄질 것이며,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기도 하다. 이 약속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식으로 보고 대하든 상관없다. 이 모든 것은 장차 하나님의 말씀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의지나 생각이 바뀔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며, 그 어떤 사람이나 일, 사물의 변화에 의해 변하는 것도 아니다. 만물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만물이 사라지는 그 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뤄지는 날이다. 그는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그는 창조주의 권병을 지녔으며, 창조주의 능력이 있고, 만유와 모든 생명을 주관한다. 그는 무에서 유를, 유에서 무를 가능케 하며, 모든 생과 사의 전환을 주관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자손을 번성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선 지극히 간단한 일이다. 사람이 듣기에는 천일야화나 동화 속 이야기 같은 일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이 하고자 결정한 일이나 사람에게 약속한 일은 천일야화나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목격한 사실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너희는 여기에 대한 체득이 있느냐? 아브라함의 후예가 많은지 사실이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많느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느냐? 각 나라, 각 지역, 세계 각지에 널리 퍼져 있지 않느냐? 이러한 사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냐? 하나님 말씀의 권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후, 몇백 년 혹은 몇천 년 동안 그 말씀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끊임없이 현실화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자 하나님 권병의 증거이다.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이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 일의 성취와 응답은 시간 차 없이 그 즉시 이루어졌다. 이 또한 다 하나님의 권병이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일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권병의 또 다른 면의 본질을 보고, 창조주의 권병이 이루어야 할 수 없다는 사실과, 그 권병의 더 실질적이고 훌륭한 면도 알 수 있게 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자마자 하나님의 권병은 그 사역을 주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점차 현실이 되기 시작하였다. 만물의 모든 것이 다 이로 인해 다양한 변화를 맞았다. 일례로, 봄이 오면 풀이 파릇파릇해지고 꽃이 피고 나무에 싹이 튼다.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하고 기러기들이 돌아오며, 논밭은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이에 발맞춰 만물도 다시 소생한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놀라운 행사이다.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이룰 때, 하늘과 땅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새로워지고 변화되는데, 그 어떤 것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 만물이 다 힘쓰며 움직이게 된다. 모든 피조물이 다 창조주의 권세 아래 지배되고 안배되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각자의 기능을 다한다. 창조주의 권병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너는 하나님의 권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권병에 정해진 범위가 있느냐? 시간적 제약이 있느냐? 하나님 권병의 높고 낮음과 길고 짧음을 논할 수 있느냐? 크고 작음과 강함과 약함을 논할 수 있느냐? 사람의 기준으로 헤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권병은 사라졌다 나타나고 있다가도 없는 것이 아니며, 아무도 그의 권병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내리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간에 그가 내린 복은 지속된다. 그 지속됨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권병을 증거하고, 창조주가 가진 영원불멸의 생명력이 수없이 재현되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 준다. 그의 권병은 나타날 때마다 그의 말씀을 완전하게 구현해 내어 만물과 인류에게 보여 준다. 그리고 그의 권병이 이룬 일은 하나같이 더없이 정교하고 아름다우며 완전무결하다. 그의 생각, 그의 말씀, 그의 권병과 그가 이룬 일은 전부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피조물에게 있어서 그 의의와 가치는 인류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한 후에는,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든, 무엇을 하든, 약속받기 전후로 그의 사정이 어떻든, 그의 생존 환경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든, 하나님은 모두 환히 알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하나님이 보기에 는 다 방금 일어난 일과 같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류에게 한 모든 약속을 추진하고 주관하고 실현시키는 능력과 권병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 약속이 무엇이든 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든 간에, 시간, 장소, 종족 등 그 약속의 실현이 관련된 범위가 얼마나 넓은 상관없이,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실현된다. 게다가 이는 하나님께 있어서 전혀 힘들지 않은 아주 간단한 일이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이 주관하는 범위는 우주 전체, 인류 전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빛만 관리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물을 만들었으니 물만 관리하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한다면 오해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몇백 년 후, 그 일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 그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여전히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고, 단 한 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그 기간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권병을 행하였는지, 만물을 어떻게 지배하고 안배했는지,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인류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병과 그의 행사에서 나타난 탁월한 면면들은 만물 가운데 전해지며 칭송되고 있고, 만물은 창조주의 놀라운 행사를 나타내며 전하고 있다. 창조주가 만물을 주재하는 갖가지 미담들은 만물을 통해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 만물을 주재하는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항상 존재함을 만물에게 보여 준다. 네가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어디에나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은 시간, 지리, 공간, 그리고 그 어떤 사람과 일, 사물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의 범위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며, 사람이 헤아릴 수 없고 상상하기 어려우며, 영원히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95)

추리하고 상상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느냐? 사람의 추리와 상상력으로 하나님 권병의 진정성과 확실성을 그려 낼 수 있느냐?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병을 알게 할 수 있느냐? 진정 하나님의 권병을 깨닫고 순종하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의 추리와 상상력은 사람 두뇌 작용의 산물일 뿐 하나님의 권병을 아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공상 과학 소설을 읽어 본 사람은 달이 어떤 모양인지 상상할 수 있고, 우주의 행성들이 어떠한지 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이 하나님의 권병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람의 상상은 그야말로 상상일 뿐이며, 사실이 어떤지, 다시 말해서 이 일련의 일들과 하나님의 권병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 설령 네가 달에 가 봤다 한들 어찌겠느냐? 하나님의 권병에 대해 여러 측면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의 범위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추리와 상상력으로는 하나님의 권병에 대해 알 수 없다면, 사람은 어찌해야 하겠느냐? 가장 현명한 선택은 추리와 상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권병을 알아 가는 데 있어, 절대 상상이나 추리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 하나님 자신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은 너의 상상력으로 인식 가능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상상력으로 알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야 하나님의 권병을 진정으로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과 교제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을 통해, 점차적으로 체득하고 실증해 가며 깨달으면서, 한 걸음씩 깊이 있게 알아 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병을 알아 가는 유일한 길이며, 이외에 다른 지름길은 없다. 너희에게 상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앉아서 기다리라는 말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상상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논리로 추리하지 말고, 지식으로 분석하지 말며, 과학을 근거로 삼지 말라는 뜻이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통해, 삶 속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일을 통해, 네가 믿는 하나님이 권병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증명하고 실증하라는 뜻이다. 또한 그가 너의 운명을 주재하고 있으며, 그의 능력은 항상 그가 진정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음을 실증하라는 뜻이다. 이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혹자는 더 간단한 방법으로 이 목표에 이르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런 간단한 방법을 너희는 생각해 냈느냐? 내가 말하지만 다른 길은 없다! 그러니 너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선포한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을 통해, 성실하고 착실하게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인식하고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 가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하나님의 모든 것은 공허하지 않고 실제적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96)

창조주가 만물 생령을 주관하고 주재한다는 사실은 창조주의 권병이 진실로 존재함을 말해 주고 있다

욥기에 욥에 대한 여호와와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 하게 하시니 그가 양 일만 사천과 약대 육천과 소 일천 겨리와 암나귀 일천을 두었고”(욥 42:12). 인류에게 있어 하나님이 욥에게 베풀어 준 것들은 무엇이나? 사람의 재산이 아니냐? 이런 재산을 소유한 욥은 그 시대에 아주 부유하지 않았겠느냐? 욥은 그 재산들을 어떻게 소유하게 된 것이냐? 그의 부는 어떻게 생긴 것이냐? 그런 재산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욥이 그 재산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여기서 우리가 언급할 주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축복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의 축복이란 모든 사람이 꿈에 그리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일생 동안 재산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람이 주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재산을 베풀어 주고 그 어떤 축복이라도 줄 수 있는 권병과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에는 원칙이 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아브라함과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은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축복은 다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축복하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준 이 일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후손, 한 종족을 강성해지게 하였다. 이 일에서 하나님이 권병으로 주재한 것은 만물 생령 중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인류이다. 하나님 권병의 주재 아래 이 인류는 하나님이 정한 범위와 속도에 따라 종족을 번식하며 생존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이들 족속의 생존 능력, 확장 속도, 수명은 다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한 이 모든 일의 원칙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즉,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권병의 보호 아래 막힘없이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에 대해 말하자면, 이는 천지개벽하는 일이 일어나도, 어떤 시대에서도, 인류가 어떤 재난을 겪어도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죽음이라는 재앙의 위협에서 안전할 것이며, 그 족속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다. 하지만 욥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를 매우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욥에게 준 것 가운데 대부분이 숨 쉴 수 있는 여러 생명체들이었다. 그 생명체의 수, 번식 속도, 생존율, 살진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들도 다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다. 이 생명체들은 언어 능력이 없지만 마찬가지로 창조주의 지배 아래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배하는 원칙은 욥에게 약속한 축복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욥에게 준 축복에 대해 말하자면, 약속의

내용은 다소 차이가 날지라도 만물 생령을 주재하는 창조주의 권병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브라함과 욥에 대한 서로 다른 약속과 축복 가운데 구현되었고, 또 한 번 인류에게 하나님의 권병은 사람의 상상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것임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세부적 내용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역을 체험하는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권병을 알 수 있음을 인류에게 다시 한번 알려 주고 있다.

만물을 주재하는 하나님의 권병에서 하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권병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니 궁창이 생겼고 물이 드러나라 하니 물이 드러났다’는 이런 말씀에서만 구현된 것이 아니다. 더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빛을 지속시키고, 궁창이 사라지지 않게 하며, 물을 영원히 물과 나뉘게 하느냐는 부분에서 구현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빛, 궁창, 물과 같은 피조물들을 주재하고 관리하느냐는 구체적인 내용에서 구현된다. 인류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에서 너희는 또 무엇을 보았느냐? 아브라함과 욥에게 복을 준 후에도 하나님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권병은 이제 막 행해지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이 한 모든 말씀을 현실로 이루고, 자신이 한 말씀의 모든 세부 사항을 실현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이후 세월 속에서도 그가 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을 계속하였다. 어쩌면 사람은 하나님께 권병이 있기 때문에 그는 말씀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만사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이런 상상은 황당한 면이 없지 않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과 언약을 세우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는 사실을 단편적으로만 보고, 하나님의 권병으로 주재하는 만물이 생존하는 여러 현상과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권병에 대한 너의 이해는 공허하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이런 상상을 품는 것에 대해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벌써 미궁에 빠져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상상 속 하나님은 명령만 내리는 기계일 뿐, 권병을 지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욥의 사례를 통해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의 실제적인 면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욥을 축복한 후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았고, 사자에게만 일을 시키고 자신은 결과만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마자 만물은 하나님 권병의 인도 아래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사역에 협력하여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일, 사물을 예비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권병은 온 땅에서 행해졌고, 아브라함과 욥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응답하기 위한 길을 열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각각의 절차와 모든 중요한 부분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계획하고 예비하였다. 그 기간 하나님이 움직인 것에는 하나님의 사자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즉, 하나님이 권병을 행하는 범위는 하나님의 사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만물도 움직여 하나님이 이루려는 사역에 협력하게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권병을 행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은 권병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셋째 하늘이나 어떤 고정된 자리에 계시면서 그 어떤 구체적 사역을 행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모든 사역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이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긴 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저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사실이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권병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권병은 진실하고 실제적인 것이지 절대 공허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의 진정성과 실제성이란 측면은 그가 만물을 창조하고 만유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가 인류를 인도하고 경영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구현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류를 주재하고 만물을 주재하는 각각의 방식, 각각의 측면, 각각의 세부 내용과 그가 이룬 모든 사역, 그리고 만물에 대한 그의 이해는 확실히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 준다. 그의 권병과 능력은 항상, 모든 일에서, 나타나고 구현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권병이 실제로 존재함을 말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시시각각 자신의 권병과 능력으로 지속적인 사역을 하며, 만물을 주관하고 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능력과 권병은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를 포함해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고, 욥에게는 또 어떤 축복을 주었는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다. 설사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이나 욥에게 직접 임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한 것일 뿐이며 모두 하나님의 권병 아래 있는 것이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재 아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성경 기록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임한 장면을 보았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무엇을 하였는지 보지 못했을지라도, 사실상 진정한 능력과 권병으로 행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설사 네가 천사나 사자에게 큰 능력이 있어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거나 하나님이 준 사명을 받고 일련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지라도,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일 뿐, 절대로 하나님의 권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고 주재하는 창조주의 권병을 가진 사람이나 사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창조주의 권병을 행하거나 나타낼 수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97)

창조주의 권병은 영원히 바뀌지 않고 거스를 수 없다

1.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유를 창조하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창 1:3~5)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창 1:6~7)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창 1:9~11)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취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창 1:14~15)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20~21)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24~25)

2.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과 언약을 세우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창 9:11~13)

3. 하나님의 축복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버가 될찌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좇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좇아 나리라”(창 17:4~6)

“아브라함은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땅의 만국은 필히 그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로 그의 자식과 권속들에게 나 여호와와 의 도를 지킬 것을 명함으로 의와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로써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이라”(창 18:18~19, 중국어성경 직역)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창 22:16~18)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 하게 하시니 그가 양 일만 사천과 약대 육천과 소 일천 거리와 암나귀 일천을 두었고”(욥 42:12)

이상 세 부분의 성경 말씀에서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그의 권병을 행함에 있어 원칙이 있다는 것을 보았느냐? 예를 들어, 하나님은 무지개로 사람과 언약을 세웠다. 그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고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알려 주었다. 지금 사람들이 보는 ‘무지개’가 하나님이 당시 말씀했던 그 ‘무지개’가 아니냐? 그 무지개의 성격과 의미에 변화가 있느냐? 확신하건대 어떤 변화도 없다. 하나님은 그의 권병으로 이 일을 행하였고, 사람과 세운 언약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언약’이 언제 변할지는 물론 하나님이 결정한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라고 말씀한 후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언약’을 지키고 있다. 이 일에서 너는 또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권병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매우 신중하고 원칙 있게 일하며 신용을 지킨다. 그의 신중함과 그가 일하는 원칙은 창조주의 거스를 수 없음과 뛰어넘을 수 없는 창조주의 권병을 나타내고 있다. 그가 지고지상한 권병을 가지고 있고, 만물이 모두 그의 권세 아래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가 만물을 주재하는 능력을 갖추었을지라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계획을 파괴하거나 혼란을 야기한 적이 없다. 그는 권병을 행할 때마다 항상 자신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며, 그가 말씀한 대로, 그가 계획한 절차와 목표대로 정확하게 진행한다.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주재하고 있는 만물 역시 하나님 권병의 행사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의 권병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의 권병이 행사하는 원칙을 바꿀 수 없다. 그가 보기에 복받는 자는 그의 권병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되고, 저주받는 자 역시 그의 권병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 권병의 주재 아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권병의 행사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 권병이 행사하는 원칙을 바꿀 수 없다. 창조주의 권병은 그 어떤 요인의 변화로도 바뀌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의 권병이 행사하는 원칙 역시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도 바뀌지 않는다. 천지가 격변한다 하더라도 창조주의 권병은 변하지 않는다. 만물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창조주의 권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바뀌지 않고 거스를 수 없는 창조주 권병의 본질인 것이다. 이 역시 창조주의 유일무이함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98)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찌니라”(욥 2:6)

사탄은 창조주의 권병을 넘어서지 못했으며, 만물은 규칙 속에서 생존한다

이것은 욥기에서 발췌한 말씀이다. 이 말씀에서 ‘그’는 욥을 가리킨다. 이 말씀은 짧을지라도 많은 문제들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영계에서 사탄과 나눈 구체적인 대화로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상인 사탄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이고 명령이다. 그 명령의 세부적인 사항은 욥의 목숨과 관련되며, 하나님이 사탄에게 정해 준 욥을 대하는 마지노선에 관련된다. 즉, 오직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먼저 이것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한 말이며, 또한 욥의 원문과 연관시켜 볼 때 하나님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했는지도 알 수 있다. 사탄은 욥을 참소하고자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동의를 얻어야 욥을 시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사탄에게 이러한 조건을 걸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였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찌니라”, 이 말씀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 확실히 이것은 지시이고 명령이다. 이 말씀의 성격을 파악하면, 너는 이 명령의 선포자가 하나님이며, 명령을 받아들이는 자는 사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양자의 관계는 이 명령을 통해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진다. 물론 이 역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 볼 수 있는 영계에서의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이며, 하나님과 사탄의 신분과 지위의 차이이다. 또한 지금까지 인류가 구체적인 사례와 구체적인 기록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과 사탄의 신분과 지위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이 기록이 인류가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아는 데에 있어 중요한 문헌이며, 이 기록에서 인류는 하나님을 알아 가는 데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았고, 영계에서의 창조주와 사탄의 대화를 통해 창조주 권병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으로 창조주의 유일무이한 권병이 또 한 번 입증되었다.

겉으로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사탄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태도와 서 있는 위치는 사탄보다 높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명령하는 어조로 사탄에게 지시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탄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알려 주고, 욥을 그의 손에 붙였으니 욥을 마음대로 대해도 되지만 욥의 생명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알려 주었다. 그 뜻은 욥을 사탄의 손에 붙이긴 했으나 욥의 생명까지 붙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욥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태도는 사탄에게 한 이 명령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할 때 서 있던 위치 역시 이 명령에서 나타나고 드러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서 있는 위치에서 볼 때 그는 빛과 공기를 만들고 만물 생령을 만든 하나님일 뿐 아니라, 만물 생령을 주재하는 하나님이고, 인류를 주관하고

음부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며, 모든 생명의 생과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인 것이다. 영계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누가 감히 사탄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왜 사탄에게 친히 명령을 내린 것일까? 욕의 목숨을 포함한 사람의 생명은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은 이에 대한 사탄의 침해를 허락하지 않으며 욕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욕을 시험하도록 허락했을 때에도 그 명령을 특별히 내리는 것을 잊지 않고, 재차 사탄에게 욕의 생명을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던 것이다. 사탄은 감히 하나님의 권병을 넘어설 수 없다.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과 구체적인 지시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복종하고 따르며 감히 거역할 수 없다. 물론 사탄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정해 준 범위이다. 그러므로 사탄은 감히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는 하나님 권병의 위력이 아니냐? 하나님의 권병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 사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속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인류보다 훨씬 더 잘 안다. 사탄은 영계에서 하나님의 지위와 권병을 확실하게 보았고, 하나님 권병의 위력과 하나님의 권병이 시행되는 원칙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감히 태만히 굴거나 조금도 거스르지 못하며, 하나님의 권병에서 벗어난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에 맞서 그 어떤 도전도 하지 못한다. 사탄은 본성이 사악하고 교만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 준 한계와 범위를 감히 벗어나지 못한다. 천만 년 동안, 사탄은 엄격하게 그 한계를 지켰고, 하나님의 모든 지시와 명령을 준수하였으며, 지금까지 감히 한계선을 한 걸음도 넘지 못했다. 사탄은 악독하긴 해도 파괴된 인류보다 훨씬 ‘현명’하다. 사탄은 창조주의 신분을 알고 자신의 한계도 안다. ‘규율을 지키는’ 사탄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은 사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천상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유일무이함과 권병으로 인해 만물이 법칙 속에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인류가 하나님이 정한 궤도 속에서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 규율을 깰 수 없고 이 법칙을 바꿀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창조주의 손에서 나온 것이고, 창조주의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창조주의 권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99)

사탄의 ‘특별’한 신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탄의 다방면의 행위에 관심을 보인다. 심지어 많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외에 사탄도 권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사탄도 이적을 보이고 인류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외에도 마음속에 사탄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으며, 심지어 사탄을 하나님으로 삼아 숭배하기까지 한다. 이들은 불쌍하기도 하거니와 가증스럽기도 하다. 그들이 불쌍한 것은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가증스러운 것은 그들의 대역무도함과 타고난 사악한 본질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너희가 권병이 무엇인지, 권병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고 대변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곧 권병이다. 하나님의 권병은 하나님의 지고지상함과 하나님의 본질을 상징한다. 하나님 자신의 권병은 하나님의 지위와 신분을 대변한다. 그렇다면 사탄은 자기 자신을 감히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탄은 감히 자신이 만물을 창조하였으며, 만물을 주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러지 못한다! 사탄은 만물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것과 같은 그 어떤 것도 만들어 내지 못했으며, 생명이 있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탄에게 하나님의 권병이 없기 때문에 사탄은 영원히 하나님의 지위와 신분을 가질 수 없다. 이는 본질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사탄에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느냐? 물론 없다! 사탄이 행한 일들, 사탄이 보인 이적은 무엇이나? 능력이 맞느냐? 권병이라 할 수 있느냐? 물론 아니다! 사탄은 사악한 흐름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교란시키고 파괴하며 방해하는 짓을 일삼는다. 몇천 년 동안, 사탄은 인류를 패괴시키고 해쳤으며, 사람을 유혹해서 타락의 길로 가게 하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죽음의 골짜기로 걸어가게 하였다. 이런 짓 말고, 사탄이 인류에게 행한 것 중 어느 것 하나 기릴 만하거나 칭찬하고 귀히 여길 만한 것이 있느냐? 사탄에게 권병과 능력이 있었다면 인류가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겠느냐? 사탄에게 권병과 능력이 있었다면 인류가 사탄에 의해 해를 입었겠느냐? 사탄에게 권병과 능력이 있었다면 인류가 하나님을 버리고 죽음의 길로 나아갔겠느냐? 사탄에게 권병과 능력이 없다면, 사탄이 행한 모든 것의 본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겠느냐? 혹자는 사탄의 모든 행위가 보잘것없는 잔재주에 불과하다고 정의한다. 그러나 나는 사탄에 대한 이런 정의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인류를 패괴시키는 사탄의 악행이 보잘것없는 잔재주일까? 사탄이 욕을 해한 그런 사악한 기세와 욕을 해치고 집어삼키려던 강렬한 욕망은 단연코 보잘것없는 잔재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욕이 소유했던 엄청난 양의 소와 양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거액의 재산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져 버렸다. 그게 보잘것없는 잔재주로 할 수 있는 일이더냐? 사탄이 한 행위의 성격으로 볼 때, 모두 파괴, 방해, 훼손, 상해, 사악, 악독, 어둠 등과 같은 부정적 단어와 잘 맞고 어울린다. 그러므로 모든 정의롭지 못하고 사악한 것의 발생은 사탄의 행위와 떼어 놓을 수 없으며, 또한 사탄의 추악한 본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사탄이 아무리 '재주가神通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만하고 야심이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사람을 미혹하고 패괴시키는 재능이 탁월하고 사람을 협박하는 수법과 권모술수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의 존재 형식이 변화무쌍할지라도 상관없다. 사탄은 지금껏 생명 있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 내지 못했고, 만물의 생존 법칙과 규율을 정하지도 못했으며,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을 주관하거나 주재하지 못했다. 우주 창공에는 사탄에 의해 생기고 사탄으로 인해 존재하는 사람이나 사물은 아무것도 없고, 사탄이 주재하고 주관하는 사람이나 사물 또한 아무것도 없다. 반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존재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지시와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 위의 물 한 방울, 모래 한

알도 함부로 만질 수 없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 위의 개미조차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만든 인류는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눈에 사탄은 산속의 백합만도 못하고, 하늘을 나는 새만도 못하며, 바닷속의 물고기만도 못하고, 땅 위의 구더기만도 못하다. 만물 가운데 사탄의 역할은 만물과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역과 경륜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사탄의 본성이 아무리 악독하고 본질이 아무리 사악해도 상관없다. 사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분수에 맞게 자신의 기능,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기능과 부각물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본질이자 본래 자리이다. 사탄의 본질은 생명과 무관하고, 능력과 무관하며, 권병과 무관하다. 사탄은 하나님 수중에 있는 장난감,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기계에 불과하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00)

권병 자체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먼저, 권병이든 능력이든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서, 그 어떤 부정적인 것들과 무관하고, 그 어떤 피조물이나 비피조물과도 무관하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형식의, 생명 있고 활력 넘치는 것이라도 다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권병은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겨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존하며 지속되게 한다. 그 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주재하고 주관한다. 지금껏 여기엔 오차가 없었으며, 영원히 그럴 것이다.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했으며, 창조주만이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권병이라 일컫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주의 유일무이함이다. 그러므로 ‘권병’이라는 이 단어 자체나 권병의 본질은 오직 창조주와만 관련이 있다. 이는 권병이 창조주만의 신분과 본질의 상징이기 때문이며, 창조주의 신분과 지위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창조주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권병’이라는 이 단어와 관련이 있을 수 없다. 이 역시 창조주의 유일무이한 권병에 대한 해석이다.

사탄이 욕을 호시탐탐 노렸을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욕의 털끝 하나도 감히 건드릴 수 없었다. 사탄의 본성이 사악하고 잔인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탄은 하나님의 지시를 지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욕에게 임한 사탄이 양 떼에 침입한 사나운 늑대처럼 거칠게 날뛰었을지라도, 사탄은 감히 하나님이 정해 준 범위를 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탄은 아무리 해도 감히 하나님 말씀의 원칙과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이것이 사실 아니냐? 이 점에서 볼 때,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도 넘어설 수 없다. 사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명령이고 천상의 법칙이며, 하나님 권병의 발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뒤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천상의 법칙을 어기며 위반한 자들에 대한 처벌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권병을 넘어서고 천상의 법칙에 대항한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다. 그 결과는 도대체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사탄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벌이다. 사탄이 옳, 이 한 사람에게 행한 일은 인류를 패괴시킨 사탄의 소행을 보여 주는 축소판일 뿐이다. 사탄이 그 일을 저지를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정해 준 범위와 내린 명령은 사탄이 모든 일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을 보여 주는 축소판일 뿐이다. 그리고 사탄이 이 일에서 담당할 역할과 위치는 사탄이 하나님의 경영 사역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위치를 보여 주는 축소판일 뿐이다. 사탄이 옳의 시험에서 보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은 하나님의 경영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히 대항하지 못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여 주는 축소판일 뿐이다. 이 축소판들이 너희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이나? 사탄을 포함한 만물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감히 창조주가 정한 천상의 법칙과 규칙을 벗어나지 못하며, 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저항자에게 내리는 창조주의 처벌을 바꾸거나 그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주만이 천상의 법칙과 규칙을 정할 수 있고, 창조주만이 그러한 법칙과 규칙을 시행할 능력이 있으며, 창조주의 능력만이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창조주만의 권병이며, 이 권병은 만물 가운데 지극히 높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크고 사탄이 그 다음이다”라는 말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유일무이한 권병을 가진 창조주 외에 다른 신은 있을 수 없다!

현재 너희는 하나님의 권병에 대해 어떤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느냐? 먼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권병은 사람의 권력과 어떻게 구분되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혹자는 함께 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매우 좋은 말이다! 사람들이 이 둘을 함께 논할 수 없다 말할지라도, 사람의 생각과 관념 속에는 항상 사람의 권력이 권병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함께 놓고 비교하기도 하는데 왜 그런 것일까? 이는 개념을 잘못 사용하는 오류에 빠진 것이 아니겠느냐? 양자는 함께 연관시킬 수도 함께 비교할 수도 없다. 하지만 사람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 이를 어찌 해결해야 할까? 네가 진정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권병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창조주의 권병을 알고 이해하게 되면, 네가 사람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병을 한데 놓고 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람의 권력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패괴 성품, 욕망이나 야심으로 잔뜩 부풀어진 사람이 목적인 바를 달성시키는 일종의 수완이나 재주라 할 수 있다. 이것을 권병이라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의 야심과 욕망이 얼마나 부풀어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든, 그 사람에게 권병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의 팽창과 목적 달성은 기껏해야 사탄이 사람 가운데서 한 어릿광대짓에 지나지 않는다. 잘해 봤자 사탄이 스스로 조상이 됨으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야심을 충족시키는 연극일 뿐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01)

하나님의 권병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지 않느냐?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상징하지 않느냐? 하나님 자신만의 지위를 상징하지 않느냐? 만물 가운데 너는 어떠한 일들에서 하나님의 권병을 보았느냐? 어떻게 보았느냐? 사람이 경험하는 사계절에서 볼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변화에 대한 법칙을 바꿀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봄에는 나무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며,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나뭇잎이 떨어진다. 이 법칙을 바꿀 수 있는 자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권병이 어느 한 면으로 구현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자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의 존재는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권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만든 공기가 지금도 존재하지 않느냐? 인류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느냐? 누가 그것의 본질과 기능을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눈 낮과 밤, 주야를 정한 법칙을 깨뜨릴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사탄을 포함해 깨뜨릴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밤이 되었을 때, 잠을 자지 않고 대낮처럼 보낼지라도 역시 밤이다. 네가 너의 생활 규칙을 바꾸었지만, 낮과 밤이 교체되는 법칙은 바꿀 수 없다. 이 사실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그렇지 않느냐? 사자에게 소처럼 발을 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코끼리를 나귀로 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닭을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늑대를 양처럼 풀을 먹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물속의 물고기를 육지에서 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들을 물속에서 살도록 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물속에서 살아야 한다. 육지에서는 살 수 없어 죽는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만물은 모두 자기만의 생존 법칙과 범위가 있고, 각각 자기만의 본능이 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창조주가 정한 것으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다. 예를 들어, 사자는 영원히 사람과 격리된 야생 세계에서 살지, 영원히 소처럼 충직하게 성실하게 사람과 함께하며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없다. 코끼리와 나귀는 다 동물이고 네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숨을 쉬는 피조물이지만, 그들은 다른 종이다. 그들은 각자 하나님에 의해 종류가 구분되고 모두 각자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서로 바뀔 수 없다. 닭도 두 다리를 가지고 있고 독수리처럼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기껏해야 나무 위에 날아오를 수 있을 뿐 영원히 하늘을 날 수 없다. 이것은 닭의 본능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권병에 의해 정해진 것이 자명하다.

인류가 오늘날까지 발전해 오면서, 인류의 과학은 ‘일취월장’했다고 할 수 있다. 과학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성과가 ‘과히 놀랄’ 정도이니, 인류의 기량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해야겠다. 그러나 유독 한 가지만은 인간의 과학이 돌파하지 못했다. 인류는 비행기를 만들고, 항공 모함을 만들고, 원자 폭탄을 만들고, 우주로 날아가고, 달에

착륙하고, 인터넷을 발명하여 첨단 과학 기술 시대에 살고 있지만, 숨 쉴 수 있는 생물은 만들어 내지 못한다. 인류의 과학은 생물의 본능과 생존 법칙, 각 생물의 생사윤회를 통제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선 속수무책이다. 그렇기에 인류의 과학이 아무리 높은 수준에 도달했어도 창조주의 생각 하나에 비할 수 없고, 창조주의 만물 창조의 오묘함과 창조주 권병의 위력을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구상의 바닷물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경계를 정해 주었기 때문에 바닷물은 지금껏 함부로 자신의 범위를 넘어 육지로 올라온 적이 없다. 그들은 정해 준 대로 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움직이라고 말씀할 때에야 움직일 수 있고, 그들이 어디로 가고 어디에 머무르지는 하나님의 권병으로 결정된다.

‘하나님의 권병’을 늘 하는 말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하고자 하면 그대로 한다. 만물의 법칙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뀌는 것이지 사람의 의지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천지 만물, 우주, 별, 1년 사계절, 사람이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당시의 법칙에 따라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권병 아래 존재하고 운행되며 변화한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것의 법칙을 바꿀 수 없으며, 그것 본래의 운행 궤적을 바꿀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병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그 권병으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병이다. 여기까지 말했는데,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권병이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상징한다고 느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권병이 그 어떤 피조물이나 비피조물이 갖출 수 있는 것이냐? 그 어떤 사람이나 일, 사물이 모방하고 사칭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02)

창조주의 신분은 유일무이한 것이니 ‘다신론’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사탄의 기량과 재주가 사람보다 클지라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사탄이 할 수 있을지라도, 사탄이 하는 일이 네가 부러워하고 갈망하는 것이든, 네가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이든, 네가 볼 수 있는 것이든 볼 수 없는 것이든, 또한 사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숭배하게 할 수 있든, 네가 사탄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든, 너는 절대로 사탄이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만이 권병을 가지고 있으며, 만물을 주관하고 주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는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는 재주를 가졌고 사탄이 하나님으로 사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탄이 하나님이 행한 이적과 기사를 모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또한 사탄이 하나님과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량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고 다스리는 권력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먼저 오고 나중에 온 순서에 따라,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크고 작음의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고, 더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병이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라고 오해해서도 안 된다. 만일 네가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권병을 지닌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만일 네가 ‘다신론’을 고집한다면, 너는 피조물 중 인간 말종이고, 전형적인 사탄의 화신으로서 매우 사악한 자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알겠느냐?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너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과 함께 놓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네가 하나님의 권병과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그것에 접근하기 힘들다고 생각할지라도, 사탄의 행동 방식과 말하는 방식이 아무리 너의 생각과 일치하고 너의 상상과 일치하더라도, 얼마나 그것이 너를 만족시키든, 너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개념을 혼동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부인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문전 박대 하고 대신 사탄을 끌어들여 너의 마음속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너의 하나님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03)

인류는 패괴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창조주 권병의 주재 아래 살아간다

사탄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패괴시키면서 무수히 많은 악행을 저질렀고, 대대로 사람들을 미혹하였으며, 인간 세상에서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렀다. 사람을 해치고 미혹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도록 유혹하며, 하나님의 경륜을 교란시키고 파괴하는 등 온갖 악행을 자행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병 아래 있는 만물 생령은 늘 변함없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과 규율을 따르고 있다. 하나님의 권병과 비교해 보면, 사탄의 사악한 본성과 그것이 날뛰는 모습은 추하기 그지없으며, 역겹고 신물 나는 데다, 보잘것없고 취약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 비록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가운데서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사탄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그 어떤 사람, 일, 사물도 변화시킬 수 없다. 수천 년이 지나도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려 준 빛과 공기를 누리고 있다.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이 친히 불어넣어 준 생기로 숨을 쉬고 있고, 하나님이 만든 꽃과 새, 물고기와 곤충들을 누리며, 하나님이 공급해 준 만물을 누리고 있다. 낮과 밤은 여전히 끊임없이 교체되고, 사계절 역시 변함없이 순환하고 있다. 하늘을 나는 기러기는 울겨울에 떠나가서 내년 봄에 다시 돌아온다. 물속의 물고기는 그들의 집인 강과 호수를 떠나 본 적이 없다. 땅 위의 매미는

여름날 마음껏 자기들만의 노래를 부른다. 풀 속의 귀뚜라미들은 가을날 소슬바람 따라 낮은 소리로 노래한다. 기러기는 무리를 이루고 매는 홀로 지낸다. 사자 무리는 사냥하며 살아가고, 사슴들은 꽃과 풀밭을 떠나지 않는다.... 만물 가운데 각종 생명들은 갔다가 다시 오고 왔다가 다시 가며 찰나 간에 천태만상으로 변화한다. 하지만 그들 각자의 본능과 생존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자양분을 받아 생존한다. 그 누구도 그들의 본능을 바꿀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그들의 생존 법칙을 파괴할 수 없다. 만물 가운데 살아가며 사탄에 의해 패괴되고 미혹되었을지라도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이 만든 물과 공기와 만물을 떠날 수 없다.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이 만든 이 공간 속에서 번성하며 살아간다. 인류의 본능은 변하지 않았다. 인류는 여전히 두 눈으로 바라보고, 두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며, 마음으로 깨닫고, 두 다리와 두 발로 걸으며, 두 손으로 일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본능은 변하지 않았다. 인류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기관(器官)은 변하지 않았고, 피조물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기관은 변하지 않았다. 인류 심령의 필요는 변하지 않았고, 뿌리를 찾아 돌아가려는 인류의 소망은 변하지 않았으며, 인류가 창조주의 구원을 얻고자 하는 소망도 변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병 아래 살아가며 사탄의 피비린내 나는 학대를 견디고 있는 인류의 현주소다. 비록 사탄의 엄청난 유린을 당한 인류는 더 이상 태초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아닌, 지식과 상상, 관념 등 하나님과 적대되는 것들이 가득하고 사탄의 패괴 성품이 가득한 인류라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이 만든 인류이다.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재와 지배 아래 있고, 하나님이 정한 궤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기에 사탄에 의해 패괴된 인류는 단지 외관상 더럽고 굶주리고 반응도 약간 느리고 기억력도 다소 감퇴되고 나이가 조금 많은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사람의 모든 기능과 본능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이 인류가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인류이다. 이 인류는 창조주의 부름과 창조주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바로 일어나 그 음성의 근원을 찾기 위해 달려간다. 이 인류는 창조주의 그림자를 보기만 하면 모든 것을 제쳐 두고 창조주를 위해 헌신하며, 심지어 목숨까지 바친다. 인류의 마음과 영이 창조주의 마음의 소리를 깨닫게 될 때, 인류는 사탄을 버리고 창조주의 곁으로 온다. 인류가 완전히 몸의 더러움을 씻어 내고 창조주가 다시 공급해 주는 자양분을 얻게 될 때, 인류의 기억은 회복된다. 그때의 인류는 진정 창조주의 권세 아래로 돌아온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04)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찌기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 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무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 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아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밖의 무리로 무론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창 19:1~11)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향과 불을 비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없어 멸하셨더라”(창 19:24~25)

성경의 이 구절들을 통해 소돔의 사악함과 패괴함이 천인공노할 지경에 이르러 하나님 안중에 반드시 멸해야 할 대상이 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성을 멸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였고, 그 일들이 사람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였느냐? 그 일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통해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보여 주고 있느냐? 기록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고 발생한 일의 전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치가 떨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올 정도로 패괴된 소돔 성

그날 밤, 롯은 하나님의 두 사자를 영접하고 식사를 베풀었다. 식사 후 사자들이 아직 눕지 않았을 때, 성안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롯의 집을 둘러싼 후 롯을 불렀다. 성경에는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고 되어 있다. 이는 누가 한 말이냐? 이 말은 누구에게 한 것이냐? 이 말은 소돔 성 사람들이 롯의 집 밖에서 롯에게 외친 말이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화가 나지 않느냐? 역겹지 않느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느냐? 그 사람들의 외침은 사탄의 행위를 뜻하지 않느냐? 그 외침에서 너는 그 성의 사악함과 어두움이 느껴지지 않느냐? 그들의 외침에서 너는 그들의 행위에서 나오는 야만성과 잔인함이 느껴지지 않느냐? 그 사람들의 행위에서 그들이 얼마나 패괴되었는지 느낄 수 있지 않느냐? 그들이 말한 내용에서 그들의 사악한 본성과 흉악한 성품이 스스로 통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롯을 제외한 성안 사람들은 모두 사탄과 같아서 사람을 보면 해를 입히고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였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이 성의 음산함과 공포스러움, 죽음의 기운, 사악함과 잔혹함이 절로 느껴진다.

인간성도 없고 사람의 영혼을 집어삼키겠다는 야심으로 가득 찬 폭도들을 보며 롯이 뭐라고 말했느냐? 성경에는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롯이 이 말을 한 의도는 그의 두 딸을 포기하더라도 사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인간의 도리상, 롯이 그런 제안을 했으면 그 무리들은 양보를 하고 두 사자를 가만히 놓아두었어야 한다. 어디까지나 두 사자는 그들과 일면식도 없고 아무 관련이 없으며, 그들의 이익을 침해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사악한 본성에 끌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난폭해졌다. 여기서 그들이 나눈 또 다른 대화를 통해 그들의 악독한 본모습을 더한층 알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왜 그 성을 멸하려고 했는지도 알고 이해하게 된다.

그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하였느냐? 성경에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 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아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라고 되어 있다. 그들은 왜 문을 부수려 하였을까? 두 사자를 빨리 해치지 못해 안달 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두 사자가 소돔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성안의 사람들은 그 두 사자가 법관이 되기 위해 그곳에 왔다고 착각하며 추측만으로 이유도 묻지 않고 해하려 하였다. 그들이 해하려 한 것은 그들과는 전혀 무관한 두 사람이었다. 따라서 소돔 성 사람들이 이미 인간성과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것과 그들의 광기와 날뛰는 정도가 사람을 해하고 집어삼키는 사탄의 악독한 본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롯에게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자 롯은 어떻게 하였느냐? 성경에서 알 수 있듯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롯은 하나님의 두 사자를 알았느냐? 전혀 몰랐다! 그렇다면 그는 왜 두 사람을 구하였느냐? 그는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 알고 있었느냐? 그는 그 두 사자가 그곳에 온 이유는 몰랐지만 두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한 것이다. 롯이 하나님의 종을 주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롯이 평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소돔 성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갔을 때 그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두 종을 영접할 수 있었다. 동시에 그는 또 두 딸을 넘기고 그들을 보호하려 하였다. 이는 롯의 의로운 행위이며, 롯의 본성과 본질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 것이기도 하다. 또 이것은 하나님이 종을 보내 그를 구한 이유이기도 하다. 위기가 닥쳤을 때, 롯은 아랑곳 않고 두 종을 보호하였으며, 심지어 자신의 두 딸로 두 종의 안전을 지키려 하였다. 그 성안에 롯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자가 또 있었느냐? 없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롯을 제외한 소돔 사람 모두가 멸해야 할 대상이자 멸망당해야 할 대상이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05)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찌기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 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무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 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아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밖의 무리로 무론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창 19:1~11)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향과 불을 비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엿어 멸하셨더라”(창 19:24~25)

소돔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 흔적도 없이 멸망당하다

소돔 성 사람들은 두 사자를 보았을 때, 그들이 거기에 온 이유를 묻는 자가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는지도 묻는 자가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무리 지어 와서 다짜고짜 미친개와 같이, 악한 이리와 같이 그 두 종을 잡으려 하였다. 당시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은 다 보고 있지 않았겠느냐? 사람의 그런 행위와 그런 일을 대함에 있어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은 이 성을 멸하리라 굳게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는 주저하지 않았으며 기다리지 않았고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의 날이 오면 그는 하고자 했던 일을 그대로 행한다. 그러므로 창세기 19 장 24 절과 25 절에서 말씀한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향과 불을 비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엿어 멸하셨더라”라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성을 멸하였는지를 말해 주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멸하였는지도 알려 주고 있다. 우선, 성경에는 하나님이 불로 이 성을 태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안의 사람에서부터 땅에서 난 모든 것까지 다 멸할 정도로 불태운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린 불이 이 성을 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안의 사람과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를 함께 멸하고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성을 멸한 후, 땅에는 더 이상 생물이 살지 못하였고, 더 이상 생기가 없었으며, 더 이상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고, 정적만 흐르는

공터로 변해 버렸다.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행이 다시는 있을 수 없었으며, 살육과 피비린내가 다시는 없었다.

하나님은 왜 이 성을 이렇게 완전히 불태웠을까? 너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류와 만물이 그렇게 멸해지는 것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을까? 네가 만약 하늘에서 떨어진 불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멸망시킨 대상과 그 성이 멸망당한 정도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노한 정도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성을 증오할 때는 징벌을 내릴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성에 염증을 느낄 때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 수 있도록 계속 경고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을 없애고 멸하기로 굳게 결심하였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위엄을 거스르는 일이 생겼다면 더 이상 징벌이나 경고를 주지 않고 곧바로 멸한다. 그리하여 완전하고 철저히 사라지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06)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찌기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 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무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 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아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 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밖의 무리로 무론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창 19:1~11)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향과 불을 비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엮어 멸하셨더라”(창 19:24~25)

계속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대항했던 소돔 성,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다

사람들 눈에 소돔 성은 인간들의 욕망과 사악함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이자 밤마다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요염하고 유혹적인 도시였다. 그 화려함에 사람들은

정신이 팔리고 미치광이가 되었으며, 그 사악함에 사람의 심령은 잠식당하고 미혹당해 타락하였다. 소돔 성에는 더러운 귀신과 악령이 판을 쳤고 죄악과 살육이 가득하였으며, 피비린내와 썩은내가 진동하였다. 그야말로 등골이 오싹하고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도시였다. 성안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도를 찾거나 광명을 갈망하는 이가 없었고, 죄악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자도 없었다. 사람은 사탄의 통제와 패괴, 농락 속에 살면서 인간성과 이성을 잃고 인간 본연의 생존 목표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의 악행은 수없이 많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였다. 그들의 악행은 그들과 그 성과 성안의 살아 있는 것 모두를 한 걸음씩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

이 두 단락에는 소돔 성 사람들이 얼마나 패괴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고, 단지 하나님의 두 종이 소돔 성에 도착한 후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사실로 소돔 성 사람들이 얼마나 패괴되었고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성안 사람들의 본모습과 본질도 드러났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징벌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멸시하였다.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 대항하였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든 그들의 악독한 본성은 더 심해졌으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적대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함, 하나님의 징벌을 적대시하였고, 하나님이 내린 경고는 더욱 적대시하였다. 그들은 안하무인으로 집어삼키고 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했으며, 하나님의 종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돔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해하려 한 일은 그들이 행한 모든 악행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여기서 드러난 그들의 사악한 본성도 바닷물 중 한 방울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로 멸할 것을 택하였다. 하나님은 홍수, 허리케인, 지진, 해일이나 다른 방법이 아닌 불사르는 방식으로 성을 멸하였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불태워진다는 것은 성의 완전한 멸망을 뜻하며, 이 성이 지구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멸망’이란 형체나 외형이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성안의 모든 사람의 영혼까지도 존재하지 않는 것,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이 성과 관련된 모든 사람과 사물이 멸해지고, 그들에게 더 이상 내세와 윤회는 없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된 인류 가운데서 한 번으로 영원히 제거해 버린 것이다. ‘불살랐다’는 것은 죄악이 그곳에서 제지되고 끝나서 다시는 존재하지 않고 파생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사탄의 사악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을 잃고, 머무르고 기거할 수 있는 무덤을 잃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했음을 낙인으로 사탄에게 남긴 것이다. 소돔 성의 멸망은 사람을 패괴시키고 집어삼킴으로써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했던 사탄의 야심이 실패로 끝났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인류 발전사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스스로 타락한 인류의 수치스러운 기호이며, 아울러 실제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한 실제 기록이다.

소돔 성이 하나님이 내린 불로 인해 잿더미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는 ‘소돔’이라 불리는 성을 볼 수 없고, 성안의 모든 것도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 성은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 멸망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위엄 속에서 사라졌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인해 상응하는 징벌을 받았고, 그에 걸맞은 결말에 이르렀다. 소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은 소돔의 사악함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성과 성에서 사는 어떤 사람도, 생장하는 어떤 만물도 다시 보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시 보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위엄이 표현된 것이다. 그 성의 사악함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 성에 대해 분노와 미움, 증오심을 갖게 되었고, 더 이상 소돔 성과 성안의 사람 그리고 성안의 살아 있는 모든 것을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불로 이 성을 멸하였다. 소돔 성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안중에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소돔에 대한 기억까지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즉, 하늘에서 내린 불이 태운 것은 온 소돔 성과 성안의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 그리고 죄악으로 더럽혀진 만물뿐만 아니라 인류의 사악함과 하나님을 대적한 기억까지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소돔 성을 불태운 목적이었다.

인류가 심히 패괴되어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고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면 그들은 공격하고 비방하고 모독할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할 때에도 그 패괴된 사람들에게서는 회개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행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해하려고 할 것이다. 그들에게서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극히 증오하는 본성과 본질이다. 그러므로 패괴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패괴 성품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고, 진상을 모르면서 비방과 조롱을 쏟아 내는 것만도 아니다.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무지몽매해서, 기만당해서, 미혹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공개적으로 제멋대로 하나님과 대립하고 대항하고 소란을 피우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사람의 이러한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을 노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 사람의 범함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위엄이 그들에게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성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멸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 안의 사람들을 멸함으로 모든 죄악을 멸해 버리려고 했다. 그리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하고, 그 안의 죄악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그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불로 태우는 것이었다. 소돔의 사람들을 상대로 취한 하나님의 태도는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 위엄, 권병으로 그들을 징벌하고 쳐서 완전히 멸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육체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파멸시켜 영구적으로 사라지게 하였다. 이것이 하나님께 있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의 진정한 함의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07)

하나님의 진노는 감춰져 알려지지 않았지만, 거스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지몽매한 온 인류를 주로 긍휼과 관용으로 대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대부분의 시간과 사건에서 가려져 있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기 아주 어렵고, 하나님의 진노를 알기도 매우 어렵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마지막 사역과 절차로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용서했을 때, 즉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풀고 경고했을 때도 사람이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조금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고 인내하지 않는다. 이때 하나님은 반대로 긍휼을 거두고 사람에게 진노만을 발한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의 진노를 표현할 수 있고 사람을 징벌하고 멸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불로 소돔 성을 멸망시켰다. 이 방식은 하나님이 인류나 물체를 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불을 이용해 인류를 멸한 것은 그 육체뿐 아니라 영, 혼, 육 전부를 멸하여 소돔 성 사람들이 물질세계와 사람이 볼 수 없는 세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하나님이 진노를 발현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이런 발현은 하나님의 진노 본질의 일면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진노할 때 더 이상 그 어떤 긍휼과 자비, 관용을 베풀지 않고 인내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어떤 이유도 하나님이 계속 인내하도록 설득할 수 없고, 다시 긍휼과 관용을 베풀도록 설득할 수 없다. 그 대신 하나님은 한시도 지체 없이 그의 진노와 위엄을 나타내고, 그가 하려는 일을 하고 또한 깔끔하고 마음에 들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위엄을 나타내는 방식이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일부를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걱정하고 사랑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위엄을 볼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없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는 오직 긍휼, 관용, 사랑만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성을 멸하고 인류를 증오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인류를 멸하는 그의 노와 위엄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의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피조물도 상상할 수 없고, 피조물이 아닌 어떤 것도 간섭하거나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사칭이나 모방은 더욱 불가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하나님 성품을 인류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이러한 성품을 갖추고 있으며 하나님만이 이런 성품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공의로운 성품을 갖춘 것은 하나님이 사악함, 암흑, 패역, 인류를 패괴시키고 집어삼키는 사탄의 온갖 악행을 증오하는 데에서 기인하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죄악된 행위를 증오하는 데에서 기인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고 무결한 본질에서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이든 비피조물이든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대항하고 하나님과

겨루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설령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던 자일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택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인내와 관용의 원칙을 거슬렀다면 하나님은 가차 없이, 주저하지 않고 거스를 수 없는 공의로운 성품을 보여 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08)

모든 정의의 힘과 긍정적인 사물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거스를 수 없는 성품과 하나님의 위엄은 하나님 자신만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자신만의 성품이다. 하나님이 노하는 원칙은 하나님 자신만의 신분과 지위를 뜻하며, 그가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상징한다는 것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 자신의 고유의 본질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지리적 위치로 인해 바뀌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은 하나님의 고유의 본질이다. 그가 누구에게 사역하든 간에 그의 본질과 공의로운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원래의 성품이다. 이때 하나님이 노하는 원칙은 변하지 않고, 그의 유일무이한 신분과 지위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노하는 이유는 그의 본질에 변화가 생기거나 그의 성품에 다른 요소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사람이 공공연히 하나님께 도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은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자 하나님의 노를 시험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항할 때, 하나님과 겨룰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노를 시험할 때가 바로 최악이 범람할 때이며,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자연스럽게 발현하고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은 모든 사악한 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모든 적대 세력이 멸망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공의로운 성품이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진노이다. 하나님의 존엄과 거룩함이 도전을 받을 때, 정의의 힘이 저지당하고 사람이 정의를 찾아볼 수 없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낼 때이다. 하나님의 본질 때문에 땅에서 하나님과 겨루고 대적하고 맞서는 세력들은 모두 사악하고 패괴되고 정의롭지 않은 세력이며,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사탄에 속하는 세력이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빛이며, 흠이 없이 거룩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사악하고 패괴되고 사탄에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게 되면 모두 소멸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한 측면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원칙 없이, 대상의 구분 없이 노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쉽게 노하지 않고, 진노와 위엄을 쉽게 나타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상당한 정도와 기준이 있다. 이는 사람이 화를 내고 울분을 쏟아 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성경에는 사람과 하나님의 대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어떤 이는 하는 말이 깊이가 없고 우매하여 어린아이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치지 않았고 정죄하지도 않았다. 특히, 욥이 시련을 겪는 동안 욥의 세 친구와 사람들이 욥에게 한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정죄했느냐? 그들에게 노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라 하였고, 그들의 과실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는 패괴되고 무지한 인류를 대하는 하나님의 주요 태도를 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는 것은 절대 감정을 표현하거나 감정을 쏟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를 총체적으로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는 것은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기 힘들어서도, 울분이 극에 달해 쏟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도 아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발현이자 참된 표현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분이어서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유와 원칙 없이 노한다는 것이 아니다. 아무 이유도 원칙도 없이 함부로 화를 내는 것은 오히려 패괴된 인류의 전유물이다. 사람은 어떤 위치에 오르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트집 잡아 분풀이하고 불만을 털어놓으며, 이유 없이 화를 냄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가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한다. 어떤 자리에 오르지 못한 패괴된 인류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항상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기 때문이다. 패괴된 인류는 항상 자신의 지위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쏟아 내고 교만한 본성을 드러낸다. 사람이 화를 내고 울분을 표하는 것은 모두 죄악의 존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사람이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여기에는 불순함, 음모와 계략, 패괴와 사악함, 심지어 야심과 욕망이 가득하다. 정의와 사악의 싸움에서 사람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화내지는 않는다. 바꾸어 말하자면 정의의 힘이 위협당하고 박해당하고 공격당할 때, 사람은 이를 무시하고 회피하거나 뒤로 물러선다. 하지만 사악한 세력 앞에서는 비위를 맞추고 비굴하게 굽실거린다. 그러므로 사람이 분풀이하는 것은 사악한 세력의 출구이며, 이는 욕에 속한 사람의 악행이 넘쳐 나고 억제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 모든 사악한 세력과 사람을 해하는 죄악은 저지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모든 적대 세력은 드러나고 분리되고 저주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적대시한 사탄의 모든 공범자들은 징벌받고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사역은 막힘없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은 정해진 대로 한 단계씩 앞으로 진행된다. 또한 하나님의 선민은 사탄의 교란도 미혹도 받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안정되고 평온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사악한 세력이 더 이상 자생하고 판치지 못하도록 보장하며, 모든 정의와 긍정적인 사물이 존재하고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09)

하나님이 소돔을 멸한 일에서 너희는 하나님 진노의 본질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노에 불순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노가 순결하지 않으냐?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순수하지 않으냐? 하나님의 진노 이면에 계략, 음모,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느냐? 너희에게 엄숙하고 진지하게 알려 주겠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사람이 의심할 만한 그 어떤 요소가 없고, 하나님의 노는 순수하며 다른 속셈이나 목적이 없다. 하나님이 노하는 이유는 순결하며 질책하거나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고, 그 어떤 피조물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공의로운 성품의 일부이자 창조주가 피조물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점이다.

사람이 타인의 앞이나 뒤에서 화를 낼 때는 다 서로 다른 속셈과 목적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이익이나 이미지, 체면 등을 지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어떤 이는 화를 내는 데에 기준이 있지만 어떤 이는 기준도 없다. 화를 내고 싶으면 마음대로 내며 아무 제약도 받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화는 사람의 패괴 성품에서 온 것이다.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다 혈기와 천성적인 것에 속하며, 정의로움과 정의롭지 않음을 논할 여지가 없다. 그것은 사람의 본성과 본질에는 진리와 부합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괴된 인류의 화는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논할 수 없다. 사탄에 의해 패괴된 사람의 행동은 하나같이 다 패괴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패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이론적으로 얼마나 정당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논할 수 없다. 하나님이 노할 때, 사악한 세력은 저지당하고 사악한 사물은 멸망되지만 정의롭고 긍정적인 사물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유는 정의롭지 않고 부정적이고 사악한 사물이 정의롭고 긍정적인 사물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거나 교란시키거나 파괴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는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정의롭고 긍정적이며 아름답고 선한 사물의 존재를 수호하고 인류의 정상적인 생존 규칙과 법칙을 수호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는 근본 원인이다. 하나님의 노는 하나님의 성품이 매우 정당하고 자연스럽게, 또 진실하게 나타난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 이면에 다른 속셈이나 교활함이나 음모가 없고 패괴된 인류에게 공존하는 욕망, 간사함, 악랄함, 폭력성, 사악함 등은 더더욱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진노를 발하기 전에 이미 모든 일의 본질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았고, 이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정의와 결론을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한 목표와 태도가 아주 명확하다. 두루뭉술하거나 맹목적이지 않고, 충동적이거나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 않으며, 원칙이 없는 것은 더욱 아니다. 이 또한 하나님 진노의 실제적인 면이다. 인류는 바로 하나님 진노의 이 실제적인 면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잃게 되면 인류는 비정상적인 삶으로 추락하게 되고, 정의롭고 아름다우며 선한 모든 사물은 멀어져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진노를 잃게 되면 피조물의 생존 법칙과 규칙이 파괴되고 심지어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다. 인류가 만들어진

후, 하나님은 그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계속해서 인류의 정상적인 생존을 지키고 유지하였다. 그의 공의로운 성품에는 진노와 위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악한 사람과 사물, 인류의 정상적인 생존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모든 것은 징벌받고 통제되고 멸망된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에서 그에게 대항하는 자, 사탄의 공범자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된 더러운 귀신과 악령을 그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끊임없이 치고 멸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앞으로 이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 가운데 가장 정의로운 일이 지금까지도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10)

인 의와 도덕의 겉모습에 가려진 잔인하고 사악한 사탄의 본질

사탄은 사람을 속이고 명예를 흠치면서 늘 자신을 정의의 선봉자나 정의의 본보기로 치켜세운다. 사탄은 정의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해하고 사람의 영혼을 집어삼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마비시키고 미혹하고 부추기는 것이다. 사탄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탄의 악행을 지지하고 따르게 만들어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권병과 주재에 대항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사탄의 음모와 계략, 추악한 몰골을 간파하여 더 이상 사탄에게 짓밟히거나 농락당하는 것을 원치 않고 사탄을 위해 목숨을 걸거나 사탄과 함께 징벌받고 멸망되길 바라지 않을 때, 사탄은 보살 같았던 얼굴을 금세 바꾸고 가면을 벗어던져 사악하고 잔인하고 추악한 민낯을 드러낸다. 그리고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고 사악한 그 세력에 반항하는 모든 사람을 제거하지 못해 안달이 난다. 그때의 사탄은 더 이상 사람이 믿을 만한 정인군자의 모습으로 가장하지 못하고 양가죽 뒤에 숨겨져 있던 추한 악마의 본모습을 드러낸다. 사탄은 음모가 발각되고 본모습이 폭로되면, 즉시 노발대발하며 야만성을 드러내고, 사람을 해치고 집어삼키려는 욕망이 점점 더 강렬해진다. 왜냐하면 사탄이 사람의 깨달음으로 인해 더욱 분노하고, 자유와 광명을 갈망하고 사탄의 농락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의 소망으로 인해 강한 복수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사탄이 노발대발하는 것은 사악함을 지키기 위함이며, 또한 사탄의 잔인한 본성이 실제로 드러난 것이다.

사탄은 사악한 본성을 행동 곳곳에서 드러낸다. 사람을 미혹시켜 자신을 따르게 만들고, 사람을 이용해 나쁜 물이 들도록 한다. 나아가 진면목이 폭로되고 간파되어 사람에게 버려진 후에는 복수심을 갖기까지 한다. 사탄이 사람에게 저지른 그 모든 악행에서 사탄의 사악한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사탄이 긍정적인 것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사탄이 모든 사악한 사물의 근원임이 증명되지 않는 것이 없다. 사탄이 행하는 모든 것은 사탄의 사악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악행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정의롭고 긍정적인 사물과 어긋난 것이고, 인류의 정상적인 생존 법칙과 규칙을 깨는

것이며, 하나님과 적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탄에게도 분노가 있지만 그것은 사악한 본성을 쏟아 내는 방식에 불과하다. 사탄이 악에 반쳐 격분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알릴 수 없는 음모가 드러나서 자신의 계략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이 되려는 야심과 욕망을 이루는 데에 타격을 받고 방해를 받았으며, 인류 전체를 장악하려는 목적이 물거품이 되어 영원히 실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한 차례 또 한 차례 계속해서 진노를 내려 사탄의 음모가 실현되지 못하도록 저지하였고 사탄의 사악이 자생하고 판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진노를 증오하면서도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마다 사탄의 추악한 본모습이 폭로되었고, 사악한 욕망이 빛 속에서 드러났으며, 동시에 사탄이 인류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이유도 빠짐없이 드러났다. 사탄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사탄의 사악한 본성을 실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며, 사탄의 음모가 폭로되는 것이다. 물론, 사탄의 모든 격노는 사악한 것이 파괴되고 긍정적인 것이 보호받고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거스를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11)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삶에 있어 경험과 상상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네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 이면에도 사연이 있고 불순물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다 공의로운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겠느냐? 우선 너는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 하나님이 인류를 치거나 벌하거나 멸한 것을 포함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어떠한 불순물도 흠도 없고 거룩한 것임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고유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는 인류의 지식, 전통, 철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의 발현으로서 파괴된 인류의 그 어떤 것과도 관련이 없다. 사람은 고정 관념으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 관용은 어떤 흠과 불순물 없이 거룩하다고 여길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에도 불순물이 없다는 것을 아는 이가 없고, 심지어 하나님이 왜 사람의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는지, 왜 이렇게 크게 노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이도 없다. 반대로 어떤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파괴된 인류의 성질로 오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을 파괴된 인류가 화를 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심지어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는 것이 마치 사람의 파괴 성품이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같고 파괴된 사람이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화를 내는 것과 같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는 것을 일종의 감정 표현으로 잘못 생각한다. 이번 교제를 통해 나는 너희 모두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 오해하거나 상상하거나 추측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있는 진노에 대해 진정한 확신이 생기고,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내려놓고 하나님 진노의 본질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견해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너희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 더 이상 그 어떤 의심도 품지 않으며, 하나님의 참된 성품에 대해 인위적으로 추리하거나 상상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하나님 자신의 참된 본질이지 사람이 만들거나 지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피조물과 그 어떤 관계도 관련도 없다. 하나님 자신은 곧 하나님 자신으로, 영원히 피조물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피조물의 일원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유의 성품과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은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분석하는 것도 아니며, 어느 사람을 파악하는 것도 아니다. 사물을 인지하거나 사람을 알아 가는 관점 혹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 간다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체험이나 상상에 따르면 안 된다. 따라서 자신의 체험과 상상을 하나님께 덧붙여서는 절대 안 된다. 너의 경험과 상상력이 아무리 풍부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한된 것이다. 더구나 너의 상상은 사실에도, 진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참된 성품과 본질에 전혀 맞지 않는다. 너의 상상력으로는 영원히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후에 천천히 체험하고 천천히 알아 가는 것이다. 너의 협력과 진리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네게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이해하도록 깨우쳐 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12)

니느웨 사람들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인 요나 3 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사십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말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직접 일러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한 말씀으로, 여호와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씀이다. 이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혐오와 증오로 말미암아 성을 멸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성을 멸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40 일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40 일 안에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소돔 성처럼 멸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안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이는 분명 단순한 선포가 아니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태도를 전달한 것이었고 또한 성안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이었다. 이 경고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증오했음을 알려 주었다. 또한 그들의 악행이 큰 재난을 불러올 것이므로 성안 사람들의 목숨도 위태롭다는 것을 알려 준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대함에 있어 소돔 성 사람들과 전혀 달랐던 니느웨 사람들의 태도

여기서 ‘무너지리라’는 무슨 의미이냐? 사라진다는 뜻이다. 왜 사라질까? 누가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나? 물론 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어리석지 않았기에 듣자마자 그 말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의 악독이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그들은 성과 함께 멸해질 것임을 알아차렸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후 어떻게 하였느냐? 왕부터 백성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다음과 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 대소하고 굶은 베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굶은 베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찌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굶은 베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은 소돔 성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소돔 성 사람들은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대항하여 악에 악을 더했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 선포를 들은 후 외면하거나 대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신복*하고 금식을 선포하였다. 여기서 ‘신복’이란 무슨 의미이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믿고 순종한다는 뜻이다. 니느웨 사람들의 실제 행동에 따라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곧 그렇게 할 것임을 믿고 기꺼이 회개하겠다는 뜻이다. 곧 닥쳐올 재앙을 앞두고 니느웨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느냐? 그들은 신복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렇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신복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성경에 따르면,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 대소하고 굶은 베를 입은지라”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니느웨 사람들이 참으로 신복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들은 신복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굶은 베를 입었다. 이는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소돔 성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점은 대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를 표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니느웨의 백성뿐만 아니라 왕도 그렇게 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니느웨 왕의 회개

소식을 들은 니느웨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굶은 베를 입은 후 재에 앉았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소나 양 같은 가축에게도 풀이나 물을 먹이지 말고,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두 굶은 베를 입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선포하였다. 니느웨 왕이 행한 일련의 일들을

살펴보면 그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회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보좌에서 일어난 후 왕의 의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았다. 이 일련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니스웨의 왕이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일반 백성처럼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을 알려 준다. 다시 말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를 들은 후, 왕위에 있을 때 행했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 권력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것이다. 이때 니스웨 왕은 왕의 신분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였다. 또한 그는 성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지시하였다. 예를 들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찌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라고 하였다. 그는 니스웨 성의 왕으로서 최고 지위와 권세를 갖고 있으므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를 무시하거나 홀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데에 그칠 수도 있었으며, 니스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보좌에서 내려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으며, 성안의 사람들과 가족들 또한 그렇게 하도록 명령했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명하였다. 니스웨 왕의 이러한 행동은 왕으로서 진정으로 행해야 할 행동이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왕도 하기 어렵고 하지 못했던 행동이자, 역사상 유례없는 위대한 행동으로, 기념하고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인류 역사에서 왕들은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게 하였지,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행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 사함을 받고 징벌을 피하게 한 자는 없었다. 하지만 니스웨 왕은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마음을 되돌리게 하였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도록 하였으며 왕위를 내려놓았다. 이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은 뜻을 바꾸고 진노를 거두어 성안의 사람들을 멸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니스웨 왕의 행동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기 드문 기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패괴된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13)

“여호와와의 말씀이 두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스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스웨로 가니라 니스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삼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사십일이 지나면 니스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스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 대소하고 굵은 베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스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찌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굶은 베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은 3 장)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참된 회개를 보았다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포를 들은 후 일련의 일을 했다. 그들의 행동과 그들이 그런 일을 한 성격은 무엇이나? 즉, 그들이 한 모든 행동의 본질은 무엇이나? 그들은 왜 그렇게 하였을까? 하나님의 안중에 그들은 참으로 회개하였다.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며 죄를 자백하였고 또한 모든 악행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큰 두려움을 느꼈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는 것으로 자신을 돌이키고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표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과 내리려 했던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이전에 행했던 악을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이 왜 멸망되어야 하는지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완전히 떠나려고 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를 알게 된 후 그들은 다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더 이상 악을 저지르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증오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들의 지난날의 죄악을 용서하고 그들의 과거로 그들을 대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였다. 또한 그들은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자 했으며,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않기만을 바랐다. 그들의 회개는 참되고 철저한 것이었으며, 가식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닌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소식을 들은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취한 모든 행동과 태도, 그리고 그들의 결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눈에 아주 분명하게 보였다. 하나님은 그들이 보인 행동에 따라 마음이 바뀌었다. 이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느냐?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되돌렸지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복잡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고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 모두의 마음을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참된 회개를 하고 죄를 자백하고 있고, 마음 깊은 곳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복이

있으며, 그들이 자신들의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렀음을 뱃속 깊이 느끼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릴 처벌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재앙을 면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진노를 거두어 달라는 절절한 간청도 들었다. 하나님은 모든 사실을 살핀 후 조금씩 진노를 거두었다. 전에 얼마나 크게 노했든 간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참된 회개를 보고 감동받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고, 더 이상 노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그들에게 긍휼과 관용을 베풀었고 인도하고 공급해 주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14)

“여호와와 말씀이 두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삼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사십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 대소하고 굶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굶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찌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굶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욥 3 장)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복이 있으면 너는 늘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대한 마음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말의 망설임도, 모호함도 없었고, 순수한 진노에서 순수한 관용에 이르렀다. 여기서 하나님의 본질이 참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은 사역에 있어 단 한 번도 우유부단한 적이 없다. 그의 사역 원칙과 목적은 흠 없이 순결하고 투명하며, 여기에는 절대 그 어떤 계략과 음모도 섞여 있지 않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본질에는 어둠과 사악함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노한 것은 그들의 악행이 하나님 안중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고 그들에게 다시 관용을 베풀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낸 것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로 인해 바뀐 것이다. 그 기간에 하나님의 거스를 수 없는 성품은 변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본질도 바뀌지 않았다. 사람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노하지만,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되돌려 진노를 거둔다. 그러나 사람이 완고하게 하나님께 계속 대항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멸할 때까지 노를 멈추지 않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조금씩 사람에게 가까워진다. 이 또한 하나님 성품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나타내는 성품이 진노든, 긍휼과 자비이든 모두 사람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난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기인한다. 만약 하나님이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노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하거나 하나님께 ‘머리를 숙인’ 적이 없고 진심으로 신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을 얻지 못했던 것이다. 만약 누군가 항상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신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한 적이 없을 것이다. 늘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늘 임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간단한 성경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본질의 참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과 마음을 되돌리는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진노할 때와 마음을 되돌릴 때 극명한 대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관용, 두 측면의 본질에 차이와 대비가 크다고 느꼈다. 하지만 니스웨 성 사람들의 회개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서 사람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참된 성품의 다른 면을 느낄 수 있었다. 인류는 하나님이 마음을 되돌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진실성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으며, 진실하게 발현된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있었다. 인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전설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진실했고, 마음을 되돌린 것도 진실했으며, 하나님이 확실히 또 한 번 인류에게 긍휼과 관용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15)

“여호와와 말씀이 두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스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스웨로 가니라 니스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삼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사십일이 지나면 니스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스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 대소하고 굶은 베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스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굶은 베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스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찌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굶은 베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은 3 장)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결말을 바꾼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이 마음을 되돌리는 것과 진노하는 것에 모순이 있느냐? 당연히 없다! 하나님이 관용을 베풀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성경에 언급한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다’와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다’이다.

‘악한 길’은 한두 가지의 악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행한 일의 근원이 사악함을 의미한다. ‘악한 길에서 떠나다’는 더 이상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악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하는 방식, 근원, 출발점, 속셈, 원칙 모두를 바꾸어 더 이상 그런 방식과 원칙으로 향유하거나 즐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다’의 ‘떠나다’는 내려놓고 버림으로 과거를 완전히 끊어 내고 다시는 지난 길을 걷지 않는다는 뜻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난 것은 참된 회개를 했음을 증명하고 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과 내면을 모두 관찰한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으로 참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살펴보고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제서야 마음을 되돌렸다. 즉, 사람의 행동과 태도, 다양한 모습과 마음에 진실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고, 뜻을 바꾸고, 내린 결정을 거두고, 그들을 벌하지 않고, 멸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의 결말이 바뀌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되찾았고,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을 얻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었다.

언기 힘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이 아닌 사람의 참된 회개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든 간에,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굶은 배움을 입고 재 위에 앉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점차 누그러져 뜻을 되돌리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을 멸할 것이라 선포하기 바로 직전, 즉 그들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 직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점차 관용과 긍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두 성품이 하나의 일에서 동시에 나타났는데, 이는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여기서 모순되지 않음을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해야 하느냐? 완전히 다른 두 본질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전과 후에 하나님에게서 나타난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고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는 본질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어렵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노할 때 하나님은 사람이 진실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람의 참된 회개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낌없는 긍휼과 관용을 베풀 것이다. 사람의 악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는 자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니스웨 사람들을 대한 일에서 하나님의 태도는 아주 명확하다. 즉,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의 참된 회개를 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마음을 되돌리고 사람에게 대한 태도를 바꾼다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16)

생생하게 나타나는 창조주의 공의로운 성품

하나님이 니스웨 사람들에게 마음을 되돌렸을 때, 그가 베푸는 긍휼과 관용이 거짓이었겠느냐? 물론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너는 하나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두 측면의 성품이 전환되어 나타난 것을 보며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은 분리되지 않고 완전하다. 그가 사람에게 진노하든, 긍휼과 관용을 베푸든 모두 그의 공의로운 성품의 발현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생생하게 나타나며, 그는 일이 진행되는 상태에 따라 마음과 태도를 바꾼다. 니스웨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 변화는 그가 로봇이나 돌부처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음을 인류에게 말해 준다. 그는 살아 숨 쉬는 하나님 자신으로, 니스웨 사람들에게 진노할 수도 있고, 그들의 태도 변화에 따라 그들의 과거를 용서할 수도 있으며,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그들의 회개로 그 결정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 준 것이다. 사람은 규례에 끼워 맞추기를 좋아하고, 규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정의하기를 좋아하며, 공식(公式)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 가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할 줄 모르고 실질적인 견해도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물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며, 그와 동시에 서로 다른 측면의 하나님 본질이 드러난다. 바뀌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되돌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인류에게 그의 생명이 확실히 존재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생생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진실로 드러냄으로써 인류에게 그의 진노와 긍휼과 자비 그리고 관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물의 발전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드러날 수 있다. 그에게는 수사자 같은 진노도 있고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긍휼과 관용도 있다. 그의 공의로운 성품은 그 누군가 의심하거나 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누군가 바꾸거나 곡해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즉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은 만사와 만물 가운데서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 만물의 구석구석에서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고, 모든 순간순간에 생생하게 시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시간이나 공간에 국한되어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발현되고 나타난다. 하나님이 마음을 되돌려 진노를 거두고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직 긍휼이요 자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빈말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긍휼을 거두고 크게 진노할 때, 하나님에게 인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악행으로 인해 크게 진노한다. 그의 진노에는 흠이 없다. 또 하나님은 사람의 회개로 감동받고 사람의 회개로 마음을 돌이킨다. 그의 감동과 돌이킴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용과 긍휼은 어떤 흠도 없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하며 아무 불순물도 섞여 있지 않다. 하나님의 관용은 곧 관용이고, 긍휼은 곧 긍휼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회개와 다양한 태도에 따라 진노를 드러내기도 하고 긍휼과 관용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드러냈든 그것은 모두 순결하고 직접적이며 어떤 피조물의 본질과도 다르다. 하나님이 나타내는 사역의 원칙, 마음과 생각 혹은 하나님이 내린 어떤 결정이나 하나님의 그 어떤 행동에서도 흠이나 오점은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은 결정한 이상 그렇게 행하며, 그렇게 이룬다. 그 결과는 한 치의 틀림도 없이 정확하다. 그 근원에 흠도 오점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어떤 흠도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 역시 피조물이 갖추지 못한 것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어떤 연구와 검증(원문: 推敲與體驗)도 통과할 수 있다.

너희는 니느웨 성 이야기를 알게 된 후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서 다른 측면의 본질을 보게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공의로운 성품의 다른 측면을 보게 되지 않았느냐? 인류 중에 이러한 성품을 갖춘 사람이 있더냐?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지닌 사람이 있더냐? 하나님의 이런 긍휼과 관용을 가진 사람이 있더냐? 피조물 중에 크게 진노하여 인류를 멸하기로 결정하거나 인류에게 재앙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있더냐? 또 인류에게 긍휼과 관용을 베풀고 죄를 사해 줌으로써 인류를 멸하겠다는 결정을 바꿀 자격이 있는 자가 있더냐? 창조주는 자신의 고유한 방식과 원칙으로 그의 공의로운 성품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어떤 사람과 일, 사물에도 좌지우지되거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의 고유한 성품으로 볼 때 그 어떤 사람도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없고, 그를 설득하거나 그가 내린 결단을 바꾸지 못한다. 피조물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심판받는다. 그가 진노하든, 긍휼을 베풀든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오로지 창조주의 본질, 즉 창조주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유일무이한 공의로운 성품이다!

너희는 니느웨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달라진 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일무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중 긍휼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공의로운 성품 중 한 측면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이 두 가지 측면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라 정의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거룩한 것으로, 사람의 거스름도, 누구의 의심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는 피조물과 비피조물 모두에게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성품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하며 사람이 거스를 수 없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다른 측면인 긍휼도 거룩하며, 사람이 거스를 수 없다. 그 어떤 피조물도, 비피조물도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대표하여 하나님이 하려는 사역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대표하여 소돔을 멸하거나 니느웨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공의로운 성품의 참된 발현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17)

인류에 대한 창조주의 진심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행사를 나타내어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류와의 대화를 멈춘 적이 없고, 인류를 피해 숨거나 감춘 적도 없으며, 그의 마음과 생각, 말씀과 행사를 인류에게 다 공개하였다. 그러므로 인류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기만 한다면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 가고 이해할 수 있다. 인류는 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인류를 피하고 숨는다고, 사람이 그를 알아 가고 이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여긴다. 하지만 그것은 인류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으며, 더욱이 창조주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행했는지 등등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틈날 때만이라도 창조주의 말씀이나 행사에 관심을 두고 알려고 하고, 창조주의 생각과 마음의 소리에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인다면, 창조주의 모든 생각과 말씀과 행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창조주가 항상 인류와 함께 있고, 만물, 그리고 인류와 대화하고 있으며, 매일같이 새로운 행사를 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의 본질과 성품은 인류와의 대화에서 나타나고, 그의 마음과 생각은 그의 행사에서 남김없이 드러난다. 그는 언제나 인류와 함께하며 인류를 관찰하고, 소리 없는 언어로 조용히 만물과 인류에게 알려 준다. ‘나는 하늘 위에 있다. 나는 만물 가운데 있다. 나는 수호하고 있다.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나는 바로 네 곁에 있다.’ 그의 두 손은 따뜻하고 힘이 있으며, 그의 발걸음은 가볍다. 그의 음성은 감미로우며, 그의 그림자는 끊임없이 사람의 주변을 맴돈다. 그의 얼굴은 아름답고 온화하다. 그는 떠난 적도 사라진 적도 없으며, 줄곧 그림자처럼 인류와 함께하였다. 인류를 살뜰히 보살피는 정성과 인류에 대한 특별한 ‘감정’, 그리고 진실한 염려와 사랑은 그가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드러났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은 요나와의 대화에서 창조주가 손수 만든 인류에 대한 연민의 정을 오롯이 드러냈다. 여기에서 너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요나 4 장 10 절에서 11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 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 이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원래 말씀으로, 요나와의 대화이다. 이 대화는 짧고 간결하지만, 인류를 아끼고 염려하는 창조주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한 진실한 태도와 감정을 나타냈고, 또한 인류가 들어 보기 어려운, 명확한 언어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을 표현했다. 이 대화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 준다. 어떤 태도겠느냐? 회개하기 전후의 니느웨 성 사람들에 대한 태도이다. 이는 하나님이 인류를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도 있다.

이 대화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느냐?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끼다’라는 단어로 인류에 대한 그의 진실한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아끼다’라는 단어를 글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다. 첫째, 거기에는 보살피고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몹시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너무 아껴서 차마 상처를 줄 수 없다는 의미가 있다. 한마디로 이 단어는 몹시 사랑하고 어여뻐 여기며 내치지 못한다는 뜻을 지닌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긍휼히 여기고 인류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대화에서 그의 마음의 소리와 인류에 대한 태도를 남김없이 보여 주었다.

니느웨 성 사람들도 소돔 성 사람들처럼 패괴되고 사악하고 아주 폭력적이었지만, 회개했기에 하나님은 마음을 되돌려 그들을 멸하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대하는 태도는 소돔 성 사람들과 확연히 달랐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순종하고 회개하였고, 여러 면에서 진실하고 간절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아끼는 마음이 우러났고, 그들에게 상응하는 보답을 해 주게 되었다.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인류에게 보답을 해 주고 인류를 아낄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긍휼과 관용, 그리고 인류에 대한 진심을 지닐 수 없다. 네가 생각하는 위인이나 초인 중에 높은 위치, 즉 위인의 입장이나 지고한 위치에 서서 인류나 피조물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인류 중에 누가 인류의 생존 현황을 제 손금 보듯 환히 알 수 있겠느냐? 누가 인류의 생존에 부담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겠느냐? 누가 성을 멸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겠느냐? 또 누가 성의 죄를 사할 자격이 있겠느냐? 누가 자신이 창조한 만물을 아낀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오직 창조주밖에 없다! 창조주만이 이 인류를 어여뻐 여기고, 이 인류를 사랑하며, 이 인류를 내치지 못하는 참된 마음을 갖고 있다. 또 오직 창조주만이 이 인류를 긍휼히 여기며 모든 피조물을 아낀다. 그의 마음은 인류의 일거수일투족에 이끌린다. 그는 인류의 사악하고 패괴된 모습에 분노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인류가 회개하고 신복하는 모습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을 되돌리고 축하한다. 그의 모든 마음과 생각은 인류를 위해 생기고 움직이며, 그의 소유와 어떠한도 인류를 위해 발현된다. 또한 그의 회로애락은 인류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인류를 위해 바빠 움직이고, 인류를 위해 묵묵히 자신의 생명을 전부 희생하며, 인류를 위해 생명의 매분 매초를

기여한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아낄 줄 몰랐지만 자신이 손수 창조한 인류는 늘 아껴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인류에게 주었다.... 그가 조건도 보상도 없이 공훈과 관용을 베푸는 것은 오로지 인류가 그의 눈 아래에서, 그의 생명의 공급 아래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언젠가 인류가 다시 그의 앞에 돌아와 그가 바로 인류에게 생존을 위한 자양분을 공급하고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분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18)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 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던대요 요나가 박 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 넝쿨을 썩게 하시매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쬔대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 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찌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 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 이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욥 4 장)

인류에 대한 창조주의 참된 고백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와 나눈 이 대화는 인류에 대한 창조주의 참된 고백임이 틀림없다. 이는 창조주가 자신이 주재하는 만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 말씀과 같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 이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이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안에 살아 있는 것(사람과 가축까지)이 얼마나 있는지, 아이나 미성년자, 즉 좌우를 분변 못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 손금 보듯 훤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다음으로 인류에 대한 창조주의 태도, 즉 창조주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인류의 무게를 사람에게 알려 준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 말씀과 같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 념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는 말씀이지만 모두 사실이다.

요나가 명을 받들고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긴 했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성안 사람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염려와 기대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요나를 질책함으로써 그에게 알려 주려는 것이 있었다. 즉, 인류는 하나님이 손수 만든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심혈을 기울였고, 모든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있으며, 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공급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이 기울인 심혈로 그 모든 사람을 바꾸어 왔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가 박 념쿨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손수 만든 인류를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더군다나 그 성안에는 수많은 아이와 무고한 가족이 있었으니 말이다.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철없는 나이대인 창조된 인류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끝내거나, 그들의 결말을 그렇게 쉽게 정할 리가 없다. 하나님은 그들이 성장하여 다시는 조상들이 갔던 길을 답습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으며, 니느웨 성의 과거를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랐다. 또한 하나님은 회개한 후의 니느웨와 니느웨의 미래를 보고, 다시 하나님의 공훈 아래에서 사는 니느웨를 볼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창조된 인류가 곧 니느웨의 미래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언급하기 싫은 니느웨 성의 과거를 짚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있는 니느웨 성의 과거와 미래를 증언하는 중차대한 일을 책임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참된 고백에서 인류를 공훈히 여기는 창조주의 마음을 완전히 볼 수 있다. 이는 인류에게 ‘창조주의 공훈’이 알맹이 없는 단어나 헛된 약속이 아니라 여기에는 구체적인 원칙과 방식, 목표가 있다는 것과 그는 거짓이나 가식이 없고 진실하고 참되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그는 모든 시기와 시대에 끊임없이 인류에게 공훈을 베풀어 주었다. 하지만 요나와의 대화는 창조주가 왜 인류를 공훈히 여기는지, 어떻게 공훈히 여기는지,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관용과 진심을 베풀었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창조주가 언어로 표현한 유일한 내용인 것이다. 이 짧은 대화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표현한 것이고, 인류를 향한 자신의 태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이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공훈을 많이 베풀었다는 구체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인류의 선조에게 공훈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예전과 같이 오늘날의 후손에게도 한 세대 또 한 세대 공훈을 베풀고 있다. 비록 하나님의 진노가 종종 인류의 어떤 구석, 어떤 시대에 임했다라도 하나님은 공훈을 멈춘 적이 없다. 그는 자신의 공훈로 창조된 인류를 한 세대 또 한 세대 이끌고 인도하며 그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인류에 대한 그의 참된 마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한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는 말씀처럼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손수 만든 만물을 아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공의로운 성품에 있는 공홀이다. 이것 또한 틀림없는 창조주의 유일무이함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19)

다섯 부류의 사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한 사람의 인식과 체험에 기반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분류하겠다. 이를 통해 너희에게 지금 자신이 처한 단계와 분량을 알게 하려 한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한 깨달음을 놓고 볼 때, 사람이 처한 단계와 각 단계의 분량을 대략 다섯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 주제는 유일무이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아는 것에 기반하여 제시된 주제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음의 내용을 읽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유일무이함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너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너희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너희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가늠해 보아야 한다.

첫 부류, 강보에 싸인 아기 단계

무엇을 강보에 싸인 아기라고 하느냐? 강보에 싸인 아기는 바로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신생아를 가리키는데, 이는 사람이 가장 어릴 때를 가리킨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일에 관해 인식이나 지각이 거의 없고, 모든 것에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하나님을 믿은 시간이 길 수도 짧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모호하고 불명확한 상태와 실제 분량으로 그들은 강보에 싸인 아기 단계로 결정된다. 강보에 싸인 아기 단계에 처한 사람의 상태를 정확히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믿은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시종일관 어리둥절하고, 흐리멍덩하며, 무지몽매하여 왜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며, 누가 하나님인지 모른다. 하나님을 따르긴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고, 자신이 따르는 분이 하나님인지 분명히 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확신이 없다. 이것이 바로 이 부류 사람들의 실상이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혼탁하다. 결론적으로 말해 흐리멍덩하게 믿는 것이다. 그들은 항상 혼탁하고 텅 빈 상태에 있으며, 어리둥절하고, 흐리멍덩하며, 무지몽매하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본 적도, 느껴 본 적도 없다.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면 마치 무자천서(無字天書)를 읽듯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전설을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혼탁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이 쓸데없는 헛수고라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류인 강보에 싸인 아기 단계에 사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부류, 젖 먹는 아기 단계

이 단계의 사람들은 강보에 싸인 아기 단계에 비해 조금의 발전은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나 깨달음이 없으며,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분명한 생각과 속셈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든 옳지 않든,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과 기쁨이 있고, 윤택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고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많은 축복을 받기를 바라며, 금생에 백배를 얻고 다음 생에 영생을 얻기를 바랄 뿐이다. 그들이 생각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치르고 고생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며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만 확신한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구원하는지, 하나님이 말씀과 사역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 또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알기 위해 노력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으며 상관하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관해 물어보려 하지 않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으며 그 외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들은 진리의 실제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을 자주 양육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믿는 길을 가기가 매우 어렵다. 만약 예전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은 매우 쉽게 떠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류로, 젖 먹는 아기 단계에 사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부류, 젖을 뗀 아기 단계, 즉 유아 단계

이 단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뚜렷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자신에게 참된 체험이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평안과 기쁨을 추구하고 은혜받는 것에 몰두하거나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체험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베푸는 축복을 찬양하며 간증한다 해도 그것이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진리의 실체가 있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야만 한다는 지나친 욕망을 품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 하고,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고자 하며, 기꺼이 고생하고 수고하며 또 하나님과 협력하길 원한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추구함에는 불순물이 지나치게 많다. 자신의 속셈과 욕망이 너무 크고 성품이 너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기 어렵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도 정말 쉽지 않다. 그러므로 항상 그들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께 한 맹세도 지킬 수 없다. 그들은 늘 최대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강력하게 대항하는 모순적인 상태에 있다. 그들은 늘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또 금방 자신의 맹세를 반복하는 모순적인 상태에 있다. 그들은 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게서 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모순적인 상태에 있다. 하나님의 깨우침, 인도, 공급, 도움을 간절히 바라지만 또 스스로 활로를 찾는 모순적인 상태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피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닫혀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 글자 그대로 어느 정도의 얕은 이해와 체험이 있고,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얕은 개념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이 진리인지에 대한 확신이나 확정이 없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인지 확신하지도 못한다. 또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의 진실성을 확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된 존재에 대해서는 더욱 확정하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는 늘 의심과 오해, 상상과 관념이 섞여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마지못해 그들이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진리를 조금씩 체험하거나 실행한다. 이로써 그들은 믿음을 충족시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는 경험을 풍부하게 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자신이 확립한 인생의 길을 걷고, 인류의 정의로운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허영심을 만족시키며, 동시에 복을 받으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인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에게 도박을 걸며,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그만두지 않는다’는 원대한 포부와 평생의 염원을 이루고자 한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들에게는 욕망과 복을 얻으려는 속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내려놓기를 꺼리고 아까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복을 받으려는 욕망과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그만두지 않는다’는 숙원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믿는 원동력을 잃게 될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마주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직시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더더욱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그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그들의 상상을 대체하게 되는 순간, 그들의 꿈이 깨지기 때문이다. 또한 소위 순수하고 올바른 신앙과 오랜 시간 고생하면서 쌓은 ‘공덕’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물거품이 되고, 그들이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쌓은 ‘강산’이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오랫동안 고생하고 대가를 치렀던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들이 0 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들에게 심적으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자 가장 맞이하고 싶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그들은 계속해서 대립하고 뉘우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부류로, 젖을 떼는 아기 단계에 사는 사람들이다.

앞서 언급한 세 부류의 사람들, 즉 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공의로운 성품을 참되게 믿지 못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정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이 세 단계의 사람들은 진리의 실체에 진입하기 무척 어렵고, 하나님의 공활을

얻기도 어려우며, 하나님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얻기도 쉽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방법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의심, 오해, 상상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식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몹시 위험한 세 부류이자 몹시 위험한 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신분, 또 하나님이 진리인지, 하나님이 진실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때, 하나님에게서 온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진리, 길,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인도와 공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세 단계에 처한 사람들은 언제든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다. 언제든 하나님을 판단하고 모독하며 배신할 수 있고, 또한 참도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다. 이 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위험한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부류, 유아의 성장 단계, 즉 유년 단계

사람은 젖을 떼 후, 다시 말해 충분히 은혜를 누린 후 하나님을 믿는 의미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한다. 사람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역하려 하는지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알고 싶어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긴 후, 사람들은 이 의문들을 가진 상태에서 끊임없이 양육을 받으며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참된 존재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의미도 정확히 깨닫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해서도 점차 어느 정도 답을 찾게 된다. 이 시기의 사람은 성품의 변화이든 하나님을 알아 가는 측면에서든 모두 정상 궤도에 들어서기 시작하고 전환점에 들어서게 된다. 이때부터 사람은 비로소 생명이 생기기 시작한다. 생명이 생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갖는 오해, 상상, 관념, 그리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정의하는 것 등의 하나님을 알아 가는 부분과 관련 있는 문제들이 점차 해결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존재를 진정으로 믿고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하나님의 지위를 확정하게 되며, 하나님을 진실로 따름으로써 막연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추구했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된다.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질, 징계를 사모하며, 성품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또한 이 시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관념과 상상을 점차 내려놓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에 대해 순수하고 올바른 기본 인식을 어느 정도 갖게 된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 부분은 아직도 그리 구체적이거나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최소한 자신의 관념, 잘못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점차 내려놓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상상을

더 이상 고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은 포기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관념의 것, 지식적인 것, 사탄에게서 온 것을 버리기 시작하고, 옳고 긍정적인 것에 순종하려고 한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과 진리에 맞는 것에 순종하길 원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천해 보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행동 원칙으로 하고, 성품이 변화하는 근거로 삼는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생명이 되도록 한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마음속으로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는 분임을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의 체험과 삶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사람의 운명을 주재하고 있고, 사람을 인도하고 있고, 사람에게 공급하고 있음을 점차 깨닫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귄 속에서 점차 하나님의 존재를 실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잠재의식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인정하게 될 때,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된다. 자신의 관념과 지식, 자신의 상상을 부인하게 되고 또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해서 구하게 된다. 이 성장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매우 얕고, 심지어 자신의 언어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며, 감성적인 깨달음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세 단계와 달리, 이 단계 사람들의 어린 생명은 양육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이미 싹트기 시작했다. 땅에 심어진 씨앗 하나가 물과 양분의 공급을 받은 후 땅을 뚫고 나오는 것과 같이, 싹이 텄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음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사람들은 생명의 조짐을 알 수 있다. 사람에게 생명이 생기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발을 내디디고 자신의 관념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이를 기초로 사람의 생명은 필연적으로 점차 성장한다. 이 성장은 무엇을 근거로 가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한 참된 체험으로 가늠할 수 있다. 이 성장 시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정말 어렵다. 하지만 주관적으로 더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목표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성장 단계에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분명하게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속으로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해의 깊이가 얕아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함에 있어 이 단계의 사람들은 구체적인 관점이 있다. 이는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식이 바뀌는 것에서 나타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그리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요구와 폭로를 통해 만약 사람이 더 이상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실제에 진입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족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누린다 해도 성품이 변화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족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만약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면 사람은 영원히 성장할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실한 체험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영원히 아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명이 성장하는 단계로 발을 내딛지 못할 것이다. 네가 영원히 아기 단계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하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을 생명이 되도록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믿음과 인식이 없다면, 네가 하나님께 온전케 될 희망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생명이 되도록 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사람, 패괴 성품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염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려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들이야말로 진정 네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 유아의 성장 단계, 즉 유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다섯 번째 부류, 생명의 성장 단계인 성년 단계

비틀거리며 부딪치고 넘어지는 유년 단계를 겪고 반복해서 성장하는 단계를 지나 사람의 생명은 안정화된다. 더 이상 전진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앞길은 여전히 험난하지만 더 이상 연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더 이상 모색할 필요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방향을 잃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는 과정에서 기반이 단단해졌고, 마음은 하나님의 존귀함과 위대함에 이끌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자 간절히 바란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 자신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자신이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한 말씀이 모두 진리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이들은 오랜 시간 체험을 통해 만약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없다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 단계의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시련이 임하길 간절히 바란다.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고, 더 순결하게 사랑할 수 있길 바라며, 동시에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단계의 사람은 이미 아기 단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떡으로 배를 불리는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들은 더는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을 지나치게 바라지 않고, 오히려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을 만족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끊임없이 임하길 바라고 또 받아들일

자신감도 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나 추구 혹은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그들은 마음속으로 모두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막연한 신앙 단계, 은혜로 구원 얻는 단계, 생명이 어려서 시련을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서 벗어났고, 모호한 단계, 모색하는 단계, 늘 행할 방법이 없는 단계를 떠났으며, 변덕스러운 불안정기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단계와 결별하였다. 이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깨우침과 빛 비춤이 있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귄과 소통이 있다. 이 단계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일할 때 진리의 원칙을 찾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지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 가는 길을 찾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점차 성장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 인류를 창조한 하나님의 뜻, 인류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점차 깨닫고 알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깨닫고 알게 되는데, 이는 사람의 그 어떤 관념이나 상상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다섯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완전히 성숙하였다고 말할 수 없고, 의인이라 부를 수 없으며, 완전한 사람이라 칭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이들은 생명이 성숙한 단계로 이미 들어섰고, 하나님 앞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체험하였고, 무수한 시련을 겪었으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형벌도 셀 수 없이 겪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순종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잠재의식에서 정확하고 뚜렷한 인식으로, 얕은 인식에서 깊은 인식으로, 모호한 인식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인식으로 바뀌었으며, 또한 힘들게 모색하고 수동적으로 구하던 데서 쉽게 깨닫고 자발적으로 증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실재를 갖추었고, 베드로처럼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다섯 번째 부류의 사람으로, 생명이 성장하는 삶을 사는 단계, 성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2> 중에서

하나님 알아가기[4]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20)

거시적 · 미시적 차원에서 알아보는 하나님의 권병

하나님의 권병은 유일무이한 것으로, 하나님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고유의 발현이자, 하나님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특정 본질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 이 고유의 발현과 특정 본질은 피조물과 비피조물에게는 없는 것이며, 오직 창조주만이 이런 권병을 가지고 있다. 즉, 창조주, 유일무이한 하나님만이 이러한 발현과 본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권병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 자신의 권병은 사람이 생각하는 권병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이를 언급하는 데는 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 모두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들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권병’이란 주제에 대해 항상 막연하게 느낄 것이다. 알아보려고 해도 쉽지 않고 언급되는 내용들도 다소 공허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병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하나님 권병의 본질과 늘 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사람이 실생활에서 느끼거나 경험할 수 있는 사람과 사물, 일이나 여러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권병에 대해 조금씩 깨닫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권병’이란 말이 사람에게 심오하게 느껴지겠지만 이는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병은 인류와 매 순간을 함께하며 매일매일 인류를 이끌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실생활에서 하나님 권병의 가장 실제적인 면을 보거나 느낄 수 있다. 이 가장 실제적인 면은 하나님의 권병이 실제로 존재함을 족히 증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권병을 가지고 있음을 사람이 충분히 인식하고 깨닫게 해 준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였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했고 또 만유를 주재하고 있다. 하나님은 만유를 주재하면서 동시에 만유를 다스린다.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현실에 비추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린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하나님의 권병에 대해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린다’는 말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일부 행성, 피조물, 인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거시적인 것부터 미시적인 것까지,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부터 볼 수 없는 것까지, 우주의 각종 행성부터 지구상의 모든 생물까지,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생명체 모두를 다스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린다’에서 ‘만유’가 뜻하는 정확한 의미이자 하나님의 권병이 미치는 범위이고, 하나님이 주재하고 관리하는 범위이다.

우주의 천체는 인류보다 먼저 생겨났다. 우주의 천체가 언제부터 존재했든 간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어떤

행성이 언제 어떤 위치로 이동하는지, 어떤 행성이 언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어떤 행성이 어떤 궤도에서 운행하는지, 언제 소멸하고 또는 교체되는지, 이 모든 것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된다. 이 행성들의 위치와 행성 간의 거리에는 엄격한 법칙과 정확한 수치가 있다. 운행 궤도, 운행 속도, 운행 법칙, 언제 어떤 위치까지 운행하는지에 대해서도 특정한 법칙과 정확한 수치가 있다. 행성들은 천만년 동안 그러한 법칙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해 왔다. 그 어떤 힘도 그 운행 궤도와 법칙을 변경하거나 파괴할 수 없었다. 정확한 수치와 특정한 운행 법칙들은 모두 창조주의 권병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행성은 자발적으로 창조주의 주재와 다스림을 받으며 그에 따라 규칙적으로 운행한다. 인류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일부 법칙과 수치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고,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일부 신기한 법칙이나 현상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인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가 만물을 창조했고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조주의 권병의 존재는 더더욱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류의 과학자,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은 알 수 없는 엄청난 암흑에너지가 만물의 생존과 운행의 법칙을 주재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존재하기에, 인류는 만물의 운행 법칙에는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한 ‘능력자’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는 항상 모든 것을 주재하고 다스린다. 그의 주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나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인류는 사람이 만물의 생존 법칙을 좌지우지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이 법칙을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법칙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으며,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닌 어느 주재자가 다스리는 법칙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모두 인류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병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구에서 사람이 볼 수 있는 산과 하천, 호수, 바다, 육지와 사람이 겪는 사계절, 각종 동식물, 미생물, 인류,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지구상의 만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주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관과 주재로 만물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생성 또는 소멸하고, 하나님의 주관과 주재로 생존의 법칙이 만들어져 만물은 이 법칙에 따라 번성한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권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란 게 그 유일한 답이다. “하나님의 권병으로 인한 것이다”란 말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혹은 ‘하나님이 친히 한 행사로 인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즉, 만물의 법칙은 하나님의 권병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에 따라 생겨난다. 또한, 만물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한다. 그 모든 움직임과 변화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생성 또는 소멸한다. 일례로 전염병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아무도 그것의 발원지와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한다. 또한, 전염병이 이르는 곳마다 불운을 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인류가 가진 과학 지식의 관점에서 보면 ‘전염병’은 악성 혹은 유해 미생물이 만연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그 전염 속도와 범위, 전염 방식은 인류의 과학 지식으로 예상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 인류가 각종 전염병을 막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는 있으나,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병에 걸리고야 마는 사람이나 동물을, 인류는 통제할 수 없다.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예방과 억제, 연구뿐이다. 그러나 아무도 매번 전염병 자체가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근원을 알지 못하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염병이 발생되고 확산되는 상황에서 인류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백신 개발이다. 그런데 인간이 백신을 개발하기도 전에 전염병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세균을 억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절이 바뀌면서 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할 수도, 정확한 해답을 제시할 수도 없다. 인류는 이러한 황당한 가설뿐만 아니라 전염병에 대한 물이해와 공포와도 마주해야 한다. 그 누구도 전염병의 근원과 그것이 소멸된 이유를 알지 못한다. 이는 인류가 과학만을 신뢰하고 의존한 탓에 창조주의 권병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주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류는 영원히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다.

만물은 하나님의 주재하에서 하나님의 권병으로 말미암아 생성되고 소멸하며,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 생성되고 소멸한다. 어떤 것들은 조용히 왔다 조용히 사라진다. 인류는 그 기원을 보지 못하며, 그 법칙 또한 파악할 수 없고, 생성되었다 소멸한 이유는 더더욱 알지 못한다. 사람은 만물에 발생한 모든 현상을 직접 보거나, 듣거나, 느낄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은 인류와 관련이 있다. 또한, 인류는 온갖 현상의 특이함과 법칙, 심지어 이상하게 느껴지는 점까지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만물에 발생한 현상 이면에 창조주의 어떤 뜻과 생각이 담겨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한 현상 이면에는 많은 이야기와 진실이 숨겨져 있다. 인류는 창조주를 멀리하고 그의 권병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인류는 창조주 권병의 주재하에서 발생한 모든 현상을 영원히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재는 사람의 상상과 지식, 그리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능가하고, 사람의 과학 지식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창조된 인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다. 하나님의 주재를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병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믿을 수 있는지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본다고 해서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다고 해서 반드시 인정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나는 “믿음은 사람이 사물의 근원과 진상에 대해 얼마만큼 깊이 깨닫고 느끼느냐에 따라 생기게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만유를 주재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사실에 눈뜨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권병을 가지고 있고 그의 권병이 유일무이한 것임을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 영원히 창조주를 너의 주, 너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21)

인류의 운명, 만물의 운명은 창조주의 주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미 모두 성인이 된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중년기에, 어떤 사람은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믿기까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사역을 체험하기까지 그의 주재에 대해 얼마나 깨달았느냐?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삶을 살면서 모든 일이 다 소원대로 이루어졌느냐?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면서 뜻대로 풀린 일이 얼마나 되느냐? 예상치 못했던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느냐? 기쁨을 가져다준 일이 얼마나 되느냐?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다시 말해 저도 모르게 적절한 시기와 하늘의 뜻만 기다리고 있는 일이 얼마나 되느냐? 또 얼마나 많은 일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손을 놓고 있느냐? 사람은 모두 자신의 운명에 대해 기대를 가득 품고 있다. 자신의 삶이 뜻대로 풀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면서 출세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가난하고 미천한 삶, 우여곡절로 점철된 삶, 불행이 끊이지 않는 삶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람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떤 자들은 과거에 경험한 모든 일에 흐리멍덩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안 적도,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이, 동물처럼 무지몽매한 상태로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간다. 사람의 운명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사람이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운명에 대해 어떠한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죽기 전까지도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영혼이 없는 송장과 같으며 짐승과 진배없다. 사람은 만물 가운데 살며 이 세계가 선사하는 온갖 필요한 물질들을 누리며, 이 물질세계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본다. 그러나 사람이 경험하는 것, 즉, 사람의 마음과 영이 경험하거나 체험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과 상관없고 그 어떤 물질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는 것으로,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이러한 깨달음은 운명 또는 인생에 대한 이해 혹은 느낌으로 이어진다. 또한, 은연중에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안배하고 지배하는 주재자가 있음을 수시로 느끼게 한다.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운명의 지배와 안배, 창조주가 예비해 놓은 앞날, 창조주가 사람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사람이 운명에 대해 무엇을 깨닫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든 간에 아무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다.

사람이 매일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할지, 어떤 사람이나 일을 맞닥뜨릴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할 수 있을까? 사람은 이 모든 일의 발생을 예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도 통제할 수 없다.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맞닥뜨리는 상황은 살면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런 ‘삶 속의 사소한 일’들의 발생과 발전 양상 혹은 법칙은 인류에게 어떤 일이든 우연이란 없으며 그것이 전개되는 과정과 필연성은 사람의 뜻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모든 사건의 발생은 인류는

자신의 운명을 지배할 수 없다는 메시지와 인류를 향한 창조주의 경고를 전하는 동시에, 자신의 손안에 운명을 쥐고자 하는 인류의 헛된 야심과 욕망에 주먹을 날리고 있다. 여러 차례 거칠게 뺨을 때려 대는 것처럼 인류의 주의를 환기시켜, 대체 누가 인류의 운명을 주재하고 주관하는지 돌아보게 만든다. 인류는 또한 야심과 욕망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깨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예비된 운명에 순응하고, 현실과 하늘의 뜻, 창조주의 주재를 받아들이게 된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삶 속의 사소한 일’부터 일생의 운명까지, 창조주의 주재와 안배를 나타내지 않는 일이란 없다. 또한, 그것들은 하나같이 ‘창조주의 권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메시지와 ‘창조주의 권병은 지고지상하다’는 불변의 진리를 전하고 있다!

인류의 운명과 만물의 운명은 창조주의 주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의 지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한마디로 인류의 운명과 만물의 운명은 창조주의 권병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인류는 만물의 법칙 가운데 창조주의 지배와 주재를 경험하고, 만물의 생존 법칙을 통해 창조주의 다스림을 목격하게 된다. 만물의 숙명을 보며 창조주가 만물을 주재하고 주관하는 방식에 대해 알게 되며, 인류와 만물의 생사윤회를 통해 창조주가 모든 만물 생령을 지배하고 안배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느끼게 된다. 그리고 창조주의 지배와 안배가 세상의 모든 법률, 규정, 제도뿐 아니라 그 어떤 힘과 세력도 넘어서는 사실에 진정으로 눈을 뜨게 된다. 따라서 인류는 어떠한 피조물도 창조주의 주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어떤 세력도 창조주의 예정을 따르는 만사 만물에 해를 끼치거나 이를 바꿀 수 없다. 인류와 만물은 바로 이런 천상의 법칙과 규칙에 따라 살아가면서 한 세대 또 한 세대 번성해 왔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권병이 진실로 구현된 것이 아니겠느냐? 인류는 객관적인 법칙을 통해 창조주의 주재, 만사 만물에 대한 그의 예정을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창조주가 만물을 주재하는 원칙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자신의 운명에 대한 창조주의 주재와 안배를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창조주가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믿기에 그가 사람 일생의 운명도 주재한다는 사실을 진정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사람의 운명이 창조주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진정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창조주가 인류의 운명을 주재하고 주관한다는 사실을 대면한 인류가 창조주의 주재를 어떤 태도로 바라보아야 할지는, 지금 이 사실에 직면한 모든 사람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22)

삶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여섯 관문

모든 사람은 살면서 몇 개의 중요한 관문을 거친다. 이 중요한 관문들은 한 사람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 단계들이다. 다음은 사람이 일생 동안 반드시 거치는 관문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첫 번째 관문, 출생

어느 곳의 어떤 가정에서, 어떤 성별과 외모를 가지고 언제 태어나는지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번째 관문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이 첫 번째 관문과 관련한 부분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창조주가 일찌감치 운명으로 정해 놓은 것들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외부 환경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또한, 그 어떤 인위적인 요소도 창조주가 예정한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 한 사람의 탄생은 창조주가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한 첫 번째 단계를 완성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세부 사항들은 모두 창조주가 운명으로 정해 놓은 것이므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앞으로의 운명과 상관없이, 사람의 출생 배경은 이미 정해져 있다. 출생 배경은 일생의 운명에는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고, 일생의 운명에 대한 창조주의 주재함에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1. 새 생명의 탄생은 창조주의 안배에서 비롯된다

첫 번째 관문의 출생지, 집안, 성별, 외모, 출생 시간 중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것이 분명하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어떤 곳에서, 어떤 시점에, 어떤 가정에서, 어떤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 한 가정의 일원이자 한 가족의 후손이 된다. 삶의 첫 번째 관문에서 사람은 선택권 없이, 창조주의 안배에 따라 특정한 환경에서 태어난다. 태어날 가정, 성별, 외모뿐 아니라 사람의 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출생 시간 역시 정해져 있다. 이 중요한 관문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출생과 관련해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새로운 생명이 이 세상에 올 때 창조주의 예정과 인도가 없다면 가족, 귀속, 진정한 집도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서 머물러야 할지 알지 못할 것이다. 창조주가 세심히 안배해 머무를 곳을 주었기에 그에게 부모와 귀속, 가족이 생기는 것이다. 이로부터 이 생명의 인생 여정이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새 생명의 탄생은 창조주의 안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장차 이 생명이 가지게 될 모든 것 역시 창조주가 부여하는 것이다. 이 새 생명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표류체에서 조금씩 피와 살이 있고 모양을 갖춘 사람이 되어 간다. 그 생명은 사고를 하고 숨을 쉴 수 있다. 따뜻함과 차가움을 느끼고 물질세계의 여느 피조물과 다를 바 없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창조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겪게 될 세상만사를 경험하게 된다. 창조주가 한 사람의 출생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부여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사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주로부터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차 또 다른 형태로 창조주의 공급과 그의 주재 아래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람의 출생 배경이 각양각색인 이유

다시 태어나면 명문가에서 태어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많다. 여성의 경우, 공주 같은 외모로 모두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 한다. 남성의 경우, 먹고 살 걱정 없이 평평거리며 사는 왕자 같은 삶을 꿈꾼다. 이렇게 원하는 출생 배경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동시에 태어난 가정부터 외모, 성별, 심지어 출생 시간까지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것에 큰 불만을 느낀다. 하지만 왜 그런 가정에 태어났는지, 왜 그런 외모를 타고났는지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 어디에서 태어나든, 어떤 외모로 태어나든, 사람이 창조주의 경영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정해진 여러 가지 사명을 완수한다는 이 근본 취지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 창조주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떤 성별로 태어나고, 어떤 외모를 가지는지는 모두 일시적인 것으로, 창조주가 모든 시기의 전체 인류를 경영하는 데 사용하는 아주 작은 기호나 상징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의 진정한 종착지와 결말은 한 시기의 출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매 차례 사명과 창조주의 경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창조주가 내리는 결정에 의해 좌우된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마련이라는 말처럼 한 사람의 출생은 전생과 금생, 모두와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이번 윤회의 끝이라면 한 사람의 출생은 당연히 새로운 윤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나간 윤회가 전생이라면 새로운 윤회는 당연히 금생으로 볼 수 있다. 한 사람의 출생이 전생과 금생, 모두와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이 태어난 곳, 집안, 성별, 외모 등 모든 요인 역시 전생과 금생, 모두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사람의 출생과 관련된 모든 요인이 전생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금생의 운명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출생 배경이 각양각색인 것이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명문가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 남쪽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북쪽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사막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푸르른 초원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 환호, 웃음, 축하를 동반하는 출생이 있는가 하면 슬픔, 불운, 걱정을 유발하는 출생도 있다. 태어날 때부터 집안의 복덩이로 불리는 사람도 있고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사람도 있다. 외모가 반듯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목구비가 조화롭지 않은 사람도 있다. 외모가 준수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다. 한밤중인 자시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양이 중천에 떠오른 오시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 사람마다 제각각인 출생 배경은 창조주가 정한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사람마다 제각각인 금생의 운명, 금생에서의 다양한 역할과 사명도 결정된다. 이 모든 것은 창조주의 주재와 예정하에 이루어지며,

아무도 그가 정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신의 출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23)

두 번째 관문, 성장

한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떤 가정 교육을 받는지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을 결정하고, 이 역시 사람이 일생에서 두 번째로 반드시 거치게 되는 중요한 관문이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이 관문 역시 사람이 선택할 수 없고 이미 정해지고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1. 창조주는 모든 사람을 위해 특정한 성장 배경을 안배하였다

한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어떤 사람과 일, 사물의 감화와 영향을 받는지, 어떤 지식을 배우고 어떤 능력을 갖추는지, 어떤 습성을 익히는지, 이 모든 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부모, 가족, 주변의 사람과 일, 사물도 선택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과 일, 사물과의 관계나 그것이 성장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선택할 수 없다. 그럼 누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안배하는 것일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 스스로 결정한 것도 아니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더더욱 아니라면, 이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의 형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모두 창조주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확실하다. 창조주가 모든 사람에게 특정 출생 배경을 안배한 것처럼 특정한 성장 배경도 안배한 것이다. 한 사람의 출생이 주변 사람과 일, 사물의 변화를 초래한다면, 그 사람의 성장 역시 주변의 사람과 일, 사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집안의 몰락을 가져와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어떤 사람도 어느 한 특정 규칙에 따라 태어나지 않으며, 그 어떤 사람의 성장 배경에도 규칙과 필연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상상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운명에서 비롯되고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에는 창조주가 정해 놓은 운명, 그가 주재하고 안배한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2. 사람의 여러 가지 역할은 다양한 성장 배경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한 사람의 출생 배경은 그의 기본적인 성장 환경과 배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고, 그의 성장 배경 역시 출생 배경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이 시기에 언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사물을 접하고 받아들인다. 새로운 사물을 접하고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뇌로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생각을 키우고 적극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한다. 사람이 접하는 사람과 일과 사물, 사람이 배우는 다양한 상식, 지식, 능력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받고 주입당하는 다양한 생각이 삶의 운명을 이끌고 영향을 준다. 성장

과정에서 배우는 언어와 가지게 되는 생각은 모두 성장 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성장 환경은 부모, 형제, 주변의 사람과 일, 사물을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한 사람의 성장은 그 사람이 성장기에 생활하는 환경과 이 시기에 접하는 다양한 사람과 일, 사물에 의해 결정된다. 사람의 성장 배경이 정해져 있는 이상 성장기에 생활하게 되는 환경 역시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성장 환경은 사람의 선택이나 기호가 아닌 창조주의 계획, 그의 세심한 안배, 사람의 운명에 대한 그의 주재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치는 성장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접하는 사물은 모두 창조주의 계획, 안배와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사람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망을 예상할 수도, 통제할 수도, 짐작할 수도 없다. 모든 사람의 성장 배경은 다른 사람, 다른 일과 사물, 그리고 수많은 사람, 수많은 일과 사물과 관련되어 있다. 아무도 이렇게 거대한 관계망을 계획하거나 안배할 수 없다. 각 부류의 사람과 일과 사물의 출현, 지속, 소멸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과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창조주만이 가능할 뿐이다. 사람과 일, 사물을 연결하는 각각의 방대한 관계망은 창조주의 예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의 성장을 일구어 내고, 또한 성장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환경을 마련해 준다. 또한, 창조주의 경영 사역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키워 내고, 사람이 저마다의 사명을 순조롭게 완수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구축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24)

세 번째 관문, 독립

모든 사람은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성숙해진다. 다음으로 할 일은 성장 단계에 철저히 작별을 고하고 부모와 이별하는 것이다. 성인으로서 홀로 앞에 놓인 길을 대면하고, 성인으로서 직면해야 할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을 마주하며, 장차 자신의 운명에 나타날 모든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살면서 거쳐야 할 세 번째 관문이다.

1. 사람은 독립 이후 어렵פות이 창조주의 주재를 체험한다

한 사람의 출생과 성장이 전체 인생 여정을 위한 준비 기간이자 운명의 기반이라면, 독립은 운명의 서막이 열리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출생과 성장이 운명을 위해 재산을 축적한 것이라면, 독립은 그 재산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기 시작하는 분기점이다.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한 사람이 어떤 사회 환경에서 어떤 일이나 사업을 하게 될지는 모두 운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부모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어떤 사람은 대학에 진학해서 좋은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 후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찾을 것이다. 인생 여정에서 첫발을 순조롭게 떤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기술을 가졌어도 자신의 사업은 고사하고 자기에게 맞는 일이나 자신이 속할 곳 하나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인생의 첫 발걸음을 내딛자마자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순탄치 않아 앞날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경우다.

성공과는 연이 없는 운명인 것처럼, 힘들게 공부했지만 대학교와는 인연이 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인생의 첫 희망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 경우, 앞으로의 운명은 순탄할지 험난할지 알 수 없는 변수로 가득 차 있음을 처음으로 실감하고, 인생에 대해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품게 된다.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아도 책을 써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사무식인데도 창업을 해 돈을 벌고 밥벌이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의 기로에서 과연 사람은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일까? 사람의 바람과 결정에 따른 선택이 가능한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어 한다. 바람과 햇빛을 피할 수 있는 편안한 장소에서 지내며 번듯하게 차려입고 땡땡거리며 살기를 원하고, 남보다 성공해서 가문을 빛내고 싶어 한다. 사람의 소망은 이렇게 ‘완벽’하지만, 그가 인생의 여정에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운명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차츰 깨닫게 된다. 또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대담한 계획을 세우고 마음껏 꿈을 키울 수는 있어도 실제 자신에게 꿈을 실현할 능력과 힘이 없을뿐더러 미래를 결정할 능력도 없음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된다. 사람이 직면한 현실은 언제나 꿈과는 괴리가 있고 늘 생각만큼 만족스럽지 않다. 사람은 그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다. 심지어 자신의 직업과 미래를 위해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고, 운명을 바꾸기 위해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운명은 영원히 바꿀 수 없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신의 숙명을 거스를 수는 없다. 능력, 지능,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 앞에서 사람은 나이, 우열, 귀천을 구분할 수 없는 동등한 존재이다. 사람이 평생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질지는 부모에 의해 좌우되거나 재능, 노력, 욕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이는 창조주가 정한 운명에 달려 있다.

2. 사람은 부모의 품을 떠난 후 인생이란 큰 무대에 올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사람이 성숙해지면 부모의 품을 떠나 ‘세상에 뛰어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사람은 이 시점에 자신의 역할을 진정으로 수행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불확실했던 현생에서의 사명도 이 시점에서 점차 분명하게 드러난다. 형식적으로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만, 현생에서 수행할 역할과 사명은 부모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독립 후엔 부모와의 친밀했던 관계가 차츰 멀어지게 된다.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사람이 일단 성장기를 벗어나면 그의 모든 것이 부모와 상관이 없어지고, 그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독립적으로 해내야 한다. 부모는 한 사람의 삶에서 출산과 부양의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형식적으로 제공할 뿐이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오직 창조주의 정하심과 관련이 있다. 사람의 미래는 운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누구도 좌지우지할 수 없다. 부모조차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운명에 관한 한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각자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의 운명을 막을 수도 없고, 자식이 현생에서 맡은 역할을 해내는 데

힘을 보태 줄 수도 없다. 즉,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성장할지, 이는 현생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 그것이 운명을 결정할 수 없고, 어떤 운명 속에서 사명을 완수하게 될지도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한 사람이 현생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없고, 가족들 역시 그가 현생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보탬이 되지 못한다.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완수하게 될지, 어떤 생존 환경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는 순전히 현생의 운명에 달려 있다. 즉, 창조주의 뜻으로 정해진 모든 사람의 사명은 그 어떤 객관적인 조건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각자 특정 성장 환경에서 성숙해지고, 인생 여정을 한 걸음씩 밟아 가며, 창조주가 정해 놓은 운명을 조금씩 실현하게 된다.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수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인생에서의 역할을 짊어지고, 창조주의 예정과 주재에 따라 피조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25)

네 번째 관문, 결혼

사람이 나이를 먹고 성숙해지면 부모와 점점 소원해진다. 출생과 성장 배경도 그 의미가 퇴색된다. 그 대신 부모와는 다른 삶을 살면서 자신만의 인생 방향과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부모가 아닌, 일생을 함께할 수 있는 반려자를 — 자신의 운명과 밀접히 맞닿아 있는 배우자를 — 필요로 하게 된다. 이렇게 독립 후 맞닥뜨리게 되는 인생의 첫 번째 대사(大事)가 바로 결혼, 즉 사람이 거쳐야 할 네 번째 관문이다.

1. 결혼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혼은 인류지대사로, 여러 책임을 짊어지고 각종 사명을 점차 완수해 가게 되는 진정한 출발점이 된다. 결혼 전에는 결혼에 대한 장밋빛 환상이 가득하기 마련이다. 여성은 백마탄 왕자를, 남성은 백설공주를 배우자로 원한다. 이러한 환상들은 각자 결혼에 대해 나름의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이 사악한 시대에선 결혼에 대해 오해하게 만드는 그릇된 정보들이 넘쳐 난다. 이 가운데 사람들은 결혼에 더 많은 조건을 붙이고, 결혼에 대해 여러 부담을 느끼며 왜곡된 시선으로 결혼을 바라보게 된다. 하지만 결혼에 대해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든, 결혼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걸 결혼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누가 자신의 결혼 상대자가 될지는 알지 못한다. 결혼에 대해 저마다의 의견과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누가 자신의 배우자가 될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구애를 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너에게 관심을 가질지, 너의 반려자가 될 수 있을지는 개인이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너와 삶을 함께할 배우자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반대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네 삶 속으로 들어와 운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즉 네 운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배우자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부부가 있지만 그 모습은 천태만상인 것이다. 기쁨이 넘치는 결혼이 있는가 하면 불만스러운 결혼도 있다. 동과 서를 넘나드는 결혼이 있는가 하면 남과 북을 아우르는 결혼도 있다. 천생연분인 부부가 있고 비슷한 집안의 상대와 결혼한 부부도 있다. 행복한 결혼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결혼도 있다. 동경과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결혼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결혼도 있다. 기쁨으로 가득한 결혼이 있는가 하면 눈물이 끊이지 않는 절망적인 결혼도 있다.... 결혼 생활에 임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제각각이다. 결혼에 충성하며 죽을 때까지 배우자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 생활을 아끼고 소중히 지키는 사람도 있다. 반면, 결혼 생활을 이해할 수 없어 하고 체념하는 사람이 있고, 배우자를 배신하고 심지어 적대시하는 사람도 있다. 결혼 자체가 가져다주는 것이 행복이든 고통이든, 창조주의 예정으로 각자가 결혼에서 맡게 되는 사명은 바뀌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명이다. 결혼 생활 이면에 있는 각자의 운명은 창조주가 정해 놓은 것이기에 바뀌지 않는다.

2. 결혼은 두 사람의 운명에서 비롯된다

결혼은 삶의 중요한 관문이다. 결혼은 운명에서 비롯되고, 운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결혼은 사람의 의지와 취향에 기반하지 않고, 그 어떤 외부 조건의 영향도 받지 않으며, 오롯이 두 사람의 운명, 결혼할 두 사람을 위해 창조주가 예정하고 안배한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 결혼은 후손을 낳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일종의 의식에 불과하다. 사람이 결혼을 통해 수행하는 역할은 자녀 양육만 있는 게 아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맡게 되는 여러 역할과 완수하게 되는 사명도 포함된다. 한 사람의 출생이 주변 사람과 일, 사물에 영향을 미치듯이 결혼 역시 주변 사람과 일, 사물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변화를 초래한다.

사람은 독립 후 인생의 여정에 오른다. 이 여정에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결혼과 관계된 사람과 일, 사물로 이어진다. 그와 동시에 결혼 상대방도 그런 사람과 일, 사물을 향해 다가간다. 창조주의 주재로 아무런 관계가 없던 두 사람이 같은 운명에 의해 결혼이란 울타리를 만들고 기적적으로 한 가족이 된다.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결혼 후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은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배우자와 연관되며, 그 배우자의 인생 여정 역시 자기 짝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그 운명과 연관된다. 즉, 사람과 사람의 운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삶의 사명이나 역할을 온전히 혼자만의 힘으로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출생은 거대한 관계망과 닿아 있고, 한 사람의 성장도 복잡한 관계망과 연결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결혼 역시 거대하고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존재하고 유지된다. 결혼은 이 관계망 속 모든 사람과 관련을 가지며 그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결혼은 태어난 가정, 성장 배경, 외모, 나이, 자질과 재능 등의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는 두 사람의 공동 사명과 관련된 운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가 지배하고 안배한 사람의 운명 가운데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유래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26)

다섯 번째 관문, 자녀

사람은 결혼 후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 어떤 자녀를 몇 명이나 들지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역시 사람의 운명과 창조주의 정하심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거쳐야 할 다섯 번째 관문이다.

한 사람의 출생이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다. 사람은 두 가지 역할이 바뀌면서 인생의 각 시기를 겪으며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하게 된다.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하면서 창조주의 변함없는 주재를 체험하게 되고, 또한 창조주가 정한 운명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실감하게 된다.

1. 자녀의 일은 사람이 결정할 수 없다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의 출생이나 성장, 결혼에 불만을 가지기 마련이다. 자신의 가정이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를 탐탁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성장 환경에 큰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결혼만큼 불만스러운 것도 없다. 출생과 성장, 결혼에 있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았든, 경험자들은 모두 알고 있다. 사람은 자신의 출생 시점과 장소, 외모, 부모, 배우자를 선택할 수 없고 운명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자녀를 키우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자녀가 대신 이뤄 주고 뜻대로 되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만회해 주길 바란다. 이 때문에 자녀에게 터무니없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딸은 예쁘고 아들은 잘생기기를 바란다. 딸은 예술적인 재능을 두루 갖추고, 아들은 공부와 운동에 능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길 바란다. 딸은 온화하고 현명하며 교양과 지성을 겸비하기를 바라고, 아들은 똑똑하고 유능하며 이해심이 많기를 바란다. 딸과 아들 모두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살뜰히 챙기는, 모두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이 시기 사람은 인생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짐과 동시에 새로운 욕망에 불이 붙게 된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변변찮은 탓에 이번 생에서는 더 이상 성공의 기회와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어쩔 수 없이 운명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자신이 못 이룬 꿈과 희망을 자녀에게 떠넘기고 대신 이뤄 주기를 바란다. 자녀가 가문을 빛내거나 높은 위치에 오르기를 바라고, 큰 부자나 유명인이 되기를 바란다. 자녀가 출세만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여긴다.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한들 부모가 자녀의 수, 그리고 그 자녀의 외모나 능력 등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자녀의 운명은 더욱이 부모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걸 왜 모르느냐? 자신의 운명도 어찌지 못하면서 자녀의 운명을 바꾸려 들고, 자신의 운명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얼마나 분수를 모르는 것이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사람은 자녀에게 온갖 정성을 기울이지만 어떤 자녀를 몇 명이나 두게 될지는 계획이나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 무일푼임에도 많은 자녀를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부자임에도 슬하에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는 딸을, 어떤 이는 아들을 간절히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녀 덕분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를 입는 사람도 있다. 부모는 똑똑한데 자녀는 멍청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부지런한 부모와는 달리 자녀가 게으른 경우도 있다. 정직하고 선한 부모가 간사하고 악한 자녀를 두는가 하면 건강한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는 경우도 있다. 평범한 부모가 비범한 아이를 두는 경우도 있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낮지만 자녀가 대성하는 경우도 있다....

2. 다음 세대를 키운 후 사람은 운명을 새로이 이해하게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서른 즈음에 결혼을 하지만, 그 시기에 있는 사람은 아직 타고난 운명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 역시 이전 세대의 삶과 모든 경험을 되풀이하는 것을 목격한다. 그 속에서 과거의 그림자를 보며, 그들은 자신의 삶이 꼭 그랬듯 다음 세대가 걸어가는 길 또한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이러한 사실과 마주하면 사람의 운명이란 이미 정해져 있음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 소망을 내려놓게 된다. 욕망의 불길도 조금씩 꺼져 간다.... 이 시기는 삶의 중요한 몇 가지 단계를 지나 인생을 새롭게 이해하고,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갖게 되는 시기이다. 그 나이의 사람이 미래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 수 있을까? 원 살이 되고도 백마 탄 왕자를 꿈꾸는 여성, 백설공주를 찾길 바라는 남성이 있을까? 원 살이 되고도 눈부신 외모로 탈바꿈하길 꿈꾸는 여성이 있을까? 젊은이들만큼 일에 의욕이 넘치는 중년 남성들이 얼마나 될까? 한마디로 말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정도 나이가 되면 결혼과 가정, 아이들에 대해 비교적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그 나이가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운명에 도전하려는 욕구도 없다. 그 나이가 되면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자연스레 다음과 같은 자세를 취하게 된다. ‘사람은 운명을 받아들여야 해.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운명이 따로 있지. 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거야.’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세상의 갖은 우여곡절과 좌절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종종 “다 운명이야!”라는 한 마디로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총결한다. 이 표현은 운명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결론과 깨달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사람의 무력함을 보여 주는데, 예리하고 정확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창조주의 주재를 인식하는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고, 이를 깨달았다고 해서 창조주의 권병을 안다고 할 수는 없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27)

운명을 믿는다고 해서 창조주의 주재를 안다고 할 수는 없다

긴 세월 하나님을 따른 너희가 운명에 대해 알고 있는 바는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너희는 창조주의 예정과 창조주의 주재를 진실로 알게 되었느냐? 어떤 사람들은 “다 운명이야.”라는 말을 깊이 느끼고 이해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주재를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고 안배하고 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주재에 순종하려 하지도 않는다. 바다 위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사람처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고, 다 운명이라 생각하며 단념할 뿐이다.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의 주재 안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주재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병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는 삶, 더 이상 운명에 맞서지 않는 삶,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삶을 살지 못한다. 다시 말해,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창조주의 주재에 순종하게 된 것은 아니다. 운명을 믿는다고 창조주의 주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알게 된 것은 아니다. 그저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과 이 사실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창조주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주재하는지 알거나, 그가 만물의 운명을 주재하는 근원임을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며, 인류의 운명에 대한 창조주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는 것과는 더더욱 차이가 있다. 누군가 운명을 믿고 이를 마음 깊이 느꼈음에도 창조주가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의 이번 생은 한 편의 비극일 것이다. 여전히 헛되고 공허할 것이며, 여전히 창조주의 권세 아래로 돌아오지 못해 창조주의 인정을 받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조된 인류가 되지 못한다. 진실로 창조주의 주재를 알고 경험한 사람은 소극적이거나 무력하지 않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의 운명이 정해져 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삶과 운명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게 된다. 사람의 일생은 창조주의 주재 아래에 있다는 정의 말이다.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겪었던 인생의 각 단계들을 떠올려 볼 때, 매 순간이 힘들었던 수월했던 하나님이 모든 걸음을 안배하고 인도해 왔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과 정성스러운 안배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오늘날까지 오게 되어 창조주의 주재와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번 생에서 얻은 얼마나 큰 행운인가! 누군가 운명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에 반항하며 순종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누군가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자기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주재를 진정으로 느끼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이 안배한 모든 것에 더욱 진심으로 순종하고 싶어질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 더 이상 거역하지 않고 더욱 단호한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운명을 지배하도록 할 것이다. 운명이 어떤 건지 모르고 하나님의 주재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방식대로 안개 속을 헤쳐 가며 비틀거리며 나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고단하고 쓰라리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총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재에 대해 깨닫고 받아들이는 길을 택한다. ‘자신의 두 손으로 좋은 삶을 일구기 위해 애썼던’ 고통스러운 날들, 운명에 맞서 싸우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위 삶의 목표란 것을 추구하던 나날에 안녕을 고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던 나날, 하나님을 볼 수 없던 나날, 하나님의 주재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나날, 그런 나날들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었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든 사람의 생존 방식과 목표는 끝없는 슬픔과 벗어날 수 없는 고통만을 가져다주었기에, 그런 날들은 돌이켜 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오로지 창조주의 주재를 받아들이고, 그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고, 참된 삶을 추구할 때, 사람은 차츰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풀려나고 삶의 공허함을 떨쳐 버릴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28)

창조주의 주재에 순종해야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배와 주재를 알지 못하는 탓에 늘 반항심을 가지고 패역한 태도로 운명과 마주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권병과 주재, 그리고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운명을 바꾸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헛된 바람일 뿐, 곳곳에서 좌절을 맛보게 된다. 영혼 깊은 곳에서의 이런 몸부림은 고통스러운 것이며, 그 고통은 마음 깊이 새겨지고 사람의 생명을 낭비하게 만든다.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주재 탓일까, 아니면 사람의 운명이 나쁜 탓일까? 둘 다 틀렸다. 한마디로 말해, 사람들이 가는 길, 사람들이 선택한 생존 방식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주재하고 안배한 모든 것이 너를 얼마나 이롭게 하고 보호해 주는지 알게 될 때, 고통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며 자유롭게 된다. 대다수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 예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창조주가 사람의 운명을 주재하는 것의 실제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창조주의 주재를 진정으로 인정하지도 순종하지도 못하며, 어떻게 창조주의 지배와 안배를 구하고 받아들이는지 역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창조주가 사람의 운명과 사람의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창조주의 권세에 진정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운명은 스스로 정하는 거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헤어 나오기 쉽지 않고, 운명과 창조주의 권병에 필사적으로 반항하며 생기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도 어렵다. 물론 참된 자유를 얻기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기도 아주 어렵다. 이런 내적 상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존의 생존 방식과 인생 목표에 작별을 고하는 것이다. 기존의 생존 방식과 인생관, 목표, 소망과 꿈을 정리해 보고 분석한 다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뜻과 요구에 대조해 본다. 그리고 자신의 생존 방식과 인생관 등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요구에 맞는 것이 있는지, 올바른 인생의 가치를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진리를 점점 더 깨닫는 삶을 살고 인성을 갖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인류가 추구하는 다양한 삶의 목표와 생존 방식을 반복적으로 살피고 자세히 분석하다 보면, 창조주가 인류를 창조할 당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창조주의 주재와 보살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뿐, 하나같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지옥으로 이끄는 함정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기존의 인생관을 버리고 여러 함정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주관과 안배에 네 삶을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없이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에 순종하기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쉬워 보이지만 실은 어려운 일이다.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어떤 이는 기꺼이 응하고 어떤 이는 꺼린다. 이를 꺼리는 사람들에게는 응하려는 생각과 의지가 없다. 하나님의 주재를 알고,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고 안배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거나 하나님의 주재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항상 존재한다. 그들은 자신의 두 손으로 운명을 바꾸고 싶어 하고, 자신의 힘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권병과 주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보려고 한다. 사람에게 슬픔이 생기는 것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명예와 이익을 좇기 때문도, 안개 속에서 운명에 맞서며 힘겹게 나아가기 때문도 아니다. 창조주의 존재와 창조주가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수렁 속에서 나오는 대신, 차라리 잘못을 깨닫지 않고 독하고 완강하게, 수렁 가운데서 계속 발버둥 치길 원하며 고집스럽게 창조주의 주재에 반항하고 조금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고서야 포기하고 방향을 돌린다. 이것이 사람의 진정한 슬픔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을 선택한 자는 현명하고, 벗어나려는 자는 우매하고 완고하다고 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29)

여섯 번째 관문, 죽음

정신없이 분주한 나날을 보내며 수많은 우여곡절, 기쁨과 슬픔,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을 경험하고, 잊을 수 없는 세월들과 무수히 많은 계절을 보내면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삶의 중요한 관문들을 지나온다. 그리고 눈 깜짝할 새 인생이 저물어 가는 시점에 와 있음을 깨닫는다. 세월은 온몸에 낙인과 같은 흔적을 남겨 놓았다. 허리는 굽고, 검던 머리는 하얗게 세었으며, 초롱초롱 빛나던 눈은 흐릿해졌고, 부드럽고 탄력 있던 피부는 주름과 반점들로 가득하다. 청력이 떨어지고, 치아는 흔들리고 빠지기 시작하며, 반응 속도와 움직임이 느려진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열정적이었던 젊은 시절과 작별하고

인생의 황혼기, 즉, 노년기에 들어선다. 앞으로 남은 것은 한 가지, 삶의 마지막 관문인 죽음이다.

1. 오직 창조주만이 사람의 삶과 죽음을 주관할 수 있다

사람의 출생이 전생의 인연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죽음은 그 인연의 끝인 것이다. 사람의 출생이 현생에서 이행해야 할 사명의 시작이라면 죽음은 그 사명의 끝이다.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출생 배경을 정해 놓은 창조주는 죽음에도 당연히 각자의 배경을 계획해 놓았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의 출생은 우연이 아니고, 죽음 역시 돌연한 것이 아니다. 태어남과 죽음은 모두 그 사람의 전생 및 금생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출생과 죽음의 배경 모두 창조주의 예정과 관련이 있다. 이는 한 사람의 타고난 숙명이자 운명이다. 모두가 다른 배경에서 태어나듯, 죽음에도 각자 고유한 배경이 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 죽음의 방식과 시점이 모두 다른 것이다. 어떤 사람은 튼튼하고 건강하지만 일찍 죽는다. 어떤 이는 몸이 약하고 자주 아프지만 장수하며 편안히 눈을 감는다. 비명횡사하는 사람도 있고, 천수를 다 누리는 사람도 있다. 타지에서 마지막을 맞는 이도 있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는 이도 있다. 하늘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지하에서 죽는 사람도 있다. 누구는 익사하고 누구는 재난을 만나 죽는다. 누구는 아침에, 누구는 밤에 죽는다.... 누구나 빛나고 당당하게 태어나 멋진 삶을 살다 명예롭게 죽기를 바란다. 하지만 숙명을 뛰어넘고, 창조주의 주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이다. 사람은 미래를 위해 어떤 계획이든 세울 수 있어도 어떻게 태어날지, 언제 어떻게 죽을지 계획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죽음이 닥치는 것을 피하고 막으려 애쓰지만 죽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조용히 다가온다. 그 누구도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더 나아가 어디서 죽을지 알지 못한다. 인류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존재는 인류 자신도, 자연계의 그 어떤 생명체도 아닌 유일무이한 권병을 지닌 창조주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인류의 삶과 죽음은 자연계 내 모종의 법칙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권병과 주재로 인한 결과이다.

2. 창조주의 주재를 모르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노년기에 접어든 이가 맞이하는 것은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하거나 인생의 원대한 꿈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삶과 작별할지, 어떻게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지, 어떻게 삶에 마침표를 찍을지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죽음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죽음에 대한 탐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죽음의 저편에 사람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또 다른 미지의 세상이 존재하는지 사람은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직시하길 두려워하고, 죽음을 똑바로 마주하길 겁내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애써 외면한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사실엔 신비의 베일이 드리워지며, 모든 이의 마음에는 걸리지 않는 그늘이 생긴다.

자신의 몸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며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옴을 감지할 때, 사람은 어렴풋한 공포와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낀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 한층 더

외로움과 막막함이 느껴질 때,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사람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로 가는 것일까? 삶이란 이렇게 빨리 끝나 버리는 것일까? 이렇게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일까? 삶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 삶은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을까? 명성과 부를 얻기 위한 것인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인가?’ 사람이 이런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봤든 그렇지 않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크든,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비밀을 탐구해 보고 싶다는 욕망과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음속엔 세상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도 섞여 있다. 과연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쉬워하고 미련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이런저런 걱정을 한다. 마치 걱정거리가 있으면 죽음이 가져다주는 고통과 두려움을 지울 수 있기라도 한 듯, 산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 가면 죽음이 가져오는 막막함과 외로움을 피할 수 있기라도 한 듯, 자식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재산을 걱정한다. 사람은 마음속 깊이 어렴풋한 공포를 느낀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 파란 하늘과 이 물질세계를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이다.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는 것에 익숙해진 외로운 영혼은 낯선 미지의 세계로 홀로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30)

명성과 부를 좇던 삶은 죽음 앞에서 방황한다

본디 가진 것 하나 없던 외로운 영혼이 창조주의 주재와 예정으로 부모와 가족을 얻고 인류의 일원이 되고, 삶을 경험하고 세상을 체험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창조주의 주재를 경험하고, 창조주의 만물 창조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알며, 창조주의 권병을 알고 그 권병 아래 복종할 기회 역시 얻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드문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 사람은 평생의 에너지를 운명과 맞서 싸우는 데에 쓰고, 자기가 가진 모든 시간을 가족을 부양하고 명성과 재물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데 다 써 버린다. 사람들은 가족, 돈, 명예, 이익 등을 소중히 아끼고,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라 생각한다. 모두가 운명이 기구하다고 불평하면서도 ‘사람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가’처럼 사람이 꼭 알아야 하고 탐구해야 할 문제들은 뒷전으로 미룬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나날이 얼마나 되든 명성과 부만 좇다가 젊음을 보낸다. 머리가 세고 얼굴에 주름이 질 때까지, 명성이나 재물이 나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돈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그 누구도 생로병사의 법칙과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해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간다. 어쩔 수 없이 삶의 마지막 관문을 마주한 뒤에야 백만장자도, 귀한 신분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며,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의 원래 자리, 즉 가진 것 없는 외로운 영혼으로 되돌아가야 함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 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재산이 있을 때는 돈이 의지할 수 있는 삶의 밑천이라 생각한다. 지위가 있을 때는 그것에 집착하여 목숨이라도 걸려고 한다.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평생을 바쳐 좇은 것들이 찰나에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하여 소유할 수도, 가져갈 수도 없고, 죽음을 피하게 해 주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외로운 영혼이 돌아가는 길의 동반자나 위로가 되어 주거나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세상에서 쌓은 명성과 재물은 일시적인 만족감, 잠깐의 기쁨과 위로를 주고 마음이 편안한 듯한 착각을 주어 방향을 잃게 만든다. 그래서 안식과 위안과 마음의 평온을 갈망하던 사람들이 아득한 인생의 바닷속에서 허우적대다 겹겹이 밀려오는 파도에 휩쓸리고 마는 것이다.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등,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 채 사람들은 명성과 재물의 유혹과 꼬임에 넘어가 그것들의 조종을 받는다. 그렇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고 세월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려 사람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 버린다.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조금씩 멀어지고, 가졌던 모든 것을 쥐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는다. 그제서야 사람은 갓 세상에 태어난 아기처럼 자신은 여전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시기 사람은 자기가 사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이고 사람은 왜 이 세상에 온 건지 생각하게 된다. 또한 바로 이때에 내세가 있는지, 하느님(원문: 上天)이나 보응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지 등의 사실들을 점점 더 알고 싶어 한다. 죽음이 다가올수록 삶이 진정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죽음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며, 의지할 곳 하나 없음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는 날로 커져만 간다.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결국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삶의 기반이 되었던 명성이나 재물을 곧 잃게 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작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낯선 미지의 세상, 두렵고 알 수 없어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세상, 사랑하는 사람도 의지할 데도 없는 세상과 곧 혼자 대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처음 느끼는 공포와 당혹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점에 이르러서야 사람은 깨닫게 된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내용들은 ‘사람은 어디서 왔으며, 삶의 이유는 무엇이고, 누가 사람의 운명을 주재하며, 누가 인류를 생존하도록 공급하고 인류의 생존을 주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란 걸 말이다.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삶의 자산이며, 생존의 근본이다. 어떻게 가족을 부양할지, 어떻게 명성과 부를 좇을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성공할지, 어떻게 더 부자가 될지, 어떻게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경쟁해서 남들을 이길지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평생을 들여 익힌 다양한 생존의 기술들은 충분한 물질적 안락함을 가져다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자꾸만 방향과 통제력을 잃게 하고, 삶의 의미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끊임없이 놓치게 만들며, 죽음을 똑바로 대면하지 못하도록 근심을 가져다준다.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망가진다. 창조주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고, 모두에게 일생 동안 그의 주재를 체험하고 알도록 기회를 준다. 하지만 사람은 죽음을 마주했을 때, 곤죽게 되었을 때에야 이를 깨닫기 시작한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사람들은 재물과 명성이 자신을 구해 주는 생명 줄이자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 양 평생을 이것들을 좇는 데 쓴다. 이것들만 있으면 죽음도 피하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죽을 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 재물과 명성이란 게 얼마나 요원한 것인지, 죽음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부서지는지,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얼마나 외롭고 무력한지를 말이다. 그리고 사람의 목숨은 재물이나 명성과 바꿀 수 없고,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똑같이 가난하고 하찮은 존재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된다. 돈으로 목숨을 살 수 없고, 명성이나 재물로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이들 중 그 어느 것도 사람의 수명을 1분 1초라도 연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이런 느낌이 들수록 살고자 하는 욕망은 더욱 강렬해지고,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한층 증폭된다. 그제서야 사람은 자신의 목숨과 생명은 자신의 것도, 스스로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생과 사는 자기에게 결정권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누구도 주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31)

창조주의 권세에 복종하여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다

한 사람의 출생은 외로운 영혼이 이 세상에 와서 인생을 경험하는 출발점이자 창조주의 안배에 따라 창조주의 권병을 경험하는 시발점이 된다. 이는 당연히 한 사람 또는 한 영혼이 창조주의 주재와 권병을 인지하고 창조주의 권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사람은 평생 창조주가 정해 놓은 운명의 법칙 속에서 살아간다. 양심과 이성인 있는 사람에게 있어 수십 년 인생을 살며 창조주의 주재를 인정하고 창조주의 권병을 인지하는 데 이르게 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수십 년의 인생 경험을 통해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이 예정한 것임을 깨닫고 삶의 의미를 느끼거나, 그 의미에 대해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다. 그러한 삶의 경험을 인정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마음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을 진정한 삶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목표와 사명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된다. 또한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거나 창조주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죽음에 직면할 때, 즉 영혼이 다시 창조주와 마주하게 될 때 그 영혼은 더없는 공포와 불안에 떨게 될 것임을 점차 깨닫게 된다. 이 세상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알지 못하고 운명이 누구에 의해 좌우되는지도 깨닫지 못한다면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밖에 없다. 수십 년 동안 삶을 영위하면서

창조주의 주재를 깨달은 사람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순수하게 이해하는 사람이며, 삶의 이유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다. 또한 창조주의 주재를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창조주의 권병 아래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런 사람은 창조주가 사람을 만든 의미를 이해한 것이다. 또 사람은 마땅히 창조주를 경배해야 하고, 사람의 모든 것이 창조주로부터 비롯되었기에 머지않은 미래에 창조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도 안다. 이런 사람은, 삶은 창조주가 마련한 것이고, 죽음은 창조주의 주재에 달려 있으며, 삶과 죽음 모두 창조주의 권병 아래 예정돼 있음을 안다. 따라서 사람이 이런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자연스레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담담히 내려놓게 된다. 또한, 무턱대고 저항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곧 닥칠 모든 것을 흔쾌히 수용하고 순종하며, 창조주가 마련한 삶의 마지막 관문을 맞이하게 된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창조주의 주재를 경험하고 창조주의 권병을 알아 가는 기회로 삼고, 또한 창조된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이행하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면, 분명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게 될 것이고, 창조주의 축복과 인도에 따라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창조주의 빛 속에서 행하고, 창조주의 주재를 깨달으며, 창조주의 권세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또 창조주의 경이로운 행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창조주의 권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이 창조주의 사랑을 받고 창조주에게 열납될 것이다. 이런 사람만이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삶의 마지막 관문을 흔쾌히 맞이할 수 있다. 욥은 분명 죽음에 대해 이런 태도를 가졌고 흔쾌히 인생의 마지막 관문을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순조롭게 인생의 여정을 마쳤고, 삶의 사명을 완수하였으며, 창조주의 곁으로 돌아갔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32)

욥은 평생 동안 추구하고 얻은 것이 있었기에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성경은 욥에 대해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욥 42:17)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죽을 때가 된 욥은 어떠한 미련이나 고통 없이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모두가 알다시피, 욥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고 후세에 길이 남겨졌다. 그는 인류 중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땅에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불렸다. 그는 하나님이 내린 시련을 받기도 했고 사탄의 시험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부여한 ‘의인’이란 호칭에 걸맞게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섰다. 하나님의 시련을 받은 후 수십 년 동안 그는 이전보다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며, 한층 더 평온하고 담담한 태도로 살았다. 그는 의로운 행위로 인해 하나님이 준 시련을 받았고, 또한 그 의로운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욥은 시련을 받은 후 수십 년 동안 삶의 가치에 대해 더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창조주의

주재를 더 깊이 느끼게 되었으며, 창조주가 복을 베풀어 주는 것과 거두어 가는 것에 대해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욥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욥을 이전보다 더 축복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 축복은 욥이 창조주의 주재를 깨닫고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데 좋은 조건이 되어 주었다. 그래서 욥은 나이를 먹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재산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고 다른 근심거리도 없었다. 어떠한 미래도 없었고 당연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을 갔기에 자신의 최후도 걱정하지 않았다. 현대인 중에 죽음을 앞두고 욥과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왜 겉으로 볼 땐 쉬워 보이는 일인데도 정작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없는 것일까? 이유는 단 하나다. 욥은 하나님의 주재를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재에 순종하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또한 욥은 하나님의 주재를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재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인생의 중요한 관문들을 지나 자신의 노년을 보냈으며, 인생의 마지막 관문을 맞이했다. 욥이 살면서 어떤 일을 겪었든 그의 추구하고 인생 목표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 행복한 것이었다. 그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조주의 축복이나 칭찬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의 추구하고 인생 목표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창조주의 주재를 조금씩 깨닫고 실제로 느꼈기 때문이다. 더욱이 창조주의 주재를 경험함과 동시에 그의 놀라운 행사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를 알아 가면서 느끼는 따뜻함과 잊지 못할 경험, 마음 깊이 새겨진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창조주의 뜻을 깨닫는 과정에서 위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창조주의 위대함, 놀라움, 사랑스러움, 신실함을 경험하여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욥이 아무런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창조주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한, 평생 추구하고 얻은 것이 있었기에 편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창조주가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는 것에도 담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무런 걱정 없이 성결하게 창조주와 마주할 수 있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욥이 소유했던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너희들은 그런 행복을 소유할 조건을 갖추었을까?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사람들이 욥처럼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의 사람들은 왜 죽음의 공포라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죽음을 앞두고 실금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도 있다. 기절하는 사람,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 심지어 대성통곡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행동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급작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당혹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마음속 깊은 곳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대해 제대로 느끼거나 깨닫지 못하고 진심으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하거나 통제하려 들고, 자기가 자신의 운명과 생사를 결정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33)

창조주의 주재를 받아들여야 그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거나 체험하지 못하면 운명과 죽음에 대한 인식도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재하며, 사람이 그의 주재를 뿌리치거나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숨을 거두기 전 길고 긴 유언을 하고 걱정과 미련을 남긴다. 마음의 짐이 몹시 무겁고, 꺼려지거나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출생과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그 과정을 건너뛰지 못한다. 사람이 아무런 고통 없이 이 세상을 떠나고, 아무런 아쉬움과 근심 없이 인생의 마지막 관문을 맞이하고 싶다면, 유일한 방법은 그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무런 미련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주의 주재와 권병을 깨닫고, 창조주의 주재와 권병 아래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인류의 다툼과 죄악, 사탄의 울무에서 멀어질 수 있다. 옅처럼 창조주의 인도와 축복 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정의롭고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다. 옅처럼 창조주의 시련과 박탈, 창조주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할 수 있다. 옅처럼 평생 동안 창조주를 경배하며 창조주의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며, 옅처럼 창조주가 친히 발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의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옅처럼 행복한 삶을 살다 그 어떤 고통이나 근심과 미련 없이 행복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옅처럼 빛 가운데 살며 빛 가운데 삶의 모든 관문을 통과하곤 빛 가운데 순탄히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순조롭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즉,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주재를 체험하고, 깨달아 빛 가운데 세상을 떠날 수 있다. 그리하여 창조주의 칭찬을 받는 창조된 인류로서 그의 곁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34)

창조주의 주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몇십 년의 인생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의 20 년이란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이 나이대의 사람은 나이로 보면 성인이지만 인생과 운명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경험이 계속 쌓이면서 사람은 차츰 중년기에 접어들게 된다. 30~40 대가 되면 인생이나 운명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지만 이 연령대의 사람도 인생과 운명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어떤 사람은 40 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만든 인류와 천지 만물에 대해 알기 시작하며, 인생과 운명에 대해 깨닫기 시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랫동안 따랐고 어느덧 중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의를 가지지 못하고, 그에게 진심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복받는 것에만 몰두해 그 외의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나이를 먹었어도 창조주가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한다’라는 실제 공과에 전혀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리석기 그지없고, 평생을 헛되이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운명에 대한 인식과 인생 경험에 따라 삶을 구분한다면 대략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유년기, 즉 출생부터 중년 또는 태어나서 30 세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성장기, 즉 중년부터 노년 또는 30 세부터 60 세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는 성숙기, 즉 노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또는 60 세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이다. 태어나서 중년에 이를 때까지 대부분 사람의 운명과 삶에 대한 인식들은, 대체로 실제에 부합하는 실용적인 내용 하나 없이 그저 남의 말에 주관 없이 흔들리는 말잔치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시기 형성된 인생관과 삶의 여러 처세 방식은 알팍하고 유치하다. 이 시기가 바로 사람의 유년기이다. 사람은 삶에서 온갖 고초를 겪은 후 비로소 운명을 실감하게 된다. 마음속 깊은 곳과 무의식 속에 운명은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서서히 자리 잡고, 창조주가 인류의 운명을 실제로 주재한다는 사실을 차츰 깨닫게 된다. 이 시기가 바로 사람의 성장기이다. 그러다 사람이 더 이상 운명에 맞서지 않고 각종 분쟁에 휘말리려 하지 않으며, 천명을 알고 하늘의 뜻을 따르며 자기 생의 공로와 잘못을 정리하고, 창조주가 자신의 삶을 심사해 주길 기다리는 시기가 온다. 바로 사람의 성숙기이다. 바로 사람의 성숙기이다. 세 단계의 삶에 수반되는 다양한 경험과 수확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창조주의 주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다. 한 사람의 수명이 60 세라면 하나님의 주재를 깨닫는 데에 주어진 시간은 30 년 정도에 불과하다. 충분히 오래 살거나 100 세까지 장수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주재를 깨닫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일반적인 생존의 법칙에 따라 보면, 한 사람이 ‘창조주의 주재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접하고 창조주의 주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그리고 창조주의 주재에 순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러한 성과를 얻는 데에 주어진 시간은 30~40 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람은 늘상 복을 받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에 눈이 멀어 삶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창조주의 주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한다. 그로 인해 이 세상에 와서 인생과 창조주의 주재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실감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고 하나님이 사람의 결말을 조속히 정해, 되도록 빨리 하나님의 참모습을 목격하고 복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대역무도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들이다. 반대로 제한된 세월 가운데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창조주의 주재를 깨닫는 사람은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품은 서로 다른 희망을 통해 그들의 전혀 다른 관점과 추구하는 바가 드러났다. 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비열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그의 주재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의 주재에 순종할 생각도 없이 제멋대로 살아간다. 이러한 사람은 타락을 자초하는 자들이고 파멸될 부류이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의 권병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해 드리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사람은 빛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쨌든 사람의 선택은 부질없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지속될지를 결정할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에 따르고 그의 주재에 순종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지배에 따르지 않겠다고 한들 어찌겠느냐? 하나님이 손해 볼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지배에 따르지 않고 너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너 자신이다. 하루빨리 하나님과 협력하고 그의 지배에 따르며, 그의 권병과 그가 사람을 위해 행한 모든 것을 깨닫는 사람은 희망이 있다. 이런 사람의 삶은 헛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35)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권병 아래에 있으며, 모든 사람은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를 받아들인다. 사람이 살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시행착오를 겪어도, 결국에는 창조주가 정해 놓은 운명의 길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창조주의 권병이며, 또한 창조주가 권병으로 만물을 주재하고 다스리는 방식이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창조주의 이러한 권병이 있고, 이러한 주재와 다스림의 방식이 있기에, 만물은 질서 정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인류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끊임없는 윤회를 반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세상이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매일, 매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이러한 사실에 눈을 뜨고 정도는 다르겠지만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진리에 대한 너희들의 경험과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따라 느끼는 바가 깊을 수도 얕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대해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는 진리의 실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가 사람의 순종 여부에 따라 존재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이런 권병이 사람의 순종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권병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재한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의 운명과 만물을 주재하고 안배한다. 이는 사람의 변화나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며, 시간과 공간, 지리적인 변화로 인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권병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재를 알고 받아들이고, 그의 주재에 순종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이 사실을 조금도 바뀌게 하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주재에 대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든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과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의 주재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도 너의 운명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재 아래에 있다. 네가 하나님의 주재를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권병은 변함없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권병과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은 사람의 의지와 기호, 선택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병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천지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의 권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 자신이고, 유일무이한 권병을 갖고 있으며, 그의 권병은 그 어떤 사람이나 일, 사물, 공간, 지리적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권병을 시행하고 큰 능력을 나타낸다. 그는 경영 사역을 계속하며 만물을 주재하고, 공급하며, 지배한다. 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사실이자 영원불변한 진리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36)

하나님의 권병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와 실천

하나님의 권병과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사람은 어떤 태도로 대하고 알아 가야 할까? 이는 모든 사람의 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이다. 네가 실생활에서 문제에 맞닥뜨릴 때 하나님의 권병과 주재를 어떻게 느끼고 깨달아야 할까?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여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체험해야 하는지 모를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네게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염원과 실재가 있음을 보일 수 있을까? 우선 너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다음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런 후에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이 너에게 안배한 사람과 일과 사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점차적으로 너에게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는 말이다.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람과 일, 사물 가운데 하나님의 애쓰는 마음을 살피고 깨닫는 것이다. 그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사람이 행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도를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얻고자 하는 성과와 맺고자 하는 결실을 아는 것이다. ‘순종한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람과 일, 사물, 그리고 그의 주재를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창조주가 어떻게 사람의 운명을 주재하고, 어떻게 그의 생명을 사람에게 공급하며, 어떻게 진리를 사람 안에 만들어 넣는지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안배와 주재 아래에서 모든 일은 자연의 섭리대로 흘러간다. 하나님이 주재하고 안배한 모든 것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했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구할 줄 알아야 하며,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권병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이자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다. 너희가 많은 노력을 들여 이런 태도와 소양을 갖춰야만 진정한 실체에 진입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37)

하나님을 유일무이한 주재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받는 첫걸음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권병’에 대한 진리를 진지하게 대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 이런 진리들은 모든 사람의 삶과 관계가 있고, 모든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일생에서 거치게 되는 중요한 관문들과도 관련될 뿐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주재를 알아야 하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권병을 대해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와도 관련된다. 당연히 모든 사람의 종착지와도 관계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평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네가 하나님의 권병을 직시하고 그의 주재를 받아들이는 때 하나님의 권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차츰 인식하고 체득하게 된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권병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주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의 주재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권병을 진정으로 느끼거나 깨닫지 못하면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수십 년간 믿었다고 해도 인생에서 얻은 바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깨달은 바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는 얼마나 슬픈 일이나? 따라서 인생의 길을 얼마나 걸어왔든, 현재 나이가 몇 살이든, 앞으로 갈 길이 얼마나 남았든, 우선 하나님의 권병을 인정하고 직시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이 너의 유일한 주재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진리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모든 사람이 완수해야 할 과제이자 인생을 알고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고, 매일 마주해야 하는, 하나님을 알아 가는 기본적인 공과이자 일상이다. 이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지름길로 이런 목표에 이르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알려 주겠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주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사람의 유일한 주이고, 유일한 운명의 주재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주재할 수 없고 운명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든 타인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그것을 지배하고 안배하거나 좌우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만이 사람의 모든 것을 주재할 수 있다.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만이 인류의 운명을 주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권병을 가지고 있기에 창조주만이 인류의 유일무이한 주재자이다. 하나님의 권병은 창조된 인류를 주재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하는 비(非)피조물, 우주와 별들도 주재한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를 바꾸지 못한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도 요행심을 품은 채 자신에게 특기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현재의 처지를 바꾸거나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인위적인 노력을 빌어 명예와 부를 얻고 출세를 하는 등 운명을 바꿔 보려는 자가 있다면, 자기 무덤을 제 손으로 파며 고생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 말해 주겠다! 너는 조만간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고, 자신이 헛수고를 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운명에 맞서려는 야심과 욕망, 반역적인 행동으로 인해 그릇된 길로 빠지게 될 것이며,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 당장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진리를 점차 깊이 체험하게 될 때면 오늘 내가 한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마음과 영이 있는 사람인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는 하나님의 주재와 진리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이것들은 네가 하나님의 권병을 진정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지도 결정한다. 네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를 느껴 본 적이 없고 그의 권병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는 황폐하기 그지없는 사람이며 분명 하나님이 혐오하여 버리는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너 자신이 가는 길과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는 시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재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권병에 순종하고,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주재에 대해 진실한 체험을 하게 되며, 진정 창조주 앞에 복종하게 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재를 깨닫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진실로, 확실히 깨닫고 이에 순종한다. 이런 사람은 죽음이 닥쳤을 때 읍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읍처럼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며, 개인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려 하거나 무엇을 바라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창조된 인류의 신분으로 창조주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3>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38)

사람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5~17)

여자에 대한 뱀의 유혹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서 뱀이 가장 교활하였더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죽지 않을 수도 있노라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분별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니라”(창 3:1~5, 중국어성경 직역)

이 두 구절은 창세기에서 가져온 것이다. 모두 익숙한 구절이 아니더냐? 이는 처음 인류가 막 창조되었을 때 일어났던 실제 일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명령을 했는지 살펴보자. 이 명령은 오늘 우리가 교제할 주제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몇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느냐? 먼저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지 알려 주었다. 각종 나무의 실과는 위험하지 않고 독이 없어 사람이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다. 두 번째 내용은 경고다. 이 경고에서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고 알려 주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이 실과를 먹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이 말씀은 직설적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네가 그 이유를 몰라도 그 말씀을 규례나 명령으로 여겨 지킬 수 있느냐? 당연히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느냐? 하지만 사람이 지킬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명확하다.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이고,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 주었다. 하나님의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실하지 않더냐? 기만하는 것이냐? 거짓됨이 있느냐? 헐박을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사람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 주었다. 이 말씀 안에 숨겨진 다른 뜻이 있느냐? 아주 직설적이지 않더냐? 추측할 필요가 있느냐? (없습니다.) 추측할 필요가 없다. 뜻을 한 번에 바로 알 수 있으니, 아주 명확하게 느껴진다. 하나님이 하려는, 그리고 표현하려는 말씀은 바로 그의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매우 깨끗하고 직접적이며 분명하다. 말씀 속에는 풍자나 숨겨진 다른 뜻이 있지 않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였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을 먹을 수 없는지 알려 주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조금의 거짓도 없는 하나님의 투명하고 진실한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알아서 하라’라는 뜻은 없다. 하나님은 마음속 생각을 그대로 말씀한다. 만약 내가 이 몇 구절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면, 아마 너희는 별것도 아닌 것을 억지로 크게 부풀려 해석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조금해하지 말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 보아라.

다음은 ‘여자에 대한 뱀의 유혹’에 대해 말해 보자. 뱀은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6 천 년 경륜에서 부각물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교제할 때 언급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겠느냐? 사람이 사탄의 사악과

패괴, 그리고 사탄의 본성을 모르면 인정하지 못하며, 거룩함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 사람은 어리석게도 사탄의 행위가 아주 정당하다고 여긴다. 사람이 이러한 패괴 성품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다. 부각할 것도 비교할 것도 없이는 무엇이 거룩함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사탄을 언급해야 한다.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고 해서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언행을 통해 사탄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인간을 패괴시켰는지, 그리고 본성은 어떠하며 몰골은 또 어떠한지를 보는 것이다. 여자는 뱀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녀에게 한 말씀을 뱀에게 전했다. 여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말씀이 정확하다고 확신했느냐? 확신하지 못했다. 그렇지 않느냐? 막 창조된 사람으로서 그녀에게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사물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었다. 그녀가 뱀에게 한 말을 통해,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가 이러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여자의 태도를 본 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가 죽지 않을 수도 있노라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분별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니라(중국어성경 직역)”. 이 말에 문제가 있느냐? 이 말을 보고 뱀에게 다른 속내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느냐? 뱀에게 어떤 속내가 있었느냐? (사람을 유혹해 죄를 짓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뱀은 여자를 유혹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려 했다. 하지만 뱀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뱀이 교활하다는 것이다. 뱀은 돌려 말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뜻을 전하면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자기 마음속에 숨겨 둔 목적을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뱀의 교활한 부분이다. 사탄은 항상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다. 사탄이 “죽지 않을 수도 있노라”라고 말했는데, 그 말도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무지한 여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 뱀은 자신의 말이 효과가 있었기에 기뻐했다. 이것이 바로 뱀의 교활한 속셈이다. 그리고 뱀은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결과물을 꺼내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여자를 유혹했다. 사람은 잠깐 생각하더니, ‘눈이 밝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라고 여겼다. 뱀은 이어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분별할 것이다.”라고 사람에게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잘 모르는, 일단 들으면 엄청난 유혹을 느낄 말을 했다. 이 말이 사람을 유혹하기에 매우 효과적이지 않느냐? 누군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느냐? “당신은 다른 곳은 다 예쁜데 코가 좀 낮네요. 코만 더 높이면 세계적인 미녀가 될 거예요!” 성형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도 이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이게 유혹하는 말이 아니냐? 이 유혹이 너를 꼬시는 것이 아니냐? 한번 떠보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더냐? 방금 본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뜻이 조금이라도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속 생각을 그대로 말씀하지 않더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네.) 하지만 뱀이 사람에게 한 말들에서는 그것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무지함 때문에 사탄의 말에 쉽게 유혹되어 꾀에 빠진다. 그렇다면 사탄의 그 속셈은 알 수 있느냐? 사탄이 한 그 말의 목적은 알 수 있느냐? 사탄의 음모와 간계를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습니다.) 사탄이 말하는 방식은 사탄의 어떤 성품을 대변하느냐? 사탄의 그런 말에서

너는 사탄의 어떤 본질을 보았느냐? 음험함이 아니냐? 사탄이 겉으로는 너를 향해 웃거나 무표정으로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리저리 궁리하고 있다. 그 목적은 네가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탄이 너에게 말하는 약속과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를 유혹하는 요인이 되어 너는 그런 것들을 좋게 보고,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유용하고 실속 있다고 느끼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포로가 되어 따르지 않겠느냐? 사탄의 이런 수법은 악랄하지 않느냐? 사탄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네가 스스로 타락하게 만든다. 그저 몇 마디 말로 그를 따르게 만들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아주 사악한 속셈이 아니냐? 이것이 사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냐? 사탄의 말에서 사람은 사탄의 사악한 속셈과 추악한 몰골, 그리고 사탄의 본질을 보았다. 그렇지 않느냐? 이 대조되는 말들을 분석해 보지 않는다면,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평범하고 일반적이며, 통속적이어서 하나님의 성실함을 크게 확대하여 찬양할 정도는 못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사탄의 말과 추악한 몰골을 통해 부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매우 비중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부각물을 통해 하나님의 티끌 하나 없는 순수함을 느낄 수 있다. 사탄의 말에는 모두 속셈과 속내, 말하는 방식 같은 각종 불순물이 섞여 있다. 사탄이 말하는 방식은 주로 어떤 것이 있느냐? 빙빙 돌려 말하며 유혹한다. 그러니 너는 사탄의 진짜 목적을 볼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다. 너는 스스로 속아 넘어가 사탄을 찬미하고 그것의 공덕을 찬양하게 된다. 이것이 사탄의 일관된 수법이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4>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39)

사탄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율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율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욥 1:6~11)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율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찌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욥 2:1~5)

이 두 구절은 모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고 사탄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지 않고 매우 간단했다. 이 간단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느냐? 쉽지 않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탄의 대답에서 사탄의 추악함을 볼 수 있느냐? (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 살펴보자.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말씀은 직설적이지 않느냐? 숨겨진 다른 뜻이 있느냐? (없습니다.) 순수한 질문일 뿐 다른 속셈이나 불순물이 전혀 없다. 만약 내가 너희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면 너희는 어떻게 답할 것이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냐? 너희는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다고 답할 것이냐?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물음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느냐? (참 터무니없고 간사하다고 느껴집니다.) 나는 어떻게 느꼈는지 아느냐? 나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혐오감이 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이냐? 이 말은 대답이 아니다. 결과가 없다. 하나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녔나이다”, 이 구절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사탄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너희는 그 답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탄 간계의 ‘교묘함’이다. 그 누구도 사탄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 길이 없다. 다 듣고 나서도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는데, 사탄은 대답을 끝내고 스스로 훌륭하게 답했다고 여긴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혐오스럽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을 혐오하게 되었구나. 사탄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며 상대가 갈피를 못 잡고 영문을 모르게 만든다. 어떨 때는 다른 속셈이 있다. 사탄은 자신의 본질과 본성에 지배받기 때문에 입을 열면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때도 있다. 오랜 시간 생각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다. 네가 사탄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 그것은 장황하게 대답하여 어디서 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게 만든다. 너희 중에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느냐? (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불분명하고 모호하게 말하며 정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성동격서(聲東擊西) 식으로 진위를 구분 못 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는 마치 어떤 이가 자신이 어제 어디에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때 하는 말과 같다. 네가 그에게 “어제 어디 갔었어요? 어제 당신을 봤는데요.”라고 물었는데, 그가 “어제요, 정말 피곤했어요!”라며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그가 너의 말에 대답을 했느냐? 대답은 했다. 하지만 원하는 답을 주지는 않았다. 이것이 바로 화법의 ‘교묘함’이다. 너는 늘 그의 뜻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없으며, 그가 하는 말의 근원과 속셈을 알 수 없다. 또한 그가 무엇을 피하려는 건지 알 수 없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음험하다고 한다. 너희도 자주 이런 식으로 말하느냐? (네.) 그렇다면

목적이 무엇이나? 어떤 때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때는 자신의 지위, 이미지, 사생활의 비밀,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러는 것이냐? 어찌 됐든 모두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는 본성이 아니더냐? 이런 본성을 가진 자는 사탄의 친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이는 반감이 드는 혐오스러운 부분이 드러난 것이다. 이제 너희도 혐오감을 느끼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자. 사탄은 또 여호와께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은 욥에 대한 여호와와 평가에 적의를 담아 공격하기 시작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이는 여호와가 욥에게 한 일들에 대한 사탄의 인식과 평가이다. 사탄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늘 불분명하고 모호하게 말하던 사탄이 여기서는 명확하게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 즉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공격이자 모독이며 반항인 것이다. 사탄의 이런 말을 듣고 나니 너희는 어떠하냐? 반감이 드느냐? 사탄의 속셈이 보이느냐? 먼저,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는 여호와와 평가를 부정했다. 그리고 사탄은 욥의 모든 언행, 즉 여호와를 향한 욥의 경외심을 부정했다. 이는 사탄이 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탄은 여호와가 행한 것과 말쑥한 것을 참소하고 부정하고 의심하였다. 그는 믿지 않았던 것이다. “당신 말씀이 그러해도, 왜 내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나이까? 욥에게 그리 복을 내려 주시는데 그가 어찌 당신을 경외하지 않겠나이까?” 이는 하나님의 행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참소, 부정, 모독이 담긴 이 말은 공격적이지 않느냐? 이 말은 사탄의 마음속 생각이 진실로 드러난 것이 아니냐? 방금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녀 왔나이다”라는 말과는 완전히 양상이 다르다. 이 말 한마디에서 사탄이 마음속에 품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 대한 증오심이 확연히 보인다. 그때는 사탄의 악랄함과 사악한 본성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 자를 증오하고, 여호와가 복을 준 자는 더욱 증오한다. 사탄은 이 기회를 빌려 하나님이 손수 인도해 키운 욥을 해하려 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께서 욥이 주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고 하시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나이다.” 사탄은 갖은 수단으로 여호와를 진노케 하고 시험했다. 또한, 어떻게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욥을 넘겨받아 마음대로 다루며 우롱하고 해하려 했다. 이 기회를 틈타 하나님이 보기에 의인이라 순전한 자를 파멸시키려 했다. 사탄은 충동적으로 이런 마음을 먹은 것이냐? 아니다. 사탄의 이런 마음은 이미 오래된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누군가를 보살피고 감찰하면, 사탄은 바로 그 뒤를 따라간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마음에 들어 하면 사탄은 그 뒤를 쫓아가서 살펴본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얻고자 하면, 사탄은 있는 힘을 다해 훼방 놓는다. 갖가지 사악한 방식을 동원해 시험하고 방해하며 하나님 사역을 파괴하여 오직 자신만 아는 숨겨진 목적을 이루려 한다.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사탄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얻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는 사람을 자기가 얻고자 한다. 그리고 그를 점령하고 통제하고 장악해서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함께 악행을 저지르게 하려 한다. 이것이 사탄의 음험한 속내가 아니겠느냐? 평소 너희는 사탄을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나쁜지 종종 말하지만 직접 목도한 적이 있느냐? 사람의 나쁨만 봤지 진짜 사탄이 얼마나 나쁜지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에서 사탄의 나쁨을 보았느냐? (네.) 사탄의 추악한 모습과 본질을 아주 명확히 보여 준다. 사탄이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의 뒤를 쫓아다니는 목적은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모든 사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는 사람을 점령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다. 사탄은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두 멸해 버리거나 자신이 가져 이용하려 한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간단한 한 마디만 나오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너희도 보았듯이 사탄의 행함과 말에 대한 기록은 더욱 많다. 아래 구절에서 여호와가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자 사탄은 어떻게 대답했느냐? (여전히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녔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답이다. 이 말이 사탄의 좌우명이나 대표 어록이 되기라도 한 것이냐? 사탄이 증오스럽지 않느냐? 한 번만 해도 될 이 혐오스러운 말을 왜 매번 되풀이하겠느냐? 이는 사탄의 본성이 변하지 않음을 증명한다. 사탄의 추악한 면모는 그 스스로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물음에도 이러한데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겠느냐! 사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감히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굴고, 매번 똑같은 말로 하나님 물음에 무성의하게 대답하고 대응하여 하나님을 미혹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추한 면모다. 사탄은 하나님의 전능과 권병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순종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사탄은 계속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의 행사를 파괴하려 든다. 이것이 사탄의 사악한 목적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4>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40)

사탄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녔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욥 1:6~11)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녀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읍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울찌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읍 2:1~5)

읍기에 나오는, 사탄이 한 이 두 구절의 말과 행동들은 하나님의 6 천 년 경륜 중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적 사례이며, 사탄 본연의 모습이다. 너는 실생활에서 사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설령 봤더라도 사탄이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것이라 여길 것이다.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대표하느냐? 사탄을 대표한다. 네가 설령 이를 알았다고 해도 정말 사탄이 말하는 것이라고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지금 여기서 사탄 스스로 한 말을 명확히 보았고, 사탄의 추악한 모습과 사악함에 대해 명확하고 뚜렷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사탄이 한 이 두 구절의 말은 현재를 사는 사람이 사탄의 본성을 아는 데 큰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 두 구절은 현재 인류가 사탄의 추악한 면모와 본연의 모습을 아는 데 있어 간직할 가치가 크지 않느냐? 이 말은 비록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뜻은 잘 전달되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너희는 그 의미를 알면 된다. 사탄은 여호와가 하는 일을 거둬들여 공격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읍의 경외심을 참소하였다. 사탄은 여호와에게서 읍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여호와를 진노케 하려 했다. 그래서 사탄의 이 말은 굉장히 도발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말해 보아라. 사탄이 이런 말들을 끝냈을 때, 하나님은 사탄이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히 알지 않았겠느냐? (명확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자신이 감찰하던 읍, 즉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 순전한 자는 그런 시험을 이겨 낼 수 있었느냐? (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단언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은 줄곧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할 수 있겠느냐? 사탄은 하지 못한다. 사탄이 설령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더라도, 그 사악한 본성으로는 절대 거룩한 것을 거룩하다고,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사악한 사탄은 절대로 거룩함과 정의, 광명한 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사탄은 질리지도 않는 듯 본능적으로 자신의 본성과 사악함,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한다. 심지어 하나님께 징벌받거나 멸망당하는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완고하게 반항한다. 이것이 바로 사악함이고 사탄의 본성이다. 그래서 사탄은 또 이렇게 말했다.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울찌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너무 많이 얻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얻어서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얻은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고, 하나님이 베풀었던 것들을 거두어 가면 바로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탄의 사악한 본성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거라 믿지 않는다. 사탄은 사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거룩함이고 경외심인지 모르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사탄이 사악하지 않느냐? 우리 교회를 제외한 각 종교 각 교파, 종교 단체 혹은 사회단체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심판 사역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믿지 않는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여긴다. 또한, 간음하는 자는 누구를 봐도 그 자신처럼 음란해 보이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의 눈에는 누구나 다 솔직해 보이지 않고 모두 거짓말쟁이로 보이며, 악인은 누구를 봐도 악하게 보여 늘 싸우려 든다. 상대적으로 솔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다 솔직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늘 속임수에 넘어가고, 사기를 당하며 늘 방비를 하지 못한다. 내가 이런 예를 든 것은 사탄의 이러한 사악한 본성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드러냄 혹은 환경에 의해 생겨난 것이거나 어떤 이유와 사정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함이다! 사탄은 본능적으로 그런 것이다! 좋은 일은 절대로 하지 못한다. 사탄이 듣기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너를 유혹하기 위한 것이다. 사탄의 말이 듣기 좋고 완곡하고 부드러울수록 뒤로는 더 음흉하고 악독한 속셈을 숨기고 있다. 사탄이 한 이 두 구절의 말에서 너는 사탄의 어떤 면모와 본성을 보았느냐? (음험하고, 악독하며, 사악합니다.) 사탄의 주요 특징은 바로 사악함이다. 아주 사악하고 악독하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4>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41)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한 후 줄곧 인류의 생활을 이끌어 주고 있다. 인류에게 복을 준 것, 율법과 계명을 정해 준 것, 생활에 관련된 많은 규칙들을 정해 준 것 등 하나님이 그렇게 행한 의중과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먼저 하나님이 한 이 모든 일이 모두 사람을 위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느냐? 너희에게 있어 이 말은 비교적 광범위하고 와닿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세세한 부분부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사람을 이끌고 인도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냐? 규례나 율법을 지키게 해서라도 사람이 사탄을 경배하거나 사탄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최초의 목적이었다. 최초에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간단한 율법과 규칙 등 여러 부분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비교적 간단한 규정들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하나님은 인류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한다. 그렇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느냐? (없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목적은 정당하고

긍정적이나? (네.) 하나님이 어떤 규정을 만들었든, 하나님이 역사하는 동안 이 규정들을 통해 이루려는 결실은 모두 사람에게 긍정적인 것이고 사람을 이끄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사로운 생각과 잡념이 있느냐? 다른 목적이 있거나 사람을 이용하려는 생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말씀을 할 때도 이러했고, 일을 할 때도 이러했으며, 또한 마음의 생각도 이러했다. 그 어떤 불순물이나 사사로운 생각과 잡념이 없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사람을 위해서이다. 자신을 위한 목적은 없다. 그는 사람에게 계획이나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가 하는 이 모든 것은 순전히 인류를 위한 것이고, 인류를 보호하고 인류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런 귀한 마음을 사탄에게서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있느냐? 사탄에게서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모두 하나님의 자연적 발현이다. 하나님의 사역 방식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러한 율법과 말씀을 마치 긴고아처럼 모든 사람의 머리에 씌어 강요했느냐? 그런 방식으로 했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행했느냐? (이끌어 주시고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협박하는 것이 있느냐? 너희에게 빙빙 돌려 말하는 경우가 있느냐? (없습니다.) 네가 진리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주느냐? (깨우침과 빛 비춤을 주십니다.) 깨우침과 빛 비춤으로 진리에 맞지 않는 것들과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 준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 방식을 보면서 그와 너의 관계가 어떻다고 느꼈느냐? 하나님이 가까이할 수 없는 높은 존재라고 느꼈느냐?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느꼈느냐? 거리가 없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느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끌고 공급하며, 도와주고 붙들어 줄 때, 하나님은 정답고 존경스러우며 사랑스럽고 따뜻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의 패괴를 꾸짖거나 너의 패역을 심판하고 징계할 때, 또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 말씀으로 꾸짖지 않느냐? 환경이나 사람과 일, 사물로 징계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십니다.) 그 징계의 정도는 어떠하냐? 사탄처럼 사람을 해하는 지경까지 가느냐? (아닙니다. 사람이 감수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방식은 부드럽고, 섬세하며, 사랑이 넘치고, 매우 애뜻하다. 또한 적절한 수위와 정도가 있어 너무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이 감당하기 힘들게 ‘무조건 이래라저래라’ 강요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심지어 네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느낌이 들더냐? 하나님의 권병과 위력을 느낄 때는 어떤 기분이더냐? 하나님의 신성불가침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지더냐? 하나님이 무섭더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느껴진다. 하나님의 행사가 있었기에 모든 사람이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더냐? 사탄이 역사할 경우 이런 느낌이 들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진리와 생명으로 끊임없이 사람에게 공급하고 사람을 붙들어 준다. 사람이 연약하고 소극적일 때, 하나님은 “소극적으로 굴지 마라! 소극적이고 연약해질 일이 뭐가 있느냐? 너는 언제나 이렇게 연약하고 소극적인데 살아서 뭐 하겠느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며 강압적으로

말씀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할 권병이 있느냐? (네.) 하지만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 때문이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아낌과 사랑, 귀히 여김은 사람이 한두 마디로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자랑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실제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본질의 발현이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방식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고심, 사람에게서 이루려는 성과, 사람에 따라 취하는 다양한 방식, 또 어떤 사역을 하고 사람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 주려고 하든,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 방식과 이런 애쓰는 마음에서 그 어떤 사악함이나 간사함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행사와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게서 발현되는 모든 본질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느냐? (네.) 이러한 거룩함을 인간 세상이나 너희 자신에게서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 외에 사람이나 사탄에게서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서, 하나님을 유일무이한 거룩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사람에게 취한 여러 방식, 사람에게 알려 주고 일깨우고 권면한 것들 같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 이런 거룩한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해 이런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사람을 완전히 사탄에게 넘겨줬다면, 너희가 지금 어떤 지경에 처해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어디 여기 온전히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고 뻔뻔스럽게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며 큰소리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랬을 겁니다.) 100% 그럴 것이다. 하고도 남았을 테지! 사람에 대한 사탄의 태도에서 사탄의 본성, 사탄의 본질이 하나님과 완전히 다름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대조되는 사탄의 본질은 무엇이나? (사악함입니다.) 사탄의 사악한 본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은 대조적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러한 발현과 거룩한 본질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의 패괴 속에서, 그리고 그의 활동 반경 내에서 살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제 거룩함이 무엇인지, 또 거룩함을 어떻게 정의할지 모른다. 설령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낄 때도, 너는 이를 하나님의 거룩함이라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람의 인식 간 차이가 이러하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4>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42)

사탄이 사람에게 행한 것은 어떤 대표적 특징이 있느냐? 너희는 체험을 통해 사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어느 정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사탄은 자주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려고 시도한다. 너희는 아마 그런 특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이 무섭거나 가증스럽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 특징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있느냐? (사탄이 하는 모든 짓은 사람을 해칩니다.)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해친다는

것이나? 구체적인 행동과 자세한 내용을 말해 보겠느냐? (피어내고 유혹하며 시험합니다.) 그렇다. 그런 행동들을 보인다. 또한 미혹하고 공격하며 참소한다. 다 맞는 말이다. 또 있느냐? (거짓말합니다.)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본성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사탄은 거짓말을 자주 하는데 별로 생각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입만 열면 청산유수다. 또 있느냐? (이간질합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설명해 주면 너희는 아마 듣고 등골이 오싹해질 것이다! 너희를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는 사역, 하나님의 태도와 마음은 사람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반면, 사탄은 사람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느냐? 사탄은 그렇지 않다. 사람을 해할 궁리만 한다. 그렇지 않느냐? 사탄이 사람을 해하려고 궁리할 때, 그 마음은 다급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사람에게 역사할 때, 사탄의 악독하고 사악한 본성을 잘 드러내 주는 두 개의 단어를 통해 너희는 사탄의 가증스러움을 잘 깨달을 수 있다. 바로 사탄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강제로 점령하고 들러붙음으로써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고 해치려는 목적과 야심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다. ‘강제 점령’은 무슨 뜻이냐? 네가 원하는 상태이겠느냐, 원하지 않는 상태이겠느냐? 네가 알 때이냐, 모를 때이냐? 네가 모를 때이다! 네가 아무것도 모를 때, 사탄은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아무 짓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아무런 전제나 배경도 없이 너의 주위를 맴돌며 기회를 노리다 강제로 점령하고 들러붙음으로써 너를 완전히 통제하고 해치려는 목적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인류를 빼앗기 위한 사탄의 가장 전형적인 속셈과 행동이다. 이 말을 듣고 너희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모골이 송연해지고 겁이 납니다.) 혐오스럽지 않느냐? (혐오스럽습니다.) 혐오감이 들면서 사탄이 뻔뻔하다고 느껴지지 않느냐? 사탄의 뻔뻔함을 느끼고 보니, 너희 주변에서 항상 너희를 통제하려는 자들, 지위와 이익에 대한 야심이 큰 자들이 혐오스러워 보이지 않느냐? (혐오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에게 강제로 들러붙어 점령하는지 명확하게 알겠느냐? ‘강제 점령’이나 ‘들러붙다’라는 말을 들으면 혐오감이 들고 사악함이 느껴진다. 아직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고, 아직 동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탄은 너에게 들러붙어 너를 강제로 점령하고 패괴시킨다. 너는 어떤 기분이겠느냐? 증오스럽고 혐오스럽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네가 사탄의 이런 수법에 대해 증오심과 혐오감을 느낄 때,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이 느껴지느냐?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재하길 바라는 소망이나 의지가 있느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이냐? 사탄이 강제 점령하고 들러붙을까 봐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서도 안 된다. 그러는 것도 옳지 못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너는 사탄의 사악한 본질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고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성품에 대해 더 정확히 알거나 귀하게 여기게 된다. 사탄이 그렇게 증오스러운데도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기대려는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다면, 너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사탄이 그런 식으로 너를 해하길 바라는 것이냐? 사탄의 사악함과 추악함을 보고 난 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좀 생겼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거룩함’이라는 칭호를 감당할 수 있느냐? (네.) 세상 만물 중,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사람의 이러한 인식에 걸맞지 않느냐? 또 다른 존재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것은 대체 무엇이나? 네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보호와 관심, 보살핌을 조금 주는 것이 전부이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줬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주었다.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속셈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람에게 베풀어 주었다. 진리와 말씀과 자신의 생명으로 사람을 이끌고 인도하여, 사탄의 해함과 시험, 유혹을 멀리하고 또한 사탄의 사악한 본성과 추악한 면모를 간파해 제대로 보게 해 주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뜻함이 진실하지 않더냐? 너희 모든 사람이 다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4>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43)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 온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너에게 행한 것을 돌이켜 보아라. 그 느낀 바가 깊은 얕든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더냐? 네가 가장 얻어야 할 것이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더냐? 생명이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전에 너를 깨우쳐 주었던 아니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고 난 후 보답하라거나 갚으라고 한 적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목적도 너를 점유하려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보좌에 오르려는 것이냐? (네.) 그렇다면 마음의 보좌에 오르는 것과 사탄이 강제로 점령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고 점유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이나? 사람을 하나님의 꼭두각시나 로봇으로 만들려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점유하는 것과 사탄이 강제로 점령하거나 들러붙는 것은 차이가 있느냐?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느냐? (사탄은 사람에게 강요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자발적인 뜻에 맡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가져 뭐 하겠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희를 점유해 뭐 하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점유한다’는 말을 너희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제대로 말해야 한다. 안 그러면 사람은 늘 오해를 한다. ‘하나님이 늘 나를 점유하려 하시는데 대체 무엇 때문일까? 나는 점유당하고 싶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사탄이 사람을 점령한다더니 하나님도 사람을 점유하시는구나. 다를 게 없지 않은가! 나는 나야. 그 누구에게도 점유당하고 싶지 않아!’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곰곰이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먼저 너희에게 묻겠다. ‘하나님이 사람을 점유한다’는 것이 그저 허울뿐인 말이나? 하나님이 사람을 점유하는 것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 모든 언행을 지배하는 것이냐? 앓으라 하면

감히 서지 못하고, 동쪽으로 가라 하면 감히 서쪽으로 갈 수 없는 것이냐? 이런 의미의 점유란 말이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세월 사람을 경영해 오면서 사람에게 행한 사역들, 그리고 오늘날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한 모든 말씀이 사람에게서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느냐?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점유한다’는 말을 글자 그대로 보면 마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차지해 그 안에서 살고 나오지 않는 것 같다. 또한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무엇을 하라고 하면 사람은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갖출 수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사람도 하나님의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의 ‘점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너희에게 묻겠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급한 모든 말씀과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과 소유와 어떠함의 발현이 아니냐? (맞습니다.) 이는 확실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급한 말씀들은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행하고 갖추야 할 것들이냐?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할 때, 무엇 때문에 사람을 심판하느냐? 이런 말씀은 어떻게 온 것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사람의 패괴 성품에 근거한 것이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심판하여 이루는 성과는 하나님의 본질에 근거한 것이냐?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점유하려 한다는 것은 허울뿐인 말이나? 분명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했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한 목적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들로 사람의 생명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한 이 모든 진리를 사람의 생명이 되게 하려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말씀을 사람 자신의 생명이 되게 할 때,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악에서 떠날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이 이 경지에 이르면, 이미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권병 아래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욕이나 베드로처럼 길의 끝에 이르렀을 때, 생명이 성숙했다고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될 때, 그때도 사탄이 그들을 데려갈 수 있겠느냐? 여전히 그들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 강제로 그들에게 들러붙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자들이냐? 완전히 하나님께 얻어진 자들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얻어진 자들을 너희는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볼 때, 이는 하나님이 이미 사람의 마음을 점유한 상태이다. 하지만 사람이 보기엔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권병, 하나님의 도가 사람 안에서 생명이 되어 사람의 전부를 점유하였고, 그 사람의 삶과 본질이 하나님을 흡족게 하는 경지에 이르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있어 바로 이때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점유된 순간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너희는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를 점유한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도가 너의 생명이 되었고, 진리가 너의 생명이 된

것이다. 이때,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생긴다. 하지만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 말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이 갖춰야 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따랐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말씀을 얻었든,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설령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을 점유했고, 너는 내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씀할지라도, 너는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릴 수 없습니다.) 그때 너는 어떻게 바뀌겠느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겠느냐?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준 생명이 가득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점유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정상적인 상태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본질을 가질 수 있겠느냐?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때든 사람은 결국 사람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네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과 도를 받아들여도, 너는 그저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가진 것일 뿐, 영원히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4>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44)

사탄의 시험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마 4:1~4)

이는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에게 한 말이다. 어떤 내용이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이 말은 간단하지만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말이 아니냐?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했다. 그럼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겠느냐? 그가 그리스도임을 몰랐겠느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만일’이라고 했겠느냐?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시험한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는 것이다. 마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렇게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귀는 순종하거나 경배하였느냐? (아닙니다.) 마귀는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이냐? 그런 방법, 그런 말로 예수를 격노하게 하여 꼬임에 빠지도록 유인하려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가 자신의 뜻대로 행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사탄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다. 이것이 사탄의 본성 아니겠느냐? 사탄의 본성은 어떠하냐? (교활하고 사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느냐?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사탄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격했다. 그러고는 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했다. 이것은 사탄의 음흉한 속셈 아니겠느냐? 사탄은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사탄의 의도는 아주 분명하다. 즉, 그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신분을 부인하려 한 것이다. 사탄의 그 말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 그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사탄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허물거나 망치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악독함이다. 사탄의 악독함은 본성에서 자연스레 나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육신 하나님임을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짓, 그러니까 하나님을 뒤쫓고, 계속 공격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망치는 짓을 하는 것이다.

다시 사탄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한 말을 분석해 보자.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나? 있는 음식을 먹으면 될 것을 왜 굳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냐? 이는 무의미한 일 아니더냐? 그때 예수가 금식을 하고 있긴 했으나 설마 먹을 것이 없었겠느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탄이 한 그 말이 얼마나 황당한지 알 수 있다. 또 사탄이 아주 음험하고 악독하지만 한편으로는 황당하고 터무니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사탄이 한 일들을 통해 사탄의 악독한 본성과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는 짓들을 보고 있자면 너무나 가증스럽고 화가 난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이 한 그런 일과 말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몹시 유치하고 황당하지 않느냐? 이는 사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 본성이 있기에 그런 짓을 한 것이다. 지금 사람이 그 말을 보면 황당하고 가소롭기 짝이 없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말을 꺼냈다. 그러니 사탄을 무지하고 그릇되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탄의 사악함은 어디서나 시시각각 드러난다. 예수는 어떻게 대답하였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강력하지 않느냐? (강력합니다.) 이 말씀이 강력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럼 사람이 살려면 떡에만 의지해야 하느냐? 예수는 사십 주야를 금식했다. 그가 아사하였더냐? (아닙니다.) 그가 아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다가와 그런 말을 하며, “돌을 떡으로 만들면 먹을 것이 생기지 않느냐? 그럼 금식을 할 필요도, 굶주릴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다. 하지만 예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사람이 비록 육으로 살고 있으나 사람의 육을 살게 하고 숨 쉬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이다. 이 말씀은 진리로,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어 하나님을 진리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씀에 그의 실제적인 면도 담겨 있지 않느냐? 예수는 사십 주야를 금식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냐? 살아 있지 않았더냐? 이것이 실례(實例) 아니겠느냐? 예수가 사십 주야를 금식했음에도 살아 있었다는 것이 이

말씀의 강력한 증거이다. 간단한 말씀이긴 하나 예수는 사탄이 그를 시험할 때 그제서야 이 말씀을 한 것이냐, 아니면 원래부터 이 말씀을 갖고 있었던 것이냐?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곧 진리이고 생명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은 후천적으로 생겨난 것이냐? 후천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즉, 하나님의 본질이 진리이자 생명이다. 어떤 일이 임해도 그에게서 발현되는 것은 다 진리이다. 그가 말한 내용이 길든 짧든 그 진리, 그 말씀은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 또한 사람이 그 말씀에서 진리를 얻게 하고, 인생의 길을 알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다. 즉, 하나님이 한 이 말씀의 근원은 긍정적인 것이다. 그럼 긍정적인 것을 거룩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사탄이 한 말은 사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사탄은 언제 어디서나 사악하고 악독한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아니더냐? 사탄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자가 있더냐? 도와준 자가 있더냐? 협박한 자가 있더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나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사악한 본성이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 사탄은 그 뒤를 쫓는다. 사탄이 한 행동, 말의 본질과 본색이 바로 사탄의 본질, 즉 사악하고 악독한 본질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5>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4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마 4:5~7)

우선 사탄이 한 말을 살펴보자. 사탄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라고 했고, 또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였다. 사탄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느냐? 굉장히 유치하지 않느냐? 유치하고 황당하며 역겹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사탄은 항상 어리석은 짓을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스스로 아주 똑똑하다고 여기며 늘 성경 말씀, 심지어 하나님이 했던 말씀까지 인용한다. 이런 말을 통해 역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시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 계획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다. 사탄이 한 말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사탄의 사악한 속셈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짓은 언제나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다.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사람을 시험하고 유인하고 유혹하는 방식으로 빙 둘러 말한다. 사탄은 평범한 사람을 시험하듯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도 사람처럼 우매하고 어리석으며 사물의 본모습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고, 또한 그것의 본질, 교활함과 음흉한 속셈을 간파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어리석은 면 아니겠느냐? 또한, 사탄은 당당하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의 말이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다고 여겼다. ‘당신이 무슨 빈틈을 찾을 수

있겠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사탄의 터무니없고 유치한 점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지 않더냐? 너희도 비슷한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지 않더냐?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하더냐? 역겹지 않더냐? (역겹습니다.) 역겨운 마음이 들면서 혐오감과 증오심이 생기지 않더냐? 그럴 때면 사탄, 그리고 사탄에 의해 생성된 패괴 성품이 사악한 것임을 깨닫게 되지 않더냐? 그런 느낌이 들 때, ‘사탄의 말은 공격성과 유인책을 담고 있어 참으로 황당하고, 가소로우며, 유치하고 역겹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행사를 보면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거나 사역하신 적이 없어. 그런 방식은 한 번도 없었다고.’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냐? 물론 그때도 사람은 그런 느낌만 들 뿐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지는 못한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의 현재 분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야. 우리에게 이로우니 받아들여야 해.’라는 정도만 느낄 뿐이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는 상관하지 않고 모두가 입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리 자체가 곧 거룩함이요, 하나님이 곧 거룩함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다.

그럼 방금 사탄이 했던 말에 예수는 어떻게 대답했느냐? 예수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라고 했다. 예수의 이 말씀에 진리가 담겨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진리가 담겨 있다. 겉보기에는 명령의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 같아도 사람과 사탄은 이를 자주 거스른다. 그래서 예수는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한 것이다. 사탄은 항상 그렇게, 그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사탄의 본성과 본질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경외심도 없다. 사탄은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을 보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 때문에 예수는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항상 한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유효하지 않느냐? (유효합니다. 저희도 자주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도 자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겠느냐? 사람에게 사탄의 패괴 성품이 가득하기 때문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위에서 사탄이 했던 말들을 사람도 자주 하지 않더냐? 어떤 상황에서 말하느냐? 사람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한다. 이는 사람의 성품이 사탄의 패괴 성품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증거이다. 예수는 아주 간단한 말씀을 했지만, 이는 진리를 대변하는 것이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가 사탄과 전쟁을 벌이며 한 말씀이 있더냐? 사탄과 맞붙어 싸우면서 한 말씀이 있더냐? (없습니다.) 그는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역겹고 혐오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그렇습니다.) 혐오스럽고 역겹다고 느끼면서도 그는 사탄과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 사탄에게 큰 이치를 설명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 왜 그랬겠느냐? (사탄은 줄곧 그렇게 해 왔고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치로 깨우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진리임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영원히 알지도, 인정하지도 못한다.

이것이 사탄의 본성이다. 사탄의 본성에 혐오스러운 점이 또 하나 있는데 무엇이겠느냐? 사탄은 예수를 시험해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시도해 보려고 했다. 징벌을 받을지라도 그렇게 행동하며, 하나님을 시험해서 얻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런 짓을 계속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맞섰다. 이는 어떤 본성이겠느냐? 사악함 아니겠느냐? 하나님 애기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 하나님 역시 그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그를 건드린 적도 없다. 그런데 그들은 왜 화를 내는 것이겠느냐? 그런 사람을 사악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세상의 풍조며,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이며, 스타를 추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란 단어만 언급해도 성을 내고, 하나님 말씀이나 진리만 언급해도 성을 내니, 이것이 사악한 본성 아니겠느냐? 이것으로 사람의 사악한 본성이 충분히 증명된다. 너희는 진리를 언급하거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시련과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반감이나 혐오감이 들고 듣기 싫은 경우가 있느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모두가 하나님은 진리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어떤 건 진리가 아니라 사람을 꾸짖는 말씀이잖아!’ 심지어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시지. 입만 열면 시련이요, 심판이요 하는 것들뿐. 도대체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 거지? 언제쯤이면 좋은 종착지에 이를 수 있는 거냐고!’라며 반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 이런 원인 모를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는 어떤 본성이겠느냐? (사악한 본성입니다.) 이는 사탄의 사악한 본성으로 초래된 것이다. 하나님은 사탄의 사악한 본성이나 인류의 패괴 성품에 대해 사람과 언쟁을 벌이거나 따진 적이 없고, 또는 사람의 우매한 행동을 크게 문제 삼은 적도 없다. 하나님에게서는 인류가 특정 사물에 대해 갖는 관점 같은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인류의 관점이나 지식, 과학, 철학, 상상으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은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 반대로 하나님이 행하고 나타낸 모든 것은 진리와 관련이 있다. 즉, 하나님이 한 모든 말씀과 모든 일은 다 진리와 관계가 있다. 그 진리는 터무니없이 상상해 낸 것이 아니다. 그러한 진리와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과 생명으로 인해 발현된 것이다. 그런 말씀과 하나님이 행한 일들의 본질이 진리이므로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행사나 말씀은 사람에게 생기와 빛을 가져다준다. 그리하여 사람에게 긍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의 실재를 보게 하고 길을 알려 줘 바른길을 가게 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에 의해 결정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5>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46)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마 4:8~11)

사탄 마귀는 앞에서의 두 가지 방법이 통하지 않자 또 다른 방법을 택했다. 바로 예수에게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주며 자신을 경배하라고 한 것이다. 여기에서 마귀의 어떤 본모습을 알 수 있느냐? 사탄 마귀는 참으로 뻔뻔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뻔뻔하냐?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 역으로 만물을 보여 주며 “만국의 이 부귀영화를 보라. 당신이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다니,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 뻔뻔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였다고는 하나 그 모든 것을 누리더냐? 하나님은 만물을 인류에게 주었다. 사탄은 이를 삼켜 버릴 속셈을 품고 있었고, 그다음 하나님께 보여 주며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탄의 추악한 몰골 아니겠느냐! 사탄은 ‘수치’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모른다. 여기서 또 사탄의 사악함을 볼 수 있다. 사탄은 수치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사탄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며, 주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만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며 더욱이 사탄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마귀 사탄은 뻔뻔하게 하나님께 이 만물을 주겠다고 말한 것이다. 사탄이 또 한 번 어이없고 낮 두꺼운 일을 저지른 것 아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증오심을 더욱 불려일으켰다. 그렇지 않느냐? 하지만 사탄이 어떤 짓을 하든 예수가 그 꼬임에 넘어갔더냐? 예수는 어떻게 말씀했느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실제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실제 의미가 있겠느냐? 사탄의 말에서는 사탄의 사악함과 뻔뻔함을 알 수 있다. 그럼 인류가 사탄을 경배한다면 어떤 결말을 맞겠느냐? 만국의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사람도 사탄처럼 뻔뻔하고 가소로워지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사탄과 똑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한 예수의 말씀은 모든 이에게 매우 중요하다. 즉 주님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거나 사탄 마귀를 경배한다면, 너는 사탄과 한패가 되는 것이며, 사탄과 똑같이 뻔뻔하고 사악해질 것이고, 사탄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럼 네 결말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께 혐오받아 죽임을 당하거나 멸망되는 것이다. 예수에 대한 몇 번의 시험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을 때, 사탄은 계속해서 시험했더냐? 더 이상 시험하지 않고 떠나갔다. 이로써 무엇이 증명되었느냐? 사탄의 사악한 본성, 악독함, 그릇되고 황당무계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예수는 단 세 마디로 사탄을 물리쳤다. 그리하여 사탄은 수치를 당하고 풀이 죽어 도망갔으며, 더 이상 예수를 시험하려 들지 않았다. 예수는 이미 사탄의 그 시험을 이겼으므로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사역, 담당한 사역을 순조롭게 이어 나갈 수 있었다. 예수가 한 이러한 말씀과 일들을 오늘날로 가져와도 모든 이에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겠느냐?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쉬운 일이나? 그러려면 사람이 사탄의 사악한 본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사탄의 시험을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네가 사탄의 시험에 들었을 때, 사탄의 사악한 본성을 간파할 수 있다면 사탄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네가 사탄의 그릇되고 황당무계한 면을 알게 되면 사탄의 편에 서서 사탄과 같이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겠느냐? 너 자신에게서 사탄의 뻔뻔함과 악독함이 발로될 때, 이를 확실히 깨닫고 의식한다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시험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탄을 저버리고 내칠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다. 이를 위해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성찰해야 하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사탄의 미혹과 통제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

사탄이 한 이 모든 말을 통해 사탄의 본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자. 우선, 사탄의 본질은 전반적으로 사악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대립된다. 왜 사탄의 본질이 사악하다고 하겠느냐? 이는 사탄이 사람에게 한 일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근거해 살펴보아야 한다. 사탄은 사람을 패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사탄의 패괴 성품으로 살면서 일을 하고, 사탄이 패괴시킨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점령되고 동화되어 사탄의 패괴 성품, 즉 사탄의 본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사탄의 말과 행위에서 교만함을 보지 못했느냐? 사탄의 간사함과 악독함을 보지 못했느냐? 사탄의 교만함은 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더냐?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사역과 지위를 없애고 자신이 하나님의 지위를 차지하려 들며,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고, 옹호하고, 경배하게 하려고 한다. 이것이 사탄의 교만한 본성이다. 사탄이 인류를 패괴시킬 때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직접 알려 주더냐?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 “당신을 시험하고 공격하겠습니다.”라고 직접 이야기하더냐? 사탄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유인하고, 시험하고, 공격하고, 함정을 파 놓으며, 심지어 성경 말씀까지 인용해 다양한 방식의 말과 행위로 음흉한 속셈과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사탄이 이렇게 한 후, 사람에게서 발로되는 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사람도 교만해지지 않더냐? 수천 년 동안 사탄에게 패괴되면서 사람 역시 교만하고, 간사하고, 악독하게 변했고, 이치로 깨우칠 수 없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의 본성이 초래한 결과다. 사탄은 사악한 본성을 가졌기에 사람에게 가져다준 것도 그 사악한 본성이고, 그 사악한 패괴 성품이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사탄의 패괴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며, 사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시험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게 되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5>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47)

사탄은 어떻게 지식으로 사람을 패괴시키는가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것 아니더냐? 적어도 ‘지식’이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탄이 지식으로 사람을 패괴시킨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진화론은 지식의 일부 아니더냐? 뉴턴의 법칙도 지식의 일부 아니더냐? 지구 인력 역시 지식의 일부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그럼 지식이 왜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로 포함되겠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식에 진리가 조금이라도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지식의 본질은 무엇이나? 사람은 무엇에 기초하여 이 모든 지식을 배우느냐? 모두 진화론을 기초로 배우는 것 아니더냐? 사람이 탐구하고 정리한 지식은 모두 무신론에 기반한 것 아니더냐? 이 모든 지식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느냐? 진리와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지식으로 사람을 패괴시키겠느냐? 나는 방금 이런 지식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도, 진리와의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진리와 상관은 없지만 지식이 사람을 패괴시킨 것도 아니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식은 너에게, 행복은 사람의 두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더냐? 사람의 운명은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지 않더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보느냐? (허튼소리입니다.) 적합한 표현이다. 모두 허튼소리이다! 지식이란 것은 굉장히 복잡하다. 만약 단순히 어느 지식은 그저 지식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분야의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지식을 배울 때, 하나님이 만유를 주재하고, 다스리고, 관리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지식 안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답을 찾는 것에 그칠 뿐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연구만 한다면 영원히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렇지 않느냐? 그저 지식을 통해 생계 수단과 일자리를 마련하고, 돈을 벌어서 그럭저럭 밥벌이를 할 뿐, 지식은 결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악을 멀리하게 하지 못한다. 네가 배운 지식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연구하고, 시험하려 들며,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더 커진다. 지식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느냐? 모두 사탄의 철학이다. 사탄이 패괴된 인류 가운데서 퍼뜨린 생존 철학과 생존 법칙이 진리와 관계가 있겠느냐? 진리와 관계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진리에 위배된다. 사람은 흔히 “목숨은 운동에 달렸다”,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라고 말한다. 이는 무슨 말이나? 전부 궤변이자 듣기만 해도 역겨운 말이다. 사탄은 소위 말하는 지식에 자신의 많은 처세 철학과 사상을 담아 사람에게 주입한다. 그와 동시에 사람이 그러한 사상, 철학, 관점을 근거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만유와 사람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한다. 그래서 사람은 지식을 배울수록, 또한 지식을 습득할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탄이 사람의 내면에 관점, 관념, 생각들을 주입했기 때문이다. 사탄이 이런 사상들을 사람의 내면에 주입할 때,

사람은 패괴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람은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정말 이런 지식에 기대어 살고 있느냐? 아니다. 사람은 지식 속에 숨겨진 사탄의 사상, 관점, 철학에 기대어 산다. 이는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핵심이며 목적이자 방법이다.

지식 얘기가 나왔으니 가장 간단한 것부터 이야기해 보자. 말과 글의 문법이나 글자가 사람을 패괴시킬 수 있겠느냐? 단어가 사람을 패괴시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단어는 사람을 패괴시킬 수 없다. 그것은 사람이 말을 하기 위한 도구이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이다. 게다가 오늘날 하나님은 언어와 말씀을 통해 사람과 소통하므로 이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다. $1+1=2$, $2\times 2=4$ 는 지식이 아니더냐? 그런데 이런 지식이 너를 패괴시킬 수 있겠느냐? 이는 상식, 규칙일 뿐 사람을 패괴시킬 수 없다. 어떤 지식이 사람을 패괴시키느냐? 사탄이 지식에 가미한 관점과 사상이다. 사탄은 지식을 통해 사람에게 이러한 관점과 사상을 주입한다. 한 편의 글을 예로 들어 보면, 그 모든 글자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는 것은 저자가 글을 쓸 때의 관점과 속셈, 그리고 그의 사상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영혼과 관련된 것이므로 사람을 패괴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네가 드라마를 본다고 하자. 드라마의 어떤 부분이 사람의 관점을 변화시키겠느냐? 배우가 하는 말, 그 어휘들이 사람을 패괴시킬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어떤 것들이 사람을 패괴시키느냐? 바로 그 드라마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와 내용이다. 이는 감독의 관점을 대변하며, 이러한 관점에 담긴 메시지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좌우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느냐? 이제 사탄이 지식을 이용해 사람을 패괴시킨다고 이야기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으니 그릇되게 이해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그럼 소설이나 글을 읽을 때 그 글에 담긴 사상이 사람을 패괴시키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유익한지 분별할 수 있겠느냐?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단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천천히 배우고 경험해야 한다. 사람이 어떤 지식을 연구하거나 학문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자. 그 학문에 긍정적인 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 학문에 대한 상식과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전기를 예로 들어 보자. ‘전기’는 지식 아니더냐? 전기에 감전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무지한 것 아니겠느냐? 그러나 전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후에는 함부로 전기를 만지지 않고 이를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점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을 패괴시키는 지식이 어떤 것들인지 이제 확실히 이해하겠느냐? 이해했으면 더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은 매우 많아서 너희는 스스로 천천히 분별해 나가야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5>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48)

사탄은 어떻게 과학으로 사람을 패괴시키는가

과학이란 무엇이나? 모두가 마음속으로 과학이 아주 대단하고 심오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과학이라고 하면 그것은 과학 연구원이나 전문적인 연구 인력이나 접하는 것이지

일반인은 이해할 수도 없고,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관계가 없겠느냐?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과학으로 사람을 패괴시키겠느냐? 멀리 갈 필요 없이 요즘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 보자. ‘유전자’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지 않느냐?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유전자는 과학을 통해 발견한 것 아니더냐? 그럼 유전자라는 것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주었느냐? 사람의 몸이 굉장히 신비롭다고 느끼게 하지 않았느냐? 사람이 이 화제를 접하면, 특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의 경우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호기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에 몰두할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나머지 시간만 나면 온갖 서적을 뒤지고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할 것이다. 과학이란 무엇이나? 과학이란 사실 사람이 호기심을 느끼는 일, 사람이 모르는 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 주지 않은 일, 사람이 탐구하는 비밀에 대한 상상이나 학설이다. 과학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흥미를 느끼는 모든 것이 연구 대상에 포함되며, 세부적인 내용과 법칙을 연구한 후 보기에 그럴싸한 결론을 낸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 이렇게 많다니 과학자들은 정말 대단해. 지식을 얼마나 쌓아야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우러러본다. 그렇지 않더냐!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더냐? 만물을 연구하고, 흥미를 느끼는 신비로운 현상을 연구하고 싶어 하지 않더냐? 그럼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이나?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고, 경험에 근거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사람도 있다. 또 역사와 배경을 연구하여 결론을 얻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 않느냐? 그럼 과학은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느냐? 과학은 사람에게 물질세계의 존재만 보게 하고 호기심만 충족시켜 줄 뿐,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법칙을 일깨워 주지는 못한다. 사람은 과학에서 해답을 찾은 것 같지만, 이 해답은 사람을 미혹하고 일시적인 만족감을 준다. 이러한 만족감은 사람의 마음을 물질세계에 가둬 버린다. 사람은 과학을 통해 해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며 어떤 일이든 과학적인 관점에서 증명하고 받아들인다. 과학이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유혹하면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거나 경배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됐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도 믿지 않게 됐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답을 얻어야 하는 것 아니더냐? 과학을 믿는 사람일수록 그릇됐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든 과학이나 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는다. 심지어 하나님을 몇 년이나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한가하게 세균을 연구하거나 어떤 일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자료를 찾는 사람도 있다. 진리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며, 많은 일에서 과학적인 관점이나 지식, 과학적인 해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겠느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과학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연구하려는 사람도 있다. 일례로, 많은 종교 전문가가 노아의 방주가 정박했던 산에 가서 방주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방주의 현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으므로 이야기와 역사(歷史)만 믿게 된다. 이것이 과학과 물질세계를 연구한 결과이다. 물질을 연구하면, 연구 대상이 미생물이든 천문 지리이든, 하나님이

존재하고 만유를 주재한다는 결과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 그럼 과학은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느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연구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의심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사탄은 과학으로 사람의 무엇을 파괴시키려 하겠느냐?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마비시키려 하지 않겠느냐? 불확실한 답으로 사람의 마음을 점유하여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찾지도, 믿지도 않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과학 역시 사탄이 사람을 파괴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5>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49)

사탄은 어떻게 전통문화로 사람을 파괴시키는가

전통문화에 포함되는 것이 많지 않느냐? (많습니다.) 전통문화란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사람은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 부분이다. 가족, 민족, 나아가 인류가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는 생활 방식이나 규칙, 논리, 규례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주입되어 사람은 그것을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규례, 생명으로 간주하며 지켜 나간다. 심지어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므로 영원히 바꾸거나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공자나 맹자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 중국의 도교나 유교가 주는 가르침 등이 모든 사람의 뱃속에 박혀 있다. 그렇지 않느냐? 전통문화에는 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느냐? 사람이 기념하는 명절들도 포함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설날, 정월 대보름, 청명, 단오, 백중, 추석과 같은 명절들이 있으며, 심지어 어떤 집안에는 집안 어른의 생신, 생후 1 개월 축하 잔치, 백일잔치 등등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전통 명절에 속한다. 전통 명절의 근간이 전통문화 아니더냐? 전통문화의 핵심은 무엇이나? 거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있느냐? 진리를 실천하게 하는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는 명절이 하나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모든 명절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현대인은 명절을 먹고 놀며 즐기는 날로 생각한다. 이러한 전통문화는 어디에서 기원했느냐?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느냐? (사탄입니다.) 사탄에게서 비롯되었다. 사탄이 이러한 전통문화를 통해 몰래 사람에게 주입하는 것들이 있다. 무엇을 주입하겠느냐? 조상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중 하나 아니더냐? 일례로 청명절에는 성묘를 가서 제사를 지내며 조상을 기린다. 단오절에는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긴다. 음력 8 월 15 일은 어떠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가족들이 어떤 배경에서 모이느냐? 왜 모이느냐? 정을 나누고 마음을 교감하기 위함이다. 물론 설날 그믐날, 정월 대보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이런 다양한 설은 모두 사탄이 사람에게 주입한 철학과 사상이다. 사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좋다고 주입하고, 또 사람이 조상이나 사탄을 위해 제사를 지내게 하며, 육의 쾌락을 추구하게 만든다. 여러 명절을 지내면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사상이나 관점이 심어지며, 40~50 세 또는 그 이상 나이를 먹으면 이런 사상과 관점이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된다. 또한 사람은 그 관점이 맞는지 틀린지 전혀 분별하지 못한 채 다음 세대에게 이를 있는 그대로 남김없이 전수한다. 그렇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통문화와 명절은 어떻게 사람을 패괴시키느냐? 이것을 알고 있느냐? (규례로 사람을 속박하고 옳아매어 하나님을 찾을 시간과 힘을 앗아 갑니다.) 그것도 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설날에 다른 사람은 모두 설을 쇠는데 너 혼자 쇠지 않는다면 마음이 씁쓸하지 않겠느냐? 꺼림칙한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올해 설도 제대로 못 쇠었는데, 한 해 동안 일이 안 풀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심지어 몇 년 동안 제사를 지내지 않았더니 조상이 꿈에 나타나 돈을 요구했다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세상을 뜨신 분이 돈이 부족하다니 안되셨네. 종이돈이라도 태워 드려야지 안 되겠어! 그러지 않으면 산 사람이 무슨 해를 입을지 몰라.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꼬일 수도 있다고!’라며 마음속에 늘 이런 두려움과 걱정에서 사로잡히게 된다. 이런 걱정은 누가 가져다준 것이겠느냐? (사탄입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가져다준 것이다. 이것이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방법 아니더냐? 사탄은 온갖 구실과 방법을 동원하여 너를 지배하고, 위협하고, 속박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사탄에게 굴복하고 순종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방법이다. 사람은 연약할 때 종종 귀신에 홀린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어리석은 일을 하곤 한다. 즉, 사탄에게 사로잡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고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방식이다. 심지어 지금도 많은 사람이 뿌리 깊이 박힌 전통문화에 연연하며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람은 연약해져 있거나 소극적일 때, 명절을 보내면서 사탄과 상봉도 하고, 다시금 사탄을 만족시키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한다. 이런 전통문화의 뒤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겠느냐? 사탄의 검은 마수가 조종하고 있지 않겠느냐? 사탄이 사악한 본성으로 휘어잡고 지배하고 있지 않겠느냐? 사탄이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전통문화 속에서 살면서 전통 명절을 지내는 것은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패괴되는 것이라고, 또한 그것은 스스로가 원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너희 모두가 이를 알고 인정하는구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5>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50)

사탄은 어떻게 미신으로 사람을 패괴시키는가

사탄은 어떻게 미신으로 사람을 패괴시키느냐? 사람은 모두 앞으로의 운명을 알고 싶어한다. 사탄은 사람의 호기심을 이용하여 사람을 유혹한다. 사람이 점, 사주, 관상을 보는 것은 모두 미래의 운세와 앞으로 가게 될 길을 알기 위해서다. 그런데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미래와 운명은 결국 누구의 손에 의해 결정되더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지만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 주더냐? 사탄은 사주나 점을 보는 방식으로 사람의 향후 운세를 알고 있다면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관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 기회를 틈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지배하여 미신을 받아들이고 따르게 하는 것이다. 네가 사주를 보러 갔다고 가정해 보자. 점쟁이가 눈을 감고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일을 정확하게 맞춘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정말 용하네! 다른 사람한테 옛날 일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참 대단해!’ 사탄이 너의 과거를 아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너를 이끌어 왔고, 사탄 또한 오늘날까지 너를 쫓아다니며 파괴시켜 왔다. 몇십 년 동안 너에게 발생했던 일을 알기란 사탄에게는 식은 죽 먹기이다. 점쟁이가 한 말이 모두 정확하다고 느낄 때 너는 마음을 그에게 내주게 되지 않겠느냐? 너의 앞날과 운세를 모두 그가 결정하게끔 말기지 않겠느냐? 너는 갑자기 그에 대한 숭배나 존경의 마음이 생길 것이다. 심지어는 혼이 쏙 나가서 곧바로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년에는 무엇을 피해야 하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라고 묻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점쟁이는 가지 말아야 할 곳, 피해야 할 일, 입지 말아야 할 옷 색깔, 많이 가면 안 되는 장소, 많이 하면 좋은 일 등등을 늘어놓는다. 너는 그 말을 듣는 즉시 마음에 새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빨리 마음에 새길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에 기대 요행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때 점쟁이가 너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겠느냐? 점쟁이의 말이 하나씩 들어맞으면 다시 그를 찾아가 다음 해의 운세를 보고 싶지 않겠느냐? (그럴 겁니다.) 점쟁이가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따르면서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않겠느냐? 너는 아주 빨리 그 품으로 들어가고, 쉽사리 미혹되며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점쟁이가 한 말이 사실이고, 그가 네 전생, 금생, 미래를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탄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지배한다. 하지만 실제로 누가 사람을 주관하느냐? 사탄이 아닌 하나님이다. 사탄은 그저 이때를 틈타 무지하고 물질세계만 보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고는 사람을 사로잡아 자신의 말이라면 곧이곧대로 따르게 한다. 그다음,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면 사탄이 손을 놓아주겠느냐? 사탄은 손을 놓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정말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사탄의 이러한 행위를 뻔뻔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겠느냐? 사탄은 사기와 기만이란 수단을 동원한다. 사탄은 뻔뻔하기 그지없으며, 자신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무지한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만든다. 불과 두세 마디 말로 사람을 기만하고 속여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사탄은 어떤 방법이나 말들로 네가 믿게 하겠느냐? 예를 들어, 네가 너희 집 식구가 몇 명이란 말을 하기 전에 점쟁이가 너희 집 식구가 몇 명이고, 네 부모와 자식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맞춘다고 가정해 보자. 네가 점쟁이를 믿지 못하고 의구심을 가질 때 이런 말을 들으면 믿음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 곧이어 점쟁이가 “요즘 일이 잘 안 풀리는군요. 상사가 알아주기는커녕 툭하면

걸고넘어지니....”라고 하면 너는 그 말을 듣고 “맞아요. 요즘 일이 잘 안 풀리긴 하죠.”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또 믿게 되지 않겠느냐? 그럼 점쟁이는 다시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으며 너를 미혹하고 그를 더욱더 믿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너는 자신도 모르는 새에 조금씩 그와 맞설 힘을 잃고 의심을 지우게 된다. 사탄은 하찮은 능력, 심지어 보잘것없는 수작으로도 너를 미혹한다. 또한, 네가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하게 만들어 자신의 말에 복종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고단수’의 수법이다. 네가 자신도 모르게 꼬임에 넘어가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사탄은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일러 준다. 그런 다음,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지 알려 준다. 그러다 보면 너는 자신도 모르게 속임수에 빠지게 되고, 속임수에 빠지는 순간 일은 복잡해진다. 너는 사탄의 말과 지시를 시시때때로 떠올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사람에게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진리가 없으면 사탄의 유인과 유혹에 맞설 힘이 없다. 사탄의 사악함, 간사함, 음험함 앞에서 사람은 몹시도 무지하고 유약하며 연약하다.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방법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온갖 수법에 조금씩 유혹당하고 속아 넘어간다. 사람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분별할 능력과 분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탄을 이길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5>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51)

사탄은 어떻게 사회 풍조로 사람을 패괴시키는가

사회 풍조는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최근 들어 형성된 것이냐? 그것은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킨 순간부터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 사회 풍조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옷차림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자주 접하는 것이다. 옷차림, 패션, 의류 풍조는 사회 풍조의 작은 부분이다. 또 무엇이 있느냐?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소문도 포함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동경하는 라이프 스타일도 포함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 스타, 잡지, 소설도 포함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보기에 어떤 분야의 풍조가 사람을 패괴시킬 수 있을 것 같느냐? 너희에게 가장 큰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풍조는 무엇이나?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50~60 대, 70~80 대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지요. 풍조는 우리에게 유혹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맞는 말이나? 또 어떤 사람은 “20 대 애들이나 연예인을 따라다니지,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유행하는 패션 아이템을 입지도 않고요. 그런 건 몇 내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지요.”라고 말한다. 그럼 무엇이 너희를 패괴시키느냐? (유행하는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이 사람을 패괴시킬 수 있겠느냐? 내가 예를 들어 볼 테니 맞는지 보아라.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라는 말은 풍조에 포함되지 않느냐? 너희가 언급한 패션, 미식보다 더 강력하지 않느냐?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라는 말은 사탄의 철학으로,

인류에게서, 그리고 모든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주입되어 자리 잡고 있으므로 풍조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도 실생활에서 이 말을 접했을 때 차츰 묵인하게 되고 이 말이 사실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이 바로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과정 아니겠느냐? 이 말에 대한 이해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거나 자신이 직접 겪은 일에 기반하여 각기 다른 정도로 해석하고 수궁한다. 그렇지 않느냐? 사람이 이 말을 얼마나 체험했는지는 차치하고, 이 말이 사람의 마음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이겠느냐? 너희 모두를 포함해 이 세상의 인류에게서 드러나는 성품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라고 보면 되겠느냐? 사람은 돈을 숭배한다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이를 지우기가 쉽겠느냐? 쉽지 않다! 사탄이 사람을 참심각하게도 패괴시킨 것 같다! 그럼 사탄이 이런 풍조를 통해 사람을 패괴시킨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너희는 돈 없이는 이 세상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질수록 높은 지위를 누리고 존귀해진다. 기를 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과 달리 부자는 높은 지위를 누리고 거만을 떨며 큰소리를 치면서 오만방자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과 이런 풍조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많은 사람이 돈을 위해 어떠한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지 않겠느냐?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존엄성과 인격을 포기하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본분을 이행할 기회와 하나님을 따를 기회를 놓치지 않겠느냐? 이는 사람에게 손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런 방식, 이런 말로 사람을 이 정도로 패괴시켰다. 사탄의 속셈이 음흉하지 않느냐? 이는 아주 악랄한 수법이 아니더냐? 이런 말이 유행할 때 처음에는 수궁하지 못하던 네가 이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기까지, 너라는 사람의 마음은 사탄에게 철저히 빼앗겼다. 그래서 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너는 이 말에 벌써 얼마나 영향을 받았느냐? 참도이고 진리임을 알면서도 추구할 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뻔히 알면서도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으며, 진리를 얻기 위해 고난을 감내하려고 하지 않는다. 반대로 미래와 운명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과 끝까지 맞선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행해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게 되어도, 너는 오로지 이 말만 고집하고 집착하며 자신을 바친다. 즉, 이 말이 네 행위와 사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이 말에 네 운명이 좌우될지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이런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어 끌려다니는 것은 사탄에 의해 패괴되어 생긴 결과가 아니겠느냐? 사탄의 철학과 패괴 성품이 네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 것 아니겠느냐? 네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사탄이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너는 사탄이 사람을 이렇게 패괴시키는 것을 보았느냐? 느꼈느냐? (아닙니다.) 보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다. 그럼 이제 사탄의 사악함을 알겠느냐? 사탄은 언제 어디서든 사람을 패괴시킨다. 사람은 막으려고 해도 막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사탄의 사상, 관점, 사탄에게서 비롯된 사악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후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만 아니라

보물처럼 끌어안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농락당한다. 이렇게 사람은 사탄에 의해 갈수록 파괴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5>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52)

사탄은 위의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사람을 파괴시킨다. 사람은 지식을 습득하고, 과학적 이론을 어느 정도 이해하며, 전통문화에 물든 채로 살아간다. 모든 사람은 전통문화의 계승자로, 사명감을 가지고 사탄이 사람에게 가져다준 전통문화를 이어 간다. 또한, 사람은 사탄이 만든 사회 풍조에 발을 맞춘다. 사람은 이렇게 사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탄이 하는 모든 일에 항상 협조한다. 그리고 사탄이 사람에게 가져다준 사악함, 간사함, 악독함, 교만함을 받아들인다. 사탄의 이러한 성품을 갖게 된 후 이 파괴된 인류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겠느냐, 슬프겠느냐? (슬플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사람은 모두 파괴된 것들에 결박당하고 지배당하여 죄악 속에서 고통스럽게 발버둥 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안경을 쓴, 유식해 보이는 사람을 예로 들어 보자. 그는 점잖게 말을 하고 입만 열면 청산유수이며 근거가 탄탄하다. 다양한 일을 두루 겪었기에 경험과 경력이 풍부하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일의 이치와 진위도 판단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의 행위, 외모, 인격, 인성, 됃됨이 무엇 하나 흠잡을 것이 없어 보인다. 이런 사람은 오늘날의 사회 풍조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이며, 나이가 들었음에도 사회 풍조에 뒤처지지 않고 평생을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렇게 외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의 내적 본질은 사탄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점잖으며, 유식하고, 윤리 의식과 인품을 갖추어 흠잡을 구석이 없어 보이고, 젊은 세대만큼 아는 것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의 본성과 본질은 사탄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완전히 살아 있는 사탄의 모델이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람을 파괴시켜 거둔 ‘성과’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너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사실이다. 사람이 습득한 지식, 사람이 지닌 과학, 사람이 사회 풍조에 발맞추기 위해 선택한 방식, 이 모두가 사탄이 사람을 파괴시키는 수단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듯 철저히 사탄의 파괴 성품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사탄이 사람을 파괴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이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람의 행위 역시 비정상적인 데가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하고, 생활하고, 책을 읽고, 신문을 보고, 공부하며, 말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윤리 도덕을 좀 배워 말을 잘하고, 이해심이 많고, 친절하고, 타인을 돕는다. 또 은혜를 베풀고, 계산적으로 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덕을 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탄에 의해 파괴된 성품은 내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 그 본질은 외적인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 사람은 이런 본질을 지녔기에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함인지 알지 못한다. 설령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공개한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사탄이 이미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의 마음과 생각, 관점과 사상을 완전히 점령했기 때문이다. 이 점령과 패괴는 일시적이거나 이따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3~4 년, 5~6 년 믿고도 사탄이 주입한 사악한 사상과 관점, 논리와 철학을 여전히 보물인 양 끌어안고 내려놓지 못한다. 사람이 사탄 본성에서 비롯된 사악하고, 교만하고, 악독한 것들을 받아들였기에 사람들 사이에 언쟁과 싸움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고, 서로 마음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사탄의 교만한 본성이 초래한 것이다. 사탄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것을 가져다주었다면, 예를 들어 사람이 유교와 도교와 같은 전통문화를 수용했을 때,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이라면 이를 받아들인 사람들끼리 마음이 잘 통해야 한다. 그런데 왜 사람은 똑같은 것을 받아들이고도 더 심하게 분열하겠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러한 것들은 사탄에게서 비롯되었고, 사탄은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사탄에게 속한 것이 겉으로 그럴싸하고 위대해 보여도 사람에게 가져다준 것, 그리고 살아 내게 한 것은 다 교만하고 간사하고 사악한 본성이다. 그렇지 않느냐? 아무리 위장에 능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가정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도 사탄에 의해 패괴된 성품을 감출 수는 없다. 다시 말해, 몹시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 네 생각에 성인(聖人) 같은 사람이나 완벽해 보이는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라도, 네가 그를 아무리 깨끗하게 생각할지라도 그들의 삶 이면에서, 그들의 성품에서 드러나는 본질을 보면 다 무엇이더냐? 완전히 사탄의 사악한 본성으로 가득하다고 할 수 있지 않더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주변에서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던 사람이나 우러러보았던 우상을 예로 들어 보자. 현재의 네 분량으로 보면 그를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우선 너는 그에게 인성이 있는지, 정직하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언행이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가 드러낸, 소위 말하는 선량함, 사랑, 훌륭함은 무엇이냐? 모두 위선과 허상일 뿐이다. 그러한 허상 뒤에는 자신을 우상으로 떠받들게 하려는 은밀하고 사악한 목적이 숨어 있다. 이제 확실히 간파했느냐? (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5>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53)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긍정적인 것이 있겠느냐? 우선,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의 유명인, 위인이나 잡지, 간행물의 선악, 시비 분별 기준이 정확하겠느냐?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겠느냐? 진리가 담겨 있겠느냐? 이 세상과 인류가 진리의 기준에 따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가늠하고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람에게에는 그런 능력이 없겠느냐? 그렇게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과학을 이해하게 됐으면 능력도 대단하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도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무엇 때문이겠느냐? (사람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지식은 모두 진리가 아닙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가져다준 것은 사악함과 패괴일 뿐, 진리, 생명, 길이 없다. 사탄은 사람에게 이런 사악함과 패괴를 가져다주었는데, 사탄에게 사랑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인류에게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나 노숙자를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은 선량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자선 단체들도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행이 아닙니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어떠냐? 사탄은 온갖 방법과 학설로 사람을 패괴시킨다.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킨다는 것이 모호한 개념이냐? 모호하지 않다. 사탄도 이 세상과 사회에서 어떠한 관점, 학설을 제창하며 실제적인 일들을 하고, 각 연대, 각 시기마다 학설을 제창하며 사람에게 사상을 주입한다. 이런 사상과 학설은 사람의 마음에 차츰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 사람은 그런 학설과 사상들에 의존해 살게 된다. 사람이 그런 것들에 의존해 살아가면 사탄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사탄과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사탄과 하나가 되면 결국 하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겠느냐? 사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일치하지 않겠느냐? 이를 인정하기는 두려운가 보구나. 그렇지 않느냐? 더없이 무서운 일이다! 어째서 사탄의 본성을 사악하다고 하겠느냐? 사탄이 저지른 일과 드러낸 것에 따라 그것을 규정하고 해부했기 때문이다. 아무런 근거 없이 사악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저 말로만 사탄이 사악하다고 한다면 너희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사탄은 사악한 존재입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탄이 어떤 면에서 사악하냐?”라고 물으면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니 사악하지요.”라며 얼버무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 사탄의 사악한 본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해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사탄의 사악한 본성을 정확히 간파하면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말해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에 대해 교통할 때, 사탄의 사악한 본질을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왜 그러하냐? (사탄의 사악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냐? 그 말도 반은 맞다. 즉, 사탄의 사악함 없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 수 없다는 말은 옳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탄의 사악함으로 부각되어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 말이 옳겠느냐? 이렇게 변증하듯 하는 말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 고유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무엇이 발현되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고유한 본질로, 줄곧 존재해 온 것이고, 하나님이 본래부터,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다. 다만 사람이 보지 못했을 뿐이다. 사람은 사탄의 패괴 성품으로 살며,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더더욱 알지 못한다. 그러니 먼저 사탄의 사악한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항상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방법과 사탄의 사악한 본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의문이 해소되었느냐? 사람이 사탄의

사악함을 분별하고, 이를 정확히 정의하여 사악함의 구체적인 내용과 태도, 근원과 본질을 모두 똑똑히 본 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논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이것이야말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거나 인식할 수 있다. 내가 사탄의 사악함을 언급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사회 안에서나 인류 가운데서 사람이 행한 일, 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들 중에도 거룩함과 연관된 것이 있다고 착각한다. 이는 잘못된 관점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5>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54)

사탄은 지식을 미끼로 쓴다. 잘 듣거라. 지식은 다만 미끼일 뿐이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며 매일 정진하도록 유도하고, 사람이 지식을 무기 삼아 자신을 무장하게 한 후 지식으로 과학의 문을 열게 한다. 그러면서 네가 지식을 많이 익힐수록 아는 것이 많아진다고 말한다. 이걸 모두 사탄이 알려 주는 것들이다. 또한 사탄은 지식을 습득하고 원대한 이상(理想)과 포부를 가져야 한다고 속삭인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은 이런 메시지들을 수도 없이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메시지가 옳고 유익하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사탄이 정해 놓은 길을 가고, 이상과 포부에 끌려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사람은 사탄이 주는 지식을 통해 자기도 모르게 위인과 유명인의 사상을 배우고, 사람이 보기에 영웅인 인물의 행적을 본받게 된다. 사탄은 ‘영웅’들의 행적을 통해 사람에게 무엇을 권장하느냐? 어떤 것을 주입하고자 하느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지조와 영웅적 기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입한다. 사람은 역사 이야기나 영웅 전기를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의리가 있어야 하고 친구나 의형제를 위해서는 위험도 무릅써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사람은 사탄의 지식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것을 많이 배우게 되고, 어느새 사람의 어린 마음에는 사탄이 미리 준비해 놓은 씨앗들이 심어진다. 그런 씨앗으로 인해 사람은 위인, 유명인, 영웅, 애국자, 가정적인 사람, 친구를 위해 위험도 무릅쓰는 의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탄이 준비해 놓은 길을 가게 된다. 사람이 그 길을 가는 동안 사탄은 자신의 생존 법칙을 강제로 받아들이게 한다. 그럼 사람에게겐 부지불식간에 자신만의 생존 법칙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강제로 주입한 사탄의 생존 법칙이다. 사탄은 사람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생존 목표, 생존 법칙, 생존의 방향을 정하게 하며, 사탄에게 속한 것들을 주입한다. 이야기나 전기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을 조금씩 함정에 빠지게 만든다. 이렇게 학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문학을, 어떤 사람은 경제를 좋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천문 지리, 또 어떤 사람은 정치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물리나 화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며, 신학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지식의 일부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또한 누구나 다 접해 봤던 것들이다. 그리고

누구나 이러한 지식들 중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다. 지식이 얼마나 사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지식들이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사람이 특정 지식 분야에 흥미를 가지거나 깊이 빠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꿈을 품게 된다. 작가나 문학가를 꿈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리나 정치인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가 꿈인 사람도 있다. 또 영웅이나 위인, 유명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인물이 되길 꿈꾸든, 사람의 목표는 모두 배움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사람이 지속적으로 원대한 이상과 포부를 가지는 목적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번 생을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해서라든가, 큰 업적을 세우고 싶어서라든가 등의 말로 미화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본질은 무엇이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사탄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탄이 이런 것을 사람에게 주입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너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알아야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6>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55)

사람이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단순한 특정 지식을 활용하기도 하고,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거나 꿈을 이루게 만들기도 한다. 사탄은 대체 너를 어떤 길로 끌고 가려고 이러는 걸까? 사람은 지식 학습이 비난할 만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좋게 말해서, 원대한 이상과 포부를 가진다는 것은 패기가 있다는 뜻이고, 그것이 삶의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크게 성공하는 게 더 멋진 삶 아닌가? 가문을 빛내고 이름을 후세에 떨칠 수 있으니 좋은 일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한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이는 좋은 일이고, 정당한 일이고,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음흉한 속셈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 사람을 그러한 길로 유도하는 것으로 그칠까? 당연히 아니다. 사실, 얼마나 원대한 이상을 품고 있든,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당한 바람을 가지고 있든, 사람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두 단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두 단어는 모든 사람의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사람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체 무엇일까? 바로 ‘명예’와 ‘이익’이다. 사탄은 공격적인 방법 대신 부드럽고 사람의 사고방식에 맞고 온건한 방법을 써서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사탄의 생존 방법과 생존 법칙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세우게 한다. 또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인생의 꿈을 가지게 한다. 하지만 인생의 꿈이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결국에는 ‘명예’와 ‘이익’으로 귀결된다. 어떤 위인이나 유명인이든, 모든 사람이 평생 동안 좇는 것은 ‘명예’와 ‘이익’ 두 가지뿐이다. 사람은 명예와 이익만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명예와 이익만 있으면 유흥과 육적인 향락을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명예와 이익을 거머쥐기 위해 기꺼이,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 미래와 운명마저 사탄에게 확실하게 넘겨 버린다. 그러고는 이에 대해 전혀 의구심을 갖지 않고, 자신에게 속한 것을 되찾을 줄도 모른다. 사람이 사탄을 이렇게 의지하고 사탄에게 충성하게 된 이상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겠느냐? 틀림없이 불가능할 것이다.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그 늪에 빠져 헤어 나올 수 없게 된다. 사람이 명예와 이익에 사로잡히면 광명도, 정의도, 아름다움과 선함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된다. 사람에게 명예와 이익의 유혹이 너무나 강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사람이 평생 동안, 심지어 영원히 쫓아도 끝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느냐? 혹자는 “지식을 배우는 것은 시대나 세상에 뒤처져 도태되지 않기 위해 책을 읽고 모르는 것을 공부하는 것일 뿐이에요. 배움이란 자신의 직업, 미래, 생계를 위한 것일 뿐이죠.”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오로지 의식주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동안 힘들게 공부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과 고된 시간을 견디는 것일까? 바로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다. 명예와 이익이 눈앞에서 손짓하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고 고생하고 싸워야 명예와 이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이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평탄한 길을 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그 정도 고생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이 지식을 습득하면서 깨닫게 되는, 사탄이 사람에게 주입한 생존 법칙이 아니겠느냐? 사탄이 사람에게 주입한 인생의 ‘원대한 이상’이 아니겠느냐? 위인의 사상, 유명인의 품격, 영웅의 기개, 무협 소설에 등장하는 협객이나 검객이 가진 강직함과 부드러움을 예로 들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러한 생각이 한 세대 또 한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한 세대 또 한 세대 이를 받아들이게 만들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며 이를 끊임없이 쫓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지식으로 사람을 패괴시키는 방법과 수단이다. 사탄에게 끌려 이러한 길을 가게 된 후에도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사탄이 사람에게 주입한 지식과 사상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있느냐? 진리에 속하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너희가 확실히 대답을 못 하는 것 같은데, 걱정할 필요 없다. ‘명예’와 ‘이익’은 사탄이 사람을 사악한 길로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두 가지 주요 개념이라는 것만 알면 된다.

다시 복습해 보자. 사탄은 무엇으로 사람을 단단히 움아매느냐? (명예와 이익입니다.) 사탄은 명예와 이익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지배한다. 사람이 명예와 이익에만 사로잡혀 이를 위해 분투하고, 고생하고, 치욕을 참고, 명예와 이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사탄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워 놓았다. 족쇄가 채워진 사람은 족쇄에서 벗어날 능력이나 용기가 없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족쇄를 차고 힘겹게 한 걸음씩 나아간다. 인류는 ‘명예’와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신하며, 갈수록 사악해지고 있다. 이렇게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사람이 사탄의 명예와 이익에 넘어가 파멸한다. 지금 보니 사탄의 이런 음흉한 속셈이 가증스럽지 않느냐? 오늘은 너희가 아직 사탄의 음흉한 속내를 간파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명예와 이익이 없으면 삶이 끝난다고 생각할 것이고, 명예와 이익이 없으면 앞으로 방향과 목표를 찾을 수 없고 칠혹같이 어두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명예와 이익이 얼마나 큰 사탄의 족쇄인지 서서히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를 깨닫고 나면, 사탄의 통제와 사탄이 묶어 놓은 족쇄에 철저하게 맞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사탄이 주입한 것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사탄과 완전히 결별하고 사탄이 준 모든 것을 진심으로 증오하게 될 것이다. 그때야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모하게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6>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56)

사탄은 과학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의 호기심, 과학이나 비밀을 향한 탐구욕을 충족시킨다. 또한 과학이란 이름으로 사람의 물질적인 욕구, 갈수록 높아지는 삶의 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킨다. 이런 것들을 명목으로 삼아 사탄은 과학을 내세워 사람을 패괴시킨다. 사탄이 과학을 통해 패괴시키는 것이 비단 사람의 생각과 머리뿐일까? 우리가 보았거나 접했던 주변의 사람과 일, 사물을 생각해 보자. 사탄이 과학으로 또 무엇을 패괴시켰느냐? (자연환경입니다.) 그렇다. 너희도 큰 피해를 입어서 그런지 잘 알고 있구나. 사탄은 각종 과학 정설과 과학적 결론으로 사람을 미혹시킬 뿐만 아니라 과학적 수단을 이용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생존 환경을 함부로 개발하고 파괴한다. 과학을 연구하면 생존 환경이 점점 개선될 것이고 생활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물질적 수요와 삶의 질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둘러대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내세우는 이론적 근거이다. 그런데 과학이 인류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느냐?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인류가 마시는 공기가 오염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마시는 물은 진짜로 깨끗할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먹는 음식은 천연 식품이냐? 대부분이 화학비료나 유전자 변형으로 재배되거나 여러 가지 과학적인 변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먹는 야채, 과일조차 천연 식품이 아니다. 요즘에는 온전한 천연 상태의 계란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사탄이 말하는 소위 과학적인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계란 본연의 맛이 다 사라졌다. 더 넓게 보면 공기가 망가지고 오염되었으며, 산천, 호수, 삼림, 강, 바다, 땅, 지하 모두 소위 과학적 성과에 의해 파괴되었다. 즉,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생태계와 생존 환경 전체가 소위 말하는 과학에 의해 훼손되고 못 쓰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질이 기대만큼 향상되었고 사람의 욕망과 욕은 충족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생존해야 할 환경은 여러 과학적 ‘성과’에 의해 처참히 파괴되고 훼손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끗한 공기 한 모금 마실 권리조차 잃어버렸다.

이것이 인류의 비애가 아니겠느냐? 이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과연 행복을 논할 수 있을까? 사람이 살고 있는 이 공간, 즉 이 생존 환경은 본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창조한 것이었다. 사람이 마시는 물, 공기, 사람이 먹는 식재료, 식물, 나무 그리고 바다까지, 이러한 생존 환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 놓은 자연법칙에 따라 돌아가는, 자연 그대로의 환경이다. 과학이 없었다면, 사람은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어 누릴 수 있게 된 것들로 본디 행복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태초의 상태 그대로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사탄에 의해 파괴되고 훼손되었다.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 환경은 이미 태초의 상태가 아니다. 하지만 무엇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인지,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갈수록 많은 사람이 사탄이 주입한 생각을 바탕으로 과학을 이해하고 다룬다. 참으로 가증스럽기도 하고 또 불쌍하기도 하지 않느냐? 지금 사탄이 사람의 생존 공간과 환경을 이 모양으로 망쳐 놓았다. 인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지구상의 인류를 친히 멸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인류는 어디로 가게 되겠느냐? (멸망입니다.) 어떻게 멸망하느냐? 사람은 탐욕스럽게 명예와 이익을 좇을 뿐만 아니라 과학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깊이 연구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먼저 생태계가 균형을 잃었다. 그리고 인류의 오장육부는 모두 이런 환경 속에서 오염되고 망가졌으며, 각종 전염병과 유행병이 도처에 창궐하여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는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인류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계속 사탄을 좇아가며 지식으로 자신을 채우고, 과학을 이용해 인생의 미래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자연히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알 수 있느냐? (멸망입니다.) 바로 멸망이다. 한 걸음씩 멸망을 향해 걸어간다. 한 걸음씩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다! 지금 보면, 과학은 사탄이 사람의 혼을 빼놓기 위해 조제한 약과 같아서 너희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사리를 분별할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사탄은 또 과학이란 이름으로 너의 흥미를 유발하고 너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6>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57)

사탄은 전통문화를 이용해 사람을 패괴시킨다. 전통문화와 미신은 비슷한 점이 많다. 다만 전통문화는 이야기, 유례, 출처가 있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사탄은 수많은 이야기를 날조하여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역사책에 실어 전통문화나 미신과 관련된 인물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킨다. 예를 들면 여덟 신선이 바다를 건넌 이야기, 당나라 승려가 인도에 가서 불경을 구하는 이야기, 옥황상제 이야기, 정의로운 소년 나타와 악을 저지르는 동해 용왕 사이의 대결을 다룬 이야기, 봉신연의 등등, 이런 이야기들은 중국에서 사람들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지 않느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 알고 있다. 대략적인 내용일지라도 마음과 머리에 아로새겨져 잊히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이 미리부터 마련해 둔 것이다. 사탄이 시대별로 퍼뜨리는 각종 사상이나 전설 이야기는 사람의 영혼을 직접적으로 갇아먹고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각종 마법과 저주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즉, 내가 그러한 전통문화와 이야기, 미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과 머릿속에 새기는 순간, 마치 마법과 저주에 걸린 것 같다. 즉, 그런 문화와 사상, 전통적인 이야기에 사로잡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너의 삶과 인생관에 영향을 미치고, 사물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삶의 길을 찾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고 떨쳐 내려고 해도 떨쳐 낼 수 없는 마법과 저주이다. 게다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마법과 저주에 걸리면 무의식적으로 사탄을 경배하게 되고, 마음속에 사탄의 형상이 자리 잡게 된다. 즉, 사탄을 자신의 우상 또는 자신이 숭배하고 존경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부지불식간에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사람의 언행을 지배하게 된다. 너는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나 전설이 가짜라고 생각했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이야기 속의 인물이나 대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기게 되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런 사상과 그것들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마귀와 사탄, 우상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마법과 저주이다. 공감하느냐? (네.) 너희 중 향을 피우면서 부처를 숭배했던 사람이 있느냐? (네.) 어떤 목적으로 향을 피우고 부처를 숭배했느냐? (안녕을 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탄에게 안녕을 빈 것이 황당하게 느껴지지 않느냐? 안녕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때 참 어리석지 않았느냐? 참으로 황당하고 어리석고 유치한 행동이었다. 그렇지? 사탄은 어떻게 너를 패괴시킬지에 대해 열중하지 안녕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일시적인 평온함을 느끼게 해줄 뿐이다. 하지만 너는 그래도 서원을 해야 한다. 내가 만약 약속을 어기거나, 서원을 저버리면 사탄이 너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사탄은 서원을 하게 해서 너를 지배하려 한다. 너희는 안녕을 빌어서 안녕을 얻었느냐? (아닙니다.) 안녕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입었고, 게다가 불행이 끊이지 않는다. 정말 끝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다! 사탄의 권세하에 안녕이란 없다. 이것은 진실이다. 이것이 바로 봉건적 미신과 전통문화가 인류에게 초래한 결과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6>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58)

사탄은 사회 풍조를 이용해 사람을 패괴시킨다. 사회 풍조는 많은 것을 포함한다. “패션, 뷰티, 헤어, 미식을 가리키는 건가요?”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에 관한 것이냐? 그것도 풍조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런 것은 말하지 않겠다. 우리는 사회 풍조가 사람의 생각, 처세 방식, 생존 목표와 인생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이다. 이는

사람의 생각을 좌우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끊임없이 변하는 풍조에는 사악한 기운이 들어 있다. 사람은 사악한 기운에 물들어 계속해서 타락하고, 양심, 인성, 이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도덕성, 인격과 품격도 갈수록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대다수의 사람은 인격과 인성, 양심, 그리고 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풍조는 과연 어떤 것일까? 풍조는 눈으로 볼 수 없다. 풍조라는 바람이 불 때 앞장서서 그런 일, 그런 사상과 관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다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풍조에 물들고, 동화되고, 매료된다. 그러면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풍조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매몰되거나 지배받기도 한다. 끊임없이 변하는 풍조 속에서 원래 심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진리가 무엇인지 애당초 모르는 사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런 풍조를 받아들인다. 그렇게 사탄의 생존관과 가치관, 사탄이 사람에게 알려 준 삶을 대하는 방법, 사탄이 사람에게 ‘선사’한 생존법을 받아들이게 된다. 사람은 거부할 힘이나 능력이 없거나와 거부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풍조들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내가 간단한 예를 들면 너희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장사를 할 때 고객이 누구이든 상도를 지켰고, 물건 가격을 제멋대로 부르는 일이 없었다. 조금이나마 양심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이 있지 않느냐? 신조를 지키며 장사를 했다는 것은 당시 사람에게 일말의 양심과 인성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사람은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갈수록 돈, 이익, 안락함에 큰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 사람은 돈을 더 중시하게 되지 않겠느냐? 돈을 더 중시하면 자신도 모르게 명예, 명성, 신용, 인격을 간과하게 되지 않겠느냐? 네가 장사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온갖 사기 수법으로 돈방석에 앉은 것을 알게 되었다. 비록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만 갈수록 많은 돈을 끌어 담는다. 똑같이 장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이 더 많은 부를 누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배가 아프다. 그럼 너는 ‘나는 왜 저런 능력이 없지?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벌지 못하지? 나도 어떻게든 장사를 잘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어.’라고 하면서 돈 벌 방법을 궁리한다. 평소에 하던 대로 고객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를 한다면 양심적으로 돈을 벌 수는 있어도 벼락부자가 되지는 못한다. 너는 이익에 눈이 멀면서 조금씩 생각이 변하게 된다. 생각이 변하는 과정에서 일의 원칙도 변하기 시작한다. 처음 남을 속일 때는 ‘이번만 남을 속이고 다시는 사기를 치지 않을 거야. 사기를 쳐서는 안 돼. 천벌을 받고 후환이 생기니까!’라고 생각하며 조금 망설인다. 처음 사기를 칠 때는 양심의 작용으로 망설여지고 마음이 찢리기 때문에 행동이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사기 치는 데에 성공하고 평소보다 많은 돈을 손에 넣으면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지만 자신이 거둔 성공에 기뻐하며 자축한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 자신이 저지른 사기 행각을 합리화하게 된다. 사람이 도박에 물들면 도박꾼으로 전략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기를 치는’ 것에 물들게 된다. 자기도 모르게 사기 행각을 합리화하고 받아들이게 되며, 사기를 일종의 정당한 비즈니스 행위 또는 자신이 생존하고

생활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간주한다. 그렇게 해야 빨리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사기 행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행위와 방법을 경멸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사기를 시도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마음이 점차 변하게 된다. 어떻게 변할까? 그러한 풍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로 사회 풍조가 주입하는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장사할 때 사기를 치지 않으면 뭔가 손해를 봤거나 뭔가를 잃었다고 느끼게 된다. 부지불식간에 ‘사기를 치는’ 것이 너의 영혼으로 자리 잡고, 너의 중심이 되며, 생존을 위해 꼭 해야 할 행위로 변질된 것이다. 사람이 그러한 행위와 생각을 받아들일 때면 마음이 변하지 않겠느냐? 마음이 변한다. 그럼 너의 인격은 어떨까? 인성은 어떠하겠느냐? 너의 양심은 또 어떻겠느냐? (변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심지어 안팎으로 질적인 변화가 생긴다. 그러한 변화로 인해 너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갈수록 사탄과 마음으로 가까워지고 사탄을 닮아 가는 것이다.

이제 보니 이런 사회 풍조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사람에게 큰 해악을 초래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크나큰 해악을 초래한다! 사탄은 그런 여러 가지 사회 풍조를 이용하여 사람의 무엇을 파괴시키느냐? (양심, 이성, 인성, 도덕성, 생존에 대한 관점입니다.) 사람을 조금씩 타락시키지 않느냐? 사탄은 이런 사회 풍조를 이용하여 사람을 악마의 소굴로 조금씩 유인한다. 사회 풍조의 영향으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돈, 물욕, 사악함, 폭력을 숭상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변하느냐? 사탄 마귀로 변한다! 사람에게에는 어떤 것을 지향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냐? 사람이 무엇을 숭배하느냐? 사악함과 폭력을 좋아하게 되는 반면 아름다움과 선함을 싫어하고, 평화는 더욱 싫어하게 된다. 그리고 정상 인성을 가지고 평범한 삶을 살기보다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육적인 향락을 즐기고 자신의 욕을 최대한 만족시키고 싶어 하며, 그 어떤 제약이나 속박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 사람이 이런 풍조에 빠지게 되면 그동안 습득했던 지식이 풍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내가 잘 알고 있는 전통문화와 미신이 이런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전통적 윤리 도덕과 예의가 사람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삼자경>>이 그런 풍조에서 발을 빼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아니요,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갈수록 사악해지고 교만해지며, 안하무인이 된다. 갈수록 이기적이고 악랄해진다. 사람 사이의 정이 사라지고, 가족 간의 사랑이 없어지며, 친척과 친구에 대한 이해심이 사라지고, 사람 사이엔 폭력이 난무하게 된다. 모든 사람은 폭력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밥그릇을 차지하고,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고,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폭력적이고 사악한 방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한다. 이 인류가 무시무시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방금 한 말을 들어 보니 사탄이 사람을 파괴시키는 환경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섭지 않느냐? (무섭습니다.) 너희는 자신이 불쌍하다고 느껴 본 적이 없느냐? 지금은 조금 그렇게

느껴진다. 그렇지? (네.) 너희들의 말투를 들어 보니 ‘사탄이 갖은 방법으로 사람을 패괴시키고 틈만 찾으면 파고드는데, 과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구나.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느냐?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옥황상제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공자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관음보살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누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문이 생길 것이다. ‘미쳐 날뛰면서 해를 가하는 사탄으로 인해 우리는 삶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잃었고 패괴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무거워.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패괴시키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 거야?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느껴 본 적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실의에 빠지기도 하고, 실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너희는 꽤 강렬히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말해 주는 내용을 깨달을수록 너희는 더욱 자신이 구원받을 가망이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너희는 조급해하지 마라.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눈 ‘사탄의 사악함’은 진짜 주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련된 본질을 이야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방법과 사탄의 사악함을 얘기해야 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사람이 현재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확실히 알게 해야 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을 다룬 목적은 사탄의 사악함을 알게 하고, 무엇이 진정한 거룩함인지 더 깊이 이해시키고자 함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6>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59)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고 있을 때, 사람을 닥치는 대로 해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 또한 그는 자신이 택한 사람을 내버려 두거나 못 본 척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사탄이 하는 모든 일을 분명하고 똑똑히 알고 있었다. 사탄이 어떤 일을 하거나 풍조를 만들 때마다, 하나님은 사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조용히, 소리 없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해 나갔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사역을 할 때나 누군가를 택할 때,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뿐이다. 그 누구에게도, 사탄에게도 선포하지 않고, 요란하게 움직이지도 않는다. 우선 하나님은 네가 태어날 가정을 정해 주었다. 너의 가정 환경, 부모, 조상은 하나님이 일찍부터 정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즉흥적으로 결정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다. 네가 태어날 가정을 정한 다음에는 네가 태어날 날짜도 정했다. 이어서 네가 울며 태어나는 모습, 네가 웅알웅알 말을 배우고,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는 모습까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았다. 한 걸음씩, 너는 달릴 수 있게 되었고, 뛸 수 있게 되었으며, 말을 할 수 있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사탄은 성장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을 호시탐탐

노린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일은 사람이나 일, 사물, 공간, 시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다. 그는 해야 할 일,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할 뿐이다. 너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좌절, 질병,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 곁에서 너를 보호하고 돌보아 주었다. 그렇게 이 길을 걷는 너의 생명과 미래를 엄격하게 지켜 주었으며, 너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어느새 너는 장성하여 새로운 사물을 접하게 되고, 이 세상과 이 인류를 알아 가기 시작한다. 모든 일이 새롭게 느껴진다. 너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길 좋아하며, 자신의 인성으로 자신만의 공간에서 살아간다. 이 과정에서 너는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도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조금씩 성장하고, 한 걸음씩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심지어 지식을 습득하고 과학을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은 너에게서 한 걸음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너도 세상을 알아 가고 접하는 과정에서 꿈을 키운다. 자신의 취미, 자신의 관심사를 가지게 되고,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늘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 본다. 그 과정이 어떠했든지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눈에 담고 있다. 어쩌면 너는 자신의 과거를 잊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너는 하나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살아가고, 자라고, 성숙해지기 때문이다. 그 기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한다. 이는 아무도 느끼지 못했던 일이고, 아무도 모르는 일이며, 하나님이 한 번도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던 일이다. 그렇다면 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는 이 일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일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이 일은 사람과 하나님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일이 무엇인지 너희는 아느냐? 너희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아무 개념도 없어 보이는구나. 그럼 내가 알려 주겠다.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은 너에게 수많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는지 일일이 알리지 않고, 네가 알게 하지도 않으며, 너에게 말한 적도 없다. 하지만 그 일들이 어떤 것이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일들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다른 일들보다 훨씬 중요하다. 바로 사람이 태어나서 현재에 이를 때까지 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 준 것이다. 이 말이 너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아 “안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라고 물을 수도 있다. ‘안전’은 문자적으로 보면 무엇을 말하느냐? 아마 너희는 평안함, 재앙도 화도 없는 것, 멀쩡하게 사는 것, 정상적인 삶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도 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그 일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 ‘안전’이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정말 너희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뜻일까? 아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안전’이란 사탄에게 먹히지 않도록 지켜 준다는 의미이다. 중요한 일이지 않느냐? 사탄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은 너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지 않느냐? 신변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니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사탄에게 먹히는 순간, 너의 영혼과 육체는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 그런

사람을 포기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네가 사탄에게 먹히지 않도록 너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중요한 일이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 아무래도 너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느끼지 못했나 보구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6>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60)

하나님은 사람이 사탄에게 먹히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 외에도 많은 사역을 하였다. 즉, 한 사람을 택하고 구원하기 위해 많은 예비 사역을 한 것이다. 우선, 하나님은 너라는 사람이 어떤 성격을 소유할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지, 부모는 누구일지, 형제는 몇 명일지, 그 가정 상황과 경제적 여건은 어떠할지, 가정 환경이 어떠할지 등을 다 정성스럽게 마련해 놓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할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는지 알고 있느냐? 대단한 지위를 가진 집안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겠느냐?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매우 드물다. 그럼 억만장자, 천만장자의 집안처럼 특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겠느냐? 거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도록 하겠느냐? (평범한 가정입니다.) 평범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을 말하느냐? 근로자 가정이 있다. 근로자는 급여로 생활하며,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지만 여유로운 생활을 하지는 못한다. 농민 가정도 있다. 농민은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며,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어 배를 굶거나 추위에 떨지는 않는다. 자그마한 장사를 하는 가정도 있다. 부모가 지식인인 가정도 평범한 가정에 속한다. 부모가 기껏해야 회사원이거나 낮은 직급의 공무원인 가정도 상류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는데, 이는 다 하나님이 안배한 것이다. 다시 말해, 네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생각처럼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정해 준 가정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가정에서 살고 있다. 사회적 지위는 어떻겠느냐? 대부분 경제력이 평범하고, 이렇다 할 사회적 지위가 없다. 직업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성장(省長)이나 대통령인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기껏해야 작은 회사의 과장이나 사장으로 평범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가정생활 환경도 빼놓을 수 없다. 일단 부모의 영향으로 자녀가 무속인의 길을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부모가 평범한 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함과 동시에 그 사람에게 이런 환경을 정해 주는데,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 않고, 모든 일을 묵묵히, 소리 없이 조용하게 행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은 네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길을 예비하고, 각종 조건을 예비한 것이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시점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때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점이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때이다. 그때 어떤 사람은 이미 부모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자녀의 신분으로 남아 있다. 즉, 결혼하여 자녀를 둔 사람도 있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고 미혼인 사람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너를 택할 시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다가갈 시기를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해 놓았고, 환경까지 마련해 놓았다. 누구를 통해 혹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시켜 너에게 복음을 전해 줄지, 그리고 네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지를 정해 놓은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 모든 조건을 예비해 두었다. 그리하여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오게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씩 그의 사역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예비한 그의 사역 방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기간에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에게 사역하겠느냐? 우선,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과 일, 사물을 마련하여 사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사를 보게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다른 이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은 누가 마련한 것이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병 때문에 온 가족 또는 가족 중 일부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 걸보기에는 가족이 병에 걸린 것 같지만 사실 이는 네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준 계기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늘 가정에 평안이 없고 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누군가에게서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 평안이 깃듭니다.”라고 전하는 복음을 받게 되고,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것도 하나의 계기 아니겠느냐? 가정에 평안이 없었던 것도 하나님이 준 은혜 아니겠느냐? 또 다른 이유로 믿게 된 사람도 있다. 저마다 각기 다른 이유와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 네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든 사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안배와 인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너를 택하고 하나님의 집까지 데리고 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6>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61)

지금의 이 말세 사역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예전처럼 은혜와 축복만 주는 사역을 하지 않으며, 더 이상 사람을 달래면서 나아가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하나님 사역의 다양한 면을 체험하면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도 보게 된다. 또한 이 기간에 하나님은 공급과 붙들, 깨우침, 인도의 방식을 통해 사람이 그의 뜻과 그의 말씀, 그가 사람에게 준 진리를 조금씩 깨닫게 한다. 사람이 연약하거나 소극적이거나 길이 없는 것 같아 막막해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한다. 그리하여 유약한 사람의 분량을 조금씩 강하게 키워 주고,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과 협력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한다.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패괴 성품을 드러내면, 하나님은 가차 없이 사람을 채찍질하고 징계한다. 그러나 사람의 우매함과 무지함, 연약함과 유약함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인내한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한 다양한 사역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며, 조금씩 그의 뜻과 진리를 깨달아 가고, 무엇이 긍정적인 것이고 무엇이 부정적인 것인지, 무엇이 사악함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을 채찍질하거나 징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관용을 베풀거나 인내하지도 않는다. 사람이 처한 시기, 사람의 분량과 자질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각 사람에게 공급한다. 그는 사람에게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였다. 사람은 그러한 대가와 일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행한 것은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실현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또 한 번 화를 면하게 되었고, 연약함으로 인해 한 번 또 한 번 하나님의 관용을 받게 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통해 인류의 패괴와 인류에게 있는 사탄의 본질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 깨우침, 인도를 통해 갈수록 진리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고,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사람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삶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행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취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은 왜 그런 방식으로 사람에게 사역하겠느냐? 어떤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겠느냐? 즉, 그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고자 한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에게 사역하여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과 영을 불려 깨우며,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사람을 인도해 주고 붙들어 주고 공급하고 있는지, 누가 사람을 지금까지 살 수 있게 했는지를 알게 해 준다. 또한 누가 창조주이고, 사람이 누구를 경배해야 하며,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야 하는지를 알게 해 준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소생시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알게 한다. 마음이 깨어나면 사람은 더 이상 타락한 패괴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며, 진리를 추구하여 하나님을 흡족게 하고자 한다. 사람은 마음이 되살아났을 때 사탄과 완전히 결별한다. 사탄에게 더 이상 해를 입지 않고,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사탄에게 우롱당하지 않게 된다. 또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사역의 취지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6>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62)

방금 사탄의 사악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모두가 사람의 삶은 행복이 없고 매우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가 사람에게 행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오니, 기분이 어떠하냐?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한 모든 것,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세심하게 마련한 모든 것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행한 일에 오차가 없다는 것은 잘못이 없으므로 누군가 정정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이를 위해 행한 일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손을 잡아 이끌고 있다. 하나님은 시시각각 너를 보살피며 한번도 떠난 적이 없다. 사람은 이런 환경과 배경에서 성장하니,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자란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허전하냐? 여전히 소극적이냐? 하나님이 인류를 버렸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행하였느냐? (인류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하면서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 모든 사역을 행하면서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았으며,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치른 대가를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런 적이 있더냐? (없습니다.) 지금 이 나이까지 살다 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일생에서 수많은 위험과 시험을 겪게 된다. 사탄이 네 곁에서 시시각각 너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네게 재난과 불행이 닥치거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즐거워한다. 또한 네가 사탄이 던진 올무에 걸려드는 것을 즐긴다. 반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불행과 재난을 피하도록 너를 항상 지키고 보호한다. 그러므로 평안, 즐거움, 복, 신변의 안전 등 사람의 모든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다. 모든 이의 평생의 운명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주재한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위라는 개념이 존재하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 중에서 내가 가장 위대하니 내가 너희를 관리하겠다. 모두 나에게 용서를 구해라. 고분고분하게 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며 인류를 위협한 적이 있더냐?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패괴된 인류는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다. 그렇게 신경 쓰면서 안배해 줄 필요 없이 대충 챙기면 된다.”라고 말씀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냐?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매우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모든 사람을 대한다. 네가 스스로를 대하는 것보다 더 책임감 있게 말이다. 그렇지 않더냐? 하나님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 지위를 점하고 거드름을 피우거나 사람을 무책임하게 대하거나 기만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진실하게,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행한다. 그렇게 행한 일들은 사람에게 복과 평안, 기쁨을 가져다주었으며, 지금처럼 무탈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집에 있게 해 주었다. 또한, 사람이 정상적인 이성과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그의 구원을 받게 해 주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역하면서 사람을 길 다르고 속 다르게 대한 적이 있느냐? 가식적으로 대하며 듣기 좋은 말로 얼버무리고 외면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언행이 불일치한 적이 있느냐? “너 대신 이 일을 해 주겠다. 저 일을 도와주겠다.”라고 공수표를 날리거나 큰소리를 치고 사라진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간사함이나 거짓됨이 없으며 신실하다.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진실하다. 그는 사람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자 사람이 자신의 일생과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는 간사함이 없으니 가장 진실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을 ‘진실하다’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으나 사실 이는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인간의 관점에 치우친 단어이다.

그러나 인류의 언어가 가진 한계로 인해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진실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해도 잠시 이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자.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몇 가지 측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인류와 다르고 사탄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에게는 사탄의 패괴 성품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느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에서는 사탄의 그 어떤 사악함도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이 행하고 드러내는 모든 것은 사람에게 이롭고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급과 생명이 되고, 길이 되며, 방향이 된다. 하나님께는 패괴가 없다. 또한 우리가 지금 보게 된 하나님의 모든 행사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어떤 패괴도 없고, 인류의 패괴 성품, 사탄의 본질과 비슷하거나 같은 점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패괴 성품도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과정에서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로, 이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한다. 너희는 이를 깨달았느냐?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알게 된 하나님의 거룩함의 본질을 말하겠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패괴 성품도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한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 준다. 그 본질은 모두 긍정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한 모든 사역은 다 긍정적인 것만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우선,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긍정적인 것 아니겠느냐?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를 가지게 한다. 이는 긍정적인 것 아니겠느냐? 사람으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긍정적인 것 아니겠느냐?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한다. 이는 긍정적인 것 아니겠느냐?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에 근거하여 사람, 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한다. 이는 긍정적인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사탄에게 더 이상 미혹되지 않고, 잔혹한 해를 입지 않으며, 사탄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즉, 사탄의 패괴 성품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로 조금씩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6>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63)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수단은 주로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통제와 협박이다. 사탄은 어떻게든 너의 마음을 지배하려 든다. ‘협박’이란 어떤 의미더냐? 위협과 강박으로 그것의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이며, 어떤 결과를 연상하게 만듦으로써 두려움을 느껴 사탄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순순히 따르게 된다.

둘째는 기만과 현혹이다. ‘기만과 현혹’이란 무엇을 가리키느냐? 사탄은 전설과 거짓말을 지어내어 너를 속이고, 그 거짓말을 믿게 만든다. 또한 사탄은 절대로 너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알려 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아예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다. 다른 것으로 이를 대체하고 너를 미혹해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 물론 이 ‘기만’이란 것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여러 측면을 포함한다.

셋째는 강제 주입이다. 무엇을 주입하겠느냐? 강제 주입이 사람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겠느냐? 사람의 동의를 거친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네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소용없다. 사탄은 네가 상황 파악을 전혀 못 한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 생존 법칙, 본질을 주입한다.

넷째는 위협과 회유이다. 즉, 사탄은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네가 자신을 받아들이고 따르며,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만든다. 사탄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작은 선심을 베풀 때도 있고, 너를 범죄로 유인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괴롭힌다.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너를 공격하고 해를 가한다.

다섯째는 미혹과 마비이다. ‘미혹과 마비’란 사탄이 듣기에 그럴싸하고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는 말과 사상을 퍼뜨리는 것이다. 언뜻 보기엔 사람의 육적인 것과 삶, 미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를 속여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게 마비시킨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꼬임에 넘어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여섯째는 심신 파괴이다. 사탄이 사람의 무엇을 파괴하겠느냐? (사람의 마음, 사람 전체를 파괴합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여 거스를 힘을 앗아 간다. 즉, 너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사탄 쪽으로 기울게 하는 것이다. 사탄은 매일 네게 그런 것들을 주입하고, 그러한 사상과 문화로 악영향을 끼쳐 너를 물들인다. 너의 의지를 조금씩 꺾음으로써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거나 소위 말하는 정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말끔히 없애 놓는다. 그렇게 되면 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맞설 의지를 상실하고 사탄의 뜻대로 흘러가게 된다. ‘파괴’란 사람을 괴롭혀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상태로 만든 후 기회를 틈타 집어삼키는 것이다.

사람을 패괴시키는 사탄의 이 모든 수단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사지로 내몬다. 즉, 사탄이 동원하는 수단은 어떤 것이든 너를 타락시키고, 사탄의 지배를 받게 하며, 죄악의 늪에 빠지게 한다. 이것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사탄의 수단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6>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64)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인식은 오랫동안 체험하고, 증명하고,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 그러면 어느 날엔가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본질이 흠 없다는 것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심 없이 모든 것을 내주며, 하나님의 거룩함은 흠잡거나

비난할 만한 구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본질은 하나님이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로 묵묵하고 진실하게 모든 사람을 대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본질은 공허하지 않고,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며, 지식이나 사람에 대한 교육은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 일할 때 참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이 드러낸 소유와 어떠함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과 말씀은 모든 이에게 더없이 큰 가치와 의미를 가지기에 사람은 이러한 본질을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될 때, 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될 때, 너는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이란 말의 진실한 함의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 또한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예비해 준 모든 것을 더는 저버리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하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너에게 밝고 바른 인생길을 걷게 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에게 진정한 인성으로 살게 하고 진리를 깨닫고 갖추게 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너에게 진리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멀리하고 사탄의 박해와 지배에서 벗어나게 한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이나 사물도 네가 고통의 나락에서 벗어나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구원할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의 본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또 오직 하나님만이 사심 없이 너를 구원하고, 너의 미래, 운명,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며,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다. 이는 그 어떤 피조물과 비피조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본질을 지닌 피조물과 비피조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사물도 너를 구원하고 인도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람에게 갖는 중요성이다. 나의 이 말들이 너희에게는 그저 도리적으로 작은 도움을 받는 것 정도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네가 진리를 사랑하고 추구한다면 지금의 이 말이 앞으로 체험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 운명을 바꾸고 올바른 삶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6>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65)

오늘 모임을 시작할 때 너희가 보인 뜻밖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어떤 사람들은 감격하거나 감사한 마음 등 여러 가지 생각에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이는 비난할 만한 사안도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한 가지를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엇이겠느냐? 우선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가 아까 한 행동이 옳드린 것이냐, 아니면 무릎 꿇고 절한 것이냐? 말해 줄 사람이 있느냐? (옳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옳드렸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옳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경배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럼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태까지 너희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으니 오늘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너희는 평소 예배 모임에서도 옳드리느냐? (아닙니다.) 그럼 기도할 때는 옳드리느냐? (네.) 여건이 되면

기도할 때마다 엎드리느냐? (네.) 좋구나. 그렇지만 나는 오늘 너희가 한 가지를 깨달았으면 한다. 하나님이 무릎 꿇은 것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두 부류의 사람에 한한다. 성경이나 영적 인물의 행위를 참고할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겠다. 먼저, 엎드리는 것과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은 다르다. 사람이 무릎 꿇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려고 하기 때문이다.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맡길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엎드리게 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에게만 해당한다. 그렇다면 너희가 어떤 부류에 해당하는지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사실이긴 하지만 감정을 좀 상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것은 따질 것이 없다. 그것은 정당한 것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사람은 기도할 때 대부분 무언가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교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식에 치우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오늘 너희가 한 행동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다만 너희가 이러한 원칙을 확실히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알겠느냐? (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무릎 꿇을 기회는 없는 것이겠느냐? 영원히 없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알겠느냐? 서글픈 마음이 들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그럼 다행이다. 내가 한 말이 너희에게 힘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마음으로 이해하도록 깨달음을 줄 수도 있다. 최근 들어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류가 많아지긴 했으나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도 멀다. 나는 너희가 조급한 마음에 이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바람이나 마음을 표출하지 않았으면 한다. 오늘 너희가 한 행동은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거나 표출한 것일 수도 있다. 내가 그 마음을 느꼈기에 너희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일어나서 너희에게 안부를 물으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너희 모두가 잘되기를 바라기에 말 한 마디, 일 하나를 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 너희를 돕고 인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모든 일에 정확한 인식과 시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네.) 아주 좋다. 사람이 하나님의 여러 측면의 성품, 소유와 어떠함, 사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는 하나 대부분 문자적인 것, 도리적인 것,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실제 체험 과정에서 진정으로 알고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일깨우고는 있으나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되살아날지는 아직도 먼 길을 가 봐야 한다. 나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냉대받거나, 버림받거나, 미움받는다고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 모든 사람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아무 후회 없이, 또 주저함 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 가는 길을 갔으면 한다. 어떠한 걱정도, 부담도 없이 말이다. 내가 이전에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잘못된 길을 갔든, 어떤 과오를 남겼든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 가는 길에서 짐이나 부담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본질 중 가장 귀한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6> 중에서

하나님 알아가기[5]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66)

너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알기 위해 무엇을 중점적으로 알아야 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알아 갈 때는 체험 측면의 내용이 아주 많지만, 먼저 몇 가지 중점을 알려 주겠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회로애락을 알아야 한다. 즉,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증오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관용과 긍휼을 베푸는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든, 얼마나 많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든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 하나님의 존엄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총애하지는 않는다.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 관용을 베푸지만 한 번도 지나치게 사랑한 적은 없다. 하나님께는 자신의 원칙과 범위가 있다. 네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깊어도 절대 하나님을 사람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가까운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람으로 여긴다면, 피조물과 동등한 한 사람이나 친구, 혹은 숭상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얼굴을 감추고 너를 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니 그 누구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자주 볼 수 있다. “네가 얼마나 먼 길을 달려왔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른다면 하나님은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가까운 대상으로 여기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친척이나 친구로 여기거나 단짝 대하듯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네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이 얼마나 크든 너는 영원히 하나님을 너의 친구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다. 알겠느냐? 이에 대해 내가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예전에 이것을 깨달은 적이 있느냐? 도리적으로 알았다고 해도 좋고,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해도 좋다. 어쨌든 이는 사람이 가장 쉽게 범하는 잘못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이유는 말 한 마디,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어떤 태도나 내적 상태 때문일 수 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조금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자신이 한 일로 하나님을 어느 정도 만족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과 동등해져야 하고 하나님께 허물없이 굴어도 된다고 여긴다. 이는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하고 깊은 인식이 없다면 너는 아주 쉽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거스르게 될 것이다. 잘 알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유일무이한 것 아니겠느냐?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과 동일시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니 명심해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든, 사람을 어떤 존재로 여기든, 하나님의 지위와 권병,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의 신분은 영원히 만유를 주재하는 그분, 바로 창조주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67)

이야기 1. 씨앗, 대지, 나무, 햇빛, 새, 그리고 사람

한 톨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다. 큰비가 지나간 후 씨앗은 새싹을 틔웠고, 천천히 땅에 뿌리를 내렸다. 새싹은 비바람을 견디고 맑고 흐린 날씨를 견디며 점점 자라났다. 여름에는 대지가 수분을 공급해 주며 뜨거운 날씨를 견디게 해 주었다. 대지 덕에 새싹은 뜨거움을 느끼지 않고 무더위를 넘겼다. 겨울이 되자 대지는 따뜻한 품으로 새싹을 꼭 껴안으며 따뜻한 기운을 전해 주었다. 그렇게 새싹은 혹한을 견디며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을 넘겼다. 새싹은 대지의 보호로 즐거워졌고, 용감해졌다. 또한 대지의 아낌없는 공급으로 튼튼해졌다. 새싹은 빗속에서 기뻐 노래하고 바람 속에서 흔들거리고 춤을 추었으며, 즐겁게 성장했다. 새싹과 대지는 서로 기대고 의지했다....

몇 년 후 새싹은 하늘 높이 우뚝 솟은 커다란 나무가 되었다. 잎은 무성하고 기둥은 굵고 단단했다. 나무는 여전히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 뿌리는 땅속 깊이 자리를 잡았다. 다만 원래 새싹을 보호하던 땅이 이제는 나무의 기반이 되었다.

한 줄기 햇빛이 나무를 비췄다. 나무는 몸을 흔들고 팔을 뻗으며 햇빛의 기운을 깊숙이 빨아들였다. 나무 발아래에 있던 땅은 나무의 리듬에 따라 호흡했고, 대지는 상쾌함을 느꼈다. 순식간에 나무에서 신선한 기류가 퍼져 나오면서 나무는 기운 넘치고 생기 있게 변했다. 나무와 햇빛은 서로 기대고 의지했다....

나무 그늘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는 사람들이 이따금 맑은 향기를 느꼈다. 이 향기는 사람의 심장과 폐를 깨끗하게 하고 피를 깨끗하게 했다. 사람의 몸은 이제 축 처지거나 답답해지지 않았다. 사람과 나무는 서로 기대고 의지했다....

새들이 지지배배 노래하며 날아와 나무에 앉았다. 어쩌면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어쩌면 다음 세대를 낳아 기르기 위해서, 어쩌면 잠깐의 휴식을 위해서일 수도 있다. 새와 나무는 서로 기대고 의지했다....

나무는 땅속 깊이 열기설기 뒤엎히며 뿌리를 내렸다. 나무는 자신의 몸으로 대지를 위해 바람과 비를 막았고, 팔을 펼쳐 발아래의 대지를 보호했다. 대지는 나무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나무와 대지는 서로 의지하며 더불어 살고 영원히 함께했다....

.....

방금 언급한 모든 사물은 너희가 본 적이 있는 것들이다. 씨앗은 알고 있을 것이다. 씨앗이 나무로 변하는 과정은 자세히 못 봤겠지만 너도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안다. 그렇지? 대지, 햇빛도 알고 있다. 그럼 새가 나무에 앉아 있는 장면은 다들 본 적이 있지 않느냐? 나무 아래서 바람을 쐬는 사람은 본 적이 있느냐? (네.) 그럼 이 몇 가지 사물을 한

장면에 두니 어떤 느낌이 드느냐? (조화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장면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됐으니 하나님은 이 사물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의의와 가치를 알고 있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할 때, 각각의 사물을 예비하고 만들 때 다 그만의 의도가 있었으며, 하나님이 각각의 사물을 창조했을 때 그들은 모두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창조한 이런 생존 환경, 다시 말해 방금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대지와 씨앗은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대지는 씨앗을 키워 주고, 씨앗도 대지를 떠날 수 없는 둘 사이의 이런 관계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정해 놓은 것이다. 나무, 햇빛, 새와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도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창조한 생존 환경이다. 우선, 나무는 대지를 떠날 수 없고, 햇빛도 떠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무를 창조한 목적은 무엇이나? 단순히 대지를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단순히 새를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단순히 사람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럼 그들의 관계는 어떠하냐? 그들은 서로 의지하며 더불어 사는 관계이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다시 말해, 대지, 나무, 햇빛, 새와 사람 사이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공급하는 관계다. 나무는 대지를 보호하고, 대지 또한 나무를 키워 준다. 햇빛은 나무를 비추고, 나무 또한 햇빛에서 신선한 기운을 얻어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햇빛의 열기를 약화시킨다. 최종의 수혜자는 누구냐? 최종의 수혜자는 인류다. 그렇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의 생존 환경을 만든 원칙이자 초심이다. 평범해 보이는 장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정성이 담겨 있다. 사람은 대지를 떠날 수 없고, 나무도 떠날 수 없고, 햇빛과 새도 떠날 수 없다. 그렇지? 이 장면은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준 생존 환경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생존 환경을 만들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말한 핵심은 만물이 서로 의지하며 더불어 산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원칙하에서 인류의 생존 환경이 보존되고 지속되며, 이런 생존 환경이 있기에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본 것은 나무, 대지, 햇빛, 새, 그리고 사람이 있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 하나님이 있느냐? 보지 못했다. 그렇지? 하지만 이 장면 속에서 만물이 서로 의지하며 더불어 사는 법칙을 보았고, 이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재를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이런 원칙과 법칙으로 만물의 생존과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런 방식으로 만물과 인류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그럼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말하려는 주제와 관계가 있느냐? 겉보기에는 무관한 것 같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만물의 법칙을 창조한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만유를 주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과 불가분의 중대한 관계가 있다. 이제는 조금 느낄 수 있겠지?

하나님은 만유의 운행 법칙과 만물의 생존 법칙을 주관하며, 만유와 만물을 주관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 의지하고 더불어 살며 멸망이나 소멸에 이르지 않게 한다. 그래야 인류는 지속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이런 생존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운행 법칙은 하나님의 주재하에 있으며, 그 누구도 개입하거나 바꿀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이러한 운행 법칙을 알고 있고,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이 법칙을 관리하고 있다. 나무는 언제 싹을 틔울지, 비는 언제 올지, 대지는 식물에 수분과 영양을 얼마나 공급할지, 낙엽은 어느 계절에 질지, 나무는 어느 계절에 열매를 맺을지, 햇빛이 나무에 양분을 얼마나 줄지, 나무가 햇빛에서 양분을 얻은 후 내쉬는 것은 무엇일지,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할 때 정한 것이다. 이 법칙은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유, 즉 생명을 지닌 것이든 사람이 봤을 때 생명이 없어 보이는 것이든 모두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고 주재하고 있으며, 그 누구도 이 법칙을 바꿀 수도 깨뜨릴 수도 없다. 즉,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할 때 이런 법칙을 다 정해 놓았다는 뜻이다. 나무는 대지를 떠나 뿌리를 내릴 수도, 싹을 틔울 수도, 자랄 수도 없다. 대지에 나무가 없다면 대지는 말라 버릴 것이다. 나무는 새의 집이 되고 새가 바람을 피하는 장소가 되었다. 나무에게 햇빛이 없으면 되겠느냐? (안 됩니다.) 나무에게 대지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류와 인류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인류는 나무로부터 신선한 공기를 얻으며, 나무가 보호하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다. 또한 인류는 햇빛과 여러 가지 생물들을 떠나서 살 수도 없다. 이런 관계가 복잡하지만 네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이 만유의 법칙을 창조한 것은 만물이 서로 의지하며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하나님이 창조한 각각의 사물은 각자의 존재 가치와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만든 의미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에게 공급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이 이야기 속에서 ‘공급’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이 매일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이냐? 나무가 호흡하는 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급’이란 창조 후에 하나님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법칙을 하나 만들어 그것을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나무의 씨앗을 대지에 심으면 스스로 자라난다. 씨앗이 자랄 여건은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두었다. 햇빛, 수분, 토양, 공기와 주변의 환경, 바람, 서리, 눈, 비, 1년 사계절, 이것은 나무가 필요로 하는 생존 조건으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 이런 생존 환경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매일 가서 나무에 잎이 몇 장 달렸는지 셀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겠지? 하나님이 나무의 호흡을 도울 필요도 없다. 햇빛도 하나님이 매일 가서 깨울 필요도 없고, “나와서 나무를 비춰라”라고 할 필요도 없다. 햇빛은 법칙에 따라 때가 되면 나와서 나무를 비춘다. 나무는 필요할 때 햇빛을 흡수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역시 법칙 속에서 살아간다. 너희가 이 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사실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너는 만물의 생존 법칙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만물의 생장과 존속이 하나님의 주재하에 있다는 것만 알면 된다.

이 이야기 속에 인류가 말하는 비유가 있었느냐? 그럼 말하는 것이 일종의 의인화 기법이었느냐? (아닙니다.) 내가 말한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었다. 살아 있는 모든 것,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재하에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후 각 사물은 생명이

있게 되었고, 그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각 사물은 자기 생명의 궤적과 법칙을 스스로 준수하고 있으니 사람이 바꿀 필요도, 도울 필요도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에게 공급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알겠느냐? 사람이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한 이야기가 생물학과 관계있느냐? 지식이나 과학과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여기서 생물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 생물학을 연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요점이 무엇이나?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물 속에서 너희는 무엇을 봤느냐? 나무를 봤느냐? 땅을 봤느냐? (네.) 햇빛도 보았다. 그렇지? 새가 나무에 앉아 있는 것을 봤느냐? (네.) 그럼 사람이 이런 환경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겠느냐?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 통해 인류가 살아가는 터전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인류와 만물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7>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68)

이야기 2. 큰 산과 시냇물, 광풍, 거대한 파도

시냇물이 구불구불 천천히 흘러 산자락에 다다랐다. 큰 산이 시냇물의 길을 막자 시냇물은 조그마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켜 줘. 내 앞길을 막았어. 내가 갈 방향을 막았던 말이야.” 산이 물었다. “넌 어디를 가느냐?” 시냇물이 답했다. “내 고향을 찾아갈 거야.” 산이 말했다. “좋다. 내 몸을 넘어가거라!” 하지만 시냇물은 너무 약하고 어려서 아무리 애를 써도 큰 산을 넘어가지 못했고, 결국 산자락을 따라 계속 흐를 수밖에 없었다....

광풍이 모래와 자갈, 잡다한 것들을 휩쓸며 큰 산 앞에 다다라 으르렁댔다. “비켜!” 산이 물었다. “넌 어디를 가느냐?” 광풍이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난 저 너머로 갈 테다!” 산이 말했다. “좋다! 네가 내 허리를 꺾을 수 있다면 지나가거라!” 광풍은 울부짖으며 한 번 또 한 번 도전했다. 하지만 아무리 울부짖고 애를 써도 큰 산의 허리를 꺾을 수 없었다. 광풍은 지쳐 발걸음을 멈추고 휴식을 취했다. 그러나 산 저편에서는 미풍이 조금씩 불어왔고 사람들은 쾌적함을 느꼈다. 그것은 큰 산이 사람들에게 건네는 안부 인사였다....

해안가에 포말이 넘실거리며 해변의 암석을 가볍게 때리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몰아친 거대한 파도가 포효하며 큰 산 앞에 다다라 외쳤다. “비켜!” 산이 물었다. “넌 어디를 가느냐?” 걸음을 멈출 수 없었던 거대한 파도는 계속해서 포효하며 답했다. “난 내 영토를 넓히고 내 팔을 펼칠 거야!” 산이 말했다. “좋다! 네가 내 머리를 넘어갈 수 있다면 길을 내주겠다.” 거대한 파도는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산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큰 산을 넘을 수 없었고, 결국 천천히 물러났다....

수천 년 동안 시냇물은 산자락을 따라 계속 그렇게 조용히 흘렀다. 시냇물은 큰 산이 이끄는 방향을 따라 고향에 도착해 강이 되고 바다가 되었다. 큰 산의 보살핌이 있었기에

시냇물은 방향을 잃지 않았다. 시냇물과 큰 산은 서로 상생상극 작용을 하며 조화를 이루고 서로 의지했다.

수천 년 동안 광풍은 으르렁대는 습성을 바꾸지 않았다. 광풍은 모래와 자갈을 휩쓸며 늘 큰 산을 ‘방문’했고 큰 산을 위협했지만 산허리를 꺾지는 못했다. 큰 산과 광풍은 서로 상생상극 작용을 하며 조화를 이루고 서로 의지했다.

수천 년 동안 거대한 파도 또한 쉼 적이 없었다. 거대한 파도는 땅을 넓히려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큰 산을 향해 거듭 포효했다. 하지만 큰 산은 거대한 파도의 포효에 눌러 몸을 비키지는 않았다. 산은 계속 바다를 지켜봤고, 바닷속 만물은 그렇게 번식하고 성장했다. 큰 산과 거대한 파도는 서로 상생상극 작용을 하며 조화를 이루고 서로 의지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우선 내가 한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 보아라. 일단 큰 산이 있었다. 또 시냇물, 광풍, 거대한 파도가 있었다. 그럼 첫 부분에서 시냇물과 큰 산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왜 시냇물과 큰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큰 산이 시냇물을 지켜 주었기 때문에 시냇물은 한 번도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산과 시냇물은 서로 의지한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입니다.) 시냇물 입장에서 큰 산은 보호자냐, 방해꾼이냐? (보호자입니다.) 그럼 방해꾼이 아니란 말이냐? 큰 산과 시냇물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 줬다. 큰 산은 시냇물의 보호자이자 방해꾼이기도 하다. 큰 산은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게 보호해 줬고, 동시에 곳곳으로 흘러넘치지 않게 막아 주었다. 그래서 그것이 인류에게 재해를 입히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 아니냐? 큰 산의 보호 덕에, 시냇물의 장벽 역할을 한 큰 산 덕분에 인류의 보금자리도 보호받게 되었다. 시냇물은 산자락을 따라 강으로, 바다로 흘러들어 갔다. 이것은 시냇물의 생존 법칙이 아니냐? 시냇물이 강으로, 바다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덕분이냐? 큰 산 덕분이 아니냐? 산의 보호와 방해 덕분이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냐? 여기서 시냇물에게 큰 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저 높고 낮은 산을 창조한 데에 목적이 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이는 시냇물과 산에 관한 사소한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한 두 사물의 존재 가치와 의미, 그리고 이 두 사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렇지 않느냐?

두 번째 부분에서 언급한 것은 무엇이냐? (광풍과 큰 산입니다.) 바람이 있으면 좋으냐? (네.) 꼭 그렇지 않는다. 어떤 때 바람이 너무 세면 재해가 된다. 네가 광풍 속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겠느냐? 물론 풍속 등급을 봐야겠지? 만약 3, 4 급 정도라면 견딜 만하다. 기껏해야 눈을 못 뜨는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바람이 심하게 불어 토네이도가 된다면 견딜 수 있겠느냐? 못 견딘다. 그러니 사람의 입장에서 바람이 완전히 좋다고 말하는 것도 틀리고, 완전히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틀리다. 일단 얼마나 센 바람인지 봐야 한다. 그럼 큰 산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람을 거르는 역할을 하지 않느냐? 큰 산은 불어오는 광풍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미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는 곳에서 대다수

사람이 맞고 느끼는 것은 광풍이냐, 미풍이냐? (미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큰 산을 창조한 목적이자 의도가 아니냐? 광풍이 늘 모래와 자갈을 몰고 와 아무런 방해나 여과 없이 사람에게 불어닥친다면 사람이 사는 곳이 어떻게 되겠느냐? 모래가 날리고 돌이 굴러다닌다면 사람이 이 땅에서 살 수 있겠느냐? 아마도 돌에 맞거나 모래에 눈이 흐려져 앞을 못 볼 것이다. 사람이 바람에 휩쓸려 제대로 서지 못하거나 공중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집이 파손될 수도 있다. 각종 재난이 닥칠 것이다. 그렇다면 광풍은 존재 가치가 없느냐? 바람이 나쁘다고 말하니 사람들은 바람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미풍으로 변하면 광풍도 가치가 있지 않느냐? 무덥다고 느낄 때, 숨 막히는 공기를 느낄 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필요한 것은 미풍이다. 그 미풍이 살랑살랑 불어오면 사람의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상쾌해진다. 예를 들어, 너희가 지금 방 안에 앉아 있는데 사람이 많아서 공기가 답답하다면,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미풍입니다.) 공기가 혼탁한 곳에 가면 공기에 들어 있는 더러운 것이 사람의 사고를 느리게 하고 혈액 순환을 늦추고 머리도 흐리게 만든다. 공기가 통하게 환기를 시키면 공기가 신선해질 것이고 사람의 느낌이 달라질 것이다. 시냇물이나 광풍은 재난이 될 수 있지만, 큰 산의 존재로 인해 이런 재난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뀌었다. 그렇지 않느냐?

세 번째 부분에서 언급한 것은 무엇이냐? (큰 산과 거대한 파도입니다.) 큰 산과 거대한 파도이다. 이는 산 아래의 해안가에서 벌어진 장면으로, 우리는 큰 산과 포말, 거대한 파도를 보았다. 거대한 파도의 입장에서 큰 산은 무엇이냐? (보호자이자 장벽입니다.)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 큰 산은 보호자이자 장벽이다. 보호의 목적은 바다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바다가 사라지지 않으면 바닷속 만물이 번식하고 생존할 수 있다. 또한 거대한 파도의 장벽으로서 해수가 범람하여 재해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인류의 보금자리를 훼손하거나 파괴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거대한 파도에게 있어 큰 산은 보호자이자 장벽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큰 산과 시냇물, 큰 산과 광풍, 큰 산과 거대한 파도가 서로 상생상극 작용을 하며 조화를 이루고 서로 의지한다는 말의 의미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사물들은 각자의 생존 법칙과 질서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행사를 보았느냐?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한 후 그냥 내버려 뒀느냐? 어차피 사물 각각에 법칙과 기능을 정해줬으니 그만이라는 식으로 그냥 내버려 두었느냐?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계속 관리했다. 물, 바람, 파도를 관리하며 그들이 제멋대로 날뛰어 인류의 터전을 훼손하거나 파괴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계속 번성하며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할 때 만유의 생존 법칙을 정하고, 이들을 인류에게 이롭게 함과 동시에 인류에게 부담을 주거나 재앙을 가져오지 못하게 관리해야 했다.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는다면 물이 멋대로 흐르지 않겠느냐? 바람이 멋대로 불지 않겠느냐? 이들에게 법칙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는다면 법칙이 없어 바람은

멋대로 불고, 물은 아무렇게나 흘러 사방으로 범람할 것이다. 거대한 파도가 산을 넘는다면 그 바다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 바다는 존재할 수 없다. 큰 산이 거대한 파도보다 높지 않다면 바다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산도 그 존재 가치와 의미를 잃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7>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69)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했다. 또한 만유를 주재하고 관리하며 만유에게 공급하고 있다. 하나님은 만유 속에서 만유의 일거수일투족, 언행 하나하나를 살피고, 인류가 사는 구석구석을 살핀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만유, 모든 사물의 기능과 성질, 생존 법칙, 생존의 의미, 존재 가치에 대해 손금 보듯 훤히 알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만물을 상대로 그 법칙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인류의 지식과 과학을 배워 그것을 연구하고 알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요.) 그럼 인류 중에 박학다식하여 하나님처럼 만물에 대해 잘 아는 자가 있느냐? 없겠지? 진정으로 만물의 생장 법칙을 파악한 천문학자나 생물학자가 있느냐? 그들이 정말로 모든 만물의 존재 가치를 파악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아무리 높이 쌓고 아무리 오래 배운다 한들 영원히 만물 창조의 비밀과 목적을 측량할 수 없다. 그렇지 않느냐? 이쯤에서 너희는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말의 진정한 함의를 조금 이해했느냐? (네.) 내가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주제를 말하니 많은 사람들은 즉시 ‘하나님은 진리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에게 공급한다’는 차원의 의미만 떠올린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의 삶, 그리고 일용할 양식과 매일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은 딱히 공급이라고 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인류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며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창조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주 분명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인류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인류의 생존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의 생존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을 공급하며,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유에게, 인류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런 것은 사람이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우린 알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만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맞느냐? (틀립니다.) 어디가 틀렸느냐? 하나님을 앞에 있어, 하나님이 했던 말씀만 알아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만 받아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성품의 일부와 하나님 권병의 일부만 알면 충분하며, 그러면 하나님을 안 것과 다름없다는 말은 맞는 말이나?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만유를 창조하면서부터 존재했으며, 게다가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없었던 적이 없다. 하나님이

일부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사역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으며, 이것 외의 일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권병과 신분, 하나님의 행사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뿐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소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행사를 특정 무리에 국한시키고 있다. 이런 인식이 참된 인식이겠느냐? 이런 식의 인식은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고 주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관심조차 두지 않고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만유를 주재하는 걸 난 보지도 못했고, 그건 나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야. 알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난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구원받고 온전케 되는 것에만 신경 쓰고 다른 건 상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만유의 법칙을 만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유와 인류에게 공급하는지 따위는 나와 관계없어!’ 이것이 무슨 소리냐? 이것은 대역무도한 것이 아니냐? 너희 중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자가 있느냐? 너희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안다. 너희 중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교조주의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영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대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국한시키고 표면적인 글귀에 국한시킨 채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일에 더 많이 신경 쓰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들의 생각은 아주 유치하고 종교적이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매우 알기 어렵다. 오늘 두 이야기를 들려줬다. 막 들었을 때, 막 접했을 때 너희는 조금 심오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이해하기도 알아듣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행사나 하나님 자신과 연결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만물과 인류 가운데서 나타낸 모든 행사와 행했던 모든 일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런 앎을 통해 너는 하나님의 참된 존재를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이 만유에게 공급하는 방식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이 허상이나 전설,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일종의 학설이나 정신적인 지주가 아니라 실재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자신의 방식과 템포로 만유와 인류에게 공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고 만유에 법칙을 부여했기에 만물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제 몫을 다하고, 제 책임을 다하고, 제 역할을 하면서 인류를 위해, 인류의 생존 공간과 생존 환경을 위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인류에게 이런 생존 환경이 없었으면 인류가 하나님을 믿거나 따르는 것도 빈말에 그치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7>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70)

우리는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에 대한 주제와 내용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형벌과 심판의 사역을 하는 것 외에

인류에게 또 어떤 것을 베풀어 주었는지 알고 있느냐? 어떤 이는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징계를 내리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게 세심한 관심과 보호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은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며, 심지어 어떤 이는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의 육체 생명에 관한 체험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상에서 필요한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너희 모두가 멀리 내다 보고 거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들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만물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할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만물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만물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어 만물의 생존을 보호하고 만물의 생존 법칙을 유지하고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이다. ... 내가 논하고자 하는 주제와 이야기를 그 어떤 지식과 결부하여 생각하지 말고, 그 어떤 인류의 문화나 인류의 연구와도 연관시키지 말며, 오로지 하나님의 행사와 결부시키기를 바란다. 미리 일러두지만, 나는 오로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것만 언급할 것이다. 알아들었느냐!

하나님은 인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다. 먼저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즉 느낄 수 있는 것부터 이야기하겠다. 이는 사람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공급했는지, 물질적인 것부터 이야기하도록 하자.

첫째, 공기

먼저, 하나님은 공기를 만들어 사람이 숨 쉴 수 있도록 하였다. 공기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이자, 또한 모든 순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심지어 잠을 잘 때조차 공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만든 공기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으며, 호흡하고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인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기는 하나님이 만물에게 가장 먼저 베풀어 준 것이다. 그럼 공기가 간단하게 만들어졌겠느냐? 하나님이 공기를 만들 때, 공기의 밀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겠느냐? 공기의 함량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겠느냐? (고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으로 공기를 만들었겠느냐? 왜 공기를 만들려 하였고 그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사람은 공기가 필요했고 숨을 쉬어야 했기 때문이다. 우선 공기의 밀도는 사람의 폐에 적합해야 한다. 공기의 밀도에 대해 아는 이가 있느냐? 이는 사람이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니니 굳이 알 필요는 없다. 수치로 공기의 밀도를 설명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이런 개념을 아는 정도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만든 공기의 밀도는 폐 호흡에 가장 적합하여 사람이 숨을 쉬기에 알맞고, 또한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다. 이것이 공기의 밀도에 관한 내용이다. 그다음 공기의 함량에 대해 말해 보자. 하나님은 공기의 함량이 사람에게 독이 되지 않고, 폐와 몸에 해를 주지 않도록 고려해야 했다. 사람이 원활하게 숨을 쉴 수 있어야 하며, 공기의 성분과 함량은 체내에 들어간 후 혈액을 정상적으로 순환시켜 주고, 체내와 폐 안의 탁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공기 안에는 유독 성분이 없어야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고려해야 했던 사항이다. 이 두 가지 지표를 말하는 것은 어떠한 지식을 주입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또 가장 좋게 만들어졌음을 알려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대기 중에 분진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지구상의 먼지, 모래, 흙 그리고 대기 중에 떠다니는 분진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해 하나님께는 해결할 방법, 다시 말해 완전히 제거하거나 해소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대기 중에 먼지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호흡이나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고, 먼지의 입자 크기도 인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 처리해 두었다. 하나님이 공기를 만든 것에 비밀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한 번의 입김으로 끝나는 간단한 일이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가장 단순한 것에도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 하나님은 실제적이지 않느냐? (실제적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단순한 것을 창조할 때도 인류를 생각하였다. 사람이 숨 쉬는 공기는 깨끗하며, 공기의 함량도 호흡하기에 알맞고 독이 없어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 공기의 농도 역시 인류가 숨쉬기에 적합하며, 공기를 들이마신 후 다시 내쉬는 것은 신체와 육체에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사람은 공기 속에서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으며, 어떠한 방해나 근심 걱정 없이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든, 인류의 호흡에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공기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8>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71)

둘째, 온도

둘째는 온도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온도는 인류 생존에 적합한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기온이 40 도 이상으로 너무 높게 오르면 사람은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지 않겠느냐? 사람이 사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겠느냐? 반대로 기온이 영하 40 도 이하로 내려간다면 어떨까? 이 또한 견디기 어렵다. 따라서 하나님은 온도의 범위를 정할 때에도 정성을 기울였던 것이다. 사람이 신체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온도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영하 30 도에서 영상 40 도 사이로, 북방에서 남방까지의 기온이 이 범위 안에 있다. 기온이 영하 50~60 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한랭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거주하도록 한 곳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추운 지대가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지혜가 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런 곳을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지나치게 더운 곳이나 추운 곳은 하나님이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런 곳은 사람이 거주하도록 준비된 곳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 예비한 곳도 아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장소가 지구상에 존재할까? 인류가 거주하지 못하고 생활하지 못하도록 한 곳을 왜 만든 것일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류가 생존하는 환경의 기본 온도도 합리적으로 조절했다. 여기에도 법칙이 있다. 하나님은 그 온도를 유지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창조하였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먼저 태양으로 사람을 따뜻하게 하였다. 하지만 너무 뜨거우면 사람이 견딜 수 있겠느냐? 태양에 감히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지구상에 태양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계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 태양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일까? 너무 뜨거워 가까이 가면 녹아 버리기 때문이다. 태양과 인류의 거리는 하나님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필요한 일을 했다. 다음으로 지구의 남극과 북극은 빙하로 이루어져 있다. 빙하 지대에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느냐? 빙하는 인류가 살기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것이다. 남극과 북극에 가지 않으면 빙하가 존재할 수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하여 온도를 제어할 수 있다. 이해가 되었느냐? 만약 남극과 북극이 없는 상태에서 태양이 계속해서 지구를 비춘다면 사람은 더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 생존에 적합한 온도 조절을 위해 하나님은 단지 이 두 방법만 사용했을까? 그렇지 않다. 이외에도 초원의 풀, 숲속의 각종 나무, 각종 식물 등 여러 생명체를 두었다. 이들은 태양열을 흡수하고 태양의 열에너지를 적절하게 제거하여 인류가 생존할 수 있도록 온도를 조절한다. 다음으로는 하천, 호수와 같은 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강, 호수의 면적은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구의 물의 양, 물이 흐르는 방향, 그리고 물의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지하수와 지상에 있는 하천, 호수 등의 물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 밖에 고산 지대, 평원, 협곡, 습지와 같은 다양한 지형도 있다. 다양한 지형, 그리고 그것들의 면적과 범위도 온도 조절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둘레가 100km 인 산이 있다면 그 크기만큼 온도 조절 작용을 한다. 하나님이 지구에 그런 산맥과 협곡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을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에는 각각 탄생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삼림과 식생의 면적과 생장 범위를 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삼림과 식생이 얼마나 많은 수분과 태양열을 흡수하는지 통제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이 모두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계획한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심혈을 기울여 고려하며 계획하고 배치했기에 사람은 온도가 적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 예를 들어 태양, 흔히 들을 수 있는 남극과 북극, 지상·지하·수중 생물들, 삼림과 식생의 면적, 수원(水源)과 여러 가지 물, 해수와 담수의 양, 그리고 다양한 지리적 환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인류 생존에 필요한 정상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로 사람은 적합한 온도가 있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너무 추워도, 너무 더워도 안 된다. 몸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뜨거운 지역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비한 곳이 아니다. 그리고 너무 춥거나 기온이 심하게 낮은 지역에 가게 되면 사람은 몇 분도 채 안 돼 입이 얼어 말을 할 수 없고, 뇌가 경직되어 생각할 수 없으며, 바로 질식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또한 하나님이 인류에게 예비한 곳이 아니다.

인류가 연구를 하려 하든, 혁신을 이루려 하든, 돌파구를 찾으려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사람은 육체가 적응 가능한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창조한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육체가 어떤 온도에서 적응할 수 있는지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사람 스스로는 모른다. 왜 사람이 모른다고 하느냐? 사람은 어떤 어리석은 짓들을 저질렀느냐? 많은 이들이 항상 남극과 북극 정복에 도전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 그곳의 땅을 점령하고 하루빨리 터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는 황당한 행동이다. 남극과 북극을 철저히 연구한들 어찌겠느냐? 네가 그 온도에 적응하여 거기에서 살 수 있고, 남극과 북극의 생존 환경과 상태를 ‘개선’한다 한들 그것이 인류에게 무슨 득이 되겠느냐? 인류는 생존이 가능한 환경에 가만히 있지 않고 기어코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에 가려고 한다. 이는 무슨 뜻이냐? 이미 너무 많은 복을 누렸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에서 지내는 삶이 지겨워졌다는 것이다. 또 정상적인 생존 환경을 거의 다 파괴했으니 남극과 북극에까지 가서 파괴하며 크게 ‘사업’을 하여 ‘유례없는 업적’ 따위를 남기겠다는 것이다.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이냐? 인류는 조상인 사탄에게 이끌려 계속해서 황당무계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창조한 아름다운 터전을 조금도 망설임과 거리낌 없이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다. 현재 지구에 닥친 위기를 보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달에 가서 살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그런데 달에는 산소가 부족하다.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느냐? 달에 산소가 부족하다면 이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늘 달에 가고자 한다. 이는 무슨 행동이냐? 이 또한 자해이다. 그렇지 않느냐? 달에는 공기가 없고, 온도도 인류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예비해 준 곳이 아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8>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72)

셋째, 소리

셋째는 무엇일까? 이 또한 인류의 정상적인 생존 환경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할 때 반드시 조절해야 할 일이었다. 그 일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인류의 생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사람은 육체와 생활에 지장이 생겨 그러한 환경에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모든 생물이 그러한 환경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소리이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였고, 만유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살아가며, 만물은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은 각자 생존 가치가 있고, 존재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존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안중에는 모든 것이 다 살아 있는 것이다. 모두가 살아 있기에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게 된다. 예를 들어, 지구는 끊임없이 회전하고, 태양도 달도 끊임없이 회전하며, 만물은 살아 움직임과 동시에 계속해서 소리를 낸다. 지구상의 만물도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어, 산의 밑부분은 활동하며 이동하고 있고, 심해의 생물들도 움직이며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생물들, 하나님 안중의 만물들은 끊임없이,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발생하고 움직이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 무엇이 생길까? 바로 강한 소리이다. 지구 밖의 천체들도 계속해서 회전하고, 천체의 생명체도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생명이 있든 없든 모두가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계속 앞으로 움직이면서 소리를 낸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조절하였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당연히 알고 있겠지? 비행기에 가까이 갔을 때 들리는 엔진 소리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오래 있으면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심장이 견딜 수 있느냐? 심장이 약한 사람은 견디기 힘들고, 심장이 강한 사람이라도 오래되면 견디기 힘들다. 소리는 귀나 심장과 같은 인체에 많은 영향을 주며, 너무 큰 소리는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따라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한 후, 움직이는 소리를 적절히 조절하였다. 이 또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한 환경을 창조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들 중 하나였다.

첫째, 지구의 지면과 대기층의 거리는 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토양의 밀도도 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지리적 환경의 조합도 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바꿔 말해,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소리를 조절하여 사람이 귀와 심장이 견딜 수 있는 환경에서 살게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소리로 인해 생존에 커다란 지장을 받게 되고, 삶에 큰 불편을 겪게 된다. 그것은 인류에게 곤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은 땅과 대기층 그리고 지리적 환경을 창조할 때,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담았다. 이에 대해 사람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 그저 거기에 하나님의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면 된다. 그럼 너희들이 말해 보아라. 하나님이 행한 일, 즉 소리를 정교하게 조절하여 인류의 생존 환경을 유지시키고, 인류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 만물에게 공급해 준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안정된 환경을 창조하고 제공하여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고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공급하는 방식 중 하나가 아니냐? 하나님이 행한 일이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합니다.) 매우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비록 이것이 하나님의 행사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일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필요성은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애쓰심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라도 느낄 수 있으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람은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많은 행사를 느끼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단서들을 통해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73)

넷째, 빛

넷째는 사람의 눈에 관한 것, 바로 빛이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사람의 눈은 강도가 너무 센 빛을 보면 실명할 수 있다. 사람의 눈은 어디까지나 육체의 눈이기 때문에 자극을 견뎌 내지 못한다. 태양을 계속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시도해 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선글라스를 끼고 쳐다본다면 가능은 하다.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도구 없이 사람은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힘들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태양을 창조하여 사람에게 빛을 주었는데, 그 빛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든 후 상관치 않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며,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고 전반적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눈을 만들어 주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사물을 볼 수 있는 빛의 범위도 예비해 주었다. 빛이 너무 어두워도 안 된다. 너무 어두워서 손을 내밀어도 볼 수 없을 정도면, 사람의 눈은 제 기능을 잃어 쓸모없게 된다. 또 너무 밝아도 사람의 눈은 견딜 수 없고 사물을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존 환경에 사람의 눈에 적합한 빛을 제공하였고, 이 빛으로 사람은 눈이 손상되지 않고, 게다가 눈의 기능도 잃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태양과 지구 주변에 구름을 추가하였고, 공기의 밀도로 눈이나 피부를 자극하는 빛을 여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든 대지의 색깔이 태양 빛과 각종 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눈이 적응하기 힘든 빛의 밝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은 외출할 때나 생활할 때 항상 짙은 선글라스를 낄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은 빛의 방해 없이 시야 안에 있는 사물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빛은 너무 밝아도, 너무 어두워도 안 된다. 너무 어두우면 눈이 손상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실명하게 되고, 너무 밝으면 눈에 자극이 심하다. 따라서 빛의 밝기는 사람의 눈이 적응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하나님은 빛이 사람의 눈에 줄 수 있는 자극을 다양한 방식으로 최소화하였다. 빛이 눈에 좋은 해롭든, 하나님은 사람이 죽기 전까지 건강한 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나님이 주도면밀하지 않으냐? 하지만 사탄 마귀는 어떠하냐? 사탄 마귀는 사람에게 어떤 해가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빛을 너무 밝게 하거나 너무 어둡게 한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한 이런 일들은 시각, 청각, 미각, 호흡, 느낌 등 신체의 여러 부분의 생존 적응력을 최대화시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하나님이 창조한 이러한 생존 환경은 인류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익한 환경이다. 어떤 이는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별것 아닌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은 소리, 빛, 공기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며,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의 뒤에는 하나님이 행한 일들이 있다. 너는 이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네가 인지의 필요성을 느끼는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소리,

빛, 공기 등을 창조할 때 신경을 썼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사람을 이러한 환경에 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말이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공해 준 모든 것은 인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행사가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8>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74)

다섯째, 기류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 다섯 번째는 모든 사람의 하루하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도 아주 관련이 크다. 사람의 육체가 이 물질세계에서 생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기류이다. ‘기류’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무엇을 기류라고 하느냐? 공기의 흐름을 기류라고 할 수 있다. 기류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바람이고 기체가 이동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려는 기류는 주로 무엇을 가리킬까? 내가 설명하면 바로 알게 될 것이다. 지구의 산과 강과 바다를 비롯하여 만물은 모두 회전하며, 회전할 때는 속도가 있다. 사람이 지구의 회전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지구는 여전히 회전하고 있다. 지구의 회전은 무엇을 일으키느냐? 달릴 때 컷가에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느냐? 사람이 달릴 때도 바람이 생기는데, 하물며 지구가 회전할 때 어떻게 바람의 힘이 없을 수 있겠느냐? 지구와 만물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고 운동하며 지구상의 만물은 끊임없이 번식하고 발전한다. 따라서 일정한 속도에서는 자연스럽게 기류가 발생하는데, 그런 기류를 말한다. 이 기류가 어느 정도 사람의 몸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통상적으로 태풍이 기껏해야 얼마나 강하겠느냐? 그런데도 사람들은 똑바로 서 있지 못한다. 또 바람이 부는 거리를 걸을 때면 걸음을 내딛기조차 힘겨워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바람이 너무 강하니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뭔가를 의지해 잡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기류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중 하나이다. 만약 지구 전체가 평지라면, 사람의 몸은 지구가 회전하고 만물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기류를 절대 견딜 수 없고 대응하기도 힘들다. 그런 상태에서 기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 즉 파멸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양한 지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기류가 약화되도록 하였고 기류의 방향, 속도, 강도를 조절하여 기류 문제를 해결하였다. 따라서 사람은 산천, 산맥, 평원, 구릉, 분지, 협곡, 고원, 하천 등의 다양한 지리적 환경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지리적 환경을 통해 기류의 속도, 방향, 강도를 변화시키고 그런 방식으로 약화시키거나 처리하여 적절한 풍속, 풍향, 풍력을 만들어 주었고, 이로써 사람에게 정상적인 생존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합니다.) 이는 사람이 보기에 어려운 일 같지만 하나님께는 간단한 일이다. 하나님의 눈이 늘 만물을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알맞은 기류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하나님께 매우 간단하고 쉬운 일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환경 속의 만물 중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 모두 존재의 가치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사탄과 파괴된 인류는 이 원리를 모르고 끊임없이 개발하고 파괴한다. 산천을 평지로 바꾸고, 협곡을 평평하게 메우고, 평원에 고층 건물을 지어 콘크리트 숲을 만들려는 망상에 빠져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한 최적화된 환경에서 사람이 매일 행복하게 생활하고 성장하길 바라기 때문에 인류의 생존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전혀 소홀하지 않았다. 온도에서 공기, 소리에서 빛까지 하나님은 정밀하게 안배하여 인류의 생존 환경과 사람의 몸이 어떤 자연 조건 속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번식하고 또 만물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에게, 더 나아가 인류에게 공급하는 모든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8>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75)

이제는 하나님과 인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도대체 누가 만물의 주인이냐?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물을 대할 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만물을 주재하고 안배하시고,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누립니다.) 너희는 이 말을 인정하겠지? 하나님과 인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은 만물을 주재하고 공급하고 있으며, 또 그 모든 것의 근원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만물을 공급할 때 그것을 누린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이 만물에게 베푸는 생명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만물을 누리는 것이다. 사람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성과를 누리는 자이고, 하나님은 주재자이다. 그렇다면 만물에게 있어 하나님과 인류는 무엇이 다를까? 하나님은 만물의 성장 법칙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이를 주관하고 주재한다. 즉,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안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감찰 범위 안에 있다. 하지만 사람은 만물을 볼 수 있느냐? 사람은 볼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눈앞의 것만 볼 수 있다. 산에 오르면 그 산만 볼 수 있을 뿐, 산 너머의 것은 볼 수 없다. 해변에 가면 바다의 일부만 볼 수 있을 뿐, 바다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는 볼 수 없다. 숲속에 들어가면 주변의 식물만 볼 수 있을 뿐, 더 먼 곳은 볼 수 없다. 사람은 더 높은 곳, 더 먼 곳, 더 깊은 곳은 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 시야 내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다. 사람이 1년 사계절과 만물 성장의 법칙을 안다 하더라도 만물을 관리하고 주재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만물을 자신이 손수 만든 기계처럼 다루며, 모든 절차, 원리, 법칙 그리고 용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사람은 사람인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과학을 연구하고 만물의 법칙을 탐구한다 해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만유를 주관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 무한한 것이다. 하나님이 행한 아주 작은 일을 사람에게 연구하라고 한다면, 평생의 시간을 쏟아도 진정한 성과를 얻기에 역부족일 것이다. 따라서 네가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을 연구한다면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진리를 찾는 방식과 하나님께 구하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을 알아 가는 측면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어느 날 하나님의 행사가 어디에나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왜 만물의 주재자라고 하는지, 왜 만물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생길수록 하나님을 만물의 주재자라고 칭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너를 포함한 만물 모두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만물의 생존을 주재하고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본질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생겼을 때, 너는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고 너의 주재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인식이 생기고 생명이 그런 경지에 이르면, 하나님은 두 번 다시 너에게 시련을 주거나 심판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네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고 관리하는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요한 이유이다. 이는 하나님의 행사를 인정하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 실제적으로 알고, 더 많이 이해하고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8>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76)

곡물류, 채소, 과일, 견과류는 채식에 포함된다. 식물성 식품이지만 영양소가 풍부하여 인체에 필요한 성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겐 이런 것만 주면 되니 이런 것만 먹게 하자!”라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기에 더해 더욱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예비하였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각종 고기와 생선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비해 준 고기와 생선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어류는 물속에서 서식하고 육질이 육지 고기와 다르며, 인체에 또 다른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다. 어류의 성질은 인체의 냉열을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몸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시기에 따라 알맞은 양을 베풀어 주어 사람이 계절과 시기에 맞춰 음식을 정상적이고 적절하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조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조류에는 닭, 메추라기, 비둘기 등이 있고 사람들이 즐겨 먹는 오리나 거위도 있다. 이런 육류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지만 하나님 선민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었고, 율법시대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해 주었다. 그러나 그 범위가 이제는 사람들 개개인의 입맛과 제 나름의 이해에 달렸다. 육류는 인체에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단백질, 철분, 혈액을 보충해 주기도 하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여 기력을 보충해 주기도 한다. 어떤 요리법으로 만들어 먹든 사람의 입맛과 식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배를 든든하게 채워 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일상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식량을 예비할 때 고려해 둔 것이다. 채식도 있고 육식도 있으니 먹을 수 있는 것이 매우 풍부하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식량을 예비해 줄 때의 본뜻이 무엇이었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음식을 탐하라는 뜻이었겠느냐?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만 빠져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영양 과잉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영양 과잉이 되면 몸에 각종 질병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 양을 정해 놓았고, 시기와 계절에 따라 각기 다른 식량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나면 체내에는 열기와 습하고 건조한 기운이 쌓이는데, 이때 가을철에 나는 과일들을 먹으면 습하고 건조한 기운이 제거된다. 또한 이 시기는 소와 양이 살찌는 계절이기 때문에 육식을 통해 몸보신을 할 수 있다. 다양한 고기로 몸에 에너지와 열량이 축적되면 매서운 추위에도 버틸 수 있고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게 된다. 어떤 시기에 사람에게 무엇을 예비해 줄지, 어떤 시기에 무엇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잘 익도록 할지 이 모두는 하나님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아주 알맞게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예비해 주는가’에 관한 이야기이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다양한 식량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물을 제공한다. 사람은 음식을 다 먹은 후에 물을 마셔야 되는데, 과일만 먹어서야 되겠느냐? 과일만 먹어서는 건딜 수 없다. 게다가 어떤 계절에는 과일이 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사람의 식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느냐? 하나님은 지상과 지하에 호수, 강, 샘물과 같은 다양한 수원을 예비하였다. 이러한 수원은 오염되거나 사람이 변질시키거나 파괴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 마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육체적 생활에 필요한 식량의 근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정밀하고, 정확하고, 알맞게 예비하여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그 무엇도 부족함 없게 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가운데는 사람의 몸에 상처가 나거나 병이 났을 경우 이를 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동식물이나 각종 풀들도 있다. 예를 들어,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혹은 뜨거운 물에 데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로 씻어 내면 되느냐? 아무 천으로 감싸면 되느냐? 그러면 굼거나 감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열이 나고 감기에 걸리거나, 일하다 타박상을 입거나, 무엇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거나, 혈관 질환, 심리적 질환, 오장육부에 생긴 질병 등 생활 습관 혹은 각종 정서로 인한 병은 그에 맞는 식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러한 식물에는 어혈을 풀어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거나 통증을 없애거나, 지혈이 가능한 것도 있고, 마취를 하거나, 피부의 정상적인 회복을 돕는 것도 있으며, 체내의 어혈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식물 모두는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고 쓸모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위해 예비한, 비상시에 필요한 것들이다. 이들 중에는 사람이 무심코 발견하게 된 것도 있고 또 어떤 특이한 현상이나 사람들을 통해 발견하게 된 것도 있다. 발견한 후 인류에게 전해 내려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식물 또한 가치와 의미가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생존 환경을 창조할 때 사람을 위해 마련하고 자라게 한 것으로 모두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완벽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한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면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한다. 사람이 아직 이 세상에 오지 않았을 때, 인류와 접촉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고 인류를 위해, 인류의 생존을 위해 고려하였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예비한 풍요로운 물질세계 속에서 인류가 걱정 없이,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인류는 계속 번성하며 생존하고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8>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77)

처음에 우리는 사람의 생존 환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생존 환경을 주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무엇을 예비했는지, 무엇을 처리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예비한 만물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여 만물이 인류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하나님은 만물이 가져온 여러 요소가 인류 환경에 초래한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여 만물이 각각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인류에게 유익한 환경과 다양한 요소를 만들어 인류가 이런 환경에 잘 적응하고 정상적인 종족 번식을 이루면서 윤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는 인체에 필요한 먹거리, 즉 일상의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 또한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갖춰져야 할 조건이다. 사람의 육체는 숨만 쉬면서 살 수 없고 햇빛만 보며 살 수 없고 바람만 쐬며 살 수도 없으며 적절한 온도만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다. 배를 채우는 음식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단 하나의 부족함도 없도록 예비하였다. 이것이 바로 식량의 유래이다. 풍부한 산물인 식량의 유래를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인류에게 공급하고, 만물에게 공급하는 근원이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나무나 풀만 만들거나 각종 생물만 만들었고, 그 생물과 식물이 오로지 소, 양, 얼룩말, 사슴 같은 동물들의 먹이밖에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사자는 얼룩말이나 사슴 등을 잡아먹고 호랑이는 돼지나 양 등을 잡아먹지만 이것들 중 사람이 먹기에 적합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괜찮겠느냐? 안 된다. 그렇다면 사람의 육체는 살 수 없다. 사람이 나뭇잎만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양에게 예비한 풀을 사람에게 먹으라고 하면 되겠느냐? 한 번쯤 맛보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계속해서 먹는다면 사람은 위가 견디지 못할 것이고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어떤 것은 동물이 먹으면 괜찮지만 사람이 먹으면 독이 된다. 동물이 먹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도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유독 물질도 있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체의 원리와 구조, 인체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안다. 하나님은 인체의 성분과 함량, 인체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오장육부는 어떻게 활동하는지, 어떻게 흡수하고 배출하며, 신진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잘 알지 못하면서도 때로는 제멋대로 먹고 제멋대로 관리하는 바람에 지나친 몸보신으로 영양의 균형을 잃기도 한다. 하나님이 예비한 대로 정상적으로 먹고 누린다면

아무 탈도 나지 않는다. 가끔 기분이 상하는 일 때문에 기와 혈이 막히는 일이 생긴다 해도 괜찮다. 한 가지 식물을 먹으면 막혔던 혈이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 인류는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도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은 식물을 위해 생존 환경을 예비하였고, 동물을 위해 먹이와 생존 환경을 예비하였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사람의 생존 환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엄격한 잣대로 임했고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류가 정상적인 발전과 종족 번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다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어쩌면 너는 이미 봤거나 누리고 있지만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것, 혹은 원래부터 있었거나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가치를 느끼기 힘들겠지만 이는 하나님이 뒤에서 혹은 오래전에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에게 불리한 모든 것과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나쁜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해결하였다. 이는 무엇을 설명할까? 인류를 창조할 때의 하나님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태도는 어떠하나? 하나님은 신중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했으며 하나님 외의 어떤 적대 세력이나 요소, 조건의 간섭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인류를 창조하고 나아가 인류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태도는 어떠하나? 사람이 누리는 생활 환경과 생존 환경, 식량과 일상에 필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다음 인류를 위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결심도 볼 수 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참됨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묘함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예측 불가능함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전능함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전능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전 인류에게 공급하고 있고, 나아가 만물에게도 공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제 하나님이 만물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매우 확실하다. 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없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에게 공급해 주는 일에서, 하나님이 만물 생명의 근원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만물이 생존하고, 성장하고, 번식하며, 지속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만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다.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존 환경이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든,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으며, 심령에 진리를 공급하기까지 한다. 모든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신분이나 지위로 봤을 때, 인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 이 말이 맞느냐?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물질세계의 주관자이고 주재자이며 공급자이다. 이는 인류에게 있어 하나님의 신분이 아니란 말이나? 이는 거짓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하늘을 나는 새를 볼 때, 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어떤 생명체는 물속에서 헤엄치며 각각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또 땅에서 사는 나무와 식물은 봄에 싹이 트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잎이 떨어지며, 겨울에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 겨울을 보내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존한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은

각각의 형태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각각의 방식으로 그것의 생명력과 생명의 형태를 나타낸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모두 하나님이 주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각각 다른 생명 형태를 가진 생물과 생명체를 주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나? 인류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법칙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류의 생존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8>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78)

하나님은 하나님 선민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네가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만물의 하나님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사역하고 행사를 보여주느냐? (아닙니다.)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 범위는 작게 말하면 전 인류와 만물이고 크게 말하면 우주 전체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류 전체에게 사역하고 행사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전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3 단계 사역과 하나님이 이전에 행했던 사역의 그런 이야기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인식한다면, 하나님을 한 범위에 국한시킨 것이고 하나님을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한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떤 영향을 초래하게 될까? 하나님의 기묘함과 지고지상함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 그리고 권병의 범위를 영원히 알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인식은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참된 신분과 지위를 인지하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인식한다면 그 한정된 만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범위를 넓히고 시야를 확대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주재하는 범위, 하나님이 주재하고 관리하는 만물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그러한 인식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만물 중에서 만물을 주재하고 관리하며 또 만물에게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너는 자신이 만물 중의 하나이고 만물의 일원임을 진정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만물에게 공급하고 있고, 너 또한 하나님이 주재하고 공급하는 것을 받고 있다. 이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만물에는 만물의 법칙이 있고, 이는 하나님이 주재하고 있다. 만물에는 만물 생존의 법칙이 있고, 이 또한 하나님이 주재하고 있다. 인류의 운명과 인류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주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공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재 속에서 사람과 만물은 서로 의지하며 더불어 살아가고,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목적과 만유를 창조한 가치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8>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79)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이래, 만물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 따라 운행되고 규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눈 아래, 하나님의 주재 아래, 만물은 사람과 함께 생존하며 규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무엇도 이 법칙을 바꿀 수 없으며, 파괴할 수 없다. 만물은 하나님이 주재하기 때문에 번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재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만물은 하나님의 주재 아래 규칙적으로 생겨나고 발전하며, 사라지고 윤회하게 된다. 봄이 오면 보슬보슬 내리는 비가 봄의 기운을 전하고, 대지를 촉촉이 적시 주며 토양을 녹인다. 그리하여 작은 떡잎이 땅을 뚫고 나와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나무는 점점 더 푸르게 변해 간다. 이 모든 생물들은 대지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것이 바로 만물이 생겨나고 발전하는 모습이다. 온갖 동물들도 동굴에서 나와 따스한 봄기운을 느끼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 여름이 되면 만물은 무더위를 즐기고 여름이 가져다주는 따스함을 느끼며 빠르게 성장한다. 나무와 풀, 온갖 식물들이 빠르게 자라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인류를 포함한 만물도 여름을 분주히 보낸다. 가을이 되면 가랑비가 내리며 시원한 계절이 왔음을 알리고, 각종 생물도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음을 느낀다. 만물은 열매를 맺고, 인류는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며 겨울을 위해 식량을 비축한다. 겨울이 오면 만물은 추위 속에서 휴식과 안정을 취하기 시작하며, 사람들도 한가로운 시간을 보낸다. 이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고 변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정해 놓은 법칙에 의한 것으로,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법칙으로 만물을 이끌고 인류를 인도하며, 인류에게 풍부하고 다채로운 생활 방식을 정해 주었다. 또한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각기 다른 온도와 서로 다른 계절의 생존 환경을 예비해 주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규칙적인 생존 환경에서 인류도 규칙적으로 생존하고 번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칙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법칙을 깨뜨릴 수 없다. 상전벽해가 되든 벽해상전이 되든 이 법칙은 항상 존재한다. 이 법칙은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주재와 관리로 인하여 존재한다. 이러한 규칙적인 대환경이 있으므로, 인류의 생활도 이 법칙과 규칙 속에 이루어진다. 이 법칙은 세대를 이어가며 사람들을 양육하였고, 사람들은 이 법칙 속에서 대대손손 살아갈 수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 창조한 만물과 이러한 법칙이 있는 생존 환경을 누리고 있다. 사람이 이런 법칙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라며 거들떠볼 가치도 없다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이러한 법칙을 다스리고 주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줄곧 이 불변의 사역을 해 오고 있다. 하나님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인류가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불변의 사역을 하고 있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80)

첫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할 때 산천, 평원, 사막, 구릉, 강, 호수에 모두 경계를 정하였다. 지구에는 산천, 평원, 사막, 구릉과 여러 수원(水源)이 있는데, 이것들은 각종 지리적 형태가 아니냐? 하나님은 이러한 각종 지리적 형태의 경계를 분명히 하였다. 경계를 분명히 하였다는 것은 산에는 산의 경계가 있고, 평원에는 평원의 경계가 있으며, 사막에는 사막의 범위가 있고, 구릉에는 구릉의 정해진 면적이 있으며, 강과 호수 같은 수원에도 모두 정해진 양이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할 때 만물의 경계를 분명하게 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산의 둘레가 몇 백 km 인지, 그 범위가 얼마나 큰지 이미 정해 놓았고, 이 평원의 둘레가 몇 백 km 인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정해 놓았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할 때 사막의 범위도 이미 정해 놓았고, 구릉의 범위와 면적, 무엇과 접해 있는지까지 모두 정해 놓았다. 또 강과 호수의 범위도 그것들을 만들 때 다 정해 놓아 모두 경계를 가지고 있다. 이 ‘경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방금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에 대한 법칙을 정하여 만물을 주재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산천의 범위와 경계는 지구의 회전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면적이 작아지거나 커지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고정함’이 하나님의 주재이다. 하나님은 평원의 면적이 얼마이고,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무엇과 접해 있는지까지 이미 정해 놓았다. 여기에는 경계란 게 있기에 평원에 불쑥 언덕이 생겨나거나 그 평원이 갑자기 산으로 변하는 일은 없다. 방금 이야기한 법칙이란 이를 뜻하며, 경계도 이를 의미한다. 사막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사막이나 다른 지리적 형태 및 위치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것의 경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 하나님의 주재하에 사막 역시 더 커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법칙과 범위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사막이 얼마나 큰 면적을 갖고 있을지, 역할은 무엇일지, 무엇과 접해 있을지, 어느 위치에 있을지 이미 다 정해 놓았다. 그러므로 사막은 그 범위를 넘지 않고, 위치를 옮기지 않으며, 마음대로 면적을 넓히지도 않을 것이다. 강과 호수 같은 수역의 물도 비록 질서 있게 끊임없이 흐르고 있지만, 한 번도 그 범위와 경계를 벗어난 적이 없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한 방향,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따라 흐르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재하는 법칙 속에서 그 어떤 강과 호수도 지구가 회전한다고 해서,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마음대로 물이 말라 버리거나, 흘러가는 방향이 바뀌거나, 물의 양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는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창조한 만물은 모두 정해진 방향과 면적, 범위가 있다. 즉,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이미 그 경계를 정하였으며, 그 모든 것은 제멋대로 변경되거나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제멋대로’란 무엇을 뜻할까? 그것은 날씨, 온도 그리고 지구의 회전 속도에 따라 제멋대로 움직이고, 확장하고, 자신의 원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산을 예로 들어 보면, 그 산의 높이가 얼마일지, 산기슭의 면적이 얼마일지, 해발이 얼마일지, 식물이 얼마나 많을지는 하나님이

모두 계획하고 계산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산은 제멋대로 바꿀 수 없다. 인류의 대다수는 평원에서 살고 있다. 평원 역시 기후의 변화에 따라 면적이 바뀌거나 존재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한 여러 지형과 지리적 환경은 모두 갖고 있는 바를 제멋대로 바꿀 수 없다. 예를 들어 사막의 경우, 사막의 성분, 사막 아래 매장된 자원, 사막의 모래 함량, 사막의 모래 색깔, 사막 모래층의 두께, 이런 것은 모두 제멋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걸까? 바로 하나님이 주재하고 관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제각기 다른 모든 지리적 형태와 환경을 하나님은 계획적이고 규칙적으로 관리한다. 따라서 이 모든 지리적 환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지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 존재하며, 여전히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언젠가 화산이 분출하고, 지진이 일어나 땅이 크게 이동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어떤 지리적 형태도 고유의 기능을 절대 잃지 않도록 한다. 하나님의 이런 관리,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칙에 대한 주재와 주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과 보는 모든 것이 규칙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방식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리적 형태를 관리하는 것일까? 바로 여러 지리적 환경 속에서 생존하는 생물들이 안정적인 환경을 갖고, 그 안에서 번식하게 하기 위함이다. 움직일 수 있거나 움직일 수 없는 모든 만물, 즉 코로 숨을 쉴 수 있거나 그럴 수 없는 모든 만물로 인류의 생존을 위한 특별한 환경이 만들어졌으며, 그러한 환경에서 비로소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사람들이 양육되고, 대대손손 평안하게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방금 말한 건 좀 큰 이야기였다. 어쩌면 너희는 다소 요원한 이야기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이 법칙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말이다! 만물이 이 법칙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나? 바로 하나님의 주재이다. 하나님의 주재로 인해, 하나님의 주재 아래, 모든 만물은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천은 숲을 양육하고, 숲은 여러 날짐승과 길짐승을 양육하고 보호한다. 평원은 인류의 경작과 여러 날짐승, 길짐승을 위해 예비한 장소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평한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준다. 평원에는 넓은 초원도 포함된다. 초원은 지구의 식생이며, 그것은 토지를 보호하고, 초원에서 자라는 소, 양, 말을 양육한다. 사막도 자신의 기능을 발휘한다. 사막은 사람들이 거주하라고 만들어진 곳이 아니다. 사막의 기능은 습한 기후를 건조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여러 강과 호수의 물이 흐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을 편하게 마실 수 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실 물이 있게 되고 물의 흐름으로 인해 물이 필요한 만물은 물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이 여러 지리적 형태에 정해 놓은 경계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9>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81)

하나님이 이러한 경계를 정했기 때문에 여러 지리적 형태에 따라 다양한 생존 환경이 생겼다. 이러한 생존 환경은 여러 날짐승과 길짐승에게 편리함과 생존 공간을 가져다주었다. 이로써 여러 생물들의 생존 환경에 경계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 내용이다. 여러 날짐승과 길짐승, 곤충은 어디에서 생활하느냐? 삼림이나 작은 숲에서 생활하지 않느냐? 그곳은 그들의 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 지리적 환경에 경계를 정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 날짐승과 길짐승, 물고기, 곤충 및 식물을 위해서도 경계를 나누고 법칙을 정하였다. 서로 다른 여러 지리적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종 날짐승과 길짐승, 물고기, 곤충 및 식물에게도 역시 다양한 생활 환경이 생겼다. 날짐승과 길짐승, 곤충은 여러 식물 속에서 살아가고, 각종 물고기는 물속에서 생활하며, 각종 식물은 땅에서 자란다. 이 ‘땅’은 큰 산, 평원, 구릉 등 각종 지대를 포함한다. 정해진 자기 집이 생긴 날짐승과 길짐승은 아무 데나 돌아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집은 삼림이며, 큰 산이다. 어느 날 그들의 집이 파괴된다면 이 질서는 무너질 것이다. 질서가 무너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가장 먼저 누가 피해를 입겠느냐? (인류입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인류이다. 하나님이 정한 이런 법칙과 범위에서 너희들은 이상한 현상을 본 적이 있느냐? 예를 들어, 코끼리가 사막에서 한가하게 돌아다니는 걸 본 적 있느냐? 정말 본 적이 있다면 매우 이상한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코끼리가 생활하는 환경은 숲이기 때문이다. 숲은 하나님이 그에게 예비해 준 생존 환경이다. 코끼리에게 자신의 생존 환경이 있고 정해진 집이 있는데도 이리저리 무턱대고 돌아다니겠느냐? 사자나 호랑이가 해변에서 산책하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없겠지? 사자와 호랑이의 집은 삼림 속에, 산속에 있다. 바다에 있던 고래나 상어가 사막에서 노니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없겠지? 고래와 상어의 집은 바다다. 사람의 생활 환경에서 사람과 큰 불곰이 함께 생활하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어떤 집이 안과 밖으로 늘 공작새나 온갖 새들로 둘러싸인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독수리나 기러기가 원숭이와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것은 특이한 일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든, 아니면 코로 숨을 쉬는 것이든,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은 다 자신만의 생존 법칙을 갖고 있음을 알려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이런 생물들을 창조하기 전 일찌감치 그들의 집과 생존 환경을 예비하였다. 그 생물들에게는 자신만의 정해진 생존 환경과 먹이가 생겼고, 자신만의 정해진 집이 생겼으며, 생존에 적합한 정해진 장소, 혹은 생존에 적합한 온도를 가진 지역이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제멋대로 돌아다니지 않고, 인류의 생존을 파괴하거나 인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만물을 관리하며,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생존 환경을 제공한다. 만물 중의 생물들은 각자의 생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먹이를 갖고 있다. 이러한 먹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유한 생존 환경에 고정되게 된다. 이와 같은 생존 환경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만든 법칙에 따라 생존하고 번식하며,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것 때문에 만물과 인류는 화목하게 어울려 살고, 서로 의지하는 것이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82)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의 경계를 정했으며, 만물 속에서 여러 가지 생물을 양육하고 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다양한 생존 방식도 예비하였다. 따라서 네가 본 인류의 생존 방식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며, 생존 환경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예비한 여러 가지 먹거리와 수원(水源)에 대해 얘기하였다. 이 먹거리와 수원은 사람이 육체적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곡식을 먹고 사는 건 아니다. 각 지리적 환경이 다르고 지리적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인류도 서로 다른 생존 방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생존 방식은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예비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인류가 경작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모든 사람이 농작물을 경작하여 먹거리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할 세 번째 내용, 즉 인류는 서로 다른 생활 방식으로 인해 경계를 갖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인류의 생활 방식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인류 먹거리의 근원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주로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냥을 생업으로 삼는 방식이다. ‘사냥을 생업으로 삼는 방식’에 대해 다들 알고 있다. 사냥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느냐? (야생 동물로 만든 음식을 먹습니다.) 이들은 숲의 날짐승과 길짐승을 먹는다. ‘야생 동물 요리’라는 말은 현대어로, 사냥꾼들은 그것을 야생 동물 요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먹거리이자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슴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하자. 그가 잡은 사슴은 농민이 땅에서 얻은 식량 같은 것이다. 땅에서 식량을 얻는 농민은 식량을 보면 기쁘고 든든하다. 먹을 것이 생겨 가족이 배를 굶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놓이고 만족감이 드는 것이다. 사냥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도 포획물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고 만족감을 느낀다. 음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다음 끼니에 먹을 것이 생겨 배를 굶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냥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사냥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 대다수는 농사를 짓지 않고 산에서 산다. 산에서는 경작지를 얻기 힘들다. 그래서 이들은 각종 생물과 수렵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일반인들과 다른 첫 번째 생활 방식이다.

둘째는 방목을 생업으로 삼는 방식이다. 방목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이 땅을 경작하느냐? (경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은 무엇을 할까? 이들은 어떻게 생활할까? (주로 소와 양을 방목합니다. 겨울이 되면 소나 양을 잡아먹고, 소고기와 양고기를 주식으로 삼습니다. 또 밀크티를 마십니다. 유목민들은 1년 사계절 늘 바쁘지만 풍족하게 먹습니다. 우유, 유제품, 육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방목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주로 소고기나 양고기를 먹고, 소젖이나 양젖을 마신다. 그리고 소나 말을 타고 야외에서 바람을 맞고 햇볕을 쬐면서 방목한다. 하지만 현대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없고, 매일 드넓게 펼쳐진 푸른 하늘과 초원을 볼 수 있다. 방목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초원에서 생활하며, 자신들의

유목 생활을 대대손손 이어 나갈 수 있다. 초원에서 살면 조금 적막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생활도 아주 행복한 것이다. 팬츠는 생활 방식이다!

셋째는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삼는 방식이다. 인류 중에 극히 일부만이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섬이나, 바다를 향해 있는 해변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삼는다.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삼는 이들의 먹거리는 어디에서 올까? 여러 가지 생선, 해산물, 해물 요리이다.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매일 물고기를 잡는다. 그들의 주식은 여러 종류의 생선, 해산물이며, 가끔 생선을 찐, 밀가루, 생필품으로 교환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물가에서 사는 사람들의 또 다른 생활 방식이다. 물가에 사는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며, 고기잡이를 생계원이자 먹거리의 근원으로 삼는다.

인류는 농사 외에 주로 위의 세 가지 각기 다른 방식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방목과 고기잡이, 사냥을 생업으로 삼는 몇몇 부류 외에 대부분의 사람은 땅을 경작하며 생계를 이어 나간다. 경작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땅이다. 경작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채소든 과일이든, 아니면 곡식이든 간에, 땅에서 먹거리와 생활필수품을 얻는다.

인류가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냥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이 숲을 잃고 날짐승과 길짐승을 잃으면, 그들의 생계원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런 민족, 이런 사람들의 앞날은 알 수 없게 돼 버리며 아예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방목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무엇에 의지하느냐? 이들이 진정으로 의지하는 대상은 소와 양이 아니라 소와 양의 생존 환경인 초원이다. 초원이 사라지면 이들은 어디에 가서 소와 양을 방목하겠느냐? 소와 양은 무엇을 먹겠느냐? 소와 양이 없으면 유목민들의 생계원이 사라진 것이다. 생계원을 잃은 민족은 어떻게 되겠느냐? 생존하기 힘들어질 것이며, 미래가 사라질 것이다. 수원이 없어지고 강과 호수가 모두 말라 버린다면 물에 의지해 사는 각종 물고기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겠느냐? 살아갈 수 없다. 그렇다면 물과 물고기에 의지해 생활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먹거리가 없어지고 생계원이 사라진다면, 이들 민족은 살아갈 수 없다. 다시 말해, 생활과 생존에 문제가 생긴 종족은 지속될 수 없다. 어쩌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멸망할지도 모른다. 만약 경작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토지를 잃어버린다면 그들은 각종 식물을 경작할 수 없고, 그 식물로부터 먹거리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떠할까? 양식이 없으면 사람은 굶어 죽지 않겠느냐? 사람이 굶어 죽으면 인류는 다 멸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각종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과 생태계를 유지하고, 각종 환경에서 생활하는 여러 생물을 보호하는 단 하나의 목적은 바로 여러 부류의 인류를 양육하고, 서로 다른 지리적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류를 양육하기 위함이다.

만물이 자신의 법칙을 잃게 되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만물의 법칙을 잃게 된다면 만물 중의 생물은 계속 살아갈 수 없을 것이며, 인류 역시 생존 환경을 잃게 될 것이다. 인류가 이 모든 것을 잃게 되면 지금처럼 대대로 번성하며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인류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준 만물이 인류를 양육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 다른 방식으로 인류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러 다른 방식으로 인류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고정적인 생존 환경과 규칙적인 생존 환경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인류와 종족은 각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생존하고 있다. 이 범위는 그 누구도 넘을 수 없으며, 이 경계 역시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분하였을까? 이는 전 인류에게 있어 중요하고, 또 중요한 문제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9>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83)

넷째, 하나님은 인류의 각 종족에게 경계를 나누어 주었다. 지구상에는 백인종, 흑인종, 갈색 인종, 황인종이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생활 범위를 정해 주었다. 하나님의 관리 속에서 사람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있어야 할 생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누구도 이 환경을 넘어설 수 없다. 예를 들어, 백인종은 대부분 어느 지역 범위에서 생활하고 있느냐? 대부분 유럽이나 아메리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흑인종의 생활 지역 범위는 주로 아프리카다. 갈색 인종은 주로 태국, 인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등의 나라와 같이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다. 황인종은 주로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이런 서로 다른 인종들을 적절하게 배치해 지구 여러 지역에 서로 다른 인종이 분포되어 있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서로 다른 인종을 위해 각자에게 적합한 생존 환경을 예비하였다. 이러한 생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토양의 색깔 및 성분을 예비하였다. 즉, 백인의 신체 성분은 흑인의 신체 성분과 다르고, 다른 인종의 신체 성분과도 다르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들 때 이러한 인종의 생존 환경을 미리 예비해 두었다. 그 목적은 바로 이들이 번식하고 늘어날 때 이들을 정해진 범위 내에 고정해 두기 위함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류를 만들기 전에 이미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을 백인종에게 주어 그들이 발전하고 생존하게 하려고 생각해 놓았다. 하나님이 땅을 만들 때 하나님께는 이미 계획이 있었고, 이 땅에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양육할지에 대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이 땅에 어떤 높은 산을 만들고 평원은 얼마나 만들지, 수원은 얼마나 만들고 어떤 날짐승과 길짐승을 만들지, 어떤 물고기를 만들고 어떤 식물을 만들지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둔 것이다. 즉, 하나의 인류, 하나의 인종을 위해 생존 환경을 예비할 때, 하나님은 지리적 환경, 토양의 성분, 날짐승과 길짐승의 종류, 그리고 각종 물고기의

크기와 성분, 수질의 차이, 각종 식물의 유형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 미리 예비해 두었다. 이러한 환경은 하나님이 만든 것으로 백인종을 위해 예비한 고유의 생존 환경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지, 얼마나 계획적으로 일하였는지를 알겠느냐? (네. 하나님은 각기 다른 부류의 인류를 위해 세심히 고려하셨음을 알게 되었고, 모든 인류의 생존 환경에 어떤 날짐승과 길짐승, 물고기들을 예비할지, 높은 산과 평원을 얼마나 만들지 등 모든 부분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고려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백인종은 대부분 무엇을 주로 먹느냐? 백인이 먹는 음식은 아시아인이 먹는 음식과 큰 차이가 있다. 백인의 주식은 대부분 고기, 달걀, 우유, 가금류이다. 빵이나 밥과 같은 곡물 종류는 접시 한쪽에 두고 먹는 부식에 불과하다. 야채샐러드를 먹더라도 구운 소고기나 닭고기를 넣어 먹는다. 밀가루 음식을 먹더라도 대부분 치즈, 달걀, 육류 등을 곁들여 먹는다. 즉, 이들 주식의 대부분은 밀가루나 쌀이 아니라, 육류나 치즈다. 이들이 먹는 음식은 열량이 매우 높아 종종 열음물을 함께 마신다. 그래서 백인종은 아주 건강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예비해 준 생계원이자 생활 환경이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 이러한 생활 방식은 다른 인종의 생활 방식과 다르다. 이런 생활 방식에는 옳고 그름의 구분이 없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한 것이자,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로 인한 것이다. 이 인종이 이런 생활 방식과 생계원을 갖게 된 것은 이들의 인종 때문이며,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예비한 생존 환경 때문이다. 하나님이 백인종을 위해 예비한 생존 환경과 그들이 생존 환경에서 얻는 일용할 양식은 매우 풍족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른 인종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생존 환경을 예비하였다. 다른 인종에는 흑인도 있다. 흑인은 어디에 분포해 있느냐? 이들은 주로 아프리카 중남부에 분포해 있다. 이러한 생활 환경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무엇을 예비하였을까? 열대 우림, 각종 날짐승과 길짐승, 사막, 여러 가지 식물이 이들과 함께한다. 이들에게는 수원이 있고, 생계원과 먹거리의 근원이 있다. 하나님은 이들을 차별하지 않았다. 이들이 과거에 무엇을 하였든 이들의 생존에는 문제가 없다. 이들은 지구의 한 지역에서 일정한 위치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황인종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황인종은 주로 지구의 동방에 분포해 있다. 동방은 환경이나 지리적 위치에 있어 서방과 어떻게 다를까? 이 땅은 대부분 매우 비옥하며, 물질 자원과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즉, 지상과 지하의 각종 자원이 모두 굉장히 풍부하다. 하나님은 이 일부 사람들, 이 인종을 위해 이들에게 적합한 토양, 기후 그리고 각종 지리적 환경을 예비하였다. 이 지리적 환경은 서방과는 크게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 생계원, 생존의 근원을 예비해 두었다. 다만 서방 백인종의 생활 환경과 다를 뿐이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한 가지 알려 줄 것이 있다. 무엇일까? 동방에 있는 이 인종은 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곳 땅에 서방과는 다른 성분을 많이 더하였다. 이 땅에 서방과는 다른 경치와 각종 물질을 풍성하게 더하였다. 이 땅은 물산이 풍부하고,

지리적 형태도 천태만상으로 다양하여 방대한 수의 동방 인종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서방과 다른 점은 동방의 땅은 남에서 북까지, 동에서 서까지 기후가 서방보다 훨씬 좋다는 것이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온도가 적절하며, 물산도 매우 풍부하고, 자연 경치와 다양한 지리적 형태 역시 서방보다 훨씬 더 좋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백인종과 황인종 간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백인종이 먹고 쓰고 누리는 여러 가지 것들은 황인종의 그것보다 훨씬 더 좋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인종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황인종에게 더욱 아름답고 좋은 생존 환경을 주었다. 바로 이렇게 균형을 맞춘 것이다.

하나님은 어느 인종이 어느 땅에서 성장할지 정해 놓았다. 사람은 이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느냐? (아니요.) 이는 아주 기묘한 일이다! 서로 다른 시기 혹은 어느 특별한 시기에 전쟁이나 침략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침략과 전쟁은 하나님이 각 인종에게 정해 준 생존 환경을 절대 파괴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느 인종을 지구의 특정 지역에 고정해 놓으면 그들은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인류가 야심이 생겨 영토를 바꾸거나 늘리고 싶다 하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루기 어렵고, 성공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백인들은 한때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다. 독일인은 다른 국가들을 침략했었고, 영국인도 인도를 점령했었는데,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결국에는 모두 실패하였다. 이 실패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일을 사람이 파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영국이 엄청난 기세로 영토를 확장했어도 결국 그들은 철수해야만 했다. 그 땅은 여전히 인도의 것이며, 그 땅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여전히 인도인이자 영국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역사나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영국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민족은 정복당할 수 없다라든가, 사람의 어떤 원인 때문이라든가 등등 여러 결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것들 모두 진짜 이유가 아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느 민족에게 정착하여 성장할 땅을 정해 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히 이동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 준 범위 안에서만 생활해야 한다. 그 범위를 벗어날 수도, 뚫고 나갈 수도 없다. 이는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 침략자의 세력이 아무리 커도, 침략당하는 자의 세력이 아무리 미약해도, 최종 성공 여부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은 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9>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84)

하나님이 정한 만물의 성장 법칙을 보면, 어떤 부류의 인류이든 모두 하나님의 공급과 양육 아래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만약 사람이 이러한 법칙을 깨뜨리거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러한 법칙을 정해 주지 않았다면, 인류의 미래는 어떻겠느냐? 인류가 기본적인

생존 환경을 잃으면 인류에게 먹거리의 근원이 있겠느냐? 먹거리의 근원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인류가 먹거리의 근원을 잃으면, 즉 먹거리를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마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생존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의 생존, 지속과 번식을 위해 한 모든 일은 다 중요하다. 하나님이 만물 속에서 한 모든 일은 사람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람의 생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사람의 생존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경영이 계속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경영이 계속 존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이 양육하는 전 인류의 생존은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만물을 위해 예비한 모든 것, 인류를 위해 한 모든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인류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만물을 위해 정한 이 법칙에서 벗어나고, 만물의 법칙이 깨지고 혼란이 오게 된다면, 만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인류의 생존 환경도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인류의 일용할 양식도 존재하지 않게 되고, 인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영도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일, 모든 내용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너희들은 어쩌면 “당신이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 방대해서 저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할지도 모른다. 또 누군가는 “당신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너는 만물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일원이며, 하나님이 주재하는 만물 중의 하나이다. 만물은 하나님의 주재를 벗어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재를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의 주재를 잃고 하나님의 공급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생명과 육체의 생명 모두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한 인류의 생존 환경이 갖는 중요성이다. 네가 어느 종족이든, 어느 땅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든, 서방에 있든 동방에 있든 너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정한 생존 환경을 벗어날 수 없고, 그 생존 환경의 양육과 공급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네가 어떠한 방식으로 생존하든, 무엇에 의지해 살며 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든 너는 하나님의 주재와 관리를 떠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농민도 아니고, 경작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니 하늘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정하신 생존 환경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에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나? 너는 경작을 생업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양식을 먹지 않느냐? 고기와 달걀을 먹지 않느냐?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느냐? 네가 먹는 것, 네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정한 생존 환경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의 생존 환경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는 네가 마시는 물, 입고 있는 옷, 사용하고 있는 여러 물건이 포함된다. 여기서 만물로부터 얻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들은 만물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플라스틱은 만물 속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학품이고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나? 플라스틱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화합품이지만, 플라스틱의 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것의 원재료는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에서 얻은 것이다. 네가 누리는 것, 보는 것, 사용하는 것은 그 어떤 물건이든 모두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속에서 얻은 것이다. 다시 말해, 인류가 어떤 인종이든, 어떤 생존 방식을 갖고 있든, 어떤 생활 환경에서 살든 하나님의 공급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9>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85)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사람 마음속에서 그만큼한 위치를 차지한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높은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도 그만큼 커진다. 네가 아는 하나님이 공허하고 막연하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 역시 공허하고 막연하다. 네가 아는 하나님이 너의 범위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참된 하나님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 행사를 아는 것,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전능한 면을 아는 것, 하나님 자신의 참된 신분을 아는 것,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아는 것,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서 나타내는 행사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는 사람이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너의 앎이 글귀에만 국한되고, 네 소소한 체험이나 네가 따져 본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에 대한 네 보잘것없는 증거에만 국한된다면,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애초에 참된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상상 속의 하나님이지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참된 하나님은 만유를 주재하고, 만유 가운데서 거닐며, 만유 가운데서 다스리는 분이자, 전 인류의 운명을 주관하고, 만유의 운명을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 그의 사역, 그의 행사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다시 말해 지금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의 행사는 만물 가운데, 만물의 생존 가운데, 만물의 변화 법칙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난다.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행사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행사를 조금도 증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전혀 증거하지 못하면, 너는 예전처럼 계속 네가 안다는 그 보잘것없는 하나님을 논하고, 네 사상과 네 좁은 마음속에 국한된 그 하나님을 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계속 이런 하나님을 논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너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징계와 채찍질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지 등을 가지고서만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이런 증거는 너무 부족한 탓에 영원히 하나님을 흡족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진정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행사에서 그의 소유와 어떠함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만유를 주관한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권병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전 인류를 공급하는지 알아야 한다. 네 일용할 양식과 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통해 전 인류에게 공급한다는 사실, 그리고 만물을 주재함으로써 전 인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런 말들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너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말한 주제들이 너희 개인의 생명 진입과 무관하다고 생각해 지식이나 학설로만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를 지식이나 학설로만 여긴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주제를 말한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실제 행사에 대해 알려 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고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 알아야 하나님을 알 기회나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을 알려면 무엇을 보면 되느냐?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 되느냐? 그 사람의 옷차림을 보면 되느냐?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면 되느냐? 그 사람이 풍부한 지식을 가졌는지를 보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언행과 생각, 그 사람이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을 분별하고, 알고,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면과 진실한 면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이 행한 실제적인 일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 가야 한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자 유일한 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9>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86)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할 때 여러 가지 방식과 형식으로 만물의 균형을 이루었고, 산천과 호수의 생존 환경의 균형을 이루었으며, 식물의 생존 상태의 균형을 이루었다. 또한 각종 동물과 조류, 곤충의 생존 상태의 균형도 이루었다. 그 목적은 각종 생물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 속에서 번식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만물은 이런 법칙을 벗어날 수 없고 깨뜨릴 수도 없다. 이런 기본적인 환경 속에서 인류는 비로소 안전하게 대대로 번성할 수 있다. 어떤 생물이든 하나님이 정한 수와 범위를 초과하고 하나님이 주재하는 생장 속도와 생장 빈도와 생장 수를 초과하면 인류의 생존 환경은 각기 다른 정도로 파괴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도 위협을 받게 된다. 한 종의 생물의 수가 급증하면 그 생물은 인류의 식량을 빼앗고 인류의 수원을 파괴하며 인류의 삶의 터전도 파괴하게 된다. 그러면 인류의 번성과 생존 상황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물을 예로 들어 보자. 물은 만물에게 있어서 무척 중요하다. 만일 쥐, 개미, 메뚜기, 개구리 등 각종 동물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 그에 따라 그들의 물 섭취량도 증가한다. 그들의 물 섭취량이 증가하면 고정된 식수원과 수역 범위 안에서 사람의 식수량과 수원은 감소하게 되고 인류에게 물이 부족해진다. 인류의 식수가 파괴되고 오염되며, 급증하는 각종 동물로 인해 식수난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열악한 생존 환경에서 인류의 생존은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된다. 만일 한 종의 생물이거나 몇 종의 생물이 정해진 수를 초과하게 되면 인류가 생존하는 공간의

공기, 온도, 습도, 그리고 공기에 함유된 성분까지 모두 각기 다른 해독을 입고 파괴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에서 인류의 생존과 운명은 당연히 그런 생태의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균형을 잃으면 인류가 호흡하는 공기는 파괴되고 인류가 마시는 물은 오염되며 인류에게 필요한 온도도 각기 다른 정도로 변화를 맞고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인류 고유의 생존 환경은 엄청난 영향과 도전을 받게 된다. 인류의 기본적인 생존 환경이 파괴된 그런 상황에서 인류의 운명과 앞날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하나님은 만물이 인류를 위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알고 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만물이 각기 어떤 역할을 하고,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인류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줄지도 알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계산을 하면서 자신이 창조한 만물의 여러 면을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인류에게 있어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은 무척 중요하고 매우 필요하다. 그러므로 내가 만물 속의 생태 현상을 보았든, 만물 속의 자연법칙을 보았든 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의 필요성에 대해 더 이상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또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이 만물을 마련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류에게 공급하는 것을 멋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의 법칙에 대해서도 멋대로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9>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87)

물질세계에 대해, 물질세계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사람이 알지 못하면 관련 자료를 찾거나 여러 경로를 통해 그 실상과 근원을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물질세계 외의 또 다른 세계, 영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알아볼 방법이나 경로가 전혀 없다. 왜 이렇게 말할까? 인류가 사는 세상에서, 물질세계의 모든 것은 사람의 육의 생존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사람들이 물질세계의 모든 것이 육의 삶과 육의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거나 볼 수 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대다수는 영계, 즉 다른 세계의 모든 것에 대해 믿지 않는다. 사람은 영계를 볼 수 없고, 영계에 대해 알 필요가 없고, 또한 영계의 그 어떤 상황도 알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더구나 영계는 물질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계로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공개된 것이지만 인류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은밀한 것이기에, 사람은 그 영계의 면면을 알아볼 방법을 찾기 어렵다. 내가 이야기하려는 영계의 면면은 하나님의 관리와 주재에만 관련되는 것이다. 나는 비밀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알고 싶어 하는 그 어떤 비밀을 알려 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재와 관리 및 하나님의 공급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만 말해 주겠다.

먼저 한 가지 물겠다. 너희가 생각하는 영계는 무엇이나? 대략적으로 말하면 물질세계 외의 또 다른 세계로, 사람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세계이다. 그런데 너희가 상상하는

영계는 어떤 세계냐? 너희가 볼 수 없는 세계이니 생각해 보기도 어렵겠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아무래도 생각하게 될 것이며, 자신의 생각을 억누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말할까? 많은 사람이 어릴 때 이런 경험들을 했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 혹은 귀신이나 혼령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무서워했던 적이 있다. 왜 무서워할까? 그런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집 주위나 은밀한 곳 혹은 어두운 곳 어디에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서워 혼자 자지도 못하고, 특히 밤이 되면 방 안에 혼자 있지도 못하고 혼자 마당에 나가지도 못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상상하는 영계이고, 무섭게 느껴지는 세계이다. 사실 누구나 어느 정도 상상하는 바가 있고, 살짝 느낄 수도 있다.

영계란 무엇이나? 간단히 요약해 설명하자면, 영계는 물질세계와 구별되는 중요한 곳이다. 왜 중요한 곳이라고 말할까? 자세히 이야기해 보자. 영계의 존재는 인류가 사는 물질세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영계는 하나님이 주재하는 만물 속에서 윤회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영계의 역할이며 그 존재의 중요성이다. 그것은 사람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영계의 각종 움직임은 인류의 생존과 밀접히 관련되고, 그로 인해 인류의 생활 질서도 아주 큰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재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깨달았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재, 하나님의 관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이 볼 수 없는 세계에 존재하는 각종 천상의 규율과 법령, 행정 제도는 물질세계에 있는 그 어떤 국가의 법률과 제도보다 훨씬 엄격하고, 영계에 살고 있는 어떤 생명도 그것을 넘어서거나 범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의 주재, 하나님의 관리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 영계에는 명확한 행정과 천상의 규율, 법령이 있고, 각 계층과 영역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엄격히 지키고 규율을 따른다. 그들은 천상의 규율을 어기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상선벌악(賞善罰惡)하고, 어떻게 만물을 관리하고 주재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으며, 게다가 하나님이 천상의 규율과 법령을 어떻게 실시하는지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인류가 사는 이 물질세계와 다르지 않느냐? 크게 다르다. 그것은 물질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이다. 천상의 규율과 법령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주재, 하나님의 관리와 관련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에도 관련된다. 이런 것들을 듣고 나서, 너희는 이 이야기가 정말 나눌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 그 속에 담긴 심오한 비밀을 참으로 알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느냐? (듣니다.) 영계란 이런 개념이다. 그것은 물질세계와 공존하고, 물질세계와 함께 하나님의 관리와 주재를 받고 있으나, 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리와 주재는 물질세계보다 훨씬 엄격하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88)

나는 이 인류를 세 부류로 나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방인이다. 즉, 종교 신앙이 없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부른다. 이방인의 절대다수는 돈을 받들고, 이익을 숭상한다. 그들은 유물론자들이다. 물질세계만 믿고 윤회나 신령에 관한 설들을 믿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이방인으로 분류했으며, 이것이 첫 번째 부류이다. 두 번째 부류는 이방인을 제외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신앙이 있는 사람도 나는 몇몇 큰 부류로 나눈다. 첫 번째는 유대교, 두 번째는 천주교, 세 번째는 기독교, 네 번째는 이슬람교, 다섯 번째는 불교다. 이렇게 다섯 가지 부류이다. 이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는 너희와 관련된다. 하나님을 믿는 이 부류의 사람은 현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도 두 부류로 나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는 봉사자다. 몇 가지 큰 부류로 명확히 구분했으니, 이제 너희 마음속에 인류의 부류와 등급이 확실히 나뉘었겠지? 먼저 이방인을 보자. 내가 어떤 사람이 이방인인지 말했다. 그럼 하늘을 믿는 사람은 이방인에 해당하느냐? 많은 이방인들은 하늘을 믿는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는 것 등은 다 하늘이 한다고 믿으며,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것도 하늘에 의지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라면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을 신앙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방인에는 이런 사람도 포함된다. 알겠지? 범위를 혼동하지 마라. 두 번째 부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 부류는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왜 인류를 이 몇 가지로 분류했겠느냐? (각 부류 사람들의 종착지와 결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이유다. 각 인종, 각 부류 사람마다 영계로 돌아갈 때 갈 곳이 다르고, 서로 다른 생사유회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몇 가지 큰 부류로 나눈 이유다.

이방인의 생사유회

이방인의 생사유회부터 이야기해 보자. 사람이 죽으면 영계의 한 일꾼이 와서 데려간다. 데려가는 것이 무엇이나? 데려가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이 영혼은 어떤 장소로 인도되는데, 이곳은 막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전문적으로 맞이하는 영계의 한 기관이다. [주: 죽은 후 누구나 가게 되는 첫 번째 장소로, 그 영혼에게는 낯선 곳이다.] 이곳에 도착하면 집행관이 첫 번째 관문을 지키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의 이름, 주소, 나이 및 생전에 행한 모든 일을 확인한다.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평생의 행적 사항을 정확하게 대조 확인하는 것이다. 각 항목의 대조 확인이 끝나면 일생의 행실과 한 일에 근거해 이 사람에게 벌을 내릴지 계속 사람으로 환생시킬지를 결정한다. 이것이 첫 관문이다. 첫 관문이 무서우냐? 그렇게 무섭지는 않다. 그저 어두컴컴한 낯선 장소에 간 것뿐이다.

두 번째 관문. 만약 이 사람이 일생 동안 나쁜 짓과 악행을 많이 저질렀다면 벌받는 곳으로 끌려가 처벌받을 것이다. 그곳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전담하는 곳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하는지는 이 사람이 생전에 죄와 악행을 얼마나 저질렀는지에 달려 있다. 이것이

두 번째 관문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상황이다. 사람이 생전에 저지른 나쁜 짓과 어떤 악행 때문에 벌을 받은 후 다시 윤회하게 될 때, 즉 다시 환생해서 물질세계로 가게 될 때, 어떤 사람은 계속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동물로 태어난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이 영계로 돌아간 후 자신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벌을 받고, 또 자신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다음 윤회에서 더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다. 동물의 범위는 소일 수도, 말일 수도, 돼지일 수도, 개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새나 오리, 거위 등으로 환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동물로 환생했다가 죽은 다음 다시 영계로 돌아가면, 영계에서는 또 생전의 행적에 따라 이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환생시킬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대부분은 악행을 너무 많이 저지르고 지은 죄가 너무 심각하여 다시 윤회할 때, 일곱 번에서 열두 번까지 동물로 환생하게 된다. 일곱 번에서 열두 번은 무섭지 않느냐? (무섭습니다.) 무엇이 너희를 무섭게 하느냐? 사람이 동물이 되는 것, 이것은 무서운 일이다. 사람에게 있어 동물이 되는 것의 최대 고통은 무엇이나? 언어가 없고, 단순한 생각만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동물이 하는 짓만 할 수 있고, 동물의 먹이만 먹을 수 있다. 동물의 단순한 사고와 단순한 몸짓 언어만 있고, 직립 보행하지 못하고, 인류와 소통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인류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동물과 무관하다. 요컨대, 만물 중에서 동물은 아주 저급한 생물로서, 동물로 사는 것은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다. 이것이 바로 해야 할 수 없이 많은 악행을 저지른, 죄가 너무 심각한 일부 사람에 대한 영계의 처벌이다. 처벌의 경중은 그 사람이 어떤 동물로 환생하는지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돼지로 환생하는 것이 개로 환생하는 것보다 나을까? 돼지로 사는 것이 개로 사는 것보다 편할까? 편치 않다. 그렇지? 소나 말로 사는 것이 돼지로 사는 것보다 편할까? (좀 편합니다.) 고양이가 되면 조금 편안하지 않겠느냐? 똑같이 동물로 살 것이라면 고양이로 사는 것이 소나 말이 되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다. 대부분의 시간에 늘어지게 잘 수 있기 때문이다. 소나 말이 되면 비교적 고생스럽다. 그래서 소나 말로 환생하면 고생한다. 보아하니 이 벌은 가볍지 않구나. 개가 되면 소나 말이 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낫다. 개와 주인의 관계는 어쨌든 소, 말과 주인의 관계보다 가깝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 많은 사람이 개를 기르고 있고, 기른 지 3 년에서 5 년이 되면 개가 사람의 말을 많이 알아들을 수 있다. 개가 주인의 말을 많이 알아들을 수 있고 주인을 많이 알게 되면 가끔 주인의 기분이나 요구에 맞춰 줄 수 있으니 주인은 개를 더 잘 대해 준다. 그럼 개는 좀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아플 때 더 많은 보살핌을 받게 되니, 이 개는 호강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개가 되는 것이 소나 말이 되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이처럼 처벌의 경중에 따라 동물로 환생하는 횟수와 종류가 결정되는 것이다.

사람이 생전에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 벌을 받고 일곱 번에서 열두 번까지 동물로 환생하게 된다. 그렇게 이 사람이 벌받은 횟수가 다 차게 되면 다시 영계로 돌아와 어떤 곳으로 가게 된다. 그곳의 각종 영혼들은 벌을 다 받고 다시 인간으로 환생할 예정인 영혼들이다. 그곳에서는 어떤 가정으로 갈 것인지, 사람으로 환생한 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등등에 따라 모든 영혼을 분류해 놓았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 와서 가수가 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그 부류의 무리에 넣고, 이 세상에 와서 상인이 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상인의 무리에 넣는다. 또 어떤 사람이 사람으로 환생해 과학 연구자가 될 것이라면 그 사람을 과학 연구자 무리에 넣는 것이다. 영혼들을 분류한 다음에는 시기에 맞춰, 결정된 날짜에 맞춰 현대인들이 이메일을 보내듯 하나씩 내보낸다. 이러면 하나의 윤회 과정이 완성된다. 한 사람이 영계에 간 그날부터 별을 다 받을 때까지, 혹은 여러 차례 동물로 윤회한 후 다시 사람으로 윤회할 준비를 하기까지의 이러한 과정이 바로 하나의 온전한 과정인 것이다.

별을 다 받은 후 더는 동물로 환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물질세계로 보내져 사람이 되는 걸까? 바꿔 말해서, 그들은 얼마나 있어야 인간 세상에 올 수 있을까? 이 주기는 어떻게 될까? 이 주기에도 시간 제한이 있다. 영계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명확한 시간 제한과 시간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숫자로 설명해 주면 너희는 금방 이해할 것이다. 짧은 시간 내에 환생하는 사람의 경우, 이 사람이 죽으면 영계에서는 바로 그를 다시 인간으로 환생시킬 준비를 마친다. 가장 짧게는 3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3 개월, 어떤 사람은 3 년, 어떤 사람은 30 년, 어떤 사람은 3 백 년, 심지어 어떤 사람은 3 천 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럼 이 시간은 무엇에 따라 정해지겠느냐? 그것은 바로 이 영혼에 대한 물질세계와 인류 세계의 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가 맡을 역할에 달린 것이다. 평범한 사람으로 환생하는 사람이라면 인간 세상에 이런 평범한 사람이 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바로 환생할 수 있다. 3 일 후에 바로 전생과 완전히 다른 가정으로 보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별이란 인류 세계에 이런 사람에 대한 수요량이 많지 않아 그 역할을 할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인데, 이럴 경우 3 백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즉, 이 영혼은 3 백 년에 한 번 환생하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영혼은 3 천 년에 한 번 환생할 수도 있다. 왜 그럴까? 3 백 년 혹은 3 천 년 동안 인류 세계에 이 역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영계의 한곳에 가둬 두는 것이다. 공자를 예로 들어 보자. 이 사람은 중국 전통문화에 심원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그의 출현은 그 시대 사람의 문화, 지식, 전통, 그리고 사상에 심원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시대마다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영계에 머물러야 하고, 3 백 년 혹은 3 천 년간 충분히 머문 다음 한 번 윤회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그는 한가롭게 지내야 한다. 그의 역할이 적고 그가 해야 할 일이 적기 때문에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영계의 한곳에 가두어진 채 한가로이 보내다가 인간 세상에 그가 필요할 때 바로 내보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다수 사람의 윤회 주기에 대해 영계에서 정한 시간상의 규정이다. 평범한 사람이든 특별한 사람이든 영계에서는 그들의 윤회를 처리하는 데에 적합한 규정과 정확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규정과 방법은 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이다. 이는 어떤 일꾼이나 영계의 어떤 생명이 결정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89)

어떤 영혼이든 그의 윤회, 그가 이번 생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지, 그의 일생이 어떨지는 그의 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양한 사람이 인간 세상에 온다. 하지만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고, 맡은 임무도 다르다. 어떤 임무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빛을 갚으러 온다. 지난 생에 진 빛이 너무 많아서 이번 생에 와서 갚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빛을 받으러 온다. 지난 생에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물건과 돈을 뺏겼기 때문에 영계에 돌아간 후 영계에서는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번 생에 빛을 받으라고 보낸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갚으러 온다. 지난 생, 즉 전생에서 누군가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번 생에 다시 윤회할 좋은 기회를 얻어 은혜를 갚으러 환생하는 것이다. 반면에 이번 생의 윤회가 목숨을 뺏기 위해서인 사람도 있다. 누구의 목숨을 뺏겠느냐? 바로 전생에 자신의 목숨을 가져간 사람의 목숨이다. 어쨌든, 모든 사람의 현생은 전생과 엄청난 관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의 현생은 다 전생의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생전에 B를 속여 많은 돈을 뺏었다. 그럼 A가 B에게 빚진 것이 아니겠느냐? A는 B에게 빚을 졌으니, B는 당연히 A에게서 빚을 받아 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사람이 죽으면 청산할 빚이 남는다. 다시 윤회할 때 A가 사람으로 환생하면 B는 어떻게 빚을 받아 내겠느냐? 한 가지 방식은 B가 A의 아들이 되어 빚을 받아 내는 것이다. A는 돈을 많이 벌고, B는 A의 돈을 흥청망청 쓴다. A가 돈을 얼마나 벌든 그의 아들이 돈을 물 쓰듯 쓰니 A는 늘 돈이 부족하다. 영문은 모르겠지만 그의 아들은 늘 각종 방식과 수단으로 그의 돈을 헤프게 쓴다. A는 답답해하며 이렇게 생각한다. ‘난 어찌다 이렇게 재수 없는 아들을 낳았을까? 다른 집 아들은 어쩜 다 그렇게 훌륭할까? 내 아들은 왜 패기도 없고, 재주도 안 배우고, 돈도 벌어 오지 않고 늘 내가 먹여 살려야 할까? 먹여 살리라면 살리겠는데, 왜 얼마를 줘도 부족하다는 걸까? 왜 바른 일은 하지 않고 빈둥거리기만 하고 한량 짓에 도박이며 계집질이나 하고 다니는 걸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고민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것이다. ‘아마도 전생에 녀석한테 빚을 졌나 보지. 갚자! 내가 갚아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러다 B가 마흔 혹은 쉰이 되고, 어느 날 정말 모든 빚을 받아 낸다면 갑자기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 ‘난 이제까지 좋은 일 한 게 없구나! 우리 아버지가 번 돈을 내가 다 헤프게 써 버렸어. 사람 노릇을 해야 해! 마음을 잡고 제대로 된 일을 하면서 잘 살아 보자. 다시는 아버지를 슬프게 하면 안 돼!’ 그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느냐? 왜 갑자기 달라졌겠느냐?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B는 빚을 다 돌려받았고, A는 빚을 다 갚은 데에 있습니다.) 이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일은 훨씬 전에 그 둘의 전생에서 발생했고, 전생의 일이 현세까지 이어진 것이니 누가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것이다. A가 아들을 어떻게 가르치든 아들은 A의 말을 듣지 않고 빈둥거렸지만, 빚을 다 갚는 그날이 되면 가르칠 필요도 없이 아들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이것은 간단한 예지만 이런 예가 많지 않느냐? (많습니다.) 이

예가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선하게 살고, 악행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악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악행에는 응보가 있다! 이방인 중 많은 자가 적잖이 악행을 저질렀고, 그들의 악행은 다 응보를 받았다. 그럼 응보는 아무 이유 없이 내려지는 것이냐? 모든 응보에는 배경이 있고, 원인이 있는 법이다. 네가 남의 돈을 편취하고도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여기느냐? 남을 속여서 돈을 얻어 내고도 결과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여기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분명 나쁜 결과가 따른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ی 있다고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자기 행동이 불러온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이 간단한 예에서 A는 벌을 받고, B는 빚을 받아냈다. 이것이 공평하지 않느냐?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러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은 영계의 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설사 이방인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이런 천상의 규율과 법령 아래에서 살고 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누구도 이런 현실을 피할 수 없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0>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90)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면 존재하는 것이고, 볼 수 없거나 아주 멀리 있는 것이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생사윤회’는 없다, ‘벌받는’ 일이란 없다는 주장을 기꺼이 믿는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지은 다음 결국 벌을 받거나 동물로 윤회한다. 이방인 중 대다수는 모두 이런 악순환에 빠져 있다. 그들은 영계에서 모든 생령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네가 믿든 안 믿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나님의 감찰 범위를 벗어날 수 있거나 천상의 규율, 법령의 규정과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과 사물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간단한 예는 네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죄와 악행을 범해서는 안 되며, 범할 경우 응보가 있음을 알려 준다. 단순히 남을 속여 재물을 뺏은 사람이 이런 벌을 받았는데, 이 벌은 합리적이다. 흔히 벌어지는 이런 행위도 영계의 제재를 받고, 하나님의 법령과 천상의 규율의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강간과 약탈, 기만과 사취, 절도와 강도, 살인과 방화 등등 심각한 범죄와 악행은 더더욱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경우는 시간으로, 어떤 경우는 처벌 방식으로, 또 어떤 경우는 환생하여 가는 곳으로 처벌의 수위를 정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입버릇이 나쁘다. ‘입버릇이 나쁘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나? 늘 저주성 욕설과 악독한 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악독한 말은 무엇을 보여 주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악독함을 보여 준다. 저주성 악담은 늘 이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그 악담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런 사람은 죽은 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다시 환생하면 아마 병어리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살아 있을 때 철저한 계산으로 늘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알뜰한 이해타산에 강해 남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사람은 다시 환생할 때 아마도 바보,

멍청이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늘 남의 사생활을 엿본다. 즉, 자신의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지나치게 많이 보고, 알면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다시 환생하면 아마도 장님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살아 있을 때 말놀림이 좋아서 늘 치고받고 싸우며 나쁜 일을 많이 한다. 그러면 다시 환생할 때 아마도 절름발이나 외팔, 꼬추 같은 장애인이 될 것이다. 목이 비뚤어질 수도 있고,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아 걸을 때 절름거릴 수도 있다. 이것이 살아 있을 때 저지른 악행의 정도에 따라 받게 되는 다양한 수위의 벌이다. 사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아느냐? 사시인 사람이 많으나, 적느냐? 지금 봐도 적은 편은 아니다. 사시인 사람들은 지난 생에 눈을 지나치게 써 가며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눈이 사시가 된 것이다. 심각한 경우 장님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응보이다! 어떤 사람은 생전에 인간관계가 좋다. 주변의 가족, 친구, 동료, 혹은 자신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고, 혹은 지원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긴다. 이런 사람은 영계로 돌아가면 벌을 받지 않는다.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방인의 범위에서 아주 좋은 사람인 셈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 않고, 그저 하늘을 믿으며 ‘머리를 쳐들면 석 자 위에 신령이 있다’는 신조만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나쁜 짓을 덜 하게 되었다. 이 사람은 마음이 선하고, 선행을 즐겼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계로 돌아갔을 때 영계에서는 그에게 좋은 처분을 내려 바로 다시 윤회하게 한다. 그럼 다시 환생하여 어떤 가정으로 가겠느냐? 부유하지 않아도 집안이 평안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평온하고, 즐겁게 지내고, 온 가족이 화기애애하여 살기 좋은 그런 가정으로 간다. 그리고 그가 어른이 되면 남은 반평생 동안 자식들이 출세하고 자손도 번성할 것이다. 또한, 집안의 운세가 좋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도 그의 전생과 큰 관계가 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죽은 다음 환생해서 어디로 갈지,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사명은 무엇일지, 평생 어떤 일을 겪을지, 어떤 좌절을 겪을지, 얼마만큼의 복을 누릴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일들에 부딪힐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네 삶이 정해진 후 네 삶에서 발생하게 될 일은 네가 어떻게 피하려고 하든지, 네가 어떤 방식으로 피하려고 하든지 하나님이 영계에서 네게 정해 준 삶의 궤적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네가 환생할 때 네 삶의 운명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이다. 그것이 좋은 나쁜든 모든 사람은 맞닥뜨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이자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0>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91)

하나님이 이방인의 생사윤회를 치밀하고 엄격하게 검사하고 관리하는 것을 보았느냐? 우선 하나님은 영계에서 각종 규율과 법령, 제도를 제정하고 반포했다. 영계의 여러 직위에 있는 생명들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엄격히 집행하며 누구도 감히 이를 위반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세계에서 인류의 생사윤회, 동물 혹은 사람으로 교차 윤회하는 데에는 분명한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감히 이 법칙을 깨뜨리려는 사람도, 깨뜨릴 수 있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이런 주재가 있고 이런 법칙이 있기에 사람 눈에 보이는 이 물질세계가 일사불란하고 질서 정연한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이런 주재가 있기에 인류는 아예 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와 평화롭게 공존하며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한 사람의 육의 생명이 끝난 후 영혼이 아직 살아 있는데, 이 영혼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영혼은 여기저기 떠돌며 아무 데나 쳐들어가고, 심지어는 인류 세계의 생물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인류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식물과 동물에게도 해를 끼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를 입는 것은 인류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즉 이런 영혼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짜 인류에게 해를 끼치고 나쁜 짓을 했다면, 영계에서는 이런 영혼에게 합당한 처분을 내린다. 심각하다면 이 영혼을 머지않아 소멸하여 없앤다. 혹은 가능하다면 이 영혼을 한곳에 두었다가 다시 윤회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영계에서는 각종 영혼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질서 있게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관리가 있기 때문에 인류의 물질세계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이 물질세계에 사는 인류가 정상적인 사고와 이성이 있고 질서 있는 육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인류가 이런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육체 속에서 사는 사람이 대대로 번성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0>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92)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은 상선벌악이 아니냐? 이 범위를 벗어났느냐? (아닙니다.) 그럼 너희가 보기에 하나님이 일하는 데에 원칙이 있지 않느냐? 사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배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재도 모르고, 더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더 심각하게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취하는 태도는 적대적이다. 그들이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해서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리는 하나님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성품에 따라 그들을 이렇게 질서 있게 관리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무엇으로 간주할까? 무지로 간주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즉 이방인 중의 대다수 사람들을 동물로 윤회하게 했다. 그럼 하나님의 눈에 이방인은 어떤 존재이냐? 다 짐승인 것이다. 하나님은 짐승을 관리하고, 인류를 관리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도 하나님은 똑같은 원칙으로 대한다. 이런 사람에 대한 관리와 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법칙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방금 말한 이방인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원칙에서 하나님의 주재를 보았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았느냐?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만물 중의 무엇을 대하든지 하나님 자신의 원칙과 성품에 따라 일을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은 이런 부류의 사람을 짐승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자신이 정한 천상의 규율과 법령을 함부로 깨지 않는다. 하나님은 일을 할 때 원칙이 있어 절대 함부로 행하지 않으며, 어떤 요인에도 방해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든 자신의 원칙을 고수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피조물도 갖추지 못한 하나님 본질의 일면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만물 중 어떤 사물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생물이든 다 진지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처리하고, 대하고, 경영하고, 관리하고, 주재한다. 여태껏 무책임하게 대한 적이 없다. 그리하여 선한 사람은 은혜롭게 후하게 대하고, 악한 사람은 인정사정없이 벌준다. 또한, 모든 생명을 각 시기의 인류 세계의 요구에 맞춰 제때에 정기적으로 적절히 안배한다. 그러면 모든 생물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규칙적으로 윤회하며, 물질세계와 영계 사이를 규칙적으로 오가게 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0>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93)

한 생명의 죽음, 육체 생명의 마감은 이 생명이 물질세계에서 영계로 들어감을 의미하고, 새 생명의 탄생은 이 생명이 영계에서 물질세계로 넘어와 자신이 맡고 담당할 역할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가는 것도, 오는 것도 모두 영계의 사역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사람이 오는 것, 한 사람이 어떤 가정, 어느 시대, 어느 시각에 와서 어떤 역할을 맡는지는 모두 영계에서 하나님이 적절히 안배하고 정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일생,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은 영계의 안배대로 조금도 어긋남 없이 전개된다. 그리고 이 육의 생명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끝나는지도 영계에서는 분명하게 알고 꿰뚫어 보고 있다. 하나님은 물질세계를 주재하고 영계도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의 정상적인 생사윤회를 그르치지 않고, 한 영혼의 생사윤회를 잘못 안배하지도 않는다. 영계의 각 직위에 있는 일꾼은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며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류 세계에서 사람에게 보이는 모든 물질 현상이 아무 혼란 없이 질서 정연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법칙에 따라 만물을 주재하기 때문이자 하나님의 권병이 모든 것을 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재하는 모든 것에는 인류가 살아가는 물질세계는 물론, 인류 뒤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영계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인류가 좋은 생활과 좋은 생존 환경을 원한다면 사람이 볼 수 있는 모든 물질세계의 공급 외에, 인류를 위해 생명을 관리하는 영계의 질서 있는 공급도 필요한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0>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94)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생사윤회

방금 우리는 첫 번째 부류인 이방인의 생사윤회를 이야기했다. 이제 두 번째 부류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생사윤회를 이야기해 보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생사윤회’라는 주제도 아주 중요하고, 너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다. 먼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신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 보자.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등 5 대 종교가 있다. 이방인을 제외하고 이 5 대 종교를 믿는 사람이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높다. 이 5 대 종교에 성직자는 그리 많지 않지만 일반 신도는 많다. 이 각 종교의 신도들은 죽은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간다. 여기서 말한 ‘다른’은 누구와 다르다는 말이나?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아무 신앙도 없는 이방인과 다른 것이다. 그들은 죽은 후 다른 곳으로, 이방인이 죽은 후 갈 곳과 다른 곳으로 간다. 순서는 똑같다. 영계는 그들이 생전에 한 행위에 따라 그들을 판단하고 각각 달리 처리한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다른 곳에 두고 처리하느냐?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해 주겠다. 내가 말해 주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믿기 때문이겠지! 적어도 완전한 불신자는 아니잖아.’ 그런 이유가 아니다. 여기에는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불교를 예로 들어 한 가지 사실을 알려 주겠다. 한 불교도가 있다. 일단 그는 불문에 귀의한 자로,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불교도가 삭발하고 승려나 비구니가 되면 그것은 속세를 떠나고 인간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났음을 뜻한다. 그는 매일 독경·염불하며, 채식을 하고, 등잔불과 함께하는 청빈한 생활을 하며 그렇게 자신의 일생을 살아간다. 그의 육의 생명이 끝날 때 그는 자신의 일생을 정리해 볼 것이다. 하지만 죽은 후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결말을 맞을지는 모른다. 그는 그냥 맹목적으로 한 가지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고, 또 맹목적인 소망과 이상(理想)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난다. 그가 세상을 떠나면 그의 육의 생명은 그렇게 끝난 것이고, 그런 다음 영계의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 사람이 환생하여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그 사람의 생전 행위와 수행에 달렸다. 평생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머지않아 곧 인간 세상으로 보내져 두 번째로 윤회하고, 다시 승려나 비구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의 육의 생명은 첫 생과 같은 법칙에 따라 수행을 하고, 육의 생명이 끝나 영계로 돌아가면 영계의 검증을 받는다. 검증 후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인간 세상으로 돌아와 다시 불문에 입문해 수행을 계속한다. 이렇게 세 번에서 일곱 번의 윤회가 끝나고 다시 영계로, 그러니까 육의 생명이 끝날 때마다 갔던 그곳으로 돌아갈 때, 그의 여러 조건과 인간 세상에서의 행위가 영계의 계율에 부합하면 그때부터는 영계에 남는다. 더는 환생하여 인간이 되지도 않고, 인간 세상에 돌아가 나쁜 짓을 하고 벌받을 위험에 노출되지도 않는다. 다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계에 남아 그의 상황에 따라 직무를 하나 맡게 된다. 직무를 맡는 것이 바로 불교 쪽 사람들이 말하는 ‘열반에 든다’는 것이다. 열반에 든다는 것은 주로 영계에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더는 환생하지 않고, 더는 벌받을 일이 없으며, 환생하여 인간으로 살면서 생기는 번뇌도 없다는 것이다. 그럼 그들이 또 환생하여 동물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는 그가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영계에 남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에 관한 하나의 예이다. 그럼 열반에 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겠느냐? 열반에 들지 못한 사람은 영계에 돌아간 후 영계 일꾼의 검증과 확인을 거친다. 그 사람이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불교에서 규정한 대로 성실히 독경·염불하지 않고 오히려 갖은 악행을 저질렀다면, 영계에서는 그의 악행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고, 그는 분명 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언제 열반에 들 수 있겠느냐? 어느 생에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봐야 한다. 영계에 돌아가 그 사람이 생전에 나쁜 짓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면 다시 환생하여 독경·염불하는 청빈한 삶을 보낸다. 살생하지도 않고, 육식하지도 않고, 세상사에 참견하지도 않고, 인간 세상의 번뇌도 멀리하며, 사람들과 어떤 분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아무런 악행도 저지르지 않고 나중에 영계로 돌아가면, 영계에서는 그가 행한 모든 행실을 검증한 후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역시 세 번에서 일곱 번의 윤회를 거치게 된다. 중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는 아무 지장 없이 열반에 들 수 있을 것이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생사윤회는 이렇게 특별한 부분이 있다. 그들은 ‘열반에 들’ 수 있고, 영계에서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과 다른 점이다. 우선, 영계에서 직무를 맡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살아 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절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살인이나 방화를 저지르지 않고, 간음하거나 약탈하지 않아야 한다. 남을 속여 재물을 빼앗고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하면 열반에 들 수 없다. 다시 말해, 어떤 악행에 관련되면 영계에서 내리는 벌을 피할 수 없다. 영계는 열반에 든 불교도를 적절히 배치할 것이다. 어쩌면 불교나 천지신명을 믿는 것 같은 사람을 관리하게 할 수도 있다. 그들에게 일정한 범위를 정해 주어 관리하게 한다. 또 어쩌면 이방인만 관리하게 할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일꾼으로 배치할 수도 있다. 이는 각 영혼의 성격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한 예이다.

우리가 말한 다섯 가지 신앙에서 기독교는 좀 특별하다. 기독교는 어떤 점에서 특별하겠느냐? 그들은 참하나님을 믿는다. 참하나님을 믿는데 왜 여기에 분류되었느냐? 기독교를 일종의 신앙이라고 한 이상, 그것은 단순히 신앙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식만 행하는 것이고, 일종의 종교일 뿐이다.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신앙과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여기서 기독교를 5 대 종교 범주에 넣은 것은 기독교가 이미 유대교, 불교, 이슬람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종교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속한 대다수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는 더욱 믿지 않는다. 그들은 그냥 성경으로 신학을 가르치고, 신학으로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고생하고 좋은 일을 하라고 가르치기만 한다. 바로 이런 종교이다. 신학 이론만 중시하는 종교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영 사역과 아무 관련이 없는 종교이다. 하나님을 따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종교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는 데에도 원칙이 있다. 이방인을 대하듯이 임의로 처리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불교도를

대하는 것과 똑같이 대한다. 기독교 신도가 생전에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엄격히 십계명, 율법과 계명에 따라 행하면서 일생을 보내면, 그들도 똑같은 윤회를 거친 후에야 그들이 말하는 소위 ‘휴거’될 수 있는 것이다. ‘휴거’되면 영계에 남아 직무를 맡고 영계의 일꾼이 된다. 마찬가지로, 만약 살아 있을 때 악행을 저지르고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면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징벌이나 처벌을 받게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에 든다’는 것은 극락세계에 간 것이다. 그럼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천국에 들어간다’, ‘휴거된다’라고 말한다. 진짜 ‘휴거’될 수 있는 사람도 세 번에서 일곱 번의 윤회를 거친 것이다. 죽은 후 잠든 것처럼 영계로 돌아가는데, 합격이면 남아서 직무를 맡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더는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하고 일반적인 윤회를 겪지 않는다.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결말, 그들이 추구하는 결말은 불교의 열반과 표현만 다를 뿐 다 비슷하다. 하나님은 이 몇 개 종교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엄격히 종교적 규율에 따라 행한 사람에게 적절한 종착지나 갈 곳을 마련해 알맞게 처리한다. 이는 극히 합리적이지만 사람의 상상과는 다르다. 그렇지 않느냐? 기독교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듣고 나니 너희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그들을 위해 불공평함을 호소하고 싶거나 유감스러운 느낌은 없느냐?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들도 자업자득이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진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살아 있고 실제적이며, 하나님의 사역은 전 인류, 각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거부하는 것이냐? 왜 미친 듯이 대적하고 박해하는 것이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 정도의 결말이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이다. 너희는 왜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에게는 이런 처분도 이미 관대한 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정도에 따르자면 그들을 멸해 버려야 마땅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그들을 평범한 종교로 간주해 처리한다. 그럼 다른 종교는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모든 종교의 근본 취지는, 많이 고생하고,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말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시비를 멀리하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리가 이러하다. 그러니 신앙을 가진 사람, 즉 모든 종교인들이 엄격히 종교적 규율에 따라 행동하고 사는 동안 과도한 잘못이나 죄를 저지르지 않으며 세 번에서 일곱 번의 윤회를 거치면,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영계에 남아 직무를 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 그런 사람이 많느냐? (많지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많지 않다고 하느냐? 사람이 좋은 일을 하기란 어렵고, 규칙이나 계율을 지키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 너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하면 지킬 수 있겠느냐? 너에게 회색 도포를 입고 온종일 불당에서 독경·염불하라면 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에는 십계명이 있고 계명과 율법도 있다. 그것들을 지키기 쉬우냐? 쉽지 않겠지? 욕하지 말라는 그 한 가지도 사람은 지키지 못한다. 참지 못하면 욕한다. 뱀은 욕은 주워 담지 못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저녁에 죄를 자백하겠지? 가끔 욕을 하고도 마음속에 계속 증오심을 품고 있고, 더 나아가 언젠가 다시 혼내 주겠다는 생각까지 한다. 요컨대, 사람이 죽은

교리대로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않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 종교에서 수행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너는 각 종교에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 영계에 남아 직무를 맡을 수 있는 사람도 너무 많지 않겠냐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된다. 신앙이 있는 사람의 생사윤회는 대충 이렇다. 특별한 점은 그들이 ‘수행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방인과 다른 점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0>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95)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생사윤회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생사윤회를 이야기해 보자. 이는 너희와 관련되는 일이니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 먼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몇 부류로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의 선민과 봉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민과 봉사자,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하나님의 선민에 대해 말해 보자. 이 부류의 사람 수는 많지 않다. ‘하나님의 선민’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고 인류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따를 일부 백성을 택했는데, 그들을 약칭하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이들을 택할 때는 특별한 범위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범위란 이들은 하나님이 중요한 사역을 할 때마다 반드시 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특수성이다. 그럼 의미는 무엇이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만큼 그 의미는 매우 크다. 즉, 하나님은 이들을 만들고, 이들을 온전케 하고, 경영 사역이 끝날 때 이들을 얻으려는 것이다. 그 의미가 크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선민들은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존재다. 이들은 하나님이 얻으려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럼 봉사자는 어떠하냐? 우선 운명적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제쳐 두고 봉사자의 유래를 말해 보자. ‘봉사자’는 글자 그대로 봉사하는 자다. 봉사하는 자들은 장기적이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임시로 불러 모아 고용한 자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이방인 가운데서 택한 것이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봉사자로 정해졌을 때 그들의 전생은 어쩌면 동물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다. 이것이 봉사자의 유래이다.

다시 하나님의 선민을 이야기해 보자. 하나님의 선민도 죽은 후에 어떤 곳으로 가게 된다. 이곳은 이방인이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과 완전히 다른 곳이다. 이곳은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곳이다. 하나님의 선민이 이곳에서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이곳은 영계의 그 어떤 곳과도 다른 곳이며, 하나님의 선민이 죽은 다음 가는 곳이다. 그들도 죽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엄격히 심사한다. 무엇을 심사하겠느냐? 그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온 길을 심사한다.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있는지, 하나님을 욕한 적이 있는지, 심각한 죄나 악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그런 심사를 거친 후 그 사람을 내보낼지 남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보낸다’는 것과 ‘남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내보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근거로 그를 하나님의 선민 대열에 계속 남겨 둘지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남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말세에 만들고자 하는 인류의 범위에 계속 남을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남은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특별한 배치를 한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각 시기마다 이런 사람을 보내 사도가 되게 하거나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역 혹은 교회를 목양하는 사역을 하게 한다. 하지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방인처럼 한 세대 또 한 세대 빈번하게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역의 필요와 사역 단계에 따라 윤회한다. 이런 사람은 자주 환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 ‘환생’에 법칙이 있느냐? 몇 년에 한 번씩 환생하는 것이냐? 그런 빈도가 있느냐? 역시 없다.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 단계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환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해진 것은 없다. 유일하게 정해진 것은, 말세에 하나님이 마지막 단계 사역을 할 때 선민들이 모두 환생한다는 것이다. 그들 ‘모두의 환생’은 맨 마지막 윤회를 의미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하나님이 마지막 단계 사역에서 거둘 효과를 놓고 말한 것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 선민들을 완전히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뜻하느냐? 이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만들어지고 온전케 되면 더는 예전처럼 윤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사람으로 사는 과정, 윤회의 과정이 완전히 끝난다는 뜻이다. 이것은 남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남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가겠느냐? 남지 못한 사람에게는 적합한 곳이 있다. 우선, 그의 악행, 그가 저지른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 벌을 받기 마련이다. 그가 벌을 받은 후, 하나님은 적절한 상황에 따라 그를 이방인이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안배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벌을 받은 후 다시 윤회하여 어쩌면 어떤 종교를 믿으며 살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이 될 수도 있다. 이방인이 되면 모든 기회가 사라진다. 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이 되면,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 되면 다시 하나님의 선민 대열로 돌아올 수도 있다. 여기에는 복잡한 관계가 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선민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짓을 하면 마찬가지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전에 언급했던 바울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는 아직도 벌을 받고 있다. 요점을 알아들었느냐? 하나님 선민에 속한 사람은 고정되어 있느냐? (대부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고정되어 있다. 일부는 왜 고정되어 있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악행을 저지른 것이다. 악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자를 각 인종, 각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로 보내 버린다. 그렇게 되면 더는 희망이 없고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 이것이 하나님 선민의 생사윤회에 관한 것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0>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96)

다음은 봉사자의 생사윤회에 관한 것이다. 방금 봉사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얘기했다. 다시 말해서, 봉사자는 전생에 이방인과 동물을 넘나들며 환생했던 자들이다. 마지막 이

단계에 이르러,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 이런 사람을 일부 택했는데, 이는 특수한 무리이다. 이런 사람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봉사’라는 단어가 고상하게 들리지도 않고 모든 사람의 바람에 부합하지도 않겠지만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지 봐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의 존재도 특별한 의미가 있고, 이들이 하는 역할 역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봉사자의 역할은 무엇이나? 바로 하나님의 선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선민을 온전케 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다. 이들이 힘을 쓰든, 어떤 사역을 하든, 혹은 어떤 직무를 맡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나? 높이 요구를 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충성스러운 봉사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봉사자도 충성을 다해야 한다. 네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든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너를 택했든 너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이 네게 맡긴 사명에 대해, 네가 맡은 사역에 대해, 이행할 본분에 대해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 봉사자가 충성을 다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흠족게 한다면, 어떤 결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살아남을 수 있다. 봉사자에게 있어 살아남는 것은 복이 아니냐? 살아남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위 면에서 하나님의 선민과 좀 다르고 차이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봉사자가 금생에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민과 같지 않느냐? 최소한 금생에 누리는 것은 같다. 이는 너희도 부인하지 않겠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공급, 축복을 누리지 못한 자가 있느냐? 누구나 풍성하게 누렸다. 봉사자의 신분은 봉사자이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들도 피조물의 일원이며, 그저 이들이 맡은 역할이 봉사자일 뿐이다. 피조물의 일원으로서 봉사자는 하나님의 선민과 차이가 있느냐? 사실상 차이는 없다. 명칭과 본질, 맡은 역할에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불평등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이들을 봉사자로 정했겠느냐? 이에 대해 너희는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봉사자는 이방인 가운데서 온 자들이다. 이방인 가운데서 왔으니 이들의 본바탕은 좋지 않다. 이들은 전부 무신론자들이다. 이들의 본바탕을 말하자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을 적대시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동물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한다.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들에게는 앞서 말했던 생명이 없는 것이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진리를 갖겠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이나 인식을 갖겠겠느냐?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자의 유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봉사하라고 한 이상 이들에 대한 요구 기준이 있다. 결코 이들에게 멸시나 대충 대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명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들을 우대하며 이들에 대한 요구 기준이 있다. 그 요구 기준은 방금 너희도 말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말을

잘 듣고, 제대로 봉사하고, 끝까지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네가 충성스러운 봉사자로서 마지막까지 봉사하고 하나님이 네게 맡긴 사명을 완벽히 완수한다면, 너의 금생은 가치 있게 되고, 너는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네가 좀 더 힘을 내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좀 더 힘을 내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좀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게 된다면, 봉사자인 너에게 전환점이 있게 된다. 이 전환점은 무엇일까?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네 행위와 개인적인 소망과 추구에 따라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선민에 넣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환점이다. 이 전환점이 봉사자에게 가져다줄 최고의 이점이 무엇이나?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는 것은 너는 이방인들처럼 사람과 동물을 넘나들며 윤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냐? 좋은 일이고 좋은 소식이다. 바꿔 말하면, 봉사자의 상황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봉사자로 정했다고 해서 그가 영원히 봉사만 하는 것은 아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은 개인의 행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대우하고 서로 다른 답을 줄 것이다.

하지만 봉사자가 끝까지 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서, 봉사하는 동안 어떤 사람은 중도에 포기한 채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일들을 많이 저지를 수도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상당한 파괴를 초래하고 막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등등의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악행은 어떤 결과를 의미하느냐? 이 모든 악행은 봉사자의 봉사 중단을 의미한다. 이는 네가 형편없이 봉사한 데다 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네 봉사가 크게 자격 미달이어서 너는 봉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너의 봉사자 자격을 박탈하고, 너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너는 봉사하기 싫은 것이 아니었느냐? 늘 나쁜 짓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느냐? 늘 충성심이 없지 않았느냐? 그럼 좋다. 이 일은 해결하기 쉽다. 너의 봉사자 자격을 박탈하면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의 봉사자 자격이 박탈되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 봉사자의 결말이 이미 선포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더는 봉사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봉사를 더는 원치 않는 것이다. 그 사람이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해도 소용없다. 그 지경에 이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 봉사자는 되돌아올 길이 없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봉사자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단지 그 사람이 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겠느냐? 아니다. 아니면 단지 그 사람이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겠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마음을 돌릴 때까지 한쪽에 내버려 두고 기다리겠느냐?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봉사자에 대해 그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데에 있어서 사람의 태도가 이렇다면, 그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봉사자 자격을 박탈하고, 다시 그를 이방인 가운데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방인들 가운데로 보내지면 그 봉사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방인과 똑같이 사람과 동물을 넘나들며 윤회하고, 이방인이 영계에서

받는 별을 받게 된다. 어떻게 처벌할지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역과 아무 관계도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삶의 끝일 뿐만 아니라 그의 운명의 끝이자 운명에 대한 판결이다. 그러므로 봉사자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결과 역시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봉사자가 끝까지 봉사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봉사자 자격이 박탈되면, 그 봉사자는 이방인들 가운데로 보내지고, 이방인들 가운데로 보내지면 짐승처럼 취급된다. 생각이나 이성이 없는 그런 부류의 인간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 이제는 알겠지?

하나님의 선민과 봉사자의 생사윤회에 대한 처리는 이렇다. 듣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내가 방금 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과 봉사자에 관한 이야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느냐? 사실 예전에 한 적이 있지만 너희가 기억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과 봉사자를 공의롭게 대한다. 어느 모로 보나 다 공의롭다. 그렇지 않느냐? 흠잡을 만한 부분이 있느냐? “하나님은 왜 선민에게 그토록 관대하게 대하십니까? 왜 봉사자에게는 그 정도의 인내밖에 쓰시지 않습니까?”라고 물을 자가 있느냐? 봉사자를 위해 불공평을 호소하고 싶은 자가 있느냐? “봉사자에게 좀 더 시간을 주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관대하게 대할 수 없습니까?” 이 말은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느냐? (봉사자가 되는 것도 사실 저희에게 행운이기 때문입니다.) 봉사자가 된 것은 사실 행운이다! 봉사자라는 호칭이 없고 봉사자의 사역이 없었다면, 봉사자들은 어디에 있겠느냐? 이방인 가운데서 짐승과 생사를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 집으로 와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은 엄청난 은혜다! 하나님이 네게 봉사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올 기회가 없을 것이다. 한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자. 네가 불교인 중 열반에 든 사람이 된다 해도 너는 영계에서 기껏해야 심부름꾼밖에 못 한다.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네게 주는 사랑과 축복을 느낄 수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도 없다.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간단한 직무뿐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저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기만 한다. 하지만 봉사자가 이 단계 사역에서 얻는 것은 참으로 많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을 느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준 말씀과 진리를 누릴 수 있다. 정말이지 얻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니 네가 봉사자로서 봉사하는 것조차 제대로 못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남겨 둘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너를 남겨 둘 수 없다. 네게 그리 대단한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무엇 하나 잘 해내지 못하고, 자신의 본직 사역을 지키지 못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너를 남겨 둘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다. 하나님은 너를 총애하지 않지만 불공평하게 대하지도 않는다. 이는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으로, 어떤 사람을 대하든, 어떤 피조물을 대하든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한다.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97)

영계에 있는 각종 생명들도 잘못을 저지르거나 일을 잘못 수행하면 하나님은 그에 해당하는 천상의 규율과 법령에 따라 그들을 처벌한다. 이것은 틀림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수천 년 경영 사역 중에서, 잘못을 저질렀던 일부 일꾼들은 멸망되었고, 어떤 일꾼들은 지금까지도 구금되어 벌을 받고 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이 반드시 직면해야 할 사실이다. 누구든 잘못을 저지르거나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게 된다. 이 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민이나 봉사자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영계에서든 물질세계에서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네가 볼 수 있든 없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자신의 원칙에 따라 만물을 대하고 처리한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서 비교적 착하게 사는 사람을 잘 대해 준다. 그리고 각 종교에서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만물 속에서 제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게 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선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이런 원칙에 따라 그 누구도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잘 대해 주고 사랑한다. 다만 이방인부터 신앙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까지, 하나님이 각 부류의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방인을 보아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들을 짐승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만물 속에서 그들은 어느 누구나 먹고 살 수 있고, 머물 자리가 있으며, 정상적인 생사유회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악을 행한 자는 징벌하고,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잘 대해 준다. 그렇지 않느냐? 신앙이 있는 사람의 경우, 엄격하게 종교 규칙을 지키며 한 생 한 생 살아가면, 결국 그들의 유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공정한 결론을 내린다. 오늘의 너희에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선민이든 봉사자든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행정과 조례에 따라 이들의 행위를 규범화하고 이들의 결말을 정한다. 이 몇 부류 사람 중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모든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생존할 공간을 주지 않았느냐? 유대교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간섭했느냐?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지? 기독교는 어떠냐? 역시 간섭하지 않고, 그들이 자신들의 질서에 따라 그렇게 지키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도 않고, 계시해 주지도 않으며, 뭔가를 밝히 드러내지도 않는다. 그렇게 믿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믿으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다. 천주교인은 마리아를 믿고, 마리아를 통해 예수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그들의 신앙은 이렇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준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상관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도 일정한 생존 공간을 주었다. 이슬람교인과 불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들에게도 일정한 범위를 그들만의 생존 공간으로 정해 주었고, 그들의 신앙도 간섭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질서가 있다. 여기서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권병을 가지고 있지만

권병을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만물을 일사불란하고 질서 정연하게 배치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전능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0>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98)

하나님 자신의 신분과 지위

하나님은 만물을 주재하는 분이자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했고 또 다스리고 있으며, 동시에 만유를 주재하고 만유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위이고, 하나님의 신분이다. 만유에게 있어, 또 만물에게 있어 하나님의 진짜 신분은 창조주이자 만물의 주재자이다. 하나님은 이런 신분을 지녔고 하나님은 만물 중에서 유일무이한 분이다. 인류, 그리고 영계의 어떤 피조물도 어떤 방식이나 명목으로든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대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신분을 지닌 분, 이런 능력과 권병을 지닌 분, 만물을 주재할 수 있는 분은 만물 가운데에 단 한 분밖에 없으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는 만물 가운데서 살고 만물 가운데서 다닌다. 그는 지극히 높이 올라 만물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을 낮춰 피와 살이 있는 인간의 일원이 되어 사람과 대면하거나 동고동락할 수도 있다. 동시에 그는 만유를 주관하며 만유의 운명과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더욱이 전 인류의 운명과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고 있다. 이런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이 경배하고 순종해야 할 분이자 마땅히 알아야 할 분이다. 그러므로 네가 인류 중의 어느 부류에 속하든, 네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정해 놓은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모든 사람,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의 유일한 선택이자 필수 선택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유일무이함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권병과 공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만물에게 공급하는 방식이 모두 유일무이함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유일무이함으로 하나님 자신의 참된 신분과 하나님 자신의 지위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피조물 중에서, 영계에 있거나 인류 가운데 있는 어떤 생명체라도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을 사칭하려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것은 사실이다. 하나님 자신의 신분, 하나님 자신의 능력, 하나님 자신의 지위를 지닌 창조주이자 주재자가 인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명확히 알고 명심해야 할 것으로,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다 매우 중요하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0>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199)

하나님을 대하는 인류의 다양한 태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처리 방법도 결정된다. 여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일부 방식을 열거해 보겠다. 하나님을 대하는 이런 방식과 태도가 옳은지, 틀린지 들어 보거라. 다음 일곱 부류 사람의 태도를 보자.

1)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황당하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전설에서 들은 보살이나 성자(聖者)처럼 만나면 머리를 세 번 조아리고 식사 후 향 하나를 피우길 원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종종 이런 충동을 느낀다.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자신들이 마음속으로 동경하는 그 성자처럼 '만나면 머리를 세 번 조아리고 식사 후 향 하나를 피우는' 대우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다.

2)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생을 제도(濟度)하고 구제할 수 있는 '살아 있는 부처', 자신을 고해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살아 있는 부처'로 여긴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부처로 여기며 섬긴다. 향을 피우거나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거나 제물을 바치지 않는 않지만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은 단지 선행하고, 베풀고, 살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성실하게 살고,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처'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 마음속의 하나님이다.

3)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이 숭상하는 위인이나 명사로 여긴다. 예를 들어, 위인이 즐기는 말하기 방식, 말할 때의 어조,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 단어 선택법, 말투, 제스처, 행동거지 등은 모두 그들이 따라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완전히 닮고 싶어 하는 것이다.

4)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여기며 그는 지고지상한 분이고, 누구도 감히 거스를 수 없으며, 거스르는 사람은 그의 제재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이런 통치자를 숭상하는 이유는 이런 통치자들이 그들 마음속에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치자의 사상, 행동 양식, 권세와 본성은 물론 통치자들의 취미와 사생활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되고, 그들이 관심을 두는 문제이자 일이 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한 명의 통치자로 여기며 숭상한다. 이는 아주 황당한 믿음법이다.

5)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얇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리 많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의 우상으로 여기며 경배한다. 이 우상이 바로 그들 마음속의 하나님이다. 바로 그들이 무릎 꿇고 절할 대상이자 경외할 대상이다. 또한 그들이 따르고, 본받을 대상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우상으로 삼고, 이 우상을 자신들이 평생 추종할 대상으로 삼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투를 따라 하고, 길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본받는다. 늘 유치해 보이는 일을 하고, 순수하고 정직해 보이는 일을 한다. 심지어 이 우상을 자신과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반려나 친구로 여기며 추종한다. 그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6)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은 도를 들었음에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대하는 유일한 방식(직역: 취지)이 아부와 아첨, 혹은 현실에 맞지 않는 자랑이나 찬미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렇게 대하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노여움과 미움을 살 수 있으며, ‘미움을 산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처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 마음속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7) 그리고 대다수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정신적 의지처로 삼는다. 세상을 살다 보면 평안하지 않고 즐겁지 않은 데다 위안을 얻을 곳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된 후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다행이라 여긴다. 그들은 드디어 정신적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았고, 정신적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른 후부터 그들의 정신은 즐거워졌고 생활은 충실했다.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처럼 흐리멍덩하게 지내지도, 짐승처럼 살지도 않고, 자신의 인생에 희망이 생겼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하나님이 그들의 정신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그들의 마음과 정신에 큰 즐거움을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자신의 정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즐거움을 안겨 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정신적으로 의탁할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상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 부류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들이 너희 가운데 존재하느냐? (네.)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태도 중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겠느냐? 마음속에 이런 태도 중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겠느냐?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네가 믿는 것이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면 네가 믿는 것은 누구겠느냐? 네가 믿는 것이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면 네가 믿는 것은 우상일 수도, 위인일 수도 있고, 보살일 수도 있다. 네가 섬기는 것이 마음속의 부처일 수도 있고, 네가 믿는 것이 평범하디 평범한 사람일 가능성은 더 크다. 요컨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믿음법과 태도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끌어다 놓고, 자신의 상상을 하나님께 갖다 붙이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상상을 유일무이한 하나님과 나란히 둔 다음 이를 모시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당한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이 참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신을 모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대적하며, 참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 이런 믿음법을 고수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느냐? 이런 믿음법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요구에 점점 가까워질 수 있겠느냐?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 반대다. 사람이 자기 관념과 상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도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다. 그것은 네가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방향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남원북철(南轅北轍)’ 이야기를 들어 봤느냐? 바로 이렇게 수레의 끌채는 남을 향하고 바퀴는 북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황당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가 힘을 쓸수록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경고한다. 너희가 힘을 쓰기 전에 반드시 방향의 옳고 그름을 확인하거라. 함부로 힘을 쓰지 말고 자신에게 꼭 이렇게 묻거라.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만물의 주재자일까?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단지 내 정신적 의지처일까? 그가 내 우상일까?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인정할까? 내가 행한 모든 것,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일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맞추고 있는 것일까? 내가 걸어온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고 인정하는 길일까?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믿음에 만족할 수 있을까?’ 이렇게 늘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반복적으로 물어보아라.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어 반드시 뚜렷한 의식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흡족게 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0> 중에서

매일의 하나님 말씀(발췌문 200)

하나님이 요구한, 인류가 하나님께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

사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높지 않다. 최소한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선포하지 않고, 어떤 성품도 나타내지 않고, 어떤 행사도 나타내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있어 하나님을 아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추측해야 하는데, 이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의 사역에서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했고, 수많은 사역도 했고, 사람에게 많은 요구도 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행한 많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혐오하는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는지를 알게 했다. 사람은 이런 것을 알고 난 후에 자기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더 이상 막연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막연하거나 공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요구 기준을 이해하고 거기에 닿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류의 언어로 모든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일을 알려 주었으니 말이다. 지금도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모르고,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는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대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 인류에 대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요구는 5 가지다. 바로 진심으로 믿고, 충실히 따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진실로 알고, 진심에서 우러나와 경외하는 것이다.

이 5 가지는 바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상상과 막연한 관점, 어떤 공상적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말라는 요구이다.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딴마음을 품거나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라는 요구이다. 하나님이

네게 어떤 요구를 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시련을 줄 때, 너를 심판할 때, 너를 책망하고 훈계할 때, 너를 징계하고 칠 때 너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유도 묻지 말고, 조건을 달지도 말고, 원인은 더더욱 말하지 말고, 반드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다. 사람은 늘 하나님과 무관한 말들을 하나님께 억지로 갖다 붙인다. 그들은 그런 말이 하나님에 대한 앎의 가장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의 상상과 추론에서 비롯된, 지식을 통해 도출한 견해들이 하나님의 본질과 아무 관계도 없는 것임을 모른단 말이나?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그저 알아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길 원한다. 설사 너희가 한 마디만 할 수 있다 해도, 너희가 티끌만큼만 알고 있다고 해도 그 티끌만 한 앎이 정확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자신의 본질에 부합한 것이길 원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실제에 맞지 않게 멋대로 찬미하고 자랑하는 것을 혐오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공기처럼 생각하는 것을 더욱 혐오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주제를 논할 때 되는대로 말하고, 멋대로 논평하고, 함부로 지껄이는 것을 혐오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여겨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떠벌리며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하나님에 관한 주제를 논하는 사람은 더욱 혐오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한 가지, 즉 진심에서 우러나와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요구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 참된 인식이 생기게 되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된다. 이 경외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또한 기꺼이 원한 것이지 하나님이 강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께 어떤 좋은 태도, 좋은 모습, 표면적인 좋은 행동을 보이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을 갖길 원한다. 이 경외는 네 생명 성품의 변화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앎,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앎, 하나님 본질에 대한 앎으로 인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진심에서 우러나온’이라는 말로 경외를 정의했는데, 이는 인류에게 하나님에 대해 사람이 가져야 할 경외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야 함을 알리기 위함이다.

지금 이 5 가지 요구를 보아라. 너희 가운데 그중 앞 3 가지 요구 사항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바로 진심으로 믿고, 충실히 따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말이다. 너희 가운데 있느냐? 5 가지를 말하면 분명 너희 가운데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내가 3 가지로 범위를 좁혔으니 자신이 달성했는지 가늠해 보아라. ‘진심으로 믿는다’, 이 요구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달성하기 어렵다.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충실히 따르는’ 것은 어떠하냐? ‘충실’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판마음이 없는 일편단심을 말합니다.) 판마음이 없는 일편단심이라, 정말 잘 말했다! 그럼 너희는 이 요구 사항을 달성할 수 있느냐?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지금 아직 달성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그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달성했느냐? (못했습니다.) 역시

달성하지 못했다. 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말을 듣지 않는 데다가 순종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말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으니 말이다. 이것은 사람이 생명 진입 후 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3 가지 요구 사항으로, 너희는 아직 달성할 수 없다. 그럼 지금 너희의 잠재력은 크지 않느냐? 지금 내 말을 다 듣고 나니 조급해지지 않느냐?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는 것이 맞다. 조급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너희 때문에 조급하다. 나머지 2 가지 요구는 말하지 않겠다. 분명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조급해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목표를 확정했느냐? 어떤 목표와 방향으로 추구하고 노력해야겠느냐? 목표가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솔직하게 알려 주겠다. 너희가 이 5 가지 요구를 달성할 그때면 하나님은 만족할 것이다. 각 요구마다 하나의 지표이다. 모두 생명 진입이 성숙해졌다는 하나의 지표이자 최종적 목표이다. 그중 어느 한 가지를 따로 꺼내서 자세히 설명하며 너희에게 요구한다 해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이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은 공을 들여야만 가능하다. 너희 모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겠느냐? 모두 암 환자가 수술대에 오르는 것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만족을 얻으려면, 고통받지 않고 공들이지 않고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네가 이렇게 많은 도를 듣긴 했지만 들었다고 해서 이 도가 바로 네 것이 됐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도를 흡수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네 개인의 생명, 네 개인의 생활 속으로 가져가 이 말과 도가 네게 생존의 방향을 알려 주고, 네 생명에 생존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불어넣게 해야 한다. 그러면 네가 이 말들을 들은 보람이 있는 것이다. 내가 한 이 말들이 네 삶에 아무런 전환점을 가져다주지도 못하고, 네 생명에 존재의 가치를 불어넣어 주지도 못하면 이 말들은 헛들은 것이 된다. 알았지? 알았다면 남은 일은 모두 너희 자신의 몫이다. 반드시 공을 들여야 한다! 어떤 일이든 반드시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 건성건성 대하지 말아라. 세월은 빨리 흐른다. 사실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지 벌써 십여 년이 됐다. 그럼 한번 돌아보아라. 십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느냐? 사람의 일생에 이런 십여 년이 몇 번이나 더 있겠느냐? 시간은 길지 않다. 하나님이 사역할 때 너를 기다려 주진 않을까, 너에게 기회를 남겨 두진 않을까, 하나님이 같은 사역을 다시 하진 않을까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너의 지난 십 년은 되돌릴 수 있겠느냐? 하루가 지날 때마다, 네가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네게 남은 세월은 하루씩 짧아진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일을 일생의 중대사로 삼고 대해야 한다. 먹고 입는 것보다, 네 인생의 어떤 일보다 중요하게 대하면 수확이 있을 것이다! 네가 늘 심심풀이로 믿고, 믿음에 전념하지 못하고, 늘 건성으로 믿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0>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복음 웹사이트

<https://kr.kingdomsalvation.org>



웹사이트



APP

YouTube : <https://www.youtube.com/godfootstepsko>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kingdomsalvation.kr>

Twitter : https://twitter.com/godfootsteps_kr

KakaoStory : <https://story.kakao.com/ch/cagchurch>

Naver Blog : <http://blog.naver.com/godfootsteps>

Email : contact.kr@kingdomsalvation.org